나주의병사 2

자료편(조선시대 나주의병)

2022

나주의병사 2

자료편(조선시대 나주의병)

2022

나주시
NAJU CITY

차 례

1장 조선시대 나주의병 관련 자료조사

1. 개요 ····· 5
2. 임진왜란·정유재란기 활동 의진별 의병 명단 ····· 6
3. 정묘·병자호란기 활동 의진별 의병 명단 ····· 11
4. 나주의병 관련 인용자료 해제 ····· 14
   1) 나주지역 자료 ····· 14
   2) 기타 문집자료 ····· 16

2장 조선시대 나주의병 관련 문헌조사

1. 한국 문헌의 개별 의병장 관련 자료 ····· 19
   1) 김경남(金景男) ····· 19
   2) 김 명(金 溟) ····· 22
   3) 김 부(金 溥) ····· 23
   4) 김상건(金象乾) ····· 25
   5) 김 선(金 璇) ····· 32
   6) 김천일(金千鎰) ····· 50
   7) 김희수(金希壽) ····· 149
   8) 나대용(羅大用) ····· 152
   9) 나덕명(羅德明) ····· 165

10) 나덕헌(羅德憲) ····· 182
11) 나위소(羅緯素) ····· 187
12) 나해봉(羅海鳳) ····· 192
13) 남 유(南 瑜) ····· 201
14) 노 인(魯 認) ····· 204
15) 류 준(柳 浚) ····· 208
16) 류지경(柳持敬) ····· 211
17) 서정후(徐廷厚) ····· 213
18) 서진명(徐晉明) ····· 215
19) 송기원(宋起源) ····· 216
20) 양산룡(梁山龍) ····· 219
21) 양산숙(梁山璹) ····· 236
22) 오득린(吳得隣) ····· 277
23) 윤정훈(尹廷勳) ····· 280
24) 이몽구(李夢龜) ····· 283
25) 이 설(李 渫) ····· 289
26) 이용제(李容濟) ····· 293
27) 이정건(李廷楗) ····· 300
28) 이 확(李 廓) ····· 306
29) 임 전(任 鍊) ····· 321
30) 임 환(林 懽) ····· 338
31) 임 회(林 檜) ····· 382
32) 장이길(張以吉) ····· 399
33) 정 상(鄭 詳) ····· 405
34) 정 심(鄭 諶) ····· 418
35) 최시망(崔時望) ····· 428
36) 최신헌(崔身獻) ····· 435

37) 최　완(崔　綩) ····· 442
38) 최　욱(崔　澳) ····· 445
39) 최희량(崔希亮) ····· 450
40) 최희립(崔希立) ····· 458
41) 최희열(崔希說) ····· 459
42) 홍　원(洪　遠) ····· 465
43) 홍천경(洪千璟) ····· 468
2. 일본 문헌 속의 사건별 나주의병 자료 ····· 489
1) 제2차 진주성 전투 ····· 489
2) 정유재란 ····· 508
3) 남원성 전투 ····· 510
4) 전주 회의와 전라도 남부 침략 ····· 514
5) 코베기 ····· 529
3. 미고증 의병 명단 ····· 531

참고문헌 / 532

1장 조선시대 나주의병 관련 자료조사

1. 개요

『나주의병사』 2권은 임진·정유재란과 정묘·병자호란 당시 의병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의 조선시대 의병관련 자료조사는 『호남절의록』, 『금성읍지』, 『광주전남 오란충의사록(이하 충의사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같은 인물 기준, 세 자료 중 한 자료라도 나주·남평 출신이면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임진·정유재란 기준 나주의병은 『호남절의록』 112명, 『금성읍지』 88명, 『충의사록』 180명, 기타 1명으로 총 명단은 185명이다.

정묘·병자호란 기준 나주의병은 『호남절의록』 25명, 『금성읍지』 44명, 『충의사록』 76명이며 총 명단은 80명이다.

세 자료 모두 나주·남평이 아니지만 후손 및 관련유적이 현재 나주 행정구역에 위치한다면 대상자로 포함시켰으며 세 자료에서 나오지 않지만 기타 자료에서 나주의병으로 확인된 인물 또한 포함하였다.

다음의 의병 명단은 지역(나주-남평-그 외 지역)-소속 의진 및 활동-성명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2. 임진왜란 · 정유재란기 활동 의진별 의병 명단

연번	성명	본관/자/호	소속 의진(활동)	지역
1	김산수(金山壽)	金海/미상/미상	개별창의	나주
2	이 결(李 潔)	慶州/미상/미상	개별창의	나주
3	정지함(鄭之諴)	河東/叔和/慕菴	개별창의	나주
4	조언성(曺彦誠)	陽城/미상/미상	개별창의	나주
5	최 완(崔 綩)	隋城/仲吉/미상	개별창의	나주
6	최천범(崔天範)	海州/汝明/石軒	개별창의	나주
7	반순양(潘順洋)	南平/允登/石溪	개별창의	남평
8	정거세(鄭巨世)	羅州/미상/미상	고경명	나주
9	조언수(曺彦壽)	昌寧/一汝/松菴	고경명	나주
10	정준일(鄭遵一)	晉州/擇中/向北堂	고경명	남평
11	정 현(鄭 晛)	晉州/瑞昇/草心堂	고경명	남평
12	최응룡(崔應龍)	朔寧/士端/松菴	고경명	남평
13	최후립(崔厚立)	慶州/汝中/野亭	고경명	남평
14	홍민성(洪民聖)	豊山/汝中/石溪	고경명	남평
15	홍민언(洪民彦)	豊山/季偉/壺隱	고경명	남평
16	홍시정(洪時珽)	豊山/士瀅/蒼崖	고경명	남평
17	김육생(金六生)	金海/미상/미상	공신	나주
18	나 굉(羅 泓)	羅州/深原/直齋	관군	나주
19	이지효(李止孝)	咸平/仲純/미상	관군	나주
20	김진룡(金震龍)	光山/미상/미상	권율	나주
21	노 의(魯 誼)	咸平/미상/미상	권율	나주
22	노 인(魯 認)	咸平/公識/錦溪	권율	나주
23	배경복(裵景復)	達城/重初/미상	권율	나주
24	안세침(安世琛)	順興/미상/望華堂	권율	나주
25	양대박(梁大樸)	濟州/미상/미상	권율	나주
26	이광선(李光先)	咸平/汝孝/文村	권율	나주
27	장이경(張以慶)	興德/天休/松亭	권율	나주
28	최 찬(崔 纘)	隋城/伯承/孤松	권율	나주
29	최희열(崔希說)	隋城/景賚/三州	권율	나주
30	송기원(宋起源)	新平/希進/櫓隱	기효증	남평
31	김경남(金景男)	光山/大述/梅竹堂	김제민	나주
32	김국서(金國瑞)	金海/미상/미상	김제민	나주

연번	성명	본관/자/호	소속 의진(활동)	지역
33	김 경(金 憬)	光山/미상/미상	김천일	나주
34	김광운(金光運)	光山/彦久/剋念齋	김천일	나주
35	김무신(金武信)	金海/미상/미상	김천일	나주
36	김상건(金象乾)	彦陽/建甫/미상	김천일	나주
37	김시헌(金時獻)	光山/大元/河隱	김천일	나주
38	김영립(金榮立)	金海/春甫/미상	김천일	나주
39	김천일(金千鎰)	彦陽/士重/健齋	김천일	나주
40	김태명(金泰溟)	棠岳/鵬擧/松圃	김천일	나주
41	나덕양(羅德讓)	羅州/得之/미상	김천일	나주
42	나덕인(羅德仁)	錦城/미상/미상	김천일	나주
43	양산룡(梁山龍)	濟州/宇翔/미상	김천일	나주
44	양산숙(梁山璹)	濟州/會原/미상	김천일	나주
45	염 희(廉 喜)	坡州/季膺/錦圖	김천일	나주
46	오윤당(吳允黨)	平海/미상/미상	김천일	나주
47	유경지(柳敬地)	興陽/伯厚/미상	김천일	나주
48	유 온(柳 溫)	興陽/基甫/梅橘堂	김천일	나주
49	윤 의(尹 議)	坡平/世敬/미상	김천일	나주
50	이광익(李光翼)	陽城/公佐/愛日堂	김천일	나주
51	이광주(李光宙)	陽城/天仲/미상	김천일	나주
52	이창세(李昌世)	星州/信衡/平齋	김천일	나주
53	임 백(林 栢)	羅州/重直/湖隱	김천일	나주
54	장이길(張以吉)	興德/天應/野憂	김천일	나주
55	정 감(鄭 瑊)	晉州/玉磬/愼齋	김천일	나주
56	정 심(鄭 諶)	羅州/仲實/逸軒	김천일	나주
57	조대남(曺大楠)	昌寧/仁浩/栢菴	김천일	나주
58	최 번(崔 蕃)	耽津/億壯/石亭	김천일	나주
59	최중복(崔仲福)	密陽/五兼/미상	김천일	나주
60	최희급(崔希伋)	隋城/景思/淸齋	김천일	나주
61	허 협(許 協)	陽川/미상/미상	김천일	나주
62	홍 원(洪 遠)	豊山/望之/松菴	김천일	나주
63	홍천경(洪千璟)	豊山/群玉/盤桓堂	김천일	나주
64	김공간(金公侃)	固城/士如/節巖	김천일	남평
65	서정후(徐廷厚)	利川/미상/松村	김천일	남평
66	임 전(任 鍊)	豐川/寬甫/鳴皐	김천일	남평

연번	성명	본관/자/호	소속 의진(활동)	지역
67	전　룡(全　龍)	天安/義瑞/미상	김천일	남평
68	홍　심(洪　深)	豊山/仲淵/羔岩	김천일	남평
69	장　집(張　緝)	興德/미상/미상	남원성전투	나주
70	강위호(姜渭虎)	晉州/汝弼/書巢	대가 호종	나주
71	구　장(具　璋)	綾城/미상/미상	대가 호종	나주
72	김　홍(金　弘)	金海/恢之/미상	대가 호종	나주
73	나천기(羅天紀)	羅州/敬甫/미상	대가 호종	나주
74	남　유(南　瑜)	宜寧/時望/미상	대가 호종	나주
75	양봉희(梁奉希)	濟州/美賢/미상	대가 호종	나주
76	오명수(吳命壽)	羅州/耆叟/미상	대가 호종	나주
77	오석남(吳碩男)	羅州/大述/미상	대가 호종	나주
78	류공신(柳公信)	文化/允甫/松溪	대가 호종	나주
79	류　호(柳　澔)	文化/彦通/止隅齋	대가 호종	나주
80	이언함(李彦諴)	陽城/景信/미상	대가 호종	나주
81	임영수(林英秀)	平澤/遂卿/미상	대가 호종	나주
82	전경원(全慶元)	天安/伯休/雲菴	대가 호종	나주
83	차은로(車殷輅)	延安/汝憑/日躋堂	대가 호종	나주
84	황세헌(黃世獻)	長水/仲仰/미상	대가 호종	나주
85	윤유남(尹有男)	坡平/子中/미상	대가 호종	남평
86	윤정훈(尹廷勳)	坡平/伯述/미상	대가 호종	남평
87	김애남(金愛男)	미상/미상/미상	대성위판 보관	나주
88	정대절(鄭大節)	河東/義淑/九谷齋	박광옥	나주
89	심광헌(沈光憲)	靑松/彦章/三岩	송대빈	나주
90	김희수(金希壽)	金海/仁甫/直齋	송상현	나주
91	오준남(吳俊男)	羅州/미상/미상	순절	나주
92	이　범(李　範)	全州/叔度/미상	순절	나주
93	양곤장(梁坤長)	濟州/미상/미상	양산숙	나주
94	김　렴(金　磏)	瑞興/仲施/미상	이복남	나주
95	김　명(金　溟)	光山/미상/一心	이복남	나주
96	김　부(金　溥)	光山/思浩/竹軒	이복남	나주
97	윤　의(尹　義)	咸昌/忠敬/미상	이복남	나주
98	이용제(李容濟)	全義/汝優/後凋堂	이복남	나주
99	임　계(林　桂)	平澤/士馨/處士	이복남	나주

연번	성명	본관/자/호	소속 의진(활동)	지역
100	임　박(林　樸)	平澤/미상/미상	이복남	나주
101	임　혼(任　混)	長興/極初/미상	이복남	나주
102	조언호(曺彦浩)	昌寧/義而/寒松	이복남	나주
103	승국한(昇國漢)	南原/安修/미상	이복남	남평
104	기효근(奇孝謹)	幸州/叔欽/미상	이순신	나주
105	김득효(金得孝)	光山/克廉/미상	이순신	나주
106	김말동(金末同)	金海/미상/미상	이순신	나주
107	김백운(金白雲)	金海/忠彦/미상	이순신	나주
108	나대용(羅大用)	錦城/時望/遞庵	이순신	나주
109	나덕신(羅德愼)	羅州/擇之/미상	이순신	나주
110	나득룡(羅得龍)	錦城/미상/미상	이순신	나주
111	나치용(羅致用)	錦城/미상/迢菴	이순신	나주
112	노춘근(魯春根)	江華/華甫/미상	이순신	나주
113	박형준(朴亨俊)	密陽/雲卿/奮武齋	이순신	나주
114	박호남(朴好男)	密陽/安勇/勝勇齋	이순신	나주
115	박효남(朴孝男)	密陽/子淸/直齋	이순신	나주
116	성　찬(成　纘)	昌寧/미상/미상	이순신	나주
117	오득린(吳得隣)	羅州/弼邦/미상	이순신	나주
118	오진민(吳振民)	海州/미상/미상	이순신	나주
119	류건원(柳乾元)	文化/健行/미상	이순신	나주
120	이몽구(李夢龜)	咸平/慶瑞/松塢	이순신	나주
121	이몽린(李夢麟)	咸平/慶時/竹塢	이순신	나주
122	이성찬(李成燦)	陽城/慶淑/미상	이순신	나주
123	이　설(李　渫)	陽城/미상/미상	이순신	나주
124	이인효(李仁孝)	全州/汝止/미상	이순신	나주
125	정　상(鄭　詳)	羅州/仲愼/滄洲	이순신	나주
126	정여린(鄭如麟)	羅州/景厚/미상	이순신	나주
127	정　열(鄭　說)	河東/而善/미상	이순신	나주
128	최희량(崔希亮)	隋城/景明/逸翁	이순신	나주
129	함　약(咸　若)	江陵/子有/미상	이순신	남평
130	김해룡(金海龍)	金海/미상/미상	이억기	나주
131	최흥제(崔興悌)	朗州/恭甫/梅山	이억기	남평
132	김　준(金　浚)	棠岳/企源/미상	이역살이	나주

연번	성명	본관/자/호	소속 의진(활동)	지역
133	김천록(金天祿)	蔚山/聖卿/미상	일도거의	나주
134	나덕명(羅德明)	羅州/克之/嘯圃	일도거의	나주
135	나덕원(羅德元)	錦城/以健/沙潭	일도거의	나주
136	오계수(吳繼壽)	羅州/彭師/臥軒	일도거의	나주
137	류희달(柳希達)	文化/仲顯/弄圃	일도거의	나주
138	류희영(柳希榮)	文化/伯顯/錦西	일도거의	나주
139	정언우(鄭彦佑)	光山/宗彦/遯庵	일도거의	나주
140	최시망(崔時望)	江華/子裕/槐亭	일도거의	남평
141	나 선(羅 選)	錦城/미상/牛谷	일도순절	나주
142	나 적(羅 迪)	錦城/미상/淸流	일도순절	나주
143	박문립(朴文立)	順天/樞卿/淨溪	일도순절	나주
144	오인갑(吳仁甲)	海州/道源/미상	일도순절	나주
145	류 렴(柳 濂)	文化/子實/竹奉	일도순절	나주
146	이지득(李止得)	咸平/德浦/미상	일도순절	나주
147	장경홍(張景弘)	興德/미상/미상	일도순절	나주
148	최 욱(崔 澳)	慶州/士深/미상	일도순절	나주
149	이중희(李重禧)	全州/미상/미상	일본포로	나주
150	오정남(吳挺男)	羅州/子英/蓮江	임환	나주
151	류지경(柳持敬)	文化/德久/竹軒	임환	나주
152	임 환(林 懽)	羅州/子中/習靜	임환	나주
153	조의립(曺義立)	昌寧/德維/逸翁	임환	나주
154	진경문(陳景文)	驪陽/汝郁/剡湖	임환	나주
155	강봉령(姜鳳翎)	晉州/大學/雪松	조헌	나주
156	유 경(俞 景)	杞溪/君日/吉齋	조헌	나주
157	한 호(韓 護)	淸州/惟景/松堂	조헌	나주
158	정 령(鄭 鴒)	羅州/미상/미상	진주순절	나주
159	최 선(崔 繕)	隋城/仲修/미상	최경장	나주
160	최 연(崔 練)	隋城/미상/미상	최경장	나주
161	최 진(崔 縉)	隋城/文仲/미상	최경장	나주
162	노희상(盧希尙)	光山/瑞卿/미상	최경회	남평
163	이영근(李永根)	固城/厚培/淸灘	최경회	남평
164	최희립(崔希立)	江華/立之/孝菴	최경회	남평
165	추 국(秋 菊)	秋溪/英根/寒軒	조선파병	광주
166	추 노(秋 蘆)	秋溪/華根/遯庵	조선파병	광주

연번	성명	본관/자/호	소속 의진(활동)	지역
167	추　란(秋　蘭)	秋溪/芬根/凝香堂	조선파병	광주
168	추수경(秋水鏡)	秋溪/淸河/洗心堂	조선파병	광주
169	추　적(秋　荻)	秋溪/萃根/寓庵	조선파병	광주
170	추　지(秋　芝)	秋溪/芳根/詠香堂	조선파병	광주
171	편풍세(片豐世)	浙江/凱倫/覽軒	조선파병	광주
172	편풍원(片豐源)	浙江/大昌/東軒	조선파병	광주
173	이후남(李厚楠)	慶州/台植/미상	대가 호종	능주
174	남응개(南應凱)	宜寧/君翼/미상	임계영	보성
175	최희윤(崔希尹)	隋城/景任/敬齋	기효증	영광
176	강위구(姜渭龜)	晉州/聖叟/미상	조헌	영광
177	최희민(崔希閔)	隋城/景閶/미상	김천일	영암
178	장희춘(蔣希春)	牙山/仁敬/誠齋	곽재우	울산
179	오희길(吳希吉)	羅州/吉之/韜菴	진전호종	임실
180	문명회(文明會)	南平/聖粲/미상	이복남	장흥
181	남응길(南應吉)	宜寧/元瑞/미상	임계영	장흥
182	박종민(朴宗閔)	密陽/景休/미상	곽재우	타도
183	이덕경(李德敬)	咸平/敬肅/미상	이순신	함평
184	정사위(鄭思衛)	光州/弘遠/病隱	대가호종	해남
185	채홍국(蔡弘國)	平康/光輔/野叟	고경명	흥덕

3. 정묘·병자호란기 활동 의진별 의병 명단

연번	성명	본관/자/호	소속 의진(활동)	지역
1	강봉람(姜鳳覽)	晉州/德輝/石浦	개별창의(병자)	나주
2	나　탁(羅　倬)	羅州/미상/미상	개별창의(병자)	나주
3	박승훈(朴承勳)	順天/孝伯/老隱	개별창의(병자)	나주
4	오문석(吳文錫)	羅州/미상/미상	개별창의(병자)	나주
5	오이건(吳以建)	羅州/미상/미상	개별창의(병자)	나주
6	류　선(柳　選)	文化/미상/미상	개별창의(병자)	나주
7	류시휘(柳時輝)	文化/輝叔/溪隱	개별창의(병자)	나주
8	이선즙(李先葺)	咸平/益夫/磻溪堂	개별창의(병자)	나주

연번	성명	본관/자/호	소속 의진(활동)	지역
9	이장원(李長元)	慶州/미상/미상	개별창의(병자)	나주
10	정 급(鄭 岌)	河東/字建/미상	개별창의(병자)	나주
11	정 란(鄭 蘭)	羅州/미상/竹友	개별창의(병자)	나주
12	정존인(鄭存仁)	河東/德祖/守愚堂	개별창의(병자)	나주
13	최 결(崔 結)	隋城/瀷之/미상	개별창의(병자)	나주
14	홍 변(洪 邊)	豊山/平叟/錦麓	개별창의(병자)	나주
15	홍 적(洪 適)	豊山/武甫/錦隱	개별창의(병자)	나주
16	홍 탁(洪 逴)	豊山/秀夫/不貧亭	개별창의(병자)	나주
17	오효석(吳孝錫)	羅州/미상/미상	개별창의(병자)	나주
18	류 준(柳 浚)	文化/澄源/四矯堂	개별창의(병자)	나주
19	이 경(李 璥)	全州/미상/東岡	개별창의(병자)	나주
20	이수홍(李守洪)	全州/君伯/미상	개별창의(병자)	나주
21	정 양(鄭 洋)	羅州/美哉/미상	개별창의(병자)	나주
22	정 옥(鄭 沃)	羅州/啓哉/미상	개별창의(병자)	나주
23	정수룡(丁水龍)	羅州/雲老/松皐	개별창의(병자)	남평
24	홍종발(洪鐘發)	豊山/遠甫/竹堂	개별창의(병자)	남평
25	홍종운(洪鐘韻)	豊山/遠伯/德谷	개별창의(병자)	남평
26	서진명(徐晋明)	利川/미상/미상	개별창의(병자)	남평
27	윤 검(尹 儉)	坡平/子郁/藍川	개별창의(병자)	남평
28	이순민(李舜民)	開城//伊峰	개별창의(병자)	남평
29	이영정(李榮廷)	陽城/君孝/養心齋	개별창의(정묘)	나주
30	나위소(羅緯素)	羅州/미상/미상	개별창의(정묘)	나주
31	이 돈(李 暾)	全州/子昇/寒泉	김준룡	나주
32	김인방(金仁邦)	光山/子弼/미상	김준룡(병자)	나주
33	정지열(鄭之說)	河東/殷老/永慕齋	김준룡(병자)	나주
34	양원용(梁源用)	濟州/敦中/慕軒	김천일/이흥발	나주
35	나 남(羅 柟)	羅州/미상/미상	대가호종	나주
36	오도남(吳道南)	羅州/미상/미상	대가호종(병자)	나주
37	강사남(姜泗南)	晉州/廷弼/廷弼	서우신	나주
38	김규진(金奎鎭)	光山/士周/間齋	안방준	나주
39	홍명기(洪命基)	豊山/定中/後松	안방준(병자)	나주
40	송 격(宋 格)	新平/汝平/미상	안방준(병자)	남평
41	이영길(李榮吉)	陽城/成榮/愚政	이괄의난	나주

연번	성명	본관/자/호	소속 의진(활동)	지역
42	임　회(林　檜)	平澤/公直/觀海	이괄의난	나주
43	나덕헌(羅德憲)	羅州/憲之/미상	이역살이	나주
44	이　확(李　廓)	全州/汝量/鎖月堂	이역살이	나주
45	김시길(金時咭)	光山/吉浦/聽籟	이흥발(병자)	나주
46	김종지(金宗智)	光山/國寶/子一	이흥발(병자)	나주
47	양만용(梁曼用)	濟州/長卿/據梧齋	이흥발(병자)	나주
48	최신헌(崔身獻)	江華/士汝/懶齋	이흥발(병자)	남평
49	홍남갑(洪南甲)	豊山/斗元/碧汀	이흥발(병자)	남평
50	김　선(金　璇)	光山/而獻/市西	정홍명(병자)	나주
51	나　준(羅　俊)	羅州/冠千/미상	정홍명(병자)	나주
52	나해봉(羅海鳳)	羅州/應瑞/南磵	정홍명(병자)	나주
53	류시필(柳時必)	文化/長源/高巖	정홍명(병자)	나주
54	조홍업(曺弘業)	昌寧/廣淑/미상	정홍명(병자)	나주
55	홍치진(洪致震)	豊山/子起/誠嶠	정홍명(병자)	나주
56	나해륜(羅海崙)	羅州/미상/미상	정홍명(병자)	나주
57	이　환(李　煥)	全義/而晦/杏堂	정홍명(병자)	나주
58	정인서(鄭麟瑞)	羅州/미상/松溪	정홍명(병자)	나주
59	최억첨(崔億瞻)	耽津/以岌/미상	정홍명(병자)	나주
60	이정동(李廷棟)	全義/季鎭/慕窩	조수성(병자)	나주
61	이정순(李廷楯)	全義/叔衛/北亭	조수성(병자)	나주
62	최진강(崔震崗)	耽津/子高/미상	조수성(병자)	나주
63	이정건(李廷楗)	全義/伯固/蓮亭	조수성(병자)	나주
64	정　반(鄭　槃)	晉州/君平/孝友堂	조수성(병자)	나주
65	편성대(片成大)	浙江/亨福/隱林	조수성(병자)	나주
66	편영표(片永標)	浙江/亨之/素隱	조수성(병자)	나주
67	민창윤(閔昌胤)	驪興/미상/미상	해적 소탕(병자)	나주
68	나계소(羅緯素)	羅州/미상/미상	호종(병자)	나주
69	기종헌(奇宗獻)	幸州/景猷/守虛堂	호종(병자)	남평
70	김사립(金士立)	固城/由賢/미상	호종(병자)	남평
71	김성준(金成俊)	光州/英叔/미상	호종(병자)	남평
72	김예립(金禮立)	固城/子敬/미상	호종(병자)	남평
73	남봉일(南奉一)	宜寧/擎天/日谷	이괄의난	장흥
74	남응복(南應福)	宜寧/自興/愚亭	이괄의난	장흥

연번	성명	본관/자/호	소속 의진(활동)	지역
75	남응선(南應善)	宜寧/元伯/杜亭	이괄의난	장흥
76	남응설(南應契)	宜寧/聖憲/東湖	이괄의난	장흥
77	남응직(南應稷)	宜寧/季憲/德村	이괄의난	장흥
78	나무송(羅茂松)	錦城/秀夫/滄洲	대가호종	담양
79	남기문(南起文)	宜寧/文之/栗亭	안방준(병자)	장흥
80	최응립(崔應立)	朔寧/柱極/미상	순절(병자)	태인

4. 나주의병 관련 인용자료 해제

1) 나주지역 자료

연번	제목	저자	관련내용	번역
1	건재집 (健齋集)	김천일	김천일의 문집. 임진왜란 당시 김천일의 활동과 사후 그의 향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임진왜란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2	관해유고 (觀海遺稿)	임회	임회의 시문집. 이괄의 난 때 활약한 그의 행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	임동철 역, 『역주 관해유고』, 지식과 교양, 2012.
3	금계집 (錦溪集)	노인	노인의 문집. 임진왜란 때 권율의 휘하로, 정유재란 때는 포로로 잡힌 노인의 행적이 기록된 자료.	노기욱 역,『임진 의병장 노인의 금계집 국역본』,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4	남간집 (南磵集)	나해봉	나해봉의 문집. 그의 활동시기인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때의 활동기록과 격문 등이 남아있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나주나씨남간공종회 (國譯)『南磵集』, 2007.
5	명고집 (鳴皐集)	임전	임전의 시문집. 임진왜란 당시 김천일의 종사관으로 활동했던 임전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자료.	풍천임씨 감찰공파나주종중, (국역)『명고집』, 2005.
6	반환선생유집 (盤桓先生遺集)	홍천경	홍천경의 유고집. 임진왜란 당시 김천일 · 권율 막하로 활동했던 그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	

연번	제목	저자	관련내용	번역
7	섬호집 (剡湖集)	진경문	진경문의 시문집. 수록된 내용 중 하나인 「예교진병일록」을 통해 순천왜교성전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	김경태 외, 『섬호집』, 국립광주박물관, 2016.
8	소포유고 (嘯浦遺稿)	나덕명	나덕명의 유고집. 임진왜란 때 함경도에서 귀양살이 중 의병으로 활동한 나덕명의 행적이 기록된 자료.	나주나씨금호종중, (국역·증보) 『금호유사』, 2018.
9	송천집 (松川集)	양응정	양응정의 유고집. 수록된 내용 중 양산룡 · 양산숙의 활동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	양남진 · 양흥렬 역, (국역주해) 『송천집』, 章山齋, 1988.
10	습정유고 (習靜遺稿)	임환	임환의 유고집. 임진왜란 당시 김천일 막하로, 정유재란기 의병장으로서 활약한 임환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자료.	
11	시서유고 (市西遺稿)	김선	김선의 유고집. 병자호란까지 나주에서 활동한 그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	김종섭 역 (국역), 『시서유고』, 동신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12	일헌유고 (逸軒遺稿)	정심	정심의 유고집. 임진왜란 당시 생활상을 보여줌. 특히 「기고제봉창의막하」를 통해 고경명에게 당시 의병들의 상황을 알리는 자료.	나주정씨문중 정병선 개인번역 http://www.najujeong.com/aro243/dedong/smb1991/smb-97.htm
13	창주집 (滄洲集)	정상	정상의 시문집. 1592년 이순신에게 군량을 보내며 쓴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난중일기에도 기록되지 않은 자료.	정만호 역, 『창주 정상선생 유고』, 정문출판사, 2020.
14	체암공행적 (遞菴公行蹟)	나대용	나대용의 행적을 모아놓은 자료.	나오연,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체암 나대용 장군』, 세창문화사, 2015.
15	팔현행록 (八賢行錄)	장헌주	나주 초동마을 출신으로서 급제한 8인의 행적을 기록한 자료로, 이 중 임진왜란기 의병으로 활동한 장이길 · 정상 · 최희열의 기록이 남아 있음.	

2) 기타 문집자료

연번	제목	저자	관련내용	번역
1	강재집 (剛齋集)	송치규	송치규의 문집. 15권 7책으로 구성됨. 관련 내용에는 『팔현행록』 서문, 「최욱 묘갈명」, 「최희량 신도비명」, 「최희열 묘표」가 기록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2	계곡집 (谿谷集)	장유	장유의 시문집. 36권 18책이며, 관련 내용에는 「창의사김공정렬사비」가 기록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3	고대일록 (孤臺日錄)	정경운	임진왜란 때 김성일·김면의 막하에서 의병으로 활동한 정경운이 전쟁체험에 대해 기록한 자료.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4	국조보감 (國朝寶鑑)		조선 역대 군주의 업적 중 선정(善政)만을 모은 편년체 사서.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5	기언 (記言)	허목	허목의 시문집. 관련 내용으로는 나위소의 신도비명이 기록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6	기재사초 (寄齋史草)	박동량	선조 24~25년 동안 사관직에 있으면서 임진왜란 전후의 사실을 쓴 사초를 일기로 남긴 자료.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7	난중잡록 (亂中雜錄)	조경남	남원 출신 의병장인 조경남이 기록한 임진왜란 때의 야사.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8	남문창의록 (南門倡義錄)	미상	남문창의 이후 2백여 년이 지나 의병장들의 후손들이 활동상을 작성한 기록.	오산창의사 (國譯) 『南門倡義錄· 鰲山祠誌』, 1997.
9	노봉집 (老峰集)	민정중	민정중의 시문집. 12권 6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내용에는 「임진왜란이 남긴 이야기(壬辰遺聞)」에 동래성 전투가 기록 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10	농포집 (農圃集)	정문부	정문부의 시문집.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기록이 남아 있어 함께 활동한 나덕명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음.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연번	제목	저자	관련내용	번역
11	대산집 (大山集)	이상정	이상정의 시문집. 관련 내용 중에 김천일 · 최경회 · 황진으로 대표되는 호남삼장사의 2차 진주성 전투 당시 최후를 서술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12	문곡집 (文谷集)	김수항	김수항의 시문집. 관련 내용 중에 임환이 명장 오종도와 주고받은 편지, 임회의 행적이 기록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13	문소만록 (聞韶漫錄)	윤국형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윤국형이 겪거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술한 자료. 관련 내용 중 김천일의 명으로 곽현 · 양산숙이 의주로 달려가 편지를 전해주고 왕의 명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14	백사집 (白沙集)	이항복	이항복의 시문집. 관련 내용 중에는 김천일의 의병활동에 대해 평가한 내용, 임환의 묘지명 등이 기록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15	서하집 (西河集)	이민서	이민서의 시문집. 2차 진주성 전투의 행적이 기록된 정충단비를 기록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16	석주집 (石洲集)	권필	권필의 시문집.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임환과 친분이 있던 인물로, 임환과 주고 받은 편지, 만장, 『악기탁약』 판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17	손재집 (遜齋集)	박광일	박광일의 문집. 관련 내용에는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이용제의 묘지명과 그의 아들인 이정건의 행장이 기록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18	송사집 (松沙集)	기우만	기우만의 문집. 임진왜란~한말 의병들의 기문, 제문, 상량문 등 많은 비문이 기록되어 나주의병들의 자료들이 전해짐.	(유영봉 외 옮김), 『송사집』, 흐름출판사, 2020.
19	약포집 (藥圃集)	정탁	정탁의 문집. 수록된 「피난행록」은 정탁이 임진왜란 당시 분조에서 호종하며 직접 경험한 내용이 기록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20	연경재전집 (硏經齋全集)	성해응	성해응의 총서 · 전집. 관련 내용으로는 「초사담헌」에 임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음.	손혜리·이성민 역, 『연경재 성해응의 초사담헌』, 사람의무늬, 2015.

연번	제목	저자	관련내용	번역
21	연암집 (燕巖集)	박지원	박지원의 문집. 관련 내용에 이확의 신도비명이 기록되어 병자호란 당시 이확과 나덕헌이 청에서 이역살이를 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음.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22	은봉전서 (隱峰全書)	안방준	안방준의 문집. 관련 내용으로는 양산숙 · 최희립의 의병활동, 2차 진주성 전투를 묘사한 글이 기록됨.	안동교 역, 『隱峯全書』, 신조사, 2002.
23	운암잡록 (雲巖雜錄)	류성룡	류성룡이 관직생활 당시 일어난 것들을 기록한 자료. 관련 내용 중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 의해 선릉과 정릉이 도굴 당하는 상황이 있었음. 김천일이 휘하 병사로 하여금 선정릉 도굴 상황을 파악하도록 군병을 지원하는 내용임.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24	이충무공전서 (李忠武公全書)	이순신	정조의 명을 받아 이순신의 기록을 집대성 한 자료. 당시 상황이 기록된『난중일기』, 각종 장계, 편지 등이 기록되어 있음.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25	재조번방지 (再造藩邦志)	신경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조선을 명나라의 구원으로 재조 재건하였다는 뜻에서 기록한 책으로 임진왜란 7년 사실과 선조 40년까지의 대명 대일 관계를 기록한 책.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26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 관찬자료로서 당시의 의병활동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27	존재집 (存齋集)	위백규	위백규의 문집. 관련 내용으로는 홍명기가 그의 부친인 홍치진과 조부인 홍원의 의병활동으로 표창을 청하는 내용이 기록됨.	한국고전종합DB https:// db.itkc.or.kr
28	현주집 (玄洲集)	조찬한	조찬한의 시문집. 관련 내용으로는 임환의 묘지명이 기록되어 있음.	한국학호남진흥원, 국역『현주집』, 2019.
29	호남병자 창의록 (湖南丙子 倡義錄)	미상	병자호란 당시 호남 의사들의 사적을 기록한 책.	신해진 역, 『호남병자창의록』. 태학사, 2013.

2장 조선시대 나주의병 관련 문헌조사

1. 한국 문헌의 개별 의병장 관련 자료

1) 김경남(金景男, 1542~1593)

• 본관 광산(光山), 자 대술(大述), 호 매죽당(梅竹堂)

金麟淳 校, 『남문창의록(南門倡義錄)』 권2, 제현사실(諸賢事實), 김경남(金景男)

김경남(金景南)의 자(字)는 대술(大述)이요, 호는 매죽당(梅竹堂)이며,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문숙공(文肅公) 주정(周鼎)의 후손이며 충숙공(忠肅公) 심(深)의 9세손이요, 사정(司正) 자진(子進)의 현손이며, 참봉 증참의(贈參議) 연(衍)의 아들이다. 가정 임인년(1542년, 중종 37)에 출생하였다. 공은 소년 시절부터 의분심이 강하고 기절이 있었으며 문장 또한 탁월하여 칭찬을 받았다. 어버이 섬기기를 지극히 하여 아버지가 이질로 신음하자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으나, 병세가 위독함에 내 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도록 삼일 밤을 빌되 눈보라 치는 차가운 겨울밤에 몸이 옹조이고 뼈가 부서질 지경이었으나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또한 아버지가 입안에 침이 마른다며 제철도 아닌 싱싱한 오이를 먹고 싶어 하니 공은 밖에 나가 말라 죽은 넝쿨에서 오이 하나를 찾아 아버지께 올리자 크게 기뻐하였다. 후에 천거하는 물망[1]에 올라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

1) 천거하는 물망: 원문의 천섬(薦剡)은 지방관의 천거를 말한다. 섬(剡)은 원래 진한(秦漢) 시대에 회계군(會稽君)에 속한 현인데, 그곳에서 종이가 생산되었다. 옛날에 그 섬지(剡紙)에 추천하는 글을 적었으므로 천거의 대명사가 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에 장성에서 전 좌랑 김경수(金景壽)[2] 등이 의병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동향 사람 김부(金溥)·김명(金溟)·홍원(洪遠) 등과 같이 각자 의사(義士), 가동(家僮), 의곡(義穀), 화살, 소와 말 등을 모집하여 장성 남문 의병청으로 달려갔다. 여러 공들이 일러 말하기를, "그대는 이미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였는데 감히 나라에 충성을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왜적을 섬멸할 계책을 논의하였다. 이에 여러 의사와 같이 직산에 이르러 적을 만나 혈전을 벌여 많은 왜적을 사살하였다. 또 진격하여 용인에 진을 치고 있다가,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3]의 화친론과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4]의 패보를 듣고는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하니 공이 큰소리로 외치며 말하기를, "전투에 한 번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의 늘 일어나는 일이니 동우(東隅)를 잃었다 한들 어찌 상유(桑榆)에서의 수확이 없겠는가."[5] 하고는 마침내 행재(行在)로 가자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김제민(金齊閔)[6] 등이 말하기를, "화의가 이미 결정되었고 군량미도 부족한데 병사들마저 지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있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하고 철군하여 여산(礪山)에 이르렀다. 공이 말하기를 "화해는 성립되었다 하나 왜적들은 간사한 무리들이니 빨리 철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여산에 진을 치고 있다가 두 왕자가 환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공들과 각기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졸하였다.

---

2) 김경수(金景壽): 1543~1621. 본관은 울산(蔚山), 자는 백형(伯亨), 호는 오천(鰲川), 전라도 장성 출신이다. 1591년(선조 24) 정철(鄭澈)의 천거로 예조 좌랑이 되었으나, 정철이 강계로 유배되자 두문불출하였다. 임진왜란 때 장성에서 군량을 모아 의병장 기효증(奇孝曾)에게 보내고, 의병 800명을 모집하여 아들 극후(克厚)·극순(克純)에게 인솔시켜 고종후(高從厚)에게 보냈으나 모두 순절하였다. 정유재란 때도 의병을 모집하였다. 문집에 『오천집(鰲川集)』이 있다.

3) 송응창(宋應昌): 1536~1606. 중국 명(明)나라의 장수로, 자는 사문(思文)·시상(時祥)이며 호는 동강(桐崗)이다. 1565년(명 세종 44) 진사에 합격한 후 강주 지부(絳州知府), 부도 어사(副都御史), 산서 부사(山西副使)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부 우시랑으로 경략 비왜 군무(經略備倭軍務)에 임명되어 이여송과 함께 평양을 탈환하고 개성·강원 등 4도(道)를 수복하였으며, 그 공으로 우도 어사(右都御史)가 되었다. 저서로 『경략복국요편(經略復國要編)』이 있다.

4) 이여송(李如松): 1549~1598. 자는 자무(子茂), 호는 앙성(仰城)이다. 만력(萬曆) 연간에 산서(山西)와 선부(宣府)의 총병(總兵)을 지냈고, 발배(哱拜)의 반란을 평정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제2차 원군으로 평양성 전투에서 소서행장(小西行長)의 왜군을 격파하였고 개성(開城)을 수복했으나 벽제관(碧蹄館) 전투에서 패했다. 이후 한양(漢陽)을 수복하고 귀국했다.

5) 동우(東隅)를……없겠는가: 동우(東隅)는 해가 뜨는 곳이고 상유(桑榆)는 해가 지는 곳이다. 즉 동우는 인생의 초년을, 상유는 인생의 만년을 뜻한다. 마원(馬援)이 "처음에는 비록 회계에서 날개를 드리웠지만 마침내 민지에서 날개를 떨칠 수 있었으니, 동우에서는 잃었지만 상유에서 거두었다 이를 만하다.[始雖垂翅回谿 終能奮翼黽池 可謂失之東隅 收之桑榆]"라고 하였다. (『後漢書』「馬援列傳」)

6) 김제민(金齊閔): 1527~1599.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사효(士孝), 호는 오봉이다. 이항(李恒)의 문인으로 1573년(선조 6)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향리(鄕里)에서 의병을 모아 싸웠으며, 난이 끝나자 학문에 전심하였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충강(忠剛)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저서로는 『오봉집(鰲峯集)』이 있다.

아들 운해(運海)[7]가 귀하게 됨으로써 호조참판의 증직을 받았다. 소장하던 문적은 병화(兵火)로 없어지고 번천일편만이 간행되어 남아있는데, 용구(龍丘) 서봉령(徐鳳齡)[8]이 써 붙인 글에 말하기를, "지금 그의 굳세고 근엄한 그 필세를 보니 마치 풍상(風霜)을 끼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 노공(顔魯公)[9]의 충의로운 기상이 담겼구나. 하지장(賀知章)[10]과 신선(神仙)의 칭찬이 없는 것이 한스럽도다. 바닷속에 숨겨진 구슬[11]이니 연나라 백성들의 값이 높아졌다."라고 하였다. 그 후 창의사에 배향되었으며 판서 조진관(趙鎭寬)[12]이 예성 축문을 지어 말하기를 "아 아름다워라, 선생께서는 집안의 명성을 평화롭고 밝게 하셨도다. 눈 덮인 오이 넝쿨에서 생 오이를 찾아내니 그 효심에 신명이 감동하였고, 마을에선 영예를 전파하였도다. 조정에서 부름을 받았으나, 세월을 탄식하며 나아가지 않았네. 불꽃처럼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니 도청(都廳)으로 곡식을 보냄에 뜻이 같은 사람들과 모의하였으니 의로운 담력과 용기와 기백이로구나. 앞으로의 날들에 공을 세웠으니 사림의 역사 백 년 동안 오직 공만이 의롭도다. 길일과 길시를 잘 가려잡아 제사 지내며 이에 높이노라."라고 하였다. 아들 육 형제 중 4남인 아들 운해는 무과에 합격하여 선천부사(宣川府使)를 지냈고, 갑자년(1624년, 인조 2) 역적 이괄의 난에 공주까지 호종하였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에는 남한산성에 호종하여 조방장(助防將)에 임명되고, 전마 · 갑주와 화살을 하사받았다. 뒤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승진

---

7) 운해(運海): 1577~1646, 본관은 광산이며, 김경남(金景南)의 아들이다. 32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김해 부사에 이르렀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어가(御駕)를 모시고 공주에 내려갔고, 병자호란 때에는 남한산성에서 호전(戶典)에 관한 일을 맡은 공으로 전마와 갑옷 등을 하사받았다. 전남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벽류마을에 벽루정(碧樓亭)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노닐었다.

8) 서봉령(徐鳳齡): 1622~1687. 호는 용구(龍丘)이다. 성혼(成渾)의 제자인 안방준(安邦俊)에게 배웠으며, 스승의 저작인『은봉전서(隱峯全書)』를 편차(編次)하였다. 평생 벼슬하지 않고 처사로 지냈으며, 전라도 남평(南平)에서 살았다. 윤선거, 김수항(金壽恒), 박세채 등과도 교유하였으나 인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9) 안 노공(顔魯公): 당나라 안진경(顔眞卿, 709~785)을 말하니, 노군개국공(魯郡開國公)에 봉해졌기 때문에 안 노공(顔魯公)이라고도 불렸다.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평원 태수(平原太守)로 있으면서 그 지역을 온전히 지켰고, 의병을 모집하여 토벌하면서 하삭(河朔) 제군(諸郡)의 맹주(盟主)로 추대되었다. 뒤에 이희열(李希烈)이 반란을 일으키자 초유(招諭)하러 갔는데, 그의 회유를 듣지 않고 역적이라고 꾸짖다가 목졸려 죽었다.『舊唐書』

10) 하지장(賀知章): 659~744. 당나라 정치가이자 시인이다. 자는 계진(季眞) · 유마(維摩), 호는 사명광객(四明狂客)이다. 어릴 때부터 문사(文詞)로 이름을 얻었다. 태자빈객(太子賓客)과 비서감(秘書監)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술을 아주 좋아하는 풍류인으로 이름이 높았다.

11) 바닷속에 숨겨진 구슬: 초야에 묻혀 있어 알려지지 않은 현인(賢人)을 비유한 말이다. 당나라 때 적인걸(狄仁傑)이 변주(汴州)의 판좌(判佐)가 되었다가 서리에게 무함을 당했는데, 당시 하남도 출척사(河南道黜陟使) 염입본(閻立本)이 그를 보고 "중니(仲尼)는 허물을 보고 그의 인(仁)을 안다고 하였는데, 그대는 창해의 유주(遺珠)라 할 만하다.[仲尼稱觀過知仁 君可謂滄海遺珠矣]"라고 하였다.(『舊唐書』「狄仁傑列傳」)

12) 조진관(趙鎭寬): 1739~1808.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유숙(裕叔), 호는 가정(柯汀),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1775년(영조 51)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벼슬은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렀다. 저서로는『가정유고(柯汀遺稿)』가 있다.

되었다.

출전 : 오산창의사 편, 『(國譯)南門倡義錄·鰲山詞誌』, 長城郡·鰲山倡義祠, 1997

金景男。字大述。號梅竹堂。光山人。文肅公周鼎後。九世祖忠肅公深。司正子進玄孫。叅奉贈參議衍子。公生于嘉靖壬寅。自少慷慨。多氣節。文翰過人。見重於世。事親至孝。其父嘗患痢。藥餌之奉。靡不用極。病劇。公露處祝天。願以身代。至閱三宵。獰風虐雪。透體砭骨。不覺其苦。父口燥。思食生瓜。而非其時。公搜得一顆於枯蔓而進。其父大喜。後登薦剡。除參奉不就。壬辰難。聞長城前佐郎金景壽等擧義。與同郡金溥·金溟·洪遠等。各率義士·家僮·義穀·箭鏃·牛馬。罔夜赴義廳。諸公謂公曰。君既竭孝於親。則敢不移忠於君乎。共議敵愾之策。仍與諸義士。至稷山。遇賊血戰。斬馘甚多。進屯龍仁。聞宋經畧主和·李提督敗報。一軍相向慟哭。公厲聲曰。一輸一贏。兵家常事。失之東隅。詎無桑榆之收乎。遂定往赴行在之議。而金齊閔等曰。和議已定。食盡兵疲。留此何益。至礪山。公曰。和事雖成。虜情多詐。不可遽罷兵。遂屯礪山。及聞兩王子還宮。與諸公仍各還罷。卒于家。以子貴。贈户曹參判。家藏文蹟。逸於兵燹。樊川一編行于世。徐龍丘鳳翊有題曰。今觀其筆勢勁嚴。若挾風霜。眞顔魯公忠義氣像也。恨無賀監詩仙之賞。滄海遺珠。騰價燕氓。享倡義祠。判書趙鎭寬撰禮成祝曰。於休先生。平章家聲。雪蔓生瓜。感神明。鄉播令譽。朝降恩召。嗟時不造。燮起島夷。輸穀都廳。同志廣謀。義膽輪困。立功前途。士林百載。惟議即公。日吉辰良。有豆斯崇。六男中。四子運海。武科宣川府使。甲子逆适之變。駕公州。丙子胡亂。扈 駕南漢。拜助防將。賜戰馬·甲冑·弓箭。陞同中樞。

출전 : 金麟淳(朝鮮) 校, 『南門倡義錄』, 1799

2) 김명(金溟, 1571~1597)

• 본관 광산(光山), 자 중호(仲浩), 호 일심제(一心齊)

金麟淳 校, 『남문창의록(南門倡義錄)』 권2, 제현사실(諸賢事實), 김명(金溟)

김명(金溟)의 자는 중호(仲浩)요, 호는 일심제(一心齊)며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죽헌(竹軒) 부(溥)의 아우이다. 신미년(1571년, 선조 4)에 출생하였다. 학행(學行)이 있어서 음사(蔭仕)로 직장(直長)에 이르렀다. 1592년 임진왜란에 백씨를 따라 장성에서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정유년(1597년, 선조 30)에 백씨가 출전하자 그의 처 이씨(李氏) 그리고 형수 임씨(林氏)와 같이 무안(務安) 몽탄(夢灘)을 지나다 적을 만났다. 그 적이 칼로 위협하며 하는 말이, "내 말을 따르면 살려주고 따르지 아니하면 죽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항복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자, 적이 성내어 팔과 다리를 절단하여 죽이니, 부인 이씨가 그 남편에 적에게 죽는 것을 보고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정려를 내렸다.

출전 : 오산창의사 편, 『(國譯)南門倡義錄·鰲山詞誌』, 長城郡·鰲山倡義祠, 1997

金溟。字仲浩。號一心齊。光山人。竹軒溥弟。隆慶辛未生。有學行。蔭仕至直長。壬辰亂。從伯氏。倡義於長城。亦多戰功。丁酉。伯氏之赴難也。與其妻李氏及嫂林氏。往過夢灘。忽遇賊。賊以劍低仰曰。從我生。不從我死。終不服降。罵不畏怯。賊怒。斷臂斬足。因以遇害。李氏見其夫之死於賊。亦投江而死。事聞旌閭。

출전 : 金麟淳(朝鮮) 校,『南門倡義錄』, 1799

3) 김부(金溥, 1569~1597)

• 본관 광산(光山), 자 사호(思浩), 호 죽헌(竹軒)

金麟淳 校,『남문창의록(南門倡義錄)』 권2, 제현사실(諸賢事實), 김부(金溥)

김부(金溥)의 자는 사호(思浩)요, 호는 죽헌(竹軒)이며, 본관은 광산이요 문안공(文安公) 양감(良鑑)의 후손이다. 아버지 팽수(彭壽)는 진사로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입어 기장(機張) 적소에서 졸하였는데 공의 전쟁 때의 공훈으로 참의(參議)의 증직을 받았다.

공은 기사년(1569년, 선조 2)에 나주 초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0세 때 지은 시에, "석양에 새들은 나뭇가지에 지저귀고, 가을 안개는 먼 산봉우리에 둘렀구나. 뜻있는 선비들 이 세상에 많고, 충신은 가히 나라를 지킬만하도다. 만일 삼척검을 가진다면, 기필코 외적의 환을 진정하리라. 자식을 어여삐 하지 않는 어머니가 없는데 어버이께 효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도다."라고 하였다. 13세에 아버지를 잃고 14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주목(羅州牧) 수점(水店) 안산에 안장하고, 묘 옆에 막을 치고 시묘 살면서 복제를 마치니 향인들이 공을 조정에 천거하려 하자 공은 서신을 보내 만류하였다. 일재(一齋) 이항(李恒)[13]에게 학문을 닦아 문예가 숙성하여 19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에 외종(外從) 윤황(尹趪)과 척종(戚從) 김경수(金景壽), 족인(族人) 김홍우(金弘宇), 종인(宗人) 김경남(金景男) 그리고 동지 수백 인과 장성 남문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과 의곡을 모아 의주 행재소에 보냈다. 이귀(李貴)[14]가 주쉬(主倅)로 있으면서 좌우로 많은 힘을 주었다. 김제민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여 직산(稷山)과 진위(振威)에서 적을 토벌하여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웠다.

---

13) 이항(李恒): 1499~1576. 본관은 성주, 자는 항지(恒之), 호는 일재(一齋)이다. 박영(朴英)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발전시켜 성리학의 대가로 꼽혔다. 저서에『일재집(一齋集)』이 있다.

14) 이귀(李貴): 1557~1633.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옥여(玉汝), 호는 묵재(默齋)이다. 이이(李珥),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삼도 소모관(三道召募官)으로 활약했고 유성룡을 도왔다. 인조반정의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고,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정묘호란 때에는 최명길과 함께 화의를 주장하여 탄핵을 받았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인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병신년(1596년, 선조 29)에 무과에 뽑혀 훈련원 정(訓鍊院正)이 되었다가 조정의 공론이 금성(錦城)이 적을 방어하는데 요충지대라고 하여 공을 유진장(留陣將)으로 임명하였다. 정유년(1597년) 8월에 적이 남원을 침범하여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兵使) 이복남(李福男)[15]과 같이 출병할 때 부인 임씨(林氏)와 헤어지면서 읊은 시에, "어버이를 생각하니 어버이가 아니 계시고, 나라를 생각하니 나라의 운이 위태하도다. 구 대(九代)나 국록을 먹는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외로운 처자만을 생각할쏘냐."라고 하고 말에 올라 작별하고 떠나가서 남원 북문을 지켰다. 막하의 선비인 박안동(朴安東), 백의휴(白宜休), 윤의(尹義) 등 여러 사람에게 허벅지에 박힌 적의 화살촉 3개를 뽑아내기 위하여 칼로 살을 찢었어도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적이 공세가 더욱 맹렬하여 16일 만에 성이 마침내 함락되자 성을 지키던 제장들이 모두 패몰하고, 공도 또한 다락 아래 몸을 던져 순국하니 그때 나이 29세였다. 부인 임씨도 난리를 피하여 몽탄의 갈대밭에 숨어 피난하고 있다가 공이 순국하였다는 비보를 듣고 슬피 울며 안고 있던 아이를 종 연금(延今)이에게 내어주면서 "난리에 죽지 아니하고 바란 것은 오로지 남편을 위함이었는데 이제 바랄 것이 없으니, 너는 이 아이를 잘 길러 김씨 집안 혈통을 이어라."라고 하고 강물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막내동서 이씨 또한 같이 순절하였으니 이에 나라에서 두 정려를 명하였다.

출전 : 오산창의사 편, 『(國譯)南門倡義錄·鰲山詞誌』, 長城郡·鰲山倡義祠, 1997

金溥。字思浩。號竹軒。光山人。文安公良鑑後。考彭壽。以進士被禍于己卯。終于機張謫所。後以公勳贈參議。公隆慶己巳。生于羅州草洞。聰穎異凡。十歲賦詩曰。暮鳥啼踈木。秋霞遏遠岑。志士多間世。忠臣可經邦。若提三尺劍。宜靜九夷頑。莫非慈子母。難見孝親人。年十三丁外艱。十四遭內憂。返窆于羅州之水店內岡。因築廬墓側。執喪從制。州人欲薦公。而公裁書止之。弱冠。受學于李一齊恒。文藝夙就。十九登司馬。壬辰倭亂。與表從尹趪·戚從金景壽·族人金弘宇·宗人金景男及同志數百人。設義廳于長城之南門。募聚兵粟。助納龍灣。于時。李延平以主倅。亦多左右之力。推金齊閔。為義兵將。討賊于稷山·振威之地。屢立偉功。丙申。選武科別薦。歷拜至訓正。朝議以錦城衝要賊鋒。特除公留陣將。丁酉八月。聞南原之危。與兵使李福男。期會發行。以詩訣夫人林氏曰。思親親不在。戀國國艱虞。九世食君食。寧懷妻子孤。因欣然上馬而去。分守南原北門。使幕士朴安東·白宜休·尹義諸人。引劍割膚。出賊矢之中股者三。顔色不變。賊射益急。十六日。城遂陷。守城諸將皆敗沒。公亦投樓下而死。時年二十九。妻林氏避亂。在夢灘蘆林中。聞公死節。泣出懷中兒。付婢延今曰。不死所望。專為所天。今無所望。汝善養此兒。以續金氏一縷。即自投江而死。

---

15) 이복남(李福男): ?~1597. 본관은 우계(羽溪)이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에서 왜군과 싸우던 중, 조방장 김경로(金敬老), 산성별장(山城別將) 신호(申浩)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고, 1612년(광해군 4) 남원(南原) 충렬사(忠烈祠)에 봉향되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季娌李氏亦同殉于節。並旌雙閭。

출전 : 金麟淳(朝鮮) 校,『南門倡義錄』, 1799

4) 김상건(金象乾, 1557~1593)

• 본관 언양(彦陽), 자 건보(建甫), 호 미상

(1) 정탁(鄭琢),『약포집(藥圃集)』권5,「피난행록(避難行錄) 하」, 임진년 12월

(12월 4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그의 아들 김상건(金象乾)과 그의 막하(幕下) 선비 임환(林懽)을 보내어 경성(京城)과 경기 지역의 형세를 매우 상세히 말하였습니다. 경성의 백성들이 흉적에 의해 몹시 심하게 괴롭힘을 받아 밤낮으로 관군(官軍)이 오기만을 고대하며 병장기와 물자를 비축하고 몰래 관군과의 내응을 도모하겠다고 김천일에게 약속한 사람이 거의 수천 명이고, 그 나머지 성영(成泳)·이정형(季廷馨)·우성전(禹性傳)에게 응하려는 사람도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옛 도성의 유민(遺民)이 이미 국가를 위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적을 토벌하자 하니, 이러한 때에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면 백성들의 정서가 적들과 함께 익숙하여서 점차 빠져들게 되어 다시 회복할 희망이 사라질 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약포집(https://db.itkc.or.kr/)

倡義使金千鎰。送其子象乾及其幕下士林懽。備言京城及畿甸形勢甚詳。京城之民。爲兇賊所毒虐。日夜望官軍之至。儲備軍器。潛圖內應。受約束於千鎰者。幾數千人。其餘欲應成泳·李廷馨·禹性傳者亦多云。舊都遺民。旣欲爲國家至誠討賊。而不於此時副應民望。則時移歲變。民情與賊玩狃。馴致淪胥。更無恢復之望。至爲可慮。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약포집(https://db.itkc.or.kr/)

(2) 김천일(金千鎰),『건재집(健齋集)』부록 권3,「연보(年譜)」, 계사년 6월 29일

이때에, 선생의 아들 상건(象乾)과 양산숙(梁山璹)[16]은 선생을 부축하고, 문홍헌(文弘獻)[17]

---

16) 양산숙(梁山璹): 1561~1593.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회원(會元)이다.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경서(經書)에만 전심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 양산룡(梁山龍)과 함께 나주에서 창의하여 김천일을 맹주(盟主)로 삼아 부장이 되고 형은 운량장(運糧將)이 되었다. 제2차 진주성 전투 때 적과 끝까지 항전하다가 김천일과 함께 남강에 투신해 자결했다고 한다. 좌승지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나주의 정렬사(旌烈祠), 진주의 창렬사(彰烈祠)에 제향되었다.

17) 문홍헌(文弘獻): ?~1593. 본관 남평(南平). 자 여징(汝徵). 호 경암(敬菴)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진사로서 초토사(招討使) 고경명(高敬命, 1533~1592)과 함께 분전하였고, 금산(錦山)에서 패하자 다시 병마절도사 최경회(崔慶會)의 막하에 들어가 진주성에 집결한 의병과 합세하여 격전을 벌였다. 끝내 성이 함락되자 최경회와 함께 강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능주(綾州) 삼충각(三忠閣)에 최경회·조현(曺顯)

은 최경회(崔慶會)[18]를 부축하고, 오빈(吳玭)[19]·김인혼(金麟渾)은 고종후(高從厚)[20]를 부축하여, 북쪽을 향해 절을 마친 뒤 남강으로 나아가 죽었다. 양산숙은 수영을 잘하므로, 선생이 말하기를, "너는 이 사태를 모면하였다가, 힘써 저 왜적의 섬멸을 도모하라."라고 하니 양산숙이 말하기를, "정의에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함께 죽었다.

종인(宗仁)[21]·희열(希悅)·유잠(宥潛) 등 10여 인은 칼을 휘둘러 적을 쳐 죽이며, 죽기를 작정하고 저항하다가 죽었다. 종인은 싸우며 남강에 이르러 좌우 겨드랑이에 각각 한 놈씩의 적추(賊酋)를 끼고 크게 부르짖고 물에 뛰어들며 말하기를, "김해 부사 이종인은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於是。子象乾·梁山璹。扶先生。文弘獻扶崔慶會。吳玭·金麟渾扶高從厚。北向拜。赴南江而死。山璹善泅。先生曰。汝可以免。努力更圖。滅此仇賊。山璹曰。義不獨生。遂與同死。宗仁希悅宥潛等十餘人。奮劍斫賊。抵死乃已。宗仁戰鬪。至南江。左右腋。各挾一賊酋。大呼赴水曰。金海府使李宗仁死於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3)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권13, 「창의사김공정렬사비(倡義使金公旌烈祠碑)」

이때 공은 촉석루(矗石樓) 위에 있었는데, 좌우에 있던 사람들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오직 장남인 상건(象乾)과 막하(幕下)의 양산숙(梁山璹) 등 편비(褊裨)와 친병(親兵) 10인만이 공의 옆에 있으면서 떠나지 않았다. 이들이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

등과 함께 배향되었다.

18) 최경회(崔慶會): 1532~1593.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선우(善遇), 호는 삼계(三溪)·일휴당(日休堂)이다. 양응정(梁應鼎, 1519~1581)과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문인이다. 1567년(선조 1)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경상우병사에 임명되어 진주성을 사수하였으나 9일 만에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투신자살하였다. 진주의 창렬사, 능주의 포충사(褒忠祠)에 제향 되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19) 오빈(吳玭): 1547~1593.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형보(瑩甫), 호는 성산(聖山)이다. 1590년(선조 23)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고경명 휘하로 달려가서 금산전투에 참여하였다. 이후, 의병장 고종후(高從厚)와 함께 다시 의병을 모아 진주성으로 달려가서 혈전을 벌이다가 끝내 성이 무너지려 하자, 판결사 김천일, 동료 고종후와 함께 남강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뒤에 병조참의에 증직되고,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20) 고종후(高從厚): 1554~1593.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도충(道冲), 호는 준봉(準峰)이다. 1577년(선조 10) 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우 고인후(高因厚)와 함께 아버지 고경명의 뜻을 받들어 의병을 일으켰으나 금산 전투에서 아버지와 아우를 잃었다. 이후 복수의병군(復讐義兵軍)을 조직하여 진주성에 들어가 성을 지켰지만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광주(光州) 포충사(褒忠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효열(孝烈)이다.

21) 종인(宗仁): 이종인(李宗仁, 1556~1593)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인언(仁彦)이다. 1580년(선조 13) 무과에 급제하였다. 1593년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진주성이 왜적에게 포위되자 황진(黃進) 등과 함께 성을 방어하며 용전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적병을 양팔에 한 명씩 끼고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했다. 진주 충민사(忠愍祠)에 제향되었다.

"일이 끝장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자, 공이 온화한 기색으로 말하기를,

"의거를 일으키던 날에 나는 이미 죽기로 결정을 하였다. 다만 너희들이 애달프기만 하구나."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북쪽을 향해 절을 하고, 먼저 병기(兵器)를 물속에 던져 넣은 뒤, 아들 상건과 서로 부둥켜안은 채 누대(樓臺) 위에서 강물로 몸을 날렸다. 이때 공을 따라 죽은 장좌(將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 전투를 치른 뒤로 왜적 역시 힘이 다하여 감히 다시는 호남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계곡집(https://db.itkc.or.kr/)

公在矗石樓上。左右皆奔潰。惟長子象乾及幕下梁山璹等。褊裨親兵僅十人。在公側不去。泣且呼曰。事去矣。將奈何。公怡然曰。起事之日。吾已斷吾死矣。但爾曹可憐耳。遂起北向拜。先投兵器水中。與子象乾相抱。赴樓下潭水。將佐從死者。不可勝紀。然自是賊亦力盡。不敢復軼湖南。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계곡집(https://db.itkc.or.kr/)

(4)『국조보감(國朝寶鑑)』 권31, 선조조 8, 선조 26년(계사) 6월

왜적이 진주를 함락하였다.

창의사 김천일이 그 아들 상건(象乾) 및 경상 병사 최경회, 복수장(復讎將) 고종후, 좌랑 양산숙 등과 함께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종인은 이곳저곳에서 싸우다가 남강(南江)에 이르렀는데, 양팔로 두 명의 적을 끼고는 강에 몸을 던지며 크게 소리치기를,

"김해 부사 이종인이 여기에서 죽는다." 하였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https://db.itkc.or.kr/)

六月。倭賊陷晉州。

倡義使金千鎰。與其子象乾。及慶尙兵使崔慶會。復讎將高從厚。佐郎梁山璹等。北向再拜。投江以死。李宗仁轉鬪。至南江。左右挾兩賊。大呼投江曰。金海府使李宗仁。死於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 원문이미지(https://db.itkc.or.kr/)

(5) 조경남(趙慶男),『난중잡록(亂中雜錄)』 2, 계사년 6월 29일

천일의 좌우 사람들이 천일을 붙들어 일으켜서 퇴각하여 피하도록 권하니 천일이 굳게 앉아서 일어나지 않으며 돌아보고 이르기를, "나는 마땅히 여기에서 죽겠노라." 하고, 드디어 그 아들 상건(象乾)과 서로 안고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적이 본성을 무찔러서 평지를 만들었는데, 성중에 죽은 사람이 6만여 명이었다. 뒤에 감사 김륵(金玏)이 사근 찰방(沙斤察訪) 이정

(李潚)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니 성중에 쌓인 송장이 거의 1천 여구였고, 촉석루로부터 남강의 북쪽 언덕에 이르기까지 쌓인 송장이 서로 겹쳐 있었으며, 청천강(靑川江)으로부터 무봉(武峯)에 이르기까지 5리의 사이에 죽은 자가 강을 막아 내려갔다.

左右扶起千鎰。勸使退避。千鎰堅坐不起。顧曰。我當死於此。遂與其子象乾相抱投江而死。賊屠本城。作爲平地。城中死者。六萬餘人。後監司金玏令沙斤察訪李潚驗視。則城中積屍僅千餘。自矗石樓至南江北岸。積屍相枕。自靑川江至武峰。五里之間。死者塞江而下。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https://db.itkc.or.kr/)

(6) 『선조실록(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16일

좌우가 김천일을 부축해 일으켜서 피하기를 권하였으나, 천일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좌우를 돌아보며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아들 김상건(金象乾)과 더불어 서로 끌어안고서 강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

左右扶起千鎰。勸使退避。千鎰堅坐不起。顧曰。我當死於此。遂與其子象乾。相抱投江而死。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7)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7, 26년 6월 1일

김천일이 최경회·고종후 등과 청당(聽堂)에 나란히 앉아서 말하기를,

"여기를 우리들이 죽을 장소로 합시다."

하고는 술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술을 지니고 있던 자도 이미 달아난 뒤였다. 이에 불을 지르도록 명하고는 스스로 타 죽으려 하였는데 적이 바로 촉석루에 올라오자, 김천일이 그 아들 김상건(金象乾) 및 최경회·고종후·양산숙(梁山璹) 등과 함께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千鎰與慶會。高從厚等。列坐廳上曰。此吾輩死所也。使酌酒來。持酒者已走。命放火欲自燒。賊卽登樓。千鎰與其子象乾及慶會。從厚。梁山璹等。北向再拜。投江以死。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8) 신경(申炅),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권3

(계사년 6월) 28일 새벽녘에 황진(黃進)과 장윤이 차례로 탄환에 맞아 죽었다. 이전에 황진이 진주성으로 올 때에 의병장 곽재우가 만류하여 말하기를,

"진주는 고립된 성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고 더구나 공은 충청의 절(節)을 받았으니 진주성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직책이 아니오."

하니, 황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비록 그렇다 하나 이미 창의사에게 허락하였으니,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번복할 수는 없소." 하였다. 재우는 그 뜻을 돌리지 못할 것을 알고 술잔을 잡고 서로 이별하였는데,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무척 슬퍼하였다. 김해 부사 이종인(李宗仁)이 그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고 장윤이 죽은 곳에 직접 들어갔으나, 성안은 이미 기운이 빠지고 외부의 지원군이 이르지 않은 상태인데 적은 계속 군사를 더하여 급히 공격하니 아우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때마침 하늘이 큰 비를 내려 성첩이 쉽사리 뭉개지니, 적병은 개미 떼처럼 기어오르고 성안에는 화살과 돌이 모두 소진되어 한갓 죽목(竹木)으로 찌르고 내리칠 뿐이었다. 장윤이 서예원을 대신하여 성안을 순시하다가 또한 놀라 달아나버리니, 적이 드디어 온통 에워싸고 올라왔다. 김천일이 바로 누상(樓上)에 있는데 좌우가 모두 흩어졌으나, 오직 큰아들 상건(象乾)과 막하 양산숙 등 편비(褊裨)와 친병(親兵) 근 10여 명만이 달아나지 않고 곁에 남아 있으면서 외치기를,

"일이 이미 글렀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좌우에서 도망가기를 권하였으나, 천일은 움직이지 않고 말하기를,

"일을 시작하던 날에 나는 이미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하였다. 다만 너희들이 가련할 뿐이로다."

하고는, 똑바로 앉아 일어나지 않고 그 아들 상건(象乾)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마땅히 여기에서 죽어야 한다."

고 하였다. 조금 있다가 적들이 닥쳐오니, 천일이 최경회와 더불어 손을 잡고 통곡하고 함께 북쪽을 향하여 재배하고 먼저 병기를 물속에 버리고 그 아들 상건과 서로 안고 다락 아래 깊은 물 속에 몸을 던져 죽으니, 최경회·고종후(高從厚)·문홍헌(文弘獻)·양산숙(梁山璹)·최희립(崔希立)·강희민(姜希民) 등이 모두 죽고, 백성으로서 죽은 자가 거의 6만여 명이요, 우마(牛馬)와 계견(鷄犬)까지도 남음이 없었다. 또한 오랑캐들은 성을 무너뜨리고 참호를 메워버렸으며, 우물을 틀어막고 나무를 베는 것으로 전날의 분패를 앙갚음하였다.

二十八日曉。黃進張潤先後中飛丸死。初進之赴晉也。義兵將郭再祐止之曰。晉州孤城。不可守。而公且受忠淸之節。守晉州而死。非職也。進曰。雖然吾已諾於彰義使矣。雖死不可食言。再祐知其意不可奪。遂執酒相別。及聞其死。痛悼不已。金海府使李宗仁斂其尸而瘞之。自進潤之死。城中奪氣。外援不至。賊益添兵急攻之。呼聲動天地。適天又大雨。城堞融液善崩。賊將蟻附而上。城內矢石俱盡。徒以竹木刺擊張潤旣代徐禮元。巡城而又驚走賊遂一擁而登。金千鎰方在樓上。左右犇潰。惟長子象乾及幕下士梁山璹等褊裨親兵僅十餘人在側不去。且呼曰。事去矣。將奈何。左右勸逃。千鎰不動曰。起事之日。吾已斷吾死矣。但爾曹可憐耳。堅坐不起。顧謂其子象乾曰。當死於此。已而賊迫。千鎰與崔慶會握手痛哭。俱北向再拜。先投兵器水中。與其子象乾相抱。赴樓下潭水而死。崔慶會高從厚文弘獻梁山璹崔希立姜希民等。皆死之。民死者幾六萬餘名。牛馬鷄犬不遺一物。又夷其城塡其塹。堙井刊木。以快前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재조번방지(https://db.itkc.or.kr/)

(9) 『정조실록(正祖實錄)』 권22, 10년 9월 7일

72건의 진정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예조 판서 서유린이 아뢰기를,

"신이 임인년[22]에 예조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아비의 효행(孝行)의 일로 징을 치며 정문을 세워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신이 '효열(孝烈)에 대해 정문(旌門)을 세워서 포상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전례로서, 보고하고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에 따른 일정한 규식이 있다. 서울에서는 선비와 벼슬아치들이 예조에 단자를 바치고, 지방에서는 본관에게 단자를 바치고 본관은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이를 수집하여 뽑아 가려낸 뒤에라야 비로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것이 예조에 계하(啓下)된 뒤에 의정부를 거쳐서 비로소 등급을 나누어 포상할 것을 청하고 있으니, 매우 엄하게 가려서 뽑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자손이 요청한 말만을 따라서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정문을 세워줘서 포상해주면 어버이를 드러나게 하려는 마음은 사람마다 같은 마음일터, 각 도의 몇천 명이나 되는 효열의 자손들이 필시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청컨대 본도로 하여금 효열을 뽑아 보고할 때에 널리 채집해야 한다.'는 것을 이치를 따져 복주(覆奏)하였습니다. 그 뒤에 예조 판서 정창순(鄭昌順)이 또 이것을 규식으로 삼자고 청하자, 이 사안을 의정부에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의정 서명선과 좌의정 홍낙성이 모두 그에 의해 시행하자고 말하자, 비답에 '식년(式年)[23] 회계(回啓)에 이미 정해진 규식이 있다. 자손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위해서 정문을 세워달라고 청하고 증직(贈職)해 달라고 청하는 것은 결국 은전을 요청하는 것이기는 하나, 법을 만들어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상께서 비록 법을 설치하는 것을 윤허하지 않으셨으나, 사체로 보아 결국 은전을 요청하는 것이니, 이번 자신들의 선조를 위해 정려를 요청한 네 건은 그냥 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비들이 타인을 위해서 포상하자고 청한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옛 규례에 따라 관아와 감영에 글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장황하게 이름을 열거하여 방자하게 올렸고, 또 그 가운데 혹 허위로 기록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지금 12건이나 되니, 모두 시행하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어버이를 위해 현양(顯揚)하려는 마음은 자식의 지극한 심정이므로 그 일이 비록 은전을 요구하는 것에 가깝지만 법을 설치하여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한 고을의 공론에 있어서는 또한 어떻게 일례로 금지할 수 있겠는가? 다만 명실(名實)이 서로 부합되는지 반드시 자세히 살펴서 그로 하여금 막중한 은전이 질서가 없지 않게끔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각도의 도백으로 하여금 실적을 자세히 탐지한 다음 이치를 따져 보고하게 하라."

---

22) 임인년: 1782 정조 6년.

23) 식년(式年): 과거(科擧)를 보이기로 정한 해. 태세(太歲)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이다.

……나주(羅州) 유학 김득려(金得麗)가 글을 올려 그의 5대조 문열공(文烈公) 김천일(金千鎰)과 4대조 증 승지 김상건(金象乾)의 부조지전(不祧之典)[24]을 청하였다. 서유린이 복계하여 아뢰기를,

"김천일 부자의 충절은 남들의 이목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송상현(宋象賢)·조헌(趙憲) 등의 사례에 따라 부조지전을 청한 것은 인정이나 사리로 보아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부자 두 사람에게 한꺼번에 부조지전을 내린다는 것은 신중히 하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문열공 김천일만 특별히 부조지전을 허락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허락하였다.

判下上言七十二度。禮曹判書徐有隣啓言。臣於壬寅。待罪本曹時。有人以其父孝行。擊錚請旌。臣以爲孝烈旌褒。有國重典。登聞。許施。自有恒式。京中則搢紳。章甫。呈單本曹。外方則呈于本官。本官報于監營。監司採探抄擇。始爲登聞。而及其啓下本曹之後。關由政府。始爲分等請褒。則抄擇之至嚴。從可知矣。因其子孫上言。俾作父祖旌褒之階。則顯親之念。情所同。而各道孝烈累千百人之子孫。必將繼起。請令本道。凡孝烈抄啓時。廣加採探事。論理覆奏矣。伊後本曹判書鄭昌順。又請以此定式事。下廟堂。領議政徐命。左議政洪樂性。皆以依施爲言。其批以。式年回啓。已有定式。至於子孫之爲父祖請旌請贈。終涉干恩。然不必設法禁之。聖意雖靳。設法事面。終涉干恩。今番爲祖先上言四度置之。至於多士之爲他人請褒。則當依古規。呈官。呈營。而張皇列名。肆然徹聽。且其中或不無僞着冒錄之擧。此等上言。今爲十二度。并勿施。敎曰。爲親顯揚之心。卽人子之至情。事雖近於干恩。有不可設法防遏。至於一鄕之公議。亦豈可一例禁止。但名實之相符。必須詳審。可使莫重恩典。不至屑越。第令各道道臣。詳探實蹟。論理狀聞。…羅州幼學金得麗上言。請其五代祖文烈公千鎰。四代祖贈承旨象乾不祧之典。有隣覆啓言。金千鎰父子忠節。照人耳目。依宋象賢。趙憲等例。乞蒙不祧之典云者。情理似然。而父子兩人之一時不祧。恐非難愼之意。文烈公金千鎰。特許不祧。似合事宜。可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0)『순조실록(純祖實錄)』 권19, 16년 10월 20일

을미년에 예조에서 유생이 올린 상소와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아뢰기를,

"증 참의 홍우정(洪宇定)은 이미 정경(正卿)으로 끌어올려 증직하는 은전을 입었으니, 시호를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증 승지 김상건(金象乾)은 바로 문열공(文烈公) 김천일(金千鎰)의 맏아들입니다. 임진왜란에 부자(父子)가 동시에 절개를 지키다 죽었으므로, 선묘조께서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故) 통덕랑 박충검(朴忠儉)은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24) 부조지전(不祧之典): 나라에 큰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영구히 사당에서 제사 지내게 하는 특전(特典)이다.

의 수제자인데, 금산(錦山)의 전투에서 스승과 같이 순절하여 절의가 빛났으니, 정려(旌閭)의 은전을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증 참찬 어한명(魚漢明)은 병자호란 때 임금을 호종한 큰 공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선정신(先正臣) 권상하(權尙夏)·김창협(金昌協)의 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이번에 시호를 내려 달라고 청하는 것이 공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우정과 어한명에게는 모두 시호를 내리고, 김상건·박충검에게는 모두 정려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교화를 세우고 절의를 장려하는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乙未。禮曹因儒疏及上言啓言。贈參議洪宇定。旣蒙正卿超贈之典。則合施節惠。贈承旨金象乾。卽文烈公。千鎰之長子。壬辰之亂。父子同時立慟。宣廟朝。遣官侑祭。故通德郎朴忠儉。文烈公。趙憲之高弟。錦山之戰。與師同殉。節義炳烺。綽揭之典。恐合許施。贈參贊魚漢明。丙子扈聖之偉績。備在於先正臣權尙夏。金昌協文字。今此節惠之請。可見公議。宇定·漢明。并施以贈諡。象乾。忠儉。并施以旌閭。允爲樹風奬節之道。從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5) 김선(金璇, 1568~1642)

• 본관 광산(光山), 자 이헌(而獻), 호 시서(市西)

(1) 김선(金璇), 『시서유고(市西遺稿)』 부록, 「연보」

○ 연보(年譜)

* 추후에 기록하였으므로, 소략하고 빠진 것이 많다.(원주)

□ 융경(隆慶) 무진년(1568년, 선조 1) 9월 20일 해시에 태어나다.

□ 경오년(1570년, 선조 3) 12월 8일에 누이동생 임자연(林子淵)의 아내가 태어나다.

□ 계유년(1573년, 선조 6) 9월 4일에 동생 전(㙫)[25]이 태어나다.

□ 병자년(1576년, 선조 9) 5월 22일에 모친상을 당하여 슬픔이 끝이 없다.[26]

□ 무인년(1578년, 선조 11)에 탈상을 하고, 6월에 부친의 명으로 고기를 먹었으며, 군장사(軍藏寺)의 담준(淡俊) 스님에게 가서 공부를 배웠다. 이때에 임자신(林子愼)[27]도 와서

---

25) 전(㙫): 김전(金㙫, 1538~1575)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자후, 호는 구봉(九峰)이다. 김부인(金富仁)의 아들이고, 이황의 문인이다. 문학으로 명망이 있었다.

26) 슬픔이 끝이 없다: 『시경(詩經)』「소아(小雅) 육아(蓼莪)」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돌아보시고, 출입할 때엔 나를 가슴속에 품으시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댄, 저 하늘처럼 끝이 없도다.[顧我復我 出入腹我 欲報之德 昊天罔極]"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7) 임자신(林子愼): 자신(子愼)은 임서(林㥠, 1570~1624)의 자이다. 본관은 나주(羅州), 호는 석촌(石村)이

함께 배웠다. 임자신의 나이는 9세였고, 나의 나이는 11세로 어려서부터 서로 무척 절실하게 아꼈다.

- 신사년(1581년, 선조 14)에 계부의 상을 당하다. 이 해에 남산의 아래에 있는 강생원(姜生員)의 앞에서 공부하다.
- 갑신년(1584년, 선조 17)에 본주의 교수 곽기수(郭期壽)[28]의 앞에서 공부를 배우다.
- 을유년(1585년, 선조 18) 12월 26일에 흥덕(興德)에서 아내를 맞이하다. 당시 장인[29]은 흥덕현감(興德縣監)이었고 대대로 서울의 남소동에 살았다.
- 병술년(1586년, 선조 19) 10월에 가족을 데리고 돌아오다.
- 정해년(1587년, 선조 20) 가을 식년으로, 영광의 감시에서 '호가십팔박(胡笳十八拍)'[30]이라는 시로 삼상(三上)[31]에 참여하였다.
- 무자년(1588년, 선조 21) 정월에 홍군옥(洪郡玉), 임자신과 회시에 동행하였다. 2월에 동생이 돌림병을 얻었다. 3월 20일에 동생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와 보고는 돌아 나갔다. 4월 8일에 전염되어 부부가 모두 통증이 심히 위급하다가, 윤6월에 이르러 약간 차도가 있었다. 7월에 방백 유영립(柳永立)[32]이 본주에 백일장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에선 오는 편지가 적네[兵甲少來書]'라는 시로 2중으로 장원을 하였다. 8월에 무장현의 감시에서 '국령묘[鞠令墓]'라는 시로 차중에 참여하였다. 상경하여 '송가부[宋哥賦]'로 차중으로 입격하였다. 시험지를 부정하게 판 일로 인하여 대간에서 논의하여 과거

다. 1599년(선조 32)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괄의 난이 발발하자 도원수 장만(張晩)을 도와 공을 세워 가선대부가 되었다. 저서로는『석촌유고(石村遺稿)』등이 있다.

28) 곽기수(郭期壽): 1549~1616. 본관은 해미(海美). 자는 미수(眉壽), 호는 한벽당(寒碧堂)이다. 1583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이 예조좌랑에 이르렀다. 저서로는『안택지(安宅誌)』,『사방해(四方解)』등이 있다.

29) 장인: 이용침(李用沉, 1548~1618)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중묵(仲默)이다. 1583년(선조 16) 알성무과에 급제하였다.

30) 호가십팔박(胡笳十八拍): 후한(後漢) 말 채문희(蔡文姬, 177~?)가 처음에 위중도(衛中道)에게 시집갔으나 자식을 두지 못하고 남편이 일찍 죽어 친정에 돌아와 있던 중 흉노에 붙들려 가 거기에서 12년간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조조(曹操)가 채옹과의 구의(舊誼)를 생각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를 데려와 동사(董祀)에게 개가시켰다. 이에 채염은 절개를 잃은 것을 상심하고 또 그 두 아들을 잊지 못하여「호가십팔박(胡笳十八拍)」을 지었다.「後漢書」

31) 삼상(三上): 조선 시대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성적 등급을 과차(科次)라 하는데,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어 이상(二上), 이중(二中), 이하(二下), 삼상(三上), 삼중(三中), 삼하(三下),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로 규정하여 우열을 평가하고 삼하 이상을 급제로 하였다.

32) 유영립(柳永立): 1537~1599. 본관은 전주, 자는 입지(立之)이다. 1568년(선조 1)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그해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1582년 종성부사가 되었는데 이듬해에 이탕개(尼蕩介)의 난으로 성이 함락되자 그 책임으로 하옥되었다. 이후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피신하였다가 왜군에게 포로가 되었으나 뇌물로 매[鷹]를 바치고 탈출하여, 국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당하였다. 류성룡(柳成龍)의 변호로 곧 복직되어 병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를 취소하였다. 그해 겨울에 영암의 도갑사(道岬寺)에서 많은 선비들과 어울렸다.

- 기축년(1589년, 선조 22) 봄에, 정읍의 감시에서 '물가에서 외조카 한군을 이별하여[渚側別韓甥]'라는 시로 차차에 참여하였다. 그해 여름 정현(鄭晛), 서윤(徐玧)과 더불어 남평 웅치의 남쪽 암자에서 공부하였다. 여름이 지나 그해 가을에 장인이 해남현감이 되었다.
- 경인년(1590년, 선조 23)에 본주의 제독 박이장(朴而章)[33]에게 『중용(中庸)』, 『대학(大學)』을 배웠다.
- 신묘년(1591년, 선조 24)과 임진년(1592년, 선조 25) 사이에 『중용』과 『대학』 읽기를 일과로 삼았다. 그해에 장인이 평양 판관이 되었다. 그해 겨울에 임자연이 매부가 되었다.
- 갑오년(1594년, 선조 27) 가을 9월에 21일에 계조모의 상을 당했다.
- 정유년(1597년, 선조 30) 7월에 한산도에서 패하여 왜적의 세력이 장차 호남에 임박했다. 8월 5일에 창교(蒼橋)의 유씨들, 송현(松峴)의 임씨들과 일행이 되어 함께 길에 올랐으며, 우리 일행은 공주 땅에 이르러 남포로 가서 처가와 동행하였다. 9월에 양주의 북쪽의 장인의 사촌매부 권응중(權應中)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였고, 임씨와 유씨 두 집안은 황해도 장연으로 들어갔다.
- 무술년(1598년, 선조 31) 정월에 장연까지 좇아갔다. 11월 21일 진시에 시길(時吉)이 태어나다.
- 기해년(1599년, 선조 32) 봄에 김계도(金繼燾)[34]에게 공부를 배웠는데, 계도는 해주판관으로 있다가 파직되어 본주의 삼곡촌에 살았다. 당시 이원양(李元養)과 더불어 함께 석담의 산천을 감상하였다. 그해 가을 별시에 관광차 상경하여 '서장부[上書莊]'를 올려, 원경으로 참여하고 과강(過講)하였다. 8월에 장연에 있던 일가족이 장연에서 오니, 도성 아래의 용산의 강가에 기거하였다. 그때 큰외삼촌과 영보(永保)의 여러 친족들이 모두 용산에 기거하였다.
- 경자년(1600년, 선조 33) 봄에 정시에서 '석촌음잠(惜寸陰箴)'으로 3하에 참여하여, 은

---

33) 박이장(朴而章): 1540~1622.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숙필(叔弼), 호는 용담(龍潭)·도천(道川)이다. 진사 박양좌(朴良佐)의 아들로 1573년(선조 6)에 생원·진사 두 시험에 입격하고, 1586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에 대사간, 병조 참판, 한성부 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1615년(광해군 7)에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이를 반대하다가 삭직되어 성주(星州)로 내려가 저술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문장에 능했으며 특히 시에 이름이 있었다. 성주의 청천서원(晴川書院)에 제향되었다.

34) 김계도(金繼燾): 1543~1632.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순원(順元)이다. 1595년(선조 28) 별시에 급제하였다. 1605년(선조 38) 합천군수, 형조정랑을 거쳤다. 1628년(인조 6) 공조참의로 제수받았으나 반년이 되도록 조하(朝賀)의 반열에 참석하지 않아 파직되었고, 1632년(인조 10) 김상용(金尙容)의 추천으로, 국가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恩典)을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았다.

혜로 내린 그림을 얻었다. 그해 장인이 청도군수에 임명되었다. 그해 가을 부친이 곧장 나주의 본가로 내려갔고, 우리 가족은 청도에 가서 겨울을 지냈다.

- 신축년(1601년, 선조 34) 정월에 가족을 데리고 나주로 돌아갔다. 그해 봄에 영광의 감시에서 '멀리 누런 까치가 먼 하늘의 동쪽에 있는 것을 보네[遙瞻黃鵲九霄東]'라는 시로 3중에 참여하였다. 겨울 세 달 동안, 광주 무등산에서 공부하였고, 명절이면 내려왔다. 그해 9월 2일에 장녀 박진빈(朴晉彬)의 아내가 태어났다.
- 임인년(1602년, 선조 35) 봄에 향거인 담양별시에서 '위도시간난부[爲圖示艱難賦]'로 차상으로 참여하였고, 상경하여 과강하였다. 그해 장인이 영원군수가 되었고, 아내의 둘째 조카 이명(李銘)이 별시무과에 급제하였다.
- 계묘년(1603년, 선조 36) 봄에 고부의 감시에서 '동생을 검교초당으로 전송하며[送舍弟檢校草堂]'란 시로 3중에 참여하였다. 그해 아내의 큰 조카 이굉(李鍧)이 식년무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이 정평부사에 이르렀다.
- 갑진년(1604년, 선조 37) 가을에, 증광시 임피감시에서 '군인으로 몸은 늙어가고[兵甲身將老]'라는 시로 논문은 차상으로 책문은 2상의 장원이 되었다. 그 해 2월에 차녀 이익빈(李益儐)의 아내가 태어났다. 8월에 '회재의 신원소'를 가지고 유생들이 대궐로 갔다.
- 을사년(1605년, 선조 38) 봄에 회시에서 '찌는 더위에도 군주 때문에 춥네[炎暑爲君寒]'라는 시로 차상으로 참여하였다. 겨울의 별시에서 책문이 3중으로 참여하였다.
- 정미년(1607년, 선조 40) 3월 1일에 시간(時暕)이 태어났다.
- 무신년(1608년, 광해군 즉위) 2월 1일에, 선조대왕이 승하하여 신민들의 애통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 기유년(1609년, 광해군 1) 증광별시에서 표문으로써 3하로 참여하였다. 홍군옥과 동행 상경하였는데, 홍군옥은 전시의 책문에서 상의상에 장원이 되었다. 그해 가을에, 영암의 동헌에서 표문으로 차상에 참여하였다. 그해 겨울 금양서원(錦陽書院)에서 '오현청액소(五賢請額疏)'를 모았는데, 상소문은 내가 지은 것이다.
- 경술년(1610년, 광해군 2) 7월에 '오현종사상소(五賢從祀上疏)'로 금양서원에서 온 도내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는 소두(疏頭)로서 대궐에 나아갔으며, 상소는 내가 지었다. 겨울 별시에서 표문으로써 차상으로 참여하였다. 그해 시길이 시로써 차상으로 백일장에 참여하였는데, 나이가 겨우 13세라 사람들이 모두 귀하게 여겼다. 그해, 장인이 당상관이 되었으며 실직의 첨지에 임명되었다.
- 신해년(1611년, 광해군 3) 가을에 영광의 감시에서 시길이 시로써 차중의 자서명지로 참여하였다. 임피의 동헌에서 나는 논문이 3중, 표문이 3상, 책문이 2상의 2등이었다.
- 임자년(1612년, 광해군 4) 봄에 회시에서 강론이 임박하자, 흉당 모씨가 그의 같은 당인

과 더불어, 몰래 최공망(崔公望)[35]에게 과거를 정지시킬 것을 사주하였다. 과거는 후에 곧 풀렸다. 그 후 흉당과 최공망은 모두 반역죄로 죽었다. 그해, 나는 그김에 처가에 머무르며 서울의 과거를 구경하였는데, 시길은 시로써 3하로 향시에 참여하였다. 겨울에 시길은 홍정업(洪廷業)[36]의 사위가 되었다.

□ 을묘년(1615년, 광해군 7) 광해군 시대에 대북파가 권력을 잡아, 폐모(廢母)의 논의가 크게 일어나니 떳떳한 윤리의 변화를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완평군(完平君)이 윤리를 바로잡으려는 일로 당시의 무리에게 거슬려, 화가 장차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초야에서 한 마디를 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도내에 통문을 돌려 광주에 상소하여 감사 이경전(李慶全)[37]에게 위임하였는데, 이경전은 완평군이 이미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소를 감영에 두니 주상께 아뢰지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주장한 상소라고 하여 성균관(成均館)에게 삭적되었으며, 성균관을 비롯한 네 관서에서 과거가 정지되었는데, 윤유겸(尹唯謙)[38], 이정언(李廷彦) 등이 잇달아 홍무적(洪茂績)[39], 정택뢰(鄭澤雷)[40] 등의 역당을 보호한 동률을 적용할 것을 소청하였다. 위로부터 대신들이 의견을 거두니 상소가 아뢰어지지 않았고, 의정부에서도 죄를 줄 수가 없었다. 비록 큰 화는 면했으나, 시사가 이 지경에 이르니, 그때부터는 과거를 포기하고 세상과 작별하는 것이 자신의 분

---

35) 최공망(崔公望): 1565~?. 본관은 강화(江華). 자는 사옹(士顒)이다. 1610년(광해군 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광해군대에는 이이첨(李爾瞻) 일파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전라도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사헌부의 탄핵으로 위리안치되었다.

36) 홍정업(洪廷業): 1556~1622. 본관은 풍산, 자는 백현(伯顯), 호는 유몽재(猶蒙齋)이다.

37) 이경전(李慶全): 1567~1644.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집(仲集), 호는 석루(石樓)이다. 1590년(선조 23)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옹립을 꾀하는 유영경(柳永慶)을 탄핵하다가 강계(江界)에 안치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서인(西人)들에게 아첨하여 생명을 보전하고,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가서 인조의 책봉을 요청하였다. 1637년 삼전도(三田渡)의 비문을 작성할 것을 명받았지만 병을 빙자하고 거절하였다. 저서로는『석루유고(石樓遺稿)』가 남아 있다.

38) 윤유겸(尹唯謙): ?~?.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겸보(謙甫)이다. 1618년(광해군 10) 증광시에 진사에서 입격하였다. 1616년(광해군 8) 진사 윤선도(尹善道)가 예조판서 이이첨(李爾瞻)이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르는 행태를 상소하였는데, 이때 윤유겸의 이름도 상소문에 함께 언급되었다. 1618년(광해군 10) 곽영(郭瓔)이 이이첨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대론(大論)을 담당한 사람들을 모함하는 죄를 저질렀으니 폐출해서 종묘사직을 편안히 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공초를 받고, 위리안치되었다.

39) 홍무적(洪茂績): 1577~1656.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면숙(勉叔), 호는 백석(白石), 시호는 충정(忠貞),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이이첨의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여 그의 목을 벨 것을 상주했다가 거제도로 유배되었고, 인조반정으로 유배에서 풀려났다. 강빈(姜嬪)의 옥(獄)으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효종의 즉위와 함께 사면되어 형조 판서와 우참찬 등을 지냈다.

40) 정택뢰(鄭澤雷): 1585~1619.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휴길(休吉), 호는 화강(花岡), 시호는 충결(忠潔)로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의 7대손이다. 이이첨 등의 사주로 폐모론이 제기되자, 홍무적·김효성 등과 함께 이른바 논척조인(論斥造訒)의 상소를 올려 이이첨 일파를 치죄할 것을 극력 주장하였다가, 남해(南海)의 절도에 유배되어 배소에서 별세하였다.

수라고 여기고, 오로지 고인의 책 읽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 병진년(1616년, 광해군 8) 7월 10일에 갑자기 부친상을 당하여 호천이 망극하다. 그해 겨울에 장례를 치른 뒤에 박진빈을 사위로 삼았다.
- 무오년(1618년, 광해군 10) 3월 11일에 장인상을 당했다. 그해 7월에 상복을 벗었다.
- 기미년(1619년, 광해군 11) 이익빈을 사위로 삼았다.
- 경신년(1620년, 광해군 12) 9월 1일에 동생의 상을 당했다.
- 임술년(1622년, 광해군 14) 시간이 현건(玄健)의 사위가 되었다.
- 계해년(1623년, 인조 1) 3월 13일에 이귀, 김류(金瑬)[41] 등이 의거를 하여 반정하니, 윤리가 해와 달과 같았고, 사람의 논의가 청명하니, 경향의 친구들이 과거에 응시할 것을 권하였으나, 나의 나이가 이미 예순에 가깝고 편안하게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절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해 증광감시(增廣監試)에서 시간이 시로써 원경(圓更)으로 참여하였다.
- 갑자년(1624년, 인조 2) 식년 감시에서 시길이 시로써 3하에 참여하였다. 사위 이백원(李伯遠)이 또한 시로써 3중에 참여하였다. 그해 증광감시에서 시길이 두 초시에서 모두 입격하였는데 잘못 쓴 글씨 때문에 무효가 되었고, 백원도 참여하였다. 그해 가을에 백원이 증광시 진사과에 합격하였고, 시길은 식년시 진사과에 합격하였다.
- 병인년(1626년, 인조 4) 가을에 감시에서 시간이 시로써 참여하였다. 반정 이후로 나는 잇달아 참봉, 별좌, 의금부 도사의 수망과 부망에 의망되었다.
- 숭정(崇禎) 원년 무진년(1628년, 인조 6)에 유릉참봉(裕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했다.
- 기사년(1629년, 인조 7)에 자여찰방(自如察訪)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했다.
- 신미년(1631년, 인조 9)에 정릉참봉(靖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했다. 세 번 천은을 입었으나, 병으로 대궐에 절을 한 번도 못 했으니, 스스로 개인적인 분수를 헤아릴 때, 죽을죄로다.
- 임신년(1632년, 인조 10)에 정월 19일에 장모의 상을 당했다.
- 갑술년(1634년, 인조 12) 11월 5일에 돌림병에 걸렸는데, 나이가 쇠하고 기력이 약하

41) 김류(金瑬): 1571~1648. 자는 관옥(冠玉), 호는 북저(北渚), 시호는 문충(文忠), 본관은 순천(順天)으로 목사(牧使) 여물(汝岉)의 아들이자 송익필(宋翼弼)의 문인이다. 인조반정(仁祖反正)의 공신으로서 병조 판서 · 대제학 등을 거쳐 영의정에 오르고 순천 부원군(順天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특히 시문(詩文)과 서법(書法)에 뛰어났다. 저서에는『북저집(北渚集)』이 있다.

여 병이 위험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었으나 소생하였으니 어찌 조상과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는가? 그 사이의 고생스러운 모습이야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마음을 『남화경(南華經)』에 기탁하고, 회포를 시로 읊조리는 사이에 깃들였다.

□ 을해년(1635년, 인조 13) 2월에 병이 회복되고 온 가족이 모였다. 5월에 향시에 입격하였다. 시간은 시로써 3중에 2등을 차지하였다. 11월 그믐쯤에 늙은 아내가 조금 이상이 있더니, 한 달 넘게 끌면서 병의 차도가 일정하지 않다가, 병자년(1636년, 인조 14) 정월 24일에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일흔이라는 쇠한 나이에 게다가 상사(喪事)까지 더하여, 말년의 심사가 날로 무료함을 느꼈으니 당시엔 회포를 읊은 시가 있을 뿐이다. 그해 7월에 주상께서 유일(遺逸)을 찾으라는 명이 있었고, 본주에서 나를 고장에서 천거한 명목에 넣었는데, '전임 찰방 김모는 몸가짐이 바르고 절개가 확고하여 직책에 임명하여도 응하지 않고 시종일관 고요함을 지킨다'는 말이 있었다. 목사 오준(吳竣)[42]이 문서를 보내니, 방백이 말하기를, '이 고장의 크고 작은 공론을 보니 김모가 학술에 마음을 깊이 쓰고, 자신을 지키고 고요함을 닦아 도내의 사람들이 모두 성대하게 떠드니, 실로 찾는 이에 맞아 주상에게 보고한다'라는 등등의 것이었다. 헛된 명예가 실질보다 지나쳐서, 내심히 부끄럽다. 그해 12월 14일에 오랑캐가 밀어닥쳤다.

□ 어가가 남한산성에 들어갔고 포위되니 조야가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분위기가 처참하였다.

□ 정축년(1637년, 인조 15) 2월 1일에 난리를 피하여 지도(智島)로 향했다. 눈보라를 무릅쓰고 고사촌(高寺村)에 묵었다. 2일에 임치성(臨淄城)에 묵고 3일에 지도에 들어가 윤희복(尹希福)의 집에 머물렀다. 15일에 나해륜(羅海崙)이 본주에서 와서 말하길, "강도가 함락되고 세자빈(世子嬪)과 봉림대군(鳳林大君)이 포로가 되었으며, 주상께서 성을 나서서 강화를 하였으니, 이는 최명길(崔鳴吉)[43]의 계책을 쓴 것이며, 세자와 대군이 북쪽으로 출발하였다"라고 하였다. 북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살고 싶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 슬프게 탄식하고 시대를 아파한 작품이 거의 수십 수에 이르며 개인 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26일에 집으로 돌아와 세상일을 사절하고 그저 시와 술로써

---

42) 오준(吳竣): 1587~1666. 본관은 동복(同福)이고, 자는 여완(汝完)이며, 호는 죽남(竹南)이다. 좌참찬(左參贊)을 지냈으며,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써서 왕가의 길흉책문(吉凶册文)과 삼전도비(三田渡碑)의 비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공사(公私)의 비명을 썼다. 저서로는 『죽남당집(竹南堂集)』이 있다.

43) 최명길(崔鳴吉): 1586~1647.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遲川)·창랑(滄浪),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605년(선조 38)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 1등 완성부원군에 봉해졌다. 1636년 병자호란에 강화론을 펴 극렬한 비난을 받았다. 1642년 영의정이 되어 임경업 등의 반청활동에 책임을 지고 김상헌과 함께 청나라에 불려가 갇혔다. 1645년에 귀국하여 오래지 않아 죽었다. 저서로는 『지천집(遲川集)』 등이 있다.

시름을 달랬다.

○年譜

＊追後記之。多有疎漏。

□ 隆慶戊辰九月二十日亥時生。

□ 庚午十二月初八日。舍妹林子淵妻生。

□ 癸酉九月初四日舍弟瑛生。

□ 丙子五月二十二日。遭母喪。昊天罔極。

□ 戊寅闋服。六月以父命食肉。往受業于軍藏寺淡俊師。是時林子愼亦來同學。子愼年九歲。余年十一。而自幼相愛甚切。

□ 辛巳。遭季父喪。是年受業于南山下姜生員前。

□ 甲申。受業于本州敎授郭期壽前。

□ 乙酉十二月二十六日。娶妻于興德。是時。岳丈爲興德倅。世居京城南小洞也。

□ 丙戌十月。眷還。

□ 丁亥秋式年。靈光監試。以胡笳十八拍詩。三上參之。

□ 戊子正月。與洪郡玉林子愼。會試同行。二月。舍弟得染病。三月二十日。聞舍弟病危。入見還出。四月初八日。傳染而夫妻俱痛。症甚危劇。至閏六月少差。七月聞方伯柳永立。設白日陽于本州。以兵甲少來書詩。二中居魁。八月茂長監試。以鞠令墓詩。次中參之。上京則以宋哥賦次中入格。試紙賊賣事。臺論罷榜。是冬。與多士居接于靈巖道岬寺。

□ 己丑春。井邑監試。以渚側別韓甥詩。次車參之。是夏。與鄭晛徐玧。讀書于南平熊峙南庵。過夏。是秋岳丈爲海南倅。

□ 庚寅。受庸學于本州提督朴而章。

□ 辛卯壬辰之間。以讀庸學爲日課。是年。岳丈爲平壤判官。是冬。以林子淵爲妹夫。

□ 甲午秋九月二十一日。遭繼祖母喪。

□ 丁酉七月。閑山島見敗。賊勢將迫湖南。八月初五日。與蒼橋諸柳松峴諸林。合爲一行。同向上道。吾一行至公州地。往于藍浦。與妻家同行。九月寓于楊州北面。岳丈四寸妹夫權應中家。林柳兩家。入于黃海道長淵。

□ 戊戌正月。追至于長淵。十一月二十一日辰時。時吉生。

□ 己亥春。受業于金繼燾。燾以海州判官罷職。居于州地三谷村。是時。與李元養。同賞石潭山川。是秋別試。觀光上京。以上書莊賦。圓更參之。過講。八月。長淵一家。自長淵來。寓于都下龍山江上。是時。伯舅及永保諸族。皆寓于龍山矣。

□ 庚子春。廷試以惜寸陰箴。三下參之。得恩畫。是年。岳丈得除淸道郡守。是秋。親庭直下羅州本家。吾家屬往淸道過冬。

□ 辛丑正月。眷還羅州。是春。靈光監試。以遙瞻黃鵠九霄東詩。三中參之。冬三朔。讀書于光州無等山中。歲時下來。是年九月初二日。長女朴晉彬妻生。

□ 壬寅春。鄕擧潭陽別試。以爲圖示艱難賦。次上參之。上京過講。是年。岳丈爲寧遠郡守。妻仲牲李銘。登別試武科。

□ 癸卯春。古阜監試。以送舍弟檢校草堂詩。三中參之。是年。妻伯牲李鎬。登式年武科。官至定平府使。

□ 甲辰秋。增廣臨陂監試。以兵甲身將老詩。次上疑圓更。二參場。咸平東堂。以論次上。策二上居魁。是年二月。次女李益馥妻生。八月。以晦齋伸寃疏。儒詣闕。

□ 乙巳春。會試。以炎暑爲君寒詩。次上參之。冬別試。策三中參之。

□ 丁未三月初一日。時暕生。

□ 戊申二月初一日。宣祖大王昇遐。臣民之痛。可勝言哉。

□ 己酉。增廣別試。以表三下參之。與洪郡玉同行上京。洪以殿策上之上壯元。是年秋。靈巖東堂。以表次上參之。是冬五賢請額會疏于本院。製疏出于我。

□ 庚戌七月。五賢從祀上疏會一道于本院。吾以疏頭詣闕。製疏出于我。冬。別試。以表次上參之。是年時吉以詩次上參白日場。年才十三。人皆貴之。是年。岳丈昇堂上。除實職僉知。

□ 辛亥秋，靈光監試，時吉以詩，次中自書明紙參之，臨坡東堂，余以論三中，表三上，策二上居二。

□ 壬子春。會試臨講。凶黨某與其同黨。陰囑於崔公望停擧矣。科後卽解之。其後凶黨崔公望。皆死於罪逆。是年。余因留妻家。觀京科。時吉以詩三下參鄕試。冬。時吉爲洪廷業婿。

□ 乙卯。昏朝大北用事。廢母之論大起。彝倫之變。尙忍言哉。完平君以正倫紀事。見忤時輩。禍將不測。草野不可無一言。故余乃發通道內。卦章于光州。順付監司李慶全。慶全聞完平已爲定配。留疏營中。不爲上達。以是謂我主張疏事。館削籍。四館停擧。易尹唯謙李廷彦等。連疏請。以洪茂績鄭澤雷等護逆同律。自上大臣收議。以疏不達。政院不得科罪。雖免大禍。而時事至此。後今以往。自分廢科謝世。一以讀古人書爲任。

□ 丙辰七月初十日。奄遭父喪。昊天罔極。是冬過襄事後。以朴晉彬爲婿。

□ 戊午三月十一日。遭妻父喪。是年七月服闋。

□ 己未。李益馥爲婿。

□ 庚申九月一日。遭舍弟喪。

□ 壬戌。時暕爲玄健婿。

□ 癸亥三月十三日。李貴金瑬等擧義反正。倫紀如日月。士論淸明。京鄕諸友。皆勸我赴擧。吾年已迫六十。安居無求久矣。切不從之。是年。增廣監試。時暕以詩圓更參之。

□ 甲子。式年監試。時吉以詩三下參之。李郎伯遠。亦以詩三中參之。是年增廣監試。時吉兩場

俱入。以誤書字見授。伯遠參之。是秋。伯遠中增廣進士。時吉中式年進士。

- 丙寅秋。監試。時暕以詩參之。反正之後。以吾連擬參奉別座義禁府都事首副望。
- 崇禎元年。戊辰。除裕陵參奉。病不赴職。
- 己巳。除自如察訪。病不赴職。
- 辛未。除靖陵參奉。病不赴職。三被天恩。病未得一拜闕下。自揆私分。死罪死罪。
- 壬申正月十九。遭妻母喪。
- 甲戌十一月初五日。得染病。年衰氣弱。病甚危劇幾死。還甦。豈非祖宗昊天之祐也。其間辛苦之狀。不可盡記。托心於南華經。寄懷於吟詠之間。
- 乙亥二月。病憂平復。一家俱會。五月。昇補都會。時暕。以詩三中居第二。十一月晦間。老妻以微恙。閱月彌留。苦歇無常。至丙子正月二十四日。竟至不救。七十衰年。又重喪慽。暮境心緒。日覺無聊。時有詠懷而已。是年七月。自上有搜揚遺逸之命。本州以吾爲鄕薦題目。有曰。前察訪金某。持身方正。氣節敦確。除職不應。終始守靜。云。牧使吳竣。轉報。方伯曰。觀此一州大小公論。卽金某之潛心學術。自守修靜。道內之人。無不藉藉。誠合搜訪。啓聞。云云。虛譽過實。余甚恧焉。是年十二月十四日。胡賊猝迫。
- 大驚入南漢被圍。朝野奔遑。景色愁慘。
- 丁丑二月初一日。避亂向智島。冒風雪。宿于高寺村。二日。宿臨淄城。三日。入智島。仍留尹漢希福家。十五日。羅海崙自本州來言。江都失守。世子嬪及鳳林大君皆被虜。自上出城。講和。用崔鳴吉之計也。世子及大君北行云。北望雪涕。寧死欲無生。其時悲歎傷時之作。殆數十首。錄在私集。二十六日。還家。謝絕世事。只以詩酒自遣。

출전 : 김종섭 역, 『(국역)시서유고』, 나주시, 2003

(2) 정호(鄭澔), 『장암집(丈巖集)』 권21, 「시서김공행장(市西金公行狀)」

(『시서유고』「시서김공행장(市西金公行狀)」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공의 휘는 선(璇)이요, 자는 이헌(而獻)이며, 자호가 시서거사(市西居士)이고 또한 지서자(之西子)라고도 한다. 광산 김씨는 신라의 국성에서 비롯되었는데, 왕자 가운데 흥광(興光)이란 분이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 처음으로 광산에 은거하니, 실로 광산 김씨의 비조이다. 자손은 고려의 거족으로 대를 이어 평장사(平章事)가 되니 8대에 이어졌고, 세상에서는 사는 마을을 평장동(平章洞)이라 일컬었다.

조선시대에 덕룡(德龍)은 관직이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으며 나주로 이주하니 마침내 나주 사람이 되었다. 5대를 지나 생원 식(軾)에 이르는데 공에게는 고조부이다. 증조부는 휘가 정언(廷彦)으로 생원이며, 조부는 휘가 심(深)이요, 부친은 휘가 부성(富成)으로 상호군(上護軍)이

며, 모친은 여흥 민씨(驪興閔氏)로 사인(舍人)을 지낸 덕봉(德鳳)[44]의 딸로 공을 융경(隆慶) 무진년(1568년) 9월 20일에 낳았다.

공은 타고난 자질은 넓고 커서 어릴 때에 이미 그야말로 성인(成人)[45]과 같았다. 9세에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였는데, 장례를 치름에 의례(儀禮)에 따랐으며, 3년상을 마친 뒤에야 고기를 먹으니, 향리에서 모두 탄복하였다. 독서를 하게 된 뒤에 판서 임담(林墰)[46]과 함께 유학하였다.

을유년(1585, 선조 18) 공이 18세 때에 경녕대군(敬寧大君)의 4대손 군수 용침(用沈)의 딸을 아내로 맞으니, 실로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의 6대손이다. 공은 부친을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당시 호군공은 연세가 이미 황혼에 들었는지라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부친을 기쁘게 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경전에 마음을 두어 밤낮으로 열심히 하였다. 정해년(1587, 선조 20)에 향시에서 장원을 하였는데 수은(睡隱) 강항(姜沆)[47], 반환(盤桓) 홍천경(洪千璟)[48] 등과 우열을 다투었다.

일찍이 또래의 친구들과 경현서원(景賢書院)에서 공부를 하였다. 당시 한여름이어서 좌정한 사람들이 모두 옷고름을 풀고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구렁이가 들보 사이에서 떨어져 공의 배 위에 가로누웠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흩어졌으나 공은 낯빛이 변하지 않고 이전처럼 책을 보다가 구렁이가 물러간 뒤에야 이내 일어나니 사람들의 공의 큰 국량에 감복

---

44) 덕봉(德鳳): 민덕봉(閔德鳳, 1519~1573)으로,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응소(應韶)이다. 습독(習讀) 민우필(閔友弼)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초계 정씨(草溪鄭氏)이다. 1546년(명종 1)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1560년(명종 15)에 별시 문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해 집의가 되어 관기(官紀)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사인(舍人)이 되었다. 1573년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나갔다가 객사(客舍)에서 죽었다.

45) 성인(成人): 재덕(才德)을 겸비한 완전한 사람을 말한다. 자로(子路)가 공자(孔子)에게 성인(成人)에 대해서 물으니, 공자가 답하기를, "장무중(臧武仲)의 지혜와 공작(公綽)의 탐욕스럽지 않음과 변장자(卞莊子)의 용기와 염구(冉求)의 재예(才藝)에 예악으로 문채를 내면 또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論語 憲問』

46) 임담(林墰): 1596~1652.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재숙(載叔), 호는 청구(淸臞)이다. 1635년(인조 13)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사헌부 지평으로 남한산성에 들어가 총융사(摠戎使)의 종사관이 되어 남격대(南格臺)를 수비하고 화의가 성립된 후 진휼어사(賑恤御史)로 일하였다. 1639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이후 경상도 관찰사, 형조 참판, 대사간,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47) 강항(姜沆): 1567~1618.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태초(太初), 호는 수은(睡隱)이다. 좌찬성 강희맹(姜希孟)의 5대손이며,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593년 전주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 좌랑·형조 좌랑 등을 역임했다. 주로 향리에서 독서와 후학 양성에만 전념하여 윤순거(尹舜擧) 등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저서로는 『간양록(看羊錄)』, 『수은집(睡隱集)』 등이 있다.

48) 홍천경(洪千璟): 1553~1632.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군옥(羣玉), 호는 반환·반항당(盤恒堂)이다. 기대승(奇大升)·이이(李珥)·고경명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김천일을 따라 군량의 수집과 수송을 담당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도원수 권율(權慄) 휘하에서 의병모집의 격문을 작성하였다.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하였다. 월정서원(月井書院)에 제향되었다.

하였다.

정유년(1597, 선조 30)의 왜란에 공은 위로 부모를 받들고 아래로 처자를 데리고 해서의 장연(長淵) 땅으로 피난을 갔는데, 비록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어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봉양에 힘을 다하였고, 밤낮으로 계획하여 군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며, 같은 때에 피난을 간 사람들이 무려 수백 명이었으나, 먹을 것을 얻으면 반드시 나누며 나와 남을 따지지 않으니, 그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

을사년(1605년, 선조 38) 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는데 약관으로부터 크고 작은 향시에서 합격하여 거의 해마다 거르지 않았는데, 38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합격하니 공을 아는 사람들은 그 늦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해 가을에 다섯 현인의 배향[49]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 온 도내의 선비들이 공을 소두로 추대하였으니, 그 상소는 곧 공이 직접 지은 것이다. 말이 바르고 이치가 맞으니, 비록 윤허를 받지는 못했으나 아는 사람들은 위대한 일로 여겼다.

무신년(1608년, 광해군 즉위)에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보위를 이었는데 간신 이이첨(李爾瞻)[50] 등이 권력을 잡았고, 고을 사람 김우성(金佑成)[51]은 곧 공의 당숙이었는데 이이첨에게 아첨하며 그 기세가 등등하여, 당시에 바른 논리를 가진 선비들이 반드시 상처를 입었다. 공은 지친(至親)의 사이에서 차마 작은 일로 여기지 못하고 의리로써 그의 예봉을 꺾으려고 하였는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심을 품었다.

공이 일찍이 별시에서 장원으로 선정되어 서울에 이르렀는데, 김우성은 사람들을 사주하여 과거를 못 보게 하니, 공은 곧장 호탕하게 향리로 돌아왔다. 후에 흉한 무리들이 더욱 방자해져서 모후를 유폐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완평군 이원익(李元翼)[52] 공이 윤리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당시의 무리들에게 크게 거슬려 화가 장차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공은 호남의 유생들을 이끌고 상소하여 구하고자 하였는데, 방백이 힘써 저지하여 올리지 못했다. 흉한

---

49) 다섯 현인의 배향: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이언적(李彦迪), 조광조(趙光祖), 이황(李滉) 등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논의를 일컫는다.

50) 이이첨(李爾瞻): 1560~1623.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득여(得輿), 호는 관송(觀松)·쌍리(雙里)이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문과 중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광해군의 옹립을 주장한 대북파의 영수로, 광해군 즉위 후 예조 판서와 대제학을 겸임하고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에 봉해졌다. 권세를 장악한 후 정인홍(鄭仁弘)과 함께 소북파를 숙청하고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살해를 주도하였으며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하는 등 많은 악행을 저질러,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참형되고 족멸되었다.

51) 김우성(金佑成): 1563~?. 본관은 광산, 자는 길응(吉應)이다. 1585년(선조 18) 식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52) 이원익(李元翼): 1547~1634. 본관은 전주,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이다. 1569년(선조 2)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에는 평안도 도순찰사(平安道都巡察使)로서 선조를 모셨고, 진주변무사(陳奏辨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인목대비의 폐위에 반대하여 유배되었다 풀려났고, 인조반정 후에 다시 벼슬하여 영의정에 이르렀다. 호성 공신(扈聖功臣)으로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고, 저서로는 『오리집(梧里集)』 등이 있다.

무리들은 공이 제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성균관에서 삭적하였으며 네 관서에서 주관하는 과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윤유겸, 이정언 등은 다시 연달아 상소를 올려 정택뢰 등의 역적을 보호한 법률로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대신들이 의견을 모아 상소가 의정부에 닿지 못하도록 하여 죄를 얻진 않고 겨우 면하게 되었다. 공이 이미 김우성과 원수가 된 뒤에 김우성이 그 모친을 여위었는데, 공은 친척의 의리로써 그 장례식장에 참가하였지만 김우성은 거절하고 들이지 않았다. 공은 부득이하게 문밖에 좌석을 깔고 홀로 앉아 있기를 매일같이 하였고 복상을 마친 뒤에야 그만두었다. 아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죽은 이와의 친한 우의는 폐하지 않았으니, 공이 의리를 절충함에 그 바름을 잃지 않음이 이와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공을 칭찬하였다.

공은 시사에 분개하며 마침내 명예와 이익에 대한 생각을 끊고,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며, 몇 칸의 정사를 성 서쪽의 죽림 가운데 세우고, 오락정(五樂亭)이라는 편액을 달았는데 형제, 처자, 시와 술, 빈곤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 도리를 즐기는 것, 이 다섯 가지가 공이 말년에 즐긴 바이다. 서문과 시를 지어서 다섯 즐거움의 의의를 얘기하고, 문미(門楣)의 사이에 써놓고 분수에 따라 추구함이 없는 것이 곧 공의 뜻이다.

병진년(1616년, 광해군 8)에 호군공(護軍公)의 상을 당하니, 장례의 법도를 오로지 주문공(朱文公)[53]의 『가례(家禮)』에 따랐다. 3년 상이 끝나자 다시는 세상일에 뜻이 없어서, 오직 깊이 은거하며 책 읽는 것을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오경(五經)에서 자사(子史)에 이르기까지 손에서 놓지를 않았으며 입에서 읊조림이 끊이지 않았다. 노자와 장자 등의 책을 읽는 데에 이르러서는 또한 자못 지나치거나 도리가 아닌 것은 버리고 이치에 가까운 것을 취하여 소리내어 읽는 여가에 또한 끊임없이 시를 읊었다. 사물 가운데 사랑스럽거나 밉거나, 법식이 되거나 경계가 되는 것들 모두 끊임없이 읊조리니, 세상에서 그저 읊기만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뜻하는 바가 더욱이 같지 않았다.

계해년(1623년, 인조 1)에 이르러 보위가 바뀌고 큰 인륜을 올바르게 회복하였고, 흉한 무리들이 법의 처벌을 받아 조정이 맑고 밝게 되었다. 서울과 지방의 친구들이 공이 헛되이 산림에서 늙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과거에 응시할 것을 권하였지만, 공은 줄곧 평소의 뜻을 견지하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시로써 스스로 맹세하며 말하기를 "차라리 초가 아래에서 머리를 천장에 치는 것이 나으리, 아내 바라보고 아들의 손을 잡고 풍년을 기원하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적공(翟公)의 문[54]에 편액이 걸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소! 세상을 버리고 나무하

---

53) 주문공(朱文公): 송나라 때 이학(理學)을 집대성한 주희(朱熹, 1130~1200)를 말한다. 자는 원회(元晦), 호는 회암(晦菴)·고정(考亭)이다. 문공(文公)은 시호이다. 저서로는 『주자대전(朱子大全)』이 있다.

54) 적공(翟公)의 문: 세력이 있으면 빌붙고 권세가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염량세태(炎涼世態)를 가리키는 말이

고 물고기 잡는 것으로 늙는 것만 못하리라."라고 하였다. 산수 가운데 기이하게 좋은 곳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문득 흥취가 발하여 학창의(鶴氅衣)를 입고 죽관(竹冠)을 쓰고 반드시 방문하였다. 혹은 지팡이를 짚고 혹은 푸른 소를 타고, 혹은 초연하게 홀로 가고, 혹은 혼자 은거하며 운치 있는 선비들과 함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갔다. 좋은 경치를 만나면 술상을 차려놓고 시를 읊으면서 날이 저무는 것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대의 또래 친구들 이를테면 계곡(谿谷) 장유(張維)[55], 석촌(石村) 임서(林惰)[56], 관해(觀海) 임회(林檜)[57]와 필자의 족조인 기암공(畸庵公)[58]과 같은 명류들과 모두 친하게 사귀어 막역지교(莫逆之交)가 되었으며, 공이 포의(布衣)라고 하여 무시하지 않았다. 병인년(1626년, 인조 4) 공의 연세 59세에 화가에게 공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스스로 서문과 찬문을 지어서 그림의 왼쪽에 써넣고, 공의 둘째 아들 진사공(進士公)에게 위탁하여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였다. 이는 진사공의 집이 영암에 있었는데, 본가인 금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처럼 해서 마치 부친을 뵙는 듯이 효성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인조반정 이후에 공은 연달아 별좌(別坐), 참봉(參奉), 금부도사(禁府都事)의 망단자에 의망되었다. 숭정(崇禎) 무진년(1628년, 인조 6)에 유릉참봉에 제수되었고, 기사년(1629년, 인조 7)에 자여찰방에 제수되었고, 신해년(辛亥年)에 다시 정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

다. 적공(翟公)이 정위(廷尉)로 있을 때는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다가 관직을 그만두자 대문 앞에 새 잡는 그물을 칠 정도가 되었는데, 다시 정위로 복귀함에 사람들이 예전처럼 몰려왔다고 한다. (『史記』「汲鄭列傳」)

55)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지국(持國), 계곡(谿谷)은 그의 호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1605년(선조 38)에 사마시를 거쳐 1609년(광해군 1)에 증광문과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들어갔다.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예조 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이정귀(李廷龜)·신흠(申欽)·이식(李植) 등과 더불어 조선 문학의 사대가(四大家)라는 칭호를 받았다. 시호는 문충(文忠)이고, 저서로는 『계곡집(谿谷集)』 등이 있다.

56) 석촌(石村) 임서(林惰): 1570~1624.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신(子愼), 석촌(石村)은 그의 호이다. 1599년(선조 32)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1612년(광해군 4) 폐모론이 일어나자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안동 부사가 되고, 이어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쌓였던 폐단을 일소하고 농업의 권장과 군사의 조련 등에 힘썼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도원수 장만(張晩)을 도와 적을 토벌하였다. 저서로는 『석촌유고(石村遺稿)』가 있다.

57) 관해(觀海) 임회(林檜): 1562~1624. 본관은 평택, 자는 공직(公直), 관해(觀海)는 그의 호이다. 정철(鄭澈)의 문인이자 사위로, 1611년(광해군 3)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으나 대북파 정인홍·이이첨에게 모함을 당하여 곧 사직하였고, 1613년에는 양산에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대북파가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예조 정랑에 복직되었으며, 1624년 이괄의 난 때에 경안역(慶安驛)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58) 기암공(畸庵公): 정홍명(鄭弘溟, 1582~1650)의 호이다.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자용(子容), 또 다른 호는 삼치(三癡)이다. 송강(松江) 철(澈)의 아들이고 송익필(宋翼弼)·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1616년(광해군 8)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청요직을 두루 거치고 대제학에 이르렀다. 고문에 밝고 학문은 김장생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며, 저서로는 『기암집(畸庵集)』 등이 있다.

하지 않았다. 계곡과 기옹 두 분이 늘 공을 북돋우면서 누차 불러도 나아가지 않음은 분수와 의리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공은 그럴 때마다 헛된 명예가 지나치게 높으면 위로는 하늘을 속이고 아래로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는 등의 말로써 사양하였다.

을해년(1635년, 인조 13) 7월에 의정부에서 예조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재주와 행실이 높은 사람을 포상하려는 뜻을 마련하였다. 들어가서 아뢈에 공을 세금 면제[59]의 반열에 두었으나, 왕명이 내려 "이 사람을 세금 면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라고 하였고, 해당 조(曹)에 명하여 본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쌀, 나무, 고기를 후하게 하사하니, 그 대우가 별난 것이었다.

병자년(1636년, 인조 14) 가을에 주상으로부터 유일(遺逸)을 찾으라는 명이 있어서 고을 사람들이 공을 천거하며 말하기를, "전임 찰방 김모는 몸가짐이 바르고 절개가 돈독하여, 관직을 제수하여도 응하지 않고 시종일관 고요함을 지킨다."라고 하였다. 오준(吳竣) 공(公)이 당시 본주의 목사가 되었는데, 방백에게 보고하기를, "듣자니 이 고을에서 크고 작은 공론이 김모는 학술에 마음을 깊이 두고, 고요함을 지키며 자신을 닦는다고 합니다. 도내의 사람들이 모두 성대하게 떠드니, 진실로 주상께 보고함에 합당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 북방의 전투가 갑자기 급하여, 어가가 성을 나서니 그 일이 잦아들었다. 이 이후로는 늘 오락정의 안에 은거하여 인사를 사절하고, 담박함을 일삼지 않으며, 오직 뜻에 맞는 행동만 하고, 날마다 자제를 교육하고 서적을 탐독하고 꽃과 과일을 기를 뿐이었다.

또 일찍이 고금 사람들의 출처와 기이한 자취를 수집하여, 몇 책을 모아 만들어 『초당한람(草堂閑覽)』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고인과 친구가 되려는 뜻을 깃들인 것이다. 임오년(1642년, 인조 20) 2월 16일에 오락정에서 생을 마치니 향년 75세였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정신이 어지럽지 않았고, 집안일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다. 종이와 붓을 찾아 글을 써서 두 아들에게 남기니 다음과 같다. "아아! 너희들은 죽음에 임하여 내리는 지극한 경계를 잃지 않도록 하라. 형제가 화목하고 남매가 아끼며, 집안에서는 인의를 잃지 말고, 마을에서는 의리를 잃지 말라. 일에 임해서는 절도에 맞게 하고, 어질고 지혜로움에 오로지 맡겨라.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는 것을 옛사람들이 무엇이라 했는가? 부모의 슬하에서 동생과 조카가 기다리고 있다. 늙은 아내가 옆에서 모시면서 날마다 내가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구천에 돌아가면 즐거움이 끝이 없으리라. 여든이 가까워지니 죽어도 조금의 유감도 없다. 말을 여기에서 그칠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다가오니 어찌할까? 그만둬야겠다. 너희들이 죽은 뒤에 다시 부모의 기쁜 얼굴을 바라

---

59) 세금 면제: 원문의 복호(復戶)는 국가에서 조세(租稅)나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충(忠)·효(孝)·열(烈)로 정표(旌表)된 사람, 80세 이상의 노인, 70세 이상으로 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내고 물러나 있는 사람, 공무로 죽은 사람, 향화인(向化人)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보리라.” 하고는 글을 마친 뒤 숨을 거두었다. 올해 4월 모갑(某甲)날이었다. 나주의 서쪽 산기슭 용두동(龍頭洞), 해(亥) 방향의 등성이에 장례를 지냈다. 유인(孺人) 이씨(李氏)는 순수한 성품과 지극한 행실이 있었다. 공보다 6년 앞서 졸하였고 후에 공과 합장하였다.

족조 기옹께서 일찍이 공의 묘에 지문(誌文)을 지어주었다. 공에게는 2남 2녀가 있는데, 장남 시칭(時偁)[60]은 진사로서, 음덕으로 덕산현감(德山縣監)에 임명되었다. 차남 시간(時暕)은 진사이다. 장녀는 박진빈에게 시집을 갔고, 차녀는 진사 이익빈에게 시집을 갔다. 현감 시칭은 처음엔는 홍씨(洪氏)에게 장가들었고, 그 후에 오씨(吳氏)에게 장가들었다. 이명언(李明彦)에게 시집간 딸은 홍씨 소생이고, 조정방(曹挺邦)에게 시집간 딸과 나원기(羅遠器)에게 시집간 딸 그리고 아들 상(翔)은 모두 오씨 소생이다. 진사 시간은 처음에는 현씨(玄氏)에게 장가들었고 그 후에 서씨(徐氏)에게 장가들었다. 아들 네 명을 두었는데, 장남 생원 습(習)은 현씨 소생이고, 학생으로 일찍 죽은 차남 령(翎)과 삼남 진사 증(翻)과 사남 통덕랑(通德郎) 휘(翬) 그리고 이남명(李南明)에게 시집간 딸과 최상하(崔尙夏)에게 시집간 딸은 모두 서씨 소생이다. 박진빈의 아들은 수증(壽曾), 시증(是曾)이요, 이익빈의 아들은 상하(相夏), 상은(相殷), 상주(相周), 상한(相漢)이다. 상(翔)은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일중(一重), 일운(一運), 일진(一震), 일채(一彩), 일행(一行)이다. 습(習)의 아들은 일린(一麟)이고 딸들은 홍숙연(洪叔衍), 안경주(安慶胄), 홍윤한(洪潤漢)에게 시집갔다. 일린(一麟)의 아들은 한(僩)이다. 령(翎)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일용(一龍), 일기(一夔)이고, 딸은 신경억(愼慶億), 임내당(任乃堂)에게 시집갔다. 일용의 아들은 칭(偁)이요, 일기의 아들은 현(俔)과 전(佃)이다. 증(翻)의 두 아들은 일기(一麒)와 일붕(一鵬)이요, 일기(一麒)의 아들은 수(脩)와 시(偲)이며 일붕(一鵬)의 아들은 간(侃)이다. 휘(翬)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일봉(一鳳), 일준(一駿), 일웅(一熊)이요 딸들은 신유헌(愼惟憲), 윤주대(尹周大)에게 시집갔다. 이남명의 아들은 치(治)인데 생원을 지냈다. 최상하의 아들들은 종흥(宗興), 언흥(彦興)이다. 내외의 증손과 현손들은 총 백여 명이다.

공은 독실한 효도와 지극한 행실이 있어서, 9세에 모친을 잃었기에 봉양하지 못한 것을 지극히 아파하였다. 누이동생과 남동생이 모두 어렸지만, 옷을 전하여 입었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으며, 장성해서도 관계가 쇠하지 않았다. 평생 산업을 일삼지 않고, 부친을 섬기는 모든 것에 반드시 정성과 효도를 지극히 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물건은 노비에게 맡기지 않고 그 정결함을 다하였다. 공이 동생을 잃었을 때, 몸의 반쪽을 잃은 듯이 여기고 지극히 애통함이 마음에 있었다. 고아가 된 조카들을 다독거림에 한결같이 자신이 낳은 듯하였으며, 그들의 배고픔과 추위를 불쌍하게 여겨 시종일관 게으르지 않았으니 공의 효도와 우애가 타고난 듯했

60) 시길(時吉)→시칭(時偁)이라고 했으나, 시길이 맞는 듯하다. 원문에 시칭(時偁)이라 되어 있다.

다. 타고난 자질이 질박하고 무게가 있었으며, 반듯한 것을 좋아하고 둥글둥글한 것을 싫어하였다. 자제를 가르침에 있어서 법도를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고, 일에 따라 잘 인도하여 반드시 의리의 영역으로 넣었다. 종족들과 우애함에 반드시 화목하였으며, 친구를 사귈 때는 반드시 신의로서 하였다. 본디 번잡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바른 마음으로 책을 보는 것 외에 달리 좋아하는 것이 없었다. 집안 안에 장기나 바둑, 완호(玩好)의 물건들을 두지 않았으며, 거친 밥과 채소국이라 하더라도 분수에 따라 편안하게 여겼다. 부귀(富貴)로는 공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했으니 또한 학문을 좋아한 효력을 알 수 있다. 공이 지은 시문이 매우 많은데 산일(散逸)됨을 면하지 못했다. 문집 중에 기록된 것들 몇 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지금 공의 증손 일린 등이 평소의 일과 행동을 기록하여 행장을 지어달라고 청하니 그 요점을 뽑아 위와 같이 삼가 행장을 쓴다.

숭정 기원후 갑진년(1724년, 영조 즉위년) 12월 모일에 오천 사람 정호(鄭澔)[61]가 삼가 행장을 쓴다.

출전 : 김종섭 역, 『(국역)시서유고』, 나주시, 2003

公諱璇。字而獻。自號市西居士。又號之西子。光山之金。肇自新羅國姓。有王子興光。知國將亂。始遜于光。實金氏之鼻祖也。子孫爲高麗巨族。相繼爲平章事垂八代。世稱所居里平章洞。本朝有德龍。官至大司憲。移居于羅州。遂爲羅州人。歷五世至軾生員。於公爲高祖也。曾祖諱廷彦。生員。祖諱深。考諱富成。上護軍。妣驪興閔氏。舍人德鳳之女。生公于隆慶戊辰九月二十日。天資弘偉。在髫齡。已儼然如成人。九歲。丁母夫人憂。執喪如儀。至服闋。始食肉。鄕里莫不稱服。自知讀書。與林判書墠同遊學。乙酉。公年十八。娶敬寧大君四世孫。郡守用沈之女。實我太宗大王某代孫也。公事親至誠。時護軍公年已嚮暮。公以爲非科業。無以盡悅親之道。於是玩心經業。夙夜匪懈。丁亥。魁鄕解。與姜睡隱沆。洪盤桓千璟諸人相上下。嘗與儕友。肄業於景賢院。時當盛暑。一座皆披襟偃息。忽有巨蟒。墜自樑棟間。橫於公腰腹之上。衆皆駭散。而公色不變。看書如故。蟒退乃起。人服其弘量焉。丁酉倭變。公上奉下挈。奔避於海西之長淵地。雖當流離顚沛之際。奉養之節。靡不竭力。晝夜謀度。不至窘乏。時避亂者。無慮百數。而得食必分。無間物我。賴以全活者多。乙巳春。始登司馬。自弱冠。連捷大小解額。殆無虛歲。而至是三十八而始中。知公者惜其晩也。是年秋。五賢從祀之論起。一道章甫推公爲疏頭。疏卽公之所自製也。辭正理順。雖不蒙允。識者韙之。戊申。宣廟昇遐。光海嗣位。賊臣爾瞻等用事。州人金佑成者。卽公堂叔也。諂附爾瞻。氣勢鴟張。一時士類之持正論者。必中傷而後已。公以至親之間。不忍恝視。規以義理。欲挫其銳。而不惟不

61) 정호(鄭澔): 1648~1736.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중순(仲淳), 호는 장암(丈巖)이다. 정철(鄭澈)의 현손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84년(숙종 10)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정언이 되었고, 1689년 기사환국으로 경성(鏡城)에 유배되었다가 1694년 갑술옥사로 풀려나 교리·광주 부윤·부제학·대사성·이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1721년(경종 1)에 신임사화로 파직되어 강진으로 유배되었으나 1725년(영조 1) 노론의 재집권으로 풀려나 우의정·좌의정·영의정을 지냈다. 저서에는 『장암집(丈巖集)』 등이 있다.

聽。反有以銜之。公嘗冠別試。選到京。佑成嗾人停擧。公卽浩然還鄕。及後兇黨益肆。幽廢母后。完平李公元翼。獨發扶倫之論。大見忤於時輩。禍將不測。湖中多士。相與倡率。將欲伸救李相。竟阻不達。兇黨謂其事由公倡之。旣削迹泮宮。四館停擧。而尹惟謙。李廷彦等。又連疏。請治公準以鄭澤雷等護逆之律。而大臣收議。以疏不達政院。不得科罪。僅以獲免。公旣與佑成爲仇。及佑成之喪其母也。公以親戚之誼。往赴其喪次。則佑成拒而不納。公不得已於門外。設席獨坐。逐日如此。至成服乃已。不以其子之惡。而并廢亡者之親懿。其折衷恩義。不失其正如此。人皆稱美之。公憤切時事。遂絕意於名利上。杜門屛迹。搆數間精舍於城西竹林中。扁以五樂亭。蓋兄弟也。妻子也。詩酒也。安貧也。樂道也。是五者。爲公晩年所樂云爾。作序若詩。道五樂之意。而揭諸楣間。守分無求。卽其志也。丙辰。遭護軍公喪。喪制一從朱文公家禮。服除。無意於世事。惟以深居讀書自娛。自五經旁及子史。而手不停披。口不絕吟。以至於莊老等書。亦頗汎濫。其非道。而取其近理。誦讀之暇。又哦詩不輟。凡物之可愛可惡。可以爲法。可以爲戒者。無不發之於咨嗟詠嘆之間。其與世之徒事嗥咷者。趣尙自不侔矣。逮癸亥改玉。大倫復正。群兇伏法。朝著淸明。京鄕諸友。惜其虛老林泉。勸以赴擧。而公永堅素志。確不可拔。以詩自誓曰。爭似打頭茅屋下。對妻携子願年豐。又曰。莫怪翟門懸一牓。不如遺世老漁樵。聞有山水奇勝處。則悠然興發。衣鶴氅頂竹冠。必就訪焉。或扶藜杖。或騎靑牛。或超然獨往。或與幽人韻士。相先後。遇一佳境。則命酒賦詩。不知日之將暮也。同時儕友如張谿谷維。林石村墰。林觀海檜及鄙族祖畸翁諸賢。皆傾倒。定爲莫逆交。不以布衣小之。丙寅。公年五十九。倩畫師。寫其貌。自製序若贊。書于畫之左方。托其仲子進士公。以寶藏之。蓋進士公家于朗州。與錦城本家旣遠。則欲於此。寓其如見之孝也。自反正以後。以公連擬別坐。參奉。禁府都事之望。至崇禎戊辰。除裕陵參奉。己巳。除自如察訪。辛亥。又除靖陵參奉。皆不赴。谿谷。畸翁兩公。每爲之勸勉。以累徵。不起。於義未安。公輒以虛譽過隆。上以欺天。下以欺人等語謝之。乙亥七月。政院以禮曹京外才行褒賞之意入啓。而置公於復戶之列。傳曰。此人置之復戶似未妥。當命該曹。行關本道。優賜米。木。魚。蓋異數也。丙子秋。自上有搜訪遺逸之命。州人擧公以薦曰。前察訪金某。持身方正。氣節敦確。除職不應。終始守靜云。吳公竣時爲本州牧。轉聞方伯曰。聞此一州大小公論。則金某潛心學術。守靜自修。道內之人。無不藉藉。誠合啓聞云。會北警猝急。大駕出城。事遂寢。常屛居五樂亭中。謝絕人事。沖淡無營。惟敎訓子弟。點窴書籍。蒔養花果而已。又嘗搜輯古今人出處奇迹。裒成數册。目以草堂閑覽。以寓尙友之志焉。以壬午二月十六日。考終于五樂亭。享年七十有五。將易簀。精神不亂。語不及家事。索紙筆。書遺二子曰。噫。汝等毋失臨死之至戒。兄弟和睦。娚妹愛恤。家不損仁。鄕不失義。臨機應節。一任良智。人而無信。古人謂何。父母膝下。弟姪相待。老妻侍側。望我歸。歸去九原。樂不可極。八十將迫。死無毫憾。言非止此。奈迫奄奄。已矣乎。汝等百歲之後。重承父母之歡顔。書卒而盡。以是年四月某甲。葬于錦城之西麓龍頭洞亥向之原。孺人某氏。有純性至行。先公六年而沒。與公合葬。畸翁嘗誌其墓。生二男二女。男長時偁。進士。蔭補德山縣監。次時暕。進士。女長適士人朴晉彬。次適進

士李益馝。縣監前娶洪氏。後娶吳氏。女長適李明彦。洪氏出。次適曹挺邦。次羅遠器。男翔。皆吳氏出。進士前娶玄氏。後娶徐氏。四男。長習。生員。玄氏出。次翎。學生早沒。次翮。進士。次翬。通德郎。二女長適李南明。次崔尙夏。皆徐氏出。朴晉彬子曰壽曾。是曾。李益馝子曰相夏。相殷。相周。相漢。翔五男。一重。一運。一震。一彩。一行。習男。一麟。女洪叔衍。安慶胄。洪潤漢。一麟男。僩。翎二男。一龍。一夔。女愼慶億。任乃堂。一龍男。俔。一夔男。俔。佃。翮二男。一麒。一鵬。一麒男脩。偲。一鵬男侃。翬三男。一鳳。一駿。一熊。女愼惟憲。尹周大。李南明子曰治。生員。崔尙夏子曰宗興。彦興。內外曾玄。摠百餘人。公有篤孝至行。九歲失慈。以不及致養爲至痛。一妹一弟。俱在幼稚。傳服而衣。同案而食。以至長成而不衰焉。平生不事產業。而奉親一節。必盡誠孝。祭享之物。不委婢僕。而致精潔。其喪弟也。如割半身。至痛在心。撫其孤侄。一如己出。恤其飢寒。終始不怠。蓋其孝友。天性然也。稟質簡重。喜方惡圓。敎子弟不煩程督。而隨事善導。必納之義範。待宗族。必雍睦。交朋友。以信義。雅不喜紛華。靜坐看書之外。無他嗜好。門庭之內。不設博奕玩好之具。糲飯菜羹。隨分而安。富貴不足以動其心。亦可見好學之驗也。公所著詩文甚多。而未免散逸。錄在集中者若干卷。藏于家。今其曾孫一麟等錄其平日事行。請撰行狀。撮其要。謹狀如右。崇禎紀元後甲辰十二月 日。烏川鄭澔謹狀。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장암집(https://db.itkc.or.kr/)

6) 김천일(金千鎰, 1537~1593)

• 본관 언양(彦陽), 자 사중(士重), 호 건재(健齋)

(1)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선조 25년 임진년 5월

5월, 왜적이 한양(漢陽)에 들어가니, 선생은 집에서 통곡하며 이르기를,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고 인심이 이탈되었으니, 비록 어진 장수가 있을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군부가 위급한 판에 어느 겨를에 이험(夷險)을 논하리요.”라고 하고, 전 부사 고경명, 전 목사(牧使) 박광옥(朴光玉)[62], 전 정랑(正郎) 정심(鄭諶)[63], 전 군수(郡守) 최경회에게 편지를 보내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16일에 고향의 자제를 불러 모았다. 또한 의사 송제민(宋濟

62) 박광옥(朴光玉): 1526~1593. 본관은 음성(陰城), 자는 경원(景瑗), 호는 회재(懷齋)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고경명 · 김천일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고, 고향의 의병도청(義兵都廳)에서 군사 장비와 군량을 조달하였다. 의병 활동의 공로로 다시 관직에 올라 나주 목사로 재임하다가 죽었다. 1602년(선조 35) 나주 벽진촌(碧津村)에 세워진 의열사(義烈祠)에 제향되었으며, 뒤에 벽진서원으로 고쳐졌다. 운봉(雲峰)의 용암서원(龍巖書院)에도 제향되었다. 저서에 『회재유집(懷齋遺集)』 등이 있다.

63) 정심(鄭諶): ?~?. 본관은 나주, 자는 중실(仲實), 호는 일헌(逸軒)이다. 1568년(선조 1)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民)[64], 양산룡(梁山龍)[65], 양산숙, 임환(林懽)[66], 이광주(李光宙)[67], 서정후(徐廷厚) 등도 오게 했다. 선생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랏일이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들이 어찌 구차하게 살 수 있겠는가. 가령 살고자 한들 이치상 홀로 온전할 방법은 없다. 더불어 구학(溝壑)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을 토벌하다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네, 네."라고 하였다. 혹 양향(糧餉), 마우(馬牛), 혹 가동(家僮)들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도착한 자들이 300인이었고, 기계(器械)도 또한 조금 갖춰졌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五月。賊入城。先生在家號痛曰。紀綱紊矣。人心離矣。雖有良將。無奈何。然君父之急。奚暇論夷險。簡前府使高敬命。前牧使朴光玉。前正郎鄭諶。前郡守崔慶會。約以擧義。十六日。招集鄕子弟。義士宋濟民。梁山龍。梁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亦來會。先生中坐流涕曰。國事至此。吾輩豈可苟活。藉令欲生。理無獨全。與其溝壑而死。無寧討賊而死乎。皆曰唯唯。或糧餉。或馬牛。或家僮。不日而至者三百人。器械亦粗辦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2)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

만력(萬曆) 20년 임진년 왜노(倭奴)들이 온 나라의 군사를 다 동원하여 쳐들어왔다. 영남을 쳐부수고 조령을 넘어 열흘도 채 못되어 바로 기전(畿甸)으로 곧장 쳐들어가니, 여러 진영의 모든 장수들이 소문만 듣고 달아나 무너져서 감히 그 칼날에 맞설 자가 없었다. 공이 임금의 대가는 피난을 떠나고 도성은 지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울부짖으며 애통해하며 거의 목숨이

---

64) 송제민(宋濟民): 1549~1602. 본관은 홍주(洪州), 자는 사역(士役) · 이인(以仁), 호는 해광(海狂)이다.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벼슬은 하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산룡(梁山龍)·양산숙 등과 의병을 일으켜 김천일의 막하에서 전라도 의병조사관으로 활약하다가 이듬해 다시 김덕령(金德齡)의 의병군에 가담하였다. 김덕령이 옥사하자 종일토록 통곡하고 『와신기사(臥薪記事)』를 저술하였다. 또, 「척왜만언소(斥倭萬言疏)」를 올려 왜적을 물리칠 여러 방안을 피력하였으나 이것이 감사의 미움을 사게 되어 이후 무등산에 은거하면서 세상을 잊고 살았다.

65) 양산룡(梁山龍): 1552~?. 본관은 제주, 자는 우상(宇翔)이다. 1579년(선조 12)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66) 임환(林懽): 1561~1608. 본관은 나주, 자는 자중(子中), 호는 습정(習靜)이다. 1590년(선조 23)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천일 밑에서 종사관으로서 군무(軍務)를 맡았다. 또한, 전란으로 인하여 많은 유민이 생기자 이를 진휼하는 데에 힘쓰기도 하였다. 정유재란 때 자기 집의 곡식 수백 석을 지출하였으며, 전라도에서 의병을 모아 대장이 되어 8도에 격서(檄書)를 보내 백성의 궐기를 호소하였다. 뒤에 무주 현감·문화 현령을 거쳤으나 조정 권신들의 미움을 사서 끝내는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에 돌아와 후진 양성에 여생을 바쳤다.

67) 이광주(李光宙): 1540~?. 본관은 양성(陽城), 자는 천중(天中)이다. 1591년(선조 24)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위태롭기까지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지금 나라의 기강이 이미 문란해지고 인심은 이미 떠나버렸으니, 비록 훌륭한 장수가 있을지라도 또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군부(君父)의 급함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겨를에 형세의 난이(難易)를 따지겠는가.”라고 하고는, 전(前) 부사(府使) 고경명, 전(前) 목사(牧使) 박광옥, 전(前) 정랑(正郎) 정심, 전(前) 군수(郡守) 최경회에게 급히 글을 보내어, 의거를 일으킬 것을 알렸다. 그리고 지사(志士)들 중에 함께 도모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같았던 송제민, 양산룡, 양산숙, 임환, 이광주, 서정후 등도 팔을 걷어붙이고 모였으니, 때는 임진년 5월 15일이었다. 이때, 향리의 부노(父老)와 자제들을 소집하여 나주의 공관(公館)에 크게 모아 놓고 공이 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나랏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들이 어찌 구차히 살려고 마음먹으리오. 가령 살고 싶어도 이치상 홀로 온전할 방법이 없고 다만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일일 뿐이다. 그러니 도망하여 구렁에서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을 토벌하다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사방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옳습니다. 김공.”이라고 하였다. 혹은 군량을 바칠 것, 어떤 이는 군량(軍糧)을 보내줄 것을, 어떤 이는 전마(戰馬)를 협조할 것을, 어떤 이는 대신하여 정장(丁壯)이 될 것을 원하니, 하루가 못되어 모인 사람이 300명이나 되고, 기계도 대략 완비가 되었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二十年壬辰。倭奴擧國入寇。破嶺南踰鳥嶺。不旬日。直搗畿甸。列營諸將。望風奔潰。無敢嬰其鋒者。公聞大駕蒙塵。都城失守。號慟幾絕。因曰。目今紀綱已紊。人心已離。雖有良將。亦無可奈何。然救君父之急。豈暇論勢之難易。乃馳書於前府使高敬命。前牧使朴光玉。前正郎鄭諶。前郡守崔慶會。告以擧義之事。志士之不謀而同者。宋濟民。梁山龍。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投袂而集。時五月十六日也。於是。招集鄕父老子弟。大會于公館。公中坐垂涕曰。國事至此。吾輩何心苟活。藉令欲生。理無獨全。但早晩事耳。與其竄死於溝壑。不猶愈於討賊而死乎。四座皆曰唯公。或願輸軍糧。或願助戰馬。或願代丁壯。不日而至者三百。器械亦粗完。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3)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1, 임진년 상 5월 3일

전라 감사 이광(李洸)이 전 부사 고경명(高敬命)에게 보낸 서한에, “대가가 서쪽으로 순행하고 서울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통곡하고 또 통곡할 일입니다. 오늘 할 일이 있다면, 오직 애통하고 절박한 취지로 격문을 띄워서 사방의 의로운 벗들을 불러 타일러야 합니다. 그 후 날짜를 정해 군사를 일으킨다면 거의 하늘에 사무친 통분(痛忿)을 씻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격문의 말이 만약 간절하지 않으면 남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으니 격문을 거칠고 엉성하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붓 한번 휘둘러서 속히 보여주시기를 감히 바랍니다. 오장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갓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할 따름입니다. 또 이 뜻을 사중(士重, 김천일)과 여러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중략)

(5월 26일) 전라 좌우도의 선비들이 의병(義兵)을 일으킬 것을 제창하다. 좌도는 전 부사인 첨지 고경명(高敬命)을 대장에 모셨고, 학유(學諭) 유팽로(柳彭老)와 학관(學官) 양대박(梁大樸)을 종사(從事)로, 정랑(正郎) 이대윤(李大胤)과 정자(正字) 최상중(崔尙重)·양사형(楊士衡)·양희적(楊希迪) 등을 모량유사(募糧有司)로 삼았다. 우도는 전 부사인 김천일(金千鎰)을 대장으로 모셨다. 고경명은 광주(光州) 사람으로 전에 동래사(東萊府使)를 지냈고, 김천일은 나주(羅州) 사람으로 전에 수원사(水原府使)를 지냈다. 애초에 유팽로가 서울이 함락되어 거가가 서쪽으로 피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낮으로 소리쳐 울며 편안히 잠들지도, 먹지도 못했다. 이에 동지 양대박 및 양희적과 함께 고경명을 찾아가서 지방의 병사를 서둘러 일으켜 북으로 향해 임금을 위해 힘쓸 것을 모의하니, 고경명은 그들이 먼저 생각해 낸 것을 기뻐하며 흔연히 그들을 따랐다. 그날로 여러 읍에 격문을 돌려 추성(秋城)으로 불러 모아 거병할 날짜를 정하고 깃발을 세웠다. 본도에서 의병을 제창한 것은 유팽로 등이 첫째였으므로, 호남에 삼창의(三倡義)라는 말이 생겼다.

全羅監司李洸。與前府使高敬命書。大駕西狩。京城不守。國事至此。慟哭慟哭。今日之義。惟當以哀痛迫切之義作檄。招諭四方義侶。刻日擧兵。庶雪通天之痛。言若不切。則無以感動人心。檄文不可草率。敢煩一揮。幸速示。五內如裂。不知所爲。徒北望慟哭而已。且通此意于士重。金千鎰字諸公何如。(中略)

全羅左右道士子等倡擧義旅。左道則拜前府使僉知高敬命爲大將。學諭柳彭老。學官梁大樸爲從事。正郎李大胤。正字崔尙重。楊士衡。楊希迪等爲募粮有司。右道則拜前府使金千鎰爲大將。敬命光州人。前爲東萊府使。千鎰羅州人。前爲水原府使。初。柳彭老聞京城失守。龍馭西巡。晝夜號泣。不安寢食。與同志人梁大樸。楊希迪往謀于敬命。倡起鄕兵。北首勤王。敬命喜其先獲。欣然從之。卽日移檄列邑。徵會秋城。約日建旗。本道倡義彭老等爲首。故湖南有三倡義之稱。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https://db.itkc.or.kr/)

(4) 신경(申炅),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2

이때에 각 도의 군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중략) 전라도에서는 전 판결사(前判決事) 김천일(金千鎰)·첨지(僉知) 고경명(高敬命)·전 영해 부사(寧海府使) 최경회(崔慶會)·절도사 최원(崔遠)·선비 양산숙(梁山璹)·광주 목사(光州牧使) 권율(權慄)·중 처영(處英)·좌수사 이순신(李舜臣)·우수사(右水使) 이억기(李億祺)·김제 군수(金堤郡守) 정담(鄭湛)·해남현감(海南縣監) 변응정(邊應井) 등이, (중략) 일어나서 혹은 의병이 되어 순절하고 혹은 고단한 군사로 적에게 대항하기도 하였다.

是時諸道之兵。處處蜂起。(中略) 全羅道則前判決事金千鎰。僉知高敬命。前寧海府使崔慶會。節度使崔遠。士人梁山璹。光州牧使權慄。僧人處英。左水使李舜臣。右水使李億祺。金堤郡守鄭湛。海南縣監邊應井。(中略) 或以義旅殉節。或以孤軍抗敵。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재조번방지(https://db.itkc.or.kr/)

(5)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임진년 6월 3일

(1592년) 6월 3일에 단에 올라 삽혈하며 부오(部伍)들과 약속하였다. 장차 북상하려 할 때 군중(軍中)에 명령하며 말하기를, "장수 노릇을 잘하는 이는 비록 적의 경내(境內)일지라도 추호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로서 병사를 일으켰으니 감히 포악한 약탈을 행하겠는가. 적의 경내를 범한 자는 참수하리라."라고 하니, 군중이 숙연해져 지나는 곳마다 다 감동하여 다투어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맞이하며 위로하며 모두들 의에 부합하기를 원하였다.

머지않아, 삼도의 관군이 용인에서 무너지니, 흩어진 군사들이 의병들의 단약(單弱)함을 보고 말하되, "우리는 10만 군사로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군사가 겨우 수백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라고 하니 군중이 다 두려워하였다. 선생이 군중을 돌며 타이르기를, "너희들은 나라에서 편안히 지내던 백성이 아니더냐.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 의(義)를 잊을 자는 마음대로 가라."라고 하니,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죽기로 맹세하니, 흩어진 군사들도 차차 다시 되돌아왔다. 행군하여 호서에 이르니, 병사들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 장차 금강을 건너려 할 때 어떤 이가 말하기를, 현군(懸軍)이 다 깊이 들어가는데 후계가 없으니 어찌하리요."라고 하니, 선생이 눈물을 흘리며 먼저 앞장서서 말하기를, "내가 먼저 오르지 않으면 누가 후계가 되리오."라고 하였다. 이에 척후(斥堠)를 멀리 보내며 부오(部伍)를 가지런히 하고는 바로 수원에 이르러 독성산(禿城山)에 머물며 진을 쳤는데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날마다 백여 명이나 늘어나, 군성이 크게 진동했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以六月三日。登壇歃血。約束部伍。將北上。令軍中曰。善將者。雖賊境。不犯秋毫。以義起兵。敢行暴掠。犯者斬。軍中肅然。所過感悅。爭持牛酒迎勞。皆願附義。無何。三道官軍。潰于龍仁。散卒見義兵單弱曰。吾以十萬潰一朝。卒僅數百。可奈何。軍中懾。先生巡諭曰。爾等非國家休養之民乎。主辱臣死。定謂今日。徇生忘義者。任其去也。衆皆揮涕誓死。散卒亦稍稍歸。行至湖西。衆數千。將渡錦江。或曰。懸軍深入。奈無後繼何。先生揮涕先登曰。我不先登。孰爲後繼。於是。遠斥堠。整部伍。直抵水原。留陣禿城山。赴義者日以百矣。軍聲大振。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6)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

공은 오랫동안 요통을 앓았기에, 평상시 움직일 때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했다. 온 집안 친속(親屬)들이 똑같은 말로 다시 말렸으나 공은 이를 듣지 않고는 6월 3일 단에 올라 삽혈을 하고 마제를 지냈다. 그러고는 길에 오르며 혼연히 좌우에 이르기를, "오늘 칼을 차고 나오니 마치 새가 새장을 벗어난 것처럼 내 병이 쇄연(灑然)히 몸에서 사라진 것 같구나."라고 하였다.

당시에 더위가 무성해서, 뒤에 따르는 사람이 일산(日傘)을 드리니, 공이 이를 물리치며 말하기를, "승여(乘輿)가 비바람에 드러나 있는데 신하 된 자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물건을 쓰리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중에 명하되, "옛적에 군사를 잘 쓰던 이들은 비록 적의 경내에 들어갈지라도 그 경내를 추호도 범하지 않았다. 하물며 우리 군사들은 의병이라 이름하고서 우리나라 지방을 행군하면서 어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포악하게 약탈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을 범한 자는 마땅히 참수하리라."라고 하니 군중(軍中)이 숙연하며, 감히 백성들에게서 오이 하나도 취한 이가 없었다, 이에 지나는 길가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호장(壺漿)과 기계(器械)로 군사들의 선봉을 환영하였다. 중도에서 삼도의 군사가 용인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흩어진 군사들이 밤새도록 웅성웅성거리며 공의 휘하(麾下)의 단약(單弱)함을 보고 말하였다. "십만의 군사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흩어졌는데, 수백의 군사로 장차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군중이 자못 근심하고 두려워 하니 공이 말고삐를 어루만지며 회유(回諭)하며 말하기를, "우리 군사는 의병이라 관군과 비할 군대가 아니다. 너희들이 만약 기꺼이 따르지 않겠다면, 어찌 강제로 너희를 몰아세우겠는가. 다만, 이 적을 섬멸하지 못한다면 비록 산으로 올라가거나 바다에 들어갈지라도 살아날 이치가 만무하거늘, 하물며 임금이 욕을 당하고 신하가 죽어야 할 상황에 있어서랴. 너희들 중에서 이 나라가 200년 동안 편안히 쉬게 해줬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있더냐. 진실로 죽을 마음을 품으면, 도리어 살 방법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니, 온 군사가 다 울며 말하기를, "감히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마침내 군사 한 명도 도망한 자가 없었고, 관군들 중 무너져 물러났던 자들도 왕왕 투속(投屬)해오니 행군하여 호서에 이르렀을 땐 군사가 수천(數千)이었다.

이때, 한강 이남에는 둔병이 있는 성채는 하나도 없었고, 마을에도 사는 사람이 없어 집안은 마치 거울만 덩그러니 매달려 있는 듯했다. 공의 군사가 지나가자 민심이 비로소 안정되어 바위와 숲속으로부터 차차 돌아와 모이고, 주현(州縣)의 관리들도 이에 힘입어 제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공주에 이르니, 중봉(重峯) 조헌(趙憲)[68]이 역시 의병이 일으키고자 하여 공을 보고 상의하고

---

68) 조헌(趙憲): 1544~1592. 본관은 배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峰),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1567년(명종 22)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보은 현감 등을 지내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규합 금산전

갔다.

장차 금강을 건너려고 할 때, 어떤 이 중에 고군(孤軍)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서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걱정하는 이가 있었는데, 공이 눈물을 흘리며 먼저 앞장서서 말하기를, "내가 이 군사로 반드시 저 강한 도적놈들을 꼭 숙청한다는 것이 아니다. 곧장 앞으로만 가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까닭은 관군으로 하여금 격발(激發)하여 흥기(興起)하는 바가 있게 하려는 것이니, 내가 먼저 앞장을 서지 않으면 누가 뒤이어 오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척후를 멀리 보내고 부오를 정리하고는 바로 수원에 이르러 부성 5리쯤에 목책을 설치하니, 수원부사(水原府使) 최렴(崔濂)[69]이 비로소 나와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공이 일찍이 수원에 인정을 베푼 적이 있으므로, 공의 의로움을 사모하여 와서 따르는 자가 날마다 백 명씩 셀 수 있을 정도였으니. 군성(軍聲)은 크게 떨쳐졌고, 적들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의로움이 뛰어난 자는 꾀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랴.

공이 장사(壯士)를 모집하여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누어 번갈아 나아가 왜적을 시험했는데 왜적의 귀를 베어 바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또 금령의 적을 습격하였는데, 적이 항상 싸워 이김에 기세등등하게 업신여기고 넓적다리를 두드리며 우리 군사를 멸시하니, 우리 군사가 분발하여 공격해서 쫓아가 적군 15급을 베고, 아울러 노획(鹵獲)한 도창(刀槍) · 갑주(甲冑) · 전마(戰馬)를 헤아릴 수 없었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公久患腰疼。起居須人。一家親屬。合辭更諫。公皆不聽。六月初三日。登壇歃血。裹而登道。公忻然語左右曰。今日帶劍而出。如籠鳥得脫。吾病灑然去體矣。時當盛熱。從者進日傘。公却之曰。乘輿暴露。臣子何心用此物乎。令軍中曰。古之善用兵者。雖入敵境。不犯秋毫。況吾兵以義爲名。而行我國地方。豈可暴掠居民。犯者當斬。軍中肅然。無敢取民一瓜[70]者。沿道感悅。爭以壺漿器械迎馬首。中道。聞三道之師潰于龍仁。散卒終夜有聲。見公麾下單弱曰。十萬之兵。一朝潰散。數百之卒。將欲何爲。軍中頗憂懼。公按轡回諭曰。吾軍義兵也。非官軍比。汝等若不肯從。何可强驅。但此賊不滅。則雖登山入海。萬無生理。況主辱臣死。汝等孰非二百年養育之生靈乎。苟懷死心。轉有生道。一軍皆泣曰。敢不效死。遂無一卒逃還者。官軍之潰退者。比比投屬。行至湖西。有卒數千。時自漢以南。無一寨屯兵地。巷無居人。室如懸磬。及公軍過。民心始定。自巖藪稍稍來集。州

투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했다. 옥천의 표충사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중봉동환봉사(重峯東還封事)』, 『중봉집(重峰集)』이 있다.

69) 최렴(崔濂): 1550~1610.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도원(道源)이다. 1582년(선조 15)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 남원지방을 방어한 공로로 유장(儒將) 16인이 천거되었는데, 그도 그 가운데 1명으로 뽑혔다.

70) 爪→瓜. 원문에는 '爪'로 되어 있으나 마땅히 '瓜'가 되어야 한다.

縣之官。賴以爲守。至公州。趙重峯憲。亦欲起義。見公商議而去。將渡錦江。或有以孤軍深入。後無應援爲虞者。公灑泣先登曰。我非以此軍。必能廓淸强寇也。所以直前不顧者。欲使官軍有所激發而興起也。我不先登。孰爲後繼。於是。遠斥堠。整部伍。直抵水原。設柵於府城五里許。府使崔濂始出迎勞。公曾有遺愛於水原。慕義來附者。日以百計。軍聲大震。賊不敢近。義勝者謀立。夫豈偶然哉。公募壯士。分四隊。迭出嘗倭。獻馘無虛日。又襲金嶺賊。賊狃於常勝。騰凌打髀。輕蔑我軍。我軍奮擊。追斬十五級。竝獲刀槍甲冑戰馬無算。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7) 『국조보감(國朝寶鑑)』 31, 선조조 8, 선조 25년(임진) 6월

여러 도(都)에서 의병(義兵)이 일어났다. 당시 삼도(三道)의 수신(帥臣)이 모두 인심을 잃은 데다가 군사와 식량을 징발하자 사람들이 모두 밉게 보아 적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 달아났다. 그러다가 도내(道內)의 거족(巨族)과 명인(名人)이 유생(儒生) 등과 함께 조정의 명을 받들어 창의(倡義)하여 일어나자 듣는 사람들이 격동하여 원근에서 응모하였다. 크게 성취하지는 못했으나 인심과 국가의 명맥이 그들 덕분에 유지되었다. 호남(湖南)의 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 영남(嶺南)의 곽재우(郭再祐)·정인홍(鄭仁弘), 호서(湖西)의 조헌(趙憲)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호남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상하였다. 삼도(三道)의 군사가 무너진 뒤로부터 경기 안이 완전히 살육(殺戮)과 노략질을 당했는데, 적에게 빌붙어 도성에 들어간 자도 많았다. 천일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니, 상이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에 임명하는 동시에 창의사(倡義使)라는 칭호를 내렸다. 천일의 군사가 수원(水原)에 이르러 독산고성(禿山古城)에 웅거하여 적에게 빌붙은 간민(奸民)을 찾아내어 목을 베니, 돌아와 따르는 경기의 사민(士民)이 많았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https://db.itkc.or.kr/)

諸都義兵起。時三道帥臣。皆失衆心。督發兵粮。人皆嫉視。遇賊皆潰。及道內巨族名人與儒生等。承朝命倡義而起。則聞者激動。遠近應募。雖不得大有克獲。人心國命。賴而維持。湖南高敬命金千鎰。嶺南郭再祐鄭仁弘。湖西趙憲最先起兵。

湖南義兵將金千鎰領兵北上。自三道軍潰畿內全被殺掠多附賊入都。千鎰糾義族數千。上命授掌隷院判決事兼號倡義使。千鎰兵至水原。居禿山古城。搜斬附賊姦民。畿內士民歸附者衆。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 원문이미지(https://db.itkc.or.kr/)

(8)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1, 임진년 6월 6일

고경명과 김천일(金千鎰), 양산숙(梁山璹)과 곽현(郭玄)을 시켜 출사표(出師表)를 받들고 서해

로 해서 행조(行朝)로 보냈다. 그때 적병이 5, 6도(道)에 가득 차 있었고 경기와 황해가 더욱 심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는 길이 끊겼었는데 이때 와서 비로소 수로가 통하게 되었다. (중략)

(15일) 전라 병사 최원(崔遠)이 군사 2만여 명을 동원하여 본도 우의병장(右義兵將) 김천일(金千鎰)의 군사 2천과 함께 근왕병(勤王兵)으로 서울로 향했다. (중략)

(23일)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이 전주(全州)로부터 출발해서 여산(礪山)으로 향할 때 비밀리에 장병들과 함께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금산과 무주의 왜적이 이미 용진(龍鎭)으로 향했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전주와 남원에 뜻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군(大軍)은 모두 떠나야 할 것이요, 본진(本鎭)에는 응당 노약자만이 남아서 뒤를 지킬 뿐이다. 우리 군대가 진산(珍山)으로부터 그들이 생각지 못한 곳으로 나가 나머지 무리들을 모두 다 섬멸하고 뒤쫓아 추격하면, 저 왜적들은 전진해도 거점을 얻지 못하고 후퇴해도 돌아갈 곳이 없어 중도(中道)에서 낭패하여 스스로 황산(荒山)의 패전을 초래할 뿐이다." 하고는 군사를 이끌고 은진(恩津)과 연산(連山)을 향해서 떠났다. 같은 진의 군량색(軍糧色)에게 고목(告目)하기를, "가지고 있는 군량은 여산군(礪山郡)에서 수납(輸納)하겠나이다." 하였다. - 색리(色吏)는 남원의 색리이고 군량은 남원의 군량이다. 대체로 의병을 돕는 일은 각 읍이 다 그러했다. - 대장(大將)의 행차가 22일 전주를 떠나 23일 여산에 머물렀다. 당일 도부(到付)한 금산의 전통(傳通)에, 옥천(沃川)의 양산현(陽山縣)을 분탕질한 왜적이 본군을 지향해 와 진을 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24일 동군(同郡)의 전통에는, 10리 거리에 진을 칠 것이라 했고, 서울의 왜적은 신립(申砬)과 윤두수(尹斗壽)가 각각 좌우 대장이 되어 1천여 명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여산군수(礪山郡守)가 구전(口傳)한 내용은 의병이 은진(恩津)·연산(連山)·금산(錦山)으로 지향한 것과 우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의 행차와 병사(兵使)가 일시에 직산(稷山)으로부터 진위(振威)로 향한 것이었다.

高敬命。金千鎰。以梁山璹郭玄奉出師表。由西海送行朝。時賊兵充斥五六道。而京畿。黃海尤甚。故西路絕塞。至是始通水路。(中略)

全羅兵使崔遠發兵二萬餘名。與本道右義兵將金千鎰兵二千。赴京勤王。(中略)

義兵將高敬命。自全州發向礪山。密與將士等相議曰。錦茂之賊已向龍鎭。此必有意於全州。南原也。若然則大軍合應盡去。本鎭則當留老弱。守後而已。我軍自珍山。出其不意。殲盡餘黨。躡踵追擊。則彼賊進不得據。退無所歸。狼狽中路。自致荒山之敗耳。因指恩津。連山。同陣軍粮色告目內。所持軍粮。礪山郡輸納。色吏。乃南原色吏。軍粮。乃南原軍粮。蓋助義之事。各邑皆然大將行次。二十二日。全州離發。二十三日。礪山因留。當日到付錦山傳邇內。沃川。陽山縣焚蕩之賊。指向本郡結陣事。二十四日同郡傳邇內。十里程結陣事。京城之賊。申砬。尹斗壽。爲左右大將。千餘名捕捉是如。礪山郡守口傳事。義兵恩津。連山。錦山了指向事。右義兵金千鎰行次。兵使一時自稷山。向振威事。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https://db.itkc.or.kr/)

(9)『선조실록(宣祖實錄)』 권27, 25년 6월 29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 장령 정인홍(鄭仁弘), 전 좌랑 김면(金沔)·박성(朴惺), 전 참봉 노흠(盧欽), 유학(幼學) 곽재우(郭再祐)·전우(全雨)·이대기(李大期) 등이 변란을 듣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어나 모의하여 의병(義兵)을 모아 기어이 왜적의 무리들을 섬멸하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들이 뜻이 지극히 가상합니다. 모두 서용(敍用)해주는 것으로서 후래(後來)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좋겠으며, 혹 죄고(罪辜) 중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또한 죄를 면해주어 의거(義擧)를 돈독히 해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건대 나주(羅州)에 거주하는 부사(府使) 김천일(金千鎰)도 역시 의병 7백여 명을 모아 곧장 경성(京城)을 수복하기 위해 이달 13일 천안(天安)에 당도하였다고 하니, 이 사람에게도 급히 관직을 제수하여 권장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충청 병사(忠淸兵使) 신익(申翌)은 두 번씩이나 대군(大軍)을 일으켰으나 일시에 무너져서는 흩어져버렸으니 그에게는 통제하고 제어하는 재주가 없어 다시는 근왕(勤王)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그로 하여금 백의 종군(白衣從軍)하게 하시고 그 도(道)의 조방장 이세호(李世灝)는 행군함에 법도가 있고 또한 전공(戰功)도 있으니 이 사람으로 대신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김천일을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박성(朴惺)을 공조 정랑으로, 윤경린(尹景麟)을 가선대부(嘉善大夫) 청주 목사(淸州牧使)로, 정인홍을 진주 목사(晉州牧使)로, 김억추(金億秋)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안주 목사(安州牧使)로, 윤안성(尹安性)을 숙천부사(肅川府使)로, 김경로(金敬老)를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김면(金沔)을 합천 군수(陜川郡守)로, 정눌(鄭訥)을 초계 군수(草溪郡守)로, 곽재우를 유곡 찰방(幽谷察訪)으로 삼았다.

備邊司啓曰。前掌令鄭仁弘。前佐郎金沔·朴惺。前參奉盧欽。幼學郭再祐·全雨·李大期。聞變投袂。謀聚義兵。期勦賊徒。其志極爲可嘉。皆可收敍。以勸後來。或在罪辜之中者。亦宜洗滌。以敦義擧。且聞羅州居府使金千鎰。亦聚義兵七百餘名。直欲收復京城。本月十三日。當到天安云。此人亦宜作急除職。以勸之。上從之。

備邊司啓曰。忠淸兵使申翌。再起大軍。一時潰散。其無統禦之才。不復勤王之意。可知。請令白衣從軍。其道助防將李世灝。行軍有法。亦有戰功。以此人代之。上從之。以金千鎰爲掌樂院正。朴惺爲工曹正郎。尹景麟爲嘉善淸州牧使。鄭仁弘爲晋州牧使。金億秋爲通政安州牧使。尹安性爲肅川府使。金敬老爲金海府使。金沔爲陜川郡守。鄭訥爲草溪郡守。郭再祐爲幽谷察訪。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0)『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6월 1일

제도(諸道)에서 의병(義兵)이 일어났다. 당시 삼도(三道)의 수신(帥臣)이 모두 인심을 잃은 데다가 변란이 일어난 뒤에 군사와 식량을 징발하자 사람들이 모두 밉게 보아 적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 그러다가 도내(道內)의 거족(巨族)과 명인(名人)이 유생(儒生) 등과 함께 조정의 명을 받들어 창의(倡義)하여 일어나자 듣는 사람들이 격동하여 원근에서 응모하였다. 크게 성취하지는 못했으나 인심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국가의 명맥이 그들 덕분에 유지되었다. 호남(湖南)의 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 영남(嶺南)의 곽재우(郭再祐)·정인홍(鄭仁弘), 호서(湖西)의 조헌(趙憲)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이에 관군과 의병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고 수신들과 많은 의병장들이 화합하지 못하였는데 다만 초토사(招討使) 김성일(金誠一)은 요령있게 잘 조화시켰기 때문에 영남(嶺南)의 의병이 그 덕분에 정중하게 대우를 받아 패하여 죽은 자가 적었다. (중략) 호남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상하였다. 삼도(三道)의 군사가 무너진 뒤로부터 기내(畿內)가 완전히 살육과 노략질을 당했는데, 적에게 붙어 도성으로 들어간 자도 많았다. 천일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니, 상이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에 임명하는 동시에 창의사(倡義使)라는 칭호를 내렸다. 천일의 군사가 수원(水原)에 이르러 독산고성(禿山古城)에 웅거하여 적에게 붙좇은 간민(奸民)을 찾아내어 목을 베니, 돌아와 따르는 기내의 사민(士民)이 많았다.

諸道義兵起。時。三道帥臣皆失衆心。變作之後。督發兵糧。人皆嫉視。遇賊皆潰。及道內巨族。名人與儒生等承朝命。倡義而起。則聞者激動。遠近應募。雖不得大有。克獲人心。國命賴而維持。湖南高敬命。金千鎰。嶺南郭再祐。鄭仁弘。湖西趙憲最先起兵。於是。官軍。義兵互爲掣肘。帥臣多與義將不協。惟招討使金誠一調劑有方。故嶺南義兵恃以爲重。敗死者少。(中略) 湖南義兵將金千鎰領兵北上。自三道軍潰。畿內全被殺掠。多附賊入都。千鎰糾義旅數千。上命授掌隷院判決事。兼號倡義使。千鎰兵至水原。據禿山古城。搜斬附賊姦民。畿內士民歸赴者衆。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1)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

공은 서쪽 길이 막혀 끊어져 막연히 양궁(兩宮)의 안부를 듣지 못했기에, 피눈물을 흘리며 상소문을 썼고 그것을 막하의 선비 곽현(郭賢)과 양산숙에게 부쳐 사잇길을 따라 행재소로 가게 했다. 또 격문을 써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등에 포고하였는데, 전라병사(全羅兵使) 최원(崔遠)[71]이 병마 2만을 거느리고 중도에 있었다.

---

71) 최원(崔遠): ?~?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1580년(선조 13)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군사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의병장 김천일 등과 합세하여 여산(礪山)에서 적군과 싸웠다. 그 후에도 많은 공을 세워 상호군(上護軍)으로 승진하였고, 1596년 황해도 병마절도

공이 연락책을 급히 보내어 그의 군대를 부르니, 최원의 군대가 격문에 따라 와서 주둔하니 독산성의 명성과 위세가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근왕병(勤王兵)의 청탁으로 관군이 철수하여 서쪽으로 올라가고, 경기순찰사(京畿巡察使) 권징(權徵)[72]이 글을 수원부에 보내어 말하기를, "관군으로 의진(義陣)에 투속(投屬)한 자를 낱낱이 가두고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므로, 이로부터 뭇사람의 마음이 이탈되고 군성(軍聲)이 자못 좌절되었다. 공이 안산으로 향하여 가자 적의 무리들이 사방에서 엿보았다.

공이 죽음을 무릅쓰고 결전을 벌이고자 하니 장좌(將佐)가 다 말하되, "우리 군에게 원군(援軍)은 없는데 오는 적의 수는 더욱 많아지니, 경솔하게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이요, 이 군사가 패하면 나랏일이 낭패입니다. 강화부(江華府)는 사면이 천참(天塹)으로서 실로 한 나라의 목구멍과 같은 땅이요, 양경(兩京)의 중요한 경로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강화부로 옮겨 주둔하면, 서쪽으로는 국맥(國脈)이 통하고, 남쪽으로는 조운(漕運)을 인도하고, 북쪽으로는 옛 도성의 인심을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육전(陸戰)은 무너지기 쉬우나 수전(水戰)은 이기기 쉽습니다. 전선(戰船)들을 고치고 모아서, 나아가서는 싸우고 물러나면 지키는 것이 곧 오늘날의 아주 안전한 계책입니다. 그리고 옛적에 이른바, '강안으로 올라가 적을 공격하고 발을 씻고서 배로 들어간다.'[73]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또 듣자 하니, 삼강(三江)의 피난한 배들이 강화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막하의 선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잘 타일러 정황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공은 이 계책을 옳게 여겨, 종사관 임환에게 관련 문서를 주어 먼저 가서 여러 사람에게 두루 알리게 하고, 공은 안산에서 김포로 향하여 가다가 인천(仁川) 중림역(重林驛)에 이르러 장차 머무르려다가 말하기를. "이 땅은 지세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형세이다. 적병이 밤을 틈타 몰래 쳐들어올까 두렵다."라고 하고는 영을 내려 밥을 빨리 먹고 행군하라고 하였는데, 여명(黎明)에 정말로 적의 무리가 와서 포위를 했다. 그러나 우리 군사가 이미 떠나갔음을 알고 말하기를,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라고 하였다.

김포(金浦)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통진(通津)으로 향하니 현감(縣監) 이수준(李壽俊)[74]이 몸소

사가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후위 대장(後衛大將)이 되어 수도 방위의 책임을 맡았고, 1600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72) 권징(權徵): 1538~1598.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이원(而遠), 호는 송암(松菴), 시호는 정익(貞翼)이다. 1562년(명종 17)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 주서(注書) 등을 거쳐 병조 판서를 지냈다. 임진왜란 때 특별히 경기 관찰사에 임명되어 임진강의 방어에 최선을 다했으나, 패배한 후 삭령에 들어가 흩어진 군사를 모아 군량미 조달에 힘썼다.

73) 강안으로……들어간다: 『삼국지(三國志)』「오지(吳志) 여몽전(呂蒙傳)」에 나온다.

74) 이수준(李壽俊): 1559~1607.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태징(台徵), 호는 용계(龍溪)이다. 1590년(선조 23)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통진 현감으로서 왜적을 방어하였다.

경상(境上)에까지 나와 맞이하고 힘쓰고 호궤(犒饋)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하였다.

이때 대가(大駕)는 의주(義州)에 멈춰 잠시 머무르고 있었고, 동궁(東宮)은 이천(伊川)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동궁이 공이 일으킨 의병(義兵)이 근기(近畿)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용사(勇士) 한 사람을 특별히 뽑아 친히 글을 써서 장유(奬諭)하여 말하기를, "내가 외람되게도 권섭(權攝)의 명령을 내리고 그로 하여금 회복할 계책을 돕게 하셨는데, 나 스스로가 변변치 않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 멀리 대가와 떨어진 거리가 지금 이미 천 리나 되니, 다만 서쪽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다. 오늘날의 나랏일은 열에 여덟, 아홉은 무너졌다. 밤낮으로 오직 근왕병(勤王兵)이 오기만을 바랐는데, 오래도록 기별이 없어 답답한 마음만 품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지금 그대들이 의병을 일으켜 이미 경성에 거의 도착했다고 들었다. 이는 반드시 천지(天地)와 조종(祖宗)께서 묵묵히 도와 그리된 것이다. 종묘사직(宗廟社稷)의 존망(存亡)이 오직 그대들이 같이 힘을 쓰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으니,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구하여 큰 공훈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공이 마침 통진(通津)에 있을 때, 서신을 받자, 장사들을 거느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읽었다. 그리고는 군중에 알리고 두 번 절하고 통곡하니, 온 군사들이 모두 비가 내리듯 눈물을 흘렸다. 곧 영을 내려 막사(幕士) 심수아(沈秀峨)로 하여금 의병을 일으킨 전말을 자세히 진술하여 이천의 동궁에 보고하였다.

종사관 임환이 과연 크고 작은 선박 수백 척과 노 젓는 사람들 5백여 인을 얻어 회보(回報)하였다. 공이 마침내 군사를 강화부로 옮기며 부사 윤담(尹湛)을 해중(海中)에서 나오게 하고, 공은 병사 최원과 함께 약속하여 강가를 따라 목책을 줄지어 세우고 크게 선척을 수선하니, 군대의 기세가 다시 진동하였고 군사들의 기운이 백 배가 되었다. 의로운 소리가 닿은 곳곳마다 단결하여 함께 의병이라 이름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公以西路阻絕。邈然不聞兩宮安否。泣血陳疏。付幕士郭賢。梁山璹。從間道。達于行在。又草檄文。布告黃海。平安。江原。咸鏡等道。全羅兵使崔遠領兵馬二萬在中道。公馳使招之。崔軍沿檄。來住禿城爲聲勢。未幾。托以勤王。撤軍西上。京畿巡察使權徵。又移文水原府曰。官軍之投附義陣者。一一囚治。自是衆心疑沮。軍聲頓挫。公撥向安山。賊衆四面窺覦。公欲冒死決戰。將佐皆曰。我軍無援。而賊來益衆。輕戰必敗。此軍敗則國事去矣。江華府。四面天塹。實一國之咽喉。兩京之要津。引軍移駐。西通國脈。南引漕運。北收故都人心。可也。況陸戰易潰。水戰易利。修葺舟艦。進戰退守。乃今日萬全計。古之所謂上岸擊賊。洗足入船者。惟此地爲然。又聞三江避亂船。多聚江都。可令幕士一人。開諭收募。公然其計。使從事林懽。賚帖先往通諭。公自安山向金浦。至仁川重林驛。將止宿。公曰。此地四散。恐賊兵乘夜竊發。下令促食而行。黎明。賊衆果來圍抱。知我軍已去曰。是何神也。自金浦轉向通津。縣監李壽俊親迎境上。勞犒甚勤。是時。大駕駐蹕義州。東

宮撫軍伊川。東宮聞公擧義至近畿。特選勇士一人。賜手筆奬諭曰。予叨權攝之命。俾贊恢復之策。自惟涼薄。恐未承當。遠離大駕。今已千里。只西望涕泣而已。今日國事。十去八九。日夜惟望勤王之兵。而久無聲息。方懷悶迫之際。今聞諸君倡義興兵。已迫京城。此必天地祖宗默佑而然也。宗社存亡。惟在諸君勠力之如何。活國救民。懋樹大勳。公在通津祗受。率將士跪讀。聞於軍中。再拜痛哭。一軍皆雨泣。卽令幕士沈秀峨。俱陳起義顚末。報命於伊川。從事林懽果得大小船舶數百隻。水手五百餘人回報。公遂移軍江華。府使尹湛自海中出來。公與兵使崔遠約束。沿江列柵。大修舟艦。軍勢復振。士氣百倍。義聲所及。在在團結。俱以義兵爲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12)『국조보감(國朝寶鑑)』31, 선조조 8, 25년(임진) 8월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등이 유생 곽현(郭玄)·양산숙(梁山璹)을 보내어 바닷길을 따라 관서(關西)에 들어가 행조(行朝)에 일을 아뢰었다. 양산숙이 또 상소하여 계책을 올리니, 상이 자주 불러서 위로하고 공조 좌랑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호민(李好閔)으로 하여금 교서(敎書) 2통(通)을 짓게 하여 양산숙에게 부쳐 보냈다. 하나는 호남에 유시하는 것이었는데, 그 대략에,

"이광(李洸)의 군사가 용인(龍仁)에서 패배하였다는 말을 듣고부터 다시 남쪽을 바라보며 구원을 기대하는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고경명과 김천일 등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여 절도사 최원(崔遠)과 함께 수원(水原)으로 진주(進駐)했다 한다. 부덕(不德)한 내가 어떻게 이토록까지 사람들이 사력을 다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양산숙 등을 보내어 돌아가서 알리게 하니 그대들은 나의 괴로운 뜻을 헤아리도록 하라.

내가 비록 인애(仁愛)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정치에 실수한 것이 많았다 하더라도 본래의 마음은 언제나 백성을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는 것으로 뜻을 삼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만 살피건대 근래 변방에 흔단이 많고 군정(軍政)이 피폐하고 해이해졌으므로 중외에 신칙하여 엄중하게 방비를 더하도록 하였는데, 성을 높이 쌓을수록 국가의 형세는 날마다 낮아지고 못을 깊게 팔수록 백성의 원망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정말 헤아리지 못하였다. 게다가 궁중이 엄밀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조그마한 이익까지도 거둬들이고 형옥(刑獄)이 중도를 상실하여 원통한 기운이 화기를 손상케 하였으며, 왕자(王子)가 이익을 독점하여 소민(小民)들이 생업을 잃게 하였으니, 백성들이 나를 허물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유사(有司)로 하여금 모두 혁파하여 돌려주게 하였다. 무릇 이러한 유(類)를 내가 어찌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겠는가. 그러나 내가 몰랐던 것도 나의 잘못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면 후회스럽다마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대 사민(士民)들은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다스리려는 것을 허락하기 바란다. (중략)

그리고 호남에도 전 부사 고경명(高敬命) · 김천일(金千鎰)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여 본도 절도사 최원(崔遠) 등과 수원(水原)으로 진군하여 주둔하면서 바야흐로 경기(京畿)를 회복하려고 도모하면서 그의 무리인 양산숙 등으로 하여금 수륙(水陸)의 험한 길을 달려와 행재(行在)에 아뢰게 하였다. 내가 아뢴 내용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들었다. 양산숙 등이 돌아가는데 이 글을 부쳐서 그로 하여금 상세히 전하게 하였으니, 내가 알리는 뜻을 잘 헤아리라."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https://db.itkc.or.kr/)

倡義使金千鎰等。遣儒生郭玄·梁山璹。從海路入關西。奏事行朝。山璹又上疏獻策。上數引見慰諭。拜工曹佐郎。令李好閔製敎書二通。付山璹以送。一諭湖南。略云。自聞李洸之師。潰於龍仁。無復有南望待救之念。玆聞高敬命·金千鎰等。糾意族數千。與節度使崔遠進住水原云。予之不德。何以得人死力至此哉。今遣山璹等還報。惟爾多士。諒予苦意。予雖仁不及民。政多失措。乃素心則未嘗不以愛民恤物爲意。第見近來邊徼多釁。軍政廢弛。申勅中外。嚴加隄備。實不料城益高而國勢日卑。池益濬而民怨益深。加以宮闈不密而網民細利。刑獄失中而怨氣傷和。王子占利。小民失業。民宜咎予。予有何辭。玆令有司。悉加罷還。凡此之類。亦豈予所盡知者哉。予之不知。亦予之咎。思之至此。雖悔曷追。惟爾士民。庶幾許予改過。(中略)

湖南亦有前府使高敬命·金千鎰。糾合義兵數千。與本道節度使崔遠等進屯水原。方謀恢復京畿。令其徒梁山璹等。水陸間關。馳奏行在。予見奏泫然。一慰而一悲也。山璹等還。憑付此書。使之委曲傳到。其諒予告意。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 원문이미지(https://db.itkc.or.kr/)

(13)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7월 10일

김천일(金千鎰) · 최원(崔遠)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수원(水原)으로부터 인천(仁川)으로 향하면서 본도에다 구원병을 요청하니, 이광(李洸)이 조방장(助防將) 이유의(李由義)와 진도군수(珍島郡守) 선거이(宣居怡)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구원하게 하였다.

金千鎰·崔遠等領軍。自水原向仁川。徵援本道。李洸以助防將李由義。珍島郡守。宣居怡等領軍馳援。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https://db.itkc.or.kr/)

(14) 『선조실록(宣祖實錄)』 권28, 25년 7월 23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곤수(閫帥)는 손을 움츠리고 열읍(列邑)의 수령은 방관만 하고 있으니, 믿을 것은 단지 의병뿐입니다. 고경명(高敬命) · 김천일(金千鎰) 등이 창의(倡義)한 뒤에 반드시 서로 연달아 창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김천일 등에게 하서(下書)한 뜻으로 혹은 통문(通文)을 내어 권장하거

나 혹은 방(榜)을 걸어 고유(告諭)하여 분발하게 하소서. 또 '의병들의 집에는 복호(復戶)를 주어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의병이 올라올 때에는 관병(官兵)과 똑같이 군량을 지급하여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의병장 및 연도의 각 고을에 모두 하서하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따랐다.

備邊司啓曰。閫帥縮手。列邑傍觀。所恃者只是義兵。高敬命。金千鎰等倡義之後。必有相繼而起者。令金千鎰等以下書之意。或通文勸奬。或揭榜告諭。使之奮發。且義兵等給復其家。免其身役。義兵上來時。一依官兵例給糧餉。勿令匱乏之意。義兵將及一路。各官并爲下書。上從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5)『선조실록(宣祖實錄)』 권28, 25년 7월 24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그의 막하(幕下) 군사 양산숙(梁山璹)·곽현(郭賢) 등을 보내면서 행재소로 장계를 가져가게 했다. 상이 곽현·양산숙 등을 인견하였다.【도승지(都承旨) 유근(柳根), 가주서(假注書) 강욱(康昱), 봉교(奉敎) 기자헌(奇自獻).】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느 곳에서 왔는가?"

하니, 현이 아뢰기를,

"풍천(豊川)에서 삼화(三和) 큰 나루를 건너서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험한 도로를 애써서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하니, 현 등이 울면서 아뢰기를,

"소신들이 어려서부터 문(文)을 업으로 삼았으나 어느 한 과거에도 합격하지 못하여 평소에는 용안(龍顔)을 뵙지 못하였는데, 이제 난리 가운데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 신들은 비록 만 번 죽더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의 의병이 1천 명이라 하니 어찌 그렇게 적은가?"

하니, 현이 아뢰기를,

"신들이 여기에 온 뒤로 반드시 많은 군사가 모였을 것입니다. 또 방어사(防禦使)·조방장(助肪將) 등 정령(政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까닭에 수령들이 마땅히 따를 곳이 없고, 장수된 자는 재물을 빼앗고 못살게 하는 일을 일삼기에 군정(軍情)이 이반(離叛)되어 있습니다. 이광(李洸)은 죽어도 남은 죄가 있고, 권율(權慄)은 비록 수령의 재주는 있으나 방백(方伯)의 지략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런 때에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까닭에 임명한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왜적이 전라도는 침범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여 그러는 것인가?"

하니, 현이 아뢰기를,

"이는 천행입니다. 다만 왜적이 힘을 합하여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또 곽재우(郭再祐)는 사인(士人)으로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비록 근왕(勤王)하려는 뜻이 있더라도 반드시 공(功)을 바란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감히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우의 공이 적지 않으니 글을 내려 장려하고 권면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장수에게 말하여 경성(京城)을 수복(收復)하고 나를 맞이하여 돌아가도록 하게 하라."

하니, 현 등이 그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렸다. 상이 술을 내리고 또 약봉(藥封)도 하사하였다.

倡義使金千鎰遣其幕下士梁山璹。郭賢等持狀啓赴行在。上引見郭賢。梁山璹等【都承旨柳根。假注書康昱。奉敎自奇獻。】上曰。汝等從何處來。賢對曰。自豐川渡三和大津而來。上曰。汝等間關道路。將何以還去耶。賢等泣曰。小臣自少業文而未捷一科。不得見天顔於平日。而今乃得侍於亂離之中。臣等雖萬死不惜。上曰。汝等義兵一千云。何其少也。賢對曰。臣等來此之後。聚軍必多矣。且防禦使。助防將等。政令多門。守令莫適所從。而爲將者以侵虐爲事。故軍情離叛耳。李洸死有餘罪矣。權慄雖有守令之才。無方伯之略。上曰。此時得人爲難。故任之耳。上曰。倭賊不犯全羅道。有何所畏而然乎。賢曰。此天也。但恐倭賊合力而攻之耳。且郭再祐以士人起軍。雖有勤王之志。而必避要功之嫌。不敢來耳。再祐之功不少。願賜書奬勸。上曰。言于汝將帥。使之收復京城。迎予以還。賢等泣下不已。上賜酒又賜藥封。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6) 정탁(鄭琢), 『약포집(藥圃集)』 권4, 「피난행록 상」, 임진년 7월

(7월 23일) 전 부사 김천일(金千鎰)은 대의를 내세워 의병을 일으켜 호남(湖南)에서부터 근기(近畿)까지 왔으니 충의(忠義)가 가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직명(職名)이 없어 부하를 호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창의(倡義)한 사람들이 서로 연달아 일어나고 있으니,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김천일을 중추부사(中樞府事)로 승차시켰으나, 지극히 편치 않습니다. 춘천 부사 박종남(春川府使 朴宗男)과 여주목사 성영(驪州牧使 成泳)의 관교(官敎)를 아울러 작성하여 보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중략)

(7월 27일) 동궁께서 행차하실 때 이천에 머무르면서 적의 상황을 자세히 탐색하고 군졸들을 수합(收合)하여 조금이라도 편안한 곳으로 가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전라도 의병장 관하에서 전해진 곡절은 매우 상세합니다. 김천일(金千鎰)의 의병과 병사(兵使) 최원(崔遠)이 이끄는 군대가 지금 강화(江華)에 있으나 접전할 날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전 부사(前府使) 고경

명(高敬命)과 전 제독(前提督) 조헌(趙憲) 역시 의병을 이끌고 올라와 먼저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의 적들을 공격하였으나, 기한 안에 서울까지 가지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김천일의 군중(軍中)에 왕세자께서 친필 유시(諭示)를 내리자 여러 군사들이 감격하였으며,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약포집(https://db.itkc.or.kr/)

前府使金千鎰。倡義起兵。自湖南到近畿。忠義可尙。而尙無職名。無以號令所部。且兩南[75]倡義之人。相繼而起激勸之方。亦不可不慮。故金千鎰。陞授中樞府事。至爲未安。春川府使朴宗男。驪州牧使成泳官敎。拜爲成送。何如。(中略)

東宮行次時。留伊川。細探賊報。收合軍卒。欲向稍安之地伏計。全羅義兵將管下。來傳曲折甚詳。金千鎰義兵及兵使崔遠所領之軍。方在江華。接戰日期。時未決定。前府使高敬命。前提督趙憲。亦率義兵上來。而先擊湖西。湖南之賊。未能趁期戾洛云。千鎰軍中。王世子親筆下諭。諸軍感激。至有垂涕者。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약포집(https://db.itkc.or.kr/)

(17)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임진년 8월

8월, 양산숙·곽현을 보내어 바닷길을 따라 행재소에 이르게 하고, 또 격문을 써서 황해도·평안도·강원도·함경도의 여러 길거리에 포고하였는데, 이에 경기감사(京畿監司) 권징은 수원으로 서찰을 보내어 의병을 따르는 사민을 잡으라 하므로, 여러 사람의 마음이 자못 꺾였다. 마침내 의군을 안산으로 옮기고, 김포(金浦)로부터 통진(通津)에 이르자, 현감 이수준은 의군을 맞아 환영하고 위로하였다.

이때, 왕세자가 분조(分朝)인 이천(伊川)에서 선전관(宣傳官) 박승종(朴承宗)[76]을 보내며, 손수 서찰을 내려 포유(褒諭)하고 첨중추 겸 방어사(僉中樞兼防禦使)의 벼슬을 내렸다.

강화로 들어가 연안에 목책을 세우고 전함도 수리했다. 이때 조정에서는 장예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 벼슬을 내리고, 창의사(倡義使)란 호를 내린 다음, 교지를 내려 경성에 침입한 왜적을 토벌하라 하니, 상소하여 기의(機宜)를 진술하였다.

---

75) '雨南'을 전라도와 경상도를 뜻하는 '兩南'으로 수정

76) 박승종(朴承宗): 1562~1623. 본관은 밀양. 자는 효백(孝伯), 호는 퇴우당(退憂堂), 시호는 숙민(肅愍)이다. 1586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였고, 1619년(광해군 11) 영의정에 오르고 밀양부원군(密陽府院君)에 봉해졌다. 1612년(광해군 4) 이이첨의 사주로 윤인(尹訒) 등의 일당이 인목대비를 죽이려 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저지하였으며, 1617년(광해군 12) 폐모론(廢母論)에도 극력 반대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손녀가 광해군의 세자빈(世子嬪)이 되어 그 일족이 오랫동안 권세를 누린 사실을 자책, 아들과 함께 목매어 자결하였다. 관작이 추탈(追奪)되었으나, 뒤에 신원(伸寃)되었다.

곽현 등이 의주 행재소로부터 돌아올 때, 직명 및 교서를 받들고 돌아오니 임금은 또한 교문을 내리어 전라도와 경상도를 선유하라 하였다. 상감이 친히 곽현 등을 개유하되 "돌아가 너희 장수에게 말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구도(舊都)를 소청(掃淸)하고 나로 하여금 화산(華山)과 한수(漢水)를 다시 보게 하라."라고 하였다.

출전 : 김익두·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八月。遣梁山璹。郭賢。從海路達行在。又草檄。布告黃。平。江。咸諸路。京畿監司權徵文移水原。執土民之附義兵者。衆心頗沮。遂移軍安山。由金浦至通津。縣監李壽俊迎勞。時王世子分朝伊川。遣宣傳朴承宗。賜手書褒諭。拜僉中樞兼防禦使。進入江華。沿岸結柵。修戰艦。

拜掌隷院判決事。賜號倡義使。宣旨討京城賊。上疏陳機宜。

郭賢等回自行在。奉職命及敎書。又賜敎文。令諭兩南。上親諭賢等曰。歸語爾帥。盡心戮力。掃淸舊都。俾予復見華山漢水。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18)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권1, 임진년

8월 24일 신해(辛亥)

비변사(備邊司)의 관문(關文)에 의하면, 동궁(東宮)의 행차가 지금 이천(伊川)에 도착했는데, 의병(義兵)을 끌어모으고, 사방으로부터 근왕(勤王)할 사람을 불러 경성(京城)을 회복할 계획이다. 궁벽한 산골에 사는 백성들 중에 뛰쳐나와 분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응모하는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인심이 비로소 정해지고 호령(號令)[77]이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최원(崔遠)이 근왕병(勤王兵) 2만 명을 거느리고 이천(伊川)에 다다랐고, 의거(義擧)한 군대가 곳곳에서 다투어 일어났다. 김천일(金千鎰)은 안산(安山)에 진을 치고, 고경명(高敬命)은 수원(水原)에서 진을 쳤으며, 우성전(禹性傳)[78]·성영(成泳)[79]·이천(李薦)·변응성(邊應星)[80]·김지(金漬)[81] 등도 각기 의병을 모아 경기 지역에 가득 포진해 있었다.

二十四日辛亥。備邊司關內。東宮行次。今到伊川。收聚義兵。號召四方勤王。爲恢復京城之計。窮谷之民。莫不踴躍思奮。應募雲集。人心始定。號令大行。全羅兵使崔遠。領勤王兵二萬。赴伊川。

77) 호령(號令): 호령목행(號令木行): 목행(木行)에서 목(木)은 오행의 처음이고 사계의 시작이므로, 여기서 '木'을 '비로소'라고 번역하였다.

78) 우성전(禹性傳): 1542~1593.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경선(景善). 호는 추연(秋淵). 연암(淵庵). 시호는 문강(文康).

79) 성영(成泳): 1547~1623.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사함(士涵). 호는 태정(苔庭).

80) 변응성(邊應星): ?~?.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원주(原州).

81) 김지(金漬): 154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개성(開城). 자는 군택(君澤).

擧義之師。處處爭起。金千鎰陣于安山。高敬命陣于水原。禹性傳·成泳·李薦·邊應星·金漬等。各收義兵。布滿畿甸。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고대일록(https://db.itkc.or.kr/)

(19) 박동량(朴東亮), 『기재사초(寄齋史草)』 하, 임진일록3, 임진년 8월

전라도 유생 양산숙(梁山璹)과 곽현(郭賢)이 와서 말하기를,

"김천일(金千鎰)이 의병을 일으켜 전라 병사 최원(崔遠)과 더불어 군사를 합쳐 수원(水原)에 도착하였습니다. 고경명(高敬命)·조헌(趙憲)도 또한 기병하여 서로 이어 왔고, 경상도에는 김면(金沔)·정인홍(鄭仁弘)·박성(朴惺)·곽재우(郭再祐) 등이 기병하여 적을 토벌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양산숙 등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변변치 못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천 리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왜적의 속에서 벗어나 여기에 이르렀으니, 부끄러움을 어찌 말하랴."

하였다. 양산숙은 아뢰기를,

"김천일의 군중에 정예롭고 용감한 사람이 많사오나 반은 유생으로서 다만 충의만으로 일어났을 뿐이오니, 성패에 있어서는 하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울며 이르기를,

"충의로 격동되었는데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랴."

하였다. 곽현이 아뢰기를,

"신은 평소 조헌과 교의가 두텁습니다. 신이 일을 일으킨 뒤에 조헌(趙憲)이 말하기를, '근자에 천문을 보니 우리나라가 멸망할 운이 없고 왜적도 끝내 뜻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조헌의 말인가?"

하니, 곽현이 아뢰기를,

"기축년(1589, 선조 22)에 조헌이 북도로 귀양 갔는데 능히 역변(逆變)이 일어날 것을 알았고, 또 신묘년부터는 '나라에 큰 변이 있을 것이니 미리 피해 살 곳을 강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천문을 관찰한 징험이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와 같이 잘 맞추는가?"

하면서, 대단히 기뻐하고 위안되는 안색을 띠었다. 드디어 김천일을 승자(陞資)하여 판결사(判決事)로 삼아 창의사(倡義使)라 칭하고, 고경명을 초토사(招討使)라 칭하여, 이들에게 교서를 내렸다. 조헌에게 내린 교서에는 '충성된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음을 뉘우친다.'라는 말이 있었다. 또 김면 등에게도 교서를 내렸다. (중략)

김천일과 최원(崔遠)이 아뢰기를,

"신 등이 이곳으로 올 때 처음 고경명·조헌 등과 군사를 합하여 나아가 싸웠는데 이제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신 등이 오랫동안 수원의 들판에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해주는 군대가 없어 단독으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근방의 의병이 다 강화 등지로 모였고 배도 많다고 하오니, 합세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군사를 강화로 옮겨서 오래 주둔하는 계책으로 삼을까 합니다."

하였다.

全羅道儒生梁山璹·郭賢來言。金千鎰起義兵。與全羅兵使崔遠。合兵到水原。高敬命·趙憲亦起兵相繼來。慶尙道亦有金沔鄭仁弘朴惺郭再祐等。起兵討賊。上召山璹等入。謂之曰。以予無狀之罪。爾等跋涉千里。出賊中而至。慚恧何言。山璹曰。千鎰軍中。精勇雖多。半是儒生。只仗忠義而起。至於成敗。則天也。上泣曰。忠義所激。何事不成。郭賢曰。臣素與趙憲厚。及臣起事之後。憲曰。近觀天文。我國無滅亡之運。賊亦終必不得志云矣。上曰。是憲之言乎。賢曰。己丑年。憲謫北道。能知逆變之發。又自辛卯年。明言國有大變。預講避居之所。此必觀天之驗也。上曰。若是其符乎。甚有喜慰之色。遂陞千鎰。爲判決事。稱倡義使。高敬命稱招討使。俱賜敎書。賜趙憲敎書。有悔不用忠言。致有今日之語。又賜金沔等敎書。(中略)

金千鎰·崔遠啓曰。臣等之來初。與高敬命·趙憲等。合兵進戰。今已死矣。臣等久駐水原曠野之中。孤軍無援。不可獨立。聞畿輔義兵。皆聚江華等處。舟船亦多。可以合勢有爲。今者移兵江華。以爲久住之計。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기재사초(https://db.itkc.or.kr/)

(20)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권2, 임진년 하 8월 4일

동궁(東宮)이 처음에 평양(平壤)에서 대가(大駕)와 서로 이별하면서 통곡하고 각자 헤어져 영상(領相) 최흥원(崔興源) 등을 거느리고 영변(寧邊)으로 달아났다가 적병이 날로 가까워 오므로 또 정주(定州)로 달려갔다가 정주로부터 비밀리 황해도를 지나 강원도로 향하였는데 낮에는 숨고 밤에 행(行)하여 고생이 말할 수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천(伊川)에 행차를 머물렀는데 전라도 의병들이 근왕(勤王)[82] 하러 바로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손수 글을 써서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에게 전해 보내기를, "내가 외람되이 임시 섭정[權攝][83]의 명령을 받아 회복의 계책을 돕게 되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건대, 재주와 덕이 엷어서 감당치 못할까 두렵다. 대가를 멀리 떠난 것이 이제 이미 천 리이니 다만 서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뿐이다. 오늘날에 국사(國事)는 이미 10에서 8, 9는 틀렸고 밤낮으로 오직 근왕병(勤王兵)만을 바랄 뿐인데, 오랫

82) 근왕(勤王): 왕실의 일에 군사로써 힘을 다하여 근로하는 것이다.

83) 임시 섭정[權攝]: 선조(宣祖)가 의주로 파천하면서 세자인 광해군(光海君)을 후방에 머물게 하여 임시로 섭정하게 하였다.

동안 소식이 없어 한창 근심과 걱정이 절박하던 즈음에 여러분이 의병을 일으켜 이미 경성(京城)에 가까이 왔다 하니 이는 실로 천지 종묘사직의 영(靈)이 묵묵히 도와서 그러한 것이다. 종묘사직의 존망이 오직 여러분이 힘을 서로 합치느냐 합치지 않느냐에 달렸으니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구하여 큰 공을 세우기에 힘쓸 일이다." 하였다. (중략)

(8월 4일) 최원(崔遠)·김천일(金千鎰)의 군사가 강화도(江華島)에 들어가 머물다. (중략)

(8월 4일) 곽현(郭玄)·양산숙(梁山璹) 등이 서해로부터 십생구사(十生九死)로 행조(行朝)에 도달하여 표문(表文)을 올렸다. 임금이 친히 남방의 소식을 묻고 두 사람에게 벼슬을 주었으며, 인하여 전라도의 사민들에게 내리는 교서를 선포하였다.

왕은 이렇게 말하노라 (중략) 이제 고경명을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제수하여 초토사(招討使)를 겸하고, 김천일(金千鎰)을 장예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승진시켜 창의사(倡義使)를 겸하게 한다. 박광옥(朴光玉) 등 이하도 각각 차등 있게 벼슬을 주노라. (중략)

(8월 9일) 최원(崔遠)·김천일(金千鎰) 등이 장단(長湍)에서 적을 쳤는데 크게 패하여 돌아왔다. 처음에 경기에서 피란(避亂)한 조관(朝官)들과 의병들이 모두 강화(江華)에 있다가 두 군사가 근왕(勤王)하는 것을 보고 흔연히 기운이 나서 여러 차례 적을 치도록 권하였고 두 장수도 역시 군사들이 해이해질 것을 염려하여, 마침내 본 지방의 군사와 합세하여 강을 건너 장단에서 적을 엿보았는데 적이 군사를 감추고 약한 체하여 우리 군사를 유인하다. 여러 장수들이 급히 군사를 시켜 육지에 내려가 잡게 하였더니 적병이 사방에서 일어나 기세가 마치 바람을 탄 불길 같았다.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고 천일 등은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쪽배를 타고 달아났다. 수일이 지난 뒤 전장으로 사람을 보내어 당일에 죽음을 면하고 숨어 있는 자들을 몰래 불러 모으게 하였는데 겨우 1천여 명을 얻었다.

東宮初自平壤與大駕相別。痛哭各散。率領相崔興元等奔寧邊。賊勢日逼。又趨定州。自定州秘歷黃海。因向江原道。晝伏夜行。苦不可言。至是稅駕伊川聞湖南義兵直上勤王。手書傳送于義兵將金千鎰云云。予叨承權攝之命。俾贊恢復之策。自惟涼薄。恐未承當。遠離大駕。今已千里。只西望涕泣而已。今日國事。十去八九。日夜唯望勤王之師。而久無聲息。方惟悶迫之際。得聞諸公倡義興師。已迫京城云。此實天地宗社默佑而然也。宗社存亡。唯在諸公戮力之如何。活國救民。懋樹大勳事。(中略)

崔遠·金千鎰兵。入據江華島。(中略)

郭玄·梁山璹等自西海十生九死。得達行朝上表。上親問南方消息。二人賞職。因宣布有旨。敎全羅道士民等書。王若曰。(中略) 今拜敬命工曹參議。加招討使。進千鎰掌隷院判決事。加倡義使。朴光玉等以下。各除官進爵有差。(中略)

崔遠·金千鎰等討賊于長湍。大敗還。初京畿避亂朝臣。及義兵等。皆在于江華。見兩軍勤王。忻然生氣。屢勸討賊。兩將亦有師老之虞。遂與本處兵合勢。渡江覘賊于長湍。賊藏兵示弱。以誘我軍。

諸將急令軍人下陸措捕。賊兵四起。勢如風火。我軍大敗。死者無數。千鎰等僅以身免。單舸犇還。過數日。送人戰所。密令招集免死竄伏者。僅得千餘人。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https://db.itkc.or.kr/)

(21)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8월 1일

최원(崔遠) · 김천일(金千鎰)이 군사를 내어 장단(長湍)의 적을 공격하였는데, 주둔하고 있던 적이 뭍으로 오르도록 유인하고는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습격하였으므로 관군이 크게 패하였다. 김천일 등이 겨우 몸만 빠져나와 단가(單舸)로 돌아온 뒤 몰래 전소(戰所)로 사람을 보내 도망한 군사 1천여 명을 불러 모았는데, 이로부터 감히 뭍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崔遠·金千鎰出兵擊長湍賊。屯賊誘引登陸。伏兵掩擊。官軍大敗。千鎰等僅以身免。單舸奔還。潛送人戰所。招集亡卒。得千餘人。自是。不敢出陸。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2) 정탁(鄭琢), 『약포집(藥圃集)』 권4, 「피난행록 상」, 임진년 8월

(8월 14일) 신들은 동궁을 모시고 지금 성천(成川)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의 적은 과반수가 황해도 일로(一路)로 올라가고 남아서 주둔하고 있는 적병의 수 역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적병의 수는 이전에 양주 목사(楊州牧使) 고언백(高彦伯)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가 주둔하여 모여 있으며 사방으로 진을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남의 병세(兵勢)는 곧장 경성(京城)을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연안(延安)과 백천(白川)[84]의 길을 통하여 먼저 황해도의 적을 무찌르고 곧장 중화(中和)로 나아간다면, 평양의 적들은 소탕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풍덕 군수(豊德郡守) 변응진(邊應軫)으로 하여금 전라 병사(全羅兵使) 최원(崔遠)과 의병장(義兵將) 김천일(金千鎰)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약포집(https://db.itkc.or.kr/)

臣等陪侍東宮。時留成川。目今平壤之賊。過半上去。黃海一路留屯之數。亦不爲多。而京畿賊數。前見楊州牧使高彦伯馳報。則多數屯聚。四處結陣云。湖南之兵勢。難直擣京城。若由延安白川之路。先勦海西之賊。直指中和。則平壤之賊。蕩平不難。此意使豊德郡守邊應軫。通諭于全羅兵使崔遠·義兵將金千鎰等。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약포집(https://db.itkc.or.kr/)

(23) 『국조보감(國朝寶鑑)』 31, 선조조 8, 선조 25년 9월

---

84) 연안(延安)과 백천(白川): 지금의 황해남도 연안군과 백천군이다. 이 지역은 경기도의 바로 위쪽 지역이면서, 지금의 개성과 해주를 동서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중화는 바로 평양의 남쪽 지역이다.

전 사성(司成) 우성전(禹性傳)이 의병을 일으켜 의(義)자로 군호(軍號)를 삼았는데, 경기 안의 사민(士民) 중 따르는 자가 많아 군사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얼마 있다가 강화(江華)로 들어가 김천일(金千鎰)과 군사를 연합하였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https://db.itkc.or.kr/)

前司成禹性傳起義兵。以義爲號。畿內士民多從之。兵數千人。旣而入江華。與金千鎰連兵。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 원문이미지(https://db.itkc.or.kr/)

(24)『선조실록(宣祖實錄)』 권30, 25년 9월 15일

요동에 자문을 보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전라도 병마 절도사 최원(崔遠)이 8월 6일 의병장 김천일(金千鎰), 강화 부사(江華府使) 윤담(尹湛), 월곶진 첨절제사(月串鎭僉節制使) 이빈(李薲) 등과 배를 타고 진격하니 적이 퇴각하여 토성(土城)으로 들어갔는데, 제군(諸軍)이 2백여 명을 사살하고 수급 92과(顆)를 얻었습니다. 적군 1천여 명이 영천군(永川郡)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7월 28일 경상 병사(慶尙兵使) 박진(朴晉)이 돌격장(突擊將)인 훈련원 봉사(訓鍊院奉事) 권응수(權應銖) 등에게 명하여 응모한 군사 2천여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본군(本郡)을 포위하게 한 다음 포(砲)로 성을 공격하고 불을 질러 관사(官舍)와 창고(倉庫)를 불태우자 적들이 놀라 무너졌습니다. 장졸들이 승세를 타고 추격하자 적들은 불로 뛰어들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무수히 많았으며 수급 5백 17과(顆)를 베었습니다."

移咨遼東。略曰。

全羅道兵馬節度使崔遠。八月初六日。與義兵將金千鎰。江華府使尹湛。月串鎭僉節制使李薲等。乘船進擊。賊退入土城。諸軍射殺二百餘人。斬獲首級九十二顆。賊一千餘名。屯聚永川郡。七月二十八日。慶尙兵使朴晉。令突擊將訓鍊院奉事權應銖等。率領應募兵二千餘名。進圍本郡。砲城放火。焚燒官舍倉庫。賊徒驚潰。將卒乘勝追擊。賊赴火墜水死者無數。斬獲首級五百一十七顆。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5)『선조실록(宣祖實錄)』 권30, 25년 9월 21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태평세월이 오래되어 기강이 해이해진 끝에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무장(武將)으로서 고을을 맡아 지키는 자 대부분이 모두 적을 만나기만 하면 달아났으므로 뜻이 있는 자들이 소매를 떨치고 의에 분발하였습니다. 스스로 의병을 규합하여 한 부대를 만들고서는 의를 명분으로 내걸고 제도(諸道)에서 창도한 까닭에 조정에서는 그들을 가상하게 여기고 모든 논상에서 다른 군인들에 비해 특별히 우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름을 군부(軍簿)에 두고

있으면서도 난을 피해 도망하여 흩어져 간 자들까지 각기 떼를 지어 관가(官家)에 매이기를 기피(忌避)하면서 이로우면 싸우고 강적을 만나면 흩어지는데, 이기면 높은 상을 받고 패하여도 죄를 받지 않습니다. 각 부대가 뿔뿔이 흩어져 통속(統屬)된 데가 없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에서 지금 바야흐로 가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대(沈岱)의 장계를 보건대, '장단(長湍)과 삭령(朔寧)의 의병들은 이정암(李廷馣)의 절제(節制)를 받게 하고, 이천(利川)·여주(驪州)·음죽(陰竹)·죽산(竹山)의 의병은 성영(成泳)의 절제를 받게 하고, 통진(通津)·양천(陽川)의 의병은 김천일(金千鎰)의 절제를 받게 하고, 파주(坡州)·양주(楊州)·광주(廣州)의 의병은 심대(沈岱)의 절제를 받게 하여 동서(東西)가 힘을 합하여 경성을 협공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그 계책이 편리하면서도 유익하며 일의 계획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여러 장수에게 하유(下諭)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備邊司啓曰。昇平日久。紀律解弛。卒有戎事。無以收拾。爲武將守宰者。率皆遇賊輒北。有志者投袂奮義。糾合義旅。自爲一隊。揭名以義。爲諸道倡。故朝廷嘉之。凡所論賞。比他軍特優。至於名存軍簿。避亂逃散者。各自成群。厭避官家羈縻。見利則戰。遇强輒散。勝受上賞。敗不爲罪。不可使隊隊星散。無所統屬。朝廷方議可否。今見沈岱狀啓。則欲使長湍。朔寧義兵。受節制於李廷馣。利川·驪州·陰竹·竹山義兵。受節制於成泳。通津·陽川義兵。受節制於金千鎰。坡州·楊州·廣州義兵。受節制於沈岱。東西合力。挾攻京城。其計便益。慮事亦深。以此意。下諭諸將。上從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6)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9월 1일

전 사성(司成) 우성전(禹性傳)이 의병을 일으켜 의(義)자로 군호(軍號)를 삼았는데, 경기 안의 사민(士民)들이 따르는 자가 많아 군사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얼마 있다가 강화(江華)로 들어가 김천일(金千鎰)과 군사를 연합하였다.

前司成禹性傳起義兵。以義爲號。畿內士民多從之。兵數千人。旣而入江華。與金千鎰連兵。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7) 정탁(鄭琢), 『약포집(藥圃集)』 권5, 「피난행록 하」, 임진년 9월

(9월 21일) 다시 장계 두 통을 행재소에 올렸다.

○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의 서장(書狀)과 공릉 참봉(恭陵參奉) 윤호연(尹浩然)의 첩정(牒呈)은 모두 능침(陵寢)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감봉(監封)하여 올리오니, 차례대로 잘 아룁니다.

○근자에 신(臣)이 전하의 옥체가 어떠신지 알지 못하여 염려되는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신

들은 동궁을 모시고 지금 성천(成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평양을 침략한 적들은 지금 대동강을 건너 상원(祥原)과 강동(江東)일대에 출몰하면서 노략질을 자행한다고 하나, 이곳은 원래 명나라 장수가 설정한 한계가 아니므로 이전처럼 병력을 매복시켜 완전히 소탕하고 있었습니다. 북적(北賊)의 선발대가 이미 철령(鐵嶺)[85]을 넘었고 나머지 잔당들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민간에서 전해 들은 말로써 허실(虛實)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날 경기 관찰사(京畿 觀察使) 심대(沈岱)가 부임할 때 윤건(尹健)을 인천 부사로 제수하자고 강력하게 청하였기 때문에 윤건(尹健)을 인천 부사(仁川府使)로 차출하였으나, 행재소에서는 우성전(禹性傳)을 제수하였습니다. 우성전이 즉시 임소(任所)로 가서 병사를 많이 모집하였는데, 경기도 일대에서 모병한 사람 가운데서 우성전의 군사가 가장 많고 또 뛰어납니다. 그래서인지 김천일(金千鎰)이 경기도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오로지 우성전의 군대에 의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삼가 행재소의 정목(政目)을 보건대, 우성전을 교체하여 봉상시 정(奉常寺正)으로 제수하였습니다. 우성전이 이미 모아 놓은 군사들이 인천 부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무너지거나 흩어질 폐단이 없지 않을 듯하니, 우성전을 그대로 인천 부사에 유임시키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신천 군수(信川 郡守) 이덕남(李德男)은 왜적을 만나 전사하였는데, 이덕남이 모은 병사도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적을 맞아 전사하였으니, 거느리고 있던 병사들이 만약 오랫동안 자신들을 주관할 장군이 없다면 반드시 흩어질 염려가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마침 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 이상민(李尙閔)이 북도에서 도보(徒步)로 고개를 넘어와서 현신(現身)하였기에 즉시 이상민을 신천 군수(信川 郡守)에 임시 임명하고 전마(戰馬)와 궁시(弓矢)를 찾아 주어 매우 빨리 부임하게 하였습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약포집(https://db.itkc.or.kr/)

二十一日丁丑。又封狀啓二道于行在所。

倡義使金千鎰書狀。恭陵參奉尹浩然牒呈。俱係陵寢重事。故監封上送。詮次善啓。

近日。伏未審聖體若何。無任伏慮之至。臣等陪東宮。時留成川。箕城之賊。時渡大同江。出沒祥原。江東之地。恣行搶掠。此則元非天將界限。故如前伏兵勦殺。北賊先運。已踰鐵嶺。而餘賊西向云。而出於民間傳聞之語。未知虛的。前日京畿觀察使沈岱赴任時。力請以尹健除授仁川府使。故以尹健差出矣。自行在所。以禹性傳除授。性傳卽赴任所。聚兵甚多。畿甸募兵人中。性傳之兵。最多且精。金千鎰欲擧事京畿。而專倚此軍云。頃日。伏覩行在所政目。禹性傳遞授奉常寺正。竊恐性傳

85) 철령(鐵嶺) : 함경남도 안변군과 강원도 회양군을 잇는 고개이다.

已聚之軍。遞代之際。不無潰散之弊。禹性傳仍任仁川。似爲便益。信川郡守李德男。逢倭戰死。德男所聚之兵亦多。不意陣亡。所領之軍。若久無主將。必有星散之患。極爲可慮。適司僕寺判官李尙閔。自北道徒步踰嶺來現。故卽以李尙閔權差信川郡。戰馬弓矢覓給。使之星火赴任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약포집(https://db.itkc.or.kr/)

(28)『선조실록(宣祖實錄)』 권31, 25년 10월 13일

기해년(己亥年)에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우의정을 강화로 보내야 하겠지만 강화에는 이미 도순찰사(都巡察使) 권징(權徵)이 있고 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있다. 우의정을 지금 비록 보내더라도 별도로 용이(容易)하게 조처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강원도는 꼴이 말이 아니어서 감사는 달아나버리고 병사마저 없으니 우의정을 그곳으로 보내면 어떻겠는가?

또 듣건대 최원(崔遠)의 군사가 모두 짚이나 풀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 하는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적을 토포(討捕)할 수 있겠는가. 만일 얼어 죽는 자라도 생긴다면 매우 측은한 일이니, 돌려보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본도로 하여금 다시 군사를 뽑아 대체시키게 하라는 뜻으로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강화도에는 피란민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정철(鄭澈)이 마침 그곳을 지나 피란민들이 모두 '대신이 와서 다스린다면 수복(收復)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우의정을 보내자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강원도는 곳곳이 쇠잔하고 피폐하며 또 성자(城子)도 없습니다. 비록 대신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대신을 보내어 다스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원의 군사는 여름에 이곳으로 왔는데 이제 눈 내리는 시절이 되었으니 쓸모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교체하려 하였으나, 이번에 듣건대, 본도(本道)에서 의복과 군량을 준비하여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선 머무르게 하였다가 후일의 성공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己亥。上敎政院曰。右相。當送江華矣。江華旣有都巡察使權徵。又有倡義使金千鎰。右相今雖往。別無容易措處之事。江原道頓無貌樣。監司旣爲遁走。又無兵使。右相。送于其處何如。且聞崔遠軍士。皆着藁薦。如此而安能捕賊。若致凍死。極爲矜惻。似當放還。或令本道。更爲抄率換替之意。言于備邊司。備邊司回啓曰。江華一邑避亂之人。聚集者多。鄭澈適過其地。避亂人。皆。以大臣來莅。以爲收復之資。云。故請以右相發遣矣。江原道則處處殘弊。又無城子。雖遣大臣。事無可爲。不必以大臣往莅也。崔遠軍士。夏月入來。今逼霜雪。恐其無用。欲令換替。今聞本道備送衣糧云。今姑留之。以觀後效何如。上從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9)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임진년 8월

은밀히 문소전(文昭殿) 위패를 받들어 강화도에 임시로 모시고, 그날 군대를 내어 강을 따라 왜적을 치니, 양천(陽川) · 김포(金浦) 등지에 있는 왜적이 밤에 다 도망갔다. 마침내 수군과 전선(戰船) 400여 척을 거느리고, 북을 치며 양화도(楊花渡)까지 나아갔다.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지은 죄들을 높이 내걸어 성중의 왜적에게 드러내니, 왜적은 두려워서 감히 나오지를 못했다. 진군(進軍)을 서두르라는 교지가 내리자 곧 정예병 수백 명을 뽑아 종사관(從事官) 임환이 그들을 거느리고 관군과 합세하여 나아가 싸우게 하고, 상소를 올려 기의(機宜)를 진술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潛奉文昭殿位板。權奉于江華。乃日出兵擊沿江賊。賊在陽川·金浦等地者。皆夜遁。遂領舟師四百餘艘。鼓進于楊花渡。揭榜數秀吉罪。以挑城中倭。倭讋不敢出。有旨促進軍。乃抄精兵數百。使從事林懽領赴官軍。合勢進戰。上疏陳機宜。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30)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

공이 또 이르되, "서울의 적을 치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고, 비로소 군사를 내어 날마다 강 연안에 있는 여러 적의 진영을 쳤는데, 화장포(化藏浦) 전투에서는 최원의 군사가 먼저 도망하고, 김포(金浦)의 싸움에서는 추의사(秋義使) 우성전의 군사들이 훗날을 기약했습니다, 우리의 군사들은 먼저 승기를 잡긴 잡았으나 죽은 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적도 역시 군사를 철수하여 뜻대로 불 지르거나 노략질을 하지 못하였으며, 양천·김포의 적이 뒤를 이어 밤을 틈타 도망을 하였습니다. 공이 또 전라병사 최원·추의사 우성전·경기수사(京畿水使) 이빈(李薲)[86]·충청수사(忠淸水使) 변양준(邊良俊)과 더불어 상의하여 전선(戰船) 사백 척을 거느리고 양화도(楊花渡)에서 북을 치고 떠들어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지은 죄들을 높이 내걸어 성 안의 왜적들에게 드러내었다. 그러자 적들도 마침내 감히 나오지를 못하고 밤이면 지붕 위에 올라 살피고 낮이면 성을 굳게 닫고 경계를 엄히 하여 지키었다.

공이 장사(壯士)를 모아서 몰래 성안으로 들어가 몰래 우리와 내통한 적군과 함께 남모르게 적을 쏘고 유인하여 죽이니, 죽인 적의 수효가 헤아릴 수 없었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公又謂。欲討京賊。必先自近者始。出兵日哨沿江諸賊屯。化藏浦之戰。崔遠軍先走。金浦之役。秋義兵後期。我軍先登。物故過當。而賊亦斂兵。不得恣意焚掠。陽川·金浦之賊。接踵宵遁。公又與

86) 이빈(李薲): 1555~?. 본관은 전주, 자는 중결(仲潔)이다. 1583년(선조 16) 별시무과에 급제하였다.

全羅兵使崔遠·秋義使禹性傳·京畿水使李薾·忠淸水使邊良俊相議。領舟師四百餘艘。鼓譟于楊花渡。揭榜數秀吉罪惡。以挑城中賊。賊終不敢出。夜乘屋。晝閉城。戒嚴自守。公募壯士。潛入城中。與內應軍。暗射誘斬。殺賊無算。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31) 『국조보감(國朝寶鑑)』 권31, 선조조 8, 25년 11월

…… 문소전(文昭殿)의 위판(位版)을 처음에 전내(殿內)에 묻었는데, 김천일(金千鎰)이 사람을 모집하여 성에 들어가 몰래 가져오게 해서 강화(江華)에 봉안(奉安)하였다. 이때 응모한 사람에게도 상을 주도록 명하였다.

文昭殿位版。初瘞于殿內。金千鎰募人入城。潛取以來。奉安于江華。命賞應募人。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https://db.itkc.or.kr/)

(32) 박동량(朴東亮), 『기재사초(寄齋史草)』 하, 임진일록4, 임진년 11월

전라도 관찰사(全羅道 觀察使) 권율(權慄)이 근왕병(勤王兵)을 일으켰고 진영을 수원에 두었다. 이때 김천일(金千鎰) 등은 오랫동안 강화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우성전(禹性傳) 등은 더욱 감감무소식이었다. 상이 우성전 등을 불러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곧장 평안도로 가서 김명원과 함께 군사를 합치게 하였으나, 우성전은 병으로 가지 못했다. 이에 상이 노하여 이르기를,

"우성전은 군사를 끼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바라만 볼 뿐 전장에 나가지 않고 김천일 등은 편안히 앉아서 헛된 수작만 하고 있으니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니, 윤두수(尹斗壽)가 아뢰기를,

"김천일이 비록 하는 일은 없었으나 그가 여러 도를 제창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마침내 8도의 인심을 흡족히 크게 회복시켜놓았습니다. 지금은 다만 군대의 세력이 고단(孤單)해서 적절한 기회를 타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우성전은 그가 비록 오지 못했더라도 자신 밑의 장수를 대신 보낼 수 있었사온데, 계교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죄가 없다 할 수는 없으나 본래부터 중병이 있었음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일입니다. 어찌 관망만 할 리가 있겠나이까."

하였다.

全羅道觀察使權慄。起兵勤王。下營于水原。時金千鎰等。久在江華。未有所措。禹性傳等。尤寥寥無所聞。上召性傳等。領兵渡江。直至平安道。使與金命元合兵。而性傳病不得行。上怒曰。性傳擁兵自衛。觀望不赴。金千鎰等安坐談笑。有何益乎國家。尹斗壽曰。金千鎰雖無所爲。其起義兵爲諸道倡。遂使八方人心。洽然大回。今祇以孤軍單勢。不能乘可爲之機耳。至於禹性傳。則渠雖不來。猶可代將以送。而計不出此。未爲無罪。而素有重病。人所共知。豈有觀望之理乎。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기재사초(https://db.itkc.or.kr/)

(33)『선조실록(宣祖實錄)』 권32, 25년 11월 3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라도 군사는 먼저 해서(海西)의 적을 무찌르고 평양으로 진군하라는 일은 이미 하서(下書)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강화(江華) 여러 포구는 깊은 겨울이 되면 비록 얼음은 얼지 않으나 살얼음이 겹겹이 쌓여 조수(潮水)를 따라 오르내려 좌우가 모두 얼음이므로 가운데 물길을 열더라도 배가 다니기 어렵다고 합니다. 1만 명에 가까운 군사가 또다시 강화로 들어갔다가 다시 건너오지 못하면 쓸모없게 되는 것이 또한 최원(崔遠)의 경우와 같이 될 것입니다.

권율(權慄)로 하여금 경성(京城)으로 곧장 향하게 하고, 또 최원·김천일(金千鎰)·우성전(禹性傳) 등으로 하여금 여러 의병을 통솔하고 권율과 합세하여 혹은 소리를 질러 서로 응원하거나, 혹은 서로 응하여 적을 견제하는 형세[87]를 이루어 일시에 함께 진격하게 하면 거의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는 형세 상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하는데 그때 가서 지체하면 혹시 기회를 놓치게 될까 염려되니 부득이 미리 육지에 나와 진을 치고, 병기(兵機)를 다 같이 논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고언백(高彦伯)·홍계남(洪季男)이 없으면 경성의 인심이 계속되기가 어려울 것이니, 먼저 올라 돌격하여 제군(諸軍)의 선봉이 될 만한 자는 반드시 이들입니다.

별도로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야 합니다. 선전관은 표신(標信)을 지니고 권율의 군중에 가서 장차 이런 곡절(曲折)을 비밀스럽게 제장(諸將)들에게 통첩하여 동서가 서로 응하여 정한 날짜에 거사하게 하고 또 기밀을 누설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또 사(司)의 낭청(郎廳) 한 사람을 함께 보내 군중을 일을 맞대고 의논하게 하면서 겸하여 군정(軍情)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備邊司啓曰。全羅道兵。先勦海西之賊。進向平壤事。已爲下書矣。今聞江華諸浦。若至深冬。雖不合氷。氷澌鱗積。隨潮上下。左右皆氷。中開水道。難以行舟云。滿萬之兵。復入江華。不復濟師。則其爲無用。又一崔遠。令權慄直向京城。又令崔遠·金千鎰·禹性傳等。統率諸義兵。與慄合勢。或爲聲援。或爲掎角。一時齊進。則庶可濟事。而江華形勢。登舟出陸。臨時遲滯。慮或失期。不得已前期出陸結陣。通議兵機。然若無高彦伯·洪季男。則京城人心。難以係屬。而先登突擊。爲諸軍倡者。必賴此等人。別遣宣傳官。持標信往慄軍中。將此曲折。密通諸將處。東西相應。刻日擧事。且毋令透漏機關。又遣司郎廳一人同往。面議軍事。兼察軍情。何如。上從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87) 서로……형세: 군사를 둘로 나누어 적을 견제하는 것. 마치 사슴을 잡을 때 한 사람은 사슴의 발을 붙잡고 한 사람은 그 뿔을 잡는 형세로 적을 견제한다는 데서 생긴 말.

(34)『선조실록(宣祖實錄)』 권32, 25년 11월 16일

서리(書吏) 조현범(趙賢範)이 소혜 왕후(昭惠王后)의 위판(位版)을 보관했다가 친히 가지고 왔다고 창의사(倡義使) 김천일이 아뢰니, 상당한 군직(軍職)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書吏趙賢範藏昭惠王后位版。親自陪持。倡義使金千鎰啓之。命除相當軍職。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35)『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11월 1일

문소전(文昭殿)의 위판(位版)을 처음에 전내(殿內)에 묻었는데, 김천일(金千鎰)이 사람을 모집하여 성에 들어가 몰래 가져오게 해서 강화(江華)에 봉안(奉安)하였다. 이때 응모한 사람에게도 상을 주도록 명하였다.

文昭殿位版。初瘞于殿內。金千鎰募人入城。潛取以來。奉安于江華。亦命賞應募人。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36) 김천일(金千鎰),『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행장」

이때에 왜적의 통역 주계강(朱契康)·박대빈(朴大彬) 등이 급히 아뢰기를, "적장 평조윤(平朝允)이란 자가 보옥(寶玉)을 탐색하여 강릉(康陵)[88]과 태릉(泰陵)[89] 두 왕릉을 파고 다른 여러 능에도 손을 대려고 하는데, 여러 방법으로 타일러도 멈추게 하기엔 역부족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금채(金綵)와 은량을 넉넉히 두 통역에게 보내어 왜적의 욕구를 막게 하고, 또『가례』와『오례의(五禮儀)』를 보내어, 우리나라 산릉에는 제도상 보옥 같은 것을 순장하지 않음을 징험해 보이니, 이에 평조윤이 파릉(破陵) 행위를 중지하였다.

공은 곧 조정에 장계를 올려 주계강 등에 상을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도록 하였다.

공이 본래 허약한 몸인데 군영에 있게 된 것이 해를 넘기니 병이 나날이 오래되어 낫지 않는 병이 되었다. 그러나 지극한 정성은 하늘에 사무치고 정신을 지키는 데에는 오히려 굳건해져서 군무(軍務)의 일이 입에서 끊어지지를 않아 마치 꿈속에서 잠꼬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일 공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면 공이 품고 있는 것을 군부에게 아뢰지 못할까 두려워, 곧 목욕재계를 하고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았다.

"마음을 같이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사오나, 뜻을 달리하면 작은 일도 이루기가 어렵사옵니다. 지금 3도가 윤몰(淪沒)되고 만백성이 어육(魚肉)이 되었사옵니다. 정히, 임금과 신하, 윗

88) 강릉(康陵) : 명종(明宗)과 인순왕후 박씨(仁順王后朴氏)의 쌍릉(雙陵)이다.
89) 태릉(泰陵) : 중종(中宗)의 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尹氏)의 능이다.

사람과 아랫사람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쓸개를 맛보고 창을 베고 자야 합니다.[90] 임금께서 '어떻게 하면 적을 토벌하여 복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고, 대부도 '어떻게 하면 적을 토벌하여 복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사서인(士庶人)도 '어떻게 하면 적을 토벌하여 복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무릇 우리나라 땅에 있으면서 먹고 사는 모든 사람이 적을 토벌하여 복수하는 것으로서 근본으로 삼아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이 베어낸 적의 귀를 마치 자신이 가진 듯하며, 저기서 낸 꾀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꾀를 낸 것처럼 할 것이요, 이 한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넋이 나간 적들을 격파하게 하면 곧 한 사람의 용감한 자가 선두에 오르고 수만의 겁을 먹은 자들이 기운을 낼 것이니. 마음을 함께 하는 이로움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곧 이러지를 않아, 관군의 명령은 의병이 따르지 않고, 의병의 공로는 관군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욕심으로 전투에 나아가면, 곧 갑은 연달아 지원해주기를 달가워하지 않고, 저쪽에서 갑이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곧 을이 합세하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각의 마음을 갖고 있고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니, 늘어선 진영은 비록 많으나 여태 모두 이겼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같은 배를 타면 호월(胡越)도 마음이 같이 한다.'라고 했으니, 이는 이른바 같은 병에는 서로 불쌍히 여겨 서로 시기를 할 여가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태함이 배를 탄 것보다 더 심하니,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어찌 호월(胡越)이라고 이르겠사옵니까. 대개, 우리나라 풍기가 투박하고 인심이 불화하여, 어긋남을 기뻐하고 화합함을 싫어하며 알력에 기울어졌는데 이것이 풍속이 되었으므로, 흙처럼 무너지는 환란을 불러들이고 마침내는 사람을 꼬이는 수단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복심(腹心)에 병이 들면 사지에 화가 뻗침은 당연한 일인데, 조정이 안정치 못하면 세상 물정이 어그러지는 것 역시 그러한 형세입니다.

백예(百隸)가 벼슬에 게으르고 만목(萬目)이 눈을 흘기면, 비록 장수가 염파(廉頗)와 이목(李牧)[91]과 같거나, 선비를 불러들이는 것이 장이(張耳)와 진여(陳餘)[92]와 같다거나, 병갑(兵甲)을 모은 것이 비휴(貔貅)[93]와 같더라도, 이러한 분산된 사람들로는 방장의 적을 토벌하기 어렵

---

90) 쓸개를……합니다: 와신상담(臥薪嘗膽)과 침과대단(枕戈待旦)의 준말이다. 섶에 누워 쓸개를 맛보고 창을 베고 누워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적을 죽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비유한 말이다.

91) 염파(廉頗)와 이목(李牧): 두 사람은 모두 전국(戰國) 시대 조(趙)나라 장수인데, 전쟁의 공로로 이름이 나서 명장(名將)으로 일컬어졌다,

92) 장이(張耳)와 진여(陳餘): 두 사람은 모두 대량(大梁)의 명사로, 진(秦) 나라가 위(魏)를 멸한 뒤에 두 사람이 명사(名士)란 말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하여 장이에게 1천 금(金), 진여에게 5백 금을 현상하였다. 『史記 張耳陳餘列傳』.

93) 비휴(貔貅): 옛 문헌에 나오는 맹수의 이름인데, 수컷을 비(貔)라 하고 암컷을 휴(貅)라고 한다.

습니다. 하물며 지금처럼 의지할 곳 없이 약해졌을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진평(陳平)과 주발(周勃)[94]이 여러 여씨(呂氏)를 벨 때, 반드시 말하기를 '장상(將相)이 조화를 이루어야 병사가 기꺼이 따른다.'라고 하였고, 인상여(藺相如)가 염파(廉頗)와 화해할 때에 또한 말하기를 '국가의 위급함을 먼저 하고 사적인 원한은 나중에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군대를 출병시키며 또한 말하기를, '궁중과 부중(府中)이 함께 일체가 되어 잘한 사람은 승진시키고, 잘못한 사람을 벌주는 것이 마땅히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자고로 위급하고 어려운 시기에 화협(和協)하지 않고서 구제하는 공을 세울 수 있었던 자 있지 않으며, 또한 사적인 감정을 품고서 일을 그르치지 않은 자 없었습니다. 근일의 폐단을 모두 들춰낼 수는 없고, 그 큰일들 가운데서 세 가지의 폐단을 골라 뽑아보자면 '직무상 맡은 책임을 자주 갈아치우는 것, 헌괵(獻馘)[95]을 해온 사람에게 포상하지 않는 것, 통솔과 호령을 하는 관청이 여러 군데인 것'이옵니다. 군에 종사하는 병사는 적은데 명령을 내는 관청은 많으니, 다투어 맹주(盟主)가 되려고 서로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명령을 내면 저기가 흔들려 군민이 현혹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 비유해보자면 마치 종 한 놈에 상전이 셋이나 되고, 열 마리 양을 치는데 주인이 아홉이나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적의 토벌을 바라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거친 것도 포용하는 덕을 넓히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수습하시어, 늘 같은 하늘 밑에서 사는 수치를 품고 와신상담(臥薪嘗膽)의 맹서(盟誓)를 더욱 굳게 하시어, 세력이 약하다고 스스로 저상(沮喪)하지 마시고, 구차히 편해지기 위해 물러나거나 움츠러들지 마옵소서. 이 적을 토벌할 것을 생각해도 여기에 있고, 이 적을 토벌할 것을 버려도 여기에 있을 것이요, 아무리 다급할 때에도 반드시 인(仁)에 근거해야 하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인(仁)에 근거해야 합니다. 상감의 뜻이 이와 같다면 신하들도 반드시 이보다 더 열심히 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등용을 맡은 자는 다른 뜻 없이 인재를 얻는 데에만 전념하고, 군사를 맡은 자는 다른 뜻 없이 군사를 훈련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양곡을 맡은 자는 다른 뜻 없이 그 경비를 쓰는 데에만 전념하게 하소서. 그 나머지 크고 작은 온갖 일들도 애써 힘쓰지 않음이 없게 하소서. 그가 현재 맡은 일에 다른 뜻 없이 전념하게 하여 성심(誠心)을 느슨하지 않게 함이 마치 활줄을 당기듯이 하도록 하시어, 통솔을 하는 관리에 이르러서는 오직 한

---

94) 진평(陳平)과 주발(周勃): 두 사람은 한고조(漢高祖)의 공신(功臣)으로, 고조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 훗날 여공(呂公)이 죽은 후 함께 여씨(呂氏) 일가를 죽이고 한실(漢室)을 편안하게 하였다.

95) 헌괵(獻馘): 적과 싸워 이긴 후에 적의 왼쪽 귀를 잘라 와서 임금에게 바치던 의식을 이른다. 『시경』「노송(魯頌) 반수(泮水)」에 "밝고 밝은 노후여, 그 덕을 잘 밝히셨도다. 반궁을 짓고 나니 회이 오랑캐가 복종하도다. 용맹스런 범 같은 신하들이 반궁에서 적의 포로의 왼쪽 귀를 바치도다.[明明魯侯 克明其德 旣作泮宮 淮夷攸服 矯矯虎臣 在泮獻馘]"라고 하였다.

장수만을 택해서 멀고 가까운 관군이나 크고 작은 의병들이 한군데서 나오는 호령만을 듣게 하소서. 저기와 여기가 서로 응하고 처음과 끝이 서로 도운다면, 회복의 공을 거의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가 곧 죽으려 할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곧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 하였사옵니다.[96]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옵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비변사에서 임금께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다.

"김천일이 올린 상소문 안에 있는 말은 시대를 구하는 절무(切務)가 아닌 것이 없고, 충분(忠憤)의 마음이 격동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른바 '상하가 마음을 같이하여 다만 적을 토벌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으라.'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병통에 적중한 것이오니, 조정에서도 이런 때에 바야흐로 뜻을 돈독히 하고 애써 힘써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직무상 맡은 책임을 자주 갈아치우는 것, 헌괵을 해온 사람에게 포상하지 않는 것, 통솔과 호령을 하는 관청이 여러 군데인 것'에 대해서도, 과연 이러한 등등의 폐단이 있사오니, 곧 유사로 하여금 이를 살펴 시행하게 하시되, 십분 선처하심이 어떠하시옵니까."

이에, 상감으로부터 윤허의 어명이 내리었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是時。倭譯朱繼康·朴大彬等飛報曰。賊將有平朝允者。貪索寶玉。將先掘康·泰二陵。以及諸陵。百般開諭。力不能止。公優送錦綵銀兩於二譯。以塞倭求。且送家禮五禮儀。以驗我國山陵有制。不殉寶玉。朝允乃止。公卽馳啓朝廷。優賞繼康等有差。公素虛弱。在軍踰年。病日沈痼。而至誠徹天。神守猶堅。軍務之事。不絕於口。有同夢中譫語。自念一朝澌盡。恐不能暴露所懷於君父。乃薰沐上疏。其略曰。同心則大事可辦。異意則小事難濟。方今三都淪沒。萬姓魚肉。正君臣上下合力同心。嘗膽枕戈。上曰。何以討賊復讐。大夫曰。何以討賊復讐。士庶人曰。何以討賊復讐。凡諸食土茹毛。在我國壤地者。只以討賊復讐爲心。擧國之人。合爲一心。人之斬馘。若已有之。彼之謀猷。此亦由之。以此一心之人。擊彼游魂之賊。則一勇先登。萬怯作氣。同心之利。夫豈少哉。今則不然。官軍之令。義兵不從。義兵之功。官軍不悅。此欲赴鬪則甲者憚於繼援。彼欲興師則乙者厭於合勢。人各有心。令出多門。列陣雖多。而尙稽全勝者此也。古人有言曰。同舟則胡越同心。此謂同病相憐。不暇相猜也。今時之危。甚於乘舟。而同國之人。豈云胡越哉。大槪我國風氣偸薄。人心不和。喜乖惡合。傾軋成風。因招土崩之患。竟輸漁人之手。腹心受病。則四肢之禍延。固其所也。朝著不靖。則羣情之睽乖。亦其勢也。百隸怠官。萬目側視。雖得將如頗。牧。致士如張,陳。聚甲如貔貅。以此携離之人。難犯方張之賊。況如今日之孤弱哉。平，勃之誅諸呂。必曰將相和調則士

96) 새가……하였사옵니다: 증자(曾子)가 병이 위독해졌을 때에 "새가 죽을 때에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 말이 착한 법이다.[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라고 하였다. 『論語 泰伯』.

豫附。相如之解廉頗。亦曰先國家之急而後私讐。諸葛亮之出師。亦曰宮中府中。俱爲一體。陟罰臧否。不宜異同。自古危難之時。未有不和協而能濟功者也。亦未有挾私憾而不憤事者也。近日之弊。未可盡擧。撮其中大端三弊。則職任之數遞。獻賦之不褒。節制之多門耳。從軍之兵少。而出令之官多。爭欲主盟。不肯相下。此出一令而彼擾之。彼出一令而此擾之。軍民眩然。莫適所從。比如一奴三主。十羊九牧。以此望其同心討賊。不亦左乎。伏願殿下廓包荒之德。收渙散之人。恒懷共天之羞。益堅臥薪之誓。勿以勢弱而自沮。勿以苟安而退縮。念玆討賊。釋玆討賊。造次必於是。顚沛必於是。上意若此。則必有甚焉之羣下。典吏者無他意。而思盡其得人。典兵者無他意。而思盡其鍊卒。典穀者無他意。而思盡其調度。其餘大小百執事。莫不刻勵。思盡其見在之任而無他意。誠心不弛。若弓張弦。而至於節制之官。唯擇一將。遠邇官軍大小義兵。咸取號令。彼此相應。首尾相援。則恢復之功。庶幾可望矣。鳥之將死。其鳴也哀。人之將死。其言也善。伏惟殿下留神焉。備邊司啓曰。金千鎰疏內之辭。無非救時之切務。而出於忠憤之所激也。其中所謂上下同心。只以討賊爲心者。正中今日之病。而朝廷時方致意刻勵。不遑他念者也。至於職任之數遞。獻賦之不褒。號令之多門。則果有此等之弊。遂令有司。察而施之。十分善處。何如。自上。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37)『선조실록(宣祖實錄)』 권33, 25년 12월 15일

비변사가 아뢰었다.

"김천일(金千鎰)의 서장을 보건대, 때에 맞추어 도강(渡江)하여 남병(南兵)과 합세해 기각(掎角)을 이루는 것이 상책(上策)입니다. 그러나 한번 강(江)을 건너면 이른바 피로한 군사들이 궤산(潰散)하고, 유민(流民)들이 따르지 않고, 추위에 언 군사들이 얼어 죽고, 전마(戰馬)가 굶주려 죽고, 공장(工匠)이 물건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과연 장계에서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굳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혐의를 피하느라 마침내 일을 그르치는 후회가 있게 되면 역시 실책이 됩니다. 그 진퇴(進退)에 따라 이해(利害)가 이와 같으니, 이곳에서 억지로 강을 건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외로운 섬에다 군사를 주둔한 지 이미 반년이 지났는데 적에게 꺾임을 당해 우리의 형세를 약하게 하고 있으니 이른바 양병(養兵)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군사를 피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양(張良)·진평(陳平)·제갈량(諸葛亮)이라면 응당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도 원대한 생각이라고 말하니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몰래 내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동서의 장수를 모아 함께 경성(京城)의 적을 쳐야 한다.' 한 것은 그 뜻이 장하니 더욱 힘쓰게 해야 합니다."

備邊司啓曰。伏見金千鎰書狀。及時渡江。與南兵合勢掎角。策之上也。而一渡江面。則所謂老師之潰散。流民之不從。寒士之凍死。戰馬之飢斃。匠工之不成。果如狀啓所陳。而固避偸安之嫌。終貽僨事之悔。則亦爲失策。其進其退。利害如彼。則自此固不可强使渡江矣。但藏兵孤島。已過半

年。爲賊所挫。以弱我勢。所謂養兵。其實老師。良平諸葛。不應如此。猶謂遠慮。不已顚乎。至於密納內應之人。期會東西之將。共滅京城之賊云云者。其志壯矣。更加勉勵。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38) 정탁(鄭琢), 『약포집(藥圃集)』 권5, 「피난행록 하」, 임진년 12월

(12월 4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그의 아들 김상건(金象乾)과 그의 막하(幕下) 선비 임환(林懽)을 보내어 경성(京城)과 경기 지역의 형세를 매우 상세히 말하였습니다. 경성의 백성들이 흉적에 의해 몹시 심하게 괴롭힘을 받아 밤낮으로 관군(官軍)이 오기만을 고대하며 병장기와 물자를 비축하고 몰래 관군과의 내응을 도모하겠다고 김천일에게 약속한 사람이 거의 수천 명이고, 그 나머지 성영(成泳)·이정형(李廷馨)·우성전(禹性傳)에게 응하려는 사람도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옛 도성의 유민(遺民)이 이미 국가를 위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적을 토벌하자 하니, 이러한 때에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어 백성들의 정서가 적들과 함께 익숙해지고 점차 적들에게 빠져들게 되어 다시 회복할 희망이 없어질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약포집(https://db.itkc.or.kr/)

倡義使金千鎰。送其子象乾及其幕下士林。備言京城及畿甸形勢甚詳。京城之民。爲兇賊所毒虐。日夜望官軍之至。儲備軍器。潛圖內應。受約束於千鎰者。幾數千人。其餘欲應成泳·李廷馨·禹性傳者亦多云。舊都遺民。旣欲爲國家至誠討賊。而不於此時副應民望。則時移歲變。民情與賊玩狃。馴致淪胥。更無恢復之望。至爲可慮。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약포집(https://db.itkc.or.kr/)

(39)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계사년

신종황제 만력 21년, 선조대왕 26년 계사년, 선생이 57세가 되다.

상소를 올려 왜적을 토벌하여 복수할 요령을 논하다.

이때, 조정이 불화하여 명령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관군과 의병이 서로 시기(猜忌)하고 저해(沮害)하니, 선생이 말하되, "마음을 함께하면 큰일도 판별할 수 있거니와, 마음을 달리하면 작은 일도 구제할 수 없다. 지금 삼도가 쇠퇴하여 망하고 만백성들이 어육이 되었으니 이는 바로 상하가 마음을 함께해서 와신상담하고 창으로 베개를 삼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조저(朝著)가 평안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서로 반목하고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적을 토멸하고 원수를 갚을 날이 없다."라는 내용을 상소를 올려 논하였다.

군사를 전진시켜 경성으로 들어가 점령하고, 능묘를 삼가 살핀 후 군사를 나누어 서울을 지켰다.

명장(明將) 이여송이 평양을 탈환하고 전진하여 개성에 이르자, 선생이 막하 임전(任鍊)[97]으로 하여금 경성의 형세, 도로의 이험, 적정(賊情)의 허실을 기록하여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경기수사 이빈·충청수사(忠淸水使) 정걸(丁傑)[98]과 함께 주사(舟師)를 거느리고 선유봉(仙遊峯)에 진차(進次)시켰다. 노량(鷺梁)의 뒤를 끊고 육군을 나누어 사현(沙峴)을 무찔러 사로잡거나 목을 벤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 명장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창의사는 명실이 서로 상부한 명장이다."라 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二十一年 二十六年 癸巳。先生五十七歲。

上疏論討復之要。

時朝廷不和。令出多門。官軍義兵。互相猜沮。先生以爲同心則大事可辦。異心則小事難濟。方今三道淪沒。萬姓魚肉。此正上下同心。嘗膽枕戈之時。而朝著不靖。羣情睽離。此而不改。則討賊復讐。恐無其日。上疏論之。

進兵入據京城。奉審陵廟。分兵守衛。

天將李如松克平壤。進至開城。先生使幕士任鍊。圖京都形勢。道路夷險。賊情虛實獻之。與京畿水使李蘋·忠淸水使丁傑。領舟師。進次仙遊峯。以截鷺梁。分陸軍衝沙峴。俘斬無算。天將歎曰。倡義使名實相孚。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40)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

만력 21년 정월 6일,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서경을 공격하여 수복하고 동도(東都, 개성)에 이르러 서울의 적을 합공(合攻)하려 하였다. 이때 공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자에게 서울의 형세와 도로의 험하고 평탄함과 크고 작은 적영의 상황을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는 막하의 선비 임전(任鍊))을 시켜 제독 이여송의 군전으로 가서 바치게 하니, 제독이 크게 치하하며 길을 인도하고 교량을 놓을 것과 말에게 먹일 꼴과 군량 운수의 일체를 공과 여러 의병에게 맡겼다.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 군인의 장표를 보고 말하기를, "이른바 창의란 표시가 어찌 이렇게 많

97) 임전(任鍊): 1560~1611.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관보(寬甫), 호는 명고(鳴皐)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의 휘하에서 종군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 박학능문(博學能文)하다는 원접사 유근(柳根)의 장계(狀啓)에 따라 제술관으로 발탁되었다. 광해군 때에는 재야에 있으면서 이이첨·정인홍 등을 질척(叱斥)하였다. 문집에 『명고집(鳴皐集)』이 있다.

98) 정걸(丁傑): 1514~1597. 본관은 영광(靈光), 자는 영중(英中), 송정(松亭)이다. 1544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1555년 을묘왜변 때, 왜군을 무찔렀다. 1591년 전라좌수영 조방장으로 임명받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함께 각종 해전에 참가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1593년 충청수사로 있으면서 행주대첩에 참가했고, 한양수복 작전에도 참여하였다.

으며, 힘과 충성을 다함이 어찌 이와 같단 말인가." 하였다

이에, 서울 백성들은 서울 왜적들과 충돌하여 다 의병의 인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를 본 왜적들은 만일 명나라 군사가 진공하면 내외가 반드시 서로 합세할 것을 헤아려 분함이 격심하여져, 서울 백성들을 거의 다 죽이니, 쌓인 시체가 거의 산 같았고, 성 안의 인가(人家) 및 삼강(三江)에 불을 지르니, 불길이 열흘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았다. 이는 이해 정월 14일의 일이다.

견디기 힘든 고생을 한 나머지, 성을 나와 공에게 투항한 사람이 오히려 수만 명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많고 곡식은 적어 우우(喁喁)히 굶주림을 하소연하였다. 이에 공은 막하의 선비 한 사람을 보내어 진휼하는 일을 맡기고 군량 수백 부대를 풀어 혹은 죽을 끓이고 혹은 밥을 지어 온전히 살려낸 사람이 무수하였다.

적이 물러간 후에 성안으로 들어온 유민들은 모두 한 섬 곡식의 자산도 없었다. 이에, 공이 선미 천여 부대를 가져다가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니, 전후로 살린 백성들의 목숨이 수십만이었다. 지금도 서울 백성들의 말이 창의사에 이르게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다.

공은 다시 충청병사(忠淸兵使) 정걸·경기수사 이빈(李薲)과 함께 수군을 거느리고 양화도로 나아가 선유봉에 성을 쌓고, 수군을 내어 노량을 끊고 육군을 나누어 사현(沙峴)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로잡은 포로와 베인 목을 명나라 장수에게 바치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니, 명나라 장수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창의사가 창의사의 이름을 얻은 것이 헛되이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二十一年正月六日。天將李提督如松。克復西京。進次東都。將合攻京城賊。公令善畫者。摹京都形勢。道路險夷及大小賊營之狀。付幕士任鍊。往呈提督軍前。提督大加奬歎。嚮導浮梁之役。飛芻輓粟之事。一責於公及諸義兵。天兵見軍人章標曰。所謂倡義標者何多。而竭力盡誠如是耶。京賊探都民盡屬義陣。度天兵進攻。則內外必相合勢。憤甚。殺都民幾盡。積屍所在如山。燒城內人家及三江。火經旬不滅。時正月十四日也。創殘之餘。出城投公者。猶且數萬人。人夥穀少。喁喁望哺。公差幕士一人。掌賑救事。散軍需數百包。或粥或食。全活無數。賊退後。遺民入城者。皆無甔石資。發船米千餘包散給。前後活民命數十萬。至今都民言及倡義使。則莫不流涕。公與忠淸水使丁傑·京畿水使李薲。領舟師。進次楊花渡。築壘於仙遊峯。出水軍截鷺梁。分陸兵衝沙峴。俘斬之獻于天將者相繼。天將歎曰。倡義倡義。名不虛得。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41)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권2, 계사년 상 1월 15일

전라 감사 권율(權慄)이 수원에서 4000명의 군사를 두 부대로 나눈 뒤 병사 선거이(宣居怡)에게 주어 금천산(衿川山)에 진을 치고서 성원(聲援)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1만여 명

을 거느리고 양천강(楊川江)을 건너서 고양(高揚)의 행주산성(幸州山城)에 나아가 진을 쳤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은 강화로부터 나와서 바닷가 언덕에 진을 치고, 충청 감사 허욱(許頊)은 통진(通津)에 진을 쳐서 아울러 성원(聲援)하였으며, 충청 수사 정걸(丁嶡)도 또한 성원(聲援) 중에 있었다.

全羅監司權慄自水原分軍爲二。以四千人。付兵使宣居怡。軍于衿川山。使爲聲援。自領萬餘兵。渡楊川江。進屯高陽幸州山城。倡義使金千鎰自江華出陣海岸。忠淸監司許頊陣通津。并爲聲援。忠淸水使丁嶡亦在應援之中。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https://db.itkc.or.kr/)

(42) 『선조실록(宣祖實錄)』 권34, 26년 1월 10일

비변사가 아뢰었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상소하여 스스로 몸에 중병이 있어 버티며 보전하기 어려울 듯하다면서, 수사(水使) 이빈(李薲)과 함께 일하기를 청하여 의려(義旅)를 귀탁(歸托)시킬 계획을 하는데, 이는 틀림없이 정세(情勢)가 절박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김천일(金千鎰)이 바야흐로 대사(大事)를 도모하고 또 기회를 만났으니 병으로 사양하여 군정(軍情)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삼가 조호(調護)하면서 장사(將士)들을 진무하여 빨리 공을 이루게 하소서."

【사신은 논한다. 김천일은 당초의 거조가 큰일을 할 듯했는데, 한번 싸워 보지도 않고 외딴 섬에 들어가 스스로 보전할 계책을 세웠으니 애석하다.】

備邊司啓曰。倡義使金千鎰上疏。自以身有重病。恐難支保。請與水使李薲同事。以爲義旅歸托之計。此必出於情勢之切迫。然千鎰方謀大事。又値機會。不可辭以疾患。以搖軍情。愼加調護。鎭撫將士。速成大功。

【史臣曰。千鎰當初擧措。似若有爲。而未交一鋒。入于孤島。終爲自保之計。惜乎。】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43) 『선조실록(宣祖實錄)』 권34, 26년 1월 11일

답보(答報)하면서 헤아려 개진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강화부(江華府)에 주차(駐箚)한 전라도 절도사 최원(崔遠)의 군사 4천 명, 경기도 순찰사 권징(權徵)의 군사 4백 명,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의 군사 3천 명, 의병장(義兵將) 우성전(禹性傳)의 군사 2천 명, 수원부(水原府)에 주차한 전라도 순찰사 권율(權慄)의 군사 4천 명, 【이상은 왕경(王京)의 서쪽에 있으며 경성(京城)과의 거리는 1일 정(程)이다.】 양주(楊州)에 주차한 방어사(防禦使) 고언백(高彦伯)의 군사 2천 명, 양근군(楊根郡)에 주차한 의병장

이일(李軼)의 군사 6백 명, 【이상은 왕경 동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1일 정이다.】 여주(驪州)에 주차한 경기 순찰사 성영(成泳)의 군사 3천 명, 안성군(安城郡)에 주차한 조방장(助防將) 홍계남(洪季男)의 군사 3백 명【이상은 왕경에 있으며 1일 반 정이다.】충청도 직산현(稷山縣)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이옥(李沃)의 군사 2천 8백 명, 평택현(平澤縣) 등처의 장관(將官)들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합해서 약 3천여 명, 각처의 의병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합해서 약 5천여 명이다.【이상은 왕경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2, 3일 정이다. 또는 4, 5일 정이다.】

答報計開京畿道·江華府駐箚全羅道節度使崔遠兵四千。京畿道巡察使權徵兵四百。倡義使金千鎰兵三千。義兵將禹性傳兵二千。水原府駐箚全羅道巡察使權慄兵四千。【已上在王京西邊。距京城一日程。】楊州駐箚防禦使高彦伯兵二千。楊根郡駐箚義兵將李軼兵六百。【已上在王京東邊。距京城一日程。】驪州駐箚京畿巡察使成泳兵三千。安城郡駐箚助防將洪季男兵三百。【已上在王京一日半程。】忠淸道稷山縣駐箚本道節度使李沃兵二千八百。平澤縣等處將官各將數百名。約共三千餘名。各處義兵各數百。約共五千餘兵。【已上在王京南邊。距京城二三日程。或四五日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44)『선조실록(宣祖實錄)』 권34, 26년 1월 22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치계(馳啓)하였다.

"경도(京都)의 백성들이 이미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다투어 내응(內應)하기를 바라는데, 그 수효가 수천 명에 이를 것입니다. 비록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대략 부오(部伍)를 나누고 각기 그 장수를 정하긴 하였지만 합당함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 가운데 조금 나은 자를 차출하고 가끔 신임할 만한 사람을 보내어 몰래 엿보게 하면 틀림없이 병력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니, 외부에 흩어져 있는 왜적을 격파한 연후라야 도성 안에 점거하여 있는 적을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거사하지는 않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천일이 치계(馳啓)하였다.

"12월 16일에 적이 기병과 보병 50여 명을 거느리고 또 성 안의 주민 50명을 뽑아 강릉(康陵)과 태릉(泰陵)에 가서 능을 팠지만, 능 위에 회(灰)가 단단하게 막혀서 깨뜨리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파하고 되돌아왔습니다. 또 대원군(大院君)의 묘소에 가서 팠지만 뚫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사포서(司圃署)의 종 효인(孝仁)이 당초에 '능침(陵寢) 속에 금은(金銀)을 넣어 간직하였다.'라고 사주하였으며, 사헌부 서리(司憲府書吏) 최업(崔業)이 왜의 서원(書員)이 되어 전적으로 능을 파는 일을 관장하여 방리(坊里)의 인정(人丁)을 뽑았다고 합니다."

倡義使金千[99]鎰馳啓曰。京都之民。已切思漢之心。爭願內應。其數將至數千。雖以賊陣之數。略分部伍。各定其將。而難得合當。只因其中稍勝者差出。而時送可信人。潛瞷所爲。必得統合兵力。擊去在外散處之倭。然後可以入攻內據之賊。玆未擧事。方待期會。

金千鎰馳啓曰。十二月十六日。賊率騎步兵五十餘名。又抄發城中民五十名。向康·泰陵鑿破。陵上灰隔堅實未破。日暮罷還。又向大院君墓所。掘破未穿而還。司圃署奴孝仁。當初指嗾曰。陵寢中。金銀入藏云。司憲府書吏崔業。爲倭書員。專掌掘陵一事。抄發坊里人丁云。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45)『선조실록(宣祖實錄)』 권35, 26년 2월 26일

호조가 아뢰었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의 장계에 "난을 만나 굶주린 백성들이 도로에 엎어져 있는 모습을 지극히 늘어놓았는데 보기에 참혹하였습니다. 중국군이 오래 머물러 공궤(供饋)가 많아 앞으로 기민 구제하는 데에 비록 특출한 방책은 없으나 거의 죽어가면서 먹을 것을 바라는 백성을 또한 무심히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수령에게 피잡곡(皮雜穀)을 직접 나누어 주게 해서 성심으로 구제하라는 뜻을 경기 안무사(安撫使) 및 좌우도 관찰사에게 행회(行會)하게 하소서."

戶曹啓曰。倡義使金千鎰狀啓。極陳遭亂飢民。顚仆道路之狀。所見慘痛。天兵久留。供億浩繁。前頭賑飢。雖無奇策。而垂死仰哺之民。亦不可恝視。使守令。將皮雜穀。躬自俵給。誠心濟活之意。行會于京畿安撫使及左右道觀察使。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46)『선조수정실록』 권27, 26년 2월 1일

당시 관군(官軍)이 기내(畿內)에 나누어 웅거하면서 권율의 군사를 우두머리로 삼아 들락날락하며 적을 치니, 적이 멀리 나가서 땔나무를 할 수 없었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전라 수사(全羅水使) 이빈(李薲), 충청 수사(忠淸水使) 정걸(丁傑)이 수군을 이끌고 경강(京江) 어구에 진격하였으며, 하삼도(下三道)의 관군과 의병이 적의 길을 차단하니 적의 기세가 점점 꺾였다. 하지만 명나라 군사가 이미 멀리 물러가서 대대적으로 진공(進攻)할 수 없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유성룡이 왕필적(王必迪)에게 글을 보내기를,

---

99) 干→千. 원문에는 '干'으로 되어 있으나 마땅히 '千'이 되어야 하므로 수정하였다.

“적이 바야흐로 험고한 지대에 웅거하고 있으니, 쉽게 공격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대병(大兵)이 파주에 진주하여 그 후미를 끌어내어 묶어두고, 별도로 남병(南兵) 1만 명을 뽑아 강화(江華)로부터 한강 남쪽에 진출시킨 뒤 여러 둔(屯)을 공격하게 하면, 둔치고 있는 적의 형세는 약화되어 있으므로 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성에 있는 적은 돌아갈 길이 차단되면 반드시 용진(龍津) 쪽으로 향해 달아날 것이니, 후병(後兵)으로 강진(江津)을 쓸어버린다면 일거에 소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왕필적이 기책(奇策)으로 여기고 그 계책을 쓰려고 하였으나 제독이 따르지 않았다.

時。官軍分據畿內。以權慄軍爲首。出沒鈔賊。賊不得遠出樵採。倡義使金千鎰·全羅水使李蘋·忠淸水使丁傑以舟師。進京江口。下道官·義兵邀截賊路。賊勢漸挫。而天兵已遠退。不得大擧進攻。國人恨之。柳成龍移書王必迪曰。

賊方據險固。未易攻。若大兵進住坡州。躡其尾。以牽綴之。別選南兵一萬。從江華出於漢南。卒擊諸屯。則諸屯賊寡弱易破。京城之賊歸路斷絕。必向龍津而走。因以後兵覆諸江津。則可一擧掃滅也。

必迪以爲奇謀。欲用其策。而提督不從。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47)『선조실록』 권36, 26년 3월 10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정부의 은인(銀印) 하나를 올려 보냈다.【난리가 난 처음에 잃어버린 것을 지금에 와서 성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천일이 올려보낸 것이다.】

倡義使金千鎰, 以政府銀印一顆, 上送。【亂初失之, 至是得之於城中, 故千鎰送之矣。】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48) 김천일(金千鎰),『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연보」, 계사년 6월 14일

14일에 왜구가 경성을 비우고 도망하니, 선생이 경성으로 들어가 능묘를 보살피고 군사를 나누어 지켰다. 유민들이 다 경성으로 입성하므로 배 안에 둔 쌀 1천여 석을 내어주어 먹이고, 명나라 장수에게 글을 보내어 왜적을 놓아주는 것은 걱정거리가 됨을 간간히 말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十四日。倭空城而遁。先生入城。奉審陵廟。分兵守衛。遺民皆入城。發船中米千餘石。給餉之。文移天將。以縱賊貽患。懇懇言之。終不聽。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49) 김천일(金千鎰),『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행장」

서울의 왜적이 스스로 형세가 궁함을 헤아려 날마다 명나라 장수에게 사자를 보내어 화의를 애걸하니, 명나라의 유격장군(游擊將軍)인 심유경(沈惟敬)[100], 주홍모(周弘謨)[101] 등이 왜적 평행장(平行長)을 불러 화의를 의논하였다. 이에 공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두 유격장군에게 글을 보내어, '저 왜노(倭奴)들은 사람을 속이고 배반하니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극 진술하였다.

그러자, 저들이 회답하되, "우리 중국 조정의 큰 계획을 소국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고, 또 패를 보내어 "왜노를 죽이거나 잡은 자는 엄중 추구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은 이 명을 듣지 않고 왜적 잡기를 여전히 계속하니, 주홍모가 노하여 관리를 보내 공과 경기순찰사(京畿巡察使) 성영(成泳)[102]을 체포해 가서 세세히 캐물었다.

그러자 공이 정색하고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신민이 만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이 왜적입니다. 하물며 그 자제들 중 부형을 잃은 자들은 스스로 복수를 하는 것이거늘, 장관으로서 어찌 능히 이를 일일이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사기가 격렬하고 흔들리지 않으니, 주홍모가 공을 좋은 말로 위로하여 보내었다.

임해군(臨海君)[103]·순화군(順和君)[104] 두 왕자가 포로가 되어 서울에 있으면서 언문으로 쓴 글을 공에게 보내왔는데, 마침 명나라 장수 지휘사(指揮使) 오종도(吳宗道)[105]가 자리에 있다가 한자로 해석하여 보여줄 것을 청하자, 공이 막사에게 번역하여 풀이하게 하니 말하기를 "화의의 일이 이미 마무리되면, 적이 조모(朝暮)에 성을 나갈 것이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목숨

---

100) 심유경(沈惟敬): ?~1597.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사신으로, 조승훈이 원군을 이끌고 올 때 유격장군으로 왔다. 1592년 소서행장과 강화를 의논하고 1593년 일본에 가서 풍신수길과 회담했다. 그 후 강화가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화의를 교섭하다가 일본에 항복할 목적으로 의령(宜寧)까지 갔다가 명 나라 장수 양원(楊元)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101) 주홍모(周弘謨): ?~?. 자는 원문(元文)이다. 만력 연간에 진사가 되어 하남 도사(河南都司), 선부 유격(宣府遊擊)에 올랐고, 임진왜란 때는 이여백(李如栢) 휘하에서 평양 전투에 공을 세웠다. 심유경과 같이 왜군에 가서 강화교섭을 하였고, 조선에서 병으로 죽었다.

102) 성영(成泳): 1547~1623.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사함(士涵), 호는 태정(苔庭)이다. 선조 때에 여러 조의 판서를 역임하였으나 광해군이 즉위하자 정인홍 등에 의하여 유영경(柳永慶)의 일파로 몰려 파직되고 1616년(광해군 8) 연일(延日)에 유배되어 1623년(인조 1) 배소에서 죽었다.

103) 임해군(臨海君): 1574~1609.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宣祖)의 서출로 시호는 정민(貞愍)이고, 초명은 진국(鎭國)인데 뒤에 진(珒)으로 고쳤다. 서자이지만 서열이 첫째였으나 성질이 난폭하여 아우인 광해군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기고, 광해군 즉위 후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104) 순화군(順和君): 1580~1607. 선조의 여섯째 왕자로, 이름은 보, 시호는 희민(僖敏)이다. 성격이 몹시 패악하여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았고, 1601년(선조 34)에는 순화군의 군호까지 박탈당하였으나 사후에 복구되었다.

105) 오종도(吳宗道): 자는 여행(汝行), 호는 석루(石樓)이다. 무거(武擧)를 통해 벼슬길에 나섰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593년(신종 21) 구원병으로 와서 오래 머물렀다. 정유년(1597, 신종 26)에는 형 군문(邢軍門)에 소속되어 잇따라 수군을 이끌고 나왔다.

들은 영영 고국을 떠날 것이다. 비록 다시 천일(天日)을 보고 싶으나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원하건대, 비상(砒霜)을 얻어 스스로 우리 경도에서 죽는다면 혼백이라도 오히려 의지할 바가 있으리라."라고 되어 있었다.

오종도 공이 그 글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진실로 화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이 글을 가지고 가서 이 제독을 뵈옵고 왜적 추격할 계획을 정할 것이니, 공은 군사를 정리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므로, 공이 심히 기뻐 막사 이영노(李榮老)를 보내어 이제독(李提督)에게 글을 드려 화의의 실책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이제독(李提督)은 움직이지 않았다.

접반사(接伴使) 상국(相國) 이덕형(李德馨)[106]이 공의 글을 보고 이르되, "여러 장수가 창의사 김천일의 충성만 같다면, 명나라 장수의 뜻을 돌릴 수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왜적이 도성을 나감에 미쳐, 공이 또 명나라 장수에게 글을 보내어, 적을 놓아주면 후환이 된다는 말을 반복하였으나, 이제독의 뜻이 굳어져 되돌릴 수가 없었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京賊自度勢窮。日遣使乞和於天將。天將游擊沈惟敬·周弘謨等。招賊平行長議和。公憤惋不勝。呈文於二游擊。極陳詐奴反側難信。答曰。天朝大計。非小邦所知。且移牌曰。勦捕倭奴者。重究不貸。公不聽。捕賊如故。周弘謨怒。遣官拏公及京畿巡察使成泳盤詰。公正色而對曰。我國臣民。萬世不可忘此賊。況子弟之失其父兄者。人自報讐。將官何能一一禁斷。辭氣激烈不撓。周以緩辭慰遣之。臨海·順和兩主子。被虜在京城。以諺書抵公。適天將吳指揮宗道在座。請以文字解示。公令幕士飜解曰。和事已完。賊朝暮出城。未死頑喘。永辭故國。雖欲復見天日。得乎願得砒礵。自絕於舊京。則魂魄猶有所托。吳公見其文垂涕曰。和議固不可淹。持此書往謁提督。以定追擊之策。煩公整旅以待。公喜甚。遣幕士李榮老。呈文於李提督。極陳和議之失。提督不爲動。接伴使李相國德馨見公文曰。諸將皆如倡義使之忠懇。庶回天將之意矣。及倭賊出城。公又呈文於天將。反覆以縱賊貽患爲言。而提督之意。牢不可破。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50)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권1, 계사년

여름 4월 28일 임자(壬子)

도체찰사(都體察使)의 군관(軍官) 김사위(金士偉)가 군(郡)에 도착했다. 명나라 장수와 왜적이 강화(講和)하므로 우리나라의 장사(將士)들에게 적을 추격하지 말도록 했다. 그래서 창의사

106) 이덕형(李德馨): 1561~1613.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이다. 1580년(선조 13)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저술로 『한음문고(漢陰文稿)』가 있다.

(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요충지에 매복했다가 공격하여 7, 8명을 활로 쏘아 죽이고 3, 4명의 목을 베자, 적장(賊將)이 크게 화를 내며 명나라 장수에게 호소하였다. 명나라 장수 또한 노하여 김천일 등을 형벌에 처하려고 했다가 도로 사면해 주었다. 그리고는 하도(下道)의 제장(諸將)에게 포고문을 보내, 적을 요격하거나 추격하여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아! 개, 돼지와는 은혜와 신의를 맺을 수 없고, 나라의 치욕은 백세(百世)가 지나도 잊기 어려운 일이로다. 그런데 갑자기 화의(和議)를 칭하면서 흉악하고 추잡한 무리들로 하여금 좋게 마무리하여 돌아가도록 했으니, 어찌 이것이 나라를 위한 도리겠는가.

二十八日壬子。都体察使軍官金士偉到郡。唐將與倭講和。令本國將士。勿爲追伐。故倡義使金千鎰設伏要伐。射中七八。斬首三四。賊將大怒。訴于唐將。亦怒金千鎰等。將欲行刑而還赦。傳牌于下道諸將。勿爲要擊尾擊。以傷一人。嗚呼。犬豕不可結以恩信。國辱固當百世難忘。而遽稱和議。使兇醜之徒。善終而歸。豈是爲國之道耶。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고대일록(https://db.itkc.or.kr/)

(51) 『국조보감(國朝寶鑑)』 권31, 선조조 8, 선조 26년(계사) 4월

경기 감사 성영(成泳)이 선릉(宣陵)·정릉(靖陵) 두 능의 변고에 대하여 장계를 올렸다. 왜적이 물러간 후에 김천일(金千鎰)이 먼저 능의 변고를 살펴보고 군사로 호위하였는데, 성영이 이를 들어 계문한 것이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https://db.itkc.or.kr/)

京畿監司成泳狀啓。宣·靖二陵之變。賊退而金千鎰先審陵變。以兵奉衛。泳擧以聞。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 원문이미지(https://db.itkc.or.kr/)

(52) 『선조실록(宣祖實錄)』 권37, 26년 4월 15일

비변사가 아뢰었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의 장계를 보건대, 경기 각 고을은 전란이 풀리지 않은데다가 기근(飢饉)이 계속되어 노약자들은 굶어 죽어서 시체가 구렁에 뒹굴고 젊은이들은 모여서 도적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국가에서는 다시 수습할 대책이 없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수령들은 근래 중국군 지공(支供) 때문에 잡물(雜物)까지 거두어들이는데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성화처럼 독촉합니다. 난리를 겪은 백성들이 다시 옛집에 돌아와서 숨겨 두었던 물건을 파내려 하면 관리들이 뒤쫓아 와서 모두 빼앗아 가니, 백성들은 이리저리 빌어먹으며 돌아다니다가 끝내는 반민(叛民)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 고을에서 출정(出征)이라도 있게 되면 관청을 비워놓을 수 없다는 핑계로 다시 가관(假官)을 뽑는데, 가관들은 모두 피난 와서 붙어사는 자들로서 민폐를 많이 끼칩니다. 그리하여 처자식을 많이 데리고 와서 본관(本官)에서 지공(支

供)하게 하는 자도 있으니, 본도 관찰사에게 하유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안집(安集)시킬 대책을 강구하게 하소서."

備邊司啓曰。伏見倡義使金千鎰狀啓。京畿各邑。兵革不解。飢饉仍之。老弱塡于溝壑。强者聚而爲盜。國家更無收拾之策。極爲悶慮。守令等。近以天兵支應。科斂雜物。色目極多。急於星火。經賊之民。還集舊巢。欲掘窖藏之物。而官差踵至。一皆奪去。流離丐乞。遂成叛民。非但此也。各官又有出征。則托稱不可空官。又出假官。假官皆避亂僑寓之人。多貽民弊。或多率其妻子。令本官供饋。請下諭于本道觀察使。使之講究安集之策。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53)『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7, 26년 4월 1일

경기 감사 성영(成泳)이 선릉(宣陵)·정릉(靖陵) 두 능의 변고에 대하여 장계하였다. 왜적이 물러간 후에 김천일(金千鎰)이 먼저 능의 변고를 살펴보고 군사로 호위하였는데, 성영이 이를 들어 계문한 것이다.

京畿監司成泳狀啓宣·靖二陵之變。賊退。而金千鎰先審陵變。以兵奉衛。泳擧以聞。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54) 류성룡(柳成龍), 『운암잡록(雲巖雜錄)』, 「기정릉사(記靖陵事)」

계사년(1593, 선조 26) 4월 초순에 선릉(宣陵)과 정릉이 왜적에게 도굴되었다. 그때 나는 동파(東坡)에 있었는데 이 제독(李提督 이여송(李如松))이 평양에서 개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듣고, 원수(元帥) 김명원(金命元)과 함께 가서 문후(問候)하였다. 접반사 이덕형(李德馨), 유수(留守) 노직(盧稷), 호조 판서 이성중(李誠中) 등 5~6인이 접대청(接待廳)에 모여 앉아 있는데, 경기 좌감사(京畿左監司) 성영(成泳)의 급보가 왔다. 그때는 캄캄한 밤중이었으므로 불을 켜고 그 글을 펴 보니, 바로 능침(陵寢)에 변고가 생겼다는 보고였다. 즉시 울부짖으며 슬퍼하니, 제독이 듣고 그 보고를 가져다 보았다. 나는 여러 공들과 함께 만월대(滿月臺) 앞 남쪽 산기슭에 가서 능쪽을 바라보면서 곡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김 원수(金元帥)와 함께 동파로 돌아와서 사람을 모집하여 가서 두 능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니, 군관 이홍국(李弘國)이라는 자가 나와 꿇어앉아 말하기를,

"소인은 바로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후예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어찌 보통 사람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죽을지라도 가겠습니다."

하였다. 나는 원수와 함께 그의 충성을 칭찬하고, 또 말하기를,

"그대가 혼자 갈 수는 없으니, 가기를 원하는 군사 10인을 다시 모집하여 함께 가도록 하라."

하였다. 그때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은 강화에 있었는데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

두 경성(京城) 사람들이었다. 그중에서 내가 일찍이 2백 명을 뽑아서 동파에 두고 심부름을 시키고 있었다. 홍국에게 그들 중에서 모집하게 하였더니, 과연 10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모두 각 사(各司)의 관노(官奴)로 봉상시(奉常寺) 사람이 절반이었다. 내가 모두 앞에 불러 놓고 울며 타이르니, 모두 감격하여 힘을 다하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식량과 물품을 갖추어 보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운암잡록(https://db.itkc.or.kr/)

癸巳四月初。宣陵靖陵。爲賊所拔。時余在東坡。聞李提督自平壤還開城。同金元帥命元往候。接伴使李德馨。留守盧稷。戶曹判書李誠中等五六人。會坐接待廳。京畿左監司成泳急報至。時夜黑。以火發其書。乃陵寢變報也。卽號痛。提督聞之。取其報見之。余與諸公往滿月臺前南麓。望擧哀。明曉與元帥還東坡。欲募人往探二陵形止。有軍官李弘國者。出跪曰。小人乃讓寧大君後裔也。向國之心。豈同凡人。雖死願往。余與元帥奬其忠。且曰。汝不可獨往。更募軍之願往者十人。與俱。時倡義使金千鎰在江華。所率皆京城人。余曾調二百名。在東坡聽用。令弘國就其中募之。果得十人。皆各司奴子。而奉常寺人居半。余悉呼至前。泣諭之。莫不感激。請盡力。於是具粮資以送。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원문 운암잡록(https://db.itkc.or.kr/)

(55)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계사년

이때 왜적을 추격하라는 교지가 내리자, 선생은 바야흐로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 말하기를,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이때 부오(部伍)를 관군에게 빼앗겼으므로, 남은 병사 겨우 수백 명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왜적은 영남 언저리를 나누어 점거하고 30만 명에게 명하여 장차 진주를 도륙하였다. 명나라 장수는 화의의 뜻을 갖고 군대를 멈추어 두고 싸우지 않으므로, 관병과 의병이 감히 먼저 나아가지를 못하였다. 유격대장 심유경이 이르기를 "왜적이 지난해에 진주에서 패전하였으므로 이제 그 분풀이를 하려 하니, 영을 내려 진주 백성들을 진주성을 비우고 달아나게 하면, 왜적은 마땅히 군사를 철수하여 가리라."라고 하였다. 선생이 이르기를 "이 나라에서는 호남이 근본이 되고 호남은 진주에 매우 가까우니, 진주가 없으면 호남도 없다. 성을 비우고 적을 피하여 그 마음을 즐겁게 함은 계책이 아니다."라고 하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時有旨追倭。先生方病臥。蹶然起曰。得吾死所。時部伍爲官軍所奪。領餘兵僅數百南下。倭分據嶺沿。號三十萬。將屠晉州。天將持和議。按兵不戰。官義兵不敢先進。沈游擊謂倭去歲失利於晉。今欲逞忿。宜令晉民空城而走。則倭當撤兵。先生曰。國家湖南爲根本。湖於晉密邇。無晉無湖南。空城避賊。以快其心。非計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56)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

공이 도성으로 들어와 막사를 거느리고 바로 종묘 옛터에 나아가 통곡하며 재배하고 물러나자, 나라에서 교지가 내려 왜적을 추격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공은 병중에 있었으나 어명을 듣고 일어나 말하기를, "나는 죽을 곳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이때 공은 부하 군사를 여러 군문에 거의 다 빼앗기고, 수습한 수백 명을 이끌고 남하하였는데, 왜적의 진영은 영해에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은 장차 호남을 엿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도원수 및 여러 장수는 모두 군대를 후퇴하고 물러나 있었다.

공이 홀로 이르되, "호남은 곧 나라의 근본이고, 진주는 호남의 보장(保障)이다."라고 하며, 조정에 장계를 올려 죽음으로 진주를 지켜 호남을 수호할 것을 청하니, 비변사에서 회계하여 말하기를, "김천일이 진주를 죽음으로 지킨다는 계획은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여 극진히 칭찬하고 장려하였는데 이 회유의 교지는 중도에서 그쳐 전달되지 않았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公入城率幕士。直詣宗廟遺墟。慟哭再拜而退。有旨命公追擊。公方病。聞命卽起曰。吾得死所矣。時部曲爲諸軍門所移奪幾盡。收合數百人。南下。賊陣彌滿嶺海。將有窺湖南之計。都元帥及諸將皆左次。公獨謂湖南。乃國家根本。晉州。爲湖南保障。啓于朝。請以死守晉州。以捍湖南。備邊司回啓曰。金千鎰死守晉州之計。出於憂國之誠。極爲嘉奬。回諭之旨。中道不達。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57)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권2, 계사년 상 5월 24일

심유경(沈惟敬)이 이때 행장(行長)의 병영에 있으면서 가등청정(加籐淸正)이 진주를 공격하려 한다는 일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진주성을 비워서 칼날을 피할 계책을 본국의 원수 김명원(金命元)에게 통지하였다. 송응창(宋應昌) 또한 이 일을 듣고 심유경에게 통지하여 여러 적장에게 분명히 깨우쳐 침범하지 않게 하였고, 유정(劉綎) 또한 가등청정(加籐淸正)에게 글을 보내어 이해(利害)로써 설득시키게 하였으나 적들은 듣지 않았다. 이때 변방의 경보가 날로 급하므로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본도 우병사(右兵使) 최경회(崔慶會), 충청 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및 여러 의병이 함안(咸安)에서 물러나 진주로 와서 목사 서예원(徐禮元)과 더불어 성을 지킬 준비를 하였다.

沈惟敬時在行長營中。聞知淸正欲攻晉州之事。以空城避鋒之策。帖告于本國元帥金命元。宋應昌亦聞此事。移文惟敬。明曉諸酋。使不爲侵掠。劉綎亦移書淸正。陳以禍福。賊不聽。時邊警日急。倡義使金千鎰。本道右兵使崔慶會。忠淸兵使黃進。及諸義兵。自咸安退來晉州。與牧使徐禮元。措備守城之具。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https://db.itkc.or.kr/)

(58)『선조실록(宣祖實錄)』 권38, 26년 5월 2일

상이 분부하였다.

"오늘의 일은 적을 추격하는 한 가지 일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다. 강원 감사(江原監司)는 도내의 방어장(防禦將)들과 무신·수령·관군들을 모두 거느리고 급히 영남으로 달려가 전라도의 군사들과 힘을 합하여 적을 추격하도록 하고, 의병장 김천일(金千鎰) 등은 각자 자기에게 소속된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원수(元帥)의 절제를 받아 진퇴하라. 황해 병사(黃海兵使)는 길이 멀고 연변이 염려스러우니 곧바로 지휘하는 군사를 이끌고 다시 해주 근처에 주둔하여 한편으로는 적침에 대비하고 한편으로는 어가(御駕)를 맞이하도록 하라."

上曰: "今日之事, 無大於追擊一事。江原監司,則盡率道內防禦將,及武臣守令官軍等,急趨嶺南,與全羅兵,合勢追賊,義兵將如金千鎰之輩,各率其軍,追賊南下,聽元帥節制進退。黃海兵使,則道路遠,而沿邊可慮,直率所部兵,回駐于海州近處 一以備禦,一以迎駕。"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59)『선조실록(宣祖實錄)』 권38, 26년 5월 4일

영의정 최흥원(崔興源)이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봉심(奉審)한 뒤에 대신들을 인견하여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였다. ……

최흥원이 나아가 아뢰기를,

"선릉(宣陵)의 광중(壙中)에는 재만 남아 있으므로 재를 종이에 싸서 다른 곳에 봉안(奉安)하였고 왕후의 능에도 재만 있었습니다. 정릉(靖陵)의 안팎 재궁(梓宮)이 모두 불타버렸고 역시 재가 세 곳에 있었는데, 한 곳은 분명히 밥을 해서 먹은 흔적이었고 한 곳은 옷을 태운 흔적 같은 것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광중에 이것 외에 다른 물건은 없었는데, 김천일(金千鎰)이 덕양령(德陽令)을 시켜 봉심하게 하니 옥체가 광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리(事理)로 미루어 보건대, 적들이 발굴할 때에 반드시 안팎 재궁이 불타기 전에 별도로 옥체를 다른 곳에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라야 재궁은 비록 불탔어도 옥체는 보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막중한 일이니, 반드시 조신(朝臣)들과 널리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소서. 구신(舊臣) 중에는 강섬(姜暹)·목첨(陸詹)·심수경(沈守慶)만이 살아있는데 당시에 강섬은 한림(翰林)이었고 목첨과 심수경은 출사(出仕)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늙은 궁인(宮人)이 있으면 물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없이 중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무한한 후회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領議政崔興源。宣·靖陵奉審後。請引見議處。…… 崔興源進曰。宣陵壙中。只有灰燼。裹之以紙。奉安于他處。王后陵。亦有灰燼。靖陵內外梓宮燒盡。亦有灰燼三處。而一處則明是炊飯之形。一處則似有燒衣之痕。壙中更無他物。而金千鎰使德陽令奉審。則玉體在壙中云。以事理推之。當賊掘發之際。必須於內外梓宮未燒之前。別爲奉安玉體於他處。然後梓宮雖焚。玉體可存。莫重之事。

必須與朝臣。廣議處之。舊臣唯有姜暹·睦詹·沈守慶。其時姜暹爲翰林。睦詹·沈守慶未及出身云。或有老宮人。則可以審得。莫重且難。恐有無窮之悔。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60)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계사년 6월

6월에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진주로 들어갔다.

이에 먼저 목숨을 걸고 진주를 지켜 호남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조정에 주청(奏請)하였다.

6월 14일, 회답의 교지를 기다리지 않고, 곧 군사를 이끌고 진주로 들어갔다. 경상병사(慶尙兵使)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107], 복수장(復讐將) 고종후, 사천현감(泗川縣監) 장윤(張潤)[108]과 더불어 죽음으로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김해부사(金海府使) 이종인은 먼저 이미 입성하였고 거제현령(巨濟縣令) 김준민(金俊民)[109], 해미현감(海美縣監) 정명세(鄭名世)[110]며 여러 의병장(義兵將) 이계열(李繼烈)·민여운(閔汝雲)[111]·강희보(姜希輔)[112] 역시 와서 모이니 합한 병사가 수천 명이요, 성안의 사녀(士女)가 6~7만이었다. 진주성 남쪽에는 촉석(矗石)들이

---

107) 황진(黃進): 1550~1593.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명보(明甫), 호는 아술당(峨述堂)이다.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1593년 일본군이 전열을 정비해 진주성을 공략하자 김천일·최경회 등과 함께 성을 굳게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면서 전사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진주 창렬사·남원 민충사(愍忠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무민(武愍)이다.

108) 장윤(張潤):1552~1593. 본관은 목천(木川), 자는 명보(明甫)이다. 1582년(선조 15)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좌의병부장(全羅左義兵副將)이 되어 성산(星山)·개령(開寧) 등지에서 왜적과 싸웠다. 1593년 가등청정(加藤淸正) 등이 진주성을 다시 공격하자 김천일·황진·최경회 등과 함께 항전하다가 대장 황진이 적탄에 전사하자 뒤를 이어 대장이 되어 싸웠다. 8일 밤낮을 버티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으며, 진주성도 함락되었다.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진주 창렬사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109) 김준민(金俊民): ?~1593. 본관은 상주(商山). 자는 성인(成仁)이다. 거제현령으로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합천에서 창의하였고,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전란이 끝난 뒤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봉되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충민사(忠愍祠)에 제향되었다.

110) 정명세(鄭名世): 1550~1592. 본관은 진주, 자는 백시(伯時), 호는 독곡(獨谷)이다. 1579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때 해미 현감(海美縣監)으로 충청도 제독관 조헌의 휘하로 진주성에 들어가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면서 죽임을 당하였다. 뒤에 승지에 증직되고, 전라도 장흥의 충렬사(忠烈祠)에 모셔졌다.

111) 민여운(閔汝雲): ?~1593.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용종(龍從)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태인(泰仁)에서 정윤근(鄭允謹)과 함께 향병(鄕兵) 200여 인을 모집하여 의병장이 되어 스스로 비의장(飛義將)이라 불렀다. 의병을 이끌고 팔량치(八良峙)를 넘어 함안 등지에서 적을 맞아 싸워 전과를 올렸고,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좌승지에 추증되고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112) 강희보(姜希輔): 1560~1593. 본관은 진주이고, 자는 사달(士達)이며, 호는 도탄(陶灘)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생 희열과 의병을 일으켜 고경명 휘하에서 금산전투에 참전하였으나 패하였다. 고향인 광양으로 돌아와 다시 의병을 모아 남원에서 적병과 싸웠고,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적군을 맞아 싸우다가 아우와 함께 전사하였다. 형조좌랑으로 증직되었고, 진주의 창렬사에 제향되었다.

있었는데 아주 험해서 믿을 만하였다. 군사를 나누어 동·서·북쪽을 지키게 하였는데, 진주목사 서예원(徐禮元)[113]은 성을 버리고 도주하려다가 이종인에게 붙잡혀 성안에 머물렀다. 순변사(巡邊使) 이빈(李薲)[114] · 홍의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115]는 단성에서 군대를 옮겨가고, 좌의병장(左義兵將) 임계영(任啟英)[116]은 곧바로 호남으로 돌아가고, 전라병사(全羅兵使) 선거이(宣居怡)[117] · 의병장 홍계남(洪季男)[118]은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며 물러났으나, 홀로 분개한 강희열(姜希悅)과 적개심에 불타는 이잠(李潛)[119]은 군사를 끌고 진주성 안으로 들어와 모였다.

19일에 명나라 장수가 상주목사(尙州牧使) 정기룡(鄭起龍)[120]과 더불어 와서 성지(城池)를

---

113) 서예원(徐禮元): ?~1593. 김해 부사로 있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군과 공방전을 벌이다가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 일로 삭탈관직당했으나 의병장 김면(金沔)과 협력하여 지례의 왜적을 격퇴하였다.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목사 김시민을 도와 왜적과 항전하였다. 1593년(선조 26) 진주 목사가 되었으며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하였다.

114) 이빈(李薲): 1537~1603. 본관은 전주, 자는 문원(聞遠)이다. 1570년(선조 3) 무과에 급제하였고, 왜군에 맞서 싸웠다. 1593년 왜군이 진주와 구례 지방을 침략할 때 남원을 지켰다. 그러나 당시 진주성을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대죄종군(戴罪從軍)하였고, 1594년 경상도순변사에 복직되었다.

115) 곽재우(郭再祐): 1552~1617. 본관은 현풍(玄風), 자는 계수(季綏), 호는 망우당(忘憂堂)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많은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경상좌도 방어사(慶尙左道防禦使)로 임명되어 화왕산성(火旺山城)을 수비하면서 왜군을 맞아 싸웠다. 저술로 『망우당집(忘憂堂集)』이 있다.

116) 임계영(任啟英): 1528~1597.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홍보(弘甫), 호는 삼도(三島)이다. 임진왜란 때 1000여 명의 의병을 규합하여 전라좌도 의병장이 되었다. 1593년 제2차 진주성싸움에서 부장 장윤에게 정예군 300명을 이끌고 먼저 성에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곡식과 무기를 조달하느라 성 밖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진주성이 함락되었다. 이후 양주·정주·해주·순창 등지의 목사를 역임하였다.

117) 선거이(宣居怡): 1550~1598. 본관은 보성(寶城), 자는 사신(思愼), 호는 친친재(親親齋)이다. 1570년 무과(武科)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과 함께 왜적을 격파한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에도 적을 맞아 싸우다가 울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추봉되었으며, 보성 오충사(五忠祠)에 제향되었다.

118) 홍계남(洪季男): 1564~1597.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인 충의위(忠義衛) 홍언수(洪彦秀)를 따라 안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아버지가 전사하자 대신 의병을 지휘, 여러 곳에서 승리하였다. 1596년 의병을 이끌고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119) 이잠(李潛): 1561~1593. 본관은 전주, 자는 원인(原仁)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도체찰사 정철(鄭澈)의 막료로 있었는데, 적개의병장(敵愾義兵將) 변사정(邊士貞)이 이잠의 현명함을 듣고 청하자 부장이 되었다. 이듬해 진주성의 위급함을 듣고서 나아가 성의 함락과 함께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추봉되고 통정대부 병조참의 적개의병장에 추증되었으며, 진주의 창렬사에 제향되었다.

120) 정기룡(鄭起龍): 1562~1622. 초명은 무수(茂壽), 본관은 곤양(昆陽), 자는 경운(景雲), 호는 매헌(梅軒),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곤양 정씨(昆陽鄭氏)의 시조이다. 1586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경(趙儆)·김성일(金誠一) 등의 부름을 받고 금산·거창·상주 등지에서 왜적을 크게 격파하였으며, 정유재란 때는 체찰사 이원익의 부름을 받고 대장으로 임명되어 9읍(邑)의 장관과 함께 금오산성을 지키고 적장을 참수하였다. 그 공으로 경상 우병사가 되었으며, 1598년에는 명나라 군대의 총병(摠兵)을 대행해 경상도 방면에 남아 있던 일본군을 소탕하여 용양위 부호군이 되고 경상우병사가 되었다. 임진왜란 후 경상좌병사·삼도수군통제사 등을 지냈다.

살펴보고 말하기를, “남쪽에 큰 강이 있고, 북쪽에 깊은 연못이 있으니, 하늘이 만든 험한 땅이로다. 유총병(劉摠兵)[121]은 외부 지원군이 될 것이고, 선봉대(先鋒隊)는 이미 함양에 이르렀으니, 나를 먼저 보내어 이를 알게 함이로다.”라고 하였다.

20일, 유격대장 심유경이 서신을 보내어 성을 비우고 적을 피하라 하였는데, 이날 왜적이 진주성에 이르렀다. 이잠이 복수부장(復讐副將) 오유(吳宥)[122] 등과 더불어 성 밖에 나가 샅샅이 찾아보다가 왜적의 수급을 여러 개를 베어서 돌아오니, 성안 사람들이 기뻐 부르짖으며 혹은 칼을 빼 들고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였다. 명장(明將)이 탄식하며 말하되, “온 성안 사람들이 다 의사(義士)이다. 내 마땅히 위급함을 알려 구원하러 오게 하리라.”라고 하고, 정기룡과 더불어 돌아갔다.

일찍이 진주로 들어오기 전에 양산숙·홍함(洪涵)을 보내어 유총병에게 군사를 청하였는데, 양산숙의 사기가 강개하므로 유총병이 옷깃을 여미고 일어나며 예를 갖추긴 했지만, 군사를 보낼 뜻은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홍함이 도주하니, 양산숙은 혼자 말을 타고 성안으로 들어와 이르기를, “위태한 때를 당하여 구차히 모면하고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홀로 사지에 빠지게 하는가.”라고 하였다.

21일 진시(辰時)에 적군의 기마 수십 기가 동북쪽 산 위에 출몰하여 형편을 엿보고 갔다. 사시(巳時)에 또 적군의 기마 수백 기가 진을 펼쳐놓고 병력을 과시했다. 정병(精兵)을 뽑아 공격하여 적군의 목 십여 급을 베었으나, 조금 뒤에 적이 크게 이르러 성을 세 겹으로 포위하였다. 성안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으니, 적이 물러나 문경원(聞慶院) 산 중턱 및 향교 앞으로부터 마현(馬峴)에 이르기까지, 큰 진은 셋이고 작은 진은 별같이 나열하여 바둑판처럼 두었다.

22일에 적이 성 좌우의 산을 점령하고 성을 빙 둘러 책을 세운 것이 언덕과 들판에 널리 가득하였다. 보병은 화포를 들고 기병은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곧장 성문을 두들기며 아침부터 해 질 무렵까지 철환을 비처럼 퍼부었다. 중군장(中軍長) 오영념(吳永念)이 먼저 기어오르는 적을 시위를 당겨 쏘아 쓰러뜨리니 적이 군사를 모아 물러갔으나,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왔다가 2경에 물러가고, 3경에 왔다가 5경에 물러갔다. 성 남쪽에는 촉석과 남강이 있고, 서북쪽에는 해자를 파서 물을 저장하여 두었으므로 가히 믿을 만하되, 오직 동쪽 변두리가 염려되었다. 이에 이르러, 적이 해자를 틔워서 물을 빼고 그곳을 흙으로 메우며 성을 공격하니, 주목

---

121) 유총병(劉摠兵): 유정(劉綎, 1558~1619)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총병으로 조선에 와서 일본군을 방어하고 돌아갔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와서 전세를 확인한 뒤 이듬해 대군을 끌고와서 도와주었다. 예교(曳橋)에서 왜군에게 패전하였으며, 왜군이 철병한 뒤 귀국했다. 1619년(광해 12)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후금(後金)과 싸운 부차(富車) 전투에서 전사했다.

122) 오유(吳宥): 1544~1593. 본관은 흥양(興陽), 자는 관중(寬中)이다. 1584년 별시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종후(高從厚)의 부장(副將)이 되어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州牧) 서예원이 두려워 겁내면서 쓰러졌다. 뭇 사람들의 마음이 놀라 두려워하니, 장윤에게 서예원 대신 일을 맡게 하자, 성안이 다시 안정되었다.

23일에 적이 대나무를 엮어 갑옷을 만들고 판자를 배열하여 방패를 만들고, 적진이 가운데에다가는 포혈(砲穴)을 설치하여 성 위에 지어놓은 집을 곧바로 공격하였다. 이에 우리 군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데, 끓는 물과 뜨거운 불을 쓰거나 화살을 쏘거나 돌팔매질을 하니 적이 문드러지고 눌려 죽은 자가 심히 많았다. 차례를 바꾸어 가며 빠르게 진격하고 밤을 새워 공격을 더 급히 하였는데, 이때 큰비가 내려 성이 한 모퉁이가 무너지니, 적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마구 뛰어들어 왔으나 거제현령 김준민이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죽고 적은 물러갔다.

24일에 적의 우두머리가 성의 동쪽 산 위에 모였다. 포수에게 오혈(五穴)을 열어 일시에 발포하게 하였고, 두 번째 적의 우두머리를 맞춰 땅에 쓰러지니, 적이 그를 메고 갔다. 오시(午時)에 또 적이 크게 이르니, 성으로 몰려오는 적을 공격하여 물리쳐 크게 격파하였다.

25일에는 적이 토산을 동문 밖에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 우리의 성안을 내려다보며 탄환을 비처럼 퍼부으니 성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 군사도 그들과 상대하여 토산을 쌓았는데, 황진은 몸소 흙과 돌을 메고 나르기도 하였다. 군민이 힘을 다하여 잠깐 사이에 토산이 만들어지니 인하여 그 위에 올라가 포를 쏘아 적의 토산과 집을 파괴하고 적군을 많이 죽였다. 이날 낮에는 세 번 적을 쫓고 세 번 적에 쫓겼으며, 밤에는 네 번을 진격하고 네 번을 물러났다. 선생은 본래 습비(濕痺) 병이 있어, 걷지를 못하고 작은 수레를 타고 밤낮으로 성을 돌며 몸소 미죽(糜粥)을 먹여 주니, 사졸들이 감격하여 울기도 하였다.

26일에 적이 여러 군데 군사들을 불러 함께 공격하였으나, 이들 또한 공격하여 물리치니 적중에 죽은 자의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적이 생피(生皮)로 나무 궤짝을 싸서 지고 싣고 와 성첩을 허무니, 성안에서는 큰 돌을 아래로 굴려 내리며 돌 쇠뇌와 활로 협공해서 적이 물러갔다. 적이 다시 2개의 큰 나무를 연결하여 그 위에다 판잣집을 짓고 성안을 내려다보며 불을 던지니, 늘어선 초가집들이 불에 탔다. 성안에서도 역시 판잣집을 짓고 대포를 쏘아 적의 판잣집을 적중하여 격파하니 적이 물러갔다. 이날 3번 싸워 3번 다 물러갔고, 4번 싸워 4번 다 물러갔으나, 연일 큰 비로 활과 화살이 다 풀어지고 병력 또한 다하였다.

27일에 적이 성의 동쪽을 공격하며 성안으로 글을 던져 말하기를, "대명(大明)도 모두 항복을 하였는데, 너희가 감히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만약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응당 도륙(屠戮)하리라."라고 하고, 또 화살에 글을 묶어 던지며 말하기를, "너희 세 명의 대장이 쓰고 있는 전립을 가져다가 성 위에 걸어두면 마땅히 군사를 철수하리라."라고 하였다. 선생이 영을 내려 이에 대답하시길, "적노(賊奴)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우리는 좋은 기회와 꾀가 있고, 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군사가 있으며, 명나라 군사가 바야흐로 곧 이를 것이니, 너희가 빨리 가지 않으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적이 다섯 개의 언덕을 성의 동서쪽 문밖에 쌓고, 대나무를 엮어 책을 만들고 그 책의 틈으로 탄환을 쏘니, 강희보가 그 탄환에 맞아 죽었다. 이에 성안에서는 불붙인 화살을 쏴서 그 책을 불태웠다. 적이 물러가 큰 궤짝을 사륜거 위에다 싣고 몸을 그 궤짝 속에 숨겨 성으로 가까이 와서 쇠 송곳으로 성을 파니, 이종인이 5명의 적을 손으로 쳐 죽이자, 나머지 적들은 도망갔다. 성안에서 또 불덩어리에 기름을 부어 그 궤짝에다 던지니, 궤짝 속에 있는 적들이 타서 죽었다. 초경(初更)에 적이 북문을 침범하니 이종인이 힘껏 싸워 이를 물리쳤으며, 적들이 많이 죽었다.

28일에 서예원이 다시 잘못하여 적이 성안으로 잠입하였다. 힘을 다하여 방어하고 한참 동안 크게 싸워 적의 우두머리가 탄환을 맞고 죽자, 왜적의 무리가 자신의 우두머리를 끌고 도망갔다. 황진이 흔연히 성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며 말하기를. "오늘의 싸움에 적의 주검이 구덩이에 가득하니 가히 대첩이라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이때 갑자기 쌓여 있는 적의 시체들 속에서 마구잡이로 탄환이 발사되어 황진의 왼편 이마를 맞추니, 황진이 사망하였다. 성안에서는 황진에게 의지함이 컸는데, 그가 이미 죽어버리자 모두들 인심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였다. 이날 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렸으며, 적의 독전(督戰)도 끊이지를 않았다.

29일, 진주성이 함락되니, 선생은 일어나 북쪽을 향하여 절하고, 남강으로 달려가 죽었다. 이날, 서예원을 순성장(巡城將)으로 삼았는데 그는 두렵고 겁이 나서 전립(戰笠)을 벗고 눈물을 흘리며 일을 하니, 이에 병사 최경회가 그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화를 내며 곧 그를 베려다 이루지 못했다. 대신 장윤에게 성안을 순회케 하였는데, 탄환에 맞아 죽었다.

미시(未時)에 동문이 양쪽으로 무너지자, 적들이 개미 새끼처럼 성에 붙어 기어오르는 것을 이종인이 친히 병사들을 거느리고 육박전을 벌였다. 죽인 적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적이 물러갔다.

또 적들이 서북쪽 문으로 함성을 지르며 돌진하여 육박해 오자, 서예원이 달아나 군대가 크게 무너졌다. 중군 오영념, 별장(別將) 지득룡(池得龍)이 죽었다. 선생이 장차 적에게 화살을 쏘려고 할 때, 갑자기 한 왜놈이 돌진하여 육박해 오는 것을 군관 장천강(張天綱)이 몽둥이로 그 머리를 내리치고 응수(應手)하여 죽였다. 선생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촉석루에 오르자 여러 장수도 다 모였다.

적들이 전진하여 육박해 옴에 군관(軍官) 조인호(曺仁浩)가 울며 말하기를, "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라고 하니, 선생은 이연(怡然)히 말씀하시길, "내 죽음은 이미 의병을 일으키던 그날에 결정된 것이므로, 지금도 오히려 늦은 것이다. 다만 너희들이 집을 버리고 나를 좇아 고초를 겪은 지 2년 째인데, 끝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슬퍼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이때, 선생의 아들 상건과 양산숙은 선생을 부축하고, 문홍헌은 최경회를 부축하고, 오빈·김인혼(金麟渾)은 고종후를 부축하여, 북쪽을 향해 절을 마친 뒤 남강으로 가서 죽으려 하였다.

그런데 양산숙은 수영을 잘하므로, 선생이 말하길, “너는 이 사태를 모면하였다가, 힘써 저 원수들의 섬멸을 도모하라.”라고 하였으나 양산숙이 말하기를, “의리상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함께 죽었다.

종인·희열·유잠 등 10여 인은 칼을 휘둘러 적을 쳐 죽이며, 죽기를 작정하고 저항하다가 죽었다. 종인은 싸우며 남강에 이르러 좌우 겨드랑이에 각각 한 놈의 적의 우두머리들을 끼고는 크게 부르짖고 물에 뛰어들며 말하기를, “김해부사 이종인은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六月。領兵三百。入晉州。

先是。以死守晉州。捍蔽湖南。狀請于朝。六月十四日。不待回旨。卽引兵入晉州。與慶尙兵使崔慶會·忠淸兵使黃進·復讐將高從厚·泗川縣監張潤。約以死守。金海府使李宗仁。先已入城。巨濟縣令金俊民·海美縣監鄭名世·諸義兵將李繼烈·閔汝雲·姜希輔。亦來會。合兵數千。城中士女六七萬。南有矗石。絕險可恃。而分兵守東西北。州牧徐禮元欲棄城走。爲李宗仁執留。巡邊使李贇·紅衣將軍郭再祐。自丹城移軍去。左義兵將任啓英。直還湖南。全羅兵使宣居怡·義兵將洪季男。以寡不敵衆退。獨奮義兵將姜希悅·敵愾義兵將李潛。領兵來會。十九日。天將與尙州牧使鄭起龍來審城池曰。南有大江。北有深池。天作之險。劉摠兵爲外援。前鋒已到咸陽。遣我先諭云。二十日。沈游擊帖移。令空城避賊。是日賊犯境。李潛與復讐副將吳宥等。出城詗探。斬數級而還。城中懽呼。或拔劍起舞。天將歎曰。一城之人。皆義士也。吾當告急赴援。與鄭起龍回去。嘗未入晉州。遣梁山璹，洪涵。乞師於劉摠兵。山璹辭氣慷慨。摠兵斂衽起敬。而無出師意。洪涵道走。山璹單騎入城曰。臨危苟免。使主將獨陷死地乎。二十一日辰時。賊數十騎出沒東北山上。窺覘而去。巳時。又數百騎列陣耀兵。選精兵擊斬十餘級。俄而賊大至。圍城三帀。城中按不動。賊退陣。自聞慶院山腰及鄕校前至馬峴。大陣凡三。小陣星羅棋置。二十二日。賊據左右山。環城樹柵。彌原滿野。步者持火砲。騎者舞劍槊。直頓城門。自朝至晡。鐵丸如雨。中軍吳永念射先登賊。應弦而倒。賊斂兵退。初昏又進。二更退。三更進。五更退。城南有矗石南江。西北鑿濠儲水。可恃爲固。而惟東邊爲慮。至是。賊決壕塡土以攻城。徐禮元畏怯顚倒。衆心駭懼。以張潤權攝。城中乃安。二十三日。賊編竹爲甲。排板爲盾。中設砲穴。直攻隔臺。我軍殊死戰。湯火矢石。賊爛壓死甚衆。分番迭進。夜攻益急。時大雨。城一隅圮。大喊闌入。巨濟縣令金俊民力戰死。賊退。二十四日。賊酋會城東山上。令砲手開五穴。一時發砲。中第二仆地。賊擔去。午時。賊大至迫城。擊却大破。二十五日。賊築土山東門外起屋。俯城中放丸如雨。城中多死。我軍對築土山。黃進親負土石。軍民竭力。須臾就。因登發砲。衝破敗土山屋。賊多死。是日。三進三退。夜四進四退。先生素患濕痺。不能步。乘小輿。日夜巡城。親持糜粥以饋之。士卒感泣。二十六日。賊招諸處兵合攻。又擊却之。賊死無算。賊以生皮裹木櫃。負載來毁城堞。城中以大石滾下。夾以砲矢。賊退。又聯二大木設板屋。以瞰城中投火。草屋延燔。城中亦設板屋。用大砲中賊屋破之。賊退。是日。三戰三退。夜四戰四退。大雨連日。弓矢皆解。兵力

亦竭矣。二十七日。賊攻城東。以書投城中曰。大明且降。爾敢拒我。若不速降。明當屠之。又約矢投書曰。爾三大將。取戴笠掛城上。當撤兵。先生令答曰。賊奴勿爲無益言。我有好機謀。且有敢死卒。天兵方至。汝不速去。好是自送死。賊築五阜於城東西門外。結竹爲柵。從隙中放丸。姜希輔中丸死。城中以火箭燒其柵。賊退。又以大櫃置四輪車上。藏身櫃中迫城。以鐵錐鑿城。李宗仁手殪五賊。餘遁去。城中束火灌油。投之櫃。櫃中賊燒死。初更。賊犯北門。李宗仁力戰退之。賊多死。二十八日。徐禮元不謹踐更。致賊潛入城中。悉力捍禦。大戰良久。賊酋丸死。羣倭曳而走。黃進欣然俯城曰。今日之戰。賊死盈塹。可謂大捷。忽亂丸發積屍中。中左額死。黃公城中倚以爲重。既死。皆洶懼。是夜雨不止。賊督戰不息。

二十九日。城陷。起北向拜。赴南江而死。

是日。以徐禮元爲巡城將。恐怯脫笠。垂淚而行。兵使崔慶會怒其駭衆。將斬之不果。張潤代巡城。中丸死。未時。東門兩圮。賊蟻附登城。李宗仁率親兵搏戰。殺賊無算。賊退。又從西北門喊聲突迫。禮元走。軍大潰。中軍吳永念,別將池得龍死之。先生方射賊。忽一倭突迫。軍官張天綱以杖擊其頭。應手粉碎。先生執弓矢登矗石樓。諸將咸集。賊進迫。軍官曺仁浩泣曰。主將何以爲之。先生怡然曰。我死已決於起事之日。今亦晚矣。但汝等棄家從我。辛苦二年。竟至於此。爲可哀。於是。子象乾·梁山璹。扶先生。文弘獻。扶崔慶會。吳玭·金麟渾。扶高從厚。北向拜。赴南江而死。山璹善泅。先生曰。汝可以免。努力更圖。滅此仇賊。山璹曰。義不獨生。遂與同死。宗仁希悅宥潛等十餘人。奮劍斫賊。抵死乃已。宗仁戰鬪至南江。左右腋。各挾一賊酋。大呼赴水曰。金海府使李宗仁死於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61)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

6월 14일, 공이 진주성으로 들어가 지켰는데, 이때 진주에는 지키는 관원 두 사람만이 있었다. 이미 왜적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식을 염탐하고서 주거지를 옮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성지(城池)와 기계(機械)도 심히 소략해져 있어, 믿을 것은 오직 강과 한 면이 닿아있는 촉석뿐이었다. 공은 경상병사 최경회·충청병사 황진·복수장 고종후·의병장 장윤 등과 더불어 맹서(盟誓)를 하고 성을 나누어 지키며 말하기를, "이 성 한쪽은 적의 침입을 받더라도 무너져 도망할 길이 없으니, 진정한 배수진(背水陣)이다."라고 하였다.

6월 19일, 전라병사 선거이·의병장 홍계남 등이 군대를 이끌고 지나갈 때, 공이 그들을 맞이하여 함께 성을 지키자고 하니, 이들이 모두 말하기를,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물러나서 피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하며, 성을 나가버렸다.

6월 21일, 적의 유돌부대가 이미 성 동쪽에 이르자, 날랜 기병을 뽑아 추격하여 적의 머리 10여 급을 베었다.

6월 22일 낮, 적의 무리가 크게 이르러 먼저 좌우의 산을 점령하고, 성을 에워싸 진을 쳤다. 책(柵)을 세우고 돌을 쌓아 놓은 것이 들판에 가득하며, 보병은 총을 들고 기병은 칼과 창으로 춤을 추면서 성문을 곧바로 돌격해오니, 중군 오영념 등은 먼저 성으로 기어오르는 적을 쏴서 맞추니, 활시위 소리에 따라 죄다 거꾸러졌다.

공은 모든 진에 명령을 내려 적이 오기 전에 성 밖에 있는 인가를 철수하여 성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에 미쳐서는 성 위에 밝은 불을 켜두었는데, 두 첩(堞)마다 횃불 하나씩을 두어 날이 어두워졌을 때부터 새벽이 올 때까지 밝혀 놓고 적이 올 때마다 번번이 쏘니 적이 감히 오르지를 못하였다.

6월 23일, 여명(黎明)에는 적이 대나무를 엮어 갑옷을 만들고 판자를 배열하여 방패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가는 포혈(砲穴)을 설치하여 성 위에 지어놓은 집을 곧바로 공격하니, 우리 사수가 나갈 때마다 번번이 총을 쏘았다. 우리 군사들은 죽을힘을 다해 싸우며, 끓는 물과 뜨거운 불, 화살과 돌 같은 것들을 일시에 함께 성 아래로 쏟아부으니, 적 중에 데여 죽고 눌려 죽은 자를 셀 수 없었다, 그러나 적은 번(番)을 한번 쉬었다가 다시 공격하였고, 밤이 되자 더욱 급박하게 공격했다.

6월 24일, 해가 막 떠오를 때, 적의 우두머리 4인이 성 동쪽 산 위에 모여 마치 어떤 일을 꾸미는 것 같았다. 공이 여러 포수를 불러모아, 다섯 총구멍을 열고 일시에 승자통(勝字筒) 총을 쏘아 둘째 번에 앉은 자를 맞추어 땅에 넘어뜨리니, 적이 그를 작은 수레에 싣고 갔다. 한낮이 되었을 때 대병(大兵)이 성에 가까이 왔는데, 우리 군사들이 이를 또 공격하여 물리쳤다.

6월 25일, 적이 동문 곡성 밖에다 토산을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어 우리 성안을 굽어보며 철환을 비처럼 퍼부었다. 성안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니, 공이 여러 군사에게 상대편과 같이 토산을 쌓게 하였는데, 황진도 몸소 흙과 돌을 등에 지고 가고 사졸들도 힘을 다하지 않은 이가 없어, 잠깐 사이에 적의 토산과 가지런하게 되었다. 이에, 이 토산 위에서 현자통(玄字筒) 총을 쏘아 적이 쌓은 토산 위 집을 맞추어 그 집이 부서지고 적이 많이 죽었다.

공은 '외부에서 지원군이 오지 않는다.' 하여 한역 심연환(漢譯 沈連環)을 보내 사병들과 함께 명나라 장수에게 긴급함을 알리게 했다. 또, 도원수의 여러 진영에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군사 중 한 사람도 오는 이가 없었다.

공은 본래 습비병으로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작은 수레를 타고 성을 돌며 밤낮을 쉬지 않고 몸소 죽을 가지고 다니며 나누어 먹이니, 사졸들이 모두 감격하여 죽도록 싸우지 않은 이가 없었다.

6월 26~27일, 적이 군사를 더하여 성 동남쪽을 급히 공격하였다. 성안으로 글을 던지며 말하기를, "천하의 명나라도 항복을 했는데, 너희가 감히 우리와 겨루려 하는가. 만일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마땅히 도륙을 하리라."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아이들을 시켜 성문 밖에

와 부르짖게 하며 말하기를, “조선사람아. 조선사람아. 왜서를 받아가거라. 너희가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왜는 끝내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하고는, 또 글을 화살에다 묶어 성안으로 쏘며 말하기를 “성안에는 세 대장이 있다고 들었다. 그들이 쓰던 갓을 가지고 나와 성 위에 걸면 우리는 마땅히 물러가리라.”라고 하였다.

이에, 공이 좌우에 시켜 대답하기를. “적노(賊奴)야. 적노야.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내지 마라. 우리에겐 좋은 기모(機謀)가 있고 또한 결사대도 있으며 명나라 장수가 다시 관군과 의병을 몰고 며칠 사이에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 너희가 속히 물러가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기 좋은 날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왜적 중 가장 우두머리인 풍신수길이 왜인 중에 경성을 나가 영남에 당도한 자들에게 분노하여 왜 나라의 수도에서 친히 그 나라의 비전주(肥前州, 지금의 나가사키)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육오주(陸奧州)의 대장(大將) 정종(政宗)이란 자를 보내서 여러 왜장(倭將)을 감독하게 했는데 명도(名都)와 대성(大城)을 함락시키는 것으로서 그 부끄러움을 씻어낼 수 있었다. 때문에 적병 중에 죽은 자가 절반이 넘었으나, 오히려 물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공이 아병(牙兵)을 크게 갖추어 조정에 구원을 청하였으나, 길이 막혀서 도리어 성안으로 들어오고 성도 오래되어 장맛비로 무너진 것을 새로 쌓았다. 포위를 당한 후로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없었다.

6월 28일, 비가 내리기를 마치 장맛비처럼 내렸다. 객사의 흙은 녹아내려 무너지기 쉬웠으나 성안에서는 그때마다 무너지는 걸 방지했다. 황진이 혼연히 성을 굽어보며 말하기를, “오늘의 싸움에서는 죽은 적들이 천여 명이 넘는구나.”라고 하는 순간, 한 왜적이 쌓인 시체 속에 섞여 있다가 쏜 총이 황공의 얼굴에 맞아 쓰러지고, 얼마 뒤에 의병장 장윤도 성을 순행하다가 또 탄환에 맞아 죽었다. 두 공은 신장이 8척이고 힘을 쓰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성안에서 의지하며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에 이르러 서로 연달아 사망하니, 군사들의 기운도 많이 빠졌다. 이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적의 야전(夜戰)도 쉬지를 않았다.

6월 29일, 날이 밝아 올 때쯤, 사면의 적이 성 동남쪽으로 함께 모였다. 적의 괴수는 금빛 둥근 부채를 세우고는, 여러 왜적을 지휘하여 일제히 진격했는데, 휘파람을 불거나 북을 치니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크나큰 판자를 머리에 이고 대나무로 만든 방패를 들고는 앞에 놈이 넘어져도 뒤에 놈이 계속해서 오니, 물고기나 개미처럼 기어오르며 한 걸음도 물러나지를 않았다.

성안에서는 수석(水石)·화약(火藥)·환시(丸矢)가 모두 다 고갈되어, 한갓 죽목으로만 대항하고 무찔렀으나, 활을 쏘는 누대가 매우 좁고, 계단과 사다리도 드문드문 있었다. 성첩을 지키던 군사들이 죽어 미처 번갈아 교대하지도 못했는데, 곡성(曲城)이 이미 무너지고 격대(隔臺)도 이미 넘어지자, 적병은 이 승리의 형세를 틈타 성을 기어오르니, 우리 군사들이 크게 혼

란하여 질서를 잃게 되었다.

중군장 오영념 · 별장 지득룡은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죽었다. 공은 객관에 있었는데, 문득 한 왜적이 돌연히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을 군관 장천강이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쳐 손으로 부쉈다.

이에 공이 활과 검을 가지고 촉석루에 올라 적을 쏘는데 좌우가 모두 급히 나누어 흩어졌다. 그러나 오직 공의 아들 상건과 종사관 양산숙, 기실(記室) 이영노, 군관 조인호·장천강·이성철(李成哲)·최덕남(崔德男), 아병(牙兵) 정계인(鄭繼仁)·김득붕(金得鵬) 등이 공을 지키고 도망가지를 않았다.

조인호가 말하기를, "주장(主將)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라고 하니, 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죽음은 의병을 일으키던 날에 결정된 것이니, 지금은 오히려 늦은 것이다. 다만 너희들은 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 2년 동안 고초를 겪었는데,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불쌍히 여길 만한 일이다."라고 하며, 곧 일어나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한 다음, 차고 있던 활과 검을 풀어 먼저 물에 던지고, 큰아들 상건을 안고 스스로 깊은 물로 뛰어드니, 공을 따르던 자들 중에 어떤 이는 물에 빠지고, 어떤 이는 흩어졌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六月十四日。公入守晉州。州有守倅二員。而詗賊必至。已有移家之計。城池機械甚疏略。所恃者惟矗石一面臨江而已。公與慶尙兵使崔慶會·忠淸兵使黃進·復讐將高從厚·義兵將張潤等。同盟分守曰。此城一面受敵。又無逃潰之路。眞背水陣也。

十九日。全羅兵使宣居怡·義兵將洪季男等。領兵來過。公邀與同守。皆曰。賊衆我寡。不如退避出城去。

二十一日。賊之遊突。已至城東。選精騎出擊。斬首十餘級。

二十二日午。賊衆大至。先據左右山。環城結陣。樹柵累石。彌滿原濕。步卒持火砲。騎兵舞劍槊。直突城門。中軍吳永念等。射賊先登者。無不應弦而倒。公令諸陣。先賊未來。撤城外人家入城。及是明火城上。二堞一炬。自昏達曙。賊來輒射。賊不敢近。

二十三日黎明。賊編竹爲甲。排板爲楯。中設炮穴。直攻隔臺。射手出輒放炮。我軍殊死戰。湯火矢石。一時俱下。賊爛壓死者。不可勝計。而番休更進。夜攻益急。

二十四日平明。賊酋四人。會于城東山上。有若計事者。公召聚諸炮手。開五穴。一時發勝字筒。中第二座者仆地。賊以小輿擔去。日午。大擧薄城。我軍又擊却之。

二十五日。賊於東門曲城外。築土山起屋。俯瞰城中。鐵丸雨下。城中多死傷。公令諸軍對築土山。黃公進親負土石。士卒莫不盡力。須臾與賊土山齊。放玄字筒。中賊山屋。屋破賊多死。公以外援不至。遣漢譯沈連環。偕土兵告急於天將。又請救於都元帥諸陣。卒無一人至者。公素病濕。不能行步。乘小輿巡城。日夜不輟。親持粥糜分饋。士卒莫不感激致死。

二十六日七日。賊添生兵。急攻城東南。以書投城中曰。大明且降。爾敢拒我乎。若不速降。明日當屠滅。又使我國童子。至門外呼曰。朝鮮人朝鮮人。受倭書去。爾不速降。倭終不去。賊又以書約矢射城中曰。聞城中有三大將。取其戴笠。出掛城上。則吾當退去。公令左右答曰。賊奴賊奴。勿爲無益之戰。勿出無益之言。吾有好機謀。又有殊死軍。天將又驅官義兵。不日來援。汝不速去。好是送死。是時。倭大酋秀吉。怒諸倭之出京城下嶺徼。自倭京親至其國之肥前州。遣其陸奥州之大將政宗者。督諸倭將。期陷名都大城。以刷其恥。故賊兵死者過半。而猶不退。公遣牙兵成大。乞援于朝。路梗還入城。城舊爲霖雨所壞而新築。自被圍無日不雨。

二十八日。雨下如霆。客土融液善崩。城中隨機捍禦。黃公進欣然俯城曰。今日之戰。賊死幾千餘。一賊在積屍中放炮。中黃公面卽仆。義兵將張潤行城。又中丸死。二公身長八尺。勇力絕倫。城中倚以爲重。至是相繼死。士卒奪氣。是夜雨不止。賊夜戰不息。

二十九日平明。四面諸賊。俱聚城東南。賊魁植金色團扇。指麾衆倭。齊進吹唇擊鼓。喊聲動天地。戴棺板冒竹楯。前者仆。後者繼。鱗次蟻附。無或退一步。城中水石火藥丸矢俱竭。徒以竹木衝刺。射臺狹窄。階梯稀疏。守堞者死。未卽踐更。而曲城已頹。隔臺已倒。賊兵乘勝登城。我軍大亂失次。中軍將吳永念·別將池得龍。俱守信地死。公方在客館。忽一賊踰墻突入。軍官張天綱。以杖擊其頭臚。應手粉碎。公執弓劍。登矗石樓以射賊。左右皆蒼黃分散。惟公子象乾·從事官梁山璹·記室李榮老·軍官曺仁浩·張天綱·李成哲·崔德男·牙兵鄭繼仁·金得鵬等。守公不去。仁浩泣曰。主將何以爲之。公答曰。我死決於起事之日。今亦晩矣。但汝等棄家從我。辛苦二年而至此。可憐。仍起北面再拜訖。解所佩弓劍。先投於水。抱象乾自投深潭。從者或溺或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62)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권1, 계사년 6월

여름 6월 16일

전라도 순찰사(全羅道巡察使) 권율(權慄)이 의령(宜寧)에서 군으로 돌아왔다. 처음 권율은 순찰사(巡察使) 이빈(李薲), 절제사(節制使) 최경회(崔慶會), 전라 병사(全羅兵使) 최원(崔遠), 충청 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삼도 방어사(三道防禦使) 고언백(高彦伯), 의병장(義兵將) 성주 목사(星州牧使) 곽재우(郭再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의병장(義兵將) 홍계남(洪戒男), 거제현령(巨濟縣令) 김준민(金俊民) 등과 함께 함안(咸安)에서 진을 치고 창원(昌原)·김해(金海)의 왜적을 기다렸다. (중략)

6월 19일 임인(壬寅)

왜적들이 함안(咸安)과 진주(晉州)의 경계 지점에서 노략질을 일삼았다. 우도 절도사(右道節度使) 최경회(崔慶會)가 충청 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과 함께 진주성(晉州城)을 수호했다. 의병장(義兵將) 곽재우(郭再祐)는 홍계남(洪戒男)·고언백(高彦

伯)과 함께 정진(鼎津)을 지키며 흉적(兇賊)들의 칼끝을 막았다. 우도(右道) 사람들은 그를 마치 장성(長城)처럼 의지했다. 그렇지만 군사는 저들이 많고 우리는 적어서 지탱할 수 없는 형세였다. (중략)

6월 29일 임자(壬子)

왜적들이 진주성(晉州城)을 함락했다. 우도절도사(右道節度使) 최경회(崔慶會)·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충청 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거제 현령(巨濟縣令) 김준민(金俊民) 등이 모두 전사(戰死)했다. 처음 왜적들이 성을 포위하자 공격하며 축대를 쌓느라고 병사들은 조금도 쉬지 않았다. 성안의 사람들이 위기가 조석(朝夕)에 박두하여 날마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바랐지만, 끝내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반드시 죽을 줄을 스스로 알고서 모두가 위태롭고 두렵다는 생각을 품었지만, 진주 목사(晉州牧使) 서예원(徐禮元)은 군졸들을 구휼하지 않고서 식량 지급을 줄이고, 활과 화살의 지급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주(晉州)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용감한 군사들도 흩어졌다. 성을 지키는 모양이 김시민(金時敏)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참화를 걱정했다.

이때 이르러 성의 서문(西門)이 저절로 붕괴되었는데, 바깥으로 방책을 설치하고 안으로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보강했다. 그런데 일이 거의 끝나 갈 즈음에 충청 병사 황진이 총탄에 맞아 사망하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두려움에 떨었다. 모여서 울고 있을 때 적의 무리 몇 명이 담장에 올라와 크게 소리를 지르니, 우리 군사들이 겁을 먹고 군열의 대오(隊伍)가 질서를 잃어 적을 제압할 수 없었다. 넘어지고 다리를 떨고 있으니, 왜적들은 칼을 뽑아 들고 마치 잡초를 베고 짐승을 사냥하듯이 목을 베니, 사람의 씨도 남김이 없었다. 죽어서 쌓인 시체는 구릉과 같았고, 강물은 온통 붉게 물들었다. 우도(右道)의 사람들이 진양(晉陽)에 의지함이 보장(保障)과 같았지만, 그 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듣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피난 짐을 지고 일어났으니, 통곡할 만한 일이다. 우리 군(郡)의 사수(射手)도 진주성(晉州城)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전사했으며, 단지 이인년(李仁年)·선응남(宣應男) 등 몇 사람만 살아서 돌아왔을 뿐이다. 아! 진주성의 입지가 산세를 따라 성벽을 쌓고 강이 해자가 되어, 하늘이 만든 요새가 이보다 좋은 곳은 없었는데, 마침내 도륙을 당했으니, 도원수(都元帥)와 순찰사(巡察使) 등이 초(楚)나라나 월(越)나라처럼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실로 국운(國運)이 꽉 막힌 까닭이니, 통분을 금하지 못할 일이다.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이 경주(慶州)에서 군(郡)에 당도했다. 조정(朝廷)이 체임(遞任)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호남을 거쳐서 오는 새로 부임한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을 만나고자 온 것이다. ○진주성(晉州城)을 지키던 날 황진과 김준민의 공이 으뜸이며, 적이 성을 넘어 들어온 지점은 김천일이 지키고 있던 곳이다.

全羅巡察使權慄[123]。自宜寧遁歸于郡。初慄與巡邊使李贇·節制使崔慶會·全羅兵使崔遠·忠淸兵使黃進·三道防禦使高彦伯·義兵將星州牧使郭再祐·倡義使金千鎰·義兵將洪戒男·巨濟縣令金俊民等。結陣于咸安。以覘昌原·金海之賊。(中略)

十九日壬寅。賊擄掠于咸安·晉州境界。右道節度使慶會與忠淸兵使黃進·倡義使金千鎰。守晉州城。義兵將郭再祐與洪戒男·高彦伯。守鼎津。沮遏凶鋒。右道之人。倚之如長城矣。然彼衆我寡。勢不能支矣。(中略)

二十九日壬子。賊陷晉州。右道節度使崔慶會·倡義使金千鎰·忠淸兵使黃進·巨濟縣令金俊民等。皆死之。初賊圍城攻築。兵不少休。城中之人。危迫朝夕。日望外援。而絕無形影。自分必死。皆危惧。而晉牧徐禮元。不恤軍卒。減給粮料。不許弓矢。晉民離心。勇士解體。守城貌樣。半不及金時敏。人恐其不測之禍矣。至是。城西門自壞。外設干櫓。內補缺處。事幾垂畢。忠淸兵使黃進。中丸死之。衆皆驚惧。聚哭之際。賊徒數人。登埤大呼。我軍惶拗。行伍失次。莫能制敵。顚沛戰股。賊拔釰斬之。草薙禽獮。人無噍類。積尸如丘。江水盡赤。右道之人。倚晉陽如保障。而聞其城不守。愚夫愚婦。亦皆憫泣。荷擔而立。可爲痛哭處。郡中射士入城者。皆死焉。只李仁年·宣應男等數人。還來矣。噫。晉之爲城。因山築堘。帶江爲壕。天作之險。無右於此。而竟被屠戮。非但都元帥·巡察使等。視若楚越。實由於國運之否。極可勝痛哉。○都元帥金命元。自慶州到郡。聞朝廷遥任。故欲見新元帥權慄。路由湖南矣。○當守城之日。黃進·金俊民功爲第一。賊之逾城。自金千鎰所守處。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고대일록(https://db.itkc.or.kr/)

(63)『국조보감(國朝寶鑑)』권31, 선조조 8, 선조 26년(계사) 6월

6월. 왜적이 진주를 함락하였다.

창의사 김천일이 그 아들 상건(象乾) 및 경상 병사 최경회, 복수장(復讎將) 고종후, 좌랑 양산숙 등과 함께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https://db.itkc.or.kr/)

六月。

倭賊陷晉州。倡義使金千鎰。與其子象乾及慶尙兵使崔慶會。復讎將高從厚。佐郎梁山璹等。北向再拜。投江以死。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 원문이미지(https://db.itkc.or.kr/)

(64) 조경남(趙慶男),『난중잡록(亂中雜錄)』권2, 계사년 상 6월

(6월 15일) 김천일이 서예원을 불러 창고의 곡식을 계산하니 거의 수십만 석이 되었다. 모든

123) 標→慄. 원문 '標'는 마땅히 '慄'이 되어야 한다. 이하 오자(誤字)도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장수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성은 높고 물은 험하며, 양식은 풍족하고 기계도 넉넉하니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날 힘을 바칠 시기이다.” 하고, 그날로 군대를 나누는데 김천일·최경회는 도절제(都節制)가 되고 황진은 순성장(巡城將)이 되며, 각 도의 관군과 의병은 성을 계획하고 부대를 나누어 엄히 경계하며 변고를 기다렸다. (중략)

(6월 19일) 적병이 의령으로부터 바로 진주로 향하는데 드넓어 끝이 없는 듯 산에 가득하고 들에 가득하니, 총소리는 땅을 진동하고 고함 소리는 하늘까지 이어졌다. 척후병을 나누어 보내 혹은 단성(丹城)·삼가(三嘉)로 보내고 혹은 곤양(昆陽)·사천(泗川)으로 지정하여 밖의 응원병을 쫓아냈다. 전라병사 선거이(全羅兵使 宣居怡)가 경기도 조방장(助防將) 홍계남(洪季男)과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진주성에 이르러 말하기를, “적병과 우리 군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 물러나 지키는 것이 낫다.” 하였다. 김천일이 크게 노하여 꾸짖으니 선거이 등은 군사를 끌고 다시 나와서 이빈 등과 더불어 퇴각하여 함양(咸陽)으로 향했다. (중략)

(6월 21일) 적의 선봉에 있던 기병(騎兵) 수백 명이 바로 마현(馬峴)의 봉우리 위에 이르러 위엄을 날리며 달리더니, 이튿날에 많은 적이 마구 몰아 나오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어서 기세가 바람과 불길 같았다. 일시에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기를 심히 급하게 하니, 성안에서 응하여 싸우며 적을 물리치기를 날마다 이렇게 하였다.【아래에 보인다.】포위를 당한 지 여러 날에 적의 세력이 더욱 치성하니, 개미 새끼도 통할 수 없어 소식이 꽉 막히고 장수와 군사는 피곤하여 밥 먹거나 쉴 겨를이 없었다. 매일 밤 경(更)마다 적들이 호각을 불어 서로 응하고 높은 소리로 크게 외치며 일시에 총을 쏘아 성안에 어지러이 떨어지니 그 소리가 우레 같아 천지를 진동하다가 한참 만에 그쳤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우리 군사 중에 죽은 자가 서로를 베개 베듯 누워 있었다. 하루는 경회와 천일이 누각에 올라 바라보고 말하기를, “구원병이 많이 온다.” 하니, 모든 장수가 크게 기뻐하여 큰 종을 울리며 앞다투어 바라봤는데, 멀고 가까운 1백 리에 떼로 막으며 오는 것이 모두 적들의 칼날이었다. 천일이 말하기를, “하늘이 만일 정의(正義)를 도와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여 대궐에 가서 뵙게 한다면 하란(賀蘭)의 고기를 구워서 함께 먹으리다.”라고 하였다. (중략)

(6월 29일) 적병이 진주를 함락시켰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경상 우병사 최경회(慶尙右兵使 崔慶會), 충청 병사 황진(忠淸兵使 黃進)【이상 3인은 삼충(三忠)이라 하는데, 그 뒤 8년 만에 진주에 삼충사(三忠祠)를 세워 제사 지냈다.】전라 복수 대장(全羅復讎大將) 고종후(高從厚), 우의병 부장(右義兵副將) 고득뢰(高得賚), 좌의병 부장(左義兵副將) 장윤, 적개 의병 부장(敵愾義兵副將) 이잠(李潛), 영광 의장(靈光義將) 심우신(沈友信), 태인 의장(泰仁義將) 민여운(閔汝雲), 해남 의장(海南義將) 임희진(任希進), 도탄 복병장(陶灘伏兵將) 강희보(姜希甫), □□의장 이계련(李繼璉),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 사천 현감(泗川縣監) 김준민(金俊民), 남포현령(藍浦縣令) 송제(宋悌), 진주 목사(晉州牧使) 서예원(徐禮元) 등이 다

죽었다.【충청수령(忠淸守令)을 따라온 병사 중에 죽은 이가 심히 많으니, 이름을 다 적을 수 없다.】적이 매일 죽여도 다 죽이지 못하자 속이며 말하기를, “사창대고(司倉大庫)에 피란하여 들어가는 자는 죽음을 면한다고 하더라.” 하였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협박을 당하여 앞다투어 창고에 들어갔더니 적이 한 번에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 남원 사람으로 여러 의병을 따라 진주성에 들어갔던 자가 3백여 명인데 남강(南江)으로부터 헤엄쳐 나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정기수(鄭麒壽) 등 몇 사람뿐이었다. 적들이 성과 참호를 다 헐어버렸다.【군사의 죽은 수효는 아래에 상세히 보인다.】적들이 바야흐로 성에 들어올 때, 최경회·김천일은 달려가 촉석루(矗石樓) 위를 지키자, 장수와 군사들이 다 모였다. 적병이 서로 죽이며 진격하는데 이잠·김준민 등은 화살이 이미 소진되어 곧바로 죽창을 가지고 육박전으로 싸웠다. 적병이 잠시 가까이 오지 못했으나 마침내 힘이 다되어 죽었다. 천일 등은 서로 안고 강에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중략)

(계사년 6월 □일) 적의 추장(酋長) 청정(淸正)이 여러 추(酋)의 군사를 합하여 30만 명이라고 소리쳤는데, 혹은 7, 8만이라고도 했다. 바다와 육지로 함께 전진하여 장차 진주를 범하려 하였다. (중략) 이때, 변방의 경보가 매우 급해서 창의사 김천일이 군사 3백 명을 거느리고 24일 진주로 달려 들어갔다. (중략) 본주 목사 서예원(徐禮元) 및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 등은 장차 성을 지킬 것을 논의하였다. 19일에 전라 병사 선거이(宣居怡) 및 홍계남(洪季男)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 말하기를,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물러나 내면(內面)을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하니, 김천일이 소리를 높여 반대했다. (중략) 천일의 좌우 사람들이 천일을 붙들어 일으켜서 퇴각하여 피하도록 권하니 천일이 굳게 앉아서 일어나지 않으며 돌아보고 이르기를, “나는 마땅히 여기에서 죽겠노라.” 하고, 마침내 그 아들 상건(象乾)과 서로 안고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적이 본성을 무찔렀다.[124]

金千鎰招徐禮元。計算倉穀。幾至數十萬斛。諸將大喜曰。城高池險。粮周械足。此正今日效力之地也。卽日分隊。金千鎰崔慶會爲都節制。黃進爲巡城將。諸道官義兵。晝城分伍。戒嚴待變。(中略)

十九日。賊兵自宜寧直向晉州。浩浩蕩蕩。漫山塞野。丸聲動地。喊殺連天。分送斥候。或向丹城·三嘉。或指昆陽·泗川。以逐外援。全羅兵使宣居怡。與京畿助防將洪季男。領軍到晉城。言曰。衆寡相懸。不如退保。金千鎰大怒讓之。居怡等引軍還出。與李贇等退向咸陽。(中略)

二十一日。先鋒之賊數百騎。直到馬峴峰上。耀兵馳突。翌日大賊長驅而進。數不可量。勢如風火。一時圍城。侵攻甚急。城中應戰殺退。日日如是。【見下】受圍累日。賊勢益熾。蟻子不通。消息永隔。將士疲困。食息無暇。夜夜更更。賊衆吹角相應。高聲大呼。一時放丸亂落城中。有似轟雷雨雹。聲震天地。移時而止。及朝視之。我軍死者相枕。一日慶會千鎰登樓瞻望曰。援兵大至矣。諸將大

---

124) 번역문 누락됨.

喜。卽鳴大鍾。爭望遠近。百里簇擁者。皆妖鋒矣。千鎰曰。天若助順。使吾等濟事朝天。則賀蘭之肉。可膾灸共食矣。(中略)

二十九日。賊兵陷晉州。倡義使金千鎰。慶尙右兵使崔慶會。忠淸兵使黃進。【以上三人爲三忠其後八年建三忠祠于晉陽祀之。】全羅復讎大將高從厚。右義兵副將得賚。左義兵副將張潤。敵愾義兵副將李潛。靈光義將沈友信。泰仁義將閔汝雲。海南義將任希進。陶灘伏兵將姜希甫。□□義將李繼璉。金海府使李宗仁。泗川縣監金俊民。藍浦縣令宋悌。知州徐禮元等。皆死之。【忠淸守令從兵使死者甚多而名不記】賊連日屠戮不能盡。詐曰。避入司倉大庫者免死云云。愚民被迫。競入庫舍。賊一炬燒之。南原人從諸義兵。入晉城者。三百餘名。自南江泳出生還者。鄭麒壽等數人而已。賊盡毁城濠。【軍死之數詳見下文】方賊入城。崔慶會金千鎰走保矗石樓上。將士咸集。賊兵厮殺以進。李潛金俊民等弓矢已盡。直以竹槍相對搏戰。賊兵暫不能近。竟力詘而死。千鎰等相抱投江溺死云。(中略)

癸巳六月□日。賊酋淸正。合諸酋兵。聲言三十萬。或云七八萬。水陸俱進。將犯晉州。(中略) 時邊報甚急。倡義使金千鎰領兵三百。以二十四日。馳入晉州。(中略) 與本州牧使徐禮元及金海府使李宗仁等。方議守城。十九日。全羅兵使宣居怡及洪季男等。領兵來會。以爲賊衆我寡。不如退守內面。金千鎰抗言止之。(中略) 左右扶起千鎰。勸使退避。千鎰堅坐不起。顧曰。我當死於此。遂與其子象乾相抱投江而死。賊屠本城。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https://db.itkc.or.kr/)

(65) 정약용(丁若鏞), 『목민심서(牧民心書)』 병전, 제6조 「어구(禦寇)」

김시민(金時敏)[125]이 진주 목사(晉州牧使)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임진년에 왜적이 쳐들어오자 공이 성을 수리하면서까지 막아내니 왜적은 그만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듬해 6월에 왜적이 다시 진주를 포위하였다. 8일 만에 성이 함락되니, 목사 서예원(徐禮元)·판관 성수경(成守慶)[126]·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본도 병마사 최경회(崔慶會)·충청 병사 황진(黃進)·의병복수장(義兵復讐將) 고종후(高從厚) 등이 모두 죽었고, 군민(軍民)이 무려 6만여 명이나 죽었으며, 소, 말, 닭, 개도 남아나지 않았다. 적은 성을 허물고 해자를 메우고, 우물을 막고

125) 김시민(金時敏): 1554~1592. 자는 면오(勉吾), 본관은 안동(安東),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벼슬은 훈련원 판관(訓鍊院判官)·진주 판관(晉州判官)·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를 역임하고, 왜적을 격파한 공로로 선무 공신(宣武功臣) 2등에 추록되었다.

126) 성수경(成守慶): ?~1592.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음보(蔭補)로 진주 판관(晉州判官)이 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진주성 싸움에서 의병장 김천일(金千鎰)·고경명(高敬命)과 함께 전사했다. 병조 판서에 추증되고, 진주(晉州) 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되었다. 성수경의 경(慶)자가 원문에는 '璟' 자로 되어 있는데 『선조실록(宣祖實錄)』·『만성보(萬姓譜)』 등에 의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나무를 베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기지 못한 분풀이를 하니 때는 6월 28일이었다. 이때 원병은 이르지 않고 김천일이 거느린 군사는 모두 서울 거리에서 모집한 오합지졸이며, 김천일은 또 서예원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주객이 서로 시기하며 명령이 제대로 서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크게 패하게 된 것이다.

○김천일·최경회·황진 등이 죽음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촉석루 아래 세 장사는	矗石樓下三壯士
술잔 들고 웃으며 장강수 바라본다	一杯笑指長江水
저 물결 만고에 끊임이 없듯	長江萬古流滔滔
나의 혼백도 그와 같이 영원하리	波不竭兮魂不死

그 후 신유한(申維翰)[127]은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나라에 충성한 건 세 장사련만	天地報君三壯士
나그네 머물린 건 이 높은 촉석루로다	江山留客一高樓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목민심서(https://db.itkc.or.kr/)

金時敏爲晉州牧使。壬辰倭寇至。修城禦賊。倭人不克而退。厥明年六月。倭人復圍晉州。八日而城陷。牧使徐禮元。判官成守璟。倡義使金千鎰。本道兵使崔慶會。忠淸兵使黃進。義兵復讎將高從厚等。皆死。軍民死者六萬餘人。牛馬鷄犬不遺。賊皆夷城塡壕堙井刊木。以快前憤。時六月二十八日也。時外援不至。又千鎰所率。皆京城市井召募之徒。千鎰又與徐禮元不相能。主客相猜。號令乖違。是以甚敗。○金千鎰·崔慶會·黃進等。臨死作詩曰。矗石樓下三壯士。一杯笑指長江水。長江萬古流滔滔。波不竭兮魂不死。其後申維翰作詩曰。天地報君三壯士。江山留客一高樓。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원문 목민심서(https://db.itkc.or.kr/)

(66)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별집 4, 「논란후제장공적(論亂後諸將功蹟)」

조용하게 죽음을 당하면서 자기 지조를 잃지 않은 이로는 오직 김천일(金千鎰)과 양산숙(梁山壽) 두 사람뿐이다. 진주(晉州)가 포위되었을 때에 김천일은 포위된 형세가 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 들어갔으니, 이는 어려운 일이다. 일이 급해진 뒤에는 군중

127) 신유한(申維翰): 1681~?. 자는 주백(周伯), 호는 청천(靑泉), 본관은 영해(寧海)이다. 제술관(製述官)이 되어 통신사(通信使)를 따라 일본에 다녀오고,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문장에 뛰어나 그가 남긴 시에 걸작품이 많다.

(軍中)에서 김천일이 사인(士人)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군대를 부장(副將)에게 소속시키고 성을 급히 빠져나가서 자신을 보전하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김천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내 촉석루(矗石樓) 일면(一面)을 굳게 지키다가 적병(賊兵)들이 성을 타고 올라옴에 이르러서도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조용하게 북쪽을 향하여 재배(再拜)하고 죽었다.

其從容就死。不失所操。唯金千鎰·梁山璹二人而已。當晉州之圍。千鎰聞圍急。引兵馳入。此其難也。事急之役。軍中以爲千鎰士人。勸使以兵屬副將。馳出城自全。則千鎰不聽。終守矗石一面。至於賊兵登城。猶顔色不變。從容北向再拜而死。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원문 백사집(https://db.itkc.or.kr/)

(67) 이민서(李敏敍), 『서하집(西河集)』 권14, 「정충단비(旌忠壇碑)」

6월 20일 왜적의 선봉대가 이미 진주의 경내로 들어오자, 오유(吳宥)와 이잠(李潛) 등이 성 밖으로 나가 적을 염탐하고, 수급(首級) 몇 개를 베어서 돌아오니 성안의 기세가 고조되었다. 김천일이 양산숙(梁山璹)을 보내 유정(劉綎)에게 원군을 청하였지만, 유정은 왜적을 두려워하여 끝내 출전(出戰)하지 않았다. 그다음 날 왜적이 크게 쳐들어와 성을 세 겹으로 포위하고 성 아래에 바짝 붙어 목책(木柵)과 죽파(竹笆 대로 만든 울타리)에 몸을 숨기고 그 안에서 발포(發砲)하여 탄환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성안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막고 지켰다. 적들이 또 밤을 타 동문(東門)에 바짝 다가와 크게 외치며 성에 오르니 소리가 천지에 진동했지만, 황진 등이 공격해 물리쳤다. 하루는 왜적이 성의 서북쪽 귀퉁이를 급습해서 성이 거의 함락될 뻔했는데, 황진이 칼을 휘두르며 여러 군대를 독려하여 성가퀴를 타고 올라가 적들을 쏘아 맞추자, 적은 이에 물러났다. (중략)

김천일(金千鎰) 등은 촉석루(矗石樓)에 있다가 그의 아들 상건(象乾) 및 고종후(高從厚) 부자(父子) · 최공 경회(崔公 慶會) · 양산숙(梁山璹) 등 수십 명과 임금이 계신 북쪽에 두 번 절하고 남강(南江)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이종인 · 이잠(李潛) · 강희열(姜熙悅) 등 십여 인은 칼을 휘두르며 적을 베다 힘이 다해 죽었다. 이종인이 장차 죽으려고 할 적에 왜적 2명을 옆구리에 끼고 물로 뛰어들면서 크게 소리 지르기를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종인은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하였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서하집(https://db.itkc.or.kr/)

六月二十日。賊之前鋒已至州境。吳宥李潛等出城詗賊。斬數級而來。城中鼓譟。千鎰遣梁山璹乞師於劉綎。綎畏賊終不出師。其明日賊大至。圍城三匝。進薄城下。柵竹自蔽。從其內發砲。丸如雨。城中人悉力拒守。賊又乘夜進逼東門。大呼登城。聲震天地。進等擊却之。一日賊急攻西北隅。城幾陷。進奮劍督諸軍登陴射賊。賊乃退。(中略)

千鎰等在矗石樓。與其子象乾及高從厚父子崔公慶會·梁山璹等數十人。北面再拜。赴南江而死。李宗仁·李潛·姜熙悅等十餘人。奮劍斫賊。力盡而死。宗仁將死。腋二賊赴水。大呼曰金海府使李

宗仁死於此。

(68)『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7, 26년 6월 1일

왜장(倭將)이 군사를 연합하여 진주를 공격하였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등이 성에 들어가서 굳게 지키니, 청정·평의지(平義智)가 군사를 다 동원하여 진주로 향했는데 30만으로 일컬었다. 송경략(宋經略)이 심유경에게 서신을 보내 꾸짖기를,

"너는 이미 왜(倭)를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왕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자임하였는데 적이 오히려 둔거(屯據)하여 노략질을 마지않고 있다. 너는 적영(賊營)에 도로 들어가서 분명하게 효유(曉諭)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장차 병부에 자문을 보내어 너를 중벌에 처하고 용서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니, 심유경이 두려워하여 도원수에게 통첩하기를,

"일본이 진주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살피건대 전에 진주에서 피살된 자가 매우 많은데다가 선척(船隻)이 모두 훼소(毁燒)되어【수군의 승리를 가리킴.】분을 못 이기고 있는 판에 더구나 귀국의 병사(兵使)가 누차 일본의 풀 베는 병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왜장들이 이 일을 관백에게 알리자 관백이 말하기를, '너희도 진주에 진공하여 성지(城池)를 파괴함으로써 전일의 원한을 풀라.' 하였다. 행장(行長)이 나에게 말하기를 '진주 백성들에게 그 예봉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그들의 성이 비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곧 철수하여 동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였다. 이윽고 심유경이 적영(賊營)으로부터 돌아와서 또한 말하기를,

"행장이 청정을 극력 저지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으므로 행장은 종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군사는 진주를 공격하고 그만둘 것이니 다른 걱정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명원(金命元)이 한효순(韓孝純)과 더불어 심유경을 만나보고 그 군사를 중지시켜 주기를 강력히 청하니, 심유경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행장에게 중지하도록 간청하였고 행장의 생각도 중지했으면 하나, 그 형세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끝내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책이 없으니 다만 여러 장수로 하여금 성을 비우고 잠깐 피하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나의 말을 따르지 않으니, 나 역시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유정(劉綎)이 청정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가 맹약을 어긴 것을 꾸짖고 화복(禍福)의 이치로 타일렀으나 청정은 답하지 않았다.

이에 원수(元帥)가 관군과 의병에게 전령하여 나아가 진주를 지키게 하였다. 창의사 김천일은 군사 3백을 거느리고 먼저 달려가 성에 들어갔고, 충청 병사는 군사 7백을 거느리고, 경상

병사 최경회(崔慶會)는 군사 5백을, 의병 복수장(義兵復讎將) 고종후(高從厚)는 군사 4백을, 부장(副將) 장윤(張潤)은 군사 3백을, 의병장 이계련(李繼璉)은 군사 1백여 명을, 의병장 변사정(邊士貞)은 그 부장 이잠(李潛)을 보내어 군사 3백을 거느리게 하고, 의병장 민여운(閔汝雲)은 군사 2백을, 강희열(姜希悅)·고득뢰(高得賚)·강희보(姜希輔)·오유웅(吳宥熊) 등도 모두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며, 거제 현령 김준민(金俊民) 및 김해 부사 이종인(李宗仁) 등은 먼저 성안에 있으면서 목사(牧使) 서예원(徐禮元)과 수비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전라 병사 선거이(宣居怡)와 영천 군수 홍계남(洪季男)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말하기를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물러나 안쪽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하였는데 김천일이 항의하며 따르지 않았다. 선거이와 홍계남은 즉시 운봉(雲峯)으로 나가 진을 쳤다. 한효순(韓孝純)이 곽재우(郭再祐)로 하여금 진주에 달려가 함께 지키게 하니, 곽재우가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오직 임기응변할 수 있는 자만이 제대로 군사를 부릴 수 있고 지혜로운 자만이 적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병의 성대한 세력을 보건대,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할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3리(里)밖에 안 되는 외로운 성으로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밖에서 원조를 할지언정 성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니, 좌순찰사(左巡察使) 김늑(金玏)이 그를 꾸짖기를,

"그대가 대장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군율(軍律)에 어쩌려는가."

하자, 곽재우가 말하기를,

"이 몸이 죽는 것은 족히 아까울 것이 없으나 전투 경험이 많아 노련한 군졸들을 어떻게 차마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빈(李薲)이 즉시 곽재우에게 정진(鼎津)을 지키게 하였다. 김천일 등이 성안을 점검해 보니, 창곡(倉穀)이 매우 많았으므로,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이만하면 함께 지키기에 충분하다.' 하고 당일로 군사를 나누었다. 김천일과 최경회가 도절제(都節制)가 되고, 김천일은 의병을 통솔하고 최경회는 관군을 통솔하였으며, 황진(黃進)이 순성장(巡城將)이 되었다. 제도(諸道)의 관군과 의병들에게 지역을 할당하여 지키게 하고 엄히 경계하며 변에 대비하였다. 명나라 장수 유정(劉綎)이 비장(裨將)을 보내와 수비 상태를 살펴보고 또 밖에서 원조할 것을 유시했으므로, 성안에서 그를 믿었다. (중략)

왜적이 진주를 함락시켰다. 김천일·최경회 등이 전사하였다.

당시 진주에서 급변을 보고하니, 이여송이 경성에서 열둔(列屯)의 제장(諸將)인 유정(劉綎)·오유충(吳惟忠)·낙상지(駱尙志) 등에게 전령하여 군사를 전진시켜 구원하게 하였으나, 제장들은 적의 형세가 막강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진격하지 못하였다. 적은 여러 둔병(屯兵)을 다 동원하여 30만이라 호칭하며 곧장 진주로 향했는데, 의령(宜寧) 등 여러 고을을 분탕하고 노략질하니 화염이 충천하였다. 권율은 이빈(李薲)과 함께 함양(咸陽)으로 물러가 주둔했다가 이어

남원(南原)으로 들어가고, 곽재우는 정진(鼎津)을 버리고 후퇴하였다.

이달 21일에 적병이 비로소 진성(晉城)을 범하면서 곁에 있는 고을에 군사를 나눠 배치하여 밖의 원조를 막는 한편 본성을 백 겹으로 에워싸고 주둔하니, 사면 수백 리가 그들 군사로 가득하였다. 홍계남 등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니, 깃발이 하늘을 가리고 함성이 땅을 진동하였으며, 포위 속에 있는 진주성이 마치 큰 바다에 뜬 외로운 배와 같았으므로 두려워서 감히 진격하지 못하였다.

이달 22일에 적이 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성안에서 사격하여 1진(陣)을 물리쳤으나 초혼(初昏)에 다시 쳐들어와 한참 동안 크게 싸웠다. 밤새도록 전진 후퇴를 되풀이하다가 5경(更)이 되어서야 그쳤다.

이에 앞서 성안에서는 성 남쪽에 있는 촉석루(矗石樓)는 강물과 잇닿아 있는 험절(險絕)한 곳이니만큼 적이 필시 범하지 못할 것이고, 서쪽과 북쪽은 참호(塹壕)를 파서 물을 채웠으니, 동쪽 한 곳으로만 적의 공격을 받게 되리라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이때 와서 적은 참호의 물을 빼내고 흙으로 메워 큰길을 만들었는가 하면 곧장 성 밑을 파서 장대(墻臺)의 큰 돌을 운반해 내갔다. 성 위에서 시석(矢石)이 어지럽게 떨어졌으나 적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들어 꼭 허문 뒤에야 그만두려 하였다.

그다음 날은 세 차례 전투에서 세 번 모두 물리쳤으며, 그날 밤에는 네 차례 접전하여 모두 물리쳤다. 그다음 날도 그러하였는데, 탄환과 화살이 서로 빗발치듯 하여 성 안팎에 죽은 자의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 이튿날에는 적이 동문(東門) 밖에 토산옥(土山屋)을 짓고 그 위에서 성을 굽어보며 총탄을 발사하였다. 성안에서도 이미 마주 대하여 높은 언덕을 쌓았는데, 황진(黃進)이 직접 흙을 져 나르고 성안의 사녀(士女)들이 힘을 다해 쌓는 일을 도왔으므로 하룻밤에 끝마쳤다. 그리하여 드디어 마주 바라보고 현자총(玄字銃)을 쏘아 토옥(土屋)을 파괴하니 이에 적이 물러갔다.

그 이튿날 밤에는 밀고 당기며 크게 싸우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다. 그런데 적은 또 나무 궤를 만들어 쇠가죽을 입힌 뒤 각자 짊어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면서 탄환과 화살을 막으며 성을 무너뜨리려고 전력을 기울였다. 이에 성 위에서는 비 오듯이 활을 쏘고 큰 돌을 연달아 굴러내려서 격퇴시켰다. 그러자 적은 큰 나무 두 개를 동문 밖에 세우고 그 위에 판옥(板屋)을 만든 뒤 성안으로 화전(火箭)을 쏘아 보내니 성안의 초옥(草屋)에 일시에 불이 번졌는데, 황진이 또 마주 대하여 나무를 세우고 판자를 설치하여 총을 쏘니 적이 곧 중지하였다.

서예원(徐禮元)이 겁을 먹고 허둥거리며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자, 김천일(金千鎰)이 장윤(張潤)을 임시로 목사(牧使)에 임명하여 진정시켰다. 이때 큰 비가 내려 활의 아교가 모두 풀리고 군사들은 먹고 잠잘 겨를도 없어 점점 피로의 기색이 짙어져 갔다. 이에 반해 적은 많은 군대로 교대하며 나아왔기 때문에 병사들이 생기가 돌고 용맹스러워 지르는 함성이 우레와 같

았다. 왜적이 성안에 글을 보내기를,

"대국의 군사도 이미 투항하였는데, 너희 나라가 감히 항거하겠는가."

하였는데, 성안에서 글로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명나라 군사 30만이 지금 진격 중이니, 너희들은 섬멸되고 말 것이다."

하니, 적이 아랫도리를 벗어 붙이고 야유를 하기를,

"중국 군사는 벌써 물러갔다."

하였다. 김천일이 매양 높은 데 올라가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모방(某方)에 병기(兵氣)가 있으니, 명나라 군사가 곧 와서 구원할 것이다."

하면, 군인들이 크게 기뻐들 하였으나, 조금 있다가는 조용해지곤 하였다. 김천일이 최경회 등에게 말하기를,

"언제 이 적을 물리치고 하란 진명(賀蘭進明)[128]의 살점을 씹을 것인가."

하였다. 이날 밤에 또 밀고 당기며 크게 싸우다가 5경에 이르러서야 그쳤다. 적이 언덕 다섯을 동·서 두 문 위에 한꺼번에 쌓고 대나무를 엮어 책(柵)을 만든 뒤 비 오듯 총을 쏘아대니, 성안에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 또 큰 궤를 만들어 그 속에 병사를 엄폐시키고 네 바퀴 달린 수레에 실은 다음, 적 수십 인이 철갑(鐵甲)을 입고 철순(鐵楯)으로 가리고서 수레를 밀어 성에 대고는 큰 철추(鐵錐)로 성을 팠다. 이종인(李宗仁)이 단독으로 활을 쏘니, 화살마다 첩갑을 뚫었으므로 적병이 많이 죽었다. 성 위에서 솜을 묶어 기름을 적신 다음 불을 붙여 던져 그 궤를 태우니 궤 속의 적들이 모두 섬멸되었다.

이날 밤 적이 다시 북문을 침범하자 이종인이 구원하러 그곳으로 달려가 힘껏 싸워 물리치고는 자기가 지키던 서성(西城)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곳은 그동안 서예원이 대신 지키고 있었는데, 적이 몰래 와서 성을 뚫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으므로 성이 장차 무너지려 하였다. 적이 바야흐로 가까이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종인(宗仁)이 힘껏 싸워 물리치는 동시에 적장 한 명을 사살하니, 적은 시체를 끌고 물러갔다.

다음날 적이 또 동쪽과 북쪽의 성을 침범하여 크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종인이 다시 크게 싸워 물리쳤다. 황진(黃進)이 순행차 이곳에 이르렀다 성 아래를 굽어보고 말하기를,

"적의 시체가 참호에 가득하니 죽은 자가 거의 1천여 명은 되겠다."

---

128) 하란 진명(賀蘭進明): 당 숙종(唐肅宗) 때 하남 절도사(河南節度使)로 임회(臨淮)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때 윤자기(尹子奇)가 회양(淮陽)을 포위하자 장순(張巡)이 구원을 청하였으나 하란 진명은 장순의 명성과 공적이 자기보다 높은 것을 질투하여 구원하지 않아 회양이 드디어 함락되었다. 『당서(唐書)』 권5. 여기서는 구원하지 않는 장수들을 하란 진명으로 비유하였다.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적 한 명이 성 아래에 잠복해 있다가 위를 향해 철환(鐵丸)을 쏘았는데, 판순(板盾)을 뚫고 진의 이마에 맞아 진이 즉사하였다. 황진은 용략(勇略)이 여러 장수 가운데 으뜸이었으므로 성안에서 그를 의지하였었는데, 그가 죽자 성안이 흉흉해지며 두려워하였다. 이에 서예원이 그를 대신하여 무리를 이끌었는데, 그는 겁에 질린 나머지 혼이 빠져 갓을 벗은 채 말을 타고 울면서 돌아다녔다. 최경회(崔慶會)가 군정(軍情)을 경동(驚動)시켰다 하여 참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는 장윤(張潤)에게 대신 맡겼다. 장윤은 명망이 황진 다음가는 인물이었는데, 그도 탄환에 맞아 죽었으므로 종인 혼자서 동서로 뛰어다니며 적을 응수하였다.

29일 동문의 성이 비로 인해 무너지자 적의 무리가 개미 떼처럼 기어올랐다. 종인이 친병(親兵)과 더불어 활과 화살은 놓아두고 칼과 창을 가지고 육박전을 벌여 죽인 적의 시체가 구릉(丘陵)처럼 쌓이니 적이 이에 물러갔다. 적이 창의사(倡義使)가 지키는 서쪽과 북쪽 성문은 병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군을 모아 힘을 다해 공격해 올라가니, 창의군(倡義軍)이 제대로 버텨내지 못하였다. 적이 드디어 성에 올라와 병기를 휘두르니,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이 흩어져 촉석루로 들어갔는데, 서예원은 먼저 달아나 숨어버렸다.

김천일이 최경회·고종후 등과 청당(聽堂)에 나란히 앉아서 말하기를,

"여기를 우리들이 죽을 장소로 합시다."

하고는 술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술을 지니고 있던 자도 이미 달아난 뒤였다. 이에 불을 지르도록 명하고는 스스로 타 죽으려 하였는데 적이 바로 촉석루에 올라오자, 김천일이 그 아들 김상건(金象乾) 및 최경회 · 고종후 · 양산숙(梁山璹) 등과 함께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이종인은 이곳저곳에서 싸우다가 남강(南江)에 이르렀는데, 양팔로 두 명의 적을 끼고는 크게 소리치기를,

"김해 부사 이종인이 여기에서 죽는다."

하며, 강에 몸을 던졌다. 진사(進士) 문홍헌(文弘獻), 정자(正字) 오차(吳玼), 참봉(參奉) 고경형(高敬兄) 등이 모두 따라 죽었다. 성이 일단 함락되자 적이 대대적으로 도륙을 자행하였다. 서예원 및 판관(判官) 성여해(成汝楷)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장령(將領)도 다 죽었다. 김준민(金俊民)은 단독으로 말을 달리며 거리에서 싸웠는데, 좌우로 돌격할 때마다 적의 무리가 물 갈라지듯 흩어졌다. 왜적이 종일 그를 추축(追逐)하였으나 탄환과 칼이 모두 명중되지 않았는데, 끝내 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성안의 사녀(士女)들도 앞을 다퉈 강에 이르러 몸을 던져 자살하여 흐르는 시체가 강을 메웠다. 대략 죽은 자가 6, 7만이나 되었는데, 장사(壯士)로서 벗어난 자는 수삼 인에 불과했다. 적이 성곽을 헐고 가옥을 불태웠으므로 성이 온통 폐허가 되었다. 성이 포위를 당한 9일 동안은 주야로 벌인 크고 작은 전투가 1백여 차례나 되었으며, 적의 죽은 자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중과 부적인 데다가 외부에서 원조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힘이 다하여 죽었다. 왜변(倭變)이 있은 이래 참혹하게

무너지고 의열(義烈)이 장엄하게 드러난 것으로 진주성 같은 예가 없었다.

유격(遊擊) 오종도(吳宗道)가 경성에서 변을 듣고 달려 내려가다가 죽산(竹山)에 이르러 풍우(風雨)의 이변을 만나고는 접반관(接伴官)에게 말하기를,

"진성이 포위를 당한 지 지금 8일째인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함락되지 않으면 적이 반드시 물러갈 것이다."

하였는데, 과연 그날 함락이 되었다. 오종도가 글을 지어 김천일을 제사 지냈는데 내용이 매우 슬펐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 글을 전송(傳誦)하였다.

倭將合兵攻晋州。倡義使金千鎰等。入城拒守。淸正·平義智悉兵向晋州。號三十萬。宋經略移書惟敬責之曰。爾旣以令倭南下。取歸王子自任。而賊猶屯據。搶掠不已。爾須還入賊營。分明曉諭。不然。我將移咨兵部。重究不恕。

惟敬懼。通帖于都元帥曰。日本攻打晋州之意。彼因去歲。於此被殺甚多。且船隻盡爲毁燒。【指水軍之勝。】是以忿狠不平。況貴國兵使屢殺日本削草之兵。彼將聞之闕白。闕白曰。爾等亦進攻晋州。打破城池。以洩前怨。行長謂我言。晋州民可避其鋒。彼見城空人盡。卽撤東回。已而。惟敬還自賊營亦言。行長力止淸正。而終不回聽。故行長不從軍行。然此兵止於晋州。無他憂矣。金命元與韓孝純見惟敬。力請止其兵。惟敬曰。吾已力懇行長止之。行長意亦然。然而其勢已成。終不可回。今無他策。但令諸將。空城少避爲得計。而朝鮮不從吾言。吾亦奈何。劉綎移書淸正。責其背盟。諭以禍福。淸正不答。於是。元帥傳令官義兵。進保晋州。倡義使金千鎰領兵三百。先馳入城。忠淸兵使領兵七百。慶尙兵使崔慶會領兵五百。義兵復讐將高從厚領兵四百。副將張潤領兵三百。義兵將李繼璉領兵百餘義。兵將邊士貞遣其副將李潛。領兵三百。義兵將閔汝雲領兵二百。姜希悅·高得賚·姜希輔·吳宥熊等。皆領兵來會。巨濟縣令金俊民及金海府使李宗仁等。先在城中。與牧使徐禮元方議守備。全羅兵使宣居怡·永川郡守洪季男領兵隨到以爲。賊衆我寡,不如退守內面。金千鎰抗言不從。居怡·季男卽出陣雲峰。韓孝純使郭再祐往赴共守。再祐不從曰。惟權者能用兵。智者能料敵。今賊兵盛銳。有天下莫能當之勢。三里孤城。何以保守。吾寧在外爲援不可入城。左巡察使金玏叱之曰。君不從大將。奈軍律何。再祐曰。此身死不足惜。百戰軍卒。何忍棄之。李贇卽令再祐守鼎津。金千鎰等料撿城中倉穀甚富。謂諸將曰。此足以共守矣。卽日分軍。金千鎰·崔慶會爲都節制。千鎰統義兵。慶會統官兵。黃進爲巡城將。諸道官義兵畫地分守。戒嚴待變。天將劉綎遣裨將。來視守備。且諭以外援。城中信之。(中略)

倭賊陷晋州。金千鎰·崔慶會等死之。時。晋州報急。李如松在京城。傳令列屯諸將劉綎·吳惟忠·駱尙志等。進兵救之。諸將畏賊勢。大不敢進。賊悉諸屯兵。號三十萬。直向晋州。焚掠宜寧諸縣。烟焰漲天。權慄與李贇退次咸陽。仍入南原。郭再祐棄鼎津退。是月二十一日。賊兵始犯晋城。分兵傍縣。以拒外援。圍住本城百匝。彌漫四面數百里。洪季男等。登高望見。旌旗蔽天。呼噪振地。晋城在圍中。如大海孤篷。懼不敢進。是月二十二日。賊始攻城。城中射退一陣。初昏更進。大戰良

久。達夜進退。五更乃止。先是。城中以爲。城南矗石樓臨江險絕。賊必不犯。惟於西北鑿壕儲水。只有東邊一路。爲受敵地。至是。賊決濠塡土。作爲大路。又直掘城底。運出墻臺大石。城上矢石亂下。賊冒死坌集。必毁乃已。翌日三戰三退。其夜四戰四退。翌日又如是。丸矢相當。城內外死者。不記其數。又翌日賊於東門外作土山。屋其上。俯城放丸。城中對築高阜。黃進親自負土。城中士女竭力助築。一夜而畢。遂對放玄字銃。以破土屋。賊乃退。又翌日夜。進退大戰。達曙乃止。賊又作木櫃。裹以牛皮。各自負戴。以防丸矢。專力毁城。城上射矢如雨。滾下大石以破之。賊又樹二大木於東門外。上作板屋。多放火入城內。城內草屋一時延燔。黃進又對建木。設板放銃。賊乃止。徐禮元畏怯顚倒。不能治事。金千鎰以張潤爲假牧使以鎭之。時天大雨。弓膠皆解。軍士宿食無暇。漸至困劣。賊則萬衆迭進。生兵皷勇。呼聲如雷。投書城中曰。大國之兵已投降。爾國敢拒乎。城中以書答之曰。我國有死而已。況天兵三十萬。今方進擊。爾等當殲盡矣。賊褒譽示之曰。唐兵已退矣。千鎰每登高望之曰。某方有兵氣。天兵方來援矣。軍人大歡。俄而寂然。千鎰謂慶會等曰。何時却此賊。膾脯賀蘭進明耶。是日夜。又進退大戰。至五更乃休。賊竝築五阜於東西兩門。上結竹爲柵。放丸如雨。城中死者甚衆。又作大櫃以藏兵。下爲四輪車。賊數十人着鐵甲。擁鐵楯。推車薄城。以大鐵錐鑿城。李宗仁獨發矢。矢必穿甲。賊兵多死。城上束蘊灌油。放火投下。燒其櫃。櫃中賊盡殲。是夜更犯北門。宗仁奔救。力戰殺退。還至所守西城。則禮元代守。不覺賊潛來掘城。城將崩。賊方進迫。宗仁力戰却之。又射殺賊將一人。賊曳屍而退。翌日又犯東北城大戰。宗仁又大戰却之。黃進巡到。俯視城下曰。賊屍平塹。死殆千餘人矣。有一賊潛伏城下。仰放鐵丸。穿板盾。中其額卽死。進勇略爲諸將首。城中倚重。及死。城中洶懼。徐禮元代領其衆。禮元魄奪。脫笠騎馬。涕泣以行。崔慶會以警動軍情。將斬而止。代以張潤。潤名亞於進。而又中丸死。惟宗仁東西應敵。二十九日。東門城因雨毁頹。賊衆蟻附以上。宗仁與親兵。捨弓矢。持刀槍。搏戰格之。賊死者堆積如丘。賊乃退。賊知西·北門倡義使所守處兵弱。乃聚大兵。一力仰攻。倡義軍不能支。賊遂登城耀兵。守陴軍散入於矗石樓。禮元先走匿。千鎰與慶會·高從厚等。列坐廳上曰。此吾輩死所也。使酌酒來。持酒者已走。命放火欲自燒。賊卽登樓。千鎰與其子象乾及慶會·從厚·梁山璹等。北向再拜。投江以死。李宗仁轉鬪至南江。左右挾兩賊。大呼投江曰。金海府使李宗仁死於此。進士文弘獻·正字吳珉·參奉高敬兄等。皆從死。城旣陷。賊大肆屠殺。禮元及判官成汝楷亦不免。諸將領皆死。金俊民獨馳馬巷戰。左右突擊。賊衆披靡。終日追逐。丸劍皆不中。竟不知死處。城中士女奔波。至江投死。流屍塞江。大約死者六七萬。壯士得脫者數三人。賊夷城郭。焚家舍。一城爲墟城。被圍九日。晝夜大小百餘戰。賊死者相當。而衆寡不敵。外救不至。諸將力盡而死。自倭變以來。陷敗之慘。義烈之著。無如晋城者。游擊吳宗道自京城聞變馳下。至竹山。遇風雨之異。謂接伴官曰。晋城被圍今八日。今明日不陷。則賊必退矣。以是日被陷。宗道爲文。祭金千鎰。敍述悲切。國人傳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69)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권23, 「증이조판서 고공 청시 행장(贈吏曹判書高公請諡行狀)」

공은 성이 고씨(高氏)이다. 휘는 종후(從厚)요, 자는 도충(道沖), 호는 준봉(隼峰)이다. 그 선대는 탐라(耽羅)의 성주(星主)[129]에서 나왔는데, 고려 때에 이르러 장흥(長興)을 관향으로 하사받았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 좌통례(左通禮)를 지낸 휘 자검(自儉)이 처음으로 광주(光州)에 살았다. (중략) 창의사가 공과 상의하고 좌랑 양산숙(梁山璹)으로 하여금 편지를 받들고 가서 명나라 장수인 총병(摠兵) 유정(劉綎)에게 군대를 청하게 하였는데 이 글은 바로 공이 지은 것이었다. 유정은 편지의 내용이 격렬한 것을 보고 이 때문에 옷매무새를 고치고 용모를 바꿔 경의를 표시하였으나 또한 출병할 뜻은 없었다. 진주성이 포위된 9일 동안 밖에서는 하루살이나 개미 새끼만한 지원도 없으니, 황진, 김준민, 장윤이 서로 잇달아 전사하였다. 목사 서예원(徐禮元)이 두려워하고 겁먹어 먼저 도망하자 여러 군대가 크게 혼란하여 모두 촉석루(矗石樓)로 달아났다.

공은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줄을 알고, 김천일, 최경회와 함께 북향하여 재배한 다음 오빈, 김인혼, 고경형과 함께 남강(南江)에 뛰어들어 죽으니, 이때가 바로 계사년(1593) 6월 29일이었다. 종 봉이(鳳伊)와 귀인(貴仁)도 물에 뛰어들어 죽었으며, 오유(吳宥)는 이종인(李宗仁), 강희열(姜希悅), 이잠(李潛)과 함께 분연히 검을 들고 적을 공격하다가 힘이 다하여 죽었다. ……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약천집(https://db.itkc.or.kr/)

公姓高氏。諱從厚字道沖號隼峯。其先出耽羅星主。及麗朝賜籍長興。入本朝左通禮諱自儉。始居光州 (中略) 倡義使與公議。使佐郎梁山璹奉書乞師於天將劉摠兵綎。書卽公所撰也。劉見辭旨激烈。爲之斂衽改容。而亦無出師意。晉州受圍九日。外無蚍蜉蟻子之援。黃進·金俊民·張潤相繼戰沒。牧使徐禮元恇怯先遁。諸軍大亂。皆走矗石樓。公知事不濟。與金千鎰·崔慶會北向再拜。仍與吳玭·金麟渾·高敬兄同赴南江死。卽癸巳六月二十九日也。鳳伊·貴仁亦赴水死。吳宥與李宗仁·姜希悅·李潛奮劍擊賊。力盡死。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약천집(https://db.itkc.or.kr/)

(70) 안방준(安邦俊), 『은봉전서(隱峯全書)』 권7, 「진주서사(晉州敍事)」

이때 관군과 의병은 모두 함안 등지에 있었다. 창의사 김천일이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

129) 탐라(耽羅)의 성주(星主): 탐라는 제주(濟州)로 옛날에 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고을나(高乙那) 세 신인(神人)이 바위 구멍에서 나왔는데 고을나의 15대손 고후(高厚)·고청(高淸) 등이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도착했을 때 객성(客星)이 남쪽에 보였으므로 신라 왕은 내조(來朝)한 고후를 별한〔星主〕이라 일컬었다 한다. 『高麗史 地理志』.

"왜적의 계략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진주만 공격한다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진주는 호남과 매우 가까워 마치 입술과 치아와 같다. 만일 이곳을 버리고 가서 왜적들을 승승장구하게 만든다면 화가 반드시 호남에까지 미칠 것이니, 힘을 합쳐 견고하게 지켜서 왜적의 세력을 막는 것이 나을 것이오." (중략)

다만 창의사 김천일, 우의병장 경상우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 거제현령 김준민, 해미현감 정명세, 좌의병부장 사천현감 장윤, 복수의병장 고종후 및 그 부장 오유, 웅의병장(熊義兵將) 이계연, 비의병장(飛義兵將) 민여운, 표의병부장(彪義兵副將) 강희보 등은 각각 병사를 이끌고 와서 모였다.

성에 들어갔을 때, 여러 장수 막하의 병사 중 쓸만한 자가 없어 성을 나갈 것을 허락하니 모두 수십 명이나 떠나갔다. 오직 김천일 막하에 아들 상건과 좌랑 양산숙, 최경회의 막하에 진사 문홍헌, 고종후의 막하에 정자 오빈·내금(內禁) 김인혼·참봉 고경원(高敬元) 등 대여섯 사람만 가지 않았다. (중략)

당시 선거이와 홍계남 등이 나가자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확고한 의지가 없었으나, 강희열 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좋아 뛰면서 분전할 것을 다짐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때 김천일의 군이 5백, 최경회의 군이 6백, 황진의 군이 7백, 고종후의 군이 4백, 장윤·이잠의 군이 각각 3백, 이계연·민여운·강희보·강희열 등의 군이 각각 2백여 명이었고, 여러 수령의 병사 및 본주(本州)의 민병, 피난 온 남녀들을 합하여 모두 6~7만 명이 되었다. (중략)

처음에 김천일이 함안으로부터 와서 양산숙·홍함 등을 보내어 유정에게 원병을 청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중략)

22일에 왜적이 성 밑까지 바짝 다가왔다. (중략) 이날 밤에 왜적은 또 동문을 공격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성벽을 오르는데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황진 등이 혈전을 벌이니 왜적은 이내 물러갔다. 서예원이 당황하여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김천일과 최경회가 상의하여 장윤으로 하여금 임시로 주의 일을 맡도록 하니, 성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의기가 저절로 배가 되었다. (중략)

왜적이 마침내 마구 들어오자 이에 아들 상건과 양산숙은 김천일을 부축하고, 문홍헌은 최경회를 부축하고, 김인혼과 고경원은 고종후를 부축하여 북쪽을 향해 재배하고 남강에 뛰어들어 죽었다. 양산숙은 평소에 수영을 잘하였으므로 김천일이 말하기를,

"너는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힘을 다해 빠져나가 다시 도모하여 이 원수인 왜적을 섬멸하라."

라고 하였으나, 산숙은 의리상 혼자만 살아남을 수 없어 마침내 함께 죽었다.

출전 : 안동교 역, 『(國譯) 隱峯全書』, 신조사, 2002

時官軍義兵。俱在咸安等地。倡義使金千鎰。謂諸將曰。賊謀難測。只攻晉州之說。庸可信乎。夫晉

州。密邇湖南。迭爲唇齒。若棄之去。縱賊長驅。則禍必中於湖南。莫如并力堅守。以遏賊勢。(中略)
獨倡義使金千鎰·右義兵將慶尙右兵使崔慶會·忠淸兵使黃進·巨濟縣令金俊民·海美縣監鄭名世·左義兵副將泗川縣監張潤·復讎義兵將高從厚及其副將吳宥·熊義兵將李繼璉·飛義兵將閔汝雲·彪義兵副將姜希輔等。各領兵來會。及入城。諸將幕下。士無可用者。聽其出去。凡數十人。惟千鎰幕下。子象乾及梁佐郎山璹。慶會幕下。文進士弘獻。從厚幕下。吳正字玭·金內禁麟渾·高參奉敬元等五六人不去。(中略)
方居怡·季男之出也。城中之人。無有固志。及聞希悅等至。莫不踊躍思奮。時千鎰軍五百。慶會軍六百。黃進軍七百。從厚軍四百。張潤·李潛軍各三百。繼璉·汝雲·希輔·希悅等軍各二百餘。合諸守令兵及本州兵民·避亂士女凡六七萬人。(中略)
始千鎰自咸安來也。遣梁山璹·洪涵等賚書。乞師於劉綎。(中略)
二十二日。賊進薄城下。(中略) 是夜。賊又逼東門。大喊登城。聲震天地。進等血戰。賊乃退。禮元顚倒。處事失措。千鎰·慶會議以張潤權攝州事。城中懽喜。義氣自倍。(中略)
賊遂闌入。於是象乾·梁山璹扶千鎰。文弘獻扶慶會。吳玭·金麟渾·高敬元扶從厚。北向再拜。赴南江而死。山璹素善泅游。千鎰曰汝可以免。努力更圖。滅此仇賊。山璹義不獨生。遂與同死。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은봉전서(https://db.itkc.or.kr/)

(71) 『선조실록(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10일[130]

창의사(倡義使) 판결사(判決事) 김천일(金千鎰)이 치계하였다.

"신이 이달 14일에 진주성(晉州城)에 도착하였는데, 목사(牧使) 서예원(徐禮元)이 중국군 지대(支待)하는 일로 나갔다가 저물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변란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15일에 전라 병사 선거이(宣居怡), 조방장(助防將) 이계정(李繼鄭), 충청 병사 황진(黃進), 조방장 정명세(鄭名世), 경기 조방장 홍계남(洪季男), 경상 우병사 최경회(崔慶會), 복수 의장(復讐義將) 고종후(高從厚)들이 잇따라 달려왔는데, 다음날 전라 순찰사(全羅巡察使) 권율(權慄)이 전라 병사와 각항(各項)의 장령(將領) 등에게 전령(傳令)하여 모두 나아오게 하므로 제장(諸將)이 일시에 달려가니 성중이 흉흉하여 이 때문에 일이 누설되었습니다. 신이 최경회·황진 등과 더불어 겨우 수합(收合)하였으나 3천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성안은 넓은데 이처럼 주린 군사로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니 지극히 우려됩니다. 대개 진주는 바로 전라도의 보장(保障)인데 순찰사 이하가 방어를 철수하여 산음(山陰)으로 옮겨 갔으니 더욱 우려됩니다."

130) 본 자료는 7월 10일 기사이나 내용을 감안하며 6월 중순에 일어났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倡義使判決事金千鎰馳啓曰。臣卽於今月十四日。到晋州城中。牧使徐禮元。以天兵支待出去。初昏還來。待變諸事。相與講定。十五日。全羅兵使宣居怡·助防將李繼鄭·忠淸兵使黃進·助防將鄭名世·京畿助防將洪季男·慶尙右兵使崔慶會·復讐義將高從厚等。相繼馳到。翌日。全羅巡察使權慄。傳令全羅兵使。各項將領等。竝爲出來。諸將一時馳出。城中洶懼。事爲漏出。臣與崔慶會·黃進等。艱難收合。而竝不過三千餘名。城子廣闊。軍卒如此飢餒之餘。防禦未易。極爲悶慮。大槪晋州。實是全羅保障。巡察以下。撤其蔽遮。移去山陰。尤極悶慮云。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72)『선조실록(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16일

황해도 방어사 이시언(李時言)이 치계하였다.

"신들이 진주를 외원(外援)할 목적으로 삼가(三嘉) 고현(古縣)에서 진군(進軍)하였는데, 척후장(斥候將)인 안인무(安仁武)·김억린(金億麟) 등이 와서 고하기를 '발가벗은 남자가 수풀 사이에서 걸어 나오기에 잡아서 물어보았더니 「나는 본래 충청도 보령(保寧)에 사는 정로위(定虜衛) 인발(印潑)이다. 충청 병사의 군관(軍官)으로 6월 23일 함안(咸安)에서 진주로 옮겨갔는데, 왜적이 이달 22일 아침 나절에 의령(宜寧)에서부터 무수히 쳐들어와서 본주(本州)의 동문(東門) 밖 산 위에 주둔하여 많은 포(砲)를 일제히 쏘았다. 적세(賊勢)를 탐지하려고 와서 함께 성 안에 있던 중국 군사 20여 명은 적의 형세가 매우 성한 것을 보고는 즉시 성에서 나갔다. 우리의 제장(諸將)으로는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 충청 병사 황진(黃進), 본주 판관(本州判官) 성수경(成守慶),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 거제 현령(巨濟縣令) 김준민(金浚民), 사천 현감(泗川縣監) 장윤(張潤), 태안 군수(泰安郡守) 윤구수(尹龜壽), 결성 현감(結城縣監) 김응건(金應健), 당진 현감(唐津縣監) 송제(宋悌), 남포 현감(藍浦縣監) 이예수(李禮壽), 황간 현감(黃澗縣監) 박몽열(朴夢說), 보령 현감(保寧縣監) 이의정(李義精), 본주 목사(本州牧使) 서예원(徐禮元) 등이 성 안에 유진(留陣)하고 있었는데 이달 20일 오후에 왜적 2백여 명이 동쪽의 성 밑으로 진격해 왔다. 얼마 후에 접전하였는데 여러 명이 화살에 맞자 퇴각하였다. 22일부터 28일까지 왜적이 사면을 포위하였는데, 그 넓이가 5리 가량이나 되었으며 나머지 군사를 1일정이나 2일정, 혹은 4일정 되는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사방 인근 각 고을의 요해처(要害處)가 될 만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 가득히 모여 매복(埋伏)하여 아군(我軍)의 사이를 격리시켜 외원(外援)을 못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 대나무로 높은 사다리를 많이 만들고 그 사다리에다 진흙을 발라서 성안을 압박(壓迫)하고 그 위에서 포(砲)를 쏘아대어 탄환이 비처럼 쏟아지므로 성안에서 탄환을 맞아 죽은 자가 하루에 1백여 명씩이나 되었다. 병사 황진(黃進)도 28일 이마에 탄환을 맞고 죽었다. 29일 오후에 왜적의 모든 진(陣)이 성 밑으로 가까이 와서 일시에 성을 함락하니, 성안에서는 혈전(血戰)

을 벌였으나 이기지 못하였으며, 성안의 장사(壯士)와 대소 남녀들의 생사는 분명히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신북문(新北門)을 지키고 있었는데 힘껏 싸웠으나 화살이 다 떨어졌으므로 성 밖으로 뛰어내려 시체 속에 묻혀 있다가 밤을 틈타서 몰래 나와 산으로 올라가서 험한 길을 걸어가 순찰사(巡察使)에게 진주성이 함락된 연유를 고하려는 참이었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黃海道防禦使李時言馳啓曰。臣等以晋州外援。自三嘉古縣進軍。而斥候將安仁武·金億麟等進告曰。有赤脫男人。草莽間寸寸前進。執捉而推問。則我本忠淸道保寧居定虜衛印潑也。以忠淸兵使軍官。六月二十三日。自咸安移入晋州倭賊。同月二十二日朝食時。自宜寧無數衝突。本州東門外山上屯聚。萬砲俱發。唐兵二十餘名。以賊勢體探。同在城中。而見賊勢熾張。卽卽出去。我國諸將。倡義使金千鎰·慶尙右兵使崔慶會·忠淸兵使黃進·本州判官成守慶·金海府使李宗仁·巨濟縣令金浚民·泗川縣監張潤·泰安郡守尹龜壽·結城縣監金應健·唐津縣監宋悌·藍浦縣監李禮壽·黃澗縣監朴夢說·保寧縣監李義精·本州牧使徐禮元等。留在城中。同月二十日午後。倭賊二百餘名。進迫東邊城底。良久接戰。多數逢箭。以此退兵。自二十二日至二十八日。倭賊圍城四面。其廣至於五里許。散遣餘兵。或一日程。或二日程。或四日程。四隣各官高山深谷要害處。彌漫屯聚設伏。使我軍彼此阻隔。不得外援。又以竹木。多作高梯。塗以泥土。俯壓城內。放砲其上。注丸如雨。城中逢丸致死者。日至百餘人。兵使黃進。二十八日。額上中丸卽死。二十九日午後。擧陣迫城下。一時陷城。城中血戰不勝。城中壯士·大小男女。其生其死。不得的知。俺則分衛。新北門力戰。矢盡。墜落城外。埋於積屍中。乘夜潛出。登山艱步。陷城緣由。告于巡察使。云。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73)『선조실록(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22일

경상우도 관찰사 김늑(金玏)을 치계하였다.

"신이 처음 진주의 사태가 급하다는 것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모든 수성(守城) 절차와 사망한 경외(京外)의 장사(將士)와 군인의 수를 탐문하게 하였더니, 본주(本州)의 군사가 2천 4명, 본도 병사(兵使)의 군사가 4백 20명, 충청 병사의 군사가 97명,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의 군사가 60명, 복수 의병장(復讐義兵將) 전사의(全士義)의 군사가 50명, 적개 부장(敵愾副將) 이잠(李潛)의 군사가 50명, 표의병(彪義兵) 이계년(李桂年)의 군사가 30명, 웅의 대장(熊義代將) 정원한(鄭元漢)의 군사가 11명, 영광 의병(靈光義兵) 심우신(沈友信)의 군사가 12명, 분의장(奮義將) 강희열(姜希悅)의 군사가 50명, 방의 대장(方義大將) 강희보(姜希輔)의 군사가 30명, 현웅군 대장(玄雄軍代將) 정충훈(丁忠訓)의 군사가 20명, 채의 대장(蔡義代將) 정운호(丁雲湖)의 군사가 1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개를 전해 들은 것일 뿐입니다.

본주의 군사가 이 수에 그칠 뿐이 아니고 또 계속하여 입성(入城)한 사람들도 매우 많았는데 성이 함락될 당시 빠져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상인(常人)의 무리들은

성을 뛰어 넘거나 혹은 헤엄을 쳐서 탈출한 자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의 거처를 알 수 없으니 매우 걱정이 됩니다. 본도의 적세는 손을 쓸 곳도 없을 정도로 적이 사경(四境)을 포위하고 있는데 패잔병마저 다 도망가고 없으니 비록 이(李)·곽(郭)[131]이 이런 일을 당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慶尙右道觀察使金玏馳啓曰。臣初聞晋州事急。凡守城節次及京外將士·軍人死亡之數。走人探問。則本州軍二千四名·本道兵使軍四百二十名·忠淸兵使軍九十七名·倡義使金千鎰軍六十名·復讎義兵將全士義軍五十名·敵愾副將李潛軍五十名·彪義兵李桂年兵三十名·熊義代將鄭元漢軍十一名·靈光義兵沈友信軍十二名·奮義將姜希悅軍五十名·方義大將姜希輔軍三十名·玄雄軍代將丁忠訓軍二十名·蔡義代將丁雲湖軍十名云。此則。大槪傳聞。本州軍人。不止此數。續續入城者。亦甚多。而城陷之時脫出者。未知幾何。如常人之類。或墜城·或浮水。而得脫者亦多。兵使崔慶會。今過累日。尙未聞去處。極爲痛悶。本道賊勢。無着手處。賊抱四境。殘卒盡竄。雖李·郭當之。恐無所爲云。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74)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권1, 계사년

(9월) 20일

김천일(金千鎰)이 우찬성(右贊成)에, 최경회(崔慶會)가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김준민(金俊民)이 형조 참판(刑曹參判)에, 황진(黃進)이 병조 참판(兵曹參判)의 각각 증직(贈職)을 받았다. 전쟁에서 사망한 그 나머지 사람들도 차등을 두고 추증(追贈)하였다. 아! 나라에서 충신을 현양(顯揚)하는 뜻은 지극하지만, 구원하지 않은 장수를 벌하지 않았으니, 어찌 상벌(賞罰)에 법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황진·김준민의 공이 도리어 아래에 있다.】

二十日辛未。

贈金千鎰右贊成。崔慶會吏曹參判。金俊民刑曹參判。黃進兵曹參判。其餘戰亡之人。追贈有差。嗚呼。國家顯忠之意。至矣。而不罪不援之將。其可謂賞罰有章乎。【黃進金俊民之功。反居下】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고대일록(https://db.itkc.or.kr/)

(75)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권13, 「창의사김공 정렬사비(倡義使金公旌烈祠碑)」

만력(萬曆) 계사년(1593, 선조 26) 봄, 명(明)나라 군사와 우리 군대가 진격하여 경성(京城)의 왜적에게 육박해 들어가자 경성의 왜적들이 남쪽으로 달아났다. 이에 창의사 김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왜적을 추격하여 영남에 들어간 뒤 진주(晉州)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해 6월 갑진

131) 이(李)·곽(郭): 안녹산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이 컸던 명장(名將) 이광필(李光弼)과 곽자의(郭子儀)를 말한다.

일(甲辰日)에 왜적이 무리들을 총동원하여 진주를 포위한 지 9일 만에 성이 함락되면서 김공과 성을 지키던 여러 장수가 모두 죽었다. 이에 선묘(宣廟)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공에게 좌찬성으로 증직(贈職)하고 조제(吊祭)를 올리도록 명하였다.

그 일이 있고 난 14년 뒤에 호남의 인사들이 공을 위해서 나주(羅州)에 사당을 세웠는데, 사당을 낙성하고 나서 조정에 사액(賜額)해 줄 것을 청하니 정렬(旌烈)이라는 편액(扁額)을 내렸다. 그러고 나서 또 20년이 지난 천계(天啓) 병인년(1626, 인조 4)에 나주 인사들이 공의 사당에 희생(犧牲)을 묶어 두는 빗돌을 장차 세우려 하면서 나에게 글을 보내 공의 훈열(勳烈)을 기록하여 돌에 새기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앞선 임진년에 왜노(倭奴)가 대대적으로 쳐들어와 부산(釜山)을 절단내고 동래(東萊)를 함락시킨 뒤 북쪽으로 멀리서부터 달려 들어오자 여러 성진(城鎭)들이 소문만 듣고도 저절로 무너져 버리는 상황에서 이일(李鎰)과 신립(申砬)의 군사마저 잇따라 패몰(敗沒)당하고 말았다. 이에 선묘가 계책을 결단하여 서쪽으로 피난을 떠나자 왜적이 마침내 경성을 함락시켰다.

이때 공은 전(前) 부사(府使)로서 관직을 떠나 나주의 전사(田舍)에 물러와 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울부짖고 통곡하며 거의 까무러칠 정도까지 되었다가 이윽고 떨쳐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내가 통곡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서 군부(君父)가 파월(播越)하고 있는 때에 세신(世臣)인 내가 새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목숨만 건지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는 장차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난리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가령 강하고 약한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더라도 그때는 오직 죽음이 있을 따름이니, 죽지 않고서는 나라에 보답할 길이 전혀 없다."

하였다. 그리고는 글을 급히 보내 고경명(高敬命), 박광옥(朴光玉), 최경회(崔慶會), 정심(鄭諶) 등에게 이 일을 고하였는데, 의사(義士) 송제민(宋濟民), 양산룡(梁山龍), 양산숙(梁山璹), 임환(林懽), 이광주(李光宙), 서정후(徐廷厚) 등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집결하였다. 이에 정예(精銳) 수백 명을 얻어 6월 3일에 삽혈(歃血)의 의식을 행한 뒤 군사들과 맹세를 하고 군대를 지휘하여 서쪽으로 나아갔다.

공은 본래 허약한 체질로 병든 몸이었으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매우 기뻐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칼을 차고 말을 타니 기분이 시원하여 날아갈 것만 같다."

하였다. 이때 마침 3도(道)의 근왕병(勤王兵)이 용인(龍仁)에서 궤멸(潰滅)되었으므로 군중(軍中)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이에 공이 군사들에게 유시하기를,

"우리 군대는 의(義)를 위하여 일어났으니 오직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 가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떠나도록 하라."

하자, 군사들 모두가 감격하여 분발하면서 몰래 도망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무너진 군사들도 점차 공에게 돌아와 호서(湖西)에 이를 무렵에는 수천의 병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수원(水原)에 진격하여 진(陣)을 치면서부터 군세(軍勢)를 조금씩 떨치기 시작하였다.

공이 장사(壯士)를 모집하여 간간이 나가서 왜적을 치게 한 결과 자못 얻은 바가 있었으며, 또 금령(金嶺, 지금의 용인[龍仁])의 왜적을 습격하여 패배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막하(幕下)의 양산숙(梁山璹) 등을 보내 소(疏)를 받들고 사잇길로 가서 행재(行在)에 보고하게 하였다.

당시 번곤(藩閫)의 제수(諸帥)들이 의병의 사기를 저상(沮喪)케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왜적의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자 공이 장좌(將佐)와 계책을 정하고는 병력을 이동시켜 강화(江華)로 들어가서 근거지로 삼았다. 이에 도망쳐 숨어 있던 관리들도 공의 도착 소식을 듣고는 비로소 조금씩 나왔으며 각 부대의 관군들도 많이 와서 모였다.

그러자 공이 여러 군사와 약속을 단단히 하고서 강 연안에 목책(木柵)을 세우고 함선(艦船)을 배치하는 등 공수(攻守)에 대한 대책을 완비하였는데, 기보(畿輔)의 사민(士民)들 역시 곳곳에서 단결하여 모두 의병이라 칭하며 공을 응원하였다.

이때 양산숙 등이 행재(行在)에서 돌아와 '공을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임명하고 창의사(倡義使)의 호(號)를 내린다.'는 조정의 명을 전하였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행조(行朝)의 명령이 양호(兩湖)에 하달되기 시작하였다.

왜적이 경성을 오랜 기간 점거하자 피난 갔던 도성 백성들이 많이들 경성으로 돌아와 왜적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 공이 이에 결사대를 모집하여 도성 안으로 잠입시킨 뒤 순역(順逆)과 이해(利害)의 도리를 가지고 타이르게 하니, 도성 안의 백성들이 모두 감격하여 기뻐하며 복종하면서 수만 명이나 공에게 정성을 바쳐 왔다. 그런가 하면 왜적을 몰래 죽여 군전(軍前)에 헌괵(獻馘)하기도 하고, 스스로 몸을 분발하여 공에게 돌아오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1백 명을 헤아렸다. 그 결과 엄려(庵廬)가 사방에 온통 들어차면서 땅이 비좁아 더이상 받아들일 공간이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

공이 때때로 병력을 출동시켜 강 연안에 둔(屯)치고 있던 왜적을 습격하자 적들이 서로 잇따라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공이 이에 여러 장수와 몽충(蒙衝) 4백 척을 거느리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곧바로 진격하였다. 그리고는 양화도(楊花渡)에서 북치고 함성을 지르며 군세(軍勢)를 떨친 뒤 수길(秀吉)의 죄상(罪狀)을 내걸어 도성 안의 왜적들을 자극해서 나오게 하려 했으나 성안의 왜적들은 끝까지 감히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았다.

이듬해 정월, 명나라 대장인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평양(平壤)을 수복한 뒤 개성부(開城府)로 진격하여 주둔하면서 장차 경성의 왜적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이에 공이 거리와 지세

(地勢) 및 왜적의 정형(情形)을 상세히 갖추어 제독에게 보고하는 한편, 선유봉(仙遊峯)으로 진군하여 제독을 성원(聲援)하면서 간간이 군대를 나누어 내보내 적의 기세를 꺾곤 하였다. 왜적이 날로 형세가 곤궁해지자 이내 도성 안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집을 다 불태운 뒤 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이에 공이 장좌(將佐)를 거느리고 도성에 들어가 종묘(宗廟)의 구허(舊墟)에 자리를 잡았다.

이때 마침 공에게 왜적을 추격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공이 바야흐로 병석에 누워 있는 몸이었으나 이 명령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제 죽을 곳을 얻게 되었다."

하였다. 당시 공이 거느리고 있던 부대 모두를 제수(諸帥)에게 뺏긴 상황에서 그래도 겨우 남아 있던 수백 명만을 이끌고 공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왜적은 그때 산과 바닷가에 근거지를 설치하고서 장차 서쪽으로 호남을 넘보려 하고 있었는데, 제군(諸軍)은 대부분 그 예봉(銳鋒)을 피하려고 다른 곳에 진을 친 채 몸을 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공은 생각하기를 '호남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이 되는 지역인데, 진주(晉州)는 실로 호남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고는, 진주를 지켜 호남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겠다고 청한 뒤 회보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진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진주는 그야말로 여지없이 결딴난 상태여서 성지(城池)나 기계(器械) 모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공은 절도사(節度使) 최경회(崔慶會), 황진(黃進) 및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 의병장 장윤(張潤)[132] 등과 함께 죽음으로써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왜적의 유병(遊兵)이 벌써 성의 동쪽에 나타났는데 공이 정기(精騎)를 출동시켜 격퇴하였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왜적이 대거 이르러 성 주위에 목책을 둘러 세우더니 보병과 기병이 곧장 성문 앞까지 육박해 왔는데, 공이 경노(勁弩)를 그들 위에 퍼붓게 하니 적들이 근접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왜적이 대나무를 엮어 큰 방패를 만든 뒤 그 가운데에 포혈(砲穴)을 끼워 넣고는 성을 공격해 왔으나, 우리 군사 역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였다. 이번에는 왜적이 또 토산(土山)을 쌓고는 그 산 위에 망루를 세워 성안을 내려다보면서 포환(砲丸)을 비 오듯 쏘아 대었다. 이에 공도 성안에다 이를 마주 보는 토산을 쌓고는 대포를 발사하여 토산 위에 세운 왜적의 망루를 부숴 버렸다. 그리고 마침 적장(賊將) 몇 사람이 성 동쪽의 산마루에서 모이는 것을 공이 탐지하고는 몰래 대포를 발사하여 두 번째 앉은 자를 맞춰 쓰러뜨리기도 하였다.

공은 평소 다리에 병이 생겨 걷지를 못했는데 가마를 타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낮이나 밤이나

---

132) 원문에는 '張允'으로 되어 있으나 '張潤'이 맞으므로 고쳐 적는다.

조금도 쉬지 않았다. 그리고는 손수 죽을 쒀서 성첩(城堞)을 지키는 군사들을 먹여 주곤 하였으므로 군사들이 모두 감격하여 더더욱 목숨을 바칠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당초에 왜추(倭酋) 수길(秀吉)이 제로(諸路)의 왜적들 모두가 공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분하게 여긴 나머지 사신을 보내 꾸짖었는데, 이에 왜적의 장수들이 반드시 유명한 도회지 하나를 결딴냄으로써 수길의 인정을 받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성이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죽은 왜적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오래도록 비가 내려 성곽의 흙이 질퍽해진 나머지 곧잘 무너져 내렸고, 또 대장 황진(黃進)과 장윤(張潤) 등이 적탄에 맞아 잇따라 전사하였으므로 성안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 그러자 왜적이 더욱 병력을 증강하여 급하게 성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고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육박전을 벌이며 다투어 성 위로 올라왔는데, 성안에는 화살과 돌이 다 떨어져 오직 대나무 창으로 치고 찌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적이 마침내 승세를 타고 난입해 들어와 성이 결국 함락되고 말았다.

이때 공은 촉석루(矗石樓) 위에 있었는데, 좌우에 있던 사람들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오직 장남인 상건(象乾)과 막하(幕下)의 양산숙(梁山璹) 등 편비(褊裨)와 친병(親兵) 10인만이 공의 옆에 있으면서 떠나지 않았다. 이들이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일이 끝장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자, 공이 온화한 기색으로 말하기를,

"의거를 일으키던 날에 나는 이미 죽기로 결정을 하였다. 다만 너희들이 애달프기만 하구나."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북쪽을 향해 절을 하고, 먼저 병기(兵器)를 물속에 던져 넣은 뒤, 아들 상건과 서로 부둥켜안은 채 누대(樓臺) 위에서 강물로 몸을 날렸다. 이때 공을 따라 죽은 장좌(將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 전투를 치른 뒤로 왜적 역시 힘이 다하여 감히 다시는 호남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

명나라의 지휘(指揮) 오종도(吳宗道)가 평소부터 공을 경복(敬服)해 오다가 공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 글을 지어서 제사를 올리게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비통하였다. 그리고 총독(總督) 형개(邢玠) 역시 '충성스럽고 굳센 그 혼백, 늠름하게 앞에 보이는 듯하다.'라고 공을 칭송하였다. 이렇게 해서 공의 충의(忠義)가 천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군자는 말한다. '공이 맨 먼저 대의(大義)를 부르짖으며 국난에 뛰어든 것으로 말하면 안노공(顔魯公)보다도 못할 것이 없고, 강도(江都)에 웅거하면서 행조(行朝)와 연락을 통했던 것으로 말하면 설경선(薛景仙)[133]이라도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리고 외로운 성을 사수(死守)하여 강성

133) 설경선(薛景仙): 당 나라 현종(玄宗) 때 진창 영(陳倉令)으로 있었는데, 마외(馬嵬)에서 양국충(楊國忠)이 죽음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괵국부인(虢國夫人 양 귀비(楊貴妃)의 언니)이 진창으로 도망쳐 오자 추격하여

한 오랑캐의 길목을 차단하였고 몸은 죽었으나 적들 역시 기진맥진하여 호남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말하면 그 일이 장회양(張睢陽)[134]의 경우와 그대로 들어맞고, 부자(父子)가 함께 죽어 충효(忠孝)를 이룬 것으로 말하면 또 변성양(卞成陽)[135]의 경우와 여합부절(如合符節)한다.'라고.

공의 휘(諱)는 천일(千鎰)이요, 자(字)는 사중(士重)이다. 그 선조는 광주(光州) 사람인데 나주(羅州)에 옮겨 온 지 2대가 되었다. 공은 어려서 고아가 된 뒤 일재(一齋) 이항 선생(李恒先生)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는데, 뜻을 독실히 하고 실천을 힘쓰면서 무슨 일이건 성현(聖賢)을 자신의 법도로 삼곤 하였다. 유일(遺逸)로 천거된 뒤 내외의 직책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모두 걸맞게 임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대관(臺官)으로 있을 때는 강직한 자세로 할 말을 과감하게 다하였다.

공의 생김새로 말하면 풍채가 그다지 탐탁스럽게 보이지 않아 옷 무게도 이겨 낼 것 같지 않았으나 의리에 용맹스러운 점은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뺏을 수가 없었다. 충의(忠義)의 정신을 천성적으로 품부 받은 위에 학문으로 또 보완을 하였으니, 전(傳)에서 말한 바 '지사(志士)와 인인(仁人)은 자기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룬다.'[136]고 한 경우가 바로 공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겠다. 그러니 하나의 절조(節操)만을 가지고 공을 평가한다면, 이는 공을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공의 사당은 나주 행정 소재지 서쪽 옥정봉(玉井峯)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내가 일단 대략이나마 공의 시말(始末)을 기술하였는데, 여기에 초사체(楚辭體) 1장(章)을 함께 묶어 신령을 영송(迎送)하는 나의 뜻을 덧붙이면서 이 시도 아울러 새기도록 부탁하였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영산강 연안 옥정봉 언덕	榮之滸兮玉之岡
공의 사당 위엄 있게 버티고 섰네	儼奕奕兮公之堂

죽였으며, 뒤에 무리를 이끌고 부풍군(扶豐郡)을 수복하여 행조(行朝)와 통하게 한 공로로 부풍 태수(扶豐太守)가 되었다. 『舊唐書 卷10』『新唐書 卷138』.

134) 장회양(張睢陽): 안녹산의 난 때 회양성(睢陽城)을 지키다 죽은 장순(張巡)을 말한다. 회양 태수 허원(許遠)과 함께 성을 지키며 적장 윤자기(尹子琦)와 싸워 몇 번이나 물리쳤으나, 몇 달이나 고수하다가 중과부적에 식량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그의 명성을 시기한 임회 절도사(臨淮節度使) 하란진명(賀蘭進明)이 고의로 구원병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성이 함락되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舊唐書 卷187』.

135) 변성양(卞成陽): 진(晉) 나라 성양(成陽) 사람으로 소준(蘇峻)의 반란 때 맞아 싸우다 전사한 변호(卞壺)를 말한다. 진 나라의 육군(六軍)이 패한 상태에서 수백 인을 이끌고 고전(苦戰)하다 마침내 죽었는데, 두 아들 진(眕)과 우(盱)가 아비의 죽음을 목격하고 서로 적진 속으로 뛰어 들어가 함께 해를 당하고 말았다. 변문 충효(卞門忠孝)의 고사로 전해져 온다. 『晉書 卷70』.

136) 지사(志士)와 …… 이룬다: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나오는 말이다.

잘 익은 술에 맛있는 안주	椒漿兮蕙糈
각종 제기(祭器)도 향기롭게 진설됐네	陳瑤勺兮薦芬芳
노기 띤 공의 머리칼 관을 찌르고	公誰怒兮髮衝冠
한 손엔 큰 칼 또 한 손엔 도끼날 번뜩이도다	慫雄劍兮翼戚揚
신령스런 분위기 하늘가에 감돌면서	橫天宇兮揚威靈
음침하게 구름 끼며 흙비 내리네	雲暗暗兮霾光
아 기다렸던 공께서 오시는가	望公兮公來
바람 불어오며 장막이 흔들리네	靈風肅兮帷房
씩씩하고 굳센 영웅의 모습	孔武兮且毅
앞뒤 좌우로 발걸음 옮기도다	紛或前兮或旁
안주도 굳어지고 술도 맑아지는 사이[137]	肴旣昢兮酒旣淸
환락 못다 누린 채 강개한 빛 띄우더니	懽未極兮慨慷
잠시도 지체 않고 홀연히 사라지니	欻去兮不少留
하늘 문만 휑하니 환하게 열렸어라	天門闢兮皇皇
공에게 상제 명하시길 남방을 보호하며	龔帝命兮茫南土
못된 놈 때려잡고 악귀(惡鬼) 쫓아 버리라고	斬鱷鯢兮捎獝狂
난국(蘭菊) 향기 그윽한 봄철과 가을철에	春蘭兮秋鞠
풍성하고 향기나는 제사를 올리리니	牢有腯兮廩有薌
천추 만세토록	千秋兮萬歲
기꺼이 공의 고향 찾아와 주시라	公無斁兮公之鄕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계곡집(https://db.itkc.or.kr/)

萬曆癸巳春。大明兵及我師。進逼京城賊。京城賊南遁。倡義使金公。率師追賊至嶺南。軍于晉州。是歲六月甲辰。賊悉衆圍晉九日而城陷。金公與諸守將皆死之。宣廟震悼。命贈公左贊成。賜弔祭。越十四年。湖南人士。爲公立祠于羅州。祠成。請於朝賜額曰旌烈。又二十年。爲天啓丙寅。羅之士將豎繫牲之石于公之祠。走書於維。請紀公勳烈而鑱之石。先是歲壬辰。倭奴大擧入寇。屠釜山陷東萊。長驅北上。諸城鎭望風奔潰。李鎰，申砬之師。相繼敗沒。宣廟定計西幸。賊遂陷京城。時公以前府使。罷官屛居于羅之田舍。聞報號慟幾絕。旣而奮曰。吾徒哭何爲。國有難。君父播越。吾世臣也。不可鳥竄求活。吾將擧義師以赴難。卽強弱不敵。有死而已。不死無以報國。乃

137) 안주도 …… 사이: 한참 시간이 흐른 것을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안주도 굳어지고 술 윗부분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열자(列子)』 권3 주목왕(周穆王)에 “술도 아직 맑아지지 않았고 안주도 굳어지지 않았다.[酒未淸 肴未昢]”라는 표현이 있다.

以書馳告于高敬命·朴光玉·崔慶會·鄭諶等。義士宋濟民·梁山龍·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聞風赴集。得精銳數百。以六月三日。歃血誓衆。引兵西。公素羸疾。至是欣然語人曰。今日吾帶劍跨馬。洒然欲輕擧矣。會三道勤王之師。潰于龍仁。軍中氣懾。公諭衆曰。我師義擧也。有進無退。欲去者任其去。衆皆感奮。無一人潛逃者。潰師亦稍稍歸公。比至湖西。衆可數千。遂進壁于水原。軍勢稍振。公募壯士。間出擊賊。頗有所獲。又襲敗金嶺賊。乃遣幕下士梁山璹等。奉疏間行赴行在。時藩閫諸帥。多沮撓義兵者。而賊來益盛。公與將佐。謀移兵入據江華。官吏之竄匿者。聞公至。乃始稍稍出。諸官軍亦多來會。公與諸軍申約束。沿江樹柵列船艦。爲守戰備。畿輔士民。所在團結。皆稱義兵以應公。梁山璹等。回自行在。得朝命拜公掌隷院判決事。賜號倡義使。自是行朝命令。始達于兩湖矣。賊據京城久。都民之避兵者。多還京城。與賊雜處。公乃募死士潛入城中。曉以順逆利害。城中民。皆感悅送款于公者。數萬人。或潛殺賊。獻馘軍前。其自拔歸公者。日以百數。庵廬遍滿四境。至地窄無所容。公時出兵抄擊沿江諸屯賊。賊相繼遁。公乃率諸將蒙衝四百艘。泝江直進。鼓譟耀兵于楊花渡。揭榜罪狀秀吉。以挑城中賊。城中賊終不敢動。明年正月。明大將提督李如松旣復平壤。進次開城府。將討京城賊。公悉具道里地勢及賊情形。以報提督。因進軍仙遊峯。爲提督聲援。分兵間出撓賊。賊日以窮蹙。乃大殺都中民。燒廬舍。棄城南走。公率將佐入城。臨于宗廟舊墟。會朝廷命公追賊。公方臥疾。聞命蹶然起曰。我得死所矣。時公部曲。爲諸帥所侵奪。存者僅數百。公率而南。賊盤據嶺海。將西闚湖南。諸軍多左次以避其鋒。公謂湖南國之根本。而晉州實爲湖南蔽。請守晉以捍湖南。不待報而入于州。州創殘甚。城池器械無可恃者。公與節度使崔慶會·黃進·復讎將高從厚·義兵將張潤等。約以死守。居數日。賊遊兵已至城東。公出精騎擊却之。無何。賊大至。環城列柵。步騎直薄城門。公令勁弩射之。賊不得近。乃編竹木爲櫓盾。中列砲穴以攻城。我師亦隨機應之。賊又爲土山。山上起屋。以瞰城中。砲丸雨下。公亦於城中。對築土山。發大砲擊碎賊山上屋。賊將數人。會城東山頂。公覘知之。密發砲中第二坐者仆地。公素病脚不能行。肩輿行城。晝夜不少休。手糜以哺守堞士。士皆感厲。益致死。初倭酋秀吉。憤諸路賊皆無功。使使責讓。諸將必欲屠一名都以取當。故是役也城久不下。賊死者過當而猶不退。會久雨。城土融善崩。大將黃進，張潤。中丸先後死。城中奪氣。賊益添兵急攻城。呼聲震天地。肉薄爭登。城中矢石俱盡。徒以竹木刺擊。賊乘勝闌入。城遂陷。公在矗石樓上。左右皆奔潰。惟長子象乾及幕下梁山璹等褊裨親兵僅十人。在公側不去。泣且呼曰。事去矣。將奈何。公怡然曰。起事之日。吾已斷吾死矣。但爾曹可憐耳。遂起北向拜。先投兵器水中。與子象乾相抱。赴樓下潭水。將佐從死者。不可勝紀。然自是賊亦力盡。不敢復軼湖南。皇朝指揮吳宗道素敬服公。聞公死。遣使操文以酹之。其辭甚悲。摠督邢玠亦稱公忠魂毅魄。凜然如在。公之忠義。於是乎聞於天下矣。君子謂公之倡大義赴國難。不讓於顔魯公。扼江都以通行朝。卽薛景仙亡以踰也。死守孤城。遮遏勍虜。身旣沒而賊亦衄。使湖南得全。其事正類張睢陽。若其父子同死忠孝。又與卞成陽同符云。公諱千鎰。字士重。其先光州人。徙羅二世矣。少孤。從一齋李恒先生學。篤志力行。

動以聖賢爲法。擧遺逸。歷內外任。皆稱職。爲臺官。骨鯁敢言。生貌寢退然。若不勝衣者。至勇於爲義。雖貴育莫之奪也。其忠義得之天性。而又輔以學問。傳所謂志士仁人殺身以成仁者。公實有焉。以一節稱公。非知公者也。祠在州治之西玉井峯下。維旣略記公之始末。係以楚辭一章。以寓迎送神之意。而屬令并刻之。其詞曰。榮之澨兮玉之岡。儼奕奕兮公之堂。椒漿兮蕙殽。陳瑤勺兮薦芬芳。公誰怒兮髮衝冠。慫雄劍兮翼戚揚。橫天宇兮揚威靈。雲暧暧兮霾光。望公兮公來。靈風肅兮帷房。孔武兮且毅。紛或前兮或旁。肴旣咸兮酒旣淸。懽未極兮慨慷。歎去兮不少留。天門闢兮皇皇。龔帝命兮茫南土。斮鱷鯢兮捎獝狂。春蘭兮秋鞠。牢有腯兮廩有薾。千秋兮萬歲。公無斁兮公之鄕。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계곡집(https://db.itkc.or.kr/)

(76)『국조보감(國朝寶鑑)』 권35, 인조조 2, 인조 4년(병인) 9월

9월. 고 충신 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의 후손을 녹용하도록 명하였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https://db.itkc.or.kr/)

九月。命錄用故忠臣高敬命金千鎰後孫。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 원문이미지(https://db.itkc.or.kr/)

(77)『국조보감(國朝寶鑑)』 권48, 숙종조 8, 숙종 12년(병인) 4월

4월. 주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김창협(金昌協)이 문의(文義)를 자세히 풀이하고 경계를 빠짐없이 진달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 임진왜란 때에 진주성(晉州城)에서 의롭게 죽은 자가 매우 많았는데, 그 중에서 김천일(金千鎰)·황진(黃進)·최경회(崔慶會)는 더욱 걸출한 자들입니다. 왜적이 전에 진주성에서 크게 패하였기 때문에 기필코 성을 함락하여 분풀이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도모하여 굳게 지키고 힘껏 싸웠습니다. 그런데 황진이 먼저 적의 탄환에 맞아서 죽었고 김천일·최경회와 여타 장사들은 모두 성이 함락되던 날 순절하였으니, 그 충렬(忠烈)은 참으로 늠름하며, 한 지방을 방어한 공적도 장(張)·허(許)가 수양(睢陽)을 지킨 것[138]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여 사당을 세웠고, 조정에서도 사당의 편액을 하사하여 포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영남에 사신으로 나갔을 때 진주를 들러 본 바로는, 사우(祠宇)가 퇴락하였고 청소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으며 춘추의 향사도 거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승려 하나가 그들의 의열

138) 장(張)·허(許)가 …… 것: 장·허는 당 현종 때의 충신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모두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수양에서 성이 함락될 때까지 지키다가 순절하였다.

을 흠모하여 매년 성이 함락되었던 날이 되면 고을의 인가에서 쌀을 빌려다가 불사(佛事)를 하여 재(齋)를 올린다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들으니 참으로 측은하였습니다. 매년 가뭄의 재해를 만날 때면 조정에서 근시(近侍)에게 향축을 싸가지고 가서 본주의 전사자에 대하여 치제하게 하지만, 평상시의 향사에 있어서는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충절을 바친 자를 가엾게 여기는 뜻이겠습니까. 조정에서 특별히 신칙하여 향사하는 일이 전과 같이 폐지되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우에 이미 편액을 하사하였는데 향사하는 일이 폐지되고 거행되지 않는다고 하니, 소식을 들음에 한심하기 그지없다. 본도로 하여금 춘추의 향사를 각별히 거행하고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였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https://db.itkc.or.kr/)

夏四月。

御晝講。侍讀官金昌協演文釋義。陳戒備至。又曰昔在壬辰倭亂。晉州一城死義者。甚多。而金千鎰黃進崔慶會尤其傑然者也。倭賊以其嘗大創於晉州之故。必欲陷城快憤。此人等同心協謀固守力戰進中丸先死。千鎰慶會其他將士竝皆殉節於城陷之日。其忠烈固凜然。而蔽遮一方之功。亦不下於張許之睢陽矣。邑人慕義建祠。朝家亦賜額褒之。臣於奉使嶺南時。行過晉州。見祠宇頹廢洒掃無人。春秋享祀亦不擧行。只有隣近僧人猶慕其義烈。每歲陷城之日。乞米於邑村。作佛事以供云。聞來誠爲惻然。每年旱災時。朝家遣近侍齎香祝。致祭於本州死事之人。而至於常時祀事。則乃反廢墜。此豈朝廷愍忠之意哉。自朝家另加申飭。使祀事不至如前廢闕。似宜矣。上曰。祠宇旣已賜額。而祀事廢而不行云。聞來寒心。令本道春秋享祀各別修擧。勿令廢墜。可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 원문이미지(https://db.itkc.or.kr/)

(78) 『국조보감(國朝寶鑑)』 권75, 정조조 7, 정조 21년(정사) 12월

12월. 하교하기를,

"먼 지역 사람들이 녹사(祿仕)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 100여 년 이래로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말았다. 고을과 도에서 천거하는 때에도 두루 찾아내는 방도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유사의 잘못이며 조정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영남의 고 유신 조위(曺偉)·조식(曺植)·정구(鄭逑)·장현광(張顯光), 호서의 고 유신 유계(俞棨)·윤황(尹煌)·김경여(金慶餘)·김홍욱(金弘郁), 호남의 고 유신 박상(朴祥)·기대승(奇大升), 고 충신 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의 자손을 감사가 찾아서 보고하라. 고가세족(故家世族) 가운데 실로 천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일체 천거하라. 그렇게 한다면 의당 전(殿) 위의 주첩(柱帖)을 대신할 것이다."

하였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https://db.itkc.or.kr/)

十二月。

敎曰遠人之不霑祿仕便成百餘年來痼弊。邑擧道剡。未能盡搜羅之方。此豈非有司之罪。而朝廷之責乎。嶺南故儒臣曺偉曺植鄭逑張顯光。湖西故儒臣俞棨尹煌金慶餘金弘郁。湖南故儒臣朴祥奇大升。故忠臣高敬命金千鎰子孫。道臣搜訪以聞。故家世族。苟有可以擧聞者。一體薦似則當替作殿上之柱帖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 원문이미지(https://db.itkc.or.kr/)

(79) 이상정(李象靖), 『대산집(大山集)』 권42, 「답호남통문[139](答湖南通文)」

일전에 삼가 보내오신 글을 받고 보니, 학봉(鶴峯) 김 선생의 「촉석루(矗石樓)」 시(詩)[140]를 충의(忠毅) 최공(崔公)의 작품이라고 하였고, 최공, 김공(金公), 황공(黃公)[141]을 시 중에서 삼장사(三壯士)라고 하였습니다. 사적이 오래되어 의심쩍고 확실하지 않으면 심기를 차분히 가라앉히고서 찬찬히 실제 사정을 따져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따를지 판단해야 하는데, 보내오신 글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면서 한결같이 강압적이며 조금도 서로 살피고 따져 볼 의사가 없으니, 이는 여러 군자에게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대체로 귀로 들은 것은 눈으로 본 실제만 못하고, 후인들이 뒤에 기록한 것은 당일의 기록만큼 믿을 만하지는 못합니다. 송암(松巖) 이공(李公)이 김 선생의 막하(幕下)에 있으면서 날마다 일을 기록하여 한 책으로 엮었는데, 『용사일록(龍蛇日錄)』이 그것입니다.[142] 필치가 완연한데

---

139) 호남(湖南)의 통문(通文): 남원(南原)의 유생이 진주 향교(晉州鄕校)로 보낸 통문으로, 「촉석루(矗石樓)」 시의 저자와 시에서 언급한 삼장사(三壯士)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제기한 내용은 대산의 아래 글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무민공실기(武愍公實記)』 권3에 실려 전한다.

140) 학봉(鶴峯) 김 선생의 촉석루(矗石樓) 시(詩): 학봉은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호이다. 그는 본관은 의성(義城)이고, 자는 사순(士純)이다. 1568년(선조 1)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 경상 우도 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590년 통신 부사(通信副使)로서 일본에 다녀와 침략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잘못 보고한 책임으로 처벌이 논의되다가 유성룡(柳成龍)의 변론으로 벌을 면하고 초유사(招諭使)에 임명되었다. 「촉석루」 시는 『학봉집(鶴峯集)』 권2에 수록되어 있는데, 초유사로서 진주(晉州)에 파견되었을 때 지은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촉석루 위의 삼장사, 한잔 술로 웃으며 장강을 가리키네. 장강의 물은 도도히 흐르고, 물결 마르지 않으니 혼도 죽지 않으리.〔矗石樓中三壯士 一杯笑指長江水 長江之水流滔滔 波不渴兮魂不死〕"

141) 충의(忠毅) …… 황공(黃公): 최공(崔公)은 최경회(崔慶會, 1532~1593)를 가리키는데 충의는 그의 시호이다. 김공(金公)은 김천일(金千鎰, 1537~1593)을 가리키고, 황공은 황진(黃進, 1550~1593)을 가리킨다. 모두 호남 출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 또는 무신으로 전쟁에 적극 참여하였고, 1593년 6월 진주성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였다.

142) 송암(松巖) …… 그것입니다: 송암은 이로(李魯, 1544~1598)의 호이다. 그는 본관은 고성(固城)이고, 자는 여유(汝唯)이다. 1590년(선조 23) 문과에 급제하여 비안 현감(比安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송암집(松巖集)』이 있다. 『용사일록(龍蛇日錄)』은 이로가 김성일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용사일기(龍蛇日記)」라고도 한다. 1590년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로 파견되었던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을 임진왜란의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이 책의 발문은 1762년(영조 38) 대산이 작성하였고, 『대산집』 권45에도 수록되어 있다.

지금 자손의 집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략에 "임진년(1592, 선조 25) 5월 공이 초유기(招諭旗)를 세우고서 조(趙) 아무개, 이(李) 아무개[143]와 함께 진양(晉陽)에 도달하였는데,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은 산골로 숨었으며 성안은 적막하고 강물만 아득히 흐르고 있었다. 조공(趙公)이 선생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앞으로의 형세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공과 함께 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니 굳이 적의 칼날에 죽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주상께서는 이미 애통해하는 전교를 내렸고 하늘은 바야흐로 재앙을 내린 것을 후회하는 조짐을 보이니, 만약 제군이 군사를 나누어 요충지에 근거하여 제멋대로 쳐들어오는 왜적을 막는다면 적은 숫자의 군사로도 나라를 일으킬 수 있소. 만약 불행히 그렇지 못한다면 장순(張巡)처럼 지키다가 죽는 것도 괜찮을 것이며, 고경(杲卿)처럼 적을 꾸짖다가 죽어도 괜찮을 것이오.[144]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것을 이 물처럼 하겠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구해 와 각각 한 잔씩 마시고, 공이 시를 지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계사년(1593, 선조 26) 4월에 선생이 졸하자 조공과 이공이 떠났으며, 『용사일록』도 여기에서 그칩니다. 6월에 이르러 최공, 김공, 황공이 진양으로 와서 성을 지켰으며 얼마 되지 않아 순절하였으니, 시를 지은 때와는 거의 1년여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가 지어진 때가 과연 계사년 6월이라면, 이공이 왜 뒤의 것을 가져다가 임진년 5월에 기록하였겠습니까.

숭정(崇禎) 임신년(1632, 인조 10) 천파(天坡) 오공(吳公)이 촉석루에 시판(詩板)을 걸었는데,[145]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관리가 부임해 오고 사자(使者)가 들렀을 때와 지역의 부로(父老)들이 전송(傳誦)하면서 한마디도 의심의 말이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내오신 글 중에 "어느 해 어느 달에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한 것[146]은 이 시가 임진년 5월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지은 것임을 모르는 것이며, "왜란 초에 경상도 관찰사였는데 술을 샀다고 하였다."라고 한 것[147]은 당시 외지

---

143) 조(趙) 아무개, 이(李) 아무개: 조 아무개는 조종도(趙宗道, 1537~1597)를 가리키고, 이 아무개는 이로(李魯)를 가리킨다.

144) 장순(張巡)처럼 …… 것이오: 장순은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에 안녹산에 대항하여 끝까지 수양성(睢陽城)을 지키다가 죽었고, 고경은 안고경(顔杲卿)으로 그 역시 대항하다 붙잡혔는데 죽는 순간까지 안녹산을 꾸짖었다. 『新唐書 卷192 顔杲卿列傳, 張巡列傳』.

145) 천파(天坡) …… 걸었는데: 천파는 오숙(吳䎘, 1592~1634)의 호이다. 그는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숙우(肅雨)이다. 1612년(광해군 4)에 문과에 급제하여 좌승지, 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천파집(天坡集)』이 있다. 촉석루에 시판(詩板)을 건 것은 경상도 관찰사 때의 일이다.

146) 어느 해 …… 것: 호남의 통문(通文)에서 "학봉은 성이 함락되기 3개월 전에 염병으로 죽었으니, 학봉이 어느 해 어느 날에 이 누대에서 시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鶴峯染亡於城陷前三月 則未知鶴峯何年何日作詩於斯樓耶〕"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147) 왜란 …… 것: 호남의 통문에서 "학봉은 왜란 초에 경상도 관찰사였는데, 술을 사서 마시며 시를 지었다고

에서 온 사신의 신분으로 막 도착하였고 아직 경상도 관찰사의 직임을 맡지 않았을 때이며 목사와 판관이 모두 도망가 술을 보내올 사람이 없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용사일록(龍蛇日錄)』을 보지 않고 추측과 생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용사일록』을 이상정(李象靖) 씨가 찬술한 것이라고 여긴다면[148] 당시의 일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이 또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보내오신 글에서 인용한 칠현(七賢)의 문집[149]은 다만 삼공(三公)의 충훈(忠勳)과 의열(義烈)을 찬양했을 뿐이니 애초 시를 지은 것에 대한 증거는 아닙니다. 안우산(安牛山)의 경우는 성에서 난리를 겪은 사람을 직접 만나 여러 공이 목숨을 바쳤던 사적을 기록한 것이니[150]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버리지 못하지만, 시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휴당(日休堂)[151]의 행장과 『화순지지(和順地志)』는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만하니 또한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의 행장, 연보, 시집, 언행록 그리고 조공(趙公)과 이공(李公)의 행장, 연보에도 모두 이 말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일휴당의 행장 내용에만 의거하여 여러 공의 글들을 모두 오류라고 의심하는 것입니까?

읍지의 경우는 후세 사람이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니, 송암이 직접 그 옆에 있으면서 당시의 일을 직접 기록한 『용사일록』과 비교할 때에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려야겠습니까?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용한 지지(地志)의 내용과 보내오신 글의 내용이 또한 서로 상이합니다. 지지에서는 28일에 황공(黃公)이 이미 탄환을 맞고 죽었으며, 공이 김공(金公), 고공(高公)과 함께 성 남쪽의 누대에 올라 절구 한 수를 읊은 뒤에 절도사의 인장을 허리에 차고서 남강(南江)에 투신하였다고 하였습니다.[152] 이는 고공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황공은 그 중에 없었다는 것이며, 시를 지은 것은 죽던 날인 28일 저녁으로 하루 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온 글에서 꼽은 삼장사에는 함께 누대에 올랐던 고공이 빠지고 그 자리에 없었던 황공을 끌어왔으며, 시를 지은 날짜도 죽던 날인 28일을 취하지 않고 절의를 세웠던 하루

하였습니다.〔鶴峯則倭亂初嶺伯 而謂以沽酒作詩〕"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148) 용사일록을 …… 여긴다면: 호남의 통문에서 관련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내용들은 이상정 씨의 『용사일기』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此乃詳載於李象靖氏龍蛇日記〕"라고 표현한 것을 가리킨다.

149) 칠현(七賢)의 문집: 호남의 통문에서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포저(浦渚) 조익(趙翼), 계곡(谿谷) 장유(張維),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열거하고 '칠현의 글〔七賢文字〕' 운운하였는데, 실제 거론된 것은 6명이다. '칠현'이라고 한 것은 자세하지 않다.

150) 안우산(安牛山)의 …… 것이니: 우산은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의 호이다. 그는 최경회(崔慶會) 등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켰던 호남의 인물 16인에 대한 기록인 『호남의록(湖南義錄)』을 저술하였다.

151) 일휴당(日休堂): 최경회의 호이다.

152) 지지에서는 …… 하였습니다: 『화순읍지(和順邑誌)』「인물(人物)」 중 최경회(崔慶會) 조항의 내용이다. 황공은 황진(黃進)을, 공은 최경회를, 김공은 김천일(金千鎰)을, 고공은 고종후(高從厚)를 가리킨다.

전날이라고 하였으니, 사람이 바뀌었고 날짜가 어긋납니다. 만약 지지의 내용에 근거하면 보내신 글에서 황공을 끌어대고 하루 전이라고 한 것이 잘못이며, 보내신 글의 내용이 맞는다면 지지의 내용에서 고공을 거론하고 28일이라고 한 것이 틀립니다. 또 게다가 황공이 탄환을 맞고 먼저 죽었고 최공이 그 광경을 목도했으니 그를 초혼(招魂)하던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을 텐데,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조리고 서로 웃으며 장강(長江)을 가리키기를 한결같이 생전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듯이 하였으니, 이 또한 어찌 인정과 사리에 맞겠습니까.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의 김공과 황공의 전(傳)을 참고해 보면,[153] 성이 함락되던 날에 김공은 촉석루 위에 있었는데, 맏아들과 막하의 양산숙(梁山璹) 등 친병(親兵) 10여 명만이 곁에 있었으며, 북쪽을 향해 두 번 절하고서 물로 뛰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공과 함께 모여 시를 지었고 일시에 강으로 투신하였다면 어찌하여 김공만 1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까. 황공은 성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는데, 적이 크게 이르러 해자의 물을 터 웅덩이를 메웠고 흙으로 산을 쌓아 높은 누대를 만들었으며 대나무를 엮어 만든 구조물과 나무로 만든 궤짝 같은 것을 이용하여 성을 공격하니, 포탄과 탄환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이 여러 장군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밤낮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9일간 서로 대치하다가 28일에 이르러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9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여러 장수와 함께 있었다면 당일과 전날은 물론이며 황공, 김공, 최공도 따질 것 없이 모두 술 마시며 시를 짓고 담소하며 물결을 가리킬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촉석루 아래 정충비(旌忠碑)[154]가 세워진 곳은 바로 그분들이 순절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과 이 시가 과연 보내온 글에서 말한 최호(崔顥)와 이백(李白)의 학루(鶴樓), 봉대(鳳臺)와 마찬가지라면[155] 비명(碑銘)을 지은 사람이 마땅히 이 시로 글감을 삼았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단 말입니까.

영묘(英廟)께서 내리신 제문[156]의 경우는 참으로 바꿀 수 없는 법과도 같으며, 지엄한 성상의 말씀은 가리키는 뜻이 두루 포괄하고 있어 감히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번 계사

---

153)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의 …… 보면: 현재 통행되는 『해동명신록』에 김천일은 입전(立傳)되어 있지만 황진은 입전되어 있지 않다. 황진의 내용은 장유(張維)가 지은 그의 묘지명에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154) 촉석루 아래 정충비(旌忠碑):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지키다 순국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1686년(숙종 12)에 세워진 촉석정충단비(矗石旌忠壇碑)를 가리킨다. 대제학이었던 이민서(李敏敍)가 글을 지었다.

155) 보내온 …… 마찬가지라면: 최호(崔顥)가 「등황학루(登黃鶴樓)」를 짓고, 이백(李白)이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를 지었는데, 호남의 통문에서 이를 거론하며 저자나 장소를 바꾸는 것은 실상과 맞지 않는 일임을 말하였다.

156) 영묘(英廟)께서 내리신 제문: 1747년(영조 23)에 진주(晉州)의 한 어부가 남강(南江) 가에서 도장을 하나 주워 바쳤는데, 임진왜란 때 최경회가 가지고 있던 경상도 병마절도사의 도장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진주성 전투에서 희생한 사람들을 모신 창렬사(彰烈祠)에 치제(致祭)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언급한 제문은 이때의 제문이다. 홍계희(洪啓禧)가 찬술하였는데, 내용 중에 "'혼도 죽지 않으리'라는 시어와 일치하는구나.〔魂兮不死 詩語乃脗〕"라는 말이 있다. 『英祖實錄 23年 1月 26日』『日休堂實記 英廟御祭文』.

년(1773, 영조 49)에 귀도(貴道)의 선비가 남원(南原)의 정충당(旌忠堂)[157]에서 발문(發文)하여 저희 고장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고사(故事)와 일기(日記)를 베껴 보여 주었는데, 그 일기에 "김 아무개가 조 아무개, 이 아무개와 함께 촉석루에 올라 이 시를 지었는데, 그 후 세 명의 대장이 촉석루에서 죽었으니 바로 그 증험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귀도의 사림이 참으로 이 시를 김 선생이 지은 것으로 여기고 세 분 열사(烈士)가 순절한 것을 그 증험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오신 글에서는 도리어 최공이 자신이 짓고 자신이 순절하였다고 하니, 귀도 사람의 견해가 전후로 각기 달라 서로 모순이 됩니다. 보내오신 글에서 말씀하신 "어디로 귀결되겠습니까."라는 탄식은 마땅히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야 하는 것이지,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158]

아, '장사(壯士)' 두 글자는 애초 지극한 경지의 칭호가 아니며 몇 마디 짧은 시구는 절의의 실상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김 선생은 이 시가 있다고 해서 더 중시되지 않으니, 삼공도 어찌 이 시가 없다고 하여 손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격동하여 반드시 결정지으려 하는 것은 김 선생을 비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삼공을 크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투에 있어서는 선배들을 업신여기며 조금도 겸양과 경외의 모습이 없으니, 일의 시비는 논할 것도 없이 이러한 태도는 우선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니 힘들여 해명하면서 시끄러운 논쟁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믿을 만한 옛 사적을 근거로 이 일의 시비를 밝힐 뿐입니다. 삼가 여러분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迺者伏承來諭。以鶴峯金先生矗石詩。爲忠毅崔公之作。而崔金黃三公。爲詩中三壯士。夫以事蹟久遠。疑信未的。則惟在平心和氣。徐究事理之實。以爲取舍從違之分。而竊詳來諭全守己見。一味歐脅。少無商搉講求之意。甚非所望於僉君子也。大抵耳聞不如目覩之眞。後人追述。未若當日筆蹟之可信。松巖李公在金先生幕下。逐日記事。編成一帙。卽所謂龍蛇日錄是也。手墨宛然。至今藏在子孫家。其中略曰。壬辰五月。公建招諭旗。與趙某李某。直抵晉陽。牧使判官。竄在山谷。城中寥寥。江水茫茫。趙公握手謂公曰。前頭事勢。更無下手處。願與公同沈此水。不必死於兇鋒。公笑曰。主上已下哀痛之敎。天心方有悔禍之萌。倘賴諸君分兵據要。以遏橫突。一旅足以興夏。如其不幸。張巡之死於守可也。杲卿之剮於詈可也。倘所否者。有如此水。吾非畏死者。三人鼎坐。求酒各飮一杯。公作詩曰。云云。至翼年癸巳四月。先生卒。趙李二公去而日錄亦止此。至六月。崔金黃

157) 정충당(旌忠堂): 황진의 위패를 모신 정충사(旌忠祠)를 가리킨다.

158) 보내오신 글에서 …… 것입니다: 호남의 통문에서, 최경회 등이 삼장사라는 증거로 안방준(安邦俊) 등 칠현(七賢)의 글이 있음을 언급하고서 "세 분 충신의 시와 공적과 절의를 빼앗은 뒤에 칠현의 글은 어디로 귀결되겠습니까."라고 말하여, 삼장사를 김성일 등이라고 한다면 칠현의 글과 모순된다고 하였다. 대산은 호남의 전후 의견이 서로 다름을 언급하면서, 모순이 이쪽에 있지 않고 그쪽에 있음을 통문의 말을 끌어와 반박한 것이다.

三公。來守晉陽。未幾而殉節。距作詩月日。殆一年有餘矣。若使是時。果是癸巳六月之作。李公何以逆取而載諸壬辰五月也。崇禎壬申。天坡吳公揭詩板於矗石樓。距今殆數百年。官司之來莅。使星之經過。與夫一路父老之傳誦。未有一言之疑。而不意僉尊之遽有是說也。來諭中有曰。未知何年何月作此詩。是未知是詩之作在於壬辰五月初到時也。有曰。亂初嶺伯而謂以沽酒。是未知方以客使初到而未受嶺伯之任。牧判俱竄匿而送酒無人也。此等語。皆未見日錄而出於懸揣臆料。然直以日錄。認爲李象靖氏之所撰述。則亦無怪乎致疑於當日之事也。來諭所引七賢文集。只贊揚三公之忠勳義烈而已。初非作詩之證案。而至於安牛山親見城中經亂之人。備記諸公立殣之蹟。細大不捐。而作詩一段。了無一言之及焉。至於日休堂行狀。和順地志。信如來諭。則亦可謂一證。然金先生行狀年譜詩集言行錄。與夫趙李二公狀譜。俱載是語。今獨憑日休之狀而盡疑諸公文字之皆誤邪。至於邑志則乃是後人傳聞之所記。與松巖之身廁其座。手記其事之日錄。其取舍從違。當何所定也。雖然。所引志狀與來諭。亦相逕庭。有曰。二十八日。黃公已中丸而死。公與金公高公共登城南樓。遂吟一絕。而腰佩節度印。遂投南江云云。是高公與於是會而黃公不在其中矣。作詩在於廿八日畢命之夕而不在於前一日也。來諭數三壯士。則漏共登之高公而引不在之黃公。指作詩之日。則舍畢命之廿八日而謂立節之前一日。人物換易。日子違左。若以志狀爲據。則來諭之只引黃公而稱前一日。誤矣。若以來諭爲信。則志狀之單擧高公而謂二十八日。爽矣。且況黃公已中丸而先隕。崔公目覩其境。矢復之餘音在耳。而飮酒哦詩。相與笑指長江。一如生前之對面酬酢。亦豈近於人情事理乎。參以海東名臣錄金黃二傳。則城陷之日。金公在矗石樓上。惟長子與幕下梁山璹。親兵十人在側。北向再拜。赴水云云。若諸公共會賦詩。一時投江。則金公何以獨與十數人共之也。黃公入城死守。賊大至。決壕塡塹。土山飛樓。竹棚木櫃以攻城。砲丸如雨。公與諸將隨機應變。晝夜不少休。相持凡九日。至二十八日而歿。夫積九日而晝夜不休。與諸將共之。則未論當日與前一日。未問黃公與金崔二公。俱不暇於飮酒賦詩談笑而指點矣。矗石下旌忠碑。卽其殉節之地。此地此詩。果如來諭所謂崔顥李白之鶴樓鳳臺。則作銘者當以此詩爲案。何故無一言之及此邪。若夫英廟諭祭文一段。誠是金石之典。聖言至嚴。指意渾涵。非議論敢到之地。而曾在癸巳年間。貴道章甫發文於南原旌忠堂。轉投鄙鄉。而謄示堂中古事日記曰。金某與趙某李某上矗石樓作此詩。其後三大將死於矗石樓中。乃其驗云云。是則貴道士林。固以是詩。爲金先生之作。而以三烈士之殉節爲其驗。今來諭乃反以爲崔公之自作而自殉。是貴道士林之見。前後各異。自相矛盾。來諭奉置何地之歎。僉尊之所宜自省。非生等之所敢與聞也。噫。壯士二字。初非極摯之稱。數句短詠。非關節義之實。金先生不以是詩之存而加重。三公亦豈以是詩之無而或損哉。僉尊揚眉奮袂。必欲與奪於其間。不惟詆誣金先生而亦淺之爲尊三公也。且其辭氣之間。陵轢先輩。少無遜讓尊畏之風。未論事之是非。卽此氣象。已先不好矣。生等與僉尊未有一揖之雅。不欲費力分疎自陷於呶呶。只据古蹟之可信者。以明本事之是非。伏願僉尊垂察焉。幸甚。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대산집(https://db.itkc.or.kr/)

(80)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별집 권3, 「인남방유생소 고경명 의김천일례 포숭의(因南方儒生疏 高敬命依金千鎰例 褒崇議)」

임진년 초에 열군(列郡)이 바람에 쏠리듯 무너져서 기력(氣力)을 내서 나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김천일, 고경명 등이 으뜸으로 의병(義兵)을 일으키어 죽기를 맹세하고 왕사(王事)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의성(義聲)이 미친 곳에 사람들이 점차 인간으로서 하루라도 충의(忠義)의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서로 인도하여 일어나 뭉쳐서 의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곳곳에서 적을 참획(斬獲)함으로써 호남(湖南)의 공이 팔도(八道)의 으뜸이 되었고 고경명, 김천일은 똑같이 의병의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공과 마음은 진실로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으나, 그 행적을 거론함에 이르러서는 선후 고하(先後高下)가 약간 있을 뿐입니다.

신은 유사(有司)가 증직(贈職)을 의논할 때의 논의가 어떠했고 무엇을 근거했는지 몰라서 지금 감히 억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신이 변란 초기부터 오랫동안 중병(中兵)에 참여하여 무릇 제장(諸將)의 공죄(功罪)와 숙특(淑慝)에 대해서 직무상 당연히 주관을 하게 되었으므로, 수십 인을 뽑아 내어 장계(狀啓)의 말을 참작해서 거기에 청탁(淸濁)의 구분을 대략 첨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볍고 말이 천박하여 세인(世人)으로부터 신용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히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마침 이 일을 인하여 감히 이전의 소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경명은 금산(錦山)의 싸움에서 어둠을 틈타 행군(行軍)하여 좁고 험한 길목에서 적을 만나 돌격하다가 군사들이 패하여 무너지자 한 많은 뜻을 품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말하기를, "그 공으로 말하자면 의병(義兵)의 선도자이며 지사(志士)의 우두머리이고, 그 행적으로 말하자면 군사가 패하여 왕사(王事)에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입니다.

김천일의 경우는 그 공과 마음은 고경명과 똑같으나, 그 행적은 남보다 두어 등급이 더 높은 데가 있습니다. 진주(晉州)가 위급해진 때를 당하여 김천일은 의병장(義兵將)으로서 마침 도내(道內)에 있었던 바, 당시에는 상장(上將)이 명령을 전달하거나 지휘하는 일도 없었으므로, 24일에 홀로 3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장 먼저 진주성(晉州城)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황진(黃進), 최경회(崔慶會), 고종후(高從厚), 장윤(張潤), 이계련(李繼璉), 민여운(閔汝雲) 등이 풍문을 듣고 차례로 진주성을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 첫 번째 어려운 일입니다.

그 후 선거이(宣居怡), 홍계남(洪季南) 두 사람이 최후로 진주성에 들어가서는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물러가서 내면(內面)을 지키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장수는 본래부터 전쟁에 익숙하다는 명성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말이 이와 같았으니 여러 장수가 모두 그 말을 옳게 여기었으나, 김천일은 좌중(坐中)에 항언(抗言)하여 그리 못 하게 하고 마침내 성을 지킬 계획을 정하였는데, 끝내 선거이, 홍계남은 독자적으로 나가서 운봉(雲峯)에 진(陣)을 쳤

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몸소 관군(官軍)을 통솔하였기에 나아가고 그치는 데에 절제(節制)가 있었으나 그들이 성을 나가도 금할 자가 없었는데, 김천일은 의병장으로서 나아가고 그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만큼, 유독 성을 나가서 스스로 보전하지 못할 리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그 두 번째 어려운 일입니다.

성이 함락되던 날에 이종인(李宗仁)이 동문(東門)을 지키다가 죽어서 군중(軍中)이 크게 어지러워지자, 서예원(徐禮元)은 놀라서 달아나고 적들은 곧 성을 넘어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좌우에서 김천일을 부축하여 일으켜서 잠시 피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김천일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자기 아들 상건(象乾)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의당 여기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끝내 그 말과 같이 하였으니, 이것이 그 세 번째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그 당시 장계에 기록된 말 가운데서 우선 그 대강만을 열거한 것일 뿐이고, 기타 처치(處置)를 타당하게 한 일 또한 볼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이 함락되던 때에는 일이 온통 경황이 없는 가운데 용사(龍蛇)가 변모하여 나타나고 풍우(風雨)가 함께 몰아쳤으며, 심지어 그 부곡(部曲)들까지도 모두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곡절(曲折)들이 혹 일일이 다 부합되기를 기필하지는 못하겠으나, 그곳을 탈출한 군사의 말에 나타난 것과 장계의 말에서 나온 것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그 공과 마음은 고경명과 똑같으나 그 행적으로 논한다면 남보다 두어 등급이 더 높은 데가 있다."라고 하는 바입니다.

설사 고경명 또한 그토록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마음으로 김천일 같은 어려움을 당했더라면 그 열렬히 빛나는 충성은 혹 김천일보다 더할 수도 있었겠으나, 다만 그가 만난 형세가 달랐기 때문에 입장이 서로 다름에 따라 행적 또한 같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열사(烈士)가 숭상하는 것은 마음이요 국가에서 포숭하는 것은 행적이니 약간의 차등은 두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당시 유사가 증직을 의논할 때에 그 논의가 과연 여기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청탁을 구분한 것은 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종후, 장윤의 일에 대해서는 과연 알 수가 없습니다. 사사로운 뜻으로 헤아리건대, 그 당시 온 성안의 여러 장수 가운데 이종인, 김준민(金俊民) 등은 모두 용맹이 일군(一軍)의 으뜸으로 본래부터 웅명(雄名)을 떨쳤으나, 온 성안의 군정(軍情)은 유독 황진, 장윤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적들이 성안으로 불을 던져 성안의 초옥(草屋)들이 잇달아 불에 타서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가득하자, 성안의 사람들이 기가 꺾이고 목사(牧使) 서예원은 겁에 질려 어찌할 줄을 몰랐으므로, 군중에서 장윤을 가목사(假牧使)로 추대하여 서예원의 일을 대행(代行)케 하니, 일군이 이에 편안해졌습니다.

28일에 황진이 탄환(彈丸)을 맞고 쓰러지자, 서예원이 황진을 대신하여 성을 순행하면서 여전히 겁에 질려 모자를 벗고 눈물을 흘리곤 하므로, 최경회가 군사들을 놀라게 한다는 이유로 그를 곧 참수(斬首)하려다가 그만두고 장윤을 그 대신으로 삼으니, 성안의 사람들이 장윤을 믿

고 의지하여 중히 여겼다고 운운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윤은 애당초 편비(褊裨)가 아니었고 부장(副將)으로부터 출신(出身)하여 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 장윤이 황진과 함께 으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신이 본주(本州)에 내려가 지난 일들을 탐문함에 이르러서는 성안의 유민(遺民)들이 지금까지도 유독 장윤만을 칭찬하여 마지않았으니, 이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비추어진 것이 이러했기 때문에 유사가 그 드러난 행적을 기초로 이처럼 증직을 하였나 봅니다.

그리고 의리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재물을 내어 사당을 세워서 영원토록 전하려고 하는 일은 또한 국가에서 충성을 권장하는 거조(擧措)에 관계되니, 특별히 그 뜻을 윤허하시는 것이 진실로 사의(事宜)에 합당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께서 재결하소서.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백사집(https://db.itkc.or.kr/)

壬辰初。列郡風靡。無一人出氣力誰何者。金千鎰·高敬命等。首倡義旅。誓死勤王。義聲所及。人稍稍知人間不可一日無忠義之心。而相率而起。團聚爲兵。在在斬賊。則湖南之功。爲八道之首。而敬命·千鎰。爲義兵之倡。其功與心。固無分毫之差也。至擧其迹。則略有先後高下之異。臣不審有司議贈之時論議如何有何所據。今不敢臆斷。第臣自變初。久參中兵。凡諸將功罪淑慝。職當主管。故拈出數十人。參以狀啓之辭。略加涇渭。顧以人輕言淺。難以取信於世。不敢語人。今適因此。敢獻前見。敬命於錦山之戰。乘暗行師。蛇路狹險。値賊豕突。軍潰而亂。齎志而死。臣故曰。其功則義兵之倡。志士之首。其迹則兵敗而死於王事者也。至於千鎰。則其功與心。與敬命同。而其迹有加人數等處。當晉州之急。千鎰以義兵將。適在道內。時無上將傳令指揮之事。以二十四日。獨領三百。敢先入城。然後黃進·崔慶會·高從厚·張潤·李繼璉·閔汝雲等。聞風次第入城。此其一難也。及宣居怡·洪季男二人。敢後入城。以爲賊衆我寡。不如退守內面。二將素有慣戰之名。而其言如此。諸將咸以爲然。而千鎰於坐中。抗言止之。遂定守城之計。居怡·季男。獨自出陣于雲峯。此二人。身統官軍。進止有節制。然出城而無禁。千鎰以義將。進止任意。獨不能出城自全乎。而乃能如此。此其二難也。城陷之日。李宗仁守東門而死。軍中大亂。徐禮元驚走。賊登城將迫。左右扶起千鎰。勸使暫避。千鎰堅坐不起。顧謂其子象乾曰。當死於此。竟如其言。此其三難也。此皆當時狀啓之辭。姑擧其略。而其他處置之宜。亦有可觀。城陷之時。事多蒼黃。龍蛇變現。風雨交發。雖其部曲。并皆散落。如此曲折。或未必一一盡符。而現於脫軍之言。發於狀啓之辭。則如此。臣故曰。其功與心。與敬命同。而至論其迹。則有加人數等處也。設使敬命。以首事之心。當千鎰之難。則其忠烈烈炳然者。或有以過之。而特以所遭之勢異。故易地之迹不同。今烈士之所尙者心。而國家之所褒者迹。則不得不有差等之殊。第未知當時有司議贈之時。其論果出於此也。臣之所嘗涇渭者。如此而已。至於從厚·張潤之事。果不可知矣。以臆意料之。當時一城諸將如李宗仁·金俊民等。皆勇冠一軍。素著雄名。而一城軍情。獨惟黃進·張潤爲重。故及二十五日。賊投火於城。延燒城內草屋。烟焰漲天。城中氣沮。牧使徐禮元。畏惴顚倒。軍中推張潤爲假牧使。代行禮元之事。一軍乃安。及

二十八日。黃進中丸。禮元代進巡城。畏惻如前。脫笠揮涕。崔慶會以其驚軍將斬而止。代以張潤。城中倚以爲重云云。則潤初非褊裨。出自副將。而守城之事。潤與黃進爲首。及臣行到本州。尋問往事。則城裡遺民。至今獨稱潤不已。意者。當時照在耳目者若是。故有司因其著迹而贈之如是歟。至於慕義之徒。出財建祠。以永厥垂。亦係國家勸忠之擧。特許其意。允合事宜。伏惟上裁。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백사집(https://db.itkc.or.kr/)

(81) 신경(申炅),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2

김천일(金千鎰)은 자는 사중(士重)이요 그 조상은 광주인(光州人)이었는데, 그의 조부 때부터 나주(羅州)에 이사하여 와서 살았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가난하게 살다가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독실한 뜻으로 힘껏 행하여 언제나 성현을 법도로 삼았다. 유일(遺逸)로서 천거되어 내·외직을 거쳤는데, 모두 직무를 잘 수행하였다. 대관(臺官)이 되어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말과 직간을 하였다. 용모는 보잘것없고 키는 작아서 마치 입은 옷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으나 의로운 일에 당하여 용감함에 있어서는 비록 맹분(孟賁)과 하육(夏育)[159]일지라도 꺾을 수 없었으니 충의로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었다. 전직 부사로서 나주의 시골집에 은퇴하여 살았는데, 서울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목놓아 통곡하여 거의 기절하다가 다시 분연히 말하기를,

"내가 울기만 하면 무엇하겠는가? 나라에 환란이 있어 임금께서 파천하였는데, 나는 세신(世臣)으로서 어찌 새나 짐승처럼 도망하여 살기를 원해서야 되겠는가. 내 의거를 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힘으로 대적할 수 없으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내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는 글로써 고경명(高敬命)·박광옥(朴光玉)·최경회(崔慶會)·정담(鄭湛) 등에게 전란에 종사할 뜻을 전하니, 고경명(高敬命) 역시 그의 두 아들 고종후(高從厚)와 고용후(高用厚) 및 전 학유(學諭) 유팽로(柳彭老)·선비 안영(安瑛) 등을 거느리고 담양부(潭陽府)로 와서 모였고, 의사(義士) 송제민(宋濟民)·양산룡(梁山龍)·양산숙(梁山璹)·임환(林懽)[160]·이광주(李光宙)·서정후(徐廷厚) 등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6월 3일에 피를 마시며 여러 사람과 맹세를 하였다. 김천일(金千鎰)이 평소에 몸이 약하고 병들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흔연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칼을 차고 말을 타니 거뜬하여서 날 것 같다."

하고, 이에 최경회(崔慶會) 등과 먼저 본군(本郡)의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하였다.

金千鎰者。字士重。其先光州人。自其祖父徙羅州。少孤而貧。游一齋李恒之門。篤志力行。動以聖

159)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모두 옛날의 용맹한 사람이다.

160) 원문에는 '임권(林權)'으로 되어 있으나 '임환(林懽)'이 맞으므로 고쳐 적는다.

賢爲法。擧遺逸。歷敭內外。皆稱職。爲臺官。敢言直諫。貌寢身短。若不勝衣。至其勇於爲義。雖賁育莫之奪也。忠義之性。蓋自植。以前府使。屛居羅州田舍。聞京城不守。號慟幾絕。旣而奮曰吾徒哭何爲。國旣有難。君父播越。吾以世臣。豈可鳥竄求活。吾擧義以赴難。强弱不敵。有死而已。此可以報。乃以書馳告于高敬命·朴光玉·崔慶會·鄭湛等。以赴難之意。敬命亦率其二子。從厚用厚。及前學諭柳彭老士人安瑛等。來會潭陽府。義士宋濟民·梁山龍·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聞風來赴。以六月三日。歃血誓衆。千鎰素有羸疾。至是欣然語人曰。今日吾帶劍跨馬。洒然欲輕擧矣。乃與崔慶會等。先率本郡兵西向。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재조번방지(https://db.itkc.or.kr/)7)

7) 김희수(金希壽, 1553~1592)

• 본관 김해(金海), 자 인보(仁甫), 호 직재(直齋)

(1) 민정중(閔鼎重), 『노봉집(老峯集)』 권10, 「임진유문[161](壬辰遺聞)」

왜구 중에 이름이 평조익(平調益)이란 자가 하나 있었다. 그가 일찍이 통신사(通信使)를 따라왔을 적에, 송상현이 그를 자못 후하게 대접한 일이 있었다. 평조익은 그때 일에 감복해서 은혜를 갚고자 생각하여, 급히 앞으로 달려가 눈짓으로 먼저 피하도록 하였다. 송상현이 응하지 않자, 평조익은 또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성 옆의 틈새를 가리켰다. 그러나 송상현은 벌써 호상에서 내려와 북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었다. 절이 끝나자 편지를 써서 그의 아버지께 보내게 하였는데, "외로운 성에 달무리가 졌는데, 여러 진영에서는 베개를 높이 베고 태평합니다. 군신 간의 의리는 무겁고, 부자간의 은혜는 가볍나이다."라고 썼다. 또한 시종에게 경계하기를 "너희들 가운데 탈출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내 시신을 거두도록 하라. 내 배꼽 아래에 콩알만 한 검은 사마귀가 있으니, 증거가 될 수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군관(軍官) 송봉수(宋鳳壽)와 김희수(金希壽) 등 너덧 사람과 향리(鄕吏) 대송백(大宋伯)·소송백(小宋伯) 그리고 관노(官奴) 철수(鐵壽)와 매동(邁同) 및 급창(及唱) 등이 좌우에 줄지어 섰는데, 적병들이 앞으로 닥쳐왔다. 송봉수와 김희수 그리고 대송백 등이 맞아 싸우다가 죽었고, 송상현도 마침내 살해되었다. 소송백과 철수 · 매동 등은 포로가 되어 죽지 않았기에 송상현의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살펴보니 과연 검은 사마귀가 있었다. 북쪽 산의 밤나무 숲 사이에 장례를 지냈는데, 적장이 듣고서 혀를 차며 탄식하였다. 그러고는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대 주고, 시를 지어 제사를 올리게 하였으며, 송상현을 살해한 자를 찾아내 목을 베었다. 이때부터 망루

161) 임진유문: 이 글은 뒷날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동래남문비(東萊南門碑)」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宋子大典 卷171 東萊南門碑』.

위에서는 붉은 기운이 늘 하늘까지 뻗쳤는데, 몇 년 동안 흩어지지 않았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노봉집(https://db.itkc.or.kr/)

有一倭名平調益者。曾隨信使至。象賢待之頗厚。調益感而思報。急趨前目令先避。象賢不應。調益又牽衣指城傍隙地。象賢已下床北向拜矣。拜已。爲書以遺其父曰。孤城月暈。列鎭高枕。君臣義重。父子恩輕。又戒其從者曰。汝輩有得脫者。宜收吾屍。吾臍下有黑痣如豆。可驗。軍官宋鳳壽·金希壽等四五人。鄕吏大宋伯·小宋伯。官奴鐵壽·邁同·及唱等。列立左右。賊兵逼前。鳳壽·希壽·大宋伯等格鬪而死。象賢遂遇害。小宋伯·鐵壽·邁同等就俘得不死。爲收象賢屍。驗之果有黑痣。葬于北山栗林之間。賊將聞而嗟歎。資其葬需。爲詩以祭之。引出害象賢者斬之。自是譙樓之上。常有紫氣亘天。數年不滅。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노봉집(https://db.itkc.or.kr/)

(2)『숙종실록(肅宗實錄)』 권49, 36년 11월 10일

동래 부사(東萊府使) 권이진(權以鎭)이 장계(狀啓)하기를,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양산 군수(梁山郡守) 조영규(趙英圭), 동래 교수(東萊敎授) 노개방(盧蓋邦), 제생(諸生) 문덕겸(文德謙), 비장(裨將), 송봉수(宋鳳壽) · 김희수(金希壽), 부리(府吏) 송백(宋伯), 부민(府民) 김상(金祥) · 송상현(宋象賢)【곧 부사(府使)이다.】, 겸인(傔人) 신여로(申汝櫓)가 국난(國難)에 함께 순절(殉節)하였습니다. 이들에게 포장(褒奬)을 더하여 윤상(倫常)을 부지(扶持)함이 마땅한데, 쓸쓸히 1백 년 동안 절일(節日)에 한 그릇의 밥을 놓고 충혼(忠魂)을 위로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이 이미 여러 사람이 순절(殉節)한 옛 땅에 빈 터를 사서 조영규(趙英圭)를 제사하게 하고 노개방과 제생 문덕겸은 또 낭무(廊廡)를 지어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비장(裨將)·부리(府吏) 이하 항절(抗節)한 자들에게 사액(祠額)을 내려 주시고, 관원을 보내어 사제(賜祭)하셔서 1백 년의 충혼(忠魂)을 위로하고, 변민(邊民)의 관첨(觀瞻)을 용동(聳動)시키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부산(釜山) 자성(子城)에 부러진 비(碑)가 있는데, 명(明)나라의 경리(經理) 만세덕(萬世德)의 동정(東征)한 공(功)을 서술하고, 장사(將士) 59인의 성명이 음각(陰刻)되어 있습니다. 만공(萬公)은 경이(卿貳)의 존귀(尊貴)한 몸으로 정절(旌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2년 동안 수고롭게 지키며, 경(經)에 이른바 '큰 환난(患難)을 막았으니 제사 지내야 한다.'라는 데에 합당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힘을 다하여 날마다 쌀과 베를 이 땅에 실어 보내어 원수인 왜인(倭人)들에게는 주고, 명나라의 여러 해 동안 노고(勞苦)하며 수적(讎賊)을 확청(廓淸)한 사람에게는 한 조각 향(香)을 준비하여 분향(焚香)한 적이 없었으니, 신은 적이 이를 슬프게 여깁니다. 마땅히 이 땅에 만공(萬公)을 위해 묘우(廟宇)를 세워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구히 이 적(賊)

을 잊을 수 없고, 영구히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예조(禮曹)에 내렸는데, 복주(覆奏)하기를,

"사액(祠額)의 일은 그 청에 부응(副應)하는 것이 마땅하며, 경리(經理)를 위해 묘우(廟宇)를 세우는 일은 전에 미처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뒤좇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東萊府使權以鎭狀言。

壬辰之亂。梁山郡守趙英圭·東萊敎授盧盖邦·諸生文德謙·裨將宋鳳壽·金希壽·府吏宋伯·府民金祥·宋象賢【卽府使也。】僉人申汝櫓。同殉國難。合加褒奬。以扶倫常。而寥寥百年之間。未有時節一盂飯。以慰忠魂。臣已於諸人殉節舊地。買一隙地。以祀英圭。盖邦·諸生文德謙。又爲翼廡以祭。裨將·府吏以下抗節者。乞賜祠額。遣官賜祭。以慰百年之忠魂。聳邊民之觀瞻。

又言。

釜山子城。有折碑。敍天朝經理萬世德東征之功。其陰刻將士姓名五十九人。萬公。以卿貳之尊。杖節東臨。勞戒[162]二年。亦經所謂。抗大難。則祀之者也。今者竭國之力。日輸米布於此地。以給饑倭。而不爲天朝累年勞苦。廓淸饑賊之人。燒一瓣香。臣竊悲之。宜於此地。爲萬公立廟。使邊民。知萬世不可忘此賊。萬世不可忘此恩。

上下禮曹。覆奏。祠額事。宜副其請。爲經理立廟事。前所未遑。到今追擧。未知合宜。從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3) 『숙종실록(肅宗實錄)』 권54, 36년 12월 2일

을해년

명하기를,

"임진란(壬辰亂)에 싸우다 죽은 고(故) 첨사(僉使) 정발(鄭撥)·군수(郡守) 조영규(趙英圭)·유생(儒生) 문덕겸(文德謙), 비장(裨將) 김희수(金希壽) · 송봉수(宋鳳壽), 호장(戶長) 송백(宋伯)·겸인(傔人) 신여로(申汝櫓) · 부민(府民) 김상(金祥) 등을 모두 동래(東萊)의 충렬사(忠烈祠)에 배향(配享)하고,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致祭)하라."

하였는데, 충렬사(忠烈祠)는 바로 고(故) 동래 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의 사당이다.

乙亥。命故壬辰戰亡人僉使鄭橃·郡守趙英圭·儒生文德謙·裨將金希壽·宋鳳壽·戶長宋伯·傔人申汝櫓·府民金祥等·竝享于東萊忠烈祠。遣禮官致祭。祠。卽故府使宋象賢之祠也。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162) 원문에는 '戊'로 되어 있으나 지키다, 경계하다의 뜻인 '戒'로 수정하였다.

8) 나대용(羅大用, 1556~1612)

• 본관 금성(錦城), 자 시망(時望), 호 체암(遞庵)

(1)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임진년 4월

18일 정미. 아침엔 흐렸다. 아침 일찍 동헌에 나가 일을 하였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발포권관은 이미 파직되어 떠났으니 임시로 맡을 장수로 곧 정해 보내라."라고 하였기에 나대용을 그날로 정해 보냈다. 미시(未時)에 영남 우수사(嶺南右水使)의 관문이 도착했는데, '동래(東萊) 또한 함락되었고, 양산(梁山), 울산(蔚山)의 두 수령 또한 적들이 장차 들어오려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했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十八日丁未。朝陰。早朝。出東軒公事。巡使關來到。鉢浦權管。已爲汰去。假將定送云。故羅大用卽日定送。未時。到嶺南右水使關。東萊亦爲陷沒。梁山。蔚山兩守。亦以助防將入。未時。到嶺南右水使關。東萊亦爲陷沒。梁山。蔚山兩守。亦以助防將入。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2)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2, 「부원경상도장(赴援慶尙道狀)」

삼가 아룀은 사변에 대비하는 데에 관한 일입니다.

(중략) 본도의 수군을 징발하여 적선을 추격하여 10척을 태워 없앴으나, 나날이 병사를 끌어들여 적세는 더욱 치성해졌습니다. 적은 많은데 우리는 적기 때문에 적과 상대가 될 수 없고, 본영(경상우수영)도 이미 함락되었는지라 두 도가 합세하여 적선을 공격하면 상륙한 왜적들이 후방을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귀도(전라좌도)의 군사와 전선을 남김없이 징발하여 당포 앞바다로 급히 달려와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으므로 소속 수군을

중위장에 방답첨사 이순신(李純信)[163], 좌부장에 낙안군수 신호(申浩)[164], 전부장에 흥양현

163) 이순신(李純信): 1554~1611.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입부(立夫)이다. 1578년(선조 11) 무과에 급제하였고,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온성(穩城)과 의주(義州)의 판관(判官)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공이 많아 선무공신(宣武功臣)으로 완천군(完川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무의(武毅)이다.

164) 신호(申浩): 1539~1597.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언원(彦源)이다. 1567년(명종 22)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전해에 전라좌수사로 발탁되었던 이순신(李舜臣)을 도와 견내량(見乃梁)·안골포(安骨浦) 등의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교룡산성수어사(蛟龍山城守禦使)로 있다가 남원성이 왜군에게 포위되자, 이를 구원하러 갔다가 전사하였다.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고 형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남원의 충렬사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무장(武壯)이다.

감 배흥립(裵興立)[165], 중부장에 광양현감 어영담(魚泳潭)[166], 유군장에 발포가장이며 영군관인 훈련봉사 나대용(羅大用), 우부장에 보성군수 김득광(金得光), 후부장에 녹도만호 정운(鄭運)[167], 좌척후장에 여도권관 김인영(金仁英)[168], 우척후장에 사도첨사 김완(金完)[169], 한후장에 본영군관으로 있는 급제 최대성(崔大成), 참퇴장에 본영 군관으로 있는 급제 배응록(裵應祿)[170], 돌격장에 본영 군관으로 있는 이언량(李彦良) 등으로 모두 부서를 나누어 거듭 약속을 분명히 하였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謹 啓爲待變事。

(中略) 本道舟師抄發追擊。賊船十隻焚滅。日漸引兵。賊勢益熾。彼衆我寡。未能相敵。本營亦已被陷。兩道合擊賊船。則登陸倭寇。庶有顧後之慮。貴道軍船。無遺抄發。唐浦前洋。馳進爲宜云云所屬舟師中衛將防踏僉使李純信·左部將樂安郡守申浩·前部將興陽縣監裵興立·中部將光陽縣監魚泳潭·遊軍將鉢浦假將營軍官訓鍊奉事羅大用·右部將寶城郡守金得光·後部將鹿島萬戶鄭運·左斥候將呂島權管金仁英·右斥候將蛇渡僉使金浣·捍後將營軍官及第崔大成·斬退將營軍官及第裵應祿·突擊將營軍官李彦良。申明約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

165) 배흥립(裵興立): 1546~1608. 본관은 성산(星山), 자는 백기(伯起)이다. 1572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과 원균(元均)의 부장(部將)으로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1600년(선조 23)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이듬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고, 1604년에는 왜란 중에 세운 공로로 공조참판에 올랐다. 시호는 효숙(孝肅)이다.

166) 어영담(魚泳潭): 1532~1594.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1564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양현감으로서 이순신의 수로를 인도하였다.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棋)와 함께 거제 앞바다에서 원균과 합세하여, 옥포 앞바다에서 왜선 30여 척을 불사르고 적진포(赤珍浦)에서 왜선을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해 전공을 인정받아 통정(通政)에 가자되었다. 이듬해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에 의하여 조방장에 임명되었다. 1594년 전염병에 걸려 한산 통제영에서 세상을 떠났다.

167) 정운(鄭運): 1543~1592.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창진(昌辰)이다. 1570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1591년 녹도만호(鹿島萬戶)가 되어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휘하에서 큰 공을 세우고, 부산포해전에서 우부장(右部將)으로 선봉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1604년에 병조참판에, 1796년(정조 20)에 병조판서 겸 의금부훈련원사로 추증되었다. 흥양 쌍충사(雙忠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168) 김인영(金仁英): 1543~?. 본관은 선산(善山), 자는 덕부(德夫)이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여도권관(呂島權管)으로서 이순신(李舜臣)의 지휘 아래에서 크게 활약하고 많은 전공을 세웠다. 1597년(선조 30)에는 이순신이 백의종군 중 다시 수군통제사가 되자, 명량해전(鳴梁海戰)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뒤에 현감에 제수되었다.

169) 김완(金完): 1577~1635.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자구(子具)이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전라병사 이복남(李福男)의 휘하에 들어가서 활약하였다. 이해 여름에 무과에 급제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원수(元帥) 장만(張晩)의 선봉장으로 안현(鞍峴)에서 공을 세워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에 책록되고 학성군(鶴城君)에 봉해졌다. 병조 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는 양무(襄武)이다.

170) 배응록(裵應祿): 1552~?. 본관은 화순(和順), 자는 여수(汝綏)이다. 1584년 별시무과에 급제하였다.

(3)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임진년 5월

29일 무술(戊戌). 맑다. 우수사가 오지 않으므로 혼자서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새벽에 떠나 곧장 노량에 이르렀다. 경상 우수사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곳에 와서 함께 상의했다. 왜적이 배를 댄 곳을 물으니, 적은 지금 사천 선창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가보니 왜인들은 벌써 뭍으로 내려 산봉우리 위에 진을 치고 배는 그 봉우리 밑에 줄지어 정박해놓았는데, 항거하며 싸우는 것이 매우 견고했다. 나는 모든 장수를 독려하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화살을 빗발치듯 퍼붓고 각종 총통을 마치 바람과 우레같이 어지러이 쏘아대니 적들이 두려워 물러났다. 화살에 맞은 자가 몇 백 명인지 알 수가 없고 왜적의 머리도 많이 베었다. 적선 13척을 불태웠다.[171] 군관 나대용이 총에 맞았으며 나도 왼쪽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았다. 탄환이 등을 뚫고 나갔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사부와 격군 가운데도 탄환 맞은 사람이 많았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二十九日戊戌。晴。右水使不來。獨率諸將。曉發直到露梁。則慶尙右水使來會。問賊所泊處。則賊在泗川船滄云。故直至其處。倭人已爲下陸。結陣峯上。列泊其船于峯下。拒戰甚固。余督令諸將。一時馳突。射矢如雨。放各攙銃筒。亂如風雷。賊徒畏退。逢箭者不知幾百數。多斬倭頭。焚滅十三隻。軍官羅大用中丸。余亦左肩上中丸。貫于背。不至重傷。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4)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2, 「당포파왜병장(唐浦破倭兵狀)」

접전할 때, 적의 철환이 신의 왼편 어깨를 맞히고 등을 뚫었으나, 중상에 이르지 않았으며, 신의 군관 봉사 나대용도 철환을 맞았고, 전 봉사 이설도 화살에 맞았는데 모두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중략) 중위장 권준(權俊), 전부장 이순신, 중부장 어영담, 후부장 배흥립, 좌부장 신호, 우부장 김득광, 좌척후장 정운, 우척후장 김완, 거북선 돌격장 급제 이기남(李奇男)[172], 신의 군관 이언량, 좌별도장 이몽구(李夢龜)[173], 우별도장 김인영, 한후장이며 신의 군관인 전 권관 가안책(賈安策)과 대솔 군관인 봉사 변존서(卞存緖)[174], 나대용, 전 봉사 송희

171) 원문에서는 '물러나왔다(退駐)'가 누락되었으며 순서 역시 다르다.

172) 이기남(李奇男): 1553~?.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대윤(大胤)이다. 1591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전라좌수영에 자원 종군하여 이순신 휘하에 들어가 해전의 승첩에 많은 전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173) 이몽구(李夢龜): 1554~1597. 본관은 공주(公州). 자는 상서(祥瑞)·서백(瑞伯), 호는 석계(石溪)이다. 1583년 무과에 급제하고, 1591년 전라좌수영 우후(虞侯)로 전임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순신의 막하에서 활약하였다. 1597년(선조 30)의 정유재란 때 남해 노량만(露梁灣)에서 왜적을 추격하던 중 전사하였다. 1605년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고, 가선대부에 추증되었다.

174) 변존서(卞存緖): 1561~?.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흥백(興伯)이다. 1583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립(宋希立)[175], 이설(李偰)[176], 신영해(申榮海)[177], 급제 김효성(金孝誠), 배응록, 정로위(定虜衛) 이봉수(李鳳壽)[178] 등은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힘써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관원과 군사들도 앞을 다투어 적진으로 돌진한 사람들은 공로의 대소를 논의하여 포장하는 일을 만약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 뒤에 결정하려면 왕복하는 동안에 시일은 늦어집니다. 더구나 행재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길이 막혀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적을 물리치지 못한 채, 상을 주어야 할 시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接戰時。賊之鐵丸。中臣之左肩。貫于背而不至重傷。臣軍官奉事羅大用。亦中鐵丸。前奉事李偰。逢箭。并不致死。(中略) 中衛將權俊·前部將李純信·中部將魚泳潭·後部將裵興立·左部將申浩·右部將金得光·左斥候將鄭運·右斥候將金浣·龜船突擊將及第李奇男·臣軍官李彦良·左別都將李夢龜·右別都將金仁英·捍後將臣軍官前權管賈安策·及帶率軍官奉事卞存緖·羅大用·前奉事宋希立·李偰·申榮海·及第金孝誠·裵應祿·定虜衛李鳳壽等。奮不顧身。終始力戰。羣下吏士爭首赴敵人等論功褒奬事。若待朝廷命令後磨鍊。則往復之間。時月遲延。加之以行在所隔遠。道路阻塞。人不能通行。劇賊未退。賞不可逾時。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5)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계사년 3월

12일 정묘(丁卯). 맑다. 아침에 각 관청의 공문을 처리하여 보냈다. ○염(苒)과 나대용, 김인문도 본영으로 돌아갔다. ○밥을 먹은 뒤 원균이 거처하는 방에서 바둑을 두었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十二日丁卯。晴。朝。各官公事題送。○苒及羅大用·金仁問歸營。○食後。手談于右令公。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

175) 송희립(宋希立): ?~?.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신중(信仲)이다. 1583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지도만호(智島萬戶)로 형 대립(大立)과 함께 의병을 모아 이순신 휘하에 들어가 종군하고, 1598년 정유재란 때 노량해전에서 왜군에게 포위된 명나라 도독(都督) 진린(陳璘)을 구출하면서 전신에 중상을 입었다. 1601년(선조 34) 양산(梁山)군수·다대포첨절제사(多大浦僉節制使)를 지내고 이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흥양(興陽)의 세충사(世忠祠)에 배향되었다.

176) 이설(李偰): 1554~1598. 본관은 양성(陽城)이다. 1579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의 휘하에서 나대용과 함께 거북선을 만들었다. 여러 해전에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고,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순국하였다. 선무원종공신으로 책정되었고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에 추증되었다.

177) 신영해(申榮海): 1557~?.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화경(華卿)이다. 158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178) 이봉수(李鳳壽): ?~?.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기옹(岐翁), 호는 죽헌(竹軒)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우 이만수(李萬壽)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 도산전투(島山戰鬪)에서도 큰 전공을 세웠으나 적탄을 맞아 형제가 모두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책훈되었다.

(6)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계사년 5월

22일 을해(乙亥). 비가 계속 내려서 사람들의 바람을 흡족하게 채웠다. 아침 늦게 나대용이 본영에서 이르러 송시랑(宋侍郎)의 공문을 가지고 왔다. 송시랑이 파견한 사람이 전선을 시찰하러 온다고 했다. 곧 우후로 하여금 영접하도록 내보냈다. 나대용(羅大用)을 문안하는 일로 내어 보냈다.

24일 정축(丁丑).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아침에 거제 앞 칠천량 바다 어귀로 진을 옮겼다. 나대용이 사량(蛇梁) 바다 뒤쪽에서 명나라 관리를 발견하고 먼저 와서, 명나라 관리와 통사 표헌(表憲)[179]과 선전관 육광흠(睦光欽)이 온다고 전하였다. 미시(未時, 오후 두 시쯤)에 명나라 관원 양보(楊甫)가 진문에 이르므로, 나가서 우별도장(右別都將) 이설을 맞이하고 배로 안내하여 데려오니, 매우 기뻐하는 기색이었다. 우리 배로 청하여 오르게 하고, 황제의 은혜를 재삼 사례하며 마주 앉기를 청하니 굳이 사양하였다. 그는 앉지 않고 선 채로 한 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하며 수군이 장하다고 매우 칭찬하였다. 예물 명단을 올리니,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는 듯하더니, 마침내 받고는 매우 기뻐하며 두 번 세 번 감사하다고 했다. 아들 회(薈)[180]가 밤에 본영으로 돌아갔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二十二日乙亥。雨雨。大洽人望。晩朝。羅大用至自本營。持宋侍郎牌文而來。宋侍郎差員以戰船探察事入來云。卽定虞候出送延候。羅大用以問禮事出送。

二十四日丁丑。乍雨乍晴。朝。移陣于巨濟前漆川梁海口。羅大用探見唐官于蛇梁後洋。先來傳唐官及通事表憲與宣傳官睦光欽來云。未時。唐官楊甫到陣門。使右別都將李滐出迎。引來到船。多有喜色。請乘我船。謝皇恩再三。邀與對坐。則固辭不坐。立談移時。多稱舟師之盛。致禮單則初似固辭而受之。喜悅致謝至再。豚薈夜歸本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7)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계사년 6월

8일 신묘(辛卯). 잠시 맑더니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였다. 나대용이 병 때문에 본영으로 돌아갔다. ○탐색선이 들어왔다. ○각 고을의 담당 서리 11명을 처벌하였다. 옥과현의 향소에서

---

179) 표헌(表憲): ?~?. 본관은 신창(新昌)이다. 선조대의 어전통사(御前通事)로서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고 설연(設宴)하는 데 있어 임기응변적 통역과 조처로써 왕의 곤경을 모면하게 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 조선 사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였고, 명나라 경략사(經略使) 송응창의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180) 회(薈): 이회(李薈, 1567~1625)로,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무백(茂白), 충무공 이순신의 아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를 따라 한산도해전을 비롯하여 여러 해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음보(蔭補)로 임실현감에 제수되었고, 통훈대부(通訓大夫)가 되고 이어서 첨정에 승직되었다. 통정대부(通政大夫) 좌승지에 추증되고, 임진왜란의 공으로 선무원종공신으로 책록되었다.

지난해부터 군사를 동원하는 일이 부실하여 도망간 사람이 거의 1백여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도 매번 거짓말을 하기에 이날 목을 베어 매달았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初八日辛卯。乍晴。風且不和。羅大用以病還營。○探候船入來。○各官色吏十一名決罪。玉果鄕所。自前年領軍不勤。多致闕。到幾百有餘名。而每以欺詐對之。故是日行刑梟示。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8)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계사년 6월

13일 임술(壬戌). 맑고 따뜻하였다. 아침에 영의정에게 편지를 썼다. 밥을 먹은 뒤 선전관을 불러 다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헤어졌다. 하루 내내 배에 머물렀다.

○오후 4시쯤 소비포(所非浦) 만호, 사량(蛇梁) 만호, 영등포(永登浦) 만호가 왔다.

○오후 6시쯤 배를 띄웠다가 돌려서 다시 한산도로 향하였다. 이때 삼봉에서 경상군관 제【이름이 빠져 있다.】□□이 와서 말하기를 "적선 여덟 척이 춘원포에 들어와 머무르고 있으므로 들어가서 공격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즉시 나대용을 원 수사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들어가서 괴롭히면, 큰 이익을 거두지 못합니다. 우선 가만히 두었다가 기회를 엿보아서 무찔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와 순천부사(順天府使), 조방장이 왔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

14일 계해(癸亥). 맑고 따뜻하며 바람마저 부드러웠다. 경상도 남해, 하동, 사천, 고성 등지에는 송희립, 변존서, 유황[181], 노윤발 등을, 전라우도는 변유헌(卞有憲)[182], 나대용 등을 점검하여 내보냈다. ○진영 군량미 스무 섬을 실어왔다. ○방답첨사와 배첨지가 왔다. ○장언춘을 천민에서 면하게 하는 공문을 만들어 주었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十三日壬戌。晴且溫。朝。答簡于領台。食後。與宣傳官更話相別。終日駐船。○申時。所非浦·蛇梁·永登萬戶來。○酉時。發船還向閑山島。時慶尙軍官諸【名缺】□□。自三峯來言。賊船八隻。入泊春院浦。可以入擊云。故卽令羅大用送于元水使曰。見小利而入勦。大利不成。姑用停之。乘機勦滅事傳之。○彌助項及順天助防將來。夜深還歸。

十四日癸亥。晴且溫而風亦和。慶尙南海·河東·泗川·固城等。則宋希立·卞存緖·柳滉·盧潤發。右道則卞有憲·羅大用等。點考出送。○營軍粮二十石載來。○防踏僉使及裵僉知來。○張彦春免賤公文成給。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

181) 유황(柳滉): 1562~?. 본관은 고양(高陽), 언결(彦潔)이다. 158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182) 변유헌(卞有憲): 1564~?. 자는 사칙(士則)이다. 1591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9)『선조실록(宣祖實錄)』 권81, 29년 10월 11일

장령 윤형(尹泂)이【집의 김시헌(金時獻), 장령 유사원(柳思瑗), 지평 이형욱(李馨郁)·김대래(金大來).】와서 아뢰기를,

"작상(爵賞)은 공로를 보답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함부로 베풀면 공로가 있는 사람이 맥이 풀릴 뿐만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문을 열어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근래 군공(軍功)이 있다고 함부로 거짓말하여 벼슬을 받기도 하고 혹은 연줄을 타고 상을 얻기도 하는 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 보고 듣는 자로서 한심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산군(守山君) 이지(李智)는 난리 초에 한갓 종군(從軍)을 자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당상(堂上)의 가자(加資)를 받은 것만도 이미 분수에 넘친 것인데, 그 뒤에 조그마한 공도 전혀 없으면서 없는 사실을 그럴싸하게 꾸며 각처의 수신(帥臣)들에게 올림으로써 후일에 포상을 받을 계책으로 삼았으니, 그 마음 쓰는 것을 살펴보건대 지극히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아들을 시켜 외람되게 상소하여 2품(品)의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므로 물정(物情)이 매우 해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개정을 명하소서.

비변사는 지(智)가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말을 따라 주어 함부로 상가(賞加)를 청함으로써 공로를 보답하는 중한 법을 공이 없는 사람에게 마구 베풀어지게 하였으니, 그 사사로운 정분을 따라 마음을 쓴 실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유사 당상도 아울러 추고하게 하소서.

강진 현감 나대용(羅大用)은 사람됨이 간교하여 일을 처리하는 데 매우 주제넘으며 술과 떡 같은 것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명성을 구하고 남의 말[馬]을 약탈하여 뇌물로 썼습니다. 그리고 사신이 바다를 건널 때에는 수호용 선박을 배정하는 것이 전례인데 보내지 않았으니, 형편없이 관직을 수행하며 사명(使命)을 멸시한 죄가 큽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수산군(守山君)은 그와 같이 논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甲戌。掌令尹泂【執義金時獻·掌令柳思瑗·持平李馨郁·金大來。】來啓曰。爵賞。所以酬功。而濫施則非但有功者解體。適足以啓僥倖之門。近來以軍功。或冒僞受職。或攀緣蒙賞者。不可勝言。凡在見聞。莫不寒心。守山君智。當亂初。徒以自願從軍之故。特授堂上加。已爲濫矣。厥後了無寸功。而鋪張無實之言。呈諸處帥臣。以爲後日希賞之計。原其用心。極爲無狀。今者又令其子。猥冒陳訴。至陞二品重秩。物情駭怪。請命改正。備邊司非不知智之無功。而曲聽其言。冒請賞加。使酬勞重典。濫施於罔功之人。其循私用情之狀著矣。請有司堂上。竝命推考。康津縣監羅大用。爲人巧詐。處事泛濫。造作酒餠。以干民譽。掠奪人馬。以資賄物。且於使臣越海之時。例定守護船隻。而不爲起送。其居官無狀。蔑待使命之罪大矣。請命罷職。答曰。依啓。守山君不必如是論。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0)『선조실록(宣祖實錄)』 권112, 32년 윤 4월 1일

정언 임수정(任守正)이 와서 아뢰기를,

"섭 유격(葉遊擊)을 접견할 일을 일단 전교하였으면 정원으로선 급급히 접견의 의사를 유격에게 고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격이 반드시 가벼이 궐하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며, 설령 스스로 오려고 했더라도 미리 알아 준비를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치한 채 밤을 보내고 즉시 회계(回啓)하지 않아 유격으로 하여금 뜻밖에 갑자기 이르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불비하여 궐문 밖에 오래도록 서 있게 했고 마침내는 그냥 돌아갔다가 다시 오게 했습니다. 일이 전도(顚倒)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상께서 중국 장수를 접대하시는 뜻에 손상이 가게 했으니, 이것은 모두 색승지가 지체하여 살피지 않은 소치입니다. 파직을 명하시고, 동참한 승지도 모두 추고하소서.

능성 현령(綾城縣令) 나대용(羅大用)은 도임한 뒤 오직 음주만을 일삼아 일체의 관청 사무를 오로지 하리(下吏)에게 위임시키고는 백성을 침학하여 자신을 살찌우기만을 일삼고 있는데, 고향에서 머잖은 지역에 있어 범람한 일이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고을을 통합한 의도는 본래 잔민(殘民)을 소생시키고자 해서인데, 소속된 화순(和順) 백성들을 대하기를 마치 월(越)나라 사람이 진(秦)나라 사람의 병고를 보듯이 하며 배나 침탈을 가하므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봉상시 주부 안곡(安鵠)은 서적전(西籍田)에 차임되자 공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며 비루한 일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부역을 도피하는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근처의 군사들도 많이 투속(投屬)하여 있는데 수령들이 그 사이에 손을 댈 수 없게 하므로 여론이 비등하여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색승지는 체차하라."

하였다.

正言任守正來啓曰。葉遊擊接見事。旣有傳敎。則爲政院者。汲汲以接見之意。告于遊擊。則遊擊必不輕詣闕下。設欲自來。亦可預知整齊。而掩置經夜。不卽回啓。致令遊擊。不意猝至。因諸事不備。久立闕門之外。終至於空還而再來。非但事甚顚倒。使聖上接待王人之意。有所欠缺。此無非色承旨稽緩不察之致。請命罷職。同參承旨。亦竝推考。綾城縣令羅大用。到任之後。惟事沈湎。一應官務。全委下吏。虐民肥己。無有紀極。而在家鄕不遠之地。尤多汎濫之事。且朝廷合并之意。本欲蘇殘。而視所屬和順之民。若越人之於秦瘠。倍加侵漁。不勝其苦。請命罷職。奉常寺主簿安鵠。差西籍田。憑公營私。多行鄙陋之事。避役之民。至爲容接。近處軍士。亦多投屬。使守令。不得下手於其間。騰播人口。莫不駭愕。請命罷職。答曰。依啓。色承旨遞差。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1)『선조실록(宣祖實錄)』 권206, 39년 12월 24일

겸 삼도 통제사(兼三道統制使) 이운룡(李雲龍)이 치계하기를,

"나주(羅州)에 사는 전 현령(縣令) 나대용(羅大用)의 상소 내용에 '신은 나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계미년(1583, 선조 16)에 등과(登科)하여 6년 동안은 북쪽을 방어하였고 7년 동안은 남쪽을 방수(防戍)하였으며, 신묘년(1591, 선조 24) 연간에는 수사(水使) 이순신(李舜臣)의 감조 전선 출납 군병 군관(監造戰船出納軍兵軍官)이 되었습니다. 임진 왜변의 초기에 옥포(玉浦)에 머물고 있던 왜적이 진격해와서 싸움을 벌일 때 신은 발포 가장(鉢浦假將)으로서 앞장서 돌격해 들어가 적선 2척을 포획하였고, 사천(泗川)·선창(船滄)·당항포(唐項浦) 등지의 15여 회에 달하는 전투에서는 모두 수공(首功)을 세웠으므로 이름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마침내 강진 현감(康津縣監)에 제수되었으며 그 뒤로 연이어 금구(金溝)·능성(綾城)·고성(固城)의 현령에 제수되었습니다. 저 자신은 군대의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 군병(軍兵)의 기밀에 대해서도 조금 짐작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신축년(1601, 선조 34) 11월에 어미 상(喪)을 당하여 돌아갔다가 연이어 아비 상을 만나 6년 동안 거상(居喪)하다 보니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복(服)을 마쳤기에 한 가지 계책이 있어 구중궁궐에 찾아와 호소합니다. 대체로 왜적을 막는 데에는 주사(舟師)보다 앞설 것이 없습니다. 임진·계사년 간의 전선(戰船) 숫자는 거의 2백여 척에 달하였으나 오히려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유재란 뒤에는 간신히 마련한 전선의 숫자가 삼도(三道)를 통틀어 60여 척이었으니 각처에 배분하는 데 있어 극히 소홀하여 뜻밖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니 뉘라서 숫자를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마는 군사가 부족하여 만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의 숫자로써 배를 늘리는 계책을 말해보겠습니다. 거북선[龜船]은 전쟁에 쓰기는 좋지만 사수(射手)와 격군(格軍)의 숫자가 판옥선(板屋船)의 1백 25명보다 적게 수용되지 않고 활을 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각 영(營)에 한 척씩만을 배치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늘 격군을 줄일 방도를 생각하다가 기해년 간에 순찰사(巡察使) 한효순(韓孝純)의 군관(軍官)이 되어 별도로 전선(戰船) 25척을 감조(監造)하였을 때, 판옥선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닌 다른 모양의 배를 만들었는데 칼과 창을 빽빽이 꽂았으므로 이름을 창선(鎗船)이라 하였습니다. 격군 42명을 나누어 태우고 바다에 나아가 노를 젓게 하였더니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고 활쏘기의 편리함도 판옥선보다 나았습니다. 그 뒤로 나라가 평화로워지자 한 번도 전쟁에 쓰지 않은 채 여러 해를 버려두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신분이 미천하다 보니 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람들이 실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이어 만들지 않았고 그 제도마저도 그대로 버려둔 상태입니다. 만일 다시 이 배를 만들도록 하여 대소(大小)의 여러 장수에게 각기 1척씩 맡긴다면 배 숫자는 전보다 배나 되지만 사수와 격군은 더 늘지 않아도 저절로 충분할 것입니다. 또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는 배의 사수·격군의 전 숫자를 창선에 옮겨 싣고, 각 고을의 배는 그 고

을 수령의 수하군(手下軍) 및 하번(下番) 군사가 강 어귀에 정돈하여 변란에 대비하다가 변란 소식이 들리면 즉시 전쟁터로 달려가게 하고 그 가운데 직질(職秩)이 높은 수령에게 조방장(助防將)이란 호칭을 띠고 미리 단속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소에 대한 비변사의 계목에 의거하건대 '계하(啓下)를 점련(粘連)한다. 주사의 숫자는 과연 상소에 말한 바와 같이 전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정유년에 패몰 당한 뒤로 빈 배가 있어도 사수와 격군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선의 제도는 상소에서 아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수전(水戰)에 유용하고 적을 제압하는데 편리한 것으로 사실 예사로운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이전에 시험해 보지 않았으니 쓸 만한가의 여부(與否)에 대해서 통제사(統制使)에게 물어 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한다. 창선이 쓸 만한가의 여부를 속히 계문(啓聞)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임진년부터 이후로 수전(水戰)에 종사하여 전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정묘(精妙)하게 강구(講究)해 보지 않은 것이 없으나 창선의 제도는 일찍이 시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격군 42명을 채워 싣고 바다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선체가 협소하여 좌우에 방판(防板)을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방판을 제거 해버리면 시석(矢石)을 막을 수 없어 전투에 임해 손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임진·정유·무술년의 싸움에서는 모두 판옥선(板屋船)처럼 큰 배에 힘입어서 이길 수 있었으니 이것은 이미 봐온 증거입니다. 신은 감히 그렇게 이용하기가 묘한 점을 생각해내어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나대용을 조선 차관(造船差官)으로 호칭하여 한두 척을 감독하여 만들게 하여 편리한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갖추어 계문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비변사의 계목에,

"계하(啓下)를 점련합니다. 창선에 대한 제도는 통제사가 일찍이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이라 하니, 장계에 언급된 대로 나대용을 속히 내려보내 감독하여 만들게 해서 쓸 만한지의 여부를 시험해보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兼三道統制使李雲龍馳啓曰。羅州居前縣令羅大用上疏內。臣長於羅州。癸未登科。北防六年；南戍七年。辛卯年間。爲水使臣李舜臣監造戰船出納軍兵軍官。壬辰變初。玉浦留屯之賊。進戰之時。臣以鉢浦假將。先登突入。賊船二隻捕捉。泗川·船滄·唐項浦等處十五餘戰。皆有首功。名聞朝廷。遂除康津縣監。其後連授金溝·綾城·固城縣令。身閑軍旅。稍識軍兵之機。辛丑十一月。喪母奔歸。連遭父喪。六載丁憂。未售當爲之責。今始闋服。以一得之策。來叫九重之下。大概防倭。莫先於舟師。而壬辰·癸巳年間。戰船之數。幾至二百隻。而猶爲不足。丁酉更亂之後。戰船艱備之數。通三道六十餘艘。各處分付。極爲踈迂。如有不虞。束手無策。孰不欲多數。軍不足而不設。然以。其軍之數。加船之策則龜船雖曰利於戰用。射·格之數。下板屋船一百二十五名。射夫亦不便宜。故各營各

置一隻。不爲加造。臣常念格軍減入之策。而己亥年間。曾爲巡察使臣韓孝純軍官。別造船二十五隻監造時。非板屋·非龜船。別樣造作森揷劍槍。名曰鎗船。格軍四十二名分載。試掉洋中。其疾如飛。射矢之便。亦勝於板屋。而其後昇平。一不戰用。累年棄置。朽破。以後身賤言微。人不取實。更不繼造。仍棄其規。若使更造此船。大小諸將。各付一隻。則船數倍前。而射格則不必加定。而自有餘饒。且沿海各官。則船射·格全數。移載鎗船。各官船則其官守令手下軍及下番軍兵。整齊江口待變。聞變卽時。馳赴戰所。其中秩高守令。助防將稱號。預爲檢飭事。上疏據。司啓目。粘連啓下。舟師之數。果如疏內所陳。比前減少。緣丁酉敗沒之後。雖有空船。射·格難備之致。鎗船之制。以陳疏之意觀之。則其有關於水戰。便利於制敵。實非尋常。而但前此未曾試用。其可用與否。問于統制使處然後。施行何如。啓依允。以鎗船可用與否。急速啓聞施行。臣自壬辰以後。從事水戰。戰船形體。無不講究其精妙。而鎗船制度。曾未試用。要使格軍四十二人充載。疾行洋中。則船體狹小。不能設左右防板。若去其防板。無以蔽矢石。臨陣交鋒。勢難措手。大槪壬辰·丁酉·戊戌之役。皆賴板屋巨艦。而得捷。此已見之驗也。臣不敢臆料其利用之妙。而創造。羅大用造船差官稱號。使之監造一二隻。以試利鈍何如。謹具啓聞。啓下備邊司。備邊司啓目。粘連啓下。鎗船之制。統制使未曾試用。姑依狀啓事意。羅大用急速下送。使之監造。試其可用。以此辭緣。行移何如。啓依允。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2)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14, 부록6, 「나주목지(羅州牧志)」

나대용은 현령으로서 임진년 난리를 당하게 되자 충무공 이순신을 좇아 거북선 3척을 만들었다. 왜적을 부순 공이 있어 경기수사(京畿水使)로 승진되었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羅大用以縣令。當壬辰亂。從李忠武舜臣。粧龜船三隻。破倭賊有功。陞補京畿水使。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13) 나대용(羅大用), 『체암나대용실기』「행적」

수사 나공의 휘는 대용(大用), 자는 시망(時望)이요, 관향은 금성이요, 시조의 휘는 총례(總禮)인데 삼한 공신 대광(大匡)이었다. 그 후로 규조(珪組)가 계승되어 삼대를 내리 금성군으로 습봉되었다. 휘 문규(文奎)[183]에 이르러는 벼슬이 서해도안렴사로서 자금어대를 하사받았으며 문장과 행의가 한세상의 으뜸이 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공의 팔대조였다.

---

183) 문규(文奎): 나문규(羅文奎, 1312~1379)로, 본관은 금성(錦城), 호는 송와(松窩)이다. 1340년(충혜왕 1) 문과에 급제하였고, 명경박사(明經博士), 개성참군(開城參軍), 낭장(郎將), 겸통례문지후(兼通禮門祗侯), 서해도안렴사(西海道按廉使), 진도현령(珍島縣令)을 역임하였다.

증조의 휘는 빈(贇)[184]인데 문행으로 세상에 일컬었으며 종제 현(顯)[185]과 동방으로 생원, 진사를 다 합격하였으므로 고을 사람이 금성별곡을 지어 예찬했다.

조부의 휘는 공석(公奭)인데 덕행으로써 정릉참봉을 제수받았으며 부친의 휘는 항(亢)이니 통정이요 모친은 광신김씨였다 공은 병진년 7월 29일에 나주시 거평면 오륜동에서 낳았는데 기상이 괴위하고 기국이 활달하였다. 일찍이 경적을 고부하여 문장이 숙성하였으나 개연히 나라를 근심하는 뜻이 있어 마침내 투필하였다. 활쏘기와 말달리기는 천재적이었고 전술은 신과 같았다.

계미년(1583) 훈련원 별시에 응시하여 병과에 합격하였다. 원래 천성이 남에게 청촉하거나 남과 경쟁하는 것을 좋아 아니하며 항상 당시의 폐습만을 논하므로 이로써 재략은 훌륭했으나 아는 자가 드물었고 아는 자에게도 곧 배척을 다했다. 유독 이충무공 순신이 깊이 알아서, 일찍이 말하기를 '문무가 겸전하니 이 사람이면 족하다.'라고 하였다.

신묘(辛卯)년에 이충무공이 본도 좌수영에 있었는데 공은 이때에 주부로서 왜적이 장차 이르러 올 것을 알고 종제 치용(致用)과 함께 고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충무공을 찾아가 왜적 방어에 대한 계책을 깊이 설명하자 충무공은 크게 기뻐하고 막하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래서 전구와 기장도 협력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거북선 3척을 찬조하여 전후의 대소전쟁에 이로써 항상 승리를 거두었다.

임진년 4월 어느 날 발포만호가 파직해 가자 충무공은 말하기를 '이러한 요새지는 그대가 아니고서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고 공에게 가서 지키게 하였다.

경상도에 구원차 갔을 때 유군장으로서 어영담 등과 더불어 배를 발동하여 옥포에 도착하니 왜선 수백 척이 사면으로 포위를 급히 하므로 공은 김득광, 배흥립, 어영담과 함께 몸을 떨쳐 힘껏 싸워서 마침내 공은 왜적의 큰 배 두 척을 깨뜨렸다. 충무공은 장계를 올려 포양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나대용은 분발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아서 큰 공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당포 싸움에 왜선 수백 척이 해안을 누비며 지나가는데 배의 형상이 누각과 같은 것이 열두 척이었다. 왜병이 기슭 아래 진을 치고 의기가 양양하며 쳐들어올 듯이 보이므로 정운, 이몽구 등과 더불어 각기 의용을 떨쳐 죽고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격해 들어가 힘껏 싸워서 왜선 40여 척을 불태워버렸다. 공과 이설은 철환을 맞았으나 신색이 태연하며 승세를 타고 싸움에 나가서 또 크게 이겼다. 싸움이 파하자 칼끝으로 살에 박힌 철환을 뽑아내니 군중에서 비로서 알고 탄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복병장으로서 왜장 조승감(鳥乘監)의 부하 망고질지(亡古叱之)란 자를 생포하여 심문해서 왜

---

184) 빈(贇): 나빈(羅贇, ?~?)으로, 자는 자미(子美)이다. 1480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185) 현(顯): 나현(羅顯, ?~?)으로, 자는 겸선(兼善)이다. 1480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적의 정상 및 그 장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아냈다. 그래서 연전연승하게 되었다. 사천 싸움에 철환을 맞아 왼편 다리를 관통하였으나 싸움에 나가 더욱 격전을 벌여 또 승리를 얻었다.[186]

이때 족질 적(廸)이 합천의 원이 되었었는데, 매양 편지를 내왕하게 되면 충의로써 권면하고 편지 말미에 반드시 '사국(死國)'이란 두 글자를 썼었다. 급기야 합천성이 함락되자 합천공 적은 아우 선(選)과 함께 순사하니 공이 말하기를 '아무개가 나보다 먼저 죽을 곳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원 수사 군관이 와서 말하기를 '적의 배 여덟 척이 춘원포에 들어왔으니 들어가 쳐부숴야 한다.'라고 하므로 공은 가서 원 수사에게 말하기를 '작은 이익을 탐내면 큰 이익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니 기회를 타서 무찔러 없애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공은 본영에서 송시랑의 패문을 가지고 왔고 또 예를 묻는 일로써 나가는 길에 겸하여 우도를 점고하였다. 공이 이때 병든 몸으로써 영에 돌아오니 충무공은 손수 약을 지어주며 말하기를 '하루빨리 회복하여 군무를 비워둠이 없게 하라'라고 하였다.

충무공이 일찍이 남에게 모함을 입어 잡혀가 옥에 갇히게 되자 공은 열 한명의 장수들과 함께 옥문 밖에서 울며 부르짖어 마침내 석방되었다.

노량싸움에 행장이 횃불을 들어 서로 내응하여 곤양, 사천 등지에 있는 왜적 배 500여 척이 다 모였다. 그래서 사경에 접전하여 아침까지 계속되는 동안 충무공은 몸소 포탄이 나는 속에 서서 북채를 쥐고 싸움을 독려하다가 유탄에 맞아 넘어지니 공은 송희립 등과 종제 치용과 더불어 사력을 다하여 싸워서 포위망을 헤치고 나와 본즉 종제는 뱃머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공은 통곡하며 말하기를 '훌륭한 장수가 없어졌다. 어진 아우가 갔다. 나도 죽음에 대한 애착은 없으나 다만 이 왜적을 없애지 못할까 두려워서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충무공에게 내린 제문에 이르기를 '22명이 기린각에 이름을 썼다.'라고 하였는데 공은 그중의 한 분이었다. 이때 남해는 요충지대로써 오랫동안 적의 소굴이 되어있으므로 조정에서 특별히 공을 임하여 지키게 하였다. 공은 도임하여 즉시 방어에 대한 방략을 극진히 하고, 또 공격할 계책을 거듭하여 군량을 모으고 군사를 훈련하고 기계를 수리하는 한편, 해추선 3척을 창작하였는데 제도가 심히 기장하였다. 이 배로써 돌격하여 누차 큰 공을 세우고 주민을 보호하여 온 경내가 평온하니 사방에서 피란 온 사람들이 다투어 모여들어 자원하여 군대에 보충되는 자도 있었다. 임금은 특지를 내려 포상하고 계급을 올려주었다.

내리 일곱 고을을 맡아 다스렸는데 매양 청백으로 이름이 나타나서 모두 거사비가 섰었다. 경기수사로 승진되었으나 탄환 맞은 여독이 다시 발작하여 부임하지 못하고 집에서 죽었다.

---

186) 원문에 근거하여 위치를 수정하였다.

공은 여러 번 적선을 범하였으나 일찍이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어 용맹과 의기를 아울러 나타냈으며 적을 벤 것도 더욱 많았다. 어사한 물품으로 삼지창과 청룡도가 집에 전한다.

출전 :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편),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체암 나대용 장군』, 세창문화사, 2015

水使羅公諱大用。字時望。貫錦城。始祖諱聰禮。三韓功臣大匡。其後珪組燀聯有三世錦城郡。至諱文奎官西海道按廉使。賜紫金魚袋。文章行誼冠冕一世。是公八代祖也。曾祖諱贇文行稱於世輿。從弟顯同榜生進俱中有錦城別曲。祖諱公奭。以德行。除靖陵參奉。考諱亢通政。妣光山金氏。公嘉靖丙辰七月二十九日。生于羅州居平面五倫洞。氣像魁偉器局恢弘。嘗業經籍文章早成。慨然有憂國之志仍遂投筆。射御天成鈐韜如神。萬曆癸未。赴訓鍊院別試丙科。性不好奔競于謁。常論時弊以此雖有才略罕有知者。知則見擠。獨李忠武公舜臣深知之。嘗曰。文武并用此人足矣。辛卯。李忠武在本道左水營。公時以主簿知倭寇將至。與從弟致用募鄉人。往見忠武深陳備禦之策。忠武大悅仍以邀置幕府。戰具器仗無不協。謀贊造龜船三隻。前後大小戰以此常勝焉。壬辰四月日。鉢捕權管羅去。忠武曰。如許重地非君無以鎭之。以公往鎭之。慶尙道赴援時。以游軍將與魚泳潭等。發船到玉浦。倭船數百餘艘四面圍急。公與金得光·裴興立·魚泳潭奮身力戰。公撞破倭大船二隻。忠武褒啓云。羅大用奮不顧身以成大功。唐浦之役倭船數百隻緣岸行。舟伏如樓閣者十二隻。岸下結陣揚示凌轢。與鄭運·李夢龜等各奮勇義不顧死生。突入力戰焚滅倭船四十餘隻。公及李溭中鐵丸意氣自若。乘勝赴戰。又大捷。戰罷以刀尖挑出所中丸。軍中始知莫不歎服。以伏兵將。生擒倭將鳥乘監之副將亡古叱之者推訊倭賊情狀及其將名號一一備知。以之連捷。泗川之戰又中丸貫左股赴戰益力仍。又得捷時族姪迪爲陜川守。每有書牘勉以忠義。書末必書死國二字。及聞陜川城陷。陜川公與弟選殉死。曰某也先得其死矣。元水使軍官□言賊船八隻入春院浦。可以入擊云。公往語元水使曰。貪小利大利不成。不如乘機勦滅。云云。自本營持宋侍郎牌文而來。又以問禮事出去仍點考右道。公時以疾病還營。忠武手調藥餌曰。須亟有喜無曠軍務。忠武嘗爲人所誣被拿逮獄。公與十一人諸將號泣於獄門外遂得釋。露梁之戰行長擧火相應昆陽泗川賊船五百餘艘皆會。四要接戰至于朝。忠武身立矢石援枹。督戰中凡死之。公與宋希立等及從弟致用殊死力戰解圍視之。則從弟戰死船頭。慟哭曰。良將逝矣。賢弟亡矣。吾無愛於一死。但恐此賊之未勦也。上賜祭忠武公文曰。二十人題名麟閣。公其一也。時南海爲要衝地以你賊窟。朝廷特差公守之。旣到始盡備禦之兼重以衝擊之方。聚糧鍊卒利器繕。械刱你海鰌船三隻。制甚奇壯。以此衝突。屢成大功。撫恤居民境內晏然。四方奔竄人士爭集于縣。願有補伍者。上特旨。褒奬加資。歷宰七邑。每著淸白。皆有去思碑。陞高桐水使丸毒得發未赴而卒于家。公屢犯賊船未嘗一敗。勇義并著。斬獲尤多。御賜三枝槍靑龍刀傳于家。

출전 :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 편집, 「遞庵羅先生行蹟」, 昭忠祠, 1983

9) 나덕명(羅德明, 1551~1610)

• 본관 나주(羅州), 자 극지(克之), 호 소포(嘯圃)

(1) 정문부(鄭文孚), 『농포집(農圃集)』 권1, 「주 반적 회령 국경인 명천 말수 등 장계(誅叛賊會寧鞫景仁明川末秀等狀啓)」

병조좌랑 서성(徐渻)[187]과 정배인(定配人) 나덕명(羅德明)[188]이 외촌에 있었다. 마을에 거주하는 군정들에게 밝게 알릴 때 아울러 성으로 들어간다고 하옵니다.

출전 : 나주나씨금호종중, 『(국역·증보) 금호유사』, 2018

兵曹佐郎徐渻。定配人羅德明。在外村。曉喻村居軍丁爲白如乎節段。竝只入城爲白有齊。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농포집(https://db.itkc.or.kr/)

(2) 정문부(鄭文孚), 『농포집(農圃集)』 권1, 「영흥 차나극지운 인증별(永興次羅克之韻因贈別)」

한번 만나 마음을 알아 경개하였고	一見知心蓋已傾
상장의 옥 같은 모습 위성에 있네.	相將玉貌在圍城
잘못을 찾아[189]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허물을 들추고	吹毛到處人求過
몰우도 어찌 정성에 감복한 것일까?	沒羽如何石感誠
희어진 귀밑머리는 놀랍게도 삼천 발이나 되고	鬢上三千驚白髮
가슴속에는 10만의 신병에 의지했네.	胸中十萬仗神兵
중흥한 뒤 병이 많아	自中興後身□病
숲속 정원으로 돌아와 누우니 이 같은 행동 부럽네.	歸臥林園羨此行

출전 : 나주나씨금호종중, 『(국역·증보) 금호유사』, 2018

一見知心蓋已傾。相將玉貌在圍城。吹毛到處人求過。沒羽如何石感誠。鬢上三千驚白髮。胸中十萬仗神兵。自中興後身□病。歸臥林園羨此行。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농포집(https://db.itkc.or.kr/)

---

187) 서성(徐渻): 1558~1631. 본관은 달성, 자는 현기(玄紀), 호는 약봉(藥峰)이다. 1586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 왕을 모시고 있다가 황정욱(黃廷彧)의 종사관으로 함경북도에 이르러 황정욱 등이 두 왕자와 함께 일본군의 포로가 될 때 혼자 탈출했다. 이인기(李麟奇)·이호민(李好閔) 등과 남지기로회를 조직하여 역학(易學)을 토론했고, 서화에도 뛰어났다. 대구 귀암서원(龜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188) 나덕명(羅德明): 1551~1611. 본관은 나주, 자는 극지(克之), 호는 소포(嘯浦)이다. 1579년 진사시에 입격하여 승훈랑(承訓郎)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고, 1589년 기축옥사(己丑獄死)에 연루되어 함경도 경성(鏡城)으로 유배되었다. 유배 생활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 함경북도병마평사(咸鏡北道兵馬評事) 정문부(鄭文孚) 막하에 들어가 싸웠다. 1594년 귀향이 풀린 후에는 형개(刑玠)에 있던 허충의·도원수(都元帥) 권율과 함께 일본에 대적하였다. 또한 정유재란 때에는 아버지의 시묘살이 중이었음에도 판서(判書) 임담과 의병을 일으켜 전라남도 화순(和順)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다. 이러한 공적으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형조판서에 증직되었다. 무안 소포사(嘯浦祠), 나주 금호사(錦湖祠), 고양(高陽) 충장사(忠莊祠) 등에 배향되었다.

189) 잘못을 찾아: 원문의 취모(吹毛)는 취모멱자(吹毛覓疵)의 준말로, 모든 방법을 다하여 남의 잘못을 찾아드러냄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비자(韓非子)』「대체(大體)」에 "옛적에 대체를 온전히 하는 자는 …… 털을 불어가며 작은 허물을 찾아내지 않는다.[古之全大體者 …… 不吹毛而求小疵]"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3) 정문부(鄭文孚), 『농포집(農圃集)』 권3, 「길주장평파왜적장계(吉州長坪破倭賊狀啓)」

신이 대장에서 체직된 뒤에 회령부사(會寧府使) 정현룡(鄭見龍)[190]을 대신하여 대장이 되었다가 지난 해 12월 그믐에 정현룡(鄭見龍)이 겸절도사(兼節度使)에 차임이 되어서 '육진을 순행하였다.'라고 하였고, 다시 경원부사(慶源府使) 오응태(吳應台)[191]가 다시 대장이 되었다가 금년 정월 13일에 공문서가 도달하였는데 순찰사 관내의 오응태 대장이 체역되었다가 전 평사에 따라 다시 대장이 되었다고 하니 이 또한 이번 달 초 10일의 공문서 안에 있었습니다. …… 경성에 사는 전(前) 훈도(訓導) 이봉수, 좌수 서수(徐遂), 이기수(李麒壽)[192], 경성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전(前) 도사(都事) 나덕명, 부령 좌수(富寧座首) 김전(金銓)[193] 등이 힘을 다해 내달려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들을 밝게 깨우쳤으니, 지금에 일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은 실로 그 공에 힘입은 것입니다. …… 출전 : 나주나씨금호종중, 『(국역·증보)금호유사』, 2018

自臣遞大將後。會寧府使鄭見龍乙用良。代爲大將爲白有如可。前年十二月晦間。鄭見龍差兼節度使。巡行六鎭亦爲白遣。更以慶源府使吳應台。改定大將爲白有如乎。今年正月十三日。到付爲白在。巡察使關內。吳應台大將遞改。依前評事。以還定大將亦爲白臥乎在亦。本月初十日。到付爲白在。…… 鏡城居前訓導李鵬壽。座首徐遂李麒壽。鏡城定配蒙宥前都事羅德明。富寧座首金銓等。極力奔走。曉喻愚頑。到今擧事。實賴其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농포집(https://db.itkc.or.kr/)

(4) 정문부(鄭文孚), 『농포집(農圃集)』 권2, 「기임진거의사-택당 이식(記壬辰擧義事 澤堂 李植)

만력 20년 선조 26년 임진년 6월 왜장 가등청정(加籐淸正)이 도적을 이끌고 북쪽으로 쳐들어오자 병마사(兵馬使) 한극함(韓克諴)[194]이 마천령(磨天嶺)을 지켜 관북을 보호하려고 하였는

---

190) 정현룡(鄭見龍): 1547~1600. 본관은 동래, 자는 운경(雲卿)이다. 1577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1592년 회령부사, 1593년 종성부사를 역임하면서 경원부사 오응태(吳應台)·고령첨사 유경천(柳擎天)과 함께 길주(吉州)에 머무르고 있던 왜적을 토벌하였다. 1594년에는 육진(六鎭)을 침범하는 오랑캐들을 진압하여 상을 받았다. 1596년 정헌대부에 올랐으며, 1600년에 전사하였다. 1605년 선무일등공신에 책봉되었다.

191) 오응태(吳應台): ?~?.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함경도 경원부사로 재직 중에 의병장 정문부와 함께 왜군을 대파하여 중군장(中軍長)이 되었다. 회령부사를 거쳐 북병사로 임명되었고, 정유재란 때 전라병마사와 전주부윤을 겸임하며 남원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192) 이기수(李麒壽): 1542~?. 본관은 덕은(德恩), 자는 영로(靈老)이다. 1579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93) 김전(金銓): 1538~?. 본관은 부령(扶寧), 자는 여중(汝中)이다. 1570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194) 한극함(韓克諴): ?~1593. 임진왜란 때 함경북도병마절도사로 해정창(海汀倉)에서 가토(加藤淸正)의 군사와 싸웠다. 이때 전세가 불리하자 임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를 놓아둔 채 단신으로 오랑캐마을 서수라(西水羅)로 도주하였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붙들려 경원부로 호송되었고, 가토의 포로가 되었다. 앞서 포로가 된 두 왕자 및 그들을 호행하였던 대신 김귀영(金貴榮)·황정욱 등과 다시 안변으로 호송되었다가 이듬해 4월 일본군이 서울을 철수할 때 허술한 틈을 타서 단신으로 탈출하여 고언백(高彦伯)의 군진(軍陣)으로 돌

데 군대가 궤멸되자 달아나 적들이 마침내 길주, 명천, 경성, 부령 등의 진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중략) 8월에 가등청정이 부하장수에게 수천 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길주를 점거하여 여러 진을 다 거느리게 하고 자신은 남쪽으로 돌아갔다. 북청(北靑)과 안변(安邊)에 각각 강한 군대를 두고 격려하였다. 이때 대장 이하부터 대부들까지 난리를 피해 흩어지고 달아나는 자들은 적에 함락되어 거의 다 죽게 되었다. 그러나 다만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195]만은 예전부터 고향에서 함께 살던 유생들과 잘 지내던 까닭에 여러 번 고비를 겪으며 매우 위급했는데도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전(前) 감사(監司) 이성임(李聖任)[196], 경원부사 오응태, 경흥부사 나정언(羅廷彦), 수성찰방(輸城察訪) 최동망(崔東望)[197], 적인(謫人) 한백겸(韓伯謙), 나덕명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부성으로 들어가 점거를 했다. 적의 세력을 믿고서 공갈을 하니 모두 궤멸되고 흩어져 혹은 사이 길로 남쪽으로 달아나기도 했다.

출전 : 나주나씨금호종중, 『(국역·증보) 금호유사』, 2018

萬曆二十年 宣宗二十六年 壬辰六月。倭將淸正長驅寇北。兵馬使韓克誠欲守磨天嶺。以保關北。軍潰而走。賊遂入吉。明。鏡。富等鎭。(中略) 八月。淸正使一偏將。分領數千步兵。據吉州。以總攝諸鎭。身歸南道。北靑。安邊。各置重兵。以爲聲援。當此時。自大將以下至士夫。避亂落北者。陷賊殆盡。獨評事鄭文孚。以故與土居儒生相善。故累窘迫獲脫免。遂與前監司李聖任。慶源府使吳應台。慶興府使羅廷彦。輸城察訪崔東望。謫人韓伯謙羅德明等。起義兵。入據府城。世弼挾賊勢恐喝。皆潰散。或從間道南奔。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농포집(https://db.itkc.or.kr/)

아왔으나 처형당하였다.

195) 정문부(鄭文孚): 1565~1624.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자허(子虛), 호는 농포(農圃)이다. 158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 수찬, 정언을 지냈으며 1591년 함경북도 병마평사(咸鏡北道兵馬評事)를 지냈다. 임진왜란 때 회령(會寧)에서 임해군과 순화군이 반란군의 주동자 국경인에 의해 왜장 가등청정의 포로가 되자 이에 격분하여 함경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국경인을 참수하고 함경도 각지에 주둔한 왜적들과 싸워 대승을 거둠으로써 관북 지방을 완전히 수복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1598년 호조 참의, 1601년 예조 참판을 지내고, 1602년에는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과 함께 한강을 유람하였으며, 1610년에는 사은 부사(謝恩副使)로 북경(北京)에 다녀왔다.

196) 이성임(李聖任): 1555~?. 본관은 전주, 자는 군중(君重), 호는 월촌(月村)이다. 1577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자청하여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몸소 군사를 모집하여 왜적을 토벌하려 하였으나 전선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곧 순찰부사가 되어 민병 800여 명을 거느리고 전선으로 나아가 참찬 한응인(韓應寅)의 군무를 도왔으나, 임진강의 방어선이 무너져 사태가 급박하여지자 패주하였다. 패주한 죄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한때 파직당하였으나, 1594년 강원감사·길주목사·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197) 최동망(崔東望): 1557~?. 본관은 통천(通川), 자는 노첨(魯瞻), 호는 재간(在澗)이다. 1588년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선조대에 호조정랑, 임천군수(林川郡守), 형조정랑, 희천 군수(熙天郡守), 합천군수(陜川郡守)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5)『선조실록(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17일

전라도 나주(羅州)에 사는 전 의금부 도사 나덕명(羅德明)이 상소하기를,

"지난 기축년에 역적 정여립(鄭汝立)은 왕망(王莽)이 세상을 속이던 간사함을 품고 육당(陸棠)이 선(善)을 가장한 이름을 도둑질하여 온 나라의 사류(士類)들이 모두 기만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나 그의 얼굴을 본 자들도 실제는 그가 불궤(不軌)의 마음을 품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불측한 흉모가 하루아침에 폭로되자 한때 기만당한 사람들이 모두 마음으로 놀라고 뼈가 쑤시는 듯이 아파서 역적이 사람을 속인 악을 분개하고 자기의 밝지 못한 죄를 후회했습니다. 이른바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 해서 어찌 모두 적의 당이라 하겠습니까. 다만 간신(奸臣) 정철(鄭澈)이 패려한 자질로 참혹한 마음을 품어서 청의(淸議)에 용납을 받지 못해 항상 앙갚음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역적의 변이 진신(縉紳)사이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스스로 오늘이야말로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날이라 여겨 자신이 안문(按問)하는 관원이 되어 일망 타진(一網打盡)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이에 공법(公法)을 사적인 복수의 은밀한 함정으로 만들어 평일의 사소한 원한을 모두 기록해 주머니 속에 넣고 있으면서 죄가 있든 없든 살리고 죽이는 것을 한결같이 자기의 은원(恩怨)에 따라 했습니다. 만일 성상의 살핌이 없었더라면 한 시대의 충정(忠貞)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정개청(鄭介淸)은 행동이 진실(眞實)하고 확고하게 처신하여 간사한 정철이 한세상을 그르치는 정상을 환하게 알고 있었기에 정철이 모해할 마음을 품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유몽정(柳夢井)은 성품이 경개(耿介)하고 효우(孝友)의 행실이 독실하였는데, 한번 풍헌(風憲)의 지위에 오르자 곧 간얼(奸孼)의 싹을 꺾었으니 정철이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이황종(李黃鍾)은 천자(天資)가 독실하고 식견이 고매했는데, 애초에 간사한 정철과 죽마고우였으나 중년에 와서 그의 간괴(奸怪)한 정상을 보고는 결연히 절교하고 마침내 최영경(崔永慶)과 심계(心契)의 친구가 되었으니, 정철이 평소 꺼리는 바였고 최영경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조대중(曺大中)은 사람됨이 강개(慷慨)하고 마음 씀이 청고(淸苦)하여 권세가에 출입하지 않고 한 길로 고립(孤立)하니 여러 사람이 헐뜯어댔습니다. 그가 전라도 도사(都事)가 되어서 정철의 집을 들렀다 가지 않았으니 그의 노여움을 산 것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행히 성명(聖明)께서 화단(禍端)의 이유를 깊이 아시어 설원(雪冤)하는 명을 밝게 내리셨고, 최영경이 무함(誣陷)을 입은 일로써 밤중에 눈물의 전교를 내리어 특별히 높은 품질(品秩)을 추증, 포상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귀양을 가거나 폐고(廢固)된 무리도 모두 은유(恩宥)를 입었으니 이는 천지와 신인(神人)의 복입니다.

이발(李潑)·이길(李洁) 형제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망령되이 역적과 사귄 죄는 만번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으나, 역적의 흉모(兇謀)와 이지(異志)는 반드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신들

이 같은 도(道)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생동안 효우(孝友)한 일을 익히 아는데 효자로서 불충(不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식견이 혼매하여 역적의 기만을 면하지 못하였을 뿐이니 그 죄는 죽어야 하지만 그 정(情)은 용서할 만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아울러 불쌍하게 여기소서.

옛날 주 선왕(周宣王)은 친히 창을 잡고 정벌하였고 당 숙종(唐肅宗)은 몸소 갑주(甲胄)를 입고 토평(討平)하였기 때문에 임금에게 반드시 친정(親征)하는 거조가 있은 뒤에야 인심을 격려할 수 있고 천토(天討)를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빨리 애통(哀痛)해하는 교서를 내리시어 위로 종묘(宗廟)에 고하고 아래로 신민에게 유시하며 친히 육비(六飛)[198]를 어거하시어 남주(南州)에 주필(駐蹕)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류(細柳)에서 군사를 위로하듯 임어[199] 하시고 전연(澶淵)에서 적을 물리치듯[200] 주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고식지계(姑息之計)를 쓰지 마시고 주 선왕과 당 숙종을 본받으소서."

하였는데, 입계(入啓)한 지 한 달 남짓 되어 의금부에 내려 회계하게 하였다.

全羅道 羅州居前義禁府都事羅德明等上疏曰。

頃在己丑。逆賊汝立。挾王莽欺世之詐。盜陸棠假善之名。而一國士類。盡爲所欺。或有知其名者。或有見其面。而實不知厥心之不軌也。兇謀叵測。一朝敗露。則一時受欺之士。莫不心驚骨痛。而憤逆賊瞞人之惡。悔自己不明之罪。則其所謂知其名見其面者。豈盡爲逆賊之黨乎。第以奸臣鄭澈。以狠愎之資。懷慘〔毒〕之心。爲淸議所不容。常有怏怏憤憤之心。及聞逆變。出於縉紳之間。自幸今日可遂吾志。身爲按問之官。乃成網打之計。以公法爲復私讐之陰穽。平日小小睚眦。率以錄置囊中。有罪無罪。生之殺之。以一己之恩怨。儻微聖鑑。一世之忠貞。必將無遺類矣。鄭介淸。踐履眞實。立脚堅確。洞見奸澈誤了一世之狀。則澈之含沙者。非一日矣。柳夢井。性稟耿介。行篤孝友。一居風憲之地。便折奸孽之萌。澈之切齒者。爲如何哉。李黃鍾。天資篤實。識見高邁。初與奸澈。有葱竹之舊。及其中年。見其奸怪之狀。斷然絕之。遂與崔永慶。託爲心契。則澈之平日所忌。

---

198) 육비(六飛): 임금의 어가.

199) 세류(細柳)에서 군사를 위로하듯 임어: 세류영(細柳營)은 한(漢)나라 주아부(周亞夫)가 주둔하고 있던 진영으로 군령(軍令)이 아주 엄하였기때문에 후에 모범적인 군영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오랑캐를 막고 있는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 문제(漢文帝)가 각진을 순찰하는데, 다른 군영과는 달리 주아부가 장군으로 있는 세류영에서는 임금의 행차라 하여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군문 도위(軍門都尉)가 "군중에서는 장군의 명을 들을 뿐 천자의 조명(詔命)은 받들지 않는다." 하였다. 문제는 그래서 상사(上使)로 하여금 절(節)을 가지고 가 주아부에게 "황제가 군사를 위로하러 왔으니 문을 열어주기 바란다." 하여,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고사. 『한서(漢書)』 권57 주아부전(周亞夫傳).

200) 전연(澶淵)에서 적을 물리치듯: 전연은 하북성(河北省) 복양현(濮陽縣)에 있는 지명. 송 진종(宋眞宗) 때 거란군(契丹軍)이 침입해 오자 모두 화친할 것을 주장했으나 구준(寇準)만은 중론을 물리치고 임금에게 친정(親征)할 것을 권하여 마침내 적을 물리치고 이곳 전연에서 맹약(盟約)을 받고 돌아왔다. 『송사(宋史)』권281 구준전(寇準傳).

而欲殺者永慶也。曺大中。爲人忼慨。立心淸苦。不爲曳裾於權門。孤立一道。衆口咻咻。及其佐幕此路。亦不經過澈家。逢彼之怒。無足怪也。幸賴聖明。深知厲階之由。渙降昭雪之命。以永慶受誣之事。至於中夜泣下之旨。而特伸褒贈崇秩。其餘竄謫廢錮之輩。并蒙恩宥。此天地神人之福也。至若李潑·李洁妄交逆賊之罪。萬死無赦。至於逆賊之兇謀異志。則恐未必知之也。臣等同在一道。飽聞其一生孝友。未有孝而不忠者也。只緣識見昏暗。未免逆賊之所欺。其罪可誅。而其情可恕。伏願殿下。并垂怜焉。昔周宣王。親執殳而薄伐。唐 肅宗。躬甲胃而削平。故人君必有親征之擧。然後人心可激。而天討可行矣。爲今之計。莫如亟下哀痛之敎。上告宗廟。下諭臣民。親御六飛。住蹕南州。細柳勞軍之行可臨。而澶淵却敵之駕可住矣。伏願殿下。勿爲姑息之計。以周宣·唐肅爲法。

入啓一月餘。下義禁府回啓。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6)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정유년 12월 5일

5일 신유(辛酉). 맑다. 군공을 세운 여러 장수에게 상품과 직첩을 나누어 주었다. ○도원수 군관이 유지를 갖고 왔는데, 이번 선전관 편에 들으니 '통제사 이순신이 아직도 권도(權道)를 좇지 않아 여러 장수가 민망히 여긴다. 사정(私情)이야 비록 간절하지만 나랏일이 한창이고 옛사람들도 말하기를 '전쟁에 나가도 용맹함이 없으면 효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전쟁에 나가 용감하다는 것은 소찬(素饌)을 먹고 기력이 고달프고 힘이 없는 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예기(禮記)』에도 경(經)과 권(權)이 있어, 꼭 정해진 제도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 경에게 내 뜻을 돈유(敦諭)하니 소찬(素饌) 먹는 것을 치우고 권도(權道)를 좇도록 하라.'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권도의 물건을 하사하니 더욱 감개무량하였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初五日辛酉。晴。軍功諸將等。賞職帖分給。○都元帥軍官持有旨來。則今因宣傳官。聞統制使李舜臣尙不從權。諸將以爲悶云。私情雖切。國事方殷。古人曰。戰陣無勇。非孝也。戰陣之勇。非行素氣力困憊者之所能爲。禮有經權。未可固守常制。卿其敦諭予意。使之開素從權。并賜權物。尤用感慟感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7) 『선조실록(宣祖實錄)』 권153, 35년 8월 20일

기유년(己酉年). 오시(午時)에 나덕명(羅德明)·송의(宋宜)·황효길(黃孝吉)·임기문(林起門)·강섭(姜涉)과 무고인(誣告人) 윤경우(尹慶祐)·권건(權) 및 전일 화적(和賊) 때의 공초(供招)에 나온 죄수 이여양(李汝讓) 등 모두 수십 인을 방송(放送)하도록 명하였다. 【당시 정설(鄭渫) 등은 의옥(疑獄), 이여양 등은 체옥(滯獄)에 해당되었는데, 이때 와서 모두 석방을 명하니 사람들

이 모두 감격하며 기뻐했다.】

사신은 논한다. 정설(鄭渫)과 기효증(奇孝曾)은 한갓 시골에서 무단(武斷) 행위를 한 사람들에 불과한데, 화적(和賊)의 변에 괴수를 잡지 못하자 특별히 승지를 보내 상금을 걸어 잡아 온 자들이다. 윤경우는 상을 바란 나머지 처음에 어리석은 권건을 통해 정설 등이 무단을 부린 자취를 얻어 듣고는 스스로 기화(奇貨)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어 그 설을 끌어다 대어 창화(唱和)하고 날조(捏造)하여 진고(進告)까지 하였는데, 승지가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어전에서 아뢰면서 또 착오를 면치 못함으로써 드디어 큰 옥사를 이루었으나 끝내는 실상이 없었다. 실로 성명께서 통촉하지 않으셨던들 무고한 자들이 억울하게 재앙을 당할 뻔하였다. 정설 등을 호강(豪强)한 죄로 조사하자 옥사가 얼음이 녹듯 풀렸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국법에 무릇 역변(逆變)을 고발했다가 사실이 아니면 도리어 그에 상당한 죄로 고발한 자를 죄주도록 한 것은 무고하는 것을 미워하고 사체를 중히 여겨서이다. 따라서 이는 임금이라도 사정(私情)을 둘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간악한 윤경우가 유독 면하게 되었으므로, 중외가 놀라고 분하게 여기면서 무고하는 무리가 세상에 연이어 나와 백성들이 수족을 놀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당시 추관(推官)들은 의옥이 해결된 것만 다행으로 여긴 나머지 고변자를 죄주자는 청은 감히 한 마디도 내놓지 못했는데,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좌중을 둘러보며 말하기를 '석방할 자를 방송(放送)할 때 경우 등은 맨 나중에 칼을 벗겨 조금이라도 분을 풀어야겠다.'고 했다 한다.】

己酉。午時。命放送羅德明·宋宜·黃孝吉·林起門·姜涉及誣告人尹慶祐。權及前日和賊時。招辭所出囚人李汝讓等竝數十人。【時。鄭渫等爲疑獄。李汝讓等爲滯獄。至是并命放釋。人皆感喜。】

史臣曰。鄭渫·奇孝曾。不過爲鄕曲中一武斷也。時以和賊之變。不得渠魁。特遣承旨購捕。尹慶祐希望功賞。始因權之愚。得聞渫等武斷之迹。自以爲得奇貨。仍以附會其說。唱和搆捏。至於進告。承旨不察也。榻前之啓。又未免差謬。遂成大獄。而終無實狀。苟非聖明洞燭。無辜者幾於橫罹矣。渫等覈以豪强之罪。獄事渙然氷釋。何其幸歟。國法。凡告逆變。不得實狀。則反以其罪罪之者。所以惡誣告。而重事體也。非人主所可得而私也。慶祐之姦。獨免焉。中外駭憤。以爲誣告之輩。將接迹於世。而民無所措手足。噫。

【時。推官以疑獄得釋爲幸。不敢出一言請告者罪。領議政李德馨顧謂座中曰。當釋者放送。時。慶祐等。唯最後脫械。以少泄憤云。】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8) 『순조실록(純祖實錄)』 권5, 3년 12월 18일

고 도사(都事) 나덕명(羅德明)과 충장공(忠壯公) 박영신(朴榮臣)의 처 이씨(李氏) 및 그 두

아들 박지원(朴之垣)·박지번(朴之藩)을 정려(旌閭)하고, 고 참봉 나해륜(羅海崙)의 자손에게 급복(給復)하였다. 나덕명은 곧 충렬공(忠烈公) 나덕헌(羅德憲)의 백형(伯兄)으로서, 임진년(1592, 선조 25)에 경성(鏡城)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었는데,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와 더불어 의병(義兵)을 일으켜 왜적과 싸워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었다. 박영신은 갑자년(1624, 인조 2)에 순국(殉國)한 후 그 처 이씨는 걸어서 난리 속에 나아가 시신(屍身)을 헤쳐 보고서 떠메고 돌아왔다.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을 통분스럽게 여겨 합장(合葬)하지 말도록 경계하자, 두 아들이 10년 동안 칼을 갈아 오다가 마침내 흉수(凶讎)를 찔러 죽여 그 머리를 베어 들고 궐문에 나아가 복법(伏法)되기를 원하였다. 나해륜은 곧 나덕헌의 종질(從姪)로서, 정유 왜변 때 나이 겨우 15세였는데, 어버이를 업고 난리 속에서 도망하다가 왜적을 만나 붙잡히자, 도리에 의거하여 애걸하니 왜적이 그 효성에 감동하여 놓아 보냈다. 그리고 갑자년 이괄(李适)의 역변(逆變)과 병자호란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전란(戰亂)에 참가하였다. 이에 예조에서 유생의 상언으로 인하여 복계(覆啓)하여 포장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旌故都事羅德明·忠壯公朴榮臣。妻李氏及其二子之垣·之藩閭。故參奉羅海崙子孫給復。德明。卽忠烈公德憲伯兄也。壬辰謫居鏡城。與評事鄭文孚。募義起兵。與倭戰屢捷。朴榮臣。甲子殉國之後。其妻李氏徒步赴難。被屍舁歸。痛未雪讎。誡勿合葬。二子十年磨劍。卒剚凶讎。提頭詣闕。乞伏刑法。海崙。卽德憲從侄也。丁酉倭變。年纔十五。負親逃難。遇賊被刦。據理哀乞。賊感其孝。扶送之。甲子适變及丙子之變。起義赴難者也。禮曹因儒生上言。覆啓請褒。從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9) 나덕명(羅德明), 『소포유고(嘯浦遺稿)』「소포공 사실기(嘯浦公事實記)」

공의 휘는 덕명(德明), 자는 극지(克之), 호는 구암(龜菴), 또는 소포(嘯浦)이다. 성은 나씨, 본관은 나주이다. 고려 때 휘(諱) 부(富)는 감문위(監門衛) 상장군(上將軍)으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비조(鼻祖)이다. 뒤에 공조전서(工曹典書) 휘(諱) 진(璡)에 이르러 가장 귀현(貴顯)하였다. 전농시(典農寺) 정(正) 휘(諱) 공언(公彦)[201]은 홍무년간(洪武年間)에 왜적(倭賊)을 물리친 공훈이 있어 대대로 호남의 명문가가 되었다. 증조(曾祖) 휘(諱) 일손(逸孫)은 전연사(典涓司) 직장(直長)을 지냈고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로 추증(追贈)이 되었다. 조부 휘 질(晊)[202]은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지냈고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追贈) 되었다. 고

201) 공언(公彦): 나공언(羅公彦, ?~?)으로, 본관은 나주, 호는 저헌(樗軒)이다. 관직이 전농시정(典農寺正)에 올랐다.

202) 질(晊): 나질(羅晊, ?~?)로, 본관은 나주, 자는 백승(伯升)이다. 1528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考) 휘 사침(士忱)[203]은 이소재(履素齋) 이중호(李仲虎)[204]를 스승으로 섬겼다. 그의 지극한 행실이 중종(中宗)에게 알려져 그의 집안에 정려(旌閭)하고 복호(復戶)하여 주었다. 선조(宣祖) 때 관찰사(觀察使)가 그가 어질다고 천거를 함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벼슬이 제수되어 이산현감(尼山縣監)까지 올랐다. 그가 현감에서 물러나자 고을 사람들이 세운 거사비(去思碑)에,

한 송이 시든 꽃처럼 외로운 학처럼
나그네길 쓸쓸하여 고인(古人)의 풍모 남았으리.

라는 시가 남아 있었다. 여러 차례 증직(贈職)되어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올랐다. 전배(前配)는 파평윤씨(坡平尹氏)로 부사(府使) 휘(諱) 언상(彦商)의 딸이었고, 후배(後配)는 광주정씨(光州鄭氏)로 사도(蛇渡) 첨사(僉使) 휘(諱) 호(虎)의 딸로 각기 세 아들을 길러 사람들이 육룡(六龍)이라고 말하였다. 공(公)이 바로 적장자(嫡長子)로 자질과 품성이 뛰어나 식견(識見)이 대략 8, 9세 때 길에서 고을의 아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아전이 무례하게 굴자 공(公)이 이치를 들어 꾸짖자 아전은 곧바로 무안해하며 존경하며 복종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일이라고 하였다.

만력(萬曆) 기묘년(1579)에 진사에 급제하였으니 선조(宣祖) 12년이었다. 전조(銓曹)에서 공의 명성을 듣고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제수를 하였다. 임기가 끝나 돌아올 때 넘쳐나는 아름다운 칭송이 있었고 사람들은 마음으로 따른 바가 되었다. 두 아우 덕준(德峻)과 덕윤(德潤)[205]은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206]의 문인으로 모두 아름다운 명성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들을 좋게 여기지 않은 자들의 시기를 받았다. 기축년(己丑年) 겨울 정여립(鄭汝立)[207]이 상변

---

203) 사침(士忱): 나사침(羅士忱, 1525~1596)으로, 본관은 나주, 자는 중부(仲孚), 호는 금남(錦南)이다. 관직으론 이성 현감(尼城縣監)을 지냈다.

204) 이중호(李仲虎): 1512~1554. 본관은 전주, 자는 풍후(風后), 호는 이소재(履素齋)이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폐하고 도학에 전력하여 제자들에게 『소학』·『근사록』 등을 우선적으로 가르쳤으며, 서경덕(徐敬德)과 예설을 강론하였다. 또한 문장에도 뛰어나, 김안국(金安國)의 칭찬을 받았으며 특히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심성도설(心性圖說)」·『성리명감(性理明鑑)』 등을 남겼다.

205) 덕윤(德潤): 나덕윤(羅德潤, 1557~?)으로, 본관은 나주, 자는 성지(誠之)이다. 1588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206) 정개청(鄭介淸): 1529~1590.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의백(義伯), 호는 곤재(困齋)이다. 보성에 칩거하여 천문지리 등의 학문을 익히고, 만년에는 전라도 무안에 윤암정사(輪巖精舍)를 짓고 후진을 양성하였다. 1589년 정여립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평안도와 함경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에 『우득록(愚得錄)』이 있다.

207) 정여립(鄭汝立): 1546~1589.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인백(仁伯)이다. 1570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서인 편에 있으면서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촉망을 받았는데, 1585년에 홍문관 수찬이 된 뒤로 당시 집권 세력인 동인 편으로 돌아서서 이이를 배반하고 성혼, 박순(朴淳)을 비판하였다. 선조(宣祖)가 이를

(上變)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철(鄭澈)[208]을 위관(委官)으로 삼고는 기미를 틈타려고 하였다.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꾸며 정암수(丁巖壽)[209], 양천경(梁千頃)[210], 홍천경(洪千璟)[211] 등이 정철의 뜻을 받들어 무고(誣告) 상소(上疏)를 하여 널리 세상에 이름난 사람 30여 명을 모함하고 또 공(公) 부자(父子)의 이름을 거명하여 말하기를 "누구누구의 자식들과 누구누구는 정여립과 매우 친밀한 교유를 하다가 화(禍)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알고는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 구해내려는 사람들까지 모두 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공(公)의 아우 덕현(德顯), 덕헌(德憲)[212] 등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상소(上疏)를 하고는 모여서 큰 소리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암수의 상소(上疏)가 왕에게 들어가자 왕이 진노(震怒)하여 말하기를 "역모(逆謀)의 변란(變亂)을 틈타 몰래 사악하고 간교한 상소(上疏)를 올리니 현상(賢相)과 명경(名卿)들까지 척결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텅 빈 이후에야 그만두려 할 것이다. 이는 반드시 간교한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하고는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정암수 등 열 사람을 잡아들이도록 하였다. 이에 정철은 대관(臺官)과 태학생(太學生)이 혹시라도 진계(陳啓)하거나 혹시라도 장계(狀啓)를 올려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두려워

불쾌히 여기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진안(鎭安) 죽도(竹島)에 서실을 지어놓고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는데, 1589년에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황해도 관찰사 한준(韓準) 등의 고변이 있자 아들 정옥남(鄭玉男)과 함께 피신하였다가 자살하였다.

208) 정철(鄭澈): 1536~1593.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김인후(金麟厚), 기대승(奇大升)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이이, 성혼과 친교를 맺었다. 1561년 진사시에 장원하고, 이듬해 별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좌의정에 이르렀다. 저서로는『송강집(松江集)』과『송강가사(松江歌辭)』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209) 정암수(丁巖壽): 1534~1594.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응룡(應龍), 호는 창랑(滄浪)이다. 1561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선조가 추국하도록 명하였으나 사헌부와 사간원이 뜻을 모으고 태학생들도 정탄원하는 상소를 올려 구원받았다. 임진왜란에는 고경명(高敬命)을 따라 금산전투에 참여했다.

210) 양천경(梁千頃): ?~1591.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기축옥사가 일어났을 때, 최영경(崔永慶)을 모함하여 옥사시켰다. 1591년 무고 사실이 드러나자 장형을 맞고 북도(北道)로 유배되었는데, 유배지로 가는 도중 장독(杖毒)이 심해져서 모두 죽었다.

211) 홍천경(洪千璟): 1553~1632.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군옥(羣玉), 호는 반환·반항당(盤恒堂)이다. 기대승·이이·고경명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 때 김천일을 따라 군량의 수집과 수송을 담당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도원수 권율 휘하에서 의병모집의 격문을 작성하였다.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에 장원하였다. 월정서원(月井書院)에 제향되었다.

212) 덕헌(德憲): 나덕헌(羅德憲, 1573~1640)으로, 본관은 나주, 자는 헌지(憲之), 호는 장암(壯巖)이다. 1603년 무과에 급제했으며, 외교적 수완이 능해 여러 차례 청(淸)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1636년에는 춘신사(春信使)로 심양(瀋陽)에 가서 황제의 즉위식에서 하례(賀禮)를 거부하다 큰 곤액(困厄)을 겪었고, 귀국 후에는 황제참칭(皇帝僭稱)의 국서를 받았다고 하여 척화파(斥和派)의 탄핵을 받아 백마산성(白馬山城)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심양에서 하례를 거부하고 항거한 사실이 밝혀져 유배에서 풀려나 삼도통어사로 특진되었으며, 1639년 벼슬에서 물러났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장암집(壯巖集)』이 있다.

하였다. 이윽고 무안(務安) 유생(儒生) 배명(裵黓)[213]이 곤재(困齋)와 공(公)의 부자(父子)의 원통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상소(上疏)하였는데, 정철이 마침내 저지할 것을 계획하고 정암수가 공(公)의 여섯 부자(父子)들에 대한 죄목을 허위로 꾸며 일시에 의금부로 가 심리(審理)를 받게 되었는데, 찬성공(贊成公)은 특별히 효(孝)로써 용서를 받았고 공(公)은 경성(鏡城)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으며 여러 아우들은 모두 나뉘어 유배 가게 되었다. 공(公)이 유배지에 이르러 시(詩)를 지어 아우에게 보냄에, 형제간의 우애를 부쳐 말하기를

대관령 구름은 아득한데 기러기는 무정하여	關雲迢遞雁無情
어느 곳 외로운 성(城)에서 부모형제 그리나?	何處孤城憶父兄
촛불 깜박이는 깊은 밤 나뭇잎엔 서리 내려	殘燭夜深霜葉響
꿈속 못 풀은 자라질 못하네.	夢中池草不能生

라고 하였다.

임진년(壬辰年). 섬 오랑캐들이 넘쳐나 적장(賊將)인 가등청정(加籐淸正)이 말을 달려 쳐들어오자 북변(北邊) 회령(會寧)사람 국경인이 드디어 난을 일으켜 왕자(王子) 임해군 진(珒)과 순화군 보(堡)와 재신(宰臣) 김귀영(金貴榮)[214]과 황정욱(黃廷彧)[215] 등을 잡아두고 왜적에게 응하였다. 이에 진보(鎭堡)의 배반한 군졸들이 수장(守將)들을 치고 서로 적들에게 항복을 했는데, 종성(鍾城) 사람 국세필(鞠世弼)[216]이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북평사(北評事) 정문

---

213) 배명(裵黓): ?~?.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요단(堯端), 호는 희암(希菴)이다. 1565년 곤재 정개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80년에 전라교수관(全羅敎授官)에 제수(除授)되었다. 1589년 기축옥사로 화를 입은 정개청·나사침·나덕명 등의 무고함을 알리고 진상의 재조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려 윤허를 받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아우 효우당(孝友堂) 배협(裵莢) 등과 의병을 일으켜 진주(晉州)에서 싸웠다. 1618년(광해 10) 인목대비의 존호를 깎아 서궁(西宮)이라고 칭하는 대비 유폐 사건이 일어나자 일의 부당함과 폐모론을 주장하는 무리들을 제거할 것을 상소하였다.

214) 김귀영(金貴榮): 1520~1593. 본관은 상주, 자는 현경(顯卿), 호는 동원(東園)이다. 1547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임해군을 배종하여 피란했는데, 회령에 수개월 머무는 동안 민폐가 많아 인심을 잃었다. 때마침 적이 침입하자, 국경인에 의해 적장 가등청정에게 넘겨졌다.

215) 황정욱(黃廷彧): 1532~1607.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경문(景文), 호는 지천(芝川)이다. 1558년 문과에 급제하고, 1584년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로 명나라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왔다. 1589년 정여립의 모반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가 곧 복직되었다. 이듬해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1등이 되어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에 책봉되면서 대제학이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왕자 순화군을 배종하여 관동으로 피신하였다. 여기서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을 돌렸다. 저서로는『지천집(芝川集)』이 있다.

216) 국세필(鞠世弼): ?~1592. 경성부(鏡城府) 호장(戶長)으로 조카인 아전 국경인, 명천 아전 정말수(鄭末守) 등과 더불어 당을 지어 임진왜란 때 회령부로 피난 온 임해군, 순화군과 호종한 조정 신하들을 포박하여 왜군에게 넘기고 항복한 뒤에, 적이 임명하는 벼슬을 받고 각각 그 고을 성을 점거하고 다스렸다. 이후

부(鄭文孚)와 전(前) 감사(監司) 이성임(李聖任)과 경원부사(慶源府使) 오응태(吳應台), 경흥부사(慶興府使) 나정언(羅廷彦), 수성찰방(輸城察訪) 최동망(崔東望)등이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공(公)은 함께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한백겸(韓百謙)과 함께 그들의 계획에 찬성을 하였다. 종성부사(鍾城府使) 정현룡(鄭見龍), 고령첨사(高嶺僉使) 정경천(鄭擎天) 등 또한 와서 모여 적의 우두머리를 잡아 목을 베자 군성(軍聲)이 크게 떨쳐졌다.

다음 해 봄, 별장(別將) 이붕수(李鵬壽)[217]와 만호(萬戶) 이희당(李希唐)등은 왜적과 전투를 하던 도중 같은 날 죽었다. 공(公)은 정문부와 더불어 시를 지어 이 일을 슬퍼하였는데, 이 일은 택당(澤堂) 이식(李植)[218]이 편찬한 북관지(北關志)에 실려 있다. 그해 공(公)이 비로소 풀려나 돌아오게 되었다.

병신년(1596) 무안(務安) 주룡(住龍) 나루에서 찬성공(贊成公)의 장례를 치르고 시묘살이를 하였다. 정유년(1597) 왜적이 다시 쳐들어오자 공(公)이 여러 동생과 함께 주룡(住龍)에서 은적산(銀績山)으로 난리(亂離)를 피하다가 같은 고향사람 효자(孝子) 이유경(李有慶)이 공(公)과 함께 나루를 건너려고 하였다. 공(公)이 이공(李公)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먼저 피하시오"라고 하였다. 이공(李公)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주객(主客)이 다른데 내가 비록 뒤에 떨어져 낭패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그러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公)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먼저 물을 건넌다면 우리 집 종들은 반드시 그대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끝내 그를 먼저 건너게 하였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의리를 기필하여 피차(彼此) 서로 이러한 마음을 양보하지 않았음을 칭찬하였다.

난리가 평정되자 주룡에 정자를 짓고 소포께서 그곳에 올라 편안히 즐기면서 일생을 마쳤다. 매번 선산을 성묘할 때면 회포를 읊는 시를 지어 말하기를

아침마다 선산에 올라	朝朝上丘壟
떠나려다 다시 돌아와 주저하네.	欲去還躕躇

함경북도 평사 정문부가 종성부사, 경원 부사 등과 합세하여 의병을 조직하여 경성을 수복하자, 국경인 등과 함께 참수당하였다.

217) 이붕수(李鵬壽): 1548~1593. 본관은 공주(公州), 자는 중항(仲恒)이다. 정문부의 별장으로 많은 전공을 세웠다. 길주 장평(長坪), 쌍포(雙浦)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1593년(선조 26) 1월 함경북도 단천(端川) 전투에서 승리하여 적병이 후퇴하자 이를 추격하여 옥탑평(玉塔坪)에서 싸우다가 적의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다. 1666년 사헌부 지평(持平)에 추증되고, 경성의 창렬사(彰烈祠)에 배향되었다.

218) 이식(李植): 1584~1647. 본관은 덕수,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남궁외사(南宮外史)·택구거사(澤癯居士),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610년(광해군2)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1613년 설서를 거쳐 1616년 북평사(北評事)가 되고, 이듬해 선전관을 지냈다.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형조 판서, 이조판서, 예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신흠·이정귀·장유와 함께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로 꼽혔다. 저서에 『택당집(澤堂集)』 등이 있다.

모시기에 정성을 다해　　庶幾侍閽闈
한결같은 평생의 거동 드러냈네.　　一見平生儀

라고 하였다.

공은 가정 신해년(1551) 태어나 60세에 돌아가셨다. 만력 경술년(1610) 5월 28일이다. 찬성공(贊成公)의 묘 아래에 장사를 지냈다. 공은 매우 장대하고 위용(威容)이 경외(敬畏)스러워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산하(山河) 사이의 기운을 얻었다고 하였다. 본주(本州)의 목사(牧使)가 공과 여러 해 동안 서로 필적(匹敵)하면서도 반드시 그를 노형(老兄)이라고 불렀다. 나이가 5,6살 어린데도 반드시 어른〔丈〕이라고 부르면서 공경하는 예를 드러내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고을사람 임문화(林文化)는 공과 함께 재주와 기개를 좋아하여 당시에 이름이 알려졌다. 공이 그와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일찍이 산사(山寺)에서 만나자고 약속 했는데, 임공(林公)은 먼저 도착해서 담론(談論)하기를 스스로 마치 방약무인(傍若無人)하는 듯한 사람이었는데, 공이 뒤이어 이르자 임공(林公)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기운을 잃고는 공이 말하기만 하면 "예! 예!"하고 대답하였다. 당시 절의 승려 가운데 이를 목격한 자가 이 미담(美談)을 전하였으니 성품이 또한 호방(豪放)하여 대수롭지 않은 예절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누구에게나 허락됨이 적었다. 하루는 화장실을 가려는데 지주(地主)가 갑자기 이르러 공(公)을 삼가 당(堂)위로 끌어당기자 곧바로 섬돌 위에다 뒤를 보고는 태연히 처리를 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상(堂上)에서 설사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자, 사람들이 그의 넓은 도량에 감복을 하였다. 남쪽에서 공(公)의 명성이 나자 사람들은 모두 일면식(一面識)이라도 있기를 원했다. 성관(星冠)으로 하여금 문후(問候)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이었고 맞이할 때의 예모(禮貌)는 매우 단출하였지만, 망우당 곽재우가 영암(靈巖)에서 귀양을 살고 있을 때, 주룡(住龍)으로 공(公)을 방문하여 문(門)에서 응대하는 자에게 곽거사(郭居士)가 왔다고 전하게 하자 공(公)은 허둥지둥 옷과 갓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당(堂)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하자 같은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공(公)은 평소에는 남에게 굽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찌 된 일로 거사(居士)에게는 공(公)이 공경(恭敬)함이 이와 같습니까?"라고 하였다. 공(公)은 드디어 그와 함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것들을 토론하면서 깊이 서로의 마음을 얻었다. 그 뒤 곽공(郭公)이 조정으로 돌아가 왕께서 원수(元帥)의 재주를 가진 사람에 대해 묻자 공(公)을 천거했다고 한다. 그가 비록 초야(草野)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뜻과 절개로 시대를 걱정해서, 하늘을 감동시키고 인심을 모을 방법으로서 감동시켰으니 상달하는 바가 있었다. 기축년(己丑年)에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의 신원(伸冤)과 잘못된 균역(均役)과 부역(賦役)의 폐단을 바로잡는 책략을 청하여 조목조목 나열하였고, 각 영(營)에 설치한 둔전(屯田)을 폐지할 것을 청하였다. 이것은 병신년의 상소에서 기해년의 병서(兵書)에 저촉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책에 모두 징

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공은 일찍이 여름날 주룡(住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산모퉁이에서 큰 뱀이 기어와 배 위에 똬리를 틀고 있었다. 공이 잠이 깨어 뱀이 기어와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끝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가기를 기다렸다. 그 기량(器量)의 무거움이 이와 같았다. 또 세장(洗腸)의 방법에 능통해서 저녁마다 물 한 그릇씩 마시고서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토해내니 꼭 그 그릇에 가득 찼다. 홍시(紅柿)같은 과일도 삼켰다가는 한참 후에 씨와 벌레를 토해내니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시(詩)를 지을 때의 말은 반드시 응대하면서도 막힘이 없으며 맑고 씩씩하여 구애됨이 없는 기개(氣槪)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다만 공에게 있어서 그다지 요긴한 일이 아닐 뿐이었다. 그가 노래한 것이 몇 수가 있기는 하지만 오자(誤字)가 많아 완전한 것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한탄스럽다.

공이 돌아가시자 아우 덕윤(德潤)이 만사(輓詞)를 지어 슬퍼하였다. 그 대략은 이와 같다.

가슴 속에 운몽을 삼키고	胸呑雲夢
가사는 보불을 토해냈네.	詞吐黼黻
뜻은 우주를 넘고	志凌宇宙
눈은 하늘가를 바라보네.	眼空霄壃
용처럼 강가에 누워	龍臥江潭
스스로 관중과 제갈공명에 비교하였네.	自擬管葛

라고 하였으니, 공의 평소의 뜻을 잘 묘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애석하다! 하늘이 공을 세상에 낼 때는 마땅히 큰일을 하도록 한 것인데 끝내 능히 한 번도 하늘의 명을 시험해보지 못 하였다.

공의 전처(前妻)는 광산김씨(光山金氏)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담양(潭陽) 부사(府使)인 경헌(景憲)[219]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었고, 후처(後妻)는 문화유씨(文化柳氏) 절(節)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었다. 모두 나주(羅州) 장흥동(長興洞)에 장사를 지냈다.(문화유씨 할머니는 먼저 합장하였고, 광산김씨 할머니는 2009년 7월 20일 합장하였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이소(以素)와 인소(因素)는 김씨(金氏) 소생(所生)이고 성소(成素)와 취소(就素)는 유씨(柳氏) 소생(所生)이다. 성소(成素)는 무과(武科)에 급제를 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고, 이소(以素)는 아들을 넷 두었는데, 유(褕), 심(尋), 규(珪), 현(袨)이다, 인소(因素)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결

219) 경헌(景憲): 김경헌(金景憲, 1514~?)으로, 본관은 광산, 자는 윤중(允仲)이다. 1558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담양부사(潭陽府使)에 이르렀다.

(結), 격(�figure)이고 딸 하나를 두었는데 유시화(柳時華)에게 시집을 갔다. 또 서자(庶子)로 겹(浹)을 두었다. 성소(成素)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참봉 이소(李韶)[220]에게 시집갔다. 또 서자(庶子)로 표(表), 방(祊), 원(袁) 셋을 두었다. 취소(就素)는 후손이 없었다. 공(公)의 자손이 대를 이어 쇠락해졌다가 결(結)의 손(孫)인 만영(晩榮)[221]은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지평(持平)에 오르자 집안의 명성이 다시 떨쳐졌으니, 여기서 남은 경사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아! 공이 돌아가신 지 지금 벌써 106년이 되었다. 평생의 행적이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증험할 것이 없어 간략하게나마 보고 들은 것을 기술하니 만에 하나 뒤에 더 공에 대해서 논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통하여 공의 간략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숭정(崇禎) 병자년 이후 79년 을미년(1715) 7월 종증손 생원 두동(斗冬)[222]은 삼가 기록한다.

公諱德明。字克之。號龜菴。又號嘯浦。姓羅氏。羅州人。麗朝有諱富。爲監門衛上將軍。是公鼻祖也。後至工曹典書諱璡。最貴顯。生典農寺正諱公彦。洪武間有克倭功。仍世爲湖之右族。曾祖諱逸孫。典涓司直長。贈承政院左承旨。祖諱晫。司憲府監察。贈戶曹參判。考諱士忱。師事履素齋李仲虎。以至行聞中宗。施其閭。復其戶。宣祖初道臣薦其賢累除。官至尼山縣監。其去思碑。有倭花一朶鶴一隻行李蕭然古人風之詩。累贈議政府左贊成。前配坡平尹氏。府使諱彦商之女。後配光州鄭氏。蛇渡僉使諱虎之女。各擧三男。人以六龍目之。公卽其家嗣。資稟魁偉傑特。識者期以遠大器。嘗在約年八九時。路逢州吏。吏不爲禮。公擧理叱責。吏乃肅然敬服。聞者咸奇之。萬曆己卯。擧進士。棠宣祖十二年也。銓曹聞公名。除義禁府都事。罷遞歸鄕。時公蔚有聲華。爲人所倣俠。二弟德峻·德潤。以鄭困齋門人。俱有令名。遂被不悅者所忌嫉。己丑冬。有鄭汝立上變事。委官鄭澈乘機。羅織丁巖壽·梁千頃·洪千璟等。承澈旨。投誣疏。陷諸名流三十餘人。而又擧公父子之名曰。某之子某等。與汝立交至密知。禍及已譸張。解皆宜罪。公之弟德顯·德憲等。不勝憂憤。詣其疏會。大言斥之。及巖壽疏入。上震怒曰。爲乘逆賊之變。陰陳邪誦之疏。賢相名卿。無不指斥。必欲空國而後已。此必聽奸人指嗾命。禁府拿鞫巖壽等十人。於是。澈懼使臺官及太學生。或陳啓。或上章。

---

220) 이소(李韶): ?~?.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광구(光九), 호는 도애(桃崖)이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에 나아가 관직 생활을 하였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사옹원주부(司饔院主簿)에 이르렀다. 그러나 광해군 즉위 뒤 정치의 문란함에 회의를 느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된 뒤 이조참의, 이조참판 등의 벼슬이 내려졌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다가 결국 외직이었던 은진현의 현감이 되었다.

221) 만영(晩榮): 나만영(羅晩榮, 1652~1698)으로, 본관은 나주, 자는 경여(慶餘)이다. 1693년 문과에서 장원급제하였다.

222) 두동(斗冬): 나두동(羅斗冬, 1658~1728)으로, 본관은 나주, 자는 간이(幹而)이다. 1693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1728년 이인좌의 난에 동참하여 참형에 처해졌다.

寢其并。俄而務安儒生裵莫。疏伸卞困齋及公父子冤狀。甚悉。而澈竟以謀沮。巖壽疏搆成罪目公之六父子。一時就理。贊成公特以孝見原。公謫鏡城。諸弟竝分配。公到配。吟詩寄弟。以寓陟岡之懷曰。關雲迢遞雁無情。何處孤城憶父兄。殘燭夜深霜葉響。夢中池草不能生。壬辰島。夷祝充斥。賊將淸正長驅至。北邊會寧人鞠景仁。遂作亂。執王子臨海君珒·順和君及宰臣金貴榮·黃廷彧等。以應倭族。是鎭堡叛卒。爭縛守將。相繼附賊。鍾城人鞠世。必卽其渠魁也。北評事鄭文孚。與前監司李聖任·慶源府使吳應台·慶興府使羅廷彦·輸城察訪崔東望等。謀起義兵。公與同謫人韓百謙。協贊其謀。鍾城府使鄭見龍·高嶺僉使柳擎天等。亦來會。捕得首惡者。斬之。軍聲仍以大振。明年春。別將李鵬壽·萬戶李希唐等。與賊戰。同日死。公與文孚作詩。以哀之。事載李澤堂植所撰北關志。其年公始得宥還。丙申。丁贊成公憂。奉行襄禮于務安住龍渡。仍居墓下。丁酉。倭賊更熾。公與諸弟。自住龍將避于銀積山。同鄕孝子李有慶。偕公舡欲渡。公謂李公曰。君可先渡。李公辭曰。主客有異。吾雖落後狼狽。理勢固然耳。公曰。吾若先渡。吾家奴必不致誠於君。竟使之先渡。人稱顚沛必是之義。彼與此無讓矣。亂定。住亭于住龍。嘯浦上。優遊以終老。每省拜先壟。有詠懷詩曰。朝朝上丘壟。欲去還躕踟。庶幾侍閶闔。一見平生儀。公生于嘉靖辛亥年。六十卒。卽萬曆庚戌五月二十八日也。葬贊成公墓下。公體甚長大。威容可畏。見之者。以爲得山河間氣。本州牧與公年相敵者。必稱老兄。少五六歲。必稱丈。其見敬禮如此。鄕人林文化懽。以才智氣槩。知名當世。公與之相善。嘗約會山寺。林公先到談論。自若傍若無人者。及公追至。林公自不覺沮喪。公出言。輒唯唯。其時寺僧之目擊者。傳以爲美談。性又豪放。不拘小節。傲視一世。於人少許可。一日將如厠。地主猝至。公僅得延之上堂。仍卽遺矢于堦上。處之晏然曰。此愈於在堂上滑泄。人服其曠度。公旣名重南服。人皆願一識。使星冠蓋歷候者絡繹。而迎接之際。禮貌頗簡。至於郭忘憂堂再祐之謫居靈巖也。訪公住龍。使應門者。入傳郭居士來到。公顚倒衣冠。下堂迎之。一村人皆驚曰。公平生未嘗屈於人。何狀居士能令公致敬若是哉。公遂與討論襟懷。甚相得。其後。郭公還朝。上問元帥。才至以公薦剡云。雖在草野。志切憂時。以感天意·結人心之道。有所上達。而請伸己丑冤死之類。以革弊政均賦役之策。有所條列。而請罷各營屯田之設。此於丙申疏及己亥抵兵書。書中俱可徵也。公嘗於憂[223]日。晝眠于住龍。山隅有大蛇。來蟠于腹上。公覺來。知其爲蛇。終不動身。以待其自去。其哭[224]量凝重。類如是矣。又能通洗腸之術。每夕飮水一哭。翊朝還吐。必滿其哭。至於紅柹等物。吞下良久。吐其椀與虫屑。人莫不異之。爲詩語必雄放淸健。有不局底氣岸[225]。然此特公之餘事耳。其所吟詠者。有若干首。而字多訛誤不得傳。眞可勝歎哉。公之歿也。弟德潤。爲文哭之。其略曰。

---

223) '夏'가 옳은 글자인 듯하다.
224) '器'가 옳은 글자인 듯하다.
225) '概'가 옳은 글자인 듯하다.

胸吞雪夢。詞吐黼黻。志凌宇宙。眼空霄塿。龍臥江潭。自擬管葛。可謂摹得公之平生也。惜乎。天之生公。宜若有爲。而竟未克一試也。公先聘光山金氏。科潭陽府使景憲之女。繼娶文化柳氏節之女。俱葬羅州長興洞。有四男曰。以素因素金氏出也。成素就素。柳氏出也。成素武科宣傳官。以素有四男。褕禒袿祫。因素有二男。袺褵。一女柳時華。又有庶出子袂。成素有一女。李韶參奉。又有庶出子。表祊袁三人。就素無後。公之子孫。連世陵替。而袺之孫晩榮。擢文科壯元。官至持平。能使家詳復振。斯可見餘慶之未艾也。

嗚呼。公之歿今已百有六年矣。其平生行蹟。必不止此。而久遠無徵。略述見聞。記其萬一後之尙論公者。亦可因此。而得公之梗聚矣。

崇禎丙子後七十九年。乙未七月日。從曾孫生員。斗冬謹記。

출전 : 나주나씨금호종중, 『(국역·증보)금호유사』, 2018

10) 나덕헌(羅德憲, 1573~1640)

• 본관 나주(羅州), 자 헌지(憲之), 호 미상

(1) 박지원(朴趾源), 『연암집(燕巖集)』 권2, 「가의대부행삼도통제사 증자헌대부병조판서겸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시충렬이공신도비명 병서(嘉義大夫行三道統制使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諡忠烈李公神道碑銘 并序)」

이때 만주족이 이미 심양을 점거하여 자주 산해관(山海關)을 침공하였으며, 몽고의 여러 부족을 다 복속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린(交隣)의 도리로서 대우하여 사신의 내왕이 끊이지 않았다. 숭정(崇禎) 9년 병자년(1636, 인조 14)에 만주족은 영아아대(英兒阿代)[226]와 마복탑(馬福塔)[227]을 보내와 서신을 전달했는데, 그 사연이 몹시 패악하고 거만하여,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전날과 아주 달랐다. 그래서 대각(臺閣) 및 성균관 유생들이 번갈아 상소를 올려, 그 사신을 베어 머리를 함에 넣어 명나라 황제께 아뢰자고 요청하니, 영아아대 등은 크게 놀라 숙소에서 뛰쳐나가 말을 빼앗아 타고 달려가면서 국서(國書)를 도중에 내버렸다.

이때 사대부들은 모두 심양에 사신 가기를 회피했으므로 마침내 공을 회답사(回答使)[228]에

226) 영아아대(英兒阿代): 용골대(龍骨大)라고도 한다. 만주 정백기인(正白旗人)으로, 호부 상서를 지냈다. 조선에 누차 사신으로 왔으며, 병자호란 때 청 태종(淸太宗)의 막료로서 참전했다.

227) 마복탑(馬福塔): 마부대(馬富大: 또는 馬夫大)라고도 한다. 만주 정황기인(正黃旗人)으로, 조선에 사신으로 자주 왔으며, 병자호란 때 청 태종의 막료로서 참전했다.

228) 회답사(回答使): 교린(交隣)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사신을 통해 국서를 보내왔을 때 그에 회답하는 국서를 전하기 위해 파견하는 사신을 이른다.

충원시키니, 서신을 가지고 뒤를 쫓아 용만(龍灣)에 이르렀다. 때마침 춘신사(春信使) 나덕헌(羅德憲)[229]이 공보다 먼저 출발하여 막 용만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동행하여 심양으로 들어갔다.

한(汗)[230]이 공들을 접견하고서 더욱 거만하게 굴며 폐백을 선뜻 받아 주지 않고, 사자(使者)를 숙소로 번갈아 보내어 10여 건의 일을 들어 트집만 잡곤 하였다. 한(汗)이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려 하면서, 먼저 정명수(鄭命壽)[231]를 시켜 오만 가지로 회유하고 협박했으므로, 공은 허리에 찬 칼을 뽑아 정명수에게 주면서,

"내 머리를 가지고 가라!"

하였다. 이튿날 만주족 기병 수십 명이 채찍으로 문을 후려치고 크게 호통치면서,

"조선 사신은 빨리 예복을 갖추라!"

하자, 공은 탄식하며,

"오늘에야 죽을 자리를 얻었나 보다."

하고, 마침내 나공(羅公)과 함께 동쪽을 향해 네 번 절을 올리고 멀리서 임금께 하직을 고하였다. 그리고 손수 관복을 찢고 사모(紗帽)를 밟아 뭉개버리고는 다시 입지 않을 뜻을 나타냈으며, 스스로 상투를 풀고 머리를 맞대어 두 가닥을 한데 합쳐 묶고 서로 보듬고 누웠다.

한(汗)이 장사(壯士)를 보내어 공들을 좌우로 끼고서 내달리어 제단 아래 이르자, 패륵(貝勒)과 팔고산(八固山)과 번자(番子)[232]들이 다 줄지어 서고, 몽고의 수 십만 기병이 제단을 빙 둘러 진을 쳤다. 한(汗)은 자황포(柘黃袍)[233]를 입고 규(圭)를 잡고 제단에 올라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라는 존호(尊號)를 받고, 국호를 세워 '대청(大淸)'이라 하고 '숭덕(崇德)'으로 연호

---

229) 춘신사(春信使) 나덕헌(羅德憲):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후금(後金)과 형제 맹약을 맺고 매년 봄과 가을에 사신을 심양에 보내 조공을 바쳤는데, 봄에 보내는 사신을 춘신사라 하였다. 나덕헌(1573~1640)은 이괄의 난 때 도원수 장만의 휘하에서 공을 세워 진무 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1등으로 책훈되었다. 1636년 춘신사로서 회답사인 이확과 함께 심양에 가 청 태종이 칭제건원(稱帝建元)하는 의식에서 삼궤구고례(三跪九叩禮)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나 귀국 이후 오히려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다가 풀려났으며, 교동수사(喬桐水使) 겸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를 지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230) 한(汗): 고대 북방 민족의 족장(族長) 또는 왕(王)을 일컫던 말로 가한(可汗), 칸(khan)으로도 불린다. 여기서는 청 태종을 이른다.

231) 정명수(鄭命壽): 평안도의 천민으로 1619년 강홍립의 군대를 따라갔다가 포로가 되자 잔류하여 신임을 얻었다. 병자호란 때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의 통역으로 입국하여 갖은 횡포를 부렸다.

232) 패륵(貝勒)과 팔고산(八固山)과 번자(番子): 패륵은 청(淸) 종실(宗室)의 봉작(封爵)의 하나이다. 청 종실의 봉작은 친왕(親王), 군왕(郡王), 패륵(貝勒), 패자(貝子)의 순서로 되어 있다. 팔고산은 곧 팔기병(八旗兵)을 이른다. 팔기병은 병졸 300인이 하나의 우록(牛彔)을 이루고, 다섯 우록이 하나의 갑라(甲喇)를 이루고, 다섯 갑라가 하나의 고산(固山)을 이루어, 모두 여덟 고산이 된다. 번자는 형사(刑司)에 소속되어 체포와 형장(刑杖)을 맡은 벼슬아치를 이른다.

233) 자황포(柘黃袍): 뽕나무 즙을 물들여 만든 적황색의 도포로, 수당(隋唐) 이래 황제들의 복색(服色)으로 사용되었다.

를 바꾸었다. 장사들이 공을 끼고 서자, 공은 즉시 나자빠져 다리를 쭉 뻗고 누웠다. 장사들이 앞을 다투어 그 팔과 다리를 붙잡고 고개를 억누르고 꽁무니를 쳐들고 사지를 들어 땅에 엎어뜨리자, 공은 크게 호통치며 몸을 뒤집어 바로 누우며, 앞에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누운 채 발길로 그 얼굴을 차서 코가 깨져 피가 터지곤 하니, 이날 구경하던 자들은 깜짝 놀라고 혐오스러워[234] 차마 보지를 못했다. 마침내 거꾸로 질질 끌어다 숙소에 가두었다.

이튿날 다시 동교(東郊)에서 제사를 지낼 적에 또 공들을 끌고 갔다.[235] 공들은 더욱 사납게 항거하며 눈을 부릅뜨고 크게 꾸짖으니, 정말로 그 사나움을 당해 낼 수 없었다. 만주족의 여러 신하가 흔고(釁鼓)[236]하여 대중 앞에 위엄을 보일 것을 청하자, 한(汗)은,

"저것들이 지금 죽여 달라고 요구하는 판인데, 지금 죽이면 도리어 저놈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이 되고, 또 사신을 죽였다는 악명을 무릅쓰게 된다. 그러니 놓아 돌려보내느니만 못하다."

하였다. 드디어 서한을 만들어 보따리 속[237]에 넣어 주고 기병 100여 명을 시켜 공을 압송하여, 아골관(鴉鶻關)[238]까지 이르러 되돌아갔다. 공들이 비로소 보따리를 점검하고 과연 한(汗)의 서신을 발견하자 놀라며,

"서신에 새 도장을 찍어 봉했으니 그 내용은 뻔하다. 만일 서신을 떼어봤다가 예전 격식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장차 어찌하랴?"

하고, 드디어 서신을 여점(旅店)에 놓아두고 말을 달려 돌아와 책(柵)[239]을 벗어났다. 변방에서는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기를[240], 공들이 적의 뜰에서 절하고 춤을 추었다 했고, 관찰사 홍명구(洪命耉)[241]는 장계를 급히 올려 국경에서 그들을 효시(梟示)할 것을 청했다. 이에 삼사(三司)와 성균관 유생들이 모두 상소를 올려 베어 죽이기를 청하므로,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

---

234) 깜짝 놀라고 혐오스러워: 원문은 '駭惡'인데, '駭愕'의 오류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깜짝 놀라'로 번역되어야 한다.

235) 이튿날 …… 갔다: 원문은 '明日復祀東郊 又擁公等去'인데, 『여한십가문초』에는 '明日復擁公等去'로 되어 있다.

236) 흔고(釁鼓): 전쟁을 할 때 사람을 죽여 그 피를 북에 바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른다. 여기서는 두 조선 사신을 죽이자는 뜻이다. 『운산만첩당집』, 『연상각집』, 『하풍죽로당집』에는 '祭纛'으로 되어 있고, 『여한십가문초』에는 '祀東郊 又釁鼓'로 되어 있다.

237) 보따리 속: 원문은 '裝中'인데, 『중편연암집』과 『여한십가문초』에는 '公裝中'으로 되어 있다.

238) 아골관(鴉鶻關): 요령성(遼寧省) 요양현(遼陽縣)에 있는 관문의 이름이다.

239) 책(柵): 요령성의 압록강 부근 구련성(九連城)과 봉황성(鳳凰城) 사이 일대에 말뚝을 박아 국경 출입을 통제한 시설물을 이른다. 그곳의 책문(柵門)을 통해서만 사신 왕래와 교역이 이루어졌다.

240)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기를: 원문은 '譁言'인데, 『여한십가문초』에는 '譁言'으로 되어 있다.

241) 홍명구(洪命耉): 1596~1637. 인조반정 이후 등용되어, 병자호란 때 평안 감사로서 근왕병(勤王兵)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향해 달려가다가 전사하였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尙憲)이 역설하기를,

"두 사신을 아직 신문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유독 먼저 베어 죽인단 말인가!"

하여 말감(末減)[242]을 얻었다. 그리하여 공은 선천(宣川)으로 귀양 가고, 나덕헌은 백마산성(白馬山城)을 병사(兵士)로서 지키게 되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연암집(https://db.itkc.or.kr/)

時滿洲已據瀋陽。數侵擾山海關。盡服屬蒙古諸番。然猶以隣道待我。不絕聘報。禎九年丙子。滿洲使英兒阿代,馬福塔來遺書。辭甚悖慢。所望非前日者。臺閣及太學諸生。交章請斬其使。函首奏天子。英兒阿代等。大恐跳出舘。奪馬馳去。棄國書道中。是時士大夫皆避使瀋中。乃以公充回答使。持書追至龍灣。時春信使羅德憲先公發。方留灣上。遂偕行入瀋陽。汗見公等。益慢不肯受幣。迭使舘中誚讓十餘事。汗將郊天。先使鄭命壽誘脅萬端。公拔佩刀。授命壽曰。持我頭去。明日滿洲數十騎。鞭門大呼曰。朝鮮使趣整服。公歎曰。今日死得所矣。遂與羅公東向四拜。遙辭國。手自裂袍。踏壞紗帽。以示不復服。自解髻。駢首交綰。兩相抱持臥。汗遣壯士。挾持公等。驅至壇下。貝勒八固山番子等皆班立。蒙古騎數十萬環壇而陣。汗衣柘黃袍。執圭升壇。受尊號曰寬溫仁聖皇帝。建有國之號曰大淸。改元崇德。壯士擁公立。公輒擲身伸脚臥。壯士爭前執其臂股。抑首揭尻。四舉而覆之地。公則大呼翻身背臥。有近前者。臥輒踢其面。鼻潰血濺。是日觀者。駭惡不忍視。遂倒曳鎖于舘。明日復祀東郊。又擁公等去。公等益暴抗裂眦大罵。眞悖戾不可當。滿洲群臣請鬻鼓威衆。汗曰。彼方自求殺。今殺之。反適其願。且有殺使名。不如赦還。遂爲書置裝中。使百餘騎押公。馳至鴉鶻關而去。公等始檢裝。果得汗書。驚曰。書封新印。其中可知。萬一發書。有不中舊式者。將奈何。遂置書店中。馳還脫出柵。邊上讙言。公等拜蹈敵庭。觀察使洪公命耆馳啓。請梟示境上。於是三司及太學生交章請誅。金文正公尙憲力言兩使不驗問。奈何獨先斬之。得末減。公謫宣川。羅戍白馬城。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연암집(https://db.itkc.or.kr/)

(2) 『인조실록(仁祖實錄)』 권30, 12년 11월 12일

갑자년

추신사(秋信使) 나덕헌(羅德憲)이 오랑캐 땅에 갔는데, 한(汗)이 패해서 돌아온 뒤로 우리나라가 그 일을 알까 두려워하여 지레 공갈치기를 '예단(禮單)의 수효를 줄였고 우리가 원정(遠征)한 노력에 대해 위로하지 않았다.' 하고는, 끝내 덕헌을 붙잡아 두었다. 그리고는 글을 보내 꾸짖었는데, 그 글 중에는 패려하고 거만한 말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전관 이정현(李廷顯)에게 답서를 주어 보냈다.

---

242) 말감(末減) : 가벼운 죄에 처하는 것을 이른다.

甲子。秋信使羅德憲往虜中。汗自敗還之後。恐我國知其事。先自恐喝以爲。禮單旣減其數。且不慰遠征之勞。遂留德憲。貽書責之。書中多有悖慢之語。我國使宣傳官李廷顯。齎答書以遣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3) 『인조실록(仁祖實錄)』 권30, 12년 11월 30일

임오년

추신사(秋信使) 나덕헌(羅德憲)이 치계하였다.

"용호(龍胡)[243]가 부하 30여 명을 데리고 신이 머무른 곳에 와서 묻기를 '중국의 대장이 섬에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데, 데리고 있는 병력이 몇천 명이나 되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중국 장수가 어느 정도의 병력을 데리고 있는지는 우리나라에서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 장수는 철수하여 돌아가려 한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용호가 말하기를 '섬에서 도망쳐 온 한인(漢人)이, 중국 장수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다음 해 봄에 조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협공하려 한다고 상세히 말하였는데, 어찌하여 속이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중국에서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병력을 보내 협공한다는 말은 한인이 속여서 한 말이니, 믿어서는 안된다.' 하였더니, 용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의 부모 형제도 오랑캐의 소굴에 잡혀가 있는 자들이 매우 많아 그들은 날마다 문밖에 모여 친척들과 함께 서로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틈을 타 그들의 정황을 몰래 탐문하도록 하였더니, 말하기를 '이 적들이 금년 선(宣)·대(大)의 전쟁에서 곤경에 처하여 소도리(所道里) 이하 제장 중 전사한 자가 7~8명 혹은 수십 명이 된다고 하며, 전사한 군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환군한 날에는 어두울 때에 들어와서 성(城) 내외의 몽고(蒙古) 및 한인들이 그 허실을 알지 못하게 했다.' 하였습니다."

壬午。秋信使羅德憲馳啓曰。龍胡率從胡三十餘人。來見臣所館處曰。天朝大將留駐島中云。所帶兵幾千耶。臣答曰。漢將所帶兵丁多寡。非我國所知。而將欲撤還云矣。龍胡曰。自島中逃還漢人。詳言其漢將留在。而明春。天朝與朝鮮發兵。挾攻我國云。何其諱而不言也。臣答曰。天朝發兵。非我國所可預知。至於助兵挾攻之說。漢人之詭言也。不可以此取信云。則龍胡更無所言。臣所帶僕夫中。其父母兄弟。拘在虜穴者。不知其什百。日聚會門外。與其親屬相望悲泣。仍令伺其間隙。而密問情形。則有曰。此賊。今年困於宣·大之役。所道里以下諸將戰亡者。或云七八·或云數十人。軍兵死者不可勝紀。還軍之日。乘昏而入。使城內外蒙古·漢人等。不得知其虛實。云矣。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243) 용호(龍胡) : 용골대(龍骨大)를 가리킨다.

11) 나위소(羅緯素, 1581~1666)

• 본관 나주(羅州), 자 계빈(季彬), 호 미상

허목(許穆), 『기언(記言)』 별집 권16, 『증좌참찬 나공 신도비명(贈左參贊羅公神道碑銘)』

공의 휘는 위소(緯素), 자는 계빈(季彬)이며, 성은 나씨(羅氏)로 나주(羅州)가 본관이다. 나씨는 고려 상장군(上將軍) 부(富)에서 시작하여 공조 전서(工曹典書) 진(璡)에 이르렀을 때 가장 지위가 높고 세력이 커졌다. 아들 공언(公彦)은 왜적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워 관직이 전농시 정(典農寺正)에 이르렀다. 4대를 내려와 전연사 직장(典涓司直長) 일손(逸孫)이 있으며, 그 후에 사헌부 감찰을 지내고 좌통례(左通禮)에 추증된 질(晊)이 있고, 이산 현감(尼山縣監)을 지내고 좌찬성에 추증된 사침(士忱)은 선행(善行)으로 알려져 중종 때에 효자로 정려(旌閭)되었는데 이분은 공에게 조부가 된다. 부친 휘 덕준(德峻)은 정개청(鄭介淸) 선생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재주와 학식으로 소문이 났다. 기축옥사(己丑獄事)가 일어나 좌상 정철(鄭澈)이 화란의 우두머리가 되어 선생이 막북(漠北)으로 쫓겨나 돌아가셨을 때,[244] 문인 제자로서 함께 석막(石幕)[245]의 북쪽에 유배되니 고향으로부터 남북 2000리나 되는 먼 지역이었다. 옥사에서 풀려난 뒤 사포서 별검(司圃署別檢)에 제수되었고, 두암(斗巖) 김상국(金相國)[246]이 뛰어난 능력을 천거하여 보은 현감(報恩縣監)에 발탁되었으며, 별세한 뒤에 호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모친 장수 황씨(長水黃氏)는 태평성세를 보좌한 명재상 익성공(翼成公) 희(喜)의 6세손이자 판결사(判決事)에 추증된 호(顥)의 따님이다.

공은 만력 10년(1582, 선조 15)에 태어났다. 12세에 모친이 별세하였고 그 뒤 11년이 지나 부친이 별세하였다. 게다가 부친상을 마치기도 전에 계모마저 별세하였다.

공은 남의 도움 없이 힘들게 공부하여 광해군 8년(1616)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갔고, 5년 후 삼남(三南) 지역에서 선비를 시취(試取)할 때 장원으로 합격하여 전시(殿試)에 직부(直赴)되어 급제하였다. 인조 원년(1623)에 광해군 말기의 과거를 취소

---

244) 기축옥사(己丑獄事)가 …… 때: 막북(漠北)은 본래 고비사막 이북 지역을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우리나라 최북단인 함경도 일대를 가리킨다. 1589년(선조 22) 10월에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고 12월에 전라도 유생 정암수(丁巖壽) 등의 상소로 정개청(鄭介淸)은 그의 제자 나덕명(羅德明), 나덕준(羅德峻) 형제와 함께 정여립과 결탁했다는 무고(誣告)를 받아 서울로 압송되었고 이듬해 6월에 함경도 경원(慶源)에 유배되어 그달 27일에 배소(配所)에서 죽었다. 이 밖에도 최영경(崔永慶) 등 많은 인물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1589년에서 1590년에 걸쳐 일어난 기축옥사는 정여립의 모반사건을 매개로 정철(鄭澈)을 중심으로 한 서인(西人) 세력이 상대 당파를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당화(黨禍)였다.

245) 석막(石幕): 함경도 경원(慶源)을 이른다.

246) 두암(斗巖) 김상국(金相國): 두암은 김응남(金應南, 1546~1598)의 호이다.

하고 재시험을 보였을 때 공은 병과로 급제하였고, 승정원을 거쳐 형조좌랑으로 승진되었다가 외직인 옥과 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인조 5년(1627)에 흑한(黑漢)[247]이 우리나라 양서(兩西)[248] 지역을 함락하며 쳐들어오자 병기와 군량이 크게 모자랐다. 상국(相國) 이문충공(李文忠公)[249]이 체찰사(體察使)가 되어 공을 불러다가 계책을 묻고는 이어 군량을 모으게 하니 모은 곡식이 매우 많았다. 이에 대해 상을 논하게 되자 공이 사양하기를,

"남의 곡식을 모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공으로 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상국이 칭찬하였다.

임기를 마치고 공조 좌랑을 거쳐 호조 정랑으로 승진하였고 기주관(記注官)을 겸하였다.

인조 8년(1630)에 직강(直講)을 거쳐 사예(司藝)로 옮겼으며 얼마 후 임천 군수(林川郡守)로 나갔다.

인조 12년(1634)에 예조 정랑을 거쳐 태상시 첨정(太常寺僉正)으로 옮겼으며, 그 뒤 상의원 정(尙衣院正)과 사도시 정(司導寺正)에 연이어 제수되었다.

인조 14년(1636)에 풍기 군수(豐基郡守)에 제수되었다.

인조 19년(1641)에 원주 목사(原州牧使)에 제수되었다.

인조 22년(1644)[250]에 다시 사예(司藝)에 제수되었고 얼마 후 판교(判校)로 승진하여 편수관(編修官)을 겸하였고, 다시 자리를 옮겨 태상시 정에 제수되었다.

4년 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품하여 밀양 도호부사(密陽都護府使)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왔다가 그 이듬해에 경주 목사(慶州牧使)[251]에 제수되었다.

3년 후 공이 나이 70이 되자 탄식하기를,

"내 나이 이미 늙었고 관직 또한 쉴 때가 되었다."

하고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금호(錦湖) 가에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수운정(岫雲亭)이라 하니, 선영의 아래에 있었다. 그곳엔 무성한 소나무와 긴 대나무 밭이 있고 긴 강에는 모래톱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그 바깥의 언덕배기엔 여기저기 고목들이 서 있고 그 사이로 안개가 상하 백 리에 걸쳐 뻗어 있다. 공은 날마다 그곳에서 노닐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지냈다.

---

247) 흑한(黑漢): 후금(後金)이 세운 청나라를 가리킨다.

248) 양서(兩西): 관서(關西)와 해서(海西), 즉 평안도와 황해도를 가리킨다.

249) 이 문충공(李文忠公): 문충은 이원익(李元翼)의 시호이다.

250) 원문에는 23년이라 되어 있다.

251) 경주 목사(慶州牧使): 경주는 원래 부윤(府尹)을 두었으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1649년부터 1659년까지 10년 동안 목(牧)으로 강등되었다가 부(府)로 복구되었다. 나위소(羅緯素)가 경주 목사로 임명된 것은 1650년이다. 『顯宗改修實錄 卽位年 6月 2日』.

이전에 정철(鄭澈)이 실각하자 남인들이 정씨(鄭氏)를 위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는데, 당시에 정철의 당여(黨與)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상에게 건의하여 그 사당을 훼철시켰다.[252] 공이 이미 세상에서 물러난 뒤라 혀를 차며 탄식하기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하였다. 규례에 따라 공은 서추(西樞)의 관직에 제수되고, 장수한 것으로 인해 동중추(同中樞)에까지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으며, 85세에 별세하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의례에 따라 부의(賻儀)를 보내었다. 영산(榮山) 동향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장남 담(裧)이 영국 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253]이 됨에 따라 추은(追恩)하여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는 본관이 양성(陽城)으로 부사(府使) 정(瀞)의 따님이다.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자손을 잘 교육하여 '여중남자(女中男子)'라 불렸다. 공이 별세한 다음 해 정월에 별세하니, 향년 76세였다. 공과 같은 언덕에 부장(祔葬)되었다.

아들 셋을 두었는데, 담(裧)은 호조 정랑이고 반(襻)은 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이고 진(袗)은 의금부 도사이다. 또 딸 셋을 두었는데, 사위는 생원 김만수(金晩壽), 사인(士人) 이만종(李萬鍾), 현감 정기수(鄭岐壽)이다.

담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두삼(斗三)은 사섬시 직장(司贍寺直長)이고 두장(斗章)은 효릉 참봉(孝陵參奉)이다. 두삼은 아들 만상(晩相)을 낳았고, 사위 둘은 이강(李晥)과 참봉 이로(李潞)이다.

반은 사위가 셋으로 정덕상(鄭德祥), 목창우(睦昌遇), 권의(權顗)인데, 목창우는 군수이다. 아들이 없어 형의 아들 두장을 후사로 삼았다.

진은 두춘(斗春), 두하(斗夏), 두추(斗秋), 두동(斗冬)을 낳았고 사위 넷은 교관(敎官) 윤상적(尹尙績), 진사 이만식(李萬植), 이용징(李龍徵), 고가빈(高可賓)이다.

김만수는 아들 둘에 딸 넷을 두었는데, 아들은 성(宬)과 최(寂)이다.

---

252) 이전에 …… 훼철시켰다: 정씨는 정개청(鄭介淸)을 가리킨다. 1589년(선조 22) 기축옥사(己丑獄事)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철이 실각하고 그 후로 호남 유생을 중심으로 정개청의 신원(伸冤)을 청하는 상소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616년(광해군 8)에 고향인 무안(務安)에 사당이 건립되고 1625년(인조 3)에는 관작이 복구되었다. 그러나 1657년(효종 8)에 송준길(宋浚吉)을 중심으로 한 서인의 요청으로 사당이 훼철되었고, 1677년(숙종 3)에 미수가 복설(復設)을 청하여 이듬해 자산서원(紫山書院)으로 사액(賜額)을 받아 재건되었으나 그 이듬해 역시 송준길의 요청으로 다시 훼철되었다. 자산서원은 그 후로도 정권의 향방에 따라 훼철과 복설을 반복하였다. 여기서는 1657년에 사당이 훼철된 사실을 두고 한 말로서, 그 당시 나위소의 나이는 76세였다.

253) 영국 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 영국 공신은 1644년(인조 22)에 인조를 제거하고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을 추대하려고 한 심기원(沈器遠)의 역모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공신호로서, 1등과 2등 공신 외에 1655명의 원종공신이 있다.

이만종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징선(徵善)과 징헌(徵獻)이다.

정기수는 아들 하나에 딸 넷을 두었는데, 아들은 진사 중원(重元)이다.

이렇게 내외 자손이 3대에 걸쳐 50여 명이나 된다.

공은 온화하고 돈후하여 종족, 교우들과 잘 지냈으며,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거나 남에게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벼슬살이 30년 동안 조정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20여 년을 지방관으로 지냈다. 장수하여 강호(江湖)에서 85세까지 한가롭게 노닐다 생을 마쳤다. 세 아들이 모두 벼슬살이를 하였는데, 담(裣)과 반(襻)이 연이어 가까운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봉양을 극진히 하자 향리 사람들이 덕과 선을 쌓은 보답을 받는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공은 일찍 부모를 여읜 이래 죽을 때까지 산소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매번 새로 나온 음식을 보면 반드시 가져다 산소에 올렸다. 어떤 이가 예에 맞지 않는 예를 행하고 있다고 충고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차라리 후한 쪽으로 잘못을 범하여 내 마음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낫다."

하였다. 병이 심해지자 가족들에게 당부하기를,

"때가 이미 7월이 넘어섰으니 산소에 벼를 올려 드리도록 하여라. 나의 천신(薦新)은 이제 끝이 났구나."

하였다.

나씨는 나주의 대족(大族)으로서 상장군(上將軍) 때부터 자손들이 고향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400년 동안 살아왔으며, 충신(忠信)하고 근후(謹厚)한 태도를 견지하여 효제(孝悌)를 지키는 집안으로 불렸다. 그러므로 사제문(賜祭文)에 이르기를,

효제를 지키는 집안이요	孝悌之家
아무 욕심도 없는 담박한 성품이라	恬雅之性
향인들이 공경하고	鄕人起敬
오복이 다 갖추어졌도다	五福俱全

하였다.

그 명(銘)은 다음과 같다.

옛 제도를 따라	禮
죽거나 이사해도 마을을 벗어나지 않으니	死徙無出鄕

덕이 후한 고을이도다[254)] 厚德之方

오호라 嗚呼

가히 흥기할 만하고 可以興

가히 창성할 만하고 可以昌

가히 오래갈 만하도다 可以長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기언(https://db.itkc.or.kr/)

公諱緯素。字季彬。姓羅氏。羅州人。羅氏自高麗上將軍富。至工曹典書璡。最貴。大男公彦。克倭有功。官至典農正。四世有典涓。直長逸孫。其後有司憲監察贈左通禮晫。尼山縣監贈左贊成士忱。以善行聞。中宗世旌孝子之閭。於公爲王父。父諱德峻。受學於鄭介淸先生。以才學發聞。己丑禍位。左相澈爲禍首。先生旣窮死漠北。以門徒弟子并流石幕之北。南北二千里。事解。除司圃別檢。斗巖金相國薦其賢。擢拜報恩縣監。歿追爵戶曹參判。母長水黃氏。治平相翼成公喜之六世孫。而贈判決事顥之女也。萬曆十年公生。生十二。母歿。後十一年。父歿。又未沒喪而繼母歿。公旣孤苦力學。光海八年。補國子生員。後五年。試士三南。公以壯元直赴及第。仁祖元年。再試光海末科。公以丙科。由祕書。陞秋官佐郎。出爲玉果縣監。五年。黑漢陷我兩西。兵食急。相國李文忠公爲體察使。召公問計。仍令募粟甚多。當議賞。公辭曰。資人之粟。邀己之功。無義也。相國多之。秩滿。以考工佐郎。陞地官正郎。兼記注官。八年。以直講。轉司藝。尋出爲林川郡守。十二年。以春官正郎。移太常僉正。後連爲尙衣，司導正。十四年。爲豐基郡守。十九年。爲原州牧使。二十三年。復爲司藝。尋陞判校兼編修官。改太常正。後四年。陞通政。爲密陽都護府使。明年。謝歸。又明年。爲慶州牧使。三年。公已七十。歎曰。年已老矣。官亦休矣。遂決歸。築水錦湖上曰□雲亭。在先壟之下。有深松脩竹。長江沙渚瀰漫。其外郊原。往往有古木。墟煙上下百里。公日遊處自娛。初澈敗。南人爲鄭氏立祠以祀之。時澈黨復用事。白上毁其祠。公旣斥落於世。咄咄曰。生此世甚慙。公例授西樞。以大年至同中樞。皆不就。八十五卒。訃聞。上賜弔賻如儀。葬榮山東向之原。以長男衲。寧國原從推恩。追爵左參贊。貞夫人李氏。籍陽城。府使瀞之女。治家敎子孫。稱女中男子。公卒之後年正月。夫人歿。年七十六。祔葬同原。有三男。衲。戶曹正郎。襼。繕工僉正。袗。義禁府都事。又有三女。壻生員金晩壽·士人李萬鍾·縣監鄭岐壽。衲生斗三。司贍直長。斗章。孝陵參奉。斗三有男晩相。壻二人。李晛·李潞。參奉。襼壻三人。鄭德祥·睦昌遇，權顗。昌遇郡守。無子。以兄子斗章爲後。袗生斗春·斗夏·斗秋·斗冬。壻四人。尹尙績敎官·李萬植進士·李龍徵·高可賓。晩壽有二男四

254) 옛 …… 고을이도다: 옛 제도는 주나라의 토지제도인 정전법(井田法)을 가리킨다. 『맹자(孟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죽거나 이사해도 마을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물 정(井) 자로 토지를 함께 나눈 사람들이 들고 날 때 서로 짝을 지어 움직이고, 지키고 망을 볼 때 서로 도와주며, 질병에 걸렸을 때 서로 부호해 주게 한다면 백성들이 서로 친목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女。男宬·最。萬鍾有二男。徵善·徵獻。岐壽有一男四女。男重元。進士。內外子孫三世五十餘人。公溫恭敦厚。善於宗族交友。不喜循俗善柔。通籍三十年。不樂於朝。爲州縣二十餘年。以壽考。閒暇江湖八十五年。三男皆在仕列。衿·襮。連爲追邑。奉養之備。鄕里稱之以爲德善之報。公旣早失父母。終其身不去丘墓。每見新物。必薦墓。或言非禮之禮。公曰。寧失於厚。得盡於心。疾病。戒其家人曰。時已七月。宜薦稻。吾新薦畢矣。羅氏爲羅之大族。自上將軍。子孫不出鄕。至今四百年。忠信謹厚。稱孝悌之家。其賜祭文曰。孝悌之家。恬雅之性。鄕人起敬。五福俱全云。其銘曰。

禮。死徙無出鄕。厚德之方。嗚呼。可以興。可以昌。可以長。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기언(https://db.itkc.or.kr/)

12) 나해봉(羅海鳳, 1584~1638)

• 본관 나주(羅州), 자 응서(應瑞), 호 남간(南磵)

(1) 나해봉(羅海鳳), 『남간집(南磵集)』 행장

공의 휘는 해봉이요, 자는 응서(應瑞)요, 호는 남간(南磵)이니 만력 갑신년 7월 25일에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보통 놀이도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더욱이 글 읽기를 좋아하여 비록 길을 걷고 뒷간에 있거나 할 때도 읊조리고 외운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았으며 조그마한 종이 쪽지라도 얻으면 반드시 연결해서 책을 만들어 경사를 베끼는 등 일찍이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10세 때에 시부(詩賦)를 장편으로 지을 수 있었다. 겨우 15살이 되었을 때, 문예가 크게 진취되어 함평의 이곤(李坤)이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 한 번 보고 기특하게 여겨 '이는 참으로 좋은 신랑감이다.'라고 하고 딸로 아내를 삼아주었다.

이윽고 중씨(仲氏) 석호처사(石壕處士) 해구(海龜)로 더불어 수은(睡隱) 강항에게 수학을 했는데 강공이 그를 공경하면서도 소중히 여기며 시를 지어 말하기를 '나씨의 좋은 형제를 남들이 경수(瓊樹)의 가지라 한다.'라고 하였다. 또 사계(沙溪)[255] 김선생의 문하에서 종유하며 누차 칭찬을 받았다.

22세에 향시에서 장원을 하고 다음 해에 진사가 되었다. 광해 정사년에 별시에 나가려고 서울에 들어가자 때마침 상국 이원익이 흉론에 반대를 했다가 견책을 당하므로 공은 상소하여 쟁

255)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호이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희원(希元), 시호는 문원(文元)이며, 문묘에 배향되었다. 송익필(宋翼弼), 이이의 문인이다. 성리학과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었고 후진 양성에 힘써 문하에 송시열과 송준길 등의 학자를 배출하여 서인(西人)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畿湖學派)를 이룩하였다. 저서로는 『사계선생전서(沙溪先生全書)』 등이 있다.

송했고, 본 읍의 사람 김우성(金佑成), 신광업(辛光業)[256], 진호선(陳好善)[257] 등이 이첨(爾瞻)에게 붙어 흉소(凶疏)를 올리려 할 때 공에게 의지하며 중하게 여기려고 하자 공이 듣고 크게 놀라 바른 말로 꾸짖었더니 흉도들이 앙심을 품고 반적(泮籍)에서 이름을 빼 버렸다. 이로부터 과거 보는 일을 그만두고 향리로 돌아와 어버이를 효성으로 봉양하여 항시 곁에서 모시고 주선을 하고 응대하기를 반드시 순한 모습으로 하였다.

집이 가난했지만 맛있는 음식이 언제나 떨어지지 않았고 어버이가 병이 있으면 옷에 띠를 풀지 않았다. 상을 당하자 6년간 시묘를 살며 통곡하고 울면서 슬픔을 극진히 했다. 상제(喪制)는 주자의 가례를 따랐으며 그 집을 이름하기를 종모라고 했다. 시서(市西) 김선(金璇)[258]이 기문을 지어 그 일을 성하게 말하였다.

계해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에 제수 되었지만 취임하지 않았다. 다음 해 이괄의 변란에 대가가 공주로 나가니 공은 영광군수 원두표(元斗杓)[259]와 고을 사람 상사(上舍) 신유일(辛惟一)[260] 등과 함께 근왕의 책모를 상의했는데 공을 모의도유사(募義都有司)로 추대를 했다. 공은 격문을 내고 의병을 모집했는데 곧 적괴가 잡혀 죽었단 소식을 듣고 그쳤다.

병인년에는 공이 반상에 있었는데 제생(諸生)이 상소하는 데에 참여하여 노사(虜使)를 베기를 청하였다. 정묘년에 북노(北虜)가 내침을 하였다. 공은 호소사(號召使)의 격문에 응하여 군중을 모아 출발을 하려다가 조정에서 화의가 있음을 듣고 곧 의사들과 함께 여산으로 달려가서 학가(鶴駕)를 호송하고 돌아왔다. 이때에 계곡 장공이 주사(籌司)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공이

시를 지어 부쳐 화의가 잘못됨을 깊이 풍자했다.

그 뒤 숭정 병오년에 우리 증조 우암(尤庵)[261] 선생이 그 시에 발문을 지으면서 '곤문(坤門)의

---

256) 신광업(辛光業): 1575~1623. 본관은 영산(靈山), 자는 백술(伯述), 호는 구계(龜溪)이다. 대북당(大北黨)인 허균(許筠)의 심복이 되어 김개(金闓)와 함께 폐모론(廢母論)에 동조하였다. 인조반정 후 옥사에 관련되어 귀양 가서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257) 진호선(陳好善): 1569~?. 본관은 여양(驪陽), 자는 여우(汝優)이다. 1605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258) 김선(金璇): 1568~1642. 본관은 광산, 자는 이헌(而獻), 호는 시서거사(市西居士) 또는 지서자(之西子)이다. 1606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관계에 진출하였으나,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치를 한탄하여 나주로 내려가 두문불출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참봉·찰방 등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양명학에 조예가 깊은 장유·임담(林潭) 등과 친밀히 교유하였다.

259) 원두표(元斗杓): 1593~1664.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자건(子建), 호는 탄수(灘叟)·탄옹(灘翁),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인조반정의 공으로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에 봉하여졌다. 벼슬은 좌의정에 이르렀다.

260) 신유일(辛惟一): 1575~?. 자는 집중(執中)이다. 1613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261)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호이다.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영보(英甫),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효종의 장례 때 대왕대비의 복상(服喪) 문제로 남인과 대립하고, 후에는 노론의 영수(領袖)로서 숙종 15년(1689)에 왕세자의 책봉에 반대하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저서로는『송자대전(宋子大全)』등

운은 오늘날 가장 읽어볼 만하고 초군(抄軍)에 대한 논의는 더욱 느끼는 바가 있다.'라고 하였다.

공은 노정(虜情)이 헤아릴 수 없고 난(亂)이 장차 끊임이 없을 것을 알고는 물러나 산속에서 살고 있었다. 산속에서 사는 10년 동안 병서를 읽어 손수 진도비결(陣圖秘訣)과 관기법(觀氣法)을 초록(抄錄)해서 1권의 글을 만들고 이름을 등단필고(登壇必考)라 하고는 스스로 서문을 지어 그 뜻을 밝혔다.

임신년에 금화사별좌(禁火司別坐)에 제수되어 별제(別提)에 올랐는데 은명(恩命)이 누차 내려진 것이 편하지 않아서 잠시 진사를 하고 곧 돌아왔다.

병자년에는 노적(奴賊)이 맹약을 깨고 남한산성이 포위를 당하니 공은 격문을 원근에 돌리고 의병을 모집하여 개연히 머리를 북으로 하여 적에게 죽을 각오를 했다. 그 격문에 대략 말하기를 '지금은 의사(義士)가 피눈물을 흘리고 몸은 내던질 날이니 어찌 신하가 머리를 받들고 목숨을 구하는 때인가.'라고 하였고 또 '의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어찌 백사장에 죽은 귀신이 됨만 하리요.'라고 하여 보는 자가 모두 눈물을 뿌리고 향응을 하였다.

군사가 행한 지 며칠 만에 병이 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을 알고 장자 준(俊)으로 하여금 대신 거느려서 가게하고 자신은 들것에 타고 가면서 시를 지어 충군사적(忠君死敵)의 뜻으로서 권면하였다. 이윽고 화친의 일이 이루어져 군사를 해산하고 돌아왔다.

공은 더욱 통분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사를 사절하고 해중(海中)에 자취를 숨겨 시를 짓기를 '내가 피발(被髮)을 하겠도다. 통곡을 할 이 인간 세상이여!'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공의 평생과 충의를 간직한 바를 알 수가 있다.

공은 세상맛에 본디 담담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진취할 뜻이 없었다. 그는 사는 곳을 이락(而樂)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논어에 빈이락(貧而樂)[262]의 뜻을 취한 것이다. 좌우에 도서를 두고 조용히 산림의 풍취를 지녔으니, 오직 날마다 그 속에서 물 마시고 시 읊고 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칠 즐거움으로 삼았다. 계곡 장상국 공이 본 고을에 보임(補任)을 나왔는데 공과 아주 뜻이 맞아 습지의 놀음에 즐기며 주고받은 시가 거의 수십 장이 되었다. 뒤에 문곡(文谷) 김문충공(金文忠公)[263]이 그 첩에다 쓰기를 '계곡의 문장은 일세에 높아 남에게 가볍게 허락을 하지 않는데 남간의 시에 대해서는 홀로 그 정예를 칭찬했고 또한 그 굴욕(屈辱)을

이 있다.

262) 빈이락(貧而樂): 『논어』「학이」에 "자공이 '가난하면서도 아첨함이 없으며 부하면서도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께서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셨다.[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라고 보인다.

263) 문곡(文谷) 김문충공(金文忠公): 김수항(金壽恒, 1629~1689)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구지(久之), 호는 문곡,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651년(효종 2)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기사환국 때 진도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안고 있음을 애석하게 여겼으니 이 첩자를 보면 남간 공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공은 서책을 읽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말년의 공부는 한층 더 주역에 빠져 있었다. 작고하기 전 며칠까지도 오히려 계몽편을 가져다 읽었으니, 학문에 대하여 종신토록 놓지 않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무인년 5월 28일에 작고하여 7월 모일에 고을의 동족 5리쯤, 석현(石峴)의 남쪽방향에 장례를 지냈다. 시문 약간 권이 있다. 나씨는 예장에서 비롯하였는데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와서 나주를 관향으로 하였고 고려 상장군 부(富)가 그 원조다. 벼슬이 대대로 이어져 6대 만에 공조전서(工曹典書) 진(璡)에 이르고 이분이 문하시중 공언(公彦)을 났으니 왜적을 쳐서 공이 있었고 사적이 국사에 실렸다.

4대를 지나 일손에 이르니 벼슬이 직장(直長)이요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니 공에게 고조가 된다. 증조는 창(昶)[264]이니 문과에 올라 필선(弼善)이 되었으며 호당(湖堂)에 뽑혔고 문장과 훌륭한 본보기로 세상의 법식이 되었다. 자호(自號)를 지재(止齋)라 했는데 기묘사화의 뒤로 직장 공을 모시고 강호에 방랑하여 세상을 마쳤다.

조는 사음(士愔)이니 벼슬이 주부(主簿)요, 고(考)는 덕양(德讓)이니 벼슬이 호군(護軍)이다. 임진란 때 건재 김천일 공이 의거할 때 공관(公舘)의 맹세에 참여하였으니, 부자가 모두 넓은 도량과 순수한 행실이 있었다.

비(妣)는 함풍 이씨(咸豊李氏)니 음사(蔭仕) 호조좌랑(戶曹佐郎) 강(絳)의 딸이요, 문과 정언(正言) 백원(伯源)의 현손이다. 아내는 숙인(淑人) 이씨이니, 인자하고 온화하며 현철한 행실이 있었다.

5남을 낳았으니 장남 준(俊)[265]은 생원 참봉이요, 다음은 휴(休)[266]니 생원이요, 임(任)과 탁(倬)은 모두 벼슬하지 않았고, 서자 인(仁)은 참의(參議)의 증직을 받았다.

손자 원기(遠器)는 통덕랑이요, 세기(世器)[267]는 교관이요, 중기(重器)[268]는 생원 군수이다.

---

264) 창(昶): 나창(羅昶, 1477~1524)으로, 본관은 나주, 자는 언명(彦明), 호는 지재(止齋)이다. 1510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522년에 지평(持平)을 제수받았다가 서경(署經)할 때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체직되고, 그 뒤 형조정랑(刑曹正郎), 사옹원주서(司饔院注書)를 지냈다.

265) 준(俊): 나준(羅俊, 1608~1677)으로, 본관은 나주, 자는 관천(冠千), 호는 계수(溪叟)이다. 1635년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선릉 참봉(宣陵參奉)을 지냈다.

266) 휴(休): 나휴(羅休, 1614~1695)로, 본관은 나주, 자는 유용(有容), 호는 수죽헌(水竹軒)이다. 1650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267) 세기(世器): 나세기(羅世器, 1641~1699)로,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장(子長)이다.

268) 중기(重器): 나중기(羅重器, 1647~?)로, 본관은 나주, 자는 자진(子珍), 호는 송간(松澗)이다. 1677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딸의 사위는 사인(士人) 김익(金翊), 신한주(申漢柱)[269], 조선(曺善)이니 최장방에서 났고, 상기(相器)[270]는 휴(休)에게서 났고 단기(端器), 면기(冕器), 정기(鼎器), 구기(九器)와 생원 조창억(曺昌億)의 처는 탁(倬)에게서 났고 증참판 여기(汝器)는 인(仁)에게서 났다.

증손 몽규(夢奎)는 통덕랑이요, 서자 상규(祥奎)는 동추(同樞)로 원(遠)에게서 났다. 통덕랑 병규(炳奎)와 진사 찬규(燦奎)[271]는 통선랑이요 다음 형규(炯奎)는 세(世)에게서 났고, 통덕랑 성규(聖奎)와 서규(瑞奎)와 통덕랑 김만숙(金萬塾), 오시탁(吳時鐸), 진사 유언익(俞彦翊)[272]의 처는 중(重)에게서 났다. 환규(煥奎)는 서(端)에게서 났고, 회규(會奎)와 사인 조석윤(曺錫徇), 진사 박인상(朴麟祥)[273]의 처는 면(冕)에게서 났다. 태규(泰奎)와 한규(漢奎)는 정(鼎)에게서 났고, 오규(五奎)와 무과 선전 취규(聚奎)[274]와 이규(以奎)와 수자헌(壽資憲) 명규(命奎)는 여에게서 났다.

현손은 정좌(廷佐)[275], 정보(廷輔)와 조석준(曹錫儁), 송수언(宋秀彦)의 처는 몽(夢)에게서 났고, 정태(廷泰), 정식(廷軾)과 이정엽(李挺燁)[276]의 처는 병(炳)에게서 났다. 진사 정일(廷一)[277], 정철(廷喆)과 통덕랑 유환기(俞奐基), 무과 부사 원중채(元重采)[278]는 성(聖)에게서 났다. 내외 자손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공은 지조가 남들과는 색다른 호걸이었고, 행실이 근엄하여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기고 어른을 공손하게 섬겼다. 붕우와 함께 사귈 때는 신의(信義)로써 하고 몸가짐은 청렴하고 깨끗했으며 집을 다스리기는 검소하게 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한 번도 함부로 하지 않았기 때문

---

269) 신한주(申漢柱): 1631~?.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여확(汝確)이다. 1660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270) 상기(相器): 나상기(羅相器)로,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경(子敬)이다.

271) 찬규(燦奎): 나찬규(羅燦奎, 1681~1750)로, 본관은 나주, 자는회지(晦之)이다. 1721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272) 유언익(俞彦翊): 1677~?.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중량(仲良)이다. 1699년 생원시와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273) 박인상(朴麟祥): 1682~1767.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성보(聖甫), 호는 포옹(圃翁) 또는 매국헌(梅菊軒)이다. 1714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763년 수직(壽職)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오르고, 1765년 회혼례(回婚禮)를 올렸으며, 1767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저서로는 『포옹집(圃翁集)』이 있다.

274) 취규(聚奎): 나취규(羅聚奎, 1675~?)로, 본관은 나주, 자는 한징(漢徵)이다. 171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275) 정좌(廷佐): 나정좌(羅廷佐, 1733~?)로, 본관은 나주, 자는 운경(雲景)이다. 176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276) 이정엽(李挺燁): 1696~?. 본관은 전주, 자는 휘중(輝仲)이다. 1725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277) 정일(廷一): 나정일(羅廷一, 1689~?)로, 본관은 나주, 자는 사원(士元)이다. 1721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278) 원중채(元重采): 1705~?.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화백(華伯)이다. 1728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에, 그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행동이 남들이 믿을 만하게끔 감응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경복하고 법으로 삼았다. 이것이 공의 집에 있으며 행했던 사적의 대략이다. 그 충의가 늠름했던 것, 기개가 높았던 것, 문장이 뛰어났던 것은 이미 선현들이 서로 잇달아 들춰내서 밝혀준 바가 있으니 백 세의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대강을 위와 같이 기술하는 바이다.

때는 숭정후(崇禎後), 두 번째의 갑진년. 덕은(德殷) 송무원(宋婺源)[279] 삼가 행장을 쓰다.

출전 : 이백순 역, 『남간집』, 나주나씨남간공종회, 2007

公諱海鳳。字應瑞。號南磵。以萬曆甲申七月二十五日生。幼而英發。尋常遊戲。異於凡兒。尤好讀書。雖行道溷廁。吟誦之聲。不絕於口。得赫蹄寸白。必聯掇作册。抄書經史。未嘗少懈。十歲。能作詩賦長篇。甫成童。文藝大進。咸平李公坤。有藻鑑。一見而奇之曰。此眞佳郎也。以女妻之。尋與仲氏石壕處士海龜。從學於姜睡隱沆。姜公敬重之。有詩曰。羅氏好兄弟。人言瓊樹枝。又遊於沙溪金先生之門。屢被奬許。二十二。魁鄕解。明年。成進士。光海丁巳秋。將赴別試入洛。時李相國元翼。立異於凶論而被譴。公上疏訟之。本邑人金佑成·辛光業·陳好善等。附爾瞻。將上凶疏。欲藉公爲重。公聞而大駭。正言折之。凶徒啣之。削名泮籍。自是廢擧業。歸鄕里。養親孝。常侍側。而周旋應對。必以婉容。家貧而甘旨未嘗闕焉。親有疾。則衣不解帶。及丁憂。六年廬墓。哭泣盡哀。喪制遵朱夫子家禮。仍扁其廬曰終慕。金市西璇爲之記。盛道其事。癸亥。仁廟改紀。擧遺逸。除慶基殿參奉。不就。翌年适變。大駕幸公州。公與靈光郡守元斗杓。邑人辛上舍惟一等。謀勤王之策。推公爲募義都有司。公發檄募義旅。旋聞賊魁就戮而止。丙寅。公在泮庠。隨參諸生之疏。請斬虜使。丁卯。北虜內侵。公膺號召使。檄聚衆。將發。聞朝廷有和議。遂與諸義士。馳進礪山。扈送鶴駕而還。時谿谷張公。管籌司。公作詩寄之。深諷和議之非。後崇禎丙午。不佞曾祖尤庵先生。跋其詩曰。坤門韻。今日最可讀。而於抄軍之議。尤有所感也。公見虜情叵測。亂將不已。退捿山中。十年讀兵書。手抄陣圖秘訣及觀氣法。作一卷書。名曰登壇必考。自序而明其志。壬申。除禁火司別座。陞別提。以恩命之屢下。爲未安。暫謝旋歸。丙子冬。奴賊敗。盟。南漢受圍。公移檄遠近。收召義旅。慨然有北首死敵之計。其文略曰。此義士泣血捐軀之日。豈臣子奉頭偷命之時。又曰。與其爲無義氣之人。曷若作死沙場之鬼。見之者。莫不灑淚響應。兵行屢日。病不能自力。使長子俊替率舁行。因作詩。勉以忠君死敵之義。旣而和事成。兵亦罷歸。公益不勝痛惋之情。謝絕世事。遯跡于海中。乃作詩曰。吾其被髮矣。痛哭此人間。可見公平生忠義之所存矣。公於世味。本自澹然。而及是時。則尤無進就之志。扁其居曰而樂。盖取魯論貧而樂之意矣。左右圖籍。蕭然有山林之趣。

---

279) 송무원(宋婺源): 1677~1736.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경휘(景徽), 호는 염수와(念修窩)이다. 우암의 증손자이다. 1706년에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강진(康津)에 정배(定配)되었다가 그해 12월 우의정 이이명(李頤命) 등의 주청으로 석방되었다. 숙종의 명으로 송시열의 문집을 인행할 때 그 일을 주관하였고 이어서 『경례문답(經禮問答)』, 『연보(年譜)』 등을 인행하였다. 문집으로 『염수와유고(念修窩遺稿)』가 있다.

而惟日觴咏於其間。以爲終身之樂。谿谷張相公。出補本州。甚相得。每爲習池之遊。唱和詩章。殆至屢十牘。後文谷金文忠公。題其帖曰。谿谷文章高一世。顧不輕許人。而於南磵詩。獨稱其精詣。又爲之惜其抱屈。觀於是帖。可得南磵公之爲人。公於書無所不讀。而晚後用工尤在於易。易簀前數日。猶取啓蒙讀之。其於學問。盖有終身不措之意也。以戊寅五月二十八日卒。七月某日。葬于州東五里地石峴坐壬之原。有詩文略干卷。羅氏。始自豫章。浮海而東。著籍於羅州。高麗上將軍富。其遠祖也。圭冕世襲。六轉而至工曹典書璡。生門下侍中公彦。討倭有功。事載國乘。四轉而至逸孫。官直長。贈左承旨。於公爲高祖也。曾祖昶。文科弼善。選湖堂。文章懿範。爲世矜式。自號止齋。己卯士禍後。陪直長公。放浪江湖以終。祖士愔。官主簿。考德讓。官護軍。壬辰亂。參健齋金公千鎰擧義時公館之盟。俱有曠度純行。妣咸豊李氏。蔭戶曹佐郎絳女。文科正言伯源玄孫。配淑人李氏。慈惠和婉有哲行。生五男。長俊生員參奉。次休生員。任·倬俱不仕。庶仁贈參議。孫遠器通德郎。世器處士。重器生員郡守。女士人金翊·申漢柱·曺善最長出。相器休出。端器·冕器·鼎器·九器。女生員曺昌億倬出。贈參判汝器仁出。曾孫夢奎通德郎。庶祥奎同樞遠出。通德郎炳奎。進士燦奎。通善郎炯奎世出。通德郎聖奎·瑞奎。女通德郎金萬墪·吳時鐸·進士俞彦翊重出。煥奎端出。會奎·女士人曺錫徵·進士朴麟祥冕出。泰奎·漢奎鼎出。五奎武宣傳。聚奎·以奎·壽資憲命奎汝出。玄孫廷佐·廷輔·女曹錫儁·宋秀彦夢出。廷泰·廷軾·女李挺燁。炳出。進士廷一·廷喆·女通德郎俞奐基·武府使元重采聖出。內外雲仍。多不能盡記。公志操奇傑。制行謹嚴。事親以孝。事長以悌。與朋友交則以信。持身則廉而潔。處家則儉而素。雖於微細之事。一不放過。故其實心實行。孚感於人。鄉人莫不敬服而取法焉。此公居家事行之大畧也。若其忠義之凜烈。氣岸之卓犖。文章之遒邁。已有先賢之相繼而表章者。百世之下。自可以不泯矣。記其槩如右。岩崇禎後再度甲辰。德殷宋婺源謹狀。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남간집(https://db.itkc.or.kr/)

(2) 민우수(閔遇洙), 『정암집(貞菴集)』 권11, 「별제 나공 묘지명 병서(別提羅公墓誌銘 并序)」

호남은 예로부터 인재의 보고라고 일컬어졌는데 위난의 때에 종종 충의하고 강개한 선비가 많이 배출되었으니, 별제(別提) 나공(羅公) 해봉(海鳳)이 바로 그 한 사람이다. 공은 자가 응서(應瑞)이니,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대대로 나주에 거주하여 고려로부터 우리 조정에 이르기까지 높은 벼슬을 한 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휘 창(昶)은 중종조(中宗朝)에 호당(湖堂)에 선발되었으나 일찍 죽었고, 관직은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이르렀으니, 바로 공의 증조부이다. 부친은 휘 덕양(德讓)이니,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로 가자(加資)되었다.

공은 만력 갑신년(1584, 선조 17) 2월 25일에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여 10세에는 장편의 시부(詩賦)를 지을 수 있었고, 조금 장성해서는 수은 강항에게 수학하여 문사(文辭)가 더욱 발전하였다. 혼조(昏朝, 광해군)에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흉당들에 의해 합격자 명단에서 삭제되었으니, 그 후로는 더 이상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계해년(1623, 인조 원년) 반정

후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침랑(寢郎)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또 금화사 별제(禁火司別提)에 제수되었는데 마지못해 한번 사은(謝恩)하고 돌아왔다.

계곡(谿谷)[280] 장공이 일찍이 외직으로 나가 나주에 보임되었을 때, 공을 만난 것을 매우 기뻐하고 늦게 알게 된 것을 한스러워하였다. 또 함께 습지(習池)의 노닒[281]을 하면서 시를 수창하였는데[282] 장공(張公)이 공의 시문의 정예로움을 찬탄하였다.

예전에 나주 사람 김우성(金佑成) 등이 이이첨(李爾瞻)에게 빌붙어서 수모론(讎母論)[283]을 주장하였는데, 공의 명망을 빌려 그들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자 하여 은근히 공의 의사를 떠보았다. 그런데 공은 바른말로 그들의 뜻을 꺾어 재앙이 미칠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병자년(1636, 인조 13)에 남한산성이 포위되니 공이 의기를 떨쳐 격문을 작성하여 의병들을 모았는데, 장차 출발하려고 할 때 병이 나서 아들 준(俊)으로 하여금 대신 거느리고 북쪽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강화가 이루어짐에 의병들도 역시 해산하고 돌아가니 공이 통분하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내가 머리를 풀어 헤치게 되었으니, 이러한 인간세상을 통곡하네.[吾其披髮矣 痛哭此人間]"[284]라고 하였으니, 사기(詞氣)가 격렬하여 듣는 자들이 기가 솟구쳤다. 이 두 가지 일에서 공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공은 어려서부터 부모 섬기기를 잘하였고, 또 거상(居喪)을 훌륭하게 하여 3년 동안 시묘(侍墓)하였으며, 3년 상을 마치고 나서는 그 여막을 '종모(終慕)'[285]라고 편액하였다.

---

280)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83)의 호이다. 자는 지국(持國), 다른 호는 묵소(默所),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1609년(광해군 1)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의 한 사람이다. 저서로는『계곡집』,『계곡만필』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281) 습지(習池)의 노닒: 경치가 빼어난 곳에서 시주(詩酒)를 즐김을 가리킨다. 습지는 습가지(習家池)의 준말로, 고양지(高陽池)라고도 한다. 진(晉)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산도(山濤)의 아들 산간(山簡)이 양양 태수(襄陽太守)로 있을 때 이곳의 빼어난 경치를 사랑하여 와서 술을 마시고 갔다 한다.『晉書 卷43 山簡列傳』.

282) 함께 …… 수창하였는데: 장유와 남간 나해봉이 서로 주고받은 시문을 모아 엮은『계간수창(谿磵酬唱)』이 전한다. 원래 남간의 후손들이 편집하여 가장되어 내려오던 책으로 몇 차례나 간인(刊印)되었는지 미상이나, 1799년(정조 23)에 남간의 후손인 학신(學愼) 등이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283) 수모론(讎母論):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던 소북의 유영경(柳永慶) 일파가 몰락하고 대북의 정인홍·이이첨(李爾瞻) 등이 득세했는데, 이들에 의해 일어난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모론(廢母論)을 가리킨다.

284) 내가 …… 통곡하네: 머리를 풀어 헤치게 되었다는 것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게 되었음을 줄여 말한 것으로 미개한 오랑캐의 습속을 따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는『남간집선(南磵集選)』권1에「둔해도상음(遯海道上吟)」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소금 안주와 동이 술에 조금 취해, 바닷가 산으로 돌아왔네. 내가 머리를 풀어 헤치게 되었으니, 이러한 인간세상을 통곡하네.[小醉塩盆酒 歸來海上山 吾其披髮矣 慟哭此人間]"라고 하였다.

285) 종모(終慕):『맹자』「만장 상(萬章上)」에 "큰 효도는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니, 쉰 살이 되어서도 부모를 사모한 것을 나는 순 임금에게서 그러한 경우를 보았다.[大孝 終身慕父母 五十而慕者 予於大舜 見之矣]"라고 한 데서 따온 것이다.

평소 독서를 좋아하여 길에서나 측간에서도 역시 글을 외고 그 의미를 궁구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고, 만년에는『주역』을 특히 좋아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 이것이 공의 절조 있는 행실의 근본일 것이다.

공은 병자년 이후로 더욱 당대에 뜻을 두지 않아서 금계(錦溪) 남쪽에 집을 지어 좌우로 도서를 두고 초연히 고요하게 앉아 날마다 그 사이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시를 읊조리며 장차 삶을 마칠 듯이 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무인년(1638, 인조 16)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으니, 5월 28일이었고 향년 55세이다. 나주 동쪽 석현(石峴) 임향(壬向) 언덕에 장사 지냈다.

부인은 함풍 이씨(咸豐李氏)로 곤(坤)의 따님이니, 공보다 20년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 공과 합장하였다. 4명의 아들을 두었다. 준(俊)이 장남이니 참봉(參奉)이고, 차남은 휴(休)이니 진사이고, 셋째는 임(任)이고, 넷째는 탁(倬)이며, 측실 소생은 인(仁)이다.

원기(遠器)·세기(世器)·군수(郡守) 중기(重器)는 큰아들 소생이고, 단기(端器)·면기(冕器)·정기(鼎器)·구기(九器)는 넷째의 소생이다. 인(仁)의 아들은 여기(汝器)이다.

증손은 몽규(夢奎)·병규(炳奎)·진사(進士) 찬규(燦奎)·형규(炯奎)·성규(聖奎)·서규(瑞奎)·환규(煥奎)·회규(會奎)·태규(泰奎)·한규(漢奎)이고, 오규(五奎)·취규(聚奎)·이규(以奎)·명규(命奎)·상규(祥奎)·무규(武奎)는 서자이다.

현손은 정좌(廷佐)·정보(廷輔)·진사(進士) 정일(廷一)·정필(廷弼)·정섭(廷燮)·정익(廷益)·정진(廷搢)이다.

명은 다음과 같다.

나씨는 나주를 본관으로 삼아	羅姓于羅
대대로 나주에서 살았네	世爲羅人
마침내 군자를 낳았으니	乃生君子
질박한 바탕에 문채를 더했네	質有其文
충성스럽고 의로운 절조는	忠義之操
효성을 근본으로 한 것이니	本之則孝
그곳의 고을 사람들이	凡厥鄕人
이분을 본보기로 삼는다오	是則是傚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정암집(https://db.itkc.or.kr/)

湖南舊稱人才府庫。至於危難之際。往往多忠義慷慨之士。如別提羅公海鳳。卽其一也。公字應瑞。羅州人。世居羅州。自麗至我朝。簪纓不絕。有諱昶。當中宗朝選湖堂。早卒官至司憲府持平。寔公曾祖也。考諱德讓。壽職通政。公以萬曆甲申二月二十五日生。生而聰悟。十歲能綴詩賦大篇。稍長受學於姜睡隱沆。文辭益就。昏朝嘗中第。被凶黨拔去。自後不復應擧。癸亥反正後。擧遺逸除

寢郎不就。又除禁火司別提。黽勉一謝而歸。谿谷張公嘗出補羅州。得公歡甚。恨相知晚也。且與爲習池之遊。有酬和篇什。張公嘆其精詣。始州人金佑成等附麗爾瞻。爲讎母之論。欲假公名爲重。微探公意。公正言折之。不恤禍之至也。丙子南漢受圍。公奮義草檄。收召義旅。將發疾作。使子俊代領北赴。及和事成。兵亦罷歸。公痛憤涕泗。有詩曰吾其披髮矣。痛哭此人間。詞氣激烈。聞者氣湧。於此二事。可見公之爲人也。公自幼善事親。又善居喪。廬墓三年。服闋扁其廬曰終慕。平居好讀書。雖行道溷廁。亦不廢誦繹。晚而嗜易。至死猶不釋卷。斯其爲節行之本也歟。公自丙子後。益無意於當世。築室錦溪之南。左右圖書。翛然淸坐。日觴詠其間。若將終身。越三年戊寅得疾以卒。五月二十八日也。享年五十五。葬于州東石峴壬向原。配咸豐李氏坤之女。後公二十年歿而祔。有四男俊其長參奉。次休進士。任·倬。側出曰仁。遠器·世器·重器郡守長房出。端器·冕器·鼎器·九器四房出。仁之子曰汝器。曾孫曰夢奎·炳奎·燦奎進士·炯奎·聖奎·瑞奎·煥奎·會奎·泰奎·漢奎。而五奎·聚奎·以奎·命奎·祥奎·武奎其庶也。玄孫廷佐·廷輔·廷一進士·廷弼·廷燮·廷益·廷搢云。銘曰。羅姓于羅。世爲羅人。乃生君子。質有其文。忠義之。本之則孝。凡厥鄕人。是則是傚。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정암집(https://db.itkc.or.kr/)

13) 남유(南瑜, ?~1598)

• 본관 의령(宜寧), 자 시망(時望), 호 미상

(1) 『선조실록(宣祖實錄)』 권46, 26년 12월 26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군국(軍國)의 수요(需要)는 둔전이 급선무인데도 호조에서 시일을 지연시키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철은 이미 박두하였는데도 일을 제때에 맞추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어찌 추고만 하고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당상도 아울러 파직하소서.

각도의 감목관(監牧官)은 모두 용잡스러운 무뢰한들로 구차스럽게 충임(充任)시켰기 때문에 목자(牧子)들을 침탈하여 생활의 기반을 만들고 있으니 마정(馬政)에도 무익하고 폐단만 끼칠 뿐이어서 물정(物情)이 모두 혁파시켜야 한다고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둔전의 일까지 겸임시킨 것을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으나 재국(才局)이 있는 사람을 극력 선발하여 그 일을 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제수하신 관원도 용렬하고 무능하며 난을 피하여 호구(糊口)나 하려는 자들이니 무슨 일을 조처할 수 있는 재간이 있어 만에 하나인들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병조에서 한결같이 청탁에만 따랐으니 사람을 위하여 벼슬자리를 가린 것이 너무 심합니다. 당상과 색낭청은 추고하고 신구(新舊) 감목관은 특별히 조사하여 정리한 다음 십분 택차(擇差)하소서.

풍천 부사(豊川府使) 황윤용(黃允用)은 나이가 들어 노쇠하였고 덕천 군수(德川郡守) 이황(李

滉)은 성품이 본디 외람스럽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만(箇滿)된 수령들이라서 스스로 체직(遞職) 될 줄을 알고 관사(官事)는 돌보지 않은 채 오로지 탐학만을 일삼아 관의 물품을 멋대로 가져다가 자신을 살찌우고 남을 섬기는 밑천으로 삼아 관방(關防)의 요새인 완실(完實)한 고을을 날로 조잔(凋殘)하게 하였으니 그 직에 그대로 두어 거듭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울러 파직하소서.

평해 군수(平海郡守) 남유는 지난해 사변이 일어난 처음 부평 부사(富平府使)로 있으면서 적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고을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백의율(白衣律)을 받은 뒤 속죄될 만한 공효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갑자기 죄를 풀어 주었으므로 물정이 이미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해변의 중요한 지방에 제수하는 것은 불가하니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호조는 이미 추고하였다. 파직은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司憲府啓曰。軍國所需。屯田爲急。戶曹遷延時月。不爲定奪。節已迫。將不及事。極爲寒心。豈可推考而止哉。請堂上竝命罷職。各道監牧官。皆以庸雜無賴之徒。苟充其任。侵剝牧子。以爲資生之地。無益馬政。徒貽弊端。物情皆以爲可罷者久矣。今者兼責屯田。雖不得遽爲革去。所當極擇有才局之人。以重其事。而親授之員。亦皆庸劣無能。避亂糊口之人。何能幹辦料理。收效萬一乎。兵曹之一循請囑。爲人擇官甚矣。請堂上·色郎廳推考。新舊監牧官。另加澄汰。十分擇差。豐川府使黃允容。年紀衰耗。德川郡守李滉。性本泛濫。俱以箇滿守令。自知當遞。不恤官事。專事貪婪。濫用官庫之物。以爲肥己事人之資。致令關防之地。完實之邑。日就凋弊。豈可使仍在其職。重貽民害。請竝命罷職。平海郡守南瑜。上年變初。以富平府使。無意禦敵。棄邑逃竄。自被白衣之律。未有贖效。遽蒙解釋。物情已爲未便。今不可再授邊海重地。請命遞差。答曰。戶曹已爲推考。罷職不允。餘依啓。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선조실록(宣祖實錄)』 권46, 26년 12월 27일

사간원이 아뢰기를 "도총 경력(都摠經歷) 남유는 위인이 외람되어 가는 곳마다 탐학, 방자하였습니다. 사변이 일어난 처음 기읍(畿邑)의 수령으로서 왜적이 읍의 경계에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관곡(官穀)을 훔쳐 배에 싣고 도주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적을 참획한 공은 전혀 없으면서 백의율을 면하려고 도모한 것도 이미 통분스러운 일인데, 이제 대관(臺官)의 논박을 받던 중에 바로 본직을 제수하였으니 매우 놀랍고 해괴한 일입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병조에서는 공론을 돌아보지 않고 갑자기 주의(注擬)[286] 하였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당상은

286)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적에 문관은 이조(吏曹)에서, 무관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이다.

추고하고 색낭청(色郎廳)은 파직하소서. 현감 이용침(李用沈)도 파직하시고 노전을 절급하라는 명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남유는 체차하라. 병조는 파추(罷推)할 필요가 없다. 이용침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둔전에 대한 일은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司諫院啓曰。都摠經歷南瑜。爲人泛濫。到處貪縱。變初以畿邑守令。賊未近境。偸出官穀。載船逃竄。其罪大矣。少無斬馘之功。圖免白衣之律。已爲痛憤。今被臺彈。旋授本職。極爲駭愕。請命罷職不敍。兵曹不恤公論。遽卽注擬。亦爲非矣。堂上推考。色郎廳罷職。縣監李用沈請罷事。蘆田折給還收成命事。答曰。南瑜遞差。兵曹不須罷推。李用沈依啓。屯田事已諭不允。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3)『선조실록(宣祖實錄)』 권46, 26년 12월 28일

사간원이 이어서 아뢰기를 "전 도총부 경력 남유는 파직하고, 병조 당상은 추고하고 색낭청은 파직시키소서. 노전을 절급하라는 성명(成命)은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남유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丁丑。司諫院連啓曰。前都摠經歷南瑜請罷。兵曹堂上推考。色郎廳罷職。蘆田折給還收成命事。答曰。南瑜事依啓。餘不允。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4)『선조실록(宣祖實錄)』 권46, 27년 12월 23일

사간원이 아뢰기를 "용천 군수(龍川郡守) 남유는 전에 수령으로 있을 때 범람한 일을 많이 행하여 누차 중한 논박을 입었으므로 여론이 오래 갈수록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본읍은 바로 서쪽 지방에서 큰 고을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 다시 목민관으로 삼을 수 없으니 체차시키소서. 회령 판관(會寧判官) 이눌(李訥)은 인물이 용렬하여 중요한 지방에 합당치 않으니 체차시키소서. 사과(司果) 신현(申晛)은 유생 때부터 처신이 비루하여 사람들이 모두 타매(唾罵, 침 뱉으며 꾸짖음)하였는데, 훈련도감 낭청(訓鍊都監郎廳)이 되자 폐단을 여러 가지로 끼쳤고 남양(南陽) 땅을 왕래함에 이르러서는 마음대로 도감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극도로 범람한 짓을 하였으니, 파면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司諫院啓曰。龍川郡守南瑜。前爲守令時。多行汎濫之事。累被重駁。物論久而愈憤。本邑。乃西方巨邑。如此之人。今不可復爲臨民之官。請命遞差。會寧判官李訥。人物庸劣。不合關防重地。請命遞差。司果申晛。自儒冠時。行已鄙汚。人皆唾罵。及爲訓鍊都監郎廳。貽弊多端。至於往來南陽地。擅率都監下人。極爲汎濫。請命汰去。上從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5)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14, 부록 6, 「해미현지(海美縣志)」

목천(木川)의 유학(幼學) 남준(南駿)의 상언에 "저의 7대조인 증(贈) 좌의정 남유는 임진왜란 때에 왜장(倭將)과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싸우다가 탄환(彈丸)을 맞고 운명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증직(贈職)되어 의정(議政)이 되었으나 아직 시호(諡號)를 내려 주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영묘(英廟) 계사년(1773, 영조 49)에 삼남(三南,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의 많은 선비가 시호를 내려 주는 은전을 베풀어 달라고 청하였으나 예조가 저지하여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장지현(張智賢)과 장필무(張弼武)[287] 두 사람이 또한 같은 시대에 충렬(忠烈)의 공을 세웠다고 하여 아울러 시호를 내려 주는 은혜를 입었는데 저의 선조만 역명(易名)의 은전[288]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장필무에게 시호를 내려 준 예 대로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예조로 하여금 상세히 상고한 다음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증 좌의정 남유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같은 시대에 순절(殉節)하여 여러 차례 증직되어 의정에 이르렀습니다. 장필무는 같은 시대에 충렬의 공을 세운 일로 일찍이 계사년(1773, 영조49)에 이미 역명의 은전을 입었습니다. 그 예를 원용하여 청을 아뢰는 것이 외람되지 않은듯합니다. 상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대신과 의논하고 내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木川幼學南駿上言。以爲渠七代祖贈左議政瑜。壬辰之亂。與倭將。戰於露渠。中丸捐命。屢贈至議政。尙未蒙賜諡之典。英廟癸巳。三南多士。請施賜諡之典。而該曹格而不行。其後。張智賢·張弼武二人。亦以同時忠烈。竝蒙賜諡之恩。而渠之先祖。獨未蒙易名之典。乞依張弼武賜諡之例。特蒙天恩。敎以令禮曹。詳考稟處。

禮曹啓言。贈左議政 南瑜。當壬辰之亂。與忠武公李舜臣。同時立慬。屢贈至議政。而張弼武以同時忠烈。曾於癸巳年。已蒙易名之典。援例陳請。似不猥濫。請上裁。敎以議于大臣稟處。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14) 노인(魯認, 1566~1622)

---

287) 장지현(張智賢)과 장필무(張弼武): 장필무는 1572년(선조 5) 함경도 병마절도사로서 오랑캐의 침입을 막았고 1573년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장지현은 장필무의 아들로 임진왜란에 의병장으로서 황간(黃澗)의 추풍령(秋風嶺)에서 적을 요격하던 중 전사하였다.

288) 역명(易名)의 은전: 역명은 이름을 바꾼다는 뜻으로 시호를 내림을 말한다. 춘추 시대 위(衛)나라 대부인 공숙문자(公叔文子)가 졸하자 그의 아들이 임금에게 시호를 청하기를 "세월이 흘러 장사를 지낼 때가 되었으니 이름을 바꿀 것을 청합니다.[日月有時 將葬矣 請所以易其名者]"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禮記 檀弓下』.

• 본관 함평(咸平), 자 공식(公識), 호 금계(錦溪)

노인(魯認), 『금계집(錦溪集)』 권4, 「행장」

선생의 성은 노요, 이름은 인이며 자는 공식(公識), 호는 금계(錦溪)이다. 비조는 '계(啓)'인데 은나라 부풍(扶風) 사람으로 시서예악(詩書禮樂)을 널리 알리고, 기자(箕子)를 따라 조선으로 건너와 팔조법을 가르치고 정전제(井田制)를 폈다. 강화군에 제후로 봉해졌으며, 연이어 삼대에 걸쳐 널리 가르쳐 부교를 맞았다. 후세의 이름은 노충국(魯忠國)이다.

변(卞), 노(盧), 민(閔), 홍(洪), 이(李), 여(呂), 동(董)씨 7인과 아울러 당나라에서 벼슬하였고, 돌아와 신라(新羅)에서 벼슬하여 8학사가 되었다.

시중공(侍中公) 노목(魯穆)은 곧 선생의 15세조이며 고려조에 함평군에 봉직되었다.

14세조 노몽필(魯夢弼)은 전중내합사(殿中內給事)다.

13세조 노인후(魯仁厚)는 문과에 장원하여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와 나라의 제과로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郎)이 되어 자금어대(紫金魚袋)를 받고 판예부 상서 좌복사(判禮部尙書左僕射)가 되었다.

12세조 노관도(魯寬道)는 수문전 태학사(修文殿大學士)이고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지냈다. 시호는 문안공(文安公)이다.

11대조 노장문(魯彰文)은 전객령 겸 밀직사사(典客令兼密直司使)이다.

10세조 노여희(魯汝姬)는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이고 증 동추밀원부사(贈同樞密院副使)이다.

9세조 노신(魯愼)은 초휘(初諱) 노철(魯哲)이다. 고려말 계묘년 정윤이 되고 태조를 따라 고려의 판종박사사(判宗薄寺事)로 경성을 수복하여 1등 공로로 상호군(上護軍)이 되었다. 안우경(安遇慶) 등과 더불어 홍건적에게 유린된 도성을 평정하여 관록이 1등에 녹훈되었다. 태조조에 무열(武烈)의 시호를 하사받았다.

8세조 휘는 성안(成顔)이며 예조정랑 행 현감(禮曹正郎行縣監)이다.

7세조 노세기(魯世麒)이며 진사(進士)이다.

6세조 노유(魯儒)이며 사재 행 감정(司宰行監正)이다.

5세조 노희주(魯希周)는 대호군(大護軍)이며 판서(判書)에 증직되었다.

고조는 노승(魯昇)으로 생원(生員)이다.

증조는 노자정(魯自貞)이고 진사(進士)이다.

조부는 노행권(魯行權)으로 참봉 행 현감(參奉行縣監)이다.

부의 휘는 사증(師曾)이고 참의(參議)로 추증되었다.

모친은 숙부인(淑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다.

노인은 병인년(1566)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기개와 도량이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 없이 호방하였고, 성품과 행실은 진실하고 또 효성스러웠다. 중후함에는 산악(山岳)의 모습이 있었고, 침착함에는 강과 바다 같은 깊은 헤아림이 있었다. 성(性)과 리(理)를 배울 때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공부할 때에는 통하여 해석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어렸을 때 외숙부인 참봉 나항(羅恒)에게 수학하였고, 또 석촌(石村) 임서(林惰)를 따라 남당(南塘) 김광운(金光運)과 함께 유학하기도 하였다.

만력(萬曆) 임오년(壬午年) 공이 17세 진사시에 합격했는데 문장(文章)과 행의(行義)가 세상을 헤아리는 바가 있었다.

을유년(乙酉年, 1585)에는 별제(別提)로 천거되어 제수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광주목사 권율(權慄)을 따라 정의(正義)를 받들어 적을 토벌하였고,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정유년(1597) 적에게 사로잡혀 왜국에 들어갔는데, 절개를 굽히지 않고 적을 꾸짖었다. 7일간 단식했는데도 늠름하여 활기가 있었다. 여러 왜군이 보고는 기이하게 여기며, 끝내 감히 칼로 참수하지 못하고 어류 반찬과 나물밥을 아침저녁으로 주었다. 선생은 군친(君親)의 생사를 알지 못한 터라 고기는 먹지 않고 다만 나물만 먹었다.

기해년(1599) 1월 15일 명나라 간첩사(間諜使) 임진혁(林震虢)을 찾아가서 만나고 같은 배에 탑승할 것을 부탁하였다. 임진혁과 모의하여 민중(閩中, 복주)에 이르러서 종사(宗師) 서광악(徐匡嶽)이 천거하여 양현사(兩賢祠)의 서원(書院)에 들어갔다. 많은 학생과 더불어 강론수학하고 시의 운자로 시문을 지어 서로 주고받았다. 서원에서 사우(師友)들이 공을 칭찬하며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해동부자(海東夫子)'라 하였다. 그해 여름 '최귀원정소(催歸原情疏)'라는 상소를 올렸다. 신종황제(神宗皇帝)는 '충(忠)은 문천상(文天祥)이요, 절개(節槪)는 소무(昭武)로다.'라는 조령을 내렸다. 군문(軍門)의 도야(都爺, 도어사)에게 명하여 본국으로 호송(護送)하도록 했다.

경자년 봄에 하사받은 말을 타고 한양에 도착했다.

선조께서 특별히 불러서 극진히 표창하였고, 왕명으로 역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흉적들의 칼날을 다행히도 면하였으며 무술년(戊戌年) 정월(正月)에 돌아가셨다. 선생께서는 여막(廬幕)을 짓고 추복(追服)하였다. 삼년상을 마친 후에 권무과(勸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다.

1604년 갑진년 6월. 통상(統相) 이경준(李慶濬)을 따라 당포해전(唐浦海戰)에서 남아 있던 왜적을 격파하였다. 임금께 승전도(勝戰圖)를 하사받았다.

1606년 병인년에 수원부사(水原府使)에 제수되었다.

1607년 정미년에 황해수사(黃海水使)에 제수되었다.

광해군(光海君) 대에 병으로 사양하고 돌아와 여기저기 거닐면서 스스로 마음을 달랬다.

임술년(1622) 5월 4일 병으로 집에서 졸하시니, 향년 57세였다. 숙부인(淑夫人) 제주 양씨(濟州梁氏)는 참봉(參奉) 양침(梁琛)의 딸이다. 묘소는 나주 이루곡면(离婁谷面) 치족촌(雉足村) 안산(案山)의 간(艮) 방향의 언덕에 모셨다.

후손인 계운(啓運)이 삼가 상소를 올릴 때 대궐 문을 두들기니 예조[春曹]에서 직접 임금께 사연을 아뢰었고, 성균관의 유생이 통문(通文)을 보냈다.

정조 기유(1789)에 나주 거평면(居平面) 동아촌(東衙村)에 사당을 세워 장구(杖屨)의 장소가 되었다. 아! 선생의 지조와 충성, 크나큰 절개는 해와 달보다 더 빛나니,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에게 진동하리라. 이러한 정성은 열성조(列聖朝)의 몸을 잘 기른 공이니, 또한 어찌 무열공(武烈公) 고가(古家)의 가풍이 아니겠는가. 자손들은 그 깨우친 교훈을 믿으며, 조상들에게는 빛이 있었을 뿐이다. 선생의 문집을 아버지께서 정리하여 고쳤기에 나는 세숫대야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존경심이 일어나 대략 이같이 서술할 따름이다.

기사년(己巳年) 10월 상한(上澣) 연안(延安) 이교원(李敎源)이 삼가 짓다.

출전 : 노기욱, 『임진 의병장 노인의 금계집 국역본』,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先生姓魯。諱認。字公識。號錦溪。鼻祖諱啓。有商扶風人。博習詩書禮樂。從箕聖渡遼。敷八條創井制。受封江華。連三世掌敎。後世諱忠國。與卞·盧·閔·洪·李·呂·董七人。入仕于唐。還仕新羅。有八學士傳。至侍中公諱穆。卽先生之十五世祖也。仕麗朝。封咸豐君。十四世祖諱夢弼。殿中內給事。十三世祖諱仁厚。文壯元。銀靑光祿大夫。登中朝制科禮部員外郎·賜紫金魚袋·判禮部尙書·左僕射。十二世祖諱寬道。修文殿大學士·門下侍郎·平章事。諡文安。十一世祖諱彰文。典客令·密直司使。十世祖諱汝姬。寶文閣直提學。贈同樞密院副使。九世祖諱愼。初諱哲。在麗末癸卯。以正尹。從我太祖。時爲麗判宗薄寺事收復京城。錄一等勳。以上護軍。與安遇慶等平紅賊。錄一等勳。太祖朝。贈諡武烈。八世祖諱成顔。禮曹正郎行縣監。七世祖諱世麒。進士。六世祖諱儒。司宰監正。五世祖諱希周。大護軍。贈判書。高祖諱昇。生員。曾祖諱自貞。進士。祖諱行權。參奉行縣監。考諱師曾。

贈參議。妣淑夫人全州李氏。生公於嘉靖丙寅。氣宇倜儻。性行純孝。重厚有山岳之像。深沈有河海之量。凡於性理之學。格致之功。無不通解。少學于羅參奉恒。又從林石村惰·金南塘光運遊焉。萬曆壬午。中進士。文章行義。爲世所推。乙酉。薦除別提。當壬辰難。從權光州慄。仗義討賊。屢戰收勳。丁酉。被俘入倭。抗節罵賊。七日不食。而凜凜有生氣。諸倭見而異之。終不敢加刃。以魚饌蔬食。朝夕供饋。先生以未知君親何如。不食魚饌。而只進蔬菜。己亥春。適遇天朝間諜使林震虢。決謀同舟。得到閩中。以徐宗師匡嶽薦。入兩賢祠書院。與諸生講論經學。唱酬詩韻。院中師友。莫不稱賞。皆曰。海東夫子。是年夏。上催歸原情疏。

神宗皇帝下祥忠武節之詔。命軍門都爺。護送本國。庚子春。乘天賜馬。到漢陽。

宣祖大王特賜召對。極加褒美。命馹還鄕。父母幸免兇鋒。壽終於戊戌正月矣。先生廬墓追服。服

闕後。登勸武科。除宣傳。甲辰六月。從李統相慶濬。擊破餘倭於唐浦。有勝戰圖。丙午。除水原府使。丁未。除黃海水使。有去思碑。未幾。陷於仁弘所詆。左遷于群山。當光海朝。謝病而歸。逍遙自遣。

天啓壬戌五月四日。病卒于家。享年五十七。淑夫人濟州梁氏。參奉琛女。墓羅州离婁谷面雉足村案山艮坐之原。雙封。後孫啓運。封疏叫闕。春曹筵稟。館儒發通。

正廟己酉。建祠于羅州居平面東衙村杖屨之所。噫。先生之貞忠大節。炳乎日月。振於華夷者。此誠列聖朝休養之功。而亦豈非武烈古家之風耶。信乎于孫貽謨。于祖有光也已。先生文集。家君釐正。故余盥手起敬。略敍如右云爾。

屠維大荒落陽月上澣。延安李敎源。謹撰。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금계집(https://db.itkc.or.kr/)

15) 류준(柳浚, 1583~1660)

• 본관 문화(文化), 자 징원(澄源), 호 사교당(四矯堂)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95, 「판관 류공 묘표(判官柳公墓表)」

류준 공은 자가 징원이고 자호는 사교이다. 장년에 관직을 쉬고 정사(精舍)에 숨어 살면서 나주의 모산(茅山)에서 가르침을 줬는데, 그가 배우는 자들을 타일러서 말하기를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식이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하가 되어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고, 어른·어린이와 친구 사이에 질서와 신의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엄격한 스승이 앞에 있으니 경적이 바로 그것이고, 강력한 적이 안에 있으니 물욕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이 사물을 이야기하였으나, 또 규범과 법도가 심히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면서 문하에 수학하는 자가 아주 많았다.

숭정(崇禎) 신축년(辛丑年, 1660년 현종 2년) 78세의 나이로 9월 초 6일에 졸하니, 문도(門徒)들이 상복(喪服)을 입고 장례를 치렀으며, 이미 또 사당(祠堂)을 세우고 조두(俎豆)를 갖추어 제사를 지냈다. 그 뒤 12년이 지나서 손자 유상운(柳尙運)이 시종관(侍從官)으로서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되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존군(尊君)[289]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 행장(行狀)을 만들어 나에게 비명(碑銘)을 부탁하였다. 그 행장(行狀)은 다음과 같다.

공은 효성스럽고 우애 있는 행동이 천성에서 나왔다. 그 아버지 첨정공(僉正公) 유몽익(柳夢翼)이 병에 걸려 침(針)을 맞으니, 공이 나이 5세였으나 놀라서 소리치면서 나아가 자기 몸으

289) 존군(尊君): 유상운의 부 유성오(柳誠吾)를 가리킨다.

로 대신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첨정공이 마침내 종이 위에다 가상하다는 말을 쓰기를, '천생(天生) 효자(孝子)이다.'라고 하였다.

첨정공이 세상을 떠나자, 공은 8세였으나 언제나 홀로 자리하여 번번이 아버지를 부르며 소리 내어 울었다. 어머니는 그가 병이 날까 봐 걱정하여 억지로 생강과 계피[290]를 주었으나 공은 울면서 먹지 않았다.

23세(병오년, 1606년 선조 39년에 생원시 합격)에 상사(上舍, 성균관)에 올랐는데, 장중하고 말수가 적고 쓸데없는 부화(浮華)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성균관[泮中]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추앙하고 존중하였다.

천계(天啓) 계해년(癸亥年, 1623, 광해군 15년)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났는데, 이보다 앞서 폐조(廢朝, 광해조) 15년(1623)에 진신(縉紳, 벼슬아치의 총칭) · 장보(章甫, 유생)들이 이익의 유혹에 빠져서, 사악한 논의에 견강부회하기를 서울과 지방이 바람에 쏠리듯 하였다. 반정(反正)이 이루어지던 날 몸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은 자를 서둘러 선발하였는데, 공에게 금오랑(金吾郎, 의금부 도사)을 제수(除授)하였고, 호종(扈從)한 공로로 주부(主簿)에 승진하였다.

어버이가 늙었기 때문에 스스로 효성(孝誠)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여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가서 어버이를 봉양하였다. 어머니의 병이 위독해지자, 공은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드시게 하였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몸이 몹시 손상되어 거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정도였다. 날마다 무덤을 둘러보고 슬퍼하면서 지키며 밤에 자면서도 정성을 다하였는데, 이에 자못 감정이 복받치면 문득 베개를 밀어내고 곡하였다.

무덤의 남쪽 방향에 마치 병혈(丙穴)[291]에서 잡은 듯한 맛 좋은 물고기가 났는데, 모부인이 생시에 이것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공은 종신토록 그것을 차마 입에 대지 못하였다.

감찰(監察) · 판관(判官)의 왕명(王命)이 있었으나 녹봉(祿俸)으로써 제사(祭祀)를 제대로 받들 수 없다고 하여 사은(謝恩)하고 즉시 돌아왔다. 무덤 옆에다 집을 짓고 그 세상을 다할 때까지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는 자봉(自奉)을 심히 야박(野薄)하게 하였으나, 선대(先代)를 받드는 제사는 깨끗하고 푸짐하게 하였다. 제사 일을 맡아보는 비복(婢僕)은 반드시 몸을 닦고 깨끗이 하는 자를 썼으며, 기일(忌日)에는 반드시 5일 동안 재계(齋戒)하고 제기(祭器)를 씻고 제물(祭

---

290) 생강과 계피: 상주(喪主)가 병약할 때 보양제로 먹는다.

291) 병혈(丙穴): 동혈(洞穴)의 입구가 병향(丙向)으로 뚫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방여승람(方輿勝覽)』권59 「달주(達州)」에 "명통현(明通縣) 정협(井峽) 속에 있다. 구멍이 모두 10개인데 모두 맛이 좋은 물고기가 나온다. 봄여름 전에 구멍에서 나왔다가 가을에 들어간다." 하였다. 진(晉)나라 좌사(左思)의 「촉도부(蜀都賦)」에 "좋은 물고기는 병혈에서 나오고, 좋은 나무는 부곡(裒谷)에서 나온다.[嘉魚出丙穴 良木攢裒谷]"라고 하였다.

物)을 깨끗이 장만하여 모두 갖추었는데, 공이 반드시 친히 감독하고 돌보았다. 비록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일찍이 이것을 바꾼 적이 없었다.

맏형[유속(柳泝)] 섬기기를 매우 삼갔으며, 종족(宗族)을 대접하여 지극히 화목하게 하였다. 향당(鄕黨) 사이에서 어진 사람들이 그를 벗으로 삼았고, 불초(不肖)한 자들도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모두에게 환심을 잃지 않았다.

공은 문화(文化) 사람으로 고려(高麗) 대승(大丞) 유차달(柳車達)의 후손이다. 근세(近世)에 현달한 자는 부제학(副提學) 유희저(柳希渚)로 첨정공(僉正公)의 조부(祖父)가 되며, 감찰(監察) 유용공(柳用恭)이 첨정공의 아버지가 된다.

공은 태종 대왕(太宗大王)의 7대손으로 부원군(府院君)에 증직(贈職)된 이경록(李慶祿)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공이 졸하자) 영암(靈巖)의 청풍원(淸風院) 새로운 영역(塋域)에 부장(附葬)하였다. 부인은 여자의 덕(德)을 두루 갖추어, 남이 가난한 것을 불쌍히 여겨서 집안에 재물이 있고 없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구제하였다. 네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현감(縣監) 유성오(柳誠吾)이고, 다음은 전력 교위(展力校尉) 유신오(柳愼吾), 생원(生員) 유창오(柳昌吾), 진사(進士) 유형오(柳亨吾)이다. 손자인 지평(持平) 유상운(柳尙運)과 진사(進士) 유상재(柳尙載)는 현감(縣監)의 소생인데, 그 사위는 신섬(申暹)·이징선(李徵善)이다. 유상보(柳尙輔)·유득보(柳得輔)·유상로(柳尙輅)·유상휘(柳尙翬)는 교위(校尉)의 소생인데, 그 사위는 조성한(趙晟漢)·송기태(宋基泰)이다. 생원(生員)의 사위는 이진명(李晉命)이다. 진사의 사위는 곽수징(郭壽徵)·조일성(曺一成)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지평(持平)이 공의 말씀을 외우기를 "≪중용(中庸)≫은 사서(四書) 중에 지극히 훌륭한 책이니, 모름지기 ≪중용≫의 장구를 먼저 읽어야 하며, 그 장구에 의심을 가진 연후에 바야흐로 다른 여러 책을 읽거나 혹은 질문할 것이다. 이것은 ≪대학(大學)≫이라는 책에서 주자(朱子)가 일찍이 말씀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지혜와 식견이 정밀하고 성실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그가 한 지방의 종사(宗師, 존경하는 스승)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의 '사교'라는 호도 또한 반드시 그 사이에 사서의 뜻이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지식으로 쌓인 것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것도 또한 숭상할 만하다고 하겠다. 다음과 같이 명을 쓴다.

배워서 그 방법을 알고	學以知方
그 본의를 행하였네	以行其義
또 가르쳐서 학업을 발전시키고	又以爲敎
예의를 갖추게 하였도다	展也備矣
살아서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고	存而鼓篋
죽어서는 제자들이 제사를 받들도다	沒而祭社

아름답도다 많고도 많은　　嘉哉莘莘
남쪽 지방의 학자들이여　　南方學者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송자대전(https://db.itkc.or.kr/)

柳公浚字澄遠。自號四矯。壯歲休官闢精舍。敎授于羅州之茅山。其諭學者之言曰。學問之道無他。爲子而孝。爲臣而忠。夫婦而別。長幼朋友而序與信是也。又曰。嚴師在前。經籍是也。勍敵在內。物欲是也。其言有物而又規繩甚備。故從遊者甚盛。崇禎辛丑。年七十八。而卒于九月初六日。門徒持服送葬。旣又立祠于社而俎豆之。後十二年。孫尙運以侍從官。奉使南來。以其尊君命狀其行。以謁余銘。其狀曰。公孝友之行。出於天性。其考僉正公諱夢翼病針刺。公五歲。驚呼而進。願以身代。僉正公遂書嘉賞語于紙上曰。天生孝子。僉正公沒。公八歲。每獨處輒呼爺號泣。母夫人愍其疾。強以薑桂。泣不肯聽。二十三。陞上舍。莊重寡言。不喜浮華。泮中咸推重焉。天啓癸亥。仁祖反正。先是廢朝十五年。搢紳章甫汨於利誘。附會邪議者。京外靡然。改玉日。亟選守身不汚者。授公以金吾郎。用扈從勞陞主簿。以親老不自克。解官歸養。母夫人病劇。斫指進血。及喪。毁幾滅性。日繞墓哀省。宵寐精誠。慈顔感通。則輒推枕而哭於墓。南方有丙穴之嘉。母夫人嗜之。公終身不忍食。嘗有監察·判官之命而以祿不逮養。謝恩卽歸。築室墓側以沒其世。自奉甚薄。而奉先洗腆。執事婢僕。必用其修潔者。忌日必五日齋素。滌濯具修。必親監視。雖疾病未嘗改也。事伯氏甚謹。待宗族極其睦。鄕黨之間。賢者友之。不肖者矜之。故俱不失歡心焉。公文化人。高麗大丞車達之後。近世顯者。副提學希渚爲僉正公祖。而監察用恭爲考也。公娶世宗大王幾世孫贈府院君慶祿之女。先沒而祔葬于靈巖之淸風院新兆。女德俱備。恤人之窮。不計家有無。四男長縣監誠吾。次展力校尉愼吾·生員昌吾進士亨吾。孫尙運持平·尙載進士縣監出。女壻申暹·李徵善也。尙輔·得輔·尙輅·尙翬校尉出。女壻趙晟漢·宋基泰也。生員女壻李晉命。進士女壻郭壽徵·曹一成。餘幼。持平誦公之言曰。中庸是四書極致處。須先讀章句。章句有疑然後方讀或問諸書。此於大學書。朱子嘗言之矣。其知見精實如此。一方之宗師也宜哉。其四矯之號。亦必於其間。有泯然會於其心者也。是又可尙也。銘曰。

學以知方。以行其義。以爲敎。展也備矣。存而鼓篋。沒而祭社。嘉哉莘莘。南方學者。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송자대전(https://db.itkc.or.kr/)

16) 류지경(柳持敬, 1576~1640)

• 본관 문화(文化), 자 덕구(德久), 호 죽헌(竹軒)

조경남(趙慶男), 『속잡록(續雜錄)』 4, 정축년 상 1월

1월 15일

김준룡(金俊龍)이 도망간 뒤로 인해 숨고 나오지 않으므로 체종사(體從事, 관찰사 종사관의

약칭)가 나주(羅州) 전 수사(水使) 류지경을 임시 병사로 차정(差定)하였다.

23일

본도 가운데 영군(營軍) 2천여 명이 여산(礪山)에 있었는데, 초저녁에 고함을 치며 포를 터뜨리고 나와서 종사관(從事官)을 부르며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사지(死地)에 몰아넣고 편안히 앉아서 사태의 추이만 관망하고 있느냐. 너는 구리로 만든 머리에 쇠로 만든 몸뚱이가 아닐 것이니 마땅히 먼저 너를 베어 뭇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고서 적을 치겠다." 하고서, 일시에 흩어져서 한길에 있는 파발막을 다 불 질렀다. 종사관은 전날 밤에 바깥 마을에 나가서 하루를 묵고 사관으로 돌아왔기에 다행히 면했다. 이 뒤부터는 류지경과 함께 사관에 머무르고 군사를 엄밀히 배치하여 수직하였다.

류지경이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산(礪山) 황화정(皇華亭)에서 감사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군졸이 또 흩어지므로 혼자서 말을 타고서 옥천(沃川)으로 향하였다. (중략)

경상 감사 심연(沈演)과 전라 감사 이시방(李時昉)을 잡아다 국문하였는데, 이시방의 공사(供辭)는 다음과 같다.

(중략) 그래서 또 장수와 원수(元帥) 및 영남 병사 감사의 군사와 합세하여 다시 거사한다는 사실을 들어 자세히 갖추어 치계하였습니다. 제가 그 때에 곧장 경상(境上)에 당도하여 제영(諸營)의 무너진 군사를 수습하였더라면 비록 빨리 나가지 못한 죄를 범할지라도 본도 난병(亂兵)의 변은 거의 진정될 수 있을 것이온데 난리에 쫓아가기가 급해서 다른 것은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병을 조발(調發)하는 한 가지 일은 체종사(體從事) 김광혁(金光爀)에게 맡겨 경상(境上)에 머물러 흩어진 군사를 독려하여 권차병사(權差兵使) 류지경에게 그들을 영솔하고 계속 전진하게 하라 하고, 저는 제도(諸道)에 보낸 도원수의 전령으로 인하여 즉시 승군(僧軍) 및 후영(後營)의 무너진 군사를 아울러 3천여 명을 거느리고 공주(公州)로부터 행군하여 충주(忠州)의 길로 향하여 행군이 문의(文義)에 당도한즉 안성(安城)에서 유진(留陣)한 군사가 밤에 놀라 또 무너져 흩어지고, 중군(中軍) 및 영장(營將)이 다만 7백여 명을 거느리고서 뒤따라 군전(軍前)에 당도하므로 장영 등을 일의 경중에 따라 죄를 다스리고 나아가 청주(淸州)에 진을 치니, 적병이 사방에 가득 차서 온양(溫陽)·천안(天安)·목천(木川)·진천(鎭川)·청안(淸安)의 일대는 적의 대진(大陣)이 곳곳에 주둔하여 앞길을 차단하고 있고, 유격병은 사방으로 흩어져 사람을 수색하고 짐승을 잡아가니 청주(淸州) 이하 여러 고을 수령(守令)들이 모두 다 도망해 달아나 읍과 마을들이 한결같이 텅 비고 연기와 불꽃은 하늘을 넘실댔습니다.

金俊龍遁去之後。因匿不出。體從事以羅州前水使柳持敬。假差兵使。(中略)

本道中。營軍二千餘名在礪山。初昏吶喊放砲而出。呼罵從事曰。汝何驅我於死地。安坐而觀變乎。汝非銅頭鐵身。當先斬汝以快衆心。然後擊賊。一時潰散。盡焚一路撥幕。從事在前夜出外村。經

宿還館。自是與柳持敬留館。嚴兵守直。柳持敬領數千兵。自礪山皇華亭。欲往監司所在。軍卒又潰。單騎馳向沃川。(中略)

拿鞫慶尙監司沈演全羅監司李時芳。時芳供辭。(中略) 又以將與元帥。及嶺南兵監司之軍。合勢再擧之由。具由馳啓。矣身於其時。直到境上。收拾諸營潰卒。則雖犯稽緩之罪。本道亂兵之變。庶將鎭定。而急於赴難。不遑他顧。軍兵調發一事。付於體從事金光燦。回留境上。督發散卒。使權差兵使柳持敬領率繼進。矣身因諸道都元帥傳令。卽率僧軍及後營潰卒并三千餘名。自公州行軍。指向忠州之路。行到文義。則安城留陣之軍。因夜驚又爲潰散。中軍及營將。只率七百餘名。追到軍前。將領等從輕重治罪。而進陣於淸州之地。則敵兵彌漫於四境。溫陽天安木川鎭川淸安一帶。敵之大陣。處處屯結。橫遮前路。遊騎四散。搜搶人畜。淸州以下。列邑守令。擧皆奔竄。邑里一空。烟焰漲天。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속잡록(https://db.itkc.or.kr/)

17) 서정후(徐廷厚, ?~1593)

• 본관 이천(利川), 자 미상, 호 송촌(松村)[292]

(1)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권13, 「창의사김공정렬사비(倡義使金公旌烈祠碑)」

이때 공은 전(前) 부사(府使)로서 관직을 떠나 나주의 전사(田舍)에 물러와 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울부짖고 통곡하며 거의 까무러칠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다가 이윽고 떨쳐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내가 통곡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서 군부(君父)가 파천하고 있는 때에 세신(世臣)인 내가 새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목숨만 건지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는 장차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난리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가령 강하고 약한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더라도 그때는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니, 죽지 않고서는 나라에 보답할 길이 전혀 없다." 하였다. 그리고는 글을 급히 보내 고경명(高敬命)[293], 박광옥(朴光玉), 최경회, 정심(鄭諶) 등에게 이 일을 고하였는데, 의사(義士) 송제민(宋濟民), 양산룡(梁山龍), 양산숙(梁山璹), 임환(林懽), 이광주(李光宙), 서정후 등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집결하였다. 이에 정예(精銳) 수

292) 원문 및 번역문은 '죽촌(竹村)'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천서씨문중의 수정사항으로 '송촌(松村)'이라 표기한다.

293) 고경명(高敬命): 1533~1592.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霽峰),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광주 압보촌(鴨保村) 출생으로 부친은 대사간 고맹영(高孟英)이다. 임진왜란 때 금산에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금산의 성곡서원(星谷書院)과 종용사(從容祠), 순창의 화산서원(花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제봉집』과 각처에 보낸 격문을 모은 『정기록(正氣錄)』이 있다.

백 명을 얻어 6월 3일에 삽혈(歃血)의 의식을 행한 뒤 군사들과 맹세를 하고 군대를 지휘하여 서쪽으로 나아갔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계곡집(https://db.itkc.or.kr/)

時公以前府使。罷官屛居于羅之田舍。聞報號慟幾絕。旣而奮曰。吾徒哭何爲。國有難。君父播越。吾世臣也。不可鳥竄求活。吾將擧義師以赴難。卽強弱不敵。有死而已。不死無以報國。乃以書馳告于高敬命·朴光玉·崔慶會·鄭諶等。義士宋濟民·梁山龍·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聞風赴集。得精銳數百。以六月三日。歃血誓衆。引兵西。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계곡집(https://db.itkc.or.kr/)

(2)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임진년 5월

5월, 왜적이 한양성에 입성하니, 선생은 집에서 통곡하며 이르기를,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고 인심이 이탈되었으니, 비록 어진 장수가 있을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군부가 급한데 어느 겨를에 이험(夷險)을 논하리오." 하고, 전 부사 고경명, 전 목사 박광옥(朴光玉)[294], 전 정랑(正郎) 정심, 전 군수 최경회에게 편지를 보내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16일에 고향의 자제를 불러 모으고, 또한 의사 송제민(宋濟民), 양산룡(梁山龍), 양산숙(梁山璹), 임환(林懽), 이광주(李光宙), 서정후 등도 모였다. 선생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랏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어찌 구차히 살리오. 가령 살고자 한들 홀로 온전할 이치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 구학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을 토벌하다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함에, 모두 대답하기를 "네, 네"라 하였다. 혹은 양향(糧餉), 혹은 마우(馬牛), 혹은 가동(家僮)이 하루도 채 못되어 이르는 자가 300명이고, 기계도 대강 마련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五月。賊入城。先生在家號痛曰。紀綱紊矣。人心離矣。雖有良將。無奈何。然君父之急。奚暇論夷險。簡前府使高敬命·前牧使朴光玉·前正郎鄭諶·前郡守崔慶會。約以擧義。十六日。招集鄕子弟。義士宋濟民·梁山龍·梁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亦來會。先生中坐流涕曰。國事至此。吾輩豈可苟活。藉令欲生。理無獨全。與其溝壑而死。無寧討賊而死乎。皆曰唯唯。或糧餉。或馬牛。或家僮。不日而至者三百人。器械亦粗辦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

---

294) 박광옥(朴光玉): 1526~1593. 본관은 음성(陰城), 자는 경원(景瑗), 호는 회재(懷齋)이다. 전라도 광주에 세거(世居)하였고, 10세 때 정황(丁潢)의 문하에 들어갔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신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고경명 · 김천일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고 고향의 의병도청(義兵都廳)에서 군대의 장비와 양식을 조달하였다. 1602년(선조 35) 나주 벽진촌(碧津村)에 세워진 의열사(義烈祠)에 제향되었는데, 그 사당은 뒤에 벽진서원(碧津書院)으로 고쳐졌다. 운봉(雲峰)의 용암서원(龍巖書院)에도 제향되었다. 저서에 『회재유집(懷齋遺集)』이 있다.

(3) 金麟淳 校, 『남문창의록(南門倡義錄)』 권2, 제현사실(諸賢事實)

서정후는 호가 송촌(松村)이요,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이조판서 증직을 받은 효당(孝堂)의 증손이요, 현감 상(祥)의 손자인데 효로 천거되어 별좌(別座)에 제수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사비(私費)를 들여 의사 수백 명을 모아 창의사(倡義使) 김천일에게 달려가 종사관이 되었는데, 그때 삼도 군사가 무너졌지만 김천일 군사만이 온전하여 수원에서 금령에 이르기까지 적을 베거나 노획(鹵獲)한 것이 가장 많았다. 합병하여 근왕(勤王)하자는 김공의 친서를 가지고 장성 남문 의병청(義兵廳)에 왕복하였다. 드디어 김공으로 하여금 강화로 들어가지키게 되었는데 경성에 있던 적이 퇴각하자, 그 뒤를 쫓아 진주에 이르러 병사 최경회 · 병사 황진(黃進) 그리고 복수장 고종후(高從厚), 의병부장 장윤(張潤) · 주부 서응두(徐應斗) · 분의장 강희열(姜希悅) 등과 성문을 나누어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여러 의장(義將)과 같이 남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출전 : 오산창의사 편, 『(國譯)南門倡義錄·鰲山詞誌』, 長城郡·鰲山倡義祠, 1997

徐挺厚。字號竹村。利川人。贈吏判孝堂曾孫。縣監祥孫。以孝薦。除別座。壬辰。傾財募士。得數百人。赴倡義使金公軍。為從事官。時三道師盡潰。獨金公一軍得全。自水原至金嶺。斬獲最多。以金公合兵勤王之書。往復長城南門義兵廳。遂使金公。入守江華。京城賊退。追至晋州。與兵使崔慶會·兵使黃·復讎將高從厚·義兵副將張潤·主簿徐應斗·奮義將姜希悅。分門死守。及城陷。與諸義將。同投南江而死。

출전 : 金麟淳 校, 『南門倡義錄』, 1799

18) 서진명(徐晉明, ?~?)

• 본관 이천(利川), 자 성구(聖求)

호남유림, 『호남병자창의록(湖南丙子倡義錄)』 권4, 「열읍제현사실(列邑諸賢事實)」

참봉 서진명

자는 성구(聖求),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증 판서 서효당(徐孝堂)의 6세손이고, 처사 서윤(徐玩)의 아들이다. 만력 신묘년에 태어났다. 정사년(1617)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노봉(老峯) 민공[295]이 암행어사로서 공의 지극한 행실을 추천하니, 예조에

295) 노봉(老峯) 민공: 민정중(閔鼎重, 1628~1692)으로 노봉은 그의 호이다. 자는 대수(大受), 시호는 문충(文忠),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1649년(인조 27)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장원 급제한 뒤 대사헌 및 여러 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1675년(숙종 1) 남인이 득세하자 장흥부(長興府)에 유배되었다가 1680년 풀려나 좌의정이 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남인이 다시 득세하자 벽동(碧潼)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별세하였다.

서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쌀과 고기를 하사하였다.

비분강개한 의기와 절조가 있어서 병자호란 이후에 시를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동해에 빠져 죽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우니	東海愧無蹈死者
억지로 술잔 들고 쇠잔한 이의 목구멍 달래노라	強携杯酒慰殘喉

비분강개한 마음을 시문에 표출함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아들 서봉령(徐鳳翎)이 있었는데, 선친의 아름다움 이어받아서 학문과 덕행으로 천거되어 참봉(參奉)에 제수되었고, 고향 사람들은 사당[296]을 세웠다.

출전 : 신해진 역, 『호남병자창의록』, 태학사, 2013

參奉 徐晉明

字聖求。利川人。贈判書孝堂六代孫也。處士玩子。萬曆辛卯生。丁巳中司馬。性至孝。老峯閔公。以御史。薦公至行。自禮曹奉敎。賜米肉。慷慨有氣節。丙子亂後。有詩曰。東海愧無蹈死者。強携杯酒慰殘喉。其悲憤之發於吟詠類如是。有子鳳翎。克趾厥美。以學行薦。除參奉。鄕人立祠。

출전 : 최형구 등 편, 『호남병자창의록』, 明誠齋, 1933

19) 송기원(宋起源, 1559~1609)

• 본관 신평(新平), 자 희진(希進), 호 노은(櫓隱)

기우만(奇宇萬), 『송사집(松沙集)』 권26, 「한성부 좌윤 송공 묘지명 병서(漢城左尹宋公墓碣銘并序)」

아, 이곳은 임진년의 의사인 좌윤(左尹) 송 공의 무덤이다. 오늘날 오랑캐들의 재앙은 임진년보다 심한데 공을 저승에서 살아오게 하여 집안과 나라의 수치를 씻을 수 없어, 온갖 죽을 고비를 넘고 살아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 묘에 글을 쓰게 하니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더욱 금할 수 없다.

공은 뛰어난 재주를 타고났고 문명의 시대를 만났는데 출세에 담박하였으니, 솜옷을 입고 맹물을 마시면서 성대한 세상에서 스스로 숨고자 한 것이다. 면앙(俛仰, 송순) 선생은 종중 어른이고 사우이기도 한데, 찾아가 공부하고 질의하면서 자신 자신을 위한 학문에 힘을 기울였고 기개와 절개 또한 인정을 받았다.

---

296) 사당: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철야마을에 있는 철천사(哲川祠)를 가리킨다.

임진왜란 때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말하기를 “임금의 어가가 몽진하였고 나라가 위태로운데 집안 대대로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갚을 계책을 하지 않고 가만 앉아서 동강의 비탈만 지키겠는가.”라고 하였다. 먼저 자신의 창고를 털어 의사 수천 명을 규합하고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렸다. 자형(姊兄) 김광운(金光運)과 함께 먼저 길을 나서 적을 쫓아, 여러 차례 뛰어난 공훈을 세우고 적의 목을 벤 것도 많았다. 건재 김선생이 창의사로서 공을 조정에 아뢰어 군자감(軍資監) 정(正)이 되고, 차례대로 절충장군(折衝將軍) 충좌위호군(忠佐衛護軍)으로 승진하였다. 정유재란 때에도 다시 의병을 일으켜 적병을 추격하면서 일찍이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었으나 오롯이 위임(委任)받지 못해 힘을 다해 보답하지 못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승진하였으나 전후의 포상이 공적에 걸맞지 않았으니, 또한 공 스스로 공적을 자랑하지 않아서 그리된 것이다. 이렇게 그 뜻과 공적이 함께 훌륭하다.

공은 가정(嘉靖) 기미년(1559)에 태어나 만력 기유년(1609)에 세상을 떠났다. 남평(南平) 봉황산(鳳凰山) 임좌(壬坐)에 장사지냈으니 바로 선비(先妣) 정씨의 묘 아래쪽이다. 지하에서도 곁에서 모시겠다는 것이 그 유언이었다.

공의 휘는 기원(起源), 자는 희진(希進)이고, 노은(櫓隱)은 호이다. 송씨의 본관은 신평(新平)이다. 시조 구진(丘進)은 고려에서 서운관정(書雲觀正)을 지냈다. 고조 자은(自殷)은 양주(楊州)에서 영평(永平)으로 은둔하였고, 군수를 지냈다. 현령을 지내고 판서에 추증된 희(禧), 습독을 지내고 통례에 추증된 세준(世俊), 판결사 우(遇)가 삼대의 휘니, 대대로 문행이 있었다. 어머니는 본관이 하동(河東)으로, 충의위(忠義衛)를 지낸 숙(璹)이 그 부친이다. 아내는 정부인(貞夫人)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윤응기(尹應麒)의 딸이다.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아래에 함께 장사지냈다.

두 아들을 두었으니 장남 격(格)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고 정묘년(1627) 오랑캐가 침입하였을 때 의병을 일으켜 부친의 충렬을 잘 이었다. 차남은 익(榏)이다. 딸 하나는 군수 유선증(俞善曾)에게 시집갔다. 측실이 낳은 아들 하나는 백(柏)이다. 손자와 증손은 많아서 다 기재하지 않는다.

묘에 오랫동안 비석이 없었는데 자손이 이를 슬피 여겨 돌을 마련해 놓고 나에게 명을 청하였다. 부탁을 전한 이는 10세손 홍(鴻)과 그 족질인 온(榲)과 추(樞)이다. 삼가 생각건대 묘에 의물을 마련하는 일이 마침 오랑캐가 창궐하는 날에 있으니, 하늘이 어찌 공의 뜻과 절개를 밝게 드러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윗사람을 친근하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알게 해서 말발굽을 몰아내는 소식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탄식하며 명을 쓴다.

명은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때	龍蛇島燹
공이 무의를 떨쳤고	公于楊武
정유년에 다시 떨쳐 일어났으니	丁酉再奮
지주처럼 우뚝하였도다	屹若砥柱
지금이 어느 때인가	見今何日
의사가 절치부심하여도	義士心腐
저승에서 돌아오게 할 수 없으니	九原莫作
남은 용기 누가 사가겠는가	餘勇誰賈
의로운 혼백 죽지 않아	毅魄不死
의로운 간담 토해내고자 한다면	義膽欲吐
공이 응당 묵묵히 도와	公應默佑
우리나라를 환히 밝히리니	以廓東土
시대에 밝게 드러내면	昭著于時
풍화에 도움이 되리라	風化庶補

출전 : 유영봉 외 역, 『국역 송사집』, 흐름출판사, 2020

嗚呼。此壬辰義士左尹宋公之藏。見今黑齒之禍。浮於壬辰。不能起公於九原。以雪家國之恥。而使百死餘生。識公之墓。尤不禁潸潸泣下。公受才超夷。値時文明。泊於進取。蓋欲以縕袍飮水。自藏於大有之世。俛仰先生。蓋其宗老兼師友。逆來講質。用力於爲己。而氣節亦爲所許可。龍蛇之燹。不忍忿憤。投袂而起曰。宮駕播越。國家綴旒。而家世受恩。不作報效計。坐守東岡之陂乎。先傾私困。糾義士數千。馳檄列郡。與姊夫金公光運。先登赴賊。屢立奇勳。斬殪亦夥。健齋金先生以倡義使。啓公爲軍資正。以次陞折衝忠佐衛護軍。丁酉再猘。輒復應起追捕。未嘗一跲。而委任不專。不克殫力報效。事聞。陞漢城府左尹。而前後賞不稱功。亦以公不自施勞致然。此其志與功并高也。公生嘉靖己未。卒萬曆己酉。葬南平鳳凰山壬坐。卽先妣鄭氏墓下。地下侍側。其遺命也。公諱起源字希進。櫓隱號也。宋氏系新平。始祖丘進。高麗書雲觀正。高祖自殷自楊州遞于永平。官郡守。縣令贈判書禧,習讀贈通禮世俊,判決事遇三世諱。世有文行。妣貫河東。忠義衛璹其考。配貞夫人坡平尹氏。僉樞應麒女。先公坳。葬衬其下。二男長格同中樞。丁卯虜寇。擧義旅。克承父烈。次榿。一女適郡守俞善曾。側出一男柏。孫曾多不盡載。墓久無顯刻。子孫是悼。石旣具。請銘於宇萬。將命者十世孫鴻及其族姪榲,樞。竊惟墓儀之修。適在黑齒搶攘之日。天豈欲昭著公之志節。以諭時人之衷。使知親上死長之義。而爲蹄跡驅除之消息歟。遂歎息而爲之銘曰。

龍蛇島燹。公于楊武。丁酉再奮。屹若砥柱。見今何日。義士心腐。九原莫作。餘勇誰賈。毅魄不死。義膽欲吐。公應默佑。以廓東土。昭著于時。風化庶補。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송사집(https://db.itkc.or.kr/)

20) 양산룡(梁山龍, 1552~1597)

• 본관 제주(濟州), 자 우상(宇翔), 호 미상

(1) 양응정(梁應鼎), 『송천유집(松川遺集)』 권6, 「효자 생원공 행장(孝子生員公行狀)」

공의 휘는 산룡, 자는 우상(宇翔)이며 성은 양씨(梁氏)이다. 선조 연간에 태어나 도학이 있었으나 벼슬하지 않고 스승을 찾아 위기(爲己)의 학문을 익혔다. 임진년에 섬 오랑캐가 창궐하자 의병을 일으켜 적을 쳐부수었고 정유재란 때는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순절하여 지금까지도 남쪽 지방 사람들이 전송하고 있으니, 당시를 열복(悅服)하게 했고 내세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임을 상상해볼 수 있다.

양씨의 시조를 말하면 탐라(耽羅)에서 발원되었는데, 단군 시대에 세 신인이 한라산 기슭에 내려와 분담하여 한 섬의 장(長)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양씨였다. 그 후대에 와서 신라에 조회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라에서는 별자리가 움직였다 하여 성주 왕자(星主王子)의 작위를 내렸다. 성씨도 양(良)을 양(梁)으로 고쳤다. 휘가 순(洵)이라는 이가 바다를 건너와 신라에서 한림학사가 되고 한라군(漢拏君)이라는 봉호를 받아 돌아갔으며, 고려에 와서도 현관 문인(顯官聞人)들이 많았다. 이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여서 대대로 문행이 끊기지 않았으며 조부 휘 팽손(彭孫)은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서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당적에 연루되어 폐고(廢錮)된 채로 세상을 마쳤는데 호가 학포(學圃)였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 휘는 응정(應鼎)인데 역시 권간들 비위에 거슬려 전원에 묻혀 있다가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지내고 호가 송천(松川)으로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 죽산 박씨(竹山朴氏)로 판관(判官) 중윤(仲允)의 딸이며 문정공(文正公) 원정(元貞)의 현손녀인데 임자년 9월 모일에 공을 낳았는데, 그때가 바로 중국의 세종 가정(嘉靖) 31년이었고 우리나라 명종 7년(1552)이었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데가 있어 단정하고 침착하였고 이 갈 나이도 되기 전에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곧 문의(文義)를 훤히 알았고 뜻이 원대하고, 도량이 넓고 깊어서 아버지 송천공(松川公)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점점 자라면서 학업은 날로 발전되었고 번잡하게 가르침을 주지 않아도 성리(性理)의 근원이나 상수(象數)에 있어서는 막히는 것 없이 다 알아냈고 성현의 글에 있어서는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혀 가슴에 담았다. 덕기(德器)가 일찍 성숙하였고 조리(操履) 역시 무리에서 뛰어났다. 그리하여 또한 청수하고 단아하고 재주와 학문이 천성이었던 둘째 아우 산숙(山璹)과 함께 마치 난조와 따오기가 마주 서 있는 것처럼 보는 이들이 모두 쌍벽이라고 칭찬들이 자자하였다. 나이 15~6세가 되어서는 문장이 대성을 이루고 학문 또한 질박하고 두터웠으니,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이 문장과 덕행을 두루 갖추었다고 극구 칭찬하면서 자신의 일록에다 쓰기를 '친구 양씨의 둘째 아들은 문장과 덕행을 고루 갖추

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깊이 인정하였다.

공은 약관 시절부터 경술에 더욱 전력하였는데 그의 학문은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마음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았고, 격물과 치지를 덕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삼았다. 그리고 행실을 닦음에 있어 충효를 제일 근본이 되는 곳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언제나 충신, 열사의 행적이며 효자나 절행이 있는 이의 전(傳)을 볼 때면 반드시 옷깃을 여미고 고쳐 앉아 강개한 마음으로 읽고 외우곤 하였고 아우 산숙과는 때로 병학(兵學)을, 또는 송천공에게서 배운 진도를 강구하기도 하여 조금도 헛되이 날을 보내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의 예절이나 남을 대할 때의 예절 등에 있어서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맑고 티 없는 모습과 효도하고 우애하는 일에 대하여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

일찍이 국자상상(國子上庠)에 올라 공부할 때도 남들 촉망이 대단하여 모두 그의 재주를 인정하고 또 사군자의 풍도가 있다고들 말하였다. 신사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거상하여 예를 극진히 하고 몸소 제전(祭典)을 행하였으며 상복을 벗은 적이 없었으니 슬픔과 공경 둘 다 지극하였는데 어머니를 위로하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복을 마치고 나서는 학문에 있어 사우가 없음을 한스럽게 여긴 나머지 옥천에 있는 중봉 조헌을 찾아가 경학을 강론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나이도 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조 중봉으로 말하면 율곡(栗谷, 이이), 우계(牛溪, 성혼)의 정통파로서 도학이 정밀한 분이었다. 그러나 조헌이 공을 한번 본 후로는 학식의 정박함을 좋게 여겨 외우(畏友, 가장 아껴 존경하는 벗)로 대하게 되었고 공은 그때부터 율곡, 우계 두 선생 문하에 출입하게 되었다.

당시 두 선생은 세상이 받드는 유종으로서 배우는 자가 매우 많았지만, 공 형제를 보는 순간 이들 성질이 따스하고 티 없고 문조가 간명하고 깨끗한 것을 더욱 인정하여 장차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기축년 역적 정여립(鄭汝立)이 역모를 꾸미다가 법에 의하여 처결된 후 임금은 오히려 관전을 베풀어 당여(黨與)들을 불문에 붙였으나 반칙의 무리들이 자숙자계(自肅自戒)를 하지 않았기에 나라 형세가 위태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겨울 공은 동지들과 함께 탁란한 풍토를 한번 씻을 양으로 앞장을 섰다. 그때 공이 주장한 내용은 윤강을 바로 잡고 역당을 규탄하자는 것이며 한편 당시 용사하던 재상들을 규척한 것이었는데 임금은 그것이 격분된 충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전교하기를 '현상 명경을 모조리 지척하여 반드시 나라를 비우고야 말겠다는 생각이니 이들 마음은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반드시 간사한 무리들 사주를 받아 한 짓이 틀림없으니 잡아들여 국문한 다음 법에 의하여 죄를 과하리라.' 하고 사건을 의금부에 내리고 지척을 당한 대신들을 위로하는 한편 소두(疏頭) 이하 10명을 왕옥(王獄)에 잡아 가두었다. 양사와 성균관 유생들이 신구(伸救)의 상소문을 올리고 재상인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등이 힘써 구원해주었기에 다행히 국문하지 말라는 명령이 다시 내려진 것이다.

그 당시 공의 주장이 비록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으나 그 정대한 말과 정직한 논리가 역적 무리의 넋이 달아나고 당시 재상들의 간담을 싸늘하게 만들기에 족하였으니, 공을 아는 자이면 더욱 공을 존경하게 되었다. 공은 그것을 계기로 전원에 돌아와 벼슬에는 뜻이 없이 형제간의 화목을 유지하면서 경전 강론를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리고 시사가 어렵고 위태롭다든지 또는 조정이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을 볼 때면 강개한 마음으로 탄식하기를 '천시(天時)와 인사(人事)를 이미 어찌 할 수가 없다.' 하고는 때로 눈물을 짓거나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때 공의 아우 산숙은 고을 남쪽 삼향리(三鄕里)에서 살고 있었는데 서로의 거리가 1백 리가 넘었다. 그러나 하루도 빼지 않고 반드시 도보로 와 부모님의 안부를 살폈으며 공도 때때로 그곳을 가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짚신을 신고 걸어갔다. 공을 아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 그리 자신을 괴롭히는가?"라고 물었으나 공은 대답하기를 "나의 뜻은 편안히 즐기기는 데 있지 않다. 다만 도간(陶侃)이 벽돌 나르던 일[297]을 보지 못했는가?"라고 하였다.

예전에 일본과의 사신 왕래가 해를 거르지 않고 빈번하였는데 묘당에서는 사실 그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급기야 김성일(金誠一)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와 왜인들이 바다를 건너올 이치는 만무하다고 큰소리를 치자 그것을 들은 공이 말하기를 "성일이 어찌 일본의 정세를 모르는가? 매우 괴이한 일이로다." 하였다. 임진년이 되어 섬 오랑캐 평수길이 여러 왜추를 동원하여 승승장구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공이 아군이 번번이 패배하고 조령(鳥嶺)도 험준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마침내 공은 곧 칼을 집고 통곡하며 아우 산숙·산축과 함께 어머니 박씨께 들어가 고하기를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우니 이 자식들 장차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칠까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말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도 이르시기를 "우리가 문은 대대로 나라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지 못할 만큼 크다. 게다가 나라를 구제하다가 죽는 것은 죽을 자리에 죽는 것이니 어미 마음에 기쁨이 있을지언정 한 될 것은 없다. 너희들은 있는 힘을 다하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은 공은 한편 아버지 송천공의 유훈이 생각나기도 하여 적을 토평할 것을 결심하고 두 아우와 함께 전 부사 건재 김천일 집으로 달려가 적을 물리쳐 국토를 회복할 계책을 모의한 다음 각 고을과 여러 도에 격문을 띄워 의려(義旅)와 의곡(義穀)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난여(鑾輿, 임금의 행차)가 서쪽을 향하여 떠났다.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

297) 도간(陶侃)이 …… 일: 일이 없을 때에도 몸을 단련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진(晉)나라 도간이 형주 자사(荊州刺史)로 있을 때 고을에 일이 없자, 매일 아침 벽돌 100개를 집 밖으로 옮겼다가 저녁에 집안으로 옮겼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내가 장차 중원(中原)에 힘을 쏟고자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지내면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서이다."라고 대답하였다. 『晉書 陶侃列傳』.

소식을 듣고는 목이 잠기도록 통곡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니, 정성은 신명을 감동시키고 충절은 재간과 국량을 부지런히 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경복(敬服)하였다. 열흘 사이에 소리에 응하고 그림자처럼 따르며 공을 따라 모여든 장사가 몇백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마침내 김공이 모은 군대와 합세하니 병기들도 정예하였고 병위 또한 떨치기 시작하였다. 군대에 통솔자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공을 맹주로 추대하였고, 이에 맹주에 추대된 김공은 개연히 단상에 올라 공의 아우 산숙을 부장, 공을 운량장, 그리고 자기 아들 상건을 종사로 각각 임명하였고 그로부터 군율이 곧바로 서고 호령 또한 엄숙해져서 드디어 서쪽으로 가 근왕할 것을 맹세하고 그해 6월 나주를 출발하였다. 출발에 앞서 아우 산축에게는 여기 머물러 어머님을 모실 것을 당부하면서 "어머니 나이가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아무도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너는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때로 의곡을 모아 군량미 조달에 보태라." 하였다. 김공 역시 그렇게 권하자 산축은 거기에서 작별하였고 공은 마침내 서신으로 어머님께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그보다 먼저 태헌(苔軒) 고경명과도 함께 근왕(勤王)[298]할 것을 맹세하였었는데 고공은 군대를 모으기 위하여 뒤처져 있어서 김공이 곧바로 용만을 향하였다. 이때 의사들은 죽기를 맹세하고 북쪽을 향하여 앞장섰는데 대오가 질서정연하여 여러 의병 중 으뜸이었으며 흉봉을 뚫고 싸워 심도(沁都, 강화도)로 들어가 수륙양면을 견제하면서 적의 형세를 관망하여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때 중봉 조헌도 호서에서 의병을 일으켜 바야흐로 세력을 펼치는 적들을 막아섰는데 공이 군량 수송을 위하여 호서에 있으면서 중봉을 찾아갔다. 중봉은 의막에서 공을 접견하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공의 정밀한 절도에 대하여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공은 이때부터 위로 아래로 양호를 드나들며 비바람도 아랑곳없이 여기저기서 군량을 모아 끊임없이 실어 날랐기 때문에 1만여 병력의 군량이 항상 남아돌았다. 또 병기까지 모아 세력을 도왔으며 의사도 모집하는 한편 때로는 군량 병기를 다른 부대의 의사들에게 공급하여 부족을 메꾸어 줌으로써 원수를 함께 칠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양호에 있던 의사들치고 공의 의리에 감복하고 또 공의 힘을 입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였다.

당시에 삼경이 모두 함락되고 7도는 피비린내 속에 있었으며 행조의 명령이 남방에는 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분문(奔問)에 사람이 없음을 개탄한 공의 아우 산숙이 병무를 공에게 맡기고 10여 명의 장사와 함께 주장의 밀서를 가지고 행재소가 있는 용만을 향하여 가면서 수로와 육로를 가리지 않고 낮이면 잠복하였다가 밤이면 가곤 하여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면서 결

298) 근왕(勤王): 임금의 일에 힘을 다한다는 것.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제후(諸侯)를 모이게 하려면 왕사(王事)에 힘을 다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임금이 난을 만나면 군사를 일으켜 난을 평정한다는 것.

국 행재소에 도달하였다.

이를 들은 선조는 크게 기뻐하면서 즉시 불러들였고 산숙은 땅에 엎드려 통곡한 후 이어 여러 곳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있는 일, 적세가 사납게 불어나고 있는 일, 또는 관군의 근만(勤慢) 상황 등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자세히 아뢰었다. 이를 들은 선조는 눈물을 지으며 이르기를 '오랫동안 남방 소식을 듣지 못했다가 이제 그대를 만나 비로소 구물(舊物)들이 그런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가상한 일인가?' 하고는 산숙에게는 공조좌랑(工曹佐郎)을 그리고 김천일에게는 창의사를 각각 제수하고 국가 수복의 뜻이 담긴 교지를 내렸으며 또 고경명에게는 초토사를 제수하고 역시 같은 뜻의 교지를 내렸다. 그리고 손으로 약을 집어 직접 산숙의 손바닥에다 놓아 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산숙은 하직 인사를 올리고 물려와 군중으로 돌아와서는 병마가 모인 곳에서 그 교서를 꺼내 소리 내어 읽으니 그를 들은 장사들 모두가 피가 끓고 눈물을 삼키며 더욱 죽기를 맹세하였다. 공은 다시 전날의 임무를 따라 남으로 내려가 수륙으로 군량 운반하기에 더욱 부지런히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왜추 청정이 중국 장수 이여송과 싸워 패하여 영남으로 후퇴하게 되었을 때 김공은 왕명으로 그를 추격하여 함안까지 와 주둔하면서 재물과 힘을 다하여 도왔다. 그해 봄 중국 장수가 적들과 강화를 하여 각처의 적들이 모두 영남으로 모이게 되었으므로 적의 병세가 크게 떨치었는데 이 기회에 청정이 수길에게 진주성을 공략하고 이어 호남을 칠 것을 청하니 수길이 이를 허락했다. 그리하여 청정은 수십만 병력을 동원하여 곧바로 진주성을 향하여 진격하게 되었고 이를 들은 창의사는 제장에게 이르기를 '진주와 호남과는 아주 가까운데 만약 저들이 장구하여 오면 다음에는 반드시 호남이 다치게 될 것이다.' 하고는 여러 의병장과 병력을 진주로 옮겨 적을 막기로 하였는데 이때도 의병들 군량 문제는 모두 공이 도맡았으므로 공은 함안에서 곧바로 호남으로 가 더 열심히 군량을 모았다. 그러나 공이 미쳐 진중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적에게 3겹으로 포위되어 있던 진주성은 8일 밤낮의 공방 끝에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다. 공의 아우 산숙은 창의사 그리고 여러 의병장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죽었으니, 그때가 바로 6월 29일이었다. 성이 함락된 소식을 들은 공은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때는 이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진주로 달려가 산숙의 시신이라도 거두려 하였으나 시신마저 찾을 길이 없었고 창의사의 둘째 아들 상곤도 달려와 곡하고, 아버지와 형의 시신을 찾았지만 역시 찾지 못하고 다만 그 아버지가 남긴 화의를 배격한 내용의 칠언시 17운 만을 거두어 돌아갔다.

공은 혼자 남게 된 것이 한스러웠고 또 시신을 거두지 못한 것이 원통하여 사방을 헤매며 울부짖다가 마침내 강 위에서 초혼(招魂)을 하고 돌아갔는데 이를 본 진주 사람들 중에 슬퍼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공은 말하기를 "초혼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을 예에서는 비록 인정하지 않지

만, 우리 아우는 뒤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무덤마저 없으면 후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어진 우리 아우의 이름도 사라질 것이다." 하고는 송천선생 묘 아래에 의관장(衣冠葬)을 하였다. 당시 적들은 울산 등지로 퇴각하여 있었는데 공은 다시 거의할 것을 도모하였으나 같이 협조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동안 전쟁에서 다친 상처들이 너무 심하기도 하여 실행하지 못했다가 적의 추장 하나가 홍의장군 곽재우에 의해 목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칼로 땅을 치며 일어나 말하기를 '아! 그가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았구나' 하고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유재란 때는 적병이 곧바로 호남으로 들이닥쳐 병화가 조석을 다투게 되었는데 이때 공은 아우 산축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고을 남쪽의 삼향포로 피난을 떠났었다. 그리하여 바다로 가려던 배가 아직 연안을 떠나기도 전에 적의 배가 갑자기 들이닥쳤고 포성이 하늘을 진동하였다. 이에 화를 면할 수 없음을 안 공의 어머니는 급히 공과 공의 형제를 불러 이르기를 "내 대부의 아내로서 욕을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고는 몸을 바다에 던졌다. 이를 본 온 식구가 황급히 다가가 구출하자 부인은 화를 벌컥 내며 말하기를 "내 이미 마음을 결정하였거늘 건지면 무엇하겠느냐."라고 하고는 다시 몸을 바다로 던졌고 공과 아우 산축도 어머니를 함께 붙잡은 채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때가 바로 9월 17일이요 공의 나이 45세 되던 때였다. 그리고 다음 날 공 형제는 어머니 시신을 함께 껴안은 채 물 위로 떠올라 듣는 이를 슬프게 하였다. 그날 공의 아내 유씨와 누이 동생인 진사 김광운의 아내, 그리고 족녀 김두남의 아내도 모두 공을 따라 함께 바다에 몸을 던졌다. 산숙의 아내 이씨, 산축의 아내 고씨는 종이 건져 내어 언덕 위로 올라 왔으나 이씨는 종이 차고 있던 칼을 달라고 하여 차고 포구 위 승달산으로 가 숨고, 고씨는 종과 함께 갈대밭에 가 숨었다. 숨었다가 조수가 물러가면 시어머니 이하 식구들 시신을 거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이 또 산을 뒤지기 시작하자 이씨는 결국 칼로 자기 목을 찔러 죽었다.

현령 임환의 첩이 된 공의 서녀도 같은 날 죽었는데 그의 나이 방년 17세로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변란 소식을 듣고 즉시 시댁으로 달려간 그는 그날 임씨 식구들과 한 배를 타고 공의 배보다는 조금 뒤에 바다로 나갔는데 공의 식구를 바다에 빠지게 한 적들이 임씨가 탄 배를 보고는 또 쫓아 왔다. 어쩔 줄을 모르는 판에 적들이 외치기를 "너희 배 안에 고귀한 여인이 있는데 그를 우리에게 주면 너희 배 전원을 살려 줄 것이나 그렇지 않는다면 몰살을 시킬 것이다." 하여 함께 타고 있던 여자 종을 두세 번에 걸쳐 넘겨 주었으나 그때마다 적은 천인이라고 하여 들이지 않고 이어 배를 함몰할 기세였다. 공의 서녀가 원래 매무새가 단정하고 얼굴이 예뻤는데 이때 와서 말하기를 "첩으로 말하면 천인이나 다를 바 없는데 다행히 첩으로 하여 온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첩이 어찌 이 한 몸을 아끼겠습니까?" 하고는 붉은 치마를 입고 적의 배로 옮겨 탔다.

그러자 적들은 기뻐하면서 임씨가 탄 배를 놓아 주고 양씨를 저들 배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

때 양씨는 적들에게 말하기를 “식구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일을 인정으로는 차마 못할 일이 아니겠는가. 저 배가 멀리 보이지 않은 곳까지 가는 동안만 좀 기다려다오.” 하여 적의 허락을 맡고 혼자 뱃머리에 서서 임씨가 탄 배가 멀리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 보고 있다가 배가 이미 바다 멀리 나가 적들이 뒤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임을 확인하고는 곧 몸을 솟구쳐 바다로 던졌다. 그리고 지아비를 부르며 부르짖기를 “첩은 이제 깨끗한 몸으로 죽어 가오. 온 집안이 절개를 지키는데 귀천이 다를 바 뭐가 있겠소.” 하였다.

이 광경을 본 적들은 놀라 혀를 내 둘렀고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임씨의 배에서는 뒤를 돌아다 보니 붉은 치맛자락이 표연히 바다로 떨어지더니 그곳을 빠져나와 겨우 쉬고 있는 임씨의 배 쪽으로 양씨의 시신이 쏜살같이 따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붉은 치마를 입었던 것은 자기가 깨끗한 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멀리서 보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날 절개를 지켜 죽은 이가 무릇 8명에 달하였던 것이니 이는 공의 가훈이 귀에 젖고 눈에 배어 그리 된 것으로 그야말로 삼강이 한 집안에 모여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유일하게 고씨만이 종들의 구출에 의하여 살아남아 적이 퇴각하고 조수도 물러가자 공의 시신을 거두어 송천 선생의 묘 아래다 장례를 치르던 것이다. 공의 배위는 서산 유씨로 습독 홍진의 딸이었는데 효성스럽고 온순한 바탕에 여자로서의 갖출 것을 일찍 다 갖추었고 순절한 후에는 역시 고씨가 시신을 거두어 공과 나란히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인조 13년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공은 효자 정려를 받았으나 유씨는 아직 그러한 은전을 받지 못하였다.

아! 공은 원래 청수한 바탕에 영달한 재주로 일찍이는 가정의 가르침을 맡았고 늦게는 스승의 가르침을 맡았다. 깊은 학문과 독실한 행실로 선현과 벗들 사이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온 처지였으므로, 그의 포부야말로 충분히 한 시대를 요리하고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쳐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상상(上庠)에 있던 시절 한 차례 위언을 올렸다가 짐을 싸 들고 전원으로 돌아오던 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벼슬을 단념하고 홀로 자신을 지키면서 경전이나 연구할 생각이었다. 때문에 본래 배웠던 것을 펴보지 못했으니 어찌 개연한 생각이야 없었겠는가. 그러나 임진왜란을 당하여 한 자루의 칼로 박차고 일어나 의리와 충절을 앞세워 의사의 활동을 도왔던 것도 공의 힘이었고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의사가 강화도를 점거하고 창의하는 군화 하사받을 수 있었던 것도 공의 힘이었다. 충분한 군량을 조달하여 의병이 주린 기색 없이 2년에 걸쳐 실어 날랐으면서도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었던 것 또한 공의 힘이었으니 그 충절과 공로야말로 한나라의 소하(蕭何) 못지않다. 게다가 이미 흩어진 인심을 수습하고 거의 어두워져 버린 대의를 밝힘으로써 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을 옹위하고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여 끝내 오랑캐로 화하는 길을 면할 수 있게 하였던 것들도 모두 공과 공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람들이 해낸 일이었으니 그것은 소하로서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 공은 군량 수송을 위하여 호남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한날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는 못하였으나, 그 불타는 충정심과 빛나는 의열이야 남강에 몸을 던진 여러 의사에 비하여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 또 호남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진주성을 굳게 지켰기 때문이었고 진주성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실로 공의 힘에 힘입은 바 컸으니 그렇게 볼 때 혹은 죽었고 혹은 살았지만 공로를 따질 때는 똑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내려진 포총은 차이가 있었으니 당시 공은 비록 당시에 자랑하지 않았으나 후세의 뜻 있는 선비의 감동하는 마음에 어찌 끝이 있겠는가? 군대가 패한 후에는 병든 듯이 구원에 엎드려 다시는 세상에 발을 내놓지 않고 오직 홀로 계신 어버이를 봉양하기에 있는 효성을 다 하였고 해마다 6월 29일이 오면 목이 잠기도록 통곡을 하며 아우와 함께 의사들을 따라 강물에 몸을 던지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였다. 타고 난 성행이 순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불행히도 정유년 왜적들이 다시 쳐들어와 곧바로 호남을 목표로 임진, 계사년에 씻지 못한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바람에 아침저녁으로 화색은 짙어 갔으나 놈들을 막아 낼 아무런 준비할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공은 늙은 어머니를 차마 위태로운 곳에 둘 수 없어 아우와 함께 어머니를 감싸고 함께 죽어 갔으니 공의 사직을 지키려는 충성심과 어버이 뜻을 받드는 효성이 평소 마음에 축적되어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후인들이 공에 대하여 그렇게 흠모하고 장송하는 것 또한 타고 난 천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애석하게도 온 가족이 순절하는 바람에 기록마저 없어져 공의 충효 사적이 하나도 전해진 것이 없고 또 그렇게 후덕하고 청고한 이름을 가진 공이라면 당연히 백 세를 두고 복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끝내 뒤를 이을 자식 하나 없고 제사를 맡들 사람조차 없으니 천도가 과연 앎이 있는 것인가? 다만 한 서녀가 있어 묘령의 나이로 경황없는 사이에 백 명의 장부로도 해내지 못할 일을 거뜬히 해내었으니 이 역시 공의 가훈으로 인한 평소의 교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더욱 예나 지금 할 것 없이 마음에 걸리고 억울한 일은 공이 일생에 한 일이 저렇게도 높고 높아 하늘과 땅에 닿고 해와 달처럼 빛나고 있는데도 은전이라고 고작 정효에 그치고 말았으니 작위(爵位)와 시호와 조두의 일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떠한 기회와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공의 충효와 학문에 대하여 후생인 나로서 만에 하나둘도 방불케 그려 낼 수 없는 일이지만 세대가 점점 멀어져 그나마도 아는 사람이 없고 영영 묻혀 아무것도 전해질 것이 없을까를 두려워한 나머지 국사와 여러 현자의 기록을 근거로 대충 사실을 기록하여 행장을 꾸밈으로 후일 역사를 꾸밀 군자가 채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다. 만약 이 행장이 공의 충효와 공렬을 가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록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출전 : 양남진 · 양흥렬 역, 『(국역주해) 송천집』, 章山齋, 1988

公諱山龍。字宇翔。姓梁氏。出於宣廟之際。有道而不仕。訪師講爲己之學。逮夫壬辰島夷之猖獗。起義討賊。丁酉再亂。奉母殉節。至今南方人尙傳誦。可想其遺風餘烈。悅服當時。以憲來世也。夫梁氏之先。始於耽羅。檀君之世。三神人降于漢山趾。分長一島。梁其一也。後世。朝新羅動星象。遂世襲星主王子號。改良爲梁。有諱洵渡海。仕爲翰林學士。還封漢挈君。暨麗。多顯官聞人。入我朝。亦以文行。世濟其美。祖諱彭孫。弘文校理。當己卯禍。坐黨籍廢錮以終。號學圃。贈吏曹參判。考諱應鼎。爲權奸所忤。坎坷田園。位至成均館大司成。號松川。贈禮曹參判。妣貞夫人竹山朴氏。判官仲允女。文正公元貞玄孫女。生公于壬子九月某日。卽皇明世宗嘉靖三十一年。我明廟八年也。[299] 公生而有異姿。端直沈重。年未齔。自知讀書。便曉文義。志氣遠大。度量淵深。松川先生甚奇愛之。稍長。學業日進。不煩敎授。性理之源。象數之文。通解無礙。至於聖賢書。必潛心服膺。德器早成。操履卓倫。次弟山璹亦淸粹端雅。才學天成。若鸞峙而鵠立。見者稱譽。目以雙璧。十五六歲。文章大成。學問渾厚。柳眉巖希春亟稱文行俱全。遂書其日錄曰。梁友之第二子文行俱全。其深許有如此。公自弱冠。益專意於經術。其學。以誠正爲治心之本。以格致爲進德之方。而以忠孝爲修行之大頭腦。每見忠臣烈士之蹟。孝子節行之傳。必斂衽更坐。慷慨誦讀。與弟山璹。或講究兵學及松川公所授陣圖。未嘗優遊度了。居家之節。接人之禮。亦未嘗或怠。由是。醇粹之容。孝友之行。人無間然。早登國子上庠。遊於泮學。人望洽然。莫不才其才而推之以有士君子風。辛巳。遭松川公憂。守喪盡禮。躬執祭典。不脫經衰。哀敬兩至。寬慰母夫人。無不用其極。及服闋。常以學無師友爲恨。訪重峯趙先生于沃川。講論經學。輒忘年歸贄。趙公以栗牛嫡傳。道學精粹。而一見公。嘉其學識之精博。待之以畏友。由是。出入栗谷,牛溪兩先生門。時兩先生爲世儒宗。從學者甚衆。及見公兄弟性質溫醇。文藻簡潔。益許以大有爲也。己丑。兇逆汝立謀不軌。伏法後。自上用寬典。不治黨與。而反側之徒。不自懲勵。國勢岌嶪。是冬。公與同志倡沐浴之擧。槪以正倫綱討逆黨。規斥時宰之用事。上雖燭忠義之所激。而傳曰。賢相名卿。無不指斥。必欲空國而後已。揣其本心。將欲何爲。此必聽奸人指嗾。的然無疑。拿來鞫問。按律定罪事。下義禁府。慰諭被論大臣。拿囚疏頭以下十人於王獄。賴兩司及館儒上疏伸救。月沙李相公廷龜等出力救解。更命勿鞫。于時公之言。雖不容於當世。而正大之言。切直之論。足使逆徒褫魄。時宰寒膽。知公者益敬重之。公自此退歸田園。無意科宦。兄弟怡怡。以講究經傳爲樂。嘗見時事之艱危。朝廷之恬嬉。慷慨嘆曰。天時人事。已不可爲。或悲歌流涕。時弟山璹寓居州南三鄕里。相居百有餘里。日日必徒步省親。不少懈怠。公亦時時往從。每以芒鞋徒步。知公者或曰。何乃自苦如此。公曰。我之志不在逸豫。獨不見陶侃運甓事乎。先是。南使無虛歲。廟堂亦不知戒。及金誠一之自日本還也。大言倭之萬無渡海。公聞之曰。誠一豈不知倭情。甚可怪也。逮壬辰。島夷平秀吉率諸酋寇我。乘勝長驅。公聞我軍

299) 명세종 31년은 1552년으로 명종 7년이나 원문에는 명종 8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輒北。鳥嶺失險。遂擊釰痛哭。與弟山璹,山軸。入告母夫人朴氏曰。國危如此。子等將死王事。言淚俱發。母夫人曰。吾家世受國恩。非他人比。且救國而死。死得其死所。於母之心。有可喜。無可恨。汝等努力。公於是。受母教。感念松川公遺訓。決意討賊。與二弟馳往前府使金健齋千鎰家。謀與敵愾恢復之策。傳檄列郡及諸道。糾合義旅。收聚義穀。旣而又聞鑾輿西幸。都城不守。號哭失聲。卽罔夜暴露。誠格神明。忠勤幹局。人皆敬服。旬日之間。響應影從。募得壯士數百餘人。遂與合金公所募兵。械器精銳。兵威漸振。而兵不可以無統。故推金公爲盟主。金公慨然登壇。以公之弟山璹爲副將。以公爲運糧將。以其子金象乾爲從事。自此。軍律整齊。號令嚴肅。遂誓決西上勤王之計。六月。自羅州調發。公留弟山軸將母曰。母年已望七十[300]。保護無人。汝則歸養母氏。收聚義穀。資助餉士。金公亦勉使歸養焉。山軸拜訣。公遂以書告訣母夫人而行。先是。與高苔軒敬命同盟勤王。高公收兵在後。金公直向龍灣。義士誓死。北首爭先。部伍之牸牸。爲諸義旅最。衝突兇鋒。轉鬪入沁都。控引水陸。以觀賊勢。是時。重峯趙公超義湖西。以遏方張之寇。公以運糧在湖西。往候重峯先生於義幕。重峯大悅慰勉。嘆其節度之精密。公自此。或上或下。出入兩湖。雨沐風櫛。不以爲勞。辦備軍餉。轉漕不絕。萬兵之糧。恒有餘裕。又謀聚兵器。以助其勢。號召義士。以益其旅。或以軍糧兵器。補助他義師之不足者。誓與同仇。由是。兩湖義士。莫不服公之義。而賴公之力。當其時。三京陸沈。七道腥聞。行朝命令。不通南方。公之弟山璹慨奔問無人。付兵務於公。募士十餘人。齎主將蠟書赴龍灣。晝伏夜行。水陸倍道。出沒死生。達于行在。宣廟聞其至。大喜。卽召入。山璹伏地痛哭。仍條陳起義諸將事及賊勢鴟張,官軍勤慢甚悉。宣廟爲之流涕。若曰。久不聞南方消息。今見汝。始知舊物之猶保。不亦嘉乎。特除山璹工曹佐郎。拜金千鎰倡義使。授以思復敎旨。拜高敬命招討使。授以恢復敎旨。以御手親置藥物于山璹掌中。慰諭備降。山璹拜稽以退。及還軍中。陳其兵馬。宣讀敎書。將士皆沫血飮泣。益思效死。公以前任。南下郡縣。水陸漕運益勤。未幾。倭酋淸正與天將李如松戰。敗退屯嶺南。金公承命蹤擊。至咸安留陣。公資助備盡。是春。天將與賊連和。京外諸酋。咸集嶺南。兵勢大振。淸正聞于秀吉。請攻晉州。仍擊湖南。秀吉許之。淸正合酋兵數十萬。直向晉州。倡義使謂諸將曰。晉州密邇湖南。縱賊長驅。禍必中於湖南。與諸義將移軍晉州。以拒賊鋒。而義士之餉。專委於公。公自咸安。直向湖南。轉漕益力。未及還陣。賊圍晉陽三匝。相持八晝夜。遂陷。公之弟山璹與倡義使及諸義將。同赴南江而死。卽六月二十九日也。公聞城陷。義不欲生。事無及矣。遂馳往晉州。求山璹屍不得。倡義使第二子金象坤亦奔哭。求父與兄屍而不得。只得其父排和議七言十七韻以還。公恨深獨生。慟結失屍。彷徨號哭。遂招魂江上而返。晉人莫不憐而悲之。公曰。禮不許招魂葬。而吾弟無嗣。又不置塚。則後人無有知之。沒吾賢弟之名。葬衣冠於松川先生墓下。是時。賊退據蔚山等地。公更圖擧義。無與協謀。又積傷干

300) 원문에는 '十'이 누락됨.

戈病甚。不能果。及賊酋長爲紅衣義兵將郭再佑所擊斬。公聞之。擊釰而起曰。若人報我家國之讐。涕泣不已。丁酉再亂。賊兵直擣湖南。禍急朝暮。公與弟山軸。奉母夫人避賊于州南三鄕浦。船未及出洋。賊船猝至。砲聲震天。母夫人知禍不免。急呼公兄弟曰。君爲大夫妻。義不可辱。聳身投海。一家遑遑拯救。夫人怒曰。吾計決矣。拯之何爲。旋投于海。公與弟山軸。共扶母夫人赴海以終。卽九月十七日也。享年四十五。其翌日。公之兄弟共抱母夫人屍。浮于海。人皆聞而嗟歎。公之配柳氏,公之妹進士金光運妻,族女金斗南妻。亦皆從公。同時赴海死。弟山璹妻李氏及山軸妻高氏。爲婢子援出登岸。李氏索婢子所佩刀佩之。匿于浦上僧達山。高氏與婢子匿于浦田蘆葦中。以爲潮退後。收姑妹諸兄弟屍之計。賊又搜山。李氏以刀自刎以死。公之庶女縣令林懽妾。亦同日赴水死。時年十七。宴爾新成。而聞變卽歸舅家。至是。同林氏船避賊于海。差後於公之船。公赴海後。賊又迫林氏船。遑遑之際。賊呼謂曰。汝舟中有女貴人。以此與我。則當活汝一船。不然。且屠之。遂以婢子示之者再三。賊怒曰。賤人也。有船陷之擧。公之庶女素質端莊婉孌。乃言曰。妾是無異賤人。而幸以此得活全船。則妾何惜一身。遂着紅裳登賊船。賊大喜。解送林氏船。促梁氏入船。梁氏曰。離送親戚。人情自不能忍。願少俟船過不見處。當入云。賊許之。獨立船頭。佇立望見良久。林氏船已出洋。料其賊不能追。乃聳身投海。而呼其夫曰。妾今潔身而死。一門全節。無貴賤一也。賊亦驚嘆嘖舌。林氏船去而回顧。則紅裳果然落海。林氏之船。脫禍歇泊。梁氏之屍如矢直隨而來。蓋着紅裳。欲使潔身入海。標著於遠見也。是日。引節凡八人。世皆益服公之家訓。耳濡目染。三綱萃于一門也。惟高氏爲婢子拯護得全。賊去潮退。收公遺體。葬于松川先生墓下。配瑞山柳氏。習讀弘進女。天姿孝順。壺儀夙著。及殉節。高氏亦收屍附公之墓。崇禎八年。事聞于朝。公以孝旌閭。柳氏獨未蒙恩。嗚呼。公以淸粹之質。穎達之才。早承庭訓。晩受師敎。學問深邃。行誼篤實。爲先賢儕友所敬重推許。則其所抱負。可以經綸一世。澤究下民。而及登上庠。一進危言。捲歸田園之日。斷念公車。獨善窮經。未展其素學。烏不慨然。粤當龍蛇之變。尺釰投袂。仗義奮忠。張皇義師。公之力也。衝冒兇鋒。師次江都。賜軍號倡義。公之力也。給餉調兵。兵無飢色。而轉漕二載。一不敗績者。亦公之力也。則其忠其功。不讓於漢代之蕭何。而至若收人心於旣潰。明大義於幾晦。使東人能知衛君向國。終免於被髮左衽者。亦莫非公之一隊人賜也。此則蕭何之所不能有也。豈不盛矣哉。其於晉陽之陷。公以運糧。時在湖南。未及同日取熊。而炳炳之忠。烈烈之義。亦不貳於投江諸義士。湖南之得全。實由於晉陽之堅守。晉陽之堅守。實賴於公之資助。則或死或生。功爲一體。而褒寵殊塗。公雖不伐於當世。後時志士之感。容有極乎。及其兵敗之後。病伏丘園。不復出脚於世。而養其偏親。克殫其孝。每當六月廿九日。輒痛哭失聲。而恨不與其弟同歸。從諸義士於江中。非素履之純至。能有是哉。不幸丁酉。羯虜再擧。直向湖南。甘心於壬癸未嚙之讐。禍迫朝暮。未遑於準備禦寇。則以老母不忍置危。與弟奉母暫避于海。遇賊不仁。翼母同死。衛社之忠。養志之孝。素所蓄積。而發於言語行事者有如此。則後人之欽慕莊誦。其亦天彝之不可泯者也。惜乎全家殉節。文字漂失。而公之忠孝實蹟。不得其萬一。且以公之厚德淸名。宜種福於百世。而終乏一嗣。主塋

無人。天道其可謂有知也耶。有一庶女。而妙年倉卒。能辦百丈夫之所不能者。亦非公家訓之素養。而豈如彼致然乎。尤有所惻然抑鬱於古今者。以公之樹立卓卓。窮天地。炳日月。而恩典止於旌孝。爵謚俎豆。尙有所待而然歟。公之忠孝文學。非後生所能彷像其一二。而世遠人亡。恐遂至於泯泯無傳。遂據國乘及羣賢記實。臚記敍狀。以俟立言君子之採擇。若以是概公之忠孝功烈。則誠淺末焉。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송천유집(https://db.itkc.or.kr/)

(2) 양응정(梁應鼎), 『송천유집(松川遺集)』 권6, 「묘지명 병서(墓誌銘 并序)」

학문이 사문(斯文, 유학)을 돕기에 충분한데도 자기의 지업을 마치지 못하고, 재능이 나라의 어려운 시기를 충분히 넘겨낼 수 있는데도 사공(事功)을 크게 나타내지 못한 채 죽었지만, 그가 살던 집을 일러 효자의 집이라고 한다면 그 가문은 참혹한 가화를 당한 가문이요 그것은 또 그러한 시대를 만났기에 그리 된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나는 다시 한 번 돌아가신 상사(上舍) 양공(梁公)을 위하여 슬퍼하는 바이다. 공은 탐라인으로 휘는 산룡, 자는 우상(宇翔)이다. 선대에 세 신인이 있어 한라산에 강하하여 섬 전체를 나누어 다스렸는데 '良'이 그중의 한 분이었다. 뒤에 '良'은 '梁'으로 고쳐졌고 신라, 고려를 통하여 번창 일로를 걸어왔으며 이조에 와서는 휘 담(湛)이라는 분이 사복시 정(司僕寺正)을 추증받고 휘 이하(以河)는 좌승지가 추증되었으며 휘 팽손(彭孫)은 홍문교리로서 이조참판이 추증되고 호는 학포(學圃)였다. 그리고 휘 응정(應鼎)은 대사성으로 예조참판이 추증되고 호가 송천(松川)이었는데 이상이 바로 공의 고조, 증조, 조부, 그리고 아버지이며 어머니는 정부인 죽산 박씨로 판관 중윤(仲允)의 딸이며 이조판서 문정공 원정의 현손녀이다.

학포 선생은 기묘년 명현으로서 정암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서원에 배향되고 있고, 송천공은 한 시대의 아망을 한 몸에 지녔으나 당시 권간들에 거슬려 크게 쓰이지 못하고 그 빛이 안으로 배태되어 장부다운 아들 다섯[301]을 두었는데 공이 둘째이고 충신 산숙(山璹)과 고 효자 산축이 또 공의 다음이었다.

공은 태어나면서 남다른 데가 있어 어린 시절에도 놀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점점 자라면서 학업이 날로 성취되어갔다. 동떨어지게 영리하여 위로는 성리의 근원 또는 상수의 변화로부터 아래로는 진도, 병학에 이르기까지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이 어느 학문이거나 눈을 붙였다 하면 대쪽을 쪼개듯 죽죽 내려갔다. 더욱이 상달의 공부에 정진하여 덕기가 일찍 성취되었으므로 미암 유희춘이 한 번 공을 보고는 양우가 자식을 잘 두었다고 찬사를 자주 하였었다. 평상시 아우 산숙과 한 방에 기거하면서 서로 학문을 강마(講磨)하여 형과 아우로서의 화합의 즐거움에

301) 원문에는 '四人'으로 되어 있다.

취해 있었기에 당시 사람들이 공의 형제를 일러 쌍벽이라고 하였고 젊은 나이에 반궁에 올라 놀았는데 주위의 촉망이 대단하였다. 신사년(1581)에 아버지 상을 당하여는 치상(治喪)의 범절을 모두 이에 맞게 하고 예를 집행하는데 있어 게으른 기색이 없었다. 복을 마치고는 개연히 구도에 뜻이 있어 옥천으로 중봉 조 선생을 찾아갔다. 경학에 관하여 질문한 다음 나이를 따지지 않고 곧 스승으로 받들었고 중봉 역시 외우로 공을 대하였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율곡, 우계 두 선생의 문하에 드나들며 재주와 학문으로 사우들 사이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었다.

기축년에 역적을 모의했던 정여립이 법에 의하여 처단되자 같이 법망에 걸린 자들이 오히려 서로 뒤치락거려 조정 모양이 안정을 잃어갔다. 그리하여 공이 동지를 모아 역적을 성토하는 항소를 올리면서 당시 재상 지위에 있는 자들을 낱낱이 매우 강개한 어조로 헐뜯고 꾸짖었다. 임금은 크게 성을 내어 뒤에서 시킨 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두(疏頭) 이하 몇몇을 잡아들여 왕옥에 가두고는 빨리 신국 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양사와 성균관 유생들이 서로 이어 구원의 상소를 올렸고 월사 이정귀가 또 극력 구해(救解)하였으므로 사건은 그대로 잠잠해졌다. 공의 말이 비록 채택은 되지 않았어도 역적 무리의 넋을 빼기에 충분했고 조정 귀인들의 간담을 싸늘하게 만들기는 하였기에 당시 청의들이 모두 공의 말을 소중히 여겼었다. 공은 그 일이 있은 후 그길로 전원으로 돌아와 벼슬에의 뜻을 단념하고 오직 전분(典墳) 연구에 더욱 주력하였으며 때때로 백 리 밖의 아우 집을 걸어서 오가곤 하였다. 누가 왜 그리 스스로 고생길을 택하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내 일생의 뜻이 편안함에 있지 않다. 그대는 도태위(陶太尉, 도간)가 벽돌 운반했던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하였다. 그보다 앞서 섬 오랑캐들이 틈을 내기 시작하였는데 김성일이 그곳을 다녀와서는 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여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공은 표정이 변할 정도로 분연한 기색이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안 가 용사의 변(임진왜란)이 일어나 호남, 영남이 함락되고 묘사는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공은 칼을 두드리며 통곡하다가 두 아우와 함께 어머니에게 들어가 고하기를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워졌으니 이 자식들 장차 나라 위해 죽을까 하옵니다"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우리는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어 온 집안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할 바 아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낸들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있는 힘을 다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공은 그 명령을 받고 흐느끼며 물러와 적을 토평할 결심을 하고 두 아우를 데리고 전 부사 김천일의 집으로 달려갔다. 가서 함께 적을 무찌를 것에 합의를 보고는 각 고을에 격문을 띄워 용감히 죽을 수 있는 수백 명의 장사를 모으는 것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어 김공을 맹주로 추대하였다. 김공은 개연히 그것을 받아들여 각각의 부서를 정하였는데 공은 거기에서 운량장의 책임을 맡았다.

그해 6월 나주를 기점으로 군마를 조발하여 서쪽으로 올라가 근왕의 길을 걷기로 하였는데 공의 아우 산숙은 부장으로 진열을 통솔하게 하고 아우 산축은 그곳에 머물러 어머니를 모시게 하였다. 이때 김공이 말하기를 "어머님 봉양은 어진 아우가 맡기로 하고 다음은 군량을 모아

병사에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겠다." 하였다. 공은 글을 올려 어머님께 하직을 고하고 그길로 길을 떠났는데 도중에 공이 김공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계획이 원대하지 못하면 반드시 코앞에 걱정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지금 우리도 송제민을 호서로 보내 그곳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을 몰아치우는 한편 응원군의 길을 터놓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 김공이 그 말대로 하였다가 과연 2천 명의 병력을 추가로 얻어 뒤따르게 하였었다. 그리고는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곧장 강화도로 전진하여 그곳을 점거하니 적으로부터 빠져나온 서울의 백성들이 마치 시장에 가듯 떼지어 몰려와 그들을 모두 수용하느라 땅이 좁을 정도였다.

공은 또 군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남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조중봉은 의병을 일으켜 호서에 주둔하고 있던 때였다. 공이 나아가 그를 만나고 적을 물리칠 계략을 말하자 중봉은 극구 탄복하였다고 하여 공의 아우 산숙은 또 주장의 밀서를 들고 의주에 있는 행재소까지 달려갔다. 선조는 산숙을 인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원장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즉석에서 산숙은 수조랑(水曹郎, 공조좌랑)에, 김공은 창의사에 제수하였다. 산숙은 그길로 다시 강화로 돌아와 병마가 나열된 앞에서 임금이 보낸 격려문을 낭독하니 그를 들은 일군이 감분(感奮)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공은 그때부터 호서, 호남을 드나들며 끊임없이 군량을 조달하는 한편 병기까지도 닥치는 대로 마련하여 대었으며 또 여유분이 있으면 다른 부대의 의병들까지 도와 함께 적을 무찌를 것을 맹세하였으므로 멀고 가깝고 할 것 없이 의성이 곳곳에 메아리쳤다.

계사년에 왜놈 추장 청정이 진주성을 포위하려 하자 창의사는 군대를 그곳으로 옮겼는데 그때 공은 자신의 임무를 위하여 호남으로 내려갔다가 미처 돌아오기 전에 진주성이 함락되어 아우 산숙과 창의사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의장이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죽어 갔다. 그러나 변란을 듣고 공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또 한편 산숙의 시신이라도 찾아보았으나 시신마저 찾을 도리가 없었다. 공은 마지 못하여 강 위에서 넋을 불러 통곡하고는 고향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초혼장을 예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우리 아우는 뒤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만약 무덤까지 없고 보면 백 세 후에는 우리 어진 아우의 이름이 영원히 묻힐 것이 아닌가." 하고는 선영 아래에 의관장을 치렀다.

그때 적들은 울산 등지로 퇴각하여 그곳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공은 혼자 살아있는 것이 너무도 한스러워 다시 거의할 것을 도모하여 보았으나, 전쟁 상흔에 병이 짙었기 때문에 결행을 못했다. 그 후 정유년 왜구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공은 아우 산축과 함께 어머니를 받들고 적을 피하기 위해 남쪽의 삼향포(三鄕浦)로 가서 배를 탔다가 배가 미쳐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적선이 갑자기 들이닥쳐 포성이 하늘을 진동하였다. 어머니는 공 형제를 급히 불러 이르기를 "나는 대부의 아내이다. 놈들에게 욕을 당할 수는 없다."하고는 몸을 솟구쳐 바다로 뛰어들었다. 식구들이 황급히 달려가 건지자 어머니는 다시 말하기를 "내 이미 마음을 결정하였다."하고 끝내 물에 빠져 목숨을 끊었으며 공 형제도 함께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 죽었는데 그때가 바로 9월

17일이었으니 공이 태어났던 가정 임자년으로부터 쳐보면 공의 나이 겨우 46세 되던 해였다. 그리고 다음 날 공 형제는 서로 어머니를 껴안은 채 시신들이 바다 위로 떠올라 보는 이를 더욱 슬프게 했다.

공의 배위 유씨, 누이동생인 진사 김광운의 아내, 족녀인 김두남의 아내도 모두 공을 따라 함께 빠져 죽었다. 제수인 산숙의 아내 이씨와 산축의 아내 고씨는 종들이 건져내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이씨는 끝내 적에게 몰려 스스로 목에 칼을 꽂았다. 현령 임환의 첩이었던 공의 서녀 역시 같은 날 적을 만나 바다에 몸을 던져 한집안 내에서 순절한 사람이 무려 8명에 이르렀다. 오직 고씨만이 갈대밭에 숨어 있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적이 물러간 후 조수가 빠지기를 기다려 2명의 종과 함께 시신들을 거두어 공 부부는 송천공 묘 아래다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인조 13년 국가로부터 효자 정려가 내려졌다.

아! 공의 일생을 대충 살펴보면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운 자질이라던지 독실한 행실과 의리에 있어서는 실로 서유자(徐儒子)[302], 모계위(茅季偉)[303]와 같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학술 경륜을 보태면 오히려 그들보다 낫다고 할 것이다. 세상에 나가 쓰임을 당할 때 상소로 임금에게 호소하여 간사한 무리를 밝혀내는 위언을 했던 것은 호담암(胡澹菴)[304]의 정의로운 기개였고, 대의를 앞세워 분연히 일어나 흉봉(凶鋒)을 막기에 힘을 다한 것은 안고경(顔杲卿)[305]의 외로운 충절이었으며 천 리 먼 길에 군량을 수송하여 군대를 먹임으로써 일을 해냈던 것은 장공염(蔣公琰)[306]의 일 처리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주성이 포위되었을 때 공이 만약 거기 있

---

302) 서유자(徐儒子): 유자는 후한(後漢)의 서치(徐穉)의 자이다. 평생 포의(布衣)로 살았던 서치(徐穉)는 일찍이 태위(太尉) 황경(黃瓊)을 섬긴 적이 있었는데 황경이 죽어 조문을 갈 때 가난하여 경비가 없자 거울 닦는 도구를 가지고 다니며 거울을 닦아 주고 비용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집이 가난하여 몸소 밭을 갈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먹지 않았다고 한다. (『後漢書 卷53 徐穉列傳』,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36』)

303) 모계위(茅季偉): 계위는 후한(後漢) 모용(茅容)의 자이다. 나이 40여 세에 들에서 밭갈이하다가 사람들과 함께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면서 홀로 단정히 앉아 더욱 공손한 자세를 취하였는데 곽태(郭泰)가 이를 보고 기이하게 여겨 마침내 함께 이야기하고는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다. 그다음 날 아침에 모용이 닭을 잡자 곽태가 자기를 대접하기 위해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윽고 모용이 모친에게 올린 뒤에 자기는 객과 함께 허술하게 식사를 하자 곽태가 일어나서 절하며 그 효행을 칭찬하고는 그에게 학문을 권하여 마침내 덕을 이루게 했다는 말이 있다. 『後漢書』 卷68.

304) 호담암(胡澹菴): 호전(胡銓, 1102~1180)으로 담암은 그의 호이다. 남송 고종(高宗) 때에 추밀원 편수관(樞密院編修官)을 지냈다. 일찍이 금(金)나라와의 화의(和議)를 적극 반대하여, 당시 화의를 주장하던 진회(秦檜), 손근(孫近), 왕륜(王倫) 등의 목을 베라고 주청하기까지 했다. 『宋史 卷374 胡銓列傳』.

305) 안고경(顔杲卿): 692~756. 당 현종(玄宗) 때의 충신으로, 상산 태수(常山太守)를 지내 안상산(顔常山)이라고도 한다. 상산 태수(常山太守)로 있을 때 안녹산(安祿山)과 혈전을 벌였다. 성이 함락되자 안녹산을 꾸짖기를 "조갈구(臊羯狗)야, 어찌 나를 빨리 죽이지 않느냐."라고 하며, 끝내 굴복하지 않고 혀가 끊어질 때까지 준열하게 꾸짖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新唐書 卷192 顔杲卿列傳』.

306) 장공염(蔣公琰): 장완(蔣琬, 188~245)으로 그의 자가 공염이다. 제갈량·비위·동윤과 함께 촉의 사상(四相)으로 꼽힌다. 제갈량의 남만 정벌에 종군했으며, 제갈량의 북벌 때는 직접 종군하지 않고 성도에서 후

었더라면 수양이 함락되었을 때 굽히지 않고 죽었던 남팔(南八)[307] 못지않게 공도 죽었을 것이지만, 다행히 죽음을 면했던 건 공의 뜻이 아니었다. 불행히도 거듭 흉염에 걸려 어머니를 감싸 안고 바다로 뛰어들어 강효자(江孝子)[308]는 일찍이 면했던 것을 공은 면치 못하고 말았으니 어째서인가?

공은 충효에 관한 대절을 일찍이 가정과 사우를 통하여 익히 상론한 바 있었기에 끝끝내 그것을 성취하여 자기가 평소 배웠던 것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순절한 이가 그렇게도 많았다는 것이 공의 가범이 올 바랐던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죽은 후 뒤를 이을 자식 하나 없이 고이 남긴 음운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것은 이는 바로 누구에게도 충효를 권고할 수 없는 길인 것으로서 하늘이 왜 그랬는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공이 세워놓은 것이 저렇게도 높은데도 작위와 시호의 추증이라던지 조두의 특전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충효에 대한 보답이 과연 이와 같다는 말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공의 배위 유씨는 관향이 서산(瑞山)으로 습독(習讀) 홍진(弘進)의 딸이었다. 효성스럽고 유순하고 아름다워 여자로서의 법도가 일찍부터 남에게 알려진 분으로서 역시 열을 위하여 죽었으나 국가로서의 포상이 아직 내려지지도 않고 있어 고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애석히 여기고 있다. 공의 아우 처사공 산축의 7대손 석필(錫弼)이 공이 자기 선대에 있어서의 동기였고 또 함께 후세에 전해져야 할 분인데 그의 무덤 앞에 아무런 표징이 없는 것은 차마 못 할일이라 하여 행장을 주면서 나에게 이 기록을 부탁하였다. 아! 공의 후사가 왜 이렇게 끊겼는가? 앞으로 백세가 지나가면 누가 공을 알 것인가. 나는 백양(白楊)[309]이 늙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 기록을 본 후세 사람들은 여기가 충신, 효자의 유택임을 알고 쟁기나 가래를 가하지 말기 바라

방 지원을 담당했다. 234년 제갈량이 사망하자 그의 유언의 의해 후계자로 지명되어 대장군록상서사·대사마가 되었다. "(장완은) 본래 슬픈 안색이 없었고, 또한 기쁜 기색도 없이 마음으로 행동거지를 지킴이 평소와 같았다. 이로부터 중망(衆望)이 점차 복종했다"라고 한다. 『三國志 蜀志14 蔣琬傳』.

307) 남팔(南八): 당나라 때 남제운(南霽雲)을 지칭한 말이다. 당나라 한유(韓愈)의 「장중승전후서(張中丞傳后序)」에 "성(城)이 함락되어 적병이 칼날로 장순(張巡)을 위협하며 항복하라고 하니, 장순이 굽히지 않자, 곧바로 끌고 나가 참수하려고 하였다. 또 남제운에게 항복 받으려고 하였으나, 남제운이 응답하지 않았다. 장순이 남제운을 부르며 말하기를, '남팔(南八)아! 남아가 죽었으면 죽었지 불의(不義)에 굽혀서는 안 된다.'고 하니, 남제운이 웃으며 말하기를, '장차 살아서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감히 죽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서,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308) 강효자(江孝子): 중국 후한 때의 효자 강혁(江革)을 말한다. 임치(臨淄) 사람으로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난리를 만나 피난하던 도중 도적을 만났지만 도적들이 그의 효성에 감복하여 피난길을 알려 주었다고 한다.

309) 백양(白楊): 무덤가에 심는 나무로 "수레 달려 위쪽 동문을 빠져나가, 북망산의 묘지를 멀리 바라보니, 백양나무는 바람 속에 소소히 울어 대고, 넓은 길 양편에는 송백이 가득하더라.〔驅車上東門, 遙望郭北墓. 白楊何蕭蕭, 松柏夾廣路.〕"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백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文選 卷29 古詩19首 第13』.

는 것이다. 이어 명하기를, 효도와 충성 그리고 여인의 열, 그를 일러 삼강이라 한다. 하나도 하기가 어려운데 양씨는 삼세에 걸쳐 팔절(八節)이나 있었던 것이다. 공은 효도로 이름이 나 있지만 충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충성이 무엇인가? 초막집 속에서 창의를 하였던 것이다. 한 분에겐 정려가 내리고 한 분에겐 내리지 않았으니 이 누가 우열이 있단 말인가? 저렇게 성취한 것 그 뿌리는 학문이었다. 내 이 무덤에 명을 쓰노니 여기를 지나가는 이 경의를 표할지어다.

출전 : 양남진 · 양흥렬 역, 『(국역주해) 송천집』, 章山齋, 1988

學足以羽翼斯文。而志業未克卒。才足以弘濟屯難。而事功未大著。歿而名其廬曰孝子。則家禍之慘。而所値者然耳。余重爲故上舍梁公悲之公。耽羅人。諱山龍。字宇翔。其先。有三神人降于漢挐山。分長一島。良其一也。後改爲梁。蟬嫣羅麗。入本朝。有諱湛。贈司僕寺正。有諱以河。贈左承旨。有諱彭孫。弘文校理。贈吏曹參判。號學圃。有諱應鼎。大司成。贈禮曹參判。號松川。卽公高·曾·祖禰也。妣貞夫人竹山朴氏。判官仲允女。吏曹判書文正公元貞玄孫女。學圃先生以己卯名流。拜享趙靜菴書院。松川公雅望重一世。忤權奸。不大用。胚胎前光。擧丈夫子四人。公序居第二。而故忠臣山璹·故孝子山軸。又其次也。公生有異姿。弱不好弄。稍長。學業日就。悟解絕倫。上自性理之源。象數之變。下逮陣圖兵學。無不涉獵。所向破竹如也。至於上達處。尤加精進。德器早成。柳眉巖希春一見。而亟稱之曰。梁友有子矣。平居。與弟山璹。一室講磨。深得塤篪之樂。時人目之以雙璧。妙歲。小成而遊於泮。士望籍甚。辛巳。遭外艱。易戚咸備。執禮不懈。制盡。慨然有求道之慕。訪重峯趙先生於沃川。叩質經學。輒忘年歸贄。重峯畏而友待之。由是。出入栗谷牛溪兩先生門。才學俱優。大被師友所奬詡。己丑。逆魁汝立伏法。漏網者轉相反側。朝象不靖。公倡同志。抗疏討逆。歷詆時宰。言甚慷慨。天怒遽震。意其有指使者。拿疏頭以下於王獄。亟命訊鞫。兩司及館儒相繼疏救。月沙李公廷龜出力救解。事遂寢。公言雖不行。能使逆徒褫魄。朝貴寒膽。淸議無不重之。公遂退歸田廬。絕意科宦。益肆力於典墳。暇則躡屐百里外。往來弟家。有以自苦見規則答曰。平生之志。不在逸豫。獨不聞陶太尉運甓事乎。先是。島夷構釁。而金誠一還自彼。質言無他虞。公聞之。憤然義形於辭。未幾而有龍蛇之變湖嶺失守。廟社西遷。公擊釰痛哭。與二弟入告母夫人曰。國危如此。子等將死王事。母夫人曰。吾家世受國恩。非他人比。死而爲國。我復何恨。若等勉旃。公泣受命而退。決意討賊。率二弟馳往前府使金公千鎰家。合謀敵愾。傳檄列郡。募得壯士數百人。皆敢死者。遂推金公爲盟主。金公慨然登壇。部署軍事。以公爲運糧將。六月。自羅州調發。爲西上勤王地。公弟山璹以副將莅陣。公留弟山軸使之歸侍曰。母氏之養。賢弟任之。而次則鳩糧助兵。可也。遂以書告訣於母夫人而行。道謂金公曰。人無遠慮。必有近憂。可遣宋濟民募兵湖西。淸梗路之寇。通來援之師。金公如其言。果得二千兵。而尾繼之。冒賊鋒前進。入據江都。京民之脫賊者。歸之如市。受而舍之。至地窄難容。公又辦餉南下。時重峯起義兵住湖西。公就見之。爲之劈畫機宜。重峯亟嘆異之。公弟山璹齎主將蠟書。奔問于龍灣行在所。宣廟引見流涕。奬諭至。

卽拜山璹水曹郎。授金公倡義使號。歸而陳兵宣諭勉以忠義。一軍莫不感奮。自是。出入兩湖。轉漕不絕。軍食兵器。隨處措辦。而亦以其贏餘。旁助他義師。誓與同仇。義聲達於遠邇。癸巳。倭酋淸正圍晉州。倡義使移軍赴之。公以本任。分路向湖南。未及還。城陷。公弟山璹與倡義使及諸義將。同赴南江而死。公聞變馳往。則事無及矣。又求山璹屍不得。遂招魂江上。痛哭而返曰。是非禮法所許。而吾弟無嗣。又不置塚。則恐百世之後。沒吾賢弟之名。以其衣冠。葬於先塋下。時賊退據蔚山等地。公深以獨生爲恨。謀欲再擧。霧露所祟。病甚而未之果。丁酉。倭寇復熾。公與弟山軸奉母夫人。泛舟避賊於州南之三鄕浦。未及出洋。賊船卒至。砲聲震天。母夫人急呼公兄弟曰。我大夫妻。義不可辱。聳身入海。家人蒼黃拯救。則夫人曰。吾計決矣。竟投水而終。公兄弟扶而溺焉。卽九月十七日也。距其生嘉靖壬子月日。享年堇四十六。翌日。公兄弟共抱母夫人屍。浮海而出。人莫不憐而悲之。公配柳氏·妹進士金光運妻·女金斗南妻。亦隨公溺死。弟嫂山璹妻李氏·山軸妻高氏。爲婢子援出。匿於山中。李氏爲賊逼。竟自刎死。公庶女爲縣令林懽妾者。亦同日遇賊。投海死之。一門之內。殉節者凡八人。獨高氏得全於蘆葦中。賊去後。乘潮退。與二婢子收公夫婦屍。歸葬於松川公墓下。崇禎八年。朝家以孝旌其閭。嗚呼。夷攷公平生。則姿質之粹美。行誼之篤實。與徐孺子·茅季偉。殆可雁行。而文之以學術經綸。則似乎過之。及夫出而用世。則尺疏叫閽。危言辨姦。胡澹菴之正氣也。杖義投袂。力遏兇鋒。顔果卿之孤忠也。千里轉輸。師餉以濟。蔣公琰之幹事也。晉陽之圍。廁公其間。則南八之死。奚獨後於睢陽。而幸而得免。非公志也。不幸荐罹兇焰。翼母入海。則江孝子之所嘗免者。而公獨不免。何哉。蓋公忠孝大節。早講於家庭師友之間。故畢竟成就。有以不負素學。及其家人殉節者。如彼其多。得非公家範之正耶。然而沒而無嗣。遺韻寢微。則莫以爲忠孝勸矣。天曷故焉。公之樹立。若是卓然。而爵謚之贈。俎豆之典。尙且闕如也。忠孝之報。固如是乎。可慨也已。公配柳氏。籍瑞山。習讀弘進女。孝順柔嘉。壺範夙著。旣死於烈。而棹楔獨不及焉。鄕人至今惜之。公弟處士公山軸七代孫錫弼。以公於其先。同氣而又同傳焉。不忍其幽窴之無徵。授狀而俾余誌之。嗚呼。公之後事斬矣。百世之下。誰知公者。吾懼白楊之不老矣。後之覽此者。尙識其爲忠臣孝子之宅。而勿以耕犁加焉。銘曰。

維孝維忠。維婦之烈。是爲三綱。或難其一。維梁爲姓。三世八節。公以孝名。忠實莫將。其忠維何。倡義蓬蓽。一旌一否。孰是軒輊。成就如彼。本之則學。我銘其坎。過者宜式。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송천유집(https://db.itkc.or.kr/)

21) 양산숙(梁山璹, 1561~1593)

• 본관 제주(濟州), 자 회원(會原), 호 미상

(1)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임진년 5월

5월, 왜적이 한양성에 입성하니, 선생은 집에서 통곡하며 이르기를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

고 인심이 이탈되었으니, 비록 어진 장수가 있을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군부가 급한데 어느 겨를에 이험(夷險)을 논하리오." 하고, 전 부사 고경명, 전 목사 박광옥, 전 정랑 정심, 전 군수 최경회에게 편지를 보내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16일에 고향의 자제를 불러 모으고, 또한 의사 송제민, 양산룡, 양산숙, 임환, 이광주, 서정후 등도 모였다. 선생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랏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어찌 구차히 살리오. 가령 살고자 한들 홀로 온전할 이치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 구학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을 토벌하다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함에, 모두 대답하기를 "네, 네"라 하였다. 혹은 양향(糧餉), 혹은 가동(家僮)이 하루도 채 못되어 이르는 자가 300명이고, 기계도 대강 마련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五月。賊入城。先生在家號痛曰。紀綱紊矣。人心離矣。雖有良將。無奈何。然君父之急。奚暇論夷險。簡前府使高敬命·前牧使朴光玉·前正郎鄭諶·前郡守崔慶會。約以擧義。十六日。招集鄕子弟。義士宋濟民·梁山龍·梁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亦來會。先生中坐流涕曰。國事至此。吾輩豈可苟活。藉令欲生。理無獨全。與其溝壑而死。無寧討賊而死乎。皆曰唯唯。或糧餉。或馬牛。或家僮。不日而至者三百人。器械亦粗辦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2) 신경(申炅),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2

이때에 각 도의 군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 전라도에서는 전 판결사(前判決事) 김천일 · 첨지(僉知) 고경명 · 전 영해 부사(寧海府使) 최경회 · 절도사 최원(崔遠) · 선비 양산숙 · 광주 목사(光州牧使) 권율(權慄) · 중 처영(處英) · 좌수사 이순신(李舜臣) · 우수사(右水使) 이억기(李億祺) · 김제 군수(金堤郡守) 정담(鄭湛) · 해남 현감(海南縣監) 변응정(邊應井) 등이 일어나서 혹은 의병이 되어 순절하고 혹은 고단한 군사로 적에게 대항하기도 하였다. ……

의사(義士) 송제민(宋濟民) · 양산룡(梁山龍) · 양산숙 · 임환 · 이광주(李光宙) · 서정후 등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6월 3일에 삽혈(歃血)[310]하고 여러 사람과 맹세를 하였다. 김천일이 평소에 몸이 약하고 병들어 있었는데, 이때 이르러서 흔연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칼을 차고 말을 타니 거뜬하여서 날 것 같다." 하고, 이에 최경회 등과 먼저 본군의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하였다.

是時諸道之兵。…… 全羅道則前判決事金千鎰。僉知高敬命。前寧海府使崔慶會。節度使崔遠。士

310) 삽혈(歃血): 맹세(盟誓)하여 굳게 언약(言約)할 때에 그 표시(表示)로 짐승의 피를 서로 먹거나 또는 입가에 바르던 일이다.

人梁山璹。光州牧使權慄。僧人處英。左水使李舜臣。右水使李億祺。金堤郡守鄭湛。海南縣監邊應井。

義士宋濟民梁山龍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聞風來赴。以六月三日。歃血誓衆。千鎰素有羸疾。至是欣然語人曰。今日吾帶劍跨馬。洒然欲輕擧矣。乃與崔慶會等。先率本郡兵西向。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재조번방지(https://db.itkc.or.kr/)

(3)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권13, 「창의사 김공 정렬사비(倡義使金公旌烈祠碑)」

그리고는 글을 급히 보내 고경명, 박광옥, 최경회, 정심 등에게 이 일을 고하였는데, 의사(義士) 송제민(宋濟民), 양산룡(梁山龍), 양산숙, 임환(林懽), 이광주(李光宙), 서정후 등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집결하였다. 이에 정예(精銳) 수백 명을 얻어 6월 3일에 삽혈의 의식을 행한 뒤 군사들과 맹세를 하고 군대를 지휘하여 서쪽으로 나아갔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계곡집(https://db.itkc.or.kr/)

乃以書馳告于高敬命·朴光玉·崔慶會·鄭諶等。義士宋濟民·梁山龍·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聞風赴集。得精銳數百。以六月三日。歃血誓衆。引兵西。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계곡집(https://db.itkc.or.kr/)

(4)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상 6월

고경명과 김천일, 양산숙과 곽현(郭玄)을 시켜 출사표(出師表)를 받들고 서해로 해서 행조(行朝)로 보냈다. 그때 적병이 5, 6도(道)에 가득 차 있었고 경기와 황해가 더욱 심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는 길이 끊겼었는데 이때 와서 비로소 수로가 통하게 되었다.

이때에 공조 좌랑(工曹佐郎) 양산숙이 행재소(行在所)로부터 남으로 돌아오게 되자, 성상께서 면대하여 타이르시기를, "돌아가거든 고경명·김천일에게 말하라. 그대들이 하루빨리 강토를 회복해서 나로 하여금 그대들의 얼굴을 볼 날이 있게 하라." 하였는데, 벼슬이 전달되기 전에 공은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高敬命·金千鎰。以梁山璹郭玄奉出師表。由西海送行朝。時賊兵充斥五六道。而京畿·黃海尤甚。故西路絕塞。至是始通水路。

時。工曹佐郎梁山璹。自行在南還。上面諭曰。歸語高敬命·金千鎰願爾等。及時恢復。俾予得見爾等面目有日也。爵命未至。公已沒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https://db.itkc.or.kr/)

(5) 신경(申炅),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2

호서(湖西)에 당도했을 적에는 군사가 수천을 헤아렸다. 드디어 진군하여 수원에 주둔하니

군세가 크게 떨치었다. 이에 장사들을 모아 이따금 출격하여 전과가 있었으며, 또 금령(金嶺)의 적을 습격하여 물리치고, 막하의 선비 양산숙 등을 보내어 상소를 받들고 샛길로 행재소에 가게 하였다.

양산숙은 자는 회원(會元)인데, 기묘명현 홍문관 교리 양팽손(梁彭孫)의 손자요, 부윤 양응정(梁應鼎)의 셋째 아들이다. 일찍이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시사(時事)가 날로 그릇됨을 보고 과거에 뜻을 버리고 나주 삼향리(三鄕里)에 은거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수백 명의 의병을 모아 김천일의 막하에 모였다.

比至湖西。衆可數千。遂進屯于水原。軍勢大振。乃募壯士。間出擊之。頗有所獲。又襲破金嶺之賊。乃遣幕下士梁山璹等奉疏。間行赴行在。

山璹字會元。己卯名賢弘文校理彭孫之孫。府尹應鼎之第三子。嘗出入成牛溪渾之門。見時事日非。遂絕意科業。卜居于羅州三鄕里。至是募兵數百。會于千鎰幕下。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재조번방지(https://db.itkc.or.kr/)

(6)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권13, 「창의사 김공 정렬사비(倡義使金公旌烈祠碑)」

공이 장사(壯士)를 모집하여 간간이 나가서 왜적을 치게 한 결과 수확을 상당히 거두었으며, 또 금령(金嶺, 용인의 속원)의 왜적을 습격하여 패배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막하(幕下)의 양산숙 등을 보내 소(疏)를 받들고 사잇길로 가서 행재(行在)에 보고하게 하였다.

이때 양산숙 등이 행재(行在)에서 돌아와 공을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임명하고 창의사(倡義使)의 호를 내리는 조정의 명을 전하였다. 이로부터 행조(行朝)의 명령이 양호(兩湖)에 하달되기 시작하였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계곡집(https://db.itkc.or.kr/)

公募壯士。間出擊賊。頗有所獲。又襲敗金嶺賊。乃遣幕下士梁山璹等。奉疏間行赴行在。

梁山璹等。回自行在。得朝命拜公掌隷院判決事。賜號倡義使。自是行朝命令。始達于兩湖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계곡집(https://db.itkc.or.kr/)

(7) 『국조보감(國朝寶鑑)』 권31, 선조조 8, 선조 26년(계사) 8월

8월. 창의사 김천일 등이 유생 곽현(郭玄)·양산숙을 보내어 바닷길을 따라 관서(關西)에 들어가 행조(行朝)에 일을 아뢰었다. 양산숙이 또 상소하여 계책을 올리니, 상이 자주 불러서 위로하고 공조 좌랑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호민(李好閔)으로 하여금 교서(敎書) 2통(通)을 짓게 하여 양산숙에게 부쳐 보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https://db.itkc.or.kr/)

倡義使金千鎰等。遣儒生郭玄梁山璹。從海路入關西。奏事行朝。山璹又上疏獻策。上數引見慰諭。拜工曹佐郎。令李好閔制敎書二通。付山璹以送。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국조보감 원문이미지(https://db.itkc.or.kr/)

(8)『선조실록(宣祖實錄)』 권28, 25년 7월 19일

이비(吏批)[311]에서 아뢰기를 "김천일·고경명·정운룡(鄭雲龍)·박희수(朴希壽)·곽현(郭賢)·양산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데 대해서는 하교(下敎)를 받았고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었습니다. 즉시 정원룡(鄭元龍)의 상소를 상고하니, 생원(生員) 유사경(柳思敬)과 진사(進士) 박종정(朴宗挺)은 정운룡과 연명(連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제(及第) 박광옥(朴光玉)은 고경명과 함께 의병을 초모(招募)하여 그대로 본도에 머물고 있으며, 또 앞으로 향병(鄕兵)을 규합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세 사람은 다른 예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라고 답하였다.

吏批啓曰。金千鎰·高敬命·鄭雲龍·朴希壽·郭賢·梁山璹等除職事。伏承下敎。已捧承傳矣。卽考鄭元龍上疏。則生員柳思敬·進士朴宗挺。與鄭雲龍連名。而及第朴光玉與高敬命招募。仍留本道。又將糾合鄕兵云。此三人何以爲之。答曰。三人依他例除職。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9)『선조실록(宣祖實錄)』 권28, 25년 7월 20일

이유징(李幼澄)을 사간원 사간에, 심우승(沈友勝)을 사간원 헌납에, 박동량(朴東亮)을 이조 좌랑에, 이광정(李光庭)을 사간원 정언에, 양산숙을 공조 좌랑에, 박희수(朴希壽)를 사포서 사포(司圃署司圃)에, 곽현(郭賢)을 사축서 사축(司畜署司畜)에 제수하였다.

李幼澄爲司諫院司諫。沈友勝爲司諫院獻納。朴東亮爲吏曹佐郎。李光庭爲司諫院正言。梁山璹爲工曹佐郎。朴希壽爲司圃署司圃。郭賢爲司畜署司畜。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0)『선조실록(宣祖實錄)』 권28, 25년 7월 24일

창의사 김천일이 그의 막하(幕下) 군사 양산숙·곽현 등에게 장계를 주어 행재소로 보내었다. 상이 곽현·양산숙 등을 인견하였다.【도승지(都承旨) 유근(柳根), 가주서(假注書) 강욱(康昱), 봉교(奉敎) 기자헌(奇自獻).】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 곽현이 아뢰기를 "풍천(豊川)에서 삼화(三和) 큰 나루를 건너서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험한 도로를 애써서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하니, 곽현 등이 울면서 아뢰기를 "소신들이 어려서부터 문(文)을 업으로 삼았으나 어느 한 과거에도 합격하지 못하여 평소에는 용안을 뵙지 못하였는데, 이제 난리 가운데에서 모시게 되었으니 신들은 만 번 죽어도 아깝

311) 이비(吏批): 이조(吏曹)에서 인사(人事)에 관하여 임금에게 주청(奏請)하여 윤허(允許)를 받는 기구.

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의 의병이 1천 명이라 하니 어찌 그렇게 적은가?" 하니, 곽현이 아뢰기를 "신들이 여기에 온 뒤에 반드시 많은 군사가 모였을 것입니다. 또 방어사(防禦使)·조방장(助肪將) 등 정령(政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까닭에 수령들이 따를 바를 모르고 있고, 장수된 자는 재물을 빼앗고 못살게 하는 것으로 일을 삼기 때문에 군심이 떠났습니다. 이광(李洸)[312]은 죽어도 남은 죄가 있고, 권율은 수령의 재주는 있으나 방백(方伯)의 지략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런 때에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까닭에 임명한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왜적이 전라도는 침범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여 그러는 것인가?" 하니, 곽현이 아뢰기를 "이는 천행입니다. 그러나 왜적이 힘을 합하여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또 곽재우는 사인(士人)으로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임금께 충성을 다하려는 뜻은 있으나 반드시 공(功)을 바란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감히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재우의 공이 적지 않으니 글을 내려 권장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장수에게 말하여 경성(京城)을 수복(收復)하고 나를 맞이하여 돌아가도록 하게 하라." 하니, 현 등이 그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렸다. 상이 술을 내리고 또 약봉(藥封)도 하사하였다.

倡義使金千鎰遣其幕下士梁山璹·郭賢等持狀啓赴行在。上引見郭賢·梁山璹等【都承旨柳根。假注書康昱。奉敎自奇獻】上曰。汝等從何處來。賢對曰。自豐川渡三和大津而來。上曰。汝等間關道路。將何以還去耶。賢等泣曰。小臣自少業文而未捷一科。不得見天顔於平日。而今乃得侍於亂離之中。臣等雖萬死不惜。上曰。汝等義兵一千云。何其少也。賢對曰。臣等來此之後。聚軍必多矣。且防禦使·助防將等。政令多門。守令莫適所從。而爲將者以侵虐爲事。故軍情離叛耳。李洸死有餘罪矣。權慄雖有守令之才。無方伯之略。上曰。此時得人爲難。故任之耳。上曰。倭賊不犯全羅道。有何所畏而然乎。賢曰。此天也。但恐倭賊合力而攻之耳。且郭再祐以士人起軍。雖有勤王之志。而必避要功之嫌。不敢來耳。再祐之功不少。願賜書奬勸。上曰。言于汝將帥。使之收復京城。迎予以還。賢等泣下不已。上賜酒又賜藥封。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1)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7월 1일

…… 공조 좌랑 양산숙이 행재소에서 남쪽으로 돌아올 적에 상이 면유(面諭)하기를 "돌아가

312) 이광(李洸) : 1541~160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사무(士武), 호는 우계산인(雨溪散人)이다. 1574년(선조 7)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형조 좌랑,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관찰사로서 관군을 이끌고 북상하여 왜적과 맞서 싸웠으나 용인 전투에서 참패하였다. 저술로 『우계집』이 있다.

고경명과 김천일에게 말하라. 그대들이 빨리 수복하여 나로 하여금 그대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라." 하였다. 그러나 며칠 되지 않아 명이 이르지도 않아서 경명이 패하여 전사하였는데 예조 판서에 추증하였다. 그 뒤에 광주(光州)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포충사(褒忠祠)라고 사액하였다.

工曹佐郎梁山璹自行在南還。上面諭曰。歸語高敬命·金千鎰。願爾等及時恢復。俾予得見爾等面目有日也。命未至。而敬命敗死。追贈禮曹判書。其後立祠于光州。賜額褒忠。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2) 박동량(朴東亮), 『기재사초(寄齋史草)』 하, 임진일록3, 임진년 8월

전라도 유생 양산숙과 곽현이 와서 말하기를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켜 전라 병사 최원(崔遠)과 군사를 합쳐 수원(水原)에 도착하였습니다. 고경명·조헌도 또한 기병하여 서쪽으로 왔고, 경상도에는 김면(金沔)·정인홍(鄭仁弘)·박성(朴惺)·곽재우 등이 기병하여 적을 토벌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양산숙 등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변변치 못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천릿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왜적 속에서 벗어나 여기에 이르렀으니 부끄러움을 어찌 말하랴." 하였다. 양산숙은 아뢰기를 "김천일의 군중에 비록 정예롭고 용감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반은 유생으로서 다만 충의만으로 일어났을 뿐이오니, 성공과 실패는 하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울며 이르기를 "충의로 격동되었는데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랴." 하였다. 곽현이 아뢰기를 "신은 평소 조헌과 교의가 두텁습니다. 신이 일을 일으킨 뒤에 조헌(趙憲)이 말하기를 '근자에 천문을 보니 우리나라가 멸망할 운이 없고 왜적도 끝내 뜻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조헌의 말인가?" 하니, 곽현이 아뢰기를 "기축년(1589, 선조 22)에 조헌이 북도로 귀양 갔는데, 역변(逆變)이 일어날 것을 알았고, 또 신묘년부터는 '나라에 큰 변이 있을 것이니 미리 피해 살 곳을 강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천문을 관찰한 징험이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와 같이 잘 맞추는가?" 하면서, 대단히 기뻐하고 위안되는 안색을 띠었다. 드디어 김천일을 승자(陞資)하여 판결사(判決事)로 삼아 창의사라 칭하고, 고경명을 초토사(招討使)라 칭하여, 이들에게 교서를 내렸다. 조헌에게 내린 교서에는 '충성된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음을 뉘우친다.'라는 말이 있었다. 또 김면 등에게도 교서를 내렸다. 상이 이미 자신을 나무라는 교서를 내렸는데, 이르기를 "용만(龍灣) 한 모퉁이에서 국사가 어렵게 되고, 국토는 이미 다했으니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 강물을 바라보니 또한 동쪽으로 흘러가누나. 돌아가자고 하는 일념이 저 물과 같이 넘실거린다." 하였다. 이 교서가 내린 것을 원근에서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모두 이호민(李好閔)이 지은 것이다.

양산숙 등이 돌아갈 때 상이 불러 이르기를 "너희들은 돌아가 김천일과 조헌에게 힘을 다하

여 적을 쳐부수어 나를 서울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하라." 하고, 흐르는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양산숙 등이 아뢰기를 "호남의 의병이 비록 많다고 하오나 조정이 멀리 떨어져서, 호령할 즈음에 쉽게 의견을 여쭈고 명령을 받기가 쉽지 않으니, 모름지기 중신(重臣)을 보내시어 이들을 어루만지게 하여야 구애됨이 없겠나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의논하여 처결하겠다." 하였다. 드디어 정철(鄭澈)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았다. 양산숙 등의 뜻은 신잡(申磼)의 무리를 보내 주었으면 하였는데, 조정에서 갑자기 정철을 보내니 양산숙 등은 대단히 불만스럽게 여겼다.

全羅道儒生梁山璹郭賢來言。金千鎰起義兵。與全羅兵使崔遠。合兵到水原。高敬命趙憲亦起兵相繼來。慶尙道亦有金沔鄭仁弘朴惺郭再祐等。起兵討賊。上召山璹等入。謂之曰。以予無狀之罪。爾等跋涉千里。出賊中而至。慚愧何言。山璹曰。千鎰軍中。精勇雖多。半是儒生。只仗忠義而起。至於成敗。則天也。上泣曰。忠義所激。何事不成。郭賢曰。臣素與趙憲厚。及臣起事之後。憲曰。近觀天文。我國無滅亡之運。賊亦終必不得志云矣。上曰。是憲之言乎。賢曰。己丑年。憲謫北道。能知逆變之發。又自辛卯年。明言國有大變。預講避居之所。此必觀天之驗也。上曰。若是其符乎。甚有喜慰之色。遂陞千鎰。爲判決事。稱倡義使。高敬命稱招討使。俱賜敎書。賜趙憲敎書。有悔不用忠言。致有今日之語。又賜金沔等敎書。已下罪己敎。有曰龍灣一隅。天步艱難。地維已盡。予將安歸。瞻彼江流。亦流于東。思歸一念。如水滔滔。敎下。遠近聞之。莫不流涕。皆李好閔之辭也。

山璹等之還也。上召謂曰。爾等歸語千鎰憲。竭力討賊。使予東還。因淚下不止。山璹等曰。湖南義兵雖多。朝廷隔遠。號令之際。未易稟承。須以重臣來拊之。方無拘碍。上曰。當議而處之。遂以鄭澈爲都體察使。山璹等之意。欲得申磼輩。而朝廷遽遣鄭澈。山璹等深以爲不滿焉。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기재사초(https://db.itkc.or.kr/)

(13)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권2, 임진년 하 8월 4일

곽현 · 양산숙 등이 서해에서 구사일생으로 행조(行朝)에 도달하여 표문을 올리니 임금이 친히 남방의 소식을 묻고 두 사람에게 벼슬을 주었으며, 인하여 전라도의 사민들에게 내리는 교서를 선포하였다.

호남에도 또한 전 부사 고경명과 김천일 등이 의병 수천 명을 모집하여 본도 절도사 최원의 병마 2만과 더불어 나아와 수원에 머무르면서 바야흐로 경성을 회복하도록 도모하고, 그의 부하 양산숙 등으로 하여금 수로와 육로로 달려와서 행재(行在)에 아뢰는데, 내가 그의 아룀을 보고 눈물이 글썽거려 한편으로는 위로되고 한편으로는 슬펐다. 이제 양산숙 등이 군중(軍中)으로 돌아가는 편에 이 글을 부쳐 그로 하여금 전하여 이르게 하노니, 너희 사중(士衆)들은 내가 말하는 뜻을 알도록 하라.

郭玄梁山璹等自西海十生九死。得達行朝上表。上親問南方消息。二人賞職。因宣布有旨。敎全羅

道士民等書。

湖南亦有前府使高敬命金千鎰等。糾合義兵數千。與本道節度使崔遠兵馬二萬。進屯水原。方謀恢復京城。令其徒梁山璹等。水陸間關。馳奏行在。予見奏泫然一慰而悲也。今者梁山璹等。還報軍中。憑付此書。使之委曲傳到。爾士衆其諒予告意。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 (https://db.itkc.or.kr/)

(14)『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8월 1일

창의사 김천일 등이 유생 곽현·양산숙을 보내어 바닷길을 따라 관서(關西)에 들어가 행조(行朝)에 일을 아뢰었다. 양산숙이 또 상소하여 계책을 올리니, 상이 자주 인견(引見)하여 위유(慰諭)하며 공조 좌랑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호민(李好閔)으로 하여금 교서(敎書) 2통(通)을 짓게 하여 양산숙에게 부쳐 보냈다. 하나는 호남에 유시하는 것으로 그 대략에 "이광(李洸)의 군사가 용인(龍仁)에서 패하였다는 말을 듣고부터 다시 남쪽을 바라보며 구원을 기대하는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고경명과 김천일 등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여 절도사 최원과 함께 수원(水原)으로 진주(進駐)했다고 들었다. 부덕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사력을 다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양산숙 등을 보내어 돌아가서 알리게 하니 그대들은 내가 알리는 뜻을 헤아리도록 하라."

倡義使金千鎰等遣儒生郭玄梁山璹。從海路入關西。奏事行朝。山璹又上疏獻策。上數引見慰諭。拜工曹佐郎。令李好閔製敎書二通。付山璹以送。一諭湖南。略云:

自聞李洸之師潰於龍仁。無復有南望待救之念。玆聞高敬命。金千鎰等。糾義旅數千。與節度使崔遠。進住水原云。予之不德。何以得人死力至此哉。今遣山璹等還報。惟爾多士。諒予告意。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5) 장유(張維),『계곡집(谿谷集)』 권13,「창의사 김공 정렬사비(倡義使金公旌烈祠碑)」

호남 선비 양산숙과 호서 선비 곽현이 의주로부터 강화로 돌아와서 김천일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끝에 말하기를 "조정에서 나를 창의사로 삼았으니, 호남과 호서에서는 마땅히 나의 토제를 받아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여전히 고집하고 관군을 의병으로 뽑아 가지 못한다고 하면 마땅히 천지의 엄격한 대의로 낱낱이 임금께 보고해서 역적의 죄로 처단하리라." 했다. 내가 웃으면서 양산숙과 곽현에게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 관군으로 의병에 들어간 자를 내가 과연 찾아오게 했지만 의병을 일으키라는 명령은 없었으니, 필경 잘못 듣고 하는 말일 게다. 설령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관군이 의병에 응모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 어찌 위를 거스르는 것이겠느냐? 그대들은 어찌해서 장수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했더니, 두 사람은 모두 부끄러워하는 빛을 띠고 다른 말을 꺼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계곡집(https://db.itkc.or.kr/)

湖南儒梁山璹。湖西儒郭賢。自龍灣還到江華。持金千鎰移文來。其末段曰。朝廷以我爲倡義使。兩湖皆當節制云云。而又云如前執拗。不許官軍募義。則當以橫天地凜烈之大義。這這上聞。繩之以逆上之罪云。余笑謂梁郭曰。此何言也。官軍投入義兵者。我果推還。然入倡義者。則未有此令。必誤聞而有是言也。設令實有是事。不許官軍募義。是逆上乎。君等何不言於將帥耶。兩人皆有慙色而言他。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계곡집(https://db.itkc.or.kr/)

(16) 신경(申炅),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권2

양산숙 등이 고경명의 군진에 돌아오니, 고경명은 이미 죽었다. 양산숙이 이에 교서를 반포하여 선유하니, 남은 군사와 백성, 억센 장수와 완악한 졸개까지도 울지 않는 이가 없으니 사람들이 당 덕종(唐德宗)이 봉천(奉天)에서 내린 애조(哀詔)[313]에 비유하였다. 양산숙은 이에 강화도로 돌아가 김천일의 군진에 들어갔다.

梁山璹等至敬命之軍。而敬命已死矣。山璹乃以敎書。頒布宣諭。遺軍餘民。悍將頑卒。莫不揮涕飮泣。人比之奉天哀詔焉。山璹乃還向江都。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재조번방지(https://db.itkc.or.kr/)

(17)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권13, 「창의사 김공 정렬사비(倡義使金公旌烈祠碑)」

이때 공은 촉석루 위에 있었는데, 좌우에 있던 사람들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오직 장남인 상건과 막하(幕下)의 양산숙 등 편비(褊裨)와 친병(親兵) 10인만이 공의 옆에 있으면서 떠나지 않았다. 이들이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일이 끝장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자, 공이 온화한 기색으로 말하기를 "의거를 일으키던 날에 나는 이미 죽기로 결정을 하였다. 다만 너희들이 애달프기만 하구나."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북쪽을 향해 절을 하고, 먼저 병기를 물속에 던져 넣은 뒤, 아들 상건과 서로 부둥켜안은 채 누대 위에서 강물로 몸을 날렸다. 이때 공을 따라 죽은 장좌(將佐)들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전투를 치른 뒤로 왜적 역시 힘이 다하여 감히 다시는 호남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계곡집(https://db.itkc.or.kr/)

公在矗石樓上。左右皆奔潰。惟長子象乾及幕下梁山璹等褊裨親兵僅十人。在公側不去。泣且呼

313) 당 덕종(唐德宗)이 …… 애조(哀詔): 당 덕종이 주자(朱泚)의 반란으로 봉천(奉天)으로 파천하였을 때 반성하는 조서(詔書)를 내리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는 고사를 말한다. (『漢書 卷51 賈山傳』『舊唐書 卷139 陸贄列傳』)

曰。事去矣。將奈何。公怡然曰。起事之日。吾已斷吾死矣。但爾曹可憐耳。遂起北向拜。先投兵器水中。與子象乾相抱。赴樓下潭水。將佐從死者。不可勝紀。然自是賊亦力盡。不敢復軼湖南。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계곡집(https://db.itkc.or.kr/)

(18) 이민서(李敏敍), 『서하집(西河集)』 권14, 「정충단비(旌忠壇碑)」

6월 20일. 왜적의 선봉대가 이미 진주의 경내로 들어오자 오유(吳宥)와 이잠 등이 성 밖으로 나가 적을 염탐하고, 수급(首級) 몇 개를 베어서 돌아오니 성안의 기세가 고조되었다. 김천일이 양산숙을 보내 유정(劉綎)에게 원군을 청하였지만, 유정은 왜적을 두려워하여 끝내 출전(出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왜적이 크게 쳐들어와 성을 세 겹으로 포위하고 성 아래에 바짝 붙어 목책(木柵)과 죽파(竹笆, 대로 만든 울타리)에 몸을 숨기고 그 안에서 발포하여 탄환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성안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막고 지켰다. 적들이 또 밤을 타 동문(東門)에 바짝 다가와 크게 외치며 성에 오르니, 소리가 천지에 진동했지만 황진 등이 공격해 물리쳤다. 하루는 왜적이 성의 서북쪽 귀퉁이를 급습해서 성이 거의 함락될 뻔했는데, 황진이 칼을 휘두르며 여러 군대를 독려하여 성가퀴를 타고 올라가 적들을 쏘아 맞추자, 적은 이에 물러났다.

김천일 등은 촉석루에 있다가 그의 아들 상건 및 고종후 부자·최경회·양산숙 등 수십 명과 임금이 계신 북쪽에 두 번 절하고 남강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이종인·이잠(李潛)·강희열(姜熙悅) 등 십여 인은 칼을 휘두르며 적을 베다 힘이 다해 죽었다. 이종인이 죽으려고 할 때 왜적 2명을 옆구리에 끼고 물로 뛰어들면서 크게 소리 지르기를 "김해 부사 이종인은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하였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서하집(https://db.itkc.or.kr/)

六月二十日。賊之前鋒已至州境。吳宥李潛等出城詗賊。斬數級而來。城中鼓譟。千鎰遣梁山璹乞師於劉綎,綎畏賊終不出師。其明日賊大至。圍城三匝。進薄城下。柵竹自蔽。從其內發砲。丸如雨。城中人悉力拒守。賊又乘夜進逼東門。大呼登城。聲震天地。進等擊却之。一日賊急攻西北隅。城幾陷。進奮劍督諸軍登陴射賊。賊乃退。

千鎰等在矗石樓。與其子象乾及高從厚父子崔公慶會,梁山璹等數十人。北面再拜。赴南江而死。李宗仁,李潛,姜熙悅等十餘人。奮劍斫賊。力盡而死。宗仁將死。腋二賊赴水。大呼曰金海府使李宗仁死於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서하집(https://db.itkc.or.kr/)

(19)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7, 26년 6월 1일

양산숙의 자는 회원(會元)으로 부윤(府尹) 양응정(梁應鼎)의 아들인데, 나주에 살며 성혼을 사사하였다. 그는 시사(時事)가 평탄하지 못한 것을 보고서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은거하며 나가지 않았다. 왜란 초에 군사 수백 명을 모집하여 김천일을 따라 기병(起兵)하였는데, 행조(行

朝)에 들어가 아뢰자, 그를 발탁하여 공조 좌랑(工曹佐郎)에 제수하였다. 그는 다시 김천일을 따라 진주에 이르러 김천일의 서신을 가지고 유정에게 가서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의 사기(辭氣)가 강개하여 유정도 탄복하였으나 여전히 군사를 출동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적이 이미 성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동행한 몇 사람은 모두 탈주하였다. 양산숙이 말하기를 "위태로운 처지에서 구차하게 죽음을 모면하고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혼자만 죽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고, 남강으로부터 성에 들어가니, 군사들이 모두 놀랐다. 성이 함락됨에 미쳐 양산숙은 헤엄을 잘 쳤으므로 그의 힘으로 충분히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끝내 김천일과 함께 죽었다. 그의 아내 이씨(李氏)는 정유년 변란 때 산에 숨었다가 적을 만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梁山璹字會元。府尹應鼎之子。居羅州。師事成渾。見時事不平。棄擧業。遁居不出。亂初。募兵數百。從金千鎰起。入奏行朝。擢拜工曹佐郎。還從千鎰至晋。持千鎰書。乞援於劉綎。辭氣慷慨。綎歎服。猶不肯出兵。及還。賊已逼城。同行數人皆脫走。山璹曰臨危苟免。使主將獨陷死。可乎 自南江入城。一軍皆驚。及城陷。山璹善泅。力可以免。而竟與千鎰同死。妻李氏丁酉之變。匿山遇賊。自剄死。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0) 안방준(安邦俊), 『은봉전서(隱峯全書)』 권7, 「진주서사(晉州敍事)」

성에 들어갔을 때, 여러 장수 막하의 병사 중 쓸 만한 자가 없어 성을 나갈 것을 허락하니 모두 수십 명이나 떠나갔다. 오직 김천일 막하에 아들 상건과 좌랑 양산숙, 최경회의 막하에 진사 문홍헌, 고종후의 막하에 정자 오빈·내금 김인혼·참봉 고경원 등 대여섯 사람만 가지 않았다. (중략) 처음에 김천일이 함안으로부터 와서 양산숙·홍함 등을 보내어 유정에게 원병을 청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그 글은 고종후가 지은 것으로 말의 뜻이 격렬했으며, 이어서 양산숙도 말하는 기운이 강개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유정은 다 읽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얼굴빛을 고쳤으나, 끝내 군사를 출정시킬 뜻은 없었다. 홍함이 돌아오는 길에 양산숙을 버리고 달아나니, 산숙이 울먹이며 말하기를 "위급함을 만나 구차하게 도망하여 주장만을 홀로 사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의가 아니다." 하였다. 마침내 혼자서 말을 타고 성으로 돌아오니 모든 군사가 놀랐다. (중략) 왜적이 마침내 마구 들어오자 이에 아들 상건과 양산숙은 김천일을 부축하고, 문홍헌은 최경회를 부축하고, 오빈, 김인혼, 고경원은 고종후를 부축하여 북쪽을 향해 재배하고 남강에 뛰어들어 죽었다. 양산숙은 평소에 수영을 잘하였으므로 김천일이 말하기를 "너는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힘을 다해 빠져나가 다시 도모하여 이 원수인 왜적을 섬멸하라." 하였으나, 산숙은 의리상 혼자만 살아남을 수 없어 마침내 함께 죽었다.

출전 : 안동교 역, 『(國譯) 隱峯全書』, 신조사, 2002

及入城。諸將幕下。士無可用者。聽其出去。凡數十人。惟千鎰幕下。子象乾及梁佐郎山璹。慶會幕下。文進士弘獻。從厚幕下。吳正字玭,金內禁麟渾,高參奉敬元等五六人不去。

始千鎰自咸安來也。遣梁山璹洪涵等賚書。乞師於劉綎。書乃從厚所撰。詞旨激烈。繼以山璹。辭氣慷慨。感動於人。綎讀未訖。不覺斂衽改容。然終無出師意。涵於歸路。棄山璹走。山璹泣曰。臨危苟免。使主將獨陷死地。非義也。遂單騎入城。一軍皆驚。

賊遂闌入。於是象乾,梁山璹扶千鎰。文弘獻扶慶會。吳玭,金麟渾,高敬元扶從厚。北向再拜。赴南江而死。山璹素善泅游。千鎰曰汝可以免。努力更圖。滅此仇賊。山璹義不獨生。遂與同死。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은봉전서(https://db.itkc.or.kr/)

(21) 신경(申炅),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권3

6월

적이 비로소 임해군(臨海君)·순화군(順和君)·재신(宰臣) 김귀영(金貴榮)·황정욱(黃廷彧)·황혁(黃赫) 등을 돌려보내며 심유경으로 하여금 돌아가 보고하게 하고는, 진격하여 진주성을 포위하고 함안(咸安)을 침범하며 전라도를 핍박하면서 한강 이남을 회복하여 경계로 삼겠다고 떠벌렸다. 이는 평수길이 저희 병사가 일찍이 김시민에게 참패한 적이 있으므로 여러 적으로 하여금 연합하여 힘을 합쳐서 진주성을 기어코 섬멸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창의사 김천일이 이 소문을 듣고 그 병사 4백 명을 거느리고 제일 먼저 성안으로 들어가니 양산숙이 따랐다. 천일이 성을 나가서 함께 죽지 말도록 권하니, 산숙은 "이미 일을 같이 하였으니, 군중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하였다.

28일 새벽녘에 황진과 장윤이 차례로 탄환에 맞아 죽었다. 이전에 황진이 진주성으로 올 때 의병장 곽재우가 만류하여 말하기를 "진주는 고립된 성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고 더구나 공은 충청도 병마절도사이니 진주성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직책이 아니오." 하니, 황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비록 그렇다고 하나 이미 창의사에게 허락하였으니,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식언할 수는 없소." 하였다. 재우는 그 뜻을 돌리지 못할 것을 알고 술잔을 잡고 서로 이별하였는데,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무척 슬퍼하였다. 김해 부사 이종인이 그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고 장윤이 죽은 곳에 직접 들어갔으나, 성안은 이미 기운이 빠지고 외부의 지원군이 이르지 않은 상태인데 적은 자주 군사를 더하여 급히 공격하여 함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때마침 하늘이 큰비를 내려 성첩이 쉽사리 뭉개지니, 적병은 개미 떼처럼 기어오르고 성안에는 화살과 돌이 없어져 한갓 죽목(竹木)으로 찌르고 내리칠 뿐이었다. 장윤이 성을 순시하다가 놀라 달아난 서예원을 대신하였다. 적이 드디어 온통 에워싸고 올라왔다. 김천일이 바로 누각 위에 있는데 좌우가 모두 흩어졌으나, 오직 큰아들 상건과 막하사(幕下士) 양산숙 등 편비(褊裨)와 친병(親兵) 근 10여 명만이 달아나지 않고 곁에 남아 있으면서 외치기를 "일이 이미 글러버렸

으니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좌우에서 도망가기를 권하였으나, 천일은 움직이지 않고 말하기를 "일을 시작하던 날에 나는 이미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하였는데, 다만 너희들이 가련하구나." 하고는 똑바로 앉아 일어나지 않았다. 아들 상건을 돌아보며 "마땅히 여기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조금 있다가 적이 닥쳐오자 천일이 최경회와 손을 잡고 통곡하고 함께 북쪽을 향하여 재배하고 먼저 병기를 물속에 버리고 그 아들 상건과 서로 안고 누각 아래 깊은 물 속에 몸을 던져 죽으니, 최경회·고종후·문홍헌(文弘獻)·양산숙·최희립(崔希立)·강희민(姜希民) 등이 모두 죽었다. 백성으로서 죽은 자가 거의 6만여 명이고 소·말·닭·개까지도 남음이 없었으며, 또 성을 무너뜨리고 참호를 메워버리고 우물을 틀어막고 나무를 베어버렸으니 그것으로 지난해에 이기지 못한 분풀이를 한 것이다.

六月。賊始還臨海君順和君及宰臣金貴榮黃廷彧黃赫等。使沈惟敬歸報。而進圍晉州犯咸安逼全羅。聲言將復漢江以南爲界。蓋平秀吉以其兵曾爲金時敏所敗。令諸賊并力攻滅晉州故也。彰義使[314]金千鎰聞之。乃以其兵四百。先入城中。梁山璹從之。千鎰勸使出城。毋令同死。山璹曰。旣與同事。情願同死軍中。

二十八日曉。黃進張潤先後中飛丸死。初進之赴晉也。義兵將郭再祐止之曰。晉州孤城。不可守。而公且受忠淸之節。守晉州而死。非職也。進曰。雖然吾已諾於彰義使[315]矣。雖死不可食言。再祐知其意不可奪。遂執酒相別。及聞其死。痛悼不已。金海府使李宗仁斂其尸而瘞之。自進潤之死。城中奪氣。外援不至。賊益添兵急攻之。呼聲動天地。適天又大雨。城堞融液善崩。賊將蟻附而上。城內矢石俱盡。徒以竹木刺擊。張潤旣代徐禮元。巡城而又驚走。賊遂一擁而登。金千鎰方在樓上。左右犇潰。惟長子象乾及幕下士梁山璹等裨裨親兵僅十餘人在側不去。且呼曰。事去矣。將奈何。左右勸逃。千鎰不動曰。起事之日。吾已斷吾死矣。但爾曹可憐耳。堅坐不起。顧謂其子象乾曰。當死於此。已而賊迫。千鎰與崔慶會握手痛哭。俱北向再拜。先投兵器水中。與其子象乾相抱。赴樓下潭水而死。崔慶會高從厚文弘獻梁山璹崔希立姜希民等。皆死之。民死者幾六萬餘名。牛馬鷄犬不遺一物又夷其城塡其塹。堙井刊木。以快前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재조번방지(https://db.itkc.or.kr/)

(22) 이상정(李象靖), 『대산집(大山集)』 권42, 잡저 「호남의 통문에 답함(答湖南通文)」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의 김공과 황공의 전(傳)을 참고해 보면[316], 성이 함락되던 날에 김

---

314) '倡義使'의 오자.

315) '倡義使'의 오자.

316)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의 …… 보면: 현재 통행 되는 『해동명신록』에 김천일은 입전(立傳)되어 있지만 황진은 입전되어 있지 않다. 황진의 내용은 장유(張維)가 지은 그의 묘지명에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공은 촉석루 위에 있었는데, 맏아들과 막하의 양산숙 등 친병(親兵) 10여 명만이 곁에 있었으며, 북쪽을 향해 두 번 절하고서 물로 뛰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공과 함께 모여 시를 지었고 일시에 강으로 투신하였다면 어찌하여 김공만 십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까. 황공은 성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는데, 적이 크게 이르러 해자의 물을 터 웅덩이를 메웠고 흙으로 산을 쌓아 높은 누대를 만들었으며 대나무를 엮어 만든 구조물과 나무로 만든 궤짝 같은 것을 이용하여 성을 공격하니, 포탄과 탄환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이 여러 장군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밤낮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9일간 서로 대치하다가 28일에 이르러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9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여러 장수와 함께 있었다면 당일과 전날은 물론이며 황공은 김공, 최공과 더불어 따질 것 없이 모두 술 마시며 시를 짓고 담소하며 물결을 가리킬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촉석루 아래 정충비(旌忠碑)[317]가 세워진 곳은 바로 그분들이 순절한 곳입니다. 이 지점과 이 시가 과연 보내온 글에서 말한 최호(崔顥)와 이백(李白)의 학루(鶴樓), 봉대(鳳臺)와 마찬가지라면[318] 비명(碑銘)을 지은 사람이 마땅히 이 시로 글감을 삼았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단 말입니까.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대산집(https://db.itkc.or.kr/)

參以海東名臣錄金黃二傳。則城陷之日。金公在矗石樓上。惟長子與幕下梁山璹。親兵十人在側。北向再拜。赴水云云。若諸公共會賦詩。一時投江。則金公何以獨與十數人共之也。黃公入城死守。賊大至。決壕塡塹。土山飛樓。竹棚木櫃以攻城。砲丸如雨。公與諸將隨機應變。晝夜不少休。相持凡九日。至二十八日而歿。夫積九日而晝夜不休。與諸將共之。則未論當日與前一日。未問黃公與金崔二公。俱不暇於飮酒賦詩談笑而指點矣。矗石下旌忠碑。卽其殉節之地。此地此詩。果如來諭所謂崔顥李白之鶴樓鳳臺。則作銘者當以此詩爲案。何故無一言之及此邪。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대산집(https://db.itkc.or.kr/)

(23)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별집 권4, 잡기 「기몽(記夢)」

조용히 죽음에 나아가 자기 지조를 잃지 않은 이로는 오직 김천일과 양산숙 두 사람뿐이다. 진주가 포위되었을 때 김천일은 포위된 형세가 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들어갔으니,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이 급해진 뒤에는 군중에서 김천일이 사인(士人)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군대를 부장(副將)에게 소속시키고 성을 급히 빠져나가서 자신을 보전하도록 권하였

317) 촉석루 …… 정충비(旌忠碑):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지키다 순국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1686년(숙종 12)에 세워진 촉석정충단비(矗石旌忠壇碑)를 가리킨다. 대제학이었던 이민서(李敏敍)가 글을 지었다.

318) 보내온 …… 마찬가지라면: 최호가 「등황학루(登黃鶴樓)」를 짓고, 이백이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를 지었는데, 호남의 통문에서 이를 거론하며 저자나 장소를 바꾸는 것은 실상과 맞지 않는 일임을 말하였다.

다. 그러나 김천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내 촉석루 일면(一面)을 굳게 지키다가 적병들이 성을 타고 올라옴에 이르러서도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조용하게 북쪽을 향하여 재배하고 죽었다.

또 양산숙 같은 이는 바로 시골의 포의(布衣)로서 특히 김천일의 참모인(參謀人)이었을 뿐이니, 비록 따라 죽어도 괜찮겠지만 설령 죽지 않더라도 또한 괜찮은 처지였다. 그런데 김천일이 그로 하여금 성을 빠져나가서 함께 죽지 말도록 권하자, 그는 말하기를 "이미 일을 같이 하였으니, 의당 함께 죽어야 한다." 하고, 끝내 김천일을 따라서 죽었다. 평소 행실이 독실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세상의 논변하는 자들은 범범하게 이상의 네 사람을 똑같은 등급으로 치고 있으니, 이 또한 정론이 아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백사집(https://db.itkc.or.kr/)

其從容就死。不失所操。唯金千鎰,梁山璹二人而已。當晉州之圍。千鎰聞圍急。引兵馳入。此其難也。事急之後。軍中以爲千鎰士人。勸使以兵屬副將。馳出城自全。則千鎰不聽。終守矗石一面。至於賊兵登城。猶顔色不變。從容北向再拜而死。若梁山璹。乃是壟畝布衣。特是千鎰參佐之人。雖從死可也。雖不死亦可也。千鎰勸使出城。毋令同死。則以爲旣與同事。當與同死。卒從千鎰死。非素履篤實者。能如是乎。世之論者。泛然以四人同科。亦非定論。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백사집(https://db.itkc.or.kr/)

(24) 양응정(梁應鼎), 『송천유집(松川遺集)』 권7, 「신도비명 병서(神道碑銘 并序)」[319]

공의 휘는 산숙, 자는 회원(會元)이며 탐라(耽羅)의 성주(星主) 양씨(良氏)의 후손이다. 신라에서 양씨(梁氏) 성을 하사받았고 고려에서 벼슬했는데, 문인들이 많았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인 팽손(彭孫)이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훌륭한 정치를 함께 빛내려다가 함께 사화(士禍)를 당하였다. 세상에서는 그를 학포선생(學圃先生)이라 칭하였으니, 곧 공의 할아버지이다. 아버지 휘는 응정(應鼎)인데 문장과 덕망으로 당대의 추중을 받았고 벼슬은 대사성(大司成)이었으며 호는 송천(松川)이다. 어머니는 정부인 죽산 박씨이다. 황명세종 40년 신해에 공을 낳았는데, 우리나라로는 바로 명종 16년(1561)이다.

공은 모습이 단정하면서도 순수하였고, 총명하고 남들보다 빼어나 배우기를 좋아했다. 자라서는 경전에 전념하면서도 과거 공부는 즐기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이나 말은 또한 고상하여 송천(松川) 공께서는 그의 그릇이 뛰어나다고 여겼다. 갖가지 서적을 널리 섭렵하여 천문(天文)과 지리(地理)를 두루 통달하였고, 또한 병학(兵學)도 연구하였다. 그리고 송천공에게서 진도(陣圖, 진법)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아 합변(合變, 형세에 맞추어 병력을 쓰는 것을 말한다)의

319) 「신도비명」: 풍산(豐山)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지었다.

방법을 궁구하였다. 신사년(辛巳年, 1581)에 송천 공이 상을 당하여서는 예법대로 하여 어기는 것이 없었다. 그때 우계 성혼이 파산(坡山, 파주)에서 교리를 강설하고 있었는데, 공은 책을 지고 천릿길을 가서 나아가 질정하니, 선생께서는 그의 정교한 조예에 대해 깊이 인정하였다.

공은 밤이면 천체의 형상을 관찰하고 낮이면 인사를 살피고는 큰 난리가 곧 일어날 것을 알고는 매일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그리고는 살 곳을 나주 남쪽 삼향리(三鄕里)에 정했는데, 본가와의 거리가 백여 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공은 매일 홀로 계시는 어버이를 뵙기 위해 걸어서 그 길을 오가는 고된 일을 했으니, 그를 본 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길 정도였다. 정해년(선조 20, 1587) 3월 왜적이 흥양을 침범하여 녹도 만호(鹿島萬戶) 이대원(李大源)[320]이 전사하였는데 공은 그를 보고 탄식하여 이르기를 '국경(國境)의 경비가 이와 같은데도 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였고, 무자년(戊子年) 봄 왜놈들이 대마도의 귤강광(橘康光)[321]을 보내와 화의를 구하자 공이 말하기를 "화가 머지않았구나."라 하고는 왜적들을 염탐하고자 남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종인(宗人)인 양대박(梁大樸)[322]을 만났고, 함께 팔량치(八良峙, 남원과 함양 사이 고개)를 넘어 영남(嶺南)으로 들어갈 것을 청했다. 공이 호행(護行)하는 군졸로 가장하여 여러 왜놈을 상대로 비밀히 염탐한 결과, 일본 왕 원의등(源義藤)이 평수길에게 멸망 당한 것이 이미 10여 년이 되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강광(康光)이 처음 동래에 도착했을 때 부사가 술을 대접하였는데 강광은 술잔을 받자마자 떨어뜨려 깨버렸다. 그것을 본 공이 귓속말로 양대박에게 이르기를 "저놈이 말로는 비록 화의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맹약을 깨기 위하여 온 것이요." 하였다. 상주에 도착했을 때 목사 송응형(宋應泂)이 기악(妓樂)을 베풀어 잔치를 열었는데 그가 나간 후 공이 응형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하더냐고 물었다. 응형이 대답하기를 "강광이 말하기를 '노부(老夫)는 전쟁 속에서 세월을 보냈기에 이렇게 머리털이 희었지만 사군(使

---

320) 이대원(李大源): 1566~1587. 본관 함평(咸平). 자 호연(浩然). 1587년 남해안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치고 적장을 사로잡아 수사(水使) 심암(沈巖)에게 압송하였다. 그러나 전공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심암의 부탁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움을 샀다. 이어 흥양(興陽)에 침입한 왜구와 손죽도(巽竹島)에서 싸우다 사로잡혔으며, 항복을 거부하였으므로 살해되었다.

321) 귤강광(橘康光): 대마도주의 가신(家臣)으로, 일본의 풍신수길이 침략을 앞두고 조선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신이다. 1588년(선조 21) 그가 일본의 국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조정의 답서를 가지고 갔는데, 화가 난 풍신수길이 참수하였다. 『징비록』에 의하면 그가 서울에 도착하여 예조 판서가 베푼 잔치에서 술이 얼큰했을 때 후추를 상에다 뿌리니 기생과 악공들이 다투어 줍느라 질서가 문란해졌는데, 객관에 돌아와 통역에게, "기강이 이렇게 떨어졌으니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했다.

322) 양대박(梁大樸):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사진(士眞)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학관(學官)으로서 아들 양경우(梁敬遇)와 가동(家僮) 50명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같은 해 6월 고경명이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고경명을 맹주로 추대하고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였다. 6월 7일 전주로 가서 의병 이천 명을 모집하였는데, 이때의 과로로 병이 나서 진중(陣中)에서 죽었다. 『한국인물대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君)은 기생 노래 속에서 살면서 왜 그렇게 희었습니까?'라고 하더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양대박에게 이르기를 "그의 말은 우리를 풍자한 것이요 그는 빙호(聘好, 나라 간에 서로 사신을 보내며 사이 좋게 지내는 것)를 핑계하여 우리의 허실을 엿보고 있는 것이요." 하였다.

기축년 봄 왜의 사신 현소(玄蘇)[323] 등이 또 와서 통신사(通信使)를 청하였는데 그때도 공이 말하기를 "왜인들이 우리 병력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해마다 침범해왔다가 매해 화의를 구하곤 하는데 묘당에서는 아직도 대비할 줄을 모르니 나랏일을 알만하다." 하고는 그때부터 삼남(三南)을 두루 돌며 인정과 지세를 살피기 시작했으며 12월에 이르러서는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상소를 올렸다. 상소에는 격절한 내용과 권문 귀족도 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많았고, 또 조헌에 대해서는 '그는 정여립(鄭汝立)이 반드시 배반할 것을 미리 알았기에 선견지명이 있다고 이를만함에도, 오히려 멀리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상이 특별히 명을 내려 조헌을 방환(放還)하라고 하여 조헌이 길주(吉州)로 돌아와 도착했다. 그런데 또 다시 항장(抗章)을 올려 시재(時宰)들이 나라를 그릇되게 하고 있다고 엄히 말했고, 공의 형 산룡(山龍) 또한 상소를 올리니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광망(狂妄)하다며 배척하였다.

경인년(庚寅年) 봄. 우리 쪽 사신 황윤길(黃允吉)[324] 등이 회답사(回答使)로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인 신묘년(辛卯年)에 그쪽 사신 현소 등과 함께 나왔는데, 그때 온 왜서(倭書)의 내용이 극도로 흉패(凶悖)하였다. 공은 그것을 듣고는 칼을 어루만지며 장가(長歌)를 불렀을 뿐이었다. 다음 해 임진년에 이르러 왜적이 대거 침입해왔는데, 50만 명을 데리고 왔다며 성언(聲言)하였다. 4월 13일 바다를 건너와 부산, 동래를 잇달아 함락시켰다. 이에 영남 일대에서는 소문만 듣고 모두 도망쳐 흩어져서, 감히 그 칼날에 맞서는 자가 없었다. 공은 삼향리부터의 변고를 듣고는 칼을 잡고 고향인 박산(朴山)으로 달려와 형인 산룡, 아우 산축과 목이 잠기도록 통곡을 하고서 어머니께 들어가 고하기를 "나라의 위태로움이 이와 같으니 저희 자식들은 장차 임금과 나라를 위해 죽을까 하옵니다." 하니,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우리의 집안이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라를 구하다가 죽다니 이제야 제 살 곳을 얻었구나. 너희들의 노력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형제들에게 울면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10여 년 전에 매번 남쪽에 걱정거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나라의 은혜를 갚도록 권면하셨는데 그 말이 아

---

323) 현소(玄蘇): ?~1612. 일본 박다(博多) 성복사(聖福寺)의 승려로, 임진왜란 1년 전에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의지(宗義智)를 따라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와서 국정을 염탐하기도 하고 난중에는 군중(軍中)에 와서 강화(講和) 문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324) 황윤길(黃允吉): 1536~?.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길재(吉哉), 호는 우송당(友松堂)이다. 1561년(명종 16) 문과에 급제한 후 정언·지평·황주 목사·병조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590년(선조 23) 통신정사(通信正使)로 선임되어 부사 김성일(金誠一), 서장관 허성(許筬)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다. 이듬해 3월에 귀국하여 장차 반드시 일본의 내침이 있을 것이며 풍신수길은 담력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유성룡(柳成龍) 등 동인에 의해 묵살당하였다.

직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 말을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마침내 구역별로 의병을 일으킬 계책을 세우고, 같은 고을에 있는 전 부사 김천일의 집으로 찾아가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를 함께 구제할 것을 맹세하였다.

고향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 군량을 갖추어 놓고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리니, 10일 동안 정예병 수백 명을 얻었다. 그러나 이윽고 이일(李鎰)[325]은 패하고 신립(申砬)[326]은 죽었으며, 적들은 끊임없이 달려 서울을 핍박하였고, 어가(御駕)는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공은 밤낮으로 통곡하면서도 군대 다스리기를 더욱 급박하게 하였다. 게다가 또 본도의 감사(監司) 이광(李洸)이 7만 병력을 이끌고 금강까지 갔다가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급히 군대를 해산하자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공은 너무나 분하고 답답해서 김공과 함께 격문을 띄워 죄를 성토하게 하여 군대를 해산시킨 이유를 묻고자 했다.

당시 태헌(苔軒) 고경명도 두 아들 종후, 인후(因厚)와 함께 또한 광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김공에게 글을 보내며 말하기를 "순찰사가 임금을 위해 힘쓰지 않은 것은 진실로 죄가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우리가 멋대로 처치하는 것은 일의 이치와 정황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김공과 의논하며 말하기를, "나랏일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는 일을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는 기일을 정하여 의병을 모으고 곧 김공을 맹주로 추대하였다. 김공은 강개한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공을 부장(副將), 공의 형 산룡을 운량장(運糧將), 그리고 자기 아들 상건을 종사(從事)로 각각 임명하고 도내 전체에 격문을 띄우니, 그에 응하여 도내에 모여드는 자가 매우 많아 병사들의 위엄이 크게 떨쳤다. 6월에 나주에서 출병할 때 아우 산축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며 말하기를 "늙은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 어머님을 봉양하고 또 의곡(義穀)을 모아 군량에 보태라."라고 하고는 마침내 술잔에 술을 부으며 서로 이별하고, 어머니께는 글을 지어 작별을 고하였다.

이달에 삼로(三路)의 군대가 용인에서 무너지자 전라도와 충청도의 사람들은 굳게 먹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서 여러 의병에게 의지하는 것이 매우 소중했다. 이에 앞서 고공(高公)과 날짜를 잡아서 함께 행재소(行在所)로 가기로 했으나, 고공의 행차는 병사들을 모으느라 잠시 뒤처

---

325) 이일(李鎰): 1538~1601.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중경(重卿)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도 순변사가 되어 북상하는 왜적을 상주에서 맞아 싸우다가 크게 패배하고 충주로 후퇴하였다. 충주에서 도순변사 신립(申砬, 1546~1592)의 진영에 들어가 재차 왜적과 싸웠으나 패하였다. 『損窩遺稿 卷13 巡邊使武勇大將李公諡狀』.

326) 신립(申砬): 1546~1592.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입지(立之),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 순변사로 충주 탄금대(彈琴臺)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다가 참패하고 남한강물에 투신하여 순절하였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졌고 공은 김공과 함께 곧장 북로(北路)로 향하였다. 김공은 공이 병사들의 일에 능숙한 것을 본래 알고 있었기에, 군중의 일을 모두 공에게 맡겼다. 공은 호령이 분명하며 엄숙하였고, 사졸들과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하였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이 감사히 여기며 떠받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오(隊伍)는 잘 정돈되었고, 기율(紀律)은 엄명하였으니, 여러 의병 중에 으뜸이었다. 이때, 적은 사방으로 펼쳐져 진을 치고 있어 기세등등했으니, 병영들은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쥐구멍만을 찾을 뿐 감히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 적에 대항할 자가 없었다. 관군과 의병들도 오직 자기 고을을 각자 지킬 뿐이었다. 조정의 명령이 남방에는 통하지 않았고 임금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공이 강개하여 장차 분문(奔問)하려 할 때에 김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강화도는 남쪽과 북쪽의 요충지이자 수로와 육로의 요새인데, 적들에게 빼앗길까 걱정이 됩니다. 마땅히 먼저 점거하여 지킨다면 조정의 명령도 통할 수 있고 나라의 명맥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립된 군으로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홀로 설 수 없을 것이니 응당 지략이 있는 자를 보내서 호서의 의병을 모아 적들의 칼날을 막아내고, 호남, 영남과 함께 완급(緩急)에 따라 서로 구하게 한다면 그 명성과 위세를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자 김공이 그것을 따랐다. 마침내 배를 타고 바다를 따라 강화로 진을 옮겼고, 공은 곧 밀서를 가지고 다만 발걸음으로 낮에는 잠복했다가 밤에는 걸어서 7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의주에 닿았다. 선조가 그것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불러들였다. 산숙은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현재 적의 형세와 여러 신하가 의병을 일으킨 사실을 매우 자세하게 아뢰니, 임금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남쪽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오늘 너를 보고서야 비로소 옛 강산이 아직은 보존되고 있음을 알았구나." 하였다.

산숙이 대답하기를 "신은 백면서생(白面書生)으로서 다만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 이 한목숨 바친다는 생각뿐, 성패(成敗)와 이둔(利鈍)에 있어서는 오직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뒤이어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계책에 대해 글을 써서 올리니, 주상은 위로와 장려를 모두 지극히 하셔서 특별히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제수하였다. 그리고 김천일은 창의사, 고경명은 초토사에 임명하였고 교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에 대략 말하기를 '의주 한 모퉁이에 한 나라의 운명 어렵기도 하구나. 땅은 이미 다 쇠하였으니 나는 장차 어디로 돌아갈까. 인정은 이미 궁구해져 이치상 응당 회복할 것을 생각하리라. 가을 기운이 언뜻 동함에 변경에는 추위가 일찍 닥치는구나. 저 장강을 바라보니 또한 동쪽으로 흐르고 있네. 돌아가고 싶은 마음 물이 넘치듯 북받치는구나.'라고 하였다. 또 고경명에게 내린 회복교지(恢復敎旨)에 말하기를 '모든 읍을 조절하고 제어해서 도성을 수복하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약물을 집어 산숙의 손바닥에 두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거든 김천일, 고경명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제때에 도성을 회복하여 내가 그대들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니, 산숙은 명을 받들고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고 물러났다. 조정의 신하 중에 이곳에 머무르면서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하는 자가 많았는데, 공은 한사코 사양하며 느낀 감회를 시로 지어 말하기를,

천릿길을 달려와 속마음을 토로하며 우리 임금 뵈었는데	千里刳肝謁紫宸
가까이 서로 대화 나눔에 임금의 목소리 자주 들렸네	密承酬酢玉音頻
남다른 은혜 뼈에 새겨졌으니 끝내 무엇으로 갚으리오	殊恩到骨終何補
이 한목숨 바치는 것이 바야흐로 주상께 보답함을 알겠노라	一死方知報主辰

하였는데, 이는 벌써 자신이 죽기로 맹세를 하였던 것이었다.

공은 돌아와 강화도에 이르러서, 병마가 늘어선 앞에서 교서를 읽으니 장수와 병사 중에 눈물을 흘리며 죽기를 각오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또 고공에게 내린 교지를 고공에게 빨리 전하였는데 그때 고공은 자기 아들 인후와 함께 이미 금산의 전투에서 죽고 없었다. 공이 의주에서 돌아온 뒤, 삼남지방이 비로소 임금의 행차가 머무르고 있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조운(漕運)을 행조(行朝)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사신들의 명령도 하도(下道)까지 통하게 되니 인심이 마치 장성(長城)처럼 의지하게 되었다. 그보다 앞서 조정에서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었는데, 계사년(癸巳年) 1월에 중국의 장수 이여송 등이 군대를 이끌고 요하(遼河)를 건너와 평양성(平壤城)에서 적을 크게 쳐부쉈고, 승세를 타고 삼경을 수복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중국의 장수가 적과 연합하여 여러 적은 물러나 영남으로 내려왔고, 물가를 따라 목책을 설치하고 나누어 주둔했다. 공은 창의사와 함께 적을 뒤쫓아 함안에 이르러 적의 진퇴를 살폈는데 그때는 관군과 의병이 모두 함안 등지에 집결되어 있었고 송강 정철은 체찰사(體察使)였다. 공이 말하기를 "정공(鄭公)이 비록 맑은 명성과 단아한 지조가 있다 하더라도 군대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니 매우 걱정이 된다."라고 하였다.

왜장 청정이 일찍이 진주에서 불리했었기에, 그로 인하여 호남을 공격하려 하였다. 6월 14일, 여러 우두머리와 병사들 수십만과 합세하여 동래로부터 곧바로 진주로 향하였다. 총병 유정이 그때 대구에 있으면서 청정에게 글을 보내 이로움과 해됨으로써 타일렀으나 듣지 않았고, 유격 심유경은 평행장(平行長)의 진(陣)에 있으면서 평행장에게 청정을 만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나 행장이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청정이 주장한 것이지 나와는 관계가 없소. 백방으로 말을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니 차라리 먼저 성을 비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창의사가 그것을 듣고는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적들의 꾀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다만 진주만을 공격하려 한다.'라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진주는 호남과 매우 밀접하여 서로 입술과 이가 되고 있는데 만약 진주를 지키지 못한다면 화가 반드시 호남에까지 미칠 것이다. 응당 모두 힘을 합하여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여러 장수와 수령들은 응하지 않았다. 순변사(巡邊使) 이빈(李薲), 홍의장(紅衣將) 곽재우는 단성

에서 곧바로 산군(山郡)으로 들어갔고, 좌의병장(左義兵將) 임계영은 사천에서 곧바로 호남으로 돌아갔으며, 전라병장(全羅兵使) 선거이(宣居怡), 조방장(助防將) 홍계남(洪季男)도 모두 피해 가버렸다. 공이 창의사에게 이르기를 "성을 버려 적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의리가 아니요, 또한 적들이 만약 진주에서 뜻을 얻게 되면 반드시 호남을 향해 멀리서부터 달려올 것입니다. 지금 적 막아내는 것을 울타리 바깥에서 하지 못해서 설령 그들이 들어온다면, 마치 세찬 파도가 치는 것과 같아서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굳게 지켜 그들의 칼날을 막아내는 것 만한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서로 적수가 되지 못하고, 적군은 많고 아군은 적은 것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만들어낼 만한 계책도 없이 다만 스스로 어려운 곳으로 달려 나가는 것은 비유하자면 섶을 안고 불을 끄러 가는 것과 같으니 청컨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창의사가 말하기를 "장차 어떤 계책을 내야 하겠소?"라고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중국 군대에게 구원을 청하여 그들을 외원(外援)으로 삼고, 그렇게 한 뒤에 우리 군대는 성벽을 견고히 쌓아 막으면서 안팎으로 협공(夾攻)하면 아마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김공도 그 계책을 듣고 옳게 여겼으나 상황이 이미 너무 긴급해져서 마침내 진주로 향했다. 경상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 거제현령(巨濟縣令) 김준민(金俊民), 해미현감(海美縣監) 정명세(鄭名世), 사천현감(泗川縣監) 장윤, 복수장 고종후, 부장(副將) 오유, 의병장(義兵將) 이계련(李繼璉), 민여운(閔汝雲), 강희보(姜希甫) 등등이 각기 군대를 끌고 달려가고 김해부사 이종인은 먼저 들어와서 지키고 있었다. 공은 병으로 인하여 뒤처져 있다가 다음 날에야 발길을 재촉하여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공에게 말하기를 "적들은 반드시 그 성을 얻고자 할 것인데 어찌 스스로를 가벼이 여겨 위태로운 곳으로 가려 하는가?"라고 하였는데 공은 듣지 않고 성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창의사는 즉시 공과 홍함(洪涵) 등을 총병 유정에게 보내 원병을 청하게 하였는데 공의 사기가 너무 강개하여 말과 함께 눈물이 쏟아져 유정도 얼굴빛을 고치고 탄식하였지만, 오히려 군대를 내주는 것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공은 분하고 한스러워하며 돌아와 진주의 경내에 들어갔는데, 적들은 이미 성 가까이 와 있었고 그것들을 본 홍함 등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다. 공은 울면서 말하기를,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구차히 모면하려고만 해서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홀로 사지에 빠지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하고서 홀로 말을 타고서 달려 나갔다. 그러나 적들이 둥글게 포위하고 있어 성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이에 남강에서부터 헤엄쳐서 해안가에 도달하니 온 군대가 모두 놀랐다. 그리고 공이 아직 돌아오기 전 분의장(奮義將) 강희열 또한 달려왔고, 적개부장(敵愾副將) 이잠(李潛)도 군대를 거느리고 와 모였는데 성을 지킬 방법과 계략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공은 여러 장수와 함께 온 힘을 다하여 적을 막았다. 21일에 적들은 성을 세 겹으로 에워쌌으나 진군하던 군사들도 성안에서 움직이지 않자 적들은 이내 물러났다. 다음날, 적들은 또 진격해와 성에 가까이 붙어서 하루종일 총알을 마치 비처럼 퍼부었다. 성안

에서 힘을 다해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날 밤 적들은 함성을 크게 지르며 동문 쪽에서 성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황진 등이 몸소 힘써 혈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목사(牧使) 서예원은 이리저리 넘어지며 조치를 잘하지 못했다. 공은 창의사에게 장윤으로 하여금 목사 일을 대신하게 해서 병사들의 사기가 조금 되살아났지만, 때마침 많은 비가 내려 성 한쪽 모퉁이가 무너져 버렸다. 공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있구나."라고 하였다. 그때 갑자기 적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마구 난입하니 김준민이 힘써 싸우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27일에는 강희보가 전사했으며 또 다음 날엔 황진, 장윤 등이 서로 연달아 총에 맞아 죽었다. 공은 마치 친척을 슬퍼하듯 통곡하니 그 때문에 장수와 병사들은 더욱 감격하여 모두 목숨을 바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날 성 동쪽 모퉁이가 또 크게 무너져내려 적들은 개미 떼처럼 그곳에 붙어 들어왔고 이종인은 단병(短兵)을 들고 육박전을 벌였다. 적은 또 서북쪽 문을 따라 칼을 휘두르고 날뛰며 쳐들어왔는데, 서예원이 그것을 바라보고 먼저 도망치는 바람에 여러 군사도 마침내 크게 무너져서 그 기세가 마치 무너지는 흙 같았다. 여러 장수는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는 모두 촉석루로 올라갔다. 공과 김상건도 창의사를 함께 부축하여 북을 향해 두 번 절하고 장차 남강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공은 평소에 헤엄치는 것에 익숙했는데, 김공이 말하기를 "그대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으니 노력했다가 다시 도모하여 이 구적(仇賊)들을 섬멸하라."라고 하였고, 여러 의병장도 역시 모두 공에게 물에서 나갈 것을 권하였다. 공이 울면서 말하기를 "이미 일을 함께 하였으니 어찌 차마 홀로 살아남겠습니까?"라고 하고는 마침내 먼저 강에 몸을 던져 빠져 죽으니, 이때 공의 나이 33세였다. 창의사 김공과 그의 아들 상건, 고종후, 막하(幕下) 오빈(吳玭), 김인혼(金麟渾), 고경원(高敬元), 병사 최경회, 막하(幕下) 문홍헌이 동시에 강으로 들어가 죽었다. 강희열, 오유, 이잠 등 10여 명은 무딘 칼을 휘둘러 적들을 베고 죽기를 각오하며 저항하다가 이내 죽었고, 이종인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싸우다가 남강까지 이르러서는 왼쪽과 오른쪽에 적을 끼고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공의 형 산룡은 군량 확보를 위하여 호남으로 나갔었는데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 함께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위아래로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아우의 시신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강 위에서 동생의 혼을 부르며 돌아가니, 진주 사람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해 8월 나주 북쪽 송천공(양산숙)의 묘 아래다 의관을 묻어 장례를 치렀고, 이 일이 소문이 나자 창의사와 함께 진주의 창렬사, 나주의 정렬사(旌烈祠)에 배향하게 하였다. 인조 9년(1631)에는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고 그 가문에는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공의 아내는 숙부인(淑夫人) 광산이씨(光山李氏)로 교수(敎授) 의정(義貞)의 딸이다. 공이 죽은 후 상제(喪祭)의 범절을 친히 살펴서 곡하고 슬퍼할 때도 절도가 있었고, 일찍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한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정유재란 때 공과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전 가족

이 삼향포로 피난을 떠났는데 배가 미쳐 바다로 나가기 전 적선이 갑자기 다가오자, 어머니는 면할 수 없음을 알고는 급히 두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의리상 욕을 당할 순 없다."라고 하고는 몸을 일으켜 바다로 뛰어들었다. 온 식구가 황급히 달려가 건져서 구하자 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나의 계획은 결정되었다."라고 하고는 끝내 바다로 뛰어들었고 두 아들도 함께 어머니를 붙잡고 물로 들어갔다. 그리고 생원(生員) 공의 아내 류씨(柳氏), 진사 김광운의 아내였던 누이동생, 김두남(金斗南)의 아내였던 족녀(族女), 그리고 현령 임환의 첩이었던 생원(生員) 공의 서녀(庶女), 이 모두가 같은 날 다 같이 물에 빠져 죽었다. 부인 이씨(李氏)는 공의 제수(弟嫂)인 고씨(高氏)와 함께 바다에 몸을 던졌다가 종들이 도와 꺼내주었는데, 이때 부인은 평소에 차고 다니던 칼을 찾으며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당장 죽지 않은 것은 시어머니와 우리 함께 형제자매가 모두 바다에 빠져들었기에, 장차 조수가 빠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모든 시신을 수습하려 한 것이다. 적이 만약 다가온다면 마땅히 자살할 것이다."라고 하고는 포구 앞의 산에 숨어 있었다. 적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곧바로 앞까지 다가가자 부인은 칼을 뽑아 스스로 목에 그으니, 적들은 탄식하며 물러갔다. 고씨(高氏)가 여러 시신을 함께 수습했는데 부인의 칼은 아직도 목에 꽂혀 있었고 공의 목주(木主)는 그 등에 있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슬퍼하며 말하기를 "이씨가 한 일은 매우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이씨는 공의 무덤에 함께 부장(附葬)되었고 또한 그 집안에 정려(旌閭)도 내렸으나 공의 후사는 마침내 끊어져 버렸으니 슬픈 일이로다. 아아, 임진왜란 때 충신과 열사들이 죽음 보기를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여겼으니 나라가 북돋아 길러줬던 두터움을 볼 수 있구나. 진주에서의 전투에서는 그 절개가 매우 탁월했고, 그 공로는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대개 적들이 성난 병사들로서 비록 한 번 용감하게 일어난 데에서 기뻐했을지라도, 날랜 군사들과 용감한 군졸들을 견고한 성 아래에서 꺾어버렸기에 마침내는 호남을 마음대로 무찌르지 못했으니 이는 바로 당나라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327]이 수양(睢陽)을 지키기 위해 강회(江淮)를 차단한 힘과 같은 것이다. 공과 같은 자는 미리 난리가 일어날 조짐을 보고서 끝내 몸 바쳐 순국하였으니 조문열(趙文烈, 조헌)과 닮아 있도다. 어찌 그리 위대한가. 상국(相國) 이항복(李恒福)은 일찍이 당시 창의(倡義)했던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를 "조용히 의로운 곳으로 나아갔던 자는 김천일, 양산숙뿐이었다. 양산숙과 같은 자는 일개 포의로서 얼핏 보면 죽어도 될만한데 자세히 보면 죽지 않아야 할 자였다. 성이 함락되던 날에 김천일은 그에게 성을 나가 다시 도모할 것을 권

327)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당 현종 때의 관리로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장순은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허원은 수양 태수(睢陽太守)로 있으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안녹산의 군대에 맞섰으나, 성이 포위된 지 몇 개월 만에 구원병도 오지 않고 양식도 떨어져 성은 함락되고 적들에게 사로잡히는 몸이 되었다. 그 뒤 낙양으로 압송되어, 그들의 회유에 뜻을 굽히지 않고 저항하다 죽음을 당하였다.

하니, 양산숙은 떨쳐내며 말하기를 '의리상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고는 먼저 강에 몸을 던져 죽었으니, 평소의 지조가 확고한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공을 알고 있다고 말할 만하다. 명은 다음과 같다.

지난 임진년은	粤歲壬辰
액운[328]을 만난 해였도다	時維百六
일본이 물결을 내뿜음에	炎海噴浪
왜적들은 이빨을 갈았도다	長鯨厲齶
삼경이 무너지고	三京土崩
여러 병영은 넋이 빠졌으며	列閫褫魄
승여는 멀리 파천의 길을 갔고	乘輿遠播
나라의 운세는 서쪽이 곤궁해졌도다	國步西蹙
독한 총알과 예리한 칼이	毒丸利劒
우리를 어육으로 만들었도다	我魚我肉
일개 포의로서 하늘을 향해	一介布衣
부르짖으며 크게 통곡하고	叫天大哭
옷을 찢고 막대기를 휘두르며	裂裳奮梃
피를 뿌려 격문을 띄었도다	灑血飛檄
의로운 소리가 한 번 울리자	義聲一倡
선비들의 기운이 모두 격분하여	士氣咸激
이름난 선비는 맹주가 되고	名儒尸盟
도모하는 자들은 계책을 내놓도다	謀夫獻策
남쪽에서 우뚝 솟아오름에	屹然南方
백성도 있고 나라도 있었으나	有民有國
지방관들이 법도를 잃고	方岳失律
창을 강물 굽이치는 곳에 던지자	投戈河曲
적의 기세는 함부로 날뛰었고	賊勢跳梁
인심은 흔들리고 분열되었도다	人心蕩析
누가 임금에게 안부 묻고	有誰奔問

328) 액운: 대문의 백육(百六)은 106년마다 돌아온다고 하는 불운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漢書 卷85 谷永傳 注』)

위태로운 나라를 부지할 수 있겠는가 手扶國脈
저 강화도를 보라 旪彼江都
뭍과 육지로 가로막혀있도다 橫遮水陸
고립된 군사들이 노를 두들기며 孤軍擊楫
창해를 한번 뛰어넘음에 滄海一踔
오른쪽으로는 호남과 경기를 두드리고 右控湖甸
왼쪽으로는 관서와 삭방을 연결하였도다 左連關朔
밀서를 품에 안고 蠟紙在懷
밤에는 나아가고 낮에는 잠복하였도다 宵征晝伏
호위하던 선비들이 재빨리 아뢰어 衛士飛奏
행전(行殿)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도다 行殿曉闢
아 우리의 남쪽 땅 嗟我南土
소식은 아득하고도 아득했고 聲息杳邈
들에는 호랑이만이 가득했는데 豹虎滿野
아직도 강역은 보존되고 있었도나 尙保疆域
나주의 한구석에 一隅錦城
산숙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有臣山璹
그의 이름 들어보지 못했건만 不聞其名
지금 그의 발은 부르텄구나 今繭其足
의군이 벌떼처럼 일어남에 義旅蜂起
조종에서는 은택을 더하여 祖宗遺澤
벼슬에 제수하고 약을 하사하였도다 授官賜藥
그대들을 부흥에 힘쓰라 勉爾興復
창의사와 초토사에 제수하니 倡義招討
김공과 고공은 이에 노력하였도다 金高是勘
사은숙배 후 본진으로 돌아와 拜辭還鎭
병사들 늘어선 앞에서 교서를 읽으니 陳兵宣讀
삼군이 피가 끓어 힘써 三軍揮血
싸울 것을 마음에 맹세하였도다 誓心殫力
명군이 동쪽으로 내려와 天兵東下
천릿길을 자리를 말아버리듯 하니 千里捲席
남은 병사들은 남쪽으로 도망쳐 왔도다 殘甲南遁

곤궁한 짐승들이 독을 품기 시작하여 困獸思毒
저 높은 진주성은 巢巢晉陽
호남과 영남의 척주인데 湖嶺之脊
옛날에 저들이 장차 먹으려다가 昔彼將噬
마치 목에 고기가 걸린 듯 먹지 못하였도다 如喉有腊
그들은 무리 6만여 명으로 其衆大萬
산을 깎고 골짜기를 무너뜨렸는데 剗山夷壑
하란[329]이 좌시하는 바람에 賀蘭坐視
수양은 위급해졌고 睢陽其亟
장사들의 힘은 다하였도다 壯士力盡
흉악한 칼날들이 육박해 오는데 兇鋒肉薄
어찌 하늘은 궂은비까지 내리게 하여 胡天霪雨
고립된 성의 담을 터지게 하는가 孤堞中坼
성의 앞으로는 큰 강과 닿아있고 前臨大江
촉석루가 있었으니 有樓矗石
대장부가 죽어야 할 곳이니 男兒死耳
내가 살 바를 이에 얻었도다 我所爰得
서쪽을 바라보고 임금께 하직하고 西望報君
스스로 움직여 먼저 물에 몸을 던짐에 奮身先擲
여러 충신도 운명을 함께 하니 羣忠駢命
하늘도 태양도 빛이 변하였도다 天日變色
온 식구가 바다를 가득 채워 闔門塡海
욕되지 않게 항의하였으니 抗義不辱
옛날의 안·변[330]에 견주니 比古顔卞
천 년 동안 함께 빛나리라 千載並焯
바다에 잠긴 공의 뼈를 公骨浮水

---

329) 하란: 하란 진명(賀蘭眞明)을 가리킨다. 당나라 숙종(肅宗) 때 하남 절도사(河南節度使)로서 임회(臨淮)에 주둔하고 있었다. 윤자기(尹子奇)가 수양(睢陽)을 포위하자 장순(張巡)이 남제운(南霽雲)을 임회로 보내 구원을 요청했으나, 장순의 명성이 높고 자기보다 공이 많은 것을 질투하여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수양이 함락당하게 하였다. (『唐書』 卷5 「玄宗本紀」)

330) 안·변: 당나라 현종 때의 안고경과 남북조시대 서진(西晉)의 변곤(卞壼)을 함께 부르는 말로 둘 다 반란군과 싸우다 순절하였다.

교룡도 먹지 않았고	蛟龍不食
공의 의복을 땅에 묻으니	公衣埋地
빛이 위로 솟구쳤도다	光氣上燭
그 명성이여 사라지지 않으리니	名兮不滅
어찌 돌에 새기리오	何石之鐫
두 사당이 나란히 우뚝 솟아	雙祠並峙
우리의 남쪽 지켜주신다네	鎭我南服

순조 병자년(1816). 수의(繡衣) 조만영(趙萬永)이 도내의 유장(儒狀)에다 제(題)하며 말하기를 "양씨의 가문에 충현(忠賢)이 대를 이어 오고 운손(雲孫)과 잉손(仍孫)들도 효도로 소문이 났으니, 호남의 망족이 된 이유이다. 어찌 이루다 감탄할 수 있겠는가? 중종 5년 경오년(庚午年, 1510)의 삼포왜란(三浦倭亂)[331]과 선조 25년의 임진왜란(壬辰倭亂), 그리고 영조 4년의 무신란(武臣亂) 때 모두 저와 같이 훌륭한 공을 세워 백 세대 동안 그 명성이 들려와 오히려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시호의 은전을 내리는 것에 어찌 많은 말이 필요하겠는가. 마땅히 한 일을 잘 헤아려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같은 해 6월 어느 날, 수의신(繡衣臣) 조만영이 아뢰어 말하기를 "도내에 절의(節義)와 효열(孝烈)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자들은 하나둘에 그치지 않지만, 다만 세상에 드러난 것은 공론이 오래도록 침울하여 있다가 등문(登聞)한 것입니다.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순절한 자가 많기로는 호남이 으뜸인데, 그중에서도 승지(承旨)에 추증된 신하 양산숙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삼장사 중의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양산숙은 선정신(先正臣)인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학업을 배운 사람으로서 앞장서서 의려(義旅)를 일으켰고, 몸소 행재소로 가 임금을 알현하였습니다. 선조께서 직접 불러 보시고 공조좌랑(工曹佐郎)에 특별 제수하였으며 또 교서를 내려 돌아가 호남과 영남을 유시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에 이르러서는 김천일, 고종후와 함께 북을 향하여 두 번 절한 후 남강에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돌아가신 상신(相臣) 이항복은 또한 '조용히 의리를 위하여 죽으면서 자기 지조를 잃지 않았던 이는 김천일, 양산숙 두 사람 뿐이었다.'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후 진주와 나주 등의 읍에 사당을 세워 배향되기도 하였던 바, 그 당시 절개를 지키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역명(易名)의

331) 삼포왜란(三浦倭亂): 삼포는 세종 때 일본 사람들의 왕래를 허가한 동남 해안의 세 포구로서 동래(東萊)의 부산포(釜山浦), 창원(昌原)의 제포(薺浦), 울산(蔚山)의 염포(鹽浦)를 가리킨다. 이후 삼포를 왕래하는 일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폐단이 심각할 정도에 이르자, 1510년 조선에서는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통고하여 그들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또 일본 선박에 대한 감시를 엄중히 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삼포의 일본인들이 대마도주의 지원을 받아 폭동을 일으킨 일을 말한다.

은전을 받았으므로 산숙의 순수한 충성과 위대한 절개도 은전의 전부를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비답하여 말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주사(籌司)의 신이 회계(回啓)하여 말하기를 "그 첫 번째는 승지(承旨)에 추증된 나주 사람 양산숙의 시호에 관한 일과, 장흥 사람 고 학생 정광로(鄭光露)에 포이(褒異, 표창)에 관한 일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충(忠)이요, 한 명은 효(孝)로써 모두 널리 권장해야 할 사람들이니 두 사람을 담당 아문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여 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예조판서(禮曹判書) 조덕윤(趙德潤)이 아뢰어 말하기를 "양산숙은 어진 스승의 우수한 제자로서, 난리를 당하여 창의하였다가 마침내는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으니 그의 높은 충성과 아름다운 절개가 지금까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은덕에 보답할 때는 마땅히 남아있는 섭섭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역명의 은전에 이르러서는 그 당시 함께 죽었던 여러 신하가 모두 함께 입은 은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적합했던 한때의 일이었지만, 당시에 산숙에게 추증된 작위와 봉록은 시법(諡法)의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격례(格例)로 살펴보았을 때 급히 의논할 수는 없으나, '그에게 정이품(正二品)의 품계를 더 해준다.'라는 한 안건만은 이조(吏曹)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여 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고,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兼)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을 추증하였다.

순조 19년 5월 19일

출전 : 양남진 · 양흥렬 역, 『(국역주해) 송천집』, 章山齋, 1988

公諱山璹。字會元。耽羅星主良氏之後也。新羅賜姓梁。仕高麗。多聞人。暨我朝。有弘文校理彭孫。與靜菴趙先生共贊至治。同遘士禍。世稱學圃先生。卽公大父也。考諱應鼎。以文章德望重一世。官大司成。號松川。妣貞夫人竹山朴氏。判官仲允女。以皇明世宗四十年辛酉。生公。卽我明宗十六年也。公儀容端粹。聰穎好學。及長。專心經典。不屑公車業。文辭亦高雅。松川公甚器異之。博涉羣書。傍通天文地理。且究兵學。松川授以陣圖。窮其合變之術。辛巳。遭松川公憂。率禮無愆。是時。牛溪成先生講道于坡山。公負笈千里而就質焉。先生深許其精詣。公夜觀乾象。晝察人事。知大亂將作。每登高望遠。歔欷流涕。乃卜居于羅州南三鄕里。距家百餘里。日覲偏親。步行習勞。人皆怪之。丁亥三月。倭犯興陽。殺鹿島萬戶李大源。公嘆曰。邊警若此。而人無憂者。奈何。戊子春。倭人遣對馬島橘康光求和。公曰。禍在不遠矣。欲覘倭情。馳往南原。見宗人梁大樸。請與俱踰八良峙入嶺南。托護行卒。密探於諸倭。始知日本王源義藤。爲平秀吉所滅已十餘年。而我國不知也。康光初到東萊。府使享之。酒行。康光輒落盃破之。公與大樸耳語曰。彼雖求和。實欲破盟也。及到尙州。牧使宋應泂以妓樂享之。旣出。公問其何言。應泂曰。康光言。老夫積年干戈。鬚髮

種種。而使君處聲妓中。何若是皓白云。公謂大樸曰。彼言諷我也。托以聘好覘我虛實矣。己丑春。倭使玄蘇等。又來請通信使。公曰倭欲試我兵力。比年來寇。每歲求和。而廟堂尙不知備。國事可知。自是遍遊三南。察人情。相地勢。至十二月。持斧伏闕上疏。語多激切。不避權貴。且言趙憲預知汝立必叛。可謂先見。而尙在遠謫。上特命放還。趙公歸到吉州。又抗章極言時宰之誤國。公兄山龍亦上疏言事。時人皆斥以狂妄。庚寅春。我使黃允吉等。以回答使赴日本。辛卯。與彼使玄蘇等偕來。而倭書極凶悖。公聞之。撫釰長歌而已。及翌年壬辰。倭大擧入寇。聲言五十萬。四月十三日渡海。連陷釜山,東萊。於是。嶺南一路。望風奔潰。無敢嬰其鋒者。公聞變自三鄕里。仗劍來朴山故居。與兄山龍,弟山軸。痛哭失聲。入告母夫人曰。國危如此。子等將死於王事。夫人曰。吾家世受國恩。救國而死。得其所矣。若等其努力。公哭謂兄弟曰。先君子十年前。每說南憂。勉我曹以報國。言猶在耳。其何敢忘。遂區劃擧義之策。馳往同州前府使金公千鎰家。誓與共濟艱危。倡募鄕兵。經辦糧餉。傳檄列邑。旬日之間。得精兵數百。旣而聞李鎰敗。申砬死。賊長驅逼京城。車駕播遷。公日夜痛哭。治兵益急。本道監司李洸領七萬兵到錦江。聞都城失守。蒼黃罷兵。人心洶洶。公憤惋甚。欲與金公馳檄聲罪。問罷兵之由。時高苔軒敬命與二子從厚,因厚。亦起義於光州。移書金公曰。巡察不勤王。誠有罪。然擅自處置。恐傷事體。遂止。與金公議曰。國事至此。勤王不可少緩。期會義兵。卽推金公爲盟主。金公慷慨登壇。以公爲副將。公兄山龍爲運糧將。以其子象乾爲從事。傳檄道內。應都坌集。兵威大振。以六月。出師於羅州。留弟山軸曰。老母在堂。汝則歸養。募聚義穀。資助餉師。遂酌酒相別。修書告訣於母。是月。三路兵潰於龍仁。兩湖益無固志。而倚諸義兵爲重。先是。與高公約日同赴行在。高公行收兵在後。與金公直向北路。金公雅知公習於兵。軍中事悉以委公。公號令明肅。與士卒同甘苦。一軍感戴。由是隊伍之整。紀律之嚴。爲諸義旅最。是時。賊陣四布。勢甚鴟張。列閫畏縮鼠竄。無敢出兵抗賊者。官軍及義兵。惟各守州縣而已。朝廷命令。不通於南方。不知君父所在。公慷慨將奔問。謂金公曰。江都。南北要衝。水陸關防。恐爲賊窟。宜急先據守。朝命可通。國脈可保。但孤軍深入。無以獨立。宜遣智略士。募湖西義兵。沮遏賊鋒。與兩南緩急相救。則聲勢可以相倚矣。金公從之。遂由木道。沿海移陣江華。公卽齎蠟書。徒步晝伏夜行。七月。始抵龍灣。宣廟聞之。大喜。卽召入。山璹伏地痛哭。前奏賊勢及諸臣起義事甚悉。上爲之流涕曰。久不聞南方消息。今見汝。始知舊疆之猶保矣。山璹對曰。臣以白面書生。但思一死報國。至於成敗利鈍。一聽於天矣。因書進興復之策。上慰奬備至。特除工曹佐郎。卽拜千鎰倡義使。高敬命招討使。授以敎書。其略曰。龍灣一隅。天步艱難。地維已盡。予將何歸。人情已窮。理宜思復。秋凉乍動。邊地早寒。瞻彼長江。亦流于東。思歸一念。如水滔滔。又授高敬命恢復敎旨曰。節制列邑。收復都城。以御手親賜藥物于山璹掌中。諭曰。歸語金千鎰高敬命。爾等及時恢復。俾見予有日也。山璹承命。揮涕拜稽以退。朝臣多勸留同仕者。公固辭。感而賦詩曰。千里刳肝謁紫宸。密承酬酢玉音頻。殊恩到骨終何補。一死方知報主辰。蓋以死自矢也。還到江都。陳列兵馬。宣讀敎書。將士莫不揮涕効死。又飛傳敎旨于高公。高公與其子因厚。已死錦山之役矣。公歸自龍

灣。三南州郡。始知鑾蹕所駐。由是。漕運達于行朝。使命通于下道。人心倚之如長城。先是。朝廷遣使求救於天朝。癸巳正月。天將李如松等帥師渡遼。大破賊於平壤城。乘勝收復三京。未幾。天將與賊連和。諸賊退下嶺南。設柵分屯於沿海。公與倡義使竭力追躡。至咸安覘賊進退。時官軍義兵。皆集於咸安等地。而鄭松江澈爲體察使。公曰鄭公雖有淸名雅操。而不知兵。甚可憂也。淸正嘗不利於晉州。因擊湖南。六月十四日。合諸酋兵數十萬。自東萊直向晉州。劉摠兵絰時在大丘。移書淸正。喻以利害。不聽。沈遊擊惟敬方留平行長所。力說勸挽之。行長曰。今日之擧。淸正主之。吾不預焉。開說百端無益。不如先自空城。以快其心也。倡義使聞之。謂諸將曰。賊謀難測。奚信只攻晉州之言乎。況晉密邇湖南。互爲脣齒。晉若不守。禍必及湖。宜并力堅守。諸將守令多不應。巡邊使李贇,紅衣將郭再祐自丹城。徑入山郡。左義兵將任啓英自泗川。直還湖南。全羅兵使宣居怡,助防將洪季男亦皆避去。公謂倡義使曰。棄城資賊。非義也。且賊若得志於晉州。必長驅湖南。今禦賊不於籬外。而縱之入。如狂瀾之決。不可防也。莫如固守以遏其鋒。然强弱不敵。衆寡懸殊。我無制勝之策。而只自赴難。譬如抱薪而救火。請熟慮之。倡義使曰。計將安出。公曰。求救於天兵。以爲外援。然後我軍堅壁以禦。表裏夾攻。庶可濟事。金公然其計。而事已急。遂向晉州。慶尙兵使崔慶會,忠淸兵使黃進,巨濟縣令金俊民,海美縣監鄭名世,泗川縣監張潤,復讐將高從厚,副將吳宥,義兵將李繼璉,閔汝雲,姜希輔等。各領兵來赴。金海府使李宗仁先已八守。公以疾在後。翼日。倍道馳進。人謂公曰。賊必欲得城。何乃輕身赴危地。公不聽。馳入城。倡義使卽遣公及洪涵等。乞師於劉摠兵絰。公辭氣慷慨。言淚俱發。絰改容嗟嘆。猶不肯出兵。公憤恨以還。入晉境。賊已逼城。洪涵等棄走。公泣曰。臨危苟免。使主將獨陷死地。可乎。單騎馳進。賊兵環圍。城不可入。乃自南江。游泅以達岸。一軍皆驚。公之未歸。奮義將姜希悅亦馳來。敵愾副將李潛領兵來會。嬰城方略已定。公與諸將。戮力捍禦。二十一日。賊繞三匝。城中按兵不動。賊乃退。翌日。又進薄城。飛丸終日如雨。城中力拒。是夜。賊自東門大喊登城。黃進等奮身血戰。時牧使徐禮元顚倒失措。公言於倡義使。以張潤攝州事。兵氣稍振。會天大雨。城一隅壞。公仰天歎曰。謀事在人。成事在天。俄而賊大喊闌入。金俊民力戰死之。二十七日。姜希輔死之。又翌日。黃進,張潤等相繼中丸死。公哭之慟。如悲親戚。將士由是感激。皆願效死。是日。城東隅又大崩。賊蟻附以入。李宗仁持短兵搏戰。賊又從西北門。揮劍踊躍以至。徐禮元望見先走。諸軍遂大潰。勢若土崩。諸將知事無可爲。皆登矗石樓。公與金象乾共扶倡義使。北向再拜。將赴南江。公素慣於泅水。金公曰。君可以免。努力更圖。滅此仇賊。諸義將亦皆勸公出。公泣曰。旣與同事。何忍獨生。遂先投江以沒。時年三十三。倡義使金公其子象乾,高公從厚,幕下吳玭,金麟渾,高敬元,兵使崔公慶會,幕下文弘獻。一時赴江死。姜希悅,吳宥李潛等十餘人。奮釰斫賊。抵死乃已。李宗仁轉鬪至南江。左右挾賊投水死。公兄山龍以運糧出湖南。聞城陷馳來。恨不得同死。號哭上下。求屍不得。招魂於江上而返。晉人莫不流涕。以是年八月。葬衣冠於羅州之北松川公墓下。事聞。與倡義使並賜享于晉州之彰烈祠。羅州之旌烈祠。崇禎四年。贈左承旨。旌其門。配淑夫人光山李氏。敎授義貞女。公

沒。親檢喪祭。哭哀有節。未嘗有怨恨之色。及丁酉再亂。公兄弟奉母全家避賊于三鄕浦。船未出洋。賊船猝至。母夫人知不免。急呼二子曰。義不可辱。聳身赴海。一家遑遑拯救。夫人怒曰。吾計決矣。竟投于海。二子共扶母入水。生員公配柳氏,妹進士金光運妻,族女金斗南妻,生員公庶女縣令林懽妾。同日赴水死。夫人李氏與公弟配高氏。共投海。爲婢所援出。夫人索刀佩之曰。吾不卽死者。以姑及兄弟姊妹皆入于海。將俟潮退。收諸屍。賊若迫當自裁也。匿于浦前山。賊望見之。直前而來。夫人拔刀自刎。賊嗟歎而去。高氏并收諸屍。夫人刀猶在頸。公之木主在其背。人皆悲之曰。李氏事尤難。後附葬于公。亦旌其閭。公之後遂絕。哀哉。嗚呼。壬辰之難。忠臣烈士視死如歸。可見國朝培養之厚也。若夫晉州之役。其節尤卓然。而其功有不可誣者。蓋賊以憤兵。雖快於一逞。而精甲銳卒。挫於堅城之下。故遂不能轉擣湖南。正猶唐之睢陽。遮江淮之力也。如公則逆覩亂兆。終以身殉。一似趙文烈。何其偉哉。李相國恒福嘗論當時倡義之人曰。從容就義者。金千鎰,梁山璹而已。若山璹則一布衣也。可死。可以無死。城陷之日。千鎰勸其出城更圖。山璹奮曰。義不可獨生。先投江以死。非素操之確。能如是乎。斯可謂知公也。銘曰。

粤歲壬辰。時維百六。炎海噴浪。長鯨厲齶。三京土崩。列闖褫魄。乘輿遠播。國步西蹙。毒丸利劒。我魚我肉。一介布衣。叫天大哭。裂裳奮梃。灑血飛檄。義聲一倡。士氣咸激。名儒尸盟。謀夫獻策。屹然南方。有民有國。方岳失律。投戈河曲。賊勢跳梁。人心蕩析。有誰奔問。手扶國脈。旳彼江都。橫遮水陸。孤軍擊楫。滄海一踔。右控湖甸。左連關朔。蠟紙在懷。宵征晝伏。衛士飛奏。行殿曉闢。嗟我南土。聲息杳邈。豹虎滿野。尙保疆域。一隅錦城。有臣山璹。不聞其名。今繭其足。義旅蜂起。祖宗遺澤。授官錫藥。勉爾興復。倡義招討。金高是勗。拜辭還鎭。陳兵宣讀。三軍揮血。誓心殫力。天兵東下。千里捲席。殘甲南遁。困獸思毒。巢巢晉陽。湖嶺之脊。昔彼將噬。如喉有腊。其衆六萬。剗山夷壑。賀蘭坐視。睢陽其亟。壯士力盡。兇鋒肉薄。胡天霪雨。孤堞中坼。前臨大江。有樓矗石。男兒死耳。我所爰得。西望報君。奮身先擲。羣忠駢命。天日變色。闔門塡海。抗義弗辱。比古顔卞。千載并焯。公骨浮水。蛟龍不食。公衣埋地。光氣上燭。名兮不滅。何石之斸。雙祠并峙。鎭我南服。

純廟丙子。繡衣趙公萬永題道內儒狀曰。梁氏之門。忠賢世濟。雲仍著孝。所以爲湖南望族。豈勝欽嘆。白馬之禍。龍蛇之亂。涔灘之變。皆有如彼卓然。百世風聲。尙今不泯。則節惠之典。豈容多言。原本謄去。當商量向事。

同年六月日。繡衣臣趙萬永啓曰。道內節義孝烈彰著者。不止一二。而只以世所彰著。公論久菀者登聞是白臥乎所。倭寇時殉節湖南爲最。而若羅州贈承旨臣梁山璹。卽世所稱三壯士之一也。梁山璹受業於先正臣成渾之門。首倡義旅。躬謁行在。我宣廟卽爲召見。特除二郎。且付敎書。歸諭湖嶺。及晉陽城陷。與金千鎰,高從厚北向再拜。赴南江而死。故相臣李恒福亦稱其從容就義。不失所操。惟金千鎰,梁山璹二人。其後腏享于晉州羅州等邑是白乎所。當時節死之人。擧皆易名是白如乎。山璹之精忠大節。合蒙一體之典。

批曰。令廟堂稟處事。

籌司 臣 回啓曰。其一羅州人贈承旨梁山璹易名及長興故學生鄭光露褒異事也。兩人之一忠一孝。俱合崇奬。並令該曹稟處何如。

傳曰允。

禮曹判書臣趙德潤啓曰。梁山璹以賢師之高弟。臨亂倡義。竟以身殉。危忠姱節。至今炳烺。朝家崇報。宜無餘憾。至於易名之典。同時死事諸臣。俱以蒙恩。共合一時之政。而時贈爵秩。未準諡法。揆以格例。不可遽議。正二品加贈一款。令吏曹稟處何如。

傳曰允。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己卯五月一十九日。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송천유집(https://db.itkc.or.kr/)

(25) 안방준(安邦俊), 『은봉전서(隱峯全書)』 권8, 「호남의록(湖南義錄)」

좌랑(佐郎) 양산숙의 자는 회원으로, 기묘명류(己卯名流)인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양팽손의 손자이며 부윤(府尹) 양응정의 셋째 아들이다. 나주에 살았으며 일찍이 우계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시사가 날로 잘못되어 감을 보고 마침내 과거 공부에 대한 뜻을 끊고서, 나주의 남쪽 삼향리에 터를 잡아 살았다. 본가와 백여 리 떨어진 거리였는데 부모에게 문안드릴 때마다 반드시 걸어서 다니는 고된 일을 익혔다.

임진년에 산숙은 정예병 수백 명을 모아 김천일을 맹주로 추대하고 강화도로 들어갔다. 회원은 강화도로부터 낮에는 매복하고 밤에는 걸어서 행재소로 달려가 문안을 드려 특명으로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제수되었다. 조정 신하들이 머무르며 벼슬할 것을 권하였으나 산숙은 굳이 사양하고 돌아왔다.

계사년(癸巳年)에 김공이 진주성을 지킬 때, 산숙을 시켜 명나라 장수에게 구원병을 청하였다. 산숙이 강개한 말투로 말하면서 눈물을 함께 흘리니, 명나라 장수가 탄복하면서도 오히려 기꺼이 출병하지는 않았다. 성으로 돌아올 무렵 왜적이 성에 닥쳐오자 회원과 동행한 몇 사람이 모두 도주하였다. 산숙은 울면서 말하기를 "위급함을 만났을 때 구차하게 벗어나서 도망하여 주장만을 홀로 사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하고는 남강을 통해 성으로 돌아오니 모든 군사가 놀랐다. 산숙은 물가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므로 젊어서부터 수영에 능하였다. 성이 함락될 때 힘으로는 벗어날 수 있었으나 산숙은 의리상 홀로 살아남을 수 없어서 마침내 김공과 함께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정유년 변란에 회원의 아내 이씨는 승달산(僧達山)에 들어가 적을 피하고 있다가 왜적을 만나게 되니,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출전 : 안동교 역, 『(國譯) 隱峯全書』, 신조사, 2002

梁佐郎山璹。字會元。己卯名流弘文館校理彭孫之孫。府尹應鼎之第三子也。居羅州。嘗出入牛溪先生門下。見時事日非。遂絕意科業。卜居州南三鄕里。去本家百餘裏。每省親。必徒步習勞。壬

辰。會元募得精兵數百人。推金公千鎰爲盟主。入江華。會元自江華。晝伏夜行。奔問行在。特命除工曹佐郎。朝臣有勸留仕者。會元固辭而還。癸巳。金公守晉州城。使會元請救於天將。會元辭氣慷慨。言淚俱發。天將歎服。猶不肯出兵。及還。賊逼城。會元同行數人。皆還走。會元泣曰。臨危苟免。使主將獨陷死地。其可乎。自南江入城。一軍皆驚。會元生長水邊。自少善泅游。及城陷。力可以免。而會元義不獨生。遂與金公同赴水死。丁酉之變。會元妻李氏。入僧達山避兵。遇賊拔佩刀。自剄而死。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은봉전서(https://db.itkc.or.kr/)

(26)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권14, 「이종인자 득화 상언 회계(李宗仁子得華上言回啓)」

그러나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기에 당시의 일을 사람들은 그 전말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고, 이종인에 대한 일을 들은 자가 또한 많다고 하더라도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을만한 문적(文籍)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직 그의 아들이 하는 말로서 시행하는 은혜를 내린다는 것도 일의 이치와 당사자의 체면에서는 편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조(本曹)에서 예전부터 회계(回啓)하면서도 감히 결단하여 허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방준(安邦俊)이 지은 「진주서사(晉州敍事)」를 얻어서 보건대 당시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매우 상세하여, 이를 통해서도 김천일 등의 충의(忠義)와 대절(大節)이 우주에 늠름하게 빛나 일월(日月)과 빛을 다투면서 백대(百代)토록 외경심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천일 등 3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인 고종후, 장윤, 이종인, 오유, 이잠, 강희열, 강희보(姜希輔), 양산숙, 김준민(金俊民) 등도 충의를 지닌 선비가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종인이 행한 일을 보면 더욱 장렬하였던 것 같으니 그의 아들이 원통하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포저집(https://db.itkc.or.kr/)

…… 然歲月已久。當時之事。人不能記其首末。宗仁之事。聞之者亦多。而猶未能得其詳。又未得可信文籍。獨以其子之言。賜之施行。於事體有未安。故臣曹自前回啓。未敢決而許之。近得安邦俊所撰晉州敍事。其記當時之事甚詳悉。觀此益見金千鎰等忠義大節。凜烈宇宙。爭光日月。可以起敬於百代也。金千鎰等三人。固無間然。而其餘高從厚,張潤,李宗仁,吳宥,李潛,姜希悅,姜希輔,梁山璹,金俊民等。無非忠義之士也。而其中宗仁所爲。似尤壯且烈。其子之稱冤亦宜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포저집(https://db.itkc.or.kr/)

(27) 김조순(金祖淳), 『풍고집(楓皐集)』 권15, 「양산숙전(梁山璹傳)」

양산숙은 자가 회원, 본관은 제주이다. 그의 시조는 양을나(良乙那)인데 한라산(漢拏山) 석

굴 속에서 태어나 단군과 같은 시기에 나라를 열었다. 그의 후손 탕(宕)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신라와 통하였는데, 그때 객성(客星)을 보고는 신라의 왕이 크게 기뻐하여 작위를 내려 성주(星主)로 삼고 마침내 양(良)을 고쳐 '양(梁)'으로 하였다고 한다.

할아버지 팽손(彭孫)은 홍문교리(弘文校理)로서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죽었다. 아버지 응정(應鼎)은 대사성(大司成)으로서 문행이 대단하였다. 산숙이 태어나서부터 단정하고 맑고, 배우기를 좋아하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과거 공부할 것을 권하였는데, 산숙이 말하기를 "성현(聖賢)의 학문은 공명(功名)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계 성혼(牛溪 成渾)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그때 우계는 여러 유생에게 말하기를, "양생(梁生)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소경왕(昭敬王, 선조) 당시 국가는 오랜 승평(昇平)을 누리면서 당인(黨人)들이 국사를 도맡고 있었다. 산숙은 반드시 난리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백 리 밖에다 정사(精舍)를 짓고는 날마다 도보(徒步)로 그곳을 왕래하는 고된 일을 익혔다. 선조 20년 겨울에 왜의 평수길(平秀吉)이 귤강광(橘康光)을 보내와 화의를 구하였는데, 산숙에게는 종인(宗人) 대박(大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또한 호사(豪士)였다. 산숙은 그와 함께 동래부(東萊府)에 이르러 호행(護行)하는 군졸로 가장하고 따라온 왜놈을 뇌물로 매수하여 그곳 사정을 염탐하였다. 왜의 왕 원의등(源義籐)은 수길이 시해한 지 십여 년인데 우리나라만 그것을 모르고 매번 국빈 대접을 하며 연향을 베푸니, 강광(康光)은 그때마다 번번이 잔을 떨어트리고 깨트렸다. 그리하여 산숙이 대박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들은 명목상 화의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파맹(破盟)을 하려고 온 것이요."라고 하였다.

어느 날 강광이 산숙을 힐끗 보고는 씩 웃으며 말하기를, "네 칼은 어찌 그리 짧은가?"라고 하니, 산숙은 그 말소리에 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창이 너무 긴 것이요."라고 하였다. 이에 강광은 깜짝 놀라 절을 하고는 산숙에게 말에 오를 것을 청하였고, 둘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길을 갔다. 상주에 다다랐을 때 목사(牧使) 송응형(宋應泂)이 기악(妓樂)을 베풀며 강광에게 술을 권하였는데 강광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창과 방패 더미에 있었기에 머리털이 변한 것이 당연한데, 사군(使君)은 풍류와 기생을 끼고 있으면서 걱정이 없었을텐데 무엇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까?"라고 하였다. 산숙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강광이 거의 우리를 풍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듬해인 무자년 여름, 왜놈들은 또 현소(玄蘇)를 사신으로 보내 우호 관계를 맺자면서 공작새 한 마리와 창 두 자루를 보내왔다. 산숙은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형 산룡(山龍)과 함께 항소(抗疏)하여 이 시기의 일이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간절히 말했다가 주상의 노여움을 사 하옥되었는데, 이정귀가 힘써 구원하여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숙은 또 글을 올렸는데, 말이 더욱 격절했으며, 또 '조헌은 정여립(鄭汝立)이 반드시 배반할 것을 미리 알아서 선견지명

이 있다고 말할만 한데도 아직도 유배 중에 있다.'라는 말도 했다. 상은 이에 방환(放還)할 것을 명했다.

선조 24년 신묘년에는 왜의 평조신(平調信) 등이 또 왔는데 놈들의 말이 너무도 거만하였다. 산숙은 조헌과 함께 대궐까지 걸어서 도끼를 들고 상소하며 왜 사신의 목을 베고 이 사실을 중국 조정에 알릴 것을 청하였지만, 상은 듣지 않았다. 그 이듬해에 수길이 과연 50만이라 이름하는 병력을 크게 일으켜 쳐들어와 부산, 동래를 잇달아 함락시켰다. 이에 동래 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332]이 죽고, 열군(列郡)도 싸움에 져 도망가니 감히 막을 자가 없었다. 산숙은 그때 정사(精舍)에서 칼을 짚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의병 일으킬 것을 고한 다음 각 읍에다 격문을 띄웠는데 불과 열흘 동안에 모여든 자가 매우 많았었다. 이미 신립(申砬)이 전사하고 이일은 패하여 도망쳤으며 임금은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라, 산숙은 여러 의사와 함께 임금을 위해 힘쓸 것을 도모하였다. 의사들은 산숙을 맹주로 추대하려 하였는데, 산숙이 말하기를, "나는 벼슬이 없는 몸인데다 나이도 아직 어립니다."라고 하고서는 전 부사 김천일을 추대(推戴)하여 대장으로 삼고 자신은 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천일의 아들 상건(象乾)을 종사(從事), 자기 형 산룡(山龍)은 군량을 주관하게 하고 아우 산축(山軸)은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게 하였다.

그해 6월, 나주에서 군사들과 맹세하고 마침내 군사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갔다. 적들이 요해처(要害處)를 나눠 점거하고 있었는데 그 기세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산숙은 고군을 이끌고 싸워 싸우며 전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독산 고성에 이르러서는 이미 적에게 붙은 간민(奸民) 수천을 목을 베고, 금령(金嶺)의 적을 기습으로 격파한 다음 50여 리를 추격하여 군의 기세가 크게 떨쳐지니, 적들은 두려워하며 군사를 더 모아왔다. 이때 천일은 결사전(決死戰)을 벌이고자 했는데, 산숙이 말하기를 "적은 많고 우리의 수는 적은데 가볍게 싸웠다가는 반드시 질 것입니다."라고 하고서는 마침내 강도에 가 주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호서(湖西)의 의병을 불러 모아 강을 따라 나란히 목책을 쳐서 멀리 서쪽과 남쪽의 성세(聲勢)로 삼았다.

당시 남쪽에서는 임금의 수레가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를 몰라 인심이 뒤숭숭하였다. 이에 산숙은 납서(蠟書, 밀서)를 가지고 배를 타고 서쪽 바닷가로 빠져나가 산을 끼고 포복까지 하면서 7월이 되어서야 의주에 닿았다. 주상은 산숙을 불러 만나자 산숙은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남쪽 사정을 아주 자세히 아뢰었다. 주상이 말하기를, "오래도록 남쪽 소식을 못 듣다가 지

---

332) 송상현(宋象賢): 1551~1592.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덕구(德求), 호는 천곡(泉谷)이다. 1591년(선조 24)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동래 부사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동래성에 육박하자 항전했으나 함락되게 되자, 조복(朝服)을 갈아입고 단정히 앉은 채 적병에게 살해되었다. 충절에 탄복한 적장(敵將)은 시(詩)를 지어 제사 지내 주었다.

금 너를 보고서야 비로소 옛 강토가 아직 있다는 것을 알았구나."라고 하였다. 산숙이 이어 납서를 올렸는데 산숙의 양손이 모두 갈라져 있어서 상은 눈물을 흘리면서 약을 발라주고 또 수서(手書)를 내려 장려하였다. 산숙이 또 흥복책(興復策)을 올리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산숙에게는 공조좌랑을 제수하고 또 김천일에게는 창의사, 고경명에게는 초토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남쪽 사람들도 그제야 비로소 임금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고 부세도 행재소로 보낼 수가 있었다.

도민(都民)들이 적에게 익숙해지자, 산숙이 사사(死士)를 모집하여 성안으로 들여보내 백성들을 대의로써 타이르게 하니 백성들이 밤이 되었을 때를 틈타 장수와 군사들 앞으로 와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자들이 많았고, 역관(譯官) 주계강(朱繼康) 등도 또한 정성을 바쳐 내응(內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날마다 군대를 출동시켜 적을 노략질하고, 장포(藏浦), 김포(金浦)에서 누차에 걸쳐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번번이 승리하였다. 적들이 밤에 도망가니 산숙은 마침내 삼도수신(三道帥臣)과 함께 주사(舟師)와 전선(戰船) 4백여 척을 거느리고 양화도(楊花渡) 입구에 진을 쳤다. 그리고는 수길의 죄를 낱낱이 걸어 붙여서 성안의 적들을 꼬드겼지만, 적들은 감히 나오지 못했다. 산숙은 장사(壯士)들을 성안으로 보내 아군과 내응(內應)을 하게 하고는 적들을 유인하여 무수한 적군을 죽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조정에서는 빨리 뭍으로 올라 경성을 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천일은 두렵고 답답하여 산숙에게 계책을 묻자 산숙은 즉시 정예병을 선발하여 임환(林懽), 조응신(曹應臣)으로 하여금 그들을 거느리고 가 권율(權慄)의 휘하에서 그들과 합세하여 진격하게 하였다. 마침내 형세에 대한 상소를 올리며 말하기를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하여 남방 전체가 모두 적의 늪이 되어있는데, 오직 이 강화도 한 곳만이 산해의 요충지대로서 남았을 뿐입니다. 신은 험고(險固)한 것에 의지하기를 마치 제갈량(諸葛亮)이 검각(劍閣)을 이용했던 것과 같이 할 것이며, 군량미가 끊이지 않기를 마치 소하(蕭何)가 관중(關中)에서 했던 것처럼 할 것이며, 성을 지키며 틈 노리기를 마치 전단(田單)이 즉묵(卽墨)에서 했던 것[333]처럼 하고자 하니, 신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 조충국(趙充國)은 자신이 직접 금성(金城)을 밟아보고 난 뒤에 방략(方略)을 그려 올렸었고[334], 가서한(歌舒翰)은 엄명(嚴命)에 쫓겨 발길을 돌리기도 전에 패하

---

333) 전단(田單)이 …… 것: 전국시대 제나라 임치(臨淄) 사람. 연(燕)의 소왕(昭王)이 제(齊)나라를 정벌하여 그 성(城)들이 거의 떨어지게 되었을 때 즉묵(卽墨)에서 화우(火牛)의 계책으로 연군(燕軍)을 패주시키고 제나라 70여 성을 회복하였다.

334) 조충국(趙充國)은 …… 올렸었고: 조충국은 농서(隴西) 상규(上邽) 사람으로, 자는 옹손(翁孫)이며, 한나라의 명장이다. 한나라 선제(宣帝)가 서강(西羌)을 치러 조충국을 보내면서 계책을 물었더니, 조충국이 답하기를,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니, 신이 직접 금성에 가서 지도를 그려 방략(方略)을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사에 관한 일은 미리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요, 또한 멀리서 제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섬에 있는 모든 군영이 하루아침에 뭍으로 가게 되면 그 형세는 반드시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신이 비록 죽음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그르친 죄는 죽어도 눈이 감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적의 우두머리가 장차 여러 왕릉을 발굴하여 보옥(寶玉)을 캐내려 하자 산숙은 그들에게 은폐(銀幣)를 보내 그들을 꼬드기는 한편, 또 계강(繼康) 등을 시켜 그들에게 '오례의(五禮儀)'를 보여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옥을 순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험하게 하니 적은 이내 그만두었다. 중국 총병(摠兵) 이여송(李如松)이 이미 서경(西京)을 탈환하고 나서 장차 서울을 합공(合攻)하려 할 때 산숙은 그곳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와 크고 작은 적의 진영이 있는 곳을 도표로 그려 올려 여송은 이를 보고 크게 기특히 여기기도 하였다. 이때 적들은 도하의 백성들이 관군과 내응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마침내 크게 방자한 자를 잡아 죽이고 공사(公私)의 집들을 불지르고 도망갔는데 그때가 바로 계사년(癸巳年) 정월(正月) 14일(선조 26년 1월 14일)이었다. 산숙은 성에 들어가 제장(諸將)과 함께 종묘의 유허를 보고 통곡하고는 배에 실은 쌀을 꺼내어 살아남은 백성들을 구휼해주니, 전후로 살린 자가 수십만이었다.

화의가 이루어져 중국 장수들은 관군들이 적을 죽이는 것에 대해 허락하지 않았으나 산숙은 그를 듣지 않고 적을 잡기에 더욱 급급하였다. 혹자가 힐책하기도 하였는데, 산숙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나라의 수치는 만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다. 하물며 아버지와 형을 잃은 자식과 아우가 각각 원수를 갚는다는데 누가 무슨 마음으로 막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왜군은 영남으로 내려갔고 산숙은 그들을 힘써 추격하여 함안에 이르렀다. 이미 왜추(倭酋)인 청정(淸正)은 수십만 병력을 동원하여 다시 진주를 침범하려 하니, 중국 장수 유정(劉綎)이 글을 보내 해산하라고 하였으나 되지 않았고, 평행장(平行長)도 역시 성을 비울 것을 권하였다. 이때 산숙은 천일에게 말하기를, "성을 포기해서 적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적이 만약 진주에서 뜻을 얻게 된다면 반드시 호남까지 멀리 달려 올 것이니, 적을 울타리 밖에서 막지 않고 집안에서 막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계책입니다. 이곳을 굳게 지키면서 중국 군대의 원병을 청하는 거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천일은 진주성을 지키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에 경상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 거제현령 김준민(金俊民), 해미현령 정명세(鄭名世), 사천현감(泗川縣監) 장윤, 복수장 고종후(高從厚), 부장 오유(吳宥), 웅의병장 이계련(李繼璉), 비의병장 민여운(閔汝雲), 표의병장 강희보(姜希甫), 김해부사 이종인(李宗仁) 등이 각기 군대를 이끌고 와 모였다.

산숙이 성안에 들어가 두루 살펴본 뒤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이 성에는 도망갈 길이 없으니 진정한 배수진입니다."라고 하고는 즉시 몇 사람과 함께 유정(劉綎)에게로 원병을 청하러

갔다. 산숙의 사기가 강개하고 눈물이 말을 할 때마다 뚝뚝 떨어져 유정도 마음으로는 탄복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군대를 출병하는 것에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산숙은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알고 원망해하면서 돌아왔는데, 산숙이 돌아왔을 때는 성을 포위한 것이 이미 수십 겹이었기에 마침내 남강에 몸을 던져 헤엄쳐 성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군사들이 놀랐다.

다음 날 적들은 성을 더욱 급박하게 공격해왔는데, 그때 산숙은 경기(輕騎)를 선발하여 나아가 공격하게 하여 적들을 물리쳤다. 또 그 다음날엔 적들이 좌우의 산을 끼고는 성을 빙 둘러 포진했는데, 산숙은 그보다 먼저 사람을 시켜 성 밖의 인가를 모두 철거시켰고, 두 성가퀴에 이르러서는 횃불 하나씩을 달아 놓고 적이 올 때마다 번번이 활로 쏘니,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은 또 죽갑(竹甲)과 목순(木楯)으로 포혈을 설치하여 곧바로 격대(隔臺)를 공격하였으나, 성안에서는 적에게 끓는 물을 붓고 활과 돌을 함께 쏴서 적 중에 타죽거나 눌려 죽은 자들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았다. 적들은 또 토산을 올려 성안을 내려다보며 총알을 비 오듯 퍼부으니 성안에는 죽은 자들이 많았지만, 산숙은 또 토산을 마주하여 쌓아서 그들을 막아냈다. 그리고 헤엄 잘 치는 자를 시켜 중국 장수와 우리 쪽 원수에게 다급한 상황을 알렸지만, 오는 자라곤 한 사람도 없었다. 적이 화살에 편지를 묶어 성안으로 쏘면서 말하기를, "성안에 김씨, 양씨, 고씨 등 3명의 장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쓴 갓을 성 위에다 걸어놓으면 우리가 물러가겠다."라고 하였다. 천일이 사람을 시켜 대답하며 말하기를, "지금 우리에겐 죽기를 맹세한 군대가 있고 대병(大兵)이 머지않아 또 올 것이다. 너희들은 빨리 떠나 맥없이 죽지 말거라."라고 하였다. 이때, 수길은 제장(諸將)이 서울을 포기한 것에 노하여 자신이 직접 비전주(肥前州)까지 왔고, 자기 폐추(嬖酋)를 보내 이름난 성을 도륙함으로써 분을 씻어보겠다고는 생각으로 제장을 독려했다. 때문에 이 싸움에서 죽은 적이 절반이 넘었지만, 오히려 물러가지 않았다. 거기에다 포위를 당한 후로 장마까지 계속되어 성이 많이 무너졌고, 쌓고 나면 또 무너져서 성안에서는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있었다. 게다가 또 준민(俊民)이 애써 싸운 끝에 전사하고, 황진, 장윤도 탄환에 맞아 죽었다. 세 사람은 모두 명장(名將)이었는데 산숙은 친척이 죽은 듯이 통곡을 하였으며, 죽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처 입은 장사(將士)들에게 몸소 먹여 주니, 모두가 감격하여 울며 화살에 반드시 죽을 것을 서로 다짐했다.

무릇 18일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6월 그믐날, 밤에 비가 쉴새 없이 내려 성이 크게 무너지니 왜병은 개미 떼처럼 붙어 올라왔다. 게다가 성 서북쪽 모퉁이가 또 무너져 내리니 팔팔한 힘을 가진 왜병이 또 따라 들어왔다. 이에 수장(守將)은 패하여 도망쳤고 군대도 마침내 무너져 내려서 다시 지탱할 수가 없었으며 화살과 돌도 모두 동이 나 대나무로 치고 찌를 뿐이었다. 이윽고 왜병이 사방에서 기어 들어와 중군장 오영념(吳永念), 별장 지덕룡(池德龍)이 모두 전사하였다. 여러 의병장은 일이 해낼 수 없음을 알고는 모두 촉석루로 올라갔다. 산숙은 김상건과 함께 천일을 부축하여 북을 향해 재배(再拜)한 후 장차 남강에 몸을 던지려 하였는데, 천일이

산숙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대에게는 여기를 건너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는데, 어찌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려 하지 않는가?”라고 하였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할 것을 권하였으나 산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의리상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일이요.”하고는 먼저 물로 뛰어들어 죽었다. 산숙의 나이 33세였었다. 이에 김천일 부자와 고종후(高從厚)도 또한 강에 몸을 던져 죽었고, 고경원(高敬元), 문홍헌(文弘獻), 오빈(娛賓), 김인혼(金麟渾), 강희보(姜希甫), 오유(吳宥), 이잠(李潛), 이종인(李宗仁), 윤의(尹誼) 등은 혹 격투 끝에 죽고, 혹 물에 빠져 죽기도 하였으며 그 나머지 군민(軍民)들 중 죽은 자가 무려 6만여 명에 달하였다. 산룡은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 밖에 있다가 그 난리를 함께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강변을 울부짖으며 산숙의 시신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의관(衣冠)으로 초혼(招魂)을 하여 장례를 치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진주의 창렬사(彰烈祠)와 나주의 정렬사(旌烈祠)에 배향(配享)을 하게 하였다. 인조 9년에 좌승지(左承旨)로 추증되었으며 인조 13년에는 그의 가문에 충신이라는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정유재란에 산숙의 어머니 박씨는 산룡(山龍), 산축(山軸) 두 아들과 함께 바다로 피난을 갔다가 적을 만나자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산룡의 아내 류씨(柳氏), 그리고 누이동생, 서녀(庶女), 족녀(族女)가 모두 죽었으며, 산숙의 아내 이씨(李氏)는 산축의 아내 고씨(高氏)와 함께 물에 빠졌는데, 따르던 건져서 구했다. 적을 피해 산을 오르다가 적이 또 나타나자, 이씨는 곧바로 스스로 목을 그으니 적이 흩어졌다. 고씨는 여러 시신을 수습했는데, 산룡과 산축은 어머니를 껴안은 채 물 위로 떠올랐고, 이씨는 칼이 목에 꽂힌 채로 죽어 있었는데, 이씨의 등에 지아비의 목주(木主)가 지어져 있어 보는 이들이 모두 눈물을 떨구었다.

출전 : 양남진 · 양흥렬 역, 『(국역주해)송천집』, 章山齋, 1988

梁山璹。字會元。濟州人也。其先曰良乙那。生于漢挐山石窟中。與檀君同時開國。其後曰宕。始通新羅。時客星見。羅王大悅。賜爵爲星主。遂改良爲梁云。祖彭孫。弘文校理。與趙光祖同死。父應鼎。大司成。以文行稱。山璹生而端粹好學。或勸擧業。山璹曰。聖賢之學。不爲功名也。旣而事牛溪成渾。渾戒諸生曰。梁生吾不及也。昭敬王時。國家昇平久。黨人用事。山璹知必有亂。築精舍百里外。日徒步往以習勞。萬曆丁亥冬。倭平秀吉使橘康光來求和。山璹有宗人曰。大樸。亦豪士也。山璹與俱至東萊府。爲護行卒。以貨誘從倭探之。其王源義藤。爲秀吉所弑已十餘年。而我國不知也。每宴享。康光。輒落杯破之。山璹謂大樸曰。彼名求和。其實破盟也。一日。康光睨山璹而笑曰。爾劒何短。山璹應聲曰。爾鎗太長。康光愕下拜。請山璹上馬。與語而行。及尙州。牧使宋應泂。以妓樂侑康光。康光曰。老夫積干戈。髮固變。使君擁聲妓無憂。何皓爲。山璹歎曰。橘虜殆諷我也。萬曆戊子夏。倭又使玄蘇通好。獻孔雀一鳥。鎗二。山璹不勝憤。與兄山龍。抗疏極言時事之非。上怒下獄。李廷龜力救解。山璹又上疏。語愈激切。且言趙憲。預知鄭汝立必叛。可謂先見。而尙在

謫。上命放還。辛卯。倭平調信等。又至。辭甚慢。山璹與趙憲。徒步至闕。持斧上疏。請斬其使。奏聞天朝。上不聽。明年。秀吉果大擧兵來侵。號五十萬。連陷釜山。東萊府使宋象賢死之。列郡奔潰。無敢格者。山璹自精舍。杖劍歸故居。告母起兵。傳檄列邑。旬日間。赴義者甚衆。已聞申砬死李鎰走。而車駕播遷。山璹與諸義士。謀勤王。衆欲推爲盟主。山璹曰。吾白身。年又少。遂推前府使金千鎰爲大將。而己副之。以千鎰子象乾。爲從事。以其兄山龍。主餉。令其弟山軸。歸養。六月。誓師于羅州。遂引而北。賊分據要害。勢甚張。山璹提孤軍。轉戰而前。至禿山古城。斬奸民附賊者數千。襲金嶺賊。破之。追奔五十餘里。軍聲大振。賊懼合兵而來。千鎰欲決死戰。山璹曰。賊衆我寡。輕戰必敗。遂駐軍江都。召募湖西義兵。沿江列寨。遙爲西南聲勢。時南中不知車駕所駐。人心惶惑。山璹乃齎蠟書。乘船出西。沿緣山。匍匐行。七月至義州。上召見。山璹伏地。哭奏南事甚悉。上曰。久不聞南方消息。今見汝。始知舊疆猶存。山璹上蠟書。兩手皆裂。上爲流涕。注藥。賜手書以奬之。山璹又進興復策。上嘉納。除山璹工曹佐郎。拜金千鎰倡義使。高敬命招討使。南人始知上所在。賦稅達于行在。都民狃於賊。山璹募死士。潛入城。檄諭大義。民多乘夜首軍前。乞自效。而譯官朱繼康等。亦輸欵。約爲內應。乃日出兵鈔賊。屢戰於藏浦金浦。戰輒先登。賊宵遁。山璹遂與三道帥。領舟師四百餘艘。駐楊花渡口。揭榜數秀吉。以挑城中賊。賊不敢出。山璹。令壯士入城。與內應軍。誘殺賊無數。已而朝廷督令下陸。取京城。千鎰惶悶。問計於山璹。山璹卽選精兵。使林懽,曹應臣將之。往隷權慄麾下。合勢進取。遂疏陳形勢曰。圻甸南土。皆爲賊藪。惟江華一區。山海要衝。臣欲依險負固。如諸葛之劒閣。饋餉不絕。如蕭何之關中。嬰城伺釁。如田單之卽墨。臣之留此。固非淺淺。昔趙充國身履金城。然後圖上方略。哥舒翰。迫於嚴命。敗不旋踵。兵難遙度。亦不可遙制。今在島諸營。一朝下陸。其勢必散。臣雖不恤死。僨國之罪。目將不瞑。賊酋將發諸陵索寶玉。山璹送銀幣餌之。且使繼康等。示五禮儀。以驗本朝不殉寶玉。賊乃止。皇朝摠兵李如松。旣破西京。將合攻京城。山璹圖京城道里及大小賊營以進。如松大奇之。賊知都民與官軍應。遂大肆屠殺。燒公私屋宇而走。時萬曆癸巳正月十四日也。山璹入城。與諸將哭宗廟遺墟。發船米賑餘民。前後所活數十萬。和議行。天將不許官軍殺賊。山璹不聽。捕賊益急。或尤之。山璹正色曰。國恥萬年。不可忘。况子弟之失父兄者。各報其讎。何心禁止乎。俄而。倭向嶺南。山璹力追至咸安。已而倭酋淸正。合兵數十萬。復犯晉州。天將劉綎移書解不得。平行長亦勸其空城。山璹謂千鎰曰。棄城以資賊。非義也。賊得志於晉。必長驅湖南。不禦諸籬外。而欲禁之戶內。非謀也。不若固守而求救於天兵。千鎰遂守晉州。於是慶尙兵使崔慶會,忠淸兵使黃進,巨濟縣令金俊民,海美縣監鄭名世,泗川縣監張潤,復讎將高從厚,副將吳宥,熊義兵將李繼連,飛義兵將閔汝雲,彪義兵將姜希輔,金海府使李宗仁等。各率兵來會。山璹入城。周覽謂諸將曰。此城無走路。眞背水陣也。卽與數人。乞師於劉綎。辭氣慷慨。淚隨言零。綎心歎服。猶懾不肯出。山璹知不成。怏怏而行。還至。城圍已十數匝。遂投南江泅而入。一軍皆驚。明日。賊攻城急。山璹選輕騎出擊却之。又明日。賊挾左右山環城而陣。山璹先令人撤城外人家及是二堞。設一炬。賊來輒射之。賊不敢近。賊又以竹甲

木楯設炮穴。直攻隔臺。城中湯火矢石並發。賊爛壓死者不可勝數。賊又起土山瞰城中。飛丸如雨。城中多死。山璹亦對築土山以禦之。令善泅者。告急於天將及元帥。無一人至。賊以書約矢射城中曰。聞城中有金,梁,高三壯士。取其戴笠。掛城上。我當退。千鎰使人答曰。我有殊死軍。大兵不日且至。汝速去。毋送死。是時。秀吉怒諸將之棄京城。自至肥前州。遣嬖酋。督諸將屠名城。以雪其忿。故是役也。賊兵死者過半。而猶不肯退。自被圍。霖雨連日。城多崩。隨築隨圮。城中力已竭。已而俊民力戰死。進,潤皆中丸死。三人皆名將也。山璹哭之如親戚。持糜粥。親饋瘡痍將士。皆感泣。矢必死相持。凡十八晝夜。六月晦。夜雨不息。城大崩。倭兵蟻登城。西北隅又崩。生力倭又從而入。守將敗走。軍遂潰。不可復支。矢石亦盡。以竹木撞刺而已。俄而倭四面擁入。中軍將吳永念,別將池得龍俱死。諸義將知事不濟。皆登矗石樓。山璹與金象乾。扶千鎰。北向再拜。將投南江。千鎰謂山璹曰。知君涉此不難。盍生爲後圖乎。傍人亦勸之。山璹泣曰。義不可獨生。先投而死。年三十三。於是千鎰父子。高從厚亦投死。高敬元,文弘獻,吳玭,金麟渾,姜希輔,吳宥,李潛,李宗仁,尹誼等。或格鬪死。或自沈死。其餘軍民死者。凡六萬餘人。山龍以調餉在外。不及難。日夜號江邊。求山璹屍不得。乃以衣冠招魂而葬。事聞。命賜享于晉之彰烈祠及羅之旌烈祠。崇禎四年。贈左副承旨。八年。旌其門曰忠臣。及丁酉再搶。山璹母朴氏。與山龍,山軸。出海避兵。遇賊投水而死。山龍妻柳氏及其妹庶女,族女皆死。山璹妻李氏。與山軸妻高氏。爲從婢所救。避于山上。賊又至。李氏卽自刎。及賊散。高氏收諸屍。山龍,山軸。挾母浮水面。李氏刀猶在頸。而背上負其夫木主。見者莫不隕涕。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풍고집(https://db.itkc.or.kr/)

22) 오득린(吳得隣, 1551~1637)

• 본관 나주(羅州), 자 필방(弼邦), 호 미상

(1)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14, 「나주목지(羅州牧志)」

오득린은 좌수영 아전인데 지략이 남보다 뛰어났었다. 임진년 난리에 충무공 이순신이 발탁하여 막하(幕下)에 배치했는데, 노량(露梁)에서 힘껏 싸워 승첩한 공로로 아전을 면했다. 그 뒤 벼슬이 장악원(掌樂院) 정(正)에 이르렀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吳得隣爲左水營吏。智略過人。及壬辰之難。忠武李公擢置幕府。力戰露梁。以軍功免鄕。後拜官。至掌樂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2) 기우만(奇宇萬), 『송사집(松沙集)』 권28, 「장악원정 오공 묘갈명(掌樂院正吳公墓碣銘)」

아, 이곳은 임진년(1592)의 공신인 장악원 정(掌樂院正) 오공 휘 득린(得隣)의 묘이다. 임진년의 원훈(元勳)으로는 반드시 충무공 이순신이 해상에서 세운 전투를 치켜세우는데, 충무공이 장차 죽으려 할 때 급히 공을 불러 왜적을 물리칠 것을 부탁하였다.

공은 처음에는 백의(白衣)의 신분으로 칼을 차고 종군하니 기의(氣義)와 주책(籌策)하는 것이 대단해서 그릇이 중하다고 여겨졌다. 군진을 나누어 옥포(玉浦)·당포(唐浦)·사량(沙梁)·당항(唐項)에서 왜적을 막아 승전보가 계속 이르렀는데, 그 때 기습할 군대를 두고 엄목포(嚴木浦)에서 전투를 독려하니 남해의 왜적들이 패주(敗走)하였다. '왜적과 화의 할 수 없고, 원수는 놓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말이 엄정하고 의기는 올곧아 중국의 장수가 부끄러워하며 사죄하니, 충무공의 마음과 눈은 이미 공을 믿게 되었다. 공이 명을 듣고 달려가 구원할 때 상처를 동여매고 힘껏 싸워 아침부터 낮까지 왜적의 배 수백 척을 침몰시키니 남은 왜적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여 바다가 조용하고 깨끗해졌다. 왜적이 격파되고서야 비로소 충무공의 죽음을 듣고는 놀라서 엎드려 통곡하였고 후에 군대를 정비하고서 돌아왔다.

공은 컸지만 보답은 넉넉치 못하여 겨우 장악원 정에 제수 되는 데에 그쳤다. 만약 충무공이 죽지 않았다면 실제에 의거해 공을 높이 사서 그 융숭한 보답이 응당 어떠하였겠는가마는, 새가 다 잡히면 활을 감춰버리듯[335] 버려서 잊은 듯이 하였다. 비록 공의 경중(輕重)을 따지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공로를 잊은 것이 이와 같았으니, 어떻게 후세의 권면이 될 수 있겠는가. 안타깝고도 안타깝도다.

오씨(吳氏)의 본관은 나주이니, 판부사(判府事) 철좌(哲佐)와 사정(司正) 경진(敬眞)은 공의 9대조와 7대조이다. 증조는 제(堤)요, 조부는 말남(末男), 부친은 숭수(崇壽)이니 계공랑(啓功郎)이다. 모친은 금성나씨(錦城羅氏)이니 부친은 대운(大運)이다. 공의 자는 필방(弼邦)이요, 선조 갑인년에 태어났다. 집에 있으면서 효성이 드러났기에 효성을 충성으로 옮긴 것이 이와 같았으니 기개(氣槩)와 지용(智勇)이 남들보다 뛰어났다고들 말하였다. 인조 정축년에 세상을 떠났고, 나주 각궁산(角弓山)의 계좌(癸坐) 언덕에 안장하였다.

부인은 하동정씨(河東鄭氏)이니 응륜(應崙)의 딸이다. 묘는 공의 왼편에 합장하였다. 후에 공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추증되어 정씨도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되었다. 아들은 셋이니, 준헌(俊獻)은 현감(縣監)이고 병자년에 의병을 일으켰다. 서헌(瑞獻)과 익헌(翼獻)은 별제(別提)이다. 석현(碩賢)과 석빈(碩斌)은 장남의 소생이다. 차남은 후사가 없다. 석빈(碩賓)과 석귀(碩龜)와 석뢰(碩賚)는 삼남의 소생이다.

300년 동안 묘비(墓碑)가 없어서 나무꾼과 목동들이 알지 못하고, 혹 충신열사(忠臣烈士)의

---

335) 새가 …… 감춰버리듯: 천하가 정해진 뒤에는 공신(功臣)이 버림을 받는다는 뜻.

무덤인 줄 모르고 묘소 앞의 나무를 가벼이 베어버릴 염려가 있었다. 자손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장차 비석을 세워 드러내려고 하여 나에게 묘갈명을 부탁하였다. 부탁을 전해 온 자는 홍식(弘植)과 승식(承植)이다. 명은 다음과 같다.

뜻은 순국에 절실해	志切殉國
칼 차고 의병에 나아가니	仗劍赴義
기개와 계책을	氣義籌策
충무공이 귀중하게 여겼네	爲忠武器
왜적과 화의하여 원수를 놓아주기로	和賊縱讎
천조 장수의 마음 바뀌었는데	天將改轍
가상하구나 공이 앞으로 나와	嘉公前致
격렬하게 간함이여	辭氣激烈
충무공이 죽음 앞두고	忠武之死
왜적의 초토를 공에게 부탁하니	剿賊付公
바다에서 용맹 떨쳐	海上奮勇
그 공 거두었네	以收厥功
그 공 말하지 않음이	厥功不言
나무 밑에 있던 풍이(馮異)와 같으니[336]	若馮大樹
이는 더욱 높은 경지라	是尤高處
묘비에 드러내기에 충분하네	足以墓表
지금이 어떤 때인가	見今何時
한 사람의 의사도 없도다	無一人義
구원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九原莫作

출전 : 유영봉 외 역, 『송사집』, 흐름출판사, 2020

嗚呼。此壬辰功臣掌樂院正吳公諱得隣之藏。龍蛇元勳。必推李忠武海上之役。而忠武之將死。急招公屬以勦賊。蓋公初以白衣。仗劍從軍。氣義籌策。大爲器重。而分陣捍禦玉浦唐浦沙梁唐項。捷報續至。而時方設奇。督戰於嚴木浦。敗走南海賊。而賊不可和。讎不可縱。辭嚴義直。天將愧謝。忠武心目。已孚於公也。公聞命赴救。裹瘡力鬪。自朝至午。賊船數百覆敗。餘賊不敢動而海上

336) 나무 …… 같으니: 풍이(馮異, ?~34)는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무신. 즉위하기 전의 광무제를 도와 왕랑(王郎)을 격파하고 하북(河北)을 평정하였으며, 성품이 겸손하여 여러 장수들이 서로 공을 논할 때면 늘 나무 밑으로 피해 있었으므로 '대수장군'이라고 일컬었다.

肅淸矣。賊旣破。始聞忠武之死。驚仆痛哭。整軍而還。功優酬劣。僅止掌樂正。若使忠武不死。據實上功。其崇報當如何。而烏盡弓藏。棄之如遺。雖不足爲公輕重。國家忘功如此。何以爲來世勸。悲夫悲夫。吳氏系羅州。判府事哲佐。司正敬眞。九世若七世。曾祖堤。祖末男。考崇壽啓功郎。妣錦城羅氏父大運。公字弼邦。生宣祖甲寅。在家著孝。故移於忠如此。而其氣槩智勇有過人者云。卒於仁祖丁丑。葬於羅州角弓山癸原。夫人河東鄭氏應崙女。墓祔左。後贈嘉善。贈鄭氏貞夫人。三男俊獻縣監。丙子有義蹟。瑞獻,翼獻別提。碩賢,碩斌長房生。二房無嗣。碩賓,碩龜,碩賚季房生。墓闕顯刻三百年。樵牧無知。或不知爲忠臣烈士之藏。而有楸檟輕折之患。子孫是懼。將竪石而表之。以命宇萬。將命者弘植承植。銘曰。

志切殉國。仗劍赴義。氣義籌策。爲忠武器。和賊縱讎。天將改轍。嘉公前致。辭氣激烈。忠武之死。剿賊付公。海上奮勇。以收厥功。厥功不言。若馮大樹。是尤高處。足以墓表。見今何時。無一人義。九原莫作。志士之淚。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송사집(https://db.itkc.or.kr/)

23) 윤정훈(尹廷勳, 1562~?)

• 본관 파평(坡平), 자 백술(伯述), 호 귀와정(歸臥亭)

기우만(奇宇萬), 『송사집(松沙集)』 권27, 「직장 윤공 묘갈명(直長尹公墓碣銘)」

일찍이 사서를 읽다가 풍이(馮異)가 큰 나무 아래에 숨어 제장과 공을 논하지 않은 부분에 이르러서는 풍대수(馮大樹)의 공이 이미 높지만, 이 한 가지 일은 비교적 다른 공보다 높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도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니 직장(直長) 윤공 정훈(廷勳)이다. 임진년의 전쟁을 만나 백사(白沙) · 한음(漢陰) 등 여러 공과 힘을 합하여 왕실을 도왔으니 방어를 위한 주책(籌策)이 대부분 공의 손에서 나왔고 의주까지 어가를 호종하였다. 상이 환궁하자 곧 어버이가 늙었다는 이유로 귀향하기를 청하였고 다시는 한수(漢水) 나루를 건너지 않았으니 풍대수보다도 훨씬 훌륭하니 어찌 진실된 현자가 아니겠는가. 병자년에 다시 큰아들 검을 시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고, 시를 지어주며 말하기를

가련하게도 남한성 위의 달이	可憐南漢城頭月
고신의 한 조각 마음 비추도다	流照孤臣一片心

하였는데,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말 밖에 흘러넘치니, 또한 공이 은거를 결심한 것이 세상을 잊은 것에 과감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은 아마도

때를 알아 은거하거나 드러나매 알아주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는 군자일 것이다.

공은 천성이 순하고 두터우며 아울러 재기가 있었다. 정성과 공경으로 어버이를 봉양하고 남은 힘으로 학문하여 가정에서 영향받았다. 지조가 꼿꼿하고 행실이 바르며 백가를 두루 섭렵하였으며 경서에 힘을 쏟아 크게 유림의 명망이 있었다. 여러 번 침랑(寢郎)에 제수되었지만 나아가지 않다가 백사 선생이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으로 억지로 나오게 하니, 당시 조정의 공경들이 모두 몸을 기울여 교유하기를 원했다. 물러나서는 산자락에 몇 칸의 집을 짓고 귀와정(歸臥亭, 나주시 남평면)이라 편액하였다. 대개 벼슬길에 마음을 끊고 은둔을 자신의 분수로 여긴 것이니 그 은미한 뜻을 알 수 있다.

공의 자는 백술이고, 선계는 파평이다. 문숙공(文肅公) 휘 관(瓘)과 영평균(鈴平君) 휘 승순(承順)이 현조(顯祖)로, 모두 고려에 훈공이 있었다. 좌명공신(佐命功臣) 휘 곤(坤)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조정에서 벼슬하였으니 이조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소정(昭靖)이다. 휘 희제(希齊)는 판윤(判尹)을 지냈고 찬성(贊成)에 추증되었으며, 휘 은(垠)은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냈고 우의정(右議政)에 추증되었으며 휘 사화(師華)는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냈으니 소정 이후 3대이다. 참의(사화)가 휘 확(確)을 낳았으니 호가 농촌(農村)이며 상호군(上護軍)을 지냈는데, 처음으로 남평에 은둔하였다. 이분이 바로 공의 증조이다. 할아버지는 휘 문좌(文佐)로, 호는 풍악(楓岳)이며,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냈다. 아버지는 휘 종(種)으로, 호는 제암(齊巖)이며 동부 주부(東部主簿)를 지냈다. 어머니는 문화류씨로 참봉(參奉) 용강(用剛)이 아버지이다. 공은 가정 갑자년(1564)에 태어나 계미년(1643)에 졸하였으니, 향년 80세이다. 동촌면 방축동 뒤편 곤향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나주 오씨로, 언해의 딸이다. 네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이 바로 검(儉)이다. 그 다음으로 경(儆), 전(佺), 보(保)이다. 손자와 증손은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공은 조예가 정밀하고 깊으며 품은 뜻이 매우 넓고 깊어서 당시 조정의 공경들의 흠모가 또한 이와 같았다. 그렇다면 전해지는 공의 말과 문장이 적지 않았을 텐데 모두 육정(六丁)[337]에게 거두어졌으니 아마도 공이 자취를 감추고 은둔하려던 뜻을 이루어 주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나 후손들이 이를 사적으로 슬퍼하여 가첩에 실려 있는 것에 입과 귀로 자잘하게 전해지는 것을 참고하여 고사문 광선에게 부탁해 행장을 지었다. 광선은 공의 외손으로 거주하는 곳이 윤씨들이 사는 곳과 가까우니 의당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후손 동혁(東赫)이 집안 어르신의 명을 받아 나에게 묘갈명을 부탁하였다. 나는 윤씨의 수사

---

337) 육정(六丁): 정묘(丁卯), 정사(丁巳), 정미(丁未), 정유(丁酉), 정해(丁亥), 정축(丁丑)이다. 도교(道教)에서는 이들을 음신(陰神)으로 여기는데, 부릴 때는 먼저 재계를 하여야 하며 귀신이 이르면 먼 곳의 물건을 가져오게 할 수 있고, 길흉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 (『後漢書 卷50 梁節王暢列傳』)

들을 많이 아는데 그들은 모두 유학하는 선비들로 법도가 있었으니, 공이 암긴 은택이 10대가 지나도 끊이지 않은 것이리라. 거듭 사양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명을 쓴다.

효와 충은	維孝維忠
공의 천성이니	是公天植
살아계실 땐 몸과 뜻 봉양하고	生養志體
돌아가셨을 땐 이척의 도리[338] 다하였네	死盡易戚
임진년에는 몸소 호종하고	壬扈以躬
병자년에는 큰아들 보냈도다	丙遣家督
은잔은 상이라 할 수 없고	銀盞非賞
선무공신에 녹훈된 것도 박하다네	宣勳薄策
공이 스스로 공이라 여기지 않고	公不自功
하루가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네	不竢終日
벼슬과 포상이 내려지지 않게 하여	爵賞莫及
그 자취를 없앴네	以泯其跡
이것이 공의 훌륭한 부분이니是	公高處
지나가는 이들은 의당 예를 표할지어다	過者宜式
간좌의 언덕	枕艮之原
방축이라는 동네로다	洞曰防築
내가 명을 새겨 밝히니	我銘是昭
오는 이들은 덕을 상고할지어다	有來考德

출전 : 유영봉 외 역, 『국역 송사집』, 흐름출판사, 2020

嘗讀史至馮異屛大樹下。不與諸將論功。竊謂馮大樹功旣高。而此一事較高於功矣。吾省得一人焉。直長尹公廷勳。當壬辰燹。與白沙,漢陰諸公協贊王室。捍禦籌策。多出公手。而扈駕至龍灣。及回鑾。卽以親老乞歸。不復渡漢水津。高於馮大樹遠矣。豈不誠賢乎哉。丙子。又使長子儉勤王。贈詩曰可憐南漢城頭月。流照孤臣一片心。愛君憂國之意。溢於言外。又見公之決退。非果於忘世。則公豈識時隱現。不知无憫之君子歟。

公天姿純厚。兼有才器。誠敬養親。餘力學問。擩染家庭。操履堅定。博涉百家。致力經子。大有儒

338) 이척의 도리: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훌륭하게 상례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논어(論語)』「팔일(八佾)」에 "상례는 형식적으로 잘하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喪與其易也寧戚〕"라고 하였다.

望。累除寢郎不起。白沙以司甕院直長強起之。當朝公卿皆傾身願交。及退構數間屋於山趾。扁曰歸臥亭。蓋絕意於仕道。自分於斂退。可見其微意矣。

公字伯述。系坡平。文肅公諱瓘鈴平君諱承順爲顯祖。皆有勳勞於高麗。至佐命功臣諱坤。始入我朝。官吏曹判書謚昭靖。諱希齊判尹贈贊成。諱垠吏曹參議贈右議政。諱師華吏曹參議。昭靖後三世。參議生諱確號農村上護軍。始遯于南平。公曾祖。祖諱文佐號楓岳。禦侮將軍。考諱種號齊巖。東部主簿。妣文化柳氏。參奉用剛其考。公生以嘉靖甲子。卒于癸未。享年八十。葬東村面防築洞後向坤原。夫人羅州吳氏彦獬女。四男長卽儉。次儆,佺,保。孫曾不盡載。

公所造精深。所抱淹博。而當朝公卿之傾嚮又如此。則其言語文章之傳蓋不少。而並爲六丁所收。豈欲成公韜晦之志耶。雲仍私致慨。以家牒所載。參以口耳之瑣傳。託高斯文光善爲狀。光善於公爲彌甥。且居近於尹氏。宜其言可徵。後孫東赫奉門長老之命。求顯刻於宇萬。萬也多識尹氏秀士。皆儒雅法拂。公之流澤。蓋有十世而不斬者歟。再辭而爲之銘曰。

維孝維忠。是公天植。生養志體。死盡易戚。壬扈以躬。丙遣家督。銀盞非賞。宣勳薄策。公不自功。不竢終日。爵賞莫及。以泯其跡。是公高處。過者宜式。枕艮之原。洞曰防築。我銘是昭。有來考德。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송사집(https://db.itkc.or.kr/)

24) 이몽구(李夢龜, ?~?)

• 본관 함평(咸平), 자 경서(慶瑞), 호 송오(松塢)

(1)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2, 「부원경상도장(赴援慶尙道狀)」

삼가 아뢰오니 사변에 대비하는 데에 관한 일입니다.

…… 선봉장(先鋒將)은 우수사(右水使) 원균(元均)과 약속할 때 그 도의 변장(邊將)으로 선정할 계획이오며, 본영은 신의 우후(虞候) 이몽구(李夢龜)를 유진장(留鎭將)으로 임명하고 ……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謹 啓爲待變事。

…… 先鋒將與右水使約束時。同道邊將差定計料。本營則臣虞候李夢龜留鎭將差定。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2)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2, 「당포파왜병장(唐浦破倭兵狀)

삼가 아뢰오니 적을 쳐서 사로잡은 데에 관한 일입니다. (중략) 5월 29일 신은 홀로 전선 23척을 거느리고 우후(虞候) 이몽구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날짜를 앞당겨 출발하였으며, 이억기(李億祺)에게는 사유를 갖추어 공문을 보낸 뒤에 곧바로 노량(露梁) 해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중략) 그리하여 중위장(中衛將) 순천 부사(順天府使) 권준(權俊), 중부장(中部將) 광양 현감

(光陽縣監) 어영담(魚泳潭), 전 부장(前部將) 방답 첨사(防踏僉使) 이순신(李純信), 후부장(後部將) 흥양 현감(興陽縣監) 배흥립(裵興立), 좌척후장(左斥候將) 녹도 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 우척후장(右斥候將) 사도 첨사(蛇渡僉使) 김완(金浣), 좌별도장(左別都將) 우후(虞候) 이몽구 …… 등이 번갈아 드나들어 왜선 전부를 쳐부수고 불태웠다. (중략)

그날 당포에서 접전할 때, 우후 이몽구가 왜장의 배를 수색하여 얻은 금부채 한 자루를 신에게 보냈는데 그 부채 한 면의 중앙에 글로 적혀 있기를 '6월 8일 히데요시'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오른편에 '하시바 지쿠젠 노 가미(羽柴筑前守)'라는 다섯 자를 썼고, 왼편에는 '가메이 류큐 노 가미도노(龜井流求守殿)'라는 여섯 자를 썼으며 이를 옻칠한 갑 속에 넣어 두었다고 하니 필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쿠젠 노 가미에게 부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중략)

왜적의 물품 중에 별 관계없는 왜인의 의복, 미곡, 포목 등 물품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혹은 군사들에게 먹이고, 왜적의 군용물품 중에 가장 관련 있는 물품은 뽑아내어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우후 이몽구가 왜장에게서 얻어낸 부신(符信)과, 철갑에 들어 있던 금부채, 방답 첨사 이순신이 찾아서 보내온 왜장의 분군건기(分軍件記) 6축도 아울러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謹啓爲勦捕事。(中略) 五月二十九日。臣獨領戰船二十三隻。與虞候李夢龜率領。先期發行。李億祺處。具由移文後。直到露梁洋中。(中略)

中衛將順天府使權俊,中部將光陽縣監魚泳潭,前部將防踏僉使李純信,後部將興陽縣監裵興立,左斥候將鹿島萬戶鄭運,右斥候將蛇渡僉使金浣,左別都將虞候李夢龜,(中略)等。迭相出入。倭船全數。撞破焚滅。

(中略) 同日唐浦接戰時。虞候李夢龜。於倭將船。搜得金團扇一柄。送于臣處。而扇一面中央書曰。六月八日。秀吉着名。右邊。書羽柴筑前守五字。左邊。書龜井流求守殿六字。藏于漆匣。必是平秀吉之於筑前守處。以爲符信之物。

(中略) 倭物內不關倭服米布等物。或分給戰士。或饋餉軍卒。軍物中抽出最關之物。開坐于後。虞候李夢龜所得倭將符信,金團扇,藏漆匣及防踏僉使李純信所納倭將分軍件記六軸。并爲監封上送。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3)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임진년 6월

7일 을사일(乙巳日). 맑다. 적선을 찾아 아침쯤에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렀다. 적선이 율포(栗浦)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복병선(伏兵船)으로 하여금 가보게 하였더니, 적선 다섯 척이 우리 부대를 알아채고 남쪽 큰 바다로 달아났다. 우리 배 여러 척이 일제히 뒤쫓아갔다. 사도첨사

김완이 배 한 척을 고스란히 잡고 우후 이몽구도 배 한 척, 녹도만호 정운도 한 척을 고스란히 잡았다. 목을 벤 왜적의 머리를 합하였더니 모두 36급이었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初七日乙巳。晴。探賊船朝發到永登前洋。聞賊船在栗浦。令伏兵船指之。則賊船五隻。先知我師。奔走南大洋。諸船一時追及。蛇渡僉使金浣。一隻全捕。虞候李夢龜。一隻全捕。鹿島萬戶鄭運。一隻全捕。合計倭頭三十六級。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4) 『선조실록(宣祖實錄)』 권29, 25년 8월 16일

전라 수사(全羅水使) 이순신을 자헌(資憲)으로 가자(加資)하고, 흥양 현감(興陽縣監) 배흥립(裵興立)·광양 현감(光陽縣監) 어영담(魚泳潭)을 통정(通政)으로 올리고, 녹도 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사량 첨사(蛇梁僉使) 김완(金浣)을 절충(折衝)으로 올리고, 낙안 군수(樂安郡守) 신호(申浩)를 겸 내자시 정(兼內資寺正)으로, 보성 군수(寶城郡守) 김득광(金得光)을 겸 내섬시 정(兼內贍寺正)으로, 우후 이몽구, 전 첨사 이응화(李應華) 등을 훈련원 첨정(訓鍊院僉正)으로, 이기남(李奇男)을 훈련원 판관(訓鍊院判官), 김인영(金仁英) 등 3인을 훈련원 주부(訓鍊院主簿)로, 변존서(卞存緖) 등 14인을 부장(部將)으로 삼았는데, 이는 당항포(唐項浦)의 전공에 대한 상이었다. 구성 부사(龜城府使) 윤승길(尹承吉)·평양 서윤(平壤庶尹) 남복흥(南復興)을 통정(通政)으로 올리고, 지례 현감(知禮縣監) 김호(金浩)를 겸 선공감 판관(兼繕工監判官)으로, 직산 현감(稷山縣監) 박의(朴宜)를 겸 의영고 영(兼義盈庫令)으로 삼았다.

以全羅水使李舜臣加資資憲,以興陽縣監裵興立,光陽縣監金泳潭[魚泳潭]陞爲通政,鹿島萬戶鄭運、蛇梁僉使金浣陞爲折衝,樂安郡守申浩兼內資寺正,寶城郡守金得光兼內贍寺正,虞候李夢龜、前僉使李應華等爲訓鍊院僉正,李奇男爲訓鍊院判官,金仁英等三人爲訓鍊院主簿,卞存緖等十四人爲部將,賞唐項浦之功也。龜城府使尹承吉,平壤庶尹南復興陞爲通政,知禮縣監金浩兼繕工監判官,稷山縣監朴宜兼義盈庫令。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5)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2, 「부산파왜병장(釜山破倭兵狀)」

삼가 아뢰오니 적선을 불태운 데에 관한 일입니다. (중략) 29일에는 닭이 울자 배를 출발하여 날이 밝을 무렵에 두 강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동래(東萊) 땅 장림포(長林浦) 바다 가운데에서 낙오된 왜적 30여 명이 대선 4척과 소선 2척에 나누어 타고 양산(梁山)으로부터 나오다가 우리 함대를 발견하고서는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갔는데, 이를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가 거느린 수군들이 도맡아 쳐부수고 불태웠습니다. 좌별도장(左別都將) 우후 이몽구도 대선

한 척을 쳐부수고 적의 머리 한 급을 벤 뒤에 군사를 좌우로 나누어 두 강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 강 입구의 형세가 좁아서 판옥 대선으로는 전쟁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워질 무렵에 가덕(加德) 북변으로 되돌아와서, 밤을 지내면서 원균(元均) 및 이억기(李億祺) 등과 함께 밤새껏 의논하였습니다. 후에 9월 1일 닭이 울자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중략) 우후 이몽구가 벤 왜적의 머리 한 급은 본래 왼쪽 귀가 없는 것이므로 그 귀뿌리를 잘라내어 소금에 절여서 올려 보내었습니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謹啓爲焚滅事。(中略) 二十九日。雞鳴發船。平明到兩江前洋。而東萊地長林浦洋中。零賊三十餘名。分騎大船四隻。小船二隻。自梁山出來。望見我師。棄船登陸。慶尙右水使所率舟師。專爲撞破焚滅。而左別都將臣虞候李夢龜。撞破大船一隻。斬首一級。後分兵左右。欲入兩江。而江口形勢隘狹。板屋大船。容戰不得。初昏。還到加德北邊經夜。與元均,李億祺等。達夜謀議。九月初一日。雞鳴發船。(中略) 虞候李夢龜所斬倭頭一級。本無左耳。耳根割取。沈鹽上送。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6)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갑오년 9월

17일 임진일(壬辰日). 날씨가 맑고 따뜻하였다. 여러 장수와 함께 활쏘기를 하였다. 우후 이몽구가 둔전(屯田)을 추수하는 일 때문에 나갔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十七日壬辰。晴且溫。與諸將射帿。虞候李夢龜。以屯田收穫事。出去。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7)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병신년 5월

21일 정해일(丁亥日). 맑다. 우후 등과 활쏘기를 하였다.

22일 무자일(戊子日). 맑다. 충청 우후(忠淸虞候) 원유남(元裕男), 좌우후(左虞候) 이몽구, 홍주 목사(洪州牧使) 박윤(朴崙) 등과 활쏘기를 하였다. ○홍우가 장계를 가지고 감사에게로 갔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二十一日丁亥。晴。與虞候等射帿。

二十二日戊子。晴。與忠淸虞候元裕男,左虞候李夢龜,洪州朴崙等。射帿。

○洪祐持狀啓。往于巡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8)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정유년 8월

13일 신미일(辛未日). 맑다. 거제 현령(巨濟縣令) 안위(安衛), 발포만호(鉢浦 萬戶) 소계남(蘇季男)이 인사하고 돌아갔다. 수사와 여러 장수 그리고 피해 나온 사람들이 묵고 있는 곳을

알았다. 우후 이몽구가 전령을 받고 들어왔는데 본영의 군기와 군량을 하나도 옮겨 싣지 않았기 때문에 곤장 80대를 때려 보냈다.

○하동 현감(河東縣監) 신진(申蓁)이 와서 말하기를 "초 3일 내가 떠난 후 병사들이 진주(晉州)의 정개산성(鼎盖山城)과 벽견산성(碧堅山城)을 파산하여 스스로 무너트렸다."라고 하니 매우 통탄스러웠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十三日辛未。晴。巨濟,鉢浦還歸。虞候李夢龜承傳令入來。而以本營軍器無一移載事。决杖八十而送。

○河東縣監申蓁來傳。初三日吾行後。晉州鼎盖城及碧堅山城。罷散自潰云。可痛。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9) 『선조실록(宣祖實錄)』 권93, 30년 10월 11일

장령(掌令) 이함(李諴)이【대사헌 이헌국(李憲國), 집의 민몽룡(閔夢龍), 지평 성이문(成以文).】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어제 조보(朝報)를 보니, 조경(趙儆)의 머뭇거린 일을 비변사에 하문(下問)하시었습니다. 간관(諫官)이 들은 대로 논계하였는데 그들이 들은 것이 또한 보통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조경은 군사를 거느리고 왜적을 치러 가면서 직로로 경유하지 않고 느릿느릿 행군하여 반드시 우회하는 길로만 갔습니다. 머뭇거리고 겁낸 상황은 사람들이 함께 본 일이며, 함께 들은 것으로 통분(痛憤)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실로 공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혹 들려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닐까 염려하셔서 비변사에 하문하시었지만, 언론의 책임이 있는 자들은 장차 이로부터 해이해지고 태만해질 것이니 사체(事體)에 마땅치 못합니다. 또 조의(趙誼)와 윤담(尹湛)이 뇌물을 받은 일에 대해서도 정혹(鄭惑)에게 물으라고 하셨는데, 대간(臺諫)의 말을 어찌 사람들에게 물어서 처리하겠습니까. 정원(政院)은 임금의 명을 출납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미온(未穩)한 뜻도 모두 말하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이와 같은 거행이 없게끔 하여 묵묵히 한 마디 말도 없었으니, 잘못을 고쳐 아뢰는 뜻을 잃은 것으로 매우 그릇된 처사입니다. 색승지(色承旨)를 추고하소서.

전라 좌우후(全羅 左虞候) 이몽구는 당초 한산도에서 주사(舟帥)가 패배하였을 때 왜적이 본도에 침범하지 않았는데도 병영을 지키는 장수로서 허다한 군기와 군량을 처리할 생각은 않고 한갓 자신만 피할 생각에만 급급했습니다. 훔쳐 온 관곡(官穀)을 배에 싣고 처자를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한 일이 전후 장계에 소상하니 매우 분통합니다. 그때 즉시 선전관을 보내서 목을 베어 군문에 경계를 주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형벌을 쓰지 않았으므로 인심이 더욱 분개(憤慨)하고 있습니다. 이몽구를 급히 법률대로 처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승지의 일은 불가하고 이몽구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掌令李誠【大司憲李憲國,執義閔夢龍,持平成以文】來啓曰:“臣等伏見昨日朝報,趙儆逗遛事。下問于備邊司。諫官旣以所聞論啓。而其所聞。亦非尋常偶聞之事也。儆領兵擊賊。不由直路。而緩緩徐行。必往迂道。其逗遛畏怯之狀。人所共見。衆所共聞。莫不痛憤。此實公論之發也。自上或慮風聞之不實。至問備邊司。有言責者。將自此而解怠。其於事體。似爲未安。且趙誼,尹湛受賕之事。亦問於鄭穀。臺諫之言。豈敢問於人而處置乎? 政院居惟允之地。所當具陳未穩之意。俾無如此之擧。而默無一言。殊失覆逆之義。至爲非矣。請色承旨推考。全羅左虞候李夢龜。當初閑山舟師之敗。賊未犯本道。而以守營將官。許多軍器,軍糧。無意處置。徒急避身之計。盜載官穀於船隻。率妻子同騎。逃竄海中之事。昭載於前後狀啓。極爲痛憤。其時卽當發遣宣傳官。梟首以警轅門。而尙今漏刑。物情尤極憤惋。請李夢龜。亟命依律處斷。”答曰:“承旨事,不可。李夢龜。依啓。”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0)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정유년 10월

24일 신사일(辛巳日). 맑다. 해남에 있던 왜의 군량 3백 22섬을 실어 왔다. ○8시쯤 선전관(宣傳官) 하응서(河應瑞)가 왕의 분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우후 이몽구를 처형하라는 것이었다. 그 편에 들으니 명나라 수군이 강화도에 도착했다고 했다.【밤 10시께 땀이 나서 등을 적셨는데 자정이 되어서야 그쳤다.】[339] 새벽 3시쯤 선전관과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도착하였다고 했다. 날이 환하게 밝은 뒤에 들어왔는데, 선전관은 권길(權吉)이요, 의금부 도사는 훈련주부(訓鍊主簿) 홍지수(洪之壽)였다. 무안 현감(務安縣監)과 목포 만호(木浦 萬戶)와 다경포 만호(多慶浦 萬戶) 등을 잡으러 온 것이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二十四日辛巳。晴。海南倭軍粮三百二十二石。載來。○初更。宣傳官河應瑞持有旨入來。則乃虞候李夢龜行刑事。因聞唐舟師到江華云。四更末。又宣傳官及金吾郎到來云。平明入來。則宣傳官權吉,金吾郎洪之壽。以務安倅,木浦多慶浦萬戶拿去事。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11)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16, 「동의록」

자는 경서요, 호는 송오이며, 함평 사람인데 벼슬은 사재감 정(司宰監正)이다. 아버지는 별검(別檢) 신(紳)이며, 이조판서 기성군(箕城君) 긍(兢)의 5세손이다. 인품이 준수하고 바르며 지혜와 용기를 겸하여 갖추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랏일을 걱정하였는데 또 연북헌(戀北軒)이

339)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라 호를 지었다.

임진왜란에 의병을 일으켜 좌수사 이충무공에게 가니, 충무공이 보고 크게 기뻐하여 즉석에서 천거하여 본영의 우후가 되었다. 임진 4월에 경상도를 구원하러 갈 때에 유진장이 되었다. 5월 29일에 좌별도장으로서 전선 23을 거느리고 노량에 이르러 사도첨사 김완, 우수사 이억기, 도호부사 정여린, 녹도만호 정운과 합세하여 적선 12척을 쳐서 깨뜨렸다. 6월 2일에 당항포에 이르러 금단선(金團扇) 한 자루를 찾아 빼앗으니 이것은 적장의 부신물(符信物)이었다. 봉하여 조정에 올리니 공을 의론하여 상을 주었다. 정유년 6월 16일에 영등포에 이르러 적선 30여 척을 불살랐으나 마침내 탄환을 맞는 재화를 면하지 못하였다. 혼을 불러 고향에 돌아가 장사지냈다. 선무 원종훈(宣武原從勳)에 녹공되었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字慶瑞。號松塢。咸平人。司宰監正。父別檢紳。吏曹判書箕城君兢五世孫。器宇俊正。智勇兼備。一心憂國。又號戀北軒。壬辰之役。擧義旅。往右水使李公。公見之大悅。卽慶拜本營虞候。壬辰四月。赴援慶尙道時爲留鎭將。五月二十九日。以左別都將。領戰船二十三隻。至露梁。與蛇渡僉使金浣,右水使李億祺,都護府使鄭如麟,鹿島萬戶鄭運。合勢撞破敵船十二隻。六月二日。至唐項浦。搜取金團扇一柄。此敵將符信之物也。封上于朝。論功褒奬。丁酉六月十六日。至永登浦。焚敵船三十餘隻。竟不免中丸之禍。招魂歸葬。錄宣武原從勳。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25) 이설(李偰, ?~1598)

• 본관 양성(陽城), 자 미상, 호 미상

(1)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2, 「옥포파왜병장(玉浦破倭兵狀)」

영등포 앞바다로 물러 나와 군사들에게 나무를 하고 물도 긷게 하여 밤을 지낼 계책으로 삼았다. 그런데 오후 4시경 멀지 않은 바다에 왜의 큰 배 다섯 척이 지나간다고 척후장(斥候將)이 보고해왔다. 다시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쫓아갔다. 웅천현(熊川縣)의 합포(合浦) 앞바다에 이르러 왜적들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갔다. 사도 첨사(蛇渡僉使) 김완(金浣)이 왜의 큰 배 한 척, 방답 첨사(防踏僉使) 이순신이 왜의 큰 배 한 척, 광양 현감(光陽縣監) 어영담(魚泳潭)이 왜의 큰 배 한 척, 부통속방답적거전첨사(部統屬防踏謫居前僉使) 이응화(李應華)가 왜의 작은 배 한 척, 군관 봉사(軍官奉事) 변존서(卞存緖)·송희립(宋希立)·김효성(金孝誠)·이설이 힘을 합하여 활을 쏘아 왜의 큰 배 한 척을 남김없이 부수고 불태웠다. 그리고 밤을 타서 노를 재촉하여 창원(昌原) 땅 남포(藍浦) 앞바다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退駐永登浦前洋。令軍卒樵汲。以爲經夜之計。申時。不遠海中。又倭大船五隻過去。斥候將報變。故領諸將追逐。至熊川地合浦前洋。倭賊等。棄船登陸。蛇渡僉使金浣。倭大船一隻。防踏僉使李純信。倭大船一隻。光陽縣監魚泳潭。倭大船一隻。部統屬防踏謫居前僉使李應華。倭小船一隻。臣軍官奉事卞存緖,宋希立,金孝誠,李渫等同力射矢。倭大船一隻。無遺撞破焚滅。乘夜促櫓。至昌原地藍浦前洋。結陣經夜。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2)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2, 「당포파왜병장(唐浦破倭兵狀)」

접전할 때, 적의 철환이 신의 왼편 어깨를 맞히고 등을 뚫었으나, 중상(重傷)에 이르지 않았으며, 군관 봉사(軍官奉事) 나대용(羅大用)도 철환을 맞았고, 전 봉사(前奉事) 이설도 화살에 맞았는데 모두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接戰時。賊之鐵丸。中臣之左肩。貫于背而不至重傷。臣軍官奉事羅大用。亦中鐵丸。前奉事李渫。逢箭。并不致死。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3)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9, 「행록(行錄[從子 正郎 芬])」

계사년 2월 초 8일. 공은 이억기(李億祺)와 함께 나아가 토벌할 일을 의논하고 배를 띄워 부산(釜山)에 이르렀는데, 웅천(熊川)의 적이 부산의 길목을 움켜쥐고서 험난한 곳에 웅거하며 배를 감춰놓고 소굴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 공은 혹 복병을 보내어 유인도 해보고, 혹 드나들며 싸움을 걸었으나 도적은 우리의 위엄을 겁내어 바다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다. 단지 가볍고 빠른 배로 포구에서 엿보다가 소굴로 돌아서 들어갈 뿐이었다. 거리낌 없이 동쪽 서쪽 산기슭에 깃발들을 많이 세워놓고 높은 데로 올라가 총질을 하며 겉으로 교만한 모양을 보이니, 우리 군사들은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좌우에서 일제히 진격하여 대포와 화살을 쏘아댔다. 그 형세가 마치 바람과 우레 같았는데, 이렇게 하기를 종일토록 하자 쓰러져 죽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 좌별도장(左別都將) 이설, 좌돌격장(左突擊將) 이언량(李彦良)이 왜적 수백 명이 타고 있는 왜선 3척을 끝까지 쫓아갔는데, 그중에 적장 한 명이 금 투구에 붉은 갑옷을 입고 큰소리로 외치며 노 젓기를 재촉하였다. 우리 군사들은 피령전(皮翎箭)으로 적의 괴수를 쏘아 바닷속으로 거꾸러뜨리고 남은 적들도 모두 쏘아 죽였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癸巳二月初八日。公與李億祺相議進討之計。發船進至釜山。則熊川之賊。扼釜山之路。據險藏船。多作巢穴。公或遣伏誘引。或出入挑戰。賊畏怯兵威。不出洋中。只以輕疾船。闖然浦口。旋入巢

穴。但以旗幟多設於東西山麓。登高放丸。陽示驕橫之狀。我師不勝慷慨。左右齊進。砲箭交發。勢若風雷。如是者終日。顚仆死者。不知其幾許矣。左別都將李諜,左突擊將李彦良。窮逐倭三船所騎數百餘賊。其中賊將。着金冑紅甲。大呼促櫓。我師以皮翎箭射賊酋。卽仆于洋中。餘賊。亦皆射殺之。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4)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계사년 5월

24일 정축일(丁丑日).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아침에 거제(巨濟) 앞 칠천량(漆川梁) 바다 어귀로 진을 옮겼다. 나대용(羅大用)이 사량(蛇梁) 뒷 바다에서 명나라 관리를 발견하고 먼저 와서, 명나라 관리와 통사(通事) 표헌(表憲), 선전관(宣傳官) 육광흠(睦光欽)이 온다고 전하였다. 오후 2시쯤 명나라 관리 양보(楊甫)가 진 앞에 도착하였다. 우별도장(右別都將) 이설을 마중 나가 배까지 데려왔더니 매우 기뻐하였다. 내 배에 오르도록 청하고 황제의 은혜에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마주 앉기를 청하였으나 굳이 사양하였다. 그는 앉지 않고 선 채로 한 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하며 수군이 장하다고 매우 칭찬하였다. 예물 명단을 올리니,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는 듯하더니, 마침내 받고는 매우 기뻐하며 두 번 세 번 감사하다고 했다. 아들 회(薈)가 밤에 본영으로 돌아갔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二十四日丁丑。乍雨乍晴。朝。移陣于巨濟前漆川梁海口。羅大用探見唐官于蛇梁後洋。先來傳唐官及通事表憲與宣傳官睦光欽來云。未時。唐官楊甫到陣門。使右別都將李諜出迎。引來到船。多有喜色。請乘我船。謝皇恩再三。邀與對坐。則固辭不坐。立談移時。多稱舟師之盛。致禮單則初似固辭而受之。喜悅致謝至再。豚薈夜歸本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5)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계사년 7월

9일 신유일(辛酉日). 맑다. 남해 현령(南海縣令)이 다시 와서 광양(光陽), 순천(順天)이 이미 분탕질당했다고 전하였다. 그래서 광양 현감(光陽縣監), 순천 부사(順天府使)와 송희립(宋希立), 김득룡(金得龍), 정사립(鄭思立), 이설 등을 보냈다. 이 소식을 들으니 뼈속까지 사무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우수사(右水使), 경상수사(慶尙水使)와 함께 일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오늘 밤, 바다의 달빛이 맑고 밝아서 티끌 하나 일지 않는구나. 물과 하늘이 한 빛이 되어 서늘한 바람이 잠시 불어오네. 뱃머리에 홀로 앉아 있으니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는구나. 삼경에 본영 탐후선(探候船)이 들어와서 적의 괴상함을 전하는데 “실은 왜적들이 아니고, 영남 피

난민들이 거짓으로 왜놈들의 옷을 입고 광양으로 마구 들어가서 여염집을 불질렀다."라고 말했으며, "진양이 함락되었다는 것도 헛소리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양의 일만은 이렇게 할 이치가 전혀 없었다. 닭이 벌써 운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初九日辛酉。晴。南海又來傳光陽,順天已爲焚蕩云。故光陽,順天及宋希立,金得龍,鄭思立,李洙等發送。而聞來痛骨。不能措語。○與右令公及慶尙令公。論事。○是夜。海月淸明。一塵不起。水天一色。凉風乍至。獨坐船舷。百憂攻中。三更。營探候船入來傳賊奇。則實非倭賊。嶺南避亂人。假着倭形。突入光陽。閭閻焚蕩云。晉陽之事亦虛云。然晉陽事。萬無是理。雞已鳴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6)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갑오년 2월

4일 계축일(癸丑日). 맑다. 바람이 많이 불었다. 아침을 먹은 뒤 순천 부사(順天府使)와 우조방장(右助防將)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무렵에 본영의 전함과 거북선이 들어왔다. 조카 봉(菶)이 오는 편에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다. 기쁘고도 다행이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初四日癸丑。晴。大風。朝食後。順天右助防將來話。○晩。營戰船,龜船入來。因菶姪來。聞天只平安。喜幸喜幸。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7) 이순신(李舜臣),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4, 「당항포파왜병장(唐項浦破倭兵狀)」

4일 새벽에 전선 20여 척을 견내량(見乃梁)에 주둔시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고, 또 3도의 경예선(輕銳船)을 가려내었다.

전라좌도(全羅左道)에서는 좌척후장(左斥候將) 사도첨사(蛇渡僉使) 김완(金浣), 일령장(一領將) 노천기(盧天紀), 이령장(二領將) 조장우(曹長宇), 좌별도장(左別都將) 전 첨사(前僉使) 배경남(裵慶男), 판관(判官) 이설, 좌위좌부장(左衛左部將) 녹도 만호(鹿島萬戶) 송여종(宋汝悰), 보주통장(步駐統將) 최도전(崔道傳), 우척후장(右斥候將) 여도 만호(呂島萬戶) 김인영(金仁英), 일령장(一領將) 윤붕(尹鵬), 거북선 돌격장(突擊將) 주부(主簿) 이언량(李彦良), 전라우도(全羅右道)에서는 …… 등 31명의 장수를 선발하고, 수군 조방장(助防將) 어영담(魚泳潭)을 장으로 정하여 당항포(唐項浦)와 오리량(吾里梁) 등지의 적선이 정박한 곳으로 몰래 급히 보냈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初四日曉頭。留戰船二十餘隻於見乃梁。以備不虞。又抄三道輕銳船。全羅左道左斥候將蛇渡僉使金浣,一領將盧天紀,二領將曹長宇,左別都將前僉使裵慶男,判官李渫,左衛左部將鹿島萬戶宋汝悰,步駐統將崔道傳,右斥候將呂島萬戶金仁英,一領將尹鵬,龜船突擊將主簿李彦良,全羅右道…… 等三十一將。抄擇舟師。助防將魚泳潭定將。唐項浦,吾里梁等賊船住泊處。潛師馳送。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8)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을미년 11월

12일 경진일(庚辰日). 맑다. 발포(鉢浦)의 임시 대장으로 이설을 정하여 보냈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十二日庚辰。晴。鉢浦假將。李渫定送。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9)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병신년 6월

19일 을묘일(乙卯日). 맑다. 체찰사(體察使)에게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본 후에 활 15순(巡, 75발)을 쏘았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十九日乙卯。晴。體察使處。公事成送。○晩出。射帿十五巡。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26) 이용제(李容濟, 1565~1597)

• 본관 전의(全義), 자 여우(汝優), 호 후조당(後凋堂)

(1) 박광일(朴光一), 『손재집(遜齋集)』 권8, 「증병조참판 이공 묘지명(贈兵曹參判李公墓誌銘)」

공의 휘는 용제(容濟)이고, 자는 여우(汝優)이며, 성은 이씨(李氏)로,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고려(高麗) 태사(太師) 삼중대광(三重大匡) 익찬(翊贊) 2등 공신 도(棹)의 후손이며, 광정대부(匡靖大夫) 대제학을 지낸, 호는 운제(蕓齊)[340] 시호 문의공(文義公)인 언충(彦冲)의 9세손이고, 삼중대광(三重大匡) 전성군(全城君) 사의(思義)는 공의 7대조이다. 증조는 승문원 습독관(承文院習讀官) 휘 영상(永祥)이다. 조부는 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 계공랑(啓功郎) 휘 수종(壽宗)이다. 아버지는 증 호조 참의(贈戶曹參議) 성균관 진사(成均館進士) 휘 담(曇)이

340) 대문에는 예재(藝齋)라 되어 있으나 운제(蕓齊)가 맞으므로 고쳐 적는다.

다. 어머니는 양씨(梁氏)로, 부정(副正) 양징(梁澄)의 딸이다.

공은 가정(嘉靖) 을축년(1565, 명종 20)에 태어났다.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경서와 사서에 일찍 통달하였고 제자백가서를 두루 섭렵하였다. 책을 보면 바로 외웠고 두텁게 축적하되 조금만 드러내어 입신양명을 기대하였다. 진사공이 세상을 뜬 뒤 벼슬길에 마음을 끊고, 파산(葩山) 북쪽에 띳집 두세 칸을 엮고 '후조(後凋)'라고 편액을 건 뒤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를 유유히 걸어 다녔다. 어머니 말씀에 따라 마지못해 과거시험을 보았으나 누차 낙방하자, 이에 말하기를 "급제 여부는 운수에 달렸으니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나 다만 어머니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으니 자식 된 마음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데 문과든 무과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고, 마침내 문과 준비를 그만두고 만력(萬曆) 신묘년(1591, 선조 24)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당시 27세였는데, 선전관(宣傳官) 겸 비변사낭청(備邊司郎廳)에 제수되어 변방을 순시하기 위하여 탐라를 왕래하였다.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제수되었다가 또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으로 옮겼고, 얼마 후 흥덕 현감(興德縣監)으로 나갔다. 흥덕은 피폐한 고을로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는 백성이 없었다. 공이 부임한 이래 아전을 엄하게 단속하고 백성들을 관대하게 어루만지니, 고을 사람들이 그에 힘입어 소생하였다.

정유재란 때 전라도 병사 이복남(李福男)이 한 무리의 명나라 군대와 용성(龍城, 남원의 옛 이름)에 머물러 진을 치고 적세(敵勢)를 막았다. 금산(錦山)과 진양(晉陽)에서 패배하여 함락된 뒤, 의사(義士)와 명장(名將) 중에 생존한 자가 거의 없었고, 구원병은 도착하지 않자 적세는 날로 위급하였다. 주장(主將)이 명나라 장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늘 일은 어쩔 도리가 없다. 도내 수령 중에 오직 흥덕 현감(興德 縣監) 이모(李某)가 문무(文武)의 재주를 겸하였으니, 위태로운 상황에 믿음직할 것이다. 비록 직무상 지금 수전(水戰)에 대비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위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아니면 함께 일을 도모할 사람이 없으니, 속히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한편으로는 조정에 급히 장계를 올리고 한편으로는 흥성(興城)에 명령을 전하였다.

공이 주장의 말뜻이 간절한 데 깊이 감동하여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오늘 한번 죽기로 결심하였다. 수전에 대비할 전함을 수리하며 이곳이 바로 내가 죽을 곳이었는데 지금 용성(龍城)이 조만간 장차 함락되게 생겨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한번 죽는데 어찌 육지와 바다를 가리겠는가."라고 하였다. 곧장 상사(上舍) 유현남(柳賢男)을 유진관(留鎭官)으로 삼고 곧바로 용성으로 달려갔다. 장남 정건(廷楗)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아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상심하지 말고, 네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잘 보호하여 병란을 피해 잘 살아남아서 가문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건은 나이가 겨우 11세였는데 옷자락을 붙들고 울며 차마 결별하지 못하였다. 공이 다시 타이르며 말하기를 "적군이 패망하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니, 어

찌 부자가 만날 날이 없겠느냐.”라고 하였다. 공은 즉시 길을 곱절로 달려 곧장 용성에 닿았다. 주장이 보고 손을 잡고 서로 왜적을 막을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진중의 막료들이 의지하며 중하게 여겼다. 당시 명나라 군사 중 칼솜씨가 뛰어난 자들이 밤을 틈타 출몰하면서 적진에 몰래 들어가 매우 많은 적을 죽였다. 왜적은 그들이 출입하는 문을 엿보고 있다가 다음 날 밤중에 잠복하여 기다리다가 꽤 멀리 군대를 이끌고 가자 이윽고 일군의 군사를 몰아 성으로 침입하게 하였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달리는 듯하여 막을 수 없는 형세였다. 공은 데리고 다니는 통인(通引, 수령 심부름하는 아전), 급창(吸唱, 지방 관아의 하인)과 함께 자리 옆에 칼을 놓고 결사 항전할 생각이었다. 군관 김성특(金城特)은 공과 같은 마을 사람이었는데, 급히 장막으로 들어와 공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헛되이 죽는 것은 무익합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일단 흉적의 예봉을 피했다가 훗날 공로를 기약하십시오.”라고 했다.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적을 보고 후퇴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 죽지 않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내가 이 성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너는 빨리 나가 피하고 다행히 죽지 않거든 오늘 나의 일을 우리 집에 가서 알려 달라.”라고 했다. 이어 짧은 절구 한 수를 지어 주었으나 김성특이 정신없이 도망치는 중에 그 종이쪽지를 잃어버려 첫 구만 입으로 전해 주었는데,

남아가 나라에 목숨 바친 뜻	男兒殉國志
삼 척의 옥룡이 알리라	三尺玉龍知

라고 하였고, 그 아래 구는 전하지 못하였다.

성이 함락되던 날은 바로 8월 16일이었다. 공은 주장과 함께 피를 뿌리며 마주 보고 죽으니 향년 33세였다. 부인 나씨(羅氏)는 자식들을 데리고 황해도 배천(白川) 땅으로 병란을 피했다가, 용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통곡하여 거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왜란이 평정된 뒤 곧장 용성에 도착하여 공의 시신을 찾았으나, 전사자의 유골이 산처럼 쌓여 있어 식별할 수가 없어서 결국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초혼(招魂)한 뒤 돌아와 성이 함락되던 날을 기일(忌日)로 삼았다.

부인은 주부(主簿) 나사양(羅士揚)의 딸로, 아들 넷을 낳았다. 장남은 정건(廷楗)으로, 부윤(府尹)이다. 차남은 정량(廷樑)이고, 다음은 정순(廷楯)으로 장사랑(將仕郎, 문관 종9품 관품)이며, 다음은 정동(廷棟)이다. 손자가 있는데, 환(煥)과 선(燹)은 장방(長房, 장남) 소생이고, 섭(爕)은 중방(仲房) 소생이며, 재승(再承)은 계방(季房) 소생이다. 내외 증손과 현손이 매우 많다.

인조 때 아들 정건(廷楗)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병조 참판(兵曹參判)의 증직을 받았다.

공은 호걸의 기상과 준수한 인물로, 지기(志氣)는 충신과 의사들의 간담을 격동시켰는데, 어찌 순국한 장렬한 절개가 사실을 기록한 문서에 누락되어 충신을 상 주고 절개를 장려하는 은전을 홀로 여태 입지 못하였는가. 도총부 도사(都摠府 都事) 정민득(鄭敏得)은 산직(散職)으로 함평에 살고 있다가, 또한 당시 용성의 위급함을 듣고 전란을 무릅쓰고 달려가 싸우다가 죽었다. 데리고 간 군관 정대남(鄭大男)은 "한번 죽기로 이미 마음을 정하였고, 구차하게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했던 공의 말을 매번 말하면서,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외진 고을에 문헌(文獻)이 부족하여 그 충절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원통해 하고 있다. 흥성의 선생안(先生案)에 기록으로 올라 있는 것이 밝고 분명하여 흥덕 사람들이 모두 지금까지 칭찬하고 있고, 심지어 관청에 알리고 조정에 계문(啓聞)하기를 청하였으니, 그 사실이 엄연히 있으므로 끝내 이처럼 덮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또 흥덕 관아 뒤에 비석 하나를 세워 공이 전쟁에서 사망한 실제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흥덕현의 늙은 아전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로 전하는 칭송이 수 척 비석의 존숭에 그치지 않으니, 비석이 있고 없고를 또 어찌 따지겠는가.

아, 포상하는 은전에 오래도록 빠진 것은 진실로 공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지만,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수 없다. 절개를 숭상하고 의리를 사모하는 세상의 군자라면 또 어찌 이런 현실에 대해 개탄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공의 현손 경시(慶蒔)가 공의 행적 한 통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 주며 묘지(墓誌)로 쓸 글을 청하였는데, 사양할 수 없어서 결국 집안에 보관하던 기록을 살펴보고 글을 써서 무덤에 넣는다. 명은 다음과 같다.

호남 한 지역은	湖南一域
정기가 모인 곳	正氣所聚
고제봉과 함께	惟高霽峯
창의사가 계시니	暨倡義使
장한 절개 바른 충심	壯節貞忠
가을 하늘 타는 태양이로다	秋天烈日
그 밖에 순국한 분	餘外殉國
이루 셀 수 없나니	指不勝屈
널리 포상하는 은전으로	普施褒典
작위 내리고 제사 지냈도다	乃爵乃享
공은 홀로 어찌하여	公獨如何
명성은 있는데 은전은 없는가	有聲無響
공이 어찌 유감스러워하리오	公何憾焉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손재집(https://db.itkc.or.kr/)

公諱容濟字汝優。姓李氏。全義人。高麗太師三重大匡翊贊二等功臣棹之後。匡靖大夫大提學號雲齋諡文義公彦冲之九世孫而三重大匡全城君思義。於公爲七世祖也。曾祖文習讀諱永祥。祖通禮院左通禮啓功郎諱壽宗。考贈戶曹參議成均進士諱曇。妣梁氏副正澄之女。公生於嘉靖乙丑。天資純美。早通書史。披歷諸家。覽輒成誦。厚積薄發。期以立揚矣。自進士公卽世之後。絕念於名途。於葩山之北。結茅堂三數間。扁以後凋。倘佯於蒼松翠竹之間。以慈訓俛勉赴試而累見屈。乃曰得失有數。不當關念。而但未副萱堂之望。人子之心。不得不慨然。悅親何間於文武。遂投筆萬曆辛卯登武科。時年二十七。除宣傳官兼備邊郎。以巡邊事。往來耽羅。除司憲府監察。又遷軍器寺副正。俄出宰興德縣。興是弊縣。民無安土之意。公下車以來。束吏以嚴。撫民以寬。邑人賴以蘇息。丁酉之亂。本道兵使李福男與一隊天兵。留鎭龍城。以遏賊勢。自錦山,晉陽陷敗之後。義士名將殆無存者。援兵不至。賊勢日急。主將謂天將曰。今日之事。無可奈何。道內守宰中惟興德縣監李某才兼文武。緩急可恃也。雖以所職方爲水戰備。然當此危急之際。非此人無可與計事者。可令趁速上來。於是一邊馳啓於朝。一邊傳令於興城。公深感主將辭意之懇懇。顧謂左右曰。吾於今日。已決一死。治艦水戰。是我死所。而今龍城朝暮且陷。事急矣。一死何擇於水陸。卽以上舍柳賢男爲留鎭官。卽馳赴龍城。謂其長子廷楗曰。汝勿以父死戰場傷毁。善護汝母及稚弟。避兵圖生。以全門戶可也。廷楗年才十一。挽衣號泣。不忍拜訣。公復慰喩之曰。賊亡則吾當不死。父子相見。豈無日耶。公卽日倍道直抵龍城。主將見而握手。相與圖議禦寇之策。幕中羣僚倚以爲重。時天兵之能於釰術者。乘月出沒。潛入賊營。殺傷甚衆。賊窺其出入之門。翌日夜半。潛伏要候。引去稍遠。乃使一枝兵長驅入城。有若奔霆走雷。勢不可遏。公與所帶通引吸唱。置釰於坐側。擬決一死。軍官金城特公之里人也。疾入帳中呼公曰。事已至此。徒死無益。願公姑避凶鋒。以圖後功。公笑曰見賊而退。無勇也。不死於國。非忠也。吾棄此城何歸。汝速出避。幸而不死。以吾今日之事。歸告於吾家。仍以一小絕贈之。成特於蒼黃奔避之中。遺失其小紙。口傳首句曰。男兒殉國志。三尺玉龍知。其下句則不能傳。城陷日。乃八月十六日也。公與主將抆血相視而同死焉。享年三十有三。夫人羅氏携諸子避兵於黃海之白川地 聞龍城之陷。日夜號哭。幾不能自全矣。平亂後卽到龍城。尋公之屍。則戰骨如山。不可識別。終未收遺骸。招魂而歸。以城陷日爲忌日。夫人主簿羅士揚之女。生四男。長廷楗府尹。次廷樑。次廷楯將仕郎。次廷棟。孫男煥,燇長房出。爕仲房出。再承季房出。內外曾玄甚衆。仁廟朝以子廷楗貴贈兵曹參判。公豪爽俊邁。志氣激勵。忠臣義士之肝膽。夫何殉國壯節。見漏於記實之籍。而獨未蒙褒忠奬節之恩典歟。如都摠府都事鄭敏得以閑散居在咸平地。亦於當時聞龍城之急。冒亂赴鬪而死。其所帶軍官鄭大男每言公一死已定。苟活非我志之言。輒流涕云云。以遐鄉文獻之不足。而泯沒其忠節。鄉人至今寃之。興城之先生案懸錄昭昭。興人擧皆稱嗟。以至于今。而至於聞官。請其啓聞于朝。則有其實而終不可掩有如是夫。又於興衙後

竪一石。詳記公戰亡實蹟。而縣之老吏以古有而今無爲言。然人口豐碑。不止於數尺之崇。則石之有無。又何論焉。噫。久闕褒典。固無少損於公。而其在激勸之道。不能無歉。世之尙節慕義之君子。亦豈無慨然於斯者耶。公之玄孫慶蒔袖其行蹟一通來示余。請爲文以誌其墓。辭不獲。遂考諸家藏而叙之。納之幽堂而銘之曰。湖南一域。正氣所聚。惟高霽峯。暨倡義使。壯節貞忠。秋天烈日。餘外殉國。指不勝屈。普施褒典。乃爵乃享。公獨如何。有聲無響。公何憾焉。瞑目泉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손재집(https://db.itkc.or.kr/)

(2)『선조실록(宣祖實錄)』권86, 30년 3월 24일

3월 19일 성첩(成貼)한 도원수 권율의 서장에,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이억기(李億祺)의 치보(馳報)에 '3월 8일 왜선(倭船) 대·중·소 3척이 거제(巨濟) 기문포(器問浦)에 와서 정박(定泊)해서 상륙(上陸)하였다 하기에 이에 통제사(統制使)가 즉시 주사(舟師)를 거느리고서 일시에 발선(發船)하여 밤새도록 노를 저어 9일 이른 아침에 기문포에 당도하여 보니, 왜선 3척이 해안(海岸)에 매여 있는데 왜적은 모두 상륙하였고, 산기슭 사이에서 밥 짓는 연기가 잠시 일어나는 중에 왜적 3~4명이 칼을 번뜩이며 언덕 위에 서 있었다. 통제사가 항왜(降倭,임진왜란 때 조선에 투항하여 귀화한 일본인) 남여문(南汝文) 등을 보내어 이해(利害)로 회유(誨誘)하게 하였더니, 숨어서 매복하던 왜적 20여 명이 나왔고, 남여문이 왜추(倭酋)와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자 숨어있던 왜적이 다 나왔는데 대개 80여 명이었다. 그들은 우리 주사(舟師)의 성대한 위용(威容)을 보고는 엄습을 받을까 의심하여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였다. 안골포 만호(安骨浦萬戶) 우수(禹壽), 고성 현령(固城縣令) 조응도(趙凝道), 거제 현령(巨濟縣令) 안위(安衛) 등이 탄 배가 다투어 올라가서 항복을 받으니, 장왜(將倭)가 그 무리 7명을 거느리고 와서 통제사의 배로 올라갔다. 통제사가 그에게 술을 주고 배를 타고서 떠날 것을 허락하니 왜적들은 살아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여 죽 늘어서서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무수히 치사(致辭)하고는 빠짐없이 배 있는 데로 내려가서 두 배에 나누어 타고 바다로 나아갔다. 돛을 달려는 즈음에 통제사가 먼저 지자총통(地字銃筒)을 쏘고 지휘기(持揮旗)를 흔들며 적각(笛角)을 급히 부니, 제선(諸船)이 앞을 다투어 공격하였다. 조응도(趙凝道)가 탄 배는 다른 배보다 상당히 빨라 먼저 적에게로 달려 들어가서 적선을 공격하니 왜적 20여 명이 조응도의 배로 올라와 싸웠는데 조응도, 사부(射夫), 격군(格軍) 등 적의 칼날에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으나, 혹은 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다른 배에 구제되기도 하여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 적의 칼을 맞고 물로 뛰어든 조응도를 우수(禹壽) 배에 건졌으나 잠시 뒤에 죽었다. 적들이 그대로 조응도의 배인 고성(固城)의 배를 타고서 노를 저어 북쪽으로 달아날 때 제선이 포위하여 지자총통과 현자총통(玄字銃筒)을 계속 쏘아대니 좌우의 방패(防牌)가 총에 맞아 다 떨어졌고, 화살이 비 오듯 하니 왜적은 허둥대며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임치 첨사(臨淄僉使) 홍견

(洪堅), 흥덕 현감(興德縣監) 이용제(李容濟)로 하여금 당화전(唐火箭)과 송거(松炬) 등으로 적선에 불을 지르도록 하여 왜적들이 모두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를 향해 헤엄칠 때 사살하고서 그 시체를 건져 목을 벤 것이 모두 18급(級)이었다. 판별하고 조사하여 통제사에게 보내어 수송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啓下)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적의 수급을 벤 사람들은 통제사가 군공(軍功)을 마련하여 장계하기를 기다린 뒤에 논상(論賞)하고, 조응도와 전사한 사람들도 자세한 치계가 있은 뒤에 휼전(恤典)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통제사에게 이문(移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三月十九日成貼都元帥權慄書狀:

全羅道右水使李億祺馳報內。三月初八曰倭船大中小三隻。巨濟器問浦來泊下陸。卽時率舟師。統制使一時發船。徹夜促櫓。初九日早朝。馳到器問浦。倭船三隻。掛置海岸。倭賊盡數下陸。山藪間炊烟暫起。倭人三四名。耀劍出立岸上。統制使送降倭,南汝文等。利害開誘。則隱伏之倭。二十餘名出來。南汝文與倭酋從容誘說。則竄伏之賊。專數出來。大概八十餘名。見我舟師盛威。掩擊疑慮。欲爲偷生。安骨浦萬戶禹壽,固城縣令趙凝道,巨濟縣令安衛等所騎船。爭登納降。將倭率其徒從七名。來乘統制使船。饋酒。許令乘船出去。則賊倭等。喜得生還。羅拜叩頭。致謝不已。無遺還下其船。分騎二船。浮出洋中。懸帆之際。統制使先放地字銃筒。指旗促角。諸船爭相攻擊。趙凝道所騎船。輕疾超衆。先爲馳入。與賊船相搏。倭人二十餘名。攀緣上船。趙凝道及射夫,格軍。多被賊劍。或投水游泳。或攀陞他船。生活者數多。趙凝道逢刃投水。禹壽船拯在。未幾身死。其賊仍騎固城之船。搖櫓北走時。諸船圍匝。連發地,玄字銃筒。左右防牌。貫中擺落。射矢如雨。倭賊蒼黃罔措。令臨淄僉使洪堅,興德縣監李容濟。或唐火箭。或松炬等。起火焚船。倭人等竝下船。游泳向陸之際。射殺拯斬。合十八級。辨驗上送。統制使輸送事。

全羅道右水使李億祺馳報內。三月初八曰倭船大中小三隻。巨濟器問浦來泊下陸。卽時率舟師。統制使一時發船。徹夜促櫓。初九日早朝。馳到器問浦。倭船三隻。掛置海岸。倭賊盡數下陸。山藪間炊烟暫起。倭人三四名。耀劍出立岸上。統制使送降倭南汝文等。利害開誘。則隱伏之倭。二十餘名出來。南汝文與倭酋從容誘說。則竄伏之賊。專數出來。大概八十餘名。見我舟師盛威。掩擊疑慮。欲爲偷生。安骨浦萬戶禹壽。固城縣令趙凝道。巨濟縣令安衛等所騎船。爭登納降。將倭率其徒從七名。來乘統制使船。饋酒。許令乘船出去。則賊倭等。喜得生還。羅拜叩頭。致謝不已。無遺還下其船。分騎二船。浮出洋中。懸帆之際。統制使先放地字銃筒。指旗促角。諸船爭相攻擊。趙凝道所騎船。輕疾超衆。先爲馳入。與賊船相搏。倭人二十餘名。攀緣上船。趙凝道及射夫。格軍。多被賊劍。或投水游泳。或攀陞他船。生活者數多。趙凝道逢刃投水。禹壽船拯在。未幾身死。其賊仍騎固城之船。搖櫓北走時。諸船圍匝。連發地。玄字銃筒。左右防牌。貫中擺落。射矢如雨。倭賊蒼黃罔措。令臨淄僉使洪堅。興德縣監李容濟。或唐火箭。或松炬等。起火焚船。倭人等竝下船。游泳向

陸之際。射殺拯斬。合十八級。辨驗上送。統制使輸送事。
啓下備邊司。回啓。向前斬馘人等。待統制使軍功磨鍊。狀啓後論賞。趙凝道及戰亡人。詳實馳啓後。恤典擧行爲當。統制使處行移何如。啓依允。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7) 이정건(李廷楗, 1587~1665)

• 본관 전의(全義), 자 백고(伯固), 호 연정(蓮亭)

박광일(朴光一), 『손재집(遜齋集)』 권8, 「의주부윤 이공 행장(義州府尹李公行狀)」

공은 휘가 정건(廷楗)이며, 자는 백고(伯固)이다. 증(贈) 참판(參判) 행 흥덕 현감(行興德縣監) 용제의 아들이고, 증 참의(參議) 진사 담(曇)의 손자이다. 참판이 흥덕에 현감으로 갔을 때 공도 따라갔다. 당시 나이 11세였는데, 외모가 훤칠하였고, 대의(大義)에 능통하였다.

그때 정유재란(丁酉再亂)을 맞아 참판공이 용성(龍城)으로 갔다가, 병사(兵使) 이복남(李福男)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다. 공이 하늘에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어머니 나씨(羅氏)를 모시고 배를 타고 곧장 황해도(黃海道) 백천(白川)에 도착했다가 도로 경성(京城)을 향하여 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행히 화를 면하였다. 난리가 평정된 뒤 곧장 용성으로 와서 복시(復矢, 화살을 내저으며 초혼하는 것)하고 돌아와 나주(羅州) 세화면(細花面) 산추동(山楸洞) 을좌신향(乙坐辛向) 언덕에 장례 지내고 그대로 발산촌(鉢山村)에 거주하였다. 그동안의 끝없는 애통함과 괴로움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성품이 매우 엄격하여 집안의 가르침에 법도가 있었는데, 일찍이 공에게 "너의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셨을 때 내가 미처 자결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른 것은 너희들 4형제들 때문이다. 지금 네가 과부의 아들로 배울 곳이 없이 마음대로 방종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께 욕을 끼칠까 하는 것이 내 걱정이다.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라고 하였다. 하루는 버드나무 가지 몇 움큼을 꺾어 주면서 "난리를 겪은 나머지 집안 살림이 다 피폐해졌으니, 사용할 붓이나 먹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것으로라도 글자를 연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공이 받아 붓을 만들고 손 가는 대로 글씨를 쓰면서 잠시도 태만하지 않았다.

하루는 어머니께 여쭙기를 "근래 듣자니 신광업(辛光業)이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어머니가 "세월은 쉽게 지나가고 젊은 날은 얼마 되지 않으니, 너는 하릴없이 놀지 말고 어미의 바람을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공은 부제학(副提學) 신천익(愼天翼)과 함께 가서 배웠다. 한 달이 지나 신천익과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는 그 집에 절대 가지 않았는데, 대개 이유가 있었다.

선각자의 문하에 가서 배우면서 문장이 날로 나아가고 문리도 깊고 넓어졌으므로 당시 동료

들이 추앙하였고 당세에 중망을 받았다. 공은 키가 8척이나 되었고 체력도 남보다 뛰어났으며, 말수가 적고 과묵하였고 정신이 맑고 늠름하여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함부로 희롱하지 못하였다. 약관 이후로는 용성(龍城)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며 애통해하다가 더욱 뼛속에 사무치도록 슬퍼하였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살면서 장차 집안의 도가 일어나지 못할 것을 걱정하였다.

만력(萬曆) 무오년(1618, 광해군 10)에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무과 시험에 응시하여 방목(榜目)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방방(放榜, 과거급제자 발표)하기 전에 꿈에 어머니를 뵈었는데, 신색(神色)이 마르고 초췌하여 평소 모습이 아니었으므로 마음이 몹시 근심스러워 놀라 깨어나니 꿈이었다. 앉아서 새벽을 기다려 걸어서 며칠 밤낮을 걸려 비로소 집에 도착하였더니,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이 이미 여러 날 되었는데 집안사람에게 물어보니 과연 그 꿈을 꾸었던 날 밤이었다.

몇 달 동안 고질이 되자 약을 봉양함에 쓰지 않은 약이 없었고, 병환이 악화되자 손가락에 피를 내어 드렸으나 결국 효험이 없었으니, 그때가 중하(仲夏, 5월) 19일이었다. 방방한 뒤에 홍패(紅牌)가 이날 도착했는데 원근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는 참담하여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3년 동안의 예법은 쭉 「가례(家禮)」를 따랐고, 복제가 끝난 뒤에는 생업에 머물지 않고 한양에서 유학하였다.

이 상공(李相公) 백강(白江)[341], 김 상공(金相公) 청음(淸陰, 김상헌), 최 상공(崔相公) 지천(芝川, 최명길) 등은 모두 공경하고 예로 대우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호남(湖南) 삼걸(三傑) 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바로 병사(兵使) 박성오(朴省吾)와 수사(水使) 나덕헌(羅德憲)을 가리킨다.

선전관 겸 비변사낭청(宣傳官兼備邊司郎廳)에 제수되었는데, 천계(天啓, 명나라 희종의 연호) 계해년(1623, 인조 원년)이었으니, 당시 나이 37세였다. 비변사의 공무를 붓을 들고 처리할 때 막힘없고 시원하여 일이 적체되지 않았다. 당상(堂上) 제공(諸公)들이 자주 "한림(翰林, 예문관 사관)이나 주서(注書, 승정원 7품 관원)의 재주도 이보다 낫지는 못하다."라고 칭찬했다.

갑자년(1624) 이괄(李适)의 변란 때, 인묘(仁廟)가 전교하기를, "역적 이괄은 바로 여주(驪州) 사람이다. 여주 창고에는 저축해 놓은 곡식이 많으니, 그대가 지금 가서 곡식을 나누어 주

---

341)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 1585~1657)이다. 그의 호가 백강이다. 자는 직부(直夫), 호는 봉암(鳳巖)이다. 1609년(광해군 1)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괄(李适)의 난 때 왕을 호위하고, 부제학 · 전라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병자호란 때 왕을 호위하고, 경상도 관찰사 · 대사성 · 형조 판서 등을 지냈다. 심양(瀋陽)에 억류되었다가 세자와 함께 귀국해 우의정이 되고, 효종 때 영의정에 올랐다.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다. 저술로 『백강집』이 있다.

어 민심을 복속시켜라."라고 했다. 공이 본임(本任)으로 바로 명을 받들어 말도 타지 않고 산 넘고 물 건너 달려서 몸소 여주로 가서 창고에 쌓인 곡식을 풀어 군민(軍民)에게 나누어 먹이고 인심을 진정시켰다. 얼마 안 있어 이괄이 복주(伏誅)되자 돌아와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가 되었고, 또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제수되었는데, 맡은 직무에 하나도 착오가 없었으므로 주변의 기대가 무거웠다.

다음 해 을축년(1625) 8월, 경원도호부 판관(慶原都護府判官)으로서 백성들을 청렴하게 다스려 치적에 대한 칭찬이 크게 자자하였다. 임기가 차서 돌아온 뒤에 거주민들이 비석을 세워 덕을 칭송했던 일이나 도로를 막고 구순(寇恂)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던 일은, 은혜와 교화가 사람들에게 깊이 젖어들지 않았다면 이럴 수 있겠는가.

숭정(崇禎) 4년 신미년(1631, 인조 9) 1월에 남해 현령(南海縣令)이 되었다. 병란 뒤 30년간 고을이 적막하여 백성이 소생하지 못하였으며, 관청이나 공공건물이 아직도 수리되지 못한 채 잡풀로 덮여 있었다. 공이 이를 개탄하여 중건하고자 하였지만 힘은 부치고 사무는 번거로웠다. 따로 굉장히 애를 쓰면서 때를 보아 일을 추진하자 한 해 동안에 고을의 면모가 새로워졌고 고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충무공 이순신이 정유재란 때 노량에서 전사하였는데, 아직도 비석을 세워 충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공은 이를 애석하게 여겨 강가에 사당을 세워 순수한 충의를 표창하고 이어 기문(記文)을 지어 서술하였다.

숭정 7년 갑술년(1634, 인조 12) 2월, 또 군기시 판관(軍器寺 判官)에 제수되었다. 몇 달 뒤 도총부 경력 겸내승(都摠府經歷兼內乘)으로 승진되었다. 그해 10월 용천 도호부사(龍川 都護府使)가 되었는데, 관직에 부임하여 백성을 다스릴 때 사안에 따라 조리가 있었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임경업(林慶業)[342]과 함께 산성 수축을 감독할 때, 임경업은 돌을 지고 공은 흙을 지면서 직접 판(板)과 가래를 잡고 병사들을 솔선수범하여 이끌었다. 이상이 전후 이력의 대강이다.

이때 북쪽의 기별이 흉흉하여 항상 염려하였다. 하루는 의주 부윤의 전령(傳令)과 패문(牌文)이 도착하였다. 공이 즉시 관할 아래 있는 몇 명을 거느리고 기한에 맞춰 의주로 갔는데, 부윤과 몇 마디 나누는 사이에 산성에서 봉수(烽燧)가 곧장 와서 적병이 압록강을 건넜다고 보고하였다. 부윤과 함께 얼마 안 되는 고립된 군졸을 인솔하여 막 산성으로 들어갔는데, 적의 기병이 기세를 뽐내며 이미 성 아래에 와 있었다. 바야흐로 응전하려고 할 때 무수한 적병들이

342) 임경업(林慶業): 1594~1646.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이다. 친명반청(親明反淸) 사상이 투철한 무장으로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활약하였으며,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명나라와 협력하여 청을 공격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시호가 충민(忠愍)이다.

10만 군대를 이끌고 곧장 용천(龍川)과 선천(宣川) 두 지역을 향하다가, 지름길로 평양(平壤)으로 향하였다. 당시 예상하지 못한 형세와 창졸간의 일은 이미 국승(國乘, 실록 등 나라의 역사)이 있으니 번거롭게 반복하지 않는다.

아, 강화도가 함락되고 화의(和議)가 성립하자 적개심(愾敵心)을 헛되이 품었으나 계책을 시행하지 못하고서 임금을 걱정하며 비통해했고 나라를 위해 깊이 수치스러워했다. 얼마 뒤 북적(北賊)이 풀고 돌아갈 때 가는 길에 백성들을 무수히 잡아갔고, 한양의 사녀(士女) 또한 그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은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 입고 있던 의복과 관청 노비들이 입던 의복을 벗어, 사서 돌려보낸 사람이 수십여 명이었는데, 공이 누구누구라고 말하지 않아 어떤 집 사람인지는 알지 못한다.

숭덕(崇德, 청나라 태종의 연호) 3년(1638, 인조 16) 의주 부윤(義州府尹)에 제수되었으나 재삼 사직하였다. 그러나 결국 체직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부임하였다. 대란을 겪은 나머지 길가의 고을들이 다 피폐하여 백성들은 거의 다 도망치고 흩어졌으며, 남은 백성들도 여전히 편히 모여 살 형편이 아니었다. 공이 노인들을 부양하고 고아들을 위문하여 덕정(德政)을 펴는 데 힘쓰니, 1년이 되지 않아 유랑하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어 호구(戶口)가 증가하였다. 뜻밖에 용천(龍川)으로 교체되어 온 신임 부사 이탄(李坦)이 항상 공에게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은밀히 모해(謀害)하려는 계책을 꾸몄다. 먼저 하리(下吏)들과 창고의 쌀 3백 석을 훔쳐내 흙과 섞어 창고에 넣되 한결같이 모두 훔쳐냈던 숫자대로 하고 며칠 지난 뒤 번고(反庫, 창고의 재물을 조사함)할 때 흉한 말을 지어내며 말하기를 "쌀을 훔쳐내 흙을 섞은 것은 과연 전 부사 이 아무개의 소행이다."라고 하고는 도리어 조정에 보고하였다. 공이 용천에서 의주(義州)로 옮긴 지 겨우 9개월 만에 무함(誣陷)에 걸려 잡혀갔다.

공이 당초 체임(遞任)될 때, 각종 창고의 남은 수량을 셈한 문서 한 건을 등서(謄書)해 두었는데, 명백하여 거짓이 없었다. 그러므로 즉시 이탄의 말과 서로 대조해 보니 피차 차이가 있고 절절마다 각각 달라 조금도 범법한 사실이 없었으니, 이탄이 사람을 근거 없이 무함한 실상을 끝내 숨기기 어려웠다. 이러한 내용으로 면류(冕旒, 임금) 아래 상달하니, 밝으신 성상께서 이탄의 무함을 통촉하였다. 그 당시 창고지기를 먼저 정형(正刑, 정식 절차에 따라 처벌함)한 뒤, 이탄은 전 가족을 진도(珍島)로 이사 보냈는데, 그대로 귀양지에서 죽었다. 공은 고성(固城)으로 유배 갔으나, 곧 석방되어 돌아왔다. 그 뒤 오위장(五衛將), 장흥 부사(長興府使)로 임명하는 유지(諭旨)가 왔으나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그 뒤 안주 우후(安州虞候)로 고향에 돌아와 남은 생애를 보전할 생각이었다. 그 당시 대사헌(大司憲) 박황(朴潢)이 순검사(巡檢使)로 부안(扶安) 격포(格浦)에 도착하여 진(鎭)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땅을 살펴보다가 특별히 공을 주상께 천거하여 영건 별장(營建別將)으로 삼으니, 부득이 취임하였다. 공사를 시작할 무렵 부안현감 이홍연(李弘淵)이 문관(文官)으로서 접대하는 사이에 예의를 많이 잃자 바로 보고하여 파

직시켰다.

공사 감독이 끝난 뒤 시골로 돌아와 명리(名利)에 대한 생각을 끊으니, 다년간의 벼슬살이가 꿈속의 일 같았다. 연정(蓮亭) 한 칸을 작은 연못가에 세우고 꽃과 대나무를 즐기면서 세상 근심을 풀어 버렸다. 그때 죽봉(竹峯) 유준(柳浚), 부사(府使) 김운해(金運海), 송도(松島) 나해륜(羅海崙), 참봉 임연(林淵), 진사 서진명(徐振鳴)이 번갈아 서로 따르며 어울렸으니, 녹야(綠野)의 흥취[343]와 반곡(盤谷)의 즐거움[344]을 상상할 수 있다. 평생 즐겨 읽었던 옛사람의 책은 「계사(繫辭)」 한 권과 『황석공(黃石公)』 한 부로, 항상 책상 위에 두었으며, 정신과 기백은 늙을수록 더욱 씩씩하였다.

을사년(1665, 현종 6) 봄 2월 보름 뒤 선산에 성묘하고 돌아와 곧 기운이 쇠약해지고 감기에 걸려 고질이 되더니 점차 병이 악화되었다. 24일 유시(酉時) 하늘에서 우레가 갑자기 진동하더니 큰 별이 뜰에 떨어져 오르내리기를 몇 차례 한 뒤 연못 속으로 떨어지니, 광명한 기운이 한참 동안 하늘에 걸렸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공이 일가족의 안부를 묻고, 장손 국명(國鳴)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죽을 것이니, 약을 쓸 것 없다."라고 하고 서거하니, 당시 나이 79세였다. 아, 슬프도다!

부인은 조씨(曺氏)이며, 도사(都事) 조대중(曺大中)의 딸이다. 2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환(煥)으로, 계공랑(啓功郞)인데 공보다 먼저 일찍 세상을 떴고, 차남은 선(燹)으로, 현신교위(顯信校尉)이다. 딸은 사인(士人) 고두경(高斗經)에게 시집갔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손재집(https://db.itkc.or.kr/)

公諱廷楗字伯固。贈參判行興德縣監容濟子也。贈參議進士曇之孫也。參判出宰興德時。公亦隨而往。時年十一歲。狀貌魁偉。能通大義。時値丁酉之亂。參判公赴龍城。與兵使李福男。俱死於戰塲。公號天痛哭。陪慈夫人羅氏。乘船直抵黃海道白川。轉向京城。萬死之餘。幸而免禍。平亂後直來于龍城。復矢而歸。葬于羅州細花面山楸洞乙辛之原。仍居于鉢山村。其間罔涯之痛。艱辛之狀。豈可言哉。慈夫人性甚嚴峻。家訓有法。嘗謂公曰汝父死節於王事之日。余未得自決而至此者。爲汝四兄弟之故也。今汝寡家之子。無處承誨。任意放達。貽辱先人。是吾之憂也。愼旃愼旃。一日柳枝數握折而授之曰。亂離之餘。家業蕩敗。所用筆墨。安可買得。以此習字可乎。公受而作筆。隨手

---

343) 녹야(綠野)의 흥취: 녹야는 녹야당(綠野堂)의 준말로 만년에 높은 벼슬자리에서 물러 나와 한가로이 노니는 장소를 뜻하는 말이다. 당나라의 재상 배도(裴度)가 만년에 낙양(洛陽)에 은퇴하여 녹야당을 지어 놓고 백거이(白居易), 유우석(劉禹錫) 등과 함께 밤낮으로 시주(詩酒)를 즐기면서 세상일을 묻지 않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新唐書 卷173 裴度傳』)

344) 반곡(盤谷)의 즐거움: 반곡은 반아(盤阿)와 같은 말로, 보통 은거지를 뜻한다. (『詩經 衛風 考槃』) 또 한퇴지(韓退之)의 우인(友人) 이원(李愿)이 숨어 살았다는 지명 이름이기도 한데, 『한창려집(韓昌黎集)』 보유(補遺)의 '송이원귀반곡(送李愿歸盤谷)'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信書。暫不怠矣。一日稟於夫人曰。近聞辛光業敎授生徒云。請學焉。夫人曰光陰易逝。少壯無幾。汝勿浪游。以慰慈母之望可乎。公與副提學愼天翼同往受學矣。月餘。與天翼仍爲還來。絕不再往於其家。盖有以也。就學於先覺之門。藻詞日就。文理淵宏。爲其時流輩所推。而見重於當世。公身長八尺。膂力過人。言語寡默。精神凜洌。雖親友之間。莫敢妄自交戲。弱冠以後。龍城追痛。轉作入骨之悲。奉母携弟。將悶家道之不振。萬曆戊午以夫人命赴擧武試。得參其榜。而放榜之前。夢見母夫人神色枯悴。有非平日之顔貌。心甚憫憫而驚覺。乃其夢也。坐而待曉。徒步而來。數三晝夜。始得到家。夫人之愆違已有日矣。而問于家人則果得夢之夜也。數朔沉痼。藥餌之奉。靡所不至。而逮乎疾革。血指而竟無效焉。時仲夏之十九日也。榜後紅牌來及是日。而遠近瞻聆。無不慘而憐之。三年禮制。一遵家禮。而服闋後不事生業。遊於洛中。李相公白江,金相公淸陰,崔相公芝川諸公皆敬禮而待之日。此乃湖南三傑之一。其二人卽兵使朴省吾。水使羅德憲謂也。得除宣傳兼備邊郎。乃在天啓之癸亥。則時年三十七也。備局公事。執筆酬應。揮洒無滯。堂上諸公亟稱曰。翰注之才。無以爲逾。甲子适變。仁廟有敎曰。逆适乃呂州之人也。呂州倉多儲粟。汝今往散積。以服民心。公以本任。卽拜敎命。無馬跋踄。躬赴呂州。發出倉積。分餉軍民。以鎭人心。未幾适伏誅。乃還爲軍資監主簿。又除司憲府監察。所掌職事。一無差誤。擬望重矣。翌年乙丑八月。以慶原都護判官。莅民淸淨。治聲大藉。秩歸之餘。居民之立石頌德之擧。遮路借寇之願。非惠化入人之深。其如是乎。崇禎四年戊辰正月。爲南海縣令。亂離之後。三十年間。邑里蕭然。民不蘇息。廨宇公舍。尙不修輯。覆以茅草。公慨然於玆。欲爲重建。而力綿事劇。別爲拮据。經營以時。一歲之內。革面一新。邑民之受其賜者至于今矣。又忠武公李舜臣丁酉之亂。戰死於露梁。尙不立石表忠。公爲之嗟惜。立祠江頭。以表精忠。因以記序之。崇禎七年甲戌二月。又除軍器判官。數月後超升都摠府經歷兼內乘。其年十月爲龍川都護府使。莅官治民。各有條理。與義州府尹林慶業同監山城之役。慶業負石。公負土。身操板鍤。爲士卒倡。此其前後履歷之大槩也。是時北奇洶洶。常以爲慮。一日義州府尹傳令牌文來到。公卽與管下略干所率。及期往赴。與主官數三語之間。山城烽燧直來。告賊兵渡江。與主官率其孤軍單卒。纔入山城。賊騎憑凌。已抵城下。方爲應變之際。無數賊兵。以十萬隊直向龍宣二境。徑向平壤。其時不慮之勢。蒼卒之擧。已有國乘。不爲煩縷。嗚呼。江都失險。和議乃成。空抱愾敵之志。未遂機策之施。憂君痛惋。爲國深恥。俄乃北賊之解而歸也。沿路民人無數鹵獲而去。京中士女亦在其中者多矣。公推其不忍。乃脫所着衣服及衙奴婢所着服物。買得還送者數十餘人。而公不言某某。未知誰家之人也。崇德三年。除義州府尹。再三辭職。終不得遞。不獲已赴任。大亂之餘。路邊列邑蕩盡。蕭然逃散。餘民尙不安集。公養老問孤。務施德政。未及朞年。流民還集。戶口滋殖。意外龍川交代。新官李坦。於公常抱嫌忌之意。而暗生謀害之計。與下吏輩先偸倉米三百石。以塵土添雜入庫。一依其偸出之數。過日後反庫時。做作凶辭曰。偸米雜土。果是前官李某所爲。乃反啓聞。公自龍川移莅義州。才九閱月。而爲其所搆就拿繫。公當初遞任時。各揀留庫計數文書一件謄置。明白無訛。故卽爲相符於坦之所言。則彼此違端。節節各異。

小無所犯。李坦陷人無據之狀。終難掩匿。以此辭意上達于冕旒之下。則聖上神明。洞燭李坦之搆誣。其時倉庫直者爲先正刑後。李坦則全家珍島。而仍死於謫所。公配於固城。而卽旋蒙放而歸。其後五衛將長興府使諭旨來到。終不就任。其後以安州虞候。歸卧桑梓。擬保餘年矣。其時大司憲朴晃以巡檢使來到扶安格浦。審其可合設鎭之地。別薦公于榻前。以爲營建別將。則不得已就任。經始之初。本縣縣監李弘演以文官。接待之間。多失禮貌。卽爲啓罷。所監旣訖。退歸田里。念斷名利。多年遊宦。若夢中事耳。蓮亭一間。起於小塘之上。花竹爲娛。消遣世慮。時與竹峯柳浚,府使金運海,松島羅海崙,參奉林淵,進士徐振鳴。迭相追遊。綠野之興。盤谷之樂。其可想矣。平生好觀古人書。繫辭一卷黃石公一部。常置案上。而精神氣魄。老而愈壯。乙巳春二月望後。往省先壠歸。卽氣憊感傷。沉綿漸至危劇。二十四日酉時。天雷忽震。大星隕于庭而登頓數次。落於池中。則光明之氣。移時亘天。一村之人。聚而觀之。莫不嗟異。而已公問一家安否。顧謂長孫國鳴曰。吾當死矣。毋用藥餌。乃逝。時年七十九。嗚呼痛哉。夫人曹氏都事大中之女也。生二男一女。長曰煥啓功郎。先公早世。次曰燁顯信校尉。女適士人高斗經。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손재집(https://db.itkc.or.kr/)

28) 이확(李廓, 1590~1665)

• 본관 전주(全州), 자 여량(汝量), 호 쇄월당(鎖月堂)

박지원(朴趾源), 『연암집(燕巖集)』 권2, 「가의대부행삼도통제사 증자헌대부병조판서겸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시충렬이공신도비명 병서(嘉義大夫行三道統制使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諡忠烈李公神道碑銘 并序)」

오호라! 청나라 사람들이 연호를 세우던 초기에 우리 사신을 겁박해 잡아 기필코 한 번 그 정배(庭拜)를 받으려 한 것은 장차 천하를 향해 "조선은 예의를 아는 나라인데 다른 여러 나라에 솔선해서 우리를 황제로 받들었다."라고 떠들어 대기 위한 것이었다. 사신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급박했을까? 그 머리를 잘릴지언정 땅에 조아릴 수는 없고, 그 무릎을 잘릴지언정 땅에 꿇을 수는 없다는 것을 고(故) 통제사(統制使) 이공(李公)이 사신으로 가서 보여 준 것처럼 하지 않았다면 동해 수천 리의 나라가 장차 무슨 수로 천하에 대해 스스로 밝힐 수 있었겠는가. 힘이 심양(瀋陽)을 뽑고 전 요동(遼東)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弱國)의 일개 사신을 이기지는 못했고, 위엄이 몽고의 40여 왕을 굴복시키고 하루아침도 못되어 두송(杜松)[345]의 20만 군대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필부(匹夫)의 허리를 꺾어 뜰에 무릎 꿇게 하지

345) 두송(杜松): 명나라 말기의 장수로 담력과 지혜가 뛰어나 주요 군직(軍職)을 역임하면서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1619년에 양호(楊鎬)가 후금(後金)을 공격할 때 그의 주력(主力)이 되어 함께 출전하였으나, 자

는 못했으며, 옥새(玉璽)를 획득하고 부명(符命)을 내보이며[346] 거침없이 스스로 천명(天命)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토록 쉬웠으면서도 우리 사신의 절 한 번 받기는 그토록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일이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원스레 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 몸은 살아 돌아왔고 또 어찌 되었든 저쪽의 국서(國書)를 받은 꼴이 되어 당시 이공을 두고 나라를 욕되게 했다는 논의를 어찌 그만할 수 있겠는가? 그 뒤 명나라의 변방을 지키던 장수가 천자(天子)에게 한 보고와 중국 유민(遺民)들이 그린 그림을 차차 소문을 통해 알게 되면서 나라 안에서도 공에 대한 의심이 점차 풀려 비로소 포증(褒贈)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의 뜰에서의 굳건한 행동 모습은 아직도 나라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채로 14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렀으나, 이는 진실로 만세(萬世)의 공의(公議)는 없앨 수 없는 것이며, 청나라 황제도 엄폐시키지 못할 것이었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의 휘는 확이고 자는 여량(汝量)이다. 계통이 선파(璿派, 조선 왕실의 파계)에서 나왔다. 계통이 나온 조상은 왕자 경녕군(敬寧君) 이비(李裶, 태종의 왕자)이다. 아비의 휘는 이유인(李裕仁)으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는데 임진년 왜적 침범 때 해를 당했고,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어머니 정부인은 경주 최씨(慶州崔氏)로, 만력(萬曆 명 신종의 연호) 경인년(1590, 선조 23)에 공을 낳았다.

공은 3세 때에 아비를 여의었는데, 장성하자 신장 8척에 목소리는 거대한 종소리와 같았으며, 체력이 뛰어나니 우뚝히 장수가 될 재목이었다.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이 그 외롭고 가난함을 딱하게 여겨 무과(武科)를 지망하도록 권해 광해군 때에 갑과(甲科)에 합격하여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어 맹호(猛虎)가 금원(禁苑)에 들어온 것을 공이 사살했다. 적신(賊臣)[347]들이 문무백관을 협박하여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도록 정청(庭請)을 할 때 공은 그 반열(班列)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위태롭게 생각하고 공에게 병을 핑계 대라고 권하자 공은 성을 내며 '병이 안 났다면 참석한단 말인가?' 했다.

광해군이 날로 정도를 어지럽히자 공의 의중을 떠보는 사람이 있었다. 공은 사절하면서 말하기를 "나에게는 어머님이 계셔서 감히 공들을 따르지 못하오. 그러나 노력할 뿐 나를 의심하지는 마오."라고 말했다. 반정(反正)하기로 한 비밀 기약이 있을 때 동성군(東城君) 신경인(申景

신의 용맹을 믿고 경솔하게 진격하다 후금의 군대에 크게 패하고 자신도 전사하였다.

346) 부명(符命)을 내보이며: 제왕이 천명을 받은 증거로 하늘이 보여 주는 상서로운 조짐을 부명이라 한다. 또한 그러한 상서로운 조짐들을 늘어놓으며 제왕을 예찬하는 글도 부명이라 한다.

347) 적신(賊臣): 광해군 때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위를 주도한 이이첨(李爾瞻)을 일컫는다. 『중편연암집』에는 그 앞에 '光海君時'가 더 있다.

褧)[348]이 공을 맞아 함께 가자고 했으나, 공은 응하지 않았다. 공은 당시 어영천총(御營千摠) 직을 맡고 있었다. 박승종(朴承宗)은 평소에 공을 신임하였는데, 급히 공을 불러 이르기를 "그대와 대장(大將) 이흥립(李興立)[349]이 모반한다고 고하는 사람이 있소. 나는 그대를 의심하지는 않으니, 급히 군사를 돈화문(敦化門) 밖에 집결시켜 비상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오."라고 했다. 공은 드디어 군중(軍中)에 명령을 내리기를 "오늘은 내가 특별히 호령(號令)을 하노니, 감히 어기는 자는 목을 베리라." 하였다. 밤중에 의기(義旗)가 궁문(宮門)을 향해 오자 군중이 뒤숭숭해지며 외병(外兵)이 있다고 고했다. 그러자 공은 말을 타고 동쪽을 향해 서며 '내 말 머리를 보아라.'고 했다. 궁문을 향해 가며 공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으나 공은 일부러 못 들은 척했다. 그때 공을 부른 사람은 동성군이었다. 반정이 이루어지고 나자 여러 반정 공신들은 공을 의심하여 적신들과 아울러 처형하려 했다. 그러자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가 힘써 쟁변하기를 "이확이 군진(軍陣)을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감히 궁문으로 들어왔겠는가?"라고 했다. 연평군은 평산 부사(平山府使)로 의거를 일으켜 호위대장(扈衛大將)으로 등급을 뛰어 임명되었는데, 힘써 공을 보호하여 중군(中軍)으로 삼고, 다시 공을 천거하여 평산 부사를 대임케 하여 비호하였다. 그러나 박승종은 영의정으로서 죽지 않을 수 없었으나 공은 그의 후대를 받았던 처지라[350] 스스로 해명할 길도 없어서 늘 울적한 마음을 펴지 못했다.

이듬해에 이괄(李适)[351]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었다. 공은 그때 마침 신문(訊問)을 받고 있었는데, 급히 불러 보시고 궁검(弓劍)을 내려 저탄(猪灘)에서 적을 막도록 했으나 군대가 흩어지자 강으로 투신하였다. 적은 공을 다급히 찾다가 공의 말이 죽어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공이 죽었다고 여기고 떠나갔다. 그러나 공은 떠내려오는 시체 위에 올라타서 죽지 않았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352]의 군중으로 갔더니, 군중은 공을 적

---

348) 신경인(申景禋): 1590~1643. 무신 신립의 아들로, 인조반정에 공로를 세워 정사 공신(靖社功臣) 2등으로 책훈(策勳)되고 동성군에 봉해졌다.

349) 이흥립(李興立): 박승종과 사돈으로서 그의 추천으로 훈련대장에 임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반정군(反正軍)에 합세하여 공이 컸으므로 정사 공신 1등으로 책훈되고 광주군(廣州君)에 봉해졌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투항했다가 난이 평정되자 자결했다.

350) 공은 …… 처지라: 대문은 '嘗爲其所厚'인데, 『여한십가문초』에는 '公嘗爲其所厚'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351) 이괄(李适): 1587~1624. 자는 백규(白圭),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벼슬은 형조 좌랑(刑曹佐郎)、태안군수(泰安郡守)、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를 역임하고,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가담하였으나 논공(論功)에 불평을 품고 있다가 공신들의 제거를 이유로 난을 일으켜 서울로 진격, 서울 입성 이튿날 장만(張晩)의 관군에게 안현(鞍峴)에서 참패하여 이천(利川)으로 도망치다가 묵방리(墨坊里)에서 부하 장수 기익헌(奇益獻) 등에게 목이 잘렸다.

352) 장만(張晩): 1566~1629. 자는 호고(好古) 호는 락서(洛西)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인조반정 직후 후금(後金)의 침략에 대비하여 평양에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자 그 우두머리인 도원수(都元帥)에 임명되었다. 1624년 이괄의 반란군이 평양을 피하여 파죽지세로 남진하자, 각지의 관군과 의병을 모아 추격하여

의 첩자(諜者)로 의심하여 죽이려고 했다. 장만은 공을 사면하고 선봉에 서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케 했다. 드디어 적을 격파하고 서울을 회복했으나, 공의 공(功)은 의심을 받아 녹훈(錄勳)되지 못하였다. 공은 안악 군수(安岳郡守)로 나갔다가 얼마 안 있어 자산 부사(慈山府使)로 옮겨 갔다.

강홍립(姜弘立)[353]이 만주군(滿洲軍)을 이끌고 들어와 의주(義州)를 함락시키고 여러 군이 와해되자, 관찰사 윤훤(尹暄)[354]이 급히 공을 불러 평양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이 평양으로 가는 도중에 평양이 이미 함락되고 게다가 자산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낭패를 당해 의거할 곳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격문(檄文)을 띄워 여러 고을 군사를 소집하여 절도사에게로 달려갔다. 김기종(金起宗)[355]이 윤훤을 대신하여 관찰사가 되자, 공이 길에서 정세를 관망하고 급히 평양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여 처형하려고 했다. 그때 마침 조정에서는 공을 김덕경(金德卿)과 고한룡(高汗龍)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 두 적은 서도(西道) 변방의 하찮은 역관(譯官)으로 만주군에 투신하여, 김덕경은 적군에 의해 안주목사(安州牧使)로 임명되기까지 했다. 공은 이 두 적을 사로잡아 스스로 속죄하기를 청하고, 드디어 계책을 써서 고한룡은 죽이고 김덕경은 사로잡았다. 강물을 반쯤 건넌 역적들을 공격하여 잡혀가는 우리 백성들을 빼앗아 오고, 고차 박씨(高遮博氏)[356]를 추격하여 그를 호종하는 기병 두 명을 쏘아 죽였다.

그러자 김기종은 공의 손을 잡고 즐거이 술을 마시며 서로 늦게 알게 된 것을 한탄했다. 드디어 공을 중군(中軍)으로 머물러 두고, 군사(軍事) 문제를 모두 맡겼다. 적이 물러가자 공은 동

마침내 서울 근교에서 격파했다. 그 공으로 진무 공신(振武功臣) 1등으로 책훈되고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353) 강홍립(姜弘立): 1560~1627. 본관은 진주, 자는 군신(君信), 호는 내촌(耐村)이다. 명나라의 원병으로 5도 도원수(五道都元帥)가 되어 부원수인 김경서(金景瑞)와 함께 1만 3000여 군사를 이끌고 후금을 쳤으나 대패하였다. 이는 출정 전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고 한 광해군의 밀명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후금에 억류되었다가 정묘호란 때 입국하여 조선과 후금의 강화를 주선하였으나 후금에 투항한 역신으로 몰려 사망하였다.

354) 윤훤(尹暄): 1573~1627. 본관은 해평(海平)이며 자는 차야(次野), 호는 백사(白沙)이다. 1597년(선조 30)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인조반정 후 주청부사(奏請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안주(安州)를 빼앗겼고, 전세를 불리하게 한 죄로 투옥되어 사형, 효시(梟示)되었다. 저서로 『백사집』이 남아 있다.

355) 김기종(金起宗): 1585~1635. 이괄의 난 때 도원수 장만의 종사관으로서 무공을 세워 진무 공신 2등으로 책훈되고 영해군(瀛海君)에 봉해졌다.

356) 고차 박씨(高遮博氏): 박씨(博氏)는 만주어(滿洲語)를 음역(音譯)한 관직 이름이고, 고차(高遮)는 만주족의 이름인 듯하다. 병자호란 직후 청 나라의 차사(差使)로 박씨들이 누차 입국한 바 있다. 『숙종실록』36년 10월 7일 조의 주(註)에 "박씨(博氏)는 호인(胡人) 군졸의 명목이다."라고 하였다. 『열하일기』 도강록(渡江錄) 6월 27일 조에도 책문(柵門)을 지키는 청 나라 관원들에게 줄 예물 명단에 박씨(博氏), 가출박씨(加出博氏), 세관박씨(稅官博氏) 등의 관직이 열거되어 있다.

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가 경원 부사(慶源府使)로 나갔고, 곧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옮겼다. 그리고 도총부 부총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나갔다. 또 다시 동지중추부사 겸 도총부총관으로 임명되었다가 얼마 뒤 회령 부사(會寧府使)에 임명되자 어머니가 늙으신 것을 이유로 사퇴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당시 만주는 이미 심양(瀋陽)을 점거하여 자주 산해관(山海關)을 침범하며 몽고의 여러 번(番 몽고 여러 부족의 추장(酋長) 칭호)들을 모두 복속시켰으나, 아직은 이웃 나라의 도(道)로 우리를 대우하여 사절(使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숭정(崇禎 명 의종(明毅宗)의 연호) 9년 병자년에 만주는 영아아대(英兒阿代)[357]와 마복탑(馬福塔)[358]을 시켜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의 내용이 몹시도 무례해 지난날 우리에게 요망하던 바가 아니었다. 그러자 대각(臺閣, 사헌부·사간원) 및 태학 제생(太學諸生)들이 빗발치듯 글을 올려 그 만주의 사신들은 처형하여 그 머리를 함에 담아 천자(天子)에게 주달하라고 청했다. 영아아대 등은 몹시 두려워하여 관소(館所)를 뛰어넘어 말을 빼앗아 타고 내뺐는데 도중에 국서(國書)도 내버렸다. 이때 사대부들이 모두 심양(瀋陽)에 사신으로 가기를 회피하자 공을 회답사(回答使)[359]로 충당하여 국서를 가지고 뒤쫓아 용만(龍灣)에 이르렀다. 당시 춘신사(春信使) 나덕헌(羅德憲)이 공보다 먼저 출발해 와 막 용만에 머물고 있어 드디어 나덕헌과 함께 심양으로 들어갔다.

칸[汗]은 공 등을 보고는 더욱 오만하게 굴며 예폐(禮幣)를 받으려 들지 않았다. 그리고는 번갈아 사자를 관중(館中)에 보내어 10여 가지 일을 가지고 따지면서 나무랐다. 칸은 하늘에 교제(郊祭)를 지내려 하면서 먼저 정명수(鄭命壽)[360]를 보내어 온갖 말로 유인하고 협박했다. 그러자 공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정명수에게 주면서 "내 머리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였다. 이튿날 만주의 수십 명의 기병(騎兵)이 관소의 문을 채찍으로 치면서 "조선 사신은 빨리 예복을 갖추시오."라고 크게 소리쳤다. 공은 탄식하며 "오늘에야 죽을 곳을 찾았구나." 하고는, 드디어 나공(羅公)과 함께 동쪽을 향해 네 번 절을 하여, 멀리서 나라에 인사를 올렸다. 그러고는 손수 도포를 찢고 사모(紗帽)를 밟아 찌그러뜨림으로써 다시 복종하지 않으려는 뜻을 보이고 나서 손수 상투를 풀어 머리를 나란히 하여 두 사람의 머리채를 얽어 맺고는 서로 껴안고 누워 있었다. 칸은 장사를 보내어 공 등을 옆구리에 껴서 교제단(郊祭壇) 아래에 몰아다 놓았다. 패륵

---

357) 영아아대(英兒阿代): 용골대(龍骨大)라고도 한다. 만주 정백기인(正白旗人)으로, 호부 상서를 지냈다. 조선에 누차 사신으로 왔으며, 병자호란 때 청 태종(淸太宗)의 막료로서 참전했다.

358) 마복탑(馬福塔): 마부대(馬富大) 또는 마부대(馬夫大)라고도 한다. 만주 정황기인(正黃旗人)으로, 조선에 사신으로 자주 왔으며, 병자호란 때 청 태종의 막료로서 참전했다.

359) 회답사(回答使): 교린(交隣)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사신을 통해 국서를 보내왔을 때 그에 회답하는 국서를 전하기 위해 파견하는 사신을 이른다.

360) 정명수(鄭命壽): 평안도의 천민으로 1619년 강홍립의 군대를 따라갔다가 포로가 되자 잔류하여 신임을 얻었다. 병자호란 때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의 통역으로 입국하여 갖은 횡포를 부렸다.

(貝勒) · 팔고산(八固山) · 번자(番子)[361] 등이 모두 줄지어 서 있고, 몽고 기병 수십만 명이 단을 둘러 진을 치고 있었다. 칸은 자황색(柘黃色) 도포[362]를 입고 홀[圭]을 잡고 단에 올라가 '관온인성 황제(寬溫仁聖黃帝)'라는 존호를 받고, 국호를 대청(大淸), 연호를 숭덕(崇德)이라 했다. 장사들이 공을 강제로 부축해 일으켜 세웠으나 공은 그때마다 몸을 던져 다리를 뻗치고 벌렁 누워 버렸다. 그러자 장사들이 다투어 나서서 그 팔과 다리를 잡고 머리를 누르고 엉덩이를 쳐들어 사방에서 들어 땅바닥에 엎어 놓았다. 공은 크게 소리 지르며 몸을 뒤집어 등을 대고 누웠다. 다가오는 자가 있자 누운 채로 문득 그 얼굴을 발길로 걷어차, 코가 뭉개지고 피가 튀었다. 이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랍고 끔찍하여 차마 보지를 못했다. 드디어 그들은 공을 거꾸로 끌어다 관소에 가두었다.

이튿날 다시 동교(東郊)에서 제사를 지낼 적에 또 공들을 끌고 갔다. 공들은 더욱 사납게 항거하며 눈을 부릅뜨고 크게 꾸짖으니, 정말로 그 사나움을 당해 낼 수 없었다. 만주족의 여러 신하들이 흔고(釁鼓)[363]하여 대중 앞에 위엄을 보일 것을 청하자, 칸[汗]이 말하기를 "저것들이 시방 죽여 달라고 요구하는 판인데, 지금 죽이면 도리어 저놈들의 소원을 풀어 주는 것이 되고, 또 사신을 죽였다는 악명을 무릅쓰게 된다. 그러니 용서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서한을 만들어 보따리 속에 넣어 주고 기병 100여 명을 시켜 공을 압송하여, 아골관(鴉鶻關, 중국 요녕성 요양현의 관문)까지 이르러 되돌아갔다. 공들이 비로소 보따리를 점검하고 과연 칸[汗]의 서신을 발견하자 놀라며 "서신에 새 도장을 찍어 봉했으니 그 내용은 뻔하다. 만일 서신을 떼어봤다가 예전 격식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장차 어찌하랴?" 하고는 마침내 서신을 여점(旅店)에 놓아두고 말을 달려 돌아와 책(柵)[364]을 벗어났다. 변방에서는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기를, 공들이 적의 뜰에서 절하고 춤을 추었다 했고, 관찰사 홍명구(洪命耉)[365]는 장계를 급히 올려 국경에서 그들을 효시(梟示)할 것을 청했다. 이에 삼사(三司, 사

---

361) 패륵(貝勒)、팔고산(八固山)、번자(番子): 패륵은 청(淸) 종실(宗室)의 봉작(封爵)의 하나이다. 청 종실의 봉작은 친왕(親王), 군왕(郡王), 패륵(貝勒), 패자(貝子)의 순서로 되어 있다. 팔고산은 곧 팔기병(八旗兵)을 이른다. 팔기병은 병졸 300인이 하나의 우록(牛彔)을 이루고, 다섯 우록이 하나의 갑라(甲喇)를 이루고, 다섯 갑라가 하나의 고산(固山)을 이루어, 모두 여덟 고산이 된다. 번자는 형사(刑司)에 소속되어 체포와 형장(刑杖)을 맡은 벼슬아치를 이른다.

362) 자황색(柘黃色) 도포: 뽕나무 즙을 물들인 도포로 수당(隋唐) 이래 황제들의 복색(服色)으로 사용되었다.

363) 흔고(釁鼓): 전쟁을 할 때 사람을 죽여 그 피를 북에 바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른다. 여기서는 두 조선 사신을 죽이자는 뜻이다. 『운산만첩당집』, 『연상각집』, 『하풍죽로당집』에는 '祭纛'으로 되어 있고, 『여한십가문초』에는 '祀東郊 又釁鼓'로 되어 있다.

364) 책(柵): 요령성의 압록강 부근 구련성(九連城)과 봉황성(鳳凰城) 사이 일대에 말뚝을 박아 국경 출입을 통제한 시설물을 이른다. 그곳의 책문(柵門)을 통해서만 사신 왕래와 교역이 이루어졌다.

365) 홍명구(洪命耉): 1596~1637. 인조반정 이후 등용되었고 병자호란 때 평안 감사로서 근왕병(勤王兵)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향해 달려가다가 전사하였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헌부·사간원·홍문관)와 성균관 유생들도 모두 상소를 올려 베어 죽이기를 청하므로, 문정공 김상헌이 역설하기를 "두 사신을 아직 신문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유독 먼저 베어 죽인단 말인가!" 하여 가벼운 죄에 처할 수 있었으니, 공은 선천(宣川)으로 귀양 가고, 나덕헌은 백마산성(白馬山城, 평안도 의주 백마산에 있는 성)을 병사로서 지키게 되었다. 한참 뒤에 조정에서는 도독(都督) 심세괴(沈世魁)[366]가 명나라 황제에게 아뢰는 수본(手本, 손수 작성한 보고서)을 얻어 보고서야 비로소 공들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실상을 알게 되었으며, 양사(兩司)에서는 효수(梟首)하자는 계문(啓聞)을 잠시 정지했다. 그러나 말 많은 자들은 오히려 심 도독이 명나라 조정에 거짓 보고한 것이라고도 했으며, 급기야 마복탑(馬福塔)은 공들이 여점(旅店)에다 버린 서신을 이유로 몹시 성을 내며 하는 말이 "황제가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모시는데 사신 된 자는 응당 공손히 예를 행해야 할 것이거늘 이확 등은 패악스럽게 난동을 부려 뜰에서 천자를 욕보였으니 어찌 이놈을 당장에 죽여 대국에 사과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였다. 이에 역관으로 따라갔던 신계음(申繼愔) 등이 비로소 속을 털어놓고 원통함을 호소하여 공들의 귀양을 풀게 되었다.

이해 겨울에 만주족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습격하여, 임금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이때 공은 모친 최 부인(崔夫人)의 상을 당했으나, 임금은 기복(起復)[367]을 명하였다. 이에 공이 포위한 가운데로 들어가 임금을 뵙자, 임금은 공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내시를 보내어 육식을 권했을 뿐 아니라 친히 왕림하여 위로하고 격려했다. 독전어사(督戰御史)[368] 김익희(金益熙)[369]·황일호(黃一皓)[370]·김수익(金壽益)[371]·이후원(李厚源)[372]·임담(林墰) 등 여

---

366) 심세괴(沈世魁): ?~1637. 명나라 요동도사(遼東都司) 모문룡(毛文龍)의 군대가 후금의 군대에 쫓겨 국경을 넘어 평안도 철산군 앞바다 가도(椵島)에 주둔하자, 1623년 명나라는 후일을 도모하려고 가도에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고 모문룡을 도독으로 임명했다. 모문룡이 조정의 명에 따라 요동에 출전했다가 실패하고 죽은 뒤, 가도로 도망한 그 잔당 사이에 누차 내분이 일어난 끝에 심세괴가 도독이 되었다. 가도를 지키던 부총병 심세괴는 후금군의 공격을 우려하여 가도를 포기하고 본토 쪽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다가 1637년 청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에게 패하여 죽었다. 『중편연암집』과 『여한십가문초』에는 도독 앞에 '明' 자가 더 있다.

367) 기복(起復): 부모의 상중에 벼슬에 나아가는 것으로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상중에 벼슬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특별히 조정에 불러 올리는 제도를 이른다.

368) 독전어사(督戰御史):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 파견된 어사로 병자호란 때 군 통솔을 위해 특별히 설치한 관직이다.

369) 김익희(金益熙): 1610~1656.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중문(仲文), 호는 창주(滄洲)이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손자로서 후일 대제학까지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370) 황일호(黃一皓): 1588~1641. 자가 익취(翼就), 호가 지소(芝所)이다. 척화파(斥和派)로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재임할 때 명나라를 도와 청을 치려고 최효일(崔孝一) 등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청나라 병사에게 피살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371) 김수익(金壽益): 1600~1673. 의주 부윤, 병조 참의, 목사(牧使) 등을 지냈으며,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372) 이후원(李厚源): 1598~1660. 자는 사심, 호는 우재(迂齋),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인조반정에 가담하

러 공들은 공이 방비하는 데 신기한 계략을 지녔음을 보고, 국사(國士)로서 허여하며, 비로소 전에 심양에 사신 간 때의 일을 믿게 되었다. 포위가 해제되자, 돌아가 최 부인을 장사하기를 요청하였다. 복제(服制)를 마치자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副摠管)에 제수되었고, 외직으로 나가 충청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되었다가 발탁되어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에 제수되었다.

공은 심양에 있을 적에 하도 두들겨 맞아서, 어혈이 들고 속으로 곪아 하체가 마비되었다. 나이가 들자 시골에 살며 누차 제수받은 직을 사양했다. 현종(顯宗) 을사년(1665, 현종 6)에 집에서 죽으니, 양근군(楊根郡) 북쪽 울업리(鬱業里) 을좌(乙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흥양 이씨(興陽李氏)로 응배(應培)의 따님인데 3남 1녀를 낳았다. 아들은 익장(益章)·익상(益常)·익행(益行)이요, 딸은 윤세미(尹世美)에게 출가했다. 익장과 익상은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고, 익행은 5남을 두었는데 현(誢)·흔(訢)·혜(譓)·서(諝)·양(諒)이다.

임경업 장군이 등주(登州)에 들어갔다가 마홍주(馬弘周)에게 사로잡혀 북경(北京)으로 압송되었는데[373], 길에서 한 그림을 보니 바로 공들이 굴하지 않은 상황을 그린 것이었다. 이에 앞서 황명 열황제(皇明烈皇帝)[374]가 어사 황손무(黃孫茂)[375]를 보내어 공의 절의가 매우 크다며 장려하였는데, 이때는 벌써 가도(椵島)가 깨어진 뒤라 그 조서(詔書)는 마침내 전해질 수 없었다. 이로부터 명나라 천자의 사신은 다시 조선에 오지 않았다.

오늘날에 이르러 청나라 황제가 역대 제왕으로부터 칸[汗]이 국호를 세운 때의 일까지를 논술하여 제목을 『어제전운시(御題全韻詩)』[376]라 했는데, 시는 5권으로 간행되어 천하에 유포되

여 정사 공신 3등으로 책훈되고 완남군(完南君)에 봉해졌다. 후일 우의정까지 지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373) 임경업(林慶業) …… 압송되었는데: 임경업이 1640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함에 따라 출전했으나 오히려 명나라 군대와 협력했다. 이 사실이 탄로 나자 청나라의 압력으로 국내에서 체포되어 청나라로 압송되던 도중 해상으로 탈출하여, 중국에 표착(漂着)한 뒤 등주(登州)에서 명나라의 평로장군(平虜將軍)으로 임명되어 병사를 거느렸다. 그러나 청나라가 마침내 북경을 함락하고 명나라 조정이 남경(南京)으로 후퇴하자, 임경업은 1645년 명나라의 항장(降將) 마홍주(馬弘周)에게 속아서 붙잡혀 북경으로 압송되었다.

374) 황명 열황제(皇明烈皇帝):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장렬제(莊烈帝) 의종(毅宗, 재위 1627~1644)을 이른다.

375) 황손무(黃孫茂): 1636년 심세괴가 상주한 내용을 본 명나라 의종(毅宗)이 우리나라를 표창하는 조서를 내리면서 감군어사(監軍御使) 황손무를 가도(椵島)로 파견했으나, 그 이듬해 내분으로 인해 도독 심세괴의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376) 『어제전운시(御製全韻詩)』: 청 고종(淸高宗) 건륭제(乾隆帝)가 지은 것으로, 106운(韻)에 맞추어 상평성(上平聲) 15수는 청 나라의 발상(發祥)부터 태조(太祖)、태종(太宗)의 사적을 다루었고, 하평성(下平聲) 15수는 세조(世祖)·성조(聖祖)·세종(世宗)의 사적을 다루었으며, 상성(上聲)·거성(去聲)·입성(入聲) 76수는 요(堯)·순(舜)부터 명나라 최후의 복왕(福王)까지의 사적을 다루었다. 사고전서(四庫全書) 중의 『어제시집(御製詩集)』 4집(集) 제47권, 제48권, 제49권에 수록되어 있다.

었다. 그 시 속에 "조선 사신이 절을 아니 하고 유독 틀어졌네."[377]라는 말이 있고, 친히 주석(註釋)을 자세히 달아 아래와 같이 말했다.

"태종(太宗)이 이미 존호를 받았는데, 조선 사신 이확과 나덕헌이 유독 절을 하지 않았다. 태종이 여러 신하에게 유시하며 말하기를, '사신이 무례한 것은 짐이 먼저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저지르도록 한 것이니, 사신을 죽이면 우리에게 동맹을 깨뜨렸다는 오명을 씌울 것이다. 짐은 끝내 한때의 분을 풀자고 그 사신을 죽이고 싶지는 않으니 불문에 부치라.' 하였다. 그리고 곧 이확 등을 돌려보냈다."[378]

거기에서 태종이라 일컬은 자가 칸[汗]이었다.

지금 임금 3년(1779)에 특명으로 그 책을 사서 들여오게 하여 어람(御覽)하고는 가상히 여기고 탄식한 다음, 이확의 집 문에 정표(旌表)하도록 명하고 시호를 충강(忠剛)이라 내렸다.[379]

아! 이 어찌 단지 공 등의 백 년 의문이 하루아침에 시원스레 밝혀진 것뿐이겠는가? 천하 만세로 하여금 우리 조선만이 유독 당시에 만주를 황제 대접하지 않았음을 더욱 의롭게 여기게

---

377) 조선 …… 틀어졌네: 대문은 '朝鮮使不拜獨乖'로 되어 있으나, 『어제전운시』에 실린 것과 차이가 있다. 그 전문은 "조선 사신이 있었는데, 절을 아니 하고 뜻이 유독 틀어졌네. 가식적으로 명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나를 격분시켜 그 무리를 죽이게 하려는 게지.〔乃有朝鮮使 不拜志獨乖 知爲假守禮 激我戮其儕〕"라고 되어 있다.

378) 태종(太宗)이 …… 돌려보냈다: 『어제전운시』의 실제 주와 차이 난다. 그 전문은 "태종이 존호를 받고 나서 뭇 신하들에게 선유(宣諭)하니, 모두 삼궤구고례(三跪九叩禮)를 행했으나 유독 조선 사신 나덕헌과 이확이 절을 하지 않았다. 태종이 유시(諭示)하기를 '조선 사신이 무례한 경우를 이루 열거하기 힘들지만, 이는 조선 국왕이 원한을 맺으려는 의도를 품고, 짐이 먼저 분쟁의 빌미를 만들어 그 사신을 죽이게 하여 짐에게 맹약을 저버렸다는 악명을 덮어씌우고자 함일 뿐이다. 짐은 종래 한때의 하찮은 분풀이를 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와 같이 쩨쩨하게 굴어 두 나라는 이미 원수지간이 되었다. 전쟁할 때에도 일이 있어 사람을 보내면 역시 보낸 사자를 즉시 죽이지 않는 법이거늘, 하물며 조회(朝會)하러 온 경우이겠는가? 불문에 부치라!' 하였다. 곧 그 사신을 돌아가게 하면서 서신으로 조선 국왕을 힐책하고, 다시 그 사신에게 유시하기를 '너희 왕이 만약 스스로 죄를 후회할 줄 안다면 응당 자제를 인질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짐은 즉시 대군을 일으켜 너희의 국경에 닥칠 것이니,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였다.〔太宗旣受尊號 宣諭群臣 皆行三跪九叩禮 惟朝鮮使臣羅德憲李廓不拜 太宗諭曰 朝鮮使臣無禮處 難以枚擧 是皆朝鮮國王有意構怨 欲朕先啓釁端 戮其使臣 加朕以背棄盟誓之名耳 朕從不肯逞一時之小忿 如此瑣屑 卽兩國已成仇敵 戰爭之際 以事遣人 亦無卽戮其來使之理 況朝會乎 其勿問 尋遣其使臣歸 以書詰責朝鮮王 復諭其使臣曰 爾王若自知悔罪 當送子弟爲質 不然 朕卽擧大軍 以臨爾境 雖悔何及乎〕"라고 되어 있다.

379) 지금 …… 내렸다: 정조 2년(1778) 사은 겸 진주사(謝恩兼陳奏使)가 북경에 체류하던 중 수역(首譯) 이언용(李彦容)이 『어제전운시』 4책을 빌려 와서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귀국 후 서장관 심염조(沈念祖)가 임금에게 보고하여 동지사(冬至使)가 이 책을 구입해 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정조 3년에 『어제전운시』의 기록을 근거로 이확과 나덕헌에게 증시(贈諡)하고 정려(旌閭)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나덕헌과 달리 이확은 그의 고향과 자손을 몰라 어명을 중지했다가, 그 이듬해 심염조의 건의에 따라 재차 증시하도록 명했으며, 정조 5년 이확에게 충강(忠剛)이란 시호가 내렸다. (『入燕記 下 6月 12日』『全州李氏敬寧君派世譜 卷之首 嘉林君派 七世 廓』『正祖實錄 3年 9月 3日, 4年 11月 9日, 5年 11月 20日』)

할 일이다. 드디어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우리 선왕에게도	維我先王
위에 임금 있었나니	亦維有君
대명나라의 천자님은	大明天子
우리 임금의 임금일세	我君之君
청나라 천명 받기 전엔	淸未受命
이웃의 강국일 뿐이었는데	卽我强隣
요동 심양 점령하고 나서는	入據遼瀋
창 휘두르고 사방으로 눈 부릅뜨니	揮戈四瞋
악라(鄂羅)[380]와 회회(回回)[381]	鄂羅回回
두이백특(杜爾伯特)[382]과	杜爾伯特
찰뢰(扎賴)[383] 옹우(翁牛)[384]와	扎賴翁牛
오주(烏珠)[385] 토묵(土默)[386]들이	烏珠土默
모두 신하로 자처하자	莫不稱臣
더욱 강경하고 오만해져	益强以傲
가한(可汗)이란 칭호 부끄러워	羞稱可汗
참람되게 황제 칭호 넘보았지	謀僭大號
우리에게 범 같은 장수 있으니	我有虎將
이확이요 자는 여량이라네	曰廓汝量
사신으로 저들 관사에 묵으니	聘在彼館
죽음을 각오한 용사이네	元不忘喪
제아무리 황제라 자처해도	彼雖自帝
꿈속에 배부른 격이니	若飽于夢

---

380) 악라(鄂羅): 악라사(鄂羅斯)로 러시아(Russia)의 음역(音譯)이다.

381) 회회(回回): 회흘(回紇)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위구르(Uighur)족을 이른다.

382) 두이백특(杜爾伯特): 내몽골 철리목맹(哲里木盟) 4부(部)의 하나로, 청나라 초기에 두이백특부(杜爾伯特部)를 세우고 흑룡강성(黑龍江省) 용강도(龍江道)의 동남쪽에 자리 잡았다.

383) 찰뢰(扎賴): 내몽골의 찰뢰특부(扎賚特部)를 이른다. 철리목에 통합되었으며 본거지는 거란(契丹) 땅이다.

384) 옹우(翁牛): 내몽골의 옹우특부(瓮牛特部)로 만리장성의 고북구(古北口) 동북쪽에 거주했다.

385) 오주(烏珠): 내몽골의 오주목심부(烏珠穆沁部)로 역시 고북구의 동북쪽에 거주했다.

386) 토묵(土默): 내몽골의 토묵특부(土墨特部)로 옛날 고죽국(孤竹國)의 남쪽, 성경(盛京)의 변두리에 거주했다.

공의 절을 꼭 받아서 必借公拜
군중에게 과시하려 했네 以誇其衆
변발에다 붉은 모자[387] 辮髮朱帽
부리부리한 눈에 귀신 같은 이빨로 焰瞳鬼齶
앞뒤로 끼고 몰아 前擁後驅
번개에 산 무너지듯하네 若霆摧嶽
청이 황제 노릇 할지 못 할지가 淸之帝不
공의 절 한 번에 달렸는데 係公一俯
하늘을 떠받치고 땅 위에 우뚝 서서 撑宙亘宇
기둥처럼 굳게 박혔네 確植如柱
나의 목은 토제 인형이요[388] 項領土梗
등과 배는 옹기나 마찬가지[389] 腹背瓮盎
창자를 베건 위장을 도려내건 屠腸刳胃
네 멋대로 실컷 하라 任汝飫脹
오직 이 무릎만은 간직하여 獨保此膝
천하 위해 펼 것이니 爲天下伸
저 역시 의리에 부끄러워 彼亦赧義
제 신하에게 자중하게 하였네 以儆厥臣
장순(張巡) 허원(許遠)처럼 죽지 않고 巡遠不剚
소무(蘇武) 장건(張騫)[390]처럼 살아오니 武騫生還
국론이 물 끓듯이 많아 國言沸騰
입 달린 자 모두 탓하고 헐뜯네 喙喙郵訕
적에게 아양 떨어 謂公媚敵

---

387) 변발에다 붉은 모자: 모두 만주족의 풍습이다. 청나라 남자의 예모(禮帽)는 붉은 실로 짠 모위(帽緯)로 장식하였다.

388) 토제 인형: 대문의 토경(土梗)은 흙으로 빚은 인형으로 비에 젖으면 무너진다고 하여 하찮은 물건의 비유로 쓰인다.

389) 옹기: 대문의 옹앙(瓮盎)은 곧 옹기로 흔해 빠져서 역시 하찮은 물건의 비유로 쓰인다.

390) 소무(蘇武) 장건(張騫): 소무는 전한 때의 장수로, 무제(武帝) 천한(天漢) 원년(기원전 100)에 흉노(匈奴)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들에게 구금되어 회유를 당하였으나 굴복하지 않았다. 기원전 81년 소제(昭帝)가 흉노와 화친을 하자 19년 만에 한나라로 돌아왔다. 장건은 전한 때의 장수로, 무제 건원(建元) 2년(기원전 139)에 월지국(月氏國)으로 사신 가다가 도중에 흉노에게 사로잡혀, 전후 11년 동안 억류를 당하여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다. 마침내 그곳을 탈출하여 본래의 목적지인 월지국에 갔다가, 한나라를 떠난 지 13년 만에 돌아왔다.

절 올리고 춤췄으니 跳躍拜舞
진실로 이런 놈은 洵若斯者
목을 베어야 한다 했네 其咽可斧
살아서건 죽은 뒤건 于存于歿
업적과 명성 더럽혀지니 跡穢名衊
황하 물 끌어다 세숫물 삼은들 挽河爲盥
누가 대신 씻어 주리 誰爲滌之
화산(華山) 돌 깎아서 송곳을 만든들 斲華爲觿
누가 대신 찔러 터뜨려 주며 誰爲摘之
깜깜하고 암담한데 幽昧暗黮
누가 대신 밝혀 주리 誰爲晢之
청은 이제 사대가 되어[391] 淸今四葉
건륭이라 연호 세우고 號登乾隆
황제 몸소 시가 지어 親作歌詩
조상 공덕 찬송했네 頌厥祖功
공이 절하지 않은 것 의아해하며 訝公不拜
뜻이 유독 틀어졌다 했으니 謂志獨乖
이 한 말 얻기란 獲此一言
하늘 오르기 어려움과 같네 若天難階
시의 주석을 살펴보면 觀其所註
응당 공의 뼈를 가루로 만들었을 텐데 理當粉骸
패역(悖逆)하다 꾸짖은 건 詈公悖常
공에게는 의용(義勇)일세 卽公義勇
제 아량 자랑이지 自述宏度
공을 칭송한 것 아니고 非爲公頌
대서특필한 것도 大書特書
공을 총애한 것 아니라 非爲公寵
누가 글 올려 황제 구워삶았으며 孰章賂帝

391) 청은 …… 되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이 자결하고, 청 세조(淸世祖) 순치제(順治帝)가 산해관(山海關)을 돌파하여 북경을 차지한 때부터 쳐서 4대가 된다. 원문의 '今' 자가 『동문집성』에는 '興' 자로 되어 있다.

누가 종용하겠는가 孰與慫慂
어찌 한 번 죽임 망설였는가 胡靳一殺
공의 충절 영원토록 잊을 수 없네 刻公百年
곧은 일은 펴지는 법 無直不伸
의심나면 하늘에 물어보소 可質蒼天
우리 왕조 역대의 법도는 我聖家法
오랑캐 물리치고 주나라를 받드는 것 攘夷尊周
동해 주변 삼천리 우리나라 環東爲國
『춘추』의 의리를 지켜 왔네 一部春秋
공과 같은 신하는 有臣若公
오랜 세월 지났어도 어제인 듯하여 曠世如昨
태상시[392]에 명하여 爰命太常
정부 관각[393]이 政府館閣
글자 살펴 시호(諡號) 정하고[394] 考文選號
굳센 넋을 정표(旌表)하니 以旌毅魄
근엄한 작설(綽楔)[395]에 綽楔有儼
이름과 작위 높이 걸렸구려 揭名列爵
현저한 보답 융숭하였으니 顯報旣崇
저승으로부터 되살아나서 九原可作
이 크고 아름다운 비석을 본다면 視此豐珉
공의 낯빛에 부끄럼 없으리라 色庶無怍

글 전체가 '의심할 의(疑)' 자로써 안건(案件)을 삼았다. 사건에 대한 서술이 기발하고 변화가 많으니, 사마천(司馬遷)의 진수를 터득했다. 명(銘) 역시 극도로 기이하고 전아하여, 한창려

392) 태상시(太常寺): 봉상시(奉常寺)의 옛 이름으로 제사(祭祀)와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393) 정부 관각: 정부는 의정부(議政府)를 이르고, 관각은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봉상시에서 삼망(三望: 세 가지 시호 후보)과 함께 시장(諡狀)을 홍문관에 보내면, 홍문관에서 삼망을 의논한 뒤 봉상시 관원과 다시 의정(議定)하고, 의정부로 넘겨 서경(署經)하는 절차를 거쳐 시호가 정해진다.
394) 글자 …… 정하고: 조선 시대의 시법(諡法)에서 사용하는 글자는 모두 301자로 그 범위 내에서 시호를 고르게 되어 있었다. 세종(世宗) 때, 『주례(周禮)』의 시법(諡法)에 나오는 28자와 『사기(史記)』의 시법에 나오는 194자에다, 『의례(儀禮)』,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을 참조하여 107자를 추가해서 시호로 사용할 수 있게 정했다.
395) 작설(綽楔): 효자나 충신 등을 정표(旌表)하기 위하여 문 옆에 세운 대(臺)를 이른다.

(韓昌黎, 한유)를 배웠으면서도 거기서 환골탈태하여 묘경(妙境)을 얻었다고 하겠다.

이확·나덕헌(羅德憲)의 성명이 『일통지(一統志)』[396]에 보이기는 하지만, 『어제전운시』가 나오기 이전에는 특별히 표창한 사람이 없었다. 그 때문에 백여 년 동안 적막하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가령 당시 만에 하나라도 혹시 마음은 자기 몸을 드러눕게 하고 싶지만,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엎드리게 되어 저놈들이 장차 절을 한 것으로 임시변통으로 인정해 버렸다면 공은 장차 어찌 되었겠는가. 이는 다행히도 하늘이 공에게 곰과 범 같은 자질을 주어서 이 지경을 견뎌내게 한 것이다. 그때에 여러 공도 누군들 척화(斥和)할 생각이 없었겠는가마는, 대저 모두 글 짓는 선비들이라 마음은 강하지만 뼈대는 연약하고 외모는 씩씩하지만 체질은 약하니, 비록 절의야 천지에 우뚝 세울 만하고 뜨거운 분노야 우주를 떠받칠 만하다 해도 반드시 용력이 장군과 같이 굳셀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은 적이 없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연암집(https://db.itkc.or.kr/)

嗚呼。當淸人建號之初。刦執我使。必欲一得其庭拜。是固將聲嗓於天下曰。朝鮮禮義之邦。率先諸國而帝我也。爲使者。噫其急矣。其頭可斫而不可叩。其膝可斷而不可跪者。苟非如故統制使李公之爲使。環東海數千里之國。將何以自明於天下乎。力可以拔瀋陽擧全遼。而不能勝弱國一介之使。威足以服蒙古四十餘王。不終朝而破杜松二十萬之衆。不能折匹夫之腰而膝之庭。獲玉璽陳符命。沛然自以爲得之于天者。若彼其易焉。其得我使之一拜。若是之難也。然而事在疆域之外。有非國人之所快覩。則身旣生還。跡涉受書。當時辱國之論。惡可已乎。其後明邊帥之奏天子。中原遺民之所圖畫。稍稍得之於傳聞之中。而國疑漸釋。始加褒贈之典。然其敵庭强悍之蹟。尙在國人信惑之間者。于玆百有四十餘年。此固萬世公議之所不能泯。而淸皇帝之所不得掩也。謹按。公諱廓。字汝量。系出璿派。其所自祖曰王子敬寧君裶。考諱裕仁。文科咸鏡道觀察使。倭寇時被害。贈禮曹判書。妣貞夫人慶州崔氏。萬曆庚寅生公。三歲而孤。及長。身長八尺。聲如巨鍾。膂力絕倫。屹然將帥材也。李文忠公恒福憐其孤貧。勸武中甲科。除宣傳官。猛虎入禁苑。公射殺之。賊臣脅文武百官。庭請廢大妃。公不參班。人皆危之。勸公稱疾。公怒曰。不病則當參乎。光海日悖亂。有探公意者。公謝曰。我有母在。未敢從公等。然第努力無我疑。及靖社有密期。東城君申景禛要公俱去。公不應。公時帶御營千摠。朴承宗素信公。急招公謂曰。有告若與大將李興立叛者。吾不若疑。急聚軍敦化門外。以備非常。公遂令軍中曰。今日我特將專號令。敢違者斬。夜義旗指門。軍中

396) 『일통지(一統志)』 : 청나라 건륭 29년(1764)에 청 고종(淸高宗)의 명에 따라 지어진 지리지(地理志)인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를 이른다. 이 책 권421 '조선조(朝鮮條)'를 보면 "조선 사신 나덕헌 · 이확이 돌아갈 때 서신을 보냈으나, 조선국왕이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擾擾。告有外兵。公乘馬東向立曰。視我馬首。有行且字公者。公陽爲不聞。呼公者東城君也。事定。諸功臣疑公。欲並誅之。延平君李貴力爭曰。使廓不讓陣。誰敢入者。延平君以平山府使擧義。而超拜扈衛大將。則力保公爲中軍。復薦公代平山以庇之。然承宗以首相誅。而嘗爲其所厚。則無以自晰。常鬱鬱不得意。

明年适叛報至。公適在理。趣召見。賜弓釰。禦敵猪灘。兵潰自投江。賊購公急。及得公馬死浮水。謂公已死。乃去。公乘流屍得不死。赤身赴都元帥張晩軍。軍中疑公賊諜。欲斬之。晩赦公爲先鋒。使立功自贖。遂破賊復京城。功疑不得勳。出爲安岳郡守。尋移慈山府使。姜弘立引滿州陷義州。列郡瓦解。觀察使尹暄急招公援平壤。道聞平壤已陷。而慈亦失守。狼狽失所據。檄召諸邑兵將。赴節度使。

及金起宗代暄爲觀察使。疑公在道顧望不急援平壤。欲斬之。會朝廷屬公能捕誅金德卿,高汗龍者。二賊俱西陲小譯。投滿洲。德卿僞署安州牧使。公請擒二賊自贖。遂設計斬汗龍。擒德卿。擊賊半渡。奪還俘口。追高遮博氏。射殺二從騎。起宗握手歡飮曰。恨相知晩也。遂留爲中軍。悉以軍事委之。敵退。入拜同知中樞府事。出爲慶源府使。旋移永興府使。入爲都摠府副摠管。復出爲濟州牧使。還拜同樞兼摠管。尋除會寧府使。以母老辭不赴。時滿洲已據瀋陽。數侵擾山海關。盡服屬蒙古諸番。然猶以隣道待我。不絕聘報。崇禎九年丙子。滿洲使英兒阿代,馬福塔來遺書。辭甚悖慢。所望非前日者。臺閣及太學諸生。交章請斬其使。函首奏天子。英兒阿代等。大恐跳出館。奪馬馳去。棄國書道中。是時士大夫皆避使瀋中。乃以公充回答使。持書追至龍灣。時春信使羅德憲先公發。方留灣上。遂偕行入瀋陽。汗見公等。益慢不肯受幣。迭使館中誚讓十餘事。汗將郊天。先使鄭命壽誘脅萬端。公拔佩刀。授命壽曰。持我頭去。明日滿洲數十騎。鞭門大呼曰。朝鮮使趣整服。公歎曰。今日死得所矣。遂與羅公東向四拜。遙辭國。手自裂袍。踏壞紗帽。以示不復服。自解髻。駢首交綰。兩相抱持臥。汗遣壯士。挾持公等。驅至壇下。貝勒八固山番子等皆班立。蒙古騎數十萬環壇而陣。汗衣柘黃袍。執圭升壇。受尊號曰。寬溫仁聖皇帝。建有國之號曰大清。改元崇德。壯士擁公立。公輒擲身伸脚臥。壯士爭前執其臂股。抑首揭尻。四擧而覆之地。公則大呼翻身背臥。有近前者。臥輒踢其面。鼻潰血濺。是日觀者。駭惡不忍視。遂倒曳鎖于館。

明日復祀東郊。又擁公等去。公等益暴抗裂毗大罵。眞悖戾不可當。滿洲群臣請釁鼓威衆。汗曰。彼方自求殺。今殺之。反適其願。且有殺使名。不如赦還。遂爲書置裝中。使百餘騎押公。馳至鴉鶻關而去。公等始檢裝。果得汗書。驚曰。書封新印。其中可知。萬一發書。有不中舊式者。將奈何。遂置書店中。馳還脫出柵。邊上讙言。公等拜蹈敵庭。觀察使洪公命耆馳啓。請梟示境上。於是三司及太學生交章請誅。金文正公尙憲力言兩使不驗問。奈何獨先斬之。得末減。公謫宣川。羅戍白馬城。久之朝廷得都督沈世魁奏天子手本。始知公等抗義狀。兩司姑停梟首之啓。然言者猶謂沈帥詐報天朝。及馬福塔以店中所棄書。至盛怒言皇帝郊天。使臣當執禮惟恭。乃廓等悖亂。廷辱天子。何不殺是賊。以謝大國。於是從行譯官申繼愔等。始發舒鳴冤。釋公等謫。是年冬。滿洲大擧襲我。上

入南漢城。時公丁崔夫人憂。命起復。入覲圍中。使守城。遣中使勸肉。又親臨勞勉。督戰御史金益熙,黃一皓,金壽益,李厚源,林墠諸公。見公備禦有奇略。許以國士。始信前使瀋中事。圍解。請歸葬崔夫人。制終。拜同樞摠管。出爲忠淸道兵馬節度使。擢拜三道統制使。其在瀋陽。被捶毆。瘀血內腫。下體不仁。年老田居。屢辭除拜。顯宗乙巳。卒于家。葬楊根郡北鬱業里坐乙原。配貞夫人興陽李氏。應培女。生三男一女。益章,益常,益行。女適尹世美。益章,益常無後。益行五男。誽,訢,譴,諴,諒。林將軍慶業入登州。爲馬弘胄所執。送北京。道見一畫。乃公等不屈狀也。先是。皇明烈皇帝。遣御史黃孫茂。奬諭公節義甚盛。而椵島已破。詔書竟莫能傳。自是天子之使。不復至朝鮮矣。及今淸皇帝論述歷代帝王。以及汗建號時事。題曰御題全韻詩。詩刊五卷。布行天下。詩有朝鮮使不拜獨乖之語。親自詳註言。太宗旣受尊號。而朝鮮使臣李廓羅德憲。獨不拜。太宗諭群臣曰。使臣無禮。欲朕先啓釁戮其使。加我以敗盟之名。朕終不肯逞忿于一時戮其使。其勿問。尋遣歸廓等。其所稱太宗者。汗也。今上三年。特命購其書。覽而嘉歎之。命旌其閭。而謚之曰忠烈。嗚呼。是奚特公等百年之疑快卞於一朝哉。使天下萬世。益義我朝鮮獨不帝滿洲於當時也。遂爲之銘曰。

維我先王。亦維有君。大明天子。我君之君。淸未受命。卽我强隣。入據遼瀋。揮戈四瞋。鄂羅回回。杜爾伯特。扎賴翁牛。烏珠土默。莫不稱臣。益强以傲。羞稱可汗。謀僭大號。我有虎將。曰廓汝量。聘在彼館。元不忘喪。彼雖自帝。若飽于夢。必借公拜。以誇其衆。辮髮朱帽。焰瞳鬼齮。前擁後驅。若霆摧嶽。淸之帝不。係公一俯。撐宙亘宇。確植如柱。項領土梗。腹背瓮盎。屠膞刳胃。任汝飫脹。獨保此膝。爲天下伸。彼亦赧義。以儆厥臣。巡遠不剛。武騫生還。國言沸騰。喙喙郵訕。謂公媚敵。蹈躍拜舞。洵若斯者。其咽可斧。于存于歿。跡穢名巇。挽河爲盥。誰爲滌之。斲華爲觴。誰爲摘之。幽昧暗黮。誰爲晰之。淸今四葉。號登乾隆。親作歌詩。頌厥祖功。訝公不拜。謂志獨乖。獲此一言。若天難階。觀其所註。理當粉骸。詈公悖常。卽公義勇。自述宏度。非爲公頌。大書特書。非爲公寵。孰章賂帝。孰與慫恿。胡靳一殺。刻公百年。無直不伸。可質蒼天。我聖家法。攘夷尊周。環東爲國。一部春秋。有臣若公。曠世如昨。爰命太常。政府館閣。考文選號。以旌毅魄。綽楔有儼。揭名列爵。顯報旣崇。九原可作。視此豐珉。色庶無怍。

通篇以疑字爲案。叙事奇崛。得史遷神髓。銘亦奇極典極。學昌黎而換脫得玅。

李羅姓名。見於一統志。在全韵詩。前特無人表章。故百餘年寥寥無聞耳。

假使當時萬有一或者。心欲偃而力不能不覆。彼將權認爲拜。公將奈何乎。此幸天賦公熊虎之材。以當此境。而其時諸公孰不斥和。而大抵皆文儒也。心剛骨則軟。貌毅質則弱。雖節義建天地。血憤撐宇宙。未必能勇力麤豪如將軍。我爲念此。未嘗不怵然心悸。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연암집(https://db.itkc.or.kr/)

29) 임전(任錪, 1560~1611)

• 본관 풍천(豊川), 자 관보(寬甫), 호 명고(鳴皐)

(1)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계사년

신종황제(神宗皇帝) 만력(萬曆) 21년, 선조대왕(宣祖大王) 26년 계사년(癸巳年), 선생의 나이 57세이다.

상소를 올려 왜적을 토벌하여 복수할 요령을 논하였다.

당시에 조정이 불화하여 나라의 명령이 여러 통로로 나가고, 관군과 의병이 서로 시기하고 막으니, 선생이 말하기를 "마음을 같이 하면 큰일도 변별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달리하면 작은 일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삼도가 쇠퇴하여 망하고 만백성들이 어육이 되었으니, 이는 바로 상하가 마음을 같이하여 와신상담하고 창을 베개 삼을 때인데도 조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서로 반목하고 어긋났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려 논하였다.

군사를 전진시켜 경성으로 들어가 점거하고, 능묘를 봉심(奉審)한 후 군사를 나누어 서울을 지켰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평양을 탈환하고 전진하여 개성에 이르자 선생이 막하의 군사 임전으로 하여금 서울의 형세, 도로의 평탄하고 험함, 적들의 강점과 약점을 기록하여 보내게 했다. 경기 수사 이빈(李薲)·충청 수사 정걸(丁傑)과 함께 주사를 거느리고 선유봉(仙遊峯)에 군대를 전진시켜 머무르게 하고, 노량(鷺梁)의 뒤를 끊고 육군을 나누어 사현(沙峴)을 무찌르니 적을 사로잡거나 목을 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명나라 장수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창의사는 명성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는 사람이로다."라고 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二十一年 二十六年 癸巳。先生五十七歲。

上疏論討復之要

時朝廷不和。令出多門。官軍義兵。互相猜沮。先生以爲同心則大事可辦。異心則小事難濟。方今三道淪沒。萬姓魚肉。此正上下同心。嘗膽枕戈之時。而朝著不靖。羣情睽離。此而不改。則討賊復讐。恐無其日。上疏論之。

進兵入據京城。奉審陵廟。分兵守衛。

天將李如松克平壤。進至開城。先生使幕士任鍊。圖京都形勢。道路夷險。賊情虛實獻之。與京畿水使李薲,忠淸水使丁傑。領舟師。進次仙遊峯。以截鷺梁。分陸軍衝沙峴。俘斬無算。天將歎曰。倡義使名實相孚。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2)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

만력(萬曆) 21년 정월 6일,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서경을 쳐 수복하고 동도로 군사들을 전진시켜 머무르게 하고는 장차 서울의 적을 합공 하려고 할 때 공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자로 하여금

서울의 형세와 도로의 험하고 평탄함과 크고 작은 적영(賊營)의 상황을 그리게 하고, 막사(幕士) 임전을 시켜 제독 이여송의 군전에 바쳤다. 이에 제독이 크게 칭찬하며 길을 인도하고 교량을 놓는 일과 꼴을 빨리 보내고 식량을 실어 보내는 일[397]을 공과 여러 의병에게 맡겼다.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 군인의 장표(章標)를 보고 말하기를 "이른바 창의 표시가 어찌 이렇게 많으며, 힘과 충성을 다함이 어찌 이와 같단 말인가." 하였다

서울 왜적이 서울 백성들이 모두 의병의 군진에 소속되는 것을 보고 명나라 군사가 진격해 공격할 것을 생각하였으니, 안팎으로 반드시 서로 합세할 것에 매우 분개하여 서울 백성을 거의 다 도륙하니 쌓인 시체가 거의 산 같았고, 성안의 인가(人家)와 삼강(三江, 한강)에 불을 질러 불길이 열흘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았다. 때는 정월 14일의 일이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二十一年正月六日。天將李提督如松。克復西京。進次東都。將合攻京城賊。公令善畫者。摹京都形勢。道路險夷及大小賊營之狀。付幕士任鍊。往呈提督軍前。提督大加奬歎。嚮導浮梁之役。飛芻輓粟之事。一責於公及諸義兵。天兵見軍人章標曰。所謂倡義標者何多。而竭力盡誠如是耶。京賊探都民盡屬義陣。度天兵進攻。則內外必相合勢。憤甚。殺都民幾盡。積屍所在如山。燒城內人家及三江。火經旬不滅。時正月十四日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3) 이재(李縡), 『도암집(陶菴集)』 권31, 묘갈 「참봉 임공의 묘갈(參奉任公墓碣)」

예로부터 시인(詩人)은 마음이 들뜨고 경박하며 기개(氣槪)와 절개가 적다고 하여 사람들은 혹 그들을 가벼이 여겼다. 그러나 강직한 기상을 지닌 담암(澹菴, 호전)과 굳은 절개를 지닌 후산(後山)[398]도 시인이라는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이른바 시인이라는 사람들을 어찌 일례로 논할 수 있겠는가? 조선조의 시운(詩運)은 목릉(穆陵, 선조) 때보다 더 융성한 적이 없었는데, 명고(鳴皐) 임공이 석주(石洲)[399]와 이름을 나란히 하였으니, 진

397) 꼴을 …… 일: 대문은 비추만속(飛芻輓粟)이다. 『한서』「주보언전(主父偃傳)」에, "使天下飛芻輓粟."이라 하였는데 그 주에, '꼴과 곡식을 실어 운반함에 빨리 이르게 하였으므로 비추라 하였다. 만(輓)은 수레와 배를 끄는 것을 말한다.[運載芻粟 令其疾至 故云飛芻, 輓謂引車船也]'라 하였으니, 곡식을 빨리 운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398) 후산(後山): 진사도(陳師道, 1053~1102)로 후산은 그의 호이다. 자는 이상(履常)·무기(無己), 호는 후산거사(後山居士)며 팽성(彭城) 사람이다. 북송(北宋)의 시인으로, 비서성 정자(秘書省正字) 등을 지냈다. 소문 육군자(蘇門六君子) 중의 한 사람이며, 강서 시파(江西詩派)의 중요 작가였다.

399) 석주(石洲): 권필(權韠, 1569~1612)로 석주는 그의 호이다. 자는 여장(汝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정철(鄭澈)의 문인이다. 이정귀가 명나라 사신 고천준(顧天俊)을 맞게 되어 문사(文士)를 엄선할 때 야인으로서 이에 뽑혀 문명을 떨쳤다. 유희분(柳希奮) 등 척족(戚族)들의 방종을 풍자한 「궁류시(宮柳詩)」를 지어 비방하자, 광해군이 크게 노하여 친국(親鞫)하여 혹독한 고문 끝에 귀양길에 올라 동대문 밖에 이르렀을

실로 역시 이른바 시인이다. 그런데 선배들이 서술한 글을 상고해보니, 실로 충의(忠義)와 절행(節行)이 있는 선비이고 지금 공의 유사(遺事)를 읽어보니 정말로 그러하였다.

공의 휘는 전이고, 자는 관보이며, 호는 명고이다. 어려서부터 우계(牛溪) 선생을 찾아가 배웠는데, 선생이 '학문을 좋아하는 선한 선비'라고 칭찬하였다. 평소에 효성과 우애에 독실하였고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지만 거처하기를 편안히 하였으며, 세 번이나 침랑(寢郎)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어가(御駕)가 서쪽으로 피난을 가자, 공이 동협(東峽)에서 난리를 피하고 있을 때 동지들과 개연(慨然)히 임금을 호위하려는 뜻이 있었으나 길이 막혀 통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호남 창의사 김천일이 병력을 거느리고 강도(江都)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서기(書記)가 되었다. 명나라 장수가 한성의 적을 공격하려고 꾀하자 공이 창의사의 명에 따라 도성도(都城圖)를 그려 올리고 또 이십운시(二十韻詩)를 지어서 바치니, 명나라 장수가 자리를 내주며 포상하였다. 뒤에 창의사가 진주성을 지키다가 전사하자 공이 그의 집을 찾아가 조문하였고 막하(幕下)의 옛날 동료들과 같이 강도에다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였으며, 글을 지어 호남에 두루 알렸다. 공은 비록 엎어지고 자빠지는 난리 속에 있었었지만, 유학에 한결같아 그 진정이 잠잘 때에도 발로되었으니, 일록(日錄)에서 알 수 있다.

공이 평소 유영경(柳永慶)·정인홍(鄭仁弘)의 사람됨을 미워한 나머지 항상 큰 소리로 분기를 띠며 꾸짖었었는데, 광해조에 이르러 시사(時事)가 날로 어긋나는 것을 보고는 오직 몸을 고결하게 하고 행실을 고상하게 함을 자신의 뜻으로 삼았다. 함께 노니는 자들이 모두 사림(士林)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무릇 불만이 있거나 무료할 적에 한 번 시에 드러내면 두릉(杜陵, 당나라 시인 두보)의 충애(忠愛)한 뜻을 깊이 얻었다. 공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석주(권필)가 시를 지어 화를 당하자, 집안사람이 공이 평소 지은 시들을 불태워버렸다. 이 때문에 공의 시가 세상에 많이 전해질 수 없었다. 옛날 방옹(放翁)[400]이 간신(奸臣) 한탁주(韓侂胄)[401]에게 물들자 주자가 그를 걱정하며 "천진교(天津橋) 위의 원숭이에게 현혹되었다."라는 말이 있기까지 하였으니[402], 아! 공과 같은 자는 혼탁한 가운데서 빠져나와 시인의 수치를 한 번 씻어냈다고

때 사람들이 주는 술을 폭음하고 이튿날 죽었다. 1623년에 사헌부 지평에 추증되었고, 광주(光州) 운암사(雲巖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석주집』이 있다.

400) 방옹(放翁): 송나라 육유(陸游)로 방옹은 그의 호이다. 자는 무관(務觀)이며, 시로 저명하였다. 수황(壽皇, 송나라 효종)이 주 익공(周益公)에게 "오늘날 시인 중 이백(李白)과 같은 이가 있는가?" 하자, 주 익공이 방옹을 천거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벼슬길에 발탁되었다. 시집으로 『검남집(劍南集)』이 있다.

401) 한탁주(韓侂胄): 1152~1207. 자는 절부(節夫), 상주(相州) 안양(安陽) 출신으로 남송 영종(寧宗)을 책립(策立)한 공으로 총애를 입어 권세를 휘둘러 국정을 전횡하였다. 대신 조여우(趙汝愚)를 내쫓고 주희(朱熹)·팽귀년(彭龜年) 등을 축출시키면서 이학(理學)을 위학(僞學)이라 지목하여 엄금시킨 '경원당금(慶元黨禁)' 사건을 일으켰다.

402) 주자가 …… 하였으니: 주희가 「답공중지」에서 "방옹은 필력이 더욱 강건해졌으나, 다만 까닭 없이 천진교(天津橋) 위에서 호손(胡孫)의 요란(擾亂)을 당하여 도리어 대이 삼장(大耳三藏)에게 마음을 엿보인 것이

이를 만하다. 공이 일찍이 이백의 고풍(古風)을 모방하여 "소식(蘇軾)·황정견(黃廷堅)이 시문을 어지럽혔다.[蘇黃亂風雅]"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매우 미워한 것이다. 공의 장인인 판서(判書) 윤자신(尹自新)이 공이 세속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아 과거에 떨어졌을 때 손수 소식의 시를 써서 권고하였으나 공이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 그의 뜻이 이와 같았다.

공은 만력(萬曆) 신해년(辛亥年, 1611년 광해군 3년)에 향년 53세로 졸하였는데, 그 뒤에 임금을 호위한 공로로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양주(楊州) 와공(瓦孔) 사곡리(笥谷里) 좌간(坐艮)의 언덕에 있는데, 부인 윤 숙인(尹淑人)은 왼쪽에 부장(祔葬)하였다. 임씨는 풍천(豐川)에서 나와 동방의 유명한 씨족이 되었다. 공의 아버지 임윤신(任允臣)은 관찰사(觀察使)를 지냈고, 할아버지 임정(任禎)은 시정(寺正)을 지냈고, 증조(曾祖) 임유손(任由遜)은 감찰(監察)을 지냈다. 공의 아들 임기지(任器之)는 진사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문과 출신의 헌납(獻納)이며, 세 딸은 설서(說書) 정성(鄭晟), 진사(進士) 봉식(奉埴), 교관(敎官) 황로(黃潞)에게 각각 시집갔다. 손자는 임승(任昇)[403]·임식(任寔)·임필(任弼)·임고(任暠)이다. 증손(曾孫)은 임세태(任世泰), 진사(進士) 임세정(任世鼎), 효행으로 지평(持平)의 벼슬을 추증받은 임세복(任世復), 임세익(任世益), 임세직(任世稷), 임세룡(任世龍), 임세기(任世夔), 임세중(任世重)이다. 현손(玄孫, 손자의 손자)은 문과에 급제한 임술(任述)과 임원(任遠), 임선(任選), 진사시에 합격한 임도(任道), 임운(任運), 임매(任邁), 임달(任達), 임형(任逈), 임적(任迪), 임준(任遵), 임거(任蘧), 임우(任遇), 임수(任遂), 임근(任近), 임유(任逌), 임규(任逵), 임봉(任逢)이다. 임술의 아우 임일(任逸)이 나에게 찾아와 명(銘)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기에 다음과 같이 쓴다.

시는 성정(性情)에서 나오니	詩出情性
바른 것도 있고 사특한 것도 있네	有正有邪
시로 사람을 보면	於此觀人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로다	庶不或蹉

한스럽다."라고 하여, 육유(陸游)의 허물을 대이 삼장의 고사를 인용하여 지적한 일이 있다. 이에 대하여 『주서강록간보(朱書講錄刊補)』에는 "사람이 부귀를 탐하는 것을 호손의 요란에 비유하고, 대이 삼장을 한탁주(韓侂胄)에 비유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에는 "방옹의 뜻이 부귀에 있었기 때문에 한탁주가 그 뜻을 간파하고 그에게 「남원기(南園記)」를 짓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朱子大全 卷64 答鞏仲至』『朱書講錄刊補 卷5 答鞏仲至』『朱子大全箚疑 卷64 箚疑』 방옹은 육유의 호이다. 대이 삼장은 당나라 숙종(肅宗) 때 서천(西天)에서 온 승려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숙종의 명으로 혜충 국사(慧忠國師)가 그의 능력을 시험하여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자, "천진교 위에서 원숭이를 희롱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대답한 일이 있다. 『景德傳燈錄 卷5 西京光宅寺慧忠國師』.

403) 풍천임씨문중에서는 '임궁'이라 하였다.

공의 시는	公之爲詩
사실을 위주로 하고 화려한 것을 버렸다네	就實去華
소식(蘇軾)과 황정견(黃庭堅)은	曰蘇曰黃
대가로 불리었으므로	號爲大家
온 세상 사람들이 분주히 따랐지만	擧世奔趨
공만은 아부하지 않았지	而獨不阿
마음속에 정음(正音)을 가지고	中抱正音
음란한 소리는 한번에 쓸어내 버렸네	一埽淫哇
오직 이러한 절행(節行)은	維此節行
그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네	所原匪它
등인(滕仁)과 제열(齊烈)을	滕仁齊烈
비교할 때 누가 더 훌륭하랴	將比孰多
늙은 농부가 평론하였는데	農老有評
내가 무엇을 덧붙일 것이 있겠는가	我又何加
이에 명의 시를 지으니	爰作銘詩
영원히 마멸되지 않을 것이도다	永世不磨

출전 : 풍천임씨감찰공파나주종중, 『(국역) 명고집』, 2005

自古詩人。多浮薄而少氣節。人或輕之。然如澹菴之直氣。後山之苦節。亦不免詩人之目。由是觀之則所謂詩人者。豈可以一例論之也哉。國朝詩運。莫盛於穆陵之世。而有鳴皐任公者。與石洲齊名。固亦所謂詩人者。而攷諸先輩叙述。實是忠義節行之士。今得其遺事讀之信然。公諱鏏字寬甫。鳴皐其號也。少從牛溪成先生游。先生稱以慕學善士。平居篤於孝友。家甚貧。處之晏如也。三除寢郎皆不就。壬辰之亂。車駕西狩。公始避兵東峽。與同志者。慨然有執靮之志。路塞不得通。聞湖南倡義使金千鎰住兵江都。往從之爲書記。天將謀擊京城賊。公以倡義命。作都城圖以進。且獻二十韻詩。天將賜座褒賞之。後倡義死於晉州城守。公往哭於其家。與幕下舊僚。伐石記績于江都。作文通諭湖南。公雖在亂離顚沛之際。眷眷師門。精誠屢發於宵寐。於其日錄可見。公素嫉柳永慶,鄭仁弘爲人。居常大言憤罵。及至昏朝。見時事日非。惟以潔身危行爲志。所與游。皆士林名勝。而凡有不平無聊。一發於詩。深得杜陵忠愛之意。公歿後石洲詩禍作。公家人取平日所爲篇什而悉焚之。是以不能多傳于世。昔放翁幾見染於侂胄。朱夫子憂之。至有天津胡孫之譏。嗚呼。若公者。可謂拔出汙濁之中。一洗詩人之羞者矣。公嘗倣李白古風。有蘇,黃亂風雅之句。蓋深惡之也。其婦翁尹判書自新。以公不逐時好。見屈公車。手書蘇,黃詩以勸之。公不肯觀。其志尙如此。公卒於萬曆辛亥。年五十三。後以扈聖從勳。贈司憲府執義。墓在楊州笥谷坐艮之原。配淑人南原尹氏祔。任出豐川。爲東國名族。考諱允臣觀察使。祖諱楨寺正。曾祖諱由遜監察。公男器之進士壯元文科

獻納。三女婿。說書鄭晟,進士奉埴,敎官黃潞。孫曰昇,寔,弼,暠。曾孫曰世泰,世鼎進士。世復以孝贈持平。世益,世稷,世龍,世夔,世重。玄孫述,遠皆文科。選及道進士。運,邁,達,迥,迪,遵,遽,遇,遂,近,逌,逵,逢。述之弟逸來乞銘。銘曰。

詩出情性。有正有邪。於此觀人。庶不或蹉。公之爲詩。就實去華。曰蘇曰黃。號爲大家。擧世奔趨。而獨不阿。中抱正音。一埽淫哇。維此節行。所原匪它。滕仁齊烈。將比孰多。農老有評。我又何加。爰作銘詩。永世不磨。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도암집 (https://db.itkc.or.kr/)

(4) 임전(任錪)『명고집(鳴皐集)』권10, 부록「행장」

오호라. 아들이 그 아비의 행적을 기록해도 오히려 생각함에 있어서 모두 자세히 하지 못함이 있는데, 하물며 손자가 할아비에 대하여, 더더욱 고손과 현손에 이르러서야 어떠하겠는가?

우리 명고 선생은 혈연관계로는 이미 4대가 흘렀고 햇수로는 거의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칠 할이라도 얻어서 후세에 믿음을 주겠는가? 그러나 4대라고는 하지만 모두 아비와 아들의 사이이고, 수백 년이라고는 하지만 이도 하루가 쌓였을 뿐이다. 옛날 우리 증조부는 그 남긴 사적을 날마다 우리 조부에게 알렸고, 조부는 우리 선군에게 알렸으며 선군 또한 그렇게 하였다. 나 또한 날마다 선군에게 이를 들었으니 진실로 직접 곁에서 모시면서 아침저녁의 기거를 받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는 이에 삼가 가정에서 전해오는 말을 뽑고, 글에 드러난 것을 참고하여 한 부를 만들었다. 아아, 고인을 논하는 선비들이 그래도 그 전체와 대용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삼가 듣건대, 공은 타고난 자질이 백옥처럼 밝아 한 점의 먼지도 받지 않았다. 독실한 행실에 절개를 숭상하고, 본디 곤궁했으나 도를 즐겨 뜻이 크고 커서 '옛 사람이여! 옛 사람이여!'라고 하였으니 공의 뜻이었다. 나이 다섯에 소학에 들어가 막 책을 마주하고 있는데 하녀가 넘어가니 지팡이를 흔들며 이를 꾸짖었는데, 공의 부친인 관찰공(觀察公)이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열세 살에 책을 끼고 스승의 집으로 갔는데, 준마가 문에 매여 있고 끄는 사람은 자고 있었다. 공이 이에 뛰어올라 달리는데 말이 빨라서 판서 윤자신(尹自新)의 댁으로 들어갔다. 판서공은 공의 비범한 용모를 아껴서 운자를 불러 시험하였는데, 공이 즉시 나오는 대로 대답하였다. "백옥의 소년이 흰 주둥이의 말을 타고, 펄럭펄럭 으스대며 서울의 꽃을 짓밟았네. 손에는 세 자[尺]의 부용검(芙蓉劍)을 비껴들고, 웃으면서 평원공자(平原公子)의 집으로 들어가네." 판서공이 웃으면서 글을 써서 공에게 주면서, "네가 존대인에게 전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공이 소매에 넣고 돌아가 바치니, 바로 청혼서였고 혼인이 성립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전하면서 기이한 일로 삼았는데, 공의 명예가 거의 온 세상을 흔들었다.

어른이 되어 문간공(文簡公) 우계 성혼의 문하에 유학하여 도의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일찍이 율곡 이 선생을 크게 사모하였는데,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도 엄연(儼然)히 스승께서 누차 꿈꾸는 사이에도 나타나셨다. 이는 참으로 정성스럽게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았으니, 아마도 정신과 성의가 모두 경지에 이른 것이리라. 본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를 섬김에 아들의 직분을 다했고 좌우에서 모시면서도 어김이 없었다. 관찰공(觀察公)이 일찍이 병이 들어 꿩이 먹고 싶다 하여 저자에서 찾아도 얻지 못하였는데 문득 매 한 마리가 꿩을 공격하여 떨어뜨리니, 이에 가져다가 드렸다. 사람들은 효도에 감응한 것이라 하였다. 예절에 조심스러워 비록 소공(小功)의 관계라 하더라도, 부음을 들으면 제수를 차리고 복장을 갖추었다. 친상을 치를 적이면 상복을 벗지 않았고,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았으며 시묘살이로 3년을 마치니, 아직까지 그곳을 '시묘동(侍墓洞)'이라고 칭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몇 칸의 초가가 비바람을 막지 못하였는데,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펼쳐놓고 늘 하던 대로 글을 읽었다. 당시 장인 판서공이 호조판서를 지낸 지 9년이 되었다. 사람 가운데 간혹 방납(防納)으로 이익을 취하라고 권하였지만, 끝내 하려고 하지 않았다.

경전과 역사에 해박하였으며 눈으로 스치면 기억하였고, 특히 「모시(毛詩)」를 즐겨서 늘 읊조리거나 암송하면서 성정을 함양하였다. 또한 이백의 사람됨을 기이하게 여겨서 그의 시를 아꼈다. 판서공이 손수 소동파와 황정견의 시를 써서 주었는데, 공은 책상 위에 놓아두고 눈길도 주지 않으며 시를 지어 말하였다.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이 인의를 어지럽히고	楊墨亂仁義
소동파와 황정견이 시문을 어지럽힌다	蘇黃亂風雅

대개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그런 것이다. 의지 또한 높고 가지런하여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작은 일이라도 분개하며 용납하지 않았다. 늘 진무기(陳無己)가 장자후(章子厚)를 만나지 않은 것[404]과 여거인(呂居仁)이 양사성(梁師成)의 말에 대꾸하지 않음을 사모하였다. 일찍이 모화관에 나가서 표문을 받드는 의식을 구경하였는데, 정인홍(鄭仁弘)이 대사헌으로서 반열에 있었다. 공이 통렬하게 "이놈이 대사헌을 맡으니 나라가 필시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꾸짖으니 듣는 사람들이 이 때문에 엄숙해졌다. 사람 가운데 간혹 공이 지나치게 강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공의 마음은 실로 관대하고 자비로웠다. 길가에서 두 병든 사람이 눈 속

404) 진무기(陳無己)가 …… 것: 무기는 진사도(陳師道)의 자이고 자후는 장돈(章惇)의 자인데, 모두 송나라 사람이다. 조정의 요직에 있던 장돈이 진사도의 학문과 행실이 뛰어나다는 명성을 듣고 조정에 천거하기 위해 그의 벗 진관(秦觀)을 통해 자기의 뜻을 전달하였는데 이에 대해 진사도는, 예의를 갖춰 초빙해 준 뜻은 고맙지만 선비가 폐백을 올려 신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왕공(王公)을 만나 보지 않는다는 예법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한 일을 말한다. 『宋史 卷444 陳師道列傳』.

에서 헐벗은 채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옷을 벗어 둘로 나눈 다음 덮어주었다. 구걸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장독의 곡식을 다 내어 손으로 움켜서 정중하게 주니, 따사롭게 사물을 아끼는 마음이 이와 같았다.

석주 권필 공과는 소단(騷壇)의 지기(知己)로 행동함에 늘 같이 하였다. 석주가 하루는 강화도에서 서울로 들어와서 공의 댁에 머물렀다. 달밤에 소매를 나란히 하고 종루의 거리로 놀러 나갔다가 길을 돌려 동악(東岳)을 방문하였으나 동악이 없었다. 부인이 술 한 병을 내오니, 뜰 위에 앉아 술 마시면서 시 한 구절을 읊었다.

달 가운데 한 잔의 술	月中一盃酒
주인이 되었구나	可以當主人
내일 동악이 온다면	翌日東岳來
셋이 앉아 밤을 새우겠네	鼎坐以永夕

다시 다음날 석주가 강화도로 돌아가니, 공도 함께 마니산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말 한 마리를 교대로 타기로 했는데 공이 먼저 탔고 석주가 뒤따랐다. 길가에서 어떤 선비가 보리 베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석주가 묻기를, "술이 있습니까?" 하니, 말하기를 "있지요."라고 하였다. 공은 이에 내려 탁주 몇 사발을 따라 마셨다. 또 일찍이 석주와 금강산에 놀러 가서 각자 시를 지었는데, 공은 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세상이 뭐가 좋은 게 있어서	人間有何好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나	還復向人間
우습구나 산 속의 물이여	可笑山中水
사람을 따라 저도 산을 나서네	隨人亦出山

석주가 평가하기를 의취(意趣)가 그윽하고 원대하여 도저히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조정의 논의는 송강이 주도하였다. 사림의 논의는 공과 석주에게서 나왔으니, 포의로서 한 시대를 좌우하는 명망이 있었다. 어느 권신이 연회를 베풀고 명고와 석주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다. 사기를 쳐서 그의 아들에게 먼저 석주에게 가서 초청하게 하였다. 석주가 한참 있다가 "명고도 갑니까?"라고 물으니, "이미 승낙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석주가 "명고가 간다면 나도 가겠소."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길을 돌려 공에게 갔는데, 공도 한참 있다가, "석주도 갑니까?" 하니, "이미 승낙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공이 "석주가 간다면 나도 가겠소."라고 하였다. 그날 두 분이 함께 가서 나란

히 앉고서야 속았음을 깨닫고 곧장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니, 크게 권신에게 거스른 바가 되어 화가 장차 미칠 참이었다. 마침 관찰공(觀察公)이 간관으로서 유영경(柳永慶)을 논박하다가 나주 목사로 좌천되었는데 공도 따라갔다. 호남의 명사 수은 강항, 백호(白湖) 임제(林悌)와 같은 분들과 시와 술로써 서로 즐기면서 그 자취를 서울에서 오래도록 감추니 그 일이 결국 무마되었다.

나주는 호남의 큰 고을이었는데도 예로부터 선비를 기를 곳이 없었다. 공은 이에 제공들과 의논하여 사현서원(四賢書院)을 세우고 전답을 두어 비용으로 쓰게 하니 대개 공의 힘이었다. 이로부터 나주 사람 가운데 성취한 사람이 많아졌는데, 모두 공이 유학에 공이 있다고 칭송하였다.

임진년에 왜적이 침입하자 어가가 의주로 피난하였다. 공이 당시 양주(揚州)의 병사(丙舍)에 있었는데,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면서 이에 오강정(烏江正)에게 말했다. "그대는 종친이고 나는 세신(世臣)인데, 이와 같이 군주가 욕을 당하는 날에 어찌 풀숲에서 구차하게 살 계책을 일삼을 수 있겠는가?" 마침내 함께 서쪽으로 국왕을 뵈러 가자고 약조를 하여 기세 있게 출발하였다. 우봉에 이르렀을 때 전투에 막혀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는데, 의병장 김천일 공이 호남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연안에서 맞이하였다. 임환, 김상건, 이광주, 권필, 이수준(李壽俊)[405], 이빈, 유대경(俞大儆), 권향(權向), 김종(金悰), 민유경(閔有慶), 성덕영(成德英) 등 제공(諸公)과 더불어 군사를 의논하니, 공을 서기로 추대하고 군문의 조치를 일체 공에게 위임하였다. 공에게 상소문을 지으라고 명하자 공은 즉시 수백 마디를 기초하였는데, 글과 이치가 모두 갖추어져 격앙하고 분개하는 뜻이 성대하니, 제공이 모두 혀를 내두르며 눈물을 흘렸다. 어린 아들이 요절하자 공이 아들을 묻고 돌아왔는데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나라의 광복에 힘쓰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당시 상주문이나 격문은 모두 공의 손에서 나왔으며, 계획과 조치가 합당한 경우가 많았다.

명나라 장수 도독 이여송이 송도에 도착하자 공은 한 폭의 지도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가서 바쳤다. 대개 산천의 평험과 도로의 원근 및 적세의 완급과 허실을 갖추어 실은 것이다. 또한 '분의시(奮義詩)' 20수를 드리니, 도독이 크게 칭찬하며 상을 내리고, 그의 동생 이여백(李如栢)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은 동쪽 나라의 노중련(魯仲連)이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동국의 사적을 물었다. 공은 이에 고금의 제현(諸賢)의 행적, 효도와 우애의 특이한 행실이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팔도의 풍속과 각 부서의 규모와 조례까지를 지어 드렸다. 또한 물음에 즉시 대답

405) 이수준(李壽俊): 1559~1607. 본관은 전의(全義)이고 자는 태징(台徵), 호는 용계(龍溪) 또는 지범재(志範齋)이다.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606년(선조 39)에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영평(永平)에서 병을 얻어 그 이듬해에 봉산관(鳳山館)에서 죽었다.

하는데 시원시원 막힘이 없었다. 도독은 무척 공경하고 존중하여, 예절을 공손히 할 뿐만 아니라 상급도 또한 많았다. 제독 진린의 막부에 있던 양의(楊誼), 이자방(李自芳), 송여량(宋汝樑)은 절강의 제자였는데 공의 시를 보고는 찬탄하며 말했다. "시의 도리가 동쪽으로 갔구나. 정시(正始)[406]같은 작품을 다시 여기에서 보게 되는구나. 그대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사대가(四大家)에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참모 손책(孫策)이 "접역(蝶域, 조선)이 좁아서 안목을 갖춘 이가 적을 것이니, 내 필히 중국에 전하여 보게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또 "성스런 황제가 천하의 문물을 통합함에 조만간 열국에서 시를 채집하는데 기봉(箕封)의 안에서 그대를 빼고 그 누구를 천자에게 천거하여 음악으로 연주하겠는가? 공이 천자를 뵙는다면 의자를 내려 존중할 것이며, 그대가 돌아간다면 문을 나서서 예로써 전송할 것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다시 와서 사례를 드렸다. 이는 당시 재상들이나 삼도의 방백들이 얻지 못한 것이다.

천자의 사신 웅화(能化)가 왔을 적에도 일찍이 백의종사(白衣從事)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영광으로 여겼다. 주고받은 시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바람 앞에서 학이 울어 진진(秦陣)을 놀라게 하고	風前鶴唳驚秦陣
눈이 온 뒤에 거위의 소리는 채성(蔡城)을 울리네	雪後鵝聲動蔡城

라는 구절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니, 후에 높은 값으로 공의 시를 사는 사람이 많았다. 의병부대에 있을 때 원수의 명을 받들어 호남으로 갔는데 익산에 이르러 체찰사 김찬(金瓚) 공을 만나 실책하여 난리에 이른 연유와 적을 제압하고 회복하는 방책을 갖추어 진술하였다. 종사관 김상용(金尙容), 오윤겸(吳允謙), 석양정(石陽正) 소영복(蘇永福) 공은 손을 잡으며 공을 만류하였다. 공은 "원수의 명령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앞으로 나아갔다. 진주가 함락되고 원수 김공의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하늘이 의로운 선비를 돕지 않음이 한결같이 이에 이른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신위를 설치하고 곡을 다한 다음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장례에 위문을 하고 글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왕세자가 공주에서 전주로 가마를 옮기니, 가서 길가에서 인사를 드렸다. 오성부원군 이항복과 추포 황신이 실로 그 행차를 따랐는데, 공의 짐이 초라한 것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공의 높은 충의에 찬탄하였다. 난이 끝나고 공은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과 연명으로 글을 보내 김원수의 비문을 강화도에 세웠는데, 글은 공이 지은 것으로 글자 하나에 눈물이

406) 정시(正始): 『시경』을 말한다. 『시전(詩傳)』「관저(關雎)」의 모시서(毛詩序)에 "「주남」과 「소남」은 시작을 바르게 하는 도이며 교화의 터전이다.〔周南召南, 正始之道, 王化之基.〕" 하였다.

한 방울이었다. 조정에서 세 번 광릉 참봉에 임명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여유롭게 즐기다가 집에서 생을 마쳤다. 아아! 이것이 공의 대체를 말한 것이다.

『우계일기』에 말하길 "모군은 사람됨이 삼가고 바르며, 말투가 정성스러우며, 또한 마음을 세워 성현의 글을 읽으니, 참으로 학문을 사모하는 좋은 선비이다."라고 하였다. 율곡의 문인인 옥계 이정민(李貞敏)은 그의 유고집에서 말하길 "모군은 학문이 넓고 역사에 통달했으며 특히 시에 뛰어났다. 평소에 재물을 일삼지 않아서 배고픔과 추위로 곤궁했으나 늘 편안하였다."라고 하였다. 호남의 처사 서봉령(徐鳳齡)과 우산 안방준(安邦俊)은 수제자이다. 학식이 통달하고 행실이 높았는데 일찍이 공의『일록』에 발문을 지어 공의 충과 효를 극론(極論)하면서 "산천이 막히는 때에 은양(恩陽)의 제공들과 협조하여 상국과 통하는 위대한 공훈을 세우고 결국 수양(雕陽)에서 전사한 김공의 비석을 세워 남쪽 사람들의 의열을 더욱 드러내니 진실로 산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교유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말하기를 "비록 천보(天寶)와 소흥(紹興)의 베어지고 녹는 시기를 겪으면서도 맑은 절조와 바른 빛이 빛나니 명현들이 알고 아껴준 풍모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말년에는 행실이 고결하고 속된 기운에 물들지 않으며, 더러운 먼지 밖에 밝게 홀로 섰다.

계곡 장유의 제문에선 "재주는 그다지도 높으면서 운명은 그다지도 궁핍했는가? 풍아의 운치와 널리 통달한 논변을 어디에서 다시 얻을까?"라고 했다. 상촌 신흠의 애사에선 "빈곤은 검루(黔婁)[407]나 원헌(原憲)[408]과 같고, 시는 가도(賈島)나 맹교(孟郊)와 같네."라고 했다. 동악의 시에선 "위험한 시절 주운(朱雲)의 칼을 빌리려 하였고, 곧은 도리로 공우(貢禹)의 모자 쓰기를 부끄럽게 여겼네. 끝내 알겠네 해동의 유림에 전해지리니, 우아한 절조 높은 명성 둘 다 마멸되지 않으리."라고 했다. "세상에 하지장(賀知章)이 없으니, 누가 선인(仙人)의 자태를 알아줄까? 일 년 내내 온전한 무명옷도 없었고, 아침 내내 간혹 끼니를 못 이었네. 기꺼이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나의 도리가 이에 이르렀구나."라고 읊은 것은 현주(玄洲)가 공의 높은 자태를 찬탄(贊嘆)하고 공의 궁핍한 운명을 애석하게 여기며 또한 공의 도리를 지키는 절조를 찬미한 것이다. "도연명과 사령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소무와 이릉(李陵)의 마루에 올라야 하리. 늙어감에 지기를 잃으니, 내 눈물이 펑펑 쏟아지네. 맑은 이야기와 우아한 국량이여, 끝났구나, 지금은 없어졌네."라고 한 것은 석주(石洲)가 공의 활기찬 기세를 찬미하고 공이 일어날

---

407) 검루(黔婁): 가난한 선비의 대명사로 쓰인다. 진(晉)나라 황보밀(皇甫謐)이 쓴『고사전(高士傳)』에 "검루는 제(齊)나라 사람으로 은사(隱士)였으며, 집이 가난하여 죽을 때에 몸을 감쌀 만한 이불도 없었다."라고 하였다.

408) 원헌(原憲): 춘추전국시대 노(魯)나라의 학자. 공자의 제자로 가난하면서도 도(道)를 즐겼다. 공자가 노(魯)나라에서 재상이 되었을 때 원헌은 읍재(邑宰)가 되었으며, 공자가 돌아가시자 위(衛)나라로 물러나 숨어 지냈다.

수 없음을 통탄하며, 또한 공의 참됨을 지키는 행실을 인정한 것이다.

근래에 공의 시를 논하는 경우는 명곡 최석정(崔錫鼎)은 "격조와 성운이 곧장 풍소(風騷)의 근원을 탐구한다."라고 했다. 농암 김창협(金昌協)은 "석주의 시는 비유하자면 제환공이 제후를 제패하는 것과 같고, 명고자의 시는 비유하자면 등문공이 왕도를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동방시평(東方詩評)』에서는, "체소재(體素齋)의 시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명고(鳴皐)의 시는 춥고 검소하다."라고 했다. 삼연 김창흡(金昌翕)은 늘 달밤에 공의 「채상편(採桑篇)」을 읊었는데 우리 동방의 바른 노래라고 생각했다. 여러 선생의 말이 비록 각기 한 가지로 치우치지만, 합쳐서 본다면 공의 문장과 절개 있는 행실의 높은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슴이 넓고 밝으면서도 예법의 가운데에서 절충하였으니, 말과 논의가 고결하면서도 붕당의 화 밖으로 자취를 넘겼다. 세상에 높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독하고 순수함으로 보좌하였고, 나라에 빛났을 재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충효와 절개로서 이를 보충하였다. 시대가 평안할 때에는 높이 날면서 우아하게 국가의 성대한 일을 읊었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는 의사를 좇아 군신의 대의를 부축하였다. 궁하여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가난해도 절조는 더욱 굳셌다. 몸은 초가의 화롯가에 있었지만, 정신은 저 사방 밖으로 노닐었으니, 아직까지 남긴 운치가 맑은 바람처럼 엄숙하도다. 아아 아름답고 성대하구나!

공의 휘는 전이요 자는 관보이고 명고는 공의 호이다. 돌아가시니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추증되었다. 풍천(豊川)의 임씨이며, 어사대부 감문위대장군으로 벼슬을 마친 휘 주(澍)의 후손이다. 대대로 벼슬을 하던 집안으로 휘 유손(由遜)이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에 추증되고,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으며, 휘 정(楨)이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겸(兼) 동지경연(同知經筵)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춘추관(春秋館) 성균관 사(成均館事)에 추증되고 통훈대부로 삼사(三司)를 두루 거쳤으니, 이분들이 공의 증조부와 조부 2대이다. 부친은 관찰사공으로 휘는 윤신(允臣)이며, 강원감사(江原監司)를 지냈고, 전한(典翰)과 대사간(大司諫)을 역임하였는데, 곧은 도리로 임금을 섬기다가 나주의 임지에서 돌아가셨다. 모친 남양홍씨는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우명(友明)의 딸이다.

공은 명종 기미년(1559) 6월 14일에 태어나 신해년(1611) 8월 14일에 돌아가시니 향년이 53세였다. 숙인 윤씨는 본관이 남원인데, 병진년(1556) 9월 16일에 태어나 신미년(1631) 7월 2일에 돌아가시니 양주 신곡(薪谷) 축좌(丑坐)의 언덕에 합장하였다. 1남 3녀인데, 아들 기지(器之)는 진사 장원으로 한림과 이조의 낭관을 지냈다. 딸은 교관을 지낸 황로(黃潞), 진사 봉식(奉植), 설서(說書)를 지낸 정성(鄭晟)에게 시집을 갔다. 한림공에게는 4남이 있는데, 승(昇) 식(寔), 필(弼), 고(暠)이다. 승(昇)은 식(定)의 아들 세태(世泰)를 후사로 삼았다. 식(寔)은 3남 1녀인데, 장남 세정(世鼎)은 생원으로 곧 나의 선군(先君)이다. 둘째 아들은 세태(世

泰)요, 셋째 아들은 세복(世復)인데 학문과 행실이 있어서 지평(持平)에 추증되었다. 호가 일신재(日新齋)이다. 필(弼)은 4남 1녀인데 장남은 세익(世益)이고, 세직(世稷), 세룡(世龍)이 있고, 세기(世耆)는 효도로 정려를 받았다. 고(暠)는 1남 2녀로 아들은 세중(世重)이고, 측실의 아들 세민(世珉)이 있다. 세태(世泰)는 5남 1녀인데 장남 술(述)은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을 지냈고 다음은 달(達), 일(逸), 적(迪), 탁(連)이다. 선군은 2남 3녀인데, 장남이 본인으로 부솔(副率)이고 차남 규(逵)의 처 한씨는 장렬하게 죽어 정려를 받았다. 세복(世復)은 2남인데 장남 원(遠)은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을 지내고 다음은 근(近)이다. 세익(世益)은 3남으로 운(運), 매(邁), 준(遵)이다. 세직(世稷)은 2남으로 장남은 형(逈)이고 차남은 도(道)인 데 생원이다. 세룡(世龍)은 매(適)를 후사로 삼았다. 세기(世耆)는 3남 1녀인데 장남은 수(遂)이고 다음은 후(逅)와 봉(逢)이 있다. 세중(世重)은 1남 3녀로 아들은 우(遇)이다. 이하의 자손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공이 평소에 저술한 것이 무척 많았는데 병란에 일실되었다. 석주가 시를 지어 화를 당할 적에 숙인 윤씨는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서책을 가져다가 불 속에 던졌다. 때문에 남은 것은 시고 몇 편과『임진일기』1책뿐이다. 갑신년에 공의 외현손 판서 박권(朴權)이 영남의 관찰사로 있을 때 시 2권을 간행하였다. 병오년에 당형인 정랑공(正郎公)이 김천찰방(金泉察訪)이 되었을 때 중간(重刊)하면서 빠진 것을 보충하여 대구감영에 보관하였다.

공과 노닌 사람을 말한다면,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공, 청음 김상헌 공, 월사 이정귀 공, 추탄(秋灘) 오윤겸(吳允謙) 공,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공, 현주(玄洲) 조찬한(趙纘韓) 공, 현곡 (玄谷) 조위한(趙緯韓) 공, 만곡(晩谷) 최기남(崔起男) 공, 지범당(志范堂) 이수준(李壽俊) 공, 잠와(潛窩) 이명준(李命俊) 공, 석주 권필 공, 상촌 신흠(申欽)과 같은 분들이 있으며, 포저(浦猪) 조익(趙翼) 공, 계곡 장유 공, 택당(澤堂) 이식(李植) 공,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 공, 기암(崎翁) 정홍명(鄭弘溟) 공은 늘 공을 섬겼다. 청강(淸江)과 송강(松江) 두 선생은 공이 늘 그분들을 섬겼다. 호남의 동무들로는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공, 옥봉(玉峰) 백광훈(白光勳) 공, 수은 강항 공, 백호(白湖) 임제(林悌) 공, 고암(鼓巖) 양천경(梁千頃) 공, 송곡(松谷) 양응정 공, 해광(海狂) 송제민(宋濟民) 공이 있는데, 모두 한 시대의 현명한 호걸들이다. 내가 남몰래 유유주(柳柳州, 유종원柳宗元)의『선우록(先友錄)』의 의의에 깃들여 아울러 여기에 나열하여 쓴다.

현손 부솔(副率) 선(選)이 삼가 쓴다.

경상감영의 옛 판본은 햇수가 오래되어 깎이고 망가져서 고쳐 판각하여 영변의 책판고에 간수한다. 숭정 기원후 206년 계사년 초가을 7대손 영변부사(寧邊府使) 성고(聖皐).

출전 : 풍천임씨감찰공파나주종중,『(국역) 명고집』, 2005

嗚呼。子而狀其父。尙慮有未盡詳。況孫於祖。又況至高玄乎。惟我鳴皐先生。以親則已四世矣。以年則幾數百載矣。顧何以得七分而徵信於後乎。然四世皆父子也。數百載乃一日之積也。昔我會祖考。以其遺事。日告我祖考。祖考告我先君。先君亦然。選又日日得之於先君。則固何異於親侍左右。以承朝夕之起居乎。選乃謹掇家庭傳授之言。參之以著見於文字者。作為一通。噫。尙論之士尙可以識其全體大用也歟。竊聞。公天資瑩然如白玉。不受一點塵垢。篤行的節。固窮樂道嘐嘐然古之人古之人。其志也。年五歲。入小學。方對卷。婢踰去。杖叱之。公之考觀察公奇之。十三。挾册往師家。有駿馬繫門。而幸者睡。公乃超騎馳騁。馬逸入尹尙書自新宅。尙書公愛公容貌異凡。呼韻試之。公卽應對曰白玉少年白鼻騧。翩翩驕踏渭城花。手橫三尺芙劍。笑入平原公子家。尙書公笑。而裁書以與公曰爾可傳尊大人。公袖以歸獻。乃通婚書也。婚乃成。世人相傳為異事。而公之名譽。殆掀一世。及長游於牛溪成文簡公之門。得聞道義之說。又嘗景慕栗谷李先生。先生旣沒。而儼然函丈屢設於夢寐之間。眞如諄諄承語。盖精神誠意之俱到也。性至孝。事親盡子職。左右無違。觀察公嘗於病中思雉。而求市不得。忽有擊雄墮下。乃取而進之。人謂孝感。於禮坊。雖總小功。聞訃必設奠成服。居憂不脫衰絰。不食菜果。廬墓終三年。至今稱侍墓洞。家貧。數間茅屋。不敬風雨。雨日。輒張傘而讀書自若。時則。外舅尙書公判度支九年矣。人或勸防納取贏。而終不肯。淹博經史。過眼輒記。而尤喜毛詩。每諷誦而涵養性情。且奇李白之為人。愛其詩。尙書公。手書蘇黃詩而與之。公置之案上不會寓目。有詩曰楊墨亂仁義。蘇黃亂風雅。

盖自標致然也。志又峻整。見人不是。如毫髮。憤憤不自容。常慕陳無己之不見章子厚。呂居仁之不答梁師成。嘗出慕華館。觀拜表之儀。鄭仁弘以都憲在班行。公痛言曰這漢為都憲。國必亡矣。咄咄不已。聞者為之凜然。人或疑公過剛。而中實子侧但。路上見二病人。雪裡暴臥。解衣作兩段以覆。凡有來丐者。輒罄瓶栗。手掬迎與。其藹然愛物之心如此。與石洲權公韠為騷壇知己。出處未嘗不同。石洲一日自沁都入洛。留公宅。月夜聯袂。遊鐘樓街上。轉訪東岳。東岳不在。夫人出送一壺。坐飮庭上。咏一句曰月中一盃酒。可以當主人。翌日東岳來。鼎坐以永夕。又翌日。石洲還向沁。公同作磨尼之遊。一馬互騎。公先乘。石洲後之。路傍有一士人。觀刈麥。石洲問曰有酒否。曰有公乃下。倒濁醪數器。又嘗與石洲遊金剛出山。各賦詩。公詩曰人間有何好。還復向人間。可笑山中水。隨人亦出山。石洲謂意致幽遠儘不及。時朝議則松江主之。士論出於公及石洲。以布衣而有輕重一世之望。有一權貴設宴以為不可無鳴皐石洲。而恐不來。設詭使其子先往請石洲。石洲良久曰鳴皐往否。曰已諾。石洲曰鳴皐往則吾亦往矣。其人轉就公。公亦良久曰石洲往否。曰已諾。公曰石洲往則吾亦往矣。其日二公共赴聯坐。始覺其見欺。卽拂袖而起。大為權貴所件。禍將至。會觀察公以諫官駁柳永慶。左補羅州。公隨往。與湖南名士姜睡隱林白湖諸公詩酒相娛。迹久謝京洛。事遂止。羅是湖南大都會。而舊無養士之所。公乃與諸公議。建四賢書院。置田以需供。盖公之力也。自此錦人多成就。皆頌公有功於斯文。

壬辰倭奴入寇。乘輿播灣上。公方在揚州丙舍。北望痛哭。乃謂烏江正曰君是宗戚。我則世臣。當

此主辱之日。豈敢爲草間苟活計。遂共約西觀。奮然發行。行至牛峰為兵丈所阻。計不知所出。聞倡義帥金公千鎰自湖南來。卽迎見於延安。與林公權。金公象乾。李公光宙。權公韠。李公壽俊。李公蘋。俞公大儆。權公向。金公棕。閔公有慶。成公德英。議兵事。推公爲書記。軍門措置一委於公。命公作疏。公即草數十百言。辭理俱到。勃勃有激昂奮槪之意。諸公皆吐舌流涕。小子天。公乃瘥還。無慽戚幾微色。惟以協贊匡復為己任。當時奏章檄書。皆出公手。而區畫設施多得其宜。

天將李都督如松到松京。公持一幅圖一卷書。往獻。盖備載山川夷險。道路遠近。及賊勢緩急虛實者也。且進奮義詩二十律。都督大加稱賞。顧謂其弟如栢曰此東國之魯仲連也。仍問東國事蹟。公乃撰進古今諸賢出處。及孝悌異行者。至於八路風俗。各衙門規模法例。亦隨問輒對。沛然無碍。都督甚敬重。禮數既恭。寵齎且侈。陳提督璘幕府楊誼李自芳宋汝樑吳中翹草也。見公詩嘖嘖曰詩道東矣。正始之作。復在此矣。君在皇朝可入四大家。孫參謀策謂。鰈域局促。少具眼者。吾必傳示天朝。以定厥價。又謂。聖皇撫運車書一統。早晩採詩列國。算封之詩。捨子其誰可薦之天子。播諸 樂章。公往則解榻而寵之。歸則出門而禮之。又輒來謝此。乃當時諸宰三道方伯之所不能得者也。

熊天使化之來也。亦嘗為白衣從事。人以為榮。酬唱之什。流入中國如風前鶴唳驚秦陣。雪後鵝聲動蔡城之句。膾炙人口。後多有重貨購公詩者。在義營時。將主帥命。往湖南。至益山。見體察使金公璨。備陳失策致亂之由。制敵恢業之方。從事金公尚容吳公允謙石陽正蘇公永福。握手欲挽公。公曰有主帥命。遂前進。聞晉陽失守。倡義帥金公父子死。慟哭曰天之不佑義士。一至於此哉!。吾以事未及復路。不能 戮力併戰。同日以死。愧余苟活。將獨何歸。設位盡哀。乃跋涉吊其喪。祭以文。王世子自公州移駕全州。往拜路左。鰲城李公恒福秋浦黃公愼實從其行。悶公行李之艱關。歎公忠義之崢嶸也。亂靖。公與延興府院君金悌男聯名發文。立倡義師碑於沁都。文是公所製而儘一字一涕。朝家三除光陵參奉而不肯就。優閑自適。終於家。嗚呼。此公之本末梗槪也。

牛溪日記曰某爲人謹飭。辭氣懇懇。且有立心讀聖賢書。眞慕學善士也。粟谷門人玉溪李公貞敏遺集曰某博學通史。尤長於詩。平居不事生産業。飢寒困窮而常晏如也。湖南處士徐公鳳齡安牛山邦俊高弟也。識通行高而當跋公日錄。極論公忠孝。有曰當江淮遮遏之際。與恩陽諸公協贊。通上津之偉勳而畢竟旋樹睢陽之碑。益著南人之烈。信生者不愧之契。又曰雖經天寶紹興之斬伐銷鑠。而淸操貞光均然。有不負名賢知顧之風。末乃贊之以出處高潔。不染俗氛而炯然獨立於父濁之外。

給谷祭文曰才一何高。命一何窮。風雅之韻。博達之辯。於何復得。象村詞曰貧是黔屢原憲。詩如賈島孟郊。東岳詩曰危時機借朱雲劍。直道義彈貢禹冠。終知左海儒林傳。雅操高名兩不刊。世無賀李眞。誰識仙姿。卒歲無完褐。終朝或不欢。怡然不改樂。我道至於斯。此玄洲數公之姿高。惜公之命窮。又美公守道之操也。不入陶謝室。要升蘇李堂。將老失知己。我消流療濟。淸談與雅量。已矣今則亡。此石洲贊公之逸韻。公之難作。又服公案眞之體也。

至若近世論公詩者。則崔明谷錫鼎云。格調聲韻直探風騷之源。金農巖昌協云。石洲詩譬如齊桓公之伯諸侯。鳴皐詩譬如文公之行王道。東方詩評云。“體素詩富贍。鳴皐詩寒儉。金三淵昌翁。常於

月夜通公採桑篇。以為我東正聲。凡此諸先生之言。雖各偏於一處。合以觀之則可驗公文章節行之高處矣。

襟懷曠朗而折節於禮法之中。言議高潔而超迹於黨禍之外。有高世之志而輔之以敦實純粹。有華國之才而濟之以忠孝氣節。時平則翱翔儒雅以鳴國家之盛事。世亂則追逐毅烈。用扶君臣之大義。窮而氣不沮。貧而操益堅。身處於樹屋熏爐之間。而神遊於九紘八極之表。至今遺韻穆如清風。於休盛矣。

公諱鍒。字寬甫。鳴皐其號。卒贈司憲府執義。豊川之任。御史大夫監門衛大將軍致仕。諱澍之後也。世為簪纓族。有諱由遜。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行通訓大夫司憲府監察。有謹楨。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春秋館成均館事行通訓大夫。踐歷三司。是為公曾祖考祖考兩世。考觀察使公諱允臣。按關東。歷典翰大司諫。直道事君。卒於羅州任所。妣南陽洪氏副護軍友明女。

公以明宗己未六月十四日生。辛亥八月十四日卒。享年五十三。淑人尹氏籍南原。生丙辰九月十六日。卒辛未七月二日。合葬于楊州新谷丑坐之原。一男三女。男器之進壯翰林吏郎。女適黃澔敎官。奉植進士。鄭晟說書。翰林有四男。昇寔弼暠。昇取寔子世泰為後。寔三男一女。男長世鼎生員。卽選先君。次世泰。次世復有學行。贈持平號日新齋。弼四男一女。男長世益。世稷。世龍。世耆以孝旌閭。暠一男二女。男世重。側室子世珉。世泰五男一女。男長述文科正郎。次達。逸。迪。逴。先君二男三女。長卽選副率。次逵妻韓氏死烈旌閭。世復二男。長遠文科正言。次近。世益三男。運。邁。遵。世稷二男。長迥。次道生員。世龍取邁為後。世耆三男一女。男長遂。次逅。逢。世重一男三女。男遇。以下雲仍不能盡記。

公之平日著述甚多而見逸兵燹。石洲之被詩禍也。淑人尹氏恐。取書册投之火中。是以所餘者只詩稿擧干篇。壬辰日記一册。歲甲申公外玄孫朴尙書權。按節嶺南繡梓詩二卷。丙午正郎堂兄為金泉察訪。重刊補缺。藏干營。

若言公所與遊者。有若仙源金公尙容。淸陰金公尙憲。月沙李公廷龜。秋灘吳公允謙。東岳李公安訥。玄洲趙公纖韓。玄谷趙公緯韓。晩谷崔公起男。志范堂李公壽俊。潛窩李公命俊。石洲權公韠。象村申公欽諸公。而浦渚趙公翼。谿谷張公維。澤堂李公植。遲川崔公鳴吉。畸翁鄭公弘冥。則長事公。淸江松江兩先生則公長事之。湖南諸伴有日孤竹崔公慶昌。玉峰白公光勳。睡隱姜公沆。白湖林公悌。鼓巖梁公千頃。松谷梁公應鼎。海狂宋公濟民。皆一代之賢豪也。選竊附柳柳州先友錄之義。並茲列書。

玄孫副率選謹書。

嶺營舊板。年久剜缺。故改刊。藏于寧邊策板庫。崇禎紀元後二百六年癸巳孟秋寧邊府使聖臯。

출전 : 풍천임씨감찰공파나주종중, 『명고집』, 2005

30) 임환(林懽, 1561~1608)

• 본관 나주(羅州), 자 자중(子中), 호 습정(習靜)

(1)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임진년 5월

5월, 왜적이 한양성에 입성하니, 선생은 집에서 소리쳐 통곡하며 이르기를,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고 인심이 이탈되었으니, 비록 어진 장수가 있을지라도 뭘 할 수 있겠는가마는, 지금 군부(君父)가 급한데 어느 겨를에 이험을 논하리오." 하고, 전 부사 고경명, 전 목사 박광옥, 전 정랑 정심, 전 군수 최경회에게 편지를 보내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였다. 16일에 고향의 자제를 불러 모으고, 또한 의사 송제민, 양산룡, 양산숙, 임환, 이광주, 서정후 등도 또한 와서 모였다. 선생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랏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어찌 구차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가령 살고자 한들 이치 상 홀로 안전할 방도는 없는 것이다. 더불어 구학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을 토벌하다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함에, 모두 대답하기를, "예, 예"라 하였다. 혹은 양향(糧餉) 혹은 마우, 가동이 하루도 못되어 이르는 자가 300인이고, 기계도 대강 마련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五月。賊入城。先生在家號痛曰。紀綱紊矣。人心離矣。雖有良將。無奈何。然君父之急。奚暇論夷險。簡前府使高敬命,前牧使朴光玉,前正郎鄭諶,前郡守崔慶會。約以擧義。十六日。招集鄕子弟。義士宋濟民,梁山龍,梁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亦來會。先生中坐流涕曰。國事至此。吾輩豈可苟活。藉令欲生。理無獨全。與其溝壑而死。無寧討賊而死乎。皆曰唯唯。或糧餉。或馬牛。或家僮。不日而至者三百人。器械亦粗辦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2)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

만력 20년 임진년. 왜노가 온 나라에 쳐들어왔다. 영남을 쳐부수고 조령(鳥嶺)을 넘어 열흘이 채 못 되어 바로 경기도를 공격하니, 여러 진영과 여러 장수가 풍문만 듣고 도망가고 무너져서 감히 그 칼날을 대항할 자가 없었다.

공이 임금의 대가가 피난을 떠나고 한양 도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기절하였다가 이어서 말하기를 "지금 나라의 기강이 이미 문란해지고 인심이 이미 떠나버렸으니, 비록 훌륭한 장수가 있을지언정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임금과 아버지의 위급함을 구원함에 어찌 형편의 어렵고 쉬움을 논할 여가가 있으리오." 하고, 급히 전 부사 고경명, 전 목사 박광옥, 전 정랑 정심, 전 군수 최경회에게 글을 보내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알리자, 뜻 있는 선비들 중에 함께 도모하지는 않았더라도 뜻을 같이 했던 자인 송제민, 양산룡, 양산숙, 임환,

이광주, 서정후 등도 팔을 걷어붙이고 모였으니, 때는 임진년 5월 16일이었다.

이때 향리의 부노(父老)와 자제(子弟)를 소집하여 나주 공관에 크게 모으고, 공이 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들이 어찌 구차히 살려고 마음먹으리오. 가령 살고자 하더라도 이치상 홀로 목숨을 보전할 수는 없고 다만 이르고 늦은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도망하여 구렁에서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을 토벌하다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고 하니, 사방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옳습니다. 김공."이라고 하였다. 혹은 군량을 운송할 자, 혹은 전마를 보조할 자, 혹은 정장(丁壯)을 대신할 자를 원하자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모인 사람이 300명이나 되고, 기계도 대략 마련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二十年壬辰。倭奴擧國入寇。破嶺南。踰鳥嶺。不旬日。直搗畿甸。列營諸將。望風奔潰。無敢嬰其鋒者。公聞大駕蒙塵。都城失守。號慟幾絕。因曰。目今紀綱已紊。人心已離。雖有良將。亦無可奈何。然救君父之急。豈暇論勢之難易。乃馳書於前府使高敬命,前牧使朴光玉,前正郎鄭諶,前郡守崔慶會。告以擧義之事。志士之不謀而同者。宋濟民,梁山龍,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投袂而集。時五月十六日也。於是。招集鄕父老子弟。大會于公館。公中坐垂涕曰。國事至此。吾輩何心苟活。藉令欲生。理無獨全。但早晩事耳。與其竄死於溝壑。不猶愈於討賊而死乎。四座皆曰唯公。或願輸軍糧。或願助戰馬。或願代丁壯。不日而至者三百。器械亦粗完。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3)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

공은 이 계책을 옳게 여겨, 종사관(從事官) 임환에게 관련 문서를 주어 먼저 가서 통유하도록 하고, 공은 안산(安山)에서 김포(金浦)로 향하여 가다가 인천(仁川) 중림역(重林驛)에 이르러 장차 머물러 묵으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이 땅은 지세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형세이다. 적병이 밤을 틈타 몰래 발병할까 두렵다." 하고 명령을 내려 밥을 먹고 행군하라고 독촉했다.

…… 종사관 임환이 과연 대소 선박 수백 척과 수수(水手, 노 젓는 인력) 오백여 명을 얻어 회보(回報)하였다. 공이 마침내 군사를 강화부로 옮기며 부사 윤담으로 하여금 해중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공은 병사 최원과 약속하여 연안에 책을 세우고 크게 전선(戰船)을 수리하니, 군대의 기세가 다시 떨쳐 군사들의 사기가 백배가 되었다. 의로운 함성이 도달한 곳곳마다 단결(團結)하여 모두 의병(義兵)이라 이름하였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公然其計。使從事林懽。賚帖先往通諭。公自安山向金浦。至仁川重林驛。將止宿。公曰。此地四散。恐賊兵乘夜竊發。下令促食而行。

…… 從事林懽果得大小船舶數百隻。水手五百餘人回報。公遂移軍江華。府使尹湛自海中出來。

公與兵使崔遠約束。沿江列柵。大修舟艦。軍勢復振。士氣百倍。義聲所及。在在團結。俱以義兵爲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4)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

비변사(備邊司)에서는 적세의 강약과 사기(事機)의 지속(遲速)을 살피지 못하여 이문(移文)을 보내어 공의 출전을 독촉하였다. 그리고 또 교지를 내려 이와 같이 말하기를, "강화는 진취의 땅이 아니니 속히 육지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공이 한창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명령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여 곧 정졸 수백 명을 뽑아 종사관(從事官) 임환을 시켜 전라순찰사 권율의 진영으로 가 합세하여 진격하여 공격하게 하고, 또 상소를 올려 일의 형편을 진술하였다.

출전 : 김익두·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備邊司不察賊勢之强弱。事機之遲速。移文督公出戰。又得旨若曰。江華非進取之地。斯速下陸。公方病。聞命震慄。卽抄精卒數百。使從事林懽。領赴全羅巡察使權慄陣。合勢進取。又上疏陳形勢。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5) 정탁(鄭琢), 『약포집(藥圃集)』 권5, 『피난행록 하』, 임진년 12월

(12월 4일) 창의사 김천일이 그의 아들 김상건과 그의 막하(幕下) 선비 임환을 보내어 경성(京城)과 경기 지역의 형세를 매우 상세히 말하였습니다. 경성의 백성들이 흉적에 의해 몹시 심하게 괴롭힘을 받아 밤낮으로 관군이 오기만을 고대하며, 병장기와 물자를 비축하고 몰래 관군과의 내응을 도모하겠다고 김천일에게 약속한 사람이 거의 수천 명이고, 그 나머지 성영(成泳)·이정형(季廷馨)·우성전(禹性傳)에게 응하려는 사람도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옛 도성의 유민(遺民)이 이미 국가를 위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적을 토벌하자 하니, 이러한 때에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었을 때, 백성들의 정서가 적들과 함께 익숙하여서 점차 빠져들게 되어 다시 회복할 희망이 사라질 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약포집(https://db.itkc.or.kr/)

倡義使金千鎰。送其子象乾及其幕下士林懽。備言京城及畿甸形勢甚詳。京城之民。爲兇賊所毒虐。日夜望官軍之至。儲備軍器。潛圖內應。受約束於千鎰者。幾數千人。其餘欲應成泳, 廷馨, 禹性傳者亦多云。舊都遺民。旣欲爲國家至誠討賊。而不於此時副應民望。則時移歲變。民情與賊玩狃。馴致淪胥。更無恢復之望。至爲可慮。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약포집(https://db.itkc.or.kr/)

(6)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정유년 9월

17일 을사일(乙巳日). 맑다. 어외도(於外島)에 이르렀더니 피난선이 무려 3백여 척이나 먼

저 와 있었다. 우리 수군이 크게 이긴 것을 알고 서로 다투어 축하했으며, 또한 많은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군사들에게 주었다. 나주 진사 임훤(林愃), 임환, 임업(林業) 등이 보러 왔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十七日乙巳。晴。到於外島。則避亂船無慮三百餘隻先到。知舟師大捷。爭相致賀。又持斗斛之粮。以遺官軍。羅州進士林愃[409]，林懽,林業等來見。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7)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정유년 11월 15일

15일 임인일(壬寅日). 맑다. 날씨가 봄날처럼 따뜻하다. 새집에 올라갔다. 늦게 임환과 윤영현(尹英賢)[410]이 보러 왔다. 밤에 송한(宋漢)이 서울에서 이곳으로 들어왔다.

출전 : 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十五日壬寅。晴。暖如春日。上新家。林懽及尹英賢來見。夜。宋漢自京入來。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8) 권필(權韠), 『석주집(石洲集)』 별집2, 「각악기탁약서(刻握機橐籥序)」

전쟁에는 법이 없을 수 없고 법에는 책이 없을 수 없으니, 책이란 법을 싣는 것이다. 시안(始安, 중국 남월의 군) 서제경(徐際卿)[411]은 뛰어나고 걸출한 선비로 비록 불우하여 곤궁함과 근심 속에서 살았으나 천하의 일을 자임(自任)하였다. 일찍이 기운이 왕성한 왜노(倭奴)들이 마구 날뛰고 왕사(王師)가 패배하는 것에 분노하였다. 이에 고금(古今) 병가(兵家)의 설(設)을 다 모으고 사이사이에 자기의 설을 넣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이름하여 『악기탁약(握機橐籥)』이라 했으니, 무릇 전투와 수비의 기정(奇正), 수륙 전투의 험이(險易), 행진과 무기의 제도, 상위(象緯)[412]와 풍각(風角)[413]의 술법 등이 명료하게 다 실려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표범과 범이 용맹한 군사를 몰아서 북을 치고 깃발을 세우고서 화살과 돌이 빗발치는 전장을 출몰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니, 아, 훌륭하도다. 진실로 이 책의 병법을 사용할

---

409) 원문에는 '林瑄'으로 되어 있으나 '林愃'이 맞으므로 고쳐 적는다.

410) 윤영현(尹英賢): 1557～?. 자는 언성(彦聖)이고,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파산부원군(坡山府院君) 윤지임(尹之任)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윤원필(尹元弼)이다. 아버지는 천안군수 윤회(尹繪)다.

411) 서제경(徐際卿): 『악기탁약(握機橐籥)』의 저자로 이름은 서창회(徐昌會)이다. 제경은 그의 자로 추정되나 자세히 알 수 없다. 『명사(明史)』 권98 「예문지(藝文志)」의 병서(兵書) 부분에 이름만 소개되어 있고, 다른 행적은 고찰할 수 없다.

412) 상위(象緯): 일월(日月)과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 오성(五星)이다. 즉 천문을 보는 법이다.

413) 풍각(風角): 고대의 점치는 법이다. 오음(五音)으로써 사방의 바람을 점쳐서 그 길흉을 아는 것이다.

수 있다면 사방의 오랑캐들을 채찍질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 하물며 하찮은 오랑캐 따위야 말할 나위 있겠는가.

지난해 겨울, 좌협부총(左協副摠) 이방춘(李芳春)[414] 공이 성천자(聖天子)의 위명(威命)을 받고서 군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오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으니, 어찌 이른바 '이 책의 병법을 능히 사용할 수 있는 이'가 아니겠는가. 소의장(昭義將) 임환 군이 이 책을 보고 기뻐하여 공인(工人)을 모아 판각했는데, 석 달이 걸려서 일을 마쳤다. 당시 나는 나그네로 임군에게 와 있었는데 하루는 임군이 이 책을 꺼내 보여 주고 나에게 서문을 부탁했다. 내가 고개를 숙여 이 책을 읽고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기를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해지는 법인데, 하물며 궁한 왜적이 바다를 믿고 날뛰고 있는데도 나라의 수치는 아직 씻지 못하였으니, 신하로서 자식으로서 잠깐인들 전쟁을 잊을 수 있겠는가. 전쟁을 잊을 수 없게 되면 군이 이 책에 정성을 쏟은 것이 어찌 부질없는 일이겠는가. 게다가 서제경은 자기가 얻은 바를 자기 마음속에만 사사로이 담아 두지 않고 책으로 널리 간행했으며, 부총(副摠)은 제경에게서 얻은 바를 자신만 사사로이 갖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개했으며, 군은 또 부총에게 얻은 바를 일시에 사사로이 갖지 않고 후세에 공유코자 했으니, 아, 이 세 사람의 마음 씀이 이미 어질고도 넓지 않은가. 나는 외진 나라에 태어나 서제경과 눈썹을 치켜세우고 기염을 토하며 병법을 토론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긴 터라 이 책에 이름을 싣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하였다. 이에 사양하지 않고 서문을 쓴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석주집(https://db.itkc.or.kr/)

戰不可以無法。法不可以無書。書者。所以載法也。始安徐際卿。奇偉士也。雖在窮愁中。而以天下事自任。嘗憤倭奴陸梁。王師暴露。於是悉取古今兵家者說。間以己意。作爲一書。目曰握機橐籥。凡戰守奇正。水陸險易。行陣器械之制。象緯風角之術。瞭然畢擧。讀之。直使人如驅貔虎建鼓旗。出沒於矢石之間。吁亦偉哉。苟能用是書者。雖鞭撻四夷可也。況小醜哉。去年冬。左協副摠李公芳春。承聖天子威命。仗兵而東。以是書自隨。豈所謂能用之者耶。昭義將林君懽。見而悅之。乃鳩工鋟梓。三閱月而訖其功。時余以客遊于林君。一日。君出是書。且屬以序。余俯而讀。仰而歎曰。夫天下雖安。忘戰必危。矧乎窮寇負海。國恥未雪。爲臣爲子者。其可以須臾忘戰哉。夫戰不可忘。則君之眷眷於是書者。豈徒然哉。且夫際卿不以所自得者。私於其心。而公之以書。副摠不以所得於際卿者。私於其身。而公之於人君。又不以所得於副摠者。私於一時。而欲公之於後世。噫。是三

414) 이방춘(李芳春): 요위(遼衛) 사람으로서 본래 이성량(李成樑)의 가인(家人)이었다. 낙상지(駱尙志)·사대수(査大受)와 함께 뛰어난 용맹으로 유명했다. 이방춘이 임진왜란 당시 명에서 맡았던 정식 관직은 참장(參將)이었다. 중협대장 이여백의 지휘를 받아 여러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특히 평양성 전투에서 크게 활약해서 평양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장수였다.

者之用心。不旣仁且博乎哉。余竊恨生也僻。不得與際卿揚眉吐氣說釰譚兵。而竊以載名是書爲榮。遂不辭而爲之序云。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석주집(https://db.itkc.or.kr/)

(9)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3, 무술년 2월 21일

나주 진사 임환·부안(扶安) 진사 김홍원(金弘遠)[415]이 군사를 모아 적을 쳤다.【김홍원은 순영(巡營)에 소속했다.】

羅州進士林懽,扶安進士金弘遠。聚兵討賊。【弘遠屬巡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https://db.itkc.or.kr/)

(10)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3, 무술년 3월 3일

사천의 왜적 4백여 명이 수로를 거쳐 전라에 이르러 상륙하였다. 군사를 나누어 혹은 낙안(樂安)으로 들어가고 혹은 흥양(興陽)과 보성(寶城)으로 향하여 그대로 내륙을 범하니, 다시 모였던 백성들이 풍문을 듣고 달아나 붕괴되었다. 왜적이 초현(草峴)에 이르자 명나라 군사 수십 명이 임환의 군사와 합세하여 적들을 막으며 싸우다가 불리하게 되었다. 이순신이 적이 이곳에 왔단 말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려 하자 진린(陳璘)은 수륙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책망하고 말렸다. 적은 낙안의 배계원(培界院)에 왔다가 돌아갔다.

泗川之賊四百餘名。由水路到全羅下陸。分兵或入樂安。或向興陽寶城。因犯內地。還集之民。望風奔潰。賊至草峴。天兵數十。與林懽兵合勢。拒戰不利。李舜臣聞賊至此。欲引兵追逐。陳璘以水陸異。責止之。賊至樂安培界院而還。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난중잡록(https://db.itkc.or.kr/)

(11) 『선조실록(宣祖實錄)』 권103, 31년 8월 4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어제 신들이 나아가 군문을 보니 군문에는 책려(策勵)하고 분부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대략에 말하기를 '양 경리(楊經理)[416]가 3년 동안이나 명령을 받들고서도 청정

---

415) 김홍원(金弘遠): 1571~1645. 자는 이중(而重), 호는 해옹(海翁), 본관은 부안(扶安)이다. 1588년(선조 21)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군졸과 병량을 모아 전쟁에 나갈 계획이었으나 조부상을 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신 모아 둔 곡식 100여 석을 선조의 행재소(幸在所)인 의주로 보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전라도 전역에 격문(檄文)을 보내어 의병을 모은 후 황신(黃愼)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는 일본군을 순창까지 추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그리고 순천(順天) 석보창(石堡倉)에 있는 적들의 막사에 화약을 폭파하였다.

416) 양 경리(楊 經理): 양호(楊鎬, ?~1629)로 자는 경보(京甫), 호는 풍균(風筠)이다. 정유재란 때 경리조선군무(經理朝鮮軍務)가 되어 참전했다가 울산(蔚山) 도산성(島山城) 싸움에서 대패하여 파면되었다.

(淸正)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논의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대군이 바야흐로 집결하였고 후속 군대도 많으니 올해에는 기필코 적을 섬멸해야 하겠다. 의주에 적재된 중국 식량이 매우 많은데 운반하지 못하고 있으니, 배신(陪臣)은 마음과 힘을 합쳐 대사(大事)를 이루도록 하라. 내가 공과 죄를 분별하여 국왕에게 고하기도 하고 주문(奏文)을 올리기도 하겠다. 건주(建州)의 달자(㺚子) 3천여 기(騎)가 와서 전투를 돕고 싶다고 했는데 그대의 나라를 소란스럽게 할까 염려되어 내가 그들을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선대(宣大)의 병력을 계속 더 조발하고 있는데, 유 제독(劉提督)의 군대가 전일에 여러 번 전공(戰功)을 세웠기 때문에 특별히 조발하여 오도록 했다. 그대 나라의 군대 역시 쓸만한데, 식량을 주지 않기 때문에 흩어졌다 하니 매우 애석하다. 내가 이미 각 장수에게 분부하여 중국 군대와 동등하게 급료(給料)를 지급하라고 하였다. 전라도 임 진사의【임환을 가리킴.】의병 역시 격려하고 권장해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군문이 이처럼 교시하다니 참으로 감격스럽다. 경들도 모든 일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필코 적을 섬멸하도록 하라." 하였다.

備邊司啓曰昨日臣等進見軍門。軍門多有策勵分付之事。大槪以爲楊經理。乃三年受制之人。且掣不得淸正。故論議如此。今則大兵方集。隨後之兵亦多。今年必期滅賊。義州天糧。積置甚多。而不能運。陪臣須協心一力。以濟大事。俺當分別功罪。或告國王。又當題奏。建州㺚子三千餘騎。欲來助戰。俺恐擾害爾國。已爲禁絕。宣大之兵。陸續加調。劉提督之兵。前日屢立戰功。故特爲調來。爾國之軍亦可用。而聞不爲給糧故散去。極可惜。俺已分付各將。使與天兵。一樣給料。全羅道林進士【指懽也】義兵。亦當激勸云。傳曰知道。軍門之敎至此。誠切感激。卿等凡事。亦宜更加盡心。共期滅賊。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2) 『선조실록(宣祖實錄)』 권103, 31년 8월 5일

무오년(戊午年), 전라 병사 이광악(李光岳)[417]이 치계하였다. "의병장(義兵將) 임환의 치보에 의하면 '예교(曳橋)에서 포로가 된 정성근(鄭成斤)이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말하기를, 「포로가 된 사람들이 요즈음 모두 나오려고 한다. 그 이유는 대체로 전하는 소문에 일본에 싸움이 일어나 심지어는 수길(秀吉)이 이미 죽었고, 행장(行長)은 일이 있어 사천(泗川)에 건너갔는데 예교(曳橋)의 진영을 행장이 진영에 돌아온 뒤에 철수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박수영(朴壽榮)이라는 자는 나올 뜻이 상당히 있는데 가족이 무척 많으므로 그믐밤이 되기를 기다려 탈출

417) 이광악(李光岳): 1557~1608. 자는 진지(鎭之), 본관은 광주(廣州),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1584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거쳐 1592년 곤양 군수(昆陽郡守)가 되었는데, 왜병이 영남 일대에 쳐들어오자 선봉으로 장병을 격려하여 대비하였다. 왜적이 진주성을 포위하여 상황이 위급해지자 초유사 김성일의 명령으로 좌익장(左翼將)이 되어 성안에 들어가 김시민과 합세하여 성을 사수하였다. 김시민이 적탄에 맞아 쓰러지자 그를 대신하여 총지휘관으로 싸워 대승을 거두고 적을 격퇴시켰다.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하였다.' 하였습니다."

戊午。全羅兵使李光岳馳啓曰義兵將林懽馳報。曳橋被擄人鄭成斤。率妻子來到言內。被擄人等。近欲全數出來。蓋傳聞日本有戰伐之變。至於秀吉已死。行長以事。越往泗川。曳橋撤陣。當在行長還陣之後云。朴守榮者。頗有出來之意。家屬甚多。待月黑之時。脫出爲計云。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3) 진경문(陳景文), 『섬호집(剡湖集)』 하,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

무술년(戊戌年) 9월. 제독 유정(劉綎)이 대군을 거느리고 남하하여 남원과 곡성 사이에 주둔했다. 이때 군문(軍門) 형개가 4명의 도독들에게 나누어 진군하게 하였고 모두 9월 20일 진시(辰時)로서 약속 날짜로 삼았다. 도독 마귀(馬貴)는 울산의 적을 담당하고, 도독 동일원(董一元)[418]은 사천의 적을 담당하고, 제독 유정은 예교(曳橋)를 담당하고 도독 진린(陳璘)은 수군을 맡아 협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때 제독이 조선의 군마를 징발하기를 촉구하여 홍마패(紅馬牌)를 인급(印給)하며 말하기를 "정토에 종사하는 조선의 군사들은 이달 14일 천조의 여러 장수를 나누어 본국의 군사들을 호령하게 하여 세 방면으로 전진하게 할 것이오. 그리하여 제 1영의 유격 왕지한(王之翰), 제 2영의 유격 삼관(懋官), 참장 이영(李寧) 및 충청 병사(忠淸兵使) 이시언(李時彦)이 광양(光陽)의 좌로(左路)를 경유하여 광영(廣營)으로 전진하고, 부총병 오광(吳廣) 및 방어사 원신(元愼), 소의장 임환은 낙안의 우로(右路)를 경유하여 해농창(海農倉)을 차단하며 전진할 것이오. 본관은 부총병 이방춘, 유격 우백영(牛伯英)[419] 및 도원수 권율, 전라 병사 이광악 등을 거느리고 부유창(富有倉) 대로를 경유하여 곧장 나아갈 것이오. 15일에 행군하여 20일 진시에 함께 공격하기로 했소."라고 했다. (중략)

새벽에 군사를 불러 모아 여러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동틀 무렵이 되어 부총병(副摠兵) 오광(吳廣) 및 방어사(防禦使) 원신(元愼), 소의장(昭儀將) 임환 등이 산을 올라 적을 살피자 적이 돌재[石岾]의 동쪽 봉우리에 올라 조총을 수차례 쏘아대고 나뭇가지를 태워 연기를 피워 올렸다. 해가 뜨자 누군가 깃발을 펄럭이니 20리 정도를 누구는 말을 타고, 누구는 걸어가는 동안 생선이 꿰미에 엮인 듯이 줄지어 갔다. 또한 상봉의 꼭대기에 흩어져 홍기(紅旗), 백기(白旗) 등을 굳게 꽂아놓고 군의 위엄을 성하게 펼쳐보았다. 부총병 오광이 바라보며 이르기를 "이는 필

418) 동일원(董一元): 호는 소산(小山), 선부(宣府) 전위(前衛) 사람이다. 1598년 12월에 중군 좌도독(中軍左都督)으로 출정하였다. 이듬해 중로(中路)의 병력을 이끌고 진격해 사천의 왜적을 토벌하다가 불리하여 거창으로 철수했다. 1599년 서울로 돌아왔다가 1600년 귀국하였다.

419) 우백영(牛伯英): 호는 소천(少川), 보안위(保安衛) 사람이다. 명나라 무장으로, 1597년 유격장이 되어 계진마병(薊鎭馬兵) 6백 기를 거느리고 울산 전투에 참가했고, 그 후 안동에 주둔했다가 남원으로 옮겨 주둔하였다. 다시 제독 유정의 휘하에서 왜교 싸움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1599년에 귀국하였다.

시 고니시 유키나가가 장차 순천으로 나아가 유 제독과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만약 우리 군사의 대계(大計)를 보게 된다면 반드시 복병진을 무너뜨릴 것이니 움직이지 말고 모름지기 제독이 교전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려 함께 진격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라고 했다. 소의장 임환 등이 계책을 말하기를 "여기서 적까지의 거리는 20리 정도이며 해농창의 평야는 땅이 질고 구덩이가 있어 기세를 타기가 쉽지 않으니, 반드시 근처의 길목에 매복을 하고 적을 기다린다면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부총병이 의심하고 망설이며 따르지 않았다. 소의병 등이 정예한 군사를 각각 선발하여 부대를 만들어 장차 매복시키려 했으나 얼마 뒤 적이 대포를 쏜다는 말을 듣자 급변을 보고하고 이어서 광양의 각 길목을 군사들이 선점했다. (중략)

다음날 29일. 제독이 여러 군영에 분부하고, 조선의 군사들에게도 호령하여 이르기를 "함께 공격할 때 충청도 군사를 왕 유격(王游擊) 등에게 배속시켜 동쪽 수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전라도 군사는 오부총(吳副摠)에게 배속시켜 적의 중견을 공격하도록 했다. 방어사와 소의장은 부 유격(부양교) 등에 배속시켜 서쪽 수문을 담당하라."라고 했다. (중략)

10월 1일. 그날 독부(督府)에서 고쳐 분부하기를 "소의장과 방어사를 왕지한, 사무관(司懋官) 두 유격에 배속하여 서문을 공격한다. 충청도의 군사는 유격 부 유격, 조 부총에 배속시켜 동쪽을 공격한다."라고 했다. 정오에 밀물이 밀려올 때 수군들을 합하여 진격하여 군대의 위용을 드러내니 적들이 물러갔다. (중략)

(2일) 사시(巳時)에 서쪽의 군사들은 항구가 얕아 적에게 가까이 가려 하는데 성채의 적 백여 명이 서쪽 수문으로 나와 명나라 병사로 어지러이 육박하니, 명나라 병사 중 사상자가 많았다. 조선의 소의군(昭儀軍)이 후면에 있어 편전(片箭)을 무수히 발사하여 적이 후퇴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두 차례 정도 반복되었다. (중략)

(3일) 파총(把摠) 설대승(薛大勝)이 소의장 임환에게 이르기를, "사천성(四川省)과 절강성(浙江省)의 군사는 서로 협력하지 않으니 오늘의 이 계획은 불리할 듯하오."라고 했다. (중략)

(4일) 그날 새벽, 소의장 임환이 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편이함을 초서로 써서 접반사(接伴使)에게 올렸고, 접반사는 독부(督府)에 전달했다. 독부에서 좋게 여겼으나 소의장의 계책을 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중략)

(10월 7일) 소의장 임환이 순천성 밖에 이르러 '유 제독이 다시 병사를 전진시킬 기이한 계책을 내어 다시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예교성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군량이 있는 곳에 이르러 군량이 이미 불탄 것을 보았으니 도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동 도독이 이미 사천의 적을 막고 있으니 유 제독이 다시 대군으로 예교성을 압박하고 천조의 주사가 바닷길을 차단하여 끊어 놓으면 고니시 유키나가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되니 진퇴유곡의 형세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천장에게 「대군으로 하여금 진을 물리게 하고 또한 주사(舟師)로 하여금 조금 퇴각하게 하면 마땅히 화친을 맺고 철수해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戊戌九月。提督劉綎率大軍。下屯南原谷城之間。時邢軍門。分四都督進兵。皆以是月二十日辰時爲約。都督馬貴主蔚山賊。都督董一元主泗川賊。提督劉綎主曳橋。都督陳璘掌水軍挾攻。於是。提督促發我國兵馬。印給紅馬牌曰。隨征麗兵。厥月十四日。部分天朝諸將官。詣本國兵卒。令三路進兵。以頭營遊擊王之翰。二營遊擊司懋官。參將李寧及忠淸兵使李時彦。由光陽左路。以進廣營。副摠兵吳廣及[420]防禦使元愼。昭儀將林懽。由樂安右路。截海農倉以進。提督率副摠兵李芳春。遊擊牛伯英。及都元帥權慄。全羅兵使李光岳等。由富有大路直進。

期以十五日行軍。二十日辰時合攻。(中略)

黎明。摩詣士卒。匿諸山谷。平明。副摠及防禦使·昭儀將等。上山瞭賊。則賊上石岾東峯。放鳥銃數柄。燒柴烟氣。日出。或張旗。或騎或步二十里間。魚貫絡繹。又散上峯頭。列竪紅白旗。盛陳軍威。副摠望見曰。此必行長。將向順天。約會劉提督也。彼若見我兵大計。必壞藏兵。勿動。須待提督交兵促發。並進可也。昭儀等謀曰。此距賊路二十里許。且海農之野。泥濘坎陷。未易乘機。必設伏近路。以要之賊。可破也。副摠遲疑不從。昭儀將等。各抄精卒一隊。將設伏。俄聞賊放大砲。以報變。乃光陽分路兵先犯也。(中略)

翌日二十九。提督分付諸營。詣本國軍兵曰。合攻時。以忠淸兵。屬王游擊等。入東水門。全羅兵。屬吳副摠。攻中堅。防禦使。昭儀將。屬傅游擊等。主西水門。

督府改分付云。以昭儀將·防禦使。屬王司二遊擊。功西門。忠淸兵。屬傳遊擊曺副摠。功東。午潮舟師合進。耀武而退。(中略)

巳時。西隅兵淺港。將薄賊。寨賊百餘。出西水門。亂搏天兵。天兵多死傷。昭儀軍在後。叢發片箭。賊退入。如是者再。(中略)

把摠薛大勝。書示昭儀將曰。川浙兵矛盾。不相協力。今日之事。恐不利也。(中略)

是曉。昭儀將草攻城難易。呈接伴使。進督府。督府嘉之。嫌其麗人之策不用。(中略)

昭儀將至順天城外。意謂。劉提督再進兵之奇計。更率精騎。還向曳橋。至糧所。見糧已火。還退。然董都督旣綴泗川之賊。劉提督又以大兵壓曳橋。以天朝舟師。遮截海路。行長復背應敵。已成維谷之勢。使謂天將曰。使大軍退陳陣。且令舟師少欲。則當連和撤渡。

출전 : 김경태 외 역, 『섬호집』, 국립광주박물관, 2016

(14) 김수항(金壽恒), 『문곡집(文谷集)』 권26, 「제 천장오종도 여습정임공 왕복서독후(題天將吳宗道與習靜林公往復書牘後)」

고(故) 습정 임공께서 명나라 장수가 왜적을 토벌하러 우리나라로 온 시기에 석루(石樓) 오

420) 원문에는 '反'으로 되어 있으나 '及'의 오기인 듯하다.

종도(吳宗道)를 수행한 것이 전후로 가장 오래되었다. 오공과 함께 주고받은 편지가 매우 많아 그것들을 연결하여 거질(巨帙)로 만들었으니, 임씨의 자손들은 오늘에 이르도록 보관하며 보배로 여겼다. 그 길고 짧은 편지들을 보면, 마음속을 다 털어놓은 내용들이 간절하고 친밀해서 골육 같을 뿐만 아니니, 옛날에 이른바 '천하가 형제다.〔四海兄弟〕'[421]라는 말은 참으로 허언(虛言)이 아니다.

오공은 병법과 전략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문장의 아름다움을 겸하였으니, 중국에 인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습정공은 우리나라의 일개 선비로서 애모(愛慕)를 받았음이 또한 이와 같았으니, 역시 그의 사람됨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날 성스러운 천자께서 일시동인(一視同仁)[422]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어떻게 이 편지들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이는 임씨 일가만의 보배일 뿐만 아니니,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에게 이것을 보게 한다면, 어찌 죽을 때까지 사모하기를 더욱 돈독하게 하지 않겠는가.

아,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고 위아래가 거꾸로 되었도다! 이런 세상에서 무슨 수로 이런 성대한 일을 다시 볼 수 있겠는가. 과거와 지금을 굽어보고 우러러보니, 나도 모르는 새에 눈물만 흐르는구나. 습정공의 후손 임흡(林潝)이 이 서첩을 내게 보여 주기에 그 말미에 적어 돌려보낸다.

때는 숭정(崇禎) 무오년(1678, 숙종 4) 중추(中秋)에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은 낭주(朗州, 전라도 영암)의 적소(謫所)에서 쓰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故習靜林公當天將東征之日。隨石樓吳公宗道首尾最久。吳公所與往復赤牘甚多。聯成巨帙。林氏子孫至今藏之以爲寶。觀其長篇短蹏。輸寫心肝。綢繆款密。不翅若骨肉。古所謂四海兄弟。信不虛哉。

吳公以韜鈐顯。而兼有此詞翰之美。可見中朝人才之盛。而習靜公以下國匹士。爲其所愛慕又如此。亦可想見其爲人矣。然向非聖天子一視之仁。亦何以得此哉。此不獨林氏一家之所寶藏。使我東人人見之。詎不益篤其沒世之思耶。

噫。滄桑變矣。冠履倒矣。此世何由復覩此盛事耶。俯仰今昔。不覺一涕。習靜之孫潝以此帖視余。爲識其後而歸之。時崇禎戊午中秋。文谷金壽恒書于朗州之纍舍。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문곡집(https://db.itkc.or.kr/)

---

421) 천하가 형제다〔四海兄弟〕: 이 구절은 『논어』 「안연(顔淵)」에 나오는 말이다. "사마우(司馬牛)가 근심하며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 홀로 없다.'라고 하니,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으니,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고, 부와 귀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군자가 공경해 마지않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면 사해(四海) 안이 모두 형제이다. 군자에게 형제가 없는 것이 무슨 근심이 되겠는가?' 하였다."라고 하였다.

422) 일시동인(一視同仁): 누구나 차별 없이 보아서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으로, 한유(韓愈)의 「원인(原人)」에 "성인은 일시동인한다.〔聖人一視而同仁〕"라고 하였다.

(15)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권2, 「전문화현감 임공의 묘지명(前文化縣監林公墓誌銘)」

정유년 겨울. 한 남쪽 선비가 병기(兵器)를 소지하고 단후의(短後衣)[423]를 입은 채로 와서 자기 주장(主將)의 편지를 내놓았다. 그 편지에 "저는 고(故) 정랑(正郎) 임제(林悌)의 아우 환입니다. 저는 아는 것이 부족하고 재능도 없는데, 여러 사람에게 망령되게도 추대함을 받아 의병을 소집하고 있으나, 미약하여 군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선형(先兄)의 도움을 빌리고자 하오니, 망인(亡人)을 돌아보시어 삼가 그 동기(同氣)를 거두어 주소서. 조그마한 공효라도 있게 된다면 그 무엇인들 대부의 덕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그 선비가 절하고 또 입으로 보고하기를 "임군(林君)이 장단(將壇)에 오르던 날에 탄식하며 군중에게 말하기를 '가형(家兄)은 성품이 호쾌하고 시원하였지만,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좋은 친구도 없었다. 친구라고 하면 지금 사대부 사이에 오직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있는 이 아무개가 있을 뿐인데, 나 또한 그를 앙모한 지 오래이니 이 말을 가서 전하면 반드시 나를 처분해 주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사자(使者)를 대하여 배사(拜謝)하고, 군대의 일을 서로 상론(商論)하여 부족했던 약간의 조항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인하여 임군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으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기뻐도 일에 드러내지 않고 노여워도 낯빛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노여움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반드시 넓은 법이라, 너그러움으로써 군중을 제어하였기에 군중이 따르는 것입니다."하였다. 그 후 상서 형개가 선종(宣宗)을 뵌 자리에서, 본국의 여러 장수 가운데 오직 임 아무개의 군대가 항상 제군(諸君)의 으뜸이라고 첫째로 칭한 것을 보고는, 내가 여기에서 흔연이 그를 가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년 뒤에 명함을 가지고 온 자가 있었는데 문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임 아무개입니다." 하므로 내가 얼른 인도하여 자리로 올려 앉히고 보니, 말을 나누기도 전에 마음이 부합하여 마침내 막역(莫逆)의 친구로 삼았다. 그의 사람됨은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난 풍치가 있으며 사한(詞翰)에 더욱 뛰어났는데, 바라보니 자잘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로부터 6년 뒤에는 병 때문에 남쪽으로 돌아가면서 내 집에 들러 하직하므로 대(臺)에 올라 온종일 함께 노닐면서 평생의 일을 서로 다정하게 담화했었다. 그러므로 4년 뒤에는 남쪽 사람이 그의 부음(訃音)을 전하였고, 또 그다음 해에는 병부 원외랑(兵部 員外郎) 임업(林懤)이 나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임군의 장례에는 의당 명(銘)이 있어야 할 것이니, 선생은 힘써 주시오." 하였다.

삼가 그 가장(家狀)을 상고해 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23) 단후의(短後衣) : 옷의 뒤쪽 옷깃을 짧게 누벼서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옷을 말한다.

군의 자는 자중(子中)이고 자호는 습정(習靜)이다. 임씨는 옛날 나주(羅州)의 망족(望族)인데 대대로 회진(會津)에서 살았다. 비조(鼻祖) 비(庇)는 고려에 벼슬하여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가 되었다. 그로부터 십삼세(十三世)를 지나 휘 평(抨)에 이르러 전라 병마우후(全羅兵馬虞候)로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고, 이분이 휘 붕(鵬)을 낳았는데 붕은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이분이 휘 진(晉)을 낳았는데, 진은 가선대부(嘉善大夫)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가 되었고, 선전관(宣傳官) 윤개(尹塏)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5인을 두었다. 큰아들 정랑(正郎)은 나의 친구로 호는 풍강(楓江)이고, 시집(詩集)이 있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그 넷째가 바로 군이다.

군이 태어난 해는 가정(嘉靖) 신유년(辛酉年)이고, 진사가 된 해는 만력(萬曆) 경인년(庚寅年)이며, 작고한 해는 만력(萬曆) 무신년(戊申年) 5월 11일이니, 향년 48세이다. 장사 지낼 날은 8월 11일이고 장지는 금성산(錦城山)이다.

이에 앞서 임진년(壬辰年) 난리에 창의사 김천일이 군을 불러 종사관으로 삼고 강화(江華)에 군대를 주둔시켜 경성(京城)을 도모하면서 군사(軍事)를 모조리 군에게 맡겼는데, 군이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일군(一軍)이 군에게 마음을 의탁하였다.

이때 왕세자(王世子)가 수안(遂安)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군이 글을 받들고 입조(入朝)하여 이틀 동안에 세 번이나 글을 올려서 거가(車駕)를 옮겨 남쪽으로 내려가서 중흥(中興)의 기업(基業)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는데,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말을 버리고 도보로 몰래 적중에 들어가 묘주(廟主)를 찾아왔다.

다음 해에는 왜구가 퇴각하자, 군이 으뜸으로 경성에 들어가서 학교를 건립하자는 의논을 맨 먼저 제창하고, 마침내 김천일과 함께 적의 뒤를 쫓아 남쪽으로 내려갔다. 천장(天將) 오종도가 공을 한 번 보고는 공의 뛰어난 인품을 감탄하면서 공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하므로 함께 상주까지 갔다가 병 때문에 군사를 거느릴 수 없어 가마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김천일이 홀로 진주에 들어갔다가 성이 함락되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 장부가 이미 남에게 알아줌을 의탁하고서 차마 그 혼자만 죽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이로부터 마침내 세상에 마음을 끊고 바닷가에 집을 지어 그곳에 살면서 날마다 물고기와 새를 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이때, 병란 뒤의 유민(流民)들이 본도(本道)에 흘러 들어가서 서로 베고 누워 죽은 시체가 본도에 천으로 헤아릴 정도였다. 그러자 군이 "우리 백성들이다."라고 말하고, 형편에 따라 급급히 진급(賑級)하면서도 뒤처지는 자들은 없는지 걱정하였다. 그중 양가(良家)의 자제로서 가르쳐 흥기(興起)할 만한 자들을 가려 자기 집에서 먹여 주고 학문을 권면하며 가르치다가 해가 풍년이 든 뒤에 모두 돌려보냈다.

정유년에 왜적이 재차 쳐들어왔을 적에는 통제사 이순신이 명량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보화도(寶化島)에 진주(進駐)해 있을 때 양도(糧道)가 사방으로 끊어졌는데, 이때 군이 자기 집에 쟁여둔 수백 석의 곡식을 털어 내어 호궤(犒饋)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적들이 마침내 전군을 통틀어 북으로 진격해 오자 향인(鄕人)들이 서로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 고을의 임 아무개는 정의로운 사람이니, 우리가 임군의 명을 따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인하여 군을 추대해서 장수로 삼았다. 그러자 군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지난번에 내가 종군했다가 주군(主君)을 저버린 일이 많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재차 일어난단 말인가. 그대들은 나에게 굳이 권하지 말라."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일을 직면함에 고구(故舊)를 잊지 않으니, 월등히 남보다 현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군중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하고, 군을 굳게 추대하여 늦추지 않으므로, 군이 가엾게 여겨 그들의 말에 응하였다.

군은 이에 상소를 올려 의병을 일으키고 팔도(八道)에 격문(檄文)을 돌렸는데, 당시 순찰사 황신(黃愼)이 군의 일을 장문(狀聞)함으로써 특별히 공조 좌랑(工曹佐郎)에 배수되었다. 왜교의 싸움에서는 군이 고두(孤頭)를 지키고 있었는데, 적 수천 명이 병기를 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왔다. 명나라의 군사들은 바람에 쓸리듯 무너졌으나 유독 군의 일진(一陣)만은 동요하지 않았으니, 이때부터 제군(諸軍)이 군의 군대를 진사군(進士軍)이라 호칭하였다.

이때 명나라 장수 유정이 4만 명의 정병(精兵)으로 군용(軍容)을 성대히 베풀고 적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제장(諸將)들이 모두 며칠 내에 적을 꼭 격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유정을 한 번 보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유공(劉公)은 전쟁할 마음이 없으니, 반드시 화약(和約)을 맺고 물러갈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일 뒤에 그 말이 과연 들어맞았다. 왜적이 제 나라로 돌아감에 미쳐서는 명나라 장수들 또한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갔다.

군에게는 무주 현감(茂朱縣監)이 제수되었는데, 군은 현에 이르러서는 학문을 권면하고 아전들을 단속하니, 이민(吏民)들이 그것을 타당하게 여겼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방어사(防禦使)와의 사이에 공문(公文)으로 인하여 서로 맞지 않은 점이 있어 마침내 그만두고 돌아갔다.

다음 해에는 오종도가 군을 기용하여 접반관(接伴官)으로 삼았는데, 해주(海州)에 당도하여 군의 형 순(恂)이 강계 부사(江界府使)로 졸관(卒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이 그곳을 가려고 하였으나, 오종도가 군을 차마 떼어 보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군이 마당에서 6일 동안이나 통곡하면서 주식(酒食)도 물리치고 먹지 않으므로, 오종도 역시 그 의리에 감동되어 군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작별하였다.

그다음 해에는 공조좌랑(工曹佐郎)에서 직산 현감(稷山縣監)에 제수되었는데, 일찍이 일로 인하여 서울에 들어가니, 이때 조론(朝論)이 성 우계(成牛溪)를 추척(追斥)하였다. 그러자 도중(都中)의 학생으로서 성씨(成氏)의 학문을 높이는 이들이 장차 언론을 세워 그를 해명하려고 하였는데, 군을 기다려 그 의논을 결정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진작부터 이미 군을 노려보아 왔

던 터였기에, 끝내 이 사건에 연좌되어 김대래(金大來)[424]의 탄핵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군은 오히려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남쪽 끝으로 내려가 궁벽한 마을에 숨어 살면서 오직 시주(詩酒)로써 마음을 씻을 뿐이었다.

갑진년(甲辰年)에는 문화 현령(文化縣令)이 되었는데, 또 지난번의 일이 연좌되어 권귀(權貴)의 꺼림을 받아서 그의 지시를 받은 어사(御史)에 의해 축출되었다. 그리하여 군이 고향에 돌아가서는 창의공 김천일을 위하여 의논해서 사우(祠宇)를 세우고 조정에 사액(賜額)을 청하였으며, 별도로 의곡(義穀)을 저장하여 남의 혼상사(婚喪事)를 도와주고 인하여 향리의 자제들을 모아서 부지런히 가르치다가 이것으로 생애를 마치었다. 그래서 군자가 이르기를 "의리를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항상 명성을 이룬다."라고 하였다.

군은 11세에 모부인(母夫人)이 작고하였고, 27세에 선대부(先大夫)가 작고했는데, 예를 지켜 거상하는 데에 있어 어릴 때나 장성한 때나 의식을 달리하는 것이 없었고, 고자(孤子)가 된 조카를 어루만지고 기르기를 마치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였다. 군은 또 도량이 넓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었으므로, 창의공의 아들 상곤이 죽음에 임박하여 자기 처자를 군에게 부탁하였고, 천장(天將) 이의(李義) 또한 자기 애첩을 군에게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중조(中朝)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공에게 부탁하는 것은 공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오종도 또한 환조(還朝)하던 날에 유복자(遺腹子)를 군에게 부탁하였으니, 여기에서 군의 평소 행실을 대강 알 수가 있다.

개관(蓋棺)하던 날에는 원근(遠近), 친소(親疎)간에 통곡하며 모두 실성하였고, 계모산(雞茅山)에 장사 지내던 날에는 여러 고을 사람들이 다 와서 회곡(會哭)하였으며, 이 소식을 들은 중외(中外) 사람들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남중(南中)의 쾌사(快士)가 죽었으니, 의를 행할 이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군의 배(配)는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 임호(林浩)의 딸인데, 군이 작고함으로부터 임의인(林宜人)은 예절에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이 상한데다가 죽기로 작정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 과연 그다음 해에 작고하였다. 앞서 양씨(梁氏)란 첩(妾)이 있었는데, 적을 만나서 물에 빠져 자결하였고, 모두 후사가 없었으므로, 형 제(悌)의 아들 기(垍)를 후사로 삼았다. 또 다른 측실(側室)에서는 1남 2녀를 두었는데, 다 어리다.

나는 이상의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말하기를 "명(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마침내 다

---

424) 김대래(金大來): 1564~1608. 초명은 대유(大猷), 자는 희태(希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유영경(柳永慶) 등과 함께 세자로 지명된 광해군 대신 선조가 총애한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옹립하려다가,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 이이첨·정인홍(鄭仁弘)의 탄핵을 받고 경흥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태어난 것은 불우한 때였으나	生之不遇
이룬 것은 속되지 않았고	成之不俗
좋지 못한 시기를 만나서	逢之不辰
홀로 우뚝이 섰도다	而立於獨
아 때인가 운명인가	嗚呼時耶命耶
하늘이 고의로 넘어뜨린 것인가	天故使之踣耶
오직 집청에서 이별을 나누었는데	維集靑之言別
한번 문을 나가선 돌아오지 않았네	一出門而不復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백사집(https://db.itkc.or.kr/)

歲丁酉冬。有南士執兵衣短後。來致其主將之書曰。僕故林正郎悌弟懽也。寡知不才。爲衆妄推。召集義旅。弱不成師。願假靈於先兄。惠顧亡人。辱收其同氣。尺寸之效。其誰非大夫之賜也。士拜且口報曰。林君登壇之日。喟然謂衆曰。家兄豪爽。寡與世無良友。今薦紳間。唯李某處中兵。我亦響仰久矣。斯可以此言進。必有所以處我矣。余對使拜謝。商論軍事。以濟其所不給者若干條。因問林君何如。其人曰。是夫也。喜不刑事。怒不及色。喜怒不見。中必汪汪。寬以禦衆。衆以是歸。及邢尙書玠見宣宗。首稱本國諸將。唯林某兵常冠軍。余於是欣然嘉之。後數年。有齎刺而立於門者曰。我林某也。余一肅升筵。未言而合。遂定爲莫逆友。爲人美姿。容有風槩。尤善於詞翰。望之知非爲齷齪人矣。後六年。以疾南歸。踵門而辭。登臺終日。欵曲平生。後四年。南人以訃告。又明年。兵部林員外㷜囑余曰。林君葬。宜有銘。子其勉之。謹按家狀曰。君字子中。自號習靜。林舊羅州望族。世家會津。鼻祖庇。事高麗判司宰寺事。十三世而至諱抨。全羅兵虞候贈兵曹參判。生諱鵬。慶州府尹贈禮曹參判。生諱晉。嘉善大夫平安道節度使。娶宣傳官尹塏之女。有男子子五人。長曰正郎。吾友也。號楓江。有詩集行于世。其第四卽君也。君生之年曰嘉靖辛酉。成進士之年曰萬曆庚寅。其卒之年曰萬曆戊申五月十一日。得年曰四十八。葬之日曰八月十一日。其山曰錦城。先是。壬辰之亂。倡義使金千鎰。辟君爲從事。駐兵江華。以覲京城。悉以軍事委君。事以辦治。一軍屬心。時王世子次遂安。君奉書入朝。二日三上書。請移駕南下。以立中興基業。除司圃別提。及還中途。捨馬徒步。潛入賊中。搜得廟主。明年寇退。君首入京城。先倡建學之議。遂與千鎰踵賊而南。天將吳宗道。一見嗟異。請與偕行。至尙州。病不能執鐲。舁歸于家。聞千鎰獨入晉州。城陷而死。咳曰。嗟乎丈夫。旣托知於人。忍使其獨死耶。自是遂絕意於世。築室海上。日以魚鳥自樂。時兵後流民。流入本道。尸相枕者。道以千計。君曰。吾赤子也。隨分賑給恐後。擇其中良家子可敎以興者。養於家而勸之學。歲定而後遣還。丁酉賊再動。統制使李舜臣嗾鋒鳴梁。進駐寶化島。糧道四絕。君出捐家藏數百石以犒之。少選。賊遂悉衆北上。鄕人相聚謀曰。吾鄕林某。義人也。吾屬聽於

林君。可以濟。因推以爲將。君辭曰。日我從戎。負主君多矣。何心再起。子毋庸勤我。衆曰。臨事不忘故。其賢於人遠矣。非是衆莫與也。固持君不解。君愍然應之。抗疏擧義。傳檄八道。時巡察使黃愼。以狀聞。特拜工曹佐郎。倭橋之役。君守孤頭。賊數千持兵突出。天兵披靡。獨君一陣不動。自是諸軍號曰進士軍。時天將劉綎。以精兵四萬。盛陳以待。諸將咸謂賊指期可破。君一見出語人曰。劉公無戰心。必以和退也。後數日果驗。及賊回巢。天將亦罷兵歸。除君茂朱。到縣勸學束吏。吏民宜之。無何。與防禦使。因公移有不適。遂解歸。明年。吳宗道起君爲接伴官。到海州。聞兄恂以江界府使。卒於官。欲赴之。吳不忍釋手。君庭哭六日。辟奠不飧。吳亦感義。執手哭別。明年。以工曹佐郎。除稷山縣監。嘗因事入京。時朝論追斥成牛溪。都中學子有宗成氏之學者。將立言以解之。待君定議。時人視君固已眈眈矣。竟坐是。爲金大來所劾去。君猶不樂。落南隱端伏窮里。唯詩酒瀟洒而已。甲辰。爲文化縣令。又坐前所爲。爲權貴所忌。諷御史黜之。及還鄉。爲倡義公議建祠宇。請額於朝。別藏義穀。以賙人婚喪。因聚鄉子弟。敎授不怠。以此終焉。君子曰。嗜義不倦。是以常立。君十一。母夫人亡。二十七。先大夫亡。守禮持喪。幼壯無異儀。撫養孤姪。恩若己出。雅量寬洪。誠信無僞。故倡義子象坤臨死。托以家孥。天將李義。亦托其愛妾曰。我不于中朝人而于公者。知公信也。吳宗道還朝之日。亦托以遺腹子。此可以槩君之平素也。盖棺之日。遠近親踈。哭之皆失聲。及葬鷄茅。會哭者數郡畢至。中外聞者噫曰。南中快士亡矣。無爲爲義矣。君之配曰司饔直長林浩女。自君之卒。林宜人哀毁過節。分死絕水飮。果以明年死。先有妾曰梁。遇賊赴海死。皆無嗣。以兄悌之子垍後。又有側室一男二女。幼。余讀畢曰。銘止是足矣。遂爲之銘曰。

生之不遇。成之不俗。逢之不辰。而立於獨。嗚呼時耶命耶。天故使之踣耶。維集靑之言別。一出門而不復。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백사집(https://db.itkc.or.kr/)

(16) 권필(權韠), 『석주집(石洲集)』 별집2, 「사우록(師友錄)」

– 기초만 해놓고 미처 끝맺지는 못했다. –

임환의 자는 자중이며 나주 사람이다. 일찍부터 문장으로 명성이 있었고 모년(某年)에 진사에 올랐으며 누차 과거를 보았으나 급제하지 못했다. 사람됨이 강개(慷慨)하여 큰 뜻이 있었고 남과 교제함에 믿음이 있었고 또한 의리가 있었다. 벼슬은 문화 현감(文化縣監)에 이르렀다. 신유년(1561, 명종 16)에 태어나 무신년(1608)에 죽었으니, 향년 48세였다.

그 형인 선(愃)은 자가 자관(子寬)인데 진사에 오른 뒤에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다. 거처하는 곳에 백화(百花)를 심고 사람들과 교유하지 않았으며 오직 거문고를 뜯고 시를 읊을 뿐이었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석주집(https://db.itkc.or.kr/)

– 起草。而未及終篇 –

林懽。字子中。羅州人。早有文名。登某年進士。屢擧不第。爲人慷慨有大志。與人交。信且有義。

官至文化縣監。生於辛酉。死於戊申。年四十八。其兄愃。字子寬。旣登進士。廢擧子業。所居。種百花。不與人交遊。唯彈琴賦詩而已。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석주집(https://db.itkc.or.kr/)

(17)『선조실록(宣祖實錄)』 권126, 33년 6월 25일

도사(都司) 오종도의【주사 장관(舟師將官)으로 부산에 있었다.】 접반관(接伴官) 임환이 치계하기를 "이달 19일 광풍(狂風)이 크게 일고 소나기가 퍼부으면서 파도가 급해지자 배가 기울고 돛대가 부러졌습니다. 오 도사(吳都司)와 가 유격(價遊擊)이 거느린 배의 군졸 중 태반이 익사(溺死)하였으며 우수사 유행(柳珩)의 관하(管下)에 있던 판옥선(板屋船)들도 많이 부서졌습니다. 마땅히 이 변란에 대비하고 있는 오늘날 잠시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부서진 배들을 수리하는 동안 통제사 이시언(李時言)이 경예선(輕銳船)을 거느리고 거제도 앞바다로 나아가 초수(哨守)에 협력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吳都司宗道。【以舟師將官在釜山】 接伴官林懽馳啓曰本月十九日狂風大作。驟雨如注。海浪動蕩。舟楫傾摧。吳都司。賈遊擊所領船軍卒。太半溺死。右水使柳珩管下板屋船。亦多破毁。當此待變之日。不可斯須無備。敗船補完間。統制使李時言輕銳船。前赴濟洋。協力哨守事。入啓。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8)『선조실록(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3일

장 유격(張遊擊)의 접반관 전적(典籍) 이여하(李汝賀), 진 참장(陳參將)의 접반관 유응룡(劉應龍), 가 유격(賈遊擊)의 접반관 임환의 서장(書狀)에 "본월 19일 밤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고 온종일 동풍이 불더니, 밤 2경(更)이 되자 폭우가 쏟아지며 태풍이 크게 일고 파도가 몹시 사나워져 그 소리가 산악을 진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부(部)의 사호선(沙唬船) 도합 85척 중 과반은 전복하여 파손되거나 혹은 중양(中洋)에 침몰하기도 하고 혹은 성난 파도에 밀려가서 해안에 걸려 있기도 하며, 부서진 배는 몇 리에 가득 차 있고 물에 뜬 시체는 해안에 잇닿았습니다. 유격(遊擊) 및 우리나라의 병선(兵船)도 많이 파손되었으니 그 변이가 비상합니다. 조정에서 난리를 겪은 후 남쪽 지방의 재력을 다 써가면서 연해 일대를 주사(舟師)에게 전담시켜 대단히 의지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불측한 재변이 생겨 이처럼 혹심하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張遊擊接伴官典籍李汝賀,陳參將接伴官劉應龍,賈遊擊接伴官林懽書狀本月十九日夜。天陰以雨。盡日東風。入夜二更。怪雨暴下。颶風大作。海濤甚惡。聲振山岳。五部沙唬船共計八十五隻。過半覆破。或淪覆於中洋。或爲怒浪所驅。掛破邊岸。舳艫糜解彌數里。浮屍相望於海口。遊擊及我國兵船。亦多毁破。變異非常。朝廷自亂後。竭南方財力。沿海一帶。專屬舟師。倚以爲重。一朝

不測之災。若此之酷。不知所爲。啓下備邊司。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19)『선조실록(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18일

오 도사(吳都司)의 접반관 임환이 치계(馳啓)하기를 "오 도사가 거느린 크고 작은 배 86척이 본월 7일에 하나도 남김없이 철수하여 강화로 향하였는데, 무려 1백여 명의 우리나라 어른과 아이가 배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 쇄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중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니, 조정에서는 유념하여 선처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吳都司接伴官林懽馳啓曰吳都司。統領大小船竝八十六隻。本月初七日。無遺卽撤。發向江華。我國之人。或長或稚。無慮百有餘名。置在船中。若不刷還。則必率歸天朝。朝廷留念善處事。入啓。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0)『선조실록(宣祖實錄)』 권158, 선조 36년 1월 19일

병자년(丙子年). 전라도 관찰사 한준겸(韓浚謙)이 장계(狀啓)하기를 "조정에서 특별히 무학(武學)을 설립하여 양가(良家)의 자제들로 하여금 모두 여기에 소속시킨 것은 그 의도가 매우 성대한 것이었는데, 이른바 무학의 장(長)이란 자들이 반 이상은 용렬한 자들이어서 웃음거리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지난해 주사(舟師)에게 보인 별시(別試)의 녹명(錄名)에 역(役)이 없는 사람이 거의 수천 명이나 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역이 있는데도 군안(軍案)에 이름이 누락되어 수군(水軍)이나 육군(陸軍)으로 조발(調髮)되는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이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무학에 소속시켜 정역(征役)을 면해주고 전심전력하여 병법을 조련하게 한다면 한쪽 방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광양(光陽) · 순천(順天) · 남원(南原) · 나주(羅州) 등지에 각각 하나의 진(陣)을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연락(連絡)하게 하고, 사천(私賤) · 아병(牙兵)과 함께 일체(一體)로 조련하게 한다면 일에 통섭(統攝)이 있게 되어 이익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체(事體)가 중하지 않으면 호령이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정에서 특별히 조처해 준 뒤에야 봉행함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부안에 사는 전 군수 김홍원은 군무(軍務)에 매우 익숙하고 흥양(興陽)에 사는 첨지 김언공(金彦恭)도 조방(助防)의 직임에는 적합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호칭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미리 정선(征繕)하게 한다면 거의 군급(窘急)한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주사(舟師)들의 비용은 전적으로 포작간(鮑作干)[425]에 의뢰하고 있는데, 바닷가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관역(官役)에 응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전 현감 임환은 대대로 나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아울러 해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임시로 한 가지 호칭을 내려보내어 수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다.

丙子。全羅道觀察使韓浚謙狀啓。朝廷別立武學。使良家子弟。皆屬於此。其意甚盛。而所謂武學長者。庸冗居半。只爲嘲笑之資。竊念上年舟師別試。錄名無役之人。幾至數千。其中有役。而名漏軍案。不在水陸調遣之中者。亦不啻數百。以此輩屬之武學。免其征役。專心鍊業。則足當一隅。惟彼光陽,順天,南原,羅州等地。各設一陣。使之連絡。與私賤牙兵。一體操鍊。則事有統攝。不無利益矣。事體不重。則號令不行。必自朝廷。特有施措。然後可期奉行。扶安居前郡守金弘遠。頗習軍務。興陽居僉知金彦恭。亦合於助防之任。若以此等人。別爲稱號。使之預爲征繕。則庶無窘急之弊矣。且舟師之用。專賴鮑作。而散處海濱。應官役者無幾。前縣監林懽。世居羅州。頗知此事。竝令該曹商議。假一號下送。使之收拾何如。啓下備邊司。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1)『선조실록(宣祖實錄)』 권186, 선조 38년 4월 26일

황해도 안문 어사(黃海道按問御史) 이지완(李志完)[426]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지방을 안문(按問)하라는 명을 받고, 해서(海西) 1도를 순행하면서 전사자의 처자를 구휼하는 것과 중국으로 도망간 병사를 쇄환하는 따위의 일을 한결같이 사목(事目)에 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수령의 현부(賢否)와 불법 및 민간의 질고(疾苦)에 관해서는 짧은 시간에 지나가면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목에 의하여 동행하는 시종을 간소하게 하고, 촌락을 출입하면서 간혹 알아본 것으로 참작하여 자세히 조사하였으니 조목조목 서계합니다. …… 문화 현령(文化縣令) 임환은 비록 형벌을 크게 잘못 처리한 것은 없지만 성혼(成婚)한 자식을 법을 무시하고 데리고 있습니다. …… "라고 합니다.

黃海道按問御史李志完啓曰臣伏承按問之命。巡審海西一道。戰亡人妻子護恤及逃唐兵刷還等事。一依事目施行。而其中守令賢否。不法及民間疾苦等事。則非瞥然行過。所可得其實狀。故依事目。簡其騶從。出入村閭。或參以聞見。詳加查覈。逐條書啓。…… 文化縣令林懽。雖無大段失刑。而

425) 포작간(鮑作干):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이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포작인(鮑作人), 포작한(鮑作汗)으로도 쓴다.

426) 이지완(李志完): 1575~1617.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양오(養吾), 호는 두봉(斗峯),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1597년(선조 30)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형조 판서에 이르렀다. 시문에 능하여 1606년 중국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왔을 때 이호민(李好閔)·허균(許筠) 등과 접반하였다.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증조부이다.

成婚子息。冒法携挈。……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2)『선조실록(宣祖實錄)』 권210, 선조 40년 4월 28일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덕형(李德馨), 우의정(右議政) 한응인(韓應寅)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진강(鎭江) 오 유격(吳遊擊) 소생 아이의 생사를 탐문하라는 일을 임환에게 알려 보낼 것으로 전라도에 이문(移文)하였더니, 감사(監司)의 회답에 ‘임환은 병으로 폐인이 된 지 3년에 침과 뜸을 맞아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서울에 올라갈 수 없다. 그 노자(奴子)의 소지(所志)에 의하면 「유격이 거제에서 방신(防汛)할 때 과연 거제현의 기생 난생(蘭生)을 데리고 살면서 임신시킨 일이 있었다. 유격이 옹진(甕津)에 있을 때 가정(家丁)을 보내어 오로지 난생의 임신 여부를 탐문하게 하였고, 미관진(彌串鎭)에서 이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임환에게 부탁하기를 만일 사내아이를 낳으면 보호하여 길러주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말하였다. 그래서 유격이 압록강을 건넌 후 상전(上典)이 사람을 보내 난생이 아이를 낳았는지를 탐문하였더니 과연 자식을 낳았다. 그러나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요절하였다 …….」고 하였는데, 임환의 질병의 경중은 거리가 멀어서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우나 그 사연은 이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동봉하여 보내온 초본(草本)을 오귀도(吳貴道)에게 보이고 유격의 게첩(揭帖)에 기재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뜻으로 회첩(回帖)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禮曹啓曰頃因領中樞府事李德馨、右議政韓應寅啓辭。鎭江吳遊擊所生兒。存沒探問事。林懽知委上送事。行移于全羅道矣。監司回答內。林懽則病廢三年。滿身鍼灸。未能運身。不得上京。而其奴子所志內。遊擊巨濟防汛時。果率縣妓蘭生娠有。遊擊在甕津時。委送家丁。專探蘭生懷孕與否。及其彌串鎭臨別時流涕。致囑於懽。如果生男。幸須庇護生長云。委曲說道。遊擊過江後。厥上典專人探問蘭生産子與否。則果爲生子。未踰年遽爲夭絕。云云。林懽病之輕重。遠難的知。而其爲曲折。不過如此。以全羅監司粘移本草。示吳貴道。而令遊擊揭帖中諸人。以此意回帖何如。傳曰允。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3) 임환(林懽),『습정유고(習靜遺稿)』 부록1,「유사(遺事)」

습정공 유사(習靜公遺事)【이백사 비장(李白沙碑狀), 조현주 광지(趙玄洲壙誌), 진섬호 일록(陳剡湖日錄), 당장(唐將) 등의 서책에도 보인다.】

공의 휘는 환, 자는 자중, 호는 습정, 또 다른 호는 취죽(醉竹)으로, 가정(嘉靖) 신유년(1561, 명종 16) 5월 13일에 태어났다. 그 생김새는 넓은 눈썹에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두툼한 뺨에 키가 컸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했고 특히 문장에 능했으며, 충효(忠孝)와 우애(友

愛)는 실로 하늘에서 타고났다. 의(義)가 있는 곳이라면 용맹하게 뛰어들어 자신을 잊으니, 맹분(孟賁)과 하육(夏育)[427]조차도 막지 못할 정도였다. 11세에 모친상을 당하고 27세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예를 지켜 상을 치름에 있어 어렸을 때나 장성했을 때나 차이가 없었다. 고아가 된 조카들을 마치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보듬어 인자하면서도 굳세게 키웠으며, 친속(親屬) 가운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자는 반드시 거두어 가르쳤다. 만약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면 길 가는 사람일지라도 제때 돕지 못할까 급히 구제하였고, 무례하다면 아무리 맏조카나 큰손주라도 오히려 매질을 하고 꾸짖어 용서하지 않으셨다. 품이 넓은 옷을 입고 큰 갓을 쓴 채 종일 점잖게 앉아 있으면 방 안이 마치 조정처럼 엄숙하여 가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고, 공이 있는 곳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없었으며, 일에 임해서는 반드시 서로 경계하며 말하기를, "아무개가 여기에 계시는데 어찌 모를 수 있는가?" 하였다. 만력(萬曆) 경인년(1590, 선조 23)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임진왜란에 공은 백면서생(白面書生)으로 맨 먼저 창의사 김천일 공을 따라 의병을 일으켰다. 김 공은 평소 공의 신의에 탄복하였던 터라 곧바로 공을 종사(從事)로 임명하였다. 비록 막강한 창의사의 신분이었지만 공에게 머리를 굽혀 믿고 따라줌에 충성심과 의로움으로 무장하였다. 강령이 세워지고 조목이 거행된 것은 모두 공의 힘이다. 공은 강화가 수로의 요충지이므로 이곳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회복시킬 근본이라고 여겨 마침내 창의사에게 권하여 군대를 강화로 옮겨 경성을 살피도록 하였다. 창의사가 군대 일을 공에게 모두 맡기자, 공이 일을 잘 처리하여 일군이 공에게 마음을 의탁하였다.

당시 왕세자가 수안(遂安)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공이 강화에서 입조(入朝)하여 이틀 머무르는 동안 세 차례 상소를 올려 거가(車駕)를 옮겨 남쪽으로 내려가서 중흥(中興)의 기틀을 세울 것을 굳게 청하였다. 당시 조정에서 공을 사포서 별제에 임명하였으므로 직임을 띠고 돌아왔다. 하루는 미복 차림으로 걸어서 경성의 적중에 들어가 옛집에서 묘주(廟主)를 찾아 등에 지고 돌아왔다.

다음 해 왜구가 퇴각하자, 공이 으뜸으로 경성에 들어가서 학교를 건립하자는 의견을 맨 먼저 주창하고 마침내 창의사 김 공과 함께 적의 뒤를 쫓아 남쪽으로 내려갔다. 명나라 지휘사(指揮使) 오종도(吳宗道) 공이 한 번 보고는 뛰어난 인품에 감탄하면서 생사를 함께 할 것을 허락하며 "아무개는 의인입니다.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함께 상주까지 갔다. 그러나 공이 역병에 걸려 군사를 거느릴 수 없게 되자 가마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다.【이에 오공(吳公)과

427)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모두 전국 시대의 용사(勇士)이다. 맹분은 살아 있는 소의 뿔을 손으로 뽑고 물에서는 교룡(蛟龍)도 피하지 않으며 뭍에서는 시호(兕虎)도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육은 천 균(鈞)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이별하며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왜놈들이 갑옷을 벗어던지고 서로 도망가니 桑夷捲甲昔遁逃
여러 장수 재빨리 달아남에 만 마리 말들 부르짖는구나 諸將雷奔萬馬号
나는 고군들로 하여금 호혈을 찾게 하였고 我領孤軍探号穴
그대는 장구한 계책으로 지휘하여 용도를 다스렸네 君揮長數剖龍韜
위엄있는 소리가 바다를 건너 남쪽 변방에까지 이르니 威聲渡海南荒□
칼날의 기운 하늘을 찔러 북극보다 높도다 釰氣衝天北極高
한 번 병들었으나 씩씩한 뜻 팔 수 없으니 一病未能售壯志
거만하게나마 통분한 마음 품고서 강가에서 눈물만 흘리네 慢懷幽憤泣江皐

또 말했다.

임금의 은혜 벼루를 막 꺼냈을 때는 시험해보지 못했다가 龍光未試發研初
추운 밤하늘에 뻗치네 寒夜□精射斗□
내 목숨 어찌할 바 없으나 無可奈何元命也
어려울 것 없도다 과연 돌아가리라 末之難矣果歸歟】

그 후 창의사가 홀로 진주에 들어갔다가 성이 함락되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 장부가 남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서 차마 그 혼자만 죽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함께 죽지 못한 것을 평생의 슬픔으로 여겼다. 이때부터 세상에 마음을 끊고 바닷가에 집을 지어 날마다 물고기와 새를 즐거움으로 삼으며 지냈다.【이에 시를 지어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했다.

키가 크고 성대하면서도 한 자 남짓한 곳으로 들어가니 長身偃蹇入尺餘
자취를 감춰버림에 누가 강호의 호걸 알겠는가 晦跡誰知湖海豪
무릎을 끌어안고 노래 읊조림에 관중(管仲)과 악의(樂毅) 생각나고 抱膝吟來思管樂
임금께 충성했던 시절 떠나감에 이윤(伊尹)과 고요(皐陶)를 탄식하네 致君時去歎伊咎
책 읽고 뜻을 취함에 너무 깊이 이해하려 하지는 않았으며 讀書取義不甚解
술 마시며 마음에 품은 것 풀어놓을 땐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네 飮酒放懷無太勞
눈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보내며 만물을 업신여기니 目送飛鴻傲萬物
때때로 옷 속에서 외치는 갑옷과 칼날 소리 듣는구나 時聽匣釰衣中號】

당시 병란 뒤의 떠돌이 백성들이 본도(本道)에 흘러 들어와서 서로 베고 누워 죽은 시체가 본도에 천으로 헤아릴 정도였다. 그러자 공이 "우리의 백성들이다." 하고는 형편에 따라 남보다 먼저 서둘러 진휼해주면서도 뒤처질까 염려했다. 그중 양가(良家)의 자제로서 가르쳐 흥기시킬 만한 자들을 뽑아 자기 집에서 먹여 주고 학문을 권장하여 가르치다가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안정된 뒤에 돌려보냈다. 정유년(1597, 선조 30) 봄에 왜적이 재차 군대를 끌고 바다를 건너 침략하였다. 【공이 시를 지어 슬픔을 읊었다.

숲속에 누워서도 늘 나라의 근심을 품으니	林臥常懷大國憂
머리카락이 마치 갈대 같아 가을이 벌써 온 것처럼 놀랍구나	髮如蒲蘆已驚秋
창과 혜일 누런 먼지와 함께 섞였고	戈矛慧日黃塵合
북과 나팔 하늘을 능가하며 붉은 깃발 둥둥 떠다니네	鼓角凌空赤羽浮
손에 있는 음부경(陰符經) 이미 익히 보았고	手裡陰符看已熟
눈 앞의 병서에서는 절로 장량의 계책 펼쳐지는구나	眼前兵書坐張籌
위천(渭川)에서 사냥하여 점을 치다 날이 저문 것 깨달아 탄식하니	謂川[428]卜獵嗟達暮
중의입은 무리들 눈물 흘리는 것 참아내네	中衣郡堪涕泗流

또 말하였다.

서생은 만 사람의 영웅임을 자부하였지만	書生自許萬夫雄
일찍 음부(陰符)를 익힘에 눈은 이미 공허했네	早業陰符眼已空
거군(車君)은 본래 신하의 직분 큰 것을 알았다지만	車君本知臣職大
안경(顔卿)은 어찌 주군의 은혜 융성해질 것을 기다렸던고	顔卿豈待主恩隆
백성들의 뼈들, 황망한 들판에 버려두어 온통 하얗기만 하고	黔黎暴骨荒原白
깃발들은 구름을 능가하듯 변방을 붉게 물들이네	旌旆凌雲絕徼紅
해자에서는 새벽에 닭이 자주 일어나 춤추고	閫了曉鷄頻起舞
해가 저물면 의로운 기운 어제의 무지개처럼 되는구나	暮年義氣化作虹

또 말하였다.

---

428) '위천(渭川)'이 맞는 듯하다.

유유히 세상의 일 차마 말하지 못하고 悠悠世事忍重陳
내가 때 아닌 때에 태어난 것을 탄식하노라 自歎吾生際不辰
일대에 조정과 저자의 모습이 바뀌고 一代朝市移面勢
백 년간의 왕릉은 오염되어 먼지만 가득하네 百年陵寢染腥塵
구차히 살아남는 방법은 하늘에 달려있거늘 감히 일으키려 하는가 載天敢作偷生計
칼날 울려 충절을 위해 죽은 이로구나 鳴釰韋須伏節人
차라리 죽어서 정위조[429]나 되었으면 寧死願爲精衛鳥
서산을 두른 바다에 나루터는 없구나 西山追遞海無津

종성(鍾城)성이 포위당했다는 것을 듣고는 새벽에 일어나 개탄하며 말하였다.

강물에 달 그림자 나오려 하는데 산도 어둑어둑하고 江月欲出山蒼然
유인(幽人)은 일어났다 앉음에 마음은 애타네 幽人起坐心如煎
물가의 마을에선 꼬끼오 울음소리 나니 닭 있는 곳 어디인고 水村喔喔何處鷄
무신(舞神)이 권하는 듯 능히 한쪽으로 빙빙 도는구나 似勸舞神能回旋
집을 나와 하늘을 바라봄에 홀로 방황하는데 出戶視天獨彷徨
하늘의 이리가 입 벌리고 꼬리 뻗으니 모두(旄頭)[430] 빛나네 天狼呀啄旄頭芒
듣자하니 강호(强胡)가 유관(榆關)을 베었다던데 聞說强胡斬榆關
우서(羽書) 훨훨 날려 소양(邵陽)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羽書翩翩入昭陽
관부(關府)와 □월(□鉞) 모두 썩은 선비의 몫이요 關府□鉞屬腐儒
묘당의 정해진 운명 □량(□良)만 알뿐이로다 廟堂成數知□良

의병들이 봉기하였으나 거느릴 사람이 없으니, 경시하는 웃음 견디지 못하였다. 이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터놓으며 시를 지어 말하였다.

하늘의 이리가 입 벌리고 꼬리 뻗으니 모두 밝아오는데 天狼呀啄旄頭明
나쁜 무리들은 세력을 등에 업고 이리 저리 서성이는구나 髡醜憑陵縱復橫

---

429) 정위조(精衛鳥): 고대 신화에 나오는 물새이다. 염제씨(炎帝氏)의 작은 딸인 여와(女娃)가 동해에 놀다가 빠져 죽은 화신이라 한다. 이 새는 원한이 사무쳐 서산(西山)의 나무와 돌을 물어다가 동해를 메운다고 한다. 『山海經 北山經』.

430) 모두(旄頭): 이십팔수의 하나인 묘성(昴星)으로, 오랑캐 별을 뜻한다. 이 별이 환하게 빛나면 흉수가 지고 호병(胡兵)이 전쟁을 일으킨다 한다. 『史記 天官書』 여기서는 왜의 침입을 모두(旄頭)에 비유한 것이다.

임금을 욕보인 신하가 감히 목숨을 아끼려 하는가　主辱臣敢愛軀命
위급한 시기엔 장차 반드시 영웅호걸 필요할 것인데　時危將必須豪英
분분하니 아이들도 극문(棘門)에서의 일 희롱하는구나　紛紛兒弄棘門戲
매우 가지런한 주로(周老)의 병영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整整誰開周老營
물에 비친 거울엔 엎드려 숨어있는 용 생겨나지 않았으니　水鏡不生伏龍蟄
아아 세상의 혼란스러움도 끝내 다스려지긴 어렵겠도다　吁嗟世亂終難平

또 말하였다.

사람을 만나는 곳곳마다 난리를 말하니　處處逢人話亂離
강남의 한 지역인 구자(龜玆)에서도 마찬가지라네　江南一片等龜玆
죽음에 이른 백성들이 싸우려는 마음을 품었는데　民情到死方懷戰
하늘의 뜻이 어찌 점점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랴　天意思安欲轉危
제갈공명(諸葛孔明)이 보존한 것 평소의 뜻 아니며　諸葛□存非素志
사안(謝安)[431]이 은거한 것 어찌 일찍이 기약한 것이랴　謝安高臥豈曾期
구름과 천둥 이미 가득함에 천하를 다스리는 일 이미 멀어졌으나　雲雷旣滿經綸遠
스스로 노력한 초심의 맹세 변치 않으리　運甓初心矢不移

또 말하였다.

하늘의 뜻은 무엇이길래 우리 동쪽을 야박하게 하였는고　天意如何薄我東
생민에게 녹이 없으니 다시 병에 걸려 흉해졌도다　生靈無祿更罹凶
머리칼은 나라를 걱정하느라 해마다 희어지는데　鬢毛憂國年年白
칼날의 기운은 하늘을 찔러 옷마다 붉어지네　釰氣衝霄衣衣紅
촌단(村短)은 의병들이 돕는다는 걸 믿지 못하고　村短不諶扶義旅
임금은 위급해지는데 어찌 미천한 내 몸 또 아끼랴　主危寧復惜微躬
오직 원하는 것은 하늘에도 닿은 부끄러움 한 번 씻어내　惟願一洗通天恥
운대에 그려진 공신 초상화 보는 것이라네】　肯顧雲臺彩華工】

---

431) 사안(謝安) : 320~385.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안석(安石)이다. 회계(會稽)의 동산(東山)에 20여 년 은거하면서 산수를 즐기며 조정에서 불러도 나아가지 않다가 40세에 환온(桓溫)이 그를 초청하여 사마(司馬)로 삼았다. 간문제(簡文帝)가 죽자 환온이 진나라를 찬탈하려고 사안을 겁박하였으나, 사안이 동요하지 않았으므로 환온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당시 통제사 이순신 공이 명량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보화도(寶化島)에 진군하여 주둔해 있을 때 군량미 보급로가 사방으로 끊겼다. 공이 위급함을 듣고는 즉시 자기 집에 쟁여둔 수백 석의 곡식을 다 털어 내어 물자를 대면서 "왜적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왜적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데 먹을 일이 있구나." 하니, 들은 자들이 의롭게 여겼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적들이 전군을 통틀어 북으로 진격해 오자, 마을 사람인 류지경(柳持敬) 공, 오정남(吳挺南) 공, 진경문(陳景文) 공 등 여러 의사(義士)들이 서로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 고을의 임 아무개는 의로운 사람이니, 우리들이 임 군의 명을 따르면 난리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인하여 공을 추대해서 장수로 삼았다. 그러자 공이 사양하기를, "지난번에 내가 종군했다가 주군(主君)의 기대를 저버린 일이 많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재차 일어난단 말이오. 나에게 권하지 마시오."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일에 임하여 오랜 벗을 잊지 않으니, 남보다 월등히 현명하십니다. 이런 분이 아니면 군중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고, 공을 굳게 추대하여 늦추지 않으므로, 군이 마침내 개탄하며 단상에 올라 피로써 맹세하였다.

【시를 지어 확고한 의지를 다짐하여 말하였다.

칼을 짚고서 의병과 함께 떨치고 일어나니	杖釰奮義旅
적들이 전사(戰死)하는 일을 초래했도다	招徠死綏師
이 날을 가리켜 국치(國恥)를 씻어낸 날이라 하니	指日雪國羞
나는 의리를 취함이 마땅함을 알겠노라	吾知熊掌宜】

깃발을 높이 걸어 소의장(昭義將)이라 칭하고, 상소를 올려 의병을 일으켰다.

【상소를 올린 뒤에 임금의 답신[回音]을 기다렸지만 이르지 않자 개탄하며 시를 지어 말하였다.

외로운 충신의 적적한 마음 한 통의 글에 담았으나	孤忠牢落一封書
꿈 속의 넋, 더디게 옥제(玉除)에 올라가는구나	夢魂遲依上玉除
사방의 많은 보루 중 누가 부끄러움을 품었는고	多壘四郊誰抱恥
백 년동안 양쪽 귀밑머리는 꺾여 듬성듬성해졌네	百年雙鬢頓成疏
안경(顔卿)은 출(朮)이 자신의 얼굴 알아볼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顔卿不待朮知面
제갈공명(諸葛孔明)은 하필 농막 속에 누워 있는 자를 아꼈는가	諸葛何須愛臥廬
□手는 군부(君父)를 욕되게 한 것 씻어내고자 하였고	□手欲湔君父辱
유속(流俗)이 앞다투어 비웃으니 한가하게 거처할 겨를 없도다	流俗爭笑未遑居】

마침내 팔도(八道)에 격문(檄文)을 돌렸는데, 응모하는 자들이 날로 많아지자 마침내 군대를 거느리고 왜적을 토벌하였다. 군대는 기강이 서고 호령은 분명하고 엄숙하였으며, 충성심이 격렬하고 의로운 함성이 크게 떨쳐졌다. 순찰사(巡察使) 황신(黃愼) 공이 이 일을 장계(狀啓)로 아뢰자, 특별히 공을 공조 좌랑에 임명하였다.

【석주(石洲) 권필(權韠)이 공의 의병 막사에 시를 지어 보냈는데 다음과 같다.

화각 소리 불어 일만 부엌 연기를 열고	畫角吹開萬竈煙
진은 운조를 가로 펼쳐[432] 산천을 누르도다	陣橫雲鳥壓山川
붉은빛이 땅에 있으니 창이 해를 걷어 올리는[433] 것이요	赤光在地戈揮日
흰 기운이 허공에 가득하니 검이 하늘에 기대 선 것[434]이지	白氣衝空釰倚天
조편[435]을 잡기도 전에 나는 늙었고	未着祖鞭吾光矣
반필[436]을 던지고 싶어도 뜻이 아득해라	欲投班筆意茫然
가련해라 옥장에서 가을밤 꿈은	可憐玉帳秋宵夢
도리어 서강에서 낚시하던 배를 둘렀구나	還繞西江舊釣船

당제(堂弟)인 운강(雲江) 인은(釰隱)이 작별 시를 지어 말하였다.

포의(布衣)로서 군대를 따라나서자 백발이 성성해졌으니	衣布從軍白髮生
남아의 씩씩한 절개, 나의 형에게로부터 온 것이네	男兒壯節倚吾兄

---

432) 진은 …… 펼쳐: 강태공(姜太公)이 지은 『육도삼략(六韜三略)』에 운조진(雲鳥陣)이란 진이 있다.

433) 창이 …… 올리는: 『회남자(淮南子)』 남명훈(覽冥訓)에 나오는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노 양공(魯陽公)이 한(韓)나라와 한창 전쟁을 하는데 해가 저물려 하자 창을 휘둘러 해를 걷어서 90리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한다. 당(唐)나라 왕한(王翰)의 고장성음(古長城吟)에 "장사가 창을 휘둘러 흰 해를 되돌리니 선우가 피를 뿌려 붉은 수레바퀴를 물들인다.〔壯士揮戈回白日 單于濺血汙朱輪〕" 하였다.

434) 검이 …… 것: 매우 긴 장검인 의천검(倚天劍)을 형용한 것이다. 의천검이란 말은 송옥(宋玉)의 대언부(大言賦)에 "네모난 땅으로 수레를 만들고 둥근 하늘로 덮개를 만들고 긴 검은빛이 번쩍이며 하늘 저편에 기대 섰다.〔方地爲車 圓天爲蓋 長劍耿耿倚天外〕" 한 데서 온 말이다. 이백(李白)의 임강왕절사가(臨江王節士歌)에 "장사는 분노하고 큰 바람이 이니, 어이하면 의천검을 얻어서 바다 건너며 큰 고래를 벨거나.〔壯士憤 雄風生 安得倚天劍 跨海斬長鯨〕" 하였다.

435) 조편: 조생지편(祖生之鞭)의 준말로 남보다 먼저 공을 이루었다는 뜻. 진(晋)나라 유곤(劉琨)이, 조적(祖逖)이 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친구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항상 조생이 나를 앞지를까 두려워했다." 한 고사에서 나온 말. 『晋書 卷62 劉琨傳』.

436) 반필: 반초(班超)의 붓이다. 반초는 집이 가난하여 관청의 고용인이 되어 서사(書寫) 품을 팔아 부모를 봉양하고 살며 매우 고생하였다. 하루는 붓을 던지고 탄식하기를 "장건(張騫)이 이역(異域)에서 공을 세워 후(侯)에 봉해졌는데, 어찌 오랫동안 글씨나 쓰고 있으리오." 하고는, 서역으로 사신 가서 50여 개 국이 한나라에 조공하도록 하여 서역도호(西域都護)가 되고 정원후(定遠侯)에 봉해졌다. 『後漢書 卷77 班超列傳』.

어려운 상황에 내 한목숨 바치는 것 아까워하랴　艱難肯惜捐軀命
힘을 다해 끝끝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기약하리라　戮力終期報聖明
이미 청평(靑萍)은 평소의 기개보다 더 뛰어 올랐으니　已見靑萍騰素氣
竚聞滄海斬長鯨　푸른 바다에서 왜적 목 베었다는 소리 들리길 기다리겠소
春光別思渾無賴　봄볕과 이별한 마음 이미 부질없으니
聊采汀蘭寄遠征】　애오라지 물가의 난이나 캐서 원정길에 부치리

당시 공의 등에 부스럼이 났는데 장수들이 모두들 걱정하는 기색이 있었다. 공이 탄식하며 "나라를 위해 거병하였는데 적을 섬멸하지 못했으니, 부스럼이 나서 죽는다 한들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하였다. 또 군량미가 부족하자, 공은 마침내 『악기탁약』을 새겨 수백 질을 간행하였다. 전국의 장수들이 와서 사지 않는 자들이 없으니, 몇 달이 채 안 되어 군량미에 여유가 생겼다.

당장(唐將) 왕만육(王萬育)이 그 책에 발문을 쓰기를, "『악기탁약』은 남월(南越)에서 편찬되었지만 조선의 임군에 의해 간행되었다. 임금께서 파천(播遷)하고 골육이 이별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의연히 분개하여 피눈물을 삼기며 복수를 함으로써 순수한 충성심이 밝게 드러나자, 궁벽한 시골의 노인과 어린아이들조차도 서로 이끌며 와서 의로운 장수로 추대하지 않는 이들이 없었다. 당시 도곤(都闡) 오 공이 대략 보고 상세히 말해주었는데, 내가 마침내 기쁜 마음으로 한 형주를 알기를[識荊] 원하였다. 한 번 만나 속을 터놓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 군(徐君)이 편찬한 『악기탁약』를 꺼내 보이며 간행해서 세상에 전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개 사람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을 끝내고 태평성대의 세상에 오르게 하고자 해서이니, 이것이야말로 공적인 마음가짐이다. 그 뜻은 태산처럼 높고 기상은 수많은 장정도 꺾지 못할 만큼 확고하여 곧바로 백만의 군대를 통솔하게 하더라도 옛날 명장들과 그 공을 겨룰 정도였다. 전란에 피폐한 국가를 회복하기로 맹세하고 도검(韜鈐)에 유의하는 것을 보니, 훗날 경예(鯨鯢)를 소탕하여 조선을 안정시키는 일을 나는 임 군이 해낼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 하였다.

당시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공이 중병(中兵)에 있었는데 공이 편지를 보내 병사(兵事)를 논하니, 이 공이 그 사자(使者)를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이어 묻기를 "임 군은 어떠하냐?"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기뻐도 일에 드러내지 않고 노여워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도량이 반드시 넓은 법입니다. 너그러움으로 군중을 인솔하니 군중도 이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당시 왜적 평행장(平行長)이 퇴각하여 순천부 남쪽 예교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해자를 파서 성채를 쌓아 오래도록 머물 계획을 하고 있었다.

무술년(1598, 선조 31) 9월에 명나라 제독 유정이 대군을 거느리고 내려와 남원과 곡성 사

이에 주둔하자, 공이 의병을 거느리고 거기에 합류하였다. 낙안 오른쪽 도로를 경유해서 해농창(海農倉)을 지나 진격하였다. 이달 19일에 아리참(阿里站)에 이르렀다. 여명에 군졸들을 지휘하여 산골짜기에 숨었다. 동틀 무렵 산에 올라 멀리 적의 형세를 살피고는 부총(副摠) 오광과 도모하기를 "여기에서 적이 있는 곳까지는 20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농의 들은 진흙탕에 구덩이가 패여 기세를 타기 쉽지 않으니, 반드시 근처에 매복해서 기다려야 적을 격파시킬 수 있습니다." 하니, 부총이 주저하며 따르지 않았다. 공이 즉시 정예 군졸 몇 개 부대를 뽑아 매복시키고 격투를 벌여 왜적 15명의 머리를 베었다.

그 다음날인 23일에 공이 유사(儒士) 정민준(鄭民俊) 등에게 술과 과일, 생선을 가지고 제독부(提督府)에게 바치게 하였는데, 제독이 상에 걸터앉아 가정(家丁)을 시켜 발을 씻는 중이었다. 통역 이억례(李億禮)가 보단(報單)[437]을 바치자, 제독이 즉시 발 씻기를 멈추고 일어나 이끌고 들어가 사례하였다. 다음날인 10월 1일에 제독은 공에게 왜적의 서문(西門)을 주로 공격하게 하였다. 다음날인 2일 사시(巳時)에 왜적 1백여 명이 서수문(西水門)을 나와 명나라 군사들을 어지럽게 공격하여 명나라 군사들이 많이 죽고 다쳤다. 공의 군대가 후진에서 편전(片箭)을 한꺼번에 쏘자 왜적이 후퇴하고 들어갔는데 두 차례나 이렇게 하였다. 날이 저물자 왜적 수천 명이 또 갑자기 목책(木柵) 밖으로 나와 칼을 휘두르며 정신없이 사람들을 베는데, 당시 부총의 병사들 가운데 사망자가 60여 명이나 되었고, 군사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더니 거의 궤멸되어 달아났다. 오직 공의 진영만이 호두포(狐頭浦)를 지키며 군대를 출격시켜도 흔들림이 없고 대오가 정돈되고 엄숙하였다. 강한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자 왜적이 예봉을 꺾고 물러나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명나라 여러 장수가 모두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기를 "막강한 군대는 진사군(進士軍)이다." 하니, 대개 공이 진사(進士)로 거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한 것이다. 마침내 관군(官軍)에 의해 무너져 대대적으로 결집하지는 못했다.

다음날인 3일에 제독부에서 밤에 공격할 것을 도모하자, 파총(把摠) 설대승(薛大勝)이 공에게 편지를 보내 "사천(四川)과 절강(浙江)의 군대는 창과 방패처럼 서로 협력하지 않으니, 오늘의 일은 불리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이에 공이 성을 공격하는 것의 어려움을 초안해서 제독부에 올렸고, 제독부에서는 가상하게 여기며 고려인의 계책이 쓰이지 않은 것을 의심하였다.

다음날인 5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공이 별장(別將) 우천상(禹天祥) 등에게 명하여 밤에 서쪽 항구로 들어가 적의 목채(木寨)를 뽑아 제독부에 가게 하였다. 다음날인 6일에 명나라 군대가 장황하게 운곡(雲谷)에 대진(大陣)을 펼치자, 사람들이 뛸 듯이 환호하며 소탕하는 날

---

437) 보단(報單): 관직에 진출하거나, 승진하거나 과거에 급제한 것을 알리는 통지서. 또는 중앙 관청에서 임금에게 사무를 알리기 위해 작성한 단자.

을 눈을 씻고 기다렸다. 그러나 제독부에서는 한 번 교전하고 조금 기세가 꺾이자 번번이 군대를 퇴각할 계획을 세우니,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개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실망하였다. 공이 분개하면서 "유 제독은 금은과 재물, 여색으로 왕실의 지친과 연결되어 출세한 자이다. 경솔하고 조급하여 희망이 없으며 장수들을 업신여긴다. 그리고 사천과 절강의 병사들은 서로 성공을 시기하고 장수들은 두 마음을 품어 함께 할 수가 없다." 하였다. 공이 예전에 정부에 있으면서 "유 장군은 용렬한 재목이라 큰일을 함께 이룰 수 없고, 게다가 싸우려는 마음도 없으니 틀림없이 화해한다고 물러설 것이다." 하니, 정부 이하가 서로 돌아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공의 말이 과연 부합하니, 사람들마다 공의 식견에 탄복하였다.

이날 밤 제독은 임시 제독을 정해 병사들을 이끌고 먼저 나갔다가 다음날인 7일에 병사를 철수하였고, 공은 순천 대로를 통해 퇴각하여 순천성 밖에 이르렀다. 공의 생각에는 제독이 재차 병사를 진격시키려는 기발한 계책이라고 여겨 다시 정예 기병을 이끌고 예교성으로 돌아가서 군량미 보급소에 이르렀는데, 군량미와 마초(馬草)가 다 불에 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침내 퇴각하여 돌아왔다.【이에 시를 지어 개탄스러운 마음을 적었다.

적장을 죽이니 태양도 숨는 듯 기운 다하기 어려웠지만	殺酋霄遁氣難卒
홀로 등등히 분개하여 춥게 어둠 속으로 들어갔네	孤憤凌凌寒入冥
9대의 복수 진실로 결연하니	九世復讐誠斷斷
작은 마음이 나라를 위하다 백발 성성해졌도다	寸心爲國鬢星星
하늘을 능멸할만한 칼날의 빛깔 공연히 상자 안에 감추고	凌霄釰色空藏匣
적을 섬멸할 기이한 방법이 이미 마을을 평안하게 하였네	殲賊奇方已閣枰
나는 또한 그늘로 나아가 장차 쉴 것이로다	吾亦就陰將息影
봄에 달려가 합강정(合江亭)에서 점치면서	赴春應卜合江亭】

명나라 총독 형개 상서가 선묘대왕(宣廟大王)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본국의 여러 장수 가운데 오직 진사 임환의 군대가 항상 제군(諸君)의 으뜸이라고 첫째로 칭하였다. 군대를 해산하자 특별히 공을 무주 현감에 임명하였다. 부임하여 학문을 권장하고 아전을 단속하자, 아전과 백성이 옳게 여겼다.

다음 해 명나라 지휘사 오 공[吳宗道]이 아뢰어 접반관(接伴官)으로 삼았다. 해주에 당도하여 공의 형님인 남병사(南兵使, 순恂) 공이 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며 그곳을 가려고 하였으나 오 공이 차마 놔주지 않았다. 그러자 공이 마당에서 6일 동안이나 통곡하면서 주식(酒食)도 물리치고 먹지 않으니, 오 공도 그 의리에 감동되어 공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작별하였다.

그다음 해 직산 현감(稷山縣監)에 제수되었다. 일찍이 일 때문에 서울에 들어갔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우계 성혼을 배척하였다. 그러자 도성의 학생 가운데 성씨(成氏)의 학문을 높이는 이들이 장차 언론을 세워 해명하고자 공을 기다려 그 의논을 결정하려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진작부터 이미 공을 호시탐탐 주시했던 터였다. 공은 분개하며 "우계는 유림이 스승으로 여기는 자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처럼 배척되었다. 그런데도 유학자로서 그가 배척당하는 것을 구제하지 못하니, 어찌 유학자라 하겠는가." 하였다. 유림이 이에 공의 의견을 지지하며 상소를 올리자, 당시 권력자들이 분노하며 공을 탄핵했다. 공이 상황은 불리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으니, 마침내 김대래의 탄핵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공은 오히려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궁벽한 마을에 숨어 살면서 오직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랠 뿐이었다. 갑진년(1604, 선조 37)에 문화 현령(文化縣令)에 특별히 제수되었다.

【문화현에 도착하여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아한 기운이 빠지니	脫略靑霞氣
꺾여서 펼 수 없게 되었도다	摧藏不得伸
그대는 다섯 말의 쌀을 아는가	君知五斗粟
일생 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誤此百年身】

또 지난날의 일에 연좌되어 권세가의 배척을 받고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말 위에서 절구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에게 극진히 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남아의 뜻인데	致君□世男兒志
병착(柄鑿)은 허용되기 어려우니 어이할꼬	柄鑿難容奈爾何
홀(笏)을 잡고 청삼(靑衫)입는 것이 어찌 잠깐이리오	手板靑衫胡臾事
돌아가 옛 덩굴들 사이에 누워있는 것만 못하리라	不如歸臥舊雲蘿】

고향에 돌아와서는 창의사 김공을 위하여 사우(祠宇)를 세울 것을 논의하고 조정에 사액을 청하였으며, 별도로 의곡(義穀)을 저장하여 남의 혼사(婚事)와 상사(喪事)를 구제하였으며, 인하여 향리의 자제들을 모아서 부지런히 가르쳤다. 그리고 공의 사람됨은 도량이 넓고 크며 성실하고 신실하여 거짓이 없었다. 그 때문에 창의사의 아들 김상곤이 죽음에 임박하자 글을 써서 자신의 처자식을 부탁하였는데 공이 시종 보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중국 장수 이의(李義) 또한 순천에 있을 때 자기 애첩을 공에게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중조(中朝)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공에게 부탁하는 것은 공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오종도 공

또한 환조(還朝)하던 날에 유복자(遺腹子)를 공에게 부탁하였다. 이 때문에 공의 명성이 중국에까지 알려져 삼오(三吳)의 선비들은 지금까지도 공을 칭찬하고 사모한다고 한다.

만력 무신년(1608, 선조 41) 5월 11일에 졸하니 향년 48세이다. 부고가 원근에 전해지자 공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이 모두 실성하며 통곡하였다. 계모산(雞茅山)에 장사 지내던 날에는 여러 고을 사람들이 다 와서 모여서 곡하였으며, 이 소식을 들은 안팎 사람들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남중(南中)의 쾌사(快士)가 죽었으니, 의(義)를 행할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공은 2등 공신에 녹훈되었고, 죽은 뒤에 남쪽 유림들이 의견을 내어 사당을 건립하자는 상소를 조정에 올려 청하자, 숙묘조(肅廟朝)에 이전의 공적에 대해 뒤늦게 포상하고 특별히 좌승지에 추증하였다.

출전 : 나주의병 종합학술조사 번역팀 최연숙 역

習靜公遺事【并見于李白沙碑狀趙玄洲壙誌陳剡湖日錄唐將等簡編中】

公諱懽。字子中。號習靜。又號醉竹。生於嘉靖辛酉五月十三日。爲人眉廣。眼如星。豊頰長身。善射御。尤善於詞翰。忠孝友愛。實天出。而義所在。勇蹈忘己。貴育不能遏。十一丁內艱。二十七丁外艱。守禮持喪。幼壯無異儀。撫養孤姪。恩若已出。性仁且毅。親屬向學者。必收誨之。苟飢寒。雖路人。賑貸如不及。苟不禮。雖壯姪大孫。猶笞責不饒。袞衣大冠。儼坐終日。一室之內。嚴若朝廷。家小莫敢仰視。所處無不懾憚。臨事必相戒曰。某在此。得無聞知。萬曆庚寅。司馬。壬辰之亂。公以白面。首從倡義使金公【千鎰】擧義。金公素服公之信義。卽署公爲從事。雖以倡義之强。屈首信服。秉忠繩義。綱紊而目擧者。皆公之力也。公以爲江華水路要衝。守此可以爲興復之根。卒遂勸倡義使。移軍江華。以窺京城。倡義使悉以軍事委公。事以辦治。一軍屬心。時王世子次遂安。公自江華入朝。留二日。三上章。固請移駕南下。以樹中興之基業。時朝廷拜公司圃署別提。帶職而還。一日。以微服。徒步入京城於亂賊中。跟舊舍。搜得廟主。背負以歸。明年。寇退。公首入京城。先倡建學之議。遂與倡義使金公。踵賊以南。皇朝指揮使吳公【宗道】。一見嗟異。許以死生曰。某義人也。請與偕行。至尙州。公遭癘疾。不能執鐲。舁歸于家。【別吳公詩曰。桑夷捲甲昔遁逃。諸將雷奔萬馬号。我領孤軍探号穴。君揮長數剖龍韜。威聲渡海南荒□。釰氣衝天北極高。一病未能售壯志。慢懷幽憤泣江皐。又曰。龍光未試發研初。寒夜□精射斗□。無可奈何元命也。末之難矣果歸歟。】後聞倡義使獨入晉州城。陷而死。咳曰。嗟乎。丈夫與人起事。忍使其獨死耶。以不得偕沒爲平生慟。自是絕意於世。築室海上。日以魚鳥自樂。【作詩自遣曰。長身偃蹇入尺餘。晦跡誰知湖海豪。抱膝吟來思管樂。致君時去歎伊咎。讀書取義不甚解。飮酒放懷無太勞。目送飛鴻傲萬物。時聽匣釰衣中號。】時兵後浮民。流入本道。尸相枕者。以千計。公曰。吾赤子也。隨分賑給恐後。擇其中良家子。可敎以興者。養於家而勸之學。歲定而後。遣之。丁酉春。倭賊再擧渡海。【公作詩吟哀曰。林臥常懷大國憂。髮如蒲蘆已驚秋。戈矛慧日黃塵合。鼓角凌空赤羽浮。手裡陰符看已熟。眼前兵書坐張

籌。謂川卜獵嗟達暮。中衣郡堪涕泗流。又曰。書生自許萬夫雄。早業陰符眼已空。車君本知臣職大。顔卿豈待主恩隆。黔黎暴骨荒原白。旌旆凌雲絕徼紅。閭了曉鷄頻起舞。暮年義氣化作虹。又曰。悠悠世事忍重陳。自歎吾生際不辰。一代朝市移面勢。百年陵寢染腥塵。載天敢作偷生計。鳴釰韋須伏節人。寧死願爲精衛鳥。西山追遞海無津。聞鍾城受圍。曉起歎曰。江月欲出山蒼然。幽人起坐心如煎。水村喔喔何處鷄。似勸舞神能回旋。出戶視天獨彷徨。天狼呀啄旄頭芒。聞說强胡斬榆關。羽書翩翩入昭陽。關府□鉞屬腐儒。廟堂成數知□良。義旅蜂起。無人統領。不堪一笑。作詩攄懷曰。天狼呀啄旄頭明。髡醜憑陵縱復横。主辱臣敢愛軀命。時危將必須豪英。紛紛兒弄棘門戲。整整誰開周老營。水鏡不生伏龍蟄。吁嗟世亂終難平。又曰。處處逢人話亂離。江南一片等龜玆。民情到死方懷戰。天意思安欲轉危。諸葛□存非素志。謝安高臥豈曾期。雲雷旣滿經綸遠。運甓初心矢不移。又曰。天意如何薄我東。生靈無祿更罹凶。鬢毛憂國年年白。釰氣衝霄衣衣紅。村短不諶扶義旅。主危寧復惜微躬。惟願一洗通天恥。肯顧雲臺彩華工。】時統制使李公。【舜臣】嘬鋒鳴梁。進駐寶化島。粮道四絕。公聞急。卽罄儲數百斛以資曰。有賊則有食而無食。無賊則無食有食。而聞者義之。小選。賊悉衆北上。鄉人柳公【持敬】吳公【挺南】陳公【景文】諸義士相聚。謀曰。吾鄉林某。義人也。吾屬聽於林君。可以濟亂。因推以爲將。公辭曰。日吾從戎。負主君多矣。何心再起。毋庸勤我。衆曰。臨事不忘故。其賢於人遠矣。非是。衆莫與也。固持公不解。公遂慨然登壇。歃血爲盟。【作詩矢志曰。杖釰奮義旅。招徠死綏師。指日雪國羞。吾知熊掌宜。】揭旗號曰昭義將。抗疏擧義。【封疏後佇待。回音不至。慨然作詩曰。孤忠牢落一封書。夢魂遲依上玉除。多壘四郊誰抱恥。百年雙鬢頓成疏。顔卿不待朮知面。諸葛何須愛臥廬。□手欲湔君父辱。流俗爭笑未遑居。】乃傳檄八道。應募者日衆。遂領軍討賊。軍行有紀。號令明肅。忠誠激忉。義聲大振。巡察使黃公。【愼】以狀 聞。時除工曹佐郎。【卽權石洲韠題公義兵幕曰。畫角吹開萬竈煙。陣横雲鳥壓山川。赤光在地戈揮日。白氣衝空釰倚天。未着祖鞭吾光矣。欲投班筆意茫然。可憐玉帳秋宵月。還繞西江夢裡船。堂弟雲江釰隱奉別詩曰。衣布從軍白髮生。男兒壯節倚吾兄。艱難肯惜捐軀命。戮力終期報聖明。已見青萍騰素氣。竚聞滄海斬長鯨。春光別思渾無賴。聊採汀蘭寄遠征。】時公疽發背上。將士皆有憂色。公歎曰。爲國擧義。力不能殲賊。雖疽發而死。有何憾焉。且軍粮不足。公乃刊握機橐籥。印出數百帙。一國將士。莫不來買。不數月。軍食有餘。唐將王萬育。跋其尾曰。夫握機橐籥。纘編於南越。梓成於東國林君。見父播遷骨肉離折。乃毅然發憤。飮血復讐。精忠耿著。雖窮閭老功。靡不相率。推爲義帥。時都閫吳公。槩見而詳道。予遂欣然願一識荊。一見傾譚。亹亹不已。因出徐君所授握機示。將梓而傳之。蓋欲人皆戞難。而躋世於昇平。此其用心之公哉。且志屹泰山。氣確萬夫。卽使提衡百萬。雖與古名將。爭烈可也。觀其矢心恢復。留意韜鈐。異日掃蕩鯨鯢。奠安東土。余將顒望林君云。時白沙李公【恒福】處中兵。公致書論兵事。李公對使拜謝。因問曰。林君何如。其人曰。是夫也。喜不形事。怒不及色。喜怒不見。中必汪汪。寬以御衆。衆以是歸云。時倭賊平行長。退據順天府之南曳橋。掘濠築壘。爲久留計。戊戌九月。皇朝提督劉【綎】。率大軍。下屯南原谷城之

間。公以義兵屬焉。由樂安右路。越海農倉以進。是月十九日。至阿里岾。黎明。麾詣士卒。匿諸山谷。平明。上山瞭賊勢。謀於副摠吳廣曰。此距賊路。二十里許。且海農之野。泥濘坎陷。未易乘機。必設伏近路。以要之賊。可破也。副摠遲疑不從。公卽抄精卒數隊。設伏搏戰。斬賊十五級。越翌日二十三。公命儒士鄭民俊等。奉酒果魚品。進提督府。提督方踞床。令家丁洗足。譯者李億禮呈報單。提督卽輟洗。起立引入禮謝。越十月初一日。提督。以公主攻賊西門。翌日初二巳時。賊百餘出西水門。亂搏天兵。天兵多死傷。公軍在後。叢發片箭。賊退入。如是者再。日至暮。賊數千。又突出木柵外。踴釰亂斫。時副摠兵死者六十餘。兵勢披靡。幾至潰奔。獨公一陳。守狐頭。勤兵不動。行伍整肅。勁矢如雨。賊嘬鋒退縮。不敢出。皇朝諸將。皆嘖舌歎曰。莫强者。進士軍也。盖以公進士擧義稱也。竟爲官軍所轢。不得大集焉。翌日初三。督府謀夜攻。把摠薛大勝。書示公曰。川淅兵予盾。不相協力。今日之事。恐不利也。於是。公草攻城難易。進督府。督府嘉之。嫌其麗人之策不用。越翌日初五。陰而風。公命別將禹天祥等。夜入西港。拔賊木寨。進督府。翌日初六。天兵張皇。形勢大陣雲谷。郡心歡躍。掃蕩之期。□目佇覩。而督府一交。少挫。輒有退師之計。衆情怨憤。相顧失色。公憤然曰。劉提督。以金銀財色。締結肺腑。以爲拔身者。輕躁無望。將士慢侮焉。且川淅兵互忌成功。將士離貳。不可爲矣。公前在政府曰。劉將軍。庸材也。不可與濟大事。且無戰心。必以和退。政府以下。相顧不答。至是。所言果合。人人服公之識鑑。是夜。提督假定提督。率兵先出。翌日初七。撤兵。公由順天大路。以退至順天城外。意謂提督再進兵之奇計。更率精騎。還向曳橋。至粮所。則粮草盡已火燒。無如之何矣。遂退還。【作詩以敍慨憤曰。殺酋霄遁氣難卒。孤憤凌凌寒入冥。九世復讐誠斷斷。寸心爲國鬢星星。凌霄釰色空藏匣。殲賊奇方已閣枰。吾亦就陰將息影。赴春應卜合江亭。】皇朝摠督邢尙書【玠】。見 宣廟大王。首稱本國諸將。惟進士林懽兵。常冠軍云。兵罷。特除公茂州。到官勸學束吏。吏民宜之。明年。爲皇朝指揮使吳公所奏。起以接伴官。到海州。聞兄南兵使公。卒於官。號哭欲赴。吳公不忍釋手。公通哭六日。辟奠不飧。吳公亦感義。執手哭別。明年。除稷山。嘗因事入京。時朝議斥成牛溪。都中學子宗成氏之學者。將立言以解之。待公定議。時人視公。固已耽耽矣。公慨然曰。牛溪儒所師。而斥於時如此。儒而不救其斥。豈儒哉。儒於是。持公議抗疏。當路者怒駁公。公跡屈而志伸。竟爲金大來所劾去。公猶不樂。落南伏窮里。惟詩酒蕭灑而已。甲辰。特除文化。【到縣作詩曰。脫略靑霞氣。摧藏不得伸。郡知五斗粟。誤此百年身。】又坐前所爲。爲權貴所忌斥。乃棄歸。【馬上占絕句曰。致君□世男兒志。柄鑿難容奈爾何。手板靑衫胡臾事。不如歸臥舊雲蘿。】及還鄕。爲倡義使金公。議建祠宇。請額于 朝。別藏義穀。以賙人昏喪。因聚鄕子弟。敎授不怠。且公爲人。雅量寬弘。誠信無僞。故倡義使之子金衆坤。臨死以書。托其妻子。公終始保持不怠。天將李義在順天。亦托其愛妾曰。我不于中朝人。而于公者。知公信也。吳公【宗道】還朝之日。亦托以遺腹。以是名聞中華。三吳士人。至今稱慕云。卒於萬曆戊申五月十一日。享年四十八。訃傳遠近。知與不知。皆失聲慟哭。及葬。鷄茅會哭者。數郡畢至。中外聞者噫曰。南中快者。亡矣。無爲爲義矣。公錄二等功錄券。沒後。南儒發議建祠。疏請于朝。肅廟朝。追

褒前功。特贈左。 출전 : 임형택 편, 『습정유고』, 민창사, 2006

(24) 임환(林懽), 『습정유고(習靜遺稿)』 부록1, 「유사(遺事)」

공의 휘는 환, 자는 자중(子中), 호는 습정(習靜)이다. 임 씨는 옛 신라의 명망있는 집안이다. 조부 휘 붕(鵬)은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지냈고, 아버지 휘 진(晉)은 관서 절도사(關西節度使)를 지냈다. 공은 나면서부터 영특하고 천성적으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다. 만력 경인년(1590, 선조 23)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다. 임진왜란에 창의사 김천일 공이 공을 불러서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 강화에 군대를 주둔시켜 경성(京城)을 도모하면서 병무(兵務)를 다 공에게 맡기자 온 군이 모두 마음을 의탁하였다.

당시 왕세자는 수안(遂安)[438]에 머물고 있었다. 공이 글을 받들고 입조하여 이틀 동안에 여러 번 글을 올려서, 거가(車駕)를 옮겨 남쪽으로 내려가서 중흥(中興)의 기업(基業)을 세우자고 청하였는데 특별히 사포 별제(司圃別提)[439]에 제수하였다. 왜구가 퇴각하자 마침내 김 공과 적을 쫓아 남하하다가 상주에 이르렀다. 그런데 병에 걸려 군사를 거느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440] 가마에 실려[441] 집으로 돌아갔다. 김 공이 홀로 진양(晉陽)에 들어갔다가 성이 함락되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삼키며 탄식하기를, "남자가 남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서 차마 그 사람만 죽게 하고 나만 살 수 있단 말인가."이라 하니, 늘 평생의 사무치는 한으로 여겼다.

정유년(1597, 선조 30)에 왜적이 재차 침공하여 호남과 호서지방을 다 유린하였다. 고을의 의병들이 서로 모여 논의하기를, "우리 고을의 임 아무개는 의리와 명망이 잘 알려져 있으니 추대하여 의병을 일으킬 만하다." 하였다. 공이 이를 딱하게 여겨 대장 자리에 올라서 격문을 돌리는 한편 이 일에 대해 상소를 올렸는데, 특별히 공조 좌랑(工曹佐郎)에 제수되었다. 왜교 싸움에서 명나라 군이 보루를 압박하자 적병 수천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하였는데, 공만은 활을 더욱 굳게 거머쥐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자 명나라 장수가 혀를 내두르며 "막강한 군대는 진사군(進士軍)이다."라고 하였다. 왜적의 기세가 주춤하였고 마침내 관군에게 몰살당하였는데, 군중에서는 소의장군(昭義將軍)이라 불렀다.

상서(尙書) 형개(邢玠)[442]가 선조 임금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맨 먼저 본국의 여러 장수 가운

---

438) 수안(遂安): 지금의 황해도(黃海道) 수안군(隧安郡) 지역으로, 교통의 요지였다.

439) 사포별제(司圃別提): 사포서(司圃署)는 궁궐에서 관리하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일을 맡은 관청이며 별제는 6품 관직이다.

440) 대본에 '病不能執' 뒤 한 글자가 불명한데, 『백사집(白沙集)』 권2 「전 문화 현감 임공 묘지명(前文化縣監林公墓誌銘)」에 '病不能執鐲'이라 나와서 이를 토대로 빠진 글자를 보충해 번역하였다.

441) 대본에 '羿歸于家'의 '羿'를 '舁'로 고쳤다.

442) 형개(邢玠): 1540~1612): 명나라의 장수로 자는 진백(搢伯), 호는 곤전(昆田)이다. 1571년에 진사가

데 오직 임 아무개의 군대가 항상 제군(諸君)의 으뜸이라고 칭찬하였는데, 당시의 사실이 모두 「진섬호일록(陳剡湖日錄)」[443]에 실려 있다. 전쟁이 끝나자 특별히 공을 무주 부사(茂州府使)에 제수하였는데 마음에 맞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돌아갔다. 다음 해 직산 현감(稷山縣監)의 신분으로 일 때문에 서울에 들어갔다. 당시 조정에서는 우계 성혼 공을 지탄하는 것이 공론이었는데, 공만 홀로 항의하며 꿈쩍하지 않았다. 마침내 시론에 배척당해 뜻을 펴지 못하자, 그길로 남쪽으로 돌아와 자연 속에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달랬다.

창의사 김 공을 위하여 사우를 세울 것을 의논하고서 조정에 사액을 청하였다. 만력 무신년(1608, 선조 41)에 공은 서울 집에 있다가 병든 몸을 싣고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이윽고 용당(龍塘)[444] 별장에서 세상을 떴다. 호남의 선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모두 놀라 통곡하며 "의사(義士)가 죽었다." 하였다.

공은 평소 그릇이 크고 풍채가 뛰어났다. 명나라 장수 오종도가 한 번 보고는 감탄하여 생사를 함께 할 것을 맹세하며 "아무개는 의사(義士)입니다."라고 하고, 명나라로 돌아가는 날에 남겨진 자식을 공에게 부탁하였다. 명나라 장수 이의는 순천을 맡고 있었는데 또한 자기 애첩을 공에게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명나라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공에게 부탁하는 것은 공의 성실함을 알기 때문이다." 하였다. 창의사의 아들 상곤이 죽음을 앞두고 글을 써서 공에게 자신의 처자식을 부탁하며 "그대는 시종 잘 보호하여 죽을 사람이 산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뜻을 저버리지 마시게." 하였으니, 당시 벗들 가운데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변하지 않는 공의 의리를 볼 수 있다.

백사 선생께서 행장을 쓰시면서 "공은 나의 벗인 백호의 막내아우이다. 내가 얼른 인도하여 자리로 올려 앉히고 막역의 친구로 삼았다." 하였다. 현주 조 공은 또 묘갈명을 쓰면서 "군을 알기 전에 벗이 많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모두 얼굴만 아는 정도였고, 군을 안 이후에도 벗이 적지는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다 안면만 있었다. 벗 가운데 내 마음에 늘 있던 이는 오직 우리 군 한 사람 뿐이었다." 하였다. 죽음(竹陰) 조공[445]이 권첩(卷帖)에 쓰기를, "나의 벗들 사이에서 의를 좋아하며 충성되고 믿음직한 사람을 들 때는 반드시 '임 자중, 임 자중'이라고 말한다. 내가 한 번 얼굴을 뵙고 싶었는데 늦게 알게 된 것이 유감이다." 하였다. 청음 김

되어 순무(巡撫) 등을 역임했다. 1597년에 계요 총독(薊遼總督)으로 파견되어 왜군을 크게 무찔러서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이르렀다. 조선에서는 선무사(宣武祠)라는 사당을 세워 그 공을 기렸다.

443) 「진섬호일록(陳剡湖日錄)」: 진경문(陳景文, 1561~1642)의 『섬호집(剡湖集)』에 실린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인 듯하다.

444) 용당(龍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三湖邑) 용담리이다.

445) 조공(趙公): 조희일(趙希逸, 1575~1638)로 자는 이숙(怡叔), 호는 죽음·팔봉(八峯), 본관은 임천(林川)이다. 1601년 진사시에 장원급제하였다. 허균(許筠)과도 교유했고, 문장과 서화에 모두 재능이 있었다. 저서로는 『죽음집』 등이 있다.

공은 그 만사를 지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청동에서 훌륭한 명성을 듣고	三淸洞裡挹英風
창의군에서 눈물 훔치며 만났네	倡義軍中拭淚逢
말세의 부침에 안목 갖춘 자 적은데	末路沈冥具眼少
고아한 정취와 큰 배포는 옛사람과 같았지	高情濩落古人同
성남에서 헤어져 해 지나도록 꿈에 보였건만	城南解手經年夢
지하 수문랑으로 저세상에 들어가셨네	地下修文隔世容
이제 호산에도 주인 없는데	從此湖山亦無主
구림[446]도 적막하고 회진도 비었구나	鳩林寂寞會津空

여러 현자가 서로 인정하는 교분이 이처럼 정중하니, 공의 대략적인 모습을 다 알 수 있다.

공은 2등 공신에 녹훈되었으며, 녹권(錄券)은 본가에 있다. 사망 후 1백여 년이 지난 뒤에 호남 유림들이 사당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내어 조정에 상소를 올려 청하자, 숙종 때에 이전의 공적을 늦게나마 포상하고 특별히 좌승지에 추증하였다. 공의 별방(別房) 양씨(梁氏)는 진사 산룡(山龍)의 따님이다. 정유재란에 난리를 피해 섬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적의 배를 만나 해코지당할 우려가 있자, 의리상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다. 난리가 평정된 뒤에 용당 별장에 정려각을 세웠다.

출전 : 나주의병 종합학술조사 번역팀 역

公諱懽。字子中。號習靜。林。舊羅之望族。祖諱鵬。慶州府尹。考諱晉。關西節度使。公生而穎脫。孝友天得。萬曆庚寅。進士。壬辰亂。倡義使金公千鎰。辟公爲從事。駐兵江華。以規京城。悉以兵務委公。一軍皆屬心。時王世子次遂安。奉書入朝。二日三上書。請移駕南下。以圖中興基業。特除司圃別提。及寇退。遂與金公。踵賊南下。及至尙州。病不能執鐲。舁歸于家。聞金公獨入晉陽城陷而死。飮泣而嘆曰。男兒與人起事。忍使彼死而此生哉。常以爲平生至恨。逮夫丁酉。賊鋒再猘。兩湖盡磔。鄕中義旅。相聚而謀曰。吾鄕林某。義望俱著。可推而爲倡。公乃慨然登坍傳檄。奉疏。特除工曹佐郎。倭橋之役。天兵壓壘。賊兵數千。敢死突出。公獨勤弧仰堅。少不爲動。天將嘖舌曰。莫强者。進士軍也。賊不得大肆。竟爲官軍所轢。軍中號曰昭義將軍。邢尙書玠見上。首稱本國諸將。惟林某兵。常冠軍。其時事實。俱載於陳剡湖日錄中。兵罷。特除茂朱府使。如有所不樂。棄官而歸。明年。以稷山縣監。因事入京。時朝論指斥牛溪公。獨抗言不撓。竟爲時論所擠。落斥不

446) 구림(鳩林) :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郡西面)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得志。因以南還。以山水詩酒自寓。爲倡義金公。議建祠宇。請額于朝。萬曆戊申。公在京第。舁疾南下。因卒于龍塘別墅。南士聞之。莫不驚恫曰。義士死矣。公平生磊落其器。嶷嶷其儀。天將吳宗道。一見嗟異。許以死生之契曰。某義士也。及還。托其遺兒。天將李義任順天。亦托其愛妾曰。我不于中州而人于公者。知公誠信故也。倡義使之子象坤。臨死以書。托其妻子于公曰。君可終始保護。毋孤幽明勤托之意。可見當時儕友中死生無間之義也。白沙先生題其狀。公是吾友白湖季也。一肅升筵。定爲莫逆交。玄洲趙公。又題其銘曰。前君。友非不多。而皆面也。後君。友非不少。而皆面也。友不外。而于其中者。惟吾君一人而已。竹陰趙公。題其卷帖曰。吾儕朋輩間。好義而忠且信者。必曰林子中。林子中。余欲一識其面。而恨相見之晚。淸陰金公。題其輓軸曰。三淸洞裡挹英風。倡義軍中拭淚逢。末路沈冥具眼少。高情濩落古人同。城南解手經年夢。地下修文隔世容。從此湖山亦無主。鳩林寂寞會津空。諸賢相許之契。若是鄭重。則足以盡公之梗槩矣。公錄二等功。錄券在本家。沒後百餘年。南儒發議建祠。疏請于朝。肅廟朝。追褒前功。特贈左承旨。公別房梁氏。進士山龍之女也。丁酉避亂入海。猝遇賊舡。有見逼之慮。義不汚身。投海而死。亂平後。旌閭于龍塘別墅。

출전 : 임형택 편, 『습정유고』, 민창사, 2006

(25) 성해응(成海應),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54 「초사담헌 1(草榭談獻一) 임환 · 송제민(林懽 宋齊民)」

임환의 자는 자중(子中)이고, 호는 습정(習靜)이며, 본관은 나주이다.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만력(萬曆) 임진년(壬辰年)에 창의사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임환을 불러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서 강화도에 병사를 주둔시켰다. 당시 광해군은 수안(遂安)에 있었는데, 임환이 수안으로 찾아가 광해군을 알현하고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거가를 호남으로 옮겨 중흥의 터전을 세울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돌아올 때 왜구들 속으로 잠입하여 종묘의 신주를 되찾아왔다.

이듬해에 왜구가 물러가자 김천일과 왜구를 추격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상주에 이르러 병이 심해져 가마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다. 김천일이 진주에 들어갔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탄식하기를 "아아! 장부가 이미 다른 사람과 약조를 맺어놓고 어찌 그 사람만 홀로 죽게 했단 말인가." 하고,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뜻을 끊고 바닷가에 집을 지어 낚시하며 지냈다.

정유년에 왜구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통제사 이순신이 명량에서 왜구를 대파하고 보화도에 주둔했다가 식량이 끊기자, 임환이 즉시 곡식 수백 섬을 내놓아 그를 구제하였다. 왜구가 전군을 이끌고 북으로 올라오자 고을 사람들이 모여 의병을 일으키고 임환을 찾아와 장군이 되어주기를 청했다. 임환이 사양하며 "나는 김 창의사를 저버렸으니 다시 일어나 장군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는 예전의 충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충심이 있어야 일을 이룰 수 있으니, 우리들은 그대가 아니면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임환이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 순찰사 황신이 사실을 조정에 알리니, 조정에서 특별히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제수하였다.

예교(曳橋)의 전투에서 임환은 고두성을 지켰는데, 왜적들이 갑자기 침범하자 명나라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으나 임환의 군대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때부터 다른 병사들이 임환의 군사를 '진사군'이라고 불렀다. 당시 명나라 장수 유정이 정예병 4만을 거느리고 순천에 주둔하였는데, 군대의 위용이 매우 성대했기에 사람들은 모두 왜적을 금방 섬멸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임환이 유정을 한번 만나보고 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유공은 싸울 마음이 없다. 그는 필시 화친을 맺고 물러갈 것이다." 하였는데, 그의 말대로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임환은 주현을 다스리며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시험하였다. 그러나 평소 자신이 섬긴 우계선생을 당시 사람들이 공박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데다 여러 차례 탄핵까지 받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숨어 지냈다.

일찍이 김천일을 위해 사당을 건립하고 조정에 사액을 요청하니, 군자들이 말하길 "의리를 좋아하며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임환이 신의가 있다고 알려지니, 김상곤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처자식을 부탁하였고, 명나라 장군 이의는 애첩을 부탁하며 "명나라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대의 신의를 알기 때문이다." 하였다. 또 명나라 장군 오종도가 돌아갈 때도 유복자를 부탁하였다.

출전 : 손혜리·이성민 역, 『연경재 성해응의 초사담헌』, 사람의무늬, 2015

林懽字子中號習靜。羅州人。中進士。萬曆壬辰。倡義使金千鎰起義師。辟懽爲從事。駐兵江華。時光海君在遂安。懽入謁。三上書請移駕湖南。以立中興之基。及還潛入倭寇中。以廟主歸。明年寇退。與千鎰踵倭而南。至尙州病甚。舁歸鄕里。聞千鎰入晉州死之。太息曰嗟呼。丈夫旣與人約。忍使之獨死耶。自是絕意於世。築室海上。以漁釣自娛。丁酉倭再動。統制使李舜臣大破賊鳴梁。軍于寶化島粮絕。懽卽捐穀數百石贍之。倭悉衆北上。鄕人相聚起義。往請懽爲將。懽辭曰我負金倡義。不可復起爲將。衆曰不忘故忠也。忠以濟事。衆非公莫與也。懽強應之。巡察使黃愼以聞。特拜工曹佐郎。曳橋之役。懽守孤頭。倭猝犯之。天兵亂。懽軍獨不動。自是諸軍號曰進士軍。時天將劉綎以精兵四萬屯順天。軍容甚盛。人皆以爲殄倭在朝夕。懽一見出語人曰劉公無戰意。必以和退。果然。兵罷。懽爲州縣自試。然懽素事牛溪先生。時人方攻牛溪。懽不得安。屢以劾去。屛伏鄕里。嘗爲千鎰建祠。請額于朝。君子曰嗜義不倦。懽以信聞。金象坤將死托家孥。天將李義托其愛妾曰。不于天朝人而于公者。知公信也。天將吳宗道還。亦托遺腹子。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연경재전집(https://db.itkc.or.kr/)

(26) 조찬한(趙纘韓), 『현주집(玄洲集)』, 권15상, 「임군 습정 묘지명(林君習靜墓誌銘)」

그대를 만나기 이전의 벗이 많은데, 모두 안면만 있었고, 그대를 만난 이후의 벗 또한 적지

않은데 모두 안면만 있었다. 진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를 벗하는 것은 오직 그대뿐인데, 그대가 떠난 것은 벌써 6년이요, 다만 나 혼자 살아남으니 그대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리오. 슬프도다. 어찌 차마 그대의 일을 서술하여 그대의 묘지를 지어 저승의 무덤을 덮고 이승에 내걸으리오.

그대는 눈썹이 넓고 눈은 별처럼 빛이 났으며, 두툼한 뺨에 키가 컸다.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으며 술을 즐겨 끝이 없었는데 취하면 번번이 농담도 잘해서 온 좌중이 크게 웃지 않은 적이 없었다. 충효와 우애는 실로 하늘에서 나왔으며, 의리가 있는 곳이라면 자신을 잊고 용감하게 뛰어들었으니 맹분과 하육도 막지 못할 정도였다. 임진왜란 때 그대는 백면서생으로 화급하게 의병을 불러일으켜 창의사 김천일을 보좌하였다. 비록 창의사로서의 힘이 있더라도 공에게 머리를 숙이고 믿고 따랐으니, 충성으로 무장하고 의리로 다스려서 대체와 세목이 확립된 것은 모두 그대의 힘이다. 당시에 왕세자가 수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대는 강화도에서 편지를 받들고 조정에 들어가 이틀을 머물면서 세 번 소장을 올려, 왕세자를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 중흥의 기틀을 세울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곧바로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에 임명되어 직책을 띠고 돌아왔다. 하루는 미복으로 걸어서 한양에 들어가 어지러운 적들 사이에서 옛집을 찾아가 사당의 신주를 찾아 등에 지고 돌아왔다.

바야흐로 의병이 동쪽에서 싸울 때 그대가 상주에 이르렀는데 병이 위독하여 들것에 실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후에 진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분통을 터트리면서 "대장부가 다른 사람과 의병을 일으켰는데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 정유재란이 일어나 호서와 호남이 거의 모두 유린당하자 향병의 추대를 받아 의병을 계승하여 대장이 되었다. 이에 분연히 왜적을 공격하여 섬멸할 뜻을 두고서 드디어 격문을 돌리고 소장을 올렸다. 소장이 올라가자 특별히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임명되었다. 왜교의 싸움에서 적을 포위한 군사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모두 뒷걸음질 쳤다. 그대 홀로 우뚝 서서 적을 쳐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으니 명나라 장수가 혀를 내두르며 "막강하구나, 진사군이여."라고 하였다. 마침내 왜병은 관군에게 몰살당하여 다시 많은 군사를 모을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나자 곧바로 무주현감(茂朱縣監)에 임명되었으나, 반년이 지나자 마음에 맞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다음 해 명나라 장수 오종도가 상소한 일로 인하여 접반관이 되어 해주에 이르렀는데 형인 임순이 강계부사(江界府使)로 있다가 임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놓아 슬피 울면서 달려가려고 하였으나 오종도가 허락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6일을 통곡하니 오종도 역시 감동하여 울면서 전송하였다.

그다음 해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있다가 직산현감(稷山縣監)으로 부임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로 한양에 갔는데, 당시 조정의 논의는 우계 선생을 심하게 공박하고 있었다. 이에 그대는 분개하면서 "우계는 선비들이 스승으로 여기는 바인데 지금 이처럼 배척하니, 선비의

신분으로 그 배척을 막지 않는다면 어찌 선비이겠는가."라 하였다. 이에 선비들이 그대의 의논을 지지하면서 소장을 올렸는데, 권력자가 그대에게 화를 내며 공박하였다. 이로 인해 그대는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니, 평소 자연을 즐기려던 자신의 뜻은 이루었다. 이윽고 또다시 문화현령이 되었는데, 권귀(權貴)에게 아첨하지 못하여 탄핵을 당하였다. 성의 남쪽에 병들어 지내면서 치료하지 못하다가 가마를 타고 남쪽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끝내 그 병으로 타계하였으니 당시 나이 48세였다. 부고가 전해지자 알고 지내든지 알지 못하든지 원근의 사람들이 놀라 상심하면서 "의로운 선비가 죽었구나."라 하였다.

그대는 본성이 어질고 또한 굳세다. 친척 가운데 학문하려는 자들을 반드시 모아서 가르쳤으며,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라면 비록 길에 있는 자라도 반드시 부족한 것을 빠뜨린 것처럼 구제하였다. 만일 예가 아니면 장성한 조카나 손자라도 매질을 하여 봐주지 않았다. 넓은 옷과 큰 관을 착용하고 엄숙히 앉아 날을 마쳤는데, 온 집안이 조정처럼 숙연하여 집안 아이들이 감히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였으며 그대가 자리 잡고 있으면 모두 두려워하였다. 일에 임하면 반드시 경계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으니 들어서 알지 않겠느냐."라 하였다.

일찍이 바닷가 집에 거처할 때 쌓아 놓은 곡식이 산처럼 높아 친구들의 혼인과 상례에 다급한 비용을 대주었다.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 있을 때 군량이 적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쌓은 놓은 수백 석의 식량을 모두 털어 내주면서 "적을 마주하고 있으니 군량이 있어야 하는데 군량이 없으며, 적을 마주하지 않으니 군량이 없어도 되는데 식량이 남아돈다."라 하였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군을 의롭게 여겼다. 명나라 장수 오종도가 그대를 한번 보고는 생사를 같이 하기로 허락하면서 "아무개는 의로운 선비이다."라 하였다. 그가 명으로 돌아가게 되자, 조선에서 낳은 아이를 군에게 맡겼다. 명나라 장수 이의가 순천에 있을 때 그의 애첩을 부탁하면서 "그대의 성신을 안다."라 하였다. 창의사의 아들 김상신이 죽음에 임박하여 또한 편지로 그의 처자를 부탁하니, 그대는 시종 주의를 기울여 그들을 보호하였다.

아아, 그대가 일찍이 인정한 사람이 한 시대에 그 숫자를 어찌 한정할 수 있겠는가마는 나는 그대보다 11살이 적으며 재주와 식견은 아득히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나를 만나자마자 즉시 마음으로 허락하여 나이 많은 벗 이상으로 예우하였다. 의병을 일으킬 때 나에게 앞으로의 조짐을 진단해 달라고 요청하자 나는 크고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문득 어느 날 하직하고 떠나게 되자 그대는 애석해하였으나 만류할 수 없어서 며칠을 나를 따라오니 차마 이별하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다. 온 군대가 그 때문에 감동하여 울먹이며 "장군의 정성은 다만 충성과 효도, 우애뿐만이 아니라 벗과 사귐에도 또한 그러합니다."라 하였다 매번 나와 만나게 되면 반드시 서로 즐거워하였고, 서로 이별하게 되면 반드시 서로 슬퍼하였다.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는 몇 번이나 그렇게 슬퍼하고 즐거워했는지 알 수가 없더니 이제는 줄곧 슬프기만 하고 다시는 즐겁지 못하니, 슬프고 슬프도다.

그대의 뜻은 원대하고 그릇은 큰 데도 중용되지 못하고 벼슬은 6품에 그쳤다. 힘써 공부하고 문장에 공이 있었는데도 또한 과거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수를 누리지도 못하였고 아들도 없다. 하늘이 공에 대해 매우 돈독하게 한 것은 효제와 충의와 뜻과 그릇이며, 유독 인색한 것은 작록과 수와 아들이다. 이른바 하늘이란 것은 끝내 믿을 수가 있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아아, 슬프도다.

그대의 성은 임씨로 대대로 나주의 회진에 살았다. 고려시대에 판사재시사 임비가 군의 시조이며, 13대가 지나 병조참판에 추증된 전라병우후 임평이 군의 증조이다. 예조참판에 추증된 경주부윤 임붕이 군의 조부인데, 이분께서 가선대부 평안도절도사 임진을 낳으시니 군에게 아버지가 된다. 이분이 선전관 윤기의 따님과 결혼하여 군을 낳았다. 군의 형제는 5명으로 모두 널리 알려진 선비이니, 큰 형은 정랑을 지낸 임제로 호는 풍강이니 시로 이름이 났으나 일찍 죽었다. 다음은 진사 임선으로 또한 시에 뛰어났다. 그 다음은 강계부사 임순으로 무관인데 문장을 갖췄다. 네 번째가 바로 그대이다. 임택(탁)은 자가 자정, 호는 창랑으로 막내이다. 재주가 더욱 뛰어났는데 세상에 숨어지내다가 요절하였다. 이들은 모두 그대보다 뒤에 타계하였다. 진사와 자정은 또한 나의 벗이다.

군의 이름은 임환으로 자는 자중이며 호는 습정이다. 부인 임씨는 사옹원 직장 임호의 따님으로 군이 죽은 뒤에 건강을 잃을 정도로 슬퍼하여 죽기를 기약하다가 그 다음해에 마침내 타계하였다. 첩은 두 사람으로 한 사람은 진사 양산용의 따님인데 정유재란 때 왜적을 만나 절개를 지키다 타계하였다. 또 한 사람은 아무개의 따님으로 2녀 1남을 두었는데 큰딸의 이름은 승무로, 군이 일찍이 무릎에 놓고 기르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더 나은 아이가 없으니 그렇지 않은가.”라 하였다. 그 동생은 어리다. 남자의 이름은 아무개로 군이 죽고서 태어났다. 정랑 임제의 넷째아들 기로 후사를 삼았으니 기 또한 훌륭한 선비로 가업을 이어 장차 성취할 것이다.

그 명은 다음과 같다.

말은 충성스럽고 마음은 신실하여	忠口信腹
기장과 고기에 의와 충을 길렀네	義粱肉忠
신실한 것을 듣고 의로운 것 보니	耳信目義
성색을 구차하게 여겼네	聲色趣苟
의리는 내달리는 황하처럼 결단하니	義決河奔
내달림을 얽어매어 제어할 수 없네	馳縻非御
둑이 넘쳐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堤而圮舍
참으로 의리를 실천하였네	苟義由蹈

영광은 피하고 작록도 낮으니	光避祿莫
사양을 머금어 성취하지 않았네	啗讓不致
즐겨쓰고 등용하지 않으니	嗜而不施
명성이 이에 그쳤구나	名止干此
의리는 이지러지지 않는 것을	非義之匱
평소에 보았는데	雅所遇耳
산에서 굶주린 자는	餓于山者
오직 의사인가 보구나	獨義士歟

출전 : 신향림 외 역, 『현주집』,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前君友非不多而皆面也。後君友亦不少而皆面也。友不外于其中者唯吾君。而君之滔滔已六載。唯我獨在。則微君爲爲悲。而誰爲悲哉。悲乎。尙忍敍君事誌君墓。以蓋幽而揭明哉。君眉廣眼如星。豐頰長身。善射御。喫酒不量。醉輒詼謔。悉座無不驩洽。忠孝友愛實天出。而義所在。勇蹈忘己。貲,育不能遏。壬辰之亂。君以白面。迫於招起。佐倡義使金千鎰。雖以倡義之強。屈首信服。秉忠繩義。綱挈而目擧者。皆其力也。時王世子駐遂安。君自江華奉書入朝。留二日。三上章。固請南下以樹中興之基。卽拜司圃署別提。遂帶職還。一日。以微服徒步入京城。於亂賊中。跟舊舍搜得其廟主。背負以歸。方倡義之東也。君及尙州。疾篤舁歸其鄕。後聞矗城之陷。嘗飮泣恚曰。男兒與人起事。彼死而此生哉。以不得偕沒爲平生慟。逮兩湖盡磔。爲鄕兵所推。踵義提鈐。奮然志在剿膊。遂傳檄奉疏。疏上。特除工曹佐郎。倭橋之役。環冠之師不數。見賊出皆靡。君獨勒孤仰堅不爲動。天將吐舌曰。莫強者。進士軍也。竟爲官軍所轢。不得大集焉。兵罷。卽除茂朱縣監。居判年。如有不樂。棄去。明年。爲天將吳宗道所奏起。以接伴官至海州。聞兄恂以江界府使卒官。號哭欲赴。吳不許。哭晝夜凡六日。吳亦感而哭送。明年。以工曹佐郎。除稷山縣監。無何。以公事抵京。時朝議蹙牛溪先生甚。君慨然曰。牛溪儒所師。而斥於時如此。儒而不救其斥。豈儒哉。儒於是持君議抗疏。當路者怒駁君。君迹屈而志伸。旣又得文化。以不能媚權貴被劾。病城南未醫。輿下南鄕。竟以其病卒。年四十八。訃傳。遠近知與不知。莫不驚恫曰。義士死矣。君性仁且毅。親屬向學者。必收誨之。苟飢寒。雖路人。必賑貸如不及。苟不禮。雖壯姪大孫。猶笞責不饒。衰衣大寇。儼坐終日。一室之內嚴若朝廷。家小莫敢仰視。所處無不攝憚。臨事必相戒曰。某在此。得無聞知。嘗居海莊。儲穀別峙。以周知舊婚喪之急。聞李統制舜臣在鳴梁食少。卽鑿儲數百石以資曰。有賊則有食而無食。無賊則無食而有食。聞者義之。天將吳宗道一見。許以死生曰。某義士。及還。托其遺兒。天將李義在順天。亦托其愛妾曰。知君誠信耳。倡義使之子象伸臨死。亦以書托其妻子。君終始保持不爲怠。嗚呼。君之所嘗許與在一時何限。而韓之齒少君十一歲。才識不逮又萬萬。相見卽許以心。禮待不啻丈友。其擧義事。要我察機。無大小。無不講。忽一日辭去。君惜不得留。追隨數日。不忍別。相視輒抆淚。一軍爲之感泣曰。將軍之誠。不獨忠孝友愛。於交道亦然。每與我相遇則必相樂。

相別則必相悲。方其悲樂而不知其所以悲樂者凡幾度。而一悲而更不樂。悲夫悲夫。君志宏器鉅而不大施。官止六秩。力學工文而又不第成進士。又不壽而無子。天於公。所偏篤者。孝悌忠義志與器。而所獨嗇者。祿與壽與子耳。所謂天者其終可恃。而不可謂不可恃乎否歟。吁其可悲也夫。君姓林氏。世居羅州之會津。高麗判司宰寺事諱庇。是君始祖。十三世而全羅兵虞侯贈兵曹參判諱枰。是君曾祖。慶州府尹贈禮曹參判諱鵬。是君祖也。是生嘉善大夫。平安道節度使諱晉。於君爲皇考。娶宣傳官尹覬女。生君。君兄弟五人皆聞士。其長曰正郎諱某。號楓江。以詩鳴。早卒。次曰進士諱某。亦工詩。又其次曰江界。武而文。第四。卽君。而諱某。字子定。號滄浪者。其季也。才益高。隱而早世。皆後君卒。進士與子定。亦吾友也。君諱某。字某。號習靜。妻林氏。司饔直長浩之女。自君卒。哀毁期死。翌年竟死。妾二人。其一。進士梁山龍之女。丁酉亂。逢賊死節。其一。某人之女。二女一子。長女曰勝無。君嘗膝而語我曰。良勝無者。非歟。其季幼。男曰某。君卒而生。以正郎第四子垍爲後。垍亦善士。克家將有就者。銘曰。忠口信腹。義梁肉忠。耳信目義。聲色趣苟。義決河奔。駟縻非御。堤而圮舍。苟義由蹈。光避祿莫。啗讓不致。嗜而不施。名止于此。非義之匱。雅所遇耳。餓于山者。獨義士歟。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현주집(https://db.itkc.or.kr/)

31) 임회(林檜, 1562~1624)

• 본관 평택(平澤), 자 공직(公直), 호 관해(觀海)

(1) 『인조실록(仁祖實錄)』 권3, 인조 1년 윤 10월 16일

임인. 상이 낮에 문정전에서 『대학』을 강하였는데 참찬관 정경세(鄭經世)[447]가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뜻을 매우 자세히 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이 어렵고 제가(齊家)는 그 다음이다." 하니, 경세가 아뢰기를, "상께서 실로 요령을 아셨습니다. 진실로 성의 정심만 한다면 제가 치국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지사 이귀가 아뢰기를, "신은 성품이 본시 방자하고 오만하여 제 마음대로 고집을 부렸으니 조정이 어수선한 것도 실로 이 때문입니다. 매번 말하지 않는 공부를 하려고는 하였으나 나라를 위하는 지나친 생각에서 일을 당할 적마다 말을 하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극진히 말하는 공부를 하여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말하지 않는 공부를 하여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본시 군사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식자들이 걱정

447) 정경세(鄭經世): 1563~1633. 자는 경임(景任), 호는 우복(愚伏),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1586년 문과에 급제하고, 대제학 등을 지냈다. 저술로는 『우복집』 등이 있다.

하여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적과 대치하고 있어 변방 걱정이 날로 다급해지는데도 아직 예정된 계획이 없이 서로 몰라라 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무릇 모든 일이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고 사전에 예정하면 옹색하지 않은 법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경기의 군대를 금위군(禁衛軍)이라 이름하여 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호위에 투입시키도록 하고, 외방의 군대는 각도로 하여금 늘 조련시키게 하여 미리 단속해 두었다가 변이 발생하면 일제히 조발하여 병사(兵使)가 각기 부하의 군병을 거느리고 오게 하소서. 그런 다음, 팔도의 군병을 체찰부에 배속시켜서 통솔하도록 한다면 병제가 확립되어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성의 남정을 초출하여 그 중에서 병무를 아는 무사를 선발한 다음, 기일에 앞서 힘을 길러 둠으로써 도성의 수비와 방어의 계획을 세우게 하소서. 체찰사를 할 만한 사람으로는 한준겸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속히 의정하소서. 이수일(李守一)[448] · 이시언(李時言) 등도 좌우의 대장을 맡을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케 하리라."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형세가 험고하니 역시 미리 수축하여 둠으로써 급박할 때 보수(保守)할 수 있는 기지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격자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광주 목사(廣州牧使) 임회(林檜)는 재주와 기국이 뛰어나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한 고을의 힘을 임회에게 모두 밀어준다면 내년 봄부터라도 성을 수리하고 군량을 비축하는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회의 인품이 이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인가? 산성의 형세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도성을 꼭 버리지 않더라도 이 성을 함께 수리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하였다.

壬寅。上晝講『大學』于文政殿。參贊官鄭經世講論格物致知之義甚詳。上曰："誠意、正心，難也；齊家其次也。"經世曰："聖教實是知要，苟能誠意正心，則齊家治國，可擧而措之耳。"知事李貴曰："臣性本狂妄，固執己意，朝廷紛擾，職此之由。每欲爲不言之工夫，而爲國過慮，未免遇事輒發。"上曰："宜作盡言之工夫，豈可作不言之工夫?"貴曰："我國本是無兵之國，自昔，識者固已憂之。今則與敵對壘，邊虞日急，而未有定計，置之相忘，豈不寒心哉! 凡事有備則無患，前定則不困。臣以爲京畿之軍，號爲禁衛軍，如有緩急，使之入衛；外方之軍，亦令各道，常加組練，預爲團束。有變則一齊調發，兵使各自領來，而八路之兵，屬諸體府，使有統緒，則庶幾兵制素定，可以應卒。且抄出都城男丁，選擇知兵武士，前期儲養，以爲都城守禦之計。可爲

448) 이수일(李守一): 1554~1632. 자는 계순(季純), 호는 은암(隱庵),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1583년 무과에 급제한 후 지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활약하였고,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진무 공신(振武功臣) 2등에 책록되고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體察使者, 無出韓浚謙之右, 宜速議定。李守一·李時言等, 亦可爲左右大將之任。上曰: "令備局議處。" 貴曰: "南漢山城, 去京不遠, 形勢險固, 亦須預先修築, 以爲臨急保守之地。然得人爲急, 廣州牧使林檜, 極有才局, 可以辦此。若以廣州一邑之力, 盡委於林檜, 自明春, 修築峙糧, 足以優爲。" 上曰: "林檜爲人, 可屬此事者乎? 山城形勢, 亦未知如何, 都城未必棄之, 而兼修此城無妨矣。"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인조실록(仁祖實錄)』 권4, 인조 2년 2월 23일

임회(林檜)·박영서(朴永緖)[449]·마우현(馬佑賢) 등의 문려(門閭)에 정표하라고 명하였다. 역적 이괄이 패하여 달아날 때에 임회는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경안역(慶安驛)에서 갑자기 적에게 붙잡혔는데 임회가 격분해 꾸짖으며 굽히지 않다가 결국 살해되었다. 박영서는 신교(薪橋)에서 패하였을 때에 적을 꾸짖다가 죽었다. 교동(喬桐)의 교생(校生) 마우현은 이서(李曙)[450]의 군관으로서 적병을 정탐하다가 적을 만났는데 굽히지 않았으므로 적이 그의 머리를 잘라 송도(松都) 거리에 매달았다. 좌의정 윤방(尹昉)[451]이 탑전(榻前)에서 아뢰어 추장(追奬)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命旌林檜,朴永緖,馬佑賢等門閭。賊适敗走之日。檜以廣州牧使。猝遇於慶安驛。爲賊所執。檜奮罵不屈。遂被害。永緖。薪橋之敗。罵賊而死;喬桐校生馬佑賢。以李曙軍官。偵探賊兵。遇賊不屈。賊斷其首。懸于松都通衢。左議政尹昉啓於榻前。請加追奬。故有是命。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3)『승정원일기』 610책, 영조 2년 2월 15일

전라도 진사 이숙빈(李淑賓)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환난을 맞아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은 신하의 큰 의리이며, 충성과 절의를 밝게 나타내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전례입

449) 박영서(朴永緖): ?~1624. 무과 출신으로 창성 부사(昌城府使)를 지냈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선봉장(先鋒將)으로 남이흥(南以興), 정충신(鄭忠信) 등과 함께 반란군을 추격하여 황주(黃州)의 신교(薪橋)에까지 이르러 교전 중 사로잡혔으며 이괄의 회유에 끝내 굴하지 않다가 살해되었다. 뒤에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450) 이서(李曙): 1580~1637.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인숙(寅叔), 호는 월봉(月峰)이다. 인조반정 때 세운 공로로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완풍군(完豊君)에 봉하여졌다. 이괄의 난 때에 당시 경기 관찰사였던 그는 부원수(副元帥)를 겸직하였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451) 윤방(尹昉): 1563~1640. 자는 가회(可晦), 호는 치천(稚川)이다. 윤두수의 아들이고 이이(李珥)의 문인이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해 민심 수습에 공헌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의 피난을 주장해 강화에 호종했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묘사제조(廟社提調)로서 40여 신주(神主)를 모시고 강화로 피난하였다. 저서로는『치천집』 등이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니다. 이로써 진실로 충성과 의리가 환하게 밝고 사실이 뚜렷하다면, 곧 반드시 기리고 높이는 예법이 있으니 오래되었다고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 신들은 당나라 안고경(顔杲卿)이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절개가 늠름하고 의젓했음을 생각할 때마다 천년이 지난 뒤에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역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괄의 난에 죽은 본도의 고(故) 증(贈) 도승지 임회(林檜)가 그러합니다. 게다가 실제의 자취가 가리어져서 충성스런 넋이 원통하고 억울했던 것도 앞뒤가 꼭 들어맞는 점입니다. 안고경은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로 헐뜯음을 받은 탓에 추증한 바가 보잘것없어서 애달팠는데, 그의 형 안진경(顔眞卿)이 진실을 드러내며 표창을 청한 뒤에야 비로소 융숭하게 보답하게 되었습니다. 임회는 당시 원한을 갚으려는 자에게 막혀서 죽은 뒤에 표창하는 은전이 한 자급(資級)에 불과하였으니, 이는 오로지 안진경처럼 현명한 형이 없고 자손이 보잘것없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한탄과 슬픔이 더욱 심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신들은 도내에서 전에도 사당에서 제사 지내기를 청하는 의논을 아뢴 적이 있었는데, 선비들의 기개가 시들고 쇠약해져서 지금까지 미루고 지체되었습니다. 근래 듣자니 조정의 금지가 지엄하여 우선 감히 사당을 세우자는 청은 하지 못하고, 충성과 절개가 서로 들어맞는 사당에 함께 제사 지내고자 합니다. 이는 비용을 많이 들이는 번거로움이 없는 데다 또한 표창하는 도리에도 충분하므로, 천리 길을 발을 싸매고 와서 구중궁궐에 우러러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유의해 살펴서 받아들여 주소서. 신들은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김수항(金壽恒)이 지은 행장 중의 말로 검토할 근거로 삼기를 청하며 대략 아뢰겠습니다.

임회는 곧 을사명현(乙巳名賢)[452] 임형수(林亨秀)[453]의 조카입니다. 계해년(1623, 인조 1)의 반정(反正)으로 임회는 귀양지에서 돌아와 예조 정랑이 되었고 문정공(文正公) 신흠(申欽)이 특별히 천거하여 광주 목사(廣州牧使)가 되었습니다. 그의 문장과 기개와 절조가 한 시대의 저명한 인물들에게 추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괄의 난을 당했을 때 진(鎭)에는 관할하는 군병이 없었습니다. 부로(父老)들을 불러 권유하여 민병 수백을 긁어모아 밤을 새워 달려가 과천(果川)에서 대가(大駕)를 맞아 호종(扈從)하려 했는데 대가는 이미 지나간 뒤였습니다. 남쪽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뒤따라가다가 다시 헤아리더니 말하기를 '지금 급히 얕은

---

452) 을사명현(乙巳名賢):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乙巳士禍)로 화를 입은 신하를 가리킨다. 인종이 죽자 새로 즉위한 명종의 외숙인 소윤(小尹)의 거두 윤원형(尹元衡)이 인종의 외숙인 대윤(大尹)의 거두 윤임(尹任) 일파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대윤파에 가담했던 사림이 크게 화를 입었다.

453) 임형수(林亨秀): 1514~1547. 호는 금호(錦湖),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사수(士遂)이다. 1535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제주 목사(濟州牧使) 등을 지냈다. 1547년 양재역(良才驛) 벽서(壁書) 사건이 일어나자, 소윤 윤원형에게 대윤 윤임의 일파로 몰려 절도(絕島)에 안치(安置)된 뒤 곧 사사(賜死)되었다. 문집으로 『금호유고(錦湖遺稿)』 1책이 전한다.

여울을 막지 않으면 적이 마음껏 멀리 달릴 수 있을 것이니, 흉악한 칼날이 차마 말할 수 없는 곳에 미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마침내 고을의 경계로 돌아와 대오를 정돈하여 강여울을 막아 끊을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이날 적이 안현(鞍峴)에서 패하고 오직 그의 심복 수백 명과 함께 얕은 여울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임회는 고립된 군병을 거느리고 있다가 갑자기 경안역교(慶安驛橋)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하루아침에 구성한 오합지졸이라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지니, 임회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적은 평소에 임회의 기개와 절조에 탄복하여 감히 서둘러 칼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적장 한명련(韓明璉)이 이괄에게 이르기를 '속히 이 사람을 제거하여 후환을 끊어 버리자.' 하였습니다. 이괄이 항왜(降倭)로 하여금 머리채를 잡고 굴복하도록 위협했습니다. 임회는 낯빛을 바꾸지 않고 성난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나라에서 너의 훈공을 기록하고 너의 작질(爵秩)을 높여 주었는데 네가 어찌 감히 배반할 수 있는가? 너를 만 조각으로 베어 죽이지 못함이 한탄스럽다.[454] 어찌 속히 나를 죽이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이괄이 크게 노하여 손수 칼을 들어 찌르니, 몸에는 온전한 살갗이 남지 않았는데도 입으로는 꾸짖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괄이 더욱 노하여 말하기를 '너는 서생인데 어찌 안고경이 죽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가?' 하니, 곧 혀를 깨물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되도록 얼굴 모습이 변하지 않고 늠름하니 생기가 있었습니다. 부음이 행재소(行在所)에 알려지자 놀라움과 슬픔을 그치지 못하고, 특별히 유사(有司)에 명하여 작위를 증직하고 정려(旌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임회가 절개를 위해 목숨을 버린 전말입니다. 이와 같은 순수한 충성과 큰 절개로도 겨우 한 자급만 올랐을 뿐 높이고 장려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임회가 살아 있을 때 마침 중요한 자리에 있던 자의 뜻을 거슬러 추후에 그가 원한을 갚으려고 했던 탓입니다. 식자들의 한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아, 시퍼런 칼날을 기꺼이 받으면서도 말씨와 낯빛이 늠름하고 의젓했으며 그 성취한 바가 저처럼 뛰어났으니, 어찌 평소에 수양한 바가 없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는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니, 낳아 준 부모 및 양부의 상을 연달아 당하고 7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서도 조금도 게으른 적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슬픔으로 몸을 상하여 거의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정인홍(鄭仁弘)과 이이첨(李爾瞻)에게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아 찬배되자 부모의 신주를 등에 지고 길을 떠났으니, 길을 가며 바라보던 자들 중 얼굴을 가리고 울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귀양지에 있었지만 아침저녁으로 전알(展謁)하였고 조상을 받드는 절차도 지극한 정성으로 예법을 따랐으니, 마침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성이 이처럼 훌륭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의 강직하고 정직한 행실은 간사한 무리에게 질투를 받아서, 계사년의 무

454) 너를 …… 한탄스럽다: 원문은 '恨不汝萬段'인데, 『문곡집』 권22 「관해임공행적」에 '恨不斬汝萬段'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汝' 앞에 '斬'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옥(誣獄)[455]에 빠져 온갖 고문과 매질을 받고 거의 죽을 정도로 위태로웠는데도 붓을 잡아 글을 쓰고 대질 심문을 했습니다. 음흉한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혹독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으니, 마침내 힘써 충성을 다할 곳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가 과거에 급제한 지 14년인데 조정에 나선 것은 겨우 3년이었습니다. 그가 지조를 지킴이 바르고 정확함을 헤아려보고 그의 충성과 절개가 크고 훌륭함을 밝힌 것이 이와 같은데, 이 어찌 다만 한때 목숨을 바친 절조 있는 장부일 뿐이겠습니까.

아, 이는 모두 선정신이 선양한 말이며 또한 온 도에서 지금껏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에 충성을 표창하는 의전이 없으면 그만이겠습니다만, 있다면 이 사람을 버리고 그 누구이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비슷한 부류끼리 서로 어울리며 비슷한 기운끼리 서로 감응하는 법이므로, 유현(儒賢)은 유현을 모시는 곳에서 제사 지내고 충신은 충신을 모시는 곳에서 제사 지낸 연후에 밝은 혼령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본도의 나주(羅州)에는 문열공(文烈公) 김천일(金千鎰)을 제사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김천일은 임진왜란을 맞아 의병을 일으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세운 절개가 우뚝함은 신들이 쓸데없이 진술하지 않아도 삼가 밝으신 성상께서도 이미 충분히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임회도 나주 사람으로, 적을 꾸짖으며 목숨을 바친 충성은 피차가 서로 들어맞습니다. 강상(綱常)을 도와서 서게 한 것이 이미 그와 같고 후세에 올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장한 것이 또 그와 맞으니, 한 사당에서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이 사리에 진실로 마땅합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밝으신 성상께서 재위하시어 모든 드러내어 표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니, 답답하게 막힌 것을 드러낼 것도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부족한 의전을 고쳐서 거행할 것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또 신들이 청하는 바는 이미 따로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중첩되게 제사 지내자는 것도 아니며, 외로운 충신을 가엽고 불쌍히 여겨서 예전에 있던 사당에서 함께 제사 지내자는 뜻일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두 신하의 충절이 서로 들어맞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온 도의 유생들의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다시 살피시어, 충신 임회를 정렬사(旌烈祠)에서 함께 제사 지내도록 허락하시어 죽은 뒤에 표창하는 의전을 빛내시고 격려하여 권장하는 방도를 남기신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 내용을 해당 조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全羅道進士李淑馪等疏曰,伏以,臨難殺身,臣子之大義也,顯忠彰節,國家之令典也。是以苟有忠

---

455) 계사년의 무옥(誣獄): 계사년은 1593년으로 착오가 있는 듯하다. 임회가 진사시에 합격한 것은 1582년이나, 문과에 합격한 것은 1611년이다. 계사년은 임회가 아직 조정에 들어오기 전이고, 이해는 임진왜란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임회와 관련된 특별한 옥사는 보이지 않는다. 임회는 1614년인 갑인년에 무고로 추국을 받고 양산(梁山)으로 유배되었는데, 문맥으로 보아 아마 이해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光海君日記 6年 4月 4日, 6月 5日』.

義之炳然,而事實之昭然,則卽必有褒崇之禮,而不可以久遠而忽之也,決矣。嗚呼,臣等每念唐之顔杲卿殺身之節,凜凜烈烈,不覺髮豎於千載之下,而求之我朝,亦有其人。卽本道故贈都承旨臣林檜之死於适亂者是已。抑其實迹之掩蔽,忠魂之冤鬱,亦有所前後符合者。杲卿爲巧言點玉,哀贈蕭條,及其兄眞卿之暴白請褒而後,始乃崇報之。林檜爲當時修隙者所尼,追褒之典,不過一階,是則獨無如眞卿之賢兄,而子孫之零替故也,尤豈非嗟傷之甚者乎? 臣等道內,前有陳請祠享之議,而士氣委靡,至今遷就,近聞朝家,申禁至嚴,姑不敢以立祠爲請,欲以竝侑於忠烈相符之祠。此旣無煩費之端,亦足爲褒尙之道, 故裹足千里, 仰籲九閽, 伏願聖明, 留神察納焉。臣等請以先正臣文正公金壽恒撰檜行狀中語,爲考據而概陳。蓋檜,卽乙巳名賢林亨秀之從子也。癸亥改玉後,檜自謫而還,爲禮曹正郎,文正公臣申欽特薦爲廣州牧使。蓋其文章氣節,爲一代勝流所推重故也。及當适之亂,鎭下無管轄之兵,招誘父老,鳩得民兵數百,罔夜馳赴,迎扈于果川,則大駕已過矣。南望痛哭,策馬進赴,行復計之日,今不急防淺灘,任賊長驅,則凶鋒所及,有不忍言者,遂還州境,整頓部伍,以爲遮截江灘之計。是日賊敗於鞍峴,獨與其腹心數百,已渡淺灘而南。檜以孤軍,猝然相遇於慶安驛橋,一朝烏合之卒,不戰而潰,檜遂被執。賊素服檜氣節,不敢遽加刃,賊將韓明璉謂适曰,速除此人,以絕後患。适令降倭,捽而脅之使屈,檜不變顔色,厲聲而罵曰,國家錄汝勳勞,崇汝爵秩,汝何敢反? 恨不汝萬段,何不速殺我? 适大怒,手劍而刺之,體無完膚,口不絕罵。适益怒曰,爾書生,獨不聞顔杲卿之死乎? 卽斷舌以至死,死旣數日,顔貌不變,凜凜有生氣。訃聞行在, 驚悼不已,特命有司,贈爵旌閭。此其檜立墐[立殣]之顚末也,而以如是之精忠大節,僅被一資之增,未蒙崇奬之恩者,蓋檜於生時,適忤當路,而追後修隙之致耳,識者之恨,寧有極乎? 嗚呼,白刃甘蹈,辭氣凜烈,其所成就,如彼卓卓者,豈無素所充養而然哉? 蓋其天性至孝,荐遭所生父母及所後父喪,七年持制,未嘗少懈,哀毁泣血,幾於滅性。及爲仁弘·爾瞻構誣竄逐,背負父母神主而行,道路觀者,無不掩涕。雖在謫中,而朝夕展謁,奉先之節,至誠遵禮,畢竟死國之忠,若是其偉然。且其剛方正直之行,見嫉於奸邪之輩,至陷於癸巳誣獄,備受栲掠,危綴幾殊,而援筆置對,鬼蜮破膽,少不隕穫於酷禍之中,而終能得死於效忠之地。嗟呼,其釋褐十四年,立朝僅三載,而推其操守之端確,辨其忠節之宏偉者如此,則此豈但一時效死之烈丈夫而已哉? 嗚呼,此皆先正臣揄揚之語,而亦一道之傳說至今者也。國家無褒忠之典則已矣,有之,則舍斯人其誰也? 竊伏念類相從·氣相感,故儒賢享於儒賢,忠臣享於忠臣然後,不昧之靈,亦得以安也。本道羅州,有文烈公金千鎰俎豆之所。千鎰當壬辰之亂,倡義殉國,立節卓然,不待臣等贅陳,而伏想聖明亦已稔聞之矣。檜亦羅州之人,而罵賊殺身之忠,彼此相符,而扶植綱常者,旣與之同,激勸來後,又與之合,則一祠竝享,事理固當,而何況今日聖明臨御,凡諸顯褒,靡不用極,伸暴堙鬱,此其時矣,修擧欠典,亦其時矣。且臣等之請,旣非別設,又非疊享,而不過愍惜孤忠,竝侑故祠之意而已。伏乞聖明特軫兩臣忠節之相符,更察一道章甫之至懇,許以林檜之忠,共享旌烈之祠,以光追褒之典,以存激勸之方,不勝幸甚。答曰,省疏具悉。疏辭令該曹稟處。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승정원일기(https://db.itkc.or.kr/)

(4) 김수항(金壽恒), 『문곡집(文谷集)』 권22, 「관해 임공 행적(觀海林公行蹟)」

공의 휘(諱)는 회(檜)이고, 자(字)는 공직(公直)이다. 금호공(錦湖公, 임형수(林亨秀))의 조카이다. 금호의 동생 길수(吉秀)[456]는 예조 좌랑(禮曹佐郎)을 지냈으며, 정수(貞秀)는 형조 좌랑(刑曹佐郎)을 지냈고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승지공(承旨公)이 전의 이씨(全義李氏)에게 장가들었는데, 현령(縣令) 이진남(李震男)의 딸이다. 가정(嘉靖) 임술년(1562, 명종 17) 9월에 공을 낳았는데, 좌랑공이 후사가 없어 거두어들여 아들로 삼았다.

공은 태어나면서 보통 아이들과 다르게 재주와 지혜가 뛰어났고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곧 글자를 깨우쳤다. 6세에 처음 학문을 배울 적에 글을 읽으면 문장을 외웠으니, 총명하고 민첩함이 남들보다 뛰어났다. 점차 성장하면서 사조(詞藻)가 날로 진보했으나 과거 시험장에 나아갈 때마다 번번이 합격하지 못하였다. 동년배들은 한 시대의 명사들이었는데, 모두 선후배의 순서를 굽히고 공과 더불어 교유하였다.

임오년(1582, 선조 15)에 상상(上庠, 성균관(成均館))에 올랐다. 계미년(1583)에 이 부인(李夫人)의 상을 당했는데, 연제(練祭)를 지내기도 전에 또 승지공(承旨公)의 상을 당했으며, 승지공의 상을 마치기도 전에 좌랑공(佐郎公)이 또 세상을 떠났다. 공은 7년 동안 한결같이 상제(喪制)를 지켰으니, 몹시 슬퍼하여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 상을 마치고 나서 송강(松江) 정 상국(鄭相國, 정철(鄭澈))의 집안에 장가들었는데, 처음 승지공과 송강이 혼인을 약속하고 8년 만에 마침내 혼인하였으니, 양쪽 집안의 신의(信義)에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계사년(1593, 선조 26)에 후비(後妣) 노 부인(魯夫人)이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왜구의 침략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장례를 치르는 예절에 스스로 정성을 다하여 여한이 없었다. 상례를 마치고 나서 가묘(家廟)를 모시고 해서(海西) 지역으로 피난을 가 수양산(首陽山) 아래에서 우거(寓居)하였다. 당시 송강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시론(時論) 또한 크게 변하자, 공은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시골구석에서 서성이며 오직 술과 부(賦)를 스스로 즐길 뿐이었다.

신해년(1611, 광해군 3)에 비로소 과거에 급제했는데 이미 나이가 50세였으며, 의례대로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을 제수받았다. 나주(羅州)에 김우성(金佑成)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공과 본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훗날 김우성이 악인들과 무리 지어 흉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는 통렬히 절교하였다. 공이 과거에 급제하여 금의환향하던 날, 김우성이 예전의 친분을 빌미로 와서 축하하였으나 공은 끝내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이때부터 김우성이 더욱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날마다 정인홍(鄭仁弘)과 이이첨(李爾瞻) 무리를 부추겨 온갖 방도로 공에게 해를 가할 방법을 모의했고, 공 또한 세상에 아무런 뜻이 없어 다시 해

456) 임길수(林吉秀): 1529~?.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다. 본관은 평택(平澤). 임형수의 동생으로 송강(松江) 정철(鄭澈)과 교유했으며, 고흥 현감(高興縣監)과 예조 좌랑(禮曹佐郎) 등을 지냈다.

서 지방의 옛 거처로 돌아가 자호(自號)를 관해(觀海)라 하고 이리저리 거닐며 유유자적하였다.

계축년(1613)에 다시 성균관 전적에 제수되었다. 치제관(致祭官)으로 장연(長淵)에 갔을 적에 마침 무고(誣告)의 옥사[457]가 크게 일어났다. 원서(爰書, 죄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 가운데 임호(林浩)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이이첨이 그 글자의 음이 공의 이름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억지로 죄안을 만들어 공의 부인과 어린 아들 득붕(得朋)을 체포하였다. 득붕의 나이는 겨우 14세였는데 법을 어겨 가며 부당한 형벌을 가해 허위 자백을 얻어내려 했지만 득붕이 끝내 굴복하지 않자, 또 같이 교유하던 아이를 유도하여 묻다가 붙잡아 신문했는데 그 아이 또한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공은 장연(長淵)에서 체포되어 갖가지 고문과 매질을 당해 거의 목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으나, 오히려 확고하여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붓을 잡고 치대(置對, 신문(訊問)에 대한 답변)하기를 "임호의 '호(浩)' 자는 '넓고 큰 그 하늘'[458]의 '호' 자이고, 임회의 '회(檜)' 자는 '온 산에 가득한 소나무'의 '회(檜)' 자이다."라고 하자, 적신(賊臣) 무리들이 억지로 자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귀양을 보냈다. 공은 양산(梁山)으로, 득붕은 곤양(昆陽)으로 유배되었는데, 모두 풍토병이 있으며 멀고 험악한 땅이었다. 공과 득붕은 어렵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도 오히려 부모님의 신주(神主)를 등에 지고 길을 떠났으니, 도로에서 이를 본 자들 가운데 눈물을 훔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다.

10년 동안 유배지에서 지냈는데, 계해반정(1623, 인조 1)에 이르러 먼 곳으로 귀양 간 여러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고, 공 또한 예조 정랑(禮曹正郎)에 임명되었다가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으로 옮겼다. 조정에서 장차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리하여 요새지로 만들 것을 논의했는데, 목수(牧守, 수령(守令))는 그 적임자를 얻기가 어려웠다. 문정공(文貞) 신흠(申欽)이 먼저 공을 천거하여 광주 목사(廣州牧使)가 되었는데, 광주는 본래 경기 지방의 험요한 고을이며 또 성을 수축하는 일이 컸지만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공이 마음을 다하여 규획하고 조치함에 일정한 방도가 있었다.

갑자년(1624, 인조 2) 봄에 역적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 안이 두려움에 떨었다. 공은 진영(鎭營) 아래 따로 관할하는 군병이 없어 빈주먹으로 의기를 떨쳤지만 계책을 펼칠 방도가 없었다. 이에 부로(父老)들을 불러 모아 놓고 대의(大義)를 밝혀 민병(民兵) 수백 명을 얻었는데 역적들이 갑작스럽게 경성(京城)을 핍박하여 대가(大駕)가 남쪽으로 행하였다. 공이 이 소

---

457) 무고(誣告)의 옥사: 1614년(광해군 6)에 김덕룡(金德龍)·김언춘(金彦春)·윤삼빙(尹三聘) 세 사람이 역모를 일으켰다고 누명을 쓴 삼적(三賊)의 무고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임회와 아들 임득붕이 유배형에 처해졌다. 『국역 광해군일기 6년 6월 5일』『국역 연려실기술 제21권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

458) 넓고 …… 하늘: 『중용장구』 제32장에 "하늘 같은 그 마음 넓고 크구나.〔浩浩其天〕"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인(聖人)의 인덕(仁德)을 이에 비유하였다.

식을 듣고 밤을 달려 과천(果川)으로 나가 맞이하려 했는데 대가가 이미 그곳을 지난 뒤였다. 공이 남쪽을 바라보며 통곡을 하고 나서 말을 채찍질하여 뒤쫓아 갔는데 가는 길에 다시 생각하며 말하기를, "지금 급히 얕은 여울을 막지 않아 역적들을 계속 내달리게 놔둔다면 흉봉(凶鋒)이 미치는 바를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고을의 경내로 돌아가 부대의 대오를 정돈하여[459] 강여울을 차단하는 계책을 세웠다.

이날 역적들은 안령(鞍嶺)에서 패배하였고, 다만 심복 수백 명과 함께 이미 얕은 여울물을 건너 남쪽으로 가고 있었다. 공은 고립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가 별안간 경안역(慶安驛) 다리 근처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소집한 오합지졸이라 싸워 보지도 못한 채 흩어졌으며 공은 결국 붙잡혔다. 역적이 평소 공의 기개와 절조에 탄복하여 감히 대번에 칼로 베지 못하자, 적장(賊將) 한명련(韓明璉)[460]이 이괄에게 말하기를, "만약 이 사람을 풀어 준다면 반드시 우리 뒤를 쫓아올 것이니, 속히 제거해서 후환을 없애는 것만 못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괄이 항왜(降倭)에게 공을 붙잡아 협박하여 굴복시키게 하자, 공이 성난 목소리로 꾸짖기를, "국가가 그대의 공훈을 기록하고 그대의 작질(爵秩)을 높여 주었는데 그대가 어찌 감히 배반한단 말인가, 그대가 어찌 감히 배반한단 말인가. 그대를 참수하여 만 갈래로 토막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인데, 어찌 속히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괄이 크게 노하여 직접 칼로 찔렀다. 공의 몸에는 성한 피부가 없었지만 오히려 입으로 계속해서 꾸짖자, 이괄이 더욱 노하여 "그대 같은 서생이 어찌 안고경(顔杲卿)의 죽음을 듣지 못했는가."라고 하고는 바로 공의 혀를 잘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으니, 2월 12일이었다.

죽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지만 얼굴 모양이 변하지 않았으며 늠름하게 생기가 있었다. 부음이 행재소에 알려지자 임금이 놀라 애도하여 서둘러 유사(有司)에게 관작을 추증하고 정려(旌閭)를 세워 주며, 연로(沿路)에 널을 호송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해 5월에 순천(順天) 관아의 북쪽 모후산(母后山) 건좌(乾坐, 동남향)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엄숙하고 결백하며, 품격이 굳세고 시원스러웠으며, 기의(氣義, 기절과 도의)가 높고 담론(談論)을 잘하였다. 내행(內行)에 독실하여 집안에서 효성과 우애에 인륜을 다하였다. 비록 유배지에 있더라도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신주를 알현하고, 조상을 받드는 절차는 일찍이 부족함이 없었다.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탈연히 구차한 바가 없어 분가하는 날을 맞아 노비와 토지를 형과 누이동생이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하고 자신은 잔

---

459) 대오를 정돈하여: 원문은 '頓部伍'인데, 한국문집총간 133집에 실린 『문곡집(文谷集)』 권22 「관해임공행적(觀海林公行蹟)」에 '整頓部伍'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頓' 앞에 '整'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460) 한명련(韓明璉): ?~1624.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공을 세워 오위장(五衛將)이 되었다. 1624년에 이괄과 함께 반란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압송 중 이괄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반란군에 가담하였다. 패배하여 이괄과 함께 도주하던 중 이천(利川)에서 부하 장수의 배반으로 살해당하였다.

약한 노비와 척박한 토지를 취하였다.

종족과는 화목하고 사랑하여 그 재질이 있는 자는 가르치고 곤궁하고 굶주린 자는 구휼해 주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미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임진왜란 때 영남(嶺南) 사람 가운데 나이가 어린 데다 구걸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금성(錦城 나주)에 이르자 공이 문하(門下)에 두면서 기르고 가르쳐 성취시키는 데 이르렀다. 공이 졸하자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었다.

공은 평소 악을 원수처럼 싫어하여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듭 미움을 받았지만 화복(禍福)과 이해(利害)에 따라 그 절개를 바꾸지 않았다. 14년 만에 처음 관직에 나아가 겨우 3년만 조정에 있었으니, 혼조(昏朝)를 만나서는 진실로 논할 것도 없었다. 중흥(中興)의 초기에 이르러 공의 뛰어난 재능과 곧은 절개로 마땅히 제일 먼저 높은 벼슬에 발탁되어야 했는데, 당로자의 뜻을 거스르는 데 연루되어 벼슬길이 막혀 버렸다. 그 끝에 이르러 마침내 성취한 바가 이와 같이 뛰어났는데 오히려 앙갚음을 하는 자들에게 막혀 추포(追褒)하는 은전이 끝내 1품계에 불과했으니, 식자(識者)들이 거듭 애석하게 여겼다.

공이 시문(詩文)을 지으면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세속의 어렵게 글 짓는 행태를 끊어 버리자 예원(藝苑 문단)의 여러 공들이 많이 존중하고 인정하였다. 월사(月沙) 이상국(李相國 이정귀(李廷龜))은 일찍이 그 두 아들로 하여금 공에게 나아가 공부를 배우도록 하였다. 지은 글들을 계축년(1613, 광해군 5)의 화란에 모두 잃어버리고, 다만 유배지에서 읊은 시와 전해진 것들을 얻어 집안에서 소장한 것이 있을 뿐인데, 지금 몇 편을 먼저 초록하고 판각하여 『금호집(錦湖集)』 안에 덧붙여 두었다.

공은 2남을 두었으니, 큰아들 득열(得悅)은 문과에 장원급제했고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을 지냈으며, 그다음 득붕(得朋)은 장기(瘴氣)를 앓아 장가들지 못하고 요절하였다. 측실은 3남 3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득이(得怡)·득무(得懋)·득재(得材)이다. 득열은 아들 셋을 두었으니, 큰아들 치(峙)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다음 교(嶠)는 참봉이며, 그다음은 시(峕)이다. 내외 손과 증손과 현손은 남녀 모두 약간 명이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문곡집(https://db.itkc.or.kr/)

公諱檜。字公直。錦湖公之從子也。錦湖之弟曰吉秀。禮曹佐郎。曰貞秀。刑曹佐郎。贈左承旨。承旨公聘全義李氏。縣令震男之女。以嘉靖壬戌九月生公。佐郎公無嗣。取而子之。公生而儁偉異凡兒。自能言。便解文字。六歲始學。讀書倍文。聰敏絕人。稍長。詞藻日進。每就場屋輒屈。其曹偶一時諸名勝。皆折輩行與交。壬午。陞上庠。癸未。丁李夫人憂。未練。又遭承旨公喪。喪未除。佐郎公又不幸。公七年持制如一日。毁幾滅性。服闋。委禽于松江鄭相國之門。始承旨公與松江約婚。至是八年而竟成親。兩家信義。人皆嘆服。癸巳。所後妣魯夫人棄世。時當寇難搶攘。而送終之禮。自盡無憾。去喪。奉家廟避地海西。寓居首陽山下。時松江既沒。時論亦大變。公謝絕公車業。棲遑鄉曲。唯以酒賦自娛。辛亥。始登第。以年滿五十。例授成均館典籍。羅州有金佑成者。公素與同閈相

親。後見其黨惡逞凶。痛絕之。及公登第榮歸之日。佑成以舊誼來賀。公終不交一語。自是佑成益銜之次骨。日慫慂於仁弘,爾瞻輩。謀所以中傷公者萬方。公亦無意於世。復歸海西舊寓。自號觀海。相羊以自適。癸丑。復除典籍。以致祭官往長淵。會誣告獄大起。爰書中有林浩爲名者。爾瞻以其字音與公名相近。勒成罪案。逮公夫人及弱子得朋。得朋年甫十四。越法淫刑。欲以取誣服。得朋終不服。則又誘問其同游之兒而逮訊之。其兒亦不服而死。公自長淵被收。備受拷掠。危綴幾殊。猶矻矻不少撓。援筆置對曰。林浩之浩字。浩浩其天之浩也。林檜之檜字。滿山松檜之檜也。賊臣輩知不可強服。竄之邊遠。公配梁山。得朋配昆陽。皆瘴癘遠惡地也。公與得朋間關跋涉。猶背負父母神主以行。道路觀者莫不揮涕。在謫十年。至癸亥改玉。盡還流放諸人。公亦拜禮曹正郎。轉軍器寺僉正。朝議將修南漢山城爲保障之地。而牧守難其人。申文貞公欽首薦公爲廣州牧使。廣本京輔巖邑。且築城事殷。庶務草創。公殫心規畫。措置有方。甲子春。逆适興兵叛。國內震懼。公鎭下無管轄軍兵。空拳奮義。計無所施。乃招集父老。諭以大義。得民兵數百。而賊猝逼京城。大駕南行。公聞報夜馳出迎于果川。則大駕已過矣。公南望痛哭。策馬追赴。行復計之曰。今不急防淺灘。任賊長驅。則凶鋒所及。有不忍言者。遂還州境。整頓部伍。以爲遮截江灘之計。是日賊敗於鞍領。獨與其腹心數百人。已渡淺灘而南。公以孤軍猝然相遇於慶安驛橋邊。一朝烏合之卒。不戰而潰。公遂被執。賊素服公氣節。不敢遽加刃。賊將韓明璉謂适曰。若釋此人。必踵吾後。不如速除以絕患。适令降倭捽公脅之使屈。公厲聲罵曰。國家錄汝勳勞。崇汝爵秩。汝何敢反。汝何敢反。恨不斬汝萬段。何不速殺我。适大怒手劍以刺之。公體無完膚。猶口不絕罵。适益怒曰。爾書生。獨不聞顔杲卿之死乎。卽斷舌以至死。二月十二日也。死旣數日。顔貌不變。凜凜有生氣。訃聞行在。上驚悼。亟命有司賜爵旌閭。沿路護櫬以送。以其年五月。葬于順天治北母后山乾坐之原。公天資峻潔。風岸抗爽。尙氣義善談論。篤於內行。家庭之間。孝友盡倫。雖在遷謫中。朝夕必展謁神主。奉先之節。未嘗有缺。輕財好施。脫然無所苟。當析箸之日。臧獲土田。推與兄妹擇占。而自取其殘瘠者。睦愛宗族。敎其才者。而賙給其窮餓者。多人所難及。壬辰之難。嶺南人有兄弟童丱而行乞者。轉到錦城。公處之門下。育而誨之。以至成就。及公卒。服心喪三年。公平生嫉惡如讎。以此屢憎於人。而不以禍福利害易其守。釋褐十四年。立朝厪厪三載。昏朝所遭。固無論已。至中興之初。以公俊才直節。宜首被顯擢。而坐失當路意。枳其仕塗。逮其末終所成就。卓卓如此。而猶尼於修郤者。追褒之典。終不過一階。識者重爲之慨惜焉。公爲詩文。邁逸婉麗。絕去世俗鉤棘之態。藝苑諸公多推許之。月沙李相國嘗令其二子就公受業。所著述盡軼於癸丑之禍。只有謫中吟詠及得於流傳者藏于家。今以若干首抄。刻以附於錦湖集中。公有二男。長得悅。文科壯元。司諫院獻納。次得朋。病瘴。未娶而夭。側出三男三女。男得怡,得懋,得材。得悅男三人。長峙蚤歿。次嶠參奉。次眚。內外孫曾玄男女總若干人。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문곡집(https://db.itkc.or.kr/)

(5) 임회(林檜), 『관해유고(觀海遺稿)』 부록, 「증이조참판 관해임공 신도비명(贈吏曹參判觀海林公神道碑銘 並序)」

천고의 정영(精英)한 기운을 받고 우주의 강건한 기절을 품고 태어나시어 문학은 가히 임금의 계책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재주는 가히 세무(世務)를 주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때를 만나지 못하여 요직에 있는 자들에게 곤경을 겪고 여러 간악한 자들의 비방을 입으셨으니, 마치 장차 산수(山水)로 자취를 감추려는 듯했다. 그러나 국가가 위난을 당했을 때에 이르러서는 태양을 꿰뚫는 충성[461]을 끝까지 세웠으며 하늘에 근본한 절의도 끝까지 떠받드셨으니, 목숨 바쳐 나라에 보답한 소식을 임금님은 들으시고 놀라 정려를 명하셨다. 피 뿌려 역적을 꾸짖은 그 늠연한 기상을 금고(今古)에 떨치며 천 년 동안 혁혁하면서도 그 끝이 가늠되지 않는 사람을, 나는 관해 임공(觀海 林公)에게서 보았다. 공의 성은 임(林)이요, 휘는 회(檜), 자는 공직(公直), 호는 관해(觀海)이다. 내력은 학사공(學士公)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분이 동쪽으로 건너와 용주방(龍珠坊)에 정박하셨으므로 관향을 평택으로 하였다. 고려 때 영삼사사(領三司事)를 지내신 휘 희(禧)를 중조로 모시고 충정공(忠貞公) 평성 부원군(平城府院君) 휘 언수(彦脩)[462]는 8세조이시며, 조선에 와서 휘 상양(尙陽)은 지훈련관사(知訓鍊觀事)를 지내셨는데 공의 6세조이시다. 증조의 휘 만근(萬根)[463]은 첨정으로 이조참판(吏曹參判)의 증직을 받으셨고, 조의 휘는 준(畯)이시니 북도(北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내시었으며, 네 분의 아드님을 두셨는데, 원수(元秀)는 진사, 형수(亨秀)는 부제학으로 이판의 증직을 받으셨고, 길수(吉秀)는 예조좌랑(禮曹佐郎)이요, 정수(貞秀)는 형조좌랑(刑曹佐郎)으로 승지의 증직을 받으시니 이분이 공의 선고(先考)이시다. 아내인 전의 이씨(全義李氏)는 현령 진남(震男)의 따님으로서 명종 17년(1562) 임술 9월에 나주(羅州) 송현(松峴)에 있는 저택에서 공을 낳으셨다. 이때 좌랑공이 아들이 없으셔서 공을 데려다 아들로 삼으셨다.

공은 나실 때부터 걸출하고 총명하여 말을 하면서부터 글자를 깨우쳤고, 백형인 송파공(松坡公)을 따라 글 읽기를 시작하시니 영특함과 명민함이 남보다 뛰어나서 점차 성장하면서 문장은 날로 진보하여 과거 시험장에 나갈 때마다 그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러 부로(父老) 모두 큰 그릇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공의 나이 21세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이듬해인 계미년에

---

461) 태양을 …… 충성: 충정이 하늘까지 감응시켜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국 시대에 자객 섭정(聶政)이 한괴(韓傀)를 죽일 때와 자객 형가(荊軻)가 연(燕)나라 태자 단(丹)의 의리를 사모하여 진왕(秦王)을 죽이려고 떠날 때에 모두 흰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었다고〔白虹貫日〕 한다. 『戰國策 魏策4』『史記 卷83 魯仲連 鄒陽列傳』.

462) 임언수(林彦脩):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삼사우사(三司右使) 임성미(林成味)와 문하시중(門下侍中) 임견미(林堅味)의 아버지로, 문하시랑 동평장사(門下侍郎同平章事) 등을 지냄.

463) 임만근(林萬根):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부정(副正) 임해(林晐)의 아버지로, 금산 군수(錦山郡守)를 지냈다.

이 부인의 상을 당하였는데, 연제(練祭)를 지내기도 전에 또 승지공의 상을 당하시고 승지 공의 상을 마치기도 전에 좌랑공이 또 불행을 당하셨다. 공이 7년간 거상(居喪)하시며 법도를 하루 같이 지키시니 몸이 쇠약해져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

공은 상복을 벗으신 후에 송강 정 상국의 집으로 장가를 드셨다. 그전에 승지공이 계실 때 송강 선생과 혼약을 하신 지 8년이 지난 이때서야 혼사를 이루시니 양가의 신의(信義)에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고 한다. 계사년(癸巳年)에 양모(養母)이신 함평 노씨(咸平魯氏) 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때는 임란을 당하여 혼란스런 상황이었는데도 장례를 치르는 예절은 여한이 없도록 극진히 하였다. 거상을 마치신 후에 가묘를 모시고 해서(海西)로 피난하여 수양산(首陽山) 아래로 우거(寓居) 하셨다. 이때는 송강도 이미 돌아가셨고 시론도 크게 변하여서 공은 벼슬을 사절하시고 시골구석에서 서성이며 시 짓고 술 마시는 것을 스스로 즐길 뿐이었다.

신해년(辛亥年)에 비로소 대과에 급제하시니 연세는 50이 되셨으며 의례대로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제수되셨으나 정인홍(鄭仁弘) · 이이첨(李爾瞻)의 무리가 권력을 장악할 때라 공을 오만 방법으로 거듭 해를 입히니, 공께서도 세상에 아무런 뜻이 없어 다시 해서 옛집으로 돌아오셔서 관해(觀海)라 자호(自號) 하시고 한가로이 거닐며 유유자적하게 지내셨다. 계축년(癸丑年)에 다시 전적(典籍)으로 임명되어 치제관의 임무를 띠고 장연(長淵)으로 가셨다. 이때 무옥(誣獄) 사건이 크게 일어나, 이첨이 억지로라도 죄안을 만들려는 심산으로 공의 부인과 어린 아들 득붕(得朋)을 체포하였다. 득붕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음에도 끝내 굴복하지 않으니, 흉적들은 억지로 자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먼 변방으로 귀양 보내기로 하였다. 공은 양산(梁山)으로 득붕은 곤양(昆陽)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모두 풍토병이 있으며 멀고 험악한 땅이었다. 공과 득붕은 힘들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도 오히려 부모님의 신주(神主)를 등에 지고 길을 떠났으니, 도로에서 이를 본 자들 가운데 눈물을 훔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다. 10년 동안 유배지에서 지내다가 계해년(癸亥年)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서야 풀려서 돌아오셨는데, 공은 또한 예조좌랑(禮曹佐郎)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으로 임명되셨다. 이때 조정에서 남한산성을 수축하여 요새지로 만들 것을 논의했는데 목사(牧使)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어 난처해하던 차에, 상촌(象村) 신흠(申欽)이 공을 먼저 추천하여 광주목사(廣州牧使)로 임명하였다. 광주는 본래 경기 지방의 요충지라 우선 성을 쌓는 일이 중대하지만 모든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셈인지라 공은 심력을 다 바쳐 계획을 수립하고 질서 있게 조치하셨다.

병자년(丙子年) 봄. 역적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니 나라 안이 겁에 질려 떨기만 하였다. 공은 진영에 따로 관할(管轄)하는 군병이 없어 맨주먹으로 의기를 떨쳐 보았으나 계책을 펼칠 방법이 없자, 부로(父老)들을 소집해 대의를 논하여 민병(民兵) 수백 인을 모았다. 그러나 적들이 갑작스레 서울로 들이닥치니 임금은 남쪽으로 피난 가셨다. 공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밤새

달려 과천(果川)으로 나가서 대가(大駕)를 맞이하려 하였으나 행차는 이미 지나간 뒤였다. 공은 남쪽을 향하여 통곡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따라갔는데, 가다가 다시 생각하여 말하기를, "생각해보니, 저 얕은 여울물을 막지 않고서 적들이 계속 치달릴 수 있게 해버린다면, 흉악한 칼날이 미치는 곳은 차마 말 못 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시고 바로 본주(本州)로 돌아와서 대오를 정돈하시고 강여울을 가려서 막기로 계획을 세웠었다.

이날 역적 이괄은 안현(鞍峴)에서 패배하고 다만 심복 백 명과 함께 이미 여울을 건너 남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공은 고립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서로 경안역(慶安驛) 다리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공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모인 군사들이라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공은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들도 평소 공의 높으신 기절에 감복해오던 바라 감히 대번에 칼로 베지 못하자, 적장 한명련(韓明璉)이 이괄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우리의 뒤를 추격할 터이니 속히 제거하여 후환을 덜어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므로 이괄은 귀순한 왜장을 시켜서 공을 붙잡아 협박하게 굴복시키게 하자, 공이 소리 높여 꾸짖기를, "국가에서 너의 공로를 기록하고 너의 벼슬을 높여 주었거늘 네가 어찌 감히 반란을 일으키느냐, 네놈을 만 토막으로 자르지 못하는 게 한이로다. 왜 나를 속히 죽이지 않느냐?" 하시니 이괄이 크게 노하여 칼을 잡고 찌르니 공의 몸엔 성한 피부가 없으셨으나 꾸짖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이괄이 더욱 노하여 말하기를, "너는 서생이다. 안고경(顔杲卿)의 죽음을 듣지도 못하였느냐?"고 바로 혀를 잘라서 죽게 하니, 이해 2월 12일이었다. 돌아가신 지 수 일이 지났으나 안색도 변하지 않고 늠름한 생기가 있었다. 이 소식이 임금님이 계신 곳에 들리니 성상께서는 놀라 애도하시며 그 충렬에 감동하셔서 바로 유사(有司)에게 관작을 추증하고 정려를 세우도록 하며, 또한 연로(沿路)의 관원은 운장(運葬)에 적극 도우라고 하명하셨다. 그해 5월에 순천(順天) 북쪽 송광면(松光面) 낙수(洛水) 모후산(母后山) 기슭 건좌(乾坐)의 터에 장례를 모셨으니 향년 63세였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엄숙하고 결백하며, 기상이 굳세고 시원스러웠으며 또한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금호공(錦湖公)이 숙부이시고 송파공(松坡公)을 형으로 모셨으니 가정에서 전수하는 가르침은 말하지 않더라도 상상할 수 있다. 고결한 시격(詩格)과 호방한 문장은 장강(長江), 대하(大河)처럼 그 끝을 알 수 없고 한 번만 읽어보아도 쇄연(灑然)하기는 선계의 맑은 바람에 천의天衣가 나부끼는 듯해서, 사람의 마음을 심취하게 하여 절로 춤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금할 길이 없었다. 병란이 끝나고 난 뒤, 유집(遺集) 한 권만이 세상에 간행되었으니 전부의 맛을 다 보지 못함이 한스럽다.

또한 권석주(權石洲)가 그 장인의 묘문을 공에게 청하면서 "자네가 아니면 세인들의 의혹을 떨쳐낼 수 없다."라고 하였고, 월사(月沙) 이공(李公)은 두 아들을 공에게 보내 수업을 받게 하

였으니 당시 여러 공이 추앙하였다는 걸 상상할 수 있다. 공이 쓴 강 수은(姜睡隱) 제문[464]에,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사고, 탐욕하고 음흉한 자는 남들이 좋아한다. 미워하면 배척하여 죄에 빠트리거나 내쳐 억누르면서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고, 좋아하면 격려를 하고 나쁜 점을 털어주며 세상으로 끌어 올려주는구나. 붉은 수레와 빛나는 일산(日傘)이 광채가 나 남을 현혹시키네. 마을에서 부러워하고 길거리에서 뽐내고 다니니, 오호라! 착한 사람이 세상 살기란 큰 곤액(困厄)이라." 하셨다. 아! 이에 말세를 통한하신 뜻을 짐작할 수 있으니, 어찌 천고 선인(善人)들의 눈물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정부인 영일 정씨(迎日鄭氏)와 2남을 두었는데, 장남 득열(得悅)은 문과에 장원하여 사간원 헌납(司諫院 獻納)을 지냈고, 다음 득붕(得朋)은 수토병(水土病)으로 고생하다 장가를 들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후배(後配)와 삼남이녀(三男二女)를 두셨는데, 득이(得怡)·득재(得材)·득무(得懋)이다. 득열(得悅)은 3남을 두었으니 시(眡)는 통사랑이요 치(峙)는 통덕랑이요 교(嶠)는 본종(本宗)으로 출계하였다. 득이(得怡)는 4남을 두었는데, 휘(徽)·징(徵)·암(巖)·순(峋)이요, 득재(得材)는 2남을 두었는데, 희(嬉)·돈(頓)이다. 시(眡)는 2남 두었는데, 귀년(龜年)·용년(龍年)이다. 이하 증·현손은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

오호라! 공은 깊으신 학문과 높으신 덕행으로 절의를 실천하시고 순국하신 업적은 이처럼 뛰어나신 데도 앙금을 가진 사람들의 방해로 사후에 공적을 포상하고 시호를 하사하는 은전을 받지 못하시니 식자들의 안타까움이 오백 년이 되었다. 모두가 슬퍼했던 것이라서 공의 업적을 현양하자는 의론이 사림과 본손(本孫)들의 중의(衆意)에서 성대하게 일어나 묘도에 신도비를 세우기로 하고 나에게 글을 쓰라 청하니 돌이켜 보건대 불민한 후생이 어찌 감히 그동안 드러나지 못했던 훌륭하신 덕을 만의 일이라도 드러나게 할 수 있으리오. 그러나 평소에 우러러 흠모하고 마음속으로 배우며 따른 지 오래다. 글재주가 없다고 끝내 사양할 수 없었으므로 삼가 위와 같이 서술하였고, 아래와 같이 명(銘)을 붙인다.

도량은 창해같이 넓으시고	度濶滄海
의리는 태산같이 무거우셨도다	義重泰山
몸 바쳐 나라에 갚으실 제	捨身報國
기꺼이 곰의 발바닥을 취하셨다[465]	樂取熊掌

---

464) 『수은집(睡隱集)』에 있는 「관해 임회 제문(祭文林觀海檜)」이다.

465) 기꺼이 …… 취하셨다: 이익보다 의를 선택함을 가리킨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물고기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선택하겠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선택하겠다.〔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

훌륭한 명성 천고에 남기니	遺芳千古
굳센 기개는 북두를 찌르는구나[466]	正氣射斗
등임에 사우 있고	登臨有祠
정열사에 향화드리오니	旌烈薦芬
청사에 드리운 이름	垂名汗靑
천년토록 공언되리라	千載公言

무오년 시월 일. 후학(後學) 김해(金海) 김헌태(金憲泰) 근찬 병서

有若稟千古之精英。抱宇宙之氣節。文可以賁飾王猷。才可以幹裁世務。或不得於世而坎軻於當路。被誣於群奸。若將韜晦山水。而及當危難之際。貫日之忠不樹不已。根天之義不扶不止。捨身報國。動宸聽而命旌。瀝血罵賊。振今古而凜烈。赫赫於千載而不知其窮者。吾之於觀海林公見之矣。公姓林。諱檜。字公直。號觀海。系出學士公。東渡泊於龍珠故。平澤爲貫。高麗領三司事諱禧爲中祖。忠貞公平城府院君諱彦修爲八世祖。入李朝。有諱尙陽知訓鍊觀事寔爲公六世祖也。曾祖諱萬根僉正贈吏曹參判。祖諱畯文薦北道兵馬節度使。生四子。元秀進士。享秀副提學贈吏判。吉秀禮曹佐郎。貞秀刑曹佐郎贈承旨。是公之考也。妣全義李氏縣令震男之女。明宗十七年壬戌九月。生公于羅州松峴之第。佐郎公無嗣。取而子之。公生而俊偉睿聰。自能言便解文字。隨伯兄松坡公而始學讀書。聰敏絕人。稍長文章日進。每就場室無出其右者。諸父老咸許以大器。公二十一歲陞上庠。翌年癸未。丁李夫人憂。未練又遭承旨公喪。喪未除。佐郎公又不幸。公七年守制如一日。毁幾滅性。服闋。委禽于松江鄭相國之門。始承旨公與松江約婚。至是八年竟成親。兩家信義。人皆歎服。癸巳所後妣魯氏夫人棄世。時當壬亂搶攘。而送終之禮。自盡無憾。去喪奉家廟。避地海西。寓居首陽山下。時松江旣沒。時論亦大變。公謝絕仕路。棲遑鄕曲。唯以詩酒自娛。辛亥始登第。以年滿五十。例授成均典籍。時仁弘·爾瞻輩。用事所以重傷公者萬方。公亦無意於世。復歸海西舊寓。自號觀海。徜徉而自適。癸丑復除典籍。以致祭官往長淵。會誣獄大起。爾瞻勒成罪案。逮公夫人弱子得朋。得朋年甫十四。終不服。賊臣輩知不可强服。竄之邊遠。公配梁山。得朋配昆陽。皆瘴癘遠惡之地也。公與得朋間關跋涉。猶背父母神主以行。道路觀子莫不揮涕。在謫十年。至癸亥。仁祖反正蒙還。公亦拜禮曹佐郎軍器寺僉正。朝議將修南漢山城爲保障之地。而牧守難其人。申公欽首薦公爲廣州牧使。廣本京輔要衝。且築城事殷。庶務草創。公殫心規畫措置有方。丙子春。

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라고 한 맹자의 말에서 연유한 것이다.

466) 굳센 …… 찌르는구나: 기상이 하늘의 별을 찌를 정도로 본디 웅대했다는 말로, 원문의 '射斗'는 기상이 걸출하거나 재주가 뛰어난 것을 비유한다. 진나라 때 충신 장화(張華)가 일찍이 두성과 우성 사이에 기이한 자색 서기(瑞氣)가 뻗치는 것을 보고, 뇌환(雷煥)을 보내 풍성현(豐城縣)의 옛 옥사(獄舍)에서 '용천(龍泉)'과 '태아(太阿)' 두 명검을 얻은 고사가 있는데, 이를 원용하여 한 말이다.

逆适興兵反亂。國內震懼。公鎭下無管轄軍兵。空拳奮義。計無所施。乃招集父老。論以大義。得民兵數百。而賊猝逼京城。大駕南行。公聞報夜馳。出迎又果川則大駕已過矣。公南望痛哭。策馬赴行。行得計之日。念不急防淺灘。任賊長驅。則凶鋒所及。有不忍言者。遂還州境。整頓部伍以爲遮絕江灘之計。是日賊敗於鞍峴。獨與其心腹百人。已渡淺灘而南走。公以孤軍。猝然相遇於慶安驛橋邊。一朝驟合之卒。不戰自潰。公遂被執。賊素服公之氣節。不敢遽加刃。賊將韓明璉爲适曰。若釋此人。必踵吾後。不如速除以絕後患。适令降倭捽公脅公使屈。公厲聲曰。國家錄汝勳勞崇汝爵秩。汝何敢叛。恨不斬汝萬段。何不速殺我。适大怒。手劍而刺之。公體無完膚。口不絕罵。适益怒曰。爾書生。獨不聞顔杲卿之死乎。卽斷舌以死。是年二月十二日也。死已數日。顔貌不變。凜凜有生氣。訃聞行在。上大加驚悼。感其忠烈。亟命有司賜爵旌閭。沿路護櫬以送。以其年五月。葬于順天治北松光面洛水母后山乾坐之原。享年六十三。公天姿峻潔氣尙豪俠。又生於簪纓華閥之門。以錦湖爲叔。以松坡爲兄。家庭之薰襲。不言可想。而詩格之高潔。文章之豪放。女長江大河而不見其涯。試一誦詠。灑然如閒范淸風天衣翩翻。使人心醉。自不禁舞蹈之至。兵燹之餘。遺集一卷。刊行于世。恨不嚐全部之味矣。且觀權石洲請其舅之墓文於公曰。非子莫能破世人惑。月沙李公。令其二子。就公受學。可想諸公之推許。公之祭姜睡隱文曰。正直醇粹者爲人所惡。而貪愚險狠者乃爲人所好。惡之也則排陷擯抑而使不得容迹。好之也則獎餙振拂而引之於世道。朱輪華蓋光彩眩人。閭里慕之。道路榮之。嗚呼。善人之生世。其亦厄矣。噫。於此可以見痛恨衰世之旨矣。豈不墮千古善人之淚哉。貞夫人迎日鄭氏有二男。長得悅文科壯元司諫院獻納。次得朋病瘴未娶而夭。後配有三男二女。男得怡得材得懋。得悅男三人。曰眚通士郎。曰峙通德郎。曰嶠出系本宗。得怡有四男。曰徽。曰徵。曰巖。曰峋。得材有二男。曰蟢曰頓。眚有二男。龜年。龍年。以下曾玄。多不盡錄。嗚呼。公之邃學峻德。殉國踐義之蹟。若是其卓卓。而又尼於修隙者追褒易名之典。識者之慨惜。五百年于玆矣。彝哀所同。顯揚公績之議。蔚興於士林本孫之衆意。且欲竪碑阡隧。請文於不佞。自顧不敏。烏敢發幽光之萬一哉。然素所景仰私淑則久矣。不可以不文終辭。忘僭謹叙如右。係之以銘曰。

度濶滄海。義重泰山。捨身報國。樂取熊掌。遺芳千古。正氣射斗。登臨有祠。

旌烈薦芬。垂名汗靑。千載公言。

戊午十月日。後學。金海金憲泰。謹撰並書。

출전 : 임동철 역, 『역주 관해유고』, 지식과 교양, 2012

32) 장이길(張以吉, 1529~1595)

• 본관 흥덕(興德), 자 천응(天應), 호 야우(野憂)

(1) 송치규(宋穉圭), 『강재집(剛齋集)』 권5, 「초동팔현행록서(草洞八賢行錄序)」

금성(錦城, 전남 나주시)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산과 물이 아름다운 지역이 있는

데 '초동(草洞)'이라고 한다. 가정(嘉靖)과 만력(萬曆) 사이에 마을에는 죽담(竹潭) 이유근(李惟謹)[467], 야우(野憂) 장이길(張以吉), 창주(滄洲) 정상(鄭詳), 한천(寒泉) 유주(柳澍)[468], 삼주(三洲) 최희열(崔希說), 금애(錦崖) 이언상(李彦詳)[469], 남호(南湖) 유은(柳溵)[470], 사촌(莎村) 최사물(崔四勿)[471] 등 여러 공(公)이 차례차례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바로 『여지승람(輿地勝覽)』에서 말한 '팔문관(八文官)'이 바로 이들이다. 한때에 인물이 흥성한 것이 비록 태평성대와 관계가 있더라도, 어찌 산과 물에도 또한 밝고 아름다운 호응이 있지 않겠는가. 여덟 분의 공(公)이 마을의 북쪽 보산(寶山) 밑에 정사(精舍)를 짓고, 때맞추어 강습하고 후진을 훈도하여 지금까지 수백여 년이 지났는데도, 주(州)의 인사들이 변함없이 우러러 칭송하며, 여덟 집안의 후손들은 공들이 남긴 규범들을 잘 지키고 서로 힘을 모았기에 정사 또한 아무 탈이 없을 수 있었다. 장공(張公)의 후손인 헌주(憲周)[472]는 문아(文雅)한 선비이다. 나를 따라 배우다가 어느 날 소매에서 여덟 공의 행록(行錄)을 꺼내어 보여 주고 말하기를, "여덟 명의 현인은 태어난 것도 한 세대를 함께하였고 사는 것도 한마을에 같이 사셨으며, 연구한 것은 경전(經典)이요, 갈고 닦은 것은 명절(名節)이었습니다. 어떤 자는 그 시대에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는 운명이 짧기도 하여 몸에 쌓아 둔 것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취한 것을 살펴보면, 실로 보통의 벼슬아치에게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은 후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미 보산정사(寶山精舍)에서 사(社)에 제사하는 예를 올렸고, 그 사적(事蹟)을 뒤늦게 기술하여 정사에 와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만, 증거로 삼을만한 문헌이 없으니 소략한 점이 이와 같아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얻어 책머리에 붙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을 어르신들의 뜻입니다."라고 하였다. 아아! 나는 견문이 좁아 정말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

---

467) 이유근(李惟謹): 1523~1546.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택가(擇可), 호는 죽담(竹潭)이다. 1561년(명종 16) 문과에 급제하였다. 예조 정랑을 지내고 서장관으로 북경에 다녀왔으며, 1573년 대구 부사를 지냈다.

468) 유주(柳澍): 1536~1588. 자가 시숙(時叔)이고, 호가 한천이다. 현곡(玄谷) 조위한(趙緯韓)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을 스승으로 섬겼다. 그리고 사암(思菴) 박순(朴淳), 지천(芝川) 황정욱(黃廷彧), 송강(松江) 정철(鄭澈),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 등 당대 명현과 교유하였다. 『八賢行錄』.

469) 이언상(李彦詳): 1536~1579. 자가 경지(景智), 호가 금계(錦溪)、금애이다. 부친은 이림(李琳)이다.

470) 유은(柳溵): 1540~1590. 자가 심보(深甫), 호가 남호이다. 본관은 흥양(興陽)이다. 한천 유주의 아우이다. 1589년에 윤근수(尹根壽)를 따라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갔다. 1594년에 유은은 종계변무의 공로로 공신에 추록(追錄)되었다. 『八賢行錄』.

471) 최사물(崔四勿): 1544~1587. 자가 희구(希具), 호가 사촌, 본관은 탐진(耽津)이다. 최사물의 부친은 율정(栗亭) 최학령(崔鶴齡)이다.

472) 장헌주(張憲周): 1777~1867. 본관은 흥성(興城)이요, 자는 유장(幼長)이며, 호는 여력재(餘力齋)이다. 부친은 제갑(齊甲)으로, 전남 나주(羅州) 다시면(多侍面) 송촌(松村)에서 출생하였다. 송치규(宋穉圭)의 문인이다. 문집에 『여력재집(餘力齋集)』이 있다.

다. 또 공들은 현명하여 김하서(金河西, 김인후(金麟厚)[473]와 기고봉(奇高峯, 기대승(奇大升)) 두 어른의 문하에서 학업을 청하여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며, 박사암(朴思菴, 박순(朴淳)[474], 정송강(鄭松江, 정철(鄭澈)), 윤오음(尹梧陰, 윤두수(尹斗壽)) 등 현인들과 친밀한 교분을 맺으면서 존경을 받았으니, 이것은 충분히 잊히지 않을 일인 것이다. 그중에 음양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즈음에서 기미를 보고 섬 오랑캐가 창궐하는 때에 의병을 이끈 것은 절로 후세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죽담(竹潭)과 삼주(三洲) 두 공의 아들은 혼조(昏朝, 광해군) 때에 절의를 우뚝 세우기도 하여, 집안에서 받은 올바른 가르침을 더욱 검증할 수 있으니, 또 어찌 나의 말을 기다려서 발휘하겠는가. 여덟 집안의 후손이 선조의 미덕을 널리 퍼뜨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오직 자신을 닦는 것이 어떠하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것은 열심히 노력할 만한 일이고 또 거기에서 느끼는 점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천성이 산과 물을 좋아하여, 한 번 초동(草洞)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경치를 두루 살펴보고 또 정사에 올라서 그 당시 공들의 흥취를 상상해 본다면 어찌 유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늙고 병들어서 갈 수 없는 것이 참으로 한스러울 뿐이다. 이에 이 글을 써서 장군(張君, 장헌주(張憲周))의 요청에 답한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강재집(https://db.itkc.or.kr/)

錦城西二十里。有山水名區。曰草洞。嘉靖萬曆間。洞有李竹潭惟謹,張野憂以吉,鄭滄洲詳,柳寒泉澍,崔三洲希說,李錦崖彦詳,柳南湖澱,崔莎村四勿諸公。相繼登第。卽輿地勝覽所稱八文官是也。一時人物之盛。雖系乎昭代休運。豈山水亦有明麗之應耶。八公築精舍於洞之北寶山之下。以時講習訓導後進。至今數百餘年。州之人士。欽誦不衰。而八家後承克守遺規。相與葺理。故精舍。亦得以無恙焉。張公傍裔憲周。文雅士也。從余遊。一日袖示八公行錄而曰。八賢生並一世。居在一洞。所講究者經傳也。所砥礪者名節也。或厄于時。或短於命。不能展布所蘊。而考其所成就。則實非尋常朝士之比。而遺風餘韻。有足以起後人者。吾鄉已擧祭社之禮於寶山精舍。追述其事蹟。以詔來遊於精舍者。文獻無徵。草率如是。甚可慨惜。願得一言。以弁諸卷。此吾鄉諸長老之意也。嗚呼。余之陋劣。固非其人。且諸公之賢。有請業於金河西,奇高峯二老之門而蒙奬與。托契於朴思菴,鄭松江,尹梧陰諸賢之間而見推重。斯足以不朽。而其見幾於陰陽消長之際。倡義於島夷猖獗之時者。自可以垂後矣。至如竹潭三洲二公之胤。昏朝樹立之卓。尤可驗家庭所受之正。又何待余言而發揮也。八家後承。思欲闡揚先美。惟在自修之如何耳。是則所可爲之致勉者。而抑又有所

---

473) 김인후(金麟厚): 본관은 울산,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또는 담재(澹齋),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1540년 별시 문과에 급제했으나, 1545년 을사사화(乙巳士禍)를 계기로 고향 장성에 돌아가 성리학 연구에 정진했다. 문묘(文廟)를 비롯하여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옥과(玉果)의 영귀서원(詠歸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하서전집』, 등이 있다.

474) 박순(朴淳): 1523~1589.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이다. 서경덕의 문인이다. 1553년 정시 문과에 장원한 뒤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사암집』7권이 있다.

感焉者。余性好山水。一至草洞。周覽其勝槩。因登精舍。想像諸公當日之趣。則豈非快事。顧衰病不可得。可恨也已。遂書此以塞張君之請。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강재집(https://db.itkc.or.kr/)

(2) 송치규(宋穉圭), 『강재집(剛齋集)』 권9, 「삼주 최공 묘표(三洲崔公墓表)」

경인년(1590, 선조 23)에 승지공(承旨公)[475]의 상을 당했을 때는 형식적인 예법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모두 극진히 하였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난가자 야우(野憂) 장이길(張以吉)과 함께 소(疏)를 올려 풍패(豐沛, 전주(全州))로 돌아와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무술년(1598, 선조 31)에 원수(元帥) 권율(權慄)이 순천부(順天府)에 진을 치고 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청했다. 공은 송간(松澗) 홍천경(洪千璟), 송정(松亭) 장이경(張以慶)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양식을 조달하여 군사력을 도왔다. 계묘년(1603, 선조 36)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지나치게 슬퍼하여 병이 생겼다. 상기를 마치자마자 정미년(1607, 선조 40) 정월 6일에 작고하였으니 향년 72세였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강재집(https://db.itkc.or.kr/)

庚寅。丁承旨公憂。戚易兩盡。壬辰亂。大駕播越。與張野憂以吉。上疏請回鑾豐沛鄕。以爲根本圖。戊戌權元帥慄。留陣順天府。移書請共濟艱難。公與洪松澗千璟,張松亭以慶諸公。募兵鳩粟。以助軍勢。癸卯。丁內憂。過哀成疾。纔闋服。卒于丁未正月六日。享年七十二。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강재집(https://db.itkc.or.kr/)

(3) 장헌주(張憲周) 등 편, 『팔현행록(八賢行錄)』

야우(野憂) 장 선생(張先生)

공의 휘는 이길(以吉), 자는 천응(天應)으로, 본관은 흥성(興城)이다. 고려 광평시랑(廣評侍郎) 휘 유(儒)의 후손이다. 고조 휘 합(合)은 선공감 정(繕工監正)을 지냈다. 증조 휘 윤승(允升)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는데, 광묘(光廟; 세조)가 선위(禪位)를 받자 재상 정인지(鄭麟趾)[476]가 재주와 행실로 누차 천거하였지만 끝내 나가지 않았다. 조부 휘 극평(克平)은 부사직(副司直)이고, 아버지 휘 현(俔)은 호가 치은(癡隱)이다. 한훤(寒暄) 김문경공(金文敬

475) 최희열의 부친 최낙궁(崔樂窮)이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476) 정인지(鄭麟趾): 1396~1478.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저(伯雎), 호는 학역재(學易齋)이다. 1414년 식년 문과에 장원 급제한 뒤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수양대군(首陽大君)을 도와 좌의정이 되었다. 저서에는 『학역재집』이 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公)[477]의 학문을 문경공(文敬公)의 종질인 왕자사부(王子師傅) 김건(金鍵)[478] 공에게서 배웠으며, 실천이 순수하고 독실하여 학행으로 참봉에 천거되었다. 인묘(仁廟 인종)가 돌아가시자 곧바로 마음을 수양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공의 기일은 바로 7월 1일인데 병이 위독해졌을 때 시중드는 사람이 고기 가루로 죽을 쑤어 올리자 입안의 음식물을 뱉고 양치질을 하였다. 그러고는 "오늘은 바로 인묘의 기일이다."라 하고 이내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시니,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역책(易簀)에 견주기까지 하였다. 어머니는 경주최씨(慶州崔氏) 장령(掌令) 휘 형한(亨漢)의 따님으로 가정(嘉靖) 기축년(1529, 중종 24)에 초동리(草洞里) 집에서 공을 낳았다.

타고난 재주가 탁월하여 6세에 능히 문장을 지어 향리에서 신동이라 불렸다. 일찍부터 집안의 가르침을 받고 또 율정(栗亭) 최학령(崔鶴齡) 공의 문하에서 학업하기를 청하여 문장이 일찍부터 완성되었으며, 효성과 우애가 깊고 돈독하였다. 27세인 을묘년(1555, 명종 10)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32세인 경신년(1560, 명종 15)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율정공(栗亭公)이 "초동의 문과 급제가 장문에서 일찍 생기니 효성스런 후손들을 괴원[승문원(承文院)]에서 추천하네[草洞文科早張門 孝子孫隸槐院薦]"라는 시를 지어 축하하였다. 이조정랑(吏曹正郎)을 거쳐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 겸 남학 훈도(南學訓導), 사헌부 지평, 사간원 대사간, 승정원 우부승지, 오위도총부 도총관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을 역임하였다. 지방직으로는 장성(長城)과 진산(珍山), 익산(益山) 등 일곱 고을과 평양 서윤(平壤庶尹)을 역임하니, 이 관직들이 지금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거친 이력이다.

공이 일찍이 대박산(大朴山) 서쪽 기슭에 정자를 짓고 야우(野憂)라고 편액하니, 대개 범문정(范文正)의 "강호에 살면서 임금을 걱정한다[處江湖憂君]"는 뜻[479]을 취한 것이다.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과는 도의(道義)의 교분이 있었다. 공이 장성(長城)의 수령이 되었을 때 아우가 공을 세웠다고 하여 기생의 역(役)을 벗겨주자, 고봉이 편지를 보내 "형께서 한 지방의 태수가 되어 담장 아래 꽃[기녀(妓女)]을 키우는데 힘쓰고, 아우를 위해 이름난 어린 기생의 면역(免役)을 허락한다면 뒷날 여론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라며 나무랐다. 공이 곧바로

---

477) 김굉필(金宏弼): 1454~1504. 본관은 서흥(瑞興), 자는 대유(大猷), 호는 사옹(簑翁) 또는 한훤당(寒暄堂),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평생 『소학』에 심취하여 스스로 '소학동자'라 일컬었다.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무오당인이라는 죄목으로 극형에 처해졌다. 저서로는 『한훤당집』 등이 있다.

478) 김건(金鍵): 1505~1576. 본관은 서흥(瑞興), 자는 공계(公啓), 호는 죽오당(竹梧堂)이다. 조부는 김굉필의 숙부인 총(總)이다. 1534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고, 1540년에 왕자의 사부(師傅)를 제수받았으며, 1543년에 예산 현감(禮山縣監)이 되었다.

479) 범문정의 …… 뜻: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에 "묘당의 높은 곳에 처하면 백성들을 걱정하고 강호의 먼 곳에 처하면 그 군주를 근심하니, 이는 나아가도 근심하고 물러나도 근심하는 것이다.[居廟堂之高, 則憂其民, 處江湖之遠, 則憂其君. 是進亦憂, 退亦憂.]"라고 한 데서 나왔다. 문정은 범중엄의 시호이다.

입안(立案)을 환수하였으니, 과오를 고치고 선을 받아들이는 용감함이 이와 같았다. 또 재상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 공과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 윤 공이 본도에 안찰사로 나왔는데 사마시를 설행(設行)하기 위해 같은 해 본부에 모여 공을 불러 시를 주고받고는 연명하여 게판(揭板)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전하여 대단한 일이라고 하였다.

임진왜란을 당해 소의장(昭義將) 임환(林懽) 공과 함께 의병을 창의하고 또 병사를 모집하고 군량미를 조달하여 김천일(金千鎰) 공의 군대를 도왔다. 이어 임금을 호위하여 용만(龍彎)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거빈(去邠)하여 내부(內附)[480]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공이 행재소(行在所)에 상소하여 호남(湖南)은 국가의 풍패(豐沛)의 고을이니, 어가를 돌려 남으로 순행하시어 국가 회복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청하였지만, 임금께서는 강물이 얼고 길이 통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형편상 어렵다고 하셨다. 이어 관대한 비답을 내리고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올리셨다. 만력(萬曆) 을미년(1595, 선조 28)에 돌아가셨다. 상복을 입던 날 수(守) 공홍도 관찰사(公洪道觀察使) 교지가 내려왔는데, 공의 아들인 통례공(通禮公) 휘 귀생(貴生)이 공이 명을 받들지 못했다고 해서 교지를 도로 바쳤다.

아, 공은 고명하고 박식한 자질로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어린 나이에 재능을 떨쳐 중외의 관직을 두루 거쳤다. 주군(州郡)에서의 명성과 공적, 대헌(臺憲)의 풍채는 성대하여 볼만한 것이 있었지만 전쟁으로 불탄 뒤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없고 다만 용만에서 올린 상소 하나만이 『정원일기(政院日記)』에 실려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 언행과 사실도 남아 있지 않아 일컬을 것이 없으니, 아 애석하다. 다만 당시에 서로 절차탁마했던 벗으로는 한 동네의 일곱 학자가 있다.

출전 : 나주의병 종합학술조사 번역팀 역

公諱以吉。字天應。系出興城。高麗廣評侍郎諱儒之後也。高祖諱合。繕工監正。曾祖諱允升。司憲府監察。光廟受禪。鄭相麟趾。以才行累薦。終不起。祖諱克平。副司直。考諱俔。號癡隱。得寒暄金文敬公之學於文敬之從侄王子師傅金公健。踐履純篤。以學行薦參奉。仁廟賓天。卽意養懷。公之諱日。卽七月初吉。而方其病革。侍者用脯末進粥。吐吞漱口曰。今日。卽仁廟諱辰。因泣下考終。聞者。至以易簀比之。妣慶州崔氏。掌令諱亨漢之女也。嘉靖己丑。生公于草洞里第。天才卓越。六歲能屬文。鄕里稱神童。早襲庭訓。又請業於栗亭崔公鶴齡之門。文章夙成。孝友采篤。二十七乙卯。中司馬。三十二庚申。登別試文科。栗亭公詩以賀之曰。草洞文科早張門。孝子孫隷槐院薦。吏曹正郎。歷成均館學諭。兼南學訓導。司憲府持平。司諫院大司諫。承政院右副承旨。五衛都摠府都摠管。兼經筵參贊官。在外則歷長城·珍山·益山等七邑及平壤庶尹。是內外履歷也。公嘗構亭於

480) 거빈(去邠)하여 내부(內附): 의주(義州)까지 파천(播遷)한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 요동(遼東)으로 들어가서 중국에 의탁하려던 일이다.

大朴山西麓。扁以野憂。盖取范文正處江湖憂君之意也。與奇高峰大升。爲道義交。公之宰長城也。爲舍弟入功。免妓役。高峰以書責之曰。兄作路邊太守。務養墻花。爲舍弟。許免有名小艾。他日物論。何可免乎。公卽還收立案。其改過受善之勇如此。又與梧陰尹相公斗壽。契分甚厚。尹公之出按本道也。爲設司馬。同年會於本府。邀公酬唱。聯名揭板。一時傳以爲勝事。當壬辰倭變。與昭義將林公懽。同倡義旅。又募兵鳩粟。以助金公千鎰軍。因扈駕龍灣。時有去邠內附之議。公上疏行在。爲湖南國家豐沛之鄉。請回鑾南巡。以爲恢復之根本。上以江水成氷。道路不通。勢所難成。因優批以答。特陞嘉善大夫吏曹參判。萬曆乙未卒。成服之日。守公洪道觀察使敎旨下來。公之子通禮公諱貴生。以公未及拜命。還納其帖。噫。公以高明弘博之姿。承父師之訓。早年蜚英。歷敭中外。州郡聲蹟。臺憲風采。當蔚有可觀。而兵燹之餘。訖無所傳。只龍灣一疏。槩載於政院日記。其餘言行事實。亦泯然無稱。吁。可惜哉。第其時麗澤切劘之益。有同閈七斯文焉。

출전 :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33) 정상(鄭詳, 1533~1609)

• 본관 나주(羅州), 자 중신(仲愼), 호 창주(滄洲)

(1) 송치규(宋穉圭), 『강재집(剛齋集)』 권5, 「초동팔현행록서(草洞八賢行錄序)」

금성(錦城 전남 나주시)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산과 물이 아름다운 지역이 있는데 '초동(草洞)'이라고 한다. 가정(嘉靖)과 만력(萬曆) 사이에 마을에는 죽담(竹潭) 이유근(李惟謹), 야우(野憂) 장이길(張以吉), 창주(滄洲) 정상(鄭詳), 한천(寒泉) 유주(柳澍), 삼주(三洲) 최희열(崔希說), 금애(錦崖) 이언상(李彦詳), 남호(南湖) 유은(柳溵), 사촌(莎村) 최사물(崔四勿) 등 여러 공(公)이 차례차례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바로 『여지승람(輿地勝覽)』에서 말한 '팔문관(八文官)'이 바로 이들이다. 한때에 인물이 흥성한 것이 비록 태평성대와 관계가 있더라도, 어찌 산과 물에도 또한 밝고 아름다운 호응이 있지 않겠는가. 여덟 분의 공(公)이 마을의 북쪽 보산(寶山) 밑에 정사(精舍)를 짓고, 때맞추어 강습하고 후진을 훈도하여 지금까지 수백여 년이 지났는데도, 주(州)의 인사들이 변함없이 우러러 칭송하며, 여덟 집안의 후손들은 공들이 남긴 규범들을 잘 지키고 서로 힘을 모아 정사를 보수하였으므로, 정사 또한 아무 탈이 없을 수 있었다. 장공(張公)의 후손인 헌주(憲周)는 문아(文雅)한 선비이다. 나를 따라 배우다가 어느 날 소매에서 여덟 공의 행록(行錄)을 꺼내어 보여 주고 말하기를, "여덟 명의 현인은 태어난 것도 한 세대를 함께하였고 사는 것도 한마을에 같이 사셨으며, 연구한 것이 경전이고 갈고닦은 것이 명절(名節)이었습니다. 혹은 시대의 멍에를 지기도 하고 혹은 운명이 짧기도 하여 몸에 쌓아 둔 것을 펼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성취를 살펴보면 실로 보통의 벼슬아치에게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풍과 여운은 후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한 점이 있

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보산정사(寶山精舍)에서 사(社)에 제사하는 예를 이미 올렸고 그 사적(事蹟)을 뒤늦게 기술하여 정사에 와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증거할 만한 문헌이 없어 이와 같이 소략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얻어 책머리에 붙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을 어르신들의 뜻입니다."라고 하였다. 아아! 나는 견문이 좁아 정말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다. 또 공들은 현명하여 김하서(金河西, 김인후(金麟厚))와 기고봉(奇高峯 기대승(奇大升)) 두 어른의 문하에서 학업을 청하여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며, 박사암(朴思菴 박순(朴淳)), 정송강(鄭松江 정철(鄭澈)), 윤오음(尹梧陰 윤두수(尹斗壽)) 등 현인들과 친밀한 교분을 맺으면서 존경을 받았으니, 이것은 후세에도 잊혀지지 않을 일이다. 그중에 음양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즈음에서 기미를 보고 섬 오랑캐가 창궐하는 때에 의병을 이끈 것은 저절로 후세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죽담(竹潭)과 삼주(三洲) 두 공의 아들은 혼조(昏朝 광해군) 때에 절의를 우뚝 세우기도 하여, 집안에서 받은 올바른 가르침을 더욱 검증할 수 있으니, 또 어찌 나의 말을 기다려서 발휘하겠는가. 여덟 집안의 후손이 선조의 미덕을 널리 드날리고자 생각한다면, 자신을 닦는 것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것은 열심히 노력할 만한 일이고 또 거기에서 느끼는 점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천성이 산과 물을 좋아하여, 한번 초동(草洞)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경치를 두루 살펴보고 또 정사에 올라서 그 당시 공들의 흥취를 상상해 본다면 어찌 유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늙고 병들어서 갈 수 없는 것이 참으로 한스럽다. 이에 이 글을 써서 장군(張君 장헌주(張憲周))의 요청에 답한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강재집(https://db.itkc.or.kr/)

錦城西二十里。有山水名區。曰草洞。嘉靖萬曆間。洞有李竹潭惟謹,張野憂以吉,鄭滄洲詳,柳寒泉澍,崔三洲希說,李錦崖彦詳,柳南湖澱,崔莎村四勿諸公。相繼登第。卽輿地勝覽所稱八文官是也。一時人物之盛。雖系乎昭代休運。豈山水亦有明麗之應耶。八公築精舍於洞之北寶山之下。以時講習訓導後進。至今數百餘年。州之人士。欽誦不衰。而八家後承克守遺規。相與葺理。故精舍。亦得以無恙焉。張公傍裔憲周。文雅士也。從余遊。一日袖示八公行錄而曰。八賢生並一世。居在一洞。所講究者經傳也。所砥礪者名節也。或厄于時。或短於命。不能展布所蘊。而考其所成就。則實非尋常朝士之比。而遺風餘韻。有足以起後人者。吾鄕已擧祭社之禮於寶山精舍。追述其事蹟。以詔來遊於精舍者。文獻無徵。草率如是。甚可慨惜。願得一言。以弁諸卷。此吾鄕諸長老之意也。嗚呼。余之陋劣。固非其人。且諸公之賢。有請業於金河西,奇高峯二老之門而蒙奬與。托契於朴思菴,鄭松江,尹梧陰諸賢之間而見推重。斯足以不朽。而其見幾於陰陽消長之際。倡義於島夷猖獗之時者。自可以垂後矣。至如竹潭三洲二公之胤。昏朝樹立之卓。尤可驗家庭所受之正。又何待余言而發揮也。八家後承。思欲闡揚先美。惟在自修之如何耳。是則所可爲之致勉者。而抑又有所感焉者。余性好山水。一至草洞。周覽其勝槩。因登精舍。想像諸公當日之趣。則豈非快事。顧衰病不可得。可恨也已。遂書此以塞張君之請。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강재집(https://db.itkc.or.kr/)

(2) 정상(鄭詳), 『창주집(滄洲集)』「수사 이순신에게 보내는 편지」

얼마 전에 통유문(通諭文)을 보았습니다. 충성과 울분을 솟구치게 하니 누군들 팔을 걷어붙이지 않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영공께서는 덕수(德水)의 지체 높은 가문으로,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발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앞장서서 조생(祖生)의 노[481]를 두드리고, 이미 잠팽(岑彭)의 배[482]를 점검하여 영남과 호남의 사이에서 적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 한 도에서 영공에게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갓난아이가 자애로운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나주 고을은 비록 충의의 고장이지만, 사민들은 도망쳐 숨고 군사들은 달아나 몸을 감춰서 권면해서 영공께 보낼 길이 없으니 생각은 많아지고 분노는 풀리지 않습니다. 돌아보건대 저는 늙고 병들었으며 나이도 칠순에 가까우니 몸은 죽어가고 마음만 남았습니다. 다만 초유를 받은 때에 포복(匍匐)하여 나아가지 못했으니 나라를 저버린 죄를 피하기 어려움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 군량미 수십여 석을 모아 날짜를 정해 실어 보내서 저의 적은 정성을 표시합니다.

고암처사(羔巖處士) 홍심(洪深)은 풍산(豐山)의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마을에 이웃해 살면서 형제와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정미 14석을 아울러 보내니, 헤아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頃見通諭之書。忠憤所激。孰不奮臂。伏惟令公德水華族。世受國恩。奮不顧身。先擊祖生之楫。已點岑彭之船。遮賊路於嶺湖之間。則一道生靈之依。以爲命者。其不類赤子之仰慈母乎。羅邑雖是忠之鄕。士民逃竄。軍兵避匿。未由勉厲起送之道。意緖斬斬。憤怒莫伸。顧余老病年迫七旬。形死心存。第當招諭之時。未能匍匐以進。負國之罪。自知難逭。僅聚軍米數十餘石。刻日載送。以表微悰。羔巖處士洪深乃豊山望族也。同里閈居有兄弟情。糧米十四石兼送。考納是祝。

출전 : 정만호 역, 『(국역) 창주 정상선생 유고』, 정문출판사, 2020

---

481) 조생(祖生)의 노: 적을 소탕하리라는 결심을 뜻한다. 조생은 동진(東晉)의 조적(祖逖)을 가리킨다. 조적이 예주 태수(豫州太守)로 있으면서 석륵(石勒)의 난을 평정하기 위하여 양자강을 건너다가 노를 치면서 맹세하기를 "조적이 중원을 평정하지 못하고 다시 강을 건널 때는 이 강에 몸을 던지리라."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양자강 이남의 지역을 확보하였다. 『晉書 卷62 祖逖傳』.

482) 잠팽(岑彭)의 배: 한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촉(蜀)의 공손술(公孫述)을 칠 때에 정남장군(征南將軍) 잠팽(岑彭)을 보내어 공격하게 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자 대사마(大司馬) 오한(吳漢)을 파견하여 가세하게 하였다. 형문(荊門)에 집결하였을 때 둘이서 군량 문제로 의견 충돌을 빚자, 광무제가 "대사마는 보병과 기병을 다루는 사람이라 수전(水戰)에 밝지 못하니, 형문의 일은 오로지 정남장군의 계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잠팽을 전적으로 신뢰한 일을 이른다. 그 결과, 잠팽이 전함을 수리하고 훌륭한 계책을 써서 거침없이 진격하여 승리하였다. 『後漢書 卷17 岑彭列傳』.

(3) 정상(鄭詳), 『창주집(滄洲集)』「행록(行錄)」

공의 성은 정씨(鄭氏)로 가계가 신라에서 나왔다. 공의 휘는 상(詳), 호는 창주(滄洲)이시다. 설재(雪齋) 문정공(文靖公)[483]의 9세손이고, 영모정(永慕亭) 경무공(景武公)[484]의 4세손이시다. 아버지 휘 염조(念祖)는 사섬시 주부(司贍寺主簿)로 호는 사례당(思禮堂)이시다. 어머니 의인(宜人) 경주이씨(慶州李氏)는 모산당(茅山堂) 해(蟹)[485]의 따님이시다. 정덕(正德) 28년 중종(中宗) 계사년(癸巳年)에 나주(羅州) 북쪽의 금안동(金鞍洞) 수각리(水閣里)에 있는 댁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성품이 엄숙하고 굳셌으며 삼가고 대범하셨다. 용모는 위엄이 있고 중후하였으며 아름다운 수염을 지니셨다.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져 이름이 한원(翰院)에 기재되었다. 독실한 뜻으로 부지런히 공부하느라 새벽까지 등불을 밝히시니, 당시 사람이 「칠실기(漆室記)」[486]를 지어 그것을 드러냈다. 융경(隆慶) 8년 선조(宣祖) 갑술년(甲戌年)에 별시(別試)에 합격하였는데, 당시 지은 표가 상지중(上之中)의 으뜸이었다. 임금께서 공의 모습을 보고 훌륭한 인재를 얻었다며 기뻐하였다. 곧바로 전적(典籍)과 감찰(監察)에 임명하고, 이어서 단성현감(丹城縣監)에 임명하셨는데, 모두 사직하고 부임하지 않으셨다.

9년 을해년(1575)에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로 임명되고, 외직으로 나아가 남평현(南平縣)을 맡으셨다. 11년 정축년(丁丑年)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임명되고, 12년에 호조정랑(戶曹正郎)과 동학교수(東學敎授)와 양현주부(養賢主簿)에 임명되었으며, 외직으로 나아가 무주부사(茂朱府使)가 되었다. 15년 계미(1583)에 사례당(思禮堂)의 상사를 만났다. 상을 마치자 서천군수(舒川郡守)에 임명되었는데, 크게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뒤에 공주와 철원 등의 고을을 맡았는데, 석벽에 글을 새겨 공의 덕을 기렸다. 다시 통정(通政)으로 조정에 들어와 형조정랑(刑曹正郎)이 되었다. 소장을 올려 기축년(己丑年)의 제현인 동암(東巖), 남계(南溪), 곤재(困齋), 정곡(鼎谷), 만취당(晩翠堂)을 변무(辨誣)했다가 문득 권력을 잡은 무리들에게 미움을 사서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

483) 설재(雪齋) 문정공(文靖公): 정가신(1224~1298)으로 설재는 호이고, 문정공은 시호이다. 본관은 나주(羅州), 초명은 정흥(鄭興), 자는 헌지(獻之)이다. 향공진사(鄕貢進士) 정송수(鄭松壽)의 아들이다. 과거에 급제한 뒤로 첨의중찬 판전리사사 세자사(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 등을 역임하였다. 충렬왕~충선왕 대에 주로 문한관을 역임하며 문장을 떨쳤고 외교관으로도 활약하였다.

484) 영모정(永慕亭) 경무공(景武公): 정식(鄭軾, 1407~1467)으로 영모정은 호이고, 경무는 시호이다.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빙보(憑甫)이며 정가신의 6세손이다. 1432년에 문과 급제하였고, 동지중추원사 등을 역임하였다.

485) 이해(李蟹): 1468~?. 조선 연산군 때의 유학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1504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1712년 건립된 나주의 영강서원(榮江書院)에 향사(享祀)되었다.

486) 「칠실기(漆室記)」: 『八賢行錄』에 정상은 각고의 뜻을 세워 부지런히 학업을 익히면서 밤새도록 등불을 피우느라 방 안의 벽에 모두 검은 그을음이 끼었다고 하는데, 이 일과 관련된 글인 듯하다.

다시 나주 제독(羅州提督)에 임명되었으나 공의 뜻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관직을 그만두고 강호에 자취를 감춰 사동(莎洞)의 여울 가에 거처를 정하셨다. 소박한 태도를 고수하며 꽃과 바위를 읊는 것을 늘그막을 즐기려는 계책으로 삼아 창주노수(滄洲老叟)라 자호(自號)하였다. 같은 시대의 칠현인 이유근(李惟謹)【호는 죽담(竹潭), 함평인(咸平人)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지제교(知製敎)를 지냈다.】, 장이길(張以吉)【호는 야우(野憂), 상질(尙質)[487]인이다. 문과에 급제하였다.】, 유주(柳澍)【호는 한천(寒泉), 고흥(高興)사람이다. 문과에 급제하였다.】, 최사물(崔四勿)【호는 사촌(莎村), 탐진(耽津)사람이다. 문과에 급제하였다.】, 유은(柳溵)【호는 남호(南湖), 고흥(高興)사람이다. 문과에 급제하였다.】, 최희열(崔希說)【호는 삼주(三洲), 수성(隋城)사람이다.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언상(李彦詳)【호는 금애(錦崖), 양성(陽城)사람이다. 문과에 급제하였다.】과 함께 진솔회(眞率會)[488]를 만들어 경서의 뜻을 토론하고 후학들을 기르시니, 당시의 명류들이 그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 능양 학사(綾陽學士) 정목(鄭沐)이 공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관직을 해진 신발 버리듯이 버리고 시골로 자취를 감춘 채 고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후생들을 기르니, 그 은택이 봄날의 이슬과도 같습니다. 해이해진 풍속을 격려하여 의리가 가을 하늘에 솟아 사방의 선비가 북두성처럼 우러릅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이 세상에 계실 때 명성이 크고 인망이 무거웠던 대략적 내용이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근심과 분노에 음식을 잡수지 않으면서 말씀하기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다. 이처럼 어지러운 때를 만나 어찌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병든 몸을 이끌고 이충무공의 막부로 달려가 녹도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원균(元均), 금갑만호(金甲萬戶) 송희립(宋希立)과 모여서 함께 죽기로 맹세하였다. 전략을 세우는데 힘을 보태서 드디어 적의 선봉을 대파하고 적의 우두머리 수십 명을 죽였는데, 이충무공(李忠武公)이 경하하여 말하기를 “오늘의 승리는 정공의 힘이다.”라고 하였다.

당시에 적들의 기세가 호남에서 한창 왕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공이 충무공에게 일러 말씀하기를 “호남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지역이며, 군사를 쓰는데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을 지킨 뒤에야 다시금 세력을 회복하는 계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한산으로부터 곧장 진주로 향하여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를 만나보고 영남과 호남이 서로 돕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길을 돌려 남원에 도착하여 양대박(梁大樸)과 함께 격문을 보내

---

487) 흥덕(興德, 흥성)의 옛 이름.

488) 진솔회(眞率會):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고향의 촌로들과 만든 친목 모임 이름이다. 술을 마시되 다섯 잔을 넘지 않고, 반찬은 다섯 가지를 넘지 않는다는 등의 규칙이 있을 정도로 소박한 모임이었다.

군사를 모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병세가 심해져서 병든 몸을 이끌고 돌아오셨다.

곧바로 둘째 아들 여린(如麟)을 불러 지시하여 말씀하기를 "네가 아버지 대신 가서 임금에게 보답하는 정성을 바쳐라."라고 하고, 이충무공의 막부(幕府)로 보내며 군량을 함께 보내셨다. 편지를 부쳐 말씀하기를 "지난번에 타일러 모집하는 격서를 보았는데, 절반을 읽기도 전에 두 줄기 눈물이 눈에 가득하고 충성과 울분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누군들 주먹을 불끈 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늙고 용렬하여 한 번 물러난 뒤로 노쇠함과 질병이 날마다 심해졌습니다. 지금 군사를 불러 모아 적을 토벌하려는 날을 만나 다시 대장기의 아래에 달려가지 못하니 나라를 저버린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제 자식으로 하여금 대신 휘하로 달려가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충무공이 답장하여 말씀하기를 "나랏일이 무너지고 임금의 수레가 파천하였으니, 임금을 위해 죽고 나라의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같습니다. 지금 군사를 수습하고 군량을 모으는 때를 만나 여러 고을에 글을 보냈습니다. 호남은 충의의 고장이지만 한 사람도 응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영공께서 군수품을 넉넉하게 보내주시는 데다가 훌륭한 자질(子姪)까지 보내 군대의 위세를 돕게 하시니 모진 바람 속의 억센 풀이라는 말은 영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한량없는 복을 누리십시오. 처사 홍심(處士 洪深)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르지만,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으로 군량미를 넉넉히 도와주니, 마땅히 샛길을 통해 행재소에 보고할 요량입니다."

충무공이 노량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놀라고 슬퍼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기를 "나는 이충무공의 죄인이다."라고 하셨다. 이에 글을 지어 가지고 가서 곡하였다. 이것은 공의 한 조각 곧은 충정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 대략적 내용이다.

공의 댁에 장록 3본이 보관되어 있어서 사적이 명쾌하였다. 그런데 중간에 유실되어 기록하지 못한다.

선조 42년 기유년(1609) 6월 4일에 운명하셨다. 수은 강항(睡隱 姜沆), 계곡 장유(谿谷 張維), 지천 김함(芝川 金咸)이 시로 애도하였다.

정조 기미년(1799)에 사림들이 사동의 보산에 사우를 세웠다.

行錄

公姓鄭。系出羅州。諱詳。號滄洲。雪齋文靖公九世孫。永慕亭景武公四世孫。考諱念祖。司贍寺主簿。號思禮堂。妣宜人慶州李氏。茅山堂蟹女。正德二十八年中宗癸巳。生公于羅州北金鞍洞水閣里第。性嚴毅謹簡。容貌威重。美鬚髯。文章鳴世。名載翰院。篤志勤學。燃燈達曉。時人爲著漆室記。隆慶八年宣廟甲戌。中別試。表魁上之中。上見公容儀。喜得人。直除典籍·監察。連除丹城縣監。皆辭不赴。九年乙亥。除奉常寺主簿。出知南平縣。十一年丁丑。守司憲府監察。十二年。守戶

曹正郎·東學敎授[489]·養賢主簿。出知茂朱府使。十五年癸未。遭思禮堂喪。服闋。除舒川。大有聲蹟。後知公州·鐵原等邑。磨崖頌德。復以通政入守刑正。抗疏辨己丑諸賢東巖·南溪·困齋·鼎谷·晩翠堂之誣。輒爲時輩之所沮。落拓還鄕。復除羅州提督。非其志也。因解官。遯跡江湖。卜居于莎洞灘上。以寒素自守。嘯詠花石。以爲娛老之計。自號滄洲老叟。與同時七賢李惟謹【號竹潭。咸平人。文科。知製敎。】張以吉【號野憂。尙質人。文科。】柳澍【號寒泉。高興人。文科。】崔四勿【號莎村。耽津人。文科。】柳澱【號南湖。高興人。文科。】崔希說【號三洲。隋城人。文科。】李彦詳【號錦崖。陽城人。文科。】設眞率會。討論經義。獎進後學。當時名流。多出其門。綾陽學士鄭沐。呈公書曰。投棄軒裳。有同弊屣。晦跡田閭。敎授鄕邑。獎進後生。澤同春露。激勵渝俗。義排秋旻。四方之士。仰如斗星云。此公之處世。名碩望重之大槩也。當壬辰亂。憂憤不食曰。吾家世受國恩。當此板蕩。豈可以坐視乎。遂扶疾赴李忠武幕。同會鹿島萬戶鄭運·慶尙右水使元均·金甲萬戶宋希立。誓以同死。贊劃方略。遂大破前陣。殺賊酋數十級。李忠武賀曰。今日之捷。鄭公之力也。時聞賊勢方熾湖南。公謂忠武曰。湖南。國家根本之地。用兵要害之處。守此然後。以爲興復之計。自閑山直向晉州。見兵使崔慶會。爲嶺湖相援之議。轉到南原。與梁大模。倣爲發檄召募矣。時病勢添劇。因舁疾而歸。卽召第二子如麟敎之曰。汝其替父之行。以效報君之誠。命送李公幕。而兼輸軍餉。仍付以書曰。頃見諭募之檄。讀未半而雙淚盈眶。忠憤攸激。孰不扼腕。顧余殘劣。一自辭退壇席。衰病日劇。今當招討之日。更不能奮身於牙纛之下。負國之罪。其何可逭。謹命豚兒。遞赴麾下。李公答曰。國事分崩。大駕播遷。殉君報國之心。彼此一般耳。當此收兵聚糧之時。移書諸郡。而湖南忠義之鄕。無一人應擧者矣。何幸。令公軍需優數載送。而又送賢子姪。以助軍威。疾風勁草。儻非令公之謂耶。可賀萬千。處士洪深。未知何許長者。忠義而優助軍米。當乘其間路。啓稟于行在所爲計耳。及聞忠武公戰死于露梁。驚悼揮泣曰。吾爲李公之罪人矣。乃作文往哭之。此乃公之一片貞忠憂國輸誠之大槩也。家藏狀錄。舊有三本。快事蹟矣。中間遺失。不能載錄。宣祖四十二年己酉六月初四日卒。姜睡隱沆·張谿谷維·金花川咸。以詩悼之。

丁卯己未。士林建祠莎洞寶山。

출전 : 정만호 역, 『(국역) 창주 정상선생 유고』, 정문출판사, 2020

(4) 정상(鄭詳), 『창주집(滄洲集)』「행록(行錄)」

내가 일찍이 『동사찬요(東史纂要)』[490]의 「정문정공열전(鄭文靖公列傳)」을 읽었는데, 문정공의 휘는 가신(可臣)으로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셨다. 조정에서 물러나 만권당(萬卷堂)을 세워

489) 원문의 '東學敎援授'에서 '원(援)'은 오자인 것 같아 생략.

490) 동사찬요(東史纂要): 조선 선조(宣祖) 때의 문신 오운(吳澐)이 지은 역사책. 8권 8책. 목판본. 신라 시조(始祖)에서부터 고려 공양왕(恭讓王)까지의 사적을 기술하였는데, 1609년(광해군 1)에 계림부(鷄林府)에서 처음 간행함.

불도를 물리치고 성학(聖學)을 여셨다. 사의대부(司議大夫)가 되셨을 때 이분희(李汾禧)[491] 형제가 홍다구(洪茶邱)[492]에게 붙어 김방경(金方慶)[493]의 죄를 만들어냈다. 공이 그들과 함께 조정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소장을 올려 돌아가기를 청하니 사람들이 칭찬하였으며 당시 명류들의 종장이 되었다.

또 일찍이 천조(天朝)에 출입하여 문장과 사업이 천하에 밝게 드러나셨다. 손수 『금감록(金鑑錄)』 1부를 지어 고금의 일을 평가함으로써 백왕(百王)의 경계가 되게 하셨으니, 고려의 명신들 가운데 마땅히 공을 제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선조 대왕 때에 이르러 공의 9세손 시어사 휘 상(詳)이 소장을 통해 기축제현(己丑諸賢)인 곤재(困齋), 동암(東巖), 청계(淸溪, 유몽정(柳夢井)]를 변무했다가 당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강호로 물러나셨다.

당시에 섬나라 오랑캐들이 창궐하였으므로, 공의 형님 원외랑(員外郎) 휘 심(諶)과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였으며 목숨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고자 하셨다. 이충무공(李忠武公)을 곡한 뇌문(誄文)은 그 내용이 격렬하고 비장하였으니, 영웅으로 하여금 옷깃에 눈물이 가득 차게 하였다.

아들 휘 여린(如麟)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난리에 달려가셨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비장군(飛將軍)이라 불렸다. 혼조(昏朝) 계축년(1613)에 소장을 올려 정조(鄭造)[494]와 윤인(尹訒)[495]의 죄를 성토하셨다.

인조 갑자년(1624)에 병사 2,000명을 얻어 행재소로 달려가셨다. 임금께서 손을 잡고 크게 기뻐하며 말씀하기를 "호남의 50개 고을 가운데 홀로 정여린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아, 높은 절의를 실천한 사람이 예와 지금에 어찌 적으랴만 설재께서 앞에서 일으키고 창주

---

491) 이분희(李汾禧): ?~1278. 본관은 염주(鹽州)이다. 최우(崔瑀)의 문객으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등을 역임하였다. 1277년 위득유(韋得儒)와 노진의(盧進義) 등이 김방경(金方慶)을 무고하여 흔도(忻都)와 홍다구(洪茶丘)의 국문을 받게 되자, 흔도와 홍다구에게 붙어서 김방경을 모함하였다.

492) 홍다구(洪茶邱): 홍복원(洪福源)의 둘째 아들로, 본명은 홍준기(洪俊奇)이고 다구(茶邱)는 그의 자(字)이다. 홍복원의 뒤를 이어 몽고의 세력에 빌붙어서 오랫동안 조국인 고려를 괴롭혔다.

493) 김방경(金方慶): 1212~1300. 자는 본연(本然),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한림학사(翰林學士) 김효인(金孝人)의 아들이다. 1270년에 삼별초(三別抄)의 난을 토벌하였고, 1274년과 1281년에 여몽연합군의 고려국 총사령관으로 일본 정벌에 참가하였다. 상락군 개국공(上洛郡開國公)에 봉해졌다.

494) 정조(鄭造): 1559~1623.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시지(始之)이다. 1605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동지의금부사에 이르렀다. 이이첨(李爾瞻)의 무리로 인목대비에 대한 폐모론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인조 즉위 후 1623년에 처형되었다.

495) 윤인(尹訒): 1555~1623.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인지(訒之), 1601(선조 34)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폐모론을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인조 즉위 후 1623년에 처형되었다.

께서 뒤에서 계승하여 환희 빛나고, 밝게 국사와 야승(野乘)에 드리워졌는데, 내가 항상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한스럽게 여겼다. 설재께서 쌓은 공이 창주공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네 부자의 우뚝한 행실과 높은 절의는 저절로 한 집안이 규범이 되었으니, 반드시 그 자취를 따르고 그 공렬을 계승하는 사람이 나올 것인데 아직도 선배들처럼 지위에 올라 드러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아마도 다 받지 못한 보답이 반드시 후일을 기다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찍이 설재(雪齋)와 창주공(滄洲公)의 사적을 흠모하였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경연참찬관 겸 춘추관수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풍산(豊山) 홍명주(洪命周)[496]는 삼가 기록한다.

공의 휘는 상(詳), 자는 중신(仲愼)이고, 창주(滄洲)는 그 호이다. 문정공(文靖公) 휘 가신(可臣)의 9세손이며 일헌공(逸軒公) 휘 심(諶)의 아우이시다. 성품이 엄격하고 굳세며 대범하고 중후하였으며 수염이 아름다웠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독실하게 힘써서 문장이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만력(萬曆) 갑술년(1574)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당시 지은 표가 상지중(上之中)을 차지하였다. 임금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인재를 얻었다며 기뻐하고 특별히 명하여 말씀하기를 "장원랑(壯元郎)의 얼굴에 꽃을 꽂으라."라고 하셨다. 곧바로 전중 시어사(殿中侍御使)에 임명하셨다. 여러 차례 고을 수령을 맡다가 무주도호사(茂朱都護使)에 이르셨다.

기축년(1589)에 소장을 올려 다섯 신하의 원통함을 변론하였다가 당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현달(顯達)할 수 없었다. 강호에 자취를 감춘 뒤 경서의 뜻을 토론하고 후학들을 육성하셨으니, 당시의 명류들이 그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 능양학사 정목(綾陽學士 鄭沐)이 공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헌신짝 버리듯이 관직을 버리고 후학들을 기르니 그 은택이 봄날의 이슬과 같습니다. 해이해진 풍속을 격려하여 의리가 가을 하늘에 닿으니 사방의 선비들이 성두(星斗)처럼 우러릅니다."라고 하였다.

임진왜란을 만났을 때 공께서는 60세의 노쇠한 몸이었지만 근심과 울분에 음식을 잡수지 못하셨다. 호남과 영남에 격문을 보내고 여러 진영을 달려 다니며 충의로써 권면하고 성의와 정성을 더하셨다. 아들을 군진으로 보내 공로가 훈록의 높은 위치에 있었다.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은 공께서 먼저 나서서 주도한 것이니, 끝내 노량과 진양에서 여러 의사(義士)가 인을 이룬 것은 대개 정공이 감격시킨 의리 정신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공에게 나라를 보존

496) 홍명주(洪命周): 1770~?. 자는 자천(自天), 호는 효정(孝貞),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1794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정간(靖簡)이다.

한 공로가 없다고 하겠는가. 왕촉(王蠋)[497]이 전단(田單)을 흥기시킨 공이 이러한 경우이다.

나는 늘 창주 정 선생을 흠모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찬(贊)을 짓는다.

빛나는 문장이며	燁如文藻
빼어난 절개로다	挺然名節
형님과 뜻을 함께 했고	有兄同志
아들이 그 뜻을 이었어라	有子是述
지위는 덕과 맞지 않았지만	位不滿德
공로 높아 녹훈되었도다	功崇見錄
영원토록 보답받아	百世之報
제사가 어긋나지 않으리라	俎豆未忒

余嘗讀東史纂要鄭文靖公列傳。諱可臣。爲政堂文學。朝退。乃建萬卷堂。斥佛徒。開聖學。爲司議大夫時。李汾禧兄弟附洪茶邱。醞釀金方慶罪。公恥與同朝。上疏乞歸。物論多之。爲當時名流所宗。又嘗出入天朝。文章事業。顯耀天下。手撰金鑑錄一部。商確古今。鑑戒百王。勝國名臣。當以公第一。而及至我宣廟朝。公九世孫侍御史諱詳。疏辨己丑諸賢困齋·東巖·淸溪之誣。爲時沮抑。退居江湖時。黑齒猖獗。與其兄員外郎諱諶及高霽峰敬命。倡義討賊。誓死報國。其哭李忠武公誄文。激烈悲壯。足以使英雄淚滿襟也。其子諱如麟。以父命赴難。所向輒勝。有飛將軍之號。昏朝癸丑。疏討鄭造·尹訒之罪。仁祖甲子。得兵二千。馳詣行在。上握手大喜。斡湖南五十郡。獨一鄭如麟之敎。噫。蹈行尙節。今古何限。雪齋倡前。滄洲襲後。炳炳郎郎。昭垂於國史野乘。而余常恨不得其詳矣。雪齋積累之功。大發於滄洲。公四父子卓行崇節。自成一家之規模。則其必有踵其武承其烈者。而尙不聞登崇顯揚。有如先輩。則意者不食之報。必待後日而然耶。余嘗欽艷於雪齋·滄洲公遺事。有是說焉。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經筵參贊官兼春秋館

修撰官豐山洪命周謹書。

公諱詳。字仲愼。滄洲其號也。文靖公諱可臣九世孫。逸軒公諱諶弟也。性嚴毅簡重。美鬚髯。少篤學。文章爲世所推。萬曆甲戌登科。表上之中。上見其容儀。喜得人。特命曰。壯元郎。揷花其面。卽除殿中侍御使。累典郡邑。至茂朱都護使。己丑上疏。辨五臣之冤。爲時沮抑。官不能顯達。遯跡江

497) 왕촉(王蠋): ?~기원전 284. 전국 시대 제나라 화읍(畫邑) 사람이다. 제나라가 연나라의 공격을 받아 거의 망하게 되었을 때 연나라 장군 악의(樂毅)가 초빙하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로 거절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湖。討論經義。奬進後學。當時名流。多出其門。綾陽學士鄭沐。呈公書曰。投棄軒冕。有同弊屣。奬進後生。澤同春露。激勵渝俗。義排秋旻。四方之士。仰如星斗。且當壬亂。公以六十衰齡。憂憤不食。飛檄湖嶺。奔馳列陣。勉以忠義。加以誠悃。送子赴陣。功高勳錄。而湖南倡義。公其先發指麾。則終於露梁及晉陽諸義士之成仁。蓋由於鄭公激感之義也。謂公無存國之功耶。以王蠋之興起功於田單者。是也。余常欽歎於滄洲鄭先生也。夫贊曰。燁如文藻。挺然名節。有兄同志。有子是述。位不滿德。功崇見錄。百世之報。俎豆靡忒。

출전 : 정만호 역, 『(국역) 창주 정상선생 유고』, 정문출판사, 2020

(5) 장헌주(張憲周) 등 편, 『팔현행록(八賢行錄)』

공의 휘는 상(詳), 자는 중신(仲愼), 호는 창주(滄洲)로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문정공(文靖公) 설재(雪齋) 가신(可臣)의 후손이다. 병조 판서 경무공(景武公) 휘 식(軾)이 현손이다. 아버지 휘 염조(念祖)는 참봉으로 호는 사례당(思禮堂)이고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로, 기묘명현(己卯名賢) 진사(進士) 해(蟹)의 따님이다. 공은 가정(嘉靖) 계사년(1533, 중종 28)에 태어났다.

성품이 엄숙하고 의지가 굳었으며 용모가 위중하고 문장은 세상 사람들의 추중을 받았다. 일찍이 뜻을 독실하게 하고 학문을 근실히 하면서 등불로 밤을 세워 방안의 네 벽이 연기에 그을려 마치 옻칠을 한 것 같았으니, 당시 사람들이 「칠실기(漆室記)」를 지어 그를 드러냈다.

만력(萬曆) 갑술년(1574, 선조 7)에 별시에 장원급제하였다. 호명되어 알현할 때 임금께서는 공의 풍채가 단정한 것을 보고 인재를 얻었다며 기뻐하셨다.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많은 것 때문에 어사화를 내릴 때 돌아보며 웃기를 "장원화(壯元花)를 얼굴에 꽂을 만하구나." 하였다. 관례대로 전적(典籍)을 제수하였다가 감찰로 승진시키고 단성 현감(丹城縣監)을 제수하였으나 사양하지 나가지 않았다. 뒤에 서천(舒川)의 지방관이 되었을 때 군민이 그 덕을 암벽에 새기고 칭송하였다. 남평(南平)과 창평(昌平), 무주(茂朱), 철원(鐵原) 등 고을의 수령이 되어 치적을 크게 남겼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공은 이미 노쇠하였는데 변고를 듣고는 걱정과 분노로 밥을 먹지 않으며 "우리 집안이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찌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병든 몸을 끌고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진중에 달려갔다. 녹도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과 금갑만호(金甲萬戶) 송희립(宋希立)과 함께 모여 적을 쳐서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맹세하였다. 계획과 방략으로 한산대첩(閑山大捷)을 함께 이루었다. 이충무공(李忠武公)이 말하기를, "오늘의 승리는 정 아무개의 힘이다." 하였다. 당시 왜적의 세력이 호남 지역에서 한창 성대하였는데 공이 충무공에게 이르기를 "호남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땅이니 호남을 지킨 뒤에야 나라를 회복할 계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한산에

서 곧바로 진주로 향했다가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를 만나 영호남이 서로 구원할 것을 의논하였고, 길을 돌려 남원에 이르러 청계(淸溪) 양대박(梁大樸)과 격문(檄文)을 띄워 군사를 모집하려고 하였는데 병세가 갑자기 위독해져 몇 말의 피를 토하여 이내 병든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둘째 아들 여린(如麟)을 불러 경계하기를 "내 병이 이러하니 지금 적에게 가지 못한다. 네가 이 아비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서 임금께 보답하라. 그리고 이충무공(李忠武公)의 지모가 뛰어나니 너는 떨치고 일어나 힘을 다할 수 있다면 어찌 만분의 일 이나마 보답하지 못하겠느냐?" 하였다. 이어 이충무공에게 편지를 쓰기를, "지난번에 모집을 독려하는 격문을 보니 절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두 눈에 가득 고이고 충성스런 분노가 격분하였으니, 누군들 팔을 걷어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쇠잔하고 용렬해서 한번 전투에서 물러난 뒤로 쇠약함과 병이 날로 심해져서 더 이상 전장에서 나가 떨쳐 일으키지 못합니다. 제 아이에게 명하여 저를 대신해서 휘하로 보냅니다. 그리고 군량미와 태두(太豆) 24섬으로 저의 작은 정성을 표합니다." 하니, 충무공이 답장을 보내기를, "나라를 위해 죽음으로 임금에게 보답하는 마음은 피차가 일반입니다. 이처럼 군사와 군량을 모아야 할 때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좌하(座下)로 하여금 군수품을 넉넉하게 돕고 또 자식을 보내 군위를 도우니 지난날 함께 일하던 의리가 오늘에 와서 더욱 돈독합니다. 거센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굳센 풀[疾風勁草]은 영공을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이충무공이 노량(露梁)에서 순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기를, "내가 이공(李公)의 죄인이다." 하며 마침내 제문을 지어 통곡하였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염파와 이목의 재주 손무와 오기[498]의 지략으로	頗牧之才孫吳之智
어린 나이에 무예를 익혀 이름이 계적(桂籍)에 올랐네	早歲學武名超桂籍
섬 오랑캐가 멋대로 날뛴 것은 임진년 여름이었는데	島夷陸梁在壬之夏
성지(城池)는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군대는 경계가 없었네	城池不虞行伍無誡
장군께서 명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와 누선을 만들고	將軍受命南下樓船
군사를 해도(海島)에 주둔시켜 저 흉악한 서슬을 끊었지	屯兵海島截彼凶鋒
명성과 공훈에 시기가 많아지고 위대한 공적은 참소를 불렀네	名勳多忌偉績來讒
사나운 음기는 해를 속였으나 원통함을 품고도 누설하지 않았네	頑陰欺日抱冤不洩
평범한 사람으로 대체하자 변방의 계책은 잘못되었지	代以庸凡邊籌失策
다시 장군을 명하여 군사를 지휘하도록 중용하였네	再命將軍秉鉞重登

498) 손무와 오기: 춘추 시대 명장 손무(孫武, 기원전 545~기원전 470)이며, 오자는 전국 시대 장군 오기(吳起, 기원전 440~기원전 381)로 모두 뛰어난 병법가이다.

노를 수리하고 돛대를 다스렸으며 군사를 조련하고 갑옷을 수선했네　理楫治帆調兵繕甲
팔 들어 한 번 무리를 부르자 돛대가 일제히 하늘 향해 올랐네　奮臂一呼羣帆齊擧天
오나라가 그 때문에 다리를 떨고 지기[499]가 넋을 잃었네　吳爲之股栗支祁爲之魄喪
푸른 바다의 파도에 피가 솟구치고 교리의 굴에는 시신이 쌓였지　血湧滄海之波屍積蛟螭之窟
어찌 제갈공명의 병영에 별이 떨어지고 눈물이 악목[500]의 군대에게 떨어질 거라 생각했겠나
何圖星隕諸葛之營疾落岳穆之師
한 조각 외로운 배는 독한 포수에게서 도망치기 어려우니　一片孤舟毒砲難逃
산도 슬퍼하고 물도 시름하며 새도 놀라고 구름에 시름에 젖었네　山哀浦思鳥驚雲愁
기상은 산하가 되고 분노는 창과 칼이 되어　氣作山河憤成劍戟
저 흉악한 적들을 다 죽이고 우리나라를 호위하네　勦彼凶鋒衛我國家

정유년(1597, 선조 30)에 올린 상소가 당시의 의견과 맞지 않자 마침내 관직 생활에 미련을 버리고 인끈을 풀고 남쪽으로 돌아와 강호에 자취를 감추고 자연과 함께 늘그막을 즐겁게 보냈다. 능양(綾陽)의 선비 정목(鄭沐)의 편지에 "헌상(軒裳)을 마치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고, 시골에 자신을 감춘 채 마을 사람들을 가르쳤다." 하였다. 같은 마을의 일곱 현인과 진솔회(眞率會)를 만들어 보산(寶山)과 대박(大朴) 사이를 노닐며 경서의 뜻을 강론하고 후학들을 권장하여 발전하게 하였다.

출전 : 나주의병 종합학술조사 번역팀 역

公諱詳。字仲愼。號滄洲。系出羅州。文靖公雪齋可臣后也。兵曹判書景武公諱軾玄孫。考諱念祖叅奉號思禮堂。妣慶州李氏。己卯名賢進士蟹之女。公以嘉靖癸巳生。性度嚴毅。容貌威重。文章爲世所推中。嘗篤志勤學燃燈達曉。油烟棲屋四壁如漆。時人爲著漆室記。

萬曆甲戌魁別試。方其唱臚也。上見公風儀峻整喜得人。以面多痘瘢。賜花時顧笑曰。壯元花可插於其面。例授典籍。陟監察。除丹城縣監辭不赴。後守舒川。郡人磨崖頌德。歷守南平昌平茂朱鐵原等邑。大有聲蹟。

當壬辰之亂公時已向衰。聞變憂憤不食曰。吾家世受國恩。當此板蕩。豈可坐視乎。遂扶疾赴。李忠武公舜臣陣中。同會鹿都萬戶鄭運金甲萬戶宋希立。誓以討復。贊畫方畧共成閑山之捷。李公曰。今日之捷鄭某之力也云。時賊勢方熾湖南。公謂李忠武曰。湖南國家根本之地也。守湖南然後

499) 지기(支祁): 괴신(怪神)의 이름으로 지기(支奇), 무지기(無支奇), 무지기(巫支祁)라고도 한다. 옛날 우(禹) 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에 동백산(桐柏山)에서 회수(淮水)를 빙빙 돌게 하는 물귀신인 지기를 잡아 회양(淮陽)의 구산(龜山) 밑에다 가두어 두었더니, 회수가 그제야 고요하게 흘렀다고 한다. 『太平御覽 卷882 神鬼部 2』.

500) 악목: 송나라의 명장 악비(岳飛)로 악 무목(岳武穆)이라 불리는데, 무목은 그의 시호이다.

可以爲與復之計。自閑山直向晉州。見兵使崔慶會。議嶺湖相援。轉到南原與梁淸溪大樸將發檄召募。而病勢卒劇嘔血數斗。仍輿疾而歸。召第二子如麟戒之曰。吾病如此。今不能赴賊。汝其替爺。以效報君之道。且李公智謀有餘。汝能奮身戮力。豈無萬一之補乎。仍呈書李公曰。頃見諭募之檄。讀未半而雙疾盈眶。忠憤攸激。孰不掖腕。顧余殘劣一自辭退於壇。不衰病日甚。更不能奮身於牙纛之間。謹命豚兒替赴麾下。且以軍糧米太豆二十四石。以表微悰。忠武答書曰。殉國報君之心彼此一般。當此收兵聚粮之時何幸。令座下優助軍需。且送子侄以助軍威。前日共事之義到此尤篤。疾風勁草非令公之謂耶云。及聞李忠武殉節於露梁。驚悼揮泣曰。吾爲李公之罪人。乃掇文以哭。其畧曰。

頗牧之才。孫吳之智。早歲學武名超桂籍。島夷陸梁在壬之夏。城池不虞行伍無誡。將軍受命南下樓船。屯兵海島。截彼凶鋒。名勳多忌。偉績來讒。頑陰欺日。抱冤不洩。代以庸凡邊籌失策。再命將軍秉鉞重登。理楫治帆。調兵繕甲。奮臂一呼。羣帆齊擧天。吳爲之股栗支祁爲之魄喪。血湧滄海之波。屍積蛟螭之窟。何圖星隕諸葛之營疾落岳穆之師。一片孤舟毒砲難逃。山哀浦思島驚雲愁。氣作山河。憤成劒戟。勦彼凶鋒衛我國家云。

及至丁西上疏不合時議。遂無意於仕進。解綬南歸遯迹。江湖花石娛老。綾陽士人鄭沐書有曰。投棄軒裳。有同弊屣韜晦田間敎授鄕邑云。與同閈七賢。說眞率會。遊咏於寶山大朴之間。講討經義獎進後學焉。

출전 :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34) 정심(鄭諶, 1520~1592)

• 본관 나주(羅州), 자 중실(仲實), 호 일헌(逸軒)

(1)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연보」, 임진년 5월

5월, 왜적이 한양성에 입성하니, 선생은 집에서 통곡하며 이르기를,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고 인심이 떠났으니, 비록 훌륭한 장수가 있을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군부가 급한데 어느 겨를에 위험한지를 따지겠으리오.” 하고, 전 부사 고경명, 전 목사 박광옥, 전 정랑 정심, 전 군수 최경회에게 편지를 보내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16일에 고향의 자제를 불러 모으고, 또한 의사 송제민, 양산룡, 양산숙, 임환, 이광주, 서정후 등도 모였다. 선생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어찌 구차히 살리요. 가령 살고자 한들 이치상 홀로 목숨을 보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 구학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을 토벌하다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함에, 모두 대답하기를, “네!”라 하다. 어떤 이들은 군량미, 소나 말, 가동(家僮)을 보냈는데 하루도 못 되어 모인 자가 300인이고, 기계도 대강 마련이 되었었다. 출전 : 김익두·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五月。賊入城。先生在家號痛曰。紀綱紊矣。人心離矣。雖有良將。無奈何。然君父之急。奚暇論夷險。簡前府使高敬命,前牧使朴光玉,前正郎鄭諶,前郡守崔慶會。約以擧義。十六日。招集鄕子弟。義士宋濟民,梁山龍,梁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亦來會。先生中坐流涕曰。國事至此。吾輩豈可苟活。藉令欲生。理無獨全。與其溝壑而死。無寧討賊而死乎。皆曰唯唯。或糧餉。或馬牛。或家僮。不日而至者三百人。器械亦粗辦矣。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2) 김천일(金千鎰),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행장(行狀)」

만력 20년 임진년 왜노(倭奴)들이 온 나라의 군사를 다 동원하여 쳐들어왔다. 영남을 쳐부수고 조령을 넘어 열흘도 채 못되어 바로 기전(畿甸)으로 곧장 쳐들어가니, 여러 진영의 모든 장수들이 기세를 보고 모두 도망가버렸다. 감히 그 칼날에 맞설 자가 없었다. 공이 임금의 대가는 피난을 떠나고 한양 도성은 지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며 거의 죽을 뻔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지금 나라의 기강이 이미 문란해지고 인심은 이미 떠나버렸으니, 비록 훌륭한 장수가 있을지라도 또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군부(君父)의 급함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겨를에 형세의 난이(難易)를 따지겠는가." 하고는, 전 부사 고경명(前府使 高敬命), 전 목사 박광옥(前牧使 朴光玉), 전정랑 정심(前正郎 鄭諶), 전 군수 최경회(前郡守 崔慶會)에게 급히 글을 보내어, 의거를 일으킬 것을 알렸다. 그리고 지사(志士)들 중에 함께 도모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같았던 송제민(宋濟民), 양산룡(梁山龍), 양산숙(梁山璹), 임환(林懽), 이광주(李光宙), 서정후(徐廷厚) 등도 팔을 걷어붙이고 모였으니, 때는 임진년 5월 15일이었다. 이때, 향리의 부노(父老)와 자제들을 소집하여 나주의 공관(公館)에 크게 모아 놓고 공이 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나랏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들이 어찌 구차히 살려고 마음먹으리오. 가령 살고 싶어도 이치상 홀로 온전할 방법이 없고 다만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일일 뿐이다. 그러니 도망하여 구렁에서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을 토벌하다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니, 사방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옳습니다. 김공."이라고 하였다. 혹은 군량을 바칠 것, 어떤 이는 군량(軍糧)을 보내줄 것을, 어떤 이는 전마(戰馬)를 협조할 것을, 어떤 이는 대신하여 정장(丁壯)이 될 것을 원하니, 하루가 못되어 모인 사람이 300명이나 되고, 기계도 대략 완비가 되었다.

출전 :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二十年壬辰。倭奴擧國入寇。破嶺南。踰鳥嶺。不旬日。直搗畿甸。列營諸將。望風奔潰。無敢嬰其鋒者。公聞大駕蒙塵。都城失守。號慟幾絕。因曰。目今紀綱已紊。人心已離。雖有良將。亦無可奈何。然救君父之急。豈暇論勢之難易。乃馳書於前府使高敬命,前牧使朴光玉,前正郎鄭諶,前郡守崔慶會。告以擧義之事。志士之不謀而同者。宋濟民,梁山龍,山璹,林懽,李光宙,徐廷厚等投袂而

集。時五月十六日也。於是。招集鄕父老子弟。大會于公館。公中坐垂涕曰。國事至此。吾輩何心苟活。藉令欲生。理無獨全。但早晩事耳。與其竄死於溝壑。不猶愈於討賊而死乎。四座皆曰唯公。或願輸軍糧。或願助戰馬。或願代丁壯。不日而至者三百。器械亦粗完。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건재집(https://db.itkc.or.kr/)

(3) 『나주정씨 대동보 신미보(羅州鄭氏大同譜辛未譜)』 4편, 「일헌공 행장(逸軒公行狀)」[501]

공의 휘는 심(諶)이며 자는 중실(仲實)이요, 일헌(逸軒)은 그의 호이다. 정씨(鄭氏)의 본관은 나주로 상조(上祖)의 휘는 해(諧)이니, 군기감(軍器監)에 추봉(追封)되었다. 그의 삼세(三世) 손 휘 가신(可臣)은 벽상삼한삼중도첨의중찬 수문전대학사(壁上三韓三重都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 문정공(文靖公)이니, 호는 설재(雪齋)이다. 문숙공(文肅公) 김주정(金周鼎)과 문현공(文顯公) 윤보(尹珤)[502]와는 강도(講道)하는 친구였으니, 문학과 행의(行誼)가 아울러 한 세대에 빛났다. 유사(儒士)가 대오에 편입하는 것을 막고자 간하였고, 불교를 숭상하는 곳을 없애자고 청했으니 이러한 일은 고려사에 있다. 후에 본주(本州)에 사우(祠宇)를 세우니, 이로부터 세상에 고위관직으로서 드러나게 됐다. 휘 길(佶)은 개성소윤(開城少尹)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의 증직을 받았다며, 휘 문진(文振)은 보성군수(寶城郡守)로 이조판서(吏曹判書)의 증직을 받았다. 휘 유(有)는 통정(通政)으로 지성천사(知成川事)니 병조판서(兵曹判書)의 증직을 받았다.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는 휘 자신(自新)은 보공장군(保功將軍) 시위대호군(侍衛大護軍)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의 증직을 받았다. 이분이 휘 식(軾)을 낳으니 벼슬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두 분 모두에게 시묘살이를 3년간 하였다. 일찍이 임금의 온천행(溫泉行)을 호위(扈衛)할 때 불이 났었는데, 불을 무릅쓰고 들어가 임금을 등에 업고 나오다 수염이 다 탔었다. 이에 임금이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명하셨으니 남들보다 총애하셨다. 후에 문정공(文靖公)의 사우(祠宇)에 배향되었다.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의 휘는 승현(承賢)이요, 사첨시 직장(司贍寺直長)의 휘는 관(觀)이요, 사첨시 주부(司贍寺主簿)의 휘는 염조(念祖)이니, 이분들이 공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이시다.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로 기묘명현(己卯名賢)인 모산(茅山) 해(蟹)의 딸이다.

중종(中宗) 경진년(庚辰年, 1520)에 공이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뛰어난 것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랐다. 말을 배우자마자 곧 문자를 알았고, 9살에는 관찰사(觀察使)가 순

501) 대동보에 실린 일헌공 행장은 일헌유고에 실린 행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두 행장 모두 국역이 되지 않았으며, 대동보에 실린 행장을 후손이 번역한 것을 문중 면담 과정 중에 알게 되어 이곳에 전재하였다.

502) 윤보(尹珤): 1252~1326. 자는 문옥(文玉)이고, 정2품 수 첨의찬성사(守僉議贊成事) 등을 역임하였다. 충렬왕(忠烈王) 때 관원을 선발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임금으로부터 자기 아들의 추천을 받고도 물리치는 등 인사 행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한다.

시(巡視)할 때 선비들을 모아 재주를 시험하는데, 공이 그에 응시하여 상(上)으로 뽑혔다. 이에 보는 이들 중, 기특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없었으니, 훗날 뜻을 이룰 것을 헤아릴 수 없다고 여겼다.

명종(明宗) 임자년(壬子年, 1552)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선조(宣祖) 무진년(戊辰年, 1568)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호조정랑(戶曹正郎)에 배수되었으나, 오래도록 부모님의 곁을 떠나있었다는 것으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가을에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임명되었는데 애써 사은숙배(謝恩肅拜)하였으니, 이는 부모의 명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며 「귀래사(歸來辭)」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중류에서 돛대 잃으니	中流失棹
어디에 먼저 이를까나	南北誰先
골짜기 입구에서 노새를 채찍질하는데	谷口鞭驢
옛길 그대로구나	故逕依然

성품이 맑아 수석(水石)을 좋아해서 시내의 동쪽 경치 좋은 곳을 잘 가려서 작은 정자(亭子) 하나를 얽으니 꽃과 나무가 줄지어 있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서로 푸르렀다. 매일 같이 그 사이에서 휘파람 불고 시를 읊었는데,

돌아온 것은 세상을 피한 것 아니요	歸來非避世
성품이 본래 임천(林泉)을 사랑하기 때문이네	性自愛林泉
도도한 흥이 유연히 일어나니	陶興悠然作
누가 나의 어깨를 잡을 것인가	何人挽我肩

라는 시를 지었으며, 또 찬(贊)을 짓기를, '일옹(逸翁)이 금성에 숨었으나 뜻은 구름 속 기러기에 있구나. 기필코 공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융성히 드날릴 생각 없도다.'라고 하였다. 공이 일(逸)이라는 글자로 집에 편액하였기에 스스로를 일옹(逸翁)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늙어 죽을 때까지의 계획으로 삼고서 모든 벼슬길에 있어서 다시는 벼슬을 구하러 나가지 않았다. 항상 스스로 말하는 것이 "일평생 재주도 없고 덕도 없는지라 넓은 세상에 쓸모가 없고, 생각함도 없고 근심도 없어서 집안을 경영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명성도 절개도 없어 풍교(風敎)에 모범이 될 수 없고, 용기도 지혜도 없어서 방어하고 막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될 수도 없다. 간교함도 속임수도 없어서 자신을 지키는 데에 꾀도 없구나."라고 하였다. 그때

이씨부인(李氏夫人)은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공의 동생 상(詳)이 이어서 과거에 급제하니 공이 말하기를, "두 명이나 조정에 있으면, 홀로 계신 어머니는 또 어찌 해야 하는가. 나는 영달(榮達)한 것에는 자취를 감추고 달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봉양하며 여생을 즐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임진년(壬辰年), 오랑캐들의 난리에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을 가서 만나고는, 창의(倡義)를 논했는데 이로 인하여 강개(慷慨)하고 답답해 하였으며 남들의 낯빛을 감동시켰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켰을 때, 편지를 보내 공에게 고하니, 공이 바로 의청(義廳)으로 달려가 피를 마시고 대중(大衆)들에게 맹세하였다. 이 일은 계곡(溪谷) 장유(張維), 수은(睡隱) 강항(姜沆)의 문집과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와 창의사(倡義使) 묘정비문(廟庭碑文)에 실려 있다.

정유년(丁酉年)에 조카 여린(如麟)을 원수(元帥)의 진영으로 달려가게 하였고, 또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 조상의 신령(神靈)이 의탁할 곳이 없고, 생명이 길에 찢어져 원통한 피가 들판에 입혀졌구나. 통곡함이 감정을 드러내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마는 슬피 울며 지붕만 쳐다본들 한갓 이익 될 것 없으며, 손이 묶인 듯 아무런 방책이 없다면 훗날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일은 각각 의(義)에 분발한 것이니 권하기를 기다릴 수 없으며 다리는 피를 싸맬 여유도 없으니 굶주려도 밥 먹을 생각할 틈이 없으니 이럴 때 나아가 급히 공격해서 기회를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말의 뜻이 격렬하여 사람들 중 팔을 걷고 나서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이때 공의 나이 70여 세였다. 다만 사조(四朝 중종 · 인종 · 명종 · 선조)의 여생(餘生)으로서 이 용사(龍蛇)의 변란을 만나니 몸도 죽고 마음도 잿더미가 되었으니, 비록 기어가 애써 힘쓸 수는 없지만, 나라를 근심하고 시절을 슬퍼하였다. 분노하여 끼니도 잊고 매번 지붕을 쳐다보며 하늘을 향해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503]라는 구절을 쓰면서, 임금이 서쪽으로 피난함에 호위(扈衛)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이에 사람들에게 주는 글에는 반드시 말하기를, "구차하게 살아난 자 죄스러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절도사(節度使) 최경회(崔慶會)가 진주에서 전사하니 곧 글로서 조문하였다. 심유경(沈惟敬)이 화친을 논의했다는 말을 듣고는 칼을 빼들고 격분하여 「오적가(鏖賊歌)」를 지었다. 또 시를

---

503) 두보(杜甫)의 「춘망(春望)」에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물만 남아 있고, 성 안의 봄은 풀과 나무만 깊었구나. 시절을 슬퍼하니 꽃을 봐도 눈물이 흐르고, 이별을 슬퍼하니 새조차 마음을 놀라네. 전쟁이 석 달 이어지니, 집안의 소식은 만금보다 값지도다. 흰 머리 쥐어뜯으니 또 짧아져서, 다해도 비녀를 이기지 못할 것 같구나.〔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라는 구절이 있다. 이 작품은 안녹산의 난이 일어난 다음 해인 757년에 함락된 장안에서 쓴 것으로, 기울어가는 나라를 걱정하며 타향에서 덧없이 늙어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부쳐서 말하기를,

누가 먼저 화의를 하려 천북에서 왔는고	誰先和議來天北
명나라는 원수 앞에서 화친 맺어 좋은 이웃 되라고 하는가	七廟讐前講好隣
세상일 중에 마음에 저촉되는 바 있으면	有時事觸心
반드시 우분하고 강개하였네	必憂憤慷慨
시 읊음에 마치 배척하는 듯 하여	於吟咏如斥
단두죽 여러 번 끓였다네	和豆粥諸作

라고 하였으니 공의 氣節(기절)을 더욱 간략하게나마 상상할 수 있다. 공은 선조(宣祖) 임인년(壬寅年, 1602) 4월 24일에 졸하니 향년 83세였다. 묘는 주의 북쪽 돈목동(敦睦洞) 좌간(坐艮)의 터에 있다. 부인은 광산김씨(光山金氏)로, 참봉 반(攀)의 딸인데, 생몰은 모두 기록하지 못하고 공과 더불어 같은 산 다른 무덤에 묻혔다. 유고(遺稿)를 병란(兵亂)에 잃어버려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고 늘그막에 지은 과제(科製) 약간편만 있을 뿐이다.

영조(英祖) 을해년(乙亥年, 1755)에 도의가 나란히 일어나서 설재서원(雪齋書院)에 나란히 배향하였다. 세 아들을 두었는데 여해(如海)는 사재감정(司宰監正)이요, 여한(如漢)은 장사랑(將仕郎)이요, 여하(如河)도 사재감정(司宰監正)이다. 진사 혼(渾)과 생원 미(渼)와 참의 란(瀾)이 병자년에 의병을 모았는데, 공에게는 손자가 된다. 5세손 지중(之中)은 선전관(宣傳官)이요, 비(備)는 진사이며, 6세손 성(鍼)은 생원이요, 7세손 태운(泰運)은 진사요, 용운(龍運)은 학행이 있었다. 익운(翊運)은 효행이 있었으며, 대운(大運)은 근후(謹厚)해서 고가(古家)의 풍모(風貌)가 있었다. 8세손 기호(基灝)는 종사(宗祀)를 맡았으며 기열(基說)은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아버지가 병이 났을 때 눈 속에서 죽절(竹節)을 구하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린 정성이 있었다. 이 이하는 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보다 앞서 나형규(羅炯奎)가 공을 위해 행장을 만들었다. 나공(羅公)은 일찍이 나의 선조인 도암 문정선생(陶菴文正先生)의 문하에서 교유한 자로 그 일과 행적을 본떠 실은 것을 이처럼 징험할 수 있으나, 다만 지금 공이 세상을 떠난 지 또한 거의 백 년이 되었다. 문헌(文獻)이 다 사라져 사책(史冊)에서 후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적었는데 그중 한두 가지를 구하여 얻었다. 대운의 아들 기주(其宙)가 나에게 보여주며 그 남아있는 것을 기록해달라고 청하니, 다만 우매하여 그것을 어찌 다 알 수 있으리오. 그러나 삼가 들어봄에, 공의 효성이 성품에 드러나고 문장은 세상에 명성을 떨쳐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분명 많이 볼 수 있을 것인데, 세대가 점점 멀어지고 행했던 일들도 점점 사라져 다시 생각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니 이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안타깝도다. 그러나 그 드러난 바로서 말해보자면, 공의 충의(忠義)는 이처럼 단단(斷斷)하고, 공의 손자 란(瀾) 또한 오랑캐 적들

이 창궐(猖獗)했을 때, 의리에 떨쳐 일어나 종군했으니 이에 공이 남긴 가르침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응당 그 할아버지에 그 손자로다. 아, 위대하도다. 삼가 나공(羅公)의 행장에 나아가서 차례대로 돌려보내니, 세상에서 후세에 훌륭한 말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아마 혹 헤아려 채택됨이 있으리라.

고종(高宗) 정묘년(丁卯年) 음력 11월 하순(下旬)에 삼주 이광헌(三州 李光憲) 삼가 쓰다.

출전 : 나주정씨문중 정병선 개인 번역

公諱諶。字仲實。逸軒其號。鄭氏貫羅州。上祖諱諧。追封軍器監。傳三世。諱可臣。壁上三韓三重都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文靖公號雪齋。與金文肅周鼎·尹文顯珌。爲講道之交。文學行誼。並輝一世。沆諫儒上之編伍。請罷崇佛之道場。事在麗史。後祠本州。自是世顯圭組。諱佶。開城少尹。贈資憲大夫吏曹判書。諱文振。寶城郡守。贈吏曹判書。諱有。通政。知成川事。贈兵曹參判。入本朝。諱自新。保功將軍侍衛大護軍。贈吏曹判書。是生諱軾。官兵曹判書。考妣喪。皆廬墓三年。嘗扈駕溫宮。有回祿灾。冒焰入。負玉扆以出。鬚髮燃盡。上命畫其像。寵以非常。後配文靖祠。司憲府監察諱承賢。司贍寺直長諱觀。司贍寺主簿諱念祖。寔公考若祖曾。妣慶州李氏。己卯名賢茅山蟹女。

中宗庚辰生公。公幼聰穎殊凡。纔學語。便解文字。九歲。觀察使巡于州。聚士試藝。公膺上選。見者莫不奇之。以爲他日成就未可量。明宗壬子。司馬。宣廟戊辰。文科。歷數官。拜戶曹正郎。以久違親側。棄官歸。秋除吏曹正郎。乃黽勉肅謝。宗親命也。未數日。復南歸。作歸來辭曰。中流失棹。南北誰先。谷口鞭驢。故逕依然。性雅好水石。選溪東勝處。搆一小亭子。花樹方列。松竹交翠。日嘯咏其間。有歸來非避世。性自愛林泉。陶興悠然作。何人挽我肩之詩。又作贊曰。錦隱逸翁。志在雲鴻。功不必建。名不思隆。盖公以逸扁室。故自謂逸翁。自是爲終老計。一切仕路。不復爲求進。常自言平生無才無德。無用於匡世。無思無慮。無補於營家。無名無節。無範於風敎。無勇無智。無先於捍禦。無巧無詐。無謀於守身。時李夫人。年垂大耋。而公之弟詳。繼登科第。公曰。二人在朝。其如偏母何。吾則斂跡榮達。供奉甘旨。以娛餘年。不亦宜乎。壬辰。島夷之亂。往見懷齋朴光玉。倡義之論。仍慷慨於悒。感動人色。倡義使金公千鎰。始擧義師。馳書告公。公卽赴義廳。歃血誓衆。事載張谿谷維·姜睡隱沆文集及再 潘邦誌·倡義使廟庭碑文。

丁酉。送姪子如麟。赴元師幕。又移書霽峰高公敬命。略曰。宗社灰沒。先神無所托。生靈塗割。寃血被原陸。哭痛何有於施情。悲吟仰屋。徒無益也。結手無策。後悔莫及。今日之事。義在各奮。無可待勸。足不及裹血。飢不暇念食。投時急擊。不失期會。辭意激烈。人莫不扼腕。時公年七十餘矣。顧以四朝餘生。遭此龍蛇之燹。形死心灰。雖未能匍匐效力。憂國傷時。發憤忘食。每仰屋向空。

書國破山河在之句。以鑾輿西遷。不得扈從爲恨。與人書。必曰。偸生人。以自罪焉。崔節度慶會。戰死于晉州。卽文以吊之。聞沈惟敬議和之說。拔劒激憤。作鏖賊歌。又以詩寄之曰。誰先和議來

天北。七廟讐前講好隣。有時事觸心。必憂憤慷慨。於吟咏如斥。和豆粥諸作。公之氣節。尤略可想矣。公以宣祖壬寅四月二十四日卒。公距其生。公享年八十三。公墓在州北敦睦洞坐艮之原。公配光山金氏。公參奉攀女。生卒俱未記。與公同岡異穴。遺稿。逸於兵燹。傳者無幾。晩年所作及料製若干編。英祖乙亥。道議齊發。配雪齋書院。三男。如海司宰監正。如漢將仕郎。如河司宰監正。進士渾·生員渼·參議瀾。丙子募義。於公爲孫。五世孫之中宣傳。備進士。六世孫鍼生員。七世孫泰運進士。龍運有學行。翊運有孝行。大運謹厚。有古家風。八世孫其灝。尸宗祀。其說性至孝。父病。有雪筍血指之誠。餘不盡記。先是。羅公炯奎。爲公之狀。羅公會從吾祖陶菴文正先生門下遊者。其模載事行。有是可徵。而但今距公之沒。亦幾百年矣。文獻湮沒。寡傳後於史册。追得一二。大運之子其宙。示余請以錄其所遺。顧愚昧。何足以知之。然謹聞公孝著性。文章名世。嘉言懿行。必多可觀。而奈之何世遠事泯。不可得以復攷。惜哉。然以其所著而言之。公之忠義。若是斷斷。而公之孫瀾。又於賊虜猖獗之時。奮義從軍。此可見公之遺訓。猶有不泯者。宜其是祖之有是孫也。嗚呼偉哉。謹就羅公所爲狀。序次而歸之。世有立言者。作尙或有以財擇焉。

高宗丁卯南至下浣。三州 李光憲 謹撰。

출전 : 나주정씨종친회(http://www.najujeong.com/)

(4) 『나주정씨 대동보 신미보(羅州鄭氏大同譜辛未譜)』 4편, 「일헌공 묘갈명(逸軒公墓碣銘)」

나라의 인물이 인조(仁祖), 명종(明宗), 선조(宣祖) 때 보다 융성한 때가 없었다. 당시에 충효가 나타났고, 후세에 문장이 드러나서 성대히 사림의 표준이 된 사람은 오직 일헌 정선생(逸軒 鄭先生)이로다. 선생의 휘는 심(諶)이요, 자는 중실(仲實)이며, 호는 일헌(逸軒)이며 다른 호는 곡구(谷口)이다. 나주인이다. 경진년(庚辰年)에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곧잘 문자를 이해하였다. 명종(明宗) 임자년(壬子年, 1552)에 진사에 올랐으며, 선조(宣祖) 무진년(戊辰年, 1568)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역임했으나, 오랫동안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가을에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제수되었는데, 애써 사은숙배하였으니 이는 어버이의 명을 따른 것이었다. 이때 대부인(大夫人)의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그의 동생 창주공(滄洲公) 휘 상(詳)이 뒤를 이어 과거에 급제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홀로 계신 어머니는 어찌할 것인가. 너는 관직에 있으면서 직분을 다하고, 나는 돌아가 노모를 봉양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지으며 호연(浩然)히 남쪽으로 내려왔다. 집을 수석(水石)사이에 짓고 ‘일헌(逸軒)’이라 편액하였다. 그 찬(贊)에 이르기를 ‘금성(錦城)에 숨은 逸翁(일옹), 그의 뜻은 구름 속 기러기에 있네. 기필코 공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융성히 드날릴 생각 없도다. 어버이를 기쁘게 하고 남은 날에, 후학(後學)을 권장하여 진취시키는 것을 낙으로 삼으리라.’라고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을 가서 보고는 창의(倡義)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말하기를, “이

는 바로 신자(臣子)가 몸을 바칠 시기인데, 다만 이 늙은이의 정신이 다 사라지고 없어서 만분의 일의 정성이라도 바칠 수가 없구나."라고 하며 마음으로 답답해하면서 강개(慷慨)하니, 그 의기가 남들을 격동시켰다.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공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공에게 글을 보내 고하기를, '공은 충의로서 힘쓰라.'라고 하였고, 아울러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에게도 힘쓰라고 하였는데, 그 대략에 말하기를,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조상들의 신령이 의지할 곳이 없으며,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여 원통한 피가 들판에 입혀졌구나. 오늘의 일은 물러나지 말고 나아가야 하니 굶주려도 밥 먹을 생각조차 할 틈이 없고, 다리는 피를 싸맬 여유도 없으니 때에 따라 급히 쳐부수어 기회(機會)를 잃지 말라."라고 하였다. 조카인 경원공(慶源公) 여린(如麟)을 이충무공(李忠武公)의 막하로 보내어 방법과 계략에 힘을 보태서 적들을 토벌하여 회복할 것을 도모하게 하였다.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가 순절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글로서 조문하였고, 또 심유경(沈惟敬)이 화의를 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오부가(鏖賦歌)」를 지어 그에게 경고하였다. 어가(御駕)가 서쪽으로 파천(播遷)함에 호종(扈從)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남에게 글을 줄 때는 반드시 투생인(偸生人, 구차하게 살아난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삼도(三都)가 함락됨에 지붕을 쳐다보고 길게 울부짖으며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 나라는 망했으되 산하는 그대로 있구나)'라는 글귀를 써서 충분(忠憤)의 기개를 드러냈다.

선조(宣祖) 임인년(壬寅年, 1602)에 잠자리에서 졸하니 향년 83세였다. 묘는 월청동(月淸洞) 간좌(艮坐) 터에 있으니 부인 광산김씨(光山金氏)와 나란히 안치되었다. 영조(英祖) 을해년(乙亥年, 1755)에 사론(士論)이 일제히 일어나 설재서원(雪齋書院)에 배향하였다. 아버지의 휘는 염조(念祖)이니 주부(主簿)요, 할아버지의 휘는 관(觀)이니 직장(直長)이요, 증조의 휘는 승현(承賢)이니 감찰(監察)이요, 고조의 휘는 식(軾)이니 판서(判書)로, 문정공(文靖公) 휘 가신(可臣)이 9세조가 된다.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장남(長男)은 여해(如海)니 감정(監正)이요 차남(次男)은 여한(如漢)이니 장사랑(將仕郎)이며, 딸은 정씨(鄭氏) 준(俊)에게 출가(出嫁)하였다. 손자와 증손은 많음으로 다 기록하지 않는다.

아. 지금으로부터 선생이 돌아가신 지 이미 삼백여 년이로다. 그 진실한 행실과 아름다운 덕은 진실로 후생(後生)들이 마땅히 의논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산악(山岳)의 신령하고 맑은 기운이 모여서 사람이 되고 쌓여서 도덕이 되며, 베풀어서 사업(事業)이 되고 발하여 문장이 되는데 이것을 겸하여 가지고 있는 자는 천백(千百)년 동안 손꼽아 헤아리기 어렵도다. 선생같은 분이 어찌 그런 사람이 아니리오. 옛날에 묘의 앞에 짤막한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글자의 획이 다 사라지고 문드러져 실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후손인 우선(遇善)이 다시 세우기로 계획하고 나 계수(繼洙)에게 명하여 비문을 기록하게 하였다. 진실로 전중(典重)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고, 외손된 자로서 또한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삼가 명

을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금성산의 신령한 기운 모여	錦岳鍾靈
하늘에까지 이르렀도다	于天埈極
우리 선조를 내리시어	降我先生
선덕을 본받을 수 있도다	克肖先德
효성스럽고 돈독하게 부모를 봉양하며	孝篤養親
간절한 충성심으로 나라 걱정하였네	忠切憂[504]國
남은 일은 문장으로	餘事文章
세상도 본받으며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爲世矜式
동쪽의 대산과	若岱于東
북쪽의 북두와 같도다	如斗于北
사우에 배향함에	配享先祠
변함없이 제사지내는구나	俎豆不忒
비석에 새기니	銘于牲石
천억 년까지 말하리라	用詔千億

숭정(崇禎) 5년 계축(癸丑). 삼월(三月) 상한(上澣). 외예(外裔) 금성(錦城) 오계수(吳繼洙)[505] 삼가 짓다.

출전 : 나주정씨문중 정병선 개인 번역

逸軒公墓碣銘

國朝人物。莫盛於仁·明·宣之際。而忠孝著於當時。文章鳴於後世。蔚然爲士林之標準者。其惟逸軒鄭先生乎。先生諱諶。字仲實。號逸軒。又號谷口。羅州人。庚辰生。自幼聰明。便解文字。明廟壬子。升上庠。宣廟戊辰。擢文科。歷拜戶曹佐郎。以久曠定省。棄官還鄕。秋除吏曹正郎。黽勉肅思。從親命也。時大夫人。年躋大耋。而其弟滄洲公諱詳。踵登科第。先生曰。二人在朝。其於偏親何。君則居官盡職。吾則歸而奉老。不亦可乎。遂賦歸去來辭。浩然南下。築室於水石間。顔以逸軒。其贊曰。錦隱逸翁。志在雲鴻。功不必建。名不思隆。悅親之暇。惟後學爲樂矣。龍蛇之亂。往見朴懷齋光玉。倡擧義之論曰。此正臣子效死之秋。而但老物精神消乏。不能効萬一之忱。慷慨於

504) 원문에는 '夏'로 되어 있는데 '憂'의 오자인 것 같다.

505) 오계수(吳繼洙): 1843~1915. 자는 중함(重涵), 호는 난와(難窩),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 기우만(奇宇萬)이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킬 때 그에 가담하였고, 경술국치 후 두문불출하며 영사재(永思齋)에 들어가 오직 독서만으로 생애를 보냈다. 저서로는『난와유고(難窩遺稿)』17권이 있다.

悒。義氣激人。健齊金公千鎰。擧義興師。而馳書告公。公勉以忠義。兼勗霽峯高公敬命。其略曰。宗社灰沒。先神無依。生靈屠割。寃血被原。今日之事。有進無退。飢不暇念食。足不及袌血。投時急擊。勿失機會云云。送侄子慶源公如麟。赴李忠武幕。協贊方略。以圖討復。及聞崔兵使殉節之報。而爲文以吊之。又聞沈惟敬和議之說。而作鏖賦歌以警之。大駕西遷。不得扈從爲恨。與人書。必稱偷生人。三都陸沉。仰屋長呼。書國破山河在之句。以洩忠憤之氣。宣廟壬寅。考終于寢。壽八十三。墓在月淸洞枕艮原。與夫人光山金氏雙塋。英廟乙亥。士論齊發。配享于雪齋祠。考諱念祖主簿。祖諱觀直長。曾祖諱承賢監察。高祖諱軾判書。文靖公諱可臣。其九世祖也。擧二男一女。長如海監正。次如漢將仕郎。女適鄭氏俊。孫曾多不盡錄。嗚呼。今距先生之沒。已三百有餘年矣。其實行懿德。固非後生之所可妄議。而竊惟山岳靈淑之氣。鍾以爲人。蘊之爲道德。措之爲事業。發之爲文章。兼而有之者。千百年來。指難屢屈。而若先生。豈非其人歟。墓前舊有短碣。而字畫漫漶。實不可認。後孫遇善。謀所以改竪。而命不佞繼洙。俾記之。固典重不敢辭。而在外裔亦不敢辭。謹爲之銘銘曰。

錦岳鍾靈。于天埈極。降我先生。克肖先德。孝篤養親。忠切夏國。餘事文章。爲世矜式。若岱于東。如斗于北。配享先祠。俎豆不忒。銘于牲石。用詔千億。

崇禎五癸丑三月上浣。外裔 錦城 吳繼洙 謹撰。 출전 : 나주정씨종친회(http://www.najujeong.com/)

35) 최시망(崔時望, 1548~?)

• 본관 강화(江華), 자 자유(子裕), 호 괴정(槐亭)

(1)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권1, 임진 가을 8월

8월 24일 신해(辛亥)

비변사(備邊司)의 관문(關文)에 의하면, '동궁(東宮)의 행차가 지금 이천(伊川)에 도착했는데, 의병(義兵)을 끌어모으고, 사방으로부터 근왕(勤王)할 사람을 불러 경성(京城)을 회복할 계획이다. 궁벽한 산골에 사는 백성들 중에도 뛰쳐나와 분발할 생각을 갖지 않는 이가 없었고, 응모하는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인심이 비로소 정해지고 호령(號令)이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최원(崔遠)이 근왕병(勤王兵) 2만 명을 거느리고 이천(伊川)으로 나아갔고, 의거(義擧)한 군대가 곳곳에서 다투어 일어났다. 김천일(金千鎰)은 안산(安山)에 진을 치고, 고경명(高敬命)은 수원(水原)에서 진을 쳤으며, 우성전(禹性傳) · 성영(成泳) · 이천(李薦) · 변응성(邊應星) · 김지(金漬) 등도 각기 의병을 모아 경기 지역에 가득 포진해 있다. 경성(京城)의 적들은 이미 넋이 빠져 제정신이 아니어서, 사방으로 나가 집을 불태우고 재물을 약탈했다. 포천(抱川) · 영유(永柔) · 김화(金化)를 경유하여 영동(嶺東)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잇따르자, 촌락의 인민(人民)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단결하여 지세가 험한 장소마다 흩어져 매복해 있

다가 오가는 소규모의 적들을 공격해 섬멸하니, 적의 머리를 베어 바치는 이들이 잇따라 적을 완전히 소탕할 기회가 십중팔구(十中八九)이다. 왕의 수레가 파천(播遷)하고 종묘사직이 피난을 간 것이 이미 넉 달이 되었다. 각자 손에 침을 뱉고 떨쳐 일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먼저 공을 세울 용기를 다시금 고취하여 훗날의 후회를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 ○여러 도에서 의병(義兵)이 다투어 일어나 적을 토벌했는데, 많은 경우에는 수천 명이었고 적은 경우에도 8, 9백 명이나 되었다. 예컨대 경상도의 경우 내암(來庵) 정 선생(鄭先生)·송암(松庵) 김 선생(金先生)·곽재우(郭再祐) [의령], 김홍의(金弘毅) [상주, 충보군(忠報軍)], 김각(金覺)[506] [상주, 상의군(尙義軍)이라 부름], 노경임(盧景任)[507] [선산, 숭보군(崇報軍)], 권응수(權應銖) [영천], 백란(白蘭) [경산], 김해(金垓)[508] [예안], 이대기(李大期)·전우(全雨) [초계], 김대명(金大鳴)[509] [진주(晉州)]이고, 전라도는 최경회(崔慶會) [골자군(鶻字軍)], 임계영(任啓英) [호자군(虎字軍)], 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성천지(成天祉)[510]·임희진(任希璡)[511]·변사정(邊士貞)·민여훈(閔如壎) [웅자군(熊字軍)], 고종후(高從厚) [복수군(復讎軍)], 최시망(崔時望)이며, 충청도는 홍계남(洪戒男)·조헌(趙憲), 심수경(沈守慶), 신담(申湛)[512], 이산겸(李山謙)[513], 박춘무(朴春茂)[514], 조근공

---

506) 김각(金覺): 1536~1610. 호는 석천(石川), 자는 경성(景惺)이며, 본관은 영동(永同)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상주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그 공로로 인해 사온서 주부(司醞署主簿)에 제수되었다. 이후에 용궁현감과 온성판관(穩城判官)을 역임하였다.

507) 노경임(盧景任): 1569~1620. 본관은 안강(安康), 자는 홍중(弘仲), 호는 경암(敬菴)이다. 장현광(張顯光)、유성룡(柳成龍)에게 수학하였다. 1591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주 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술로『경암집』이 있다.

508) 김해(金垓): 1555~1593.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달원(達遠), 호는 근시재(近始齋)이다. 1589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의병대장으로 활약하다가 진중에서 전사하였다. 저서로는『근시재집(近始齋集)』등이 있다.

509) 김대명(金大鳴): 1536~1593. 본관은 울주, 자는 성원(聲遠), 호는 백암(白巖)이다. 조식의 문인이다. 1558년 생원이 되었고, 1570년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도사(都事), 풍기 군수를 지냈다. 초유사 김성일이 도소모장(都召募將)으로 삼아, 고성 의병들과 함께 왜적을 토벌하여 공을 세웠다.

510) 성천지(成天祉): 1553~?.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언길(彦吉)이다. 1572년 무과에 급제하여 진도 군수를 지냈다.

511) 임희진(任希璡): 자는 사현(士賢), 호는 국암(國巖)이다. 선조(宣祖) 때 진사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해남(海南)에서 의병을 모집하였고, 왜적과 싸워 공을 세웠다.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512) 신담(申湛): 1519~1595.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중경(仲卿), 호는 어성(漁城), 한산 출신이다. 1552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의병 2000여 명을 모집하여 왜적의 진격을 막았다.

513) 이산겸(李山謙):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의 서자로, 임진왜란 때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조헌(趙憲)의 휘하에서 활동하다가 조헌이 전사한 뒤 잔여 병력을 이끌고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1594년 송유진(宋儒眞)의 난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514) 박춘무(朴春茂): 호는 화천당(花遷堂), 시호 민양(愍襄),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임진왜란 때 창의사(倡義使)가 되어 의병을 일으키고 조헌(趙憲)과 함께 호서지방을 지켰다. 침구술(鍼灸術)이 뛰어나 의관(醫官)으로도 활약하였으며, 뒤에는 부평부사(富平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화천당집(花遷堂集)』이 있다.

(趙謹恭) 등으로, 이들 모두는 뛰어난 역량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다. 그 나머지 크고 작은 규모의 의병들이 곳곳에서 반향을 보이며 일어났지만, 남북이 가로막혀 소식이 단절되어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기록해 두어 후일의 고찰에 대비할 따름이다.

二十四日辛亥。備邊司關內。東宮行次今到伊川。收聚義兵號召四方勤王。爲恢復京城之計。窮谷之民莫不踴躍思奮。應募雲集。人心始定。號令木[515]行。全羅兵使崔遠領勤王兵二萬赴伊川。擧義之師處處爭起。金千鎰陣于安。山高敬命陣于水原。禹性傳·成泳·李薦·邊應星·金潰等各收義兵布滿畿甸。京城之賊已爲奪魄不顧四出焚掠。由抱川·永柔·金化取嶺東路去者日夜相繼。村落人民自相團結。散伏要害勦伜往來零賊。獻馘者相繼蕩滅之機十成八九。乘輿播越。庙社蒙塵今已四月矣。各自唾手奮氣激勵衆心。更鼓先登之勇。毋[516]貽後至之悔。○諸道義兵爭起討賊。多者數千。少者八九百如。慶尙道則來庵鄭先生·松庵金先生·郭再祐[宜寧]·金弘毅[尙州忠報軍]·金覺[尙州號尙義軍]·盧景任[善山崇報軍]·權應銖[永川]·白蘭[慶山]·金垓[禮安]·李大期·全雨[草溪]·金大鳴[晉州]。如全羅道則崔慶會[鶻字軍]·任啓英[虎字軍]·高敬命·金千鎰·成天祉·任希璡·邊士貞·閔如壎[熊字軍]·高從厚[復讎軍]·崔時望。忠淸道則洪戒男·趙憲·沈守慶·申湛·李山謙·朴春茂·趙謹恭等。此皆章章著顯者也。其餘大少義兵處處響起。而南北阻梗音耗斷絕不能悉記。故先錄耳目所及以備後日之考耳。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고대일록(https://db.itkc.or.kr/)

(2)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권1, 임진 겨울 11월

11월 21일 정축(丁丑)

전라도(全羅道) 남평(南平) 의병장(義兵將) 최시망(崔時望)이 보낸 격문(檄文)이 왔다.

二十一日丁丑。全羅道南平義兵將崔時望檄文來。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고대일록(https://db.itkc.or.kr/)

(3) 『선조실록(宣祖實錄)』 권99, 선조 31년 4월 14일

이헌국(李憲國)을 대사헌으로, 신식(申湜)[517]을 도승지로, 허성(許筬)[518]을 우승지로, 송준

---

515) 大의 오기인 것 같다.

516) 毋의 오기인 것 같다.

517) 신식(申湜): 1551~1623.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숙지(叔止), 호는 용졸재(用拙齋)이다. 신숙주(申叔舟)의 5대손으로 이황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의례고증(疑禮攷證)』 등이 있다.

518) 허성(許筬): 1548~1612.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공언(功彦), 호는 악록(岳麓)·산전(山前)이다. 허균(許筠)의 형이고, 유희춘(柳希春)의 문인이다. 1568년 생원이 되고, 1583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악록집』이 있다.

(宋駿)[519]을 동부승지로, 이수광(李睟光)[520]을 예조 참의로, 정경세(鄭經世)를 경상 감사로, 정창연(鄭昌衍)[521]을 동지중추부사로, 정엽(鄭曄)[522]을 첨지중추부사로, 김용(金涌)[523]을 집의로, 최시망(崔時望)을 장령으로, 윤성(尹晟)을 장령으로, 송응순(宋應洵)[524]을 지평으로 삼았다.

以李憲國爲大司憲。申湜爲都承旨。許筬爲右承旨。宋駿爲同副承旨。(李睟光)〔李睟光〕爲禮曹參議。鄭經世爲慶尙監司。鄭昌衍爲同知中樞府事。鄭曄爲僉知中樞府事。金涌爲執義。崔時望爲掌令。尹晟爲掌令。宋應洵爲持平。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4) 기우만(奇宇萬), 『송사집(松沙集)』 권24, 「효충선무공신 사헌부장령 겸 경연시강관 지제교 홍문관전한 괴정 최공 신도비명(「忠宣武功臣司憲府掌令兼經筵侍講官知製敎弘文館典翰槐亭崔公神道碑銘)」

선비가 하·은·주 삼대(三代)에 나지 못했지만, 태어나서 우리나라 중엽의 명망과 덕행이 있는 사람을 사우로 삼는다면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괴정 최공(槐亭 崔公)은 우리 숙조(叔祖)이신 고봉 선생(高峯先生)에게 전적으로 배웠고, 송강(松江), 서경[西坰 유근(柳根)]과 도의로 사귀었으며, 여러 번 율곡에게 칭찬을 받았으니, 그 도학 속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세상에서 유독 절의만으로 공을 아는 것은 아마도 미진한 바가 있는 듯하다. 아, 도학(道學)과 절의(節義)는 애당초 두 가지 이치가 아니다. 다만 처한 상황이 같지 않을 뿐이다. 조중봉(趙重峯)·고제봉(高霽峯)·김건재(金健齋)와 같은 분은 그 절의가 얼마나 우뚝하고 열렬한가. 그러나 모두 도학에 근본을 두고 있어서 마치 공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

519) 송준(宋駿): 1564~1643.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진보(晉甫), 호는 성암(省菴)이다. 1594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공충도 관찰사(公忠道觀察使)에 이르렀다.

520)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자는 윤경(潤卿), 호는 지봉(芝峯)이다. 이조 판서 등을 지냈으며, 여러 차례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천주교 지식과 서양 문물을 소개하여 실학 발전의 선구자가 되었다. 저서로는 『지봉유설(芝峯類說)』 등이 있다.

521) 정창연(鄭昌衍): 1552~1636.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경진(景眞), 호는 수죽(水竹)이다. 정유길(鄭惟吉)의 아들로, 좌의정(左議政) 등을 지냈다. 1614년 영창대군(永昌大君)에 대한 상소로 위험에 처한 정온(鄭蘊)을 변호하고, 폐모(廢母) 논의가 일자 두문불출하다가 인조반정 이후 복직하였다.

522) 정엽(鄭曄): 1563~1625.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시회(時晦), 호는 수몽(守夢)이다. 이이(李珥)의 문인이며, 1583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인목대비를 폐위하는 데 반대하여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인조반정 후에 다시 벼슬하여 우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수몽집』이 있다.

523) 김용(金涌): 1557~1620.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도원(道源), 호는 운천(雲川)이다. 1590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주 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운천집』 등이 있다.

524) 송응순(宋應洵): 1547~1611.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공신(公信), 호는 소옹(簫翁)·춘호(春湖)이다. 1596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세 선생과 함께 동방 천지에 전해질 만하도다. 아 성대하다.

공의 휘는 시망(時望)이고 자는 자유(子裕)이며 괴정(槐亭)은 호이다. 최씨는 강화의 이름난 성씨이다. 사복소경(司僕少卿) 익후(益厚)[525]가 처음 보첩에 올랐다. 휘 근(瑾)은 평장사를 지냈고, 휘 유(蕤)는 태학사를 지냈다. 한성우윤 휘 거(渠)는 남쪽으로 낙향한 선조이다. 그 아들 휘 자추(自湫)가 유일로 천거되어 전첨(典籤)을 지냈으니, 바로 공의 고조(高祖)이다. 증조 휘 윤형(閏亨)은 주부(主簿)를 지냈고, 조부 휘 홍(泓)은 참봉을 지냈다. 부친 휘 명순(命順)은 호가 동계(東溪)이고,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正字)를 지냈다. 모친 당악김씨(棠岳 金氏)는 인의(引儀) 김태항(金台亢)의 딸이다.

공은 가정(嘉靖) 무신년(戊申年)에 태어났다. 만력(萬曆) 임오년(壬午年)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양사(兩司)를 역임하였으며 규례를 뛰어넘어 삼자함[三字銜 봉조하(奉朝賀)]이 되었다. 외직으로는 김제군수(金堤郡守)와 청주목사(淸州牧使)를 지냈는데, 백성들이 모두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 임진년 난리 때에 막 관직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가, 계소를 받들어 밤새도록 달려가 문안하였는데 어가는 이미 서쪽으로 피난 떠난 뒤였다.

변고를 듣고 재촉하여 부임하자, 임금이 시를 내려 면려(勉勵)하였다. 종묘사직의 신주를 모시고 갈 때에 반드시 공에게 명하였으니, 공이 조정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내려 준 시 가운데 "누가 곽자의와 이광필[526] 같은 충성을 하겠는가[誰能郭李忠]. 회복할 일은 제공을 믿네[恢復仗諸公]."라고 한 몇 구절을 통해, 또 임금의 의도를 알아채고는 시를 받들어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알맞은 시기에 나아가 노기(盧杞)[527], 한탁주(韓侂胄)[528]에 빗대어 면전에서 간악한 권력자를 꾸짖어 마침내 이들은 쫓겨났으니, 당시 의론이 통쾌하게 여겼다. 이때부터 조정과 민간에서 공의 명망이 높아졌다.

금산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이르자 공에게 의병을 모집할 것을 명하였다. 공이 명을 받고

---

525) 최익후(崔益厚): 고려조에 벼슬하여 관직이 사복 소경(司僕少卿), 상서 우복야, 정당문학 등을 역임하였다. 강화에 살게 되면서 후손들이 본관을 강화로 삼게 되었다.

526) 곽자의(郭子儀)와 이광필(李光弼): 곽자의(697~781)는 당나라 화주(華州) 사람으로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토벌하여 도읍 장안(長安)을 탈환하였고, 뒤에 토번(吐蕃)을 쳐서 큰 공을 세워 사도(司徒), 중서령(中書令)에 이어 분양왕(汾陽王)으로 봉해졌다. 이광필(708~764)은 유성(柳城) 사람으로 곽자의와 같이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을 평정하여 절도사에 임명되었으며, 뒤에 삭방(朔方)을 진압하여 임회군왕(臨淮郡王)에 봉해졌다.

527) 노기(盧杞): 당나라 덕종(德宗) 때의 간신으로 성격이 음험하여 국정을 담당할 때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 많은 사람을 죽였다. 평소 싫어하던 안진경(顔眞卿)을 제거할 목적으로, 모반을 일으킨 이희열(李希烈)에게 보내어 화를 당하게 하였다.

528) 한탁주(韓侂胄): 남송(南宋) 때의 간신이다. 안양(安陽) 출신으로 한기(韓琦)의 증손이다. 우승상 조여우(趙如愚)를 참언(讒言)하여 지방으로 유배 보내고, 그가 추천한 주희(朱熹)와 그 학파를 위학(僞學)으로 몰아 추방함으로써 경원(慶元)의 당금(黨禁)을 불러일으켰다.

남쪽으로 내려가자 멀고 가까운 모든 곳에서 한목소리로 호응하였고, 공을 추대하여 의병장으로 삼았으니, 충의와 계책이 민심의 신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진격하여 운봉(雲峯)을 차지하였으니, 운봉은 영남과 호남의 요충지이다. 요충지를 점거하고 세력을 나누어 호남과 영남을 수습하였으니, 깊고 큰 계책이었다. 몇 개월 만에 수십 백의 수급을 베자 왜적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 조정에서 공에게 상을 내렸는데 모두 아랫사람들에게 공을 밀어주었다.

진격하여 함양(咸陽)에 이르렀는데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병이 위독해져 군무를 살피지 못하게 되자, 조카 희립에게 거느리던 군대를 맡기고 목숨을 바치는 의리로 힘썼다. 희립이 과감히 진격하다가 진주에서 전사(戰死)하니, 공이 병을 무릅쓰고 말안장에 기댄 채 죽기로 맹세하고 전장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힘이 소진되어 넘어져서 죽고 말았다.

아, 공은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했다고 이를 만하나 중도에 운명하여 계책이 대략 시행되지 못하여 왜적에게 유린당하게 되었으니, 이 점이 공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까닭이다.

노곡 장등(魯谷長嶝) 아래 해좌(亥坐)에 장사 지냈고, 부인도 합장하였다. 을사년(乙巳年)에 선무공신(宣武功臣)에 녹훈(錄勳)되었는데, 융숭하게 보답하는 은전은 제공들과 견주어 보면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나 공에게 있어서 무슨 손상과 보탬이 되겠는가.

공은 함양박씨(咸陽朴氏)에게 장가들었으니 사과(司果) 박영상(朴永常)의 딸이다. 외아들은 동헌(東獻)이다. 측실의 아들은 남헌(南獻)이다. 동헌의 아들은 기영(耆英)이고, 두 딸은 각각 양우전(梁禹甸)[529]과 양우준(梁禹濬)에게 시집갔다. 새겨서 드러낸 신도비가 없었는데도 겨를이 없다가, 자손들이 이를 슬퍼하여 비석을 마련해 놓고서, 후손 성교(聖敎)가 장로의 명을 받들어 명(銘)을 부탁하였는데, 정중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명은 다음과 같다.

고봉의 문하에	高峯之門
공처럼 어진 이 있으니	有賢如公
송강노인과 서경노인	松老西叟
도학과 절의는 똑같았지	道義則同
한 번 보고 하는 칭찬	一見之奬
율곡 어른에게 들었으니	得於栗翁
여사라 말하지 말라	舍曰餘事
백세토록 풍도 이어지리	百世其風

529) 양우전(梁禹甸):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전지(甸之), 호는 오봉(鰲峰)이다.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의 5대손이며, 부인은 강화 최씨(江華崔氏) 최동헌(崔東獻)의 딸이다. 1623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으나, 병자호란 이후에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송석정(松石亭)에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배운 것은 속일 수 없으니	學不可誣
임금 섬기는 충성이라	事君以忠
임진년의 변란 때	龍蛇之變
부지런함은 자신 위한 것 아니었네[530]	蹇蹇匪躬
물고기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魚我所欲
물고기 버리고 곰 발바닥 취했으니	舍魚以熊
곰 발바닥과 물고기의 분별은	熊魚之分
평소 마음속으로 정한 것이라	素定于衷
나와서는 위기에 응하여	出而臨機
한번 죽기를 기러기 털처럼 여겼고	一死輕鴻
전쟁터에서 죽은 것과 다름없었으니	靡間矢復
나라에 보답하다 생을 마쳤네	報國也終
용맹한 조카에게	矯矯從子
말하여 공의 자취 잇게 하였으니	言繼之蹤
전수받은 바 정함이 있어	所受有定
세 장사 따랐네	三士是從
백만의 군사보다 강하여	強於百萬
한번 죽어 공로 세웠으니	一死爲功
언덕 무너지지 않는 한	岡岳不頹
의로운 명성 함께 융성하리라	義聲齊隆
내 명 지어 밝게 드러내니	我銘昭之
지나는 자 공경할 지어다	過者之恭

출전 : 유영봉 외 역, 『국역 송사집』, 흐름출판사, 2020

士不生三代。生而師友我中葉名德。其幸矣乎。吾省有槐亭崔公。蓋專門於吾叔祖高峯先生。而松江,西坰爲道義交。屢被奬於栗谷。則可知爲道學中人。而世獨以節義知公者。恐有所未盡也。嗚呼。道學節義。初非二致。特時遇不同耳。若趙重峯若高霽峯若金健齋。其節義何等卓烈。而皆本之道學。如公之所秉執。可與三先生。并傳於東方天壤。吁盛矣。公諱時望字子裕。槐亭號也。崔氏江華著姓。司僕少卿益厚。始登譜牒。平章事諱瑾。太學士諱蕤。漢城右尹諱渠。爲南下之祖。子諱

530) 부지런함은 …… 아니었네: 원문의 '건건비궁(蹇蹇匪躬)'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주역』「건괘(蹇卦) 육이(六二)」에 "왕의 신하가 충성을 다 바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가 아니다.[王臣蹇蹇 匪躬之故]"라고 하였다.

自湫。擧遺逸官典籤。寔公高祖。曾祖諱閏亨主簿。祖諱泓參奉。考諱命順號東溪。文科正字。妣棠岳金氏。引儀台亢女。公生于嘉靖戊申。登萬曆壬午科。歷兩司。越例帶三字銜。出宰金堤清州。民皆去思。壬辰燹。方解官家食。承啓召。罔夜奔問。則大駕已西狩矣。聞變促赴。賜詩敦勉。廟杜陪從。必命之公。則公負重於朝廷。非一日矣。賜詩中誰能郭李忠。恢復仗諸公數句。又見天意所注。公奉詩涕泣。因進機宜。面折權奸。擬之杞冑。竟致竄逐。時論快之。自是望重朝野。錦山敗報至。命公召募義旅。承命南下。遠近響合。推公爲義帥。可見忠義謀略孚于衆心。進據雲峯。雲嶺湖衝要。據要分勢。收攬兩南。蓋其深謀大筭。而數月之間。斬獲數十百級。賊勢稍頓。朝廷賞賜。盡推管下。進至咸陽。中流矢疾篤。不能視事。以所領屬於從子希立。勉以致死之義。希立果進。殉于晉州。公強疾據鞍。誓死將赴。力盡而仆以終。嗚呼。公可謂以死報國。而中道殞折。謀略不槩試。而使賊蹂躪。此公死而不瞑者也。葬于魯谷長嶝下亥坐。夫人合窆。乙巳錄宣武勳。而崇報之典。視諸公有憾。而於公未足爲加損也。公娶咸陽朴氏司果永常之女。一子東獻。側室子南獻。東獻子耆英。二女梁禹甸,梁禹濬。神道顯刻闕而未遑。子孫是悼。旣具石。後孫聖敎奉長老之命。屬之銘。鄭重不敢辭。銘曰。

高峯之門。有賢如公。松老西叟。道義則同。一見之奬。得於栗翁。舍曰餘事。百世其風。學不可誣。事君以忠。龍蛇之變。蹇蹇匪躬。魚我所欲。舍魚以熊。熊魚之分。素定于衷。出而臨機。一死輕鴻。靡間矢復。報國也終。矯矯從子。言繼之蹤。所受有定。三士是從。強於百萬。一死爲功。岡岳不頹。義聲齊隆。我銘昭之。過者之恭。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송사집(https://db.itkc.or.kr/)

36) 최신헌(崔身獻, 1590~1665)

• 본관 강화(江華), 자 사필(士必), 호 나재(懶齋)

(1) 『강화 최씨 충효열록』[531]

선생께서는 명기(鳴岐)의 5대 방조가 되는데 세대가 서로 멀어지고 은택이 이미 끊어진데다가, 가승(家乘)과 묘도(墓道) 역시나 희미해져서 확인하기 어려우니, 배움이 적고 잔약한 후손이 어찌 한두 가지라도 주워 모아 행장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수나라 보배 구슬과 곤륜산의 아름다운 옥은 적을수록 더욱 보배롭고, 신령스러운 영지와 자욱한 난초는 오랠수록 향

531) 해당 자료는 강화 최씨 인물들의 문헌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강화최씨문중 최병호 씨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이다. 다른 문헌자료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각 자료에 대한 출처들이 적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출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출전을 '『강화 최씨 충효열록』'으로 하는 바이다. 향후 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가 더욱 진해지는 법이다. 삼가 문드러진 책편의 흐트러진 종이에서 가져와 그 세계(世系)와 관함(官銜), 출처(出處)와 생몰(生沒)의 대략을 알게 되었으니, 매우 그립도다.

아, 슬프도다! 선생의 휘는 신헌(身獻)이시고 자는 사필(士泌)이시며 나재(懶齋)라는 호는 스스로 지은 것이다. 최씨의 계통은 강화(江華)에서 나왔는데 휘 근(瑾), 휘 종수(宗秀), 휘 유(蕤)로 3대가 고려의 대제학을 지냈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우윤공(右尹公) 휘 거(渠)께서 비로소 남평(南平)에 살게 되셨다. 고조이신 휘 윤현공(潤亨公)께서는 연산조에서 참봉을 지냈는데, 궁감(宮監)이 위세와 부귀를 제멋대로 부리는 것을 분히 여겨 뾰족한 신발로 그 궁감의 이마를 발로 차버렸다. 이로써 화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는데 마침 중묘개옥(中廟改玉)으로 인하여 특별히 장흥고 주부(長興庫主簿)로 올랐고 증조이신 휘 홍(泓)께서는 참봉으로, 덕을 기르고 선(善)행을 닦았다. 아들 한 명, 손자 두 명과 현손이 대대로 연이어 과거에 급제하니 사람들은 음덕으로 보답한다고 여겼다. 조의 휘는 명통(命通)이니 주부(主簿)이다. 부친의 휘는 성망(星望)이며 감찰(監察)이다. 모친은 이천 서씨(利川 徐氏)로 지중추(知中樞)를 지낸 홍필(弘弼)의 따님으로 선생을 낳았다.

만력(萬曆) 경인년(庚寅年, 1590)에 두 돌도 안 되어 임진왜란을 만나 부모를 따라 숨어 살았다. 바위와 큰 숲 사이에서 무릇 울고 웃고 기침할 때도 반드시 어버이의 뜻대로 해서 한 번도 도적들과 더불어 서로 만나는 일이 없었다. 11세에 비로소 나의 선조인 장령공(掌令公, 時望(시망))에게서 수학했으며 또한 사암 박상공(朴相公, 박순(朴淳))에게서 수학하였다. 성현의 글을 두루 읽어서 배움의 큰 방법을 대략은 알게 되었다.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늙으셨지만, 과거 공부에 매진해서 연달아 향시에 합격하니, 명성이 초목이 무성한 것처럼 높았었다. 광해군(光海君) 무오년(戊午年, 1618)에 회시(會試)가 열리는 시험장으로 달려갔으나, 당시의 의논이 크게 어긋남을 보고 개연히 시험에 나아가지 않았다. 책을 품고 돌아오는데, 한 어르신을 만나 함께 배 타고 한강을 건넜다. 어르신께서 "어찌하여 나라에서 보는 과거를 보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보시자, 선생께서 말 채찍으로써 글로 '윤강두절(倫綱蠹絕)'이라고 네 글자로 나타내시니 어르신께서 용모를 고치시게 되었다. 인조(仁祖) 갑자년(甲子年)에 다시 향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시어 서울 집에 이르니 어떤 사람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하기를, "연평(延平) 큰 어르신께서 공을 매우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길, "이태(李台, 이귀(李貴))는 나와 더불어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다렸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곧바로 상공께서 이르렀다고 아뢰었다. 문에 들어가니 이내 전날 함께 배를 타신 어르신이 손을 잡고 탄식하며 말씀하시길, "일찍이 그대가 과거 공부를 그만둘 거라는 결의(決意)를 알았음에도, 지금 과방(科榜)에 성명을 보일 수 있다면 진퇴(進退)에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이 해에 과거에 급제하여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에 선출되었다가 저작(著作)으로 옮겼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괄(李适)의 변을 당하였다. 이에 어가(御駕)를 호종

(扈從)하여 공주(公州)에 도착하여 꾀를 내어 방략(方略)에 힘을 보태니 자못 일컬어질 만함이 있었다. 병인년(1626)에 조정에서 우정(郵政)이 피폐함으로써 수성찰방(輸城察訪)을 제수받았으나 재상의 뜻을 거스른 것으로써 물러나 집에서 지냈다. 정묘년(1627)에 대가(大駕)가 강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쏟았다가 남몰래 길을 나서 무릇 17일 밤낮을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난리가 있었으나 행직(行職)은 이미 성균전적(成均典籍)에 오르시었고 곧바로 사헌부감찰겸 동학교수(司憲府監察兼東學敎授)로 옮겼다. 기사년(1629)에 선생께서는 궁마(弓馬)의 기예가 있음으로써 웅천현감(熊川縣監)으로 출감하려 하였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경오년(1630)부터 갑술년에 이르기까지 무릇 5년간 관고(官誥)를 받은 것이 호조(戶曹), 예조(禮曹), 공조(工曹) 등 3조의 좌랑(佐郎)과 평안도(平安道)·강원도(江原道) 양도의 도사와 관향사(管餉使)·종사관(從事官) 등이었다. 여러 번 사헌부로 옮길 때마다 저지를 당하자 이내 기꺼이 관직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와서 자유롭게 거닐며 편안하게 지냈으니, 마치 아무 생각도 없는 듯 지낸 것이 3년이었다. 병자년(1636)에 금나라 오랑캐들이 갑자기 이르러 옥로(玉輅)가 파월(播越)하심에 선생께서는 참봉(參奉) 서행(徐荇), 상상(上庠) 홍남갑(洪南甲) 등 여러 사람과 의병을 규합(糾合)하여 근왕(勤王)할 계획이었다. 이때, 옥과현감(玉果縣監) 이흥발(李興浡)[532] 공이 더불어 도내에 격문을 보내서 의병을 일으켰고, 선생을 추대하여 도유사(都有司)로 삼으니, 마침내 병마와 군량을 널리 모아 여산에서 회동하였다. 감사 이시방(李時昉)께서는 선생이 의병을 모집하여 올라온 것을 알고 심히 기뻐하고 강개하였다. 서로 술을 마시며 말하기를, “시사(時事)가 이와 같으니 어찌 신하가 되어 힘을 모아 목숨을 바치는 날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인하여 특히 선생을 추대하시어 부종사(部從事)를 삼으니 이공(李公)은 연평상공(이귀(李貴))의 아들이다. 진군하여 청주에 이르렀는데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모든 장병과 함께 통곡하며 돌아왔다. 이로부터 다시 공명(功名)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술을 마시고 시가를 읊으면서 거나하게 취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달랬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소리 높여 격렬하게 노래 부르다가 노래를 끝마치고는 출사표(出師表)를 읽으니, 한밤중이 다 되어가도 그칠 줄 몰라서 목이 메여 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숙부 시망께서도 또한 의병장으로서 임금님이 타신 수레를 호종하시어 용만(龍彎, 의주)까지 이르렀다. 을사년(1605)에 녹훈되시었고, 종형이신 희립(希立)은 적을 꾸짖기를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진주에서 순절하신 일이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및 『진주서사(晋州叙事)』에 실

532) 이흥발(李興浡): 1600~1673.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유연(悠然), 호는 운암(雲巖)이다. 1628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집의와 옥과 현감 등을 지냈다. 1636년 척화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고, 이듬해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돌아가 명나라에 대한 절개를 지키며 학문을 닦았다. 저서로 『운암일고』가 있다.

려 있다. 선생께서는 충의에 분발하여 난리에 달려갔으니, 대개 집안의 가르침에서 얻은 것이었다. 이를 세상에서 일컫기를 '최씨 일가(崔氏一家)에 세 충신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경인년(1650)에 선생의 나이 61세에 유학을 흥기(興起)하고 선비다운 풍류를 진작시키는 것을 자기 소임으로 삼아서, 교수로 생도들에게 실학(實學)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오로지 썼다. 더 나아가서는 휴암(休庵) 백선생(白先生)[533]의 절의와 도학에 감동함이 있어, 처음으로 사당을 세우는 의논을 일으켰다. 도내에 통유문(通諭文) 한 장을 만들어 소매 속에 품고 다니면서 동지들에게 권고하고, 널리 재력을 구해 사당을 세우는 데에까지 이르렀으니, 흠향(歆饗)의 의식은 모두 선생의 공(功)이었다. 조정에서는 춘조정랑(春曹正郎) 및 사도시정(司導寺正)으로 재차 불렀으나 끝내 나가지 않으니 이내 품계가 깎여 나주(羅州) 제독관(提督官)이 되었다가, 현묘 을사년(1665)에 집에서 돌아가셨다. 덕곡(德谷)의 건지봉(乾芝峰)에 경좌(庚坐) 터에 장사지내고 선영에 모셨다.

오호라! 선생께서 혼조(昏朝)에 과거 공부를 그만두셨으니, 기절이 늠름하였고 두 번이나 임금을 호종(扈從)하였으니 공렬이 빛났도다. 무릇 백두(白頭)에 이르러 의병을 일으키었으니 충절(忠節)이 해를 꿰뚫었네. 곽재우(郭再祐)의 공훈이나 남제운(南霽雲)[534]의 충절이 거의 한가지인데, 불행히도 계책과 시기가 어긋나 답답해하다가 말라 돌아가셨으니, 선생의 운명 또한 재앙이라 이르겠도다.

살아계실 때는 그 정성스러운 효도를 극진히 하여 섬겼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고 시묘살이를 하였다. 특히 그 나머지 일을 처리함에 형제, 자매들 간에 화락(和樂)을 극진히 하여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 책상에서 공부했으니 연로함에 이르러서도 시들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마음을 올올(兀兀)하게 하여 경전(經典)을 연구했고, 조정에 있을 때는 임금에게 충성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으니, 정신과 풍채는 맑고 준수했으며, 주장(主張)을 할 때는 격앙(激昂)하셨다. 일찍이 노비처럼 비굴한 안색을 하거나 굽신거리지 않으셨으니, 그런 모습으로 진취(進取)를 구하셨기에 명예와 지위가 위태로웠고, 학업에 뜻을 두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한 풍류와 담소는 집안에 보관된 글에 담겨 있지만, 그 나머지 독실한 행동과 아름다운 법도는 문헌이 없어 ~할 수 없으니[535], 아 애석하도다.

---

533) 백선생(白先生): 백인걸(白仁傑, 1497~1579)로 휴암은 호이다.본관은 수원, 자는 사위(士偉)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다. 기묘사화 후 사림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며, 을사사화 때 일신을 돌보지 않고 윤원형의 음모에 대항하였다. 인조 때 충숙(忠肅)의 시호를 받았으나 뒤에 문경(文敬)으로 고쳐졌다.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院)과 남평(南平)의 봉산서원(蓬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에 『휴암집』이 있다.

534) 남제운(南霽雲): 안록산의 난에 허원(許遠)·장순(張巡)과 수양성(睢陽城)을 지키다가 장렬히 죽었다. 남팔(南八)은 남제운이 남씨 가문의 형제 중 여덟째에 해당하므로 그를 이렇게 부른 것이다.

535) 원문에서 '可□'라고 되어 있음. 수정 전 번역본에는 '상고해 볼 만하다.'라고 되어 있다.

아내는 완산 이씨(完山 李氏)로 첨지(僉知) 사종(嗣宗)의 따님이시다. 정절과 공경으로 남편의 가르침을 잘 지켰다. 아들 순악(舜岳)은 통덕랑인데 글재주가 있어 여러 번 과거를 치렀으나 □하지 못했다.[536] 부사과(副司果) 김상철(金尙哲)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맏딸은 사인(士人) 봉정(奉侹)에게 시집갔고, 작은딸은 사인(士人) 홍두기(洪斗基)에게 시집갔다. 손자나 증손 아래로는 권세가 줄어 보잘것없이 되었기에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있는 사람은 현손(玄孫)인 혁(爀)뿐이었다. 오호라. 작년 가을, 도내의 유생 여러 백 명이 의병을 일으킨 여러 현인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서 선생의 행장을 명기(鳴岐)에게 부탁하니, 명기는 감히 걸맞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사양하지 못할 따름이다.

先生於鳴岐爲五代旁祖。世相後澤已斬家乘墓道。亦且漫漶難徵。末學孱裔惡能撥拾一二貳爲之狀乎。然隋珠崐玉寡。而益珍。靈芝郁蘭久。而愈馥。謹取爛編散紙。略識其世系官銜出處生沒。以萬羹墻也。嗚呼。先生諱身獻。字士泌。嬾齋是自號也。崔氏系出江華。有諱瑾諱宗秀諱蓁三世。爲高麗大提學。逮本朝右尹諱渠。始□南平。古祖諱潤亨。燕山朝爲叅奉。忿宮監擅威福。以靴尖蹴其頂。禍將回測值。中廟改玉特陞長興庫主簿。曾祖諱泓叅奉養德修善。一子兩孫及曾玄孫連世登第。人以爲陰報。祖諱命通主簿。考諱星望監察。妣利川徐氏。知中樞弘弼之女先生生乎。

萬曆庚寅。未二晬遭龍蛇之亂。隨父母竄。于巖籔間凡啼笑咳唾。必如親志。一不與賊相值。十一歲始受學於我先祖掌令公。又受學于思菴朴相公。遍讀聖賢書。粗知爲學大方。以家貧親老。攻擧子業。連捷鄕。解名聲藹蔚。光海戊午赴會圍。見時議大乖[537]。慨然不就試。抱卷而還。逢一丈人與同漢江舟。丈人問。何不觀國。先生以馬箠書。示倫綱盡絕四字。丈人爲之改容。及仁廟甲子。復魁鄕試至京邸。人喜迎曰。延平大爺待公甚渴。先生曰。李台與余無雅。甚麼相待俄。報相公造。門乃前日同舟丈人執手歎曰。早知子決意廢擧。而今榜得見姓名。可謂勇於進退。遂以是歲登第。選授權知副正字。轉著作。未幾値活變。扈駕到公州。規贊方略。頗有可稱。丙寅朝廷以郵政疲弊。輸城察訪。忤宰臣見駁退。而家食。丁卯聞大駕入江都。雪涕。潛邁凡十七晝夜得達。

行在難已陞成均典籍。俄遷司憲監察兼東學敎授。己巳以先生有弓馬技。出監熊川縣。病不赴。自庚午至甲戌。凡五載官誥。見存者戶禮工三曹佐郎。平安江原兩道都事管餉使從事官。累遷臺憲輒見沮。乃怡然退歸嘯傲自得。若無意者餘三年。至丙子金虜猝至玉輅播越。先生與徐參奉荇洪上庠南甲諸人糾合義旅爲勤王計。時則玉果宰李公興浡發檄諭道內擧義。而推先生爲都有司。遂廣募兵馬粮餉會于礪山。監司李公時昉知先生募義上來。甚懽慷慨。相飮曰。時事若是。豈非臣子戮力效之日乎。因特推先生爲副從事。李公酒廷平相公子也。進軍至淸州。聞南漢講和。遂與諸將士痛哭而還。自是不復留意功名。惟以觴咏。自遣酒酣。輒高歌激烈歌竟。讀出師表或夜分不已。至哽

536) 원문에서 '不□'라고 되어 있음. 수정 전 번역본에는 '날리지 않았고'로 되어 있다.

537) 원문 '光海戊午赴會圍見時議大乖' 부분에서 '會' 와 '圍'를 붙임.(光海戊午赴會圍見時議大乖)

咽不成聲。

叔父時望亦以義兵將。扈駕至龍灣。乙巳錄勳從兄希立罵賊不絕。竟殉節於晋州事。載湖南義錄及晋州叙事。先生之奮義赴難。盖得於家庭。世稱崔氏一門有三忠之美云。庚寅先生年六十一歲。以興起斯文振作儒風爲己任。教授生徒專心實學。尤有感於休庵白先生之節義道學。首發建祠之議。成出道內通諭文一章。抱諸袖中。勸起同志。廣求財力。至於立廟。享之儀皆先生之力也。朝家以春曹正郎司導寺正再徵不起末。乃貶秩爲羅州提督官。以顯廟乙巳終于家。葬于德谷乾芝峰庚坐原從先兆。嗚呼。先生廢擧昏朝。氣節凜然。再扈聖躬[538]。功烈炳如。及夫白頭。倡義凡忠貫日。郭相之勳南八之節庶乎一蹴。而不幸計與時違。悒悒枯死。先生之命。亦云厄矣。

事所生極其誠孝。斷指廬墓。特其餘事處。同氣盡其和樂。聯衾共案。迄老不衰。在家則兀兀窮經。立朝則蹇蹇匪躬。神采清秀。言議激昂未嘗爲奴顔婢膝以沽進取故名位虧膇。志業坎壈。此其故。老流談家藏遺牒。自餘篤行懿軌。更無文獻可□。嗚呼惜哉。內子完山李氏僉知嗣宗之女。貞恪敬愼。克守君子訓。男舜岳通德郎。有文藝累擧不□。娶副司果金尙哲女。女長適士人奉侹。次適士人洪斗基。孫曾已下零替不振。今在者玄孫嫩而已。嗚呼。去年秋道內章甫累百人。爲倡義諸賢圖不朽。而屬先生狀于鳴岐。鳴岐不敢以非人辭云爾。

출전 : 강화 최씨 문중 제공

(2)『강화 최씨 충효열록』附『창의록(倡義錄)』

좌랑 최신헌(佐郎 崔身獻)은 자가 사필(士泌)이요, 호는 나재(懶齋)이시고 고려 때에 평장사(平章事)인 근(瑾)의 후예이며, 감찰(監察)이신 성망(星望)의 아들이다. 광해조 때에 회시(會試)가 열리는 시험장으로 달려갔으나 정인홍(鄭仁弘), 이이첨(李爾瞻)이 나랏일을 담당하는 것이 시론(時論)과는 크게 어그러져 있음을 봤다. 이에 책을 품고 곧바로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 한 분을 만나 함께 한강을 배로 건너는데 장인께서 묻기를, “어찌하여 과거를 보지 않았는가.” 라고 하시자 공께서는 겸손한 뜻으로 대답하니, 장인께서 얼굴 모양을 고치시고 이내 성명을 물으시고 떠나셨다. 인조 갑자년(1624)에 공께서 다시 고을에서 보는 향시에서 합격하여 서울에 이르렀다. 연평 이상공(延平 李相公, 이귀(李貴))께서 공을 만나러 사저로 찾아왔는데, 바로 전일 같은 배를 탄 어르신이셨다. 손을 잡고 감탄하며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어두워지면 물러나고, 세상이 맑아지면 나오니 참으로 열렬한 사내로다.”라고 하셨다. 마침내 그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성품이 고지식하여 어울리기 힘들었으니, 벼슬이 낭서(郎署)에서 그쳤다. 임진왜란 때에는 당숙이신 시망(時望)께서 근왕(勤王)하여 녹훈되셨고, 종형이신 희립께서 적을

538) 원문의 ‘氣節凜然再扈聖躬’에서 ‘氣節凜然再扈聖躬’으로 수정함.

꾸짖다가 순절하셨다. 병자호란에 이르러서는, 공께서는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있었으나 남한산성이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의에 떨쳐 일어나 의병을 모집하여 청주(淸州)에 당도했다. 그러나 화친이 이미 이루어지자 마침내 통곡하며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으니, 대개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몸도 잊어버리고 순국함은 집안의 가르침에서 얻은 것이라 이르겠다.

년 월 일 안방준 지음

佐郎崔身獻。字士泌。號懶齋。高麗平章事瑾後。監察星望子。光海朝赴會圍見弘瞻當國。時論大乖。抱卷徑歸路。逢一丈人與同漢江舟。丈人問。何不觀國。公答以微意。丈人爲之改容。仍問姓名而去。及仁廟甲子。公復捷鄕解至京。廷平李相公。訪見公於邸舍。乃前日同舟丈人。執手歎曰。世昏則退。時淸則進。眞烈丈夫也。遂以是年登第。性戇寡合官止郎署。壬辰亂叔時望勤王錄勳。從兄希立罵賊殉節。及丙子公解官在鄕。聞南漢被圍。奮義募旅行到淸州。媾事已成。遂通哭班師易迴。盖其殉國忘身。得於家庭云爾。

年 月 日 安邦俊 撰

출전 : 강화 최씨 문중 제공

(3) 호남유림, 『호남병자창의록(湖南丙子倡義錄)』 권4, 「열읍제현사실(列邑諸賢事實)」

자는 사필(士必), 호는 나재(懶齋), 본관은 강화(江華)이다. 평장(平章) 최근(崔瑾)의 후손이고 감찰(監察) 최성망(崔星望)의 아들이다.

광해군 때 회시(會試)를 보러 갔다가, 세상일이 크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는 책을 싸서 곧바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한 포의(布衣)를 만나서 대략 자기의 뜻을 말하였다. 인조 때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가 공의 집을 찾아왔는데 곧 지난날 만났던 포의(布衣)였으니 서로 손을 잡고 탄식하기를 "세상이 혼탁하면 물러나고 시대가 맑으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열사(烈士)이다."라고 하였다. 그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은 좌랑(佐郎)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숙부 최시망(崔時望)은 근왕(勤王)으로 녹훈되었고, 사촌 형 최희립(崔希立)도 왜적을 꾸짖다가 순절하였으니, 공이 국난에 달려간 것은 가정에서 배운 것이었다.

출전 : 신해진 역, 『호남병자창의록』, 태학사, 2013

字士必號懶齋江華人。平章瑾後。監察星望子。

光海朝赴會圍。見時事大非。抱卷徑歸。逢一布衣。略述己意。仁廟朝。延平李貴。訪公邸舍。乃前日布衣。執手歎曰世昏則退。時淸則進。眞烈士。其年登第。官至佐郎。

壬辰亂。叔父時望。勤王錄勳。從兄希立。罵賊殉節。公之赴難。盖得於家庭。

출전 : 최형구 등 편, 『호남병자창의록』, 明誠齋, 1933

37) 최완(崔綩, 1559~1613)

• 본관 수성(隋城), 자 중길(仲吉), 호 미상

(1)『선조실록(宣祖實錄)』 권144, 34년 12월 29일

이제민(李齊閔)[539]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기자헌(奇自獻)을 대사헌으로, 이상의(李尙毅)[540]를 부제학으로, 이정형(李廷馨)을 대사성으로, 박이장(朴而章)을 상의원 정(尙衣院正)으로, 송기(宋圻)[541]를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이진빈(李軫賓)[542]을 선공감 정(繕工監正)으로, 홍준(洪遵)[543]을 사간으로, 조희보(趙希輔)[544]를 사예로, 이수준(李壽俊)을 봉상시 첨정으로, 김광엽(金光燁)[545]을 헌납으로, 김지남(金止男)[546]을 예조 정랑으로 황낙(黃洛)[547]을 직강(直講)으로, 노경복(盧景福)[548]을 형조 정랑으로, 이여기(李汝機)를 형조 정랑으로, 김제남(金悌男)을 이조 좌랑으로, 윤경(尹絅)[549]을 예조 좌랑으로, 최여한(崔汝瀚)을 형조 좌랑으

---

539) 이제민(李齊閔): 1528~160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은(景閒), 호는 서간(西澗)이다. 경주 부윤, 경기 감사 등을 지냈다.

540) 이상의(李尙毅): 1560~1624. 자는 이원(而遠), 호는 소릉(少陵)이다. 임진왜란 때 광해군(光海君)을 호종한 공으로 위성 공신(衛聖功臣)에 책록되어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에 봉해졌으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위성 공신이 혁파되어 훈봉이 삭탈되었다. 이조 판서, 좌찬성 등의 관직을 지냈다. 시호는 익헌(翼獻)이다.

541) 송기(宋圻): 1553~?.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민지(民止)이다. 1576년 진사에 급제하였다.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의 손자이며, 송유의(宋惟毅)의 아들이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수월정(水月亭)을 중수하였다.

542) 이진빈(李軫賓): 155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응림(應霖).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589년 증광문과에서 을과로 급제하여 선공감정(繕工監正), 성균관직강 등을 역임하였다.

543) 홍준(洪遵): 1557~1616.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사고(師古), 호는 괴음(槐陰)이다. 공조 참의와 신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544) 조희보(趙希輔): 1553~1622.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백익(伯益)이다. 1582년 진사가 되고, 158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545) 김광엽(金光燁): 1561~1610년.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이회(而晦), 호는 죽일(竹日)이다. 경상북도 상주 출신이다. 1590년 생원시에 장원으로,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한 뒤 그해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조정랑과 홍해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죽일문집(竹日文集)』이 있다.

546) 김지남(金止男): 1559~1631.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자정(子定), 호는 용계(龍溪)이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등을 지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왕후(仁穆王后)를 폐하려는 이이첨(李爾瞻) 일당의 죄상을 폭로하였다. 저서에『용계유고(龍溪遺稿)』가 있다.

547) 황낙(黃洛): 1553~1620.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성원(聖源)이다. 1585년 문과에 합격하여 철원 부사(鐵原府使)와 승정원 분승지(分承旨) 등을 지냈다.

548) 노경복(盧景福):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수중(綏仲). 부친은 노팽수(盧彭壽)이다. 1579년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9위로 문과에 급제하고 형조정랑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의흥현감으로 있었다.

549) 윤경(尹絅): 1567~1664.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미중(美仲), 호는 기천(岐川)이다. 1645년에 공조참판에 오르고 이듬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1656년 90세가 되어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라 공조 판서가 되었다. 시호는 정희(靖僖)이다.

로, 정인함(鄭仁涵)[550]을 형조 좌랑으로, 이지완(李志完)을 정언으로, 박엽(朴燁)[551]을 정언으로, 조존세(趙存世)[552]를 전적으로, 김질간(金質幹)[553]을 전적으로, 이형원(李馨遠)[554]을 감찰로, 이덕연(李德演)[555]을 감찰로, 권태일(權泰一)[556]을 설서(說書)로, 박여량(朴汝樑)[557]을 봉교로, 김유(金瑬)를 대교(待敎)로, 한술(韓述)[558]을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권순(權恂)[559]을 파주 목사(坡州牧使)로, 손기양(孫起揚)[560]을 울산 판관(蔚山判官)으로, 원열(元悅)을 강계 판관(江界判官)으로, 이담(李淡)을 함흥 판관(咸興判官)으로, 이장(李嶂)을 회령 판관(會寧判官)으로, 최완(崔綩)을 함평 현감(咸平縣監)으로, 김성업(金成業)을 장련 현감(長連縣監)으로, 안몽윤(安夢尹)[561]을 남포 현감(藍浦縣監)으로, 소광진(蘇光震)[562]을 봉교(奉敎)로, 정호선(丁好

---

550) 정인함(鄭仁涵): 1546~1613.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덕혼(德渾), 호는 금월헌(琴月軒)이다. 대북의 영수 정인홍(鄭仁弘)의 동생이다. 1588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601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병조정랑과 영덕현령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의 어가를 호종하여 호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551) 박엽(朴燁): 1570~1623. 자는 숙야(叔夜), 호는 약창(葯窓),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1597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출사하고 평안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623년 인조반정 뒤에 부인이 세자빈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두려워하는 훈신(勳臣)들에 의하여 정사를 포악하게 하였다는 죄로 평양 임지에서 처형되었다.

552) 조존세(趙存世): 1562~?.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선계(善繼), 호는 청호(聽湖)이다. 1590년 증광별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553) 김질간(金質幹): 1564~1621.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문오(文吾), 호는 쌍매(雙梅)이다. 160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대사간·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554) 이형원(李馨遠): 1576~1632. 본관은 성주(城州), 자는 욱재(郁哉)이다. 1599년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병조정랑 겸 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555) 이덕연(李德演): 1555~1636.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윤백(潤伯), 호는 이수옹(二水翁)이다. 이색(李穡)의 9대손이다. 문화 부사(文化府使)가 되었으나 대북파의 문란한 정치를 보고 사직, 철원(鐵原)에 은거하였다. 인조반정 후에 동지중추부사가 되고 한산군(韓山君)에 습봉되었다.

556) 권태일(權泰一): 1569~1631. 본관은 안동, 자는 수지(守之), 호는 장곡(藏谷)·노천(蘆川)이다. 1599년 문과에 합격해 영덕 현령(盈德縣令), 전라 감사(全羅監司) 등을 역임하였다. 김성일(金誠一)의 사위이다. 저서로는『장곡집』이 전한다.

557) 박여량(朴汝樑): 1554~1611. 본관은 삼척(三陟), 자는 공간(公幹), 호는 감수재(感樹齋)이다. 함양 출신으로, 노상(盧祥)의 문인이다. 160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감수재문집』이 있다.

558) 한술(韓述): 1541~1616.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선(子善), 호는 도곡(陶谷)이다. 1570년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영흥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559) 권순(權恂): 1536~1606.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언침(彦忱), 호는 쌍천당(雙泉堂)이다.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7세손이다. 1577년 의금부도사를 거쳐 파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560) 손기양(孫起揚): 1559~1617. 자는 경징(景徵), 호는 오한(聱漢), 초호는 송간(松磵),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1588년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울주 판관(蔚州判官)과 영천 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561) 안몽윤(安夢尹): 1571~1650.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상경(商卿)이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도원수 장만(張晩)의 전부우협장(前部右協將)으로 군량 보급에 힘썼고, 서울 안현(鞍峴) 싸움에서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진무 공신(振武功臣)에 책훈(策勳)되고 순양군(順陽君)에 봉해졌다.

562) 소광진(蘇光震): 1566~1611.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자실(子實), 호는 후천(后泉) 또는 후계(后溪)이

善)[563]을 대교로 삼았다.

以李齊閔爲同知敦寧府事,奇自獻爲大司憲,李尙毅爲副提學,李廷馨爲大司成,朴而章爲尙衣院正,宋圻爲掌樂院正,李軫賓爲繕工監正,洪遵爲司諫,趙希輔爲司藝,李壽俊爲奉常寺僉正,金光燁爲獻納,金止男爲禮曹正郎,黃洛爲直講,盧景福爲刑曹正郎,李汝機爲刑曹正郎,金悌男爲吏曹佐郎,尹絅爲禮曹佐郎,崔汝瀚爲刑曹佐郎,鄭仁涵爲刑曹佐郎,李志完爲正言,朴燁爲正言,趙存世爲典籍,金質幹爲典籍,李馨遠爲監察,李德演爲監察,權泰一爲說書,朴汝樑爲奉敎,金瑬爲待敎,韓述爲永興府使,權恂爲坡州牧使,孫起揚爲蔚山判官,元悅爲江界判官,李淡爲咸興判官,李嶂爲會寧判官,崔綩爲咸平縣監,金成業爲長連縣監,安夢尹爲藍浦縣監,蘇光震爲奉敎,丁好善爲待敎。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수성최씨세보 지장록(隋城崔氏世譜 誌狀錄)』

공의 이름은 완(綩)이요, 자는 중길(仲吉)이니 경재공(敬齋公)이신 희윤(希尹)의 아들이다.

가정 기미 1559년에 태어나 재주가 보통사람보다 뛰어났으며 육체적인 힘도 아주 뛰어났다. 이미 성장하여서는 글솜씨가 능란하였고 활을 쏘고 말을 달리는 재주가 뛰어났는가 하면 또 병서에 있는 진을 치고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았으며, 강개(慷慨)한 큰 절의를 가지고 있었다.

만력(萬曆) 계미년(癸未年) 1583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으로 장성현감(長城縣監)에 제수되었다. 청백리(淸白吏)로서 으뜸이라 알려지니, 고을 사람들은 돌에 새겨 그 치적을 칭송하였다. 임진년(壬辰年, 1592)에는 또 함평현감(咸平縣監)에 제수되었고 또한 영광 군수(靈光郡守)도 겸하였다. 이때 섬나라 오랑캐가 난리를 일으키자, 공께서 병사 가운데서 정예병을 선발하여 수적(水賊)들과 함께 해상에서 싸워 승전을 거두었다. 또 울도(鬱島)에서도 싸워 매우 많은 수의 적들을 참획(斬獲)하여 마침내 나라를 되찾게 되었으니, 그 공(功)으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기록되었다. 갑진년(甲辰年, 1604)에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고을 유진장(留鎭將)들이 용렬한 사람을 차출하면 그 사졸(士卒)들 간에는 멸시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군령도 그에 따라서 해이해질 것입니다. 조정 관원 가운데 전공이 있는 분을 앞세워 차출하여 결정할 것을 장계(狀啓)로 올리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공께서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차출되었으나, 이때 병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누차 사

다. 소세양(蘇世讓)의 손자이다. 광해군 때 홍문관 교리와 헌납을 역임하였다.

563) 정호선(丁好善): 1571~1633. 자는 사우(士優), 호는 동원(東園),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정윤복(丁胤福)의 아들이다. 상주 목사(尙州牧使)와 안변 부사(安邊府使) 등을 역임했다. 1612년에 김직재(金直哉)의 옥사(獄事)가 일어났을 적에는 정경세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양을 했다. 하지만 하는 수 없이 그 큰아들 인헌(仁巘)과 더불어 통제사의 병영으로 찾아갔다가 병든 몸이라 하여 사직서를 내고 되돌아왔다.

무신년(戊申年)에 선조 임금이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그 진취(進取)가 불가함을 알고는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집안에서 있다가 계축년(癸丑年, 1613)에 삶을 마치니 나이 55세였다.

公諱綩。字仲吉。敬齋公諱希尹子。生於嘉靖己未。才器過人膂力超凡。既長賢於翰墨。射御絕倫。又善於兵書戰陣之術。慷慨有大節。萬曆癸未登武科。宣傳官 除長城縣監清白最著。邑人刻石頌其德。壬辰。又除咸平縣監。且兼靈光郡。島夷借亂。公抄擇軍兵之精銳者。與水賊戰於海上得捷。又戰于鬱島斬獲甚多。遂為克復。以其功錄宣武原從功臣。甲辰統制使李某曰。列邑留鎮將。以庸劣之人差出。則其間士卒多有凌蔑之事。軍令隨以解弛。前朝官中有軍功之人。狀啟差定。而公特差其中。時病臥床上累辭。不獲乃與長子仁巘往于統營。以病辭歸。戊申。宣祖昇遐。光海主即位。知其不可進取。遂棄官家食卒於癸丑壽五十五。 출전 : 수성 최씨 문중 제공

38) 최욱(崔澳, 1554~1597)

• 본관 경주(慶州), 자 사심(士深), 호 미상

(1) 송치규(宋穉圭), 『강재집(剛齋集)』 권8, 「최열사 묘갈명(崔烈士墓碣銘)」

선조 정유년(1597, 선조 30)에 섬 오랑캐가 다시 미친개처럼 쳐들어와 호남지역이 혹독하게 도륙(屠戮)당했다. 고을 주민 모두가 달아나거나 숨어서, 감히 흉악한 칼날을 무릅쓰고 멋대로 날뛰는 자를 제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의리상 앞장서서 떨쳐 일어난 열사 최공과 영암(靈巖) 의사(義士) 김덕흡(金德洽)[564]이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려 장사(壯士)를 모집하였다. 당시 공의 부인인 오씨(吳氏)는 딸 한 명만을 두었고, 임신 8개월이었다. 친족들에게 배를 마련해서 오씨(吳氏)를 싣고 바다 가운데 섬으로 피난 가라고 하자, 오씨가 바닷가에서 자살하려고 하였다. 공은 정신과 기운을 차분히 하면서 말하기를, “하늘이 만약 지각이 있다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 나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모름지기 뱃속의 아이를 잘 보호하여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가동(家僮) 백여 명을 통솔하고 또 따라가기를 원하는 수백 명을 모집하였다. 활과 화살을 차고 칼과 돌 쇠뇌를 준비해서 백년산(百年山)[565]

564) 김덕흡(金德洽): ?~1597.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자협(子浹)이다.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전몽성(全夢星)·전몽진(全夢辰) 형제와 함께 의병을 규합하여 왜군을 여러 번 격파했다. 영암의 해암포(海岩浦) 싸움에서 왜군과 전투를 벌이던 중에 전씨 형제와 함께 전사했다.

565) 백년산(百年山): 백련산(百蓮山)으로, 전라남도 나주시의 동강면 대지리(大池里)에 위치한 산이다.

험지에 거점을 두었다. 왜적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 견고한 구축물을 설치하는 계책을 세우고 산 정상에 깃발을 꽂았다. 또 돌을 쌓아 보루를 만들어 적과 맞부딪치면 즉시 화살과 돌을 한꺼번에 쏘았는데 왜적이 두려워하여 감히 다가서지 못하였다. 동남 지역의 백성 가운데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왜적이 갑자기 병사를 모두 이끌고 와서 포위하자 공은 소수 병력으로 많은 왜적을 상대하였다. 돌 쇠뇌와 화살이 모두 소진되고 마침내 힘이 고갈되어 사망하였으니 바로 9월 27일이다. 행운으로 목숨을 부지한 공의 하인이 은밀히 공의 시체를 보관하였다가 왜구가 물러난 후 주(州)의 남쪽 오산면(鰲山面) 사동(絲洞) 경좌(庚坐) 언덕에 장사지냈다. 이해 10월 모일에 오씨가 과연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이 지나 오씨가 사망하자 같은 묘에 합장하였다. 숙종 갑신년(1704, 숙종 30)에 공의 증손 운익(雲翼)이 정릉 참봉(靖陵參奉)으로 있을 때 어가(御駕) 앞에서 하소연하여 마침내 포상을 받아 충신(忠臣)으로 정문(旌門)이 내려졌다. 마을 사람이 지금도 칭찬하며 '최열사'라고 한다.

공은 휘(諱)가 욱(澳)[566], 자는 사심(士深)이다. 그 선대는 경주인(慶州人)이며, 중간에 광산(光山)으로 이사 왔다. 증조부 휘 형한(亨漢)은 장령(掌令)을 지냈으며, 조부 휘 언홍(彦泓)은 진사(進士)이며 또 나주로 이사 왔다. 부친 휘 춘년(春年)은 참봉(參奉)을 지냈다. 공의 외아들 치(峙)는 해도(海島)에서 태어났으니 『금성효행록(錦城孝行錄)』에 보인다. 딸은 임정심(林廷簪)에게 시집갔다.[567] 손자는 백기(伯起)고, 증손은 운핵(雲翮)과 운익(雲翼)인데, 운익은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로서 공이 정려를 받도록 하소연한 자이다. 운숙(雲翻)이 있고, 측실 소생은 운상(雲翔)이다.

아, 옛적에 한문공(韓文公, 한유(韓愈))이 장중승(張中丞)에 대해 기술할 때 우숭(于嵩)에게 증거를 찾았다.[568] 공이 돌아가신 지 지금 2백여 년이 되었다. 공을 증명할 수 없지만, 다행히도 공과 같은 시대 같은 마을에 살았던 참봉 진경문(陳景文)이 공의 유복자(遺腹子)를 위해 당일 있었던 공의 일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으니, 우숭이 구전한 것보다 낫다. 그가 말하기를 "공은 양친이 돌아가시자 과거에는 뜻이 없어 학문에 전념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또 "공은 일찍이 '선비가 천지간에 태어나서는 당연히 충효를 입신(立身)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공의 본령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끝내는 수립(樹立)하여 마땅히 뛰어나게 된 것이다. 또 공은 '하늘이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스스로 맹세하였는데, 응답을 받은 것이 과연 틀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소장공(蘇長公, 소식(蘇軾))이 말한 "하늘의 뜻

---

566) 번역문은 '오'라고 하였으나 문중에서 '욱'으로 불리므로 고쳐 적는다.

567) '딸은 임정(林廷)에게 시집갔다.'라고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女適林廷簪'이라고 되어 있기에 임정심(林廷簪)에게 시집갔다.'라고 수정하였다.

568) 한문공(韓文公)이 …… 찾았다: 한유가 당의 명장인 장순(張巡, 709~757)을 위해 지은 「장중승전후서(張中丞傳後序)」는 장순의 부하로 있던 우숭(于嵩)의 진술을 근거로 많은 참고를 하였다는 뜻이다.

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진공이 행적을 기록한 것도 충의에 감격하여 나온 것이며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되니 또 가상하게 여길 만하다. 이에 명을 지으니 명은 다음과 같다.

이 사동	維此絲洞
경좌 언덕의 자리	枕庚之岡
높이 4자이며	高四尺者
열사가 안장된 곳이라네	烈士之藏
나는 형편없는 글솜씨를 잊고	我忘蕪拙
이 비명을 쓰니	揭此銘章
천 년 백 년 후에	後千百歲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가슴이 벅차리라	過者激昂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강재집(https://db.itkc.or.kr/)

宣廟丁酉。島夷再猘。湖南酷被屠戮。州里士女。皆奔屛竄伏。無一人敢嬰凶鋒制其肆突者。有烈士崔公挺身奮義。與靈巖義士金德洽。移檄列邑。召募壯士。時公之妻吳氏。只有一女。而有身纔八月矣。使族人裝船。載吳氏逃難于海島。吳氏臨水。欲自裁。公神氣自若曰。天若有知。必生男子。不絕吾祀。須善護腹中兒。勿致傷損也。遂率家僮百餘名。又募得願從者數百人。帶弓矢。備刀砲。據險于百年山。遮絕賊路。爲保障計略。設旗幟于山上。又聚石成壘。遇賊至。矢石輒俱下。賊疑懼不敢逼。東南士民。賴以全活者甚夥。賊忽悉衆來圍。公以少敵衆。砲矢俱盡。遂力竭以死。卽九月二十七日也。公之奴幸而有獲生者。潛藏公屍。寇退後葬于州南鰲山面絲洞坐庚之原。是年十月日。吳氏果生男。後幾年吳氏歿。祔葬于同岡。肅廟甲申。公之曾孫雲翼。以靖陵寢郎。籲于駕前。遂蒙褒賞。以忠臣旌其門。鄕人至今稱之曰。崔烈士云。公諱澳。字士深。其先慶州人。中移于光山。曾祖諱亨漢。掌令。祖諱彦泓。進士。又移于羅州。考諱春年。參奉。一男岾。卽生於海島者。見錦城孝行錄。女適林廷簉,孫伯起。曾孫雲翮,雲翼義禁府都事。卽訟公蒙旌者。雲翮。側出雲翔。嗚呼。昔韓文公敍張中丞徵于嵩。公之沒今二百有餘年矣。無以徵公。幸而公之同時同閈人陳參奉景文。爲公遺腹孤。記公當日事甚詳。不啻于嵩之口傳矣。其言曰。公兩親旣沒。無意科場。專工學問。又曰。公嘗言士生天地間。當以忠孝爲立身之本。公之本領旣如是。則畢竟樹立。宜乎其卓卓矣。且公自矢以天不絕祀。而報應果不爽。則此非蘇長公所謂天固可必者耶。陳公之所以記蹟。出於感激忠義有補世敎。又可尙也。是爲銘。銘曰。

維此絲洞。枕庚之岡。高四尺者。烈士之藏。我忘蕪拙。揭此銘章。後千百歲。過者激昂。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강재집(https://db.itkc.or.kr/)

(2)「최열사 가장(崔烈士家狀)」

통덕랑(通德郎) 최공(崔公)의 이름은 욱(澳)이요, 그 아버지는 창릉참봉(昌陵參奉) 휘 춘년(春年)이며, 조부는 성균관 진사(成均館 進士)인 휘 언홍(彦泓)이며, 증조는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휘 형한(亨漢)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나주 오산(吾山) 땅에 별장이 있는데, 공의 할아버지 진사공(進士公)이 처음으로 여기서 살기 시작했고 다시 곡강(曲江)으로 이사하였다.

공은 고관집 자제로써 일찍이 문명이 있어 연이어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신 뒤로는 관직에 나갈 뜻이 없어 학문에만 전념했는데, 항상 말하기를, "선비가 세상에 나오면 반드시 충효(忠孝)로써 입신(立身)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다.

정유년(丁酉年) 8월에 왜적이 크게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개(憤慨)하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임금의 수레는 이미 서울에 돌아왔는데 호남의 사녀(士女)는 모두 도피하여 적으로 하여금 더욱 내달리게 하고, 무인지경(無人之境)에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국가를 부려서 호남(湖南)을 없애려는 것이다. 이 어찌 신민(臣民)으로서 내 몸을 온전히 하고 처자를 보호할 날이겠는가. 나는 가동(家僮)을 이끌고 요해지(要害地)에 복병을 두고 힘껏 싸워 이 한 몸 바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배를 마련하여 족친(族親)으로 하여금 처(妻) 오씨(吳氏)를 데리고 본주의 흑산도로 피난하게 하니, 이때 오씨에게는 사내아이는 없고 오직 아홉 살 난 여아가 있을 뿐이며 임신한 지 8개월이 되는 몸이었다. 오씨는 배에 올라 대성통곡하며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려고 하자 공은 정신과 기운을 태연하게 하고 말하기를, "하늘이 지각이 있으면 마땅히 사내아이를 얻게 하여 우리 집 제사를 끊기지 않게 할 것이니 부디 스스로 몸을 조심하여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고는 이로부터 나뉘어 강가에서 이별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공의 집안은 매우 부유하여 활과 화살을 지닌 동복(僮僕)이 백여 명이었고, 또한 따르기를 원하는 자 수백 명을 모집했다. 그들과 몽탄강(夢灘江)의 험한 곳을 거점으로 삼아 적선 선발대를 대파하고 적 수십 명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나아가 백련산(白蓮山) 서금봉(鋤金峰)에 진을 치고 산 위에 기치(旗幟)를 내걸어 적들의 형세를 염탐했다. 적들은 본주에 숨겨진 복병이 있을까 의심하여 감히 경솔히 나와 함부로 날뛰지 못하므로 동남 지방의 사녀들이 이에 힘입어 피난 가서 목숨을 보전한 자가 여간 많았었다. 공이 산 위에는 큰 돌을 많이 모아두었다가 적과 만날 때마다 번번이 화살과 더불어 돌을 던지니, 화살과 돌을 맞은 자들은 번번이 죽어나갔다. 적들은 이게 물러나 도망가서는 감히 전진하지도 못했다.

9월 27에는 산을 에워싸고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대자, 공의 세력은 궁하고 힘이 다하여 죽고 말았다. 그의 종 환수(還守)란 자가 야심한 밤을 틈타 시체가 많이 쌓인 가운데서 공의 시신을 찾아 감춰두고, 겨우 살아 돌아와 그 주인의 시종(始終)을 갖춰 전해주었기에 세상에 그 사

실이 전해져 지금까지 '최열사(崔烈士)'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의 처(妻) 오씨(吳氏)는 10월 22일에 과연 섬에서 사내아이를 얻었으니 이 섬의 이름을 따 아명(兒名)으로 삼았다. 왜구가 퇴각한 후에 오씨는 섬에서 집에 돌아와서 환수가 시체가 많이 쌓인 가운데서 수습한 남편의 시신을 볼 수 있었는데, 평소에 쓰던 자지건(紫芝巾)이 완연하였다.

아! 슬프다. 당시에 이러한 의사(義士)가 얼마나 많았는가. 듣건대 공이 영암 선비 김덕흡(金德洽)과 함께 격문을 돌려 의를 맺고 함께 죽기를 기약하니 덕흡 또한 장사를 모집하여 은적산(銀積山)에서 적을 맞아 싸우고 공은 백련산 험지를 막아 지켰으나 안에는 비치해둔 탄환이 없고 밖으로부터는 개미 한 마리의 원조도 없었으니, 정신력으로 힘껏 싸우다 죽고서야 멈췄다.

만약 제공(諸公)으로 하여금 한 고을을 맡기거나 한 성을 지키게 하였다면, 수양(睢陽)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 어찌 홀로 백대(百代)가 넘는 기간 동안 온전히 의로울 수 있었겠는가. 제공(諸公)의 순절도 함께 그 시대에 있었고, 비록 병화로 불탄 뒤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격문을 보내던 것이 많이 전하고 있으니 장하도다. 불초(不肖)한 나는 공과 나란히 동시대에 살았고 또한 같은 마을에 살아서 그 정충(貞忠)과 대절(大節)을 장히 여기고 흠탄(欽歎)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들어 대강을 적고 그 유복고아(遺腹孤兒)로 하여금 가장(家藏)으로 삼아 후대에 전하게 하고자 하노라.

만력(萬曆) 35년(1607, 선조 40) 정미년(丁未年) 가을,

참봉 진경문(參奉 陳景文)은 최 동자를 위해 쓰노라.

通德郎崔公諱澳。考昌陵參奉諱春年。祖成均進士諱彦泓。曾祖司憲府掌令諱亨漢。慶州人也。家有別業于羅州吾山地。公祖進士公。始居于此。而移寓於曲江。公以簪纓家子弟。早有文名。連參發解之選。而及親旣歿之後。無意科場。專工於學。恒常曰。士生天地。必以忠孝爲立身之本。當丁酉八月。聞倭虜大至。慷慨痛哭曰。東駕已返京都。而湖中士女。又皆逃竄。使彼虜益騎。如入無人之境。是使國家無湖南也。此豈臣民全軀保妻子之日乎。我率家僮。設伏[569]于要害之地。力戰決一死耳。裝船使族親載其妻吳氏。逃難于本州黑山島。是時吳氏無男。只有一女九歲。而身懷妊八閱月矣。登船大哭。欲爲投水自決。公神氣自若曰。天若有知。當得男子。不絕吾祀。善自將攝。更勿過傷也。從此訣矣。臨岸成別。遂歸于家。公家甚殷富。僮僕之帶弓矢。百餘人。且募得願從者數百。據險于夢灘江。大破賊船先陣。斬首數十級。因進據白蓮山鋤金峰。略張旗幟于山上。以覘賊勢。虜疑本州設伏。不敢輕下肆猘。東南士女。賴此逃遁。全活者甚衆。公多聚巨石于山上。遇賊輒投矢石俱下。中者輒死。虜退走。莫敢進。九月二十七日。虜圍山縱砲。公勢窮力竭而死。其奴還守者乘夜。藏其屍於積尸中。僅以圖生。備傳其主之終始。故世傳其實。而至今稱之曰。崔烈士云。其

569) 원문에는 '說伏'으로 되어 있지만, 문맥상 복병을 두었다는 뜻인 '設伏'이 더 합당할 듯하여 '設伏'으로 수정하였다.

妻吳氏。十月二十二日。果得男子于島中。仍以是島爲小名。冠退之後。吳氏歸其家。得見還守者。收夫屍于積尸中。則平日所着紫芝巾完然云矣。噫噫。當時一何多義士耶。槪聞公與靈巖士人金德恰。移檄結義。期以一死。德恰亦募壯士。邀擊于銀積山。公據險于白蓮山。內無彈丸之堞。外乏蟻子之援。而心力戰死而後已。若使諸公。得一邑守一城。則睢陽之巡遠。豈獨專義於百代上乎。諸公死節。俱在一時。雖兵燹之後。多傳其移檄死之文。壯哉。不佞肖生竝一世。居同里閈。壯其貞忠大節而欽歎之。故揭其實蹟。而畧述梗槪。使其遺腹孤兒。以爲家藏傳後之說云爾。

萬曆三十五年 丁未 秋。

參奉 陳景文 爲 崔童子記。

출전 : 최일출, 『崔烈士傳: 鄕土義兵將 崔澳의 一代記』, 문학과현실사, 2001

39) 최희량(崔希亮, 1560~1651)

• 본관 수성(隋城), 자 경명(景明), 호 일옹(逸翁)

(1) 송치규(宋穉圭), 『강재집(剛齋集)』 권8, 「일옹 최공 신도비명(逸翁崔公神道碑銘)」

우리나라가 겪은 전쟁의 참화는 임진년과 정유년 섬나라 오랑캐의 변란보다 혹심했던 것은 없었다. 당시 충무공 이순신이 삼도(三道) 수군을 통솔하면서 중흥의 위대한 업적을 이뤘고, 그 휘하 병사 중에는 참으로 뛰어나 칭찬할 만한 사람이 많았는데, 적이 물러난 후에 그 공로를 자처하지 않고 사직하고 강호로 돌아와 그 행적을 감춘 사람이 일옹(逸翁) 최공이다. 공은 이름은 희량(希亮), 자는 경명(景明), 스스로 일옹(逸翁)이라 호를 지었으며, 또 와룡(臥龍)이라 칭하였다. 수원 최씨(水原 崔氏)로 수성백(隋城伯) 영규(永奎)가 그 시조이며 대대로 높은 벼슬을 이어왔다. 고조 순(淳)은 경차관(敬差官), 증조 귀당(貴溏)은 첨사(僉使), 조부 영(瀛)은 영릉 참봉(英陵參奉)을 지냈다. 아버지 낙궁(樂窮)은 참된 본성을 잘 보존하여 자신의 분수를 지켰고 후한 덕으로 칭송 받았으며, 제용감 정(濟用監正)을 지냈고 좌승지(左承旨)로 추증되었다. 어머니 광산김씨(光山金氏)는 부장(部將) 반(攀)의 따님으로 가정(嘉靖) 39년 경신년(1560, 명종 15)에 공을 낳았다.

모습이 헌걸차고 기상이 원대하였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여 대의(大義)를 대략 통하였으며 부친의 명으로 무예를 익혔다. 경인년(1590, 선조 23) 5월에 부친 승지공(承旨公)의 상을 당하여 예법대로 장례를 치렀다. 임진년(1592, 선조 25)에 왜란이 일어났으나 상중이라 여막(廬幕)에 있었으며, 갑오년(1594, 선조 27)에 무과에 합격하였다. 이해 겨울에 충청수사(忠淸水使)로 있는 장인 이계정(李繼鄭)의 좌막(佐幕, 비장(裨將))이 되어 장인과 함께 수군을 통솔하여 한산도로 방비하러 갔다가, 도중에 실수로 배에 불이나 배와 함께 모두가 타 죽거나 빠져 죽었는데, 공은 두 개의 혁고(革鼓, 북의 일종)를 옆구리에 끼고 바다에 뛰어들어 여러 날

떠다니다가 운 좋게 다른 배를 만나 살았다. 이듬해에 추천되어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었다. 정유년(1597, 선조 30)에 왜구가 재차 쳐들어오자 선조가 왜적 우두머리 풍신수길(豊臣秀吉)의 초상을 걸어두고 여러 무신에게 활을 쏘라고 명했다. 공이 그 이마를 적중시키니 선조가 크게 기뻐하면서 특별히 흥양 현감(興陽縣監)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연해(沿海) 수령에게 명을 내려 모두 수군에 소속시키자 공은 즉시 이충무공 통제사 휘하로 들어갔다. 충무공은 공의 용기와 지략을 알고서 공을 의지하며 중하게 여겼다. 전투 마다 용맹을 뽐내면서 선봉이 되어, 8척의 수군으로 바다를 뒤덮은 적과 맞닥뜨렸는데 명도(鳴島)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 첨산(尖山)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두고, 예교(曳橋)에서 세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또 기이한 계책을 내어 밤에 적진을 습격하니 적이 놀라 달아나서 그들의 곡식 6백여 섬을 취하여 군량미로 사용하여 먹었다.

당시 충무공이 참소를 당해 직위 해제되었으므로 공은 고을에 있으면서도 상처투성이의 병졸을 앞장서서 이끌고 전함을 만들고 무기를 수선하고 직접 나무도 끌어오면서 동고동락하였다. 이듬해 무술년(1598, 선조 31)에 충무공이 다시 수군을 거느릴 때 특별히 공의 공로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봄에서 가을까지 양강(楊江)과 고도(姑島)와 고을 남문의 남당포(南堂浦)에서 연전연승하여 전후로 적의 수급(首級)을 베어 온 것이 매우 많았으며 또 포로로 잡힌 우리나라 사람 7백여 명을 적을 회유하여 귀환토록 하였으니, 공로를 올린 서첩[570]이 지금도 전해진다.

당시 병사(兵使)는 통제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 공이 오직 충무공의 지휘를 받는 것을 미워하여 거짓을 보고해서 파직을 청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여섯 차례나 보고하자 비로소 교체를 허락하면서 전교하기를 "현재의 정세는 아침저녁으로 위급하여 교체할 때 반드시 큰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임금이 공을 알아주었음을 볼 수 있다. 얼마 후 새로 부임한 수령 고덕장(高德蔣)이 과연 적에게 패하여 사망하였다. 공은 관직을 그만둔 뒤에도 통제사 막하에 머물면서 군사 작전을 도왔다. 11월에 충무공이 수군을 대규모로 모아 노량에서 격전을 벌여 적선 수백 척을 불태우고 남해까지 추격하였다. 적은 크게 기세가 꺾여 달아났으나 충무공은 적의 탄환을 맞고 사망하였다.

공은 이미 무고를 당하여 관직을 그만두었고 또 원수(元帥)를 잃어 더이상 세상에 뜻이 없었다. 마침내 통곡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행적을 숨기면서 노년을 보낼 계획을 하였다. 다음과 같이 지은 시가 있다.

---

570) 공로를 …… 서첩: 최희량이 정유재란 때 흥양 현감(興陽縣監)으로 있으면서 왜적을 격파한 승전보고서목을 모은 서첩(書帖)으로 여겨진다. 현재 보물 660호로 「최희량임란첩보서목(崔希亮壬亂捷報書目)」이 있는데, 이것으로 추정된다.

난리 속에 세상사가 변하여	亂中人事變
고향으로 돌아와 이름을 숨기려 하네	歸臥欲藏名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인데	依然舊時物
바위 위에 백구가 나를 맞이하는구나	磯上白鷗迎

계묘년(1603, 선조 36)에 모부인(母夫人) 상을 당하였는데, 한결같이 부친상처럼 장례를 치렀다. 을사년(1605, 선조 38)에 조정에서 논공행상할 때 공은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녹훈되었다. 공은 평소 겸손함을 지켜서 스스로 자부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얼마 후 혼조(昏朝, 광해군)를 만나서, 벼슬에서 버려지는 것도 스스로 달게 받아들였다. 공론이 더욱 암울해지자 고을의 진사 오정남(吳挺男)[571] 등 2백여 명이 소를 올렸으나 거절되어 답을 받지 못하였다. 공은 금강(錦江)가에 작은 정자를 지어 어부와 벗하고 시와 술을 즐기면서 세상사를 잊은 듯하였다. 그러면서도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빈번하게 시로 표현되었다. 함께 교유하며 시를 주고받은 사람은 모두 당시의 명사였지만, 백호(白湖) 임제(林悌), 한호(閑好) 임련(林堜)[572], 송호(松湖) 백진남(白振南)[573]은 그중에서도 저명한 사람이었다.

인조 병자년(1636, 인조 14)에 청나라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이 포위되었는데, 당시 공의 나이 77세였다. 밖에 나가 서서 북쪽을 향하여 밤낮으로 외치고 통곡하며 여러 아들에게 "남한산성이 무너지면 나 또한 자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셋째 아들 감찰 최결(崔結)을 보내어 임금을 모시도록 하였다.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비탄과 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서 직접 글을 지어, 자신이 늙어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지 못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간절한 마음을 서술하였으며 결말에는 정권을 잡은 자들을 역사의 죄인이라고 책망하였다.

90세에 『중용』을 읽고 글을 지어 자신을 경계하며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매일 열심히 노력하다가 죽으면 그만두겠다."라고 하였다. 대질(大耋, 80세)이라 하여 가선대부에 올랐다. 신묘년(1652, 효종 2) 12월 29일에 생을 마쳤으니 향년 92세이며, 대박산(大朴山) 아래 유좌(酉坐) 언덕에 안장하였다. 전배(前配)는 원주 이씨(原州 李氏)로 수사(水使) 계정(繼鄭)의 따님이며, 계배(繼配)는 제주 양씨(濟州 梁氏)로 주부 달수(達洙)의 따님이다. 전배 사이에 9남 2녀를 두었다. 장남 서(緖)는 군자감(軍資監)과 참봉을 지냈으며, 차

571) 오정남(吳挺男): 1563~?.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영(子英)이다. 저서로 『연강집(蓮江集)』이 있다.

572) 임련(林堜): 1589~1648.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동야(東野), 호는 한호(閑好)이다. 남원 부사를 역임하였으며 저서로 『한호유고(閑好遺稿)』가 있다.

573) 백진남(白振南): 1564~1618. 본관은 해미(海美), 자는 선명(善鳴), 호는 송호(松湖)이다. 옥봉(玉峯) 광훈(光勳)의 아들이며 당대의 명필이다. 저서로 『송호시고(松湖詩稿)』가 있다.

남은 치(緻), 삼남이 바로 감찰 결(結)이고, 사남은 규(糾), 오남은 회(繪), 육남은 급(級), 칠남은 온(蘊), 팔남은 수(綬), 구남은 현(絢)이며, 장녀는 민승윤(閔承胤)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문재상(文載尙)에게 시집갔다. 이씨(李氏) 묘는 시랑면(侍郎面) 목동(木洞) 조상 무덤에 있고, 양씨는 공과 합장하였다. 공이 돌아가신 후 124년이 되는 영조 갑오년(1774, 영조 50)에 대신이 연석에서 주청하여 자헌대부 병조 판서로 추증되었으며, 정조 경신년(1800, 정조 24)에 마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충무공을 제향할 때 공을 배향하였다.

아, 공은 충성스럽고 정의로운 성품을 타고났으며 나라를 지킬 재주를 겸비했는데 어린 나이에 투필(投筆)하였다. 당시 나라는 매우 혼란하였으니 임금도 공의 재주를 남다르게 여겼고, 장군도 그의 용맹에 의지하였다. 노량(露梁)과 한산도 등 가는 곳마다 공을 세웠다. 호남 바닷가의 사악한 기운을 깨끗이 쓸어 중흥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마침내 1등으로 공훈이 기록되었다.

아, 장하다. 원수(元帥, 이순신)가 사망하자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가 허점을 노렸지만, 낌새를 알아채고 초연하게 호남 바닷가에 자취를 숨기고 종신토록 실의에 찬 생활을 하면서도 불만스러운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현명하지 않은가? 병정(丙丁, 1636년, 1637년의 병자호란을 말함)의 해에 공은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아들을 보내어 근왕(勤王)하게 하고 충성을 다 바칠 것을 맹세토록 하였다. 천지가 뒤집힌 후에는『춘추(春秋)』의 대의를 펼칠 수 없음을 개탄하였으며 격앙된 충성심과 울분을 자주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나이 90에도 여전히 책을 읽으며 자신을 경계하였으니 어찌 무관(武官)과 같은 부류로 공을 볼 수 있겠는가? 애석하게도 공로가 있으나 상을 받지 못하였고 충성하였으나 시기를 받아 끝내 불우한 날을 보내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만 하늘의 도가 매우 밝아 장수하고 많은 아들을 두는 복을 누렸다. 여론 또한 1백 년 지난 뒤에 크게 정해져 조정은 정경(正卿)으로 추증하고, 사림은 고을 사당에 배향하였으니 공은 이에 유감이 없을 것이다. 공의 5대손 제동(齊東)이 늙은 나이에 발이 부르트며 찾아와서 묘소에 세워 둘 글을 청하기에, 나는 글을 잘 짓지 못한다고 사양하였으나 하는 수 없이 쓴다. 이에 그의 행장에 근거하여 대략 서술하며 명을 짓는다. 명은 다음과 같다.

충성스럽고 정의로운 성품이요	忠義之性
문무를 겸비한 재주로	文武之才
분개하여 붓을 던지고 군문에 투신하였는데	慨然投筆
시국의 어려움을 만났다	遭時艱虞
활을 쏘아 적의 우두머리 초상을 명중시키어	射中賊像
특별히 임금 은혜 입었다	特荷聖眷
남쪽에서 사악한 기운이 거듭 일어나자	南氛再漲

바닷가 마을 수령으로 임명되었다 分符海縣
당시 충무공이 惟時忠武
수군을 통솔하였는데 統率舟師
공이 충성과 용맹을 떨쳐 公奮忠勇
가장 인정을 받았다 最被其知
활을 들고 앞장서서 蝥弧登先
거북선이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었다 龜艦著前
남해에는 피가 넘쳐흐르자 血漲南海
한산도의 사악한 기운을 깨끗이 쓸어버렸다 氛廓閑山
중흥의 위대한 업적은 中興偉績
공이 실로 남보다 앞서는데 公實先後
비방을 당해 벼슬을 그만두었고 遭間解紱
또 원수이신 충무공이 돌아가셨다 又喪元帥
강해는 쓸쓸하기만 한데 蕭然江海
흔적을 감추고 이름을 숨겼다 斂跡藏名
기린각에서 공로가 으뜸이지만 功最麟閣
갈매기와 약속한 뜻은 견고하였다 志堅鷗盟
사림의 여론은 우울하여 士論有鬱
소를 올려 진탕[574]과 같다고 하소연하였다 疏訟陳湯
저 미워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은 彼哉媢疾
공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於公何傷
나이는 서산에 지는 해와 같은데 桑榆暮景
또 병자호란을 만나 又値丙丁
자식을 대신 보내어 나라 위해 힘쓰라고 하였으니 替子勤王
더욱 충성과 진실을 볼 수 있다 愈見忠貞
『춘추』의 의리는 春秋之義
읊을 때마다 반드시 드러내었으며 有吟必形
공론이 정해지기 까지는 公議之定

574) 진탕(陳湯): 전한(前漢) 원제(元帝) 때의 무신이다. 서역 부교위(西域副校尉)로서 군사를 동원하여 질지선우(郅支單于)의 목을 베어 오니, 관내후(關內侯)로 봉하여졌다. 여기서는 최희량이 진탕처럼 뛰어난 공을 세웠으나 보답을 받지 못하였음을 하소연한 것이다.

백 년을 기다려야 했다네	必待百年
관작을 추증하여 공훈에 보답하였으며	贻爵酬勳
사당을 세워 경건히 모셨다	立祠揭虔
내가 그의 공적을 모아	我撮其蹟
큰 비석에 새겼으니	以篆穹石
천만년 지나도록	有來千億
지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경의를 표하리라	過者必式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강재집(https://db.itkc.or.kr/)

我國兵燹之憯。莫酷於壬丁島夷之變。而時則有李忠武公舜臣統三道舟師。成中興偉績。其麾下士。固多傑然可稱者。而賊退之後。不居其功。歸老江湖以晦其跡者。逸翁崔公是已。公諱希亮。字景明。自號逸翁。又稱臥龍。崔氏系出水原。隋城伯永奎。其鼻祖也。世襲簪纓。高祖淳。敬差官。曾祖貴溏。僉使。祖瀛。英陵參奉。考樂窟。葆眞守拙。以厚德見稱。濟用監正贈左承旨。妣光山金氏。部將攀女。以嘉靖三十九年庚申生。姿貌魁傑。志氣卓遠。少好讀書。略通大義。以親命業武。庚寅五月。丁承旨公憂。執喪以禮。壬辰倭變。守制在廬。甲午。登武科。是年冬。佐婦翁忠淸水使李公繼鄭幕。同李公率舟師。赴防閑山島。中流失火。同舟盡燒溺。公腋兩革鼓投海。浮泅累日。幸遇他船得活。翌年。薦拜宣傳官。及丁酉。倭寇再猘。宣祖命揭倭酋秀吉像。使諸武臣射之。公正中其額。上大喜。特除興陽縣監。時朝廷命沿海守令。盡屬舟師。公卽赴李忠武公統制幕下。忠武知公勇略。倚以爲重。每戰輒賈勇先登。以八隻舟師。當蔽海之賊。一捷于鳴島。再捷于尖山。三捷于曳橋。又設奇。夜斫賊陣。賊驚駭退遁。取其租六百餘石以館穀。時忠武以讒去。公在縣。倡率瘡殘。造戰艦。繕戎器。躬曳木。同甘苦。翌年戊戌。忠武復領舟師。特爲褒啓。自春徂秋。連獲捷勝於楊江姑島及縣南門南堂浦。前後斬獲甚衆。又誘還我人被虜者七百餘名。其上功文帖。至今尙在。時兵使與統制不協。疾公之專聽忠武節制。誣啓請罷。上不許。兩司至六啓。始許遞。因傳曰。目今朝夕危急。交遞之際。必生大事。此可以見上之知公矣。未幾。新倅高德蔣果敗沒於賊。公旣解符。留統制幕下。贊畫戎機。十一月。忠武大會舟師。鏖戰露梁。焚賊船數百艘。追至南海賊。大挫劒逃遁。而忠武中丸而卒。公旣被誣罷官。又喪元帥。無復當世意。遂痛哭歸鄕。杜門屛跡。爲終老計。有詩曰。亂中人事變。歸臥欲藏名。依然舊時物。磯上白鷗迎。癸卯。丁母夫人憂。持制一如前喪。乙巳。朝家論功。錄公宣武原從一等。公素執謙退。恥自矜伐。而旋值昏朝。自甘棄置。公議愈鬱。州人進士吳挺男等二百餘人上疏訟屈。不報。公構小亭於錦江上。漁釣爲徒。詩酒自娛。若與世相忘。而愛君憂國之意。輒形於吟詠。所從遊唱酬。皆一時名勝。而林白湖悌,林閑好堉,白松湖振南。尤其著者也。仁廟丙子。虜兵猝至。南漢被圍。公年七十七矣。露立北向。日夜號哭。謂諸子曰。南漢若破。吾亦當自盡。送第三子監察結扈從。及聞媾成。不勝悲憤。自爲文。敍其老未勤王。憂國眷眷之意。而末乃責當路者之爲春秋罪人。方九十歲。讀中庸。作文自警曰。朝聞道夕死

可矣。當惟日孜孜。斃而後已。以大耋進嘉善。考終于辛卯十二月二十九日。享年九十二。葬于大朴山下抱酉之原。配原州李氏。水使繼鄭女。繼配濟州梁氏。主簿達洙女。九男二女。男長緖軍資監參奉。次緻。次卽監察結。次糾。次繪。次級。次蘊。次綬。次絢。女長適閔承胤。次適文載尙。李氏墓在侍郎面木洞先兆上。梁氏與公合祔。公沒後百二十四年英宗甲午。因大臣筵白。贈資憲大夫兵曹判書。正宗庚申。鄕人建祠享忠武公。而以公配侑。嗚呼。公稟忠義之性。而兼干城之材。早年投筆。時際搶攘。聖主奇其才。主將倚其勇。露梁閑山。隨處立功。廓淸湖海之氛。以基中興之蹟。遂策勳一等。吁其壯哉。暨元帥旣亡。媒糵傍伺。見幾超然。斂跡湖海。終身落拓。而不見幾微。不亦賢乎。丙丁之歲。公已遲暮。而遣子勤王。誓以自靖。逮天地翻覆之後。慨歎莫伸春秋之義。忠憤激昂。累形詞章。若九十之年。猶讀書自警。夫豈可以觫軛者流視之也哉。惜乎功而不賞。忠而見忌。卒坎壈以沒也。然而天道孔昭。旣享大耋。多男之福。公議亦大定於百年。朝家貤之以正卿。士林侑之於鄕祠。公於是可以無憾矣。公之後孫齊東。白首重繭。來乞樹墓之文。以不文辭。不獲。玆就其狀。略敍而銘之。銘曰。忠義之性。文武之才。慨然投筆。遭時艱虞。射中賊像。特荷聖眷。南氛再漲。分符海縣。惟時忠武。統率舟師。公奮忠勇。最被其知。蝥弧登先。龜艦著前。血漲南海。氛廓閑山。中興偉績。公實先後。遭間解紱。又喪元帥。蕭然江海。斂跡藏名。功冠麟閣。志堅鷗盟。士論有鬱。疏訟陳湯。彼哉媚疾。於公何傷。桑榆暮景。又値丙丁。替子勤王。愈見忠貞。春秋之義。有吟必形。公議之定。必待百年。貤爵酬勳。立祠揭虔。我撮其蹟。以篆穹石。有來千億。過者必式。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강재집(https://db.itkc.or.kr/)

(2)『선조실록(宣祖實錄)』 권98, 31년 3월 18일

통제사 이순신의 서장에,

"흥양현감(興陽縣監) 최희량(崔希亮)의 치보(馳報) 안에 '정탐인(偵探人) 조언방(趙彦邦)이 와서 보고하기를, 「순천(順天) 삼일포(三日浦)에 진을 치고 있던 왜적이 주사(舟師)가 진영을 옮겼다는 것을 듣고 2월 24일에 예교로 옮겨가 합하여 현재 성을 쌓고 있다. 왜장 평수가가 2월 7일에 여역(癘疫)으로 죽었는데 10일에 배에 실어 본국으로 들여보냈고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왜적들이 적굴(賊窟)에 많이 있으며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統制使李舜臣書狀:

興陽縣監崔希亮馳報內。偵探人趙彦邦進告:"順天 三日浦賊陣。聞舟師進陣。二月二十四日移合于曳橋。方爲築城之役。倭將平秀可[575]。二月初七日癘疫得發身死。初十日載船本國入送。時方臥

575) 원문을 따라 '平秀可'로 기재하였으나 '平秀家'가 맞는 듯하다.

痛倭奴。狼藉賊窟。死者相枕事。”

啓下備邊司。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3)『선조실록(宣祖實錄)』권102, 31년 7월 6일

전라 병사(全羅兵使) 이광악(李光岳)이 치계하였다.

“흥양(興陽) 지방에 적선이 들이닥쳐 5월 25일에 육지에 내려와 노략질하였고, 6월 6일에는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였습니다. 그러나 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식을 알려와 장수들이 미처 토벌할 수 없게 만들었고, 3백여 명의 사람과 가축이 잡혀 갔는데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현감 최희량(崔希亮)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보성 군수(寶城郡守) 전백옥(全伯玉)은 8일의 전투에서 군사를 거느리고도 구원하지 않았으니, 비록 적을 벤 작은 공이 있기는 하나 그 실책을 속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낙안 군수(樂安郡守) 방덕룡(方德龍)[576]은 비록 정탐을 게을리 하여 적의 출현을 알리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중국 장수 이 천총(李千總)과 합세해서 적을 토벌하여 그로 하여금 공을 세우게 하였으니, 앞의 두 수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작하여 처치하소서.”

己丑/全羅兵使李光岳馳啓:“興陽地。賊船來泊。在五月二十五日。下陸作賊。在六月初六日。至於深入。然初八日。始通聲息。使諸將未及勦捕。人畜三百餘名擄去。竝匿不以報。縣監崔希亮之罪。在法難赦。寶城郡守全伯玉。初八日之戰。擁兵不救。雖有斬級微功。不足以贖其失悞。樂安郡守方德龍。雖不謹哨探。不卽馳報。唐將李千總。合勢馳討。至使唐將。有擒斬之功。似與兩守令有間。參商處置事。”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4) 이순신(李舜臣),『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권14, 부록 6,「최씨 가장(崔氏家狀)」

최희량(崔希亮)은 나주 사람으로 무과에 올라 선전관(宣傳官)의 벼슬을 지냈다. 정유년 난리에 특례로 흥양 현감(興陽縣監)으로 제수되어 수군을 거느리고 이충무공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가서 여러 번 특별한 공로를 세워 충무공이 그를 칭찬하는 장계를 올렸으나, 얼마 뒤에 모략을 받아 파직되었다. 충무공은 그대로 진중에 머물러 있게 하고 군관으로 삼았다. 무술년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충무공이 탄환을 맞아 배 위에서 죽으니 희량은 통곡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시를 지었는데

576) 방덕룡(方德龍): 1561~1598.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낙천(樂天)이다. 1588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원균(元均)의 휘하에 들어가서 크게 활약하였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이듬해 통제사 이순신의 선봉이 되어 노량 해전에서 분전하다가 전사하였다.

난리 속에 세상사가 변하여　　亂中人事變
돌아가 이름 없이 살아가리라　　歸卧欲藏名

하고 드디어 문을 닫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출전 : 이은상 역, 『(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崔希亮。羅州人。登武科。官宣傳官。丁酉之難。特除興陽縣監。率舟師赴李忠武陣。屢立奇功。忠武褒啓之未久。爲人所擠而罷。忠武仍留陣中爲軍官。戊戌露梁之戰。忠武中丸歿於船上。希亮痛哭還鄕。作詩曰。亂中人事變。歸卧欲藏名。遂杜門屛跡。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이충무공전서(https://db.itkc.or.kr/)

40) 최희립(崔希立, 1568~1593)

• 본관 강화(江華), 자 입지(立之), 호 효암(孝菴)

(1) 안방준(安邦俊), 『은봉전서(隱峯全書)』 권8 기사 「호남출신 의병들의 기록(湖南義錄)」

주부(主簿) 최희립(崔希立)의 자는 입지(立之), 호는 효암(孝菴)으로 남평현(南平縣)에 살았다. 젊어서부터 담력과 용기가 있어 의기로 자부하였다. 임진년 변란에 초토사(招討使) 고경명(高敬命)을 따라갔으나 금산에서 패한 뒤에, 또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의 의병에 속하여 별장(別將)이 되었다. 전공이 가장 많아 주부의 관직에 제수되었다.

계사년(癸巳年) 5월에 입지는 중한 병에 걸려 함양에 머물렀는데 가까스로 깨어났다. 6월에 진주성의 일이 위급함을 듣고 주야로 말을 달려 나아갔다. 적이 이미 성을 핍박하고 있었으므로 입지는 말을 빨리 달려 포위망을 뚫고, 갓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내가 최 아무개다!"라고 외치니 성안에서 문을 열어 맞아들였다. 성이 함락되자 종이 울면서 청하기를,

"모처에 물이 얕은 곳이 있어 몸을 숨기고 건널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입지는 말하기를

"너는 속히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가 소식을 알리거라."

하였다. 마침내 병사 최경회와 함께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아! 입지는 집에서는 초야의 벼슬 없는 일개 선비에 불과했고, 군에서도 일개 비장에 지나지 않았으니, 비록 따라 죽어도 괜찮았겠지만, 죽지 않았더라도 또한 괜찮았다. 그러나 위급함에 임해서 피하지 않았고 죽어도 후회함이 없었으니, 평소에 작정한 바가 없었다면 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아들 준(浚)은 일찍 죽었고 여러 손자는 아직 성장하지 못하였다. 세상에 선을 좋아하는 자가 없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묻혀 전해지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여기에 두 가지를 적어서 훗날 그를 알아서 말해줄 사람을 기다리고자 한다.

출전 : 안동교 역, 『(國譯) 隱峯全書』, 신조사, 2002

崔主簿希立。字立之。號孝菴。居南平縣。少有膽勇。以義氣自負。壬辰變。從高招討。錦山敗後。又屬崔兵使。爲別將。戰功最多。授主簿之職。癸巳五月。立之患重疾。留咸陽地。僅得蘇。六月。聞晉州事急。罔晝夜馳進。則賊已逼城。立之躍馬突圍。揮笠大呼曰。我是崔某。城中開門納之。及城陷。奴泣請曰。某處水淺。可以潛身得渡。立之曰。汝但速出。歸報一家。遂與崔兵使。同赴水死。噫。立之在家則田畝間一布衣。在軍則不過一編裨耳。雖從死可也。不死亦可也。臨危不避。死而無悔。非其素定。能若是乎。子浚早歿。諸孫尙未成長。世無好善者。至今數十年。埋沒無傳。誠可痛惜。今於此記其一二。以俟他日知言者云。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은봉전서(https://db.itkc.or.kr/)

(2) 신경(申炅),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권3

6월

이윽고 적의 무리가 닥쳐왔다. 천일(千鎰)이 최경회(崔慶會)와 더불어 손을 잡고 통곡하고 함께 북쪽을 향하여 재배하고 먼저 병기를 물속에 버리고 그 아들 상건과 서로 안고 누각 아래 깊은 물속에 몸을 던져 죽으니, 최경회·고종후(高從厚)·문홍헌(文弘獻)·양산숙(梁山璹)·최희립(崔希立)·강희민(姜希民) 등이 모두 죽고, 백성으로서 죽은 자가 거의 6만여 명이요, 우마(牛馬)와 계견(鷄犬)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또 성을 무너뜨리고 참호를 메워버리고 우물을 틀어막고 나무를 베어버려 전날의 분패를 앙갚음하였다.

六月。已而賊迫。千鎰與崔慶會握手痛哭。俱北向再拜。先投兵器水中。與其子象乾相抱。赴樓下潭水而死。崔慶會高從厚文弘獻梁山璹崔希立姜希民等。皆死之。民死者幾六萬餘名。牛馬鷄犬不遺一物又夷其城塡其塹。堙井刊木。以快前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재조번방지(https://db.itkc.or.kr/)

41) 최희열(崔希說, 1536~1607)

• 본관 수성(隋城), 자 경재(景賚), 호 삼주(三州)

(1) 송치규(宋穉圭), 『강재집(剛齋集)』 권9, 「삼주 최공 묘표(三洲崔公墓表)」

내가 일찍이 금성(錦城, 나주)의 「초동팔현행록(草洞八賢行錄)」에 서문을 쓰면서 삼주(三洲) 최공(崔公)이 어진 사람임을 알았었는데, 지금 나에게 묘문(墓文)을 청탁하니, 어찌 끝끝내 사양할 수 있겠는가. 공의 휘(諱)는 희열(希說), 자는 경뢰(景賚)이다. 최씨는 선계가 수원(水原)에서 나왔으며 고려시대의 수성백(隋城伯) 문헌공(文惠公) 휘 영규(永奎)가 비조이다. 고조는 휘 순(淳)으로 경차관(敬差官)이며, 증조는 휘 분당(賁溏)으로 첨사(僉使)이며, 조부는 휘 영(瀛)으로 참봉이다. 부친은 휘 낙궁(樂窮)으로 제용감 정(濟用監正)을 지냈으며 좌승지(左承旨)

로 추증되었고, 모친은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부장(部將) 반(攀)의 따님이다. 공은 가정 병신년(1536, 중종 31)에 태어났다. 용모가 뛰어나고 성품은 온화하였다. 증조부 첨사공(僉使公)의 묘는 초동(草洞)의 서쪽 산기슭에 있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무덤 영역을 바싹 침범하자 승지공(承旨公)인 부친이 조상의 사판(祠版, 신주(神主))을 옮겨서 봉안하려고 서울에 왔다. 공은 당시 약관도 되지 않았는데 관청에 해명해서 그 집을 무너뜨리자, 사람들 모두가 크게 될 그릇으로 여겼다. 율정(栗亭) 최학령(崔鶴齡)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효우(孝友)하고 학문이 뛰어나 최공이 대단히 기대하였다.

만력 계유년(1573, 선조 6)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임오년(1582, 선조 15)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였다. 전적(典籍)과 병조와 예조의 좌랑을 역임하였고, 진원 현감(珍源縣監)으로 나갔는데 청정비(淸政碑)가 있다. 당시 동인과 서인으로 당(黨)이 나누어져 조정의 형편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공은 같은 마을의 남호(南湖) 유은(柳溵)과 함께 벼슬을 사직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시로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었는데 아래와 같은 시가 있다.

청운은 손에 넣기 어려운데	靑雲難入手
백발은 머리에서 쉽게 자란다	白髮易生頭
책상 가 황금이 바닥났으니	床上黃金盡
푸른 바다로 돌아가야 할 때로다	歸歟碧海秋

이산해(李山海)는 공의 중표친(中表親, 내외종(內外從)형제)이다. 당시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공에게 머물기를 부탁하자, 공이 "오늘날 조정의 의론이 분열되었는데 진정하는데 힘쓰지 않고 서로 공격하고 있다. 나를 응견(鷹犬)[577]으로 사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말하고서는 호탕하게 귀향하였다. 고향에서 자취를 숨기고, 마을의 일곱 사람과 더불어 보산(寶山) 아래에 정사(精舍)를 짓고 학문을 연마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마음 가는 대로 소요하였다.

경인년(1590, 선조 23)에 승지공(承旨公)의 상을 당했을 때는 척이(戚易)를 모두 극진히 하였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난 가자 야우(野憂) 장이길(張以吉)과 함께 소(疏)를 올려 풍패(豐沛 전주(全州))로 돌아와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무술년(1598, 선조 31)에 원수(元帥) 권율(權慄)이 순천부(順天府)에 머물러 진을 치고 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청했다. 공은 송간(松澗) 홍천경(洪千璟), 송정(松亭) 장이경(張以慶)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양식을 조달하여 군사력을 도왔

577) 응견(鷹犬): 사냥하는 매와 개로 남의 앞잡이라는 뜻이다.

다. 계묘년(1603, 선조 36)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지나치게 슬퍼하여 병이 생겼다. 탈상을 마치자마자 정미년(1607, 선조 40) 정월 6일에 작고하였으니 향년 72세였다.

송정(松亭) 장이경(張以慶)이 제문을 지어 애도하기를 "70에 거상(居喪)하는 것은 선유(先儒)도 위태롭게 여겼다. 3년 동안 예법대로 상을 치러 병의 뿌리가 되었다. 그대야 죽어서 편안하겠으니 내가 또 무엇을 슬퍼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묘는 수다면(水多面) 아계산(芽界山) 유좌(酉坐) 터에 있다. 배위는 탐진 최씨(耽津崔氏)로 율정공(栗亭公)의 따님이다. 부드럽고 얌전하며 대단히 부도(婦道)가 있었다. 공보다 14년 뒤에 작고하였으며 월일(月日)이 같다. 묘는 공의 묘 우측 산등성이고 손좌(巽坐) 터이다. 자식은 2남 1녀가 있는데 장남 찬(纘)은 혼조(昏朝, 광해군) 때 「대군애가(大君哀歌)」를 지었다가 흉당(凶黨)이 죄로 얽어매어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인조반정 후에 직장(直長)을 지냈다. 차남 계(繼)는 생원이며, 딸은 서경개(徐景介)에게 시집갔다. 찬은 1남 2녀가 있는데, 아들은 인업(仁嶪)이고, 딸은 이극승(李克承)과 장승후(張承後)에게 각각 시집갔다. 계는 2남 2녀가 있으며 아들은 인준(仁峻), 인집(仁嶨)이며, 딸은 생원 양진남(梁軫南)과 승훈랑 나호의(羅好義)에게 각각 시집갔으며, 서자로 인수(仁岫)와 기국주(奇國柱)에게 시집간 서녀가 있다. 인업은 2남 1녀가 있는데, 아들은 동한(東漢), 동위(東渭)이며, 딸은 장명핵(張溟翮)에게 시집갔으며, 서자로 동필(東泌), 동전(東洗), 동집(東漵)이 있으며, 서녀들은 이경량(李敬亮), 민계(閔計), 정망기(鄭望起)에게 각각 시집갔다. 인준은 자식이 없어 동위를 후사로 삼았다. 인집은 아들 한 명을 두었는데 동수(東洙)이다. 현손 이하는 모두 다 기록하지 않는다. 현달한 사람으로는 7대손 창국(昌國)이 문과 급제에 참지(參知)이며, 8대손 규한(逵翰)은 문과 급제에 정언(正言)이다.

아, 공은 학문과 재능을 가졌음에도 벼슬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시국을 살펴 명예나 이익에 욕심을 두지 않고 은퇴하였으니, 굳건히 지조를 지켰음을 볼 수 있다. 마을에서는 선생의 풍모를 사모하였으며, 사(社)에서는 제향하는 예를 거행하였다. 또 집안에도 가르침을 주었으니 아우는 임진왜란 때 충성을 바쳤고 아들은 광해군 때 절개를 드러내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더욱더 공을 알 수 있다. 지금 나를 찾아와 글을 청한 사람은 8대손 석한(碩翰)과 9대손 기형(基馨)이다. 그리고 돌을 깎아 비석을 세우고자 시종 노력한 사람은 7대손 효국(孝國)이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강재집(https://db.itkc.or.kr/)

余嘗序錦城之草洞八賢行錄。而知三洲崔公之賢矣。今於墓文之請。顧何可終辭。按公諱希說。字景賚。崔氏。系出水原。高麗隋城伯文惠公諱永奎。爲鼻祖。高祖諱淳。敬差官。曾祖諱貴溏。僉使。祖諱瀛。參奉。考諱樂窟。濟用監正贈左承旨。妣光山金氏。部將攀女。公生于嘉靖丙申。姿貌魁偉。性度溫和。僉使公墓在草洞西麓。有人作室。近犯塋域。承旨公爲移奉先世祠版。方抵京。公時未冠。卞于官而毁其家。人皆器之。受業於栗亭崔公鶴齡之門。孝友文雅。崔公甚期許之。萬曆癸酉司馬。壬午登明經第。歷典籍。兵禮二曹佐郎。出監珍原縣。有淸政碑。時東西分黨。朝象不靖。

公與同閈柳南湖澈。謝仕南下。詩以見志。有靑雲難入手。白髮易生頭。床上黃金盡。歸歟碧海秋之句。李山海。公之中表親也。時秉銓。勉留公。公曰。今日朝論携貳。不務鎭靜。互相攻擊。欲以我爲鷹犬用耶。浩然而歸。斂跡鄕園。與洞裏七賢。築精舍於寶山下。講討從容。任眞逍遙。庚寅。丁承旨公憂。戚易兩盡。壬辰亂。大駕播越。與張野憂以吉。上疏請回鑾豐沛鄕。以爲根本圖。戊戌權元帥慄。留陣順天府。移書請共濟艱難。公與洪松澗千璟。張松亭以慶諸公。募兵鳩粟。以助軍勢。癸卯。丁內憂。過哀成疾。纔闋服。卒于丁未正月六日。享年七十二。松亭張公文以哀之曰。七十居喪。先儒危之。三年執禮。是爲病根。公旣死安。我又何哀云。墓在水多面芽界山酉坐原。配耽津崔氏。卽栗亭公之女。柔嘉靜淑。甚有婦道。沒後公十四年。而月日則同。墓公墓右麓巽坐原。有二男一女。男長纘。當昏朝。作大君哀歌。爲凶黨所構。六載錮囚。仁祖反正後。官直長。次繼生員。女適徐景介。纘一男二女。男仁嶸。女適李克承。張承後。繼二男二女。男仁峻,仁嶕。女適生員梁軫南。承訓郎羅好義。庶子仁岫。女奇國柱。仁嶸二男一女。男東漢。東渭。女適張溟翮。庶子東泌。東洽。東澈。女李敬亮。閔計。鄭望起。仁峻無子。以東渭爲后。仁嶕一男東洙。玄孫以下。不能盡錄。其顯者。七代孫昌國文科參知。八代孫逵翰文科正言。噫。以公文學才猷。不事進取。相時恬退。操守可觀。而鄕慕先生之風。社擧俎豆之禮。且其家庭所授。弟效忠貞於壬辰。男著節義於昏朝。觀於此。尤可以知公矣。今來請文者。八代孫碩翰。九代孫基馨。而伐石刻竪。終始致力者。七代孫孝國云。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강재집(https://db.itkc.or.kr/)

(2) 장헌주(張憲周) 등 편, 『팔현행록(八賢行錄)』

삼주(三洲) 최 선생(崔先生)

공의 휘는 희열(希說), 자는 경뢰(景賚), 호는 삼주(三洲)로, 수성인(隋城人)이다. 고려 수성백(隋城伯) 문혜공(文惠公) 휘 영규(永奎)의 후손이고, 참봉 휘 영(瀛)의 손자이다. 아버지 휘 낙궁(樂窮)은 덕림천(德林泉)에서 자랐다. 누차 천거되어 제용감 정(濟用監正)에 임명되었지만 끝내 나가지 않았다.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선산김씨(先山金氏) 부장(部將) 번(樊)의 따님이다. 공은 가정(嘉靖) 병신년(1536, 중종 31)에 태어났다.

용모가 뛰어나고 기량이 맑았다. 증조부 첨사공(僉使公)의 묘가 초동(草洞)의 서쪽 산기슭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무덤 영역을 바싹 침범하였다. 승지공은 조상의 사판(祠版, 神主)을 옮겨서 봉안하는 일로 서울로 가 있는 상태였다. 공은 당시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마침내 집의 종을 데리고 그 집을 헐어 선영을 온전히 보전하자, 사람들이 많이들 칭찬하였다.

장성해서는 율정(栗亭) 최학령(崔鶴齡) 공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최공은 효성과 우애가 대대로 이어지고 문아(文雅)로 집안이 다스려진 점을 이유로 공을 생관(甥館, 사위)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실제 학문에 전심하고 문장의 수식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부친의 명으로 과거에 응

시하여 만력(萬曆) 계유년(1573, 선조 6)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임오년(1582, 선조 15)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였다. 전적(典籍)에서 병조 좌랑(兵曹佐郎), 예조 좌랑(禮曹佐郎)으로 승진하였다. 진원 현감(珍原縣監)으로 나갔는데 상등[最]으로 임금에게 보고되었으며 청정비(淸政碑)가 세워졌다. 조정으로 돌아온 뒤에 조정이 서로를 모함하고 승진을 조급히 여기는 것이 풍속이 된 것을 보고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남호(南湖) 유은(柳溵)과 함께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그때 지은 시가 있다.

청운은 손에 넣기 어려운데	靑雲難入手
백발은 머리에서 쉬이 자라네	白髮易生頭
책상에 황금이 바닥났으니	床上黃金盡
푸른 바다로 돌아가야 할 때로다	歸歟碧海秋

당시 재상 이산해(李山海)가 이조 판서로 있었고 또 공과는 표종(表從) 숙질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공에게 머물기를 부탁하였다. 공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오늘날 조정 의론이 분열되었는데 진정에 힘쓰지 않고 서로 공격하고 있다. 나를 응견(鷹犬)으로 쓰려는 것인가?" 하고는 호연히 남쪽으로 내려왔다. 자취를 숨기고 초동 서금포(西錦浦) 가에 정사(精舍)를 지어 삼주(三洲)라 편액(扁額)하였다. 일곱 현인과 어울리며 마음 가는 대로 소요하는데 마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다.

경인년(1590, 선조 23)에 승지공(承旨公)의 상을 당했을 때는 형식적인 예법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모두 극진히 하였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난 가자 공은 진사 양산룡(梁山龍), 좌랑 양산숙(梁山璹), 습정(習靜) 임환(林懽), 정랑 정심(鄭諶) 등 여러 사람과 의병을 모으고, 또 야우(野憂) 장이길(張以吉)과 함께 행재소(行在所)에 상소하여 국가를 회복시켜야 할 것을 다 아뢰니, 선묘(宣廟)께서 좋은 말로 비답(批答)을 내리셨다. 무술년(1598, 선조 31)에 원수(元帥) 권율(權慄) 공이 순천부(順天府)에서 도내의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계획에 힘을 보태달라고 청했다. 공은 창주(滄洲) 정상(鄭詳), 송정(松亭) 장이경(張以慶), 반환(盤桓) 홍천경(洪千璟)과 함께 방략을 아뢰고 병사와 군량을 조달하여 보냈다. 계묘년(1603, 선조 36)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당시 68세의 나이로 상중에 거하며 예를 다하였으니 늙어도 더욱 돈독하게 하였다. 상기를 마치자 결국엔 몸이 손상되어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다.

송정 장 공이 제문을 지어 애도하기를 "70세에 거상(居喪)하는 것은 선유(先儒)도 위태롭게 여겼다. 3년 동안 예법대로 상을 치르느라 병이 자라나게 되었다. 그대는 죽어 편안한데 내가 또 무엇을 슬퍼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공과 같은 마을의 일곱 현인은 나이와 덕이 비슷하고

진퇴에 뜻을 같이하여 보산(寶山) 아래에 정사(精舍)를 짓고 학문에 전념하며 강론하니, 그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이 지금까지도 실추되지 않았다.

아, 공은 행실이 충효(忠孝)를 겸하였으며 기미에 밝아 조정에서는 벼슬자리 앞다투는 걸 사양하고 강호로 물러나 늘그막의 절개를 온전히 하였고, 마을에서는 투박함을 멀리하고 종족을 한마음으로 뭉쳐 가문의 풍습을 돈독하게 하였다. 왜적의 난리가 났을 때는 계책을 바치고 군사를 모집하여 임금께 보답하고 맡은바 직분을 다 한 뒤에야 그만두었으니, 조정에 벼슬할 때나 집안에 있을 때 각각의 자리에서 합당한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장자인 고송공(孤松公) 찬(纘)은 혼조(昏朝, 광해)가 모후를 폐할 때 「대군애가(大君哀歌)」를 지었다가 흉당(凶黨)의 무고로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계해년(1623, 인조 1) 인조반정 후에 직장(直長)에 임명되었다. 차남 진사공(進士公) 계(繼)도 문아(文雅)로 집안을 잘 계승하였다.

출전 : 나주의병 종합학술조사 번역팀 역

三州崔先生

公諱希說。字景賚。號三洲。隋城人。高麗隋城伯文惠公諱永奎之后。參奉諱瀛之孫。考諱樂窮。養德林泉。累薦拜濟用監正。終不就。贈左承旨。妣光山金氏。部將樊之女也。公生于嘉靖丙申。姿貌魁偉。器度淸朗。曾王考僉使公墓在草洞西麓。有人占作室屋。幾犯塋域。丞旨公。以家廟移奉事。方抵京。而公時尙幼。遂率家僮。毁其屋。以完塋域。人多稱之。及長。受業於栗亭崔公鶴齡之門。崔公以孝友繼世。文雅能家。因卜甥館。自是專心實擧。不屑葩藻。以親命赴擧。萬曆癸酉。中司馬。壬午。登明經第。自典籍陞兵禮佐郎。出莅珍原。以最聞。有淸政碑。旣還朝。見朝著方傾軋。躁進成風。知其不可進就。與柳南湖□[578]。棄官同歸。有詩曰。靑雲難入手。白髮易生頭。床上黃金盡。歸歟碧海秋。時相李山海方秉銓。且於公有表從叔侄之誼。因留公。公不許曰。今日朝論携貳。不務鎭靜。互相攻擊。欲以我爲鷹犬之用耶。浩然南下。潛光屛跡。築精舍于草洞西錦浦上。扁以三洲。嘗與七賢遊憩。任眞逍遙。若將終身者然。庚寅。丁承旨公憂。易戚兼至。壬辰。大駕播越。公與梁進士山龍·梁佐郎山璹·林習靜懽·鄭正郎諶諸公。召募義旅。又興張野憂以吉。上疏行在。備陳克復。宣廟優批之。戊戌。元帥權公慄。在順天府。發書求贊劃于道內諸公。公與鄭滄洲詳·張松亭以慶·洪盤桓千璟。爲陳方略。募送兵粮。癸卯。丁內憂。時年六十。入居喪盡禮。老而彌篤。服旣闋。遂羸毁成疾以終。松亭張公爲文祭之曰。七十居喪。先儒危之。三年執喪。是爲病根。公旣死安。我又何哀云。公與同閈七賢。齒同德齊。進退同志。築精舍於寶山之下。藏修講肄。遺風餘韻。尙今不墜焉。噫。公行兼忠孝。見燭幾微。於朝廷。則謝奔競。而退休江湖。以全晩節。於鄕黨。則遠渝薄。

578) 결자(缺字)는 '남호(南湖) 유은(柳溵)'의 '은(溵)' 자인 것 같다.

而保合宗族。以敦門風。至於島夷之亂。獻策募兵。必欲報君盡職而後乃已。則立朝處家。斯可謂各得其道矣。長子孤松公纘。當昏朝廢母后時。作大君哀歌。爲凶黨所構。六載牢獄。癸亥改玉。褒拜直長。季子進士公繼。亦以文雅。克世其家焉。

출전 :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42) 홍원(洪遠, 1576~1603)

• 본관 풍산(豊山), 자 망지(望之), 호 송암(松菴)

(1) 金麟淳 校, 『남문창의록(南門倡義錄)』

홍원(洪遠)의 자는 망지(望之)요, 호는 송암(松菴)이며,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간(侃)[579]의 호는 홍애(洪崖)인데 관직은 사인(舍人)이다.[580] 연(演)이란 자는 관직은 대제학(大提學)으로 공은 그의 후손이다. 조부 원(沅)은 참의요, 아버지 정업(廷業)의 호는 유몽(猶蒙), 사의(司議)로 참판(參判)에 추증되었다. 만력(萬曆) 병자년(1576)에 공은 나주 금안리(金鞍里)에서 태어났는데, 성품은 효도와 우애에 독실하였고, 학문은 근본을 찾았으며, 재물을 탐내지 않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의로운 명성은 일찍부터 알려졌다.

임진년(1592)에 김천일 공이 의거할 것을 논의할 때, 공은 어린 나이로 피를 마시며 맹세하는 자리에 가서 참여하였고, 집안의 곡식을 군량에 보태고 가동(家僮)을 군대에 편입하는 한편, 군중을 인솔하고 의주로 가다가 도중에 병을 얻어 함께 가지는 못하였다. 그 후 김경수(金景壽)·김홍우(金弘宇)·윤진(尹軫)[581] 등이 장성현(長城縣)의 남문에 의병청을 설치하자, 공은 분연히 말하기를, "처음에 김천일과 협심하여 근왕(勤王)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병이나 참여하지 못하여 처음의 맹세를 저버렸는데, 이제는 아팠던 것이 이미 나았으니 의리상 당연히 전쟁터에 나아가 죽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는 같은 마을의 동지(同志)인 김부(金溥)·김경남(金景男) 등과 도청에 '힘을 다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한다.'라는 서신을 보내고, 마침내 의병과 가동을 이끌었다. 또 양식(糧食)과 기계(器械)와 우마(牛馬) 등 물건을 갖추어 밤을 새워가면서 달려갔는데 따르는 의병들 또한 백여 명이었다. 이로 인하여 남문에 모여 도와 계략을 정했

579) 홍간(洪侃): ?~1304. 자는 자운(子雲)·운부(雲夫), 호는 홍애(洪崖),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과 동래현령 등을 역임하였다. 시문에 능하였고, 시체가 청려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에는 12대손 홍방(洪霧)이 여러 시선집에 전하는 것을 모아 편찬한 『홍애집』이 있다.

580) 원문 내용 누락. "有曰侃號洪崖官舍人。"

581) 윤진(尹軫): 1548~1597.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계방(季邦), 호는 율정(栗亭)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경수(金景壽)를 맹주로 한 장성 남문창의에 참여하여 종사로 활약하였다. 이듬해에는 전라도관찰사 이정암(李廷馣)에게 입암산성(笠巖山城)의 수축을 건의하였다. 1597년 왜적이 남원을 유린하고 장성에 침입하자, 입암산성을 사수하려 하였으나 산성의 함락과 함께 순국하였다.

다.[582] 또 종형(從兄) 천경(千景) 그리고 김경수(金景壽) 등과 법성포(法聖浦)에서 낸 군량 삼백 석을 기효증(奇孝曾)·박경(朴璟) 등에게 맡겨서 의주의 선조에게 조납하였다. 김제민(金齊閔)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김제민을 따라 직산에서 왜적과 전쟁하여 많은 왜적을 참살하고, 진위(振威)에 진격하여 정탐한 왜적을 잡아 참살하여 침범할 수 없다는 뜻을 보여주었다. 계사년(1593) 정월에 용인에서 경략(經畧) 송응창(宋應昌)의 화의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이끌고 남하하여 여산에 진을 치고 적의 진로를 막으며 지키고 있다가, 군량도 다 되었고 의병 또한 피로하므로 각기 군대를 파하여 돌아왔다. 그 후 5월에 명나라 군대가 남하할 때를 당하여 공은 창의사 김천일이 진주성을 지키다가 적의 세력이 매우 급박하다는 소문을 듣고, 김극후(金克厚)·김광우(金光宇) 등과 같이 이틀을 달려가 협력하여 수성하였다. 김천일이 공을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용만에 다녀오게 하였는데, 진주성을 떠난 공이 돌아오기 전에 성이 이미 함락되었다. 공은 김천일과 같이 죽지 못함을 한스럽게 생각하며, 매번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명고(鳴皐) 임전(任錪)·연흥(延興) 김제남(金悌男) 등과 강화도에 비를 세워 창의사 김천일의 사적을 나타냈다.

조정에서 공의 충절을 표창하여서 누차 승진이 되어 군자감 정(軍資監正)에 이르렀다. 계묘년(1603)에 졸하니 재상 김종수(金鍾秀)가 묘비명을 지었으며, 창의사에 배향할 때 예성 축문(禮成祝文)에 이르기를, "오호라 선생은 스물 안짝의 나이부터 기운이 기특하였네. 학문은 연원을 찾았고 재산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왔다. 강화도에 세운 비는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의 사적(事蹟)이라네."라고 하였다. 공의 아들 치진(致震)은 1636년 병자호란에 당숙(堂叔)인 참봉(參奉) 적(適), 생원(生員)인 탁(逴), 족숙(族叔)인 진사(進士) 남주(南柱)와 시서(市西) 김선(金璇) 등과 같이 격문을 보내고 의병을 모아, 호소사(號召使)인 기암(畸庵) 정홍명(鄭弘溟)을 따라 군대를 이끌고 청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강화하였다는 전갈을 듣고 통곡하며 군대를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시와 예로써 스스로를 단정히 하였다. 손자 만기(萬基) 역시 병자호란에 아버지를 따라 의거할 것을 공모하여 출병할 때, 사당과 어머니 곁을 떠나기 어려워 모아진 의병과 의속을 아우 명기(命基)에게 위촉하였고, 위촉을 받은 아우 명기는 안우산(安牛山)의 종사관으로 여산(礪山)에 이르렀다가 화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출전 : 오산창의사 편, 『(國譯)南門倡義錄·鰲山詞誌』, 長城郡·鰲山倡義祠, 1997

洪遠字望之。號松菴。豐山人。有曰侃。號洪崖。官舍人。曰演。官大提學。公其後也。祖沅參議。考廷業。號猶蒙。司議。贈叅判。萬曆丙子。公生于羅州金鞍里。性篤孝友。學尋淵源。輕財好施。義聲夙著。壬辰。金公千鎰。方議義擧。公以妙年。往參歃血之盟。輸家粟。補軍餉。發家僮。編行伍。及

582) 원문 내용 누락. "遂率義兵家僮。又備粮械牛馬等物。星夜馳進。所從義士。亦百餘人。仍會于南門。贊定方畧。"

其引衆而西。公中路疾作。未得並赴。及金景壽·金弘宇·尹軫等。設義廳于長城縣南門。公奮然曰。始與金千鎰。期以協心勤王。而一病是沮。孤負初盟。今則昔疾已瘳。義當赴賊而死妥。即與一鄕同志金溥·金景男等。馳書都廳。約以戮力起義。遂率義兵家僮。又備粮械牛馬等物。星夜馳進。所從義士。亦百餘人。仍會于南門。贊定方畧。又與從兄千景及金景壽等。出軍粮三百石於法聖浦。屬奇孝曾·朴璟等。漕納行在所。仍推金齊閔。爲義兵將。從至稷山。遇倭賊合戰。斬獲甚多。又進振威。捕斬探倭。以示不可犯之意。癸巳正月。至龍仁。聞宋經畧應昌主和議。遂率兵南下。因留陣礪山。拒守賊路。以食盡兵疲。因各罷歸。五月。當天兵南下。公聞倡義使方守晋陽。賊勢甚迫。遂與金克厚·金光宇。並日奔馳。協力守城。金千鎰署公爲從事官。使往龍灣。未及還城已陷。公恨不與同死。每自語稱罪人。後與任鳴皐鍊·金延興悌男等。竪碑沁都。以彰倡義使事蹟。朝廷奬其忠節。累官至軍資監正。癸卯卒。金相國鍾秀撰墓銘。享倡義祠。禮成祝畧曰。於休先生。妙年奇氣。學尋淵源。財濟窮丐。沁都尺碑。健齋之蹟。子致震。丙子胡亂。與堂叔參奉適·生員逵·族叔進士南柱及金市西璇。發檄募義。從號召使鄭畸庵弘溟。引兵到清州。聞媾成。慟哭罷歸。詩禮自靖。孫萬基。丙子從父。共圖義舉。及其赴難。難於離宗祠違親養。遂以所募兵粟。屬弟命基。從事安牛山。行至礪山。聞和成而歸。

출전 : 金麟淳 校, 『南門倡義錄』, 1799

(2) 위백규(魏伯珪), 『존재집(存齋集)』 권4, 「청포홍처사장(請褒洪處士狀)」

본주(本州) 금성(錦城, 나주) 북쪽 기슭에 고(故) 처사 홍명기(洪命基)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인조(仁祖) 시대 사람이다. 홍씨는 풍산(豐山)의 세가로, 시조 이하로부터 공의 고조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관직을 지냈다. 증조 정업(廷業)은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뛰어난 제자였는데, 음서(蔭敍)로 사의(司議)를 지냈고 참판(參判)에 추증되었으며, 호는 유몽재(猶蒙齋)이다. 할아버지 홍원(洪遠)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근왕(勤王)했으며, 음서로 군자감 정(軍資監正)을 지냈고 호는 송암(松菴)이다. 아버지 치진(致震)은 효행으로 여러 번 도천(道薦, 도에서 인재를 추천하는 일)에 들었고, 어머니 양씨(梁氏)는 현감 양두남(梁斗南)의 딸이며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의 5대손이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존재집(https://db.itkc.or.kr/)

本州錦城北涯。故有處士洪公命基。仁祖朝人也。洪氏豐山世家。始祖以下至公高祖。世襲冕紱。曾祖廷業以栗谷高弟。蔭仕司議。贈參判號猶蒙齋。王考遠壬辰之亂。倡義勤王。蔭監正號松菴。考致震以孝行屢剡道薦。妣梁氏縣監斗南女。學圃五代孫。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존재집(https://db.itkc.or.kr

43) 홍천경(洪千璟, 1553~1624)

• 본관 풍산(豊山), 자 군옥(群玉), 호 반환당(盤桓堂)

(1) 송치규(宋穉圭), 『강재집(剛齋集)』 권9, 「삼주 최공 묘표(三洲崔公墓表)」

경인년(1590, 선조 23)에 승지공(承旨公)의 상을 당했을 때는 형식적인 예절과 진심에서 나오는 슬픔 모두 극진히 하였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난 가자 야우(野憂) 장이길(張以吉)과 함께 소(疏)를 올려 풍패(豐沛, 전주(全州))로 돌아와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무술년(1598, 선조 31)에 원수(元帥) 권율(權慄)이 순천부(順天府)에 진을 치고 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청했다. 공은 송간(松澗) 홍천경(洪千璟), 송정(松亭) 장이경(張以慶)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양식을 조달하여 군사력을 도왔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강재집(https://db.itkc.or.kr/)

庚寅。丁承旨公憂。戚易兩盡。壬辰亂。大駕播越。與張野憂以吉。上疏請回鑾豐沛鄕。以爲根本圖。戊戌權元帥慄。留陣順天府。移書請共濟艱難。公與洪松澗千璟,張松亭以慶諸公。募兵鳩粟。以助軍勢。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강재집(https://db.itkc.or.kr/)

(2) 홍천경(洪千璟), 『반환선생유집(盤桓先生遺集)』 권3, 「가장(家狀)」

선생의 성은 홍(洪), 휘는 천경(千璟), 자는 군옥(羣玉), 호는 반환(盤桓), 또 다른 호는 송간(松磵)으로, 세계가 풍산(豐山)에서 나왔다. 고려 국학직학(國學直學) 휘 지경(之慶), 호가 홍애(洪崖)인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 지제고(知制誥) 휘 간(侃)이 바로 선생의 선조이다. 삼관대제학(三館大提學) 휘 유(侑)와 보문각 대제학(寶文閣 大提學) 휘 연(演)이 바로 공의 8대조와 9대조이다. 중랑장(中郎將) 휘 귀(龜)는 고려말에 시사(時事)가 날로 잘못되는 것을 보고 즉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고봉현(高峯縣) 길로 들어서 마침내 그곳에 터를 잡았으니, 『주역(周易)』에서 말한 "기미를 보고 떠나가서 하루가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583]라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휘 이(伊)를 낳았는데 우리 조선대에 남평 현령(南平縣令)을 지냈다. 현령은 성천 부사(成川府使) 휘 수(樹)를 낳았다. 부사는 서산정씨(瑞山鄭氏)를 아내로 맞으니 현감 계함(繼諴)의 딸로, 나주인(羅州人) 판서 정초(鄭昶)의 외손이다. 그대로 나주(羅州) 금안동(金鞍洞)에 거주하

583) 기미를 …… 않는다: 위험의 기미를 미리 보고 조심한다는 뜻이다. 『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에 "군자는 기미를 보고 떠나면서 하루가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君子見幾而作, 不俟終日.〕"라고 하였다.

니, 대대로 호남(湖南)의 사족(士族)이 되었다. 고조 휘 귀지(貴枝)는 성균 생원(成均生員) 출신인데 문장(文章)과 고상한 품행으로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호남 팔영시(湖南 八咏詩)」와 「금성육장가(錦城六章歌)」로 명성이 드러났다. 증조 휘 한량(漢良)은 내금위(內禁衛)이고, 조 휘 효손(孝孫)은 참봉(參奉)으로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추증되었고, 아버지 휘 응복(應福)은 예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죽산안씨(竹山安氏) 정국(定國)의 따님이다. 선생은 가정(嘉靖) 계축년(1553, 명종 8)에 금안동 수각리(水閣里)의 집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훌륭한 품성을 타고 났으며 자질이 순수하고 재주가 뛰어나 사람들이 선인 같은 비범한 풍채를 지녔다고 칭찬하였다. 참판공(參判公)은 성격이 엄하셨는데, 직접 선생을 가르쳤다. 선생이 어려서부터 행헌(杏軒)에서 강습받았는데, 송독(誦讀)이 조금이라도 통하지 않으면 번번이 꾸짖으며 때렸다. 그러면 선생은 행헌의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니, 용기 또한 남보다 뛰어났다. 조금 자라서는 태헌(苔軒) 고선생(高先生)과 고봉(高峰) 기선생(奇先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율곡(栗谷) 이 선생(李先生)이 도학(道學)을 천명하고 해서(海西)에 강장(講帳)을 크게 열었다는 말을 듣고는 가방 메고 걸어가서 의리(義理)에 관한 학문을 배웠다. 도(道)에 대한 독실한 믿음과 선(善)을 좋아하는 정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다와 산으로 막힌 천 리 먼 길까지 가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율곡 선생이 그 기개와 절조가 호탕하고 타고난 품성이 뛰어난 것을 보고는 매우 큰 그릇이 될 것으로 여겼다.

하루는 나덕명(羅德明)이 동향인으로 남몰래 시기심을 품고 스승에게 중상모략하기를, "홍 아무개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곳에 왔다."라고 하자, 이 선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참소의 이유를 그때까지는 아직 배척하지 않으셨다. 그 뒤에 집안의 편지가 스승에게 먼저 도착했는데, 스승께서 불러 그 편지를 전하고 편지의 내용을 들으니, "네가 해서로 간 뒤로 그리운 마음[陟屺][584]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어진 스승을 만나 배우고 있으니 모쪼록 착실하게 공부하거라."라는 내용이었다. 이 선생이 문하의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홍 아무개의 집에서 보낸 편지가 이와 같으니, 나덕명이 지난번에 했던 말이 과연 어떠하냐?" 하고는 그길로 관계를 끊었다.

선생이 대현(大賢)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로 덕성을 훈도(薰陶)하고 의리(義理)를 강구해 밝히니, 자신을 위하고 인륜을 극진히 하는 학문이 결국에는 크게 성취될 수 있었다. 선생이 약관

584) 그리운 마음: '척기(陟屺)'는 자식이 부모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시경』「위풍(魏風) 척호(陟岵)」에 "저 민둥산에 올라가서 어머님 계신 곳을 바라본다. 어머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아, 내 막내아들이 부역에 나가서 밤낮으로 잠도 자지 못할 터인데, 부디 몸조심해서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라.〔陟彼屺兮 瞻望母兮 母曰嗟予季行役 夙夜無寐 上愼旃哉 猶來無棄〕"는 말 가운데에서 나온다.

의 나이에 진풍연(進豊宴)[585]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젊은 나이로 가장 말석에 앉았다. 상좌석(上座席)의 한 재상이 풍류를 좋아하는 남자를 찾고자 하여 절세미인의 기생에게 잔을 들어 그 의중을 말하게 하였다. 기녀가 마침내 잔을 들어 사방의 자리를 돌아보고는 특별히 선생의 앞으로 나아갔다. 재상이 말하기를, "참으로 제일의 풍류남아로다." 하고는 또 기녀에게 명하기를, "오늘 밤 네가 홍 수재(洪秀才)를 모시거라. 모시지 못하면 중죄를 내릴 것이니라." 하였다. 당시 허균(許筠)[586]이 나이 어리고 뛰어난 재주로 서울에 이름을 날렸는데 대단한 풍류의 명망이 선생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니, 허균의 시기심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기생이 과연 선생을 모시고자 밤새도록 문밖에 서 있었지만 끝내 문을 열고 보지 않으니, 기생이 마침내 목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선생이 바른 힘을 얻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율곡이 일찍이 시험을 주관하였는데, 선생이 사부(詞賦)로 입격하고 방목에 뽑히자, 율곡이 선생의 시권(試券)을 가져다가 빼 버리며 "이것은 홍 아무개의 글이다. 이 사람은 장차 갑과(甲科)에서 크게 드러날 것이니 이 방목에 급급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선생은 스승의 말을 믿고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선생은 율곡 선생의 상사(喪事)에, 공자의 제자들인 자하(子夏)와 자공(子貢)처럼 심제(心制)의 복을 입고 돌아와 집에 머물렀다.

당시 정개청(鄭介淸)이 본주의 교수가 되어 제생(諸生)들을 고강(考講)하였는데 선생은 개청의 강학도(講學徒)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고강에 나아가려 하지 않자, 개청이 본주 목사에게 부탁하여 선생을 회초리로 매질하였다. 기축년(1589, 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옥사에 개청이 그의 혈당(血黨)으로 극지(極地)로 귀양을 가게 되니, 선생의 명견과 확고한 마음이 이 정도였다. 이 때문에 저쪽 부류에게 배척되었지만 정 송강(鄭松江)과 함께 더욱 청론(淸論)을 붙잡고 공의(公議)를 넓혔다. 당시 사람들에게 무고를 당해 송옹(松翁)이 북쪽으로 유배 갈 때 선생은 이미 포승에 묶여 옥중에 있었으며, 송옹의 형률(刑律)이 조정되어 배소(配所)를 옮길 때 선생도 과거 시험을 정지당했다. 그 때문에 허목(許穆)[587]의 『기언집(記言集)』에 "조정의 논의는 정철(鄭澈)이 주도하고, 사론(士論)은 홍천경이 주도한다." 하고, 또 "상국 정철이 몰래 호남의 선비 홍천경을 사주하여 기축옥사(己丑獄事)를 키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저들

---

585) 진풍연(進豊宴): '진풍정(進豊呈)'인 듯하다. 여느 때보다 풍성한 진연(進宴 웃어른에게 바치는 잔치)으로, 이때에는 가무(歌舞) 등 정재(呈才)가 있으며 대비(大妃)를 위하여 베푸는 것이 통례이다.

586) 허균(許筠): 1569~1618.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학산(鶴山)·성소(惺所)·백월거사(白月居士)이다. 1617년 폐모론을 주장하는 등 대북파의 일원으로 활동한 일로 3년 뒤 조카사위인 의창군(義昌君)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역모 혐의를 받았다. 그 후에 반란을 계획하다가 탄로되어 1618년 가산이 적몰(籍沒)되고 참형되었다. 저서로는 『교산시화(蛟山詩話)』 등이 있다.

587) 허목(許穆): 1595~1682. 자는 문보(文甫) 또는 화보(和甫)이며, 미수(眉叟)는 그의 호이다. 효종이 죽은 뒤에 그 복제(服制)를 정하는 문제로 송시열과 대립하여 복제 논쟁을 펼쳤다. 저서로는 『미수기언(眉叟記言)』 등이 있다.

의 이른바 「조경록(照鏡錄)」에서 선생과 송옹을 끝도 없이 무고하고 헐뜯었으니, 이것을 통해 시기와 질투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박 사암(朴思庵), 김 황강(金黃岡)[588], 심 청양(沈靑陽)[589] 등 여러 현인과 공의(公議)를 도와 서게 하고 시사(時事)를 함께 구제하니, 비록 저들에 의해 배척 당했지만 선생의 도는 더욱 드러났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선생이 그를 좇아 군량미를 모으고 강화를 지키니, 규획(規劃)과 방략(方略)에도 대부분 참여하였다. 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과 의곡(義穀) 3천 섬을 배에 실어 용만(龍灣)으로 운반하였는데, 이 일은 「성취헌기공일기(醒醉軒奇公日記)」에 들어 있다.

당시 대가(大駕)가 용만으로 행차하고 왕세자는 숙천(肅川)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리와 승냥이 같은 왜적이 길을 막아 왕명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였다. 선생이 왕세자를 모시고 남하를 청하는 상소를 들고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적의 소굴을 뚫고 행재소(行在所)에 이르자, 임금께서 특별히 인대(引對)하여 별좌(別座)와 직장(直長)의 직임을 제수하니 벼슬하지 않은 선비로서의 영광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적신(賊臣) 홍로(弘老)[590]가 또 흉악한 상소를 올려 왕세자가 성혼(成渾)과 분조(分朝)를 도모한다고 무고하였다. 학가(鶴駕, 왕세자)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모르고 불안해했는데, 선생만이 용만에 상소를 올려 대조(大朝)의 의심을 풀었다. 그리고 명고(鳴皐) 임전(任錪)의 『임진일기(壬辰日記)』를 가지고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홍 군옥(洪群玉)이 어제 용만에서 와서 큰소리로 명나라 장수가 나왔다고 하니, 군진이 정돈되고 호령이 엄숙하였다. 오랑캐는 대나무를 쪼개고 새알을 짓누르는 거침없는 세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들이 왕래하며 수천 리 밖에서 왕을 호위하니 공로가 매우 많았다. 임금께서 작위와 녹봉을 내려 총애하시고 단서철권(丹書鐵券)을 하사하셨다." 하였다.

정유재란(丁酉再亂)에 종사(從事)로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 공의 막부(幕府)에 배속되었는데 격문을 쓰고 군사를 모은 것이 모두 공의 손에서 나왔다. 무술년(1598, 선조 31) 12월 12일에 임습정(林習靜) 자중(子中)의 운(韻)을 써서 도원수에게 시를 지어 올렸다. 이 당시 왜

---

588) 김황강(金黃崗): 김계휘(金繼輝, 1526~1582)로 황강은 호이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중회(重晦)이다. 김장생(金長生)의 아버지이다. 1549년 문과에 급제하고, 대사헌과 평안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등을 폭넓게 읽었으며 문장에도 뛰어났다. 나주 월정서원에 제향되었다.

589) 심청양(沈靑陽): 심의겸(沈義謙, 1535~1587)으로, 청양군에 봉해져서 심청양이라 불린다.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방숙(方叔), 호는 손암(巽菴)이다. 명종의 비인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동생이다. 1562년 문과에 급제한 후 개성 유수와 전라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590) 이홍로(李弘老): 1560~1608.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보(裕甫), 호는 판교(板橋)이다. 1583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파 이이첨(李爾瞻)의 탄핵을 받고 유영경(柳永慶) 등과 함께 소북(小北)의 일파로 몰려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으며, 1612년 부관참시를 당하였다.

구가 남쪽 변방을 많이 침범하였으므로 선생이 도원수를 따라 남쪽 변방을 왕래하며 적들을 막을 때 더러 제주에 건너가 쾌승루(快勝樓)에 올라 시를 짓기도 하였다. 기해년(1599, 선조 32) 1월 15일에 추자도에 도착해서 제주 목사인 상국 이경록(李慶祿)[591]의 부고를 듣고는 곧바로 만사를 지었다.

선생의 나이 49세인 신축년(1601, 선조 34)에 사마시에 2등으로 합격했다.【갑오년(1594, 선조 27)부터 신축년까지 과거가 정지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였다.】 평소 죽음(竹陰) 조희일(趙希逸)과 막역한 사이였다. 함께 회시장(會試場)에 들어갔는데, 시제로 「용문에서 눈을 구경하다[龍門賞雪]」가 나왔다. 죽음이 묻기를, "군옥(群玉)은 어떤 문체로 지으려 하시오?" 하자, 선생은 "적벽부(赤壁賦)의 문체를 따르려고 합니다." 하였다. 죽음이 "장원은 나에게 양보하고 그대는 차석을 하는 것이 어떻소?" 하자, 선생이 웃으며 허락하였다. 합격자가 발표되었는데 죽음이 과연 장원을 차지하고 선생이 2등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미담으로 전하였다.

선생은 적균(賊筠)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였다. 언젠가 허균의 시를 보고는 부채를 흔들어 날려버리자, 균이 몹시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 매번 시관(試官)이 되면 선생의 글을 빼버리니, 이로부터 불우해져 자주 과거에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하였다. 그런 연유로 낙방하고 한강을 건너는 중에 지은 시가 있다. 만력 37년(1609, 광해 1) 기유년의 증광시에서 전시(殿試) 책문(策問)으로 장원 급제하였다.【신축년부터 기유년까지 과거가 정지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였다.】 중국 조정에 아뢰었으므로 중국까지 명성이 퍼졌다. 선생 나이 57세였다. 비록 늦게 도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장원이라는 큰 성과는 실로 율곡 선생께서 당시 하시던 말씀과 같다. 합격자 명단에 있는 현주(玄洲) 조찬한(趙纘韓), 계곡(谿谷) 장유(張維),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는 모두 두드러지게 뛰어난 명현이다. 문장은 장신풍(張新豐, 張維)이 당대에 독보적이었는데 선생이 압도적으로 장원을 차지했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전적(典籍)을 거쳐 나주 교수 겸 제독(提督)이 되었고 또 남원 교수가 되니, 바른 사람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더욱 선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청금안(靑衿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벌을 성균관에 게시하면서 "간악한 당에 빌붙어 대현을 죽였다."라고 하였는데, 간악한 당은 정송강(鄭松江)을 가리키고 대현은 최영경(崔永慶)을 가리킨다. 선생의 문인들이 스승을 위해 원통함을 호소한 상소와 송강의 아들인 기암(畸庵) 정홍명(鄭弘溟)이 부친을 위해 무고를 변론한 상소를 보니, 흉도들이 두 선생을 허위로 무고(誣告)하려는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

591) 이경록(李慶祿): 1543~1599. 자는 백수(伯綏), 본관은 전주이다. 효령대군의 원손(遠孫)이며, 오위장 이간(李幹)의 아들이다. 1576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경흥 부사(慶興府使)와 김해 부사(金海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전직되어 8년간 재임하다 사망하였다.

갑인년(1614, 광해 6)에 일어난 옥사에서 상신 한응인(韓應寅), 판서 신흠(申欽), 약봉(藥峯) 서성(徐渻), 남곽(南郭) 박동열(朴東說)[592], 금계(錦溪) 박동량(朴東亮)이 같은 날 체포되었고, 선생 또한 연루되었다. 꿈에 송천(松川) 양선생(梁先生)을 보고 깊은 감회에 젖어 시를 짓고, 또 까치 점[占鵲], 등불 점[占燈], 길몽(吉夢) 등에 관한 시를 지었는데, 모두 충의(忠義)로 비분강개하여 하늘을 가리키며 정도를 지키는 말들이었다. 아, 당시의 일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천지의 변화를 가지고 윤리를 무너뜨린 무리들이 창귀(倀鬼)의 악행을 저질러 바른 사람과 군자들이 대부분 그 독을 맞았다. 선생은 평소 남류(南流)들과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을 덮은 꼴이라는 혐의가 있었는데 이처럼 명이(明夷)의 시절을 만났으니, 어찌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본주의 김우성(金佑成), 나덕윤(羅德潤), 이유경(李有慶), 나윤제(羅允悌), 박문환(朴文煥) 등의 무리가 이첨(爾瞻)에게 붙어 그들조차도 선생을 미워하여 모함하였으니, 여러 소인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풀려난 뒤에는 세상일을 다 잊고 소나무 누대 시냇물 가에 정자를 짓고 산수의 정취를 즐기며 문인들과 멋진 모임 가지는 것을 좋아하였다. 현주 조찬한(玄洲 趙纘韓), 백호(白湖) 임제(林悌), 석촌(石村) 임서(林惰), 창랑(滄浪) 임선(林愃),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명고 임전(鳴皐 任錪), 한벽(寒碧) 곽기수(郭期壽),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수은(睡隱) 강항(姜沆) 등 여러 현인과 교유하며 왕래하였는데 송간정(松磵亭)을 읊은 시가 있다.

을묘년(1615, 광해 7) 봄에 선생이 해서(海西)에 갔다가 옛날을 추억하며 팔운시(八韻詩)를 즉석에서 지었다. 또 「과비안정(過費眼亭)」 시가 있다. 병진년(1616, 광해 8)에 선생은 조우인(曺友仁)[593]이 분승지(分承旨)로 서궁(西宮)에 입직하여 지은 시가 있다는 것을 듣고 곧바로 그 시에 차운하였다. 조승지(曺承旨)가 이 시 때문에 귀양을 갔지만, 선생의 시는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화를 면하였다. 또 「용성교(龍城校)를 지나며 어진의(魚振衣)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또 「증남곽(贈南郭)」 시가 있다. 정사년(1617, 광해 9)에 또 「만윤해평(挽尹海平)」 시를 지었는데 아울러 이 글로 제사를 올렸다. 또 「만유참판(挽俞參判)」 시가 있다.

---

592) 박동열(朴東說): 1564~1622.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열지(說之), 호는 남곽(南郭)·봉촌(鳳村)이다. 황해도 관찰사와 대사성 등을 지냈다. 정인홍(鄭仁弘)을 유적(儒籍)에서 삭제시킨 일로 광해군에게 미움을 받아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나갔으며,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한 일로 형인 박동량(朴東亮)과 함께 옥에 갇혔다가 석방되었다. 시문(詩文)에 능하였고, 경사(經史)와 백가(百家) 및 국조(國朝)의 고사(故事)에 두루 통하였다. 저서로는 『봉촌집』이 있다.

593) 조우인(曺友仁): 1561~1625.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여익(汝益), 호는 매호(梅湖)·이재(頤齋)이다. 1605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경성 판관과 제술관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의 잘못을 풍자했다가 그 글로 말미암아 3년간 옥에 갇혔다. 그 후에 상주(尙州)의 매호(梅湖)에서 은거하며 여생을 마쳤다. 시·서예·음악에 뛰어나 삼절(三絕)이라는 평을 받았다. 저술로는 『이재집』 등이 있다.

무오년(1618, 광해 10)에 또 하서서원(河西書院)을 참배하며 석주(石洲) 권필(權韠)과 유서경(柳西坰)의 시에 차운한 시가 있다. 선생은 하서(河西)를 우러러 사모하여 시대를 건너뛰어 감흥하여 시율(詩律)에 표현하였다. 선생의 시는 대체로 모두 이와 같다.

또 기성취헌(奇醒醉軒), 이 동악(李東岳), 조 야은(曺野隱)과 서석(瑞石)을 왕래하는 사이에 각자가 수창(酬唱)한 시가 있다. 경신년(1620, 광해 12)에 벽사도 찰방(碧沙道察訪)으로 나가자, 당시 명공(名公)과 현사(賢士)들이 모두 이별하는 시를 지었다. 박 남곽(朴南郭), 김 북저(金北渚), 임 석촌(林石村), 조 현주(趙玄洲), 홍 해봉(洪海峯)[594], 임 송리(林松里), 홍 지계(洪芝溪)[595], 금양위(錦陽尉)[596] 박공(朴公), 말선자(襪線子), 심상국(沈相國)[597] 등 정중하게 시를 지어주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고, 다들 아랫자리로 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임술년(1622, 광해 14)에 교체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팔도에 대기근이 들자 조정에서는 각도에 선유사(宣諭使)를 선발하자고 논의하였는데 문벌과 명망으로 선생을 선임하여 본도 선유사에 충원하였다. 선생이 누차 여러 소인에게 곤욕을 받은 뒤라 사직하지 못하고 개연히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고 출발하여 부지런히 직임을 수행하니, 그 지역이 그 덕에 온전히 살아날 수 있었다.

계해년(1623, 인조 1)에 새 임금이 즉위하자 조천사(朝天使)를 보내는 시를 지었다. 갑자년(1624, 인조 2)에 호조참의(戶曹參議)로 승진하였다. 선생은 일찍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매우 야위고 초췌하였지만 병을 무릅쓰고 왕명을 받들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내 돌아가셨다. 나주 북쪽 금안동(金鞍洞) 탑령(塔嶺) 손좌(巽坐) 터에 장사 지냈다.

아, 선생은 총명한 재주와 준수한 기질로 일찍이 태헌(苔軒)과 고봉(高峯)이라는 스승의 도움을 받았다. 더구나 율곡이라는 위대하신 선생의 문하에 의탁한 데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고명한 학문과 바르고 위대한 절개는 당시의 방탕한 시절에 흔들리지 않았고 번쩍이는 권세와 이익에 굽히거나 동요되지 않았다. 끝내는 적균(賊筠)과 개청(介淸)의 무리에게 굴욕을 당하고, 마침내 정 송강(鄭松江), 김 건재(金健齋), 권 만취(權晩翠)처럼 의기를 떨쳤다가 갑인년 이이첨의 무고한 옥사로 인해 매우 위험에 빠졌는데도 서궁(西宮)의 분직자(分直者)에게

---

594) 홍해봉(洪海峯): 홍명원(洪命元, 1573~1623)으로 해봉은 호이다. 본관은 남양, 자는 낙부(樂夫)이다. 인조 때 경기 관찰사를 지냈다. 저서로는『해봉집』이 있다.

595) 홍지계(洪芝溪): 홍방(洪霧, 1573~?)으로 지계는 호이다. 본관은 풍산(豊山)이고 자는 경망(景望)이다. 홍이상(洪履祥)의 아들이며, 대사헌을 지냈다.

596) 금양위(錦陽尉): 박미(朴瀰, 1592~1645)로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중연(仲淵), 호는 분서(汾西),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603년 선조의 딸 정안옹주(貞安翁主)와 혼인하여 금양위가 되었다.

597) 심상국(沈相國): 심희수(沈喜壽, 1548~1622)로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백구(伯懼), 호는 일송(一松)·수뢰루인(水雷累人),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노수신(盧守愼)의 문인으로, 1572년 문과에 급제하여 좌의정, 판중추부사, 영돈녕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일송집』이 전한다.

화답시를 보냈다. 철금(鐵金) 같은 간장(肝腸)은 구사일생의 어려움을 겪은 뒤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의 굳건한 지조와 돈독한 충의(忠義)는 모두 바른 학문에 근원하고 곧음으로 기른 호연지기에 근원한 것이니, 귀신에게 질정해도 의심이 없고 천지에 세워도 어그러짐이 없는 자이다. 홀로 상소를 받들고, 기세가 등등한 적진(賊陣)을 왕래하여 마침내 선조와 세자의 의구심을 풀어드리니, 당시 명공 현사들이 모두 추앙하였다. 이동악(李東岳) 시에서 말한 '뛰어난 기상과 곧은 생각은 바다를 삼켜 마르게 하고, 굳센 마음은 끝내 기울어진 하늘 떠받치는 기둥 되려 하네[俊氣直思呑海渴 壯心終擬柱天傾]'라는 내용이 어찌 잘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벗으로써 인을 돕고 덕으로써 이웃을 둔다는 것은 선성(先聖)의 교훈인데, 선생이 평소 교유한 이들을 보면 그의 인과 덕을 볼 수 있다. 당대에 뛰어난 문장을 가지고 보면 백호(白湖), 옥봉(玉峯), 계곡(谿谷), 택당(澤堂)과 고삐를 나란히 잡고 함께 어울릴 만하였다. 모르겠다. 삶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살아서는 당시에 곤액을 당하고 죽어서는 후세에 이름이 남지 않았으니, 선생의 불행한 운명이 어찌 이처럼 심하단 말인가.

선생은 나주나씨(羅州羅氏) 진사(進士) 지(祉)의 따님과 혼인을 했는데 송재(松齋) 세찬(世纘)의 종질녀이다. 부인은 규방 법도를 훌륭하게 지키고 집안 살림을 책임져 가족들을 화목하게 하고 내조도 많았으니, 실로 선생과 뜻이 맞는 배필이었다. 기록할 만한 언행이 많이 있지만 참고할 전적이 없어 감히 넘치게 쓰지 않고 간략하게 기록한다. 부인은 선생보다 1년 먼저 돌아가셨으며, 묘는 선생과 합장하였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정유재란에 선생이 왕사(王事)를 수행하느라 지방에 있을 때 두 아이가 왜적에게 붙잡혀갔다. 그 때문에 정사년(1617, 광해 9)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이 일본에 사신 갈 때 선생이 아들이 떠난 것을 추억하며 사신에게 시를 주었다.

오호라, 선생의 공적과 덕행으로 이러한 차마 감당하지 못할 변고를 당해 적통이 끝내 끊어졌으니, 선을 쌓으면 경사가 있다는 말은 과연 어디에서 볼 수 있단 말인가. 측실에게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유애(有厓)로 진사 참봉이다. 참봉도 후사가 없으니 비통하구나. 그렇다면 선생의 일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가문의 책임인데 겨를이 없이 지금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유감이다. 나의 종숙(宗叔) 재연(在淵) 씨가 이에 개탄하며 선부형(先父兄)께서 남긴 유고들을 모으고, 또 선생의 문집 가운데 참고할 만한 것을 골라 나[樂眞]에게 유장(遺狀)을 기초하게 하였다. 이에 기록하여 후일의 입언군자(立言君子)를 기다린다.

무신년(1788, 정조 12) 11월 남지일(南至日; 동지)에 종5세손 약진은 삼가 쓰다.

출전 : 나주의병 종합학술조사 번역팀 역

先生姓洪。諱千璟。字群玉。號盤桓。又號松磵。系出豐山。高麗國學直學諱之慶。都僉議舍人知制誥諱侃。號洪崖。卽先生之先祖也。有諱侑。三館大提學。有諱演。寶文閣大提學。寔爲公八九代祖也。至中郎將諱龜。勝國末。見時事日非。卽棄官歸鄕。路入高峰縣。遂卜居焉。易所謂見幾而作。

不竢終日者。其殆庶乎。生諱伊。在 我朝。爲南平縣令。縣令生諱樹。成川府使。府使娶瑞山鄭氏。縣監繼誠之女。卽羅州人。鄭判書初外孫也。仍居羅州金鞍洞。世爲湖南士族。高祖諱貴枝。成均生員。以文章高行。爲世所推重。名著湖南入詠詩·錦城六章歌。曾祖諱漢良。內禁衛。祖諱孝孫。參奉。贈工曹參議。考諱應福。贈禮曹參判。妣竹山安氏定國之女。先生以嘉靖癸丑生于金鞍洞水閣里第。先生生有天稟。資質純粹。材器卓異。人以仙風道骨稱之。參判公性嚴。督訓先生。自幼少時。講習於杏軒。誦讀少有不通。則輒推而擊之。先生從軒上超下。勇氣亦過人也。稍長。從學于笞軒高先生·高峰奇先生之門也。聞栗谷李先生闡明道學。大設講帳於海西。負笈徒步。往受義理之學。其非信道之篤。好善之誠。何能辦此於海山千里之遠也。栗谷先生。見其氣節豪爽。姿稟超異。甚器異之。一日。羅德明。以同鄕之人。暗懷忌疾之心。讒誣於函丈曰。洪某。以不得於父母來此。李先生心知其不然。而未斥其膚愬之端也。其後。家信先到於丈席。自丈席招。以傳其書。聽其書中之語。則有曰。自汝西上之後。不勝陟屺之心。然得賢師從學。須着跟實地工夫云云。李先生招門弟子語之曰。洪某之家書如此。羅德明前日之言。果何如也。因絕之。先生自遊大賢之門。薰陶德性。講明義理。爲己盡倫之學。終得其成就之大也。先生弱冠。嘗參進豐宴。以妙少最居末席。上座一宰相。欲占其風流好男子。令絕妙一妓擧盃。進其意中人。妓乃擧盃。回視四座。特進於先生之前。宰相曰。誠是第一風流男子。又命妓曰。今夜汝侍洪秀才。不得侍。則當有重罪。時許筠。以年少才藝。擅名洛下。見其風流獨擅之望。歸於先生。筠忌甚之心。萌於此也。妓果欲侍先生。終夜立於門外。終不開戶視之。妓乃號泣而去。先生之得其正力。於斯可見矣。栗谷嘗主試。先生以詞賦入格。及擢榜。栗谷取先生試券拔去曰。此是洪某之文也。此人將大闡甲科。宜不必汲汲於此榜也。先生信其師門之言。少不介懷也。先生於栗谷先生之喪服。心制如孔門之子夏·子貢也。歸而家居焉。時鄭介淸爲本州敎授。考講諸先生。先生恥爲介淸講徒。不肯就講。介淸囑于本州牧。撻楚先生矣。己丑。汝立之獄。介淸以其血黨。投畀極北。先生之明見確操如是也。以是。見擠於彼流。而與鄭松江。愈扶淸論。恢張公議。爲時輩所誣。松翁北遷。先生已在縲紲。松翁量移。先生又爲停擧。故許穆記言集有曰。朝議則鄭澈主之。士論則洪千璟主之。又曰。相國澈陰囑湖南士人洪千璟。釀成己丑獄。且彼所謂照鏡錄。構捏先生及松翁。罔有記極。於此可見其媢嫉之甚也。盖與朴思庵·金黃岡·沈靑陽諸賢。扶植公議。共濟時事。雖爲彼輩之所擠。而先生之道益顯矣。及其壬辰之變。金健齋千鎰。倡義旅。先生從之。聚募兵糧。把守江華。規畫方略。亦多與焉。又與同義諸公。漕運義穀三千石于龍灣。事在醒醉軒奇公日記中也。時大駕幸龍灣。王世子次肅川。而豺狼塞路。使 命不通。先生請奉王世子南下疏。晝伏夜行。穿賊窟到行在。自上特賜引對。除別座·直長之任。布衣之榮。極矣。時賊臣弘老。又上凶疏。誣罔王世子與成渾協謀分朝。鶴駕不安。莫適所駐。先生獨抗疏于龍灣。解大朝疑沮。且以任鳴皐鍊壬辰日記觀之。有曰。洪群玉昨自龍灣來。盛言天將出來。戎陳整齊。號令明肅。虜有破竹壓卵之勢也。其所往來。勤王於數千里之外。勳勞甚多。自上寵之以爵祿。賜之以丹書鐵券也。丁酉之再亂。以從事。隷都元帥權公慄幕。招檄召募。皆公手

也。戊戌十二月十二日。用林習靜子中韻。奉呈都元帥。是時。倭寇多侵南邊。先生隨都元帥。往來南徼。防塞之際。或渡濟州。登快勝樓。有詩。己亥孟春十五日。到泊楸子島。聞濟州牧李相國慶祿計。卽綴輓詞。先生年四十九。辛丑中司馬第二。【自甲午至辛丑。或停或解。】素與趙竹陰希逸。爲莫逆之交。同入會試場中。題出龍門賞雪。竹陰問曰。群玉欲以何體作之。先生答曰。欲效赤壁賦體也。竹陰曰。壯元則讓於我。君其次之。如何。先生笑而許之。及榜出。竹陰果居魁。先生副之。時人傳之爲美談。先生不愜於賊筠之所爲。嫉惡之心。自不可掩也。嘗見筠詩。以扇簸揮之。筠深啣。每當試官。輒拔去先生之文。由是蹭蹬。屢擧不中。故於漢江之渡。有詩。萬曆三十七年己酉。增廣以殿策壯元。【自辛丑至己酉。且停且解。】奏聞天朝。名播華夏。先生年五十七。雖曰晩達。其所大捷。實如栗谷先生當日之言也。榜下趙玄洲纘韓·張谿谷維·李白江敬輿。皆表著名賢。而文章則張新豐獨步當世。而先生壓頭壯元。何其壯也。由典籍爲羅州敎授兼提督。又爲南原敎授。醜正之輩。益憚先生之顯揚。以靑襟案削名之罰。揭于成均館曰。附托姦黨。戕殺大賢。姦黨指鄭松江也。大賢指崔永慶也。觀先生門人爲師訟寃之疏。鄭畸庵弘溟爲父卞誣之疏。則可知凶徒之構捏兩先生之心跡。斑斑可見也。甲寅獄。相臣韓應寅·判書申欽·藥峰徐渻·南郭朴東說·錦溪君朴東亮。同日被逮。先生亦坐繫。夢見松川梁先生。深感有詩。又有占鵲占燈吉夢等詩。而無非忠憤感慨。指天守正之語也。嗚呼。當時之事。尙忍言哉。將天地之變。斁倫亂常之輩。肆其倀鬼之惡。正人君子。多中其毒。而先生素與南流。有圓蓋方底之嫌。當此明夷之世。烏得免乎。本州金佑成·羅德潤·李有慶·羅允悌·朴文煥等。黨附爾瞻。亦憎先生。得遂構陷之計。其慍于群小。盖如此也。及放還。遺落世事。築亭于松臺澗水之上。樂其山水之趣。喜其文會之勝。與趙玄洲纘韓·林白湖悌·林石村惰·林滄浪愃·白玉峰光勳·任鳴皐鍊·郭寒碧期壽·李東岳安訥·姜睡隱沆諸賢。相交遊往來。而有題松磵亭詩。乙卯春。先生往海西。憶昔口占八韻。又有過費眼亭詩。丙辰。先生聞曺友仁以分承旨入直西宮。有賦詩。卽次其韻。曺承旨以此韻之故被謫。先生之詩。則不播於世。故幸而得免也。又有過龍城校寄書魚振衣。又有贈南郭詩。丁巳。又有挽尹海平詩。兼以文祭之。又有挽俞參判詩。戊午。瞻拜河西書院。有次權石洲韠·柳西坰韻。先生景慕河西。曠代相感發於詩律。類皆如此。又與奇醒醉軒·李東岳·曺野隱。往來於瑞石。俛仰之間。各有酬唱之詩。庚申。出爲碧沙道察訪。當時名公賢士。皆有別章。朴南郭·金北渚·林石村·趙玄洲·洪海峰·林松里·洪芝溪·錦陽尉朴公·襪線子沈相國。莫不贈言之鄭重。而皆以下屈爲惜焉。壬戌。遞歸家居焉。時八路大饑。朝議選各道宣諭之任。以地望選先生。充本道宣諭使。先生屢困群小之餘。不得辭焉。慨然登車攬轡。奉職惟勤。一路賴而全活矣。癸亥。改玉。贈送朝天使詩。甲子。陞戶曹參議。先生夙抱風霜。轉劇羸瘁。力疾拜命。旋又還家。因以考終焉。葬于州北金鞍洞塔領負巽之原。嗚呼。先生以聰明之才。淸秀之氣。早得師資於笞軒高峰。又況依歸於栗谷大先生之門乎。高明之學。正大之節。不俯仰於時世之板蕩。不屈撓於勢利之煊爀。終見辱於賊筠·介淸之徒。乃奮義於鄭松江·金健齋·權晩翠之例。深陷危於甲寅爾瞻之誣獄。而猶和詩於西宮之分直。鐵肝金腸。少不渝於九死之餘矣。其所操守之固。忠義之

篤。皆原於學問之正。根於直養之浩。則可質鬼神。可建天地者也。隻手奉疏。往來於賊陣鴟張之中。遂解兩朝之疑沮。當時名公賢士。莫不有所推重。而李東岳詩所謂俊氣直思呑海渴壯心終擬柱天傾者。豈不善形容者乎。以友輔仁。以德有隣。是先聖之訓也。而觀於先生之平日所交遊者。可知其仁其德也。至於文章之超世。其與白湖·玉峰·谿谷·澤堂。聯轡拜逐。未知其鹿在誰手。則生而阨窮於當時。死而泯沒於後世。先生之不幸於命者。何其甚耶。先生娶羅州羅氏進士祉之女。松齋世纘之從姪也。夫人閨範之懿。中饋之任。宜室宜家。而亦多內助。實爲先生之可意也。多有言行之可記者。而載籍無憑。不敢溢而略之。夫人先期年而卒。墓與先生同兆。生子二男。丁酉之亂。先生從王事在外。二兒爲倭寇所執去。故丁巳歲。吳楸灘允謙之使日本也。先生以憶子行。贈諸使星詩。嗚呼。以先生之功德。遭此不忍堪之變。而嫡嗣終闕。積善餘慶之報。果將何處見得耶。側室有一男曰。有厓。進士參奉。參奉亦無嗣。悲夫。然則闡揚先生之事者。吾一門之責也。而未遑至此。誠可憾矣。吾宗叔在淵氏。慨然於斯。拾其先父兄遺來之緖言。又撫先生文集中可考者。命樂眞草遺狀。玆以記之。以竢後之立言君子焉。戊申十一月南至日。從五世孫樂眞謹狀。

출전 :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3) 홍천경(洪千璟), 『반환선생유집(盤桓先生遺集)』 권3, 「묘갈명(墓碣銘)」

선생의 휘는 천경(千璟), 자는 군옥(羣玉), 호는 반환(盤桓), 또 다른 호는 송간(松磵), 본관은 풍산(豐山)이다. 시조 휘 지경(之慶)은 고려 장원(高麗壯元)으로 국학직학(國學直學)을 지냈고, 2세 휘 간(侃)은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을 지냈으며 문장(文章)을 지녔고 호는 홍애(洪崖)이다. 3세인 휘 유(侑)는 보문각 대제학(寶文閣大提學)이고, 4세인 휘 연(演)은 대제학(大提學)을 지냈다. 5세 휘 귀(龜)는 낭장(郎將)으로 고려 말에 관직을 버리고 고양(高陽)으로 돌아갔으니, 기미를 보는 명견이 있었다. 6세인 휘 이(伊)는 우리 조선에 들어와 남평 현령(南平縣令)이 되었다. 7세 휘 수(樹)는 성천 부사(成川府使)를 지냈다. 나주인(羅州人) 판서 정초(鄭初)의 외손 서산정씨(瑞山鄭氏) 계함(繼諴)의 딸을 아내로 맞아 마침내 나주(羅州)의 금안동(金鞍洞)에 거주하니, 자손들이 대대로 호남(湖南)의 사족(士族)이 되었다. 8세 휘 귀지(貴枝)는 생원(生員)인데 문장(文章)으로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으니, 이분이 공의 고조이다. 증조 휘 한량(漢良)은 내금위(內禁衛)이고, 조부 휘 효손(孝孫)은 참봉으로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 휘 응복(應福)은 예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죽산안씨(竹山安氏) 정국(定國)의 따님이다. 공은 가정(嘉靖) 계축년(1553, 명종 8)에 태어났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의지와 기백이 호탕하였다. 태헌(苔軒) 고공(高公)과 고봉(高峰) 기공(奇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율곡(栗谷) 이선생(李先生)이 도학(道學)을 밝혔다는 말을 듣고는 가방 메고 가서 성리학(性理學)을 배우니, 선생이 대단하게 여겼다. 약관의 나이에 진풍연(進豐宴)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한 고관이 유명한 기생에게 잔을 들어 그 의중에 있는 사람을

말하게 하였다. 기녀가 사방의 자리를 돌아보고는 특별히 공에게 나아갔다. 고관이 말하기를, "참으로 풍류남자로다." 하고는, 이어 기녀에게 명하기를, "오늘 밤 네가 홍 수재(洪秀才)를 모시거라. 모시지 못하면 중벌을 내릴 것이니라." 하였다. 기생이 공의 거처를 엿보며 밤새도록 문밖에 서 있었지만, 공이 문을 열어보지 않으니 기녀가 울면서 돌아갔다. 당시 허균(許筠)이 나이 어리고 뛰어난 재주로 서울에서 이름을 날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공에게 선두를 양보하게 되니, 매우 시기하고 질시하였다. 이때부터 공의 명성이 선비들에게 퍼졌다. 공이 어울린 이들은 모두 당대의 유명인들이었다.

정개청(鄭介淸)이 나주 교수가 되어 제생들을 고강하였는데 공이 고강에 나아가려하지 않자, 개청이 본주 목사에게 부탁하여 공을 회초리로 매질하였다. 공은 평소 개청의 사람됨을 싫어하여 엄격하게 배척하였는데, 기축년(1589, 선조 22) 옥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공의 명견에 탄복하였지만, 그 무리는 공을 매우 질시하였다. 그 때문에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기언(記言)』에 "상국 정철이 몰래 호남의 선비 홍천경을 사주하여 기축옥사를 키웠다." 하였고, 저들이 지은 「조경록(照鏡錄)」에서는 송강과 공을 심각하게 무고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공이 그를 좇아 군량미를 모으고 강화를 지켰다. 또 뜻을 같이하는 여러 사람과 의곡(義穀) 3천 섬을 배에 실어 용만(龍彎)으로 운반하였다. 행재소에 상소를 올려 세자를 모시고 남하를 청하자 임금께서 불러보시고 특별히 원종훈권(原從勳券)을 하사하셨다. 적신(賊臣) 이홍로(李弘老)가 흉악한 상소를 올려 성혼(成渾)이 세자와 분조(分朝)를 도모한다고 무고하여 상하가 서로를 의심하였다. 공만이 상소를 올리고 또 시를 지었다.

정유재란(丁酉再亂)에 종사(從事)로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 공의 막부(幕府)에 배속되었는데 격문을 쓰고 군사를 모은 것이 모두 공의 손에서 나왔다. 원수의 명으로 남쪽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 금산(錦山)에 이르러 마침내 대승을 거두었다.

공이 언젠가 허균(許筠)의 시를 보고는 부채를 흔들어 날려버리자, 균이 몹시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 매번 시관(試官)이 되면 번번이 선생의 글을 찾아 빼버렸기 때문에 불우해져 합격하지 못하다가 나이 49세에 사마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공은 평소 죽음(竹陰) 조희일(趙希逸)과 가까운 사이였다. 함께 회시장(會試場)에 들어갔는데, 시제로 「용문에서 눈을 구경하다[龍門賞雪]」가 걸렸다. 죽음이 공에게 이르기를, "어떤 문체로 지으려 하시오?" 하자, 공은 "적벽부(赤壁賦)의 문체를 따르려고 합니다." 하였다. 죽음이 "장원은 나에게 양보하고 그대는 차석을 하시오." 하자, 선생이 웃으며 허락하였다. 합격자가 발표되었는데 과연 그대로 나오자 당시 사람들이 미담으로 전하였다.

기유년(1609, 광해 1) 증광시에서 전시(殿試)에 장원하였는데 상지상(上之上)을 받았다. 합격자 명단의 조찬한(趙纘韓), 장유(張維), 이경여(李敬輿)는 모두 당대 문장으로 대학자들이었

다. 곧바로 전적(典籍)에 제수되고 나주교수(羅州敎授) 겸 제독관(提督官)으로 나갔다가 또 남원 교수에 차임되니, 공을 좋아하지 않는 일단의 무리는 더욱 공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청금안(靑衿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벌을 성균관에 게시하면서 "간악한 당에 빌붙어 대현을 죽였다."라고 하였는데, 간악한 당은 정 송강(鄭松江)을 가리키고 대현은 최영경(崔永慶)을 가리킨다. 공의 문인들이 스승을 위해 원통함을 호소하고, 송강의 아들인 정기옹(鄭崎翁)도 부친을 위해 상소를 올려 분명하게 변론하였다.

갑인년(1614, 광해 6)에 옥사가 일어나 국구(國舅) 연흥공(延興公) 김제남(金悌男)이 참화(慘禍)를 당하고, 이항복(李恒福) 공, 서성(徐渻) 공, 황신(黃愼) 공이 모두 북쪽 변방으로 유배를 갔다. 대신(臺臣) 유활(柳活)[598]과 이자완(李志完)이 고명칠신(顧命七臣)의 삭직(削職)을 청하여 어진 공경(公卿)이 일시에 체포되었는데, 공도 연루되어 옥에 갇혔다가 이내 풀려났다. 마침내 세상일을 다 잊고 소나무 누대 시냇물 가에 정자를 짓고 시 짓고 술 마시며 즐겁게 생활하였다. 여러 사람이 송간정(松磵亭)을 주제로 지은 시가 있다.

을묘년(1615, 광해 7)에 공이 해주(海州)에 갔다가 옛날을 추억하며 즉석에서 시를 지었다. 무오년(1618, 광해 10)에 또 하서서원(河西書院)을 참배하고 석주(石洲) 권필(權韠)과 유서경(柳西坰)의 시에 차운하였다. 공이 평소 하서(河西)를 우러러 사모하여 시대를 건너뛰어 감흥한 것이 이와 같았다. 경신년(1620, 광해 12)에 벽사도 찰방(碧沙道察訪)으로 나가자, 당시 명사(名士)들이 모두 시를 지어 송별하였다. 임술년(1622, 광해 14)에 교체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조정에서는 본도의 선유사(宣諭使)에 충원할 것을 의논하였다. 만 70세에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제수되었다. 80세에 집에서 돌아가셨다. 나주 북쪽 금안동(金鞍洞) 탑령(塔嶺) 손좌(巽坐) 터에 장사 지냈다.

부인은 진사(進士) 나지(羅祉)의 따님이며, 송재(松齋)의 종질녀이다. 공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며, 묘는 선생과 합장하였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장성하기도 전에 정유재란에 선생이 왕사(王事)를 수행하느라 지방에 있을 때 두 아이가 왜적에게 붙잡혀갔다. 측실에게서 아들을 보았는데 유애(有厓)로 진사 참봉이다. 참봉도 아들이 없어 공의 후사가 마침내 끊어졌으니 애석하다. 정사년(1617, 광해 9)에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이 일본에 사신 갔을 때 공이 아들이 떠난 것을 추억하며 사신에게 시를 주었는데, 들은 자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아, 공은 고명(高明)한 학문과 폭넓은 문장, 굳건한 기상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만나 여러 소인에게 곤란을 당하여 종신토록 불우한 삶을 살았다. 아름다운 국운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는

598) 유활(柳活): 1576~1641. 본관은 고흥(高興), 자는 원숙(源叔), 호는 태우(泰宇)이다. 1606년 문과에 급제하고, 지평과 경기 도사(京畿都事) 등을 역임하였다.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였다 관직이 삭탈되었다. 다시 이 일에 연루되어 경성(鏡城)에 찬배되었다가 남해(南海)로 이배되었다.

공은 이미 늙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쓰이지 못했으니, 뜻 있는 선비의 한이 참으로 끝이 없다. 두 아들도 타국에 붙잡혀가기까지 했으니 실로 인륜의 지극히 애통한 바이다. 뛰어난 재주와 훌륭한 명성을 지니고도 제사를 받지도 못하고 홀연히 사라지니, 이른바 천도(天道)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슬프도다. 공이 돌아가신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났다. 일찍이 많은 선비의 의논에 따라 월정서원(月井書院)에 배향하고, 박 사암(朴思庵), 김 황강(金黃岡), 정 송강(鄭松江), 심 손암(沈巽庵) 등 4명의 현인과 함께 제사 지냈다. 그러나 묘도(墓道)에 돌 하나 표시한 것이 없어 나주 종인(宗人)과 서로 유사(遺事)를 수집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고 같은 조상의 후손인 나[良浩]에게 글을 지어달라고 하였다. 의리상 감히 사양하지 못하여 삼가 그 대절(大節)을 차례로 쓰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스승 중에 대현 계시니	師有大賢
법도 준칙 잘 지키고	蹈繩絜尺
벗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	友有羣英
아름다운 옥구슬 같구나	鳴球戛玉
의를 선창하여 난리에 달려가	倡義赴難
천 석 곡식 바다를 운반하고	浮海千斛
간사한 사람 구별하여 배척함이	辨姦斥邪
촛불로 비추듯 거북점을 친 듯하네	燭照龜卜
웅장한 글은 마구 솟구쳐	雄辭噴湧
물이 골짜기로 흘러가는 것 같고	如水趨壑
대궐 문에서 책문에 응하니	射策天門
뛰어난 학자 가운데 으뜸이었네	名冠鴻碩
재주는 높고 운명은 각박하여	才高命蹇
모래 날리고 물여우는 엎드려 숨어 있네	飛沙伏蜮
더러는 그물에 걸리어	或繫之纼
시절에 따라 굴신하였네	與時伸抑
두 아들은 배를 타고 가서	二子乘舟
그림자 교룡과 악어에게 잠겼네	影沈蛟鰐
간장 찢어지고 눈물 마르니	腸摧眼枯
저 골육이 그립구나	念彼骨肉

백도에게 아들이 없으니[599]	伯道無兒
채녀를 누가 속환할까[600]	蔡女誰贖
황량한 작은 언덕에	荒凉短壟
쓸쓸하게 교목만 있구나	蕭瑟喬木
월정서원에 모시어	月井有祠
네 현인 함께 제사 지내네	四賢同食
혼께서는 주릴 일 없으리니	魂其無餒
나의 명을 비석에 새겼다네	我銘在石

족현손(族玄孫) 숭록대부 원임 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崇祿大夫原任吏曹判書兼板琴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양호(良浩)는 삼가 짓다.

출전 : 나주의병 종합학술조사 번역팀 역

先生諱千璟。字曰群玉。號曰盤桓。又號松磵。貫曰豐山。始祖諱曰之慶。高麗壯元國學直學。二世諱曰侃。都僉議舍人。有文章。號洪崖。三世諱侑。寶文閣大提學。四世諱演。官大提學。五世諱龜。以郎將。麗末。棄官歸高陽。有見幾之明。六世諱伊。入我朝。爲南平縣令。七世諱樹。成川府使。娶羅州人鄭判書初外孫。瑞山鄭氏繼誠之女。遂居羅之金鞍洞。子孫爲湖南士族。八世諱貴枝。生員。以文章爲世所推。是爲公高祖也。曾祖諱漢良。內禁衛。祖諱孝孫。參奉。贈工曹參議。考諱應福。贈禮曹參判。妣竹山安氏定國之女也。公生於嘉靖癸丑。天姿超異。志氣豪爽。從學于笞軒高公·高峰奇公之門。聞栗谷李先生。倡明道學。負笈往從。受性理之學。先生器異之。弱冠。嘗參進豐宴。有一高官。令一名妓擧杯。進其意中人。妓環視四座。特進於公。高官曰。誠是風流男子也。仍命其妓曰。今夜汝侍洪秀才。不者當重罰。妓瞰公居。終夜立門外。公不開視。妓泣而去。時許筠。以少年才藝。擅名洛下。見一席讓頭於公。深忌媢之。自是公名播。士類所與遊。皆一代之

599) 백도에게 …… 없으니: 백도(伯道)는 진(晉)나라 등유(鄧攸, ?~326)의 자이다. 등유가 동진으로 도망갈 때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도중에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만나 둘 다 살릴 수 없게 되자 아들은 버려두고 조카를 살렸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끝내 후사를 얻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를 두고 "하늘이 무지하여 등백도에게 아이가 없게 했다.〔天道無知 使鄧伯道無兒〕"라고 하며 안타까워하였다. 『晉書 卷90 良吏列傳 鄧攸』.

600) 채녀를 …… 속환할까: 채녀는 후한(後漢) 말 채옹(蔡邕)의 딸 채염(蔡琰)이다. 처음에 위중도(衛中道)에게 시집갔으나 자식을 두지 못하고 남편이 일찍 죽어 친정에 돌아와 있던 중 흉노에 붙들려가 12년간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다. 조조(曹操)가 채옹과의 구의(舊誼)를 생각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를 데려와 동사(董祀)에게 개가시켰다. 이에 채염은 절개 잃은 것을 상심하고 또 그 두 아들을 잊지 못하여 「호가십팔박(胡笳十八拍)」을 지었다. 『後漢書 卷84 列女列傳 董祀妻』.

勝。鄭介淸爲羅州敎授。考講諸生。公不肯就。介淸囑本州牧撻公。公素惡介淸爲人。斥之嚴。及己丑獄起。人服公之明見。而其黨嫉公甚。故許穆記言曰。相國澈陰囑湖南士人洪千璟。釀成己丑獄。有撰照鏡錄者。極構松江及公云。壬辰變起。金健齋千鎰。倡義旅。公從之。募兵糧。把守江華。又與諸公。漕運義穀三千石于龍灣。上疏行在。請奉世子南下。上召見之。特賜原從勳券。賊臣李弘老投凶疏。誣稱成渾。謀與世子分朝。上下疑沮。公獨抗疏。又有詩。丁酉再亂。以從事。隸都元帥權公慄幕。草檄召募。皆出公手。以元帥命。防塞南徼。到錦山。遂與成捷焉。公嘗見許筠詩。以扇簸之。筠深啣之。每當試官。輒物色拔之。故蹭蹬不第。年四十九。中司馬第二。公素與趙竹陰希逸善。及入會圍。題揭龍門賞雪賦。竹陰謂公曰。將何以製。公曰欲效赤壁賦也。竹陰曰。壯元則讓於我。君其次之。公笑而許之。及榜出。果然。一世傳爲美談焉。己酉增廣。魁殿試。考等上之上。榜下趙纘韓·張維·李敬輿。皆當時文章巨儒也。直授典籍。出爲羅州敎授兼提督官。又差南原敎授。一種不悅之徒。益憚公顯揚。削名靑襟錄。揭榜成均館曰。付托姦黨。戕殺大賢。姦黨指鄭松江。大賢指崔永慶也。公門人爲師訟冤。鄭畸翁亦爲父陳疏洞卞之。及甲寅獄起。國舅延興公金悌男。遘慘禍。李公恒福·徐公渻·黃公愼。俱竄北邊。臺臣柳活·李志完啓請。顧命七臣削職。賢公卿一時被逮。公亦坐繫獄。尋放還。遂遺落世事。築室于松臺磵水之上。以文酒自娛。諸公有題松磵亭詩。乙卯。公如海州。口占憶昔詩。戊午。瞻拜河西書院。次權石洲·柳西坰詩。公平生景慕河西。曠代相感如此。庚申。出爲碧沙道察訪。當時名士。皆贈詩以別。壬戌遞歸。朝議充本道宣諭使。年滿七十。除通政僉知中樞府事戶曹參議。八耋終于家。葬于州北金鞍洞塔嶺負巽之原。夫人羅氏進士祉之女也。松齋從姪也。先公卒。葬同兆。生二男。未長。丁酉之亂。公從 王事在外。二兒爲倭所俘去。側室男有厓。進士參奉。參奉亦無子。公之嗣遂絕。哀哉。丁巳歲。吳楸灘允謙之使日本也。公賦憶子行。以贈之。聞者莫不隕涕。噫。以公高明之學。宏博之文。剛正之氣。遭時艱虞。因于群小。坎壈終身。及遭運啓休明。而公已老。遂不得顯用於世。志士之恨。固已無窮。至若二子之陷於殊域。實爲人倫之至痛。而高才盛名。不祀忽諸。所謂天道之難諶者非耶。嗚呼悲夫。公之歿。已數百年。曾因多士之議。配食于月井書院。與朴思庵·金黃岡·鄭松江·沈巽庵四賢同享。而墓道無片石之表。羅州宗人。相與蒐輯遺事。圖所以不泯者。徵辭於良浩同祖之裔也。義不敢辭。謹撰次其大節。系之詩曰。

師有大賢。蹈繩絜尺。友有群英。鳴球戛玉。倡義赴難。浮海千斛。辨姦斥邪。燭照龜卜。雄辭濆湧。如水趨壑。射策天門。名冠鴻碩。才高命蹇。飛沙伏蜮。或繫之縗。與時伸抑。二子乘舟。影沈鮫鰐。腸摧眼枯。念彼骨肉。伯道無兒。蔡女誰贖。荒凉短壟。蕭瑟喬木。月井有祠。四賢同食。魂其無餒。我銘在石。族玄孫崇祿大夫原任吏曹判書兼板琴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良浩謹撰。

출전 :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4) 홍천경(洪千璟), 『반환선생유집(盤桓先生遺集)』 권3, 「행장(行狀)」

송간 선생(松磵先生) 홍공(洪公)의 휘는 천경(千璟), 자는 군옥(羣玉)으로 풍산인(豐山人)이다. 고려 직학(高麗直學) 지경(之慶)이 시조가 되며, 직학(直學)은 호가 홍애(洪崖)인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 간(侃)을 낳았다. 이때부터 고관직이 계속 나왔다. 3세와 4세 양대가 대제학을 지냈다. 중랑장(中郎將) 귀(龜)에 이르러 고려 말에 관직을 버리고 고양(高陽)으로 돌아갔다. 국조(國朝)에는 현령(縣令) 이(伊)가 있는데, 현령은 부사(府使) 수(樹)를 낳았다. 이때에 비로소 나주(羅州)의 금안동(金鞍洞)에 거주하니, 공에게는 5대조가 된다. 고조 귀지(貴枝)는 생원(生員)인데 문장(文章)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고, 증조 한량(漢良)은 내금위(內禁衛)이다. 조부 효손(孝孫)은 참봉으로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추증되고, 아버지 응복(應福)은 예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죽산안씨(竹山安氏) 정국(定國)의 따님이다. 가정(嘉靖) 계축년(1553, 명종 8)에 공을 낳았다.

공은 타고난 품성이 순수하고 기량이 탁월하였다. 참판공(參判公)은 성품이 엄격하여 공을 가르침에 반드시 법도가 있었다. 조금 장성해서는 고충렬(高忠烈)과 기문헌(奇文憲) 등 제현들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 율곡(栗谷) 선생이 해산(海山) 남쪽에서 도학(道學)을 밝혔다는 말을 듣고는 가방 메고 가서 학문을 청하니, 선생이 매우 큰 그릇이 될 것으로 여겼다. 어떤 사람이 율곡 선생에게 '공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곳에 왔다.'라고 참소하였지만, 선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후일에 참판공이 공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참소임을 알고 마침내 그 사람을 배척하니 공이 더욱 감격하여 분발하였다. 의심스럽고 어려운 것은 묻고 덕성을 훈도(薰陶)하였으며, 자신을 위하는 학문을 하고 인륜을 극진히 함으로써 한결같이 선생이 만든 법을 준행하였다. 선생의 상(喪)에 심제(心制)하여 예를 극진히 한 뒤에 석담(石潭)에 이르러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을 서글퍼하며 지은 "도학의 맥이 끊어지니 어디에 물을까. 푸른 잎에 붙어 있던 붉은 꽃잎 다 떨어졌네.[道脉廖廖何處問 紅棲綠葉落花殘]" 시구에 대해 사람들은 주자(朱子)의 서림시(西林詩)에 비견된다고 하였다.

약관의 나이에 진풍연(進豐宴)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한 고관이 소년의 아름다운 풍류를 보고자 해서 유명한 기생에게 잔을 들어 그 의중에 있는 사람을 말하게 하였다. 기녀가 사방의 자리를 돌아보고는 특별히 공에게 나아갔다. 고관이 이내 기녀에게 명하여 공의 침소에 가서 모시게 하였다. 하지만 기녀가 밤새도록 문밖에 서 있었지만 들이지 않으니 그 엄정함이 이와 같았다.

정개청(鄭介淸)이 본주 교수가 되어 제생(諸生)을 고강하였는데 공이 평소 그 사람됨을 싫어하여 고강에 나아가려 하지 않자, 개청이 본주 목사에게 부탁하여 공을 회초리로 매질하였지만, 공은 오히려 조금도 굽히지 않고 송강(松江) 정 문청(鄭文淸) 등 제공과 공도(公道)를 확장하고 맑은 의론을 부지하였다. 개청은 「절의청담(節義淸談)」 등의 글을 저술하여 '동한의 선비

들이 절의를 숭상하고[東漢節義], 진송 때의 사람들은 청담을 일삼는다.[晉宋淸談]'라고 하며 조정을 비방하고 인물을 평론하였다. 자신은 실패하고 공은 무너졌으며 사람과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면서도 스스로는 속으로 청의를 배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기축옥사로 인해 개청은 추국을 당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자의 주장이라고 하자, 송강이 준엄하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 주자를 안다고 하는가?" 하였다. 공은 이때부터 일각의 사람들에게 질시를 당하고 송강이 몰래 공을 부추겨 기축옥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였다. 송강이 북쪽 지방으로 유배 갈 때 공은 이미 옥중에 있었고, 송강의 형률(刑律)이 조정되어 배소(配所)를 옮길 때 공도 과거 응시가 정지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공은 김천일(金千鎰) 공을 따라 군량미를 모으고 강화를 지켰다. 또 의곡(義穀) 3천 섬을 배에 실어 용만(龍彎) 행재소(行在所)로 운반하였다. 세자를 모시고 남하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행재소에 이르자, 임금께서 특별히 인대(引對)하고 연이어 별좌(別座)와 직장(直長)의 직임을 제수하였다. 적신(賊臣) 이홍로(李弘老)가 상소를 올려 성혼(成渾)이 세자와 분조(分朝)를 도모한다고 무고하였다. 공이 상소를 올려 극력(極力) 주장하여 상하(上下)의 의심을 풀었다.

정유재란(丁酉再亂)에 종사(從事)로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 공의 막부(幕府)에 배속되었는데 격문을 쓰고 군사를 모은 것이 대부분 공의 손에서 나왔다. 공이 일찍이 허균(許筠)의 시를 보고는 사람됨이 비루하다고 여겨 부채를 흔들어 날려버리자, 균이 몹시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 매번 시관(試官)이 되면 번번이 선생의 답안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 누차 과거에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하다가 신축년(1601, 선조 34)에 비로소 사마시에 합격하고, 기유년(1609, 광해 1) 증광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처음에 율옹(栗翁)이 시험을 주관하였는데, 공이 사부(詞賦)로 입격(入格)하고 방목에 뽑히자, 율옹이 공의 시권을 빼 버리며 "이 사람은 갑과(甲科)에서 크게 드러날 것이니 이 방목에 급급할 필요가 없다." 하였으니, 이때에 와서 과연 그 말대로 되었다.

전적을 거쳐 나주 교수 겸 제독(提督)으로 나갔다가 이내 남원 교수로 옮기니, 좋아하지 않는 일각의 무리가 공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청금안(靑衿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벌을 성균관에 게시하면서 "간악한 당에 빌붙어 대현을 죽였다."라고 하였는데, 간악한 당은 정 송강(鄭松江)을 가리키고 대현은 최영경(崔永慶)을 가리킨다. 공의 문인과 기옹(畸翁) 정홍명(鄭弘溟) 공이 상소를 올려 무고를 변론하였다.

갑인년(1614, 광해 6)에 옥사가 일어나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이 참화(慘禍)를 당하고, 명경대부(名卿大夫)들이 거의 다 유배당했다. 공도 연루되어 옥에 갇혔다가 이내 풀려났다. 마침내 세상일을 다 잊고 소나무 누대 시냇물 가에 정자를 짓고 소요하였는데, 공이 반환(盤桓)으로 자신의 호를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위세와 재

앙으로 꺾이지 않아 승지 조우인(曺友仁)이 서궁(西宮)에 입직했다는 말을 듣고 서로 시를 지어 주었다. 조 공은 마침내 이것 때문에 귀양을 갔지만 공의 시만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경신년(1620, 광해 12)에 벽사도 찰방(碧沙道察訪)으로 나가자, 당시 명사(名士)들이 시를 지어 송별하며 애석해 마지않았다. 동악(東岳) 이 공(李公)의 시에서 말한 '뛰어난 기상과 곧은 생각은 바다를 삼켜 마르게 하고, 굳센 마음은 끝내 기운 하늘 떠받치는 기둥 되려하네.[俊氣直思呑海渴 壯心終擬柱天傾]'라는 내용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임술년(1622, 광해 14)에 교체되어 돌아왔다. 당시 국내에 대기근이 들자 공은 문벌과 명망으로 본도 선유사에 충원되었다. 부지런히 직임을 수행하니 그 지역이 그 덕에 살아날 수 있었다. 인묘(仁廟) 갑자년(1624, 인조 2)에 호조참의(戶曹參議)로 승진하였다. 공은 명을 받들었다가 이내 돌아왔는데 바로 병으로 돌아가시어 금안동(金鞍洞) 탑령(塔嶺) 손좌(巽坐) 터에 장사 지냈다.

공은 나주나씨(羅州羅氏) 진사(進士) 지(祉)의 따님과 혼인을 했는데 공보다 1년 먼저 돌아가셨다. 묘는 선생과 합장하였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정유재란에 왜적에게 포로가 끌려갔다. 측실에게서 아들을 보았는데 유애(有厓)로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참봉을 지냈다. 후사가 없다. 정묘(正廟) 기유년(1789, 정조 13)에 사림들이 본주의 월정서원(月井書院)에 뒤늦게 배향하고, 태상(太上) 갑진년(1904, 광무 8)에 금산(錦山)의 대첩단(大捷壇)에 추향(追享)하였다.

아, 공은 이미 재주와 뜻이 탁월하였으며 일찍이 귀의할 곳을 얻어 성리서(性理書)의 가르침을 받아 위로 나아가는 사업을 알았다. 조정에서 벼슬함에 있어서는 매우 노심초사하여 자리가 미천하다고 해서 차이를 두지 않았으며, 위태로운 말을 하되 외톨이라고 해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마침내 여러 소인에게 무고를 당해 치욕을 당하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후회하지 않았으니, 이 어찌 근본을 무시해서 그러했겠는가. 옛날에 자공(子貢)이 "향인이 모두 좋아하거나, 향인이 모두 미워하면 어떻습니까?[鄕人皆好之惡之何如]"라고 묻자, 공자께서 "향인 가운데 선한 자가 좋아하고 선하지 못한 자가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不如鄕人之善者好之其不善者惡之]"[601]라고 대답한 내용이 있다. 지금 살펴보건대, 공을 좋아한 이들은 박 사암(朴思庵), 정 송강(鄭松江), 김 황강(金黃岡), 심 청양(沈靑陽) 등 여러 현인이고, 공은 미워한 이들은 개청(介淸), 균(筠), 인홍(仁弘), 이첨(爾瞻) 등 여러 흉인이니, 여기에서 공이 공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결국은 네 현인과 함께 월정서원에 제향되었고 유생들이 제물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다섯 신하는 명성과 지위,

601) 『논어』「자로(子路)」 24장에 나온다.

평판과 자취에 진실로 차등이 있습니다. 양(陽)이고 음(陰)이 아니며, 백(白)이고 흑(黑)이 아니며, 선[淑]이고 악[慝]이 아닌 것이라면 일찍이 처음부터 같지 않은 적이 없어 충분히 상의하여 의견 일치를 보았으니, 후일의 평론가들이 이를 고증할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율옹(栗翁)의 문인록을 보니 실로 공의 이름이 두드려졌는데 호남(湖南)에서 도보로 해산(海山)에 이르렀다는 말에서 도를 구하는데 용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사(國史)를 보게 되어서는 또 공에게 정도를 지켜 흔들리지 않는 지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공의 종후손(從後孫) 남식(湳植)이 공의 유고와, 다른 사람들의 기록 등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선생의 덕을 기록한 글을 요청하기에, 내가 비로소 그 전말(顚末)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감히 병이 있고 문장 실력이 없다는 것으로 사양하지 못하여 다만 겉으로 드러내고 위와 같이 차례로 기술한다.

갑인년(1914) 4월 일에 덕은(德殷) 송병화(宋炳華)는 삼가 쓰다.

출전 : 나주의병 종합학술조사 번역팀 역

松磵先生洪公諱千璟。字群玉。豐山人。高麗直學之慶。爲鼻祖。直學生都僉議舍人侃。號洪崖。自是圭組相聯。連二世。爲大提學。至中郎將龜。麗末。棄官歸高陽。國朝有縣令伊。縣令生府使樹。始居羅州之金鞍洞。於公爲五世祖也。高祖貴枝。生員。文章名世。曾祖漢良。內禁衛。祖孝孫。參奉。贈工曹參議。考應福。贈禮曹參判。妣竹山安氏定國女。以嘉靖癸丑生公。公天稟純粹。材器卓異。參判公性嚴。敎公必有法度。稍長。從遊于高忠烈·奇文憲諸賢之門。聞栗谷先生。倡明道學於海山之陽。負笈請學。先生甚器異之。人有讒公於先生。以不得於父母而來。先生心知其不然。後因參判公與公書。知其讒。遂斥其人。公益自感奮。質疑問難。薰陶德性。爲已盡倫。一遵先生成法。及先生之喪。心制盡禮。後到石潭。感古傷時。有道脉寥寥何處問紅棲綠葉落花殘之句。人比之朱子西林詩云。弱冠。嘗參進豊宴。有一高官。欲占少年好風流。使名妓擧杯。進其意中人。妓環視四座。特進於公。高官仍命妓。往侍公寢。妓終夜立門外。不許入。其嚴正如此。鄭介淸爲本州敎授。考講諸生。公素惡其爲人。不肯就講。介淸囑州牧行捶。公猶不少挫。與松江鄭文淸諸公。恢張公道。扶持淸議。介淸著節義淸談等說。以爲東漢節義。晉宋淸談。非訐朝廷。臧否人物。身敗功頹。促亡人國。而不自知以陰斥淸議。己丑之獄。介淸當鞫。以爲此乃朱子說也。松江厲聲曰。汝何知朱子云云。公由是爲一邊人所媢疾。以爲松江陰囑公。以成己丑獄。當松江北遷。公已在縲紲。及松江量移。又困于停擧。壬辰亂作。公從金公千鎰。募兵糧。守江華。又漕運義穀三千石于龍灣 行在。上疏請奉世子南下。及到行在。上特賜引對。連拜別座·直長。時賊臣李弘老疏誣成渾。與世子分朝。公抗疏極論。以解上下疑沮。丁酉再亂。以從事。隸都元帥權公慄幕。草檄召募。多出公手。公嘗見許筠詩。鄙其爲人。以扇簸之。筠深啣之。每考試。輒去公券。由是累擧不利。辛丑。始中司馬。己酉。擢增廣文科壯元。始栗翁之主試。公以詞賦。入格擢榜。栗翁拔去其券曰。此人當大闡甲科。不必汲汲於此榜。至是。果驗矣。由典籍。出爲羅州敎授兼提督官。尋移南原敎授。一

種不悅之徒。憚公顯揚。削名靑襟案。揭榜泮館曰。附託姦黨。戕殺大賢。姦黨指松江。大賢指崔永慶也。公門人及畸翁鄭公弘溟。上疏卞誣。甲寅獄起。國舅金悌男。遘慘禍。而名卿大夫。放竄殆盡。公亦坐繫。己而放還。遂遺落世事。築亭盤桓于松臺澗水之上。公之又自號以盤桓者。以此。愛君憂國之念。不以威禍而自沮。聞曺承旨友仁入直西官。賦詩相贈。曺公竟以此被謫。而公詩獨不播。故得免焉。庚申。除碧沙道察訪。一時諸名勝。送之以詩。而嗟惜不已。東岳李公詩有曰。俊氣直思呑海渴。壯心終擬柱天傾。盖記實也。壬戌遞歸時。國內大饑。公以地望。充本道宣諭使。奉職惟謹。一路賴活。仁廟甲子。陞戶曹參議。公拜命旋歸。尋以疾終。葬于金鞍洞塔嶺巽坐原。公娶羅州羅氏進士祉女。先公一年卒。墓與公同兆。有二子。丁酉。爲賊所俘。側出男有厓。司馬參奉。無嗣。正廟己酉。士林追配于本州月井書院。太上甲辰。又追享于錦山大捷壇。嗚呼。公旣才志卓異。早得依歸。受性理之書。知向上事業矣。其立朝也。苦心炳炳。不以位微而有間。危言凜凜。不以跡孤而□回。卒爲群壬所構陷。屈辱厄窮。九死靡悔。是豈無其本而然哉。昔子貢問鄕人之皆好皆惡。何如。而夫子曰。不如鄕人之善者好之。其不善者惡之。今按好公者。朴思庵·鄭松江·金黃岡·沈靑陽諸賢也。惡公者。介淸·筠·仁弘·爾瞻諸凶也。於斯可見公之爲公矣。故終與四賢。并享月井。而儒生之請牲幣疏。有曰。五臣者。名位聲迹。誠有差等。其陽焉而非陰。白焉而非黑。淑焉而非慝。則未始不一。而爛燥同歸。後之尙論者。有以考之。余嘗見栗翁門人錄。實著公名。而有自湖南徒步至海山之語。知其有求道之勇。及看國史。又知公有守正不撓之操。今公從後孫湳植。以公遺稿及他記述等編。謁余狀德之文。余始得詳其始終矣。不敢以病且無文辭。特表而出之。敍次如右。甲寅四月日。德殷宋炳華謹狀。

출전 :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5) 양경우(梁慶遇), 『제호집(霽湖集)』 권9, 시화 「홍천경 낙필생풍 어가경인(洪千璟落筆生風語可警人)」

사문 홍천경(洪千璟)의 호는 반환(盤桓)이다. 어릴 적부터 문장을 업(業)으로 삼아 남쪽 지방에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운수가 기이하여 뜻이 어긋나 나이 오십이 지난 후에야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오래지 않아 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광해군 때에 전라도 벽사 찰방(碧沙察訪)이 되었다. 그때 참의(參議) 이광정(李光庭)이 분사 지조(分司地曹)[602]로서, 홍공(洪公)에게 곡식 모으는 임무를 맡겼는데, 다른 관원보다 훨씬 우수하게 곡식을 모아 그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인조반정 후에는 시대의 버림을 받아 한 관직도 지내지 못하고 죽었으니, 슬프다.

602) 분사 지조(分司地曹): 분사는 나라에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성 이외의 다른 지방에 임시로 설치하는 관아를 말하며, 지조는 호조(戶曹)이다.

그는 평생 시 짓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때때로 기특하고 힘이 있었다. 과장(科場)에서 지은 작품 같은 것은 붓을 휘두름에 바람이 이는 듯하였고, 시어는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니 또한 한 시대의 호방한 재주였다. 이 석루(李石樓) 어른이 호남을 체찰(體察)할 때에 마관(馬官)으로 수행하며 시 한 편을 그에게 올렸는데, 경련(頸聯)에 이르기를,

누각에 다시 오니 지은 시 두루 있고	重來樓閣題詩遍
산천 바라보니 일찍이 알던 모습일세	過眼山川識面曾

하였다. 이공(李公)이 시를 좋게 여기고 예로써 대우하였다.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제호집(https://db.itkc.or.kr/)

洪斯文千璟號盤桓。自少業文章。名擅南中。數奇蹉跎。五十後得司馬。又未久擢第狀元。在廢朝時。爲碧沙丞。時李參議光庭以分司地曹。差公以募粟之任。得粟最優於他員。以功陞通政。反正之後。爲時所棄。不成一官而歿。哀哉。平生喜賦詩。往往奇健。至如科場之作。落筆生風。語可驚人。亦一時豪才。石樓李爺體察湖南時。以馬官隨後。呈一詩。頸聯曰。重來樓閣題詩遍。過眼山川識面曾。李善其詩。待之以禮。

출전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제호집(https://db.itkc.or.kr/)

2. 일본 문헌 속의 사건별 나주의병 자료

1) 제2차 진주성 전투

3월 10일
(이하 주요 내용을 요약)
모쿠소성[もくそ城: 진주성을 가리킴]을 포위할 병력
7,000인: 마에다 토시이에
(이하 총 37,100인의 병력과 장수 기재)
우키타 히데이에 부대
10,000인: 우키타 히데이에
(이하 총 21,500인의 병력과 장수 기재)
25,000인: 모리 데루모토
위의 우키타 히데이에 부대 및 모리 데루모토는 제비뽑기를 하여, 모리 데루모토가 공격을

맡게 되면, 우키타 히데이에와 함께하는 병력은 성을 포위하는 임무를 맡을 것. 단 모리 데루모토가 제비를 뽑고 성을 포위한다면, 우키타 히데이에와 함께하는 병력을 포함할 것.

고도(古都: 상주라는 설과 경주라는 설로 나뉨)에 주둔할 병력
4,500인: 고니시 유키나가
(이하 총 12,500인의 병력과 장수 기재)
7,000인: 가토 기요마사
(이하 총 15,500인의 병력과 장수 기재)
3,500인: 구로다 나가마사
(이하 총 7,500인의 병력과 장수 기재)
1,300인: 모리 요시나리
(이하 총 9,600인의 병력과 장수 기재)
7,000인: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이하 총 10,800인의 병력과 장수 기재)
도합 56,000인
이상의 병력은 토다 카쓰타카가 지금까지 주둔하던 고도(古都: 토다 카쓰타카가 주둔하던 지역은 경상도 상주임)의 진소 부근을 살펴 축성할 것

부산포에서 축성을 담당할 병력
4,900인: 아사노 나가마사
(이하 총 12,600인의 병력과 장수 기재)
위의 아사노 나가마사, 마시타 나가모리는 부산포에 재진하면서, 축성을 담당할 것. 아울러 군량을 수급하여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할 것. 기후(岐阜)의 병력은 전달성(傳之城)에 주둔하고, 그 외의 병력은 축성에 임할 것.
마에노 나가야스, 가토 미쓰야스는 원래 부산포에 주둔하라고 하였으나, 우키타 히데이에가 연소하므로, 어느 곳에 주둔하더라도 이코카 치카마사와 이시다 미쓰나리 등 4인이 함께 우키타 히데이에와 한 곳에 재진하면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 만약 이상이 있다면 보고하도록 하라.

고도(古都)에서 부산포 사이의 전달성에 주둔할 병력
700인: 미야베 나가후사
(이하 총 6,000인의 병력과 장수 기재) 이외 기후 병력 중

위의 전달성에 들어가지 않는 병력은 마에다 토시이에, 가모 우지사토, 아사노 나가마사에 따라 행동할 것.
군량을 운송하여 소지하고 있는 이는 전공에 준할 것이니 스스로 이어가도록 하라. 군량이 없는 이들은 규슈(九州), 주고쿠(中國)에 한정하지 않고, 병력수대로 도착한 군량미를 아사노 나가마사, 마시타 나가모리로부터 수령할 것.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력과 병량은 이어서 보낼 것이며 이어서 도해할 것이므로, 모두 방심하지 말라.

수군 병력
1,000인: 구키 요시타카
(이하 총 8,250인의 병력과 장수 기재)
700인: 함창성: 가메이 코레노리
200인: 김해성: 모리 시게마사
170인: 부산해 및 김해성 하야카와 나가마사
총 1,070인
위의 조항들은 마에다 토시이에, 가모 우지사토 두 사람이 자세히 전달할 것이므로, 논의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1593년 3월 10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출전 : 『淺野家文書』 263

해설: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앞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3월 10일에 지시한 내용. 히데요시, 경상도 고도(상주로 추정) 부근의 축성, 부산포 주변의 축성, 상주 부산포간의 연결성[繋ぎ城]의주둔, 수군의 배치 등과 함께 진주성 공략에 관해서도 37,100명의 병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 이 명령서는 주인장의 형태로 조선에 주둔한 모든 장수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 계획은 이후 수정되어 마에다 토시이에 등의 병력은 진주성 공격에 파병되지 않았다.

4월 12일
1. 구마가야, 가키미 두 사람에게 전달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 각각의 의견을 보았다. 그렇기에 병력(파견)을 중지하고 우선 군량을 보내기로 하였다.
2. 수도(한성을 가리킴)의 병력이 퇴각하여 전 병력이 모이면, 우선 고도(古都: 상주를 가리킴)에 주둔하라고 명하였으나, 밀양에 먼저 주둔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러나 모

쿠소성(진주성을 가리킴)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일은 수행해야만 하므로, 안정된 이후에는 밀양, 고도 중 어느 곳이라도 적당한 곳을 골라 상의하여 축성하라.

3. 부산포·김해·고모카이(こもかい: 웅천)·창원에서 모쿠소성(진주성)에 이르기까지 병량 통로가 정체되지 않도록 운송로를 견고하게 만들도록 하라.
4. 모쿠소성(진주성)을 포위할 병력은 피해를 막기 위한 공성무기를 잘 만들어 두도록 하라. 지난번 공격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제1차 진주성 전투를 가리킨다: 역자 주) 성이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섬멸하도록 할 것.
5. 모쿠소성(진주성)을 섬멸할 때는 말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모두 상의하여 잘 조치할 것이며, 전략거점성 축성을 준비하라. 단 축성에 앞서 적국(赤國: 전라도)를 침공할 것인지, 아니면 성 축성을 준비한 뒤에, 말먹이를 마련하여 침공해야만 할 것인지 (나는) 나고야에서 있으면서 모두가 보낸 요청을 전해 듣고 판단하여 결정하겠다.
6. 군량에 대해서는 (그대들이) 의견을 전하기 전에 이미 명령을 내린 바이나, 군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구마가야와 가키미가 전하였으므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병력 파견을 멈추고 군량을 보낼 것이다. 군량이 잘 도착하는 대로 병력을 보낼 것이다.
7. 부산포, 고모카이(웅천)는 항구이므로, 20개 정도의 성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성에는 아래와 같은 물품을 저장해 둘 것.
   ① 철포(조총): 창고를 만들어 넣어둘 것
   ② 탄약: 위와 같음
   ③ 된장: 위와 같음
   ④ 소금: 위와 같음
   ⑤ 정어리: 위와 같음
   ⑥ 채소: 위와 같음
   ⑦ 종자

   위의 물품은 명을 내려, 성이 만들어지는 대로 보낼 것이므로, 창고를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군량 창고도 성 하나에 1만석 정도 크기로 만들어 둘 것.
8. 앓고 있는 자들이 있으므로 약사 10인을 보낼 것이다.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것.
9. 총 병력이 한 곳에 모이게 될 것이므로, 모든 전투와 축성에서 최선을 다할 것.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안이하게 행동하여 처벌받을 행위를 한다면 말 종자만 데리고 바다를 건너 처벌할 것이다. 솔직하게 보고하도록 하라.
10. 지금까지 전투에서 직접 출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뜻을 알도록 하라. 적국(전라도) 침공과 성 축성이 끝나는 대로 보고를 하라, 그에 따라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겠다.

11. 지난해부터 그곳에서 주둔하는 선원들은 추위에 지쳐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는 성이 완성되는 대로 선원들을 불러 수당을 주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므로, 이 뜻을 선원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12. 여러 차례 지시한 바와 같이, 그곳에 있는 선박은 모두 이곳으로 보내라. 군량, 병력을 보낼 것이다.

위의 조항들은 가키미가 자세히 전할 것이다.

(1593년) 4월 12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4인의 장수)

출전 : 『毛利家文書』928

4월 17일

3월 4일의 서장을 읽어 보았다.

1. 그대는 나베시마와 동행하여 수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먼 지역을 이동하였으니 걱정이 되던 바에 별일이 없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2. 왕자 형제를 데리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서 지시한 바와 같이 모쿠소성(진주성)을 포위하여 남김없이 섬멸하고, 그 후에 적국(전라도), 백국(경상도)을 침공하고, 성을 마련하고, 전략거점을 완비한 후에는, 저 왕자는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는 경비를 잘 세워서 지키도록 하라.
3. 수도에 모인 병력이 퇴각하고, 모쿠소성(진주성)을 포위하고, 공성 기구를 사용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섬멸하라는 것과 그 외의 명령들은 명령서로 만들어 보냈으니 모두 상의하여 실수 없이 시행하라.
4. 전체적으로 고려(조선을 가리킴)에서의 전투는 직접 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대들 각각의 보고 대로 지시를 내렸다. 지난해 초부터, 어디에도 대적할 만한 자들이 없다고 하는 보고를 하였으므로 가능한 대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도를 점령하여 전략적 지배를 잘 하였다면 해결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분별없이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여 잇키(一揆)(의병 봉기를 가리킴: 역자 주)가 봉기하였던 것이다. 앞으로는 잘 판단하도록 하라.
5. 위에서 지시한 대로 적국(전라도), 백국(경상도)을 정벌하고, 해안부를 점령하여 전략거점을 위한 성을 쌓고, 병력, 군량, 철포(조총), 탄약 등을 넣어두고, 한 해에 두 차례 정도 요동강(압록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을 공격한다면, 고려인들은 전의를 상실하여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 뜻을 알고 모두 상의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나즈카, 기노시타가 자세히 전할 것이다.

(1592년) 4월 17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가토 기요마사님에게

출전 : 「加藤清正宛豊臣秀吉朱印判物集」18 (『天理圖書館善本叢書 和書之部』 68卷 古文書集)

東京大學 史料編纂所 謄寫本 2071.08-5

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略』, 吉川弘文館, 2006, 178쪽

4월 22일

3월 23일의 서장을 보았다. (모리) 데루모토가 부산포에 가서 항구에 번선(番船: 조선 수군을 가리킴) 방어용 성을 5~6개소 만들었다고 하니 기쁘다. 가덕도 성을 완성했다는 소식도 또한 좋다. 몇 차례 지시한 바와 같이 수도의 병력이 퇴각하는 대로 모쿠소성(진주성) 포위와 공성용 시설 이하를 잘 만들어서 모두 섬멸하고, 그 후 적국(전라도), 백국(경상도)을 정벌하고, 전략거점성을 만들도록 하라. 군량에 대해서는 이어서 보낼 것이다. 실수나 방심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대가 선박들 보낸 것은 잘 하였다. 군량이 무사히 도착하는 대로 병력도 보낼 것이다. 이를 알고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라.

자세한 내용은 나즈카, 기노시타, 데라자와가 전할 것이다.

(1592년) 4월 22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아사노 나가마사님에게

출전 : 『淺野家文書』 85

지난 3일의 서장 및 야나기사와 산자에몬노죠가 전한 보고 내용을 전해 들었다. 번선(조선 수군의 군함)을 수비하기 위해 부산포에 가서 항구에 성을 만들게 하여,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였다는 소식,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와 함께 모리 모토야스, 깃카와 히로이에를 주둔하게 하였다는 것은 잘 하였다. 전달성(傳城)인 선산, 인동에 병력이 없어서 한 곳을 접수했다는 것도 잘 하였다. 수도(한성) 병력의 퇴각 과정의 일도 잘 하였다. 아울러 가덕도의 성을 준비했다니, 고생이 많았다. 기쁘게 생각한다.

수도의 병력이 퇴각하는 대로 앞서 지시하였듯이 모두가 상의하여 모쿠소성(진주성)을 포위한 후, 공성 기구와 무기로 공격하여 무너뜨리도록 하라. 그 후에 적국(전라도), 백국(경상도) 공격은 모두의 논의에 따라 실행하도록 하라.

자세한 사항은 야나기사와가 전할 것이다.

비단 다섯 묶음을 보내주어 기쁘게 생각한다. 나즈카와 기노시타가 전할 것이다.

(1593년) 4월 22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모리 데루모토님에게

출전 : 『毛利家文書』 892

4월 28일

그대가 부산포에 와서 항구의 성들을 여러 곳 축성하여 이제 완성하였다는 소식 기쁘게 생각한다. 모두들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양생(養生)을 위해 의사를 보내줄 것이므로 잘 양생하도록 하라. 수도의 병력이 퇴각하는 대로 모쿠소성(진주성)을 포위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대는 병력을 깃카와 히로이에에게 합해서 보내고, 그대 자신은 2천 명 정도 병력을 가지고 부산포에 주둔하면서 마에노 나가야스, 마시타 나가모리와 상의하여 수비하도록 하라. 그곳에서 양생이 어렵다면 나고야(名護屋)로 돌아와서라도 양생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아사노 나가마사와 구로다 요시타카가 전할 것이다.

(1593년) 4월 2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모리 데루모토님에게

출전 : 『毛利家文書』 893

5월 20일

모쿠소성(진주성)을 포위할 병력에 관한 일

7,642명	나베시마 나오시게
5,082명	구로다 나가마사
6,790명	가토 기요마사,사가라 요리후사
1,671명	모리 요시나리
2,128명	시마즈 요시히로
741명	다카하시 모토타네
388명	아키츠키 타네나가
476명	시마즈 타다토요
706명	이토 스케타카
총 30,980명(개별 병력의 합은 24,918명이다: 역자 주)	
7,415명	고니시 유키나가, 소 요시토시, 마쓰라 시게노부, 오무라 요시아키, 고토 스미하루, 아리마 하루노부
2,470명	하세가와 히데카즈
2,296명	호소카와 타다오키
4,400명	창원의 11인 부대
4,000명	아사노 나가마사, 아사노 요시나가
4,018명	오다 히데노부
1,258명	다테 마사무네
325명	구로다 요시타카

총 52,000명
(두 번째 병력의 합은 26,182명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병력을 합하면 51,806명이다: 역자 주)

一備	
7,785명	우키타 히데이에
1,646명	이시다 미쓰나리
1,535명	오타니 요시쓰구
1,823명	기무라 시게코레, 오타 한지,(구마가야 나오모리?), 야마다 토조
638명	이나바 사다미치
363명	아카시 노리자네
370명	사이무라 마사히로
313명	벳부 요시하루
406명	히토쓰야나기 카유
246명	다케나카 시게토시
693명	핫토리 카즈타다
340명	다니 모리토모
298명	이시카와 사다미치
912명	미야베 나가후사
201명	가키야 쓰네후사
803명	난조 모토키요
450명	기노시타 시게카타

총 18,822명

一備 이 외의 3천 명은 모리 데루모토와 함께 부산포에 주둔하면서 축성에 임할 것	
13,600명	모리 데루모토

이상

6,596명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400명	고바야카와 히데카네
1,133명	다치바나 무네시게
288명	다카하시 나오쓰구
327명	치쿠시 히로카도

이상 8,740명(각 병력의 합계는 21,185명이다: 역자 주)
총 22,350명(모리 데루모토의 병력과 위 5인의 병력을 합한 수이다)

위의 두 부대[二備] 병력은 제비뽑기를 하라. 모리 데루모토, 고바야카게 다카카게 부대가 당첨이 되면, 우키타 히데이에 부대는 진주성 포위 부대에 합류하라. 그러나 우키타 히데이에 부대가 당첨이 된다면 모리 데루모토, 고바야카게 다카카게 부대가 진주성 포위 부대에 가담하라.

1. 진주성 포위 건은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각종 공성 무기(築山, 仕寄, 竹束)를 사용하여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도록 하라. 소홀한 행동을 하는 자는 처벌할 것이다.
1. 김해에서 진주성 사이에 연결성을 만들어야 한다면 창원 11인 부대의 물품을 넣어두도록 하라.

(중략)

총 병력 121,870명
(이 중 진주성 공격 예정 병력은 92,972명에서 3,000명을 제외한 89,972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자 주)
1593년 5월 20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출전 : 『島津家文書』 955

해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현지의 여러 일본 장수들의 보고를 받은 후, 진주성 공격 부대를 조정하였다. 이 부대편성은 한성에 모여 있던 일본군의 남하를 상정한 것으로, 주로 교토를 기준으로 서쪽에 영지를 가지고 있던 다이묘로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대는 크게 네 부대로 나눌 수 있다. 나베시마 나오시게 이하의 25,000여 병력과 고니시 유키나가 이하 27,000여 명, 우키타 히데이에 이하 18,000여 명, 그리고 모리 데루모토의 병력 등 22,000여 명의 병력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대는 제비뽑기를 하여 그중 한 부대만이 진주성 공격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요컨대 주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대였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대는 예비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대가 성을 포위 공격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바깥쪽에 포위망을 형성하여 전투에 대비하되, 제비뽑기를 하여 그중 한 부대가 교대로 공격에 참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모리 데루모토 자신은 히데요시 명령에 의해 부산에 머물면서 축성을 담당했다. 또한 그의 병력 중 3,000명은 부산에서 축성을 담당할 병력으로 차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월 22일

서장을 받아보았다. 대명국(大明國)의 칙사가 왔다. 그러나 화평 건은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화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강화교섭에 구애받

지 말고 앞서 명령한 바와 같이 모쿠소성(진주성)을 포위하여 남김없이 섬멸하고, 이후 축성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장기간 주둔하면서 피로해진 (退屈) 이들에 대해서는, 도해하여 교체해줄 것이므로 그 뜻을 알도록 하라.

(추신: 화의(御無事)에 대한 일은 조항을 갖추어 대명(大明)에 보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 (화의)에 따를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화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수도와 그 외 지역의 병력이 한 곳에 모여 있으므로, 전투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이다. 피로해진 (退屈) 이들은 (내가) 직접 도해하여 교체할 것이다. 한 차례 교토(京都)에 갔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일이다. 현재도 조금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상)

(1593년) 5월 22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출전 : 『毛利家文書』 898 ; 『小早川家文書』 301

6월 11일

1. 이번 진주 전투에 있어, 전공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성전을 하기 위한 도구의 제작이나, 주야의 경비 등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이번에 전공을 세우는 경우나, 도구의 제작, 警備 등에 있어서나, 남보다 뛰어난 자는 5석·3석을 받는 무사는 5백·3백석 급의 신분이 될 것이고, 그 이상의 무사는 신분에 따라 한층 더 높은 신분이 될 것이다.
3. 지금까지 남에게 배를 가르게 한 적은 없었으나, 이번에 생각 없이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치만대보살(의 이름으로) 배를 가르게 할 것이다.
4. 이번에는 상하가 함께 경비를 서거나, 도구를 제작하는 일 등을 할 때, 솔선하여 손발을 더럽히려 하지 않는 자는 겁쟁이로 보고 처단할 것이다.

1593년 6월 11일 가토 기요마사의 條書

출전 : 『九鬼文書』 13

6월 일

(1차 진주성 전투) 이후에 도해한 가토 도오토미노가미·나가오카 엣추노가미·하세가와도고로·기무라 히타치노스케·오노기 누이노도노료·마키무라 효부타유·가스야 나이젠노죠, 이상의 7인이 논의하여 진주성을 공격하기로 하여 무릇 1만 3천여 인의 병력을 이끌고 참전했다. 왕성에서 진주까지 행로는 4일 정도였다. 진주성은 조선 제일의 명성(名城)이다. 게다가 조선의 황제가 왕도를 떠날 때에 기자로부터 전래 받은 조선 대대의 보물을 이 성에 안치해 두었고, 방비를 견고히 하기 위해 강병 2만 명을 주둔시켰다. 특히 이 성의 대장인 목사는 맹장이기에 쉽게 함락할 수 없었다. 7인의 장수들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성 안의 병력을 소수

로 판단하여 가벼이 보고 성 밑으로 전진했다. 7인은 모두 동급의 장수였기에 명령을 듣지 않고 각자 선봉이 되어 전공을 올리고자 했다. 성 안에서는 (일본군이) 적은 수임을 보고 문을 열고 나와 공격하였고 치열하게 싸우자 일본군은 전열이 흩어졌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시간은 미시(未時)가 지나고 있었고, 선봉에 휴식을 주고자 하자, 성 안에서는 여세를 몰아 네 곳의 문으로부터 한꺼번에 병력을 보내어 일본군은 모두 후퇴하게 되는데 길이 막히어 죽은 자가 셀 수 없었다. 7인의 장수는 겨우 목숨만을 구하여 창원성까지 후퇴했다.

(2차 진주성 전투) 6월 초, (일본군) 대장들은 태합(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진주성(원문에는 모쿠소성)을 공격했다. 가토와 고니시를 선봉으로 하여, 구로다 나가마사, 아사노 나가마사가 가세하여, 이 네 명이 정문을 맡았다. 서쪽은 모리 히데모토를 대장으로 하여,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다테 마사무네, 그 외 제 장수가 다수 포진되었다. 동쪽은 우키타 히데이에를 대장으로 시마즈 요시히로 · 나베시마 나오시게 · 조소카베 모토치카 · 하치스카 이에마사 · 다치바다 무네시게 등이 합류했다. 도합 6만여 명이었다. 제 장수들의 공격지점은 제비뽑기로 정했다.

진주성 앞에는 큰 강이 있다. 삼면은 험한 석벽이었고 견고한 방어탑이 있었다. 내부에는 목사 김시민(당시 진주목사는 서예원이었음: 역자 주)이라는 조선 제일의 명장이 있었고 강한 병사 2만이 주둔하고 있어 쉽게 함락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나무다발, 공성용 사다리, 갈퀴, 방패 등을 갖추어 성벽을 공격하고 대포와 조총을 끊임없이 쏘았다. 성 안에는 이에 아랑곳없이 여러 정예병으로 하여금 화살을 일제히 사격하니 성을 공격하던 병사들 중 죽거나 다친 이가 수백에 달했다. 공성하는 병사를 교체하여 투입하자 농성하는 병사도 교체하여 방어했다.

15일 밤낮을 공격하여 방어선을 점점 무너트렸고 성 바로 아래까지 접근했다. 이때 성 안에서는 불화살과 돌이 날아왔다. 방패가 부수어지고 그 틈을 반궁(半弓)이 비처럼 날아들었다. 목사는 뛰어난 명장이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방어했기에 공성 측에서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정문 뒤편의 공격 지점 좌측은 가토 기요마사, 우측은 구로다 나가마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가토와 구로다는 평생 교분이 깊었다. 두 사람은 논의하여 이 성을 가장 먼저 공략하여 큰 공을 세우자고 하여 공성을 위한 준비를 하여 성벽까지 접근했다. 성에 오르기 위해서 풀을 모아 성벽 아래에 쌓자, 성 안에서는 불을 놓아 모두 태워버렸다.

이때 방어탑 성벽의 돌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이 보였다. 가토 기요마사와 구로다 나가마사는 거북이 등껍질이라는 수레를 만들어(龜甲車) 성벽의 돌을 부수고자 했다. 이 기구는 수레의 형태를 닮았는데, 위에는 거북 등껍질과 같이 중간을 높다랗게 하고, 나무를 두껍게 하여 견고하게 꾸미고, 아래는 바퀴를 네 군데에 만들고, 위에는 소의 생가죽을 아래로 틸이 가게

하여 둘러싸서 불이 붙지 않도록 했다. 안쪽에는 사람이 들어갔다. 뒤에는 길고 굵은 줄을 달아서, 성 안에서 불을 던져 불이 붙었거나 큰 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벽이 무너졌을 경우, 줄을 잡아 당겨 후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에 들어간 사람은 철정(鐵梃)을 밀어 성벽까지 접근하고 철정으로 성벽을 무너트릴 수 있게 했다. 이는 손자(병법)의 분온차(轒轀車)와 닮았다. 군서에는 예부터 공성에 사용했다고 하나 일본이 사용한 일은 처음이었다.

6월 29일, 구로다 나가마사와 가토 기요마사는 이 귀갑차를 가지고 성을 공략하기로 하였다. 구로다 나가마사 측은 고토, 니노미야 (중략) 등을 귀갑차에 들어가게 하여 성벽 구석 가까이의 돌을 지렛대로 꺼내어 무너트리기 위해 돌을 빼내었는데, 여기서 7~8간 정도의 돌을 빼내고 구석의 돌을 하나 빼내자 크게 무너지려 했다. 가토와 구로다 양측에 있던 곳이 일제히 무너지면 동시에 성에 오르고자, 사람을 보내 이를 알렸고 (중략) 양측의 사자가 높이 외치자 지렛대로 구석 돌을 꺼냈다. 구로다 나가마사 담당구역은 사자가 있는 곳에서 약간 멀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조금 늦었다. 그러나 구로다 담당구역의 성벽이 무너지자 바로 방어탑이 무너졌고, 성 안은 혼란해졌다.

구로다와 가토는 급히 성에 오르려고 병졸을 전진시켰다. 이때 첫 번째로 성벽에 오르고자 벼르던 이들이 많았다. 구로다 나가마사의 가신 중에서는 고토 마타베·노무라 타로베·호리 큐시치(후에 히라에몬으로 칭함)·쓰네야 요사에몬 (중략) 등, 무릇 10인이 나섰다. (노무라·고토·호리·다케이는 모두 누구를 전후라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호리가 등에 꽂은 '깃발'이 눈에 잘 띄어서 이름이 높아졌다. 가토 진영에서도 모리모토 기다유, 이이다 가쿠베에 등이 함께 올랐다. 구로다 나가마사가 성에 들어오고 이어서 가토 기요마사가 들어왔다.)

그 후 전 병력이 차례로 모두 들어와 전투가 벌어졌고 끝내 성을 함락했다. 무릇 성 안의 병사는 총에 맞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고, 혹은 성 앞의 큰 강에 뛰어들어 익사한 자가 많았다. 성주목사는 말할 나위 없는 맹장이었는데, 한쪽 성문을 열고 병사 두 명을 데리고 창을 지니고 돌격하는 것을, 우키타 히데이에의 가신, 오카모토 곤노스케라는 자가 맞붙어 서로 창으로 맞섰다. (목사는 창으로 맞섰으나) 전투에 지쳐 퇴각하여 성문을 닫았다.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 곤노스케가 따라 들어갔다. 나무 등걸에서 숨을 돌리고 있는 목사를 곤노스케가 칼을 뽑아 머리를 베었다. 이곳은 한쪽이 벼랑이었는데 목사의 머리가 아래 풀숲으로 떨어졌다. (중략) 곤노스케는 목사의 머리를 들고 돌아왔다. 곤노스케는 이를 검증하려고 했다. 생포된 이들이 이를 보고 의심 없이 대장 목사의 머리라고 하여, 우키타 히데이에는 기뻐하며 소금에 절여서 오카모토 곤노스케에 달려 일본에 보내 태합에게 헌상했다. (중략) 이때 적(조선인) 중에서 죽은 자는 잡인을 포함하여 6만여 인이었고, 소와 말도 남김없이 죽였다. 성 안에서 죽음을 피한 이는 겨우 몇 명뿐이었다.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때까지 이 전투만큼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었다.

(주석 내용) 『징비록』을 고찰하니, 진주성 성주인 목사는 조선왕의 신하 김시민이라는 자이다. 앞서 이 성을 일본군 장수들이 공격하였다가 실패하고 패퇴하였는데, 히데요시 공이 원한이 남아, 화의가 진행 중임에도 장수들에게 모두 이곳으로 향하여 함락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성 아래에 접근한 지 8일 후에 함락되었다. 또 목사 서예원, 판관 성수침이라는 자도 함께 이 성에서 죽었다. 세간에는 목사, 판관이 한 사람인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오류이다. 서예원은 처음에 김해성 성주였으나, 나가마사에게 성을 빼앗긴 후, 도망쳐서 진주성에 들어갔고 이때 죽었다. 이 사람은 오카모토 콘노스케가 죽인 진주성 성주는 아니다.
(주석 내용) 이때 나가마사의 가신 노구치 토구로가 성 안으로 진입하여, 6척이 넘는 조선인과 맞붙게 되었는데, 그 조선인은 강력한 힘으로 토쿠로를 잡아 제압하였는데, 토쿠로는 잡힌 중에도 와키자시를 빼내서 조선인의 옆구리를 찔렀다. 전세가 역전되어 목을 베었다.
이쿠타 기야노스케는 성 안에 돌입하자 조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반궁으로 쏘았다. 기야노스제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쏜 조선인을 창으로 찌르고 목을 베었다. 그 외에도 나가마사 가신 중에는 이름 높은 공을 세운 자들이 많았다.
(중략)
(곤노스케는 일본 나고야로 가서 태합을 만났다. 태합은 다른 나라 제일의 명장 목사를 머리를 베어 가지고 온 큰 공을 세웠다고 칭찬하며, 입고 있던 옷과 칼을 내렸다고 한다)

출전 : 『黒田家譜』 권7 나가마사기(長政記) (일부 의역이 있음)

해설: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주역으로 참여한 나주의병의 활약이 적인 일본군의 눈에도 매우 인상 깊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 측 기록임을 감안하여 사실 관계를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잔인한 장면도 있으나 일본군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자료로서 가감 없이 옮겼음을 밝힌다.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하다. 모쿠소(목사를 발음 그대로 옮긴 것: 역자 주) 판관을 강으로 몰아붙여 죽이고 그 목을 일본에 보내다.
기요마사는 도성에서 퇴각하여 13일째 되는 날에 부산포 왼쪽 3리 내륙에 도착하여, 자신의 영역인 양산과 김해에 성을 쌓았다. 그 뒤, 5월 중순에 양산에서 나온 가토 기요마사는 제1진으로 모쿠소 판관의 성에 도착하였고, 다른 부대들도 차례로 도착하였다. 다이코(태합)의 대리 우키타 히데이에, 감시역 아사노 나가마사를 비롯한 전 부대가 진주성을 포위하고 대나무 다발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여 50일 밤낮을 공격하였다. 그런 중에, 가토 기요마사와 구로다 나가마사가 함께 공격해주면 좋겠다는 구로다 요시타카의 부탁에 따라 두 장군의 부대를 합쳐서, 15일 째에는 기요마사 측에서 3명, 나가마사 측에서 3명을 뽑아 지렛대 무기를

이용하여 진주성벽 모퉁이의 큰 돌을 뽑아내서 무너뜨렸다. 그리하여 기요마사의 부하인 모리모토 기다유와 이이다 가쿠베가 제일 먼저 성 안으로 진입하고, 세 번째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이어서 모든 가토 부대원이 입성한 뒤, 구로다 나가마사 부대도 함께 공격해 들어갔다. 이를 본 일본군 전 부대도 저항을 받지 않고 입성하였다. 이에 모쿠소 판관은 강물 속에 숨었으나 하류에서 목이 베였다. 일본군의 3분의 1이 성 안에서 적군의 목을 베었다. 당인(唐人은 여기서는 조선인을 가리킴: 역자 주)들은 일본군의 칼을 무서워하여 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이들을 모두 건져내어 목을 베었다.
이날 고니시 유키나가는 자신의 진영에서 빠른 배를 일본으로 보내어, 진주성에 제일 먼저 쳐들어간 것은 자신이라고 태합에게 보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태합이 "유키나가가 제1착이었는가. 기요마사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분개하자, 이에야스 공이 "기요마사가 알몸에 갑옷만 입고 제일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 모쿠소 판관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고 강으로 뛰어들어가 숨었는데, 그 목을 기요마사가 강 하류에서 베었다는 항설이 있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 번 잘 청취하소서"라고 거듭거듭 중재하였다. 태합의 어전에서 한 말씀이다. 한편 진주성을 함락한 다음 날 우키타 히데이에와 아사노 나가마사가 다이묘들을 소집하여 태합에게 보낼 보고서를 기록하였다. 다이묘들은 모두 기요마사가 제일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아사노 나가마사가 전원의 서명을 요청하자 다이묘들은 모두 이에 응하여, 보고서의 날짜 뒤에 우키타 히데이에가 서명한 다음 전원이 차례로 서명하였다. 그렇게 하여 작성된 보고서가 일본 나고야에 보내져서 태합이 이를 보았으니, 이로써 이에야스의 중재가 거짓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고, 진주성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갔는지를 두고 가토 기요마사와 언쟁하는 사람도 없었다. 출전 : 『(기요마사 고려진 비망록)淸正高麗陣覺書』[603]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일본군 대군이 진주성으로 모여들어 포위) 나베시마 나오시게 공이 건너 진주성에 접근하려 할 때, 다른 장수들이 진주성을 한참 공격하는 중이었다. 이때 (나베시마가의 가신) 나리도미 주에몬이 서생포에서 배를 타고 진주로 향하는데, 해상에서 조선 수군과 만나 전투를 벌였다. (중략) 나오시게 공은 진주성에 접근하던 중 복병을 만났으나 부하가 물리쳤다. 나베시마 공이 진주성에 도착하여, 시마즈, 다치바나, 하치스카 등과 함께 서쪽 문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했다. (중략) 진주성은 조선 제일의 요해지로 목사 장군 서예원이 병사 2만여 명을 두고 지키고 있었고, (명군 장수) 유정이라는 자가 이 성을 응

603) 김시덕, 「『기요마사 고려진 비망록』의 해제 및 번역(中)」, 『문헌과 해석』 54, 2011의 번역을 이용하였음.

원하기 위해 대구부에서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장수들은 앞서 (1차 진주성 전투의) 수치를 설욕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밤낮으로 대나무묶음, 방패, 사다리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공략하였으나, 성 안에서는 반궁(半弓)을 비 오듯 쏘고, 끓는 쇳물을 붓고, 횃불을 던져 방어하여 10여 일이 지나도 성이 함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토 기요마사가 모략을 짜내어 거북등갑이라 이름을 붙인 기구를 만들었는데, 소가죽을 뒤집어서 씌우고 가벼운 무장을 한 병사를 태우고 아래에는 수레를 붙인 기구였다. 병사 수백 인을 그 안에 태워 성벽에 붙이자, 불화살을 쏘아도 불에 타지 않았고, 끓는 쇳물에도 손상되지 않았다. 수백 명이 함께 성벽에 붙어 성벽 4~5칸을 무너트리자, 이때부터 가토 기요마사의 부하인 이이다 가쿠베에, 모리모토 기다유, 그리고 구로다 나가마사의 부하인 고토 마타베에, 모리히 사시치로가 침입하였고, 끝내 함락했다. 대장 목사 장군 서예원은 숨어 있었으나 히데이에의 부하 오카모토 곤도스케가 발견하여 끌어내 목을 베었다. 일본인들은 이 성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이를 훔치려 하자, 성에서는 급히 성에 불을 질러 수천 년 전해지는 고대의 보물이 재가 되었다. 이 성에서 목사를 비롯하여, 1만 5천 3백여 급의 목을 베었다.
(이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출전 : 『直茂公譜考補』(본문)

진주성을 함락한 후 머리를 벤 것이 2만 5천여였다. (나베시마) 공은 창원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길을 가던 중에 복병을 만났으나, 부하 병사들이 철포를 쏘아서 격퇴했다. 수 개의 수급을 가지고 돌아왔다.

출전 : 『普聞集』

류조지 로쿠로지로는 부산포에서 진주에 도착하여 성의 동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었다. 가토 기요마사가 계략으로 성벽을 허물자 성에 들어갔다. 우리 가문의 사졸들이 연이어 앞을 다투었고 로쿠로지로도 무리의 앞에 서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로쿠로지로 등 성 안에 먼저 진입하여 공을 세운 자도 있고, 성 안으로 진입하다 화살에 맞아 죽은 이도 있었다. (가문에서) 죽은 이는 수십 인이었다.

출전 : 『多久戰功記』

이 성이 함락될 때, 나오시게 공에게 나이 12~13세 정도로 보이는 관인의 아이가 포로로 잡혀왔다. 공이 가엽게 여겨 옆에 두었다가 (일본으로) 돌아올 때 데리고 왔다. 그 아이는 글쓰기를 잘했다. 홍(洪)씨라는 관인의 아이라 홍연(洪然)이라고 불렀다(일명 雲海). 공이 깊이 아껴서 사가성 아래에 거주하게 하고 평생 동안 가까이 두었다. (중략)
홍호연은 조선 전라도(역자 주: 일본군은 진주가 적국(赤國), 즉 전라도에 속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진주성의 관인의 아들이다. 부친의 이름은 모르며, 모친은 이씨라고 한다. 홍씨는 조선의 유명한 성이다. 혹자는 산 속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 사람을 시켜 수색하게

하니, 아이 하나가 큰 붓을 메고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개가 짖고 있었다고 한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하략)

출전 : 『洪然由來記』

이상, 『直茂公譜考補』8 (佐賀縣近世史料 제1편 제1권)에서 인용

7월 5일

명나라의 칙사에 대해 '7개 조건'을 제시했으므로 답신을 기다리고 있음.

진주성이 함락되었고, 조선에서의 전략적 점령 조치(御仕置き)가 정리되는 대로 전쟁을 종결할 것이다.

(1593년 7월 5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마루 나오마사에게 내린 명령서)

출전 : 『田丸文書』

7월 7일, 조선으로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사타케 요시노부 진영에 '좋은 소식(吉左右)'이 전달됨. 모쿠소성(진주성)을 함락하여 수급 3천을 얻었고, 따라서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전달받았기에 출항을 연기하였음.

출전 : 『大和田重清日記』

해설: 제2차 진주성 전투의 결과와 '전공'에 대한 보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해진 것이 늦어도 1593년 7월 5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월 7일

칙서를 받들었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 조항을 만들어 대명(大明)의 두 사신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반드시 회답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국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달 29일 목소성(木蘇城: 진주성을 가리킴)에 돌입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점략거점성 축성을 지시했습니다. (후략)

(1593년) 7월 7일

히데요시(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화압)

기쿠테이 우다이진님(菊亭右大臣展)

출전 : 『思文閣墨蹟資料目録』 44

해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천황'에게 진주성 전과와 명나라 사절에 관한 건을 보고하였다.

7월 8일

진주 낙성(落城)에 급히 사신을 보내주시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점령 조치 등은 모두의 논

의에 따라 오늘 창원까지 진군하였습니다. 이시다 미쓰나리, 오타니 요시쓰구, 마시타 나가모리도 도착할 것이므로, 상황은 이에 따라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 소식을 기약하겠습니다.
(1593년) 7월 8일 (우키타 히데이에 인장)
시마즈 요시히로 님에게 답신

출전 : 『島津家文書』 1754

7월 11일
우키타 히데이에와 고니시 유키나가가 각각 '목사의 머리'와 '대장급의 머리'를 바쳤다며 기뻐함.
(1593년) 7월 11일
우키다 히데이에에게 보낸 히데요시의 명령서

출전 : 東京大學史料編纂所寫本, 「江藤本 黑田文書」

7월 13일
지난 6일의 서장을 야나기사와 산자에몬이 오늘 13일에 가지고 왔다. 진주성을 함락하고 비로소 목사(진주목사를 가리킴)를 벤 일은 매우 기쁘다. 점령 조치를 위한 축성은 수군에게 맡겼으므로, 그대가 맡은 일은 앞서 지시한 대로 구마가야, 가키미에게 맡기라. 지난 봄에 모리 히데모토를 보낸 것은 그대와 교체하기 위해서였으므로, 빨리 종자 2, 3백 명을 데리고 귀환하라. 부하들은 2번으로 나눠 축성 공사가 끝내면 돌아오게 하라. 모리 히데모토에게는 깃카와와 그 외에 믿을만한 이를 붙여서 성에 주둔하게 하라. 축성이 급하므로, 몸이 좋지 않으면, 순풍을 기다려 빨리 나고야(名護屋)까지라도 돌아오라. 또한 그런 중에 부산포 축성을 지시한 것은 매우 노고가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제야쿠인, 나즈카, 기노시타가 전할 것이다.
(추신: 그대는 귀환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성주 대리 임무를 맡은 이들 사세(佐世), 야나기사와를 비롯한 이들이 여러 일을 잘 처리하였는데 그대가 지시한 것이라고 하였다. 감사히 생각한다. 이상)
(1593년) 7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모리 데루모토 님에게

출전 : 『毛利家文書』 917 ; 『嚴島文書』 91

지난 4일의 서장을 오늘 13일에 받아보았다. 지난달 29일에 진주성을 무너뜨리고 모두 섬멸했으며, 그대는 우케테[請手]였음에도 공격에 임하여 천여 명을 사살하거나 사로잡았다는 소식 기쁘게 생각한다. 다음날 진을 교체하여 전투에 임하여 남김없이 방화한 일은 매우 잘하였다. (이하 왜성을 축성한 후 귀국하라는 내용)

출전 : 『小早川家文書』 349

지난 4일의 서장을 오늘 13일에 받아보았다. 진주성을 무너뜨리고, 비로소 목사(와) 모두를 토포(討捕)하였고, 그대는 우케테[請手]였음에도 공격에 임하여 천여 명을 사살하거나 사로잡았다는 소식 기쁘게 생각한다. 그곳의 점령 조치는 앞서 문서로 명령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축성을 잘 지시하라. 모리 데루모토는 피로가 쌓여 귀환하라고 하였다. 그대는 젊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분골쇄신하라. 자세한 내용은 나즈카 마사이에와 기노시타 요시타카가 전할 것이다.
(1593년) 7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모리 히데모토 님에게 출전 : 「長府毛利家文書」(「豊公朱章参」 1: 『下關市史 資料編Ⅳ』, 下關市, 1996) 수록)

7월 16일
진주성 전투에 관해 말씀 올립니다. 지난달 22일 모든 부대가 진주성을 압박하여 밤낮 가리지 말고 공성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9일 申時, 제 진영 앞 오른편의 성벽을 무너트렸습니다. 이에 제 군세가 巳時에 성 안으로 진입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살하였습니다. 앞의 성벽은 구로다 나가마사도 함께 무너트린 것입니다. 이보다 경사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 정황은 勘使가 잘 보았으므로, 그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전라도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별 문제 없으므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追而申入候 仍晋州表之儀 去月廿二日諸勢押詰 築山仕寄等 無晝夜之堺 各被仰付候 然處同廿九日申剋ニ拙者手前之右石垣引崩候 依之諸手より巳時乘入 一人も不殘討果申候 右崩口仕寄 黒甲同前ニ申付候 大慶不過之候 樣子 勘使能々見及候之条 可有御尋候 此比赤國へ相働候 彼表之儀 無別條候間 可御心安候……"
가토 기요마사가 히젠 나고야의 소가 나오스케(曾我又六郎(尚祐))에게 보낸 서장
출전 : 「慶応大学圖書館蔵反町文書」(『加藤清正文書集』 19)

해설: 성벽을 무너트리고 첫 번째로 성에 진입하여 다수를 사살하였다는 자신의 전공을 당당히 보고하였으나, 히데요시로부터 이렇다 할 포상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이전까지 왕자생포 등, 기요마사가 올린 전공보고에 대해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히데요시의 칭찬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일로 생각된다. 『淸正高麗陣覺書』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진주성에 첫 번째로 진입하였다며 먼저 보고를 올려 가토 기요마사의 전공을 가로채려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기요마사 관련 군기물에서는 진주성 첫 진입과 같은 전공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실제로 진주성 전투 전공에 대한 제대로 된 포상이 없었다는 사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武家事紀』 권31에는 히데요시가 가토 기요마사군의 진주성 전투성과를 칭찬한 7월3

일 자의 주인장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원본이 없음은 물론, 다른 문서를 통한 방증도 불가능하다. 유사한 문서가 『淸正記』와 『加藤家傳淸正公行狀』에 실려 있을 뿐이다.

발급 날짜, 군기물을 연상시키는 상세한 전공거론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모리야마 츠네오 역시 이 문서에 실린 기요마사 부하들의 개명 건을 거론하며, 의문을 표한 바가 있다.(森山恒雄, 肥前加藤政権と重臣飯田角兵衛(1), 『市史研究くまもと』 5, 熊本市, 1994, 10~11면). 진주성 전투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우키다 히데이에와 고니시 유키나가가 각각 '목사의 머리'와 '대장급의 머리'를 바쳤다며 기뻐한 문서((1593년) 7월 11일, 우키다 히데이에에게 보낸 히데요시의 주인장(東京大學史料編纂所寫本 江藤本 黒田文書 中野等, 앞의 2006 책, 222면에서 재인용))과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에게 각각 내려진 문서((1593년) 7월 13일, 히데요시의 주인장(『小早川家文書』 349; 『毛利家文書』 917)) 등이 있다. 우키다 히데이에 앞의 주인장은 사본만이 존재한다. 히데요시의 회신이 7월 11일과 13일 자였던데 비해, 기요마사의 전공 보고가 7월 16일 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요마사가 전투 종료 후 보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보고를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전투 종료 즉시 올린 보고서가 있었다면, 재차 전공보고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공보고의 절차가 이전과 달라졌을 가능성, 그와 관련하여 장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604]

7월 22일

말씀 올립니다. 저는 그간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시니 폐를 끼쳤습니다. 멀리 이시다 미쓰나리에게 사신을 보내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들은 바로는 2~3일 전에 부산에 갔다고 하므로, 돌아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모쿠소성(진주성) 공격 시에 귀하께서 특별한 전공을 올리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며, 이는 물론 문서상에도 있었습니다. 부상을 입으셨다는 소식은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사신을 보내주셨을 때 저희들이 몸이 좋지 않아, 이시다 미쓰나리를 따라 웅천에 가지 못하고 부산에 머물러 있었기에 서장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울산에 가토 기요마사와 함께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은 곧 (전쟁이) 끝날 것이므로, 이시다 미쓰나리도 근일 귀환할 것입니다. 그동안 뵙

604) 김경태, 「임진전쟁 전반기,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동향-전공(戰功)의 위기와 강화교섭(講和交涉)으로의 가능성」, 『대동문화연구』 77, 2012.

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지에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파견한) 사신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93년) 7월 22일 (아타케 히데야스(安宅秀安) 인장)
사가라 요리후사(相良頼房) 님에게 출전 : 『相良家文書』 717

해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 기간 동안 조선에 직접 건너오지 않았다. 명령의 원활한 전달, 전공 보고 및 조사를 위해 실무적인 역할을 할 이들이 조선에 파견이 되었는데, 이시다 미쓰나리, 마시타 나가모리, 나즈카 마사이에 등이 대표적이다. 아타케 히데야스는 이시다 미쓰나리의 가신(家臣)이었다. 일본 장수들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의 '전공'을 이들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과장된 면들이 있음을 감안하고 이러한 사료들을 분석한다면, 제2차 진주성 전투 당시 나주의 의병, 관민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8월 9일
(도요토미 히데쓰구가 구로다 요시타카와 아사노 나가마사에게 보낸 감사장)
지난달 1일의 서장,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모쿠소성(진주성)을 6월 29일에 함락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두 사람이 분골쇄신한 일은 신묘함의 극치이다. 그 성에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섬멸하였고, 성주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 기쁜 마음이 든다. 계속하여 노고가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귀조하게 될 때 이야기를 듣겠다.
(1592년) 8월 9일 (도요토미 히데쓰구 인장)
구로다 요시타카
아사노 나가마사 출전 : 『淺野家文書』 84

2) 정유재란

1597년
1597년 2월 21일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
條條
1. 선봉 부대[先手]는 가토 기요마사·고니시 유키나가가 제비뽑기로 정하고 이틀에 한 번 교체한다. 비번인 경우는 2번 부대로 행동한다.
2. 3번째는 구로다 나가마사, 모리 카쓰노부(모리 요시나리), 시마즈 토요히사, 다카하시

모토타네, 아키츠키 타네나가, 이토 스케타케, 사가라 요리후사가 담당한다.

3. 4번은 나베시마 나오시게, 나베시마 카쓰시게.
4. 5번은 시마즈 요시히로.
5. 6번은 조소카베 모토치카, 도도 다카토라, 이케다 히데카쓰, 가토 요시아키, 구루시마 미치후사, 나카가와 히데시게, 간 미치나가.
6. 7번은 하치스카 이에마사, 이코마 카즈마사, 와키자카 야스하루.
7. 8번은 모리 히데모토, 우키타 히데이에. 이 두 사람은 같은 부대로서 교대로 행동한다.
8. 부산포성에는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와 군감찰 오타 카즈요시가 주둔하고, 선봉 부대의 보고 전달에 주의를 기울여 임할 것.
9. 안골포성에는 다치바나 무네시가가 주둔할 것.
10. 가덕도성에는 다카하시 나오쓰구, 쓰쿠시 히로카도가 주둔할 것.
11. 죽도성에는 고바야카와 히데카네가 주둔할 것.
12. 서생포성에는 아사노 요시나가가 주둔할 것.
13. 선봉 부대의 군감찰로서 모리 시게마사, 다케나카 다카시게, 가키미 카즈나오, 모리 토모시게, 하야카와 나가마사, 구마가이 나오모리 이상 6명을 임명한다. 서약서의 뜻을 엄수할 것이며, 장수들의 행동은 일자를 기재하여 공과 과를 구분하지 않고 매일 보고할 것.
14. 고려(조선을 가리킴)에서의 모든 행동은 7인(군감찰 7인을 가리킴)의 보고를 받은 후에 정당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뜻은 이미 밝혔으므로 그 뜻을 지켜, 친인척이나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편을 들어주지[贔屓偏頗]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할 것.
15. 선봉 부대의 행동은 모두의 상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결정할 것. 전공을 세우기 위해 한두 진영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여 상의를 해치는 자는 처벌할 것이다.
16. 누구라도 야외에서 주둔할 것.
17. 전라도는 남김없이 철저히 공략하고, 충청도와 그 외의 지역은 가능한 범위에서 공격할 것.
18. 수군이 행동할 때에는 도도 다카토라, 가토 요시아키, 와키자카 야스하루 3인의 의견에 따르고, 시코쿠 부대, 간 미치나가 및 각 부대의 공격용 선박은 함께 행동할 것.
19. 위의 군사 행동이 끝난 후에는 전략거점성[仕置之城] 왜성을 지을 장소를 논의하고, 다수결로 성주를 정할 것. 축성 등은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인 부대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후 작업에 임하게 할 것.
20. 위의 7인은 함께 7매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라는 뜻을 전하였다. 충의로 전공을 세운 자는 포상을 내릴 것이다. 만약 규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위의 7인이 말하는 대로 어떤 이라도 상관없이 하치만대보살께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뜻을 잘 체득하여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21. 만약 대명국의 대군이 조선의 수도에서 5일 거리나 6일 거리에 진을 친다면, 모두 논의한 후 그대로 보고할 것. 내가 말 종자만 거느리고 단기필마로 바다를 건너가서 즉시 토벌해버린 후에 대명국까지 공략할 것이다. 내가 계획하고 있던 대로이니, 방심하는 자는 처벌할 것이다.

이상

1597년 2월 21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출전 : 『島津家文書』 402 등에 수록 (병력배치표는 『島津家文書』 403 등에 수록)

8월 29일

부산포에 도착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 잘 하였다. 모두 상의를 거친 후, 부대를 두 개로 나누어 전라도 지역으로 침공한다는 계획은 좋다. 또한 보고서에서 이번에 번선(조선 수군을 가리킴: 역자 주)을 모두 토벌하여 해결하였다는 부분은 매우 좋다. 계속하여 보고하라.

(1597년) 8월 29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장)

모리 히데모토 님에게

출전 : 「長府毛利家文書」((『豊公朱章参』 2; 『下關市史　資料編Ⅳ』, 下關市, 1996) 수록)

해설: 1597년 7월 일본군의 재침공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부산에서 회의를 가진 후,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전라도를 침공하기로 하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7월에 있었던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 수군은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을 대부분 괴멸시켰고, 이 소식을 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크게 기뻐하고 있다.

3) 남원성 전투

8월 11~20일

8월 11일

해가 저물 때 인가(人家)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가득 찬 오곡 종류와 재보가 불에 타 없어지고 있다.

12일

남원으로 가는 길의 높은 산(지리산을 가리킴: 역자 주)은 일본에서도 본 적이 없는 산이다. 바위는 크고 검과 같이 솟아 있다. 여기는 또한 무서운 폭포가 있다. 이 폭포를 보면 온몸의 털이 곤두선다. 죽음의 산 삼도천이라 할 수 있다.

13일

남원성에서 5리 거리에 진을 마련했다. 이 성을 함락해야만 한다 하여, 저녁에 가까이 포위진을 쳤다. 대명인(大明人) 5~6만 정도가 농성하고 있다. (후략)

14일

내리기 시작한 비가 폭포와 같았다. 기름종이를 빌려 진영의 가옥에 씌웠으나 비가 무섭게 내렸다. 전설에 나오는 귀신의 한입에 삼켜지는 장면 같았다.

15일

(남원성에 대한) 공성 지시가 내려졌다. 다음날 미명까지 함락하라는 것이었다. 성벽 옆에 붙어 저녁까지 공격하였는데 철포와 반궁에 사상자가 많았다. 오오타 카즈요시 님이 첫 번째로 성에 올랐다.

16일

성 안에 있던 인원을 남녀 할 것 없이 몰살했다. 생포는 없었다. 그러나 조금 살아서 돌아간 이도 있었다.

17일

어제까지는 무슨 일을 할지도 몰랐는데, 오늘은 인생의 덧없음 인생무상을 느꼈다.

18일

날이 밝자 성 밖을 보았는데, 길에 시신이 가득하여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19일

이곳에도 성을 지키는 이가 있었으나 산야로 도망쳐버렸다.

20일

전라도의 치소로 접근하였다. 여기서 3일 정도 머무르다가, 히데요시의 명령이 도착하여 퇴각을 논의했다. 수도(한성: 역자 주)까지는 날씨도 추워지고 있으므로 진격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남원에서 부상당한 자가 많아 곳곳에서 약을 가져다주어 고맙기 그지없었다.

출전 : 케이넨(慶念), 『朝鮮日日記』 (주요 내용을 요약)

7월~10월

이 지시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본군은 7월 16, 17일 무렵부터 내륙으로 진격하여, 서생포에서 열흘길에 있는 전라도의 도읍인 전주라는 곳에서 기요마사와 유키나가의 두 부대가 합류

하였다. 여기서 서로 합의하여 길을 바꾸고 다시 두 부대로 나뉘었다가 10월 말에 돌아오셨다. 당시 일본인 한 사람 당 조선인 코 세 개씩을 베도록 할당받았다. 벤 코는 고려에서 감시역들의 확인을 거쳐 큰 통에 넣고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보내셨다. 이를 가지고 대불 앞에 무덤을 쌓으셨으니 오늘날까지도 코무덤은 대불 앞에 있다.

출전 : 『기요마사 고려진 비망록』 (김시덕 번역)

8월 일

남원을 공격하여 함락한 일

심유경이 사로잡힌 일은 양원이 행한 일이었다. 양원을 원망하였으나 사로잡힌 몸으로 이 상태로 회신을 보낼 방법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누국안을 보내어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말하기를, 남원에는 그다지 병력이 없으니 병사를 일으켜 포위를 한다면 쉽게 함락할 수 있을 것이다. 남원의 동쪽에는 운봉과 조령이 있고, 남쪽으로는 삼랑 큰 강이 있어, 바로 김해, 행도와 통한다. 바로 전라도의 문호이다. 여기에 기마무사가 있을 것이며, 조선의 요해처이다. 한산도는 조선 서해의 수구(水口)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병선을 두고 일본의 배를 저지한다. 이 또한 남원의 오른쪽 방어책이다. 총독의 계획은 양원에게 요동 병사 3천을 주어 이곳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또한 진우충에게 병사 2천을 인솔하게 하여 전주에 머무르면서, 남원에 만약 변이 생기면 구원하게 하였다. 또한 조선 장수 김응서, 이원익의 병사는 운봉 바깥에 있고, 권율의 병사는 한산도 안쪽에 있었다. 한산은 또한 원균이 수군을 지휘하며 지키고 있다. 각자 남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함께 응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를 써서 남원을 함락한다면 나머지는 공격하지 않아도 도망쳐버릴 것이라며 자세히 말해주었고, 이는 양원이 자신을 사로잡은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고니시도 남원을 빼앗아 태합(太閤)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중이었는데, 이에 매우 기뻐하며 남원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제 대장에게 즉시 서신을 보냈다. 7월 초에 큰 비가 내려 연일 그치지 않으며 밤낮으로 퍼붓듯이 하였는데 평지에서 배를 띄울 정도였다. 때문에 선부와 대동의 대명(大明) 지원 병력이 늦어져 중순에야 겨우 평양에 도달했다. 마귀도 7월 2일에 벽제까지 도착했지만, 긴 여정에다가 큰 비까지 겹쳐 이어지는 병사들이 모두 늦어졌다. 이때 수군에게 연락이 와서, 보병들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보고 조선 수영의 장수 원균이 한산도에 있었는데, 비밀리에 모의를 하여 병사를 움직여 중국군과 약속하여 부산성을 몰래 공략하고자 했다. 이때 조선의 김응서는 의령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원균의 계획을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알렸다. 유키나가는 남원을 공격하려 했는데, 원균의 수군이 뒤를 습격하려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듣고 풍무(豊茂)와 함께 수군을 보내어 원균의 수군을 습격하여 격파하였으며, 한산도도 차지하였다. 한산도를 손에 넣자 수군은 자유

자재로 왕래할 수 있었고, 기세를 뻗어 수군 한 병력은 2~3일 안에 광양 두치진에 들어가 후발 아군을 기다렸다. 이곳은 남원성에서 매우 가까웠기에 여기서 기회를 기다려 7월 28일부터 선봉이 출발하여 여기에서 전라, 경상, 충청 세 도를 공략하고자 했다.

고니시가 선봉이 되어, 우키타 히데이에를 대장으로 하고, 시마즈 요시히로, 가토 요시아키, 하치스카 이에마사, 조소카베 모토치카, 이코마 카즈마사 등을 포함하여 5만여 기가 경상도를 오른쪽으로 보며 운봉으로 움직여 남원을 공격했다. 다른 한쪽은 가토 기요마사를 선봉으로 하여, 8월 1일부터 점차 공격에 나섰다. 모리 히데모토를 대장으로 하여, 구로다 나가마사, 아사노 요시나가, 그 외에 주고쿠, 규슈의 병력이 함께 하여 5만 기가 경주에서 출발하여, 밀양, 대구를 거쳐, 전의관으로 침공하였다. 왕성(王城)에 있던 대명의 군세가 출격하여 전투에 임하였으나, 충청도는 남김없이 공략했다.

부산의 성에 주둔하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도 가로 야마구치 겐반노쇼를 대장으로 하여 난부, 이토 등 여섯 부대 8천여 기로 밀양에서 현풍으로, 동근에서 충청도에 들어가려고 했다. 조선의 권율, 이원익 등이 이끄는 병사가 운봉 부근에 가득 있었으나 좀처럼 저지하지 못하고 밀렸다. 일본 병력은 계속하여 증원되어 운봉 부근은 대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양원은 깜짝 놀라, 8월 10일에 재물을 넣은 함 두 상자를 평양으로 보냈다. 남원과 평양의 거리는 1천여 리이다. 고니시, 우키타는 역할을 나누었다. 심유경이 전주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줬기에, 제 대장은 전주에서 오는 병력을 막기 위해 시마즈 요시히로, 가토 요시아키를 배치했으나 진우충은 머리를 내밀 기미가 없었다.

8월 12일, 고니시, 우키타와 그 외 병력 4만여 기가 착착 성 아래로 압박해 들어가서, 산 아래를 방화하고, 사방을 대나무 숲과 같이 포위했다. 양원은 조선의 전라병마절도사 이복남과 함께 이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철포와 반궁(半弓)으로 방어하니 포위병이 조금 물러섰으나, 포위군은 대군이었기에 교체하면서 공격을 계속하며 포위망을 좁혀, 사방에서 새가 날 갯짓을 할 수 없을 정도로 10중, 20중으로 두껍게 에워쌌다. 그리고 운제(雲梯)를 만들어 성에 걸어 세운 다음 들어오려고 했다. 또 해자를 밤낮으로 메웠다. 해자 바깥으로는 목책을 삼중으로 만들어 성 안에서 돌격해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4일간 숨도 돌리지 않고 공성을 계속하여, 15일 한밤부터 포위군들의 총성이 멎고 공세를 조금 늦추었다. 성 안에서도 이때를 틈타 휴식하며 피로를 달래고자 하였는데, 16일 이른(일본군이) 아침부터 남문을 부수고 성 안으로 진입한 후 뿔피리로 신호를 하자, 우키타, 하치스카, 조소카베, 이코마, 도도 등이 서로 뒤질세라 공격 지점으로 돌진하였다.

양원은 장막 안에 누워 있다가 이를 듣고 놀라 일어나서 의복을 미처 입지도 못하고 맨발로 도망쳐버렸다. 전보관 영국윤은 급히 의복을 입고 쫓아갔다. 그 외 가자(家子) 18인은 서문으로 도망쳤으나 뿔뿔이 흩어져 주인의 간 곳을 몰랐다. 요동에서 온 병사 3,117인은 성을

빠져나와 3일째에 사사관(思肆館)에 도착했는데 살아남은 자는 270인이었다.
조선의 이복남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사졸(士卒) 낭종(郎從)과 함께 모두 성 안에서 전사했다. 고니시, 우키타와 그 외 대장들은 모두 전력을 다해 싸웠고, 3천여 명을 생포하여 부산의 성으로 보냈다. 그런 다음 급히 일본에 보고를 했다. 그런 다음 전주로 목표로 삼아 임실을 목표로 진군했다. 요동의 병사는 원래 남병보다 용맹하다고 하며, 기마의 달인이라고 하였으나, 일본인과 싸울 때는 매번 요동 병사가 이기지 못했다. 최초에는 조승훈이 고니시와 평양에서 싸웠다가 완전히 패배했으며, 이번에는 다시 양원이 요동 병사 3천여 기로 남원을 지켰으나 바로 함락되었다.
남병은 반면 매번 (일본군을) 이겼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동병은 일본인에게 익숙하지 못하여 항상 쉽게 여겼다. 남병은 일본인에 익숙하여 전술을 잘 알았기에 유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일본인도 남병을 두려워했다. 양원이 패배한 것은 (적을) 알지 못해서였다.

출전 : 堀杏庵, 『朝鮮征伐記』 권6

4) 전주 회의와 전라도 남부 침략

8월 28일
전주 회의
(우키타 히데이에 외 27인의 연서장)
이곳의 상황을 보고하려고 할 때에 두 명의 사신이 왔기에 말씀드립니다.

1. 전주성에 대명인(大明人)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므로 성을 공격하였는데 순식간에 퇴각해 버렸습니다. 이에 좌측 부대와 우측 부대가 모여 앞으로의 전투 수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회의하였습니다.
2. 청국(青國: 충청도)은 병력을 3개로 나누어, 좌군의 선봉은 고니시 유키나가, 시마즈 요시히로, 하치스카 이에마사, 이코마 카즈마사, 우키타 히데이에가, 중군의 선봉은 구로다 나가마사, 모리 히데모토, 우군의 선봉은 가토 기요마사, 모리 요시나리, 나베시마 나오시게, 조소카베 모토치카, 이케다 히데카츠, 나카가와 히데시게입니다. 이와 같이 전열을 갖추어 출발할 것입니다. 그 후에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에 모리 히데모토의 병력 2,000을 합하여 도합 35,000인이 청국(충청도)에서 즉시 백국(白國: 경상도)에서 두 사람이 주둔하는 성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축성을 할 것이며, 농사지은 곳이 있을 것이므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돌아가는 길에 거치는 곳은 공략하십시오. 축성에 대한 일은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병력과 아사노 요시나가가 도울 것입니다.
3. 나머지 병력 78,700인은 적국(赤國: 전라도)으로 돌아와서, 아직 공략하지 않은 수많은

지역이 있으므로, 지역 중 남는 곳 없이 바다와 육지를 함께 섬멸[海陸共ニ撫切]할 것입니다.

4. 수군 총 7,000여는 전주에서 돌아와, 적국(전라도) 항구 지역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5. 적국(전라도) 침공이 완료되는 대로 전략거점성[御仕置城] 축성에 임할 것입니다. 위의 사항은 다수결로 정한 것입니다.

(1597년) 8월 28일
우키타 히데이에
모리 히데모토
조소카베 모토치카
(이하 제 장수들의 연서)

출전 : 『中川家文書』 76

8월 일
첫 번째 담당구역 건
만경, 부안: 시마즈 요시히로
금구, 김제: 나베시마 나오시게
흥덕: 모리 요시나리
고부: 조소카베 모토치카
태인: 이케다 히데카츠, 나카가와 히데시게
무장, 영광: 주고쿠 무리(부대)
정읍, 고창: 하치스카 이에마사, 이코마 카즈마사
장성, 담양: 우키타 히데이에
부여, 옥과, 곡성: 고니시 유키나가
함평, 무안: 수군 무리(부대)

두 번째 담당구역 건
진원, 창평: 주고쿠 무리(부대)
나주: 조소카베 모토치카
광주: 이케다 히데카츠, 나카가와 히데시게
보성, 장여: 우키타 히데이에
동복: 모리 요시나리
화순, 능성: 나베시마 나오시게
남평, 영암: 하치스카 이에마사, 이코마 카즈마사

강진, 해남: 시마즈 요시히로
낙안, 순천, 광양: 고니시 유키나가
여서: 수군 무리(부대)

우군
10,000: 가토 기요마사: 용담, 진잠
5,000: 모리 요시나리: 무주, 옥천
12,000: 나베시마 나오시게: 금산, 회덕
3,000: 조소카베 모토치카: 진산
2,800: 이케다 히데카츠
1,500: 나카가와 히데시게
합계 34,000

중군
5,000: 구로다 나가마사: 고산, 여산, 은진
30,000: 모리 히데모토: 연산, 니산, 공주
합계 35,000

좌군
14,700: 고니시 유키나가: 익산, 함열
10,000: 시마즈 요시히로: 용안, 석성
9,700: 하치스카 이에마사, 이코마 카즈마사, 부여, 임피
10,000: 우키타 히데이에: 옥구
합계 44,400

수군 무리(부대)
함평, 무안, 진도, 흥양

이상 출전 : 『鍋島家文書』 133

* 일본 장수 인명의 경우 원문에는 성과 관명으로 쓰여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름으로 표기하였다.

우군 부대
10,000 가토 기요마사
12,000 나베시마 나오시게
3,000 조소카베 모토치카
2,800 이케다 히데카츠
1,500 나카가와 히데시게
5,000 모리 요시나리

북

진잠	회덕	옥천
	진산	
고산	금산	
금주	용담	무주

남

출전 : 『鍋島家文書』 134

(문서 포장지의 메모) 조선국 전라도로 향할 때 부교(奉行)들이 주신 문서이다. 이들 9인은 고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통역하는 이를 통해서 이들 7인을 불러내서 각 지역에 보냈다.

권농(勸農)
색장(色掌)
서원(書員)
이 3인은 곳곳에서 역할을 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이들이다. 이들을 불러내어 여러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방 병방 호방
예방 공방 형방
이 6인은 관중(官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들이다. 백성 중에는 없으며, 이들도 불러내어야 한다.

* 원본에는 각 명칭 앞에 일본어 발음도 함께 적고 있다.

출전 : 『鍋島家文書』 135

(문서 포장지의 메모) 조선국 전라도에 진입할 당시, 우키타 히데이에 님이 만들어 준 고찰(高札)의 사본

1. 군현은 지금 이후에 사민(士民), 백성 모두 향읍으로 환주하여 농경에 전념할 것.
2. 상관(上官)의 경우 곳곳을 수색하여 찾아내 주륙할 것. 부(付): 상관의 처자식 부류는 주살할 것. 부(付): 관인(官人)의 가택은 방화할 것.
3. 군현에서 사민과 백성 할 것 없이, 관인이 숨어 있는 곳을 고발하는 이는 포상한다.
4. 지금 이후 죽음을 면제받았음에도 군현의 인민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깊은 고을이라도 모두 방화하여 주살할 것이다.
5. 패문의 내용을 어기고 왜졸을 살해하는 흉악한 인민이 있다면, 모두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문서로 보고할 것.

위의 조항을 어기지 말 것.
경장 2년(1597) 9월 일
(일본 비젠주나곤 히데이에 인장)

출전 : 『鍋島家文書』 122

해설: 이 문서는 일본군 각 장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점령(시도) 지역에 내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서로 확인되는 지역은 강진, 해남, 곤양, 단성 등이다.

전라도 강진현의 18개 지역(社)
현내(府中) 영천(동쪽 5리) 서두리(동쪽 10리)
대곡(동쪽 20리) 칠량(남쪽 25리) 대구(남쪽 40리)
보암(서쪽 30리) 백도(서쪽 50리) 파지대(서쪽 40리)
지품전(서쪽 20리) 비라내(동쪽 10리) 고군내(북쪽 35리, 병영이 있다)
이지(북쪽 30리) 초곡(북쪽 40리) 열수(북쪽 35리)
암천(북쪽 50리) 고읍(서쪽 40리) 안주(서쪽 40리)

위에서 축적한 곡식의 수
1. 종자 조(租) 1,549석 5말
구례(舊例)의 환곡 및 토공미 5,711석 5말
위의 4분의 1 및 5분의 1에 해당하는 쌀 1,152석 12말은 일본으로 상납
2. 종자 콩(太) 237석 1말
구례의 환곡 1,912말

위의 4분의 1 및 5분의 1에 해당하는 쌀 239석은 일본으로 상납
3. 종자 보리(麥) 74석
구례의 환곡 136석
위의 4분의 1 및 5분의 1에 해당하는 쌀 27석 13말은 일본으로 상납

올해 일본 상납분
쌀, 콩, 보리 합계 1,418석 13말여

경장 2년(1597) 정유 소춘(小春) 초9일
태장원 명림

* 원본에는 각 명칭 앞에 일본어 발음도 함께 적고 있다.

출전 : 『鍋島家文書』 123

금구, 김제 두 군에서 획득한 수급에서 벤 코의 수에 관한 일
합계 3,369개임
이를 분명히 수령하였습니다.
(1597년) 10월 1일
가키미 카즈나오

출전 : 『鍋島家文書』 121

진원군에서 획득한 수급에서 벤 코의 수에 관한 일
합계 870개임
이를 분명히 수령하였습니다.
(1597년) 9월 21일
구마야가 나오모리
가키미 카즈나오
하야카와 나가마사
깃카와 히로이에 님 진영

출전 : 『吉川家文書』 138

수령한 코의 수에 관한 일
합계 480개는 분명히 수령하였습니다.
하야카와 나가마사

(1597년) 9월 1일 출전 : 『吉川家文書』 716

수령한 코의 수에 관한 일
합계 792개는 분명히 수령하였습니다.
하야카와 나가마사
(1597년) 9월 4일
깃카와 히로이에 님 진영 출전 : 『吉川家文書』 717

수령한 코의 수에 관한 일
합계 358개는 분명히 수령하였습니다.
하야카와 나가마사
(1597년) 9월 7일
깃카와 히로이에 님 진영 출전 : 『吉川家文書』 718

수령한 코의 수에 관한 일
합계 641개는 분명히 수령하였습니다.
하야카와 나가마사
(1597년) 9월 9일
깃카와 히로이에 님 진영 출전 : 『吉川家文書』 719

수령한 코의 수에 관한 일
합계 437개는 분명히 수령하였습니다.
하야카와 나가마사
(1597년) 9월 11일
깃카와 히로이에 님 진영 출전 : 『吉川家文書』 720

수령한 코의 수에 관한 일
합계 1,245개는 분명히 수령하였습니다.
하야카와 나가마사
(1597년) 9월 17일
깃카와 히로이에 님 진영 출전 : 『吉川家文書』 721

보내 주신 서찰을 받고 기뻤습니다. 진원과 영광 두 군에서 사루미('사람'을 가리킴: 역자 주)를 처단하고 벤 코의 수가 합계 10,040개입니다. 분명히 수령하였습니다. (하략)
(1597년) 9월 26일
가키미 카즈나오
구마가야 나오모리
하야카와 나가마사
깃카와 히로이에 님께

출전 : 『吉川家文書』 722

해설: 조소카베 모토치카는 정유재란 시 6번 부대에 소속되어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이후의 침략 계획을 논의하였고, 우선 전라도를 침략한다. 전라도에 진입한 일본군은 8월 26일 전주에서 회의를 가졌고, 모토치카는 가토 기요마사가 선봉으로 있는 '우군(右軍)'에 속하여, 전주에서 북상한 후 전라도 북단인 진산까지 나아갔다. 이후 그는 가토 기요마사를 제외한 다른 '우군'과 함께 전주 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하하여, 9월 16일 정읍 회의에 참여했다. 여기서는 이전 전주 회의에서의 방침에 따라 전라도 지역 '섬멸계획'이 상세히 결정되었다. 이것이 사료에 보이는 '첫 번째 담당 구역'과 '두 번째 담당 구역'이다. 이 사료에서는 전라도 지역명과 담당 장수명이 열거되어, '두 번째'에 기재된 지역은 전자보다 남쪽에 위치하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역 순으로 남하하는 계획이었다.

모토치카는 첫 번째에 고부, 두 번째에 나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선 정읍에서 서진하여 고부를 침공한 후, 남하하여 나주로 갈 예정이었다. 다른 장수들의 움직임이 정읍 회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조소카베 모토치카의 부대도 9월 중순에서 앞의 계획과 같이 고부-나주 순으로 침공했던 것으로 판단된다.[605]

전라도 남부를 침공한 일본군은 현지 지배를 시도하였으나, 이는 강한 폭력성을 동반한 것이었다. 생산을 담당할 사민들 외에 상관이나 관인은 사살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조선인의 목을 베거나, 코를 베어 이를 본국으로 보냈다. 조선인의 코를 수령한 일본군 실무 담당자들은 증거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위에서 소개한 '코 영수증'은 일부일 뿐이며, 다른 일본군 장수들의 문서군에서도 다수가 발견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으로 보내진 조선인의 코를 모아 교토(京都)의 호코지(方廣寺) 앞에 '코무덤(鼻塚)'을 만들고, 세이쇼 죠타이를 대표로 하여 '공양' 했다. 나주의 상황도 다른 지역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

605) 津野倫明, 『長宗我部氏の研究』, 吉川弘文館, 2012.

정된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무력하게 이들의 침공에 당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며, 일본군 현지 지배의 어려움이나 수많은 조선인 희생자들의 수를 보자면 조선인의 저항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9월 16일
정읍 회의
(우키타 히데이에 외 14인의 연서장)
말씀을 올립니다.

1. 앞서 전주에서 사신을 보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청국(충청도)으로 진군하여 지역의 과반 지역까지 전진할 것이며, 그 후 적국(전라도) 중에서 남은 지역들을 각자 담당하여 침공할 것입니다. 완료되는 대로 전략거점성 축성에 임할 계획.
2. 이번 청국(충청도), 적국(전라도)을 침공한 상황을 자세히 지도[絵図]에 기대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진상할 것.
3. 전략거점성은 모두가 회의를 하여 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수성(守城)할 성에 대해서는, 원래 백국(경상도)의 성이었으나, 적국(전라도) 순천군 내로 정하였음.
4. 부산해(釜山海: 부산 지역의 일본군 주둔지를 가리킴)에 대해서는 원래 다치바나 무네시게가 주둔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으나 일본에서 상륙하는 입구에 해당하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를 올리고 명령을 받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모리 요시나리가 주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
5. 다치바나 무네시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나 아직 젊은 나이이므로, 시마즈 요시히로와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주둔하는 성 사이에 성 하나를 마련하여 주둔하게 하자는 의견.
   이러한 뜻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1597년) 9월 16일
(14인의 연서)
마에다 겐이
마시타 나가모리 님
이시다 미쓰나리 님
나즈카 마사이에 님

출전 : 『島津家文書』 988

(우키타 히데이에 외 12인의 연서장)
말씀 올립니다.

1. 이곳은 지난해 적국(전라도)을 침공할 때, 정읍이라는 곳에서 모두 회담을 하여 다수결에 따라 담당할 전략거점성 장소와 축성 인원 등의 대강을 정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하략)
(1598년) 정월 26일
(12인의 연서)
이시다 미쓰나리 님
나즈카 마사이에 님
마시타 나가모리 님
마에다 겐이

출전 : 『島津家文書』 1206

9월 16일
정읍에 체재하였다.
하치스카 이에마사 님의 거소에서 여러 다이묘들이 회담을 하였다. 주군(시마즈 타다쓰네) 님이 출석하였다.

출전 : 『面高連長坊高麗日記』(『改定史籍集覽』 25, 1932)

9월 23일~10월
(정읍-장성을 거쳐 9월 23일 나주에 진입)
9월 23일
진영에서 진시에 출발하여 3리 정도 이동하여, 唐人(조선인: 역자 주, 이하 조선인으로 번역)의 나주라는 고성(古城)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3리 정도 이동하여 서쪽에 있는 고을에 도착하여 진영을 마련한 것이 유시(酉時)였다. 이곳에서 반 길 정도 떨어진 곳에 큰 강과 다리가 있었다.
9월 24일
이곳에서 진시에 출발하여 3리 정도 떨어진 곳에 조선인의 고성(古城) 영암(에 도착) 여기서 2리 정도 가서 남구의 송산(松山)에 있는 고을에 진소를 마련한 것이 유시.
(9월 25일에 해남으로 이동하여 머무르다가 이동. '상관 사냥'을 함. 영암을 거쳐 다시 나주에 도착)
10월 13일
이곳에서 출발하여 나주성까지는 3리 정도였다. 나주에서 1리 반 길 거리에서 동쪽에 있는 고을에 진소를 마련하였다. 출발은 사시, 도착은 유시였다. 나베시마 님도 함께 했다.
10월 14일
진영을 교체하여야 했지만, 밤중이고 큰 비가 내려 머무르게 되었다. 밤에 비가 개고 바람도

서쪽으로 불었다.

10월 15일

진영에서 5리 정도 이동하여, 조선인의 성 근처에 야진(野陣)했다. 출발한 것은 사시, 도착한 것은 유시였다. 나베시마 님에게 비소병(肥少兵)의 사자가 찾아오셨다. 매사냥을 하였다.

10월 16일

이곳에서 4리 정도 이동하여 남쪽에 있는 곳에 진소를 마련했다. 앞에 강이 있었는데 이름은 담□. 나베시마 님에게 본조우위몬(本助右衛門)의 사자가 찾아오셨다.

10월 17일

군사들의 군량을 구하기 위해 체류했다. 매사냥을 하였는데 한 마리를 잡았다. 노획물과 관련하여 나베시마 님으로부터 사신이 왔다. 담양에 체류했다.

(이후 담양에서 순창으로 이동. 산성으로 피신한 양반 관인 '사냥' 행위. 군량 약탈을 위해 조선인 마을에 병력을 보냄. 기마병을 보내 조선인 납치 행위)

출전 : 『面高連長坊高麗日記』(『改定史籍集覽』) 25, 1932)

해설: 시마즈 다다쓰네의 부하 오모타카 렌초보의 일기. 정유재란 시기인 9~10월에 시마즈 다다쓰네와 나베시마 나오시게 군이 나주를 거쳐 갔음을 알 수 있다. 주변 지역에서 조선인 납치 행위 및 군량 약탈 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10월 일

조소카베 모토치카. 고부 나주를 침공

조선의 전라도에서의 전투에 관한 일(高麗赤國陣之事)

이 적국(赤國)이란 고려 8주를 나눈 것 중 하나이다. 적국 일국의 군의 수는 65개이다. 이를 배분하여 접수할 군으로 출발했다. 문록 5년 8월 2일에 고려 죽도를 출발하였다. 10월 4일까지 공격을 했다. 모토치카는 고부, **나주**라고 하는 두 군을 접수했다. 그런데 고부군은 그 해 7월 이전에 모두 퇴산한 상태였다. **나주**군(나주의 군사: 역자 주)도 다수가 퇴거하였다고 한다. 어느 지역이든 남겨진 것들은 모두 섬멸하고 코를 베었다. 이 군에서 토포한 것은 6천 6인이다. 코는 소금에 절여 1천 개씩 6개의 통에 넣어, 감찰관에게 건넸다. 이 나주의 공관은 기와지붕의 미곡 창고가 있었다. 들보가 6칸에 22칸의 건물이다. 3분의 1은 대두를 보관하고, 3분의 2는 백미를 보관한다. 가마니는 일본의 5두 정도의 크기이다. 이 공관에는 11일에 진영을 설치했다. 모토치카의 병력은 잡병 5천 6백 명이었다. 또 일본에서 건너 온 말이 2백 필, 고려에서 취한 짐소와 말이 천 여필, 또 생포한 당인(唐人, 조선인을 가리킴: 역자 주)이 모두 3백 여인. 이 인원과 우마를 먹이기 위해 이 백미와 대두를 사용했다. 또 떡을

만들거나 술을 잠그는데 자유로이 사용했다. (이후 진영을 불태우고 항구로 이동. 시마즈군의 사천성을 축성: 후략)

출전 : 『元親記』(『続群書類従　第二十三輯上』(続群書類従完成会, 1927年))

8월~9월 초

(주요 내용을 요약)

나베시마 카쓰시게(鍋島勝茂) 공은 전라도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군량이 부족하였다. 본가(나베시마가)의 군세는 피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카쓰시게 공이 생각을 짜내어 팻말을 세워 그 위에 "본 군진에 와서 쌀 한 되를 바치면 증서를 주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썼다. 그러자 원근 고을의 백성들이 이를 전해 듣고 크게 기뻐하며 쌀 한 되씩 가지고 와서 증서를 받아가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고, 하루에 2천여 석을 얻었다. 이로써 병사들은 체력을 되찾아 전라도로 들어가 공략을 시작했고, 담당한 성(지역)을 빼앗았다. 그중에서 시마즈 다다쓰네와 나베시마 카쓰시게 공은 전라도 손(巽) 방향 깊은 지역을 공략하였다. 타다쓰네는 해남이라는 곳에 진영을 마련하였고, 카쓰시게 공은 강진이라는 곳에 진영을 잡았다. 20일 정도 머물다가, 창원으로 귀환하였다.

출전 : 『直茂公譜考補』9 (佐賀縣近世史料 제1편 제1권)

해설: 일본군의 입장에서, 후대에 가문의 전공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문헌인 만큼, 적절한 사료 비판을 거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일본군은 전라도 북부지역까지 전진하였다가, 각자 담당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남하하는 과정이었으며, 나주 근방도 지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베시마 카쓰시게는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아들이다. 정유재란 시 나오시게와 함께 전라도 지역을 침공하였으며, 부친과 따로 활동하며 침략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9월 17일

(전략) 적국(赤國: 전라도)은 과반을 섬멸[撫切]하라고 명하시어, 청국(青國: 충청도)까지 조금 진군하였다가, 적국(전라도) 어느 곳이라도 주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진변(津邊) 한 지역을 침공하여, 상관(上官) 신분을 처자와 함께 처단하고, 집집마다 방화한 후, 백성 이하는 (숨은 곳에서) 나오게 하여 이전과 같이 어디라도 불러 모아 두도록 의정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진변 지역인 강진이라고 하는 곳을 배정받아, 내일부터 진군할 생각입니다. 다음 달 중순 정도에는 차완(ちやわん: 창원) 방면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후략)

(1597년) 9월 17일

(원문 주석: 살펴보건대 이 서장에 의하면 9월 중순에는 적국(전라도)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아직 창원의 성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도 두 분(나베시마 나오시게와 카쓰시게)이 8월 22일에 금구·김제까지 진군하였다가, 나오시게 공은 창원으로 귀성하고, 카쓰시게 공은 그곳에서 바로 전라도로 들어가 강진에 있으면서 20일 정도 체류했다가 죽도, 창원의 성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후략)

출전 : 『勝茂公譜考補』 (佐賀縣近世史料 제1편 제2권, 200~201쪽)

해설: 나베시마 카쓰시게의 전라도 침략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정해진 지시와 계획에 따라 전라도 각 지역을 침략하였으며, 지역의 관인과 양반은 가족 모두 살해하고 가옥을 방화할 것이며, 백성들은 불러 모아 현지 지배를 시도할 계획을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층 양반 중에는 일본으로 끌려간 이들도 많으며, 백성들이 일본군의 현지 지배에 따르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는 사실, 또한 일본군이 조선 백성들의 코와 귀를 베어 전공으로 삼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와 함께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후대에 가문의 전공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문헌인 만큼, 적절한 사료 비판을 거쳐 참고할 필요가 있다.

9월 12~28일

9월 12일

전해 들었다. 고려에서 귀와 코를 담은 나무통 15개가 왔다고 한다. 대불(大佛) 근처에 무덤을 쌓고 묻었다. 전쟁에서 일본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9월 27일

전해 들었다. 오늘 고려 사람의 귀와 코를 대불 서중문 앞 길가에 묻었다. 공양(後弔)을 위해 오산(五山)의 선승들이 시아귀(施餓鬼)를 행한다고 하였다. 출전 : 『義演准后日記』

9월 17일

교토에서 파발꾼이 왔다. 선광사(善光寺) 앞에서 대명(大明)과 조선 전사자들을 자구(慈救)하기 위해 큰 불사를 해야 한다는 지시였다. 상국사(相國寺)에서 이전과 같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내(세이쇼 죠타이西笑承兌)가 상경해야 한다고 하였다.

9월 28일

게이쵸 2년(1597) 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께서 우리나라 제 장수들에게 명하여 다시 조선국을 정벌하게 하였다. 이에 대명의 황제가 순망치한의 원모(遠謀)로 수만의 병사를 내어 구원하게 했다. 일본의 정예병이 성을 공격하고 땅을 공략했다. 그래서 무수한 이들을 격살했다. 장수와 병사들은 머리를 베어 올려 보내려 하였으나, 거리가 멀었기에 코를 베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수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자비

심이 깊어, 오산의 승려들에게 명하여 수륙재를 열고 공양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분묘를 세웠다. 이름하여 비총(鼻塚)이라 했다. 출전 : 『鹿苑日錄』

해설: 일본군이 베어서 가져간 코와 귀는 대부분 전투병이 아닌 일반 백성의 것이었다. '자비심', '공양' 역시 꾸며진 명분일 뿐이었다. 무방비한 이들의 코를 베어 이를 가지고 전공을 자랑하고, 있을지 모르는 '원한'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9월 23일

사신을 보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 지역(郡: 본 문서에서 군(郡)은 지역으로 번역하였다)의 백성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다고 하니 기쁩니다.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1. 조세 수납은 5분의 1을 받을 것인지요, 4분의 1을 받을 것인지요.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볍게 가볍게, 지나치지 않게 판단해 주십시오.
2. 백성들에 대한 규정에 대해 거듭 문의하셨는데, 일본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하면,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가옥을 불태우지 않고 바라는 대로 환주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이 감사하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백성처럼 대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관(上官)이나 무사(侍) 신분이 숨은 곳을 알려주거나 잡아서 오면, 포상을 하되 상관의 땅을 주거나 그의 고향을 영지로 준다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상관을 잡아오지 않거나 숨어 있는 집을 알려 주지 않는 자는 선방(先方: 조선을 가리킴)을 귀하게 여기고 일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므로, 깊은 지역(奥郡)과 같이 섬멸해버릴 것이라고 한다면, 대개 상관이 있는 곳을 안내해 주거나 잡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도에 있는 이들과 백성들은 영원히 원수지간이 될 것입니다.
3. 이렇게 한 후에 지역의 백성들의 수장이 되는 이를 인질로 두고, 조세 수납장을 가져다 두고, 인질과 수납장, 그리고 수장이 되는 이를 5~10인 정도 고니시 유키나가의 진영에 보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 장수들이 연서한 방문(榜文)도 세워 경솔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지역에서 실무 관리(肝煎)를 맡은 이의 이름을 별지에 써서 보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사신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추신: 귀하께 보내는 서장은 나베시나 카쓰시게와 시마즈 타다쓰네 두 분께 전해 주십시오. 지역의 조세 수납은 중요하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1597년) 9월 23일

구마가야 나오모리

가키미 카즈나오
하야카와 나가마사

이코마 카즈마사 님께 출전 : 『島津家文書』 ; 『舊記雜錄』 후편 40)

말씀드립니다.

1. 계신 지역(郡)은 이달 중에 안정시키시고(혹은, '비우시고'), 오는 1일부터 축성할 지역으로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2. 백성들이 돌아왔다고는 하나, 깊은 지역에 있는 무리가 오가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면 귀하께서 힘을 다한 조치도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깊은 지역에 지시하여 나오게 한 후에 귀하께서 진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3. 지역의 관소에서 관리를 담당할 이로 6인을 정하고, 또 한 촌락(村: 군 아래의 단위를 가리킴)에 3인씩 실무 관리(肝煎)를 담당할 이를 두십시오. 이들의 이름을 별지에 적어서 돌아온 백성들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이들은 고니시 유키나가와 협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4. 지역 내의 상관 및 무사 신분의 숨은 집을 백성들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거나, 잡아오게 하십시오. 백성들이 입으로만 감사를 표하는 것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이나 무사가) 숨어 있는 집을 알려주거나 잡아오게 하여, 상층부와 조선국의 백성이 영원히 통하지 않게 한다면, 일본에 충신(忠信)하게 될 것이므로, 그같이 지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조하지 않는다면 불충한 백성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므로, 깊은 지역과 같이 섬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시를 내린 후에도 동조하지 않는다면 매우 괘씸한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한 후에 귀환하십시오.
5. 이번 달 중에 우키타 히데이에 님이 화순 혹은 능주, 두 지역 중에 주둔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우리들도 주둔하고 있으므로, 오는 1일에 날씨를 보고 순천에 이르러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97년) 9월 26일
구마가이 나오모리 (화압)
시마즈 타다쓰네 님

해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파견한 군감찰 구마가야 나오모리, 가키미 카즈나오, 하야카와 나가마사가 이코마 카즈마사에게 보낸 서장. ① 조선 농민으로부터 걷는 조세율은 5분의 1, 혹은 4분의 1로 할 것. ② 농경 등 생업을 보장받은 조선 농민들이 말만으로

감사를 한다면 신용하지 말고, '상관(上官)'을 잡아 오던가, 그들이 숨은 곳을 밀고하는 성의를 보인다면 일본 백성과 같이 취급하고, 포상으로 경작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전달하고, 이를 나베시마 카쓰시게와 시마즈 다다쓰네에게 전할 것을 지시한 문서이다.[606]

정유재란 시 전라도 지역 침공 상황과 지배 정책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등장하는 지역은 해남, 강진, 화순, 능주이나 나주에서도 조소카베에 의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은 조선 백성을 포섭하여 생산의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상층 계층과의 분리를 통해 조선을 실질 지배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조선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의병을 이끄는 양반층을 포섭하려는 시도는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은 임진왜란부터 이어진 의병 봉기와 저항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5) 코베기

여러 장수들이 다시 조선에 건너가다. 부록: 남원 전투 및 조선인 코를 취한 일

일본과 조선의 화목이 깨져서, 게이쵸 2년(1597) 정월 중순부터 여러 장수들이 다시 저 나라에 건너갔다. 이번에도 가토, 고니시가 선봉이 되었고, 우키타 히데이에, 모리 데루모토가 대관(代官)을 맡았으며, 모리 히데모토가 두 사람과 함께 하였다. 이어서 시코쿠, 주고쿠, 규슈 등 이전의 여러 장수들이 남김없이 앞뒤로 바다를 건너 각 장소의 성에 입성하여 수비하였다. 수군은 도도 다카도라, 가토 요시아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참전하여 해상을 담당하였는데, 가라시마(唐嶋) 앞바다에 적선이 다수 있어 자칫하면 아군에 피해를 줄까 하여 토벌하려 하였는데, 대형 전선이 없어서 시도하지 못하고 모두 웅천 항구로 돌아와 대형 전선을 만들었다.

이곳은 가라시마에서 8~9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가라시마는 전선이 자유롭게 진퇴할 수 있는 곳이라 토벌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일본의 대형 전선이 앞뒤로 흐트러지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 종과 큰 북을 이용하여 신호하여 끝까지 나아가기로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금석과 같이 약속하였다.

7월 7일 밤중에 모두 웅천 항구에서 전선을 발진 (이하 가라시마로 향하면서 가토 요시아키와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경쟁) 해협 바깥에 있는 적선을 중간으로 뛰어들어 반시간 정도 전투를 치른 후에, 수십 인을 사살했다. (이하 와키자카, 도도 다카도라의 전공) 적의 대형

606) 北島万次, 『豊臣秀吉朝鮮侵略關係史料集成』, 平凡社, 2017에서 인용.

전선 3백여 척이 마침내 일본 배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후 부산포로 귀환했다.

7월 하순, (우키타) 히데이에와 히데모토를 양 대장으로 하여,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를 전봉으로 하여, 시마즈, 가토, 하치스카, 조소카베, 구로다, 깃카와, 아사노, 야마구치 지역의 여러 장수들이 두 갈래 길을 통해 남원을 공파했다. 적은 방어 계책을 잃고, 성주 양원은 도주했다. 여기에서 전라도로 향하자 진우충도 도망쳤다.

그 후 히데모토를 대장으로 한 군대는 전의관을 나온 후, 구로다 나가마사를 선봉으로 한 부대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전진하다가 직산에서 예상치 못한 대군을 만나 일전을 치르고 패배하여 후퇴했다. 이를 보고 나가마사가 직접 나서려 하자, (좌우의 부하 장수들이) 철포와 활로 응원하였고 상황이 양호해지자 모두 전투에 참가했다. (이하 직산 전투에서 공을 올린 장수들의 이야기)

그 후 다이코 공(도요토미 히데요시)이 명령을 내려, 붉은 나라(赤い國: 전라도를 가리킴)를 공략하고, 이에 방해가 되는 남녀는 모두 죽이라고 하였다. 다이코 공은 다시 명령을 내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불인(不仁)한 일이니, 모두 코를 잘라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제 장병들이 모은 코가 기천만이라고 하는 지도 모른다. 그 후로 조선인은 일본인을 만나기만 하면 곧장 손을 빌고 코를 가리키며 죽음을 피하고자 했다. 그래서 붉은 나라(赤い國: 전라도)에는 50년, 70년 후에 코가 없는 이들뿐이었다고 한다.

깃카와 부대도 코를 1만 8천여 개를 베어 소금에 절여 큰 통에 담아 일본에 보냈다. 그 후 제 부대에서 1만, 2만 개씩 보내어, 낙양(교토를 가리킴)의 대불 근처에 묻어 하나즈카(鼻塚)라고 이름하였다. 이는 전전해에 목사 판관의 성을 호소카와, 오노기, 하세가와 등이 공격했다가 실패한 것을, 다이코 공이 분하게 여겨 다시금 공격하게 하여 목사를 사살하였음에도, 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때 하남(河南) 병력(명나라 강남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역자 주) 2~3만 인이 사문(泗門: 사천(泗川)의 오기 혹은 오독일 가능성도 있음: 역자 주)이라는 곳에 성곽을 쌓고 있었는데, 우키타 히데이에가 이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9월 15일, 제 부대가 함께 사문의 항구에 착진했다.

곳곳에 공격 진지를 만들었는데, 동쪽은 히데이에, 남쪽은 도도 다카도라, 와키자카 야스하루, 서쪽은 구키 요시타카, 구루시마 형제, 북쪽은 가토 요시아키, 스가노 히라에몬을 배치하였다. 이날 밤 공격을 개시하여 사면에서 공성 무기로 공격하고, 원거리에서는 철포와 불랑기로 공격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찰나, 서풍이 구름을 걷어 달빛에 대낮같이 밝아졌다. 야스하루, 다카도라가 함께 모의하기를,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 적이 방어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전 부대를 투입하지 않으면 공격해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오늘 밤 중에 공격해야만 한다고 하여, 두 장수는 굳은 약속을 하고 성의 망루를 향하여

큰 철포 두세 발을 쏘고는 함성을 지르자마자 해자를 넘어 성벽 아래에 붙었다. 성 안에서도 크고 작은 돌을 비가 내리듯 던져 사상자가 많았고 성벽이 높고 (바닥이) 진흙이라 쉽게 오를 수가 없었다. 다카토라와 야스하루는 마침내 사다리를 만들어 올랐고 두 부대의 병사들이 진입하여 두 번째 성곽을 점령했다.

성 안에서도 이곳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목숨을 바쳐 방어하려 하였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이를 본 여러 장수들은, "앗! 도도와 와키자카가 성에 들어갔다. 공격하라"라고 하면서 3면에서 일제히 공격하자, 적도 계책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쳤는데 추격하여 죽이거나 사로잡은 이가 2천 4~5백이었다.

다음날 주변의 산야를 수색하여 모두 처단했다. 19여 일 간 여기서도 코를 벤 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 그 후 수군 장수들은 모두 해남으로 돌아와 10월 중순부터 각 요해지에 축성을 시작했다.

출전 : 『陰德太平記』 권79, 남원성 전투와 코베기

3. 미고증 의병 명단

- 기준자료인 『호남절의록』, 『금성읍지』, 『충의사록』과 기타 1차 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문중면담 및 제보를 통해 발굴된 인물이 존재.
- 이들은 자료에서 파악되지 않아 나주의병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나 향후 추가 조사 시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파악, 이번 자료에 미고증 의병으로 분류함.

연번	성명	본관/자/호	소속의진 및 활동
1	김몽서	商山/미상/미상	김천일
2	김몽희	商山/仲膺/미상	김천일
3	최경제	江華/미상/미상	병자호란
4	양진남	濟州/미상/미상	병자호란
5	이선필	咸平/미상/미상	병자호란

참고문헌

〈문헌자료〉
『國朝寶鑑』
『錦城邑誌』
『朝鮮王朝實錄』
『八賢行錄』
강동원, 『화순병자창의 일지』, 화순병자창의일지 편찬위원회, 2015.
權韠, 『石洲集』
김동수 교감 · 역주,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金壽恒, 『文谷集』
김익두 · 허정주 역, 『건재 김천일 전집』, 문예원, 2018.
나사침(나주나씨 금호종중역), 『국역 錦湖遺事』, 2018.
나오연,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체암 나대용 장군』, 세창문화사, 2015.
南九萬, 『藥泉集』
노기욱, 『임진 의병장 노인의 금계집 국역본』,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노기욱, 『임진 의병장 노인의 금계집 국역본』,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니해봉(나주나씨 남간공종회 역) 『국역 南磵集』, 2007.
柳成龍, 『雲巖雜錄』
柳成龍, 『懲毖錄』
李肯翊, 『燃藜室記述』
李敏敍, 『西河集』
李象靖, 『大山集』
李舜臣, 『亂中日記』
李舜臣, 『李忠武公全書』
李恒福, 『白沙集』
林懽, 『習靜遺稿』
閔鼎重, 『老峯集』
朴光一, 『遜齋集』
朴東亮, 『寄齋史草』
朴趾源, 『燕巖集』
사)광주전남충의사현창회, 『광주전남 오란충의사록』, 1992.
성해응(손혜리 · 이성민 역), 『연경재 성해응의 초사담헌』, 사람의무늬, 2015.
宋穉圭, 『剛齋集』

申炅,『再造藩邦志』
신해진 역,『호남병자창의록』. 태학사, 2013.
안방준(안동교 역),『隱峯全書』, 신조사, 2002.
양응정(양남진 · 양흥렬 역),『(국역주해)송천집』, 章山齋, 1988.
오산창의사편,『(國譯)南門倡義錄·鰲山詞誌』, 長城郡·鰲山倡義祠, 1997.
오희문(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역),『쇄미록』, 국립진주박물관, 2018.
魏伯珪,『存齋集』
尹國馨,『聞韶漫錄』
이순신(이은상 역),『완역 이충무공전서』, 성문각, 1989.
임전(풍천임씨감찰공파나주종중역),『(국역)명고집』, 2005.
임회(임동철 역),『역주 관해유고』, 지식과 교양, 2012.
張維,『谿谷集』
鄭慶雲,『孤臺日錄』
鄭文孚,『農圃集』
정상(정만호 역),『국역 창주 정상선생 유고』, 정문출판사, 2020.
鄭諶,『逸軒遺稿』
鄭琢,『藥圃集』
趙慶男,『亂中雜錄』
趙翼,『浦渚集』
조찬한(곽은정 외 역),『현주집』,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진경문(김경태 외 역),『섬호집』, 국립광주박물관, 2016.
최일출,『崔烈士傳: 鄕土義兵將 崔澳의 一代記』, 문학과현실사, 200.
洪千璟,『盤桓先生遺集』
『大日本古文書』(일본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편)

〈저서와 논문〉

김덕진,『전쟁과 전라도 지역사』, 선인, 2018.
김덕진 외,『한국사 속의 나주』, 선인, 2018.
나주시지편찬위원회,『羅州市誌』1, 나주시지편찬위원회, 2006.
목포대 박물관,『나주목의 재조명』, 목포대 박물관, 1989.
박성식,『壬辰亂의 晉州城 戰鬪』, 太和出版社, 1991.
양성현,『다시보는 임진왜란』, 책공장, 2019.
조원래,『임진왜란과 湖南地方의 義兵抗爭』, 아세아문화사, 2001.
조원래,『임진왜란이 남긴 호남의병항쟁사』, 전라남도 · 순천대학교박물관, 2001.

조원래, 『壬辰義兵將 金千鎰硏究』, 학문사, 1989.
김경태, 「임진전쟁 전반기,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동향-전공(戰功)의 위기와 강화교섭(講和交涉)으로의 가능성」, 『대동문화연구』 77, 2012.
김덕진, 「임진왜란과 晉州 三壯士」, 『역사학연구』 57, 2015.
김동수,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2007.
김만호, 「16~17세기 나주나씨(羅州羅氏) 일문(一門)의 활동과 그 의미」, 『역사학연구』 74, 2019.
김문택, 「16-17世紀 羅州地方의 士族動向과 書院鄕戰」, 『청계사학』 11, 1994.
김영나, 「임진왜란 시기 2차 진주성전투 순절자의 참전과정과 활동양상」, 『전북사학』 45, 2014.
나선하, 「16~17세기 나주 사족의 존재양상과 향권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14,2011.
박성식, 「계사 진주성전투 삼장사고」, 『대구사학』 20·21, 1982.
北島万次, 「壬辰倭亂과 晉州城 戰鬪」, 『남명학연구』 7, 1997.
조원래, 「金千鎰의 義兵活動과 그 性格」, 『史學硏究』 31, 1980.
조원래, 「第二次 晋州城戰鬪와 金天鎰의 戰功問題」, 『軍史』 5, 1982.
최재양, 「진주성 三壯士論爭 종식에 관한 소고」, 『국향사료보』 3, 1992.
하태규,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 2015.

〈인터넷 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집필
이　욱(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연숙(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
박현규(순천문화원 사무국장)

편집·교정·교열
선영란(나주시 학예연구사)
김태례(미디어민 대표)

나주의병사 2
자료편(조선시대 나주의병)

발행일　2022년 12월 26일
발행처　나주시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전화 061)339–4605　팩스 061)339–2922
펴낸곳　미디어민
6236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60
전화 062)971–0923　팩스 062)971–0929

비매품/무료
94090
9 791198 148841
ISBN 979–11–981488–4–1
ISBN 979–11–981488–2–7 (세트)

이 책의 저작권은 나주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단 게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南平縣
光州界
龜山
鳳山
東村面
和順界
鳳凰山
書院
衙
客舍
倉
鄉校
南山
縣內面
金山面
頭山面
錦城界
等介面
道己介面
魚川面
倉
西
竹谷面
德谷面
綾州界
猪浦面
倉
南
九峯山
芳谷面
茶峙面
佛會寺
長興界
錦城界